특 수 자 료
본 자료는 허가없이
공개 · 복사 · 반출등을 할수 없음

GOVP1198000203

관리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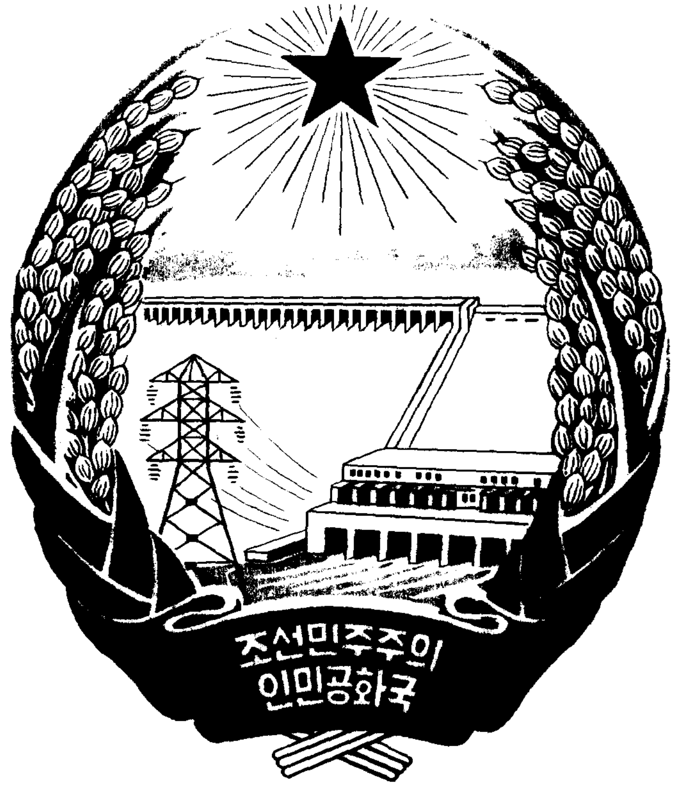
조선중앙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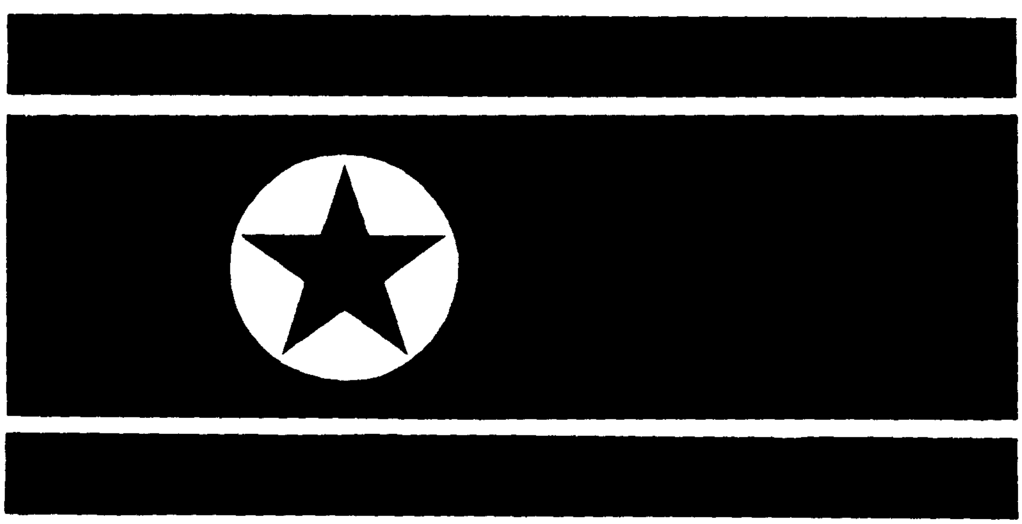
1969

조선중앙통신사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등록
1973 4.2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인 조선로동당과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40여년간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확고하게 인도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력사적인 보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하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아래는 경축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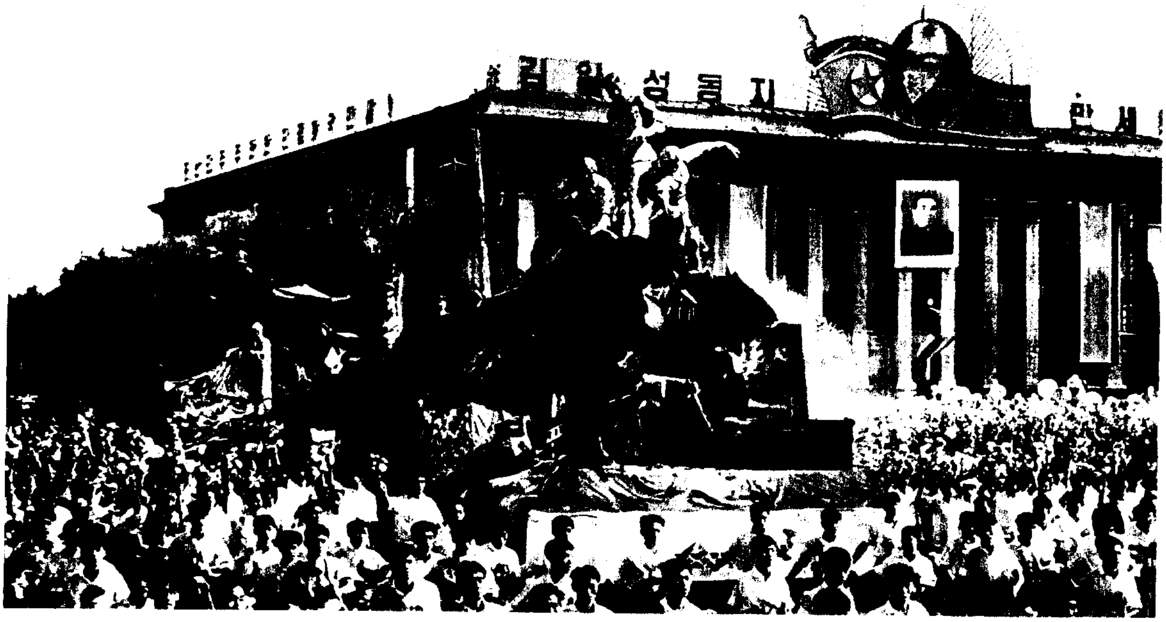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 평양시군중대회에 나오시여 30만군중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감격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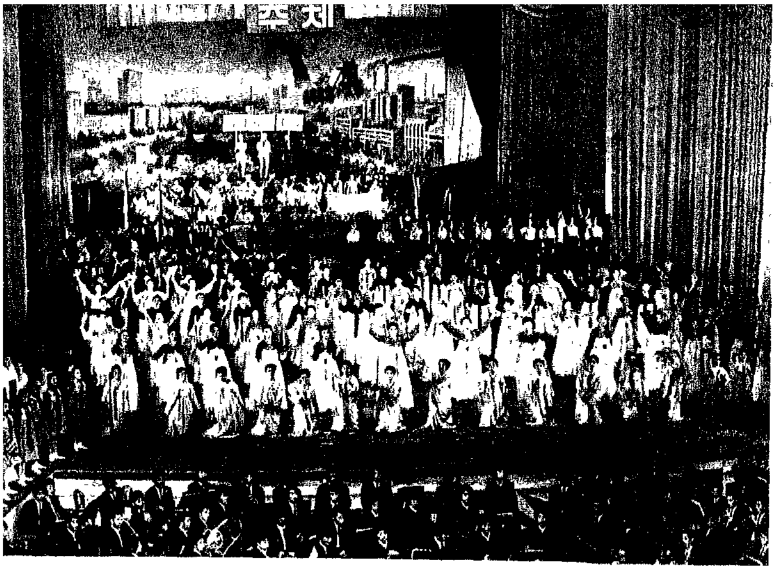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경축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30만 근로자들이 참가한 대군중시위가 있었다

사진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가장물시위대렬(상)과 조선로동당을 상징하는 가장물시위대렬(중)의 장엄한 행진





천리마의 고삐를 더욱 튼튼히 틀어잡고 사회주의건설의대고조를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전진,전진,투쟁 또 전진하는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시위대렬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경축하여 공연한 대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한 장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는 우리인민의 혁명적립장을 보여주는 시위대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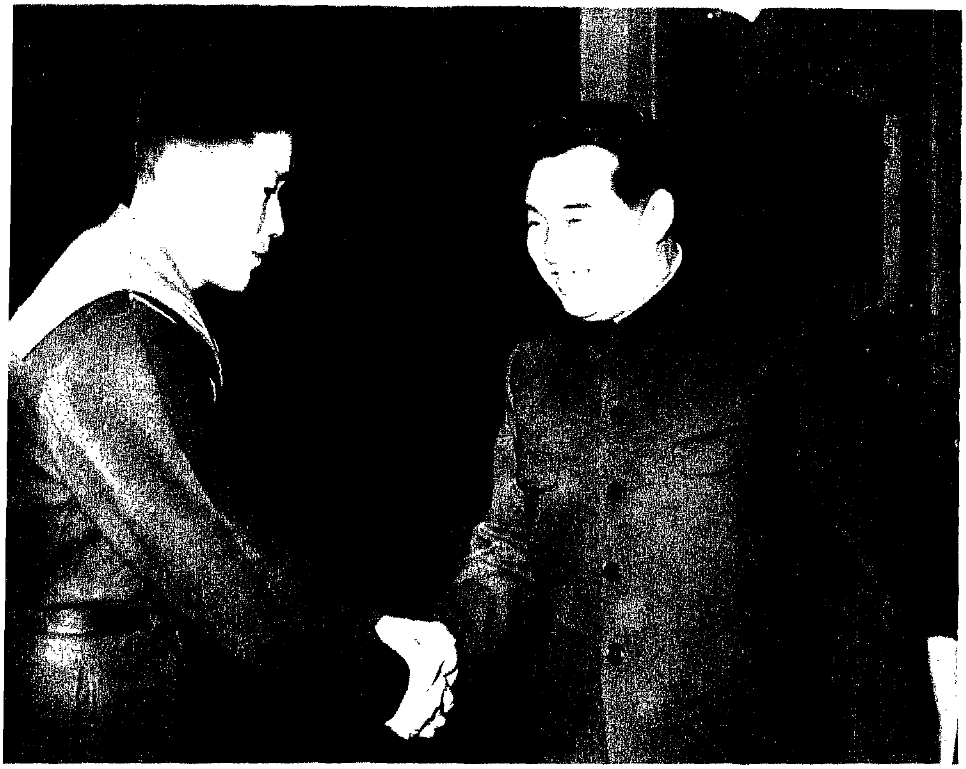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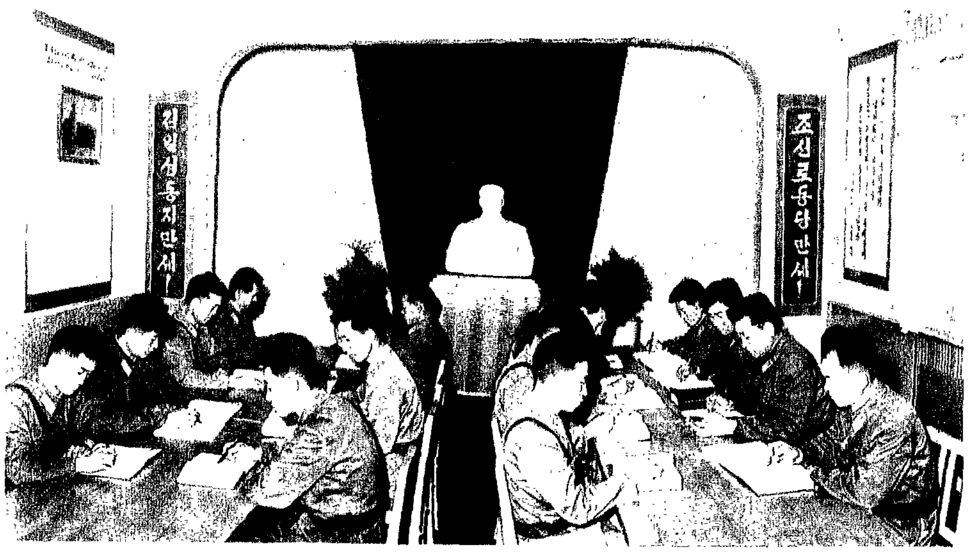
……공화국각지를……참관하고있는……외국손님들……↓

대군중시위를 참관하고있는 외국손님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는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경축연에 친히 참가하시여 나라의 믿음직한 초병들을 축하하여 주시였다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하여 모든 장병들은 그이의 혁명력사를 열심히 배우고있다



원쑤격멸에 튼튼히 준비된 우리의 로농적위대



일당백의 장수힘을 키우려 훈련장으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인민군 전사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원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초병이 있음으로하여 우리의 방선은 문자그대로 금성철벽이다



우리의 령해를 침범하는 원수놈들은 어느 때고 단매에 박산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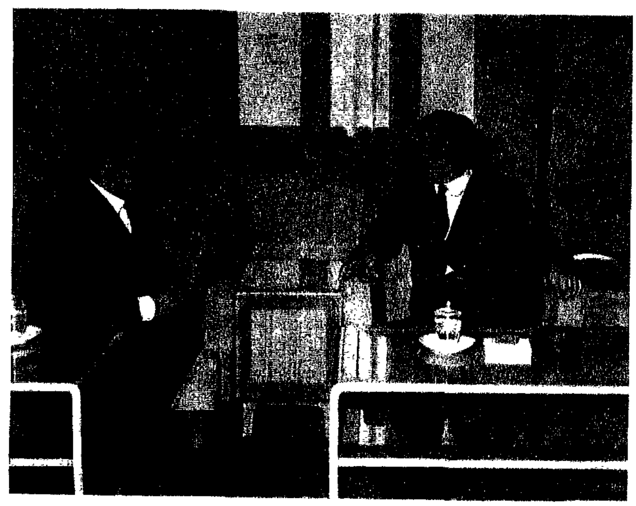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농업일군대회에 참가하시여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 참가한 천리마기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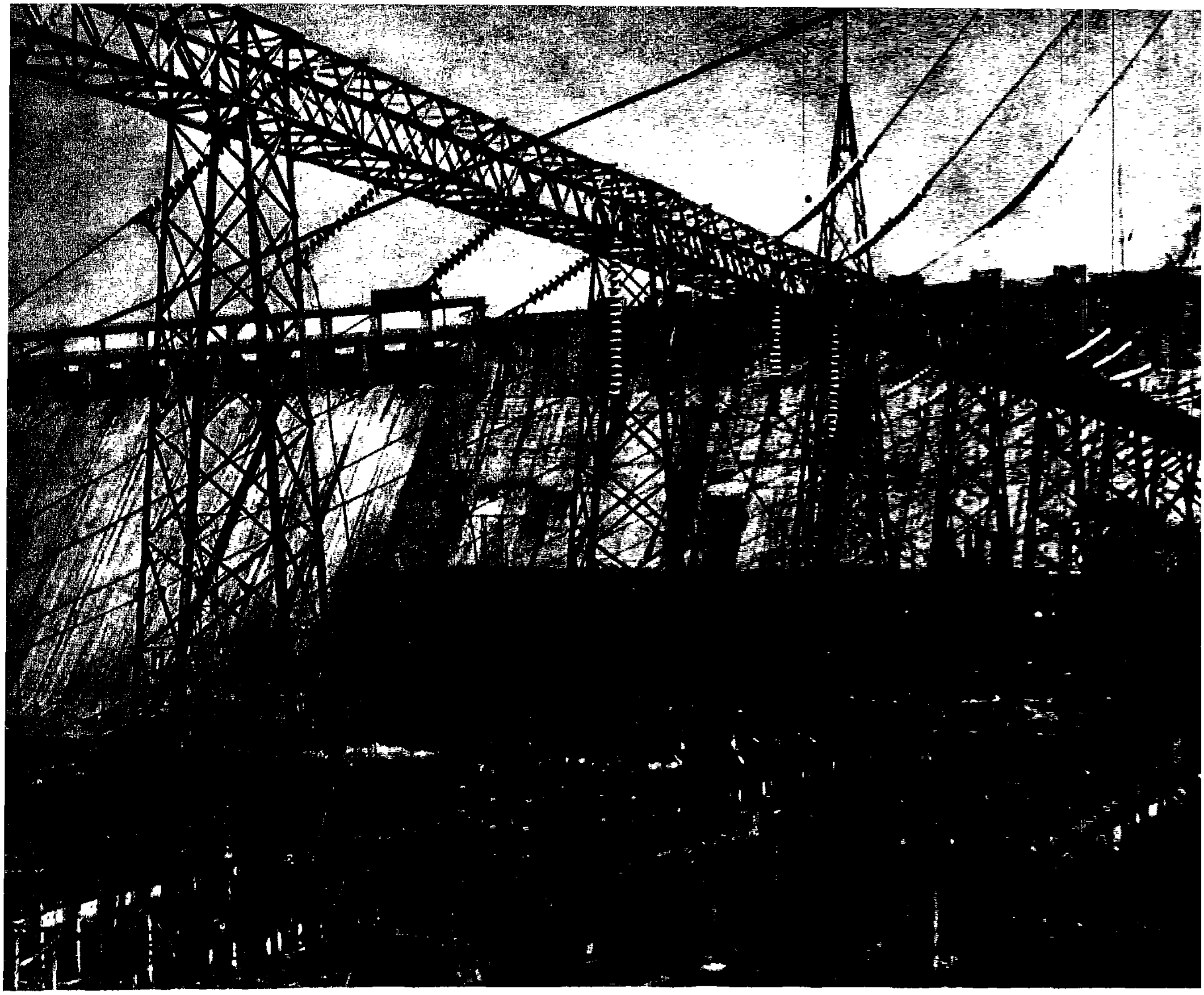
김일성수상께서는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를 친히 맞이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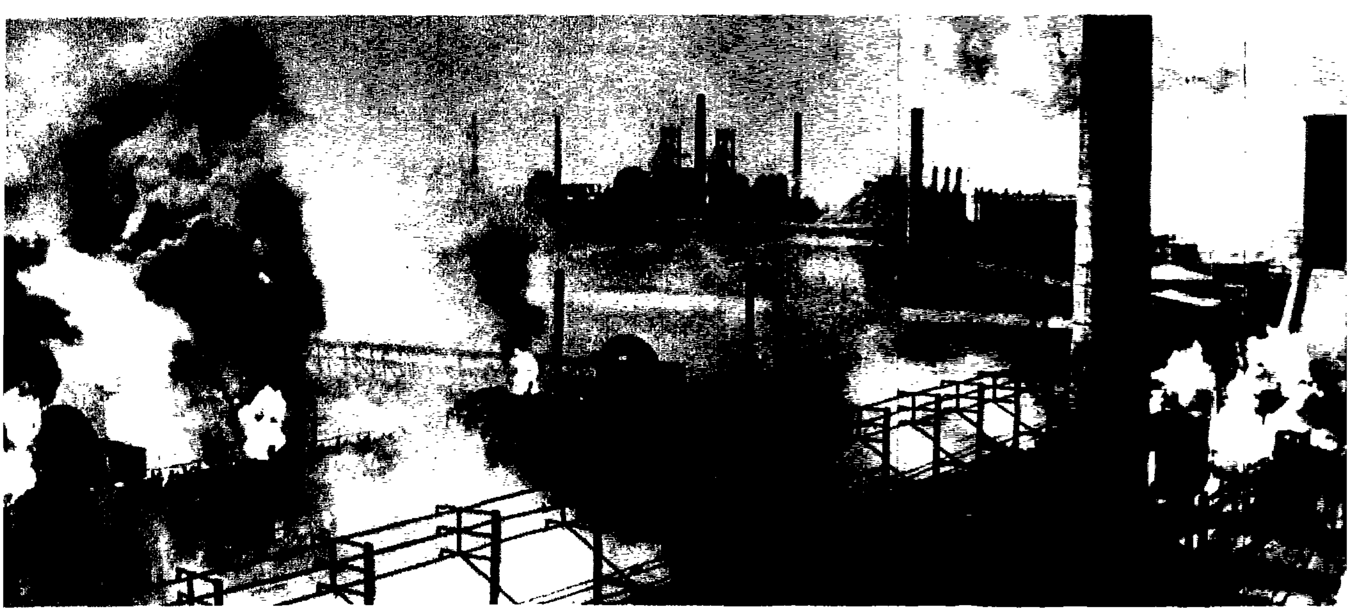
김일성수상께서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이라크공화국정부대표단을 만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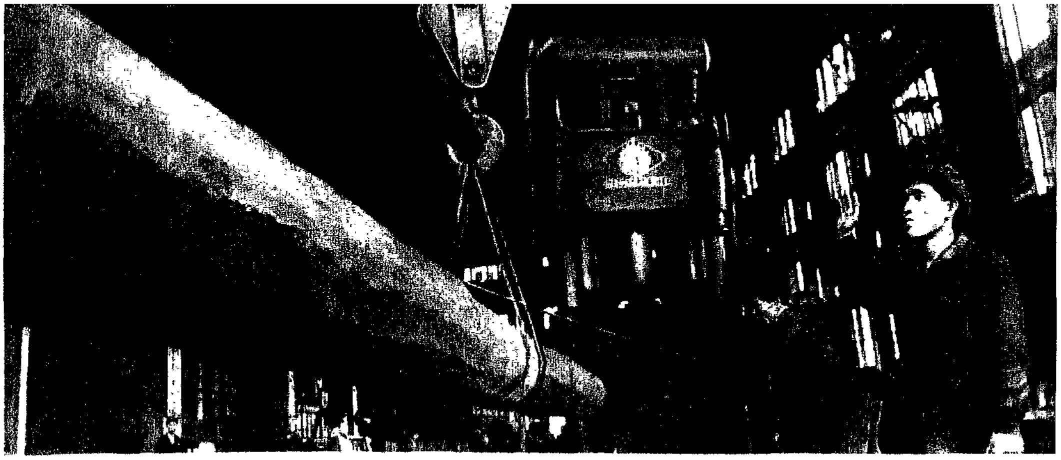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미야모도겐지와 함께 풍작을 이룬 협동벌을 돌아보시였다



날을 따라 눈부시게 발전하고있는 공화국의 믿음직한 동력기지



위용을 떨치며 날로 발전하는 우리의 제철, 제강공업



3천톤프레스를 만들어낸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은 또 다시 6천톤프레스를 만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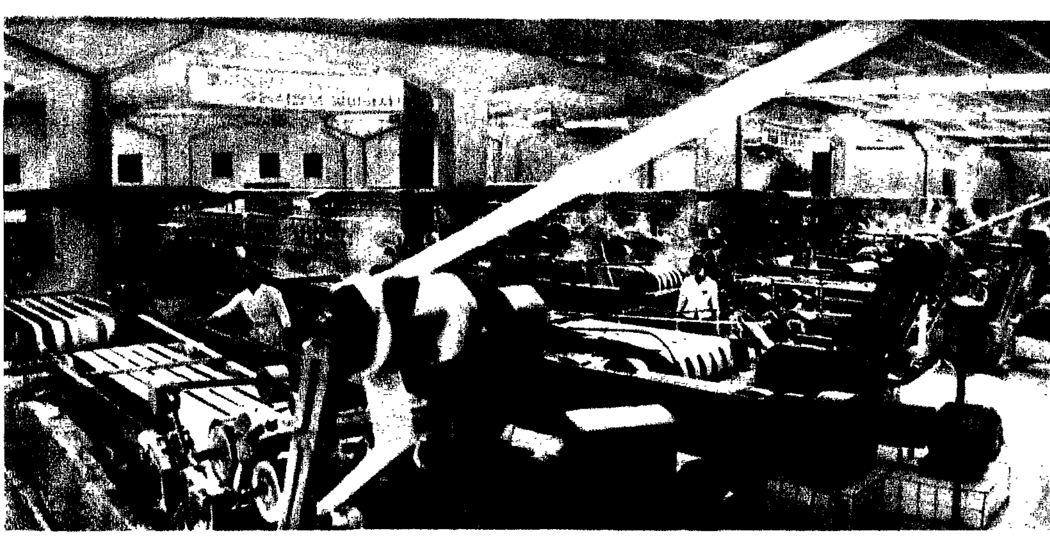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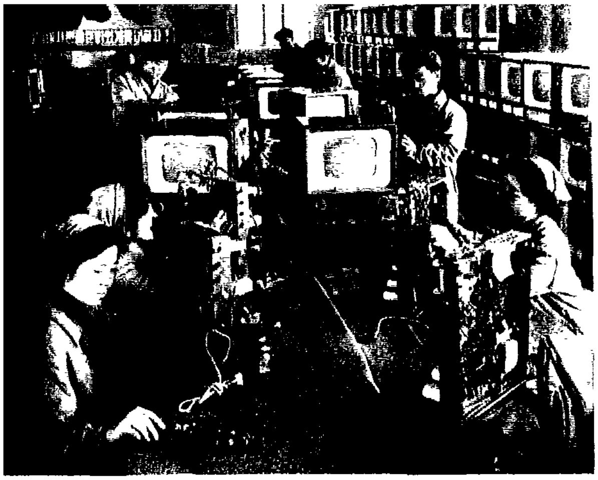
우리 나라 대자연개조에 크게 이바지할 굴착기를 많이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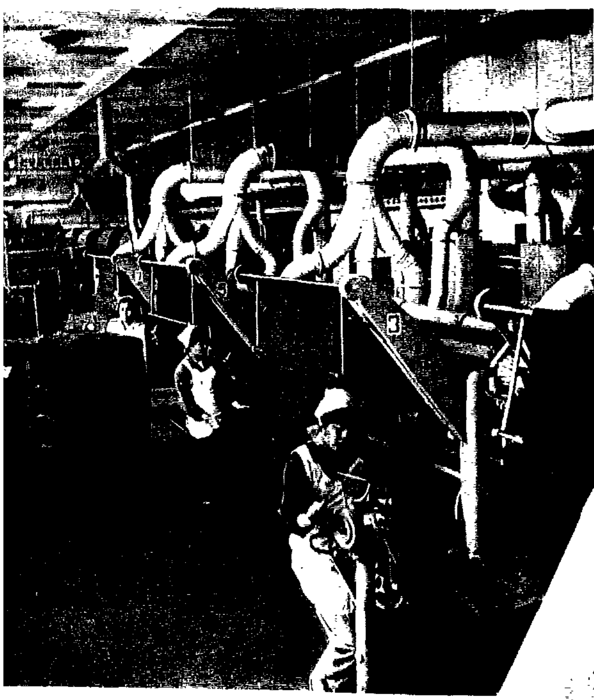
화학공업은 해마다 더 많은 화학비료와 농약들을 생산하여 알곡 정당 5백키로그람증수운동에 떨쳐나선 전국 농촌에 보내주고있다

물에서 비단실을 뽑고있는 8비날론공장 방사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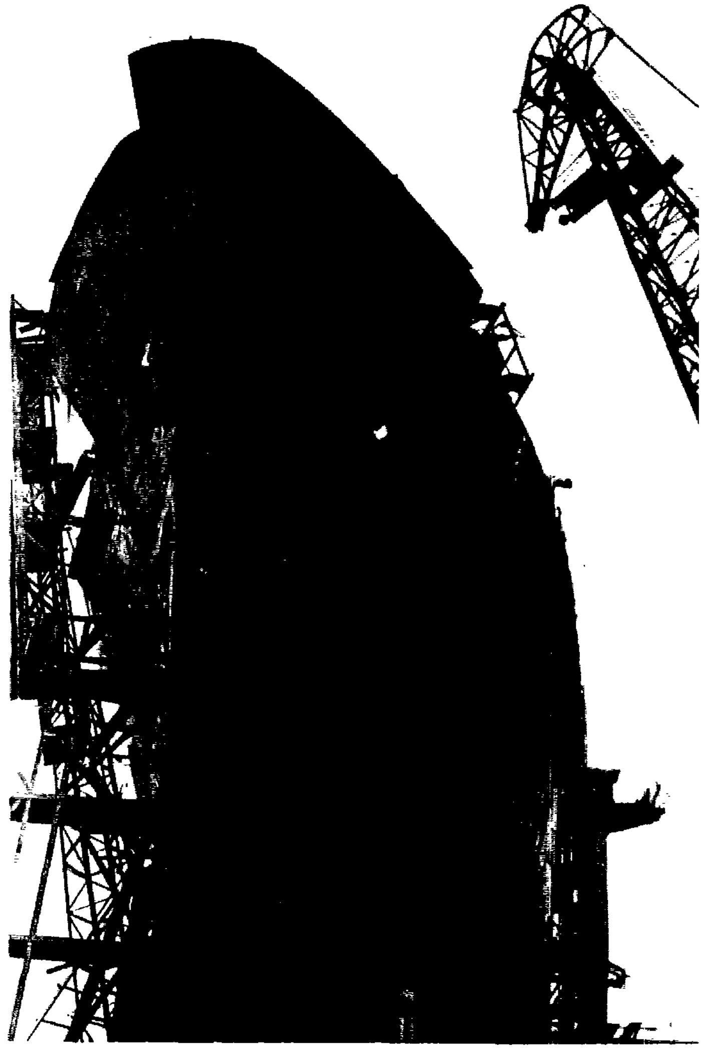




인민들의 문화생활에 크게 이바지할 텔레비죤생산을 다그친다.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더 잘 보장해주기 위하여 모직천생산을 다그친다.



우리 나라 조선공업은 필요한 각종 대형선박들을 우리의 자재와 기술로 척척 무어내고있다



자체의 조선공업을 가진 우리 나라 수산업은 현대적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원해와 근해에서 매일과 같이 만선기를 휘날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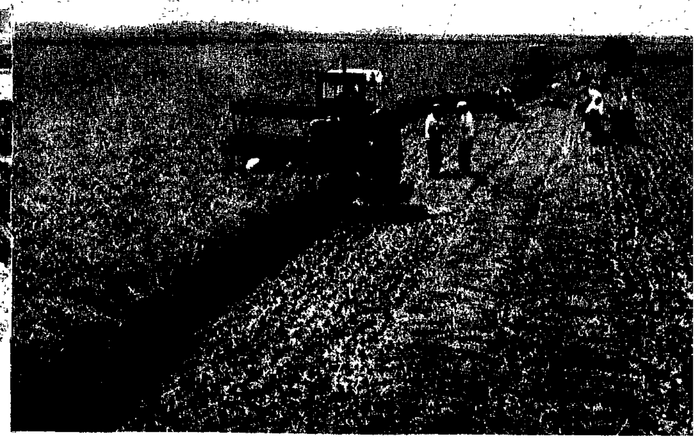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온 나라 농촌들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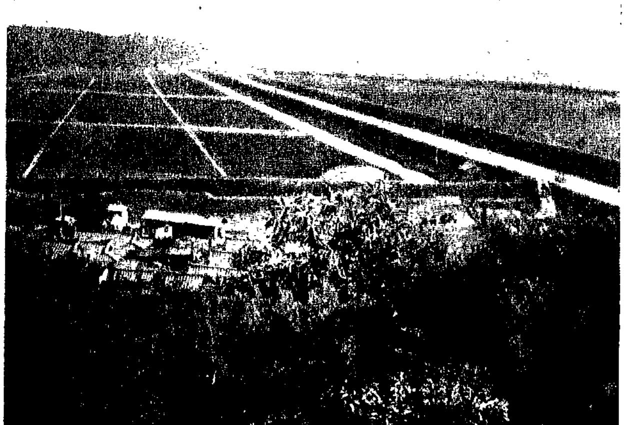


씨붙임을 하기전에 농약으로 김을 죽인다

농촌에서 힘들고 품이 많이드는 일들은 기계들이 해제낀다







관개수리시설이 발달되여 천년 가물과 만년 홍수를 모르게 되였으며 남새밭에는 분수식관개가 이루어져 해마다 알곡풍년에 남새풍년, 과일풍년을 맞고있다



미제강점하의 남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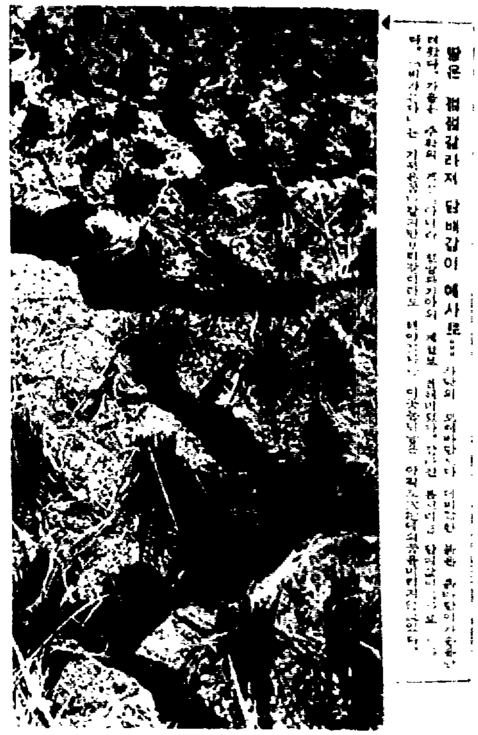
철천지 원수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산업은 자취를 찾기 어렵게 되었고 인구의 거의 70%를 차지하고있는 농촌은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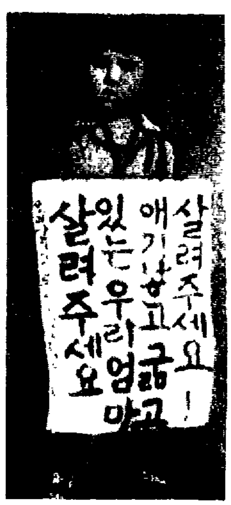
거리를 메우는것은 한창 젊은 장정들이 일할래야 일할 곳이 없고, 먹을래야 먹을것이 없어 시들어가고 병들어가는 참담한 실업의 사태이다



사흘만 비가 아니와도 가물로 타고 비가 오면 물란리를 겪는 남조선의 농촌, 가물에 논은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벼는 이삭도 내밀지못하고 타죽는다. 남조선출판물들도 이를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괴뢰정부의 반인민적 매국정책에 그 원인이 있음을 폭로하였다







천진란만한 웃음을 잃은 어린것들은 밥 얻으려나간 엄마,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낡아떨어진 로동화짝을 놀이감 삼아 거적문앞에서 해를 지우거나 돌보아줄 사람 없는 찬바람속에서 《살려주세요!》하는 소리없이 절박한 웨침을 부르짖고있다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수해로 인하여 수십만명의 리재 이 난다. 이들은 아무런 사회적보호도없이 버림받은채 하늘을 집응삼아 멀건 풀죽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간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하루빨리 나라가 통일되여 자나깨나 그리운 어버이 수령 김일성수상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길 그날을 위하여 일떠섰다.





◇[illegible]에 가족들도 [illegible] 한몫◇

로동자들은 미제와 그의 앞잡이 박정희역적무리들의 갖은 학대와 매국정책을 반대하여, 삶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하여, 합법, 비합법, 폭력적투쟁등 각종 형태의 싸움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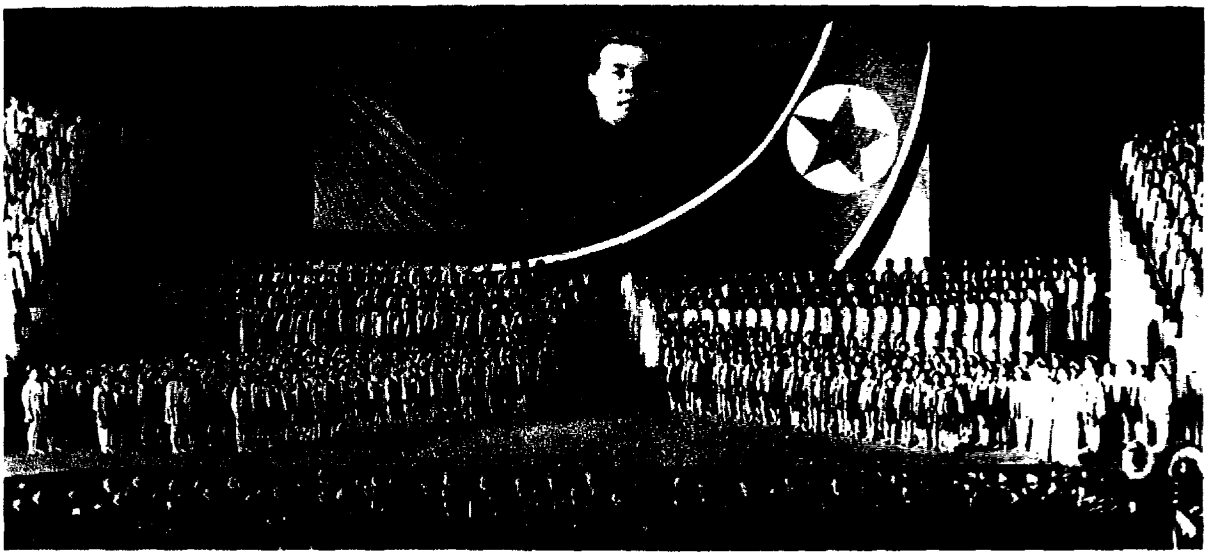
이러한 투쟁에는 그들의 가족들까지 합세하여 나선다

미국놈의 월남침략전쟁에 끌려나가 개죽음을 한 아들의 묘앞에서 통곡하는 남조선의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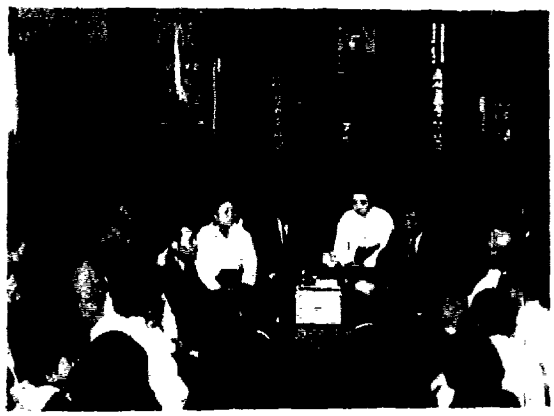
판자집 강제철거에 달려드는 괴뢰경찰놈들을 돌멩이와 몽둥이를 가지고 물리치고있는 서울의 가난한 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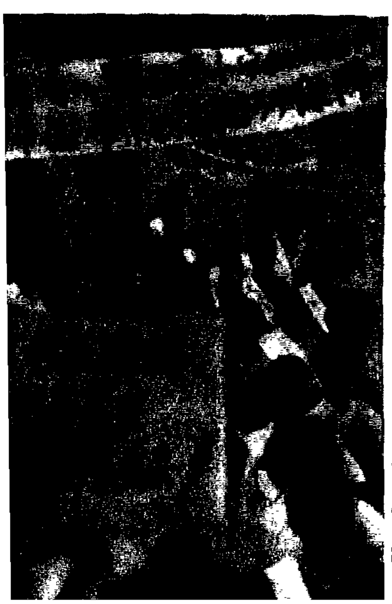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경축하여 재일동포들이 공연한 대음악무용서사시 《위대한 수령께 영광을 드립니다》의 한장면

일본에 있는 조선 소년들은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기 위하여 혁명전통학습을 열심히 하고있다





위대한 10대정강을 열심히 연구하고있는 재일조선동포들



민족교육과 귀국의 권리를 옹호하여,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리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재일조선동포들





차 례

김일성동지의 보고, 로작, 연설 및 축하문

× × ×

서 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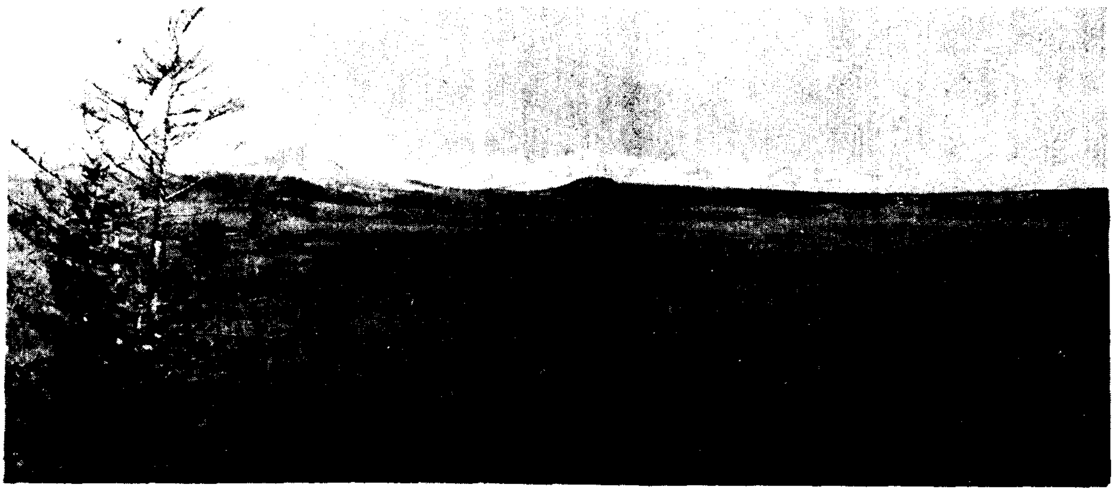
국 내

국 제

구라파주 ……………………………………439

아프리카주 ……………………………………463

문건 및 자료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련봉…

김일성동지의 보고, 로작, 연설 및 축하문

대한민국 국회 도서관 장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 1968년 9월 7일)

김 일 성

친애하는 동지들!

존경하는 외국의 벗들!

조선인민이 자기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독립국가를 창건하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밑에 새 사회,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선 이로부터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은 공화국이 걸어온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행로를 감회깊게 돌이켜보며 자기들의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이루어놓은 혁명의 전취물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혁명적결의를 굳게 다지면서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기념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뜻깊은 민족적명절을 맞이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우리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영광에 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동지들과 동지들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공화국을 창건하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많은 혁명투사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이 희생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기반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오랜 기간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이 깃들어있으며 간고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인민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몸바쳐싸운 참다운 애국투사들과 영웅전사들이 흘린 붉은 피가 스며있습니다. 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렬사들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또한 공화국의 륭성발전에 끝없이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전체 남조선인민들에게 형제적지지성원을 보냅니다.

이와 함께 나는 공화국의 기치밑에 해외에서 자기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는 60만 재일 조선동포들과 모든 해외조선공민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이 경축대회에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명절을 축하하기 위하여 형제적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친선적인 신생독립국가들 그리고 자본의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싸우는 5대륙인민들의 귀중한 대표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 인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우리 민족의 존엄을 존중히 여기고있는 표현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

한 이 나라 인민들의 국제적련대성의 뚜렷한 표시입니다. 나는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가한 외국 동지들과 벗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그들을 통하여 친선의 사절을 보내준 모든 나라 정부와 인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우리의 참다운 조국입니다. 우리의 국가는 인민이 창건하였고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통일되고 단결된 력량에 의거하고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국가사업에 참가시키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가장 공고한 국가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뿐만아니라 행복한 물질문화적생활을 보장하는 참다운 인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은 공화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화국기발아래 굳게 뭉쳐 간고한 혁명투쟁과 위대한 건설사업을 진행하여왔습니다. 공화국의 전진도상에는 난관도 많았으며 우리는 준엄한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공화국기치밑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불요불굴의 투쟁을 벌려 모든 난관과 시련을 영웅적으로 이겨냈으며 조국의 륭성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유구한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20년이란 세월은 매우 짧은 한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 공화국정권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정확한 정책을 세우고 그 관철에로 전체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에서 온갖 착취와 압박을 없애는 사회주의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천리마의 대진군을 벌려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쌓아놓았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어렵고 간고한 전쟁에서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었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그리고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되였습니다. 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이 원쑤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피로써 지켜낸 영광스러운 조국이며 자기들의 간고한 혁명투쟁과 영웅적로동으로써 이루어놓은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입니다.

혁명과 건설을 위한 20년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두터운 신뢰를 얻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륭성발전에서 자기들의 참다운 행복의 보금자리를 보고있으며 공화국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굳게 믿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은 공화국기치밑에 조국땅우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있다는 신심으로 가득차있으며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무비의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열의를 내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륭성발전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억압과 착취밑에서 허덕이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인민이 주권을 틀어쥐여야만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깊이 깨닫고있으며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불패의 보루로 바라보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더욱 억세게 싸우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조선공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습니다. 지난날에는 나라없는 인민으로서 이국땅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 정치적무권리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오던 수많은 조선동포들이 오늘은 당당한 독립국가의 공민으로서 자기들의 권리를 요구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ㅁㅁ대국 ㄷ
ㄴ소ㄱ 산

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자유와 독립과 행복의 기치이며 그 영향력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가고있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광스러운 20년

동지들!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며 혁명의 승패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손에 주권을 틀어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여야만 완전한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령도하는 전행정에서 시종일관 주권문제에 가장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그 옳은 해결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정권이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입니다.

우리 인민은 오래동안 민족적독립과 자기의 주권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로동계급은 착취계급의 권력기구를 뒤집어엎고 자기의 정치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폭력이 없이는 승리할수 없습니다. 조선에서의 일제식민지통치기구는 조선인민에 대한 가혹한 파쑈적폭압기구였으며 따라서 우리는 혁명적폭력에 의하여서만 주권을 전취할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은 혁명적폭력과 혁명적무력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맑스-레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조국의 광복과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선진적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서 항일유격대를 조직하고 15성상에 걸친 영웅적무장투쟁을 벌렸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조국의 해방과 자기의 주권을 위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과 사회경제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앞으로 세워야할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한다는 로선을 내놓았습니다. 이 로선은 이미 조국해방투쟁당시에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정식화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시련속에서 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울줄 아는 단련되고 세련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자라났으며 인민정권을 창건하기 위한 혁명적골간이 준비되였습니다.

해방후 우리 인민은 바로 이와 같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제기한 맑스-레닌주의적인민정권로선과 고귀한 사업경험에 토대하여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자라난 공산주의자들의 옳바른 지도밑에 내외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인민정권을 세우며 민주주의적 새 조국을 건설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반동세력들을 긁어모아가지고 민주주의적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파탄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적들의 파괴암해책동과 함께 좌우경기회주의분자들도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많은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해방직후 우경투항주의분자들은 우리 나라에 부르조아공화국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절대다수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저버리고 친일 지주,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여 나섰습니다. 또한 극좌분자들은 해방직

후부터 당장 우리 나라에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우고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떠벌였습니다. 이자들은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객관적요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혁명단계를 뛰어넘으려 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 강력한 민주기지를 창설할데 대한 당의 정확한 정치로선에 기초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과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음모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광범한 대중적지반을 가진 참다운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새 조국 건설을 지향하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이루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일제의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철저히 짓부시고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인민위원회들을 조직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새형의 정권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세웠습니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제반봉건적민주력량을 망라하고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정권앞에 나선 기본과업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20개조정강을 실현함으로써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며 북반부에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하는데 있었습니다.

민주개혁을 실시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였습니다. 민주개혁을 실시하여야만 지주, 예속자본가를 비롯한 반동계급들의 경제적기초를 없애고 사회적진보를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었으며 인민정권의 사회경제적지반을 튼튼히 하고 북반부를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로 전변시킬수 있었습니다.

토지문제는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입니다. 토지문제를 해결하여야만 농촌에 뿌리박은 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을 없애고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에서 해방하여 그들의 정치적열성을 비상히 높일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을 민주화하기 위한 사회정치적지반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개혁을 하여야만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질곡에서 해방하고 빨리 발전시켜 민족공업과 전반적 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습니다. 토지문제의 해결은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리 나라 농촌의 계급적력량관계와 토지소유관계,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몰수대상을 규정하고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식민지통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였던 중요 기간공업,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대외무역을 국유화하여 그것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되도록 하는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이 경제명맥을 틀어쥐고있는 한 그들에 의한 략탈과 착취를 면할수 없으며 나라의 자주독립과 륭성발전을 바랄수 없습니다. 오직 외래독점자본가들과 그와 결탁한 예속자본가들의 소유를 청산하고 경제의 기본명맥을 국가가 직접 틀어쥐여야만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정치, 경제적 지반을 없앨수 있으며 나라의 중요생산수단들을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과 전체 인민의 복리증진에 리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의 토대를 마련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토지개혁에 뒤이어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였던 모든 산업시설들을 몰수하여 국유화하였습니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한 결과 온갖 사회적불행을 낳게 하던 화근이 산업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없어졌으며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발생되고 민족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밑천이 마련되였습니다.

인민정권은 경제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로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과 같은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실시하였습니다. 로동법령과 남녀평등권법령이 실시됨으로써 로동계급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관계가 없어졌으며 녀성들은 봉건적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자체의 민족간부의 부대를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인테리가 매우 적었고 주민의 절대다수가 현대적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이 문제는 혁명과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나섰습니다. 민족간부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오랜 인테리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인입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오랜 인테리들이 대부분 자산계급의 출신으로서 지난날에는 할수없이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에게 복무하기는 하였지만 식민지인테리로서 외래제국주의의 억압과 민족적차별대우를 받았기때문에 반제혁명의식을 가지고있다는것과 공부를 하고 진리를 파악하고있다는 점에서는 사회발전법칙에 따라 선진계급인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다는것을 고려하여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교양개조하여 새 사회건설에 적극 참가시키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방직후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교육을 민주화하며 로동자, 농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전문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들을 전국 도처에 널리 창설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정권은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튼튼히 꾸리는 한편,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보위하기 위한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였습니다.

민주주의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사회경제제도의 식민지적 및 반봉건적 성격이 완전히 없어졌으며 북반부의 사회경제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의 인민경제에서 국영경제와 협동경리로서 구성된 사회주의적경제형태가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그밖에 개인농경리와 도시수공업경리로 구성된 소상품경제형태와 도시의 자본주의적개인상공업과 농촌의 부농경리에 국한된 얼마 안되는 자본주의적경제형태가 남아있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관계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의 계급관계도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북반부에서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청산되고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이 높아지고 로농동맹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북반부에는 인민민주주의제도가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의 믿음직한 담보인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가 마련되였습니다.

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되는데 따라 북반부에서는 점차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갈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의 무기인 인민정권을 사회주의혁명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맞게 더욱 발전시킬 과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력사적인 첫 민주선거를 실시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탄생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였습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서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임무를 수행하며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해방직후부터 1948년 8월까지의 3년동안의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이 모든 커다란 성과들에 의하여 인민정권의 사회경제적기초가 공고히 되였습니다. 특히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과 인민대중의 정치도덕적단결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온 당의 올바른 방침에 따라 인민정권의 정치적지반이 더욱 튼튼하여졌습니다.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수많은 핵심들과 혁명적골간들이 자라났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각성되였으며 전반적으로 우리의 혁명력량이 더욱 장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방후 3년동안에 우리는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가질수 있게 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이룩된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에 기초하여, 더욱 로골화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투쟁속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1948년 9월에 창건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의 구현으로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주위에 굳게 뭉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이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민족으로부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조국을 건설하여나아가는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습니다. 공화국의 창건으로 조선인민은 쓰라린 망국노의 운명에서 영원히 벗어나 떳떳한 독립국가의 기치밑에 새로운 력사무대에 등장하였으며 오래동안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진출하게 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으로 조선인민은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는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사회주의적자주독립국가를 가지게 됨으로써 전국적판도에서 반혁명력량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준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공화국의 창건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광명한 새생활을 창조하며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일떠선 전체 조선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동지들!

창건된후 지난 20년동안 우리 공화국은 로동당의 령도밑에 영광에 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습니다. 공화국정권은 창건된 첫날부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의 모든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왔습니다.

전쟁전에 공화국정권은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는 한편, 경제분야에서 자본주의적발전을 제한하면서 국영부문의 지배적지위를 보장하고 민족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공화국정부는 1947년과 1948년의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1949～1950년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인민대중을 그 수행에로 적극 조직동원함으로써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한걸음한걸음 준비하였으며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없애고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토대를 닦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로 넘어가기 위한 공화국정권의 준비사업과 우리 인민의 평화적로동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으로 말미암아 일시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동안의 전쟁은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가리싸움이였으며

우리 공화국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필사적으로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쑤들은 침략자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정의의 항전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영웅적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전체 인민을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는 영웅적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여 주었으며 자유롭고 행복한 새생활을 마련하여준 우리 당과 인민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선과 후방에서 높은 애국적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으며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영용한 인민군장병들은 당과 조국과 인민의 보위자로서의 고상한 사명을 깊이 간직하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남반부지역을 해방하는 반공격의 가렬한 전투속에서도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의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재진격과 진지방어의 치렬한 전투속에서도 언제나 승리의 신심 드높이 당과 조국을 위하여 원쑤들을 용감히 맞받아나가 싸웠습니다. 그들은 전쟁력사에서 아직 있어보지 못한 새로운 독창적인 전법들을 솜씨있게 적용하여 전투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가는 곳마다에서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으며 조국의 하나하나의 고지, 한치한치의 땅을 목숨바쳐 지켰습니다.

전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은 전선에서뿐만아니라 후방에서도 힘차게 벌어졌습니다. 후방에 있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남녀로소 할것없이 전체 인민들이 적들의 야만적폭격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전시생산과 전선원호사업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하나로 굳게 뭉쳐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물리치고 전선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였습니다.

우리 위업의 정당성과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수억만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았습니다.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우리를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여주었으며 중국인민들은 지원군을 보내여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피로써 도와주었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함께 세계의 모든 진보적 나라들과 인민들은 한결같이 미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지지성원은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주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선에 자기 나라 륙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 군대들과 남조선괴뢰군들을 포함하여 200여만의 대병력과 막대한 량의 최신전투기재들을 동원하였으며 일찌기 전쟁력사에서 그 례를 볼수 없는 야만적인 전쟁방법과 수단까지 다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곤경에서 자신을 구원할수 없었습니다. 적들은 3년동안의 조선전쟁기간에 2차세계대전시기 4년동안의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이르는 막대한 병력과 군수기재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였으며 인민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 위대한 투쟁에서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령도밑에 한마음 한몸이 되여 결사적으로 싸움으로써 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영예롭게 이겨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주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승리는 우리 공화국과 인민민주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

력과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의 뚜렷한 시위였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일떠선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이 그 어떤 무기나 기술의 우세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로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힘에 있다는것을 실증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습니다.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사회주의진영나라들을 위협하던 미제의 침략기도를 꺾어버리고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보위하였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우리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세련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진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습니다. 특히 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수십만의 혁명적골간들이 새로 자라났습니다.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자란 이 혁명간부들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여야 할 귀중한 재부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매우 고귀한 밑천입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력사적승리를 쟁취한 우리앞에는 파괴된 인민경제를 빨리 복구하고 령락된 인민생활을 짧은 시일에 안정시켜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섰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전쟁피해는 말로 표현할수 없으리만큼 심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재더미로 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이 여지없이 파괴되였으며 인민들은 생활토대마저 거의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무엇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복구하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을 정도로 할일은 태산같이 많았으며 사정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고 당이 있고 인민정권이 있는 이상 우리는 또다시 새생활을 건설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전후복구건설에 달라붙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것을 전후경제건설의 기본로선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복구건설의 방향과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중심고리를 똑바로 틀어쥐고 거기에 힘을 넣을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습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된 우리 나라의 경공업과 농업을 성과적으로 복구발전시킬수 없었으며 인민생활을 추켜세울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밑천을 마련할수도 없었습니다. 인민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경제의 튼튼한 자립적토대를 쌓는 문제는 오직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만 풀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중공업에만 힘을 돌리고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뒤로 미룰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령락된 인민생활을 빨리 추켜세우기 위해서는 쌀과 천을 비롯한 소비품의 생산을 늘여야 하였으며 원래 농업과 경공업이 몹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 농업을 빨리 추켜세워야 하였습니다.

모든것이 파괴되고 모자라는 조건에서 이 로선을 관철한다는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당과 정부는 전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당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을 믿었으며 인민대중의 힘과 국내의 모든 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형제나라들의 원조를 효과적으로 리용할것을 고려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옳게 타산한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며 맑스-레닌주의확대재생산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적용한 창조적인 로선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기초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빨리 건설할데 대한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표현한 혁명적인 로선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이 내놓은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쟁전수준을 회복할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정책에 고무된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전고투하여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고 전후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4년밖에 안되는 동안에 공업과 농업생산은 전쟁전 수준을 회복하였을뿐만아니라 훨씬 넘어서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전후복구의 어려운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우리 당 제3차대회가 내놓은 기본방향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장기적인 전망계획인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푸는데 있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전면적으로 세우는것은 5개년계획기간에 하여야 할 사회주의기초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발전이 절실히 요구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제때에 농업협동화문제를 내세우고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농업협동화의 발전단계와 속도, 협동경리의 형태와 규모를 정확히 규정하였으며 레닌적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실천적모범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는 기초우에서 이 운동을 실속있게 발전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경험적단계에서 농기구와 부림소가 모자라고 메마른 땅을 가진 빈농민들로만 조직된 농업협동조합들을 튼튼히 하고 개인농경리에 비한 그 우월성을 충분히 나타내게 하는데 있어서 로동계급의 국가적지원은 결정적의의를 가지였습니다. 당과 정부는 이미 축성된 공업의 토대에 의거하여 협동조합들에 화학비료와 농기계, 건설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대주었으며 식량과 종곡을 꾸어주며 재정적융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협동조합들의 현물세납부률을 훨씬 낮추어주었으며 중요한 영농시기마다 로력적지원을 비롯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국가적방조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방조와 농촌의 핵심들인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들은 점차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협동경리의 우월성이 실물로 확증되고 당의 의도가 광범한 농민들속에 깊이 침투되자 중농들이 협동화운동에 인입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협동화운동은 대중적발전단계로 넘어가게 되였습니다.

농민들이 대중적으로 협동경리에 망라됨에 따라 특히 협동경리의 형태와 생산수단의 통합방식이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당과 정부는 토지가 농민들의 사적소유로 되여있으며 농민들의 경제형편과 준비정도가 서로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작업을 공동으로 하는 고정적로력협조반과 토지를 통합하고 공동경리를 운영하되 로동과 토지에 의하여 분배를 하는 반사회주의적형태, 토지를 비롯한 기본생산수단을 통합하고 로동에 의하여서만 분배를

하는 완전한 사회주의형태와 같은 세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조합을 조직하는데서 구체적실정에 따라 그가운데서 어느 한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의 부림소와 농기구 같은 생산수단을 통합할 때에도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그들의 희망에 따라 통합하든가 또는 일정한 시기까지 계속 사적소유로 남겨두면서 공동으로 리용하도록 하였으며 통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한 값을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농업협동경리의 이와 같은 세가지 형태와 생산수단의 통합방식은 중농들로 하여금 협동경리를 쉽게 받아들일수 있게 하였으며 협동화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이러저러한 페단을 미리 막을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농업협동화운동에서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도 결코 이 운동을 자연발생성에 내맡기지 않았으며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의 발생과 공고발전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는 각이한 계층의 농민들을 협동경리에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부농은 수탈하고 청산한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그들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개조하는 정확한 계급정책을 시종일관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부농에 대하여 취한 방침은 사회주의혁명력량이 강대한 반면에 부농자체의 력량은 매우 미약하며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부농의 착취대상과 지반이 없어져감에 따라 그들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아나갈수 없게 된 현실적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이 모든 현명하고 창조적인 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협동화는 시작한지 4~5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기간에 승리적으로 완성되였습니다.

농업협동화와 함께 도시수공업과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입니다.

거의 반세기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지난날 우리 나라 경제의 중요부문들은 일제자본이 독점하고있었고 우리 나라에서 민족자본의 발전은 매우 제한되여있었으며 민족자본가들의 경리는 보잘것 없었습니다. 해방후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였던 산업을 국유화한 결과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서 사회주의적국영경제가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원래 미약하였던 자본주의적상공업은 더욱더 부차적인 역할밖에 할수 없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 전후시기에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의 사회주의적개조는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섰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적상공업은 수공업과 거의 다름없이 령세화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기업가, 상인들은 국가의 적극적인 방조에 의거하지 않고는 그리고 자기들의 로력과 자금을 한데 합치지 않고는 경리를 복구할수도 없었고 생활도 개선할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수공업자들과 함께 여러가지 형태의 협동경리를 통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였습니다. 기업가, 상인들은 생산협동조합에 망라됨으로써 남의 로력에 의하여 생활하던 지난날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로동을 통하여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되였습니다.

농업협동화가 완성된것과 함께 개인수공업과 자본주의적상공업이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된 결과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경리형태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으며 수천년동안 지속되여온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없애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습니다.

5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건설분야에서의 기본과업은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닦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것이였습니다.

전후 3개년계획이 훌륭히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는 복구기로부터 기술적개건기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5개년계획을 기술적개건의 첫단계로 규정하고 이 기간에 사회주의적공업화의 기초를 닦음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앞으로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최신기술로 장비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과업을 내세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5개년계획의 과업은 생산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에게는 자재도 자금도 모든것이 다 모자랐습니다. 더구나 이 시기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과 파괴활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격화되였으며 당안에서는 반당종파분자들이 우리 혁명을 배반하고 우리 당과 정부의 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활동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숙한 시기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고조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었으며 높은 창조적 열의와 정력을 발휘하여 모든 난관을 뚫고 천리마의 기세로 달려나아갈것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를 견결히 지지옹호하여나섰으며 당의 혁명적호소에 호응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며 모든 낡은 기준과 공칭능력을 마사버리고 새 기준과 기적들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방대한 5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는 2년반에, 현물지표별로는 4년동안에 넘쳐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이러한 대고조속에서 발단되였습니다. 천리마운동은 우리 당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앞당기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입니다. 천리마운동은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대중적운동으로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천리마운동을 계속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의 정치적열성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혁신을 이룩하였습니다.

5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은 승리적으로 실현되고 우리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로 되였습니다.

우리 당 제4차대회는 5개년계획의 수행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총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한 7개년계획의 전망과업을 내놓았습니다.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였고 자본주의적발전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하였으며 낡은 사회로부터 뒤떨어진 생산력을 물려받은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새 사회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은 승리자의 드높은 긍지와 앞날에 대한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새롭고 광활한 전망을 열어준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해동안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는데 따라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큰 힘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은 예견하였던것보다 일정하게 늦어지게 되였습니다. 경제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더라도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야만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근로자들의 평화적로동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습니다.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방력을 더

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근본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 대표자회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내놓고 그 관철에로 전체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은 당대표자회결정을 받들고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였습니다. 지금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맞이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모든 공장, 기업소, 광산, 탄광, 철도, 항만들과 협동벌들에서는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계속 세차게 타번지고있으며 7개년계획의 수행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올해계획은 기간을 훨씬 앞당겨 완수될것이 예견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석탄, 화학비료, 주요유색금속, 목재 생산을 비롯한 일련의 공업부문들에서 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능히 점령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수 있습니다.

동지들!

공화국이 창건된후 오늘에 이르는 20년동안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간고하고도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 걸쳐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나라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되였습니다.

우리 공업은 류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1967년의 공업생산은 1948년에 비하여 22배로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중공업은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고있으며 국내의 자연부원에 의거하여 발전하고있습니다. 특히 기계제작공업이 빨리 발전하여 1967년에 그 생산액은 1948년에 비하여 100배로 높아졌으며 공업총생산액에서 기계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8년의 7.4%에서 1967년에는 31.4%로 높아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은 여러가지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많이 생산하고있으며 기계설비들에 대한 국내수요를 거의 모두 자체로 충족시키고있습니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중공업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공고히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지로서 더욱 큰 위력을 나타내게 되였으며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에 더 잘 복무하게 되였습니다.

인민소비품생산기지도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상품으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고있으며 질좋은 여러가지 소비품을 앞으로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우리가 경공업발전에서 거둔 이러한 성과는 대규모공장들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공장들을 병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현명한 방침을 정확히 관철한 결과입니다. 대체로 경공업은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널려있는 여러가지 원료를 가공하며 모든 지방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규모중앙공업만 가지고는 이러한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없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원료들과 유휴로력들을 적극 동원하여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초기에는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현대적기술과 함께 수공업적기술도 널리 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국가투자를 얼마 하지 않고도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지방공업은 전체 소비품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있으며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농촌경리의 발전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해에 류례없는 큰물이 졌으나 알곡생산은 해방직후에 비하여 2.7배로 늘어났으며 공예작물, 남새, 과실, 축산물 생산도 빨리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식량을 자급자족할뿐만아니라 상당한 량의 예비를 가지게 되였으며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된 다음 교육문화사업도 비할바없이 발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각급 학교들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269만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거쳐 지난해부터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새세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며 모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정전직후에 비하여 19배나 되는 42만 5,700여명의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이 일하고있으며 그들의 힘과 지혜와 노력에 의하여 현대적 공장, 기업소들이 훌륭히 건설되여 관리운영되고있습니다.

착취와 압박이 없어지고 경제와 문화가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은 끊임없이 높아가고있습니다. 1967년에 인구 한사람당 국민소득은 1946년에 비하여 9배, 1949년에 비하여 4.4배로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일자리가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밥을 빌어먹는 사람도 없으며 모든 근로자들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대해서도 아들딸들을 공부시키는데 대해서도 병을 치료하는데 대해서도 근심걱정을 하지않게 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일하고 배우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게 되였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강력히 추진되고 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할데 대한 당과 정부의 정확한 방침이 관철된 결과 나라의 군사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기초한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가 서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발악적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견결한 반제반미적립장과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끊임없이 높아가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신생독립국가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맺고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평화애호인민들과 우리 인민들과의 접촉과 교류도 날로 활발해지고있으며 그들과의 련계가 더욱 밀접해지고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세계의 가는곳마다에 수많은 벗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을 따라 더욱더 강화되여가고있습니다.

동지들!

지난 20년동안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들에 의하여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커다란 사회경제적변혁으로 말미암아 인민정권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는 비상히 공고발전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국가는 도시와 농촌에서 유일적지배를 확립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인민정권은 확고한 정치적지반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남으로써 사회주의적토대우에서 로농동맹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이 동맹을 기초로 하여 전체 인민대중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이 사회주의경제체계에 망라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다같이 일하며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동지적관계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당과 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서는 변천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계속 개편하며 완성하여야 합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산력에 사회주의적생

산관계를 어떻게 적응시키고 완성시켜나가며 확립된 토대에 맞게 상부구조를 어떻게 완성하며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작용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하여 변천된 새 환경에 맞게 국가 및 경제기관들의 사업을 개편하며 그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1960년 2월에 있은 청산리지도는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을 혁신하는 새로운 계기로 되였습니다. 청산리에 대한 사업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지도가 아래에 더욱 접근하게 되였으며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며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교양개조하고 단결시키며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 서게 되였습니다.

청산리지도가 있은 다음 우리는 인민경제에 대한 관리 및 지도사업에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업관리체계를 개편하며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오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새로운 공업관리체계인 대안체계가 도입된 결과 경제기관, 기업소들이 모든 사업을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군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며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며 모든 사람이 동지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직장, 모든 공장, 모든 부문들이 서로 밀접히 협력하여 협동생산을 발전시키며 객관적인 경제법칙들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내오면서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적규률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를 더욱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화에서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도입됨으로써 국가기관들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계획화에서 국가계획기관들의 주관주의와 생산자들의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없애고 국가의 의도와 생산자들의 창의창발성을 잘 배합하여 참말로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게 되였습니다.

당과 정부는 농촌경리부문에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오고 여기에 농업기술자들과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를 비롯한 농촌경리에 봉사하는 국가기업소들을 집중시켰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옴으로써 농촌경리를 지난날과 같이 행정적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할수 있게 되였으며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온것은 지방정권기관들의 사업도 근본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도, 시, 군인민위원회들은 국토관리, 건설, 상업, 교육, 문화, 보건사업들에 힘을 넣어 이 부문들의 사업을 더욱 추켜세울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각급 국가, 경제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높아졌으며 정권기관일군들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더욱 강화되고 광범한 근로자들이 국가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실로 지난 20년동안 우리 인민은 사랑하는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를 따라 용감하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을 두고도 하지 못하였던 위대한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였습니다. 공화국의 20년은 영광의 20년이며 투쟁과 승리의 20년이며 창조와 전진의 20년입니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

동지들!

공화국의 기치밑에 조선인민이 지난 20년동안 나라의 륭성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것은 오직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였으며 사회주의의 불패의 생활력에 확고히 의거하였기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정권을 잡고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킬 목적밑에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며 온갖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없애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며 각자에게는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를 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입니다.

인민이 아무런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가지고있지 못한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제도에서 인민대중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나라의 정치에 자유롭게 참가하고 자기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국가주권을 행사하며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마음껏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고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고 생산의 목적이 자본가, 지주들이 더 많은 리윤을 짜내는데 있기때문에 생산자대중은 오직 자기의 목숨을 이어가기 위하여 마지못해 일하게 되며 생산과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그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으며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을 위하여 일합니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재능을 발휘하게 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빨리 발전시키게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모든 기업소들이 같은 목적과 리해관계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음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은 생산의 무정부성과 과잉생산공황이 없어지고 인민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며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과 생산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착취자와 피착취자도 없으며 로동의 결과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 생산이 빨리 높아짐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은 계통적으로 높아집니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억압,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사회주의의 길은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을 없애고 전체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며 나라의 완전독립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남북조선의 상반되는 두 현실은 그 뚜렷한 실례의 하나로 됩니다. 공화국북반부에는 착취와 억압이 없는 가장 진보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닦아졌으며 북반부인민들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있는 반면에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되고 경제는 여지없이 파탄되였으며 인민들은 온갖 정치적 자유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마저 빼앗기고 테로와 폭압 밑에서 신음하고있으며 수천년래의 민생고에서 허덕이고있습니다.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적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반드시 사회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며 제국주의와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고 소탕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자립적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자본주의가 불가피적으로 겪은 쓰라린 진통과 재난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과 민족적독립과 번영에로의 빠른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살았으며 날을 따라 멸망의 길로 더욱더 줄달음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류의 광명한 미래이며 모든 민족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추호의 동요없이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계속 확고히 전진할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새 사회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라의 북반부에 사회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자면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주의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에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전기간에 걸쳐 계급투쟁은 계속됩니다. 물론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면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 완전히 청산되며 그의 사회경제적지반도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잔여분자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들은 자기의 옛지위를 되찾으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파괴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사회주의사회에는 적대적요소들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이 적대요소들이 그 자체로서는 그리 큰것이 아니지만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리용물로, 그 앞잡이로 되고있기때문에 그것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국가를 반대하고 침략하는데서 직접적인 무력간섭을 하는 한편, 사회주의나라안에 남아있는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반동들을 긁어모아가지고 그들을 사촉하여 사회주의국가를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꾀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목적으로 남반부의 반동계급들과 북반부의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을 사촉하여 파괴암해활동과 사상적침투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근로자들의 의식속에는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 잔재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낡은 사상을 낳는 경제적기초를 청산하며 사람들을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는 사회적 및 물질적 조건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이 사회의 물질적조건의 변화에 뒤떨어지는것만큼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근로자들의 머리속에는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잔재들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부르죠아적사상독소가 끊임없이 침습해들어옵니다.

이와 함께 전사회에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된 다음에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는것입니다.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은 무엇보다도 농업이 공업보다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이 도시주민들보다 낮으며 농민들이 로동자들보다 사상의식이 뒤떨어져있는데서 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러한 락후성은 낡은 사회의 유물입니다. 바로 이러한 락후성으로 하여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고있는 공업과는 달리 농촌경리에서는 협동경리가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게 되는것입니다.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분야에서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음으로써 생산력의 발전과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업화의 기초를 쌓아올리고 기술혁명의 첫걸음을 내디딘데 지나지 않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하는 높은 생산력을 이룩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인민생활면에서도 우리는 착취와 빈궁의 사회적근원을 없애고 생산을 빨리 발전시켜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것은 해결해놓았으나 아직 그들의 생활을 매우 유족하고 문명한것으로는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적대계급의 준동이 있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으며 나라의 공업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 있지 못한 사회는 아직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는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한편으로는 계급투쟁을 계속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사업을 다같이 잘해나가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수 있습니다. 이 과업들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놓쳐버려도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행정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며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손실을 가져다주게 될것입니다.

만일 사회주의국가가 프로레타리아독재, 사상혁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고 계급투쟁을 약화시킨다면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을뿐만아니라 내외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낼수도 없습니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 사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창의창발성과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습니다. 경험은 계급투쟁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이 우월성을 나타낼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안일과 해이에 사로잡혀 경제건설과 기술혁명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반대로 계급투쟁과 사상혁명만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차요시하는것도 잘못입니다. 사상혁명은 사회주의국가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기는 하지만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사상혁명은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할뿐만아니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투쟁합니다. 낡은 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한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것입니다. 인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배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목적도 결국은 모든 인민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그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습니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만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국방력도 강화할수 있습니다.

사상혁명만 강조하고 기술혁명을 소홀히 한다면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혁명과업을 완수할수 없으며 사상혁명자체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그것은 가

술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기초하여 개별되는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경계하면서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계급투쟁을 계속 강화하고 경제건설도 잘하여야 하며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고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혁명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사람들의 사상도 개조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쌓아올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한줌도 못되는 적대분자들을 고립시키고 진압하는것과 함께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합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소수적대분자들에 대해서는 진압하고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이 두 측면을 옳게 결합하여 나간다는것은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는 사업과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계급투쟁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며 그것을 과장한다면 좌경적오유를 범하게 될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애매한 사람을 적대분자와 같이 취급할수 있으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사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적대적요소가 있고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것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자유》를 준다면 그것은 엄중한 우경적오유를 범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정치적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계급적성격을 띠고있습니다. 온갖 착취자들의 독재는 피착취근로대중에 대한 독재이고 그들의 민주주의는 오직 소수 착취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반대로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착취계급에 대한 독재이고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입니다. 인류력사에서 계급을 떠난 국가가 없었던것과 마찬가지로 계급성을 떠난 민주주의도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나 민주주의는 주권을 잡은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적대되는 계급에 대한 독재가 그와 결합되여있습니다.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준동하고 계급투쟁이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순수한 민주주의》, 《완전한 자유》란 있을수 없습니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억만장자들에게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여 치부하며 그들을 억압할 자유를 주지만 근로대중에게는 헐벗고 굶어죽을 자유밖에 주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계급적성격을 부인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 모든 사람이 다 접수할수 있는 이른바 《순수한 민주주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 인민들에게 부르죠아적민주주의와 노예적자유를 강요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추상적이며 초계급적 리해를 반대합니다.

지금 서방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은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벌어지고있는 이른바 《민주주의적발전》과 《자유화》소동에 대하여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라느니, 《서방세계에 희망을 안겨주는 동구라파에서의 새로운 바람》이라느니, 《가일층의 민주주의를 위한 심각한 개조과정》이라느니 하면서 환성을 올리고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전취물을 좀먹고 자본주의복구의 길을 열어놓으려는 제국주의

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의 어리석은 책동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국가인민들이 진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유하려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착취계급을 영원히 청산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뿐만아니라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주며 그들 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것입니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그 어떠한 민주주의도 있을수 없습니다. 만일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어떤 민주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기도전에 또한 낡은 사회의 사상잔재가 청산되기도전에, 특히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내외의 원쑤들의 침략책동과 파괴책동이 계속 격화되고있는 때에 프로레타리아독재가 필요없게 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부르죠아민주주의와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와의 계급선을 모호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계급적 성격을 부인하면서 원칙적인 계급투쟁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적대적요소에 대한 경각성이 무디게 되고 당과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이 마비되며 사회생활에서 부르죠아지의 부식적작용이 강화될수 있습니다.

결국 좌경적편향이나 우경적편향은 다같이 적아를 똑똑히 가려낼수 없게 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건설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국가활동에서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다 반대하면서 독재와 민주주의,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옳게 결합하여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공화국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내외원쑤들의 온갖 음모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쳐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처지를 되찾으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있는 전복된 지주, 자본가계급잔여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며 내부의 적대분자들과 결탁하여 우리의 사회제도를 공격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기도에 대해서도 제때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여 철저히 소탕해버려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보위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동시에 사회의 모든 계층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

적대분자들에 대한 진압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기본기능이며 사회주의국가가 끝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급투쟁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의 전부가 아니며 계급투쟁의 전반적형식을 다 포함하는것도 아닙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계급투쟁과 함께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다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 있는것입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계급투쟁은 계속되지만 그 내용과 형식은 좀 달라져야 할것입니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이 로동계급의 사상과 부르죠아사상간의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계급투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종래의 계급투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것입니다. 사회주의혁명을 할때의 계급투쟁은 주로 착취자들을 계급으로서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였다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진행하는 계급투쟁은 사람들을 청산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한 사상투쟁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혁명은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손잡고 나가는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로서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상혁명은 적대분자들과의 투쟁처럼 폭력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혁명의 중요대상은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봉건적,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잔재이며 외부에서 침습해들어오는 반동적자본주의사상독소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남김없이 뿌리빼야 하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르죠아적사상독소를 철저히 막아내야 합니다. 특히 나라가 분렬되여있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고있는 우리의 형편에서는 적들의 파괴암해책동과 사상적침투를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 중요하게 나서며 우리는 여기에 언제나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과 함께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농촌의 락후성을 완전히 없애야만 외부로부터 침습하여오는 반동적부르죠아독소와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근거지와 지반을 완전히 없앨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높여야만 농업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킬수 있으며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리기주의적요소들을 뿌리빼고 모든 근로자들을 전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하여 높은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게 하는 집단주의의 길로 확고하게 이끌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농촌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과 구체적방도를 이미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당이 내놓은 명확한 방침에 따라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현대적공업에 비한 농촌경리의 기술적락후성, 선진적인 도시에 비한 농촌의 문화적락후성, 가장 혁명적계급인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사상적락후성을 없애며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계속 강화하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끊임없이 접근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의 우리의 과업은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모든 근로자들이 현대적기계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우리는 공업을 계속 빨리 발전시키며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건설하며 모든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유능한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며 공업로동과 농업로동, 중로동과 경로동, 육체로동과 정신로동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고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업과 농업생산을 빨리 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들이 다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더 잘 느끼도록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여야 사회주의는 완전히 승리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전사회의 로동계급화, 혁명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가는것입니다.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빨리 넘쳐끝내고 명년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생산준비를 철저히 갖추는것입니다.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발전소들의 설비와 시설들을 철저히 정비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대규모발전소들의 건설을 적극 추진시켜 동력기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있는 화력발전소들을 더 잘 관리운영하며 새로운 화력발전소건설을 다그쳐 전력생산에서의 파동성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업과 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전력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며 농촌전기화를 1970년안으로 완전히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7개년계획의 고지를 올해에 점령한다고 하여 자만하지 말고 석탄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지질탐사사업과 굴진을 결정적으로 앞세워 채탄장을 넉넉히 마련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작업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고 로천채굴을 비롯한 선진채굴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급격히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광산들을 확장하면서 전망이 큰 유색금속광산들의 개발을 다그치며 지금 하고있는 선광장건설을 빨리 끝내고 모든 광산설비들을 원만히 대주어 광물생산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과 기본건설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철강재를 대주는 흑색금속공업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흑색금속공업부문에서는 제철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진행하며 우리 나라 무연탄을 가지고 철을 생산할수 있는 철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선철, 강철, 강재 생산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진행하게 될 대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기계공업, 특히 대형기계생산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형굴착기, 대형자동차, 대형뜨락또르, 대형선박, 대형공작기계를 생산할 대형설비생산기지들을 더욱 확대강화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해에 하게 될 방대한 건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건재공업, 특히 세멘트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교통운수, 특히 철도는 매우 긴장성을 띠고있으며 그것을 푸는것은 다음해 생산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입니다. 철도의 긴장성을 풀기 위하여 철도전기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며 륜전기재의 생산과 수리능력을 강화하며 구내선을 더 늘이고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하여 륜전기재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당면한 가을걷이를 빨리 끝내고 다음해에 알곡생산을 더욱 높이며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힘을 넣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계화, 화학화 비중을 계속 높여야 하며 앞으로 국토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다음해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점령하여야 할것입니다. 7개년계획의 수행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는 획기적사변으로 될것입니다. 7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우리의 공업은 부문구조가 더욱 완비되고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체계가 확고히 선 공업으로 될것이며 인민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요구되는 질좋은 여러가지 생산수단과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될것입니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선진농업과학의 성과들이 널리 도입되여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들이 빨리 발전하게 될것이며 농민들의 힘든 로동은 훨씬 덜어질것입니다. 우리의 도시와 농촌은 보다 더 아름답게 꾸려질것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욱 넉넉하고 문화적인것으로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공업농업국가로부터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될것입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더 혁명적으로 일하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의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침으로써 7개년계획의 수행을 더욱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의 계급적동맹과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그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자본주의의 포위속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잡은 개별적나라들은 전세계적규모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제국주의의 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면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매개 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자면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세계사회주의혁명의 다른 부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며 만국의 로동계급과 전세계피압박인민들과의 참다운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진영의 형성과 그 확대발전은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 완전히 승리하고 점차 사회주의진영이 확대강화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것입니다. 사회주의진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불패의 혁명기지이며 전세계피압박인민들과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보루이며 세계평화의 위력한 성새입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은 사회주의진영 존재자체를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며 그것을 파괴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들고 혁명적으로 나가는 나라들은 무력으로 각개격파하며 인민들속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고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타협만 주장하면서 혁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여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은 단합된 힘으로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과 파괴음모책동을 꺾어버리고 사회주의진영을 공동으로 보위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사회주의진영이 하나로 굳게 통일되여있어야 합니다.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매개 사회주의국가들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사회주의진영의 전반적범위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사회주의진영의 존재와 그 단결된 힘은 비단 사회주의나라 인민들뿐만아니라 전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으며 현시기 세계혁명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사회주의나라들의 단합된 노력에 중요하게 달려있습니다.

오직 사회주의진영의 확고부동한 통일과 그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만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촉진시킬수 있으며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과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과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지하고 고무할수 있습니다.

단결은 로동계급의 가장 위력한 무기입니다. 로동계급은 그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단결을 가장 귀중한 무기로 삼아왔으며 단결의 힘에 의하여 어려운 투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도 국제적으로 련합된 자본주의철쇄를 끊어버리는 세계혁명운동의 승리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의거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합된 력량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그 중심에 있는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강화하여야만 확고히 보장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단결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있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주권이 로동계급의 손에 쥐여져있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확립되여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였으며 이 나라들에서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사상은 맑스-레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다같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공통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진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것도 아니며 그 어떤 국제적조약에 의하여 이루어진것도 아니며 일시적인 동맹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혁명투쟁과정에서 승리한 국제로동계급이 계급적련대성의 필연적요구에 의하여 하나의 항구적인 동맹체로 결합됨으로써 이루어진것입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의 근본리익에서 출발한다면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은 끊임없이 강화될것입니다.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에 의견상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의견상이는 형제당, 형제나라들이 활동하는 력사적 및 지리적 조건과 민족적임무가 서로 다른데로부터 발생할수도 있으며 또한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철저한 혁명적립장을 가지지 못한데로부터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상이는 서로 다른 국가사회제도간의 모순을 반영하는것도 아니며 서로 적대되는 계급들간의 근본적으로 다른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것도 아닙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의 문제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급적형제들의 단결의 념원에서 출발하여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사상상 의견상이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동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여야 할 계급적전우들인 형제당, 형제국가들이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적대시하여서는 결코 안될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계급적형제들과 계급적원쑤들을 가릴줄 알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결코 계급적립장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계급적련대성의 원칙을 떠난다면 국제공산주의운동이란 있을수 없으며 사회주의진영이란 생각할수 없습니다. 형제나라들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적대시한다면 그것을 기뻐할것은 오직 제국주의자들뿐이며 손해볼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진영의 존망과 세계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이 엄중한 사태를

그저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분렬은 저지되여야 하며 통일은 수호되고 강화되여야 합니다.

형제당, 형제나라들이 진실로 단결하려면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및 동지적협조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형제당 및 형제나라들 사이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형제당들과 사회주의국가들이 이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킬때에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은 참말로 자각적이며 공고한것으로 될것입니다. 이러한 규범들이 위반되면 형제당들과 형제나라들 사이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며 사회주의진영의 단결을 해치게 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완전히 평등하고 자주적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로동계급의 계급적련대성에 의하여 국제혁명대오의 동등하고 독자적인 민족부대로서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자기 나라 인민들앞에 책임질뿐아니라 세계혁명에 대하여 세계인민앞에 책임집니다. 공산주의운동대렬내에서는 그 누구도 특권적지위를 요구할수 없으며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는 상급과 하급의 관계란 있을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의 계급적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형제나라들이 평등한 립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외부의 압력에 눌리여 독자성을 잃고 다른 당, 다른 나라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자기의 주체성이 없이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것은 사회주의진영의 단결을 강화하는것도 아니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충실한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는것은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며 따라서 국제혁명력량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것입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은 자기 활동에서 독자성과 자주성을 견지하여야만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는 정확한 정책을 세울수 있으며 혁명위업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촉진시킬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결코 맑스-레닌주의보편적진리로부터 물러서도 안되며 또한 민족적특성을 무시하고 형제나라들의 경험을 교조적으로 본따서도 안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나라 인민의 로동과 국내부원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매개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전체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매개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는 세계사회주의경제체계의 자립적인 하나의 단위로서 서로 긴밀한 련계와 협조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체계는 그를 이루고있는 매개 단위가 강력하여질 때 그 전반적위력도 강대해집니다. 만일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의 민족경제가 종합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여 자립성을 상실하고 독자적인 자기의 기능을 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체 사회주의진영의 매개 고리를 약화시키는것으로 되며 결국 전일체로서의 세계사회주의경제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중요한것은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가 다 건전하게 발전하여 자기의 자립적역할을 충분히 하는 기초우에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호상 경제적협조를 강화하여 세계사회주의경제체계가 총체적으로 원만히 움직이며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매개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민족적리익과 국제적리익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여야만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렬강들의 경제적침략과 경제적봉쇄정책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세계자본주의경제체계의 전반적위기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자주성은 결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만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입니다. 자주성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결코 그것을 약화시키는것으로 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가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를 떠난 자주성도 있을수 없습니다. 만일 그 누가 자주성을 견지한다는 구실밑에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배반하고 민족리기주의로 나간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더우기 독자성의 간판밑에 계급적련대성의 원칙을 저버리고 계급적형제들사이의 공동행동과 공동투쟁을 거부하는것은 공산주의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세계혁명발전에 막대한 손해를 주게 되며 나아가서는 자기 나라 혁명도 말아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단결을 강화하면서 자주성을 옹호하고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립장입니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3.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여 미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통일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할데 대하여

동지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조선혁명의 한 부분이며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입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습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대외활동분야에서 우리 공화국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입니다. 미제국주의는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국제긴장상태의 격화와 군비경쟁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미제국주의의 침략위협을 받고있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 없이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책동이 최근년간에 더욱 격화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웰남에서 야만적살륙전쟁을 강화하는 한편,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강도적침략행위를 계속하고있으며 꾸바의 령토 관따나모를 강점하고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과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습니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은 이미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새 전쟁을 적극 준비하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으며 민족적독립의 흉악한 교살자로 등장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라오스에 대한 무력간섭을 강화하고있으며 캄보쟈의 령토완정을 유린하고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계속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아

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였으며 민족적독립과 새생활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최근년간에 새로 독립한 민족국가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파괴활동과 전복음모가 더욱 로골화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미끼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에 침투하여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한편, 반동들을 매수하고 긁어모아 일부 신생독립국가들에서 반동적인 군사정변들을 더욱 빈번히 조작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들을 우경에로 돌려세우며 반제전선에서 하나하나 떼여내려고 꾀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적극 재생시킴으로써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쟁의 발원지를 만들고있으며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평화와 인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미제국주의가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인류의 가장 흉악한 공동의 원쑤라는것을 말하여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전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입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세계는 결코 평온할수 없으며 침략과 전쟁은 없어질수 없습니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없으며 민족적해방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룩할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을 종국적으로 타승할 때까지는 혁명의 기치를 높이들고 반제반미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적들이 우리에게 새 전쟁을 강요한다면 전체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의 위대한 사회주의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영웅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설것이며 원쑤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줄것입니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의 앞잡이들과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데 모든 반동세력들을 끌어들이는것은 미제의 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정책을 수행하는데서 여러 나라의 반동세력들에 의거하고있으며 이들은 미제국주의의 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실례로서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들수 있습니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일본과 서부독일에서는 인류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군국주의세력이 빨리 되살아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는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자라고있습니다. 이것은 아세아와 구라파 그리고 세계평화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수수방관할수 없는 엄중한 사태발전입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충실히 복무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또다시 아세아침략의 옛꿈을 실현하여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면서 조선과 다른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쟁계획까지 짜놓고있으며 그밖의 다른 지역들에 공공연히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새 전쟁을 적극 준비하고있으며 일본은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미제의 공급기지로 또한 공격기지로 복무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이며 아세아와 세계평화

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며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일본반동지배층의 침략적야망을 조장하여주는것으로 되며 아세아에서 미제의 지위를 강화하여주는것으로 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일본과 경제관계를 가지거나 미일간의 모순이 앞으로 격화되는 경우에 그것을 반제투쟁의 리익에 맞게 리용할수는 있으나 결코 여기에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용해시키거나 이것으로 하여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것과 함께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하며 일치한 행동으로써 그의 침략적야망을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를 타승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 없이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서 광범한 반제력량이 공동으로 미제국주의에 타격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야 할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미제의 힘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전략을 성과적으로 짓부실수 있습니다.

특히 혁명을 하는 작은 나라 인민들이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 미제국주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은 아무리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며 주체를 세우고 견결히 일떠서 싸운다면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더욱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 견결히 투쟁한다면 매 전선에서 인민들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미제국주의를 때려눕힐수 있습니다.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국놈들의 팔다리도 뜯어내고 머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여러 나라 인민들이 사면에서 공격을 들이대고 모두 달라붙어 각을 뜨면 그들은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의 힘을 과소평가하여도 안되지만 결코 과대평가하여도 안됩니다. 지구상의 온갖 제국주의가 다 그러한것처럼 미제국주의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더욱더 죽어가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취약성을 실증하여주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횡포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습니다. 다른 한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 앙양되고있으며 그 투쟁대렬은 더욱더 늘어나고있습니다.

미제를 괴수로 한 세계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의 완전한 멸망과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의 종국적승리는 필연적인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

국제관계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견지하고있는 일관된 정책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이 지역 인민들의 해방투쟁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제주의적의무로 인정하고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모든 힘을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웰남에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단호히 반대하고 영웅적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리 인민은 웰남인민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인정하고있으며 웰남민주공화국 정부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웰남인민과 함께 싸울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단호히 규

단하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는 형제적꾸바인민의 영웅적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나라인민들에게 열렬한 형제적인사를 보냅니다.

조선인민은 라오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무장간섭을 견결히 규탄하며 민족적독립을 위한 라오스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간섭을 반대하고 령토완정과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캄보쟈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국내독점자본을 반대하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일본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에 전투적련대성을 보냅니다.

조선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무력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수호하며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아랍련합공화국과 수리아를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번영을 위한 알제리, 기네, 말리, 꽁고(브), 탄자니아, 모리따니, 남부예멘, 예멘아랍공화국, 부룬디, 소말리아, 잠비아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인민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꽁고(킨),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 기네를 비롯한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반대하며 자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스미스도당의 비법적이며 일방적인 남로데시아《독립》책동을 반대하는 짐바브웨인민과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남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미제와 친미반동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영웅한 무장투쟁을 벌리고있는 베네수엘라, 꼴롬비아, 과떼말라, 볼리비아, 도미니카, 뻬루 인민들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합니다.

조선인민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자기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며 그들의 투쟁에 열렬한 성원을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편에 언제나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동지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전세계적규모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반제반미투쟁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일뿐만아니라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그들의 군사기지이며 우리 나라는 세계제국주의의 원흉과 직접 맞서있는 반제국주의투쟁의 가장 치렬한 전선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민족적 및 국제적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는 《샤만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여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첫침략기도에서부터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조선인민앞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해방전에는 일제의 조선강점과 그 식민지통치를 부추겨주었으며 해방후에는 일제

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직접 강점하고 새로운 식민지통치자로 군림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벌써 20년이상 남조선에서 가장 반동적인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을 자기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남조선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생지옥에 몰아넣었습니다. 해방후 오늘까지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감행한 온갖 만행들은 현대제국주의의 침략력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한페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자로서의 자기들의 더러운 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남조선이 마치도 《독립국》이며 거기에 그 어떤 독자적인 《정부》가 존재하는듯이 떠벌이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에 와서 그 누구도 속일수 없는 하나의 서투른 연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선인민은 단일한 민족으로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를 가지고 있을뿐입니다. 조선민족의 유일한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만이 전체 남북조선인민의 참다운 민족적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이른바 《대한민국정부》는 결코 남조선인민을 대표할수 없으며 그 어떤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정권입니다.

우리 공화국정권이 애국적이고 반제적인 정권이라면 남조선《정권》은 매국적인 정권입니다. 공화국정권은 오래전부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과 용감히 싸운 애국적혁명투사들에 의하여 령도되고있으나 남조선괴뢰정권의 력대통치자들은 례외없이 미일제국주의자들이 길러낸 그들의 앞잡이들이며 자기 상전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입니다. 오늘 남조선괴뢰정권에 들어앉아있는 현위정자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자들도 그의 모든 선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지난날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 민족의 반역자들입니다. 남조선의 현통치배들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15성상이나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피어린 투쟁을 하고있을 때 일본《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으며 반일투쟁에 나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무참히 탄압하고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제가 패망한 다음에는 상전을 바꾸어 미제국주의자들의 충실한 앞잡이로 되였으며 바로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강도적인 수법으로 《정권》을 가로챈 군사깡패들입니다.

공화국정권이 또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정권이라면 남조선의 이른바 《정권》은 철두철미 식민지적이고 예속적인 《정권》입니다.

공화국정권은 우리가 내놓은 강령에 기초하여 우리 자신의 손으로 세운 정권이며 우리 인민들의 자각적인 노력과 투쟁에 의하여 공고발전되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의 모든 대내외정책은 전적으로 조선인민의 민족적리익과 의사에 기초하여 세워지며 철저한 자주,자립, 자위의 원칙을 구현하고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남조선괴뢰정권은 처음부터 조선인민의 의사와는 어긋나게 미제국주의자들이 총칼을 휘둘러서 만들어낸 《정권》입니다. 미제강점자들은 해방후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세워진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자기들의 《군정》을 선포하였으며 남조선에 대한 공공연한 식민지적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정》이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치게 되자 자기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우려는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미군정청》의 간판을 이른바 《대한민국정부》로 바꾸어 달았던것입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바로 이와 같이 하여 세상에 생겨났으며 따라서 이 《정권》은 하나로부터 열까지 모두 미국강점자들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며 그들의 전쟁정책을 위하여 남조선의 모든것을 송두리채 내맡기고있습니다. 남조선의 괴뢰정권은 자기 상전의 지시에 따라 수많은 무고한 남조선동포들을 더러운 웰남침략전쟁터에 내몰아 미제의 대포밥으로 개죽음을 당하게 하고있습니다.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남조선의 이른바 《정권》이라는것이 얼마나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공화국정권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면 남조선괴뢰정권은 지주, 매판자본가들과 반동관료배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반인민적인 반동 《정권》이라는 사실도 더는 숨길수 없습니다. 이 《정권》의 이른바 《정책》은 모두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안일과 향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인민들을 략탈하고 착취하는데 돌려지고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사회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마련된 세상으로 되고있지만 인민대중에게는 생지옥으로 되고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의 실권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통치자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남조선의 이른바 《대한민국정부》는 사실상 그들의 군사적점령을 《합법화》하고 그 식민지통치를 가리우는 위장물로 존재하여왔으며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로 복무하여왔을뿐입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은 남녘동포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기 위하여, 그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자신의 결정적투쟁에 의해서만 억압자들을 뒤집어엎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기 위한 투쟁을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하며 여기에 모든 형태의 투쟁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이룩될수 없으며 인민들은 오직 혁명적방법에 의해서만 주권을 쟁취할수 있습니다. 물론 혁명력량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작은 규모의 투쟁과 큰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가지 투쟁형태를 옳게 배합하여 혁명투쟁을 발전시켜나아갈수 있습니다. 혁명이 간고하다고하여 유리한 정세가 다가오기만 기다리면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투쟁형태가 어떻든지간에 그것들은 모두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의 준비로 되여야 하며 그 결정적투쟁은 오직 폭력적방법에 의하여서만 승리할수 있는것입니다.

폭력투쟁이 없이 그 어떤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조선인민들이 주권을 쥘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력사는 아직까지 그 어떤 식민지통치자나 반동지배층도 혁명적폭력에 의하여 타도됨이 없이 스스로 인민대중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포기하고 정권을 내놓은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더우기 남조선에는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가 둥지를 틀고있으며 그들은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적야욕으로 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여러번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때마다 자기들의 무력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으며 인민들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소동을 벌리군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4.19봉기에 의하여 리승만괴뢰정권이 넘어진것은 사실에 있어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일대 붕괴를 의미하였으나 이때에도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려 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자유와 해방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에 가장 악랄한 군사파쑈통치를 세우는것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20여년동안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오직 전인민적인 항쟁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철저히 때려부실 때에만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으며 빼앗긴 인민주권을 도

로 찾을수 있다는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확대되고있으며 그것은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반미구국투쟁으로 발전하고있습니다. 투쟁은 점차 조직화되고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있으며 각계각층의 보다 광범한 군중속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자기들의 혁명조직을 더욱 확대하면서 도시와 농촌에서, 지하와 산중에서 지어는 감옥과 《법정》에서까지 원쑤들과 굴함없는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활동하고있는 혁명적무장소조들의 활동과 로동자, 농민, 어민, 군인, 청년학생, 언론인, 교육자 그리고 량심있는 민족자본가를 포함한 광범한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고있으며 그들을 일대 혼란속에 몰아넣고있습니다.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쌓아올린 고귀한 투쟁업적들은 우리 나라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있는 애국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북조선의 침입》으로 묘사하며 남조선 혁위기의 원인이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있는듯이 떠벌이면서 요란한 반공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최근에 남조선괴뢰들이 북조선의 소행이라고 떠들고있는 통일혁명당사건은 이의 뚜렷한 실례의 하나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련된 100여명에 이르는 혁명투사들은 모두다 남조선의 대학교수들과 언론계인사들, 군인들, 공무원들입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과연 북조선사람들의 소행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허위와 기만을 일삼는 남조선괴뢰통치집단의 철면피하고 어리석은 책동이며 사람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 그들의 상투적인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인민들의 반항이 있는 법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파쑈테로통치밑에서 더는 견딜래야 견딜수 없게 되여 앉아서 죽느니 보다는 차라리 일어서서 싸워야 한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제도를 전복하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싸우고있는것입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의 혁위기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미제의 식민지통치 그 자체의 산물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결코 숨길수 없습니다.

미제와 그 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과 온갖 기만술책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을 통하여 더욱더 각성되고 단련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야말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자라나게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적당한 때가 오면 반드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을 타도함으로써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남조선혁명은 발톱까지 무장한 강대한 적을 상대로하고있는것만큼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며 그 앞길은 의연히 간고합니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아무리 간고하다고 하여도 그들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지난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일본제국주의와 싸울 때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투쟁하고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국가적후방도 없었고 정규적무력의 지원도 전혀 없었으며 국제혁명력량의 지원도 지금처럼 강하지 못한 조건에서도 15성상이나 무적을 자랑하던 일제와 싸워이겼습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이와는 달리 나라의 북반부에 위력한 혁명기지를 가지고있으며 북반부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할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남조선인민들과 힘을 합하여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 결정적투쟁에 동원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습니다.

미제가 쫓겨가고 남조선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하여 인민들이 자기 손에 정권을 쥐게 되면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민주주의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은 성취될것입니다.

조국통일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잠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 최대의 과업입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 20여년동안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남북이 갈라져서는 결코 살수 없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남북통일을 실현하자는것입니다. 우리의 이 평화통일방안은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력대위정자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이 정당한 방안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하여 매번 침략적도발행동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미제와 그의 력대앞잡이들이 부르짖는 《공산화의 위협》이니, 뭐니 하는 구호들은 다 우리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방패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유엔감시하의 선거》란 사실에 있어서 전조선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손에 내맡기자는 술책밖에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 남조선의 매국도당은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평화통일이란 말만 해도 인민들을 마구 잡아가두며 엄벌에 처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적통일이란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은 오직 남조선에서 현괴뢰정권을 뒤집어엎고 진보적세력들이 정권을 쥔 다음에야 실현될수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관한 우리의 주장은 결코 미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배제하는것이 아니며 이것은 민족의 원쑤들과의 그 어떤 《타협》이나 사회제도의 이른바 《평화적이행》에 관한 《리론》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한나라의 비극적인 분렬을 끝장내고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로부터 빼앗긴 자기의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으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요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구체적방도가 어떻든지간에 조국통일은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괴뢰정권을 때려부신 다음에야 비로소 이룩될수 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이 승리하고 조국이 통일되면 그날부터 우리는 3천리강토우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힘과 지혜를 합치고 나라의 풍요한 부원을 통일적으로 개발리용하여 이 세상에 부러울것 없는 살기 좋고 부강한 조국, 더욱 번영하는 새 조선을 건설할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은 혁명력량을 더 빨리 준비하고 대중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보다 힘차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북반부인민들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계속 힘차게 지원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전투적련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년동안의 투쟁로정을 통하여 자기의 불패의 생활력과 위력을 뚜렷이 증명하였으며 공화국의 기치밑에 조선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국은 류례없는 번영기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매우 홍겹고 보람차게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면서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로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었습니다.

세련된 맑스-레닌주의적당에 의하여 령도되며 주권을 자기의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있으며 온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는 조선인민은 자기의 정당한 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언제나 승리할것입니다.

모두다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경축 연회에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친애하는 동지들!

존경하는 외국의 벗들!

오늘 우리 인민은 커다란 기쁨과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경사스러운 민족적명절을 맞이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전체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우리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우리의 모든 혁명렬사들에게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그 유가족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동지들과 벗들!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란 한개 국가의 력사로서는 그리 오랜 시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 공화국은 로동당의 령도밑에 간고하고도 자랑찬 투쟁의 길을 걸어왔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참말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나라의 모든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변이 일어났으며 자연도, 사회도, 사람들도 다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위한 지난 20년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훌륭히 꾸려나갈수 있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져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형편은 매우 좋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힘있는 사회주의국가로서 날로 륭성발전하고있으며 그 국제적지위는 끊임없이 높아가고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당과 공화국정부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있으며 온 나라가 화목하고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습니다.

날로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우리의 투쟁은 매우 보람찬것으로 되였으며 우리의 생활은 혁명적정열과 혁명적락관으로 넘쳐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로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의 가일층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큰 신심과 보다 광명한 전망을 가지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수행에서도 우리는 마지막 돌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벌써 일련의 공업부문들에서 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점령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계속 긴장된 투쟁을 벌림으로써 명년에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승리적으로 점령하여야 할것입니다.

7개년계획이 완수되면 우리 나라는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될것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의 장성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미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으로 됩니다.

남반부인민들은 우리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성새로 바라보며 공화국의 륭성발전에 끝없이 고무되면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습니다.

나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와 전체 북반부인민들의 이름으로 원쑤들의 야만적폭압과 테로를 박차고 남조선각지에서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게 열렬한 성원을 보냅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으며 인민들의 혁명적기세는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

그 어떠한 힘으로도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한사람같이 일떠선 전체 남북조선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은 종국적으로 파탄될것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고야말것입니다.

오늘 60만 재일조선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기들의 참다운 행복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당당한 독립국가의 공민으로서 자기들의 권리를 요구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나는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재일동포들에게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에게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과 벗들!

이번에 수많은 외국의 동지들과 벗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준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으로 되며 우리의 명절을 더욱 즐겁게 하여줍니다.

이것은 우리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입니다.

나는 우리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귀중한 외국손님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민은 당신들을 자기의 친근한 벗으로서 맞이하고있으며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함께 싸우는 인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친선과 련대성의 뚜렷한 표현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전세계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웰남에서의 미제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단호히 규탄하며 웰남인민의 영웅적반미구국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조선인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나라들의 계급적동맹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밑에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의 편에 언제나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생활상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며 그들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과 반동세력은 멸망을 면치 못할것이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것입니다.

나는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맞이하면서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민족의 더욱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우리의 명절을 축하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와 아프리카, 구라파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 1968년 2월 8일)

김 일 성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의 친근한 외국의 벗들!

오늘 우리는 커다란 혁명적자부심과 높은 민족적긍지를 가지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경축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뜻깊은 력사적명절을 맞이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웅적인민군 륙해공군 및 경비대의 모든 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과 아름다운 청춘을 바친 항일혁명선렬들과 인민군영웅전사들에게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그들의 유가족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 함께 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피흘려 용감하게 싸웠으며 오늘도 계속 사회주의건설의 로력전선에서 혁명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있는 모든 영예군인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대표자회결정과 당의 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방위력을 굳건히 다지고있으며 인민군대를 자기의 혈육처럼 극진히 사랑하며 원호하고있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동지들과 벗들!

우리가 인민군대를 창건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20년동안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영광에 찬 승리의 행로를 줄기차게 걸어왔습니다. 20년이란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에 비추어보면 그리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인민군대는 시련도 많이 겪었고 피도 많이 흘렸으며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왔습니다.

인민군대는 자기의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으로써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으며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우리 당의 혁명력사에 찬란한 업적을 기록하여놓았습니다.

인민군대는 평화적건설시기에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와 새 조국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을 내외원쑤들의 침략책동과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인민군장병들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집단적영웅주의와 무비의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용감하게 투쟁함으로써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켜냈습니다. 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단련된 인민군용사들은 전후시기 원쑤들의 거듭되는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왔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혁명의 전취물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과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군장병들이 흘린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그들이 발휘한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인민군대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전체 인민의 깊은 사랑과 다함없는 존경을 받고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20년이 지나고 보니 인민군대의 면모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20년동안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세찬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의 시련속에서,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가렬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자라났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정신상태는 매우 훌륭합니다. 군대내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있으며 모든 군인들이 당과 혁명을 목숨으로 보위하려는 한결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장병들간의 동지적우애와 자각적규률,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 이 모든 아름답고 고상한 기풍이 인민군대의 온 대오를 지배하고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것이 어떠한 제국주의침략군대도 가질수 없는 우리 인민군대의 특성입니다. 인민군대는 이러한 정치도덕적우월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싸움에서 굴할줄 모르며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침략군대도 능히 격파할수 있는것입니다.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장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지휘관들의 지휘능력이 훨씬 높아졌으며 그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인민군대는 최신무기로 장비되였으며 모든 장병들이 다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혁명무력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하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장구한 기간에 걸쳐 일제의 조선주둔군 및 관동군과 싸워이겼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침략군대도 때려부셨으며 유격전쟁도 해보고 현대전쟁도 해본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임의의 정황에서 어떠한 제국주의침략군대도 능히 싸워이길수 있는 능숙하고 세련된 령군술과 전투력을 가진 혁명군대로 자라났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인민군대렬의 질적구성도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특별히 기쁘게 하는것은 인민군대의 핵심인 혁명적골간이 수많이 자라난것입니다. 인민군대가 창건될 때에는 준엄한 혁명의 시련속에서 단련된 혁명적골간이 수천명에 지나지 않았다면 20년이 지난 오늘 인민군대내에는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가한 오랜 혁명투사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혁명적골간이 수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모든 군종, 병종에 걸쳐 우수한 군사정치간부들로 믿음직하게 꾸려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동안 인민무력건설에서 우리가 거둔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인민군대의 혁명적골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당의 귀중한 핵심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매우 고귀한 밑천입니다.

인민군대의 혁명적골간이 많이 자라난것과 함께 전반적대렬구성에서도 질적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인민군대대렬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속에서 자라나고 공산주의적으로 교양받은 새세대들로 꾸려졌으며 또 부단히 보충되고있습니다. 인민군장병들은 모두가 다 우리 당의 정확한 교육정책에 의하여 중등 및 기술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은 높은 기술문화수준의 소유자들입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최신군사과학기술로 무장하고 그 어떤 복잡한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도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빨리 자라날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군대의 혁명적골간이 이와 같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혁명대오가 질적으로

강화된것을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지고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되고 현대적군사과학기술과 최신군사기술기재로 굳건히 장비된 정규무력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입니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전국을 요새화하기 위한 거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튼튼한 자위적태세를 갖추고있습니다. 특히 풍부한 전투경험과 군사기술을 가진 수많은 제대군인들이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도시와 농촌들에서,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면서도 조국보위사업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의 위력은 더욱 튼튼히 담보되여있습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철벽같은 방위력을 마련하여놓았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결코 자만할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놓은 일보다 앞으로 하여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혁명을 완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철천지원쑤인 미제국주의도 아직 살아있고 일본군국주의도 되살아나고있습니다. 미제가 강점한 남조선에는 지주, 자본가들과 친미, 친일 주구들의 반동관료집단이 그대로 둥지를 틀고있습니다. 원쑤들이 있는한 우리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무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와 아세아의 전반적정세는 매우 긴장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침략전쟁에서 당하고있는 참패를 만회하여보려고 미쳐날뛰고있으며 전쟁을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 확대하려 하고있습니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은 이미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요즘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나포사건과 관련하여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놈들은 남조선과 우리 나라의 동해안일대에 숱한 침략적무력을 끌어다놓고 전쟁태세를 갖추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있습니다.

우리 령해에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침범한데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날강도적인 해적행위이며 주권국가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계획적인 책동의 일환인것입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계속 무력을 동원하여 위협공갈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들은 이로부터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을것입니다. 있다면 오직 시체와 죽음뿐일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며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더 큰 참패를 당하리라는것을 단단히 각오해야 할것입니다.

최근의 모든 사태발전은 미제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모든 인민군장병들과 로농적위대원들 그리고 전체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있을수 있는 전쟁도발에 대처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언제나 동원된 태세에서 자기 초소를 굳건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침략자들이 함부로 덤벼든다면 그들을 일격에 때려부실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대표자회와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경제건설과 국방

건설을 병진시키며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군사기술적으로 더잘 단련된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그들을 당과 혁명에 충실한 공산주의투사로 키우며 우리 군대의 위력을 강화하는 기본담보로 됩니다.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부대들에서 전투훈련을 더욱 정력적으로 전개하여 모든 군인들이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충분히 소유하며 최신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군대를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군사과학기술을 널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방사업은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 사업입니다. 인민군대와 함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기관, 기업소들,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로농적위대원들과 전체 인민이 무장하며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전쟁경험을 꾸준히 연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연과 후방을 막론하고 나라의 모든 곳에 방위시설을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온 강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 대한 원호사업에 전당적, 전인민적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인민군대를 지원하며 전체 인민이 인민군장병들을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도와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앞에 맡겨진 군사적임무를 더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발악하고있지마는 오늘 전반적정세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의연히 유리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아세아,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대렬이 더욱더 늘어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책동으로도 앙양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야 말것입니다.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것이며 적들의 전쟁도발음모를 저지파탄시키고 조선에서의 평화를 수호할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것입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필승불패입니다.

우리는 인민군 장병들이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주위에 굳게 뭉쳐 우리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며 당과 인민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나는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면서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인민군대의 부단한 강화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혁명무력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항일투사들을 비롯한 인민군대내 혁명적핵심과 골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인민군대와 경비대의 모든 장병들의 건강과 그들의 군사전투임무수행에서의 더욱 큰 성과를 위하여,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고있는 로농적위대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전체 인민들과 여러 간부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명절을 축하하여 이 자리에 모인 각국의 외교대표들 및 무관들의 건강과 사회주의나라들의 전투적단결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체 게바라 전사 한돐에 즈음하여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기관리론잡지 《뜨리꼰띠넨딸》 제8호에 발표하신 론문 1968년 10월 8일)

김 일 성

라틴아메리카인민이 낳은 불굴의 혁명투사이며 참다운 국제주의전사인 에르네스또 체 게바라동지가 볼리비아의 전투마당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때로부터 1년이 가까와오고있다. 조선인민은 전세계혁명적인민들과 함께 불타는 적개심과 깊은 애도의 뜻을 가지고 체 게바라동지의 서거 한돐을 맞이하고있다.

체 게바라는 일찌기 청년시절부터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섰으며 피압박인민들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쳤다.

중세기의 종교적 및 정치적 환상에 의하여 은폐되고있던 착취를 공공연하고 파렴치하며 직접적이고 잔인한 착취로 바꾸어놓았으며 사람의 인격적가치를 교환가치로 전환시킨 피비린내나는 근대부르죠아력사무대가 서막을 올린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지구상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투사들이 낡고 썩은 모든것을 쓸어버리고 전사회구조를 혁명적으로 재편성하기 위한, 저주로운 낡은 사회의 상층부를 폭파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새 사회의 보금자리를 닦기 위한 혁명적폭풍우속에서 피를 흘렸으며 목숨을 바쳤다. 체 게바라는 이 성스러운 투쟁에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침으로써 세계혁명렬사대렬의 영광스러운 한 성원으로 되였다.

체 게바라는 투쟁에서 지칠줄 모르는 불굴의 혁명가였으며 편협한 민족주의적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참다운 국제주의전사였다. 그는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 견결한 혁명투사, 참다운 국제주의자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체 게바라는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비롯한 꾸바혁명가들과 함께 영웅적인 무장투쟁을 벌려 미제와 그 앞잡이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때려부시고 꾸바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965년에 체 게바라는 불타는 혁명열의를 가지고 승리한 꾸바땅을 떠나 수많은 난관과 준엄한 시련이 기다리는 새로운 초소에로 투쟁무대를 옮겼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에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였으며 그 앞장에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용감하게 싸웠다.

체 게바라의 이러한 혁명적활동은 꾸바혁명의 승리를 더욱 공고히하고 전반적라틴아메리카혁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사회주의혁명의 첫승리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위대한 10월혁명의 계속이다. 꾸바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미제의 세습령지로 간주되였던 라틴아메리카에 오늘은 사회주의의 붉은 기치가 높이 휘날리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진영이 서반구에까지 확대되고 그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오늘 라틴아메리카혁명의 맨 앞장에서 확고하게 나아가는 꾸바공화국은 싸우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의 앞길에 승리의 서광을 비쳐주고있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서반구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온 라

틴아메리카를 혁명적폭풍우속에 휘몰아넣고 이 지역 인민들을 독립과 자유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실로 꾸바혁명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의 붕괴의 발단이였으며 장구한 기간 이 지역 인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던 미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였으며 멸망의 선고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를 공고히 하는것은 꾸바인민의 생사흥망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일뿐만아니라 전반적라틴아메리카혁명발전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혁명은 한나라에서 찬란한 성과를 거두면서 시작되여도 상당한 고통스러운 진통의 시기를 겪게 된다. 국제자본주의의 포위속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정권을 장악한 나라들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혁명적이행의 전력사적시기에 제국주의의 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협을 면할수 없다. 전복된 착취계급들이 빼앗긴 자기들의 옛지위를 되찾으려고 언제나 시도하며 외래제국주의자들이 무력침공과 정치사상적와해를 위한 음모책동을 끊임없이 계속한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라틴아메리카의 반동들은 꾸바공화국의 존재자체를 몹시 미워하고 무서워하며 꾸바공화국을 교살하기 위하여 집요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들은 꾸바혁명을 말살함으로써 서반구를 배회하고있는 공산주의의 《유령》을 몰아내고 라틴아메리카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있는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막아보려고 꾀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직접 자기들의 무력을 동원하여 꾸바를 압살하려고 꾀하는 한편, 저들의 지배와 예속밑에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반동적독재정권들을 사촉하여 꾸바에 대한 정치경제적압력을 가하며 봉쇄정책으로써 꾸바를 질식시키려 하고있다.

국제자본의 포위속에서 주권을 잡은 인민들이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세계사회주의혁명의 다른 부대들의 믿음직한 후원을 받아야 하며 만국의 로동계급과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의 광범한 국제적협조를 받아야 한다. 말하자면 세계의 대다수 나라, 적어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이 련속적으로 일어나 제국주의적포위를 사회주의적포위로 바꾸어야 하며 사회주의국가를 포위하고있는 제국주의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세계적체계에로의 전환의 길을 열어놓아야 하며 포위당한 일국의 사회주의요새의 고립성을 없애고 국제로동계급과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의 강력한 뉴대를 이루어놓아야 한다. 오직 이렇게 될 때에라야만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과 자본주의복구의 시도를 완전히 면할수 있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가 보장되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자본의 힘이 국제적인것처럼 국제적인 운동이다. 개별적인 나라들의 혁명운동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다. 매개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으며 세계혁명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고있다. 먼저 승리한 혁명은 자기의 경험과 모범으로써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의 혁명을 도와주고 자기의 정치경제군사적힘으로 세계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아직 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정책으로부터 승리한 다른 나라 혁명을 보위하고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은 세계혁명운동발전의 법칙이며 이미 인민들의 해방투쟁과정에서 이룩된 훌륭한 전통이다.

꾸바혁명은 세계혁명의 유기적인 한부분이며 특히 라틴아메리카혁명의 결정적인 고리이다.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그 승리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은 꾸바인민들의 의무일뿐만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피압박인민들과 세계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국제주의적의무이다. 세계자본주의체계에 첫돌파구를 낸 로씨야에서의 10월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는것이 세계혁명발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였다면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체계에 첫

돌파구를 낸 꾸바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는것은 라틴아메리카혁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꾸바혁명을 보위하기 위하여서는 그 주변에 있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혁명운동을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면 미제의 힘은 그만큼 분산약화될것이며 힘을 집중하여 꾸바를 질식시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책동은 파탄을 면치못할것이다. 더 나아가서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몇개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면 꾸바는 제국주의의 사면포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꾸바와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에는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며 세계혁명은 더욱 촉진될것이다.

혁명이 일어나려면 혁명의 주객관적정세가 조성되여야 한다. 혁명은 매개 나라에서 객관적혁명정세가 조성되는 구체적실정에 따라 전개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혁명이 저절로 발전될수 있다거나 성숙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혁명은 반드시 혁명가들의 적극적이고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전진될수 있으며 성숙될수 있다. 혁명이 간고하다고 하여 유리한 정세가 오기만 기다리면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혁명력량을 장성시킬수 없다. 혁명력량은 투쟁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마련될수 없으며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장성강화될수 있다.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그것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장성시켜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비록 객관적정세가 조성되였다 할지라도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없게 될것이다. 희생을 피한다는 구실밑에 혁명을 외면하는것은 사실상 인민들을 자본의 종신노예로 되라는것이며 참혹한 착취와 압박, 모진 천대와 멸시,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영원히 참으라는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혁명적전환기의 급성적동통은 낡은 사회의 종양으로부터 오는 만성적고통보다는 훨씬 경한 법이다. 사회혁명은 백주에 탄탄한 대로를 따라가듯이 헐하게 될수 없으며 순풍에 돛을 단 배와 같이 순조롭게 전진하는것도 아니다. 혁명도상에는 험한 가시덤불과 파란곡절도 있을수 있으며 일시적인 실패와 부분적인 희생도 있을수 있다.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희생이 두려워서 혁명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다.

매개 나라 혁명가들의 과업은 국내외정세를 옳게 판단하고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옳게 타산한 기초우에서 과학적이고 면밀한 투쟁방법을 세우고 평상시에는 암초를 에돌고 필요없는 희생을 피하면서도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간고한 혁명의 시련속에서 핵심을 키우고 인민대중을 각성시켜 혁명력량을 축적하고 장성시키며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것이다. 그리하여 일단 혁명정세가 조성되면 때를 놓치지 말고 지체없이 반동통치를 짓부시는 결정적투쟁에 일떠서야 한다.

혁명투쟁의 형태와 방법도 역시 개별적인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와 그리고 반동통치계급의 반항여하에 따라 결정되는것이다. 혁명가들은 모든 투쟁형태에 다 준비되여있어야 하며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같은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방법을 옳게 배합하여 혁명운동을 실속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반혁명적폭력은 모든 착취계급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통치수단이다. 인류력사는 아직 어떤 통치계급이 자기의 지배권을 순순히 양보한 일을 알지 못하며 어떤 반동계급이 반혁명적폭력을 쓰지 않고 공순히 정권에서 물러선 실례를 알지 못한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은 멸망이 가까와오면 올수록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폭력수단에 더욱 더 필사적으로 매여달린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 나라 인민들을 탄압할뿐만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목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피압박민족들의 모든 혁명적진출을 류혈적으로 탄

압한다.

이런 조건에서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 착취계급의 반동적독재기구를 전복하는 혁명적폭력이 없이는 승리할수 없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혁명적무력으로써 반혁명적무력을 격파하여야 한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혁명의 불길은 이 지역에 조성된 혁명정세가 가져온 응당한 결과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절대다수의 나라들이 미제국주의의 완전한 지배와 예속 밑에 들어갔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 친미독재정권이 수립되였으며 이 나라들의 경제는 미국독점체들의 완전한 예속경제로 되였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략탈정책은 이 지역의 사회발전을 저애하는 기본질곡으로 되고있으며 이 지역 인민들을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라틴아메리카의 친미독재정권들은 군대와 경찰을 비롯한 각종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놓고 인민들의 온갖 혁명적진출을 가장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헐벗고 굶주리며 압박받고 천대받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일떠서 싸우지 않고서는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없다는것이 명백하다.

체 게바라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밑에 라틴아메리카의 혁명가들과 함께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이 지역 피압박인민들의 해방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희생을 무릅쓰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이고 영웅적인 혁명투쟁을 벌린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며 또 훌륭한 일이다.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은 라틴아메리카혁명가들과 함께 영웅적무장투쟁을 전개한 체 게바라의 용감한 행동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체 게바라의 빛나는 모범은 비단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뿐만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의 구감으로 되고있으며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고무하고있다.

체 게바라는 지금 우리 곁에 없다. 그러나 그가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것이다. 그의 이름과 그가 쌓아올린 불멸의 혁명적업적은 인류해방사에 영원히 기록될것이며 그의 고상한 혁명정신은 영생불멸할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투쟁의 결전장들에는 수천, 수만의 새로운 체 게바라가 나타날것이며 그가 다하지 못한 혁명위업은 라틴아메리카의 혁명가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가장 치렬한 반제전선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강력한 항쟁에 부딪치고있으며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이 지역에서 자기의 옛지위를 유지하며 잃어버린 진지를 되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위업은 끝나지 않았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살아있고 인민들을 억압하고 략탈하는한 인민들은 잠시도 반제국주의투쟁을 멈출수 없다. 투쟁은 지구상에서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쓸어버릴 때까지, 억압당하고 천대받던 모든 민족이 자기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사회적진보와 민족적 번영을 이룩할 때까지 계속되지 않으면 안된다.

제국주의는 쫓겨나지 않는한 식민지예속국가들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결코 버리지 않을것이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환상을 버려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야 한다.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고 견결한 반제투쟁을 강화하여야만 피압박민족들은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수 있으며 해방된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을 저지시키고 민족

적독립을 튼튼히 하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있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이며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다.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자기의 자주권과 령토를 침해당하고있거나 미제의 침략위협을 받고있는 나라는 아세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나라들만이 아니며 아프리카의 나라들만이 아니다.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미제의 발길이 닿는 곳에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데가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온 세계를 자기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변함없는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다름아닌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무력침공과 파괴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는것이다. 미제국주의의 이 침략적야망을 단호히 꺾어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 세계의 평화를 수호할수 없으며 민족적해방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이 명백하다. 반미투쟁은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회피할수 없는 공동의 의무이며 가장 선차적인 혁명과업이다.

미제국주의를 성과적으로 격파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의 세계전략을 철저히 간파하는것이 필요하다.

현시기 세계침략을 위한 미제의 기본전략은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대결을 피하면서 작고 분렬된 혁명적인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은 무력으로 각개격파하려 하며 사상적으로 나약하고 혁명을 하지 않으려 하며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공존만 부르짖으면서 인민들속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제국주의와 사이좋게 살기를 바라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사상정치적공세를 강화하여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 하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세계전략에 기초하여 군비를 대대적으로 늘이고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기지들과 침략적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면전쟁과 핵전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면서 웰남을 비롯한 일련의 지역들에서 《국부전쟁》과 《특수전쟁》을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와 함께 미제국주의자들은 로동운동의 대렬안에서 혁명을 두려워하는 비겁분자들을 매수하여 저들의 앞잡이로 리용하려고 미쳐날뛰는 한편, 일부 나라들에서의 《자유화》와 《민주주의적발전》을 조장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랭전에 매달리고있다. 그들은 《최혜국》대우니, 《동서간의 접촉과 교류》를 확대한다느니 하면서 그것을 수단으로 저들의 반동적사상문화를 침투시켜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타락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여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시도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신생독립국가들을 반제전선에서 하나하나 떼내기 위한 파괴활동과 전복음모를 감행하고있다. 그들은 로골적인 폭력에 의거하는것과 함께 《원조》를 미끼로 신생독립국가들에 침투하여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익반동들을 규합하여 진보적력량을 반대하게 하며 일부 신생독립국가들을 반혁명의 길로 돌려세우려 하고있다.

말하자면 미제국주의자들은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화살을 쥐고 휘두르면서 핵공갈과 《평화적침투》, 탄압과 회유기만을 결합하여 혁명적인 나라들은 무력침략으로 하나하나 먹어가며 사상적으로 나약한 나라들은 사상문화적침략으로 와해시키려고 꾀한다.

전세계인민들은 미제의 이와 같은 음모책동에 대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가져야 하며 있을수 있는 적들의 각종 침략에 대처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할것이다.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당파들과 모든 사람들, 모든 력량의 전투적단결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공통된 념원과 지향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그들의 혁명투쟁은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고있다. 라틴아메리카가 제국주의기반에서 신음하면 아세아와 아프리카인민들이 편안할수 없으며 아세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미제국주의가 망하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에도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긴밀한 뉴대는 반제반미혁명력량을 수배, 수십배로 강화할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국제반동들의 련합전선을 성과적으로 격파하는 불패의 힘으로 될것이다. 그러므로 미제가 도사리고있는 모든 지역 인민들이 힘을 합쳐 그를 뒈게 후려갈겨야 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는 사회주의국가도 있고 중립주의국가도 있으며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괴뢰정권들이나 추종국가들을 내놓고는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반제반미력량으로 된다.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은 국가사회정치제도와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같이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받아온 피압박민족으로서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있다. 국가사회정치제도와 정견과 신앙의 차이는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함께 하는데 결코 장애로 될수 없다. 매개 나라들은 공동의 적을 때려부시고 공동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반제통일전선을 이룩하고 반미공동행동을 취하여야 할것이다.

물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제투쟁에서 동요할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마지 못해 반제투쟁에 합류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어떻든간에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을 내놓고는 이 모든 력량을 반미공동투쟁에 끌어들이는것이 필요하다. 비록 불철저하고 견고치 못한 력량이라도 더 많은 력량을 반미공동투쟁에 끌어들여 미제를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그에게 공동으로 타격을 가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반제투쟁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반제투쟁에 나서도록 하며 반제투쟁에서 소극적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여야 한다. 반미통일전선을 분렬시키거나 반미공동행동을 거부하는것은 반제반미투쟁을 약화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뿐이다.

미제국주의와 싸워이기려면 큰 나라나 작은 나라 할것없이 모든 나라들에서 미제에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에 의존하려는 사대주의를 버리고 반미투쟁에 적극 나서는것이 중요하다. 큰 나라들이 싸우지 않으면 미제를 때려부실수 없는것처럼 여기는것은 잘못이다. 물론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과 같이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면 더욱 좋다. 그렇기때문에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들과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큰 나라가 아니고는 미제와 싸워이길수 없는것은 결코 아니다. 큰 나라들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혁명을 할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하여 혁명을 해줄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작은 나라들도 주체를 세우고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일어나 싸운다면 큰 적을 타승할수 있다. 이것은 실생활에 의하여 확증된 우리 시대의 아주 명백한 진리이다. 조선전쟁의 경험이 이 진리를 증명하여주었으며 꾸바혁명의 승리와 웰남인민의 영웅적반미구국항전이 또한 이 진리를 훌륭히 증명하여주고있다.

더우기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 싸우면 인민들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력량으로 아무리 강대한 원쑤라도 능히 때려눕힐수 있다.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함께 달라붙어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곳에서 그의 왼팔과 바른팔을 뜯어내고 왼다리와 바른다리를 뜯어내며 나중에는 머리를 잘라버려

야 한다. 지금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허장성세하지만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달라붙어 각을 뜨면 미제국주의는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결국은 녹아나고 말것이다. 우리는 작은 나라들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의 전략에 대하여 작은 나라들이 달라붙어 미제국주의의 두족을 각개 절단하는것으로 대답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미제를 타승하기 위한 작은 나라들의 투쟁전략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20년이상이나 투쟁하고있다. 조선혁명은 국제혁명운동의 한부분이며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인민들의 공동투쟁속에서 발전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민족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국제혁명운동의 전반적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력량과 단결하며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시종일관 지지하고있다. 우리는 이것을 조선혁명승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하고있다.

제국주의는 자기의 시대를 다 산 죽어가는 력량이며 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인류의 진보를 지향하는 새로운 력량이다. 인민들의 해방투쟁도상에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장애들이 가로놓여있고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을수 있지마는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승리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의 앙양되는 해방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지만 그것은 멸망하는자들의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고있다. 미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여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의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드시 쫓겨나고야 말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와 그의 부인을 맞이하여 비행장에서 하신

김일성수상의 연설

(1968년 6월 22일)

존경하는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대통령각하와 부인,

존경하는 탄자니아의 손님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탄자니아련합공화국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니에레레대통령각하와 부인과 기타 탄자니아의 손님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탄자니아의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심정에 휩싸여있습니다.

대통령각하!

당신은 머나먼 아프리카의 동부에서 탄자니아인민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에 왔습니다.

조선인민과 탄자니아인민은 오래전부터 끊을수 없는 굳은 친선의 뉴대로 련결되여있습니다.

조선과 탄자니아는 지난날 다같이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억눌려왔으며 두 나라 인민은 오늘 제국주의식민주의의 기반을 벗어던지고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면서 새 사회를 힘차게 건설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서로의 처지를 더잘 리해하고있으며 서로 더 긴밀히 협조하여나아가고있습니다.

이러한 호상 지지와 련대성의 강화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합니다.

조선인민은 니에레레대통령의 령도밑에 번영하는 새 탄자니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탄자니아인민이 거두고있는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며, 아프리카의 종국적해방과 통일을 위한 위업에 바치고있는 탄자니아정부와 인민의 고귀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있습니다.

대통령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간에 맺어진 친선의 명백한 시위이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경사로 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의 대진군에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새 기적을 창조하면서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아가고있는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할것입니다.

대통령각하와 탄자니아의 귀빈 여러분들은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것이며 탄자니아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정을 몸가까이 느끼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번 방문이 두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획기적계기로 되며 나아가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공동위업에 이바지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대통령각하와 부인과 그리고 탄자니아의 귀한 손님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자기 집에서와 같이 유쾌한 나날을 보내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인민과 탄자니아인민간의 친선단결 만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만세!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 대통령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1968년 6월 22일)

존경하는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대통령각하와 부인,

존경하는 탄자니아의 손님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니에레레대통령을 비롯한 탄자니아의 벗들과 이처럼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탄자니아련합공화국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니에레레대통령과 부인, 그리고 탄자니아의 귀한 손님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선과 탄자니아사이에는 비록 대양과 대륙이 가로놓여있지만 지난날의 력사적처지의 공통성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두 나라 인민들은 가까운 벗으로, 친근한 형제로 결합되여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탄자니아련합공화국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된후 우리 두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협조관계는 각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탄자니아인민에 대하여 존경과 친선의 정을 품고있습니다.

탄자니아인민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동부아프리카에서 맨 선참으로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용감한 인민입니다.

독립후 탄자니아인민은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대통령각하의 령도밑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부단한 침략과 간섭책동을 물리치면서 자력갱생하여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며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아루샤선언》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있습니다.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탄자니아인민이 달성하고있는 이 모든 성과들은 새생활을 건설하고있는 아프리카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고있습니다.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정부는 쁠럭불가담의 평화애호적대외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및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와 인민은 남아프리카와 남로데시아의 소수백인인종주의정권을 적극 비호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으며 아프리카인민들의 정의의 해방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탄자니아 정부와 인민의 이 정당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당신들이 달성한 모든 성과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따라 나아가는 탄자니아인민의 미래는 휘황할것입니다.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대통령각하와 탄자니아의 귀빈 여러분들은 이번 우리 나라 방문에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국방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하여놓은 성과들을 직접 보게 될것이며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절절한 념원에 대하여 더잘 알게 될것입니다.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정부와 탄자니아인민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남북조선인민들자신의 손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주고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니에레레대통령각하와 탄자니아정부에 뜨거운 사의를 표합니다.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남북조선에서 광범히 전개되고있는 조선인민의 장엄한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성취되고야 말것입니다.

오늘 조성된 전반적정세는 세계 모든 반제력량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울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을 종국적으로 몰아내기 위하여 이 지역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웰남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원하며 짐바브웨,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 기네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공동투쟁에서 언제나 탄자니아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그의 믿음직한 벗으로 남아있을것입니다.

나는 화기와 친선의 정이 넘치는 이 자리에서 탄자니아인민의 행복과 탄자니아련합공화국의 번영을 위하여, 조선인민과 탄자니아인민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대통령각하와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탄자니아의 귀한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각국외교대표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것을 제의합니다.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와 그의 부인이 차린 연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1968년 6월 24일)

존경하는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대통령각하와 부인,

존경하는 탄자니아의 귀한 손님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나는 오늘 니에레레대통령각하와 부인이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주었으며 그리고 방금 대통령각하께서 조선인민에 대하여 따뜻하고 친선적인 말씀을 하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바입니다.

우리의 친근한 벗인 니에레레대통령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은 끝나가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탄자니아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니에레레대통령각하와 그 일행을 진심으로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당신들은 탄자니아인민이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우리 근로자들에게 전하여주었으며 미제침략자들의 격화되는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여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을 고무하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번에 친선적이며 호상 리해의 분위기속에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더 다정하고 가까와졌으며 두 나라 인민들은 서로의 리해를 더 깊게 하였습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두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과 단결을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우리들의 공통된 립장은 조선인민과 탄자니아인민의 념원을 반영한것으로서 두 나라 인민뿐만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인민들의 리익에도 부합됩니다.

대통령각하!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 인민들은 공통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은 서로 지지협조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련합된 힘을 무엇보다도 두려워 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을 반제전선에서 떼내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발악하더라도 인민들의 친선과 단결을 깨뜨릴수 없으며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오늘의 아세아, 아프리카인민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억압받고 천대받던 어제날의 인민들이 아닙니다.

자유와 독립을 찾은 아세아, 아프리카인민들은 민족적긍지와 승리의 신심과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되여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한 두 대륙인민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발휘하면서 새생활건설에 일떠서고있습니다.

자력갱생,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길은 지난날 가난하고 락후하던 나라를 부강하고 발전된 나라로 되게 하는 빠른 길이며 억눌리고 헐벗고 굶주리던 인민을 힘있고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인민으로 되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명백한 진리입니다.

반제반미기치밑에 자력갱생하여나아가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은 수세기에 걸친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후과를 청산하고 반드시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 새 아프리카를 건설할것입니다.

조선인민과 탄자니아인민은 자기들의 정당한 투쟁으로써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공동의 위업에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니에레레대통령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가져온 모든 훌륭한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조선인민은 니에레레대통령각하의 령도밑에 탄자니아인민이 《아루샤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으로 더욱 커다란 성과를 달성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끝으로 조선인민과 탄자니아인민간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탄자니아련합공화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니에레레대통령각하와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탄자니아의 귀빈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것을 제의합니다.

일본공산당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1968년 8월 25일)

존경하는 미야모도겐지동지!

친애하는 일본공산당대표단원동지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미야모도겐지동지를 비롯한 형제적일본공산당의 여러동지들과 이처럼 화기에 넘치는 친선의 분위기속에서 자리를 같이 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우리 당원들의 이름으로 미야모도겐지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공산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번 일본공산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일 량당 및 량국인민들간에 맺어진 전통적인 친선과 전투적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고있는 우리 두 나라 혁명을 전진시킴에 크게 기여할것입니다.

오늘 일본공산당은 일본로동계급의 전위대로서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립각하여 일본혁명을 자주적립장에서 령도하고있으며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있습니다.

일본공산당은 미일반동들의 갖은 박해하에서도 광범한 민주력량을 단합하여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전개하고있습니다.

일본공산당은 일본인민의 선두에 서서 미제의 《남침략을 반대하며 일미 《안보조약》과 《일한조약》을 폐기하며 미군사기지를 철거시키고 오끼나와의 전면반환을 실현하며 군국주의부활을 반대하고 헌법과 선거제도의 개악을 저지시키며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습니다.

오늘 일본공산당은 창건이래 최대의 조직력량으로 장성하였으며 당내에 잠입한 각종 기회주의자들과 반당종파분자들의 분렬파괴책동을 폭로분쇄하고 당대렬의 통일과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였습니다.

일본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그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오늘 일본공산당은 일본의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두터운 신임과 높은 권위를 쟁취하였으며 그의 국제적지위도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

일본공산당의 령도하에 일본인민은 오늘 미제국주의와 그의 충실한 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의 전쟁, 재침략 책동과 일본독점체들의 착취와 수탈을 반대하며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일본공산당과 일본인민이 달성한 모든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일본공산당을 선두로 하는 일본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당은 조성된 국내외정세와 우리의 혁명임무로부터 출발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 나라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당중앙위원회 주위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단결하여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강령적인 과업과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강화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공산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으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의 옹호를 위한 재일조선공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일본공산당 및 일본인민과의 친선단결을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조선과 일본의 공산주의자들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여온 혁명전우들이며 오늘도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어깨겯고 싸우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미야모도겐지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공산당대표단과 또다시 량당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협의할수 있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량당 및 량국인민들간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것입니다.

나는 조일 량당, 량국인민들간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반제혁명력량의 단결을 위하여, 노사까산조동지와 미야모도겐지동지를 비롯한 일본공산당 지도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일본공산당대표단 성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축 하 문

조선인민군 제661군부대 병사, 초급지휘원, 군관동지들에게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이며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웠으며 당과 인민과 사회주의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조국의 방선을 튼튼히 지키고있는 조선인민군 제661군부대 병사, 초급지휘원, 군관동지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우리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쥔 조선인민이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커다란 승리였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창건된 때로부터 지난 20년동안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전투적길을 걸어왔습니다.

영웅적인민군대는 평화적건설시기에 공화국북반부의 민주기지와 새 조국 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무비의 용감성과 전례없는 대중적영웅주의, 애국적헌신성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와 15개 추종국가들의 무력을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습니다.

지난 3년동안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용한 인민군장병들이 당과 혁명과 인민앞에 세운 불멸의 전투적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쌓은 인민군용사들은 전후시기에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기도를 경각성있게 주시하면서 그것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조국의 안전과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튼튼히 보위하였습니다.

오늘 인민군대는 당주위에 굳게 뭉쳐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지키며 당이 주는 혁명임무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충실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되였으며 원쑤들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일격에 쳐부실수 있는 일당백의 강철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습니다.

오늘 인민군장병들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지키며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일편단심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하며 원쑤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울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습니다.

지난 20년동안 인민군대가 쌓아올린 영광스러운 전투적업적에는 조선인민군 제661군부대 군인들이 발휘한 영웅적위훈이 깃들어있습니다.

동지들은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원쑤들의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철저히 분쇄하면서 조국의 방선을 굳건히 지켰으며 또 지키고있습니다.

동지들은 당의 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전투정황속에서도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줄수 있는 높은 전투기능과 군사기술을 련마하였습니다.

동지들은 부대내에서 상하간, 동지호상간의 혁명적단결을 강화하고 강철같은 군사규률과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동지들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구호밑에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가지고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이긴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인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훌륭히 발휘하고있습니다.

동지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국가재산과 군사기재를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서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동지들이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당의 정확한 군사로선과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당과 혁명에 대한 인민군장병들의 무한한 충실성의 표현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기 위한 헌신적투쟁의 빛나는 열매입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조국과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인 강력한 자기의 군대를 무한히 신뢰하고 자랑하고있으며 인민군장병들에게 깊은 사랑과 존경을 보내고있습니다.

나는 당의 군사로선관철에서 동지들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언제나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하며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우고있는 조선인민군 제661군부대 전체 병사, 초급지휘원, 군관동지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체 인민은 우리 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되였으며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습니다.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으며 우리의 혁명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성과에 고무된 남조선인민들은 반미구국항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군사적침략정책을 반대하여 억세게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무장유격투쟁이 급격히 확대강화되고있습니다.

날로 장성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 극도로 당황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멸망에 직면한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하여보려고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총칼로 가혹하게 탄압하는 한편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습니다.

최근에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사분계선과 동서해안 일대에서 무분별한 도발책동을 더욱 격화시키고있으며 우리측 연해에 깊이 침투하여 정탐활동과 엄중한 침략행위를 감행하던 무장간첩선을 우리가 나포한것을 계기로 더욱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조성된 첨예한 정세는 군인들과 전체 인민이 혁명적경각성과 전투적긴장성을 한층 높이며 원쑤들의 그 어떤 악랄한 도발책동도 단호히 분쇄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태세를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은 당주위에 굳게 뭉쳐 우리 당이 내놓은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야 하며 원쑤들이 감히 우리에게 덤벼들 때에는 이를 용감하게 맞받아나아가 싸울것이며 침략자들을 섬멸하여야 할것입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조직된 우리 인민군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습니다.

부대내 모든 병사, 초급지휘원, 군관들은 인민군대의 숭고한 혁명적사명을 깊이 간직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목숨으로 지키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당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과 강하게 투쟁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모든 군인들은 당정책학습과 함께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여 모두가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일편단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싸워야 하겠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좌우경기회주의, 사대주의,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반혁명적사상조류들과 반당적이며 비계급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혁명정신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할것입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높은 계급의식과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당과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인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며 우리 조국강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남반부를 해방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부대내에서 혁명적동지애를 더욱 높이 발양하여 상하간 서로 돕고 이끄는 관병일치의 기풍을 세움으로써 부대를 공산주의적붉은집단으로 꾸리며 군대의 생명인 군사규률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할것입니다. 동지들은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계속 발양하여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것입니다.

인민군대를 간부화하고 현대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것은 우리의 군대를 불패의 무력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동지들은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에서 제시된 자위적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전투정치훈련을 더욱 정력적으로 전개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며 모든 군인들이 한등급이상의 높은 지휘관의 임무를 담당할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지휘관들이 높은 령군술과 조직수완을 소유하며 전체 군인들이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기 무기에 정통하고 원쑤들을 일격에 소멸할수 있는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높은 전투기능을 련마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조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적들과 직접 맞서서 싸우고있는 조건에서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며 원쑤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습도 무찌를수 있는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며 언제나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당의 전국요새화방침을 받들고 방어공사를 더잘하며 조국의 방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동지들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부대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려야 할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내 당정치사업을 강화하며 붉은기중대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군인들속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며 군사과업수행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제661군부대 병사, 초급지휘원, 군관동지들!

나는 동지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당중앙위원회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에서 제시된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1968년 2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 성

축 하 문

조선경비대 제2423군부대 병사, 초급지휘원, 군관동지들에게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당과 인민과 사회주의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는 조선경비대 제2423군부대 병사, 초급지휘원, 군관동지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였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조직된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경비대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20년동안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전투적행로를 걸어왔습니다.

영용한 경비대는 전쟁전 평화적건설시기에 38분계선과 국경, 해안 및 국가 중요시설물들을 보위하는 초소에 튼튼히 서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빈번한 무력침공과 간첩, 파괴, 암해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우리의 혁명적민주기지를 철옹성같이 수호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미제와 그 추종국가들의 침략군대를 쳐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당과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쌓은 조선경비대는 전후에 더욱더 당에 충실한 강철의 간부군대로 원쑤들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분쇄할수 있는 불패의 전투대오로 자라났습니다.

오늘 조선경비대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주위에 철석같이 뭉쳐 당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있습니다.

조선경비대의 전투행로는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일관되여있으며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발휘한 영웅적위훈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지난 기간 조선경비대가 쌓아올린 영광스러운 전투적업적에는 제2423군부대 군인들이 달성한 투쟁성과들이 깃들어있습니다.

오늘 조선경비대 제2423군부대 전체 군인들은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원쑤들의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면서 조국의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키고있습니다.

동지들은 우리 당의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조건속에서도 부과된 전투임무를 능숙히 수행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였습니다.

동지들은 언제나 당의 령도에 충실하였으며 부대내에서 상하일치, 동지호상간의 혁명적단결을 강화하고 강철같은 군사규률과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당에 의하여 창건육성되고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혁명무력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동지들은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한다는 일념으로 모든것을 바쳐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을뿐만아니라 인민들과의 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훌륭히 발휘하였습니다.

또한 동지들은 국가재산과 군사기자재를 애호관리하는데서 높은 창발성을 발휘하여 국가의 부담을 덜게 하였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동지들이 이룩한 이 모든 업적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우리 경비대장병들의 무한한 충실성과 강의한 투지와 용감성, 대중적영웅주의의 빛나는 구현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헌신적투쟁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리익의 수호자인 경비대와 같은 믿음직한 혁명적무장력을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전체 경비대군인들에게 깊은 사랑과 존경을 보내고있습니다.

나는 평화적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리고 전후시기에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동지들이 발휘한 위훈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경비대 제2423군부대 전체 군인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은 우리 당 중앙위원회주위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단결되였으며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비상히 강화되였습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고있으며 우리의 혁명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있습니다.

오늘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와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은 더욱 커가고있습니다.

최근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무장유격투쟁이 급격히 확대강화되는데 극도로 당황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멸망에 직면한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하여보려고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한편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사분계선과 해안연선 일대에서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련일 감행하고있으며 우리측 연해에 깊이 침투하여 정탐활동과 엄중한 침략행위를 감행하던 무장간첩선을 우리가 정당한 자위적조치로서 나포한것을 계기로 더욱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공화국북반부에 간첩, 파괴, 암해분자들을 대대적으로 파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파탄시키려고 미쳐날뛰고있습니다.

조성된 첨예한 정세는 군인들과 전체 인민이 혁명적경각성과 전투적긴장성을 더욱 높

이며 원쑤들의 그 어떤 악랄한 도발책동도 단호히 분쇄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태세를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인민군대와 경비대 그리고 전체 인민은 우리 당의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야 하며 원쑤들이 우리에게 감히 덤벼들 때에는 이를 맞받아나아가 싸울것이며 침략자들을 섬멸하고 승리를 쟁취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경비대는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철옹성같이 보위하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입니다.

전체 조선경비대 장병들과 함께 제2423군부대 병사, 초급지휘원, 군관들은 경비대의 사명과 임무를 항상 깊이 간직하고 일편단심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지키며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의 혁명적전취물을 굳건히 보위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은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에서 제시된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전투정치훈련을 더욱 정력적으로 전개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며 모든 장병들이 한등급이상의 높은 지휘관의 임무를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부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것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기 무기에 정통하고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높은 전투기능을 련마하여 모두가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경비대군인들은 당정책학습과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여 모두가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며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함으로써 어떤 풍파속에서도 추호의 동요 없이 오직 당과 인민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는 당의 붉은 전사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경비대군인들은 현대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사대주의,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반혁명적사상조류들과 당의 통일과 단결을 좀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혁명정신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할것입니다.

전체 경비대군인들은 높은 계급의식과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으로 무장함으로써 당과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며 미일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제도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며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인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며 우리 조국강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남반부를 해방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경비대장병들은 원쑤들과 직접 맞서서 싸우고있는 조건에서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습도 무찌를수 있는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언제나 최대의 경각성을 가지고 자기의 초소를 굳건히 지킴으로써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적발분쇄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은 긴장된 정세에 상응하게 모든 경비를 주도세밀하게 조직하고 인민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진행함으로써 어떤 교활한 원쑤들도 발붙일수 없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모든 군인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군사규정과 교범의 요구를 관철하며 부대내에 혁명적인 군사규률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동지들은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계속 발양하여 상하부간의 단결과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것입니다.

동지들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

여 부대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려야 할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내 당정치사업을 강화하며 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군인들속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며 군사과업수행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경비대 제2423군부대 병사, 초급지휘원, 군관동지들!

나는 동지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당중앙위원회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에서 제시된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1968년 2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 성

축 하 문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농촌경리부문일군들에게

우리 당의 농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 농업생산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관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올해 농업생산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당의 기대와 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당신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휘황한 길을 따라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정치도덕적풍모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있으며 사회주의농촌의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붉은농업전사들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려는 혁명적기백으로 가득차있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수리화의 성과를 확대공고화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 특히 고이는물빼기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에는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습니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이 훨씬 늘어나고 농작업의 기계화수준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농경지정보당 화학비료의 시비량이 훨씬 많아지고 그의 품종구성이 개선되였으며 농약

의 공급량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민들은 토양과 기후 조건에 맞게 작물을 배치하고 우량품종과 종자를 육성하며 토양을 개량하는 등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선진영농기술을 널리 받아들였습니다.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심화발전되여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농업지도기관들은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물질기술적수단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협동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물질기술적지원을 농업생산에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였으며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분조관리제가 전반적으로 도입됨으로써 농촌에서 우리 당의 농업정책이 더잘 관철되고 협동농장관리운영에서 근본적전환이 일어났으며 농민들의 로력적열성이 비상히 높아졌습니다.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이 당대표자회결정과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내세운 두가지 10대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지난해에 매우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지방, 몇개의 작물에서만아니라 벌방에서 산간에 이르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작물, 모든 품종에 걸쳐 대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농업생산이 급격히 장성하고 농민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배려가 더 많이 돌려짐으로써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 농촌경리에서 이룩한 모든 빛나는 성과들은 당의 정확한 농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당이 준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붉은농업전사들이 헌신적인 로력투쟁을 전개한 결과입니다.

나는 당에 무한히 충실한 모든 농민들과 농업부문일군들의 애국적인 투쟁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며 그들이 쌓아올린 빛나는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성취하여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은 농업전선에서 계속 긴장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농촌경리부문앞에는 매우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은 지난해에 거둔 성과에 조금도 자만하지 말고 올해농사차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매 정보마다 알곡 500키로그람을 더 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예작물과 남새생산, 축산업, 과수업, 잠업 등 농업생산의 다른 분야에서도 다시한번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며 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지는데 크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입니다.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언제 어디서나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정책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과 강하게 투쟁하며 그 어떤 모진 풍파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시련에 부닥쳐도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오직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당신들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공산주의사상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공산주의적미풍을 발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을 실현하는것은 농촌경리를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농업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하고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있는 관개시설들을 더잘 정비보강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수리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고이는 물빼기공사를 완전히 끝내며 중소하천정리와 사방야계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물관리를 잘하여 어떠한 가물과 큰물의 피해도 막을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뜨락또르와 련결농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와 설비들을 제때에 정비하고 수리하여 그 리용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중소농기구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부림소를 더잘 관리하여 작업능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깊은 산골에까지 전기가 들어가게 하여 모든 농가들에서 전기불을 켜게 하는것은 물론 라지오와 유선방송도 듣게 하며 모든 농촌에서 마당질, 집짐승먹이를 써는 일 등을 전기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토양조건과 작물의 특성에 맞게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워 화학비료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여러가지 농약을 잘 리용하여 작물을 온갖 병충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근로자들과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은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며 새로운 영농기술을 적극 도입하여야 하겠습니다. 땅을 잘 보호하고 논밭을 규모있게 정리하며 한평의 땅이라도 더 얻어내여 농업생산에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매 지대별 특성과 기후조건에 맞게 작물과 품종을 옳게 배치하고 일찌기 여물고 소출이 많이 나는 좋은 종자를 골라 제철에 심으며 김매기와 가을걷이, 마당질을 제때에 하여야 하겠습니다.

논벼의 생산량을 계속 증가시키고 다수확작물인 옥수수의 재배면적을 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한편 콩과 들깨, 참깨 등 유지작물을 많이 심어 근로자들의 장성하는 기름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남새밭을 관수할수 있는 좋은 땅에 정하며 여러가지 종류의 남새를 제철에 심고 잘 가꾸어 생산을 늘임으로써 주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떨구지 않고 충분히 공급하도록 할것입니다.

영양가와 수확성이 높은 사료작물을 많이 심어 공고한 사료기지를 조성하고 우량가축원종체계를 세우며 집짐승의 사양관리를 개선하여 축산물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협동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는 2~3톤, 매 농가들에서는 100키로그람이상의 고기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많은 로력과 자재, 자금을 들여 마련하여놓은 방대한 면적의 과수원과 밤나무밭을 잘 보호하고 알뜰히 가꾸어 빨리 열매가 다 맺게 하는 동시에 야산과 경사지를 잘 리용하여 새로운 과수원을 전망성있게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뽕밭과 작잠림을 잘 관리하고 빈땅에 피마주를 널리 심어 고치생산을 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위대한 생활력과 커다란 우월성을 남김없이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인 관료주의, 형식주의적 사업작

풍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대로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을 불러일으키며 지도를 아래에 더욱 접근시켜 아래일군들을 도와주며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 시, 군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은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하며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더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장원들을 협동농장의 모든 경영활동에 널리 참가시키고 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민주주의적관리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동시에 로력조직을 잘하여 농사일에 력량을 집중하며 로력일을 제때에 평가하여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경리부문에서 분조관리제를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독창적발기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분조관리제는 농민들을 집단경리의 관리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게 하는 훌륭한 생산조직형태이며 그들이 공동경리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게 하며 그들속에서 공산주의사상을 키우는 집단생활의 가장 합리적인 세포입니다.

우리는 리론, 실천적으로 그 정당성이 확증된 분조관리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분조를 알맞춤한 규모로 조직하고 분조장대렬을 당과 혁명에 충직한 사람들로 잘 꾸리며 분조성원과 농경지, 부림소, 농기구들을 고착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도일군들은 군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며 그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탁아소, 유치원, 진료소, 리발소, 목욕탕을 비롯한 여러가지 리용시설들을 알뜰히 꾸려 더잘 운영하고 주택, 우물, 도로를 계획적으로 수리정비하며 농촌상점과 전재상점을 더잘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있는 조건에서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은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에서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 절약하여 증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물자의 예비를 충분히 조성하며 모든 방면에 걸쳐 전쟁준비를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부단히 심화발전시켜 농업부문의 모든 근로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온갖 보수와 침체를 짓부시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빛나는 성과를 거두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1968년 2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 성



…혁명사적지 청봉수림에 항일유격대원들이 써놓은 구호들…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전통과 투쟁경험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재부입니다.

김 일 성

조국광복회 一〇대강령

一.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것.

二. 재만 조선인들은 조중민족의 친밀한 련합으로써 일본 및 그 주구「만주국」을 전복하고 중국령토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진정한 민족 자치를 실행할것.

三. 일본군대·헌병·경찰 및 그 주구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진정하게 싸울수 있는 혁명군대를 조직할것.

四. 일본국가 및 일본인 소유의 모든 기업소·철도·은행·선박·농장·수리기관 및 매국적 친일분자의 전체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여 독립운동의 경비에 충당하며 일부분으로는 빈곤한 인민을 구제할것.

五. 일본 및 그 주구들의 인민에 대한 채권、각종 세금、전매제도를 취소하고 대중생활을 개선하며 민족적 공·농·상업을 장애없이 발전시킬것.

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전취하고 왜놈의 공포정책실현과 봉건사상장려를 반대하며 일체 정치범을 석방할것.

七. 량반·상민·기타 불평등을 배제하고 남녀·민족·종교등 차별없는 인륜적평등과 부녀의 사회상 대우를 제고하고 녀자의 인격을 존중히 할것.

八. 노예로동과 노예교육의 철폐·강제적군사복무 및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을 반대하며 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것.

九. 八시간로동제실시、로동조건의 개선、임금의 인상、로동법안의 확정、국가기관으로부터 각종 로동자의 보험법을 실시하며 실업하고있는 근로대중을 구제할것.

一〇. 조선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밀히 련합하며 우리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과 동지적친선을 유지할것.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주요년대표

1912. 4. 15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경대에서 탄생
1917. 3. 23	김형직선생께서 《조선국민회》를 조직
1921. 겨울	김일성동지께서 팔도구 소학교에 입학
1923. 봄	김일성동지께서 창덕학교에 편입
1925. 초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의 큰 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너 동북으로 가심
1925. 봄	김일성동지께서 무송 제1소학교에 편입
1926. 여름	김일성동지께서 화성의숙에 입학
1926. 가을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을 조직. 청년들과 학생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보급
1926. 겨울	김일성동지께서 《새날소년동맹》을 조직. 신문 《새날》을 발간
1927. 봄	김일성동지께서 길림육문중학교에 입학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길림소년회》를 조직
1927. 여름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려길학우회》를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고치시고 지도
〃	김일성동지께서 《ㅌ•ㄷ》성원을 중심으로 《반제청년동맹》을 조직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조직
1928.	김일성동지께서 반동교원들과 군벌을 반대하는 동맹휴학을 조직지도
1928. 10~11	김일성동지께서 일제의 만주침략의 교량인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화배척투쟁을 조직지도
1929. 가을~1930. 봄	김일성동지께서 길림감옥에서 옥중생활
1930. 여름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 제시. 항일무장투쟁을 위하여 조선혁명군을 조직. 로동자, 농민들속에서 혁명활동을 강화
〃	김일성동지께서 장춘현 카륜, 이통현 고유수 일대에서 농촌혁명화를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 잡지 《볼쉐위크》를 발간
1930. 가을	김일성동지께서 회덕현 오가자일대에서 농촌혁명화를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 잡지 《농우》를 발간
1931. 초	김일성동지께서 공청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복구하시고 혁명력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 길동지구 공청사업을 적극 지도
1931. 봄	김일성동지께서 지하혁명활동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 안도를 중심으로 한 지하혁명조직들의 활동을 지도
1931. 가을	김일성동지께서 안도에서 소집된 당조직 및 군중단체 책임자회의를 조직지도
1931. 11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유격대결성을 위한 투쟁을 강력히 추진. 명월구회의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인 《반일부대》들과의 반제공동전선형성을 위한 투쟁을 조직진행

1932. 4. 25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유격대를 창건. 우리 나라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
1932. 여름~	김일성동지께서 두만강연안에 혁명근거지를 창설. 근거지내에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
1933. 3	김일성동지께서 공청확대회의에서 청년공작원들의 임무에 대하여 연설
1933. 3. 31	왕청현 쟈피거우전투
1933. 봄	김일성동지께서 인민혁명정부로선 제시, 인민혁명정부 수립
1933. 4	김일성동지께서 국제공산당 파견원을 접견하시고 주체적인 조선혁명운동발전에 관한 로선을 재천명
1933. 4. 17~19	소왕청방어전투
1933. 6	김일성동지에 의한 반제공동전선의 빛나는 실현. 반제공동전선형성에서 국제적모범창조
1933. 9. 6	동녕현성진공전투
1933~1934	김일성동지께서 유격근거지—해방지구방위를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한편 항일유격대를 친솔하시고 두만강연안에서 유격활동을 강화
1933. 12~1934. 1	소왕청유격근거지방어전투
1934. 3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편성
1934. 6. 26~28	라자구전투
1934. 말~1935. 초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제1차북만원정
1935. 2. 24~3. 3	김일성동지께서 다홍왜회의를 지도
1935. 3. 하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여 혁명의 난국을 극복타개. 요영구회의를 지도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의 실현
1935. 6	김일성동지의 령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 적극적공세에로 이행
〃	동녕현 로흑산전투
1935. 6~1936. 1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제2차북만원정
1935. 7	녕안현 산동툰전투
1936. 2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남호두회의를 지도.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의 적극적추진
1936. 3	김일성동지께서 미혼진회의를 지도
1936. 5. 1~15	김일성동지께서 동강회의를 지도
1936. 5. 5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를 창건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선혁명의 불멸의 기치 조국광복회 10대강령, 규약, 창립선언을 발표
1936. 6	무송현 서강전투
1936. 8. 17	무송현성진공전투
1936. 여름	김일성동지께서 백두산근거지를 창설.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일대앙양
1936. 9. 1~2	장백현 대덕수, 소덕수전투
1936. 12. 1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 기관지 《3.1월간》을 발간
1937. 1. 11	장백현 회샤즈거우전투
1937. 2. 14	장백현 홍두산전투
1937. 2. 20	장백현 도천리전투
1937. 2. 26	장백현 리명수전투
1937. 3.	김일성동지께서 서강회의를 지도
〃	몽강현 소탕하전투
1937. 6. 4	조선인민에게 민족해방의 서광을 안겨준 력사적인 보천보전투

1937. 6. 5	구시산전투
1937. 6. 30	간삼봉전투
1937. 8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지휘관및병사대회에서 연설
1937. 9	김일성동지께서 중일전쟁발발과 관련하여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1937.	김일성동지께서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발표
1938. 4. 12	장백현 가재수전투
1938. 4. 26	림강현 6도구전투
1938. 4. 28	림강현 쌍산자전투
1938. 8	장백현 8도구 금광전투
1938. 11	김일성동지께서 남패자회의를 지도
1938. 12~1939. 3	고난의 행군.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 압록강연안에로 재진출
1939. 4	김일성동지께서 북대정자회의를 지도
1939. 4. 26	장백현 15도구전투
1939. 5. 1	김일성동지께서 5.1절경축대회에서 연설
1939. 5. 3	장백현 반절구전투
1939. 5. 18~23	무산지구전투에서의 대승리
1939. 5~1940. 7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전략전술에 의한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선회작전
1939. 6	화룡현 올기강전투
1939. 8	김일성동지께서 일제의 할힌골침공과 관련하여 명령발표
1939. 8. 23~24	대사하전투
1939. 12. 17	돈화현 륙과송전투
1939. 12. 24	돈화현 쟈신즈전투
1940. 1	안도현 한양구전투
1940. 3. 11	화룡현 대마록구전투
1940. 3. 25	화룡현 홍기하전투
1940. 8	김일성동지께서 소할바령회의를 지도
1941. 6	김일성동지께서 쏘독전쟁개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새로운 활동방침 제시
1941~1945. 상반년	김일성동지의 령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광활한 지역에서 소부대유격활동과 정치공작을 강력히 전개. 정치, 군사적으로 무장대오를 강화.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전개
1943. 3	김일성동지께서 현정세와 공산주의자들의 과업에 대하여 연설
1945. 8. 9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쏘련군대와의 협동작전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총공격개시
1945. 8. 15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 일제의 패망. 조선해방.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개선
1945. 10. 10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공산당을 창건.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 제시
1945. 10. 13	김일성동지께서 각 도당 책임일군들앞에서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연설
1945. 11. 1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도하에 당기관지 《정로》를 발간
1945. 11. 15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조직위원회 제2차확대집행위원회를 지도
1945. 11. 18	북조선민주녀성동맹 결성

1945. 11.30	북조선직업총동맹 결성
1945. 12. 17~18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를 지도
1946. 1. 17	북조선민주청년동맹 결성
1946. 1. 31	북조선농민동맹 결성
1946. 2. 8	김일성동지의 인민정부로선의 빛나는 실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수립
1946. 3. 4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조직위원회 제5차확대집행위원회를 지도
1946. 3. 5	토지개혁법령 발포
1946. 3. 23	김일성동지께서 20개조정강 발표
1946. 5. 21	김일성동지께서 보통강개수공사 착공식에 참가하시여 첫삽을 뜨심
1946. 6. 24	로동법령 발포
1946. 7. 22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결성
1946. 7. 30	남녀평등권법령 발포
1946. 8. 10	중요산업국유화법령 발포
1946. 8. 28~30	김일성동지께서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에서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보고. 북조선로동당 창립
1946. 9. 1	당기관지로서 《로동신문》, 잡지 《근로자》를 발간
1946. 9	남조선로동자들의 총파업
1946. 10	남조선에서 10월인민항쟁
1946. 11. 3	우리 나라에서 첫 민주선거 실시
1946. 11. 25	김일성동지께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사상의식개변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방침 제시
1947. 2. 22	북조선인민위원회 조직.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개시 김일성동지께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천명
1947. 3. 15	김일성동지께서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회의를 지도
1948. 2. 8	김일성동지께서 불패의 혁명무력—영웅적조선인민군을 창건
1948. 3. 27~30	김일성동지께서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를 지도
1948. 4. 20~24	김일성동지께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련석회의를 지도
1948. 9. 9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949. 2. 12~13	김일성동지께서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회의를 지도
1949. 6. 25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
1949. 6. 30	남북조선로동당 합동
1949. 12. 15~18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2차전원회의를 지도
1950. 6. 25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역도의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 조국해방전쟁개시
1950. 6. 26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방송연설 《모든 힘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군사위원회를 조직
1950. 6. 28	서울해방
1950. 7. 8	김일성동지의 방송연설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자》
1950. 7. 20	대전해방
1950. 10. 11	김일성동지께서 방송연설
1950. 11. 20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독로강군정간부회의를 지도
1950. 12. 21~23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를 지도
1951. 9~	1,211고지전투
1951. 11. 1~4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를 지도
1952. 2. 1	김일성동지께서 도, 시, 군인민위원장 및 당지도일군련석회의에서

	《현계단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연설
1952. 6. 21	김일성동지께서 락원기계공장을 현지지도
1952. 12. 15~18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第5차전원회의를 지도
1953. 7. 27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 미제의 패배
1953. 8. 3	김일성동지께서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
1953. 8. 5~9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인 전후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를 지도
1953. 12. 18~19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7차전원회의를 지도
1954. 3. 21~23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를 지도
1954. 11. 1~3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11월전원회의를 지도
1955. 4. 1~4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를 지도
1955. 4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를 발표
1955. 12. 2~3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를 지도
1955. 12. 28	김일성동지께서 당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연설
1956. 4. 23~29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를 지도
1956. 8. 1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 실시
1956. 8. 30~31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8월전원회의를 지도
1956. 12. 11~13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총로선—천리마운동 개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1957. 4. 18~19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를 지도
1957. 10. 17~19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10월전원회의를 지도
1957. 12. 5~6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12월확대전원회의를 지도
1958. 3. 3~6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를 지도
1958. 6. 5~7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6월전원회의를 지도
1958. 8.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협동화방침의 위대한 승리. 농촌경리의 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
1958. 9. 26~27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9월전원회의를 지도
1958. 10. 2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를 준비할데 관한 법령을 발표
1958. 11. 20	김일성동지께서 전국 시, 군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연설
1959. 1. 5~9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
1959. 2. 23~25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2월전원회의를 지도
1959. 6. 27~30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6월전원회의를 지도
1959. 10. 14	전국지방산업 및 생산협동조합 열성자대회
1959. 12. 1~4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12월확대전원회의를 지도
1960. 2. 8	김일성동지께서 강서군 청산리당총회에서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연설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
1960. 4. 19	리승만파쑈통치를 반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봉기. 리승만괴뢰정권붕괴
1960. 8. 8~11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8월확대전원회의를 지도
1960. 12. 20~23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12월확대전원회의를 지도

1961. 3. 20~22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를 지도
1961. 4. 7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지도
1961. 9. 11~18	김일성동지께서 승리자의 대회, 단결의 대회—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지도
1961. 11. 27~12. 1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
1961. 12	김일성동지께서 대안전기공장과 숙천군에 대한 현지지도,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공산주의적지도관리체계 확립
1962. 3. 6~8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 김일성동지의 결론 《당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1962. 8. 7~8	김일성동지께서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련석회의를 지도
1962. 12. 10~14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를 지도
1963. 5. 13~15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6차전원회의를 지도
1963. 9. 3~5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7차전원회의를 지도
1964. 2. 25~27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를 지도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
1964. 6. 25~26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9차전원회의를 지도
1964. 12. 14~19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전원회의를 지도
1965. 3. 25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밑에 조선농업근로자동맹창립
1965. 4. 14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를 발표
1965. 6. 29~7. 1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를 지도
1965. 10. 10	김일성동지께서 당창건 20주년 경축대회에서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보고
1965. 11. 15~17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를 지도
1966. 3. 28~4. 4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3차전원회의를 지도
1966. 4. 29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한 법령 발표
1966. 10. 5~12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보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전반적세계혁명운동의 획기적발전을 위한 위대한 혁명로선 제시
1966. 11. 24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 발표
1967. 5. 4~8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지도
1967. 5. 25	김일성동지께서 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당면한 당선전사업방향에 대하여》 연설
1967. 6. 28~7. 3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전원회의를 지도
1967. 8. 12	김일성동지께서 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발표
1967. 12. 16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를 발표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에 조직전개된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

—아바나문화대회에서 대회의 문헌으로 채택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전략전술에 관한 문헌—

1968년 1월 4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꾸바공화국의 수도 아바나에서 70개국에서 온 진보적문화인들의 참가하에 진행된 아바나문화대회에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전략전술에 관한 문헌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에 조직전개된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이 대회의 문헌으로 채택되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영웅적으로 조직지도함으로써 암담하였던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셨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에 조직전개된 15성상에 걸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은 반혁명적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대항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여의 모든 형태의 대중운동을 힘차게 고무추동하고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강력한 혁명적 영향을 주어 전반적조선혁명운동을 일대 앙양에로 불러일으켰다.

조선민족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억압과 착취밑에서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쓰고 허덕이던 그 암담한 시기에, 종래의 각종 형태의 투쟁들이 그 자체의 제한성들과 결함들로 인하여 거듭 실패를 면치 못하던 일대 시련의 시기에,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폭압정책이 그 절정에 달하여 조선민족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있던 엄혹한 시기에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지도함으로써 조선민족은 생기를 얻어 민족재생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였으며 수령의 부름을 따라 필승의 신념을 안고 반일항전에 일떠서서 영웅적기개와 민족적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영웅적으로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민족과 조선혁명의 운명을 일대 위기에서 구출하고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민족의 영예를 길이 빛내인 력사적인 위대한 투쟁이였다.

그러기에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혁명의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모시고있음을 크나큰 영예로 여기며 그이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으며 이 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불후의 혁명적재부로, 고귀한 밑천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그를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고있다.

1. 김일성동지에 의한 항일유격대의 창건과 무장투쟁의 강화발전에 대하여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민족의 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 유일하게 정당한 조선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하게 밝혀주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선행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인 교훈과 1920년대말～1930년대초 우리 나라의 정치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을 그의 최고형태인 무장투쟁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정확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일찍부터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을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끊임없이 진행하여왔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에 의병투쟁, 독립군운동, 애국문화정치운동이 전개되였으며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영향하에 로동운동, 농민운동을 비롯한 반일대중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들은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에 의하여 진행되지 못하였음으로 하여 그리고 일제의 야수적탄압과 그 자체의 결함들로 인하여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더우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20년대말～1930년

대초에 이르러 대륙침략을 위한 전쟁준비에 더욱 광분하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으며 온갖 합법적활동의 여지마저 말살하여버리였다.

일제는 이 시기 조선인민의 일체 애국적투쟁을 폭력으로 탄압하기 위하여 수많은 병력을 상시적으로 조선에 주둔시켰으며 2,500여개소의 경찰헌병기관을 배치하였고 각종 파쑈적악법을 만들어 조선인민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일제가 1929년부터 1931년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소위 《사상범》이라는 명목하에 1만 6,000여명에 달하는 애국적인 조선인민을 검거투옥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정책은 전대미문의 경제적략탈과 병행하여 감행되였다.

일제는 조선을 저들의 식량공급지와 상품판매시장으로 유지하면서 대륙침략전쟁수행에 필요한 병참기지로 만들고 조선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략탈하기에 광분하였다.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파쑈적폭압과 략탈의 강화는 일제와 조선인민간의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을 극도로 첨예화시켰다.

이에 따라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이르러서는 원산부두로동자들의 총파업과 신흥탄광로동자들의 폭동, 단천농민들의 폭동을 비롯한 로동자, 농민들의 폭력적진출이 급격히 강화되여갔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들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모두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적령도가 없이 분산성을 띠고 전개되였으며 옳은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하였기때문에 결국 승리할수 없었다. 더우기 이러한 투쟁방법으로써는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폭압통치가 류례없이 강화된 당시의 정세하에서 도저히 조선혁명을 전진시킬수 없었으며 조선인민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할수 없었다.

이 시기 조성된 정세는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정책을 강화하고 새로운 침략전쟁준비에 광분하는 일제침략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며 앙양되고있는 로동자, 농민들의 폭력적투쟁에 조직성과 목적의식성을 부여하고 그를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적극적인 투쟁에로 이행할것을 요구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은 당시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선 가장 심중하고 긴절한 과업이였다. 그러나 당시의 형편에서 혁명의 이 요구를 옳게 해결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이 나아갈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그 투쟁방도를 제시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15세때부터 독자적으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비합법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여 혁명적인 청년대중을 결속하시였으며 각종 반일대중단체를 조직지도하시여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시였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의 광대한 지역에서 혁명활동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장래전망을 구상하시고 무장투쟁을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추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맑스-레닌주의기치하에 광범한 대중적지반에 뿌리박은 강력한 상비적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새로운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사소한 합법적활동의 가능성마저 완전히 말살된 당시의 형편에서 혁명을 전진시키고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항일무장투쟁로선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로선이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민족해방운동에서 무장투쟁은 최고형태의 투쟁인것이다.

모든 혁명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족해방운동에서 투쟁형태는 다양하며 그것은 주객관적조건들에 의하여 변화된다.

그러나 민족해방운동의 투쟁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정치투쟁의 형태는 조직적인 폭력적투쟁—무장투쟁, 민족해방전쟁인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본성에 비추어볼때 불가피적으로 흘러나오는 결론인것이다.

평화적시위나 파업투쟁 즉 비폭력적투쟁형태만으로는 발톱까지 무장한 제국주의세력을 물리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수 없다. …주권을 쥘려면 무장투쟁을 해야하며 선거놀음을 해가지고서는 정권을 잡을수 없다.》

특히 그것은 포악한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을 평화적인 투쟁방법으로 물리칠수 있다는 주장은 어리석은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침략세력 특히 파쑈적인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선두에 로동계급이 서서 철저한 반제반봉건적혁명투쟁을 전개할때 그 투쟁의 발전은 결국 민족해방운동의 최고형태인 무장투쟁에로 이르게 된다.

혁명적인 정세가 조성된 시기에도 무장투쟁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있는 민족해방투쟁은 그만큼 낮은 수준에 있는 투쟁이거나 그 투쟁이 아직 결정적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초 우리 나라에 조성

된 혁명정세를 정확히 포착하여 가장 포악한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발전시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최고형태인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천명하시였다.

첫째로,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항일유격대결성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우수한 공산주의핵심을 골간으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선진분자들을 새로이 육성함으로써 그들을 모체로 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항일무장대오의 결성과 무장투쟁의 강화발전을 실현할수 있으며 전반적혁명운동에 대한 령도와 그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할수 있었다.

둘째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형식으로서는 유격전을 기본으로 할것을 규정하시고 그를 위해 유격대를 창건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셋째로,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이 유격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조건하에서 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문제를 제시하시면서 유격근거지는 군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보아 유리한 조선과 만주의 접경지대인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 압록강 연안의 산간 및 농촌 지대에 설정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넷째로,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더우기 무장투쟁이 유격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조건하에서 광범한 인민들과의 련계를 보다 강화하여 그들을 일제와의 투쟁에 적극 동원하고 군중들로 하여금 유격대를 백방으로 지지성원하도록하는것은 무장투쟁의 승패를 규정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상과 같은 정확한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곧 항일유격대창건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아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 혁명활동시기부터 몸소 조직지도해오시던 혁명적군중단체들을 비롯한 각종 혁명조직들을 확대해나갔으며 이에 수만의 혁명군중들을 묶어세우셨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적위대, 소년선봉대와 같은 반군사적조직들이 광범히 결성되여 일제침략군의 침습으로부터 혁명조직과 혁명군중을 보위하기 위한 활동을 맹렬히 전개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공산주의자들은 항일유격대창건을 위한 사업을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였으며 이 행정에서 검열된 선진적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집결하여 군사력량을 꾸리기에 힘썼다.

한편 무장력의 2대요소의 하나인 무기의 획득을 위한 투쟁도 맹렬히 전개하였다. 이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였다.

나라가 이미 일제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되여 주권도 민족군대도 가지고있지 못한 형편에서 그리고 그 어데서 무장적방조를 받을수도 없고 누구에게서 무기를 넘겨받을수도 없었던 조건에서 간고한 투쟁을 통해 자체로 무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무장을 갖추기 위한 투쟁에는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하여 공청원, 적위대원, 소년선봉대원, 부녀회원들과 지어는 로인들과 어린이들까지 광범히 참가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군중들속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필요성과 무기획득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해설하고 승리의 신심을 높이게 함으로써 모두가 무장을 갖추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동원되여 투쟁에서 용감성과 대담성 및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당시 혁명조직들이 군중을 얼마나 무기획득을 위한 투쟁에로 정력적으로 불러일으켰는가 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호소에서도 충분히 알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누나, 아우를 잃은 무산청년들아! 금강석같이 굳고굳은 투지로 이를 갈고 주먹을 쥐고 무산계급총전선마당으로 나와 판가리싸움에서 원쑤를 복수하자!…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피끓어넘치는 청년들아! 신을 든든히 신고오라. 무장로선으로 준비하라.

동무들아 단결하라! 준비하라! 무장로선에 총동원하라!》

항일유격대의 무장장비를 갖추기 위한 투쟁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적의 무기를 탈취하여 자체를 무장하는것이였다.

혁명군중들은 《무장은 생명이다!》라는 구호하에 일제침략군, 위만군, 일만경찰, 무장자위단, 악질적인 친일지주와 관리배들을 기습하여 자기의 무기는 자기가 해결하는 원칙에서 투쟁하였다.

이렇듯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무장대오를 조직하기 위한 투쟁은 무장장비를 갖추기 위한 투쟁과 병행하여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은 준비에 기초하여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키워온 우수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우리 나라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선진적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우리 나라의 혁명적인민무력의 첫대오인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였습니다.》

항일유격대의 창건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수행의 위대한 로선을 실현하며 우리 나

라 혁명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으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항일유격대는 맑스-레닌주의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조선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로동계급의 첫혁명적무장력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의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사상이였으며 그 목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였습니다.》

항일유격대는 적과 싸우는 전투대오였을뿐만 아니라 또한 인민을 교양하고 선동하는 선전자였으며 인민을 조직동원하는 조직자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창건된 항일유격대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충실한 혁명군대였다.

항일유격대는 조선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였을뿐만아니라 세계혁명의 리익을 위해 싸우는 로동계급의 군대였다.

항일유격대는 조선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이 다른 나라 로동계급을 방조하고 세계혁명을 촉진하는것으로 된다는 확고한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였으며 그 위업에 무한히 충실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빨찌산은 처음부터 공산주의자들의 한가정의 식구였습니다. 빨찌산은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라는 맑스의 사상을 고수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습니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항일유격대는 바로 이러한 성격과 특성을 가지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항일유격대는 그 창건당초부터 일제를 멸망시키고 조국의 광복을 달성한 1945년 8월까지 실로 15성상의 장구한 력사적시기에 걸쳐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타개하면서 무장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발전시켜나아갔다.

항일무장투쟁은 세계력사상 그 류례가 드문 간고한 투쟁이였다.

첫째로, 그것은 항일유격대가 일본제국주의와 같은 강대한 적을 대상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된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일본제국주의는 발생초기부터 군사봉건적특성과 가장 강도적이고 략탈적인 성격을 띠였다.

일본군국주의는 1874년 대만침공으로부터 시작하여 패망하는 날까지 10여차의 침략전쟁을 거듭하였으며 11개 나라의 광범한 지역을 식민지 및 반식민지로 강점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제국주의는 더욱 횡포하고 야수적인 강도로 되였으며 착취와 략탈, 침략과 전쟁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수 없게 되였다. 남의 나라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적략탈로 비대해진 탐욕적인 일본독점지배층은 호전적파쑈분자들을 전쟁에서 전쟁에로 내몰면서 군비확장에 광분하였다.

1930년대초에 일제침략군은 벌써 200만대군으로 늘어났으며 1930년대말~1940년대초에 항일유격대를 반대하며 쏘련침공을 준비하는데 투입된 관동군만 하여도 100만에 달하였다.

일제침략군은 《정예》를 자랑하는 최신식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장비되였으며 현대적인 륙해공군을 가지고있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한 일제는 남의 나라와 인민을 반대하는 대외침략에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렬강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를 받았으며 파쑈독일과 이딸리아와 같은 강도적동맹자들을 가지고있었다.

둘째로, 항일무장투쟁의 간고성은 항일유격대가 이 강대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무러한 국가적후방이나 외부의 지원도 받지못하고 필요한 모든것을 오직 자체의 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만 하였던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조선이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이미 전락된 조건하에서 우리 나라에는 항일무장투쟁을 강력히 지원할 혁명정권과 민족자체의 군사적로대도 없었다.

이리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강대한 적과의 투쟁과정에서 무장대오를 조직확대하고 자체의 힘으로 무기와 탄약, 식량과 피복 등을 해결하며 인민대중을 교양하여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무장투쟁은 초기부터 미증유의 간고성을 띠지 않을수 없었다.

셋째로, 항일무장투쟁의 간고성은 그 투쟁이 장기간에 걸쳐 전개되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정과도 관련되여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은 일제가 파쑈화되였으며 그의 식민지폭압정책이 최고절정에 달하였던 그러한 시기에 시작되여 일제가 멸망하는 때까지 15성상의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초기부터 그의 간고성과 장기성을 예견하고 그에 대처할수 있게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하였다.

그들은 인민대중과 항일유격대원들 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면서 일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적개심과 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높이며 특히 모든 곤난과 시련을 이겨나아가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배양하는데 주력하였다.

항일유격대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없는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오직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억센 투지를 안고 적과 싸웠다.

항일유격대는 겨울이면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를 수림속에서 지내야 하였고 때로는 눈을 녹여 목을 추기며 풀뿌리를 유일한 식량으로 하여 투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항일유격대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탁월한 전략전술에 의하여 항상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불사조마냥 영웅적으로 싸워이겼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명확한 혁명로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무장투쟁발전의 매 단계마다에서 모든 난국들을 몸소 타개하시면서 항일유격대와 인민대중을 항상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15성상에 걸치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개의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첫단계는 항일유격대를 결성하고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시작하였던 1932년부터 1935년에 이르는 기간을 포괄한다.

이 시기는 우리 나라의 북부국경지대와 동만의 광활한 지역에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창설하고 그에 의거하여 무장투쟁을 발전시키는 한편 혁명력량을 보존육성하고 장차 무장투쟁을 더욱 광활한 지역에로 확대하여 적극적공세에로 이행할수 있는 준비를 튼튼히 갖추던 시기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들을 이끌어 근거지내에서 낡은 사회경제관계들을 타파하고 인민혁명정권을 수립하였으며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근거지내에 공산주의조직들과 각종 형식의 대중단체들을 결성하고 그에 광범한 혁명대중을 결속하였으며 실지 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교양하고 간부들을 육성하였다.

이 시기 전투활동은 근거지에 의거하여 초기에는 주로 무기탈취와 소규모전투들을 진행하면서 항일유격대의 무장력을 강화하였으며 그후에는 근거지를 벗어나서 적 성시들에 대한 대규모진공전투들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적의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근거지방위전투들도 비교적 큰 규모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투쟁성과에 의거하면서 1934년에는 각 지방의 유격대들을 유일한 군사지휘체계에 통합하여 인민혁명군으로 조직개편하시였다.

인민혁명군이 결성된후 군사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대규모적으로 전개되였다.

이 시기에 적들은 근거지를 소탕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무력을 근거지토벌작전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적들의 전면적인 봉쇄와 대규모적인 토벌공세앞에서도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유격대와 인민대중은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고 영웅적으로 싸워 4～5년이란 오랜기간 혁명근거지를 굳건히 수호하였다.

항일무장투쟁발전의 둘째단계는 1936년부터 시작하여 1940년에 이르는 기간을 포괄하고있다.

이 시기는 백두산근거지를 새로 창설하고 그에 의거하여 적에 대한 적극적공세에로 이행하면서 무장투쟁을 광활한 지역에로 확대하고 대규모적으로 강력히 전개하던 시기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동지의 가장 정확한 혁명로선에 기초하여 항일무장투쟁과 함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들을 전국적규모에서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이 시기는 일제의 식민지폭압정책과 적들의 반동공세가 전례없이 강화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조선인민의 혁명운동이 전반적으로 일대 앙양을 이룩하였던것으로써 특징지어진다.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항일유격대들은 1937년 6월 4일 보천보전투, 1939년 5월의 무산지구전투 등 국내진공작전을 비롯한 대소전투들을 련속 전개하면서 대륙침략전쟁의 확대와 대쏘침공준비에 미쳐날뛰는 일제의 뒤통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활발한 전개와 배합하여 전국각지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의 활동이 적극화되였다. 그들은 적들의 삼엄한 감시하에서도 지하정치활동을 능숙히 전개하였으며 도처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확대하면서 광범한 인민대중들을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 가리키는 휘황한 길을 따라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선인민은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절정에 이른 간고한 시기에도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투쟁의 명맥을 줄기차게 이어나가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전체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로 우러러보면서 그이에게서 힘을 얻고 조국광복의 최후승리를 확신하였다.

그들은 오직 김일성동지께 자기들의 모든 희망과 기대를 걸고 그이께서 가리키는 길을 따라 조국해방의 성전에 한결같이 일떠섰다.

항일무장투쟁발전의 셋째단계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을 포괄하고있다. 이 시기는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로 조성되였던 국제국내정세의 변화에 대처하여 종래의 대부대유격활동으로부터 소부대유격활동에로 이행하면서 조국의 광복, 항일무장투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던 시기이다.

이시기에 항일유격대는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자체 력량을 보존육성하고 군사훈련과 정치리론학습에 힘쓰는 일방 적을 격멸하기 위한 소부대유격활동과 인민대중들속에서의 정치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시기 최후멸망의 위기에 직면한 일제는 무장투쟁을 압살하려고 발광적으로 달라붙었으나 결코

항일유격대의 승리적전진을 멈춰세울수 없었으며 전체 조선인민에게 미치는 그의 혁명적영향력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명성은 항일유격대의 줄기찬 투쟁의 소식과 함께 전국의 방방곡곡에 전설과도 같이 빈틈없이 퍼져갔으며 조선인민의 심장마다에 민족재생의 불꽃을 지펴주고 그들의 투쟁열의를 힘차게 북돋아주었다. 군대와 경찰, 정보와 특무망으로 뒤덮인 하나의 감옥으로 전변되였던 살벌한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도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성이 얼마나 강력한 견인력을 가지고 널리 퍼져갔는가 하는것은 다음의 실례에서도 알수 있다.

일제의 어용학자인 가마다라는자는 일제가 패망한 제2차세계대전후 《조선신화》라는 책에서 당시를 회상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1944년경 《나는 남조선의 어느 소학교에서 6학년과 중학 2학년생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 다음 〈여러분은 현재의 일본사람중에서 (조선사람까지 포함하여)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무기명으로 정직하게 투표해보라.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겁내하지 말라〉고 짐짓 안심시켜놓고 무기명으로 투표를 시켜본즉 놀랍게도 그의 67%가 김일성이라고 씌여있었다.》

일제통치말기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도 인민들속에서는 반일비밀단체를 조직하고 김일성동지의 항일유격대와 합류하여 무장투쟁에 참가하려는 시도가 일반적경향성을 띠고 급속히 확대되였다.

일제가 실토한것과 같이 이 시기 광범한 청년학생들이 시도한 수많은 《결사사건》은 《일본의 패전을 맹단하고 좋은 기회를 타서 불온목적의 달성을 기도하였으며 그 구체적방법으로서는 숭배하여 마지않는 김일성과 련계를 가지며 또는 그 산하에 참가하여 무력봉기를 감행하려고 획책한것이 거의 전부…》 (조선총독부 경무국 《고등외사월보》 제46호 1943년 8월분)였다.

이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적인 조직전개에 의하여 최후붕괴에 직면한 일제의 패망을 촉진하고 조국해방을 실현할 조선인민의 혁명적기운이 최고도로 성숙되였으며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영접할수 있는 준비태세가 전면적으로 갖추어져갔다.

15성상에 걸치는 조선인민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은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유격대가 쏘련군대와 함께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후결전을 전개하여 일제를 격멸소탕하고 그들의 식민지통치를 전복함으로써 자기의 총적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2. 항일무장투쟁승리의 요인에 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던 승리의 중요한 요인은 어데 있는가?

첫째로 항일무장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은것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였기때문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떠한 혁명운동이든지 강력한 지도적력량이 없이는 혁명의 지도부가 옳은 정강을 내세우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대중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쟁취할수 없습니다. 아무런 조직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산만하게 진행되는 투쟁은 결코 승리할수 없는것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은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이전시기까지 혁명의 령도자가 없었고 혁명적강령과 정확한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함으로써 인민대중들의 혁명적진출이 끊임없이 있었으나 산만성과 비조직성을 면할수 없었으며 옳은 길을 찾지 못하고 파란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일제의 류혈적탄압에 의하여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조선인민은 오직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게 되였으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강령을 받들고 투쟁함으로써 승리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매 단계마다 조선인민이 나아가야할 정확한 정치로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구상은 특히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전면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히 정식화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10대강령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으로서의 당면한 조선혁명의 성격을 정확히 천명하시였다. 강령 제1조에서는 조선인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과업으로서 강도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하고 인민정부를 수립할것을 규정하시였다. 그리고 인민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과업들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 방침들이 제시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0대강령에서 조선인민앞에 제기된 기본적인 정치적과업 즉 일제식민지통치의 전복과 인민정부수립을 위한 실현방도로서 광범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가능한 모든 반일력량을 남김없이 총동원하여야 한다고 천명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을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및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과 밀접히 결합하며 그를 동시적으로 추진시키는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시종일관 견지한 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이였으며 또한 그를 성과적으로 관철하였기때문에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가 이룩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정치강령과 그 실행을 위한 과학적방도가 제시됨과 함께 탁월한 전략전술적지도가 보장되였기에 이루어질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면서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정세와 혁명임무로부터 출발하여 무장투쟁의 총적목적과 매 시기의 임무, 군사활동지대의 선정, 유격근거지의 창설 및 공고

화, 제기된 임무에 적응한 유격투쟁형식의 선택, 유격대오의 확대강화를 위한 방도 등 일련의 전략문제들을 천재적으로 천명하고 해결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유격근거지문제가 독창적으로 해결된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군사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유격근거지는 항일유격대가 장기간 군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적기지로서뿐만아니라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혁명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혁명기지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이것은 무장투쟁이 반일민족해방운동에서 주되는 투쟁형태이며 특히 우리 나라가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였기때문에 무장투쟁이 국가적후방과 민족적군사토대가 없는 조건하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를 정세의 변화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각이한 형태로 규정하시였다.

1930년대 전반기에는 고정적인 해방지구의 형태로 유격근거지가 창설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에 해방지구의 형태로서 유격근거지를 창설한것은 정당하였다. 이는 당시 동만의 절반이상의 농촌을 불바다로 만들었고 조선의 모든 지역에서 인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 학살하고있었던 일제의 백색테로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육성함에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것이였다.

유격근거지—해방지구가 창설됨으로써 항일유격대는 자기의 후방기지와 유격활동의 지탱점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무장대오의 정치군사적위력을 급속히 확대강화함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수 있었다.

또한 적들의 군사적침공으로부터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방위하는것은 이 일대의 지리적위치로 보나 특히 험악한 산악지대를 이룬 그 지형적조건으로 보아서도 유리하였으며 가능한것이였다. 그리하여 유격근거지—해방지구는 그가 존재한 4~5년간 혁명력량을 급속히 장성강화시켰으며 전반적 혁명운동발전의 기지로서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였다.

1930년대 중엽 김일성동지께서 조성된 새로운 정세하에서 그에 적응하게 항일무장투쟁의 가일층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발전적으로 해산하는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셨다.

고정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는 그에 의거하여 혁명력량을 보존하며 장성강화하려던 목적이 기본적으로 달성되였고 내외정세가 무장투쟁의 무대를 광활한 지대에로 옮겨 적극적공세에로 이행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혁명적영향을 확대할것을 요구하였던 1930년대 중엽에 와서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더는 제기되지 않게 되였다.

1930년대 후반기에는 비공개적인 백두산근거지가 창설되였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창설한 혁명근거지는 1930년대 전반기에 창설되였던 해방지구와 같은 형태로는 될수 없었다.

조선의 북부지대와 압록강, 두만강 연안에서 무장투쟁과 정치활동을 일층 강화하며 전국의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에로 더 힘차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조선혁명운동을 전반적으로 조직지도할수 있고 마음대로 유동하면서 자유자재로 유격활동을 전개할수 있게 유격근거지가 창설되여야 하였다.

그러므로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근거지를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두만강 연안의 대산림지대의 유리한 자연적조건을 리용하여 설치한 밀영들과 그를 거점으로 이 지대에 포괄되여있는 적통치구역내 인민대중속에 조직된 혁명조직들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요새로 창설하시였다.

이러한 비공개적인 유격근거지는 원쑤들의 발악적인 공세하에서도 특별한 방비병력이 없이 그를 은밀히 유지하며 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이고 기동성있는 군사행동과 적시적인 휴식, 훈련 및 후방기관들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었다.

1940년대 전반기에 항일유격대는 군사활동의 전지역에 림시적인 비밀근거지(아지트)를 설치하고 그에 의거하여 정치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창설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탁월한 군사전략과 유격전술을 창조하시고 그를 능숙히 적용함으로써 항상 적에 대한 전술적우세를 확고히 보장하고 모든 전투에서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게 하시였다.

항일유격대를 결성한 초기 가장 큰 난관은 수적으로나 무장장비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던 적과 싸워이길수 있는 유격전술을 가지고있지 못한것이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유격투쟁에 관한 미리 고안된 전술이나 그 누가 써놓은 유격활동의 군사교범도 없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실제투쟁과정에서 새로운 유격전술을 창조하시고 능숙하게 적용하시면서 부닥친 난관들을 타개하여 나아가시였으며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대의 력량을 보존하면서 대량의 적을 소멸하는 유격전의 기본원칙에 립각하여 적이 집중하여 공격하여 올 때에는 적을 분산하여 각개소멸하고 적이 분산되였을 때에는 유격대의 집중된 력량으로 적을 소멸하는 명활한 전술적원칙을 제시하시였다.

이 전술적원칙은 간고하였던 유격근거지방위전투의 불길속에서 창조되였으며 실제 투쟁과정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검증되였다.

1933년말~1934년초에 일제는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토벌을 감행하여왔다. 이때 근거지방위전투는 적들과 정면으로 대치된 상태에서 1개월여에 걸쳐 계

속되였다. 이 기간에 항일유격대와 근거지인민들은 유리한 지형적조건에 의거하여 영용하게 싸웠으며 적들에게 심대한 손실을 주었으나 적들은 력량상 우세를 믿고 계속 달려들었다. 유격근거지내의 형편은 더욱 악화되였으며 난관은 날마다 더하여갔다.

이러한 정황에서 적들과 계속 정면충돌을 하는것은 전술상 승산이 없는 모험행동이였다.

그러나 군사모험주의자들은 계속 적들과의 정면충돌을 결사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근거지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주장을 반대하면서 조성된 정황을 급변시키고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유격근거지에서의 방어전과 적후방에서의 습격 및 매복전을 배합하여 적에게 강력한 타격을 줌으로써만 적들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유격근거지를 보위할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시고 몸소 그 앞장에 서시여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1934년 1월초에 김일성동지께서는 근거지를 방어하던 유격대를 두개 부대로 편성하여 한부대는 근거지에 남아서 방어하게 하시였으며 다른 부대를 친솔하여 적의 포위진을 뚫고 적배후에 진출하시였다.

이렇게 하여 텅 빈 적의 배후에서 그 병영, 경찰과 자위단, 군수창고, 군수물자수송대들을 련속적으로 족쳐대여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적들은 부득이 유격근거지에 대한 《위공작전》을 더 계속할수 없게 되고 끝내 퇴각하고야 말았다. 만약 이때 좌경적군사모험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근거지방어에만 주력하였다면 대병력을 집중하여 감행하는 적의 《위공작전》앞에서 완전히 피동에 빠져 유격대는 커다란 손실을 면치 못했을것이다.

실로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4～5년간이나 사수하고 적들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줄수 있은것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유격전술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던것이다.

그후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친솔하시고 백두산 서남부일대에 진출하시였던 1936년 이후시기부터 일제는 백두산 앞뒤주변에서 미친듯이 따라다니였다. 놈들의 한부대는 산릉선을, 한부대는 산중복을 그리고 한부대는 골바닥을 타면서 항일유격대가 새여나지 못하도록 마치 참빗으로 훑는것같은 전술을 썼다.

적들의 이러한 전술에 대처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부대의 활동과 소부대의 활동을 배합함으로써 적들의 전술을 압도하는 새로운 유격전술을 적용하시였다. 즉 백두산 서남부일대에서 주로 두 방향으로 군사행동을 전개하였는바 하나는 소부대를 도처에 파견하여 여기저기서 적에게 타격을 주어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게 하였으며 대부대는 은밀하게 활동하다가 적의 큰 부대들을 족치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적으로 적용하신 이러한 대부대와 소부대의 배합작전으로 인하여 일제놈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였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유격전술에 의하여 항일유격대는 적이 대병력으로 공세를 감행하는 조건하에서도 자기의 력량을 보존하면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적들의 작전기도를 완전히 파탄시킬수 있었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적용하신 령활한 유격전술은 능란한 집중, 분산, 이동으로써 적들이 도사리고있는 지대의 이르는 곳마다에 임의의 시각에 나타나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며 동쪽도 타격하고 서쪽도 치며 한 지점의 적을 고립시키고 래원하는 적을 소멸하기도 하며 소수의 력량으로 적을 유인하여 큰 력량을 불의에 타격하며 또한 적들의 한가운데 끼여들었다가 재빨리 빠짐으로써 적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며 멀리 이동하는척 하고 적의 코밑에 돌아앉기도 하고 위풍당당한 집중행군을 삽시간에 분산행군으로 바꾸기도 하는 일행천리전술 등을 자유자재로 적용하는데서도 구현되였다.

1939년에 들어서면서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투쟁에 닥쳐온 시련의 시기에 령활한 전술로써 항일유격대에 대한 적들의 악착한 《진드기전술》을 여지없이 분쇄하여버리고 전투승리의 성과를 계속 확대하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 동북부지대에 부대를 이동시켜 유격활동을 조직전개하시면서 다시금 새로운 유격전술을 적용하시였다.

당시 적들은 백두산 서남부일대에서 항일유격대가 밀영형태의 근거지를 잡고 활동하는 전술을 알고 토벌력량을 증강집중하여 포위하고 봉쇄하는 한편 혁명의 사령부를 찾아내려고 수색전에 혈안이 되였다.

이러한 적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미리 준비된 비밀코스에 따르는 대부대 선회작전을 적용하여 적들이 따라오면 또 새자리에 옮겨가고 또 그곳에 적들이 따라오면 놈들을 족치고 다른 새 자리로 옮겨가군 함으로써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항일유격대는 천태만변의 이러한 유격전술을 적용하면서 습격전투, 매복전투, 도시진공전투, 반포위전투, 조우전투, 방어전투 등을 전개하여 매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보장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하에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직전개됨으로써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특별히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그것은 첫째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무장투쟁을 새로 개척하며 전반적조선인민의 혁명운동을 령도

하면서 그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하나하나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정과 관련된다.

당시 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로부터 무장투쟁의 구체적방도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하여 해답을 준 미리 고안된 그 어떤 처방이란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었다. 이와 함께 외부의 지원도 없이 식량과 피복, 탄약과 무기 등 필요되는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여야 하였던 조건하에서 주체적립장과 주견 그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다면 일보도 혁명을 전진시킬수 없었다.

둘째로, 주체확립의 필요성은 당시 우리 나라 혁명운동에 끼친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해독성과도 관련되여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는 이미 1920년대에 커다란 해독적후과를 끼치였으며 그것은 혁명대렬내에 기여든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부식조장되였다. 이 시기 사대주의의 해독성은 자기 나라 자체의 혁명력량을 믿고 그를 강력히 꾸리려고 할 대신 국제당이나 또는 다른 큰 나라에 잘 보이기 위하여 그에 맹종맹동하면서 그들이 하는일이 옳건 옳지 않건 그것이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건 맞지 않건 고려없이 교조적으로 받아무는데서 표현되였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는 1920년대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1930년대에도 지속되였으며 그것은 혁명운동의 발전에 계속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과 당시 우리 나라 혁명이 처한 실정을 구체적으로 분석종화하신데 기초하여 주체를 확립할것을 혁명실천의 제1차적과업으로 내세웠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초기부터 주체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시였다.

주체의 확립은 대국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 그리고 그를 부식조장시킨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치렬한 사상투쟁을 동반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국주의와 사대주의,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작성하고 고수하시였으며 그를 정확히 관철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초기 사대주의자들은 당시 이웃 나라들에서 실시하고있던 쏘베트로선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였으며 민족해방의 임무가 전면에 제기되였던 우리 나라 혁명의 당면한 성격을 무시하면서 《사회주의의 즉시 실현》을 주장하여나섰다.

이자들은 유격근거지—해방지구내에서 《사회주의》를 당장 실시하려고 하면서 경제시책에서는 토지에 대한 일제 사적소유를 부인하고 지주는 물론 농민들의 토지마저 모두 몰수하며 토지는 공동경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좌경모험주의의 이러한 해독적후과는 지극히 컸으며 혁명운동의 발전에 많은 장애를 조성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자립의 립장을 잃어버리고 남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자기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며 남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채로 삼켜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는 이러한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배격하면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시였다.

그러면서 주체사상에 확고히 기초하여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조선혁명의 투쟁로선, 전략전술을 작성하시였으며 무장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대주의자들의 해독행위와 함께 그자들을 조종하면서 우리 나라 혁명운동발전에 심각한 위기를 조성하였던 대국주의자들의 배타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서도 견결히 투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 전반기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민족해방의 혁명적기치, 민족해방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헐뜯으려는 대국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책동과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와해하려는 그들의 준동이 로골화됨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운동이 일대위기에 처한 엄혹한 시기에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혁명의 위기를 한몸으로 막아나서시여 이자들의 반혁명적준동을 저부시고 민족해방혁명의 주체적립장,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고수하였으며 조선혁명운동의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을 제기하는것을 반대하여나선 대국주의자들의 부당한 견해를 규탄하면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이 조선혁명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말하며 그것을 위하여 싸우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당당한 권리이며 그들에게 부과된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라는것을 천명하시였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적아를 혼동하면서 대렬의 통일단결을 저애해나선 이들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폭로하면서 투쟁의 예봉을 일제와 그 주구들에게 돌리고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선입감이나 편견 더우기 민족적편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지 투쟁에 엄격히 의거하여야 하며 동지들을 믿고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굳건히 수호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의 동향을 피상적으로 속단하는 현상을 없애고 반제력량을 광범히 묶어세워 원쑤 일제침략세력을 반대하는 싸움에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것은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수호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결합시키는 기초우에서 모든 반제력량을 하나에 묶어세워 원쑤 일제에게 화력을 집중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였다.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오직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는 일신의 위험도 돌보지 않으시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칙성과 비타협성, 맑스-레닌주의적인 명철한 분석과 정연한 론리에 의하여 대국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인한 혁명앞에 조성된 위기는 극복타개되고 조선혁명은 김일성동지의 확고한 주체로선을 따라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상과 같이 대국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 좌경모험주의,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조선혁명의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과학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에 의한 항일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운동에 대한 지도를 가일층 강화하시였다.

조선혁명에서 주체가 확고히 수립됨으로써 1936년에는 조선사람의 진정한 혁명조직인 조국광복회를 결성할수 있었으며 그가 선포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기치밑에 무장투쟁을 중심으로한 조선인민의 전반적혁명운동을 새로운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릴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사대주의, 교조주의, 좌경모험주의를 부식조장시키던 종파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행정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대렬내에서는 종파분자들이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결속된 공산주의자들의 통일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철석같이 강화되였다.

전체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그와 배치되는 사소한 행동에 대하여서도 제때에 타격을 주었으며 그이께서 제시한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철저히 옹호하고 관철하였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며 그 누구도 조선혁명을 대신할수 없다는 확고한 자주적립장에서 15성상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였으며 오직 인민을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한다면 적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 굳은 신념밑에서 무장투쟁을 조직하시고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혁명을 하신것도 아니였으며 그 누구의 힘도 바라지 않았고 그 누구의 비준도 받으며 하지 않으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는것은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하는것도 아니며 그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하는것도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해방을 위하여, 국제로동계급의 위업을 위하여 혁명을 하고있다. 자기의 신념을 고수하며 그것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아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품성이다. …우리는 결코 남의 품에 놓을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것이다.》

바로 그러기에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을 통하여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들을 민족적자주의식으로 교양하시였고 그들로 하여금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자기 힘과 자기인민의 힘을 믿고 대국배타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하여 싸우게 하시였으며 모든것을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다 바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다음과 같은 사상으로 교양하시였다.

《조선민족과 조선의 3천리강산을 떠나서 조선혁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조선의 력사와 전통, 조선사람의 생활감정과 풍습을 고려하지 않고는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혁명에 대해 열정을 가질수 없으며 그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없다.》

항일유격대원들이 그 간고한 15성상에 걸친 투쟁의 나날 그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중첩된 난국을 타개하고 계속 전진에 전진을 거듭하면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은것은 실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 자주자립의 혁명적립장으로 확고히 무장된데 기인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의 요인은 또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대중과의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린접국가의 공산주의자들, 인민들과 함께 공동의 적, 일제를 반대하는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함으로써 민족적 및 국제적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반제력량을 일제격멸에로 총동원한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식민지반봉건적사회경제관계와 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전략적주공방향인 일제를 격멸소탕하는데로 민족의 모든 반일력량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할데 대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공동의 적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린접국가의 공산주의자들, 인민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할데 대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우리 나라 각계각층 광범한 군중과의 반일민족통일전선실현을 위하여, 그리고 린접국가의 공산주의자들은 물론 민족주의세력까지 포함한 광범한 반일력량과의 반제공동전선실현을 위하여 인내성있게 투쟁하시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일제를 반대하는 반제공동전선운동을 동시적으로 능숙히 조직전개함으로써 민족적 및

국제적 범위에서 비록 불철저하고 견고치 못한 동맹자라 할지라도 전취하여 반일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일제를 더욱더 고립시킬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반제공동전선운동은 무장투쟁과의 밀접한 결합속에서 통일적으로 조직전개됨으로써 더욱 위력한것으로 되였으며 그것으로하여 일제에게 정치군사적으로 련속 심대한 타격을 가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전개하여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1936년 5월 5일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유일한 강령과 규약을 가지였으며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자체의 독자적조직지도체계를 가진 반일민족통일전선체였다.

우리 나라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조국광복회와 같은 상설적인 강력한 통일전선체를 가짐으로써 항일무장투쟁,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국적범위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었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성과적으로 조직전개됨으로써 그 행정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전복하고 나라의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강력한 혁명력량이 꾸려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가 수행한 업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우리의 민족해방투쟁의 목적과 과업을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해설하며 조국해방을 위한 공동투쟁의 기치밑에 조선의 모든 애국적력량을 동원집결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공산주의자들은 전국적으로 포치된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통하여 로동계급과 농민대중을 조직화하고 혁명화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적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였다.

그리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정확히 관철함으로써 일제를 반대하며 민족적해방을 지향하는 각계각층을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기치밑에 최대한으로 통일결속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반일적인 모든 인민대중을 단일한 전투적력량으로 편성하고 조선인민의 주체적력량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켜놓을수 있었다.

이와 같이 반일적인 모든 인민대중을 단일한 전투적력량으로 편성하고 조선인민의 주체적력량을 확대강화할수 있었던것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무장투쟁과 결합되고 그 강력한 지원에 의거하였기때문이였다.

통일전선운동의 무장투쟁과의 밀접한 결합, 이것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성과적인 발전을 보장한 중요한 요인이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가장 위력한 최고형태의 투쟁인 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됨으로써 일제의 반동공세가 강화되였던 간고한 조건하에서도 그 지속성을 견지하면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할수 있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무장투쟁의 강력한 지원에 의거하였기때문에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그와 결탁한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정체를 대중속에서 철저히 폭로할수 있었으며 나아가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임을 획득하고 그들을 조국광복회에로 광범하게 결속시킬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공산주의자들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성과적으로 조직전개함으로써 조선인민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렸을뿐만아니라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총동원하여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강화발전을 크게 촉진시킬수 있었다.

조국광복회는 우선 항일유격대의 강화와 무장투쟁의 전면적인 확대발전을 촉진시켰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공산주의자들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정확히 전개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광범히 축성할수 있었으며 인민대중을 동원하여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었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는 유격근거지를 창설공고화함에 있어서와 무장대오의 보충확대, 군사정치활동에서 인민대중의 인적, 물적 및 정신적 지지성원에 의거할수 있었으며 적들의 포위속에서도 광범한 대중적지반우에서 불패의 력량으로 장성강화될수 있었다.

반일민족통일전선은 무장투쟁을 강화발전시킴과 동시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반일투쟁에로 고무추동하고 로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등 조선인민의 모든 혁명투쟁을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인민의 혁명운동은 조국광복회 조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호상간의 련대성을 밀접히 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였을뿐만아니라 또한 무장투쟁과 련결됨으로써 그에서 힘을 얻고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모든 민족적력량을 조직결속하여 조국광복을 위한 반일투쟁에로 총동원하는 동시에 또한 린접국가의 공산주의자들은 물론 민족주의자들과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이끌어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함으로써 일제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기부터 일제의 침략을 당하고있는 린접국가의 공산주의자들, 인민과의 혁명적단결을 강화하며 그들과 일제

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쓰시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는 1931년 일제의 만주강점을 계기로 대두한 무장한 민족주의반일세력들을 인입하여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시였다.

그들은 반공적이였으며 특히 일제의 민족리간책동으로 인하여 조선사람들을 극도로 적대시하였으며 반일투쟁에서 심히 동요하는 불철저한 세력이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들이 비록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의 공동위업에로 적극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직접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그들을 넓은 아량과 포용력을 가지고 인내성있게 꾸준히 해설하고 교양함으로써 마침내 공동전선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반일세력과의 반제공동전선을 형성강화함에 있어서 일제를 반대하여 나선 그들의 혁명적요소를 조장시켜 그와 적극 단결하면서도 반일투쟁에서 부단히 동요하는 타협적요소와는 원칙적으로 투쟁하시였으며 하층통일을 기본으로 하층통일과 상층통일을 배합하는 전술적원칙을 능숙히 적용하시였다.

이러한 반제공동전선은 일제를 반대하는 실제적인 공동투쟁과정을 통하여 공고화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담하게 그들을 인입하여 크고작은 수많은 련합작전들을 성과적으로 조직전개함으로써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항일투쟁에로 이끌어갔다. 이 행정에서 그들의 부단한 동요성이 견제되고 교양개조되였을뿐만아니라 나아가서는 그들을 항일련합군의 전투대오에까지 묶어세울수 있었다.

그리하여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령도하에 항일련합군에는 린접국가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광범한 인민들과 민족주의세력까지 결속됨으로써 무장한 혁명력량의 단합된 힘으로써 일제에게 공동으로 련속 심대한 타격을 가할수 있었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일본군국주의에 의한 극동에서의 전쟁의 제일발원지가 발생된 긴박한 정세에 대처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광범한 통일전선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반제민족통일전선운동과 반제공동전선운동의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는것을 조선인민은 긍지를 가지고 자부한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우리 나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반제공동전선운동의 력사적경험은 공산주의자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반제민족해방혁명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장한 식민지통치자들을 혁명의 무장력으로써 분쇄하여야하며 무장투쟁은 반드시 민족적 및 국제적 범위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광범한 통일전선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의 요인의 하나는 항일유격대의 강철같은 혁명적규률과 관병일치의 기풍을 확립하며 대오의 통일단결과 전투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한데 있다.

항일유격대내에서는 상관이 부하를 억압하고 모욕하는 자본주의국가군대와는 달리 계급적리해관계와 투쟁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완전히 혼연일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지휘원과 전투원들은 친형제와 같이 화목하였으며 상하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생사고락을 같이하였다.

항일유격대의 지휘원, 전투원들은 15성상의 장구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동지를 서로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몇줌의 낟알, 한홉의 미시가루를 놓고도 동지를 위하여 서로 양보하는 품성을 보여주었다.

가렬한 전투와 위험속에서 대원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지휘원을 보호하였으며 지휘원들은 대원들을 교양하며 보살펴주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원들을 영웅적위훈에로 고무하였다.

그리고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과 대원들은 누구나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켰으며 김일성동지의 명령과 지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어떤 역경속에도 뛰여들어 그를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원칙적단결은 동지호상간에 허심하고 솔직한 비판과 자기 비판의 강력한 무기로써 확고히 보장되였다.

그리하여 전투행동에서나 생활과정에서 나타난 사소한 결함이라도 묵과하지 않고 그를 시정하여주기 위하여 서로 충고비판하여주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여있었다.

이와 같이 뜨거운 혁명적동지우애와 원칙적단결에 기초한 유격대의 고귀한 관병일치의 전통은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보장한 요인의 하나로써 크게 작용하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승리를 달성하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항일유격대의 힘의 원천인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밀접히 보장한데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행동의 지침으로삼고 언제 어디서나 군민일치의 기풍과 고상한 인민적사업작풍을 훌륭히 구현하면서 싸워 승리하였다.

군중적토대가 없이 활동하는 유격대는 오래 유지될수도 없고 유격전에서 패배를 면치 못한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적군중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시종일관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유지하고 혁명조직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불패의 힘을 발휘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빨찌산들은 원수에게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인민**

들에게는 순한 양처럼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야 한다.》, 《우리가 초근목피로 끼니를 에우고 갖은 고생을 다하여 원쑤와 싸우는것은 인민을 위한것이고 우리가 굶으면서도 인민들에게 될수록 페를 안 끼치려 하는것도 인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면서 항상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정신으로 유격대원들을 교양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에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인민을 위하여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은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며 그들이 자각적으로 동원됨으로써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적군중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들의 자각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들에 대한 설복과 교양을 강화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다만 적과 싸우는 전사였을뿐만아니라 인민을 교양하고 선동하는 선전자였으며 그들을 조직동원하는 조직자였다.

그들은 각계층 군중들속에 깊이 들어가 민족적자각을 계발시키고 투쟁열의를 고취하였으며 그들을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각종 반일혁명단체들에 조직결속하고 광범한 군중들을 혁명의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집결시켰다.

항일유격대는 전투환경에서도 인민들에게 피해가 미칠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적을 유인하였으며 적들의 야만적폭압에서 인민들을 구원하였다.

그들은 이름그대로 살아도 인민의 사랑속에서 살고 죽어도 인민을 위하여 죽는다는 신념으로 싸웠다.

그렇기때문에 인민들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자기들의 혈육과 같이 여기고 그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지원호하였으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격대의 통신련락 및 정찰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항일빨찌산은 **《인민을 위하여 싸웠고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옹호를 받았기때문에 주권이 없이도 15성상이나 유격투쟁을 전개할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항일유격대와 인민들간의 련계가 긴밀히 맺어져있었기때문에 적들의 대규모적인 포위공격과 악랄한 봉쇄정책도 격파하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 ☆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의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 혁명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무장투쟁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우리 나라 혁명운동에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켰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의 항일무장투쟁은 적에게 가하는 타격력과 그리고 인민대중에게 미치는 그 혁명적영향력과 동원력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힘을 발휘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주어 일제의 패망을 촉진시켰으며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계급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놓았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은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확고한 중심을 이루고 이여의 모든 형태의 대중운동을 힘차게 고무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전반적혁명투쟁을 일대앙양에로 이끌어올리였다.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행로는 반혁명적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대항하는 무장투쟁만이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며 인민들의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쟁취할수 있게 하는 정확한 길이라는것을 력력히 실증하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지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초기에 있었던 본질적약점들이 극복되고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가 튼튼히 이룩되였으며 조선혁명의 주체사상과 숭고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 고귀한 혁명적업적과 귀중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이 투쟁의 불길속에서 수많은 로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들이 세련된 공산주의자로 육성되였으며 혁명대오의 확고한 통일이 이루어졌다.

바로 이 행정에서 조선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오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그리고 종파주의가 극복되고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이 비로소 확립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적인 정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이 작성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의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이 모든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고귀한 재부이며 조선혁명의 귀중한 밑천이며 뿌리이다.

바로 이 밑천, 이 뿌리에서 우리 당이 창건되고 오늘 새로운 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고 있다.

이 전통, 이 뿌리는 그것이 15성상에 걸치는 위대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것으로 하여 가장 심각하고 심오하며 그리고 무장투쟁과 그와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당창건준비사업의 행정에서 확립된것으로 하여 비할바 없이 그 내용이 풍부하며 특히 이 전통이 오늘도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향도하고계시는 조선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조선혁명의 위대

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졌기에 해방후 무궁무진한 위력과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으며 또 발휘하고있다.

바로 그러기에 조선인민은 이 전통, 이 업적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을 조선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의 고상한 의리로, 의무로 간주하고있다.

해방후 조선인민은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업적을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조선혁명발전의 매단계, 매시기에 위대한 승리와 자랑찬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으며 오늘 이 땅우에 륭성발전하는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해방후 조선인민이 걸어온 지난 20여년간은 실로 15성상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온 자랑찬 투쟁로정이였으며 혁명선렬들이 다하지 못한 뜻을 이어 새조국을 건설하며 우리 혁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강력한 혁명적보루를 쌓아올린 승리의 력사적행정이였다.

조선인민은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 이 튼튼한 혁명의 뿌리가 있음으로 하여 해방직후 지체없이 우리 당을 창건할수 있었으며 모든 애로와 난관을 주동적으로 극복타개하면서 극히 빠른 시일내에 인민의 정권을 창설하고 제반 민주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혁명간부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진정한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할수 있었다.

특히 이 전통, 이 뿌리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과 영웅적조선인민군은 1950～1953년에 걸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국제반동의 괴수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16개국 무력침공자들을 쳐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었으며 세계평화와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지켜낼수 있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오로지 장기간의 혁명투쟁에서 세련되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신 강철의 령장이시며 조선인민의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그 진두에 서시여 전체 인민을 승리에로 확고히 령도하셨기에 달성될수 있었다.

또한 이 위대한 승리는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이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풍부한 투쟁경험으로 무장하고 온갖 난관과 시련도 맞받아 불사조마냥 싸웠기에 가능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침략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정의의 위업에 한사람같이 일떠서 싸울 때 그 민족, 그 인민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조선인민은 전후에도 이 혁명전통의 붉은기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확고히 전진함으로써 재더미를 헤치고 단시일내에 경제를 복구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고조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천리마진군에 박차를 가하여 온 세상을 경탄케 하는 거대한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다.

공화국북반부는 짧은 시일내에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모르는 민족경제의 튼튼한 자립적토대를 가진 선진적인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원쑤들의 어떠한 침해로부터도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강력한 혁명기지로 전변되였다.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4천만 조선인민은 조선혁명을 항상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갈 때 점령 못할 요새란 없으며 극복못할 난국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심장으로 확신하고있다.

바로 그러기에 조선인민은 이 위대한 혁명의 뿌리,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철저한 반제혁명사상과 자주, 자립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에 따라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고있으며 국제적인 반제반미공동행동과 반제반미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제의 침략정책을 철저히 분쇄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다.

오직 혁명을 위하여

=고난의 행군 30주년을 기념하여=

1968년에 우리 인민들은 세계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볼수없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중에서도 가장 엄혹한 시련으로 가득찼던 《고난의 행군》(1938년 12월—1939년 4월) 30주년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고난의 행군》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국내와 장백일대에서 적들에 의하여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빨리 복구정비하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새롭게 북돋아주며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 1938년 12월부터 이듬해봄까지 이르는 기간에 몽강현 남패자로부터 장백현 북대정자까지 수행한 영광스러운 행군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압록강연안에로의 재진출은 20여만명의 일만군경들이 동원된 《대토벌》과 간첩, 암해분자들의 책동, 좌경모험주의자들이 강요한 《열하원정》의 엄중한 후과와 100년래 처음보는 추위와 눈더미 그리고 사령관동지께마저 낟알을 제대로 대접할수없던 식량난으로 하여 세상에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령활한 유격전술, 수령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무한한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하여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실로 고난의 행군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조선혁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조선인민의 힘으로 수행하려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그이에 의하여 창조된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령활한 령군술의 위대한 결실이다.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고 몸소 생사를 판가리하는 간고한 투쟁의 앞장에 서시여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대오를 령솔하시였기에 고난의 행군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그이의 혁명사상을 심장으로 체득한 조선인민혁명군의 대원들은 이 행군과정에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수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널리 시위하였다.

이 행군과정에서 조선인민혁명군대오는 사상의지적통일을 더욱 다지였고 대원들은 모진 시련속에서 불요불굴의 혁명전사로 더욱 단련되였으며 온 대오가 혁명의 튼튼한 골간부대로 자라났다.

고난의 행군은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하겠다고 호통치던 일만군경들의 《동기대토벌작전》을 묵사발로 만들고 놈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주었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다시 한번 온세상에 시위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할 목적으로 감행된 놈들의 소위 《대소탕전》은 결국 제놈들 자신의 대소탕전으로 되였으며 일제의 통치밑에서 신음하던 조선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혁명의 불길을 다시금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00여일에 걸쳐 진행된 수천리 고난의 행군길은 조국해방을 앞당기는 위대한 길이였고 영광스러운 조국—오늘의 천리마 조선의 대로와 잇닿은 영광스러운 길이였다.

오늘 조선인민들은 이 영광스러운 행군로정을 더듬어보면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수령에 대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무한한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게 된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불러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

1937년에 침략적인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을 받아 중국침략을 하루속히 끝내려고 책동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제는 언제나 자기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되는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하는데 미친듯이 날뛰였다.

이 《토벌》작전에는 놈들이 《최강》을 자랑하던 관동군의 대병력, 위만군의 《정예》부대 15개려단, 무장경찰, 무장자위단 등 20여만의 대병력과 항공대까지 동원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공세뿐만아니라 사상정치적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1937년 가을부터 1938년에 걸쳐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대검거선풍을 일으켰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이 자기들의 포위속에 들어 장백밀림에서 다 굶어 죽고 얼어 죽었다는 허위선전을 퍼뜨림으로써 유격대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끊어버리려고 발악하였다.

이러한 때에 유격전쟁과 투쟁현실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좌경모험주의자들이 들고나온 《열하원정》의 엄중한 후과로 말미암아 남만에서 활동하던 부대들은 적지 않는 손실을 입었으며 전반적항일무장투쟁의 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

조선혁명이 이처럼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에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열하원정》이 모험적이며 좌경적이라는것을 제때에 꿰뚫어보시고 그로부터 빚어질수있는 모든 사태에 대처하여 만단의 준비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선 부대를 진출하시고 남만의 산악지대에 진출하시여 평야지대에 집결한 적들을 피여내여 기습 소멸하시는 령활한 유격작전을 조직지도하시였다.

또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원칙적립장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라는 로작을 발표하시고 마당거우에서의 집중적인 군정학습을 통하여 대원들을 교양하시였다.

나아가서 조성된 정세에 맞게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1938년 11월 25일에 력사적인 남패자회의를 소집하시고 위험에 직면한 혁명을 구원하며 조선혁명을 다시 일대 앙양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회의에서 좌경모험주의자들이 강요한 《열하원정》의 주관적이며 모험주의적인 오유와 그 후과들에 대하여 심각히 분석비판하신 다음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더욱 강화하고 대부대기동작전을 기본으로하면서 이에 소부대활동을 배합하여 적에게 섬멸적타격을 주며 계속 국내에 진출하여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추켜세우며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줌으로써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불러일으킬데 대한 가장 현명하고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 대규모적인 《소탕전》을 대부대유격투쟁으로써 파탄시키되 정황에 따라 소부대활동을 능숙하게 배합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또한 적의 후방인 조선과 동북에서 광범한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반일투쟁에 적극 나서게 조직동원하며 승리의 신심을 가지도록 대중정치사업을 광범히 전개할데 대한 방침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제에 대한 섬멸전과 병행하여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대중정치공작을 과감히 전개하여야 한다. 국내와 동북일대에서 적들에게 파괴당한 혁명조직들을 복구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민족해방전쟁이 결정적으로 승리한다는 신심을 안겨 주어야한다. 그리하여 조중인민들이 한결같이 반일투쟁에 극력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 직후 곧 조선인민혁명군의 한부대를 친솔하시고 압록강연안에 다시 진출하시였다.

당시 일제는 장백지구의 전역과 조선북부 국경일대의 도시와 농촌, 산간오지 할것없이 모든 곳에 총검의 숲을 이루어놓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진출을 막아보려고 미쳐 날뛰였다.

장백지구의 이러한 정세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바로 김일성동지이시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오직 난국에 빠진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건지기 위하여 일신의 안전은 돌보지 않으시고 몸소 고난의 앞장에 나서시였던것이다.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939년 4월에 소집된 장백현 북대정자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압록강연안에로 다시 진출하는 목적과 그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몽강일대로부터 적의 수만병력의 집중적인 포위공격을 물리치면서 조선의 북부국경대안으로 진출한 목적은 국내와 장백일대에서 원쑤들이 파괴한 혁명조직을 복구정비하며 국내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새롭게 북돋아주는데 있었다.

1937년 가을부터 1938년에 걸쳐 일제는 총검거선풍으로 장백의 조국광복회와 국내의 민족해방동맹조직들을 파괴하고 수많은 동지들을 검거투옥하였다. 이와 함께 《공산군은 장백밀림에서 다 얼어죽고 굶어죽었다》는 허위선전으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인민들의기대와 한줄기의 희망마저 지워보려고 획책하여왔다.…

조선인민의 머리우에는 검은 구름이 뒤덮여있고 혁명은 일대 시련을 겪고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장백으로 진출하여 국내인민들에게 조선인민혁명군은 얼어죽지도 굶어죽지도 않았으며 조선인민은 일제를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실제투쟁으로써 깨우쳐주는것은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그러므로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100여일의 《고난의 행군》길은 조선혁명을 그 어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조선공산주의자들, 조선의 아들딸들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체사상의 승리적인 전진의 길이였다.

또한 100여일의 《고난의 행군》길은 일제의 미친듯한 《동기대토벌》로부터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할뿐만아니라 그를 강철같은 불패의 혁명대오로 단련강화하는 투쟁의 길이기도 하다.

김일성동지께서 새로운 유격전술을 창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은 몽강현 남패자회의결정에 따라 장백현과 국내에서 원쑤를 격멸할 목적으로 행군을 시작하였다.

수년간의 《토벌》작전에서 련속적인 참패를 당한 적들은 이해 겨울에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섬멸》할것을 기본목표로 삼고 집요하게 따

라다녔다. 그것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있는 한 조선인민혁명군을 없앨수도, 조선혁명의 명맥을 끊을수도 없다는것을 놈들자신이 잘 알고있었기때문이다.

적들은 이 시기의 《토벌》작전에서 자기들에게 언제나 시체만이 차례지던 그전의 전술을 버리고 새로운 전술을 썼다.

과거에는 일단 조선인민혁명군의 행동을 탐지한 다음에야 이곳저곳에 박아두었던 병력을 집중하여 공격하여 왔다면 이 시기에 와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진출할만한 지역에 미리 병력을 집중적으로 《요점배치》해 놓고 한패는 산릉선을, 다른 한 부대는 산중복을, 또 다른 한부대는 골바닥을 타고 참빗으로 훑는 이른바 《만산전술》과 함께 사령부의 종적을 찾으면 다른 부대를 뒤따르던것을 젖혀놓고 사령부가 있는곳으로 모여와 계속 따라 다니는 이른바 《진드기추격》전술을 배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장백현 7도구치기에 이르렀을 때에 적들은 수많은 대병력을 동원하여 행군길을 막아 나섰을뿐만아니라 뒤로부터도 《추격》하여왔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적들의 《토벌》전술이 그전과는 다르다. 적들은 우리의 뒤에 딱 붙어다니면서 련속적으로 장기전을 진행하여 아군을 피로케 하며 우리의 전투력을 약화시켜놓고 《소멸》하자는것이다.

아마도 적들은 이번 동기《토벌》에서 우리 사령부를 《소멸》하자는데 중요목적을 둔것 같다. 적들은 지금 이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다른 유격부대들을 도저히 격파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병력을 령활하게 집중, 분산, 이동시키면서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의 력량을 보존하는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이 천재적인 유격전술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의 한부대는 그이의 지휘하에 장백현 7도구방향으로 진출하였고 다른 한부대는 장백현 희샤즈거우일대에서 또 다른 부대는 무송현 동강일대에서 활동함으로써 적들을 완전히 분산시켰으며 일대 혼란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적들은 다시 그이께서 계시는 사령부행동방향을 탐지해내자 여기에 더 많은 병력을 끌어들이고 어리석게도 《대소탕전》을 시도하였다.

수천명의 적을 뒤에 달고 부후물등판을 두바퀴째 돌던때의 일이였다. 새로 수백명의 적이 또다시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뒤를 《추격》하여왔다. 하루길이 잘되는 등판두리를 두 바퀴째 도는 사이에 먼저 《추격》하던 적과의 거리는 상당히 벌어지게 되였으나 새로운 적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부를 발견하고 그 사이에 새로 끼여든것이다.

이것을 포착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에게 발구채만한 나무를 베라고 지시하시였다. 그리고 그전에 베였던 아름드리나무그루가 드문드문 서있는 등판제굽이에 이르렀을 때에 그 그루우에 새로 벤 나무로 다리를 놓고 등판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였다.

대원들은 나무다리를 놓고 다 건너간 뒤에 그것을 자리나지않게 들어서 앞에다 옮겨놓고 거기에서 약 500메터 안에 들어가 휴식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빠져나간 줄을 전혀 모른 적들은 여전히 부후물등판을 돌다가 어두워질 무렵부터는 서로 맞불질을 하였다.

그리하여 《만산전술》과 《진드기전술》로 엮어진 놈들의 부후물등판에서의 《대소탕전》은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전략전술에 의하여 제놈들끼리의 대소탕전으로 끝나고 말았다.

수많은 적을 꼬리에 달고 장백오지의 눈바다를 헤치면서 앞뒤로 달려드는 원쑤들과 싸운 간고한 고난의 행군—이것은 결코 적의 《토벌》을 변화무쌍하게 문질러버린 투쟁만이 아니였다.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떤 곤난한 정황속에서도 항상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을 마음대로 치고 따돌리였을뿐만아니라 정세가 곤난하면 할수록 대담하고 적극적인 전술로 적들을 후려갈겼다.

사령부의 행방이 적들에게 알려지고 놈들의 대병력이 악을 쓰고 달려들때 그이께서는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대담하게 적후방을 칠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원쑤들의 전력량이 장백오지에 집중되여 적후방이 텅 빈 약한 고리를 걷어쥐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80리밖에 있는 적 7도구목재소를 치고 다음에 후방깊이에 있는 다양차와 장백대로(군용도로)를 기습하는 전투를 조직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장백오지에 몰아넣고 불원간에 《전멸》시키리라고 망상하던 적들은 단번에 여러곳의 후방을 습격당하자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가 새로 온것으로 알고 적지 않은 력량을 떼여 후방수비에 돌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에게 숨돌릴 사이도 주지 않기 위하여 계속하여 적의 숙영지습격전투를 조직하시면서 대담하게 적의 《토벌》근거지의 하나인 13도구를 칠 계획을 세우시였다.

13도구공격전투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이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전투는 생사를 결단하는 전투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쳐야만 적들을 멀리 쫓아버릴수 있다.…

적들은 자기들의 후방중심지가 불시에 습격당하는 바람에 대혼란에 빠졌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 틈을 타서 은밀히 행군하여 다시 장백오지 부후물쪽으로 이동

하였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천재적인 유격전술에 걸리여 수십만의 대병력을 가지고도 련속적인 타격을 받게 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만산토벌》과 《진드기추격》전술로 꾸며진 정면전술이 패배하자 악이 머리끝까지 올라 서로 으르렁대면서 《토벌사령관》들을 갈아대놓고 이번에는 산악과 수림을 리용하여 사령부를 은밀히 포위하였다가 공격하는 전술을 짜냈다.

부후물치기에서 설영절을 쇠던 어느날 대원들은 저녁을 준비하러 나가다가 숙영지에 기여드는 적을 발견하였으나 놈들을 보지 못한체하고 되돌아들어와 사령관동지에게 보고하였다.

그이의 명령에 따라 부대는 북쪽으로 은밀히 빠져 맞은편 릉선에 올라갔다. 적들은 남북으로 조여들고있었는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포위망이 채 물리지않은 곳을 통하여 부대를 빼내시였던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부를 자기들이 겹쳐친 큰 그물, 작은 그물에 모두 《몰아넣었다》고 생각하고 맞불질하면서 조여보았으나 모든 그물에는 제 놈들의 시체만이 가득하였다.

이때 사령관동지께서는 대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이제는 적들이 정면전술이 아니고 은밀히 포위하는 전술을 쓰는것 같소.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하겠소. 적들이 수림지대를 중심으로 추격포위하는 조건에서는 야산지대로 이동하여 행군해야 하오.

그리고 적들이 야산으로 쏠리면 우리는 다시 수림지대로 들어와야 하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 방침에 따라 적들의 중심을 통하는 대통로를 따라 200리길을 행군하여 집단부락이 눈앞에 보이는 야산에서 학습하면서 승리의 새봄을 맞이하였다.

고난의 행군의 전과정은 사상전술적우세에 기초하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령군술로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주도권을 항상 튼튼히 틀어쥔다면 량적기술적우세에 근거한 원쑤들의 그 어떤 공격도 능히 물리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력량상의 우세 하나로써 주도권이 결정되는것은 아니며 비록 력량상 렬세한 군대라할지라도 조성된 정황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그에 적응한 가장 현명한 전략전술을 세우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싸운다면 능히 주도권을 장악할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었다.…**고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불패의 대오로 키우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장백현 북대정자회의에서 고난의 행군을 총화하시고 또다시 조국에로 진군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면서 100여일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달성한 성과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얻은 가장 귀중한 성과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하였을뿐만아니라 그를 강철같은 불패의 대오로 더욱 단련강화하였다는것이다…

실로 고난의 행군길은 원쑤들의 발악적인 군사공격과 악랄한 파괴책동, 모진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는 간고한 투쟁의 길이였다.

고난의 행군길은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달려드는 대적과 싸워야 하는 전투의 련속이였으며 원쑤들의 포위망을 헤치고 나가는 결사전의 나날이였다.

적들은 군사적공격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을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고 《귀순공작단》과 간첩, 변절자들을 들여 보내여 대오를 파괴하려고 날뛰였다.

게다가 박달나무도 얼어터진다는 강추위와 키를 넘는 생눈길을 헤쳐야 하였고 식량과 신발마저 떨어져 맹물로 끼니를 대신하였으며 각반이나 나무껍질로 발을 동이고 걸어야 하였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험난한 행군길을 과연 그 무엇이 그 어떤 힘이 그토록 용감히 뚫고 나갈수 있게 하였던가!

그것은 오직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고난의 앞장에 서시여 조국광복의 일념으로 대원들을 이끌어주시였고 그들을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고무해주시였기에 가능하였던것이다.

고난의 행군과정에 적들의 대병력이 집중되는데 대처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두개부대를 각기 다른 방향에서 활동하게 하시던 시기에 그이께서는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군하시면서 이렇게 대원들을 교양하시였다.

…우리는 이 장백밀림속에서 적들의 맥을 기껏 빼야 한다. 자체로 식량을 해결하면서 적들속을 빠져서 이 겨울을 견디여 내야 한다.

그래야만 조국에로 다시 진군할수 있고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할수 있다.…

실로 조국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그 준엄한 시기에 조국광복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조선사람 자신의 힘으로 타개해야 한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교양받은 대원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힘을 내였다.

적들이 군사적공격만으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굴복시킬수 없다고 생각하고 간첩, 변절자들을 들여 보냈을뿐만아니라 길목마다에 투항을 《권고》하는 삐라를 뿌리던 시기에도 그이께서는 행군대렬의 앞뒤로 오가시면서 승리

의 신심을 안겨주셨다.

…적들은 우리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하고있다. 더욱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온다. 앞으로 석달만 이겨내면 그때에는 눈이 녹을것이다. …

눈이 녹으면 우리의 활무대가 열린다. 기어코 그때까지 참고 반드시 그리운 조국으로 진군해야 한다. …

그이께서는 행군도중에도 힘들어하는 대원이 있으면 부축하고 걸으시면서 일제는 반드시 멸망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고무하여주시였으며 조국을 해방한후 앞날에 있을 조국건설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군 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러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였기에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었으며 그렇듯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면서 조국진군의 길을 다그쳐 나갈수 있었다.

고난의 행군은 또한 대원들을 깊고 넓은 사랑의 손길로 보살피고 이끌어주신 김일성동지의 높은 덕성과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불패의 힘을 남김없이 발휘한 행군로정이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 항상 그러하였던것처럼 그 간고한 행군의 나날에도 대원들의 생활을 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으며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어쩌다 차례지는 몇알의 옥수수도 들지 않으시고 모아두시였다가 행군할때 힘들어하는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며 기운을 돋우어주시였고 휴식명령을 내리시고도 자신은 쉬지 않으시고 일일이 대원들의 신발도 고쳐주시고 해진 배낭도 손질해 주시는 등 따뜻하게 보살펴주시였다.

대원들이 드린 《한홉의 미시가루》마저 그이께서는 전령병들에게 고루 나누어주시고 자신은 드시지 않으셨다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도 바로 이 행군길에서 있은 일이였다.

그이의 이 끝없이 넓고 깊은 사랑속에서 대원들은 뜨거운 눈물을 씹어삼키였으며 비록 죽을지언정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리라 굳게 맹세다지였으며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원쑤격멸의 서리발 비낀 총창을 힘있게 틀어잡았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언제 어데서나 그러했던것처럼 고난의 행군길에서도 위대한 수령의 주위에 하나같이 단결되였으며 그이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바쳐 지켜 싸우는 것을 첫째가는 의무로, 제일 생명으로 여겼던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에 충직하였던 오중흡동지가 적들이 눈에 쌍심지를 달고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혁명의 사령부에 달려드는 그 엄혹한 행군길에서 모든 위험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면서 적의 주력부대들을 장백현 부후물치기로부터 상강구의 무인지경까지, 그것도 놈들이 지쳐서 더 따라오지 못하면 다시 되돌아가서 끌어다가 무자비하게 족치고 사령부를 보위하였다는 잊지못할 이야기도 이 고난의 행군시기에 있었던 일이였으며 가렬한 싸움과 고난에 찬 발포의 행군끝에 상강구에서 적을 떼여버리고 쉬다가 멀리 하강구의 사령부쪽에서 울리는 가느다란 총소리를 듣고 단숨에 13도구에 달려와 적의 뒤통수를 후려갈기였을뿐만아니라 항상 흠모하여마지않던 김일성동지께서 안전하심을 알고 대원들을 부등켜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감명깊은 이야기도 바로 이 때의 일이였다.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 마는 불굴의 혁명정신, 그이께서 계시는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하여 그 어떤 희생도 가리지 않는 숭고한 품성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높은 덕성을 심장으로 파악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가장 숭고한 혁명정신이며 고결한 품성이다.

× × ×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패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과 그이의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장백밀림속에서 적들의 맥을 기갰 빼면서 축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은 이듬해 4월에 북대정자에 이르렀다.

그이께서는 간고한 행군로정의 피곤을 푸실 사이도 없이 북대정자회의를 소집하고 동기작전에서 극도로 피로해진 적들이 사방에 분산된채 제소굴에 처박혀있을때 집중된 력량으로 총 반격으로 넘어가 적들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주면서 또다시 조국에 진군하여 우리 인민에게 해방의 서광을 안겨주며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정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은 이 방침에 따라 적들의 대병력이 집중되여있는 구가점, 15도구, 반절구 등의 적의 중심부를 련속 공격하여 놈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였으며 충분한 전투준비를 갖춘데 기초하여 1939년 5월 18일에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를 진행하였다.

이렇듯 고난의 행군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는데서 불후의 업적을 쌓아 조국청사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혁명의 사령부와 혁명근거지를 피로써 사수한 불멸의 전투

=소왕청유격근거지방어전투 승리 35주년을 맞이하여=

조선인민들은 1968년에 우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일제의 대규모적인 《동기대토벌작전》을 분쇄한 유명한 소왕청유격근거지방어전투(1933년 12월—1934년 1월) 35주년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소왕청유격근거지방어전투는 두만강연안의 광활한 지역에 유격근거지들이 창설된 후 끊임없이 감행된 적들의 장기적인 《동기대토벌작전》을 분쇄하고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와 유격근거지를 지켜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을뿐만아니라 조선인민의 혁명적기상과 불굴의 의지를 시위한 기념비적인 전투이다.

당시 일제는 두만강연안의 유격근거지들중에서도 우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소왕청유격근거지의 《토벌》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두만강연안일대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신 이후 주로 이곳에 계시면서 항일무장투쟁과 조선혁명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 소왕청유격근거지를 고수하는 문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였으며 조선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소왕청유격근거지를 《소멸》하기 위하여 일본군, 위만군, 위만경찰대 등 실로 5천여명의 병력을 내몰고 닥치는대로 파괴하고 불사르고 살륙하였다.

그러나 불탄 자리에는 그때마다 새 학교, 새 병원, 새 병영들이 일떠섰으며 포연이 가시는 때마다 인민혁명정부의 지붕우에는 여전히 혁명의 붉은 기발이 힘있게 나붓겼었다.

그 어떤 힘이 이처럼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일제침략자들을 물리치는 결사전에로 나서게 하였으며 그 어떤 힘이 적들의 끊임없는 발악적인 공격속에서도 소왕청유격근거지를 4~5년간 굳건하게 지켜내게 하였는가?

바로 여기 소왕청유격근거지방어전투에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로선과 천재적인 전략전술이 깃들어있으며 여기 소왕청유격근거지방어전투에 그이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불사조와 같이 싸운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의 불타는 충성심이 맥박치고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인 전민무장화와 근거지요새화의 방침을 제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초에 조선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항일무장투쟁의 총적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는 한편 유격근거지창설에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유격근거지는 항일무장투쟁이 간고하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것만큼 항일유격대의 군사전략적기지로서뿐만아니라 조선혁명전반을 지도하는 혁명기지로서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육성하는 요람지로서 절실히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지형상으로 조선의 국경지대와 맞붙어있을뿐만아니라 아군이 방어하기에는 유리하고 적들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한 두만강연안의 험악한 산악지대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였다.

새로 창설된 유격근거지는 첫시기부터 근거지내 인민들 뿐만아니라 적통치구역내 인민들에게 주는 혁명적영향이 컸으며 여기에 의거한 유격대의 무장투쟁 역시 눈부시였다.

이에 겁을 먹은 일제는 유격근거지를 《동양평화의 암》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두만강연안에 창설된 유격근거지를 《소멸》하는데 1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저들의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이 지역에 증강하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거지를 철옹성같이 보위하기 위하여 주체적인 군사로선인 전인민적방위체계 즉 전민무장화, 근거지요새화의 독창적인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유격근거지를 철저히 보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놈들의 공격을 능히 좌절시키고 강력한 타격을 가할수 있는 무장력이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 유격근거지들은 지형상으로 보아 방어에는 유리하고 적들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한 지대에 위치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졌다 하여도 유격근거지를 튼튼히 보위할수 있는 무장력이 없다면 그 유격근거지는 한시도 지탱해낼수 없으며 혁명력량을 보존할 수 없다.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철옹성같이 보위하기 위해서는 항일유격대를 급속히 확대강화하는 한편 근거지내 전체 인민이 무장하여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무장적토대가 없으며 간부들이 부

족한것 등 적지않은 애로와 곤난이 있는것만 사실이다. 그러나 인민대중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는 목적을 똑똑히 알고 한사람과 같이 힘을 합친다면 그 어떤 곤난도 능히 극복할수 있다. 어린 아동단원들로부터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튼튼히 무장한다면 유격근거지로 달려드는 《토벌대》놈들을 물리칠수 있으며 놈들의 간첩, 암해책동도 제때에 분쇄할수 있다. 전체 인민이 무장하면 어떠한 원쑤도 능히 물리칠수 있다.…

그이의 이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없는것은 찾아내고 부족한것은 만들면서 자체로 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1933년초 소왕청유격근거지에서 진행된 작탄강습에서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무장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적에게서 무기를 탈취하는것이다.…

…그것은 우선 적을 소멸하고 그의 무기를 탈취하면 원쑤를 약화시키니 좋고,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비싼 무기를 얻을수 있으니 좋고 또 현대적장비를 갖춘 일본제국주의군대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무기의 공급원천이 고갈될 걱정이 없기때문에 좋은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에게서 무기를 탈취하는것을 무기해결의 주되는 방법으로 삼고있는것이다.…

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적을 기습하여 무기를 탈취하는 투쟁을 더 맹렬히 전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방법으로 많은 무기를 해결하였지만 앞으로도 역시 이것을 무기획득의 제1차적방법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일본제국주의는 유격대를 위한 《무기생산자》이며, 그의 침략군대와 경찰들은 《무기수송대》들이다. 무기의 공급원천이 마를 걱정은 없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 혁명사상을 심장깊이 아로새기고 매일과 같이 전투를 진행하면서 피로써 적들의 무기를 탈취하였다. 이것은 자체를 무장하는데 가장 혁명적인 방법이였을뿐만아니라 유격대를 현대화하며 인민들까지 무장하는 가장 빠른 길이였다.

근거지에는 병기창도 있었다. 비록 자체로 준비한 설비이기는 하나 《연길폭탄》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들을 만들거나 수리하여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을 무장시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 내 전체 인민들을 무장시킬데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적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기지인 유격근거지를 철벽으로 지키는것은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총을 잡고 싸울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를 물론하고 원쑤를 물리치는 싸움에 떨쳐 나서야 한다. 근거지의 전체 인민이 힘을 합쳐 싸운다면 그 어떤 적도 능히 막아낼수 있다. 반일자위대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부터 조직된 인민적인 무장대오이다. 반일자위대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격대가 근거지에만 머물러있지 않고 광범한 지역의 적들을 맞받아나가 주동적으로 쳐야 하는것만큼 근거지방위에서 반일자위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전민무장화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유격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한편 근거지내에서 싸울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반일자위대를 비롯하여 청년의용군, 돌격대, 소년선봉대 등 각종 반군사적조직들에 망라시켰다.

이들의 임무는 일상적으로 생산에 종사하면서 적에 대한 감시와 경계근무, 적정정찰, 통신련락을 수행하며 근거지에 잠입하는 적 간첩, 암해분자들의 책동을 분쇄하며 정황에 따라서는 직접 전투에 참가하여 유격대를 도와주는것이였다.

이들은 체계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유격대가 근거지밖에 원정을 나갔을때에도 근거지내의 혁명조직들과 인민들을 튼튼히 보위하였다.

근거지에는 공고한 원형방어체계와 경계신호체계가 수립되여있었다. 적들이 들어올수 있는 모든 고지와 릉선, 골짜기들에 진호를 비롯한 방어시설들이 구축되여있었으며 감시에 유리한 고지들과 지점마다에 망원초, 중간초, 바닥초, 반울초. 문전초, 유동초들을 배치하고 아무리 일기가 나쁘거나 불리하여도 일단 적정이 나타나면 지체없이 지휘부에 통보하게 되였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방침에 의하여 광범히 창설된 반유격구들이 근거지방위에서 또한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반유격구라는것은 유격대가 공개적으로 다니며 유격대의 지휘부와 인민혁명정부, 그의 후방기관들과 문화 교육기관들이 자리잡고있는 완전유격구와는 달리 낮에는 적의 통치지역이고 밤이면 우리 세상이 되는 그런 지역을 말한다.

반유격구에는 우리의 지하조직이 깊이 뿌리박고있었으며 주민들도 대부분이 우리의 지지자들과 동정자들로 구성되였고 툰장을 비롯한 적 기관의 중요자리들도 우리 사람들이 차지하고있었다.

그리하여 반유격구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적에게 복무하였으나 실상은 유격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였다. 반유격구에서는 적 통치의 합법적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비합법적활동을 전개할수 있었으므로 사실상 이곳은 우리 지역이나 다름 없었다.

이러한 반유격구들이 소왕청의

유격구주변에 광범히 조직되였다. 라자구, 황구, 량수천자골안, 다홍왜, 전각루골안 등이 모두 반유격구들이였다. 이 반유격구들은 보이지 않은 요새로서 해방지구형태로 공개된 요새인 완전유격구를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었으며 반유격구인민들은 각종 방법으로 유격구인민들의 투쟁을 도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유격근거지에 전인민적방위체계를 확고히 수립하시고 보이지 않은 요새인 반유격구들로 그를 튼튼히 둘러쌈으로서 유격근거지를 그 어떤 적들도 감히 뚫고 들어올수 없는 철벽의 요새로 전변시키시였다.

유격근거지내 전체 인민들을 무장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유격대는 물론 근거지내 아동단원들로부터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무장하고 근거지의 모든 골짜기와 벼랑마다에 방위시설을 꾸림으로써 언제 어데서나 싸울수 있게 요새화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적들이 비록 근거지를 포위하고 《토벌》을 들이대였으나 사실상 전인민적인 포위망속에 빠지였으며 막대한 희생을 내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완전유격구에 발을 들여 놓을수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천재적인 유격전술을 창조

일제는 오랜기간에 걸치는 《준비》밑에 유격활동에 불리한 시기인 겨울, 1933년 12월에 유격근거지들에 대한 《동기대토벌작전》을 일시에 시작하였다.

《동기대토벌작전》에 앞서 일제 침략자들은 유격근거지를 정치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인민들과의 련계를 끊기 위하여 중세기적인 《보갑제도》와 《집단부락》정책을 실시하고 《초토화작전》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일본군, 헌병대, 위만군, 위만경찰대는 물론 열하와 북지에서 전투경험을 쌓았다는 소위 《정예》부대들과 라남 19사단까지 들이밀었으며 비행기와 포, 박격포 등 현대적전투수단들을 동원하였다.

소왕청유격근거지에만도 5천여명의 병력을 쓸어넣었다. 적들은 이른바 《위공작전》으로 유격근거지를 장기간 포위하고 3개방향으로부터 동시에 공격하였다. 놈들은 비행기와 박격포의 엄호하에 일시에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적아간의 력량을 대비조차할수 없는 소왕청방어전투가 시작되였다.

조선혁명의 운명과 근거지내 인민들의 생사존망의 위기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뿐이시다.

그이께서는 적들의 작전적기도와 적아의 형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이 전투의 확고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천재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셨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체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대량의 적을 소멸할데 대한 유격전의 기본원칙에 립각하시여 집중된 적은 분산시켜 각개 소멸하고 분산된 적은 집중하여 소멸하는 새로운 유격전술을 창조하심으로써 부닥친 난관들을 주동적으로 극복타개하면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투의 발전형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우선 근거지주변의 험악한 지세를 리용하여 대부대로 밀려드는 적들에게 정면의 불의타격과 익측타격, 배후에서의 불의타격을 가하여 그 기세를 꺾어버리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와 근거지내 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휘밑에 소왕청유격근거지의 관문인 뾰족산과 마반산계선에서 정면, 익측, 배후에서의 불의타격을 들이대여 여러차례의 공격시도를 그때마다 문질러 놓았다.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이 일단 물러갔다가 다시 공격하리라는것을 예견하시고 이번에는 인민들을 안전한 지대에 피신시키시는 한편 놈들을 깊은 골짜기에 끌어들여 집중된 적을 최대한으로 분산시켜 유리한 계선에서 각개 격파할 전술적방침을 세우셨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낮에 적들을 대리수구골에 꾀여들여 골짜기와 고지마다에서 매복전을 전개하였으며 밤에는 습격조를 파견하여 적들이 집결되여있는 숙영지들을 습격하였다. 그리하여 적들은 낮에도, 밤에도 연방 얻어맞았다.

적들은 심대한 손실을 입었으나 량적기술적우세를 믿고 력량을 계속 증강하였다.

이때에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 약점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전투의 주도권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대담하고 령활한 반공격으로 전투의 판국을 결정적으로 전환시킬 새로운 전술적방침을 제시하셨다.

…수십배나 되는 적의 정예부대와 정면충돌하는것은 적아간의 력량대비로 보아서나 유격전술상 승산이 없는 모험행동인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공격태세로 달려드는 적들에 대하여 좁은 지역에 앉아서 방어전으로만 대하는 것은 도리여 적의 기대에 맞추어 주는것으로서 적에게는 유리하고 아군에게는 극히 불리한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아군의 력량을 두대로 나누어서 행동해야 하겠다.

한대는 이곳에 남아서 활동하고 다른 한대는 적들의 통치구역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지금 적들은 동만 각 현의 유격근거지를 동시적으로 대거침공하기 위하여 심지어 경찰과 자위단까지도 대부분 유격근거지《토벌》작전에 동원시켰으므로 사실상 적들의 후방은 텅 빈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적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유격대가 근거지를 떠나서 적

들의 후방으로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지 못할것이다.

이러한 때에 대담하고 민첩하게 적군 후방에서 적들의 병실과 자위단, 경찰서 등을 습격하여 놈들에게 불의타격을 주며, 놈들의 군수품창고와 공급기관 등을 공격하거나 군수물자수송차를 매복습격함으로써 놈들에게 먹을것과 입을것이 공급되지못하게 하는 한편 아군의 군수품을 보충하며 적들이 그 어떤 곳에서도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만주국》괴뢰군과 일본군에게 선전삐라를 광범히 살포하여 적군병사대중을 동요시키며 계속 부단한 배후공격전으로 적들로 하여금 유격근거지를 공격하고있는 자기 병력을 부득불 철수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유격근거지내에 남아있는 부대들도 대량적으로 공격해오는 적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여러개의 소부대를 편성하여 낮에는 유격근거지내의 인민들을 각처에 분산 은신시켜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야간에는 적들의 숙영지 등을 부단히 기습공격하여 적을 섬멸하여야 한다.

이렇게 장기적이고 령활성있는 전술과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써 적들에게 계속 패배와 죽음을 주고 아군주력과 유격근거지인민들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대를 2개 부대로 재편성하시고 1개 부대는 근거지에 남아서 기동적인 유인매복전술로 근거지를 방어하고 밤에는 기습전을 전개하면서 삐라, 선전물들을 뿌려 적군와해공작을 진행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몸소 1개 부대를 친솔하시고 1934년 1월초에 포위진을 뚫고 대담하게 적 후방에 진출하시여 량수천자(은성대안), 북봉오동, 사동 등지의 적소굴들과 창고, 목재소, 군수물자수송기재들을 련속적으로 들이치셨다.

조선인민들이 항상 흠모하여 마지않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을들을 해방시킨 다음 그곳 인민들에게 유격근거지는 《소멸》되지 않았으며 유격대는 적들을 계속 족쳐 승리하고있으며 전체 인민들이 반일전선에 더욱 용감히 일떠설것을 호소하시는 정치선전사업을 강화하시였다.

인민들은 그이를 직접 뵈옵고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진채 식량과 피복을 지고 유격근거지를 찾아오는 한편 적들은 생각밖의 타격을 받고 사기가 떨어졌으며 일부 병력을 철수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때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대를 자피거우쪽으로 우회시켜 적의 후방중심지며 군사요충지인 왕청(대두천)시가를 불의에 습격하여 적 병영과 경찰서들을 습격함으로써 무너져가는 적의 형세에 다시는 일어설수 없는 최후 강타를 안겼다.

왕청시가에 대한 공격은 소왕청유격근거지방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지은 전투이다. 련속 뒤통수를 얻어맞고 수습할수 없는 혼란과 절망에 빠진 적들은 황급히 도주하지 않을수 없었다.

소왕청유격근거지방어전투의 승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새로 창조하신 천재적인 전략전술의 빛나는 승리이다. 매개 전투행정에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을 최대한으로 분산시키고 그것을 령활무쌍하게 타격하는 전술적원칙들은 그후 항일무장투쟁전행정에서 적용된 전술적초석으로, 지침으로 되였다.

수령을 목숨으로 지켜 싸운 일당백의 영웅들

항일유격대원들이 현대적무기로 무장한 5천여명의 적과 40여일간 싸운 소왕청유격근거지방어전투, 이것은 참으로 치렬한 대전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이 20일간이나 적들의 대병력을 대상하여 가렬한 전투를 계속하고나니 소왕청유격근거지에는 집도, 식량도, 나무도, 풀도 모든것이 다 불타버렸다.

그러나 이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항일유격대와 근거지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같이 뭉쳐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였으며 그이께서 맡겨주시는 혁명초소를 끝까지 지켜 나갔다.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며 그이께서 제시하시는 로선과 방침,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는 길만이 놈들의 침공을 격퇴하고 유격근거지를 사수하는 유일한 길임을 잘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이께서 맡겨주시는 혁명의 초소를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굳건히 지켰으며 그이의 명령과 지시라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쳤다.

《13련발》을 포함한 11명의 유격대원들의 영웅적위훈을 통하여 유격대원들이 근거지를 지켜 어떻게 싸웠는가를 잘 알고있다.

실로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이께서 주시는 명령과 지시를 어김없이 관철하기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웠기 때문에 모두가 일당백의 영웅으로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줄수 있었다.

유격근거지내 인민들도 비발치는 적탄속을 뚫고 항일유격대가 싸우는 고지우에 탄알과 식량을 날랐으며 무너진 전호와 사격호를 손질하였으며 바위돌들을 굴리면서 기여드는 적들을 물리쳤다. 그들도 오직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키려는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근거지를 사수하는 준엄한 전투의 나날에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진실로 한마음 한뜻이 되여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어김없이 관철하여 싸웠기때문에 모두가 일당백의 영웅으로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줄수 있었다.

아직 그 누구나 겪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시련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이 수령의 주위에 하나같이 뭉쳐 적들을 무자비하게 족친 그 힘과 용기는 어데서 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혁명을 기어코 완수하려는 불타는 투지와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무한히 충직하며 그이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킨데 있다.

이들은 바로 일제와 지주,자본가의 착취와 억압에 못이겨 정든 고향을 떠나 두만강을 건너온 조선사람들이며 일제의 야수적인 《토벌》과 학살만행에 부모처자를 잃고 왜놈들에게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며 그이께서 추켜드신 항일무장투쟁봉화의 빛을 따라 유격근거지에 찾아온 사람들이였다.

이들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유격근거지생활을 통하여 처음으로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누리였으며 토지도 무상으로 받았으며 마음껏 배우며 힘껏 일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진정 꿈같은 세상이였다. 이들은 난생 처음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의 품에 안겨 새로운 생활을 누리였다.

비록 근거지의 생활에서 어렵고 복잡한것이 적지 않았으나 그이께서는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생활의 구석까지 돌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은 홑것으로 춥게 지내시면서도 어린이들에게는 뜨뜻하게 배려하시였으며 자신께 보내온 솜옷과 신발을 로인들에게 돌려주시였다.

그러기에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께 모든것을 의탁하고 그이가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키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할 혁명적각오밑에 원쑤들과의 싸움에 용감히 일어섰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지휘하신 소왕청유격근거지방어전투승리의 력사적의의

적들의 부단한 포위공격속에서 소왕청유격근거지를 4~5년간 고수한 빛나는 투쟁력사는 우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혁명적로선과 방침, 그이의 천재적인 전략전술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 력사적승리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탁월한 령도하에 필승의 신념을 안고 그이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싸울 때 그 어떤 간악한 원쑤들의 침공도 짓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데 큰 의의가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함에 있어서 철저히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립각하시여 유격근거지의 창설과 그의 공고화, 항일유격대의 창건과 그의 전략전술을 창조하심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이 력사적인 승리는 또한 일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히 깨뜨려버리고 놈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줌으로써 앞으로의 반일혁명투쟁에서 일대 고조의 전망을 열어놓은데 그 의의가 있다.

사실상 유격근거지를 고수한 결과 혁명력량을 보존육성할수 있었으며 앞으로 무장투쟁을 더 광활한 지역에 확대하여 적극적공세에로 이행할수 있는 준비를 튼튼히 갖추게 되었다.

유격근거지방어전투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또한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그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방도를 제시해주고 그 빛나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하였다.

국제적규모에서 혁명력량을 단합시킬데 대한 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로선

＝동녕현성진공전투 35주년을 맞이하여＝

조선인민들은 1968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통일전선의 위대한 생활력을 과시한 동녕현성진공전투 (1933년 9월 6일) 35주년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동녕현성진공전투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지휘하에 항일유격대가 처음으로 린접국가의 무장한 민족주의세력들과 련합하여 아세아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인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줌으로써 국제적규모에서 처음으로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한 력사적인 전투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동녕현성진공전투를 통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서 반제공동전선운동의 선구자적모범을 훌륭하게 보여주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그이의 지도하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귀중한 업적에 대하여 드높은 민족적자부심과 혁명적긍지감을 가지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1930년대초에 반제통일전선로선을 제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1930년대초에 력사상 처음으로 반제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몸소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반제통일전선로선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발전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로동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초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들이 공동의 적인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는 투쟁에 있어서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의 실현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비단 반일부대뿐만아니라 중국의 광범한 인민대중들과의 공동전선을 확대강화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중요한 관건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1930년봄 길림감옥에서 나오신 이후 지하혁명투쟁을 벌리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을 제시하시면서 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식민지반봉건적사회경제관계와 계급력량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민족의 모든 반일력량을 일제타도에로 동원할데 대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천명하시면서 공동의 적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웃나라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과의 반제통일전선을 실현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반제통일전선로선은 국제적규모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광범한 반제력량을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는 공통한 목적에 최대한으로 묶어세워 혁명력량을 튼튼히 편성할데 대한 가장 정확한 반제혁명로선이며 반제력량의 단합된 힘으로서 공동의 원쑤 일제를 때려눕히기 위한 전략적인 방침이다.

당시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이였을뿐만아니라 전세계 반제반파쑈투쟁의 한 고리였으며 특히 아세아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인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이였다.

이미 조선을 침략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31년 9.18사변을 계기로 만주를 강점하고 아세아제패에로 줄달음쳐 나감으로써 사실상 아세아인민들의 공동의 원쑤로 나섰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조중인민의 악독한 원쑤로 되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침략은 국제적범위에서 그를 반대하는 로동계급과 식민지나라 혁명적인민들의 리해관계의 공통성을 가져왔다. 더우기 조중인민은 일제를 타도해야만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이룩할수 있었다. 이것은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할수있는 객관적인 가능성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로부터 출발하여 비단 이웃나라의 공산주의자들뿐만아니라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이웃나라의 광범한 반일력량과도 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그 누구도 일찌기 밝히지 못한 새롭고 독창적인 방침이였다.

그이께서 처음으로 밝혀주신 반제공동전선로선은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에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주타격방향의 옳은 선정과 혁명력량의 옳은 편성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신것이다.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맑스-레닌주의전략에서 주타격방향을 예비군전취를 방해하는 중간세력을 고립시키는데로 돌려왔다.

그러나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자본의 공세가 격화되고 이에 따라 국제혁명력량을 강력히 꾸려야 그의 공세를 성과적으로 격파할

수 있다는 새로운 력사적조건과 실제상 광범한 반제력량을 묶어세울수 있는 우리 혁명의 특수한 새 력사적조건을 고려하시여 이웃나라의 공산주의자들뿐만아니라 여기에 무장한 민족주의세력들까지 통일전선에 망라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혁명력량편성계획을 제시하시였다.

당시에 조중인민의 반일력량을 묶어세움에 있어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일제의 만주강점을 계기로 중국의 구동북군내에서 《구국군》, 《의용군》,《자위군》 등의 각이한 이름을 달고 《항일구국》의 기치하에 일어선 불철저한 반일부대와의 관계였다.

중국의 반일부대는 인원수와 장비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무장력량이였으나 상층이 착취계급의 출신들이였으므로 본질상 착취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부르죠아 민족주의군대였다.

그러나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주공방향의 옳은 선정과 혁명력량편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적아구분의 기준을 제국주의에 대한 태도 즉 제국주의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규정하여야 한다는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반일부대가 비록 철저하지 못한 반일력량이지만 그들이 반일의 기치를 들고나온것만큼 손잡고 함께 싸워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원칙까지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항일무장투쟁의 첫시기부터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국제적혁명력량과 단합하는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하시였다.

이것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과의 호상관계,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과 객관적요인에 관한 가장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철저하게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립장이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항일유격대를 확대강화할데 대하여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반제통일전선을 확대강화하는 원칙을 견지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함에 있어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결합시키는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930년대초에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이웃나라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과의 단합을 강화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립장을 견지하시였다.

무장한 이웃나라의 민족주의세력인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도 로동자, 농민 출신인 병사들과의 하층통일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층과의 통일을 유기적으로 배합할것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반일부대상층이 가지고있는 이중성에 비추어 그들의 반일적요소는 적극 조장시켜 단결하며 그들의 동요성과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투쟁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하면서 투쟁하는 원칙을 견지하시였다.

이와함께 통일전선을 낮은 형태로부터 높은 형태로, 부분적련합으로부터 전면적련합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전술적원칙을 밝히심으로써 모든 반제력량을 최대한으로 단합시키고 튼튼히 꾸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한몸을 돌보시지 않고 반제통일전선을 빛나게 실현

일찌기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던 시기에 안도일대에 있는 반일부대들속에 들어가시여 반일부대들을 반제사상으로 각성시켜 항일무장투쟁의 길로 이끄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에 대한 일제의 민족리간정책, 종파분자들과 좌우경기회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과 민족배타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물리치면서 반제통일전선을 실현하는 길에 들어서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지도하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일부대들을 항일투쟁에 묶어세우는 날이면 자기들이 항일유격대와도 싸우고 반일부대들과도 싸움으로써 자체의 력량이 해쳐질것을 두려워하면서 조중인민들의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고 책동하였다.

1931년 7월 1일에 만보산에서 중국농민들과 조선농민들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고 중국농민들을 무근거하게 마구 때리고 잡아가는 연극을 통하여 중국인민의 반일감정을 조선사람들에게 돌리는 간교한 민족분렬정책을 썼다.

그후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사람을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만주를 강점하였을뿐만아니라 《조선사람은 일본의 앞잡이》라고 악선전하는 등으로 중국인민들의 민족적감정을 더욱 자극하였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중인민의 련합을 《파괴》하는데서 민족적구성을 달리하는 무장력인 항일유격대와 반일부대들 사이에 리간을 조성하는데 《예봉》을 돌리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좌경기회주의자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통일전선로선을 외곡하고 《구국군병사들로 하여금 자기 두령을 죽이고 반변해 나오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반일부대들이 항일유격대에 엇서게 만들려고 날치였다.

원래 착취계급을 대표하는 반일부대상층은 반일립장이 철저하지 못한데다가 일제와 좌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에 넘어가 일제와 싸우는것을 제쳐놓고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싸우려고 하였다.

조성된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구국

군을 적들에게 빼앗길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유격대내에서 혁명에 충실하고 중국어에 능숙하며 지혜가 있는 당원들을 선발하여 구국군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사업에 파견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반일부대공작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같은 사상을 가지고 혁명의 한길에서 싸우는 동지들의 결함을 고쳐주는것도 힘든 일인데 하물며 반일부대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한다는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나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을 쟁취하여야 하며 또 할수 있는것이다. 그들은 거의 모두가 헐벗고 굶주리는 무산자의 아들이기때문에 계급적으로 눈을 뜨게 하고 각성시킨다면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갈 길을 똑똑히 알고 우리를 따라 올것이다.…

구국군에 파견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을 받들고 유격대의 신분을 감추고 병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부모형제들의 처참한 처지와 일제침략자들의 만행에 대한 자료로 그들을 교양하여 각성시켜 반일대오에 튼튼히 묶어세웠다.

그러나 많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생명까지 바치며 공작하였으나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하는 투쟁의 길에는 좌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였다.

이러한 때에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라자구시내에 있는 오의성부대로 떠나실것을 결심하시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현재 항일구국군은 정치적락후성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반일투쟁을 리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살해까지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과 접촉하여 일제의 교활한 민족리간정책을 폭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일제야말로 조중인민의 극악한 공동의 원쑤라는것을 잘 리해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자신의 행동과 실지 투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산모범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우리를 따라올것이며 우리의 투쟁을 본받아 일제와 잘 싸우게 될것이다.

그리고 인민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들이 옳은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우리가 인내성있게 설복교양한다면 그들의 횡포한 략탈적인 경향도 고쳐지게 될것이다.

항일구국군과의 통일전선은 능히 가능하며 또 해야 할 혁명과업인데 곤난이 있다고 하여 손을 뗀다면 이것은 진정한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조성되였던 험악한 환경속에서 몸소 위험을 무릅쓰시고 구국군 오의성과 만나 담판하시였는데 그때의 정형에 대하여 동녕현성진공전투가 있은 직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반일부대들과의 공동작전을 실현하는것은 물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혁명과업이며 또 해결할수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심중히 토의한 끝에 내가 직접 가게 되였습니다. 나는 50여명의 대원을 인솔하고 오의성부대를 찾아가서 우리의 투쟁목적과 통일전선의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머리를 기웃거리기도 하였으나 나중에는 우리 제안의 정당성을 납득하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목적한대로 그들을 끝내 설복시키고 련합작전을 실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지휘하신 동녕현성진공전투의 력사적 의의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부대들과 반제통일전선을 실현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들과 련합하여 일제의 정치군사적요충지인 동녕현성을 칠 전투를 계획하시였다.

쏘만국경일대에 자리잡고있는 동녕현성은 쏘련을 침략할것을 노리는 일제의 중요한 군사적요충지로서 공고한 성으로 싸여있었으며 거기에 500명의 일본군과 2천명의 위만군, 수많은 경찰들이 둥지를 틀고있었다.

동녕현성진공전투는 김일성동지께서 총지휘하시였다. 전투의 주력은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항일유격대가 맡았으며 여기에 사며장, 리삼협, 채사령, 오의성 등의 반일부대들이 참가하였다.

1933년 9월 6일밤 우리의 주력부대는 서산포대로 진공하였으며 채사령, 사며장, 리삼협부대는 서문으로, 그리고 오의성부대는 동문으로 진공하였다. 전투가 시작된지 불과 몇십분도 못되여 시가전으로 들어갔다. 시가전은 3~4시간 계속되였다.

동녕현성밖에 높이 서있는 서산포대는 유리한 릉선에 자리잡고있는데다가 돌로 쌓은 포대인지라 매우 견고하였으며 여러개의 중기관총, 경기관총이 있었다. 특히 포대와 성사이에 전호가 통해져있어서 적들은 여기를 거쳐서 예비병력을 계속 보충하면서 완강히 저항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부 유격대원들을 북쪽으로 우회시켜 적들의 화력을 분산시키고 유격대주력의 결정적인 돌격으로써 마침내 포대를 점령하게 하시였다. 우리 주력부대에 의한 서산포대의 점령은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동녕현성진공전투의 승리는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내놓으신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반제통일전선로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주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앞으로 구국군들을 반일투쟁에 더많이 인입하는가 못하는가하는 문제가 동녕현성진공전투에 크게 달려있음을 옳게 인식하고 더욱 용감하게 더욱 완강하게 싸움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주었으며 이미 맺어진 반제통일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비단 전투에서 뿐만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반일부대들에게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깨닫도록 모범을 보여주고 교양을 주었다.

이 전투에서 중상당한 항일구국군부대장 사려장이 적들에게 체포될 위험이 닥치자 김일성동지의 명령에 따라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제 목숨이 귀한줄만 알고 도망치는 20여명이나 되는 그의 련락병들과 부관들을 대신하여 탄우속을 뚫고 그를 구원하였다.

전투가 끝난 후 사려장은 《김사령(김일성동지—편집자)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며 항일무장투쟁의 탁월한 지도자이다. 김사령이 가르치는 대로만하면 승리할수 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깊은 신뢰와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유격대와 함께 일제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것을 약속하였다.

반일부대들은 동녕현성진공전투에 참가하여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군술과 숭고한 혁명가적 풍모와 덕성그이의 명령을 무조건 접수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고상한 혁명가적풍모를 보고 감동하였으며 항일유격대와 함께 싸워야만 일제를 몰아내고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였으며 반제통일전선로선의 정당성을 인식하였다.

이것은 각지에 있는 반일부대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었으며 반제공동전선을 더욱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되였다. 그후에 대전자, 라자구전투들과 무송현성진공전투 등 대소전투들에서 항일유격대는 반일부대들과 련합하여 계속 승리를 쟁취하였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는 동녕현성진공전투를 통하여 이웃나라의 공산주의자들과 광범한 기본군중은 물론 무장한 민족주의세력까지도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묶어세워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유리한 객관적조건을 마련하시였다.

동녕현성진공전투이후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수량상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우세하였지만 조중인민들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였으며 더우기 항일유격대와 반일부대의 《토벌》에 력량을 분산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지휘하신 동녕현성진공전투는 이처럼 강대한 일제를 분산시키고 피동에 몰아 넣는 계기로 되였으며 조중인민의 단합된 혁명력량으로 일제에게 섬멸적타격을 줌으로써 아세아에서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였던 일제의 패망을 촉진하였다.

그리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항일유격대를 튼튼히 꾸리고 조선혁명력량을 강화한데 기초하여 국제적혁명력량도 확대함으로써 조선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와 조선혁명의 승리에 유리한 객관적조건을 조성하였다.

동녕현성진공전투는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있다.

동녕현성진공전투는 만성적인 경제공황속에 빠진 제국주의나라 독점자본가들이 조성된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국내에서 파쑈독재를 세우고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전쟁에 미쳐 날뛰던 시기에 진행되였으며 파시즘과 새전쟁도발을 반대하여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보다 진공적이며 적극적인 투쟁으로 독점자본과 식민주의아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위력한 투쟁전략과 투쟁형태, 투쟁방도들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던 시기에 조직된 전투이다.

이와 같이 인민전선전략이 아직 확립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일제에 의하여 극동에서 전쟁의 제1발원지가 발생하던 시기에 조직된 동녕현성진공전투는 국제적으로 반제민족통일전선운동과 반제공동전선운동의 선구자적역할을 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동녕현성진공전투를 통하여 파시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공동한 목적에 따라 국제적규모에서 반제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결속하며 반제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공동의 적을 때려 눕힐데 대한 반제공동로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 탁월한 기여를 하시였다.

특히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공동의 원쑤를 격파하기 위하여 이웃나라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물론 무장한 민족주의세력들까지 망라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통일전선로선의 정당성이 실증됨으로써 국제적규모에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강력히 발전시킬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반제투쟁전략의 초석을 이룩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전세계적규모에서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실현하며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모든 반제력량이 미제에게 투쟁의 예봉을 돌리면서 그의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반미투쟁전략을 제시하심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 탁월한 기여를 하고계신다.

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의 동상을 세웠다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교육가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그이의 원대한 뜻을 영원히 이어나가기 위하여 선생님의 동상을 유서깊은 혁명의 사적지 강동군 봉화리의 명신학교 앞마당에 모시였다.

1968년 8월 31일 봉화리에서는 3만여명의 군중들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 인민이 흠모하여 마지 않는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제막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영생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 봉화리에 선생님의 동상을 모신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참가자들은 드높은 혁명적자부심과 민족적긍지감을 가지고 선생님의 영광스러운 혁명적생애와 혁명활동로정을 돌이켜보았다.

김형직선생께서는 1894년 7월 10일 평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 만경대(현재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김보현선생의 맏아드님으로 탄생하시였다.

김형직선생의 가정은 대를 이어 나라를 사랑하며 근면하게 살아온 애국적인 가문이였다.

신생의 조부이신 김응우선생께서는 우리 나라에 기여든 미제의 해적선 《샤만호》를 불살라버리는 애국적인 투쟁에 나서시여 영용하게 싸우시였다.

신생의 부친 김보현선생도 민족의 절개를 지켜 꿋꿋이 싸우신 분으로서 늘《남자는 자라서 나라와 인민을 위한 전쟁마당에 나가 적과 싸우다 죽어야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것이니라!》라고 가르치시였다.

이러한 애국의 혈통을 이어 받으신 김형직선생께서는 어려서부터 강의한 의지와 뛰여난 성품을 지니고계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만경대서당에서 글을 배운 다음 고학으로 평양 숭실중학교를 다니시였으며 학창시절에 애국주의사상이 담기고 반일투쟁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밤을 밝혀 공부하셨다.

그러기에 김형직선생께서는 애국심과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아주 강하셨고 일찌기 학생시절부터 반일독립운동에 나서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평양 숭실중학교를 다니실 때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조직지도하여 학교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시였을뿐만아니라 끝끝내 일제식민지노예교육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관철시키시였다.

그후 김형직선생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혁명활동을 위하여 숭실중학교를 중퇴하시고 만경대에 있는 순화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후대교육사업을 하시면서 반일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셨다.

이때 김형직선생께서는 평양, 강동, 순천, 대동, 성천 일대는 물론 국내와 국외에서 활동하고있던 광범한 반일독립운동자들과 련계를 가지시고 기어코 일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찾고야 말겠다는 불같은 마음으로 가슴을 불태우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독립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넓혀나가시기 위하여 1916년봄에 강동군 고읍면 동삼리 내동부락(오늘의 강동군 봉화리 내동부락)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이미부터 준비해오시던 혁명적인 반일지하조직을 결성하기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하시였다.

당시 조성된 정세와 민족해방운동은 개별적으로 활동하고있는 모든 애국적인 독립운동자들과 인민들의 힘을 한데 뭉치며 그들에게 정확한 투쟁목적과 그 실현방도를 제시해주며 그들을 옳게 지도할수 있는 혁명적인 조직을 결

실하게 요구하였다.

이 절박한 요구는 전생애를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신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의 탁월한 혁명활동과 정확한 지도에 의하여 훌륭히 실현되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1917년 3월 23일에 국내외에 있는 독립운동자들을 중심으로 반일지하조직인 조선국민회를 조직하시였다.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동양에 뻗친 구미세력과 일본세력이 패권을 다투는 기회에 그들을 물리치고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동지결합과 그 준비를 진행하는데 있었다.

조선국민회는 목적과 그 수행방도가 정확하였다. 조선국민회 조직은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기 이전시기에 벌써 반제적이며 민족적인 투쟁과업을 정확히 제기하였다.

조선국민회는 또한 조선의 독립을 외세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일체 혁명력량을 단합하고 힘을 키움으로써 조선사람자신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달성하며 청원이나 개량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인 활동과 군사적활동의 적절한 배합에 의하여 이룩하여야 한다는 방도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당시에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있던 이 시기의 국내외정세를 정확히 분석한데 기초한 가장 정당한 투쟁방침이였다.

조선국민회는 그 규모에서 전국적이며 국외를 망라한 대규모의 정치단체였다. 조선국민회는 몇몇 사람에 국한된 지방적비밀결사였던것이 아니라 국내와 국외를 련결한 광범한 반일비밀결사로서 3.1인민봉기전야의 가장 큰 반일조직이였다.

또한 조선국민회는 그 조직수법이 비상하고 치밀하였다. 조선국민회의 회원으로서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울것을 맹세하는 사람들만을 엄격히 선발하여 가입시켰을 뿐만아니라 동지호상간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회원들의 사상적동요와 조직적리탈은 한시도 허용하지 않았다.

김형직선생께서는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후 평양과 강동 일대를 활동의 중심지로 삼고 동지규합과 조직의 확대, 군사간부와 인재의 양성, 자금조달과 무기구입, 광범한 군중속에 반일애국사상선전 등 수많은 사업을 손수 조직전개하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비합법적반일지하조직인 조선국민회를 조직지도하시는 한편 합법적인 학교계, 비석계 등을 무어 광범한 군중들을 반일조직에 결속시키시였으며 농촌청년들속에서 애국문화정치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광범한 군중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손수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를 비롯한 시와 《정신가》, 《전진가》 등과 같은 노래를 많이 지어 가르치시였다.

조선국민회의 활동이 이렇듯 강화되자 그 지도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발광하던 일제는 1917년 가을 김형직선생을 비롯한 조선국민회 성원들과 이에 관여하였던 100여명을 전국적범위에서 체포하였다. 실로 이 사건은 3.1인민봉기전야에 일제가 감행한 검거사건들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옥중에 계시면서도 출옥후에 전개하실 새로운 혁명활동에 대하여 구상하시면서 앞으로 동지들과 만나기 쉽고 일제의 삼엄한 경계속에서도 혁명활동을 전개하는데 유리한 의학공부를 하시였다.

감옥에서 나오신 김형직선생께서는 적들의 감시가 심한 평남도 일대에서는 그 이상 더 혁명활동을 계속할수 없다는것을 간파하시고 압록강연안국경일대로 활동중심지를 옮기기 위하여 만경대를 떠나시였다.

그때 김형직선생께서는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내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제놈들과 싸워 이겨야겠다.

내가 싸우다가 실패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가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독립시켜야 한다》라는 뜻깊은 말씀을 남기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국내와 동북일대를 련결시키는 지점인 압록강연안을 혁명활동의 중심지로 잡으신후 교편을 잡고 혁명활동을 하시던 만경대와 강동에서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표면상 직업을 의사로 바꾸어 그것도 가시는 곳마다 의원의 간판을 바꾸어가며 혁명활동을 전개하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림강에선 《순천의원》으로, 팔도구에서는 《광제의원》으로, 무송에서는 《무림의원》으로 간판을 바꾸어가지고 인민들을 각성시켜 독립운동자들의 대렬을 급격히 확대하며 혁명운동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하기에 전심전력하시였다.

이때에도 김형직선생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조선의 독립을 조선사람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으시고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를 타승하기 위한 무장준비와 독립운동자양성에 힘쓰시였을 뿐만아니라 그들의 활동을 조직지도하셨다.

김형직선생께서는 우선 림강 조선인학교, 팔도강사회중명학교 팔도구소학교, 무송백산학교들에 있는 고등과를 통하여 후대들과 더불어 독립운동자들을 양성하게 하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또한 조선으로부터 찾아들어오는 애국적청년들을 모아 무장을 갖춘 독립운동자들의 대렬을 꾸리는 사업도 조직하시였다.

이에 대하여 윤씨할머니는 《…나는 그후 외사촌시아우를 따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정복을 입고 총을 멘 독립운동자들을 본 일이 있다.

나는 그날 조선을 독립시킨다고 하던 독립운동자들의 말을 들으며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김형직선생님이 자주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업을 토론하시

면서 무엇인가 신중히 말씀하시군 하더니 바로 그분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해 놓으셨구나하고 감탄을 금치 못하던 일이 지금도 어제일같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회상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김형직선생께서는 독립운동자들에게 직접 공작임무를 주어 그들을 국내에로 파견하시군하였다. 선생께서는 국내로 가는 공작원들에게 자주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혁명동지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규합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동무들이 조선에 가면 애국청년들을 집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유산자들에게서 독립자금을 모으되 그들중 무기나 돈을 가지고 오겠다는 지원자들은 보내라, 그리고 일제의 중요군사지점들에 대한 자료와 함께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일제주구놈들의 명단과 그들의 죄상을 보고하라.…

이와 같이 김형직선생께서는 압록강연안인 중강, 림강, 8도구, 포평일대에 활동의 거점을 잡고 수많은 독립운동자들을 국내에로 파견하시였으며 수많은 청년들을 받아들이여 독립운동자 대렬을 확대하여 나아가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일편단심 나라의 광복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일제의 총검이 숲을 이룬 압록강연안의 전초선에서 정치활동, 무장활동을 결합하는 투쟁을 몸소 조직지휘하시였다.

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께서는 또한 후대교육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싸우신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자이시였다.

선생께서는 반일투쟁의 전기간을 통하여 후대들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원대한 뜻》을 가진 애국자로 키우는데 주력하시였다.

선생님의 원대한 뜻—《지원》의 사상에는 조선에서 태여난 사람이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조국을 반드시 찾아야하며 그러자면 조국을 알아야 하며 애국심과 투지를 키워야하며 신심을 단련하고 높은 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고귀한 뜻이 담겨져있는것이다.

선생께서는 고향마을 만경대의 순화학교와 강동군 봉화리의 명신학교에서 직접 교편을 잡으시고 후대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불굴의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해 노력하시였다.

압록강연안과 동북일대에서도 표면상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후대교육사업에 힘 쓰시였는데 후대들과 더불어 총을 직접 들고 싸울 독립운동자들까지 교육하게 조직지도하시였다.

이처럼 김형직선생께서는 후대들을 교육교양함에 있어서 애국주의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지, 덕, 체 교육을 하시였으며 그에 자신의 정열과 심혈을 쏟아 부으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 조직전개하신 이 애국적인 교육사업은 조선국민회를 비롯한 조선독립운동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구축하고 조선독립운동자대렬을 부단히 확대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인민이 낳은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형직선생께서는 전생애를 조국의 광복과 억압받는 인민들의 해방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시였을 뿐만아니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키우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김일성동지를 어려서부터 열렬한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어린 아드님을 데리고 자주 만경봉에 오르시여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 땅을 지켜 싸운 선조들의 애국적투쟁에 대하여, 조국을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의 죄행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아드님의 어린 가슴에 열렬한 조국애와 일제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을 심어주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아직 어리실때부터 일제침략자와 지주들의 비인간적인 착취상에 대하여, 그놈들과 화해할수 없는 계급적관계에 대하여 깊이 깨우쳐주시였다.

자제분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단순한 애정에 사로 잡히지 않으셨으며 언제나 강의한 의지, 대바른 성품을 키워주시기에 힘 쓰시였다.

선생께서는 팔도구에서 혁명활동을 하실때인데 김일성동지께서 일제군경들의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압록강을 넘나들며 국내동지들과의 통신련락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선생께서는 이렇듯 김일성동지께서 위험을 무릅쓰시고 혁명사업을 돕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기백을 가지도록 교양하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팔도구소학교를 졸업하시자 동북에서 계속 공부시킨다면 조선에서의 일제침략자들의 만행과 겨레의 비참한 처지를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두살의 어린 아드님을 단신으로 천리길인 고향으로 떠나게 하셨다.

이때 김형직선생께서는 어린아드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사람은 우선 제 나라를 잘 알아야 한다. 남의것을 배우는것도 제것을 더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란다. 우리 나라를 잘 알자면 우리 인민들이 겪고있는 비참한 처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는 가야 한다.…

김형직선생께서는 열다섯살 되신 아드님에게 동지들을 규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들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것은 동지를 잘 사귀는 것이며 사람을 잘 볼줄 아는것》이라고 가르쳐주셨다.

김형직선생께서는 아드님을 열렬한 애국심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굳센 의지, 높은 덕성과 풍모를 가진 애국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항상 자신의 실천적활동으로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교양받으신 열렬한 애국주의사상과 또한 아

버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 겪은 간고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어린시절부터 조국광복의 일념을 굳게 다지시였다.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신 김형직선생께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키우시였을뿐만아니라 온 가족과 친척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혁명가로 교양하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강반석녀사를 혁명가의 안해, 혁명가의 어머니, 열렬한 혁명가로 되게 하셨을뿐만아니라 동생 김형권선생을 직접 교양하시여 혁명투쟁에 나서게 하시였다.

열렬한 반일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께서는 고매한 풍모와 덕성을 지니신 분이시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동지들에 대한 깊은 우애, 혁명적원칙성과 일단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혁명적전개력,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불굴의 투쟁정신 등은 김형직선생의 고귀한 혁명적품성들이다.

김형직선생께서는 전생애를 통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우시였으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쳤으며 일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한없이 증오하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동지들을 항상 친형제처럼 뜨거운 심정으로 대하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서는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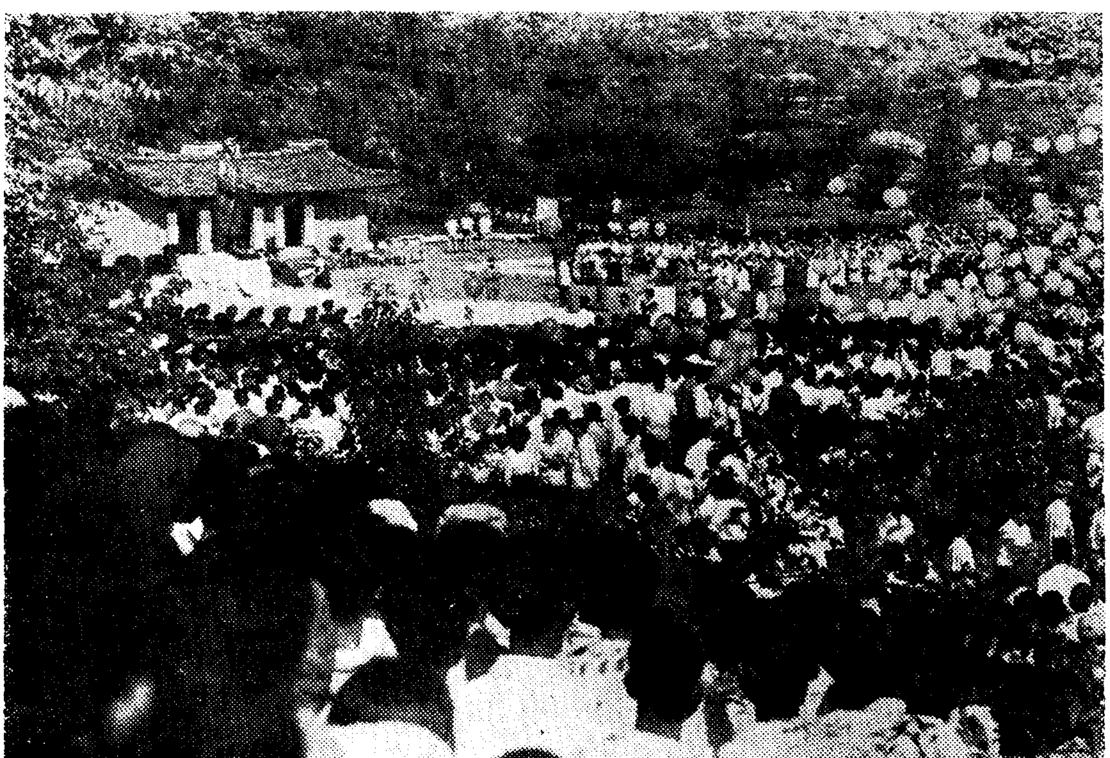
김형직선생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광복하겠다는 혁명의 굳은 신념과 조선사람의 힘으로 독립하겠다는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시였으며 항상 경각성을 높여 혁명의 배신자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하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한가지 사업에 착수하시면서 벌써 다음 사업을 미리 구상하시고 한가지일이 끝나면 다음 일을 계속 밀고나가시였으며 항상 락천적이였고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는 등으로 혁명적락관에 충만되여 완강하게 투쟁하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1926년에 들어서면서 일제경찰놈들로부터 받은 모진 고문과 압록강연안에서 입은 심한 동상의 후과로 병세가 악화되여 중태에 놓이게 되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그처럼 열렬히 싸우시였고 그렇게 바라마지 않으시던 조국광복의 날을 보시지 못한채 애석하게도 1926년 6월 5일에 만 서른두살을 일기로 세상을 너무나도 일찌기 떠나시였다.

일편단심 나라의 독립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치신 김형직선생의 고귀한 혁명업적과 숭고한 혁명적애국사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며 4천만 조선인민의 가슴속에서 영생불멸할것이다.



김형직선생의 동상제막식 (동상 뒤로 보이는 집은 명신학교)

김책, 안길, 강건, 최춘국 ,조정철, 류경수, 김경석동지들의 동상을 세웠다

1968년 4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에 이르기까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였던 혁명투사들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의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불굴의 투쟁을 전개한 혁명투사들이며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전사들인 김책동지, 안길동지, 강건동지, 최춘국동지, 조정철동지, 류경수동지, 김경석동지들의 동상을 그이께서 직접 잡아주신 터전우에 모시였으며 1968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 사이에 동상제막식을 현지에서 성대히 가지였다.

[혁명투사 김책동지] 일찌기 김일성동지께서 조직 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이후 일평생을 오직 그이의 령도를 받들고 혁명의 한길에서 불굴의 투쟁을 전개한 강의한 혁명투사이며 수령의 충직한 전사인 김책동지의 동상제막식이 1968년 8월 29일에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김책동지는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던 1903년 8월 14일 함경북도 학성군 학성면 수자리(현재의 김책시 옥천리)의 빈농가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김책동지의 일가는 일제의 조선강점으로 인하여 조선인민이 참을수 없는 민족적멸시와 폭압에 시달리던 시기 그리운 조국땅



을 등지고 두만강을 건너 동북의 연길지방으로 이사갔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멍에를 쓴 인민에게 있어서는 그 어디를 가나 피눈물나는 민족적학대와 참기 어려운 기아와 빈궁이 있을뿐이였다.

그리하여 김책동지는 어려서부터 지주집목동으로 갖은 천대와 힘겨운 고역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은 김책동지에게 일제침략자들과 당대 착취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하였으며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광복하는 투쟁의 길에 나서게 하였다.

김책동지는 그후 가난과 고역속에서도 밤을 새우면서 맑스-레닌주의서적을 탐독하였으며 중학교에 다닐때부터 청년학생들속에 반제지하청년단체를 조직하고 반일애국사상과 맑스-레닌주의사상을 선전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김책동지는 1927년 9월 반제지하청년단체에서 사업하다가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여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이러해 갇히였으며 출옥후에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지하투쟁을 계속하다가 여러차례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갖은 고문과 고초를 당하였다.

김책동지는 철창속에서도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간직하고 원쑤들과 굴함없이 싸웠다.

김책동지는 감옥에서 나온 이후 우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북만일대에서 항일유격대를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켰다.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그이의 충직한 전사 김책동지는 항일유격대의 우수한 정치군사간부로서 그이께서 제시하시는 혁명로선과 방침을 지침으로 삼고 불요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과 반제공동전선 로선을 높이 받들고 피끓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그이의 령도밑에 북만일대에서 무장투쟁을 급속히 확대발전시켰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나라의 해방과 함께 조국에 돌아온 김책동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직접 모시고 새 민주조선의 창건과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한 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힘을 바쳤다.

김책동지는 해방직후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책동을 분쇄하며 종파주의, 지방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맑스-레닌주의적인 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북조선로동당이 창건된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의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기 위하여 긴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책동지는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정부건설방침대

로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며 일제의 낡은 통치기구를 철저히 마스고 새 형태의 진정한 인민정권기관을 세우는데 헌신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되자 북조선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겸 민족보위국장으로서 인민정권을 공고 발전시키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실현하며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인민군대를 육성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자 내각부수상 겸 산업상의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싸웠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김책동지는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전선사령관으로 사업하면서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전략전술적방침을 받들고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다.

김일성동지를 가까이 모시고 오직 그이께서 가리키신 투쟁의 한길에서 그이께 무한히 충직하던 김책동지는 그처럼 굳게 확신하고 그를 위해 싸워온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와 조국의 통일을 보지 못한채 애석하게도 1951년 1월 31일 49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쳤다.

우리 인민은 김책동지의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도시와 기업소, 학교들에 그의 이름을 달아 김책시, 김책제철소, 김책군관학교, 김책공업대학이라고 부르고있으며 그의 고향에 동상을 세웠다.

1968년 9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책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였다.

〔혁명투사 안길동지〕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의 한 사람인 혁명투사 안길동지의 동상제막식은 청진시에서 1968년 9월 2일에 진행되였다.

안길동지는 1907년 2월 24일 함



경북도 경원군 유덕면 장안리(현재의 경흥군 장안리)의 한 빈농가의 가정에서 태여나 이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다가 일제와 지주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속에서 부모를 따라 중국 길림성 훈춘현으로 이사갔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조선독립의 길을 찾고있던 안길동지에게 일제를 물리치고 조국을 해방하는 성스러운 혁명투쟁의 길에 용감하게 나서게 하였다.

항일무장대오에 들어선 안길동지는 그 첫날부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로선을 가슴깊이 새기고 불요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안길동지는 1934년부터 조선인민혁명군의 우수한 군사정치일군의 한 성원으로서 동북의 광활한 지역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로선과 탁월한 군사전략전술적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1936년 2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천재적이고도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받들고 녕안일대에서 활동할때에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면서 유격대오와 무장투쟁을 크게 확대강화하였으며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줄기차게 해설선전하여 대중의 혁명적기세를 돋구었다.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에서 도래할 조선혁명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주동적으로 맞이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접하였을 때에도 그 어려운 과업을 충실히 실행하였다.

안길동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아무리 복잡하고 곤난한 역경에 처하여도 그이의 교시를 철저히 집행하였으며 그이의 전략전술과 강령적교시들을 모든 전투행동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지휘하는데서 지침으로 삼았으며 그이의 혁명적사업작풍을 본받아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 살며 투쟁하였다.

나라의 해방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온 안길동지는 당의 중요직책에 있으면서 반당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의 온갖 책동을 견결히 반대하고 수령의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고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안길동지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들고 인민정권을 수립하며 공화국북반부에 혁명적민주기지를 축성하고 그것을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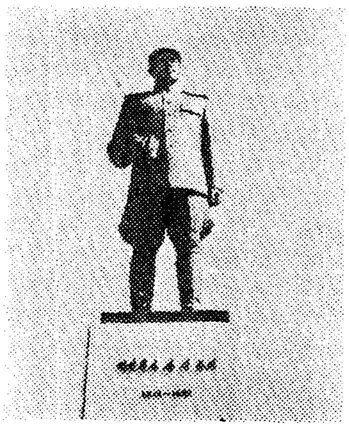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로 창설된 군사정치교육기관들에서 중책을 지니고 활동하면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수많은 군사정치간부들을 키워냈으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의 직접적계승자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정력과 지혜를 쏟아부었다.

안길동지는 1947년 11월 19일에 애석하게도 우리 곁을 떠났으나 당과 수령에 대한 그의 무한한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그의 혁명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1968년 9월 1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

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였으며 그의 업적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하기 위하여 청진시 포항구역 남강3동으로부터 라남구역 풍곡동까지의 거리를 안길거리라 이름짓고 그의 동상을 세웠다.

〔**혁명투사 강건동지**〕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충직한 전사의 한 사람이며 열렬한 공산주의자인 강건동지의 동상제막식이 1968년 9월 4일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강건동지는 조선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한 강의하고 열렬한 공산주의자였으며 재능있는 군사지휘관이였으며 훌륭한 정치일군이였다.

강건동지는 1918년 6월 23일 경상북도 상주군 상주읍의 빈농가의 가정에서 태여나 일제와 지주들의 가혹한 압박과 착취에 시달리다가 열살때 부모를 따라 중국 녕안현으로 이사갔다.

1930년대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은 강건동지의 심장에도 반일혁명투쟁의 불씨를 안겨주었으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투쟁의 한길로 달려나가게 하였다.

강건동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1933년 녕안현 팔도하자에서 열여섯살의 어린 몸으로 영광스러운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였다.

강건동지는 그때부터 그이의 직접적지도하에 수령께 충성을 다하는것을 삶의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투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의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셨을때 강건동지는 녕안현일대에서 무장대오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수령에 대한 강건동지의 충직성은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과 반제공동전신을 높이 받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한데서 빛나게 발현되였다.

강건동지는 1936년 5월에 전국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창건소식과 그 선언, 10대 강령을 커다란 긍지와 감격속에서 접수하고 그것을 유격대와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해설침투시켜 대중을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통일단결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강건동지는 항상 김일성동지의 고결한 혁명가적 품성과 덕성,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 배우기 위하여 남달리 노력함으로써 유격대내에서와 인민들속에서 신망이 높았다.

해방후 강건동지는 김일성동지를 가까이 모시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지지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다.

특히 인민무력건설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로선과 방침에 철저히 립각하여 지휘성원들로부터 매개 전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육성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강건동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적방침을 받들고 장병들과 인민들을 미제격멸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오직 그이께서 가르치신 투쟁의 한길에서 충성을 다하여 싸우던 강건동지는 그처럼 깊이 확신하고 그를 위해 싸워온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와 조국의 통일을 보지 못한채 애석하게도 1950년 9월 8일 고결한 혁명적생애를 마쳤다.

강건동지는 참으로 어떤 역경속에서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보위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것을 제일생명으로, 더 없는 영예로 생각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강건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1950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였다.

〔**혁명투사 최춘국동지**〕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인 혁명투사 최춘국동지의 동상제막식은 함경북도 온성군 고성로동자구에서 1968년 9월 3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1914년 9월 6일 함경북도 온성군 미포면 풍인동(현재의 온성군 풍인로동자구)의 빈농가의 가정에서 태여난 최춘국동지는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여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교양과 육친적인 보살핌을 받으면서 강의한 공산주의투사로, 유능한 군사정치일군으로 자랐다.

최춘국동지는 항일무장투쟁의 초기에 항일유격대의 창건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대로 무장을 획득하고 항일무장대오를 확대강화하며 유격근거지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반일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최춘국동지는 오래동안 수령을 몸 가까이 모시고 그이의 가르치심과 사랑을 받은 혁명전사답게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대원들에게 철저히 침투시키였을뿐만아니라 그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교양육성하는데 모든 힘을 바치였다.

최춘국동지는 대원들에게 항상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사령부는 조선혁명의 심장이요. 우리 인민의 념원을 실현하려면 이 심장을 목숨으로 보위해야하오!》라고 가르쳤다.

뿐만아니라 최춘국동지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는 전투에서 희생적으로 싸웠으며 몸에 심한 중상을 입었을 때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적과 싸워 사령부의 안전을 보위하였다.

최춘국동지는 또한 항상 대원들을 행동으로 가르치라고하신 수령의 말씀을 명심하고 전투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원들을 교양육성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독립려단이 력사적인 남호두회의결정에 따라 압록강연안에로 진출할때에도 최춘국동지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광복회의 웅대한 구상과 유격전술의 원칙으로 대원들을 교양하였다.

최춘국동지는 적들의 대병력이 하루에도 10여차씩 집요하게 달려드는 간고한 환경속에서 난관에 부닥칠때마다 간부회의를 열고 그 해결대책을 강구한 이후 대원들에게 이 행군이 조국의 광복을 위한 그이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영예로운 임무라고 해설하면서 적진 전투의 선두에 서서 지휘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유격전술의 원칙을 일상적으로 연구체득하여온 최춘국동지는 4개월여에 걸친 만여리의 행군과정에서도 그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가며 전투정황에 능숙하게 적용하여 기동적인 소부대분산활동으로써 적의 대부대《토벌》기도를 매번 분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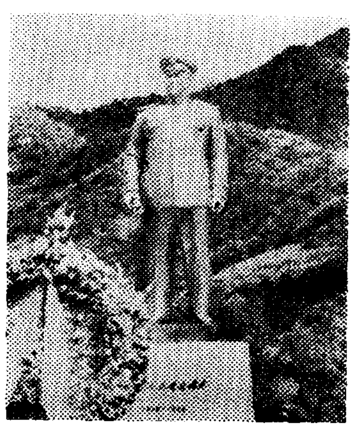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국에 개선한 최춘국동지는 민주조국건설과 특히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고 강화하는 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쳤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무력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투들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싸우다가 1950년 7월 30일에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일생을 당과 수령께 바친 최춘국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1968년 9월 1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은 그의 훌륭한 업적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하기 위하여 그의 고향에 동상을 세웠다.

〔혁명투사 조정철동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로서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싸운 혁명투사 조정철동지의 동상제막식은 1968년 9월 1일 함경남도 덕성군에서 진행되였다.



1916년 11월 27일 함경남도 덕성군 니망지리의 빈농가의 가정에서 태여난 조정철동지는 일제식민지통치자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의 억압과 착취를 받으면서 자라났으며 일찌기 계급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청소년시기에 반일지하단체에 참가한 조정철동지는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여 감옥생활을 하였으며 그후에 김일성동지께서 령솔하시는 항일유격대에 입대하게 되였다.

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사랑과 육친적인 보살핌속에서 항일유격대의 군사정치일군으로 자라났으며 시종일관 그이의 충직한 전사답게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몸바쳐 싸웠다.

조정철동지는 손에 무장을 들고 혁명투쟁에 나선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을 충실하게 관철하였다.

특히 1937년 3월에 소집된 무송현 서강회의에서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보천보와 무산지구에로 진출할데 대한 방침과 력사적인 남패자회의에서 주신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끝까지 충실하게 집행하였다.

조정철동지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라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언제나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모든 대원들을 교양하였을 뿐만아니라 자기의 실천적모범으로서 인민들을 믿고 인민들에 의거하고 인민들을 각성시켜 혁명투쟁에 불러일으켰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정철동지는 로투구시민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 적정을 알아내고 인민들을 전투에 인입함으로써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고 로투구시가에 대한 진공적인 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정치공작원으로 국내깊이에 들어와 길주, 성진, 북청 등지에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인민대중속에 해설침투함으로써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확대하고 인민들에게 조선혁명의 전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안겨주었다.

조정철동지는 해방후에도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새조선건설을 위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의 관철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였다.

조정철동지는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이 《혁명가》로 자처하면서 온갖 책동을 다하던 해방직후의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받들고 우리 당의 창건과 공고발전을 위하여 온갖 힘을 다하여 투쟁하였다.

특히 그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는 사업에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그는 군사교육기관의 책임적위치에서 사업하면서 우수한 군사정치간부들을 육성하는 사업에 몸바쳐 투쟁하였다.

미제무력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정철동지는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동지의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수많은 전투들에 직접 참가하여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그러던중 조정철동지는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보지 못한채 1950년에 애석하게도 장렬한 최후를 마치였다.

1968년 9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당과 인민앞에 불멸의 위훈을 세운 조정철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였다.

우리 인민은 조정철동지의 혁명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저 그의 고향에 동상을 세웠다.

〔혁명투사 류경수동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인 혁명투사 류경수동지의 동상제막식은 1968년 8월 31일 함경남도 신흥군에서 진행되였다.



류경수동지는 1915년 9월 9일 중국 길림성 연길현 8도구의 빈농가의 가정에서 태여나 아홉살때부터 지주집머슴살이를 하였다. 류경수동지는 이 과정에 남달리 일찌기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청소년시기에 이미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혁명투쟁에 참가하였다.

류경수동지는 혁명투쟁의 초기에 공청조직에서 사업하면서 청년들을 그이께서 이끄시는 반일투쟁에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춘황폭동시기에는 《소년선봉대》를 책임지고 선두에서 싸우다가 놈들에게 체포투옥되여 갖은 고문과 악형을 당하였다.

그후 일제의 마수에서 벗어난 류경수동지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항일무장대오에 직접 참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싸웠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류경수동지는 군사지휘관의 한 성원으로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다.

해방후 조국에 개선한 류경수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에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며 인민주권을 세우며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쳤다.

류경수동지는 또한 미제무력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사단장, 군단장, 전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줌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달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재능있는 군사활동가로서 당과 인민에게 복무한 그의 특출한 공훈을 높이 평가하여 1950년 9월 2일 그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였다.

전후시기에도 류경수동지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최신과학과 군사기술로 무장한 일당백의 군대로 튼튼히 꾸리며 미제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류경수동지는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고인민회의대의원으로서 항상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다.

류경수동지는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 싸우다가 애석하게도 1958년 11월 19일에 우리 곁을 떠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육성된 열렬한 공산주의자이며 유능한 군사지휘관이며 그이의 충직한 전사인 혁명투사 류경수동지의 생애는 수령의 참다운 전사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충직하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었다.

〔혁명투사 김경석동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로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혁명투사 김경석동지의 동상제막식은 1968년 8월 31일 김책시에서 진행되였다.

김경석동지는 1910년 11월 1일 함경북도 학성군 학성면 옥천리(현재 김책시 옥천리)의 한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여나 어

렸을때부터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의 온갖 착취와 천대를 받았다.

김경석동지는 일찍부터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여 적 통치구역에 대한 정치공작과 유격근거지내 당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혁명적출판물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인민들과 유격대원들을 교양하였다.

김경석동지의 혁명투쟁중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조선혁명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반《민생단》투쟁시기에 다홍왜회의와 요영구회의에서 제시하신 김일성동지의 방침과 그이의 주체적립장을 견결히 옹호한것이다.

당조직의 지도적자리에 있던 대국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북만원정에 오르신 기회를 리용하여 김경석동지를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해치려고 기도하였다.

이것을 미리 간파한 김경석동지는 놈들의 반혁명적죄행을 백일하에 폭로분쇄하고 전우들과 함께 놈들의 소굴에서 나와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사령부를 찾아 먼 북만으로 떠났다.

김경석동지는 생존시에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마음은 처량하고 비통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김일성동지가 계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든든하였다.



눈이 강산같이 쌓인 밀림속이였지만 우리는 먼 북만길로 김일성동지를 따라가기로 결심하였다.

원쑤들의 경계가 삼엄한 생눈길을 헤치며 북으로 북으로 들어가는 우리 15명의 마음은 한시도 김일성동지의 곁을 떠나본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였다.

그이의 가르침에 무한히 충실한 김경석동지는 그후에 김일성동지의 품에 안겨 항상 총과 등사기를 메고 다니면서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그이의 수많은 로작들을 출판배포하였다.

해방직후 김경석동지는 당내에 기여들었던 각종 기회주의자들과 반당종파분자들이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허물고 혁명대렬을 와해시키려고 도전하여 나섰을 때에도 수령께서 밝혀 주신 방침을 받들고 견결히 싸웠으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옹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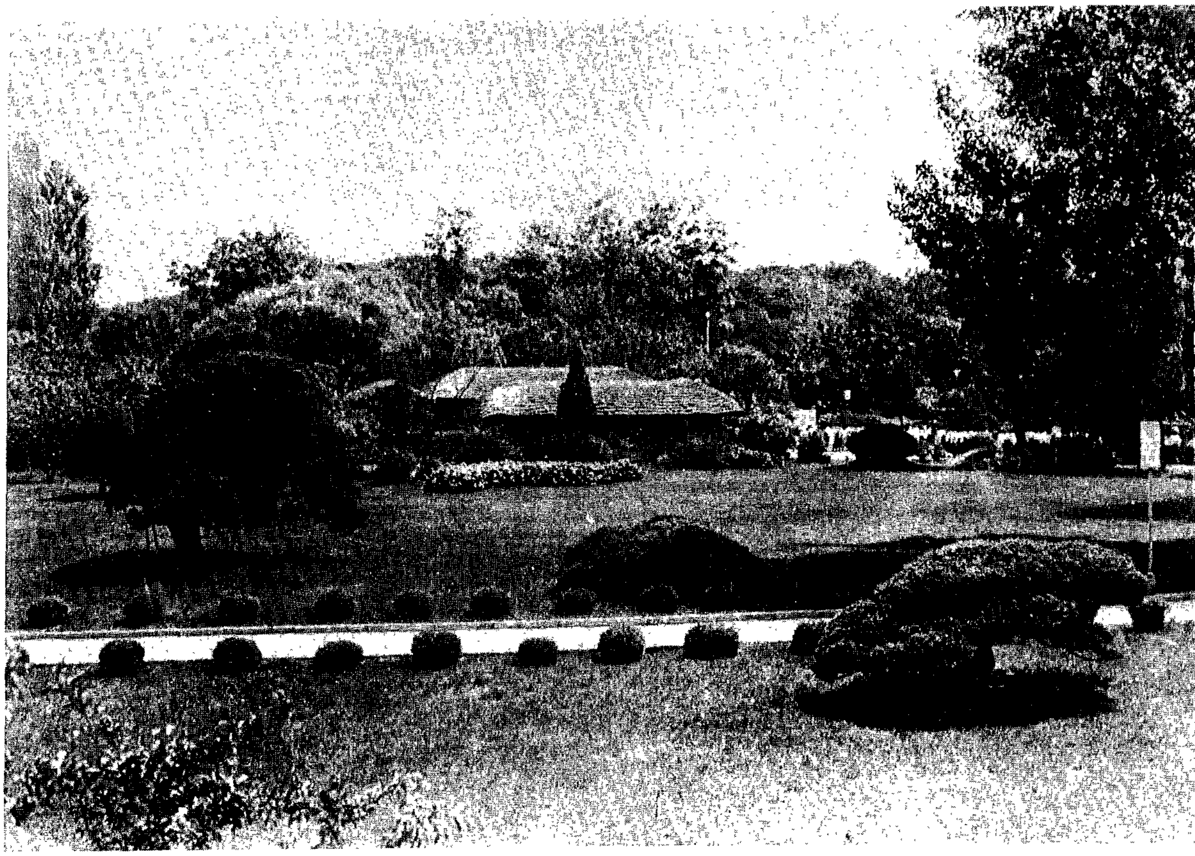
김경석동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민주기지로선을 높이 받들고 자기 초소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인민무력창건과 그의 장성강화를 위한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전술적방침을 받들고 인민군군인들과 구분대들을 영웅적투쟁에로 조직동원함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전후시기에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서, 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부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부장 그리고 그후에는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지니고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와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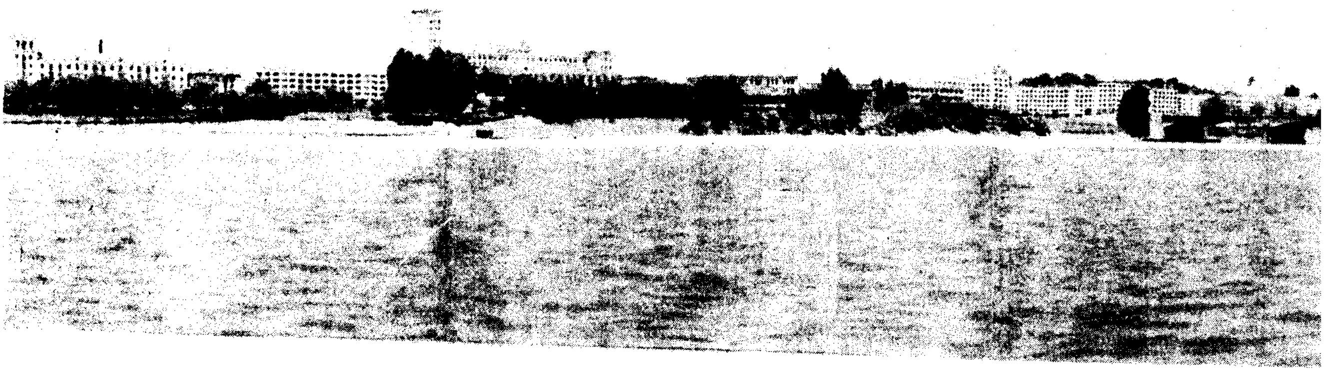
김경석동지는 그처럼 열망하던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완전한 승리를 보지 못한채 1962년 9월 8일에 애석하게도 52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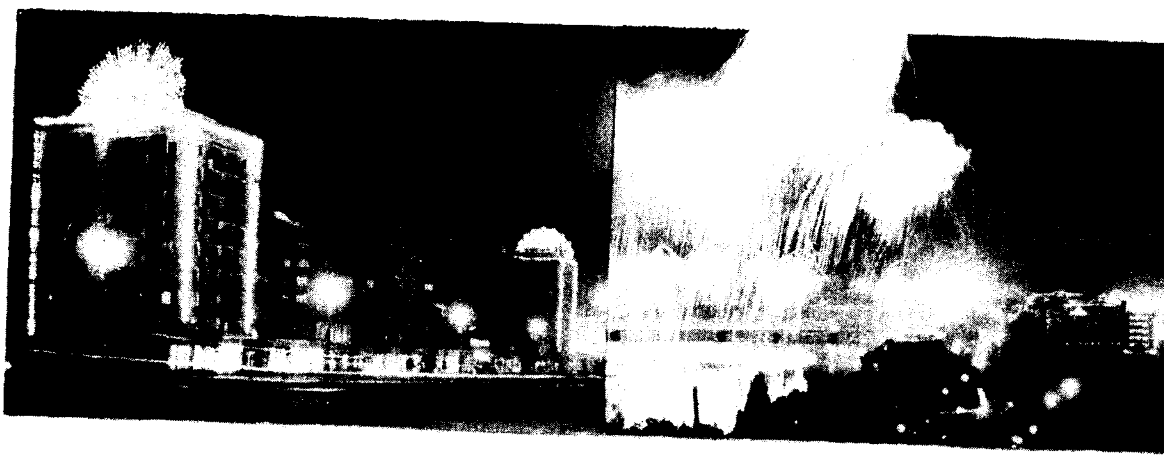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경석동지의 투쟁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1968년 9월 1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였으며 그의 고향에 동상을 세웠다.



…인민의 태양이 솟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

국내서술





…오늘의 혁명의 수도 평양(상)과 밤풍경(중), 미제의 야수적폭격으로 폐허가 된 정전직후의 평양(하)…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공화국기치밑에 20년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인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밑에 조선인민이 새사회, 새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20년이 지나갔다.

공화국기치밑에 20년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힘차게 전개한 영웅적투쟁과 빛나는 승리로 아로새겨진 투쟁의 력사이며 사회적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의 력사이다.

이 기간에 조국산천이 달라지고 사회경제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조되였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과 정신생활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가혹한 착취와 압박, 세기적 락후와 빈궁이 청산되고 이 강토우에 모두가 서로돕고 일하며 행복하게 사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으며 우리 조국은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그리고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4페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세기적인 전변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의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의 빛나는 결실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고 부단히 공고발전되여 온 로정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확고히 주체적 립장을 견지하시여 조선인민을 줄기차게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자랑찬 력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깊고도 억센 뿌리

4천만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정권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정권이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입니다.》 (우와 같은 책, 6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족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암담한 시기에 조국광복의 혁명의 기치를 높이드시고 조선혁명과 조선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시였으며 민족해방의 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일찍부터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진행하여왔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에 의병투쟁, 독립군운동, 애국문화정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였으며 1920년대에는 맑스-레닌주의영향밑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대중적반일투쟁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들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모두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적령도가 없이 분산성을 띠고 진행되였으며 옳은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하였기때문에 결국 승리할수 없었다.

도탄속에 빠진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앞길에 정확한 혁명적강령과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그 기치밑에 인민대중을 투쟁과 승리에로 조직동원할수 있는 진정한 민족의 령도자가 절실히 요구되였으며 인민은 민족의 령도자 혁명의 수령을 애타게 찾았다.

바로 이러한 때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진정한 인민의 수령의 출현, 이것은 반만년의 유구하고도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가장 귀중한 사변이였으며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의 발전에서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의미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선행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인 교

춘과 1920년대말—1930년대초 우리 나라의 정치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을 그의 최고형태인 무장투쟁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민족적독립과 자유와 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광범한 대중적지반에 뿌리박은 강력한 상비적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새로운 로선은 일제의 폭압정책이 절정에 달하여 사소한 합법적활동의 가능성마저 말살된 당시의 형편에서 혁명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였으며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로선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선에 기초하여 이미 항일유격대결성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키우시고 투쟁속에서 검열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육성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하여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으며 튼튼한 대중적지반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이 조직전개됨으로써 암담하였던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를 조국과 민족의 구성으로 우러러 받들고 그이께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으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조선혁명로선과 그 수행을 위한 과학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그것은 특히 남호두 및 동강회의에서와 우리 나라 최초의 맑스-레닌주의적혁명적강령인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전면적으로 정식화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당면한 조선혁명의 성격을 정확히 천명하였으며 조선인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과업으로서 《…**강도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것**》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당시 우리 나라의 사회정치적조건, 혁명의 성격과 대상 및 동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얻은 실천적경험을 총화한데 기초하여 제시된 창조적인 로선으로서 장차 수립될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며 각계각층애국력량이 참가하는 인민정권이여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준 것이다.

주권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혁명에서 기본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근본문제는 일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주권을 찾는 것이였다.

오직 일제와 그 주구 지주, 예속자본가를 타도하고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인민정권을 세워야만 조선인민은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었으며 사회적진보와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무장을 들고 15성상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면서 인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많은 피를 흘렸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이리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깊고도 억센 력사적 뿌리가 이루어졌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또한 조선인민앞에 제기된 기본적인 정치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방도로서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하며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진정하게 싸울수 있는 혁명군대를 조직할것**》을 제기하고 장차 수립될 인민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제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과업들을 천명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 및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밀접히 결합하여 강력히 추진시킬데 대한 정확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로선과 방도들은 주체적립장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독창적인 로선이며 방도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는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광복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이 주인이 되여 전민족의 주체적인 력량에 의하여 끝까지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철저한 반제혁명사상이 관통되여있다. 그것은 또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조선혁명을 전국적판도에서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며 가장 빠른 길로 급속히 촉진시킬수 있게하는 정확한 방침이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혁명의 대상과 동력, 혁명과업과 그 수행방도 등 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방침이 규정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뚜렷한 투쟁목표와 방도를 가지고 반일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설수 있게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은 그이께서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피어린 혁명투쟁을 통하여, 온갖 기회주의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독창적으로 무르익혀오신 조선혁명의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과 방도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은 민족해방의 임무가 전면에 제기되였던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을 무시하고 《사회주의의 즉시 실현》을 주장하면서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쏘베트로선》을 계속 고집하여나섰으며 토지문제에서

도 일제 사적소유의 토지 일반을 몰수하여 공동소유, 공동경작하여야 한다는 등 극좌적 주장을 들고나왔다.

그리하여 혁명투쟁에서 동맹하고 단합시켜야 할 광범한 반일세력을 배척하고 주되는 적인 일제와의 투쟁에 모든 반일적애국력량을 동원하는것을 방해하였으며 혁명운동의 발전에 많은 장애를 조성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의 좌경기회주의적인 그릇된 주장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옳바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시고 해방지구내의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의 통일전선에 토대한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하며 따라서 이 정권은 응당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유격근거지들에서는 인민혁명정부가 조직되고 제반 민주주의적시책들이 실시되였으며 인민들은 력사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새 사회를 내다보면서 인민혁명정부주위에 굳게 결속되여 싸워나갔다.

이처럼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로선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으로서 복잡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그 위대한 생활력이 확증된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로선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였을 뿐만아니라 몸소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온갖 위기를 한몸으로 막아내시면서 조선혁명을 줄기차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였다.

주체적립장에서 정확한 혁명로선을 수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일제를 타도하고 인민정부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유격대와 인민들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길은 참으로 간고한 시련의 로정이였다.

그러나 조선혁명의 앞길에 놓인 난관과 시련들은 김일성동지의 확고한 주체적립장, 사태발전에 대한 과학적인 관단과 예견성, 맑스-레닌주의적원칙성과 강철같은 의지, 혁명적락관주의와 비상한 전개력 그리고 높은 덕성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훌륭히 극복되고 조선혁명은 승리의 한길로 발전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은 혁명투쟁력사에서 류례없는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이였으며 강대한 일제를 쳐부시고 승리한 영광스러운 투쟁이였다.

항일유격대는 《정예》를 자랑하는, 최신식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장비된 일제의 조선주둔군 및 100만의 관동군과 그 주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혁명군중의 원호외에는 그 어떤 국가적후방도, 외부의 지원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적과의 싸움속에서 해결하면서 실로 15성상이라는 장구한 기간에 걸쳐 간고한 투쟁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항일유격대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탁월한 전략전술에 의하여 항상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극복하면서 불사조마냥 영웅적으로 싸워이겼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군사전략전술과 탁월한 령군술의 빛나는 승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투쟁을 전개해나가시면서 군사활동지대의 선정, 유격근거지의 창설 및 공고화, 제기된 임무에 적응한 유격투쟁형식의 선택, 유격대오의 확대강화를 위한 방도 등 무장투쟁의 제반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천재적으로 해결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유격대는 수적으로 우세한 일제침략군의 대병력을 쳐부시고 적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줌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조선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그들을 혁명투쟁에 힘차게 일으켜세울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조직하고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조선인민의 가장 귀중한 재부로 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해놓으셨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에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전략전술과 고매한 덕성, 강의한 의지와 원칙성,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이 구현되여있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사상체계와 투쟁정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투쟁경험과 업적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발전에서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되는 귀중한 재부이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되고 육성된 유격대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수령을 깊이 신뢰하고 그이께 무한히 충실하였다.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는 한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이께서 계시는 사령부를 언제나 목숨으로 보위하였으며 혁명과 수령의 요구라면 불붙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어 맡겨진 혁명임무를 끝까지 관철하였다. 그들은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약화시키려는 사소한 경향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종파주의, 기회주의를 반대하며 그를 극복청산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웠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처음으로 주체가 확립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철저히 구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에서 우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조선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것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충첩되는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나가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어떠한 곤난앞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굳건히 지켰으며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항일유격대원들과 공산주의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다.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는 인민적사업작풍과 혁명적사업방법의 확고한 전통이 이루어졌다.

항일유격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써 조직되였으며 하나의 목적과 사상의지로 굳게 결합된 자각적인 집단이였다. 유격대원들속에서는 깨뜨릴수 없는 원칙적인 단결이 이루어지고 상하일치의 고상한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였으며 또한 인민과의 혈연적련계가 보장되였다.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해 싸우는것은 항일유격대의 본분이며 투쟁의 신조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정신으로 대원들을 가르치시였고 자신이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에 충실한 유격대원들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싸웠고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인민들을 목숨으로 보호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은 대중자신의 사업이며 그들이 자각적으로 동원됨으로써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적군중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각계각층 군중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그들을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각종 반일혁명단체들에 망라하고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켰다.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이는 항일유격대의 힘의 원천이였으며 승리의 중요한 담보였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사업경험이 이루어졌다.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에 기초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결성, 인민정권과 인민무력의 건설, 혁명근거지의 창설, 무장투쟁의 전략전술 등 고귀한 혁명적업적과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경험이 이루어졌다.

특히 여기서 인민정권 수립을 위한 로선문제가 해결되고 인민정권 창건을 위한 혁명적 골간이 육성되고 고귀한 사업경험이 축적된것은 해방후 우리 인민정권 수립의 기초로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밑에 진행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고귀한 재부이며 조선혁명의 귀중한 밑천이며 력사적 뿌리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에 의하여 일제는 패망하고 조국은 해방되였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바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유격대가 시작하고 추진시킨 그 위업의 계승이였으며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익혀오신 김일성동지의 새 조국건설을 위한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로정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중대한 사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가 가져다준 조선인민의 해방과 함께 우리 인민 앞에는 새조국을 창건하여야할 중대한 과업이 나섰다.

당시 우리 나라 형편은 매우 복잡하였으며 혁명의 앞길에는 허다한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함으로써 우리 혁명은 간고성과 복잡성, 장기성을 띠게되였으며 조국앞에는 또다시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은 첫날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100여년전부터의 침략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동세력을 긁어모아가지고 민주주의적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파탄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으며 남조선에서 애국적민주력량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적들의 파괴책동과 함께 좌우경기회주의분자들도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많은 난관을 조성하였다. 혁명의 배신자들, 종파분자들은 조국과 혁명의 운명에는 아랑곳없이 제각기 종파적목적만 추구하면서 혁명력량을 사분오열시키며 대중을 혼란시키려하였으며 또한 국내외에서 모여든 어중이떠중이들은 저마다 《애국자》로 자처하면서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해방을 맞은 조선인민은 혁명적정열로 들끓었으나 그들은 새조국건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혁명은 엄중한 위험에 빠질수 있었다.

오직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체 조선인민의 무한한 존경과 두터운 신뢰를 받고 계시는 우리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혁명의 천

재적인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하여서만 우리 인민은 내외의 원쑤들의 온갖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혼란된 사태를 신속히 바로잡을수 있었으며 처음부터 곧바른 승리의 길로 확고하게 전진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의 침략적 야망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놈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북반부에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할데 대한 위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조국의 통일독립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터전을 튼튼히 마련할수 있게 하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인 1945년 12월에 소집된 조선공산당 북조선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단계에 있어서 우리 당의 정치로선은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련합의 기초우에서 우리 나라에 통일적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하며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주의적독립국가건설을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키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1권 20폐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민주기지로선은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예리하게 간파하시고 작성하신 철저한 반제반미로선이며 조선혁명을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려는 자주적인 혁명로선이다. 그것은 또한 조국의 절반땅만 해방되고 절반땅이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점됨으로써 혁명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수행되지 못하고 미제와 장기적으로 대치하게 된 력사적조건에서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였으며 8.15 해방후 부닥친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우리 혁명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수있게 한 위대한 혁명로선이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모든 사태발전은 민주기지로선을 제때에 제시하시고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기지로 전변시킨것이 얼마나 현명하며 그것이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북반부에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하고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추진시키는 길에 들어선 조선공산주의자들 앞에는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는 문제가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함으로써만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대처하여 북조선에서 혁명을 적극 추진시켜 강력한 혁명기지를 창설할수 있었으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하여 나갈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육성단련된 공산주의핵심을 골간으로 하여 1945년 10월 10일 우리 당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한 우리 당의 창건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기 위하여 그이께서 오랜기간에 걸쳐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준비하여오신 고귀한 결실이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 우리 혁명의 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이였다.

조선의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이때로부터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위대한 전위부대, 맑스-레닌주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 나갈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여 놓으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가 있었기때문에 해방후 조국이 남북으로 량단되고 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이 통일적인 당의 창건을 방해하여 나섰던 그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당은 제때에 창건될수 있었으며 급속히 전투적인 대중적당으로 발전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을 창건하시고 강화하는 한편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그것을 짧은기간내에 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불패의 혁명정권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혁명의 기본문제인 정권문제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시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주권을 가져본적도, 운영해본적도 없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인민주권을 세우는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였다.

종파분자들, 사대주의자들, 교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실정과는 맞지않는 《쏘베트》요 뭐요 하는것을 주장하면서 인민정권의 수립을 방해하여 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과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참다운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구상하시고 마련하신 인민정권수립을 위한 로선과 혁명적골간, 그리고 유격근거지에서의 인민정권건설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고 당면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해방직후 방방곡곡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시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1946년 2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창설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정권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제반봉건적민주력량을 망라하고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정권앞에 나선 기본과업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20개조정강을 실현함으로써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며 북반부에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하는데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9페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민주개혁의 성과와 우리 나라에서의 력사적인 첫 민주선거에 기초하여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강화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북조선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자체의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인민대중속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악명높은 군정을 실시하였으며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 예속자본가 등 반동들을 규합하여 끝내 1948년 5월에 단독선거를 날조하여 괴뢰단독정부를 조작함으로써 남조선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전조선 최고립법기관을 수립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실시할데 대한 결정적인 구국대책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조선인민을 조직동원하시였다.

그리하여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의 창설을 위한 남북총선거가 진행되였으며 그해 9월 9일에는 조선인민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이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의 빛나는 실현으로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이였다. 이때로부터 조선인민은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기치로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주권을 틀어쥔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을뿐만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민족으로부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조국을 건설하여나아가는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습니다. 공화국의 창건으로 조선인민은 쓰라린 망국노의 운명에서 영원히 벗어나 떳떳한 독립국가의 기치밑에 새로운 력사무대에 등장하였으며 오래동안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진출하게 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으로 조선인민은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는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와 같은 책 14~15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민족적자부심을 한없이 높여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광명한 새생활을 창조하며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일떠선 전체 조선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우와 같은 책 15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권문제를 해결하심과 함께 인민들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수행에로 령도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정권을 창설하고 강화하는 투쟁은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과 병행하여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면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시고 그것을 구체화한 20개조정강을 제시하심으로써 해방후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토지개혁과 중요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이 단시일내에 철저히 수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문제의 해결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첫번째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그것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시였다.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 토지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수행에서와 앞으로의 혁명발전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토지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만 농촌에 뿌리박은 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을 없애고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에서 해방하며 그들의 정치적열성을 비상히 높일수 있었으며 나라의 전반적 정치, 문화생활을 민주화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지반을 강화할수 있었으며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질곡에서 해방하고 빨리 발전시켜 민족공업과 전반적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된 우리 나라에서 토지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찾으시기 위하여 그 바쁘신가운데서도 몸소 농촌에 나가시여 농민들의 요구와 농촌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후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1930년대에 유격근거지에서 적용하시였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천명하신 토지개혁의 방침에 토대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토지개혁의 원칙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와 지주, 민족반역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고 그것을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원칙을 제시하심과 함께 농민들의 개인소유로된 땅이 다시는 착취의 수단으로 리용될수 없게 하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이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토지문제를 가장 철저히 해결한 모범이며 나아가서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까지도 예견한 현명한 조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토지개혁의 정확한 방침과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에 의하여 토지개혁은 승리적으로 수행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수천년 계속되여온 봉건적토지소유관계는 불과 20일이란 짧은 기간내에 청산되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식민지통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였던 중요 기간 공업,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대외무역을 국유화하여 그것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되도록 하는것이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이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있는 한 그들에 의한 략탈과 착취를 면할수 없으며 나라의 자주독립과 륭성발전을 바랄수 없다.

오직 외래독점자본가들과 그와 결탁한 예속자본가들의 소유를 청산하고 경제의 기본명맥을 국가가 직접 틀어쥐여야만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정치경제적지반을 없앨수 있었으며 나라의 중요생산수단을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과 전체인민의 복리증진에 리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의 토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산업의 국유화를 가장 철저히 실시하도록 령도하심으로써 일제와 그 주구들의 소유였던 중요산업시설들을 몰수하여 국가가 틀어쥐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해방된지 얼마안되여 벌써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에서 국영경리형태가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게되고 경제를 계획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토지개혁에 뒤이어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였던 모든 산업시설들을 몰수하여 국유화하였습니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한 결과 온갖 사회적불행을 낳게 하던 화근이 산업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없어졌으며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발생되고 민족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밑천이 마련되였습니다.》 (우와 같은 책 11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개혁, 중요산업국유화와 함께 로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의 실시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들을 적극 추진시키심으로써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짧은 기간에 철저히 수행하도록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비상히 앙양된 근로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새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새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문제는 민족간부문제였다.

해방된 우리 인민이 새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국가를 관리하고 경제를 운영할수 있는 자체의 민족간부대렬을 가져야하였다. 그러나 일제식민지통치의 악독한 후과로 하여 우리는 민족간부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민족간부육성의 토대조차 거의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간부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실로 조국의 장래와 민족의 운명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민족간부를 대대적으로 키우며 오랜 인테리들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교양개조하여 그들을 새사회건설에 적극 인입하는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이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청산하고 누구나 다 공부할수 있는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세우는 동시에 고등교육기관을 창설하시고 그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새조국건설에 요구되는 여러부문의 인재를 빠른기간내에 육성할수 있게하시였으며 근로인민출신의 새인테리들을 믿음직하게 육성해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자위적국방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견결히 관철하도록하심으로써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북반부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급속히 강화할수 있게하시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게된 조건에서 우리 혁명의 요구와 혁명발전의 앞날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인민무력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북이 통일되지 않았는데 무슨 군대가 필요한가》라는 종파분자들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1948년 2월 8일 친히 항일유격대의 직접적계승자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우리 인민군대로하여금 단시일내에 일당백의 정규무력으로 자랄수 있게 하시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활동에 의하여 자기의 당, 자기의 정권,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던 조선인민의 절절한 세기적 념원은 해방후 북반부에서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세계지도에서 오래동안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밑에 재생하는 동방의 새별로서 당당하게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년은 영광에 찬 승리의 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후 지난 20년동안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에 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정권은 창건된 첫날부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의 모든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왔습니다.》(우와 같은 책 15페지)

공화국정권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내외의 계급적원쑤들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전개하면서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을 백방으로 추진시켰으며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새 생활을 창조하였다.

공화국정권은 무엇보다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정확하게 행사하여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튼튼히 보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은 조국이 남북으로 분리된 조건에서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하여 진행된것만큼 처음부터 첨예한 계급투쟁을 동반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는 한편 경제분야에서 자본주의적발전을 제한하면서 국영부문의 지배적지위를 보장하고 민족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전쟁전 공화국정권은 이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한걸음한걸음 준비하였으며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없애고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토대를 닦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로 넘어가기 위한 공화국정권의 준비사업과 우리 인민의 평화적로동은 미제와 그앞잡이들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으로 말미암아 일시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게되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간의 전쟁은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가리싸움이였으며 우리 공화국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다.

이 전쟁에서 우리 인민은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으로서 자본주의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국주의와 맞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방대한 기본군사력량은 물론 15개추종국가고용병까지 긁어모아가지고 덤벼들었으며 전쟁력사상 류례가 없는 온갖 야만적인 전쟁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당시 우리 공화국은 아직 청소하였으며 해방된지 5년밖에 안되는 조건에서 경제력도 미약하였다.

그러나 영웅적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추호도 동요하지 않았으며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통같이 뭉쳐 필승의 신념을 안고 불사조와 같이 싸워 끝내 오만무례한 미제원쑤들을 때려눕혔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오직 15성상 수십수백배에 달하는 일제의 강대한 무력을 족치여 승리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조국에 위협이 닥쳐왔던 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정부와 군대의 모든 사업,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 몸에 지니시고 강철의 의지, 위대한 전개력으로써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확고하게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승리였으며 그이의 탁월한 혁명적령도의 결실이였다.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승리의 기초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전행정에 걸쳐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난국이 조성될 때마다 당의 통일과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당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현명한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어려운 고비를 매번 승리적으로 뚫고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지도하신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들과 그이의 일상적인 지도를 통하여 우리 당은 전쟁의 모든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불패의 맑스-레닌주의당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혁명적인민들과 혁명적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그의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있다. 더우기 우리 인민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군사력에서 대비조차 할수 없는 강대한 적과 싸워이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진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죽을지언정 다시는 식민지노예가 되지 않을것을 결심한 우리 인민의 혁명적힘을 굳게 믿으시고 대중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였으며 전쟁의 전기간을 통하여 인민과 군인들을 철저한 반제혁명사상과 고상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시키며 대중을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하

여 거대한 사업을 수행하시였다.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였으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침으로써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는 또한 군사분야에 구현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승리였으며 그이의 령활한 군사예술의 승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매 계단에서 미제의 군사전략의 본질과 약점, 적의 기도와 정세발전의 추이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창조적이고도 령활한 전략전술을 작성하시였으며 인민군대의 작전과 전투를 직접 조직지휘하심으로써 미제침략자들에게 걸음마다 섬멸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게 하시였다. 특히 군사분야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운것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령활한 지휘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전쟁 첫 시기에 적들의 불의의 공격을 물리치고 전전선에 걸쳐 반공격에로 넘어가 련속타격과 높은 기동, 전면공격과 포위섬멸, 매복과 습격 등 모든 전술과 전법을 종합적으로 능숙하게 적용함으로써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을 무자비하게 섬멸하면서 단숨에 멀리 락동강계선까지 진격하는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또한 어려운 후퇴를 조직하시면서 동시에 재진공을 구상하시고 적후에 강력한 제2전선을 펴시여 적의 포위속에서 주력부대들을 몽땅 뽑아내여 급속히 재진공태세를 갖추게 하신 수령의 위대한 혁명적전개력과 현명한 전략적방침으로하여 우리는 《북조선이 다시는 일어설수 없다》고 떠벌린 미제의 잠꼬대를 산산히 짓부시고 재진공의 길에서 승리의 영예를 떨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그이께서 창조하신 갱도전법을 비롯하여 습격과 야간전, 유동포활동, 비행기 및 땅크 사냥군조운동 등 독창적인 전투방법과 전투형식으로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적극적방어시기에 방선의 고지마다에서 수배 수십배 지어 수백배에 달하는 적의 대병력을 상대하면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전선과 적후에서 적을 무리로 쓸어눕히면서 승리할수 있었으며 방선의 모든 고지와 골짜기들을 적들의 《상심령》으로,《함정골》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또한 원쑤격멸의 성스러운 투쟁에로 모든 력량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에 위험한 시련이 닥쳐오자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전투적 구호를 제시하시고 지체없이 전당과 전체 인민을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무력침공으로 인하여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전체 인민들에게 온갖 평화적기분과 안일성을 없애고 무비의 용감성과 대담성을 발휘하여 침략자들을 쳐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혁명의 전취물을 피로써 사수할것을 호소하시였다. 그리고 시급히 나라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며 모든 력량을 전쟁승리에로 총동원하는 동시에 매개단위에서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우고 일체 적대분자들의 파괴암해활동을 분쇄할데 대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조국해방전쟁의 전 기간에 걸쳐 우리 인민의 투쟁강령이였으며 행동의 지침이였다.

경애하는 수령의 부름을 받들고 당 및 국가경제사업이 단시일내에 전시체제로 개편되였으며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전체 인민이 원쑤격멸의 성전에 떨쳐나섰다.

우리의 전투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최고사령관동지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조국의 촌토를 사수하였으며 후방의 로동계급과 농민들은 폭탄이 쏟아지는가운데서도 밤과 낮을 이어 결사적으로 전선을 지원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이러한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에 우리 인민군대는 적의 《기술적우세》와 《수적우세》, 《공중우세》를 짓부시고 전선에서 항상 주도권을 튼튼히 장악할수 있었으며 미제침략자들의 온갖 《공세》를 격파하고 놈들로하여금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게 할수 있었다.

실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과 혁명적군사로선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미제의 《기술만능》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령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였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영예롭게 보위하였으며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보위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는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필승불패라는것을 보여주었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혁명위업을 위하여 손에 무기를 잡고 일떠선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써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히 깨뜨려버렸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우리 인민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패전을 모른다던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함으로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을 비롯한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미제와 싸워 능히 이길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뿐만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하여 조선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 영웅적인민으로 되였으며 미제의 《강대성》과 《불패성》의 신화를 깨뜨려버리고 그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위대한 인민으로 되였으며 반제반미투쟁에서 새로운 단계를 개척한 영예로운 선구자로 되였다.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더욱 장성되고 단련되였으며 우리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세련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진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특히 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매우 고귀한 밑천인 수십만의 혁명적골간들이 새로 자라났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력사적인 승리를 쟁취한 우리 인민앞에는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고 령락된 인민생활을 짧은 시일에 안정 향상시키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할 과업이 나섰다.

우리 나라에서의 전쟁피해는 참으로 혹심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야만적인 무차별폭격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는 재더미로 되였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이 여지없이 파괴되고 인민들의 생활은 참으로 어려웠다. 이러한 형편에서 무엇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복구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을 정도로 할일은 태산같았으며 사정은 너무나도 어려웠다.

여기에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다시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며 정전이 된 첫날부터 새전쟁도발준비에 미쳐 날뛰였다.

전후에 이 난국을 어떻게 뚫고 나가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피로써 지켜낸 우리 공화국의 전도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였다.

바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고 전당과 전체인민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주시였기에 우리는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 짧은 기간에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었다.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는 가렬처절한 전쟁시기 전선과 후방의 모든 일을 직접 맡아보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멀리 앞을 내다보시고 우리 자체의 기계제작공업의 터전을 닦게하시며 전후 경제건설의 웅대한 설계를 구상하여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이 끝난지 불과 한주일만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을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에게 번영과 룡성의 길을 열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전후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할수 있고 인민생활을 빨리 개선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1권 40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제시하신 이 새로운 경제건설로선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옳게 타산한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며 맑스-레닌주의확대재생산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적용한 창조적로선이다. 또한 이 로선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장 철저하게 구현한것으로서 자립적민족경제를 빨리 건설할데 대한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표현한 혁명적인 로선이다.

사실 그때 우리의 환경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지않고서는 파괴된 경공업과 농업을 복구발전시킬수 없었고 령락된 인민생활을 빠른시일내에 추켜세울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 밑천도 마련할수 없었다. 그렇다고하여 중공업에만 힘을 돌리고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뒤로 미룰수도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 인민생활의 향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을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우리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혁명의 근본요구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았으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켰다.

그리하여 당은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실행투쟁에로 전체인민을 조직동원함으로써 공업과 농업생산을 전쟁전보다 훨씬 장성시켰으며 계속 5개년 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 전체인민을 조직동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푸는데 있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전면적으로 세우는것은 5개년계획기간에 하여야 할 사회주의기초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 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22페지)

해방후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전쟁의 준엄한 나날에도 농촌에서 《소겨리반》, 《품

앗이 반》등 협동화의 싹을 소중히 키워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조성된 국내외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포착하시고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철저한 주체적립장에서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개조하는 독창적인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를 매우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완성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협동화와 함께 도시수공업과 자본주의적 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을 사회주의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형태의 협동경리를 통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침을 견지하시여 이 혁명과업도 매우 짧은기간에 완성케하시였다.

농업협동화가 완성된것과 함께 개인수공업과 자본주의 상공업이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된 결과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경리형태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으며 이리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렸으며 수천년동안 계속되여온 착취와 빈궁의 근원이 영원히 없어지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이루어질수 없었다. 전후 모든것이 부족한 형편에서 파괴된 경제를 복구발전시키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 같이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더우기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시에 진행하지않으면 안되였다.

특히 우리 인민은 5개년계획기간 사회주의건설분야에서 제기된 기본과업인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닦고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난관과 시련에 부닥쳤다. 그 때 국제적으로 벌어진 제국주의자들의 대대적인 《반공》소동에 발을 맞추어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은 《북진》나발을 요란스럽게 불어대며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을 사촉하여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침해하려고 미쳐 날뛰였다. 또한 사대주의에 물젖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복잡한 정세의 틈을 타서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당에 도전하여 나섰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이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그이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리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이미 내세운 나라의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 로선과 정책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직 전체 당원들과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의 한결같은 지지에 의거하시여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반동공세와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공격에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는 한편 주되는 힘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언제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을 자랑찬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를 타고 달리자!》라는 전투적 구호를 제기하시고 몸소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더불어 혁명과업수행방도를 의논하시며 대중을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켜 위대한 천리마운동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총적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인민경제 각부문의 구체적 과업과 그 해결방도, 개별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들이 나아갈 방향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인민들을 계속 혁신, 계속 전진에로 고무 하시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내외의 원쑤들의 책동이 심하고 난관과 시련이 중첩되는 가운데서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이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기초건설의 휘황한 전망에 고무되면서 물불을 가리지않고 투쟁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이러한 대고조속에서 발단되였습니다. 천리마운동은 우리 당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앞당기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입니다. 천리마운동은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대중적운동으로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였습니다.》 (우와 같은 책 28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운동을 계속 심화발전시켜 사상혁명과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심으로써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모든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온 나라가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게 하시였을뿐아니라 언제나 중심고리를 포착하시고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강의한 의지로 한 고지를 점령하고는 련이여 다른 새 고지를 점령하도록 우리 인민을 령도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전반을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방대한 5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2년반에, 현물지표로는 4년동안에 넘쳐수행하여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기도와 내외의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공격을 산산히 부서버림으로써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성과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4차대회를 열으시고 5개년계획의 수행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총화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한 7개년계획의 전망과업을 내 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29폐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서 사회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은 승리자의 드높은 긍지와 앞날에 대한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새롭고 광활한 전망을 열어준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였다.

7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행정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됨에 따라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큰 힘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대표자회에서 국내외정세와 우리 혁명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구체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54폐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은 우리 나라 절반땅을 강점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날로 강화되는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우리 당이 내세운 새로운 혁명적로선이며 중요한 전략적방침이다.

당대표자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전례없는 혁명적열정과 로력적앙양에로 들끓게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켰다.

특히 여기에서 룡성과 함흥지구, 성흥의 로동계급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는 당대표자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심화시키며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천리마의 고조를 일으키게한 일대 혁명적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수령께서 지펴주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은 인민경제 모든부문과 온 나라에 료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으며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높은 혁명적열의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모든 난관과 애로, 낡고 보수적인것을 박차고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달리고 또 달리였으며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함으로써 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은 공화국이 창건된후 오늘에 이르는 20년동안에 혁명과 건설을 위한 간고하고도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쳐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나라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실로 지난 20년동안 우리 인민은 사랑하는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를 따라 용감하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을 두고도 하지 못하였던 위대한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였습니다. 공화국의 20년은 영광의 20년이며 투쟁과 승리의 20년이며 창조와 전진의 20년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37폐지)

공화국의 위력은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의 빛나는 결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공화국정권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이며, 공화국이 걸어온 20년간에 이룩한 빛나는 모든 성과와 업적은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

사상에서 주체: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그이께서 40여년간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이룩하신 풍부한 업적과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그리고 세계혁명의 력사적경험에 토대하여 창시하신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219폐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독자적신념과 판단에 의하여 해결해 나가는 철저한 자주적립장과 맑스-레닌주의와 다

론 나라의 경험에 대한 창조적태도, 자신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이다.

실로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혁명의 합법칙성과 맑스-레닌주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철저한 혁명적사상이며 현시대의 혁명적요구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정확하게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사상, 리론, 실천적무기이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혁명정신의 진수를 이루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근본립장을 표현하고 있다.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립장,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다른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켜나가는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립장,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혁명적립장이며 주체사상의 기본요구이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높은 책임성, 자기 인민의 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국제혁명앞에 지닌 자신의 책임에 대한 높은 자각에 기초하고 있다.

주체를 세우고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실현하는데서 기본 장애물은 사대주의이다.

사대주의는 큰 나라를 숭배하고 떠받드는 노예적굴종의 사상으로서 인민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마비시키며 혁명적투지와 승리의 신심을 약화시킬뿐아니라 대국주의를 받아들이며 교조주의를 낳는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는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등 오가잡탕도 큰 나라것이라면 다 끌어들이면서 제각기 대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종파활동을 하며 혁명력량을 분렬시킨다.

따라서 사대주의는 망국의 사상이며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 독소이다.

그러므로 사대주의를 뿌리빼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보장하는 필수적조건이며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대주의를 뿌리빼자면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한다.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위치와 환경,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주체를 세우는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33~534페지)

우리 나라는 지리적 위치와 환경으로 보아 예로부터 대국주의의 압력을 받을수 있었으며 구경은 지난날 사대주의로 인하여 나라를 망쳐먹었다. 이러한 사대주의의 독소는 해방후에도 우리 나라 혁명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끼치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으며 혁명은 복잡성과 간고성을 띠게되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조국은 인공적으로 분렬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하여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 동시에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악랄한 파괴책동과 도발책동을 반대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야 하였으며 전쟁도하고 복구도 하고 건설도 하여야 하였다.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고질로 되여있던 종파주의와 사대주의도 극복하여야 하였으며 대국주의의 압력도 물리쳐야 하였다.

이처럼 복잡하고 간고한 조건에서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그 누구의 경험에 매여달려가지고서는 도대체 문제가 해결될수 없었으며 오직 맑스-레닌주의원칙에 튼튼히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독창적으로 해결하여나가야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던 때로부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시종일관 완강하게 전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가 처한 환경과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주체를 세울데 대한 위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전당과 전체인민을 그의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이끄시였다.

그러나 일부 완고한 사대주의자들, 종파분자들은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면서 계속 우리 당의 창조적인 로선과 정책의 관철을 방해하였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해독성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눈에 띠게 나타났으며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그것은 더는 참을수없는것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55년에 모든 분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으로 강력히 전개하도록 지도하시였다.

1955년 12월 당 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강령적 교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는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사상해독을 청산하고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를 반

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곧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당내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였으며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였으며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최대한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투쟁이였다. 그것은 또한 국제분야에서 대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우리 당의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이 더 잘 관철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일층강화되고 우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이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주체의 확립은 또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 해방을 가져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사상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 일군들의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매우 높아졌으며 그들이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거나 통채로 삼키는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대하며 모든것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체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하려는 혁명가적기풍을 가질수 있게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34페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창조력은 최대한으로 발양되였으며 그것은 위대한 천리마운동을 낳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분야에서 일대 앙양을 가져오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 정치, 경제, 문화와 군사 등 모든분야에서 이룩된 세기적인 전변의 밑바닥에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맥맥히 흐르고 있으며 주체확립을 위한 우리 당의 줄기찬 투쟁이 놓여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튼튼히 서서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였기때문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거둘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34페지)

정치에서 자주: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자기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규정하며 대외관계에서도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행사하는 자주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정치에서 자주, 이것은 독립국가의 기본 징표이며 매개 나라와 민족의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것은 그 나라 당과 정부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는 것은 그 나라 당과 정부가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의하여 주체적으로 해결할 책임적인 사업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매개 나라 내부문제이며 그 누구도 이에 간섭하거나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남에게 내려먹일 권리가 없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없이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혁명발전의 매시기 현명하고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이 제기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결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해방직후 많은 사람들이 조선문제가 그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하여 해결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남만처다보고 있을 때 김일성동지께서는 제때에 미제의 흉악한 침략적야망을 간파하시고 조선혁명을 우리의 주체적력량에 의하여 주동적으로, 자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혁명적민주기지창설로선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및 자위적국방건설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 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민주기지창설로선과 자주, 자립, 자위로선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조선혁명과 조선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게 한 위대한 혁명적로선이였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구현한 독창적인 로선이였으며 미제의 침략책동에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한 철저한 반제적로선이였으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수행하려는 주체적인 로선이였다.

우리 혁명발전의 앞날을 멀리 예견하신 김일성동지의 이 위대한 반제적이며 자주적인 혁명로선으로 하여 우리는 자체의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급속히 꾸릴수 있었으며 그에 의거하여 시종일관 조선혁명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온갖 시련과 풍파를 뚫고 혁명을 진공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었다.

전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파괴된 정전직후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조차 잡을수 없었던 그 준엄한 시기에도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현실적 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누구도 생각조차 못한 대담하고도 독창적인 로선—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

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기술개조에 앞서 경제형태의 개조를 실현할데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과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이 있었기에 우리는 어느것도 뒤로 미룰수 없었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축성과 인민생활의 안정향상문제를 동시에 급속히 해결할수 있었으며 수천년을 두고 내려오던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불과 몇해동안에 훌륭히 끝낼수 있었다.

전후 사회주의혁명이 심화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우리 앞에는 새롭게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특히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이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은 완전히 새로운 과학적 해명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아직 누구도 해답을 주지 못하고 실천적경험도 없는 새롭게 제기되는 많은 원칙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의 길로 확신성있게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 구현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시고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맞게 당,국가 및 경제 기관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사회주의경제를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시였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을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새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것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사회주의경제를 어떻게 관리운영하며 사회주의사회를 어떻게 움직여나갈것인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답을 준것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강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농촌경리의 협동화가 완성된후 농촌문제를 계속 옳게 해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하나이며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실천적경험을 총화하신데 기초하여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협동화후에도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사상을 내놓으시였으며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에 관한 정연한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의 본질과 내용 그 해결원칙과 방도 등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맑스-레닌주의적길을 처음으로 밝히시였으며 로동계급과 농민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심오한 과학적 해답을 주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우리 시대의 빛나는 맑스-레닌주의적문헌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가는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 사회주의사회발전의 동력문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적방향과 그 과정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로동계급과 그의 혁명적당의 령도적역할 등 제반 원칙적인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심오하고 정연한 과학적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관계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건설과정을 깊이 분석하시고 모든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하시여 맑스-레닌주의발전력사상 처음으로 인민 대중의 정치 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 사업과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키며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새로운 혁명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으며 이 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그 구체적인 방도까지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하는것은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 모든 승리와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인민들을 교양개조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47페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물질적요새와 함께 반드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여 참다운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데서 언제나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쟁취하며 또한 오랜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을 혁명가로 키우며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을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힘있게 밀고나가시면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적극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고 전당이 수령의 주위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전투적대오로,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 되였으며 당과 대중의 통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고 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의 가장 귀중한 전취물이며 모든 승리와 성과의 결정적담보이다.

국제무대에서 혁명과 반혁명간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며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이 전쟁도발책동을 발광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제국주의와 전쟁에 어떻게 대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어떻게 건설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는가 못하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로 제기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위대한 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이 사활적인 문제에 가장 혁명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이 로선은 우리 자체의 힘으로 조국과 혁명을 보위하며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구현하고 있으며 래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하더라도 오늘까지는 계속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하며 전쟁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언제나 전쟁에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철저한 혁명적 립장을 반영하고있다.

우리는 이 혁명적로선을 관철하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동시에 제때에 국방력을 철벽같이 강화하였기에 미제국주의자들이 새로운 전쟁도발에 미쳐 날뛰고있는 현조건에서도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되였으며 국방건설에 많은 인적 및 물적자원을 돌리면서도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주동적인 립장을 견지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권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촉진시킴에 있어서도 언제나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내외의 복잡한 정세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조국의 통일을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근본원칙을 천명하시였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방안과 방도들을 거듭 제시하시였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동력과 대상 등 원칙적문제들과 함께 남조선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중요한 전략전술적문제들에 대한 명철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날이갈수록 더욱더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고 그들을 여러가지 형태의 반미구국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권은 대외정책분야에서도 주체의 혁명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인 립장을 견지함으로써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반제투쟁이나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였으며 그 누구든지 우리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유린하거나 모독하는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반미투쟁전략을 비롯하여 세계혁명의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반제반미투쟁전략과 방침들은 오늘 전세계의 혁명적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권은 정치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미제의 온갖 침략책동과 대국주의의 압력을 단호히 분쇄하고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확고히 보장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혁명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들고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강화발전에 이바지할수있었다.

그리하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도 높아지고 그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확대강화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견결한 반제반미적립장과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끊임없이 높아가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33페지)

국제관계분야에서 우리 당의 자주성과 원칙적립장이 관철됨에 따라 우리는 그 어떤 좌우경적편향에도 빠지지않고 로선과 정책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수있었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는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신생독립국가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 인민은 세계의 많은 평화애호인민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있으며 그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우

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흠모하면서 그이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우러러 받들고 있으며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나라를 《천리마의 나라》, 《주체의 조국》으로 부르면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있다.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세계의 수십개 나라 대표들과 5대륙인민들의 대표들이 우리 인민과 함께 우리의 민족적명절을 축하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우리 인민의 성과와 업적을 높이 평가한것은 오늘 우리 나라의 국제적위신이 얼마나 높아졌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간의 친선단결이 얼마나 강화되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경제에서 자립: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나라를 자체의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가진 자립적인 나라로 전변시켰다.

경제에서 자립, 이것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기본 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정치적독립을 보장하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정치적으로도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37페지)

자기의 모든 대내외정책을 자신의 판단과 결심, 자신의 주견과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것은 정치적 자주성의 기본요구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게 되면 남의 눈치를 살피게되며 남의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물리칠수 없다.

나라들 사이에서 경제적압력이란 곧 정치적압력외에 다른것으로 될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남에게 매이게되면 결국 정치적으로도 남에게 매이게된다.

그러므로 민족적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자주성을 공고히할 뿐만아니라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공업, 농업, 운수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함으로써 사회주의법칙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리를 전면적으로 높일수 있는 강력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쌓아야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37~538페지)

전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하고 국가가 소멸될때까지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은 완전한 독립국가로서 존재하고 강화발전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민족국가단위로 건설하게된다. 사회주의를 민족국가단위로 건설하게되는것만큼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도 민족국가단위로 쌓아야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매개 나라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의 다양하고 부단히 장성하는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과 원료, 자재에 의하여 움직일수 있는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튼튼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놓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3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매개 민족국가의 범위에서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단위로 축성되여야만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정확한 균형을 주동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고 근로자들의 복리를 전면적으로 급속히 높일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전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수적요구로 되는 민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권이 견지하고 있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세계혁명발전의 요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 철저한 혁명적경제건설로선이라는 것을 말하여준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위대한 로선으로 하여 아무리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확고한 주견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곧바로 전진할수 있었으며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도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해방전 우리 나라 경제는 락후한 식민지경제로서 기계제작공업이라고는 없었으며 경공업도 보잘것 없었고 농업도 심히 락후하

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는것도 억제하였으며 따라서 우리에게는 기술자들도 거의 없었다.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조국이 량단됨으로써 이러한 락후한 경제는 더욱 기형적인것으로 되였다. 그나마 일제와 미제에 의한 두차례의 혹심한 파괴를 당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하여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고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의 관철에로 전당과 전체인민을 조직동원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그이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였다.

특히 전후 형편은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전후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받들고 추호의 동요없이 악전고투하면서 남만 못지 않게 잘 살기 위하여, 뒤떨어진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짧은 기간에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중공업을 건설할수 있었을뿐만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킬수있게 하였으며 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었으며 공업의 기술적개건을 진행할수 있었다.

우리의 중공업은 전력, 연료, 광석채굴, 야금, 화학, 기계제작 등 기간적공업부문을 다 갖추게 되였으며 자체의 공고한 원료원천에 의거하고 새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중공업으로 전변되였다.

현대적 중공업건설에서 우리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자체의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건설한것이다. 오늘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은 대형 및 정밀기계와 현대적공장의 종합설비를 생산공급하는 단계에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중공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필요되는 기계설비를 거의 모두 자체로 충족시키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중공업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공고히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지로서 더욱 큰 위력을 나타내게 되였으며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에 더 잘 복무하게 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31페지)

대규모 중앙공업과 중소규모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현명한 방침이 정확히 관철되여 인민소비품 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우리는 자체로 생산한 상품으로 인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보장하고있다.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정책에 의하여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가 급속히 확장됨으로써 1967년에 공업생산은 1948년에 비하여 22배로 높아졌으며 그중 기계제작공업의 생산액은 100배로 높아졌다. 그리고 1968년도의 공업생산액은 1967년에비해 15%의 높은 장성을 이룩하였다.

인민경제의 2대부문의 하나인 농촌경리도 당의 정확한 농업정책과 특히는 김일성동지의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였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수리화에 힘을 돌렸으며 특히 협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관개공사와 치산치수 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어떤 가물이나 큰 물에도 끄떡하지 않는 공고한 농업생산토대를 닦아놓았다. 그리하여 최근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불리한 자연기후적조건이 계속되였으나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이를 완전히 이겨낼수 있었다.

농촌경리의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다. 수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 전동기, 화학비료와 농약, 살초제 등이 해마다 농촌에 더 많이 공급된 결과 밭갈이와 김매기, 운반 등 가장 고되고 품이 많이드는 작업이 기술공정으로 전변되였으며 거의 모든 농촌리와 농가들에는 전기가 들어갔다.

농촌경리의 집약화와 다각적발전을 위한 당의 방침에 따라 알곡생산을 위주로하면서 공예작물의 재배, 축산업, 과수업, 잠업등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사회주의 농촌은 공고한 식량 및 원료기지로 전변되여 알곡 생산은 1967년에 해방직후에 비하여 2.7배로 늘어났으며 1968년에는 력사에 없는 만고대풍을 이룩하였다.

이와같이 농촌경리의 급속한 발전으로 식량문제는 이미 해결된지 오래며 상당한 량의 식량예비를 가지게 되였다. 축산물과 과실,남새 등도 주민들에게 더욱 풍족하게 공급할수있게 되였다.

공화국이 창건된후 교육문화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당은 민족기술간부양성사업과 교육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는 방침을 취하였으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원칙을 관철시켰다. 각급 교육체계의 정비확장, 공장대학제도의 창설 등 우리 당이 민족기술간부를 대대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취한 창조적이고 대담한 조치들은 훌륭한 열매를 맺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각급학교들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269만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하고 있다. 특히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새 세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

우며 모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였다.

지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정전직후에 비하여 19배나 되는 42만 5,700여명의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으며 그들에 의하여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이 훌륭히 건설되고 있으며 관리운영되고 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다.

1967년에 인구 한 사람당 국민소득은 1946년에 비하여 9배, 1949년에 비하여는 4.4배 높아졌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일자리를 가지고 마음껏 일하면서 배우며 무상으로 치료를 받으며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국방에서 자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나라를 전체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 통일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기초한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를 가진 자위적인 나라로 전변시켰다.

국방에서 자위, 이것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권의 일관한 방침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임무로부터 출발하는 가장 혁명적인 국방건설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나라 내부력량입니다. 외래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매개 나라의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여있지 않은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혁명투쟁은 승리할수 없습니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자체의 혁명력량을 준비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원조만 바라고있다면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39~540페지)

경제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는 동시에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기본기능의 하나이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과 관련되여 있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사회주의나라들은 전세계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할때까지 제국주의침략세력과 대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게 된다.

제국주의는 전쟁의 근원이며 제국주의의 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한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오직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언제나 준비된 태세에 있어야만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과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과 함께 혁명전쟁과 현대전쟁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정확한 군사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전당과 전체인민을 조직동원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 당의 군사 로선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군대의 간부화, 군대의 현대화, 전체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군사로선의 기본내용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으며 여기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6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현력사적 조건에서 혁명무력건설과 사회주의나라들의 국방건설문제를 가장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새로운 맑스-레닌주의군사로선이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완전히 부합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군사로선이다.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는 우리의 인민군대를 현대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질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비상히 제고하는 기본방침으로된다.

전군간부화방침은 인민군대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모든군인들이 자기에게 부과된 직책상임무를 완전히 수행하게 할뿐아니라 일단 유사시에는 전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케 함으로써 필요할 때에는 우리의 무력을 급속히 확대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전군현대화방침은 우리 인민군대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군사과학과 군사기술로 무장시킴으로서 인민군대로하여금 현대전의 그 어떤 정황과 요구에도 대처하여 원쑤들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게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는 전체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하나의 난공불락의 군사요새로 전변시키는 위력한 방침이다. 이 방침은 바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인민을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연과 후방을 막론하고 전국을 하나의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킴으로써 원쑤들이 우리 나라의 어느 곳에 언제 어떤 형태로 침입하여도 적들을 철저히 격멸소탕할수 있게 한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과 그것을 구현한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언제나 주동적으로 대처하며 자기의 힘으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자체의 힘을 최대한으로 강화하여 민족적임무와 함께 국제적임무도 더 잘 수행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철저한 주체적립장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권은 자위의 원칙에서 해방후 제때에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인민군대를 창건하고 그를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

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조건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나라의 독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방후 첫시기부터 인민무력창설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떠한 국가를 물론하고 자주독립국가는 반드시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국이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기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며 어떠한 원쑤들의 침범도 능히 물리칠수 있는 강력한 인민의 군대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1권 186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하루바삐 자기의 군대를 가진 당당한 독립국가의 민족이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인민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사간부양성에 모든 정열을 기울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45년 11월에 평양학원을 창설하시고 친히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육성된 우수한 혁명간부들을 여기에 파견하시였다. 그리고 1946년 7월에는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창설하시고 여러곳에 훈련소를 설치하여 많은 군사간부를 양성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무력건설을 위한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해방후 제때에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그를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수령에 대한 충직성과 풍부한 투쟁경험, 불타는 조국애, 고상한 혁명정신으로 자체를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함으로써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민군대는 100년의 침략력사를 가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으며 조국과 혁명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세계적규모에서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영명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전후에도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여 미제의 침략책동을 언제나 경각성있게 주시하며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기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특히 미제가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대대적으로 확대한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제때에 국방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심으로써 우리의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불패의 현대적인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하였으며 전체 인민을 무장하고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켰다.

그리하여 우리의 방위력은 우리 나라 령해깊이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한것과 같이 원쑤들의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였으며 미제가 감히 또다시 무모한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놈들을 이 땅에서 영영 소멸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되였다.

세계 《최강》을 자처하던 미제무력침공자들을 타승하고 놈들로 하여금 저들의 침략전쟁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조선인민앞에서 무릎을 꿇게 한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와 전후에도 미제침략자들에게 조선인민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실지행동으로 보여준 일련의 사실들은 우리의 국방력이 얼마나 강대한가를 실증해주고 있다.

우리 나라 국방력의 오늘과 같은 강화발전은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구현으로써 우리 당 자위원칙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 결실이다.

× ×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이것은 실로 우리 인민을 오늘의 승리와 영광에로 인도하였고 우리 인민의 더욱 휘황한 래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기치이다.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혁명리론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에서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날날이 증명되였으며 날이 갈수록 그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당과 혁명의 뿌리에 대하여, 당과 조국에 대하여,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에 대하여 말할수 없을뿐아니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번영하는 장래에 대하여, 우리 인민의 보다 행복한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싸워나갈때 그 어떤 모진 곤난도, 중첩되는 시련도 이겨내고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가져올것이다.

이것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싸워온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에서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깊이 뿌리박힌 움직일수 없는 믿음이며 굳은 의지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 그것을 구현한 우리 당의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을 받들어 지난날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걸음마다 승리한것처럼 앞으로도 백전백승할것이다.

조 선 로 동 당

총비서 김 일 성

조선로동당은 우리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조선혁명을 위한 완전히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정력적으로 전개하시여 당을 창건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1945년 10월 10일 당창건의 위업을 실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 기간에 걸치는 투쟁과 노력의 고귀한 열매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 조선혁명의 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이였습니다. 조선의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이때로부터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힘있는 전위부대, 맑스-레닌주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 나아가게 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286—287페지)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근로대중과의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는 강유력한 대중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철저하게 맑스-레닌주의적혁명적원칙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가장 충실한 사상으로서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수행하는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우리 당 활동의 확고부동한 초석으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조선로동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조직적의사의 유일한 체현자이시며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이시며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의 심장이시며 최고 뇌수이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혁명리론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 조선혁명은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모든 투쟁전선에서 항상 빛나는 승리를 거두어 왔으며 또한 우리 혁명의 앞날에도 빛나는 승리가 담보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당과 혁명의 뿌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우리 당에 대하여, 번영하는 조국에 대하여,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우리 당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게 되였고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 필승불패의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조선혁명의 실천활동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의 온갖 표현들을 반대하며 조선혁명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국제공산주의 및 로동운동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직접적인 계승자이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로하여금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김일성동지를 조직사상적으로, 목숨으로 튼튼히 보위하며,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이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도록 교양한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더욱 부강하고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남북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기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키며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전 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 남반부를 미제침략자들의 강점과 그 주구들의 반동통치로부터 해방하고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교양하며 조선인민과 사회주의 제국가인민들과 모든 나라 근로대중들과의 국제주의적단결을 공고히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독립을 지지성원하는 모든 나라들과 평화애호인민들과의 친선을 강화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국 가 기 관

최고주권기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의 임기는 4년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하며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수 있다.

제1기최고인민회의: 1948년 8월 25일에 남북조선에 걸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 572명으로 구성.

제2기최고인민회의: 1957년 8월 27일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 215명으로 구성.

제3기최고인민회의: 1961년 10월 8일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 383명으로 구성.

현 최고인민회의는 제4기로서 '67년 11월 25일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 457명으로 구성되고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명,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1967년 12월)에서 선거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을 진다.

국가중앙집행기관

【내각】

수상 김일성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며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명령을 공포할수 있다. 공포한 결정 및 명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토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내각은 수상, 제1부수상, 부수상들, 상들, 위원회위원장들과 그외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현 내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여 조직되였다.

지방주권기관

【각급 인민회의】 도,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에 있어서의 지방주권기관은 해당 인민회의이다.

각급 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도인민회의는 4년, 시(구역), 군 및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는 2년의 임기로 선거한다.

도, 시(구역), 군 인민회의의 정기회의는 6개월에 1차씩, 리(읍, 로동자구, 동) 인민회의의 정기회의는 3개월에 1차씩 소집하며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인민회의의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각급 인민회의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법령, 정령, 내각 및 상급기관의 결정, 지시에 의거하여 그 집행을 정확히 보장한다.

【각급 인민위원회】 도, 시(구역)군, 리(읍, 로동자구, 동)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집행기관이며 지방의 국가행정기관이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기관의 결정, 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관할지역 내에서 모든 국가행정사업을 수행한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해당 인민회의 및 상급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지며 모든 인민위원회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를 받으며 그에 복종한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가 경과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재판소 및 검찰소

【재판소】 우리 나라에서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 시, 군 재판소에서 수행하며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도, 시, 군 재판소는 각각 그 해당 인민회의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한다.

【검찰소】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 기관, 단체, 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한다.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며 도, 시, 군 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정당 및 근로단체

북조선민주당

창립 1945년 11월 3일

천도교청우당

창립 1946년 2월 8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1949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남북조선의 71개 애국적정당, 사회단체 대표 704명의 참가하에 열렸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에서 조직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에서는 강령과 선언서를 채택하였다.

강령에서는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몰아내며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 민족경제와 민족문화의 발전,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13개항목의 투쟁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직업총동맹은 1945년 11월 30일에 창립되였다.

조선직업총동맹은 당과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우리 나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자원적원칙에 의하여 조직된 혁명적대중조직이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조선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다.

조선직업총동맹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조직전개한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조선로동당과 우리 나라 로동계급을 련결시키는 강력한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며 공산주의교양의 학교이다.

조선직업총동맹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고 전국적범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직업총동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직맹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이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한다. 그리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직맹원들속에서 주체를 확립하며 로동계급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강화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직맹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정신과 높은 지식, 문화기술을 소유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육성하며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고도로 발양시켜 천리마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며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하고 생산력을 부단히 발전시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직업총동맹은 남조선로동계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 앞잡이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로동계급과 인민들을 적극 지원하며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직업총동맹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밑에 사회주의국가와 우리 나라의 통일독립을 지지성원하는 모든 나라 근로자들과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민족적독립과 민주주의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직맹운동과 로동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

산업별직업동맹

조선금속기계공업로동자직업동맹
조선화학공업로동자직업동맹
조선건설림업로동자직업동맹
조선운수항만로동자직업동맹
조선광업 및 동력로동자직업동맹
조선경공업로동자직업동맹
조선상업일군직업동맹
조선교육문화일군직업동맹
조선공무원직업동맹
조선수산로동자직업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1965년 3월 27일 평양에서 창립되였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우리 나라 협동농민들과 국영농목장 및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 기관, 직장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자원적원칙에 기초한 혁명적대중조직이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조직전개하는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며 당과 우리 나라 농업

부문의 근로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을 실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농업부문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그들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주위에 굳게 단결시키며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이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관철한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적극적인 실천자이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남조선농민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 그들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그 주구들의 반동통치로부터 해방하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동맹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교양하며 사회주의국가와 전세계 농업부문 근로자들과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강화한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우리 나라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대중단체로서 1946년 1월 17일 창립되였다.

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창립되였던것을 1951년 1월 17일 남북조선의 민청을 통합하여 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그후 1964년 5월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대회에서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고쳤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조선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공산주의건설의 교대자이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조직전개한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청년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그들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굳게 단결시키며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이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한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청년들을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지, 덕, 체를 갖춘 공산주의 새형의 인간으로 교양한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남조선의 광범한 청년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남반부를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반동통치에서 해방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사회주의국가와 모든 나라 근로청년들과의 국제주의적단결을 강화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 청년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1945년 11월 18일 평양에서 창립되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우리 나라 녀성들의 자원적원칙에 기초한 대중적조직으로 조선로동당과 우리 나라 녀성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삼는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동맹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그들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주위에 굳게 단결시키며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이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관철한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녀성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높은 정치적의식과 문화수준을 소유한 참된 어머니로, 후대들에 대한 훌륭한 공산주의교양자로 교양육성한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광범한 녀성들이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애국적헌신성과 창의창발성을 발휘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한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녀성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을 미제 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조국의 통일독립을 지지성원하는 사회주의국가와 전세계의 진보적녀성들과 굳게 단결하며 아세아와 전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정 치

투쟁과 승리의 해 1968년

투쟁과 승리로 보람찼던 1968년, 이해는 우리 나라 혁명위업과 건설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수많은 사변들로 가득찼으며 혁명승리에로 부단히 확고하게 전진하는 우리조국력사에 또다시 새겨질 새로운 승리와 업적들로 수놓아졌다.

1968년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받들고 우리 인민이 그이의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가일층 앙양시킨 한해로 조국력사에 기록되였다. 특히 1968년은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계기로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승리를 내외에 과시하였으며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종국적승리,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제반미투쟁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새로운 투쟁 강령인 현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문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발표하신 해로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그리고 이해는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미쳐날뛰는 미제국주의자들이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더욱 악랄하게 감행한 오만하고 파렴치한 도발책동을 단호히 징벌하고 미제로 하여금 조선인민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게 함으로써 우리 당의 자위로선의 위력과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혁명적립장을 만천하에 보여준 해로,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항쟁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번진 해로 조국청사에 기록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은 1968년에 복잡한 국내외정세하에서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앙양시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강력히 촉진하고 세계 혁명운동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다.

1968년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는 전당과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며 혁명기지를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단결시키는것 즉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65~366페지)

1968년에 조선로동당은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확고한 원칙에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전당적으로 강력히 전개하였다.

전국의 모든 기관, 모든 단위들에서 《김일성동지 혁명력사연구실》을 당 사상사업의 거점으로하여 수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하여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체계적이며 전면적으로 연구학습하는 사업이 일층 강화되였다.

김일성동지의 발기로 조직되고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1968년에 진행된 전국적인 대회들, 전국렬사가족 및 영예군인가족대회, 전국청년총동원대회,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 조선인민군붉은기중대군인열성자대회, 조선직업총동맹 제4차대회들은 전국의 청년들, 렬사가족 및 영예군인가족들, 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들과 근로자들,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붉은기중대군인열성자들과 전체 군인들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 잘 준비시키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천리마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강화되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이 확대되고 심화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며는 기풍이 전사회를 지배하게 되였으며 온나라가 단합되여 전진하는 붉은대가정으로 되였다.

오늘 수령의 주위에 유일한 사상과 의지로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 통일, 그에 기초하고있는 우리의 혁명대오는 그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되였으며 이것은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되고있다.

1968년에 일대 민족적경사로서 진행된 공화국창건스무돐기념행사는 수령의 주위에 하나로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된 위력과 우리 혁명위업의 빛나는 성과를 내외에 시위하고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혁명에 대한 높은 자부심에 넘치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공화국기치밑에 지난 20년간 우리 인민이 달성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과학리론적으로 총화하시고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며 미제의 세계전략을 때려부시고 전반적국제혁명위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강령적인 투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초미의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신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민족해방혁명, 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의 완전하고 종국적인 승리를 이룩할때까지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심오한 사상과 과학적 리론, 탁월한 방침들을 정연하게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고전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 문헌으로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과 맑스-레닌주의의 사상리론적보물고를 풍부히하는데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우리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고 혁명과 건설을 확신성있게 전진시킬수 있는 강유력한 사상리론실천적무기를 쥐여주었으며 우리 인민들을 새로운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1968년에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 한층 앙양시키고 천리마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나라의 자립적경제력과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과 수령의 부름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당이 내세운 전투적호소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7차 및 18차전원회의 결정 그리고 전국청년총동원대회와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분초를 다투어 두몫 세몫 일하는 혁명적인 투쟁을 벌렸으며 도처에서 온갖 보수와 침체를 짓부시고 천리마의 기세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의 수많은 공장기업소들이 공화국창건 기념일전으로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이해에 우리의 림업 및 석탄공업부문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영웅적 노력으로 통나무 및 석탄생산에서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선참으로 점령한 승리자들로 되였으며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968년에 전국의 공업총생산액은 그 전해에 비하여 17%나 장성하였던 1967년에 비하여도 15%의 장성을 가져왔다.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 사상혁명이 촉진되여 근로자들의 의식수준과 자각적열성이 높아지고 기술혁명이 실현되여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생산장성의 예비는 더욱더 많아지며 따라서 로동생산능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생산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는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며 사회주의국가는 이러한 가능성을 리용하여 기술을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낡은 기술이 새기술로 바뀌여지고 새기술이 보다 더 새로운 기술로 바뀌여지며 손로동을 기계화하고 기계화가 반자동화로 발전하며 반자동화가 자동화로 끊임없이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과정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로동생산능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생산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3페지)

1968년에 우리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1천마력대형준첩선과 6천톤프레스를 만들어내고 고원—홍원간 철도전기화를 완공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떨치였으며 우리 공업은 더욱 정비보강되고 대규모동력기지와 금속, 건재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각부문에서 새로운 기본건설공사가 추진되고 완공되여 그 자립적토대가 더 한층 강화되였다.

우리 나라 농업부문일군들과 협동농장원들도 1968년에 김일성동지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하신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정보마다 500키로그람 더내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줄기차게 벌리고 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함으로써 수십년래의 큰 가물이 든 조건에서도 전국적으로 모든 작물에 걸쳐 전례없는 일대 풍작을 이룩하였다.

1968년 농사에서의 대풍작, 이것은 우리 나라 농업이 기후조건의 변동에 관계없이 어떠한 가물과 큰물에도 끄떡하지 않고 농업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킬수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과학적 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섰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당과 인민은 1968년에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돌렸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철벽같이 다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더욱 악랄해진 미제국주의자들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소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에 대한 정확

한 평가를 내리시고 원쑤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단호하고 확고한 혁명적 립장을 천명하시였으며 침략자들이 함부로 덤벼든다면 그들을 일격에 때려부실수있도록 만단의 태세를 갖출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연설은 원쑤들을 커다란 공포에 떨게하였으며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확고한 승리의 신심과 새로운 전투적기백, 멸적의기세로 들끓게하였다.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영웅적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현대적무기들과 최신군사기술기재로 장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나라의 모든 지역에 방위시설이 튼튼히 구축되여 전국가적, 전인민적방위체계가 더한층 튼튼히 다져졌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나라 령해 깊이 침입하여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하던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한것을 비롯하여 원쑤들의 날로 강화되는 전쟁도발책동과 군사적도발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였다.

우리가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자 미제국주의자들은 가장 큰 핵추진항공모함《엔터프라이즈》호를 동해에 끌어들이는 한편 남조선에 비행기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등 야단법석을 치면서 우리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조국의 독립과 영예와 존엄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칠 각오를 가진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철석같이 뭉쳐 원쑤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억세게 싸웠으며 단호하고 견결한 립장을 끝까지 지켜냈다.

그리하여 미제는 거의 한해동안 생떼질을 쓰며 발악하다가 저들이 범한 침략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앞에 담보하지 않을수 없었다.

1968년에 우리 당과 정부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동시에 힘있게 밀고나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당과 국가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성과적실시와 관련하여 각급학교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탁아소, 유치원을 늘이며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옷을 공급하며 보육교양사업을 개선하는데 거액의 자금을 투하하였다. 또한 도시와 로동자지구에 현대적인 대규모의 닭목장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근로자들의 부식물 공급사업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에 근로자들의 주택을 건설하며 일부소비품가격을 낮추는 등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많은 혜택을 돌렸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이 모든 시책들에는 그 어느것에나 항상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 있다.

이해 그처럼 첨예하고 복잡한 정세에서도 온갖 준엄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거둔 이 모든 성과는 오직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과 새 사회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시여 우리 인민을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따라 끊임없는 혁명적앙양과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1968년에 달성한 모든 성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비할바없이 우월하며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가 얼마나 위력한가 하는것을 다시 한번 여실이 보여준다.

실로 1968년에 우리 인민은 수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받들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각분야에서 큰 일을 해놓았으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다져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데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1968년에 공화국남반부인민들도 이땅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종식시키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실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해에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테로통치밑에서 무권리와 생활고, 가혹한 탄압속에서 피흘리며 싸우고있는 자기들에 대하여 항상 깊이 심려하시고 투쟁과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흠모의 정을 간직하고 그이께서 내놓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로선과 방침에 따라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반미구국투쟁을 세차게 전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날로 조직화되고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속에 깊이 뿌리박으며 확대되고 있으며 그것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리고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하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앉아서 죽느니보다 차라리 일어서서 싸워야한다는 굳은 각오로 도시와 농촌에서, 지하와 산중에서 지어는 감옥과 법정에서까지 원쑤들과 굴함없이 싸우고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불안과 공포속에서 떨게하고 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는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며 침략과 전쟁정책을 강화

하기 위하여 야만적인 인민탄압과 반공소동에 제아무리 미쳐날뛴다하더라도 결코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혁명적투지를 꺾을수 없으며 그들의 거세찬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쌓아올린 고귀한 투쟁업적들은 우리 나라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81페지)

1968년에 재일조선공민들이 또한 조국을 멀리 떨어진 이역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공화국 공민된 궁지 드높이 온갖 애국적열성과 헌신성을 다 발휘하여 자기앞에 제기된 성스러운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재일조선공민들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드높은 애국적열성과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면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자신들을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총련조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재일조선공민들은 미제의 사촉밑에 날로 우심하여지는 일본반동들의 박해를 걸음마다 물리치고 자기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견결히 수호하였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종식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재일조선공민들은 또한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켰으며 공화국의 대외적 위신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1968년에 우리 당과 정부는 맑스-레닌주의적원칙과 철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정확한 대외정책을 실시하여 대외관계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해에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방침에따라 국제관계에서 일관하게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과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였고 치렬한 반제전선에서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웠으며 광범한 반제 반미력량을 단결시키고 특히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떠서 그의 멸망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스무돐기념경축대회 보고에서와 체 게바라 서거 한돐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론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서 현국제정세와 전반적세계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현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과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강화하며 국제적범위에서 반제반미투쟁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과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명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자기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으로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 기여한 탁월한 공헌으로하여 그 국제적지위와 권위가 전례없이 높아졌다.

오늘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현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로 우러러보면서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고있으며 그이의 로작들을 깊이 애독하고 거기에서 커다란 신심과 고무를 받고있다.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공화국창건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를 《전반적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위대한 원리적이며 강령적인 문헌》으로, 《20세기중엽의 공산당선언》으로, 《고전적의의를 가지는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문헌》으로 그리고 그이의 론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위대한 반제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혁명적인민들을 위한 위대한 투쟁의 교과서, 무기》로 높이 평가하면서 절대적인 지지와 공명을 표시하고있다.

1968년에 있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 기념경축행사에 세계 각 대륙의 수많은 나라, 수많은 조직 대표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적명절을 축하해준 사실 자체도 우리 당과 우리 나라의 대외적위신이 얼마나 높은가를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1968년에 우리 인민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달성한 이 빛나는 승리는 오로지 일찌기 혁명활동에 나서신때로부터 40여년간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승리와 영광의 한해 1968년을 보내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경모의 정에 휩싸였으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충성을 다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성대히 기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1948년 9월 9일 창건되였다.

1968년은 조선인민이 자기력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밑에 새사회 새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선때로부터 20년이 되는해이다.

우리 나라 전체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공화국이 걸어온 지난 20년간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행로를 감회깊게 돌이켜보며 그이의 령도에 따라 자기들의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이루어놓은 혁명의 전취물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혁명적결의를 굳게 다지면서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은 이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성대히 기념할데 대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결정들에는 전체인민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하여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하루속히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과업들과 함께 공화국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로부터 인민들에게 크나큰 신임을 표시하며 극진한 배려를 베풀데 대하여 그리고 경축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을 광범히 조직진행할것이 지적되였다.

이 뜻깊은 민족적명절을 앞두고 당중앙위원회와 내각 결정을 받은 전체 근로자들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높여 도처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으며 천리마의 대진군을 다그쳐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이 해 인민경제계획을 공화국창건스무돐기념일전으로 끝내고 7개년 계획의 고지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였다.

또한 공화국창건스무돐을 맞이하여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받들면서 공화국기치하에 통일독립된 조국땅에서 그이를 모시고 살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미구국항쟁의 불길을 높여 억세게 싸워나갔으며 재일동포들도 높은 정치적열의와 사업의 성과로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100일간 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리였다.

이와 같이 전체 조선인민은 경사스러운 민족적명절 공화국창건스무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서 맞이하였을 뿐만아니라 이 날을 앞두고 평양시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 각지와 멀리 이국땅에있는 해외 동포들속에서도 성대한 기념 행사준비를 거쳐 일련의 정치 행사들을 광범히 조직 진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와 내각결정에 따라 민족적명절을 앞두고 조국의 광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였던 혁명렬사들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기념하여 동상을 세웠다.

그리고 당과 국가로부터 인민들에 대한 크나큰 신임과 극진한 배려를 돌리여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일군들에게 훈장들과 메달을 수여하였다.

이밖에 기념일을 앞두고 강연, 해설 사업 등 정치사업들이 광범히 진행됨과 함께 과학토론회 및 학술발표회가 진행되였으며 사진전람회, 국가미술전람회가 개관되고 공업농업전람관이 보충정비되여 개관되였다.

동시에 명절을 계기로 평양시내 3000명의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조국》이 공연되였으며 4만 5000명이 출연하는 대 집단체조 《천리마조선》이 진행되고 전국 인민체육대회가 종목별로 진행되였다.

이와 같이 전국이 들끓는 환경속에서 민족적 경사의 날을 맞이하였다.

특히 9월 7일과 8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시며 고무자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참석하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돐 기념 경축대회가 진행되고 9일에는 평양시 군중대회와 30만 평양시 근로자들의 장엄한 시위가 진행되였으며 경축 연회가 있었다.

기념행사들은 공화국 각지는 물론 이국땅에 있는 재일 조선공민들속에서도 다채롭게 진행되였을뿐만아니라 세계 각 나라들에서 경축집회, 친선모임, 사진전람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민족적명절인 공화국 창건 스무돐을 전체 조선인민의 감격과 흥분속에서, 전세계 인민들의 이목과 열렬한 축하와 동경속에서 민족적인 큰 행사로서 성대히 기념하였다.

공화국창건스무돐에 즈음하여 돌려진 당과 국가의 인민들에 대한 크나큰 신임과 극진한 배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 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여 불멸의 위훈을 세웠으며 해방후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의 공고발전과 우리 인민주권과 인민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였으며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당과 인민앞에 빛나는 공적을 남긴 항일혁명 투사들인 김책, 안길, 최춘국, 김경석, 조정철동지들에게 영광스러운 우리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과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창건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지난 20년간 수령의 교시와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의 공고발전과 그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명의 전취물인 우리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헌신적으로 복무하여 온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국가경제기관 및 사회협동단체 일군들, 조선인민군 군관 및 장령들, 조선경비대 군관, 장령들과 사회안전원들에게 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훈장을 수여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또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강화하고 우리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국가경제기관 및 사회협동단체 일군들에게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또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창건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지난 기간 수령의 교시와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재일동포들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주위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온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와 그 산하단체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훈장을 수여하였다.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재일동포들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주위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서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 단체 일군들에게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하였다.

이밖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맡겨진 전투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쟁승리에 이바지하였거나 맡겨진 전투임무 수행에 헌신분투하고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여 온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국가경제기관 및 사회협동단체 일군들에게 조국해방전쟁기념메달 또는 조국해방전쟁참전기념메달을 수여하였다.

또한 공화국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킴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로가 많으며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 모범이 되고있는 공장, 직장, 작업반, 교육, 문화, 보건 기관, 사회협동단체와 중요설비, 기계, 기관차, 선박들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칭호를 수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칭호를 받은 공장, 기업소, 직장 및 작업반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친히 보내주시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경사스러운 민족적명절 공화국창건스무돐을 맞이하여 수형자들과 구금되여있는 자들에게 번영하는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정령으로서 대사를 실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경축대회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결정과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온나라가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이 더욱 앙양되고 전체 조선인민이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스무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이 민족적대경사의 날을 맞이하여 9월7일과 8일에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시며

고무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경축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하던 시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였던 항일혁명투사들과 공화국의 창건과 그 륭성발전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투쟁에서 커다란 공훈을 세운 각계대표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또한 미제와 그주구 박정희매국역적들을 쓸어버리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있는 남조선혁명조직대표들과 이국땅에서 공화국의 영예와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대회에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민족적 명절인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온 대표단들과 대표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있는 각국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수령께서 나오실 시각을 정숙히 기다리며 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의 행로를 감회깊게 돌이켜보는 대회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그를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신뢰,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륭성번영하는 공화국의 공민된 민족적긍지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이 세차게 소용돌이 치고있었다.

194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로서 우리 나라 력사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새기원을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자기의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오랜 민족적숙망의 실현이였으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장기간에 걸친 피어린 투쟁의 열매였다.

조국땅에 비운이 서리고 우리 인민이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이며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영명한 령도자를 목마르게 기다리던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광복의 홰불로 조국땅을 밝히시며 15성상에 걸친 간고하고도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하시고 령도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이 나라 인민들은 오직 그이께 조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길에서 민족의 장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주권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장기간 피흘리며 싸워 마침내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눕히고 빼앗겼던 조국을 다시 찾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깊은 뿌리에서 태여났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모진 풍파와 시련을 뚫고 20년간의 자랑찬 승리의 길을 꿋꿋이 걸어왔다.

공화국의 기치 밑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이 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으며 전체 인민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배우고 다같이 무료로 치료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확고히 수립하여 놓았다.

우리 인민은 장기간 외래침략자들에게 짓밟히고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조국땅우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불패의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오늘 영광스러운 우리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천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못한 민족적대번영의 시기에 처하여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와 철저한 혁명적립장으로하여 그 대외적권위는 비상히 높아지고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다.

공화국의 륭성발전은 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도시와 농촌에서, 산중과 지하에서, 감옥과 《법정》에서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전개하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 그리고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드높이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륭성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 있는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에게 커다란 고무적인 힘과 신심을 안겨주고있으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새생활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을 고무하고있다.

공화국의 기치하에 우리 인민이 지난 20년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세기적변혁들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이며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시면서 조선혁명을 곧바로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주신 그이의 현명하고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한결같이 우리를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흠모하고 신뢰하며 그이를 조선혁명의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따라 살며 투쟁하는것을 최대의 영광과 행복으로, 민족의 크나큰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조국의 운명과 자신의 귀중한 모든것을 전적으로 그이께 의탁하고 일편단심 수령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로 확고히 전진하고있다.

경축대회가 시작되는 9월 7일 오후 3시 환영곡이 높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김일성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의 우렁찬 환호와 그칠줄 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서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주시며 세계혁명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그이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주석단에는 우리 나라 당과 정부 그리고 근로단체들의 책임간부들, 조선인민군장령들, 항일혁명투사들, 공화국영웅들과 로력영웅들, 로동자, 농민대표들과 과학, 교육, 문화, 보건부문 대표들이 올랐다. 남조선혁명조직대표와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이 또한 주석단에 올랐다.

또한 공화국창건스무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온 세계 여러 나라 정부대표단 단장들, 당 및 투쟁단체 대표단 단장들과 대표들이 주석단에 올랐다.

환영곡이 계속 높이 울리고 그칠줄 모르는 환호와 박수가 장내를 뒤흔드는 가운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경축대회참가자들과 우리 나라 전체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린 향기그윽한 꽃바구니를 올리였다.

경축대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동지의 개회사로서 개막되였다.

최용건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일어서서 조국의 광복과 공화국의 창건 및 공고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답게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선렬들과 영웅전사들을 추모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을 하였다.

개회사에 이어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를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문헌편 1페지 참조)에서 공화국의 기치밑에 지난 20년간 우리 인민이 새사회 새생활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총화하시고 조국의 완전통일독립과 우리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민족의 독립과 영예를 지켜낸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전후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쌓고 찬란한 민족문화, 자위적방위력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 그 전행정을 통하여 빛나게 구현되고 승리하여온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 그 불패의 생활력을 확고히 증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완전하고도 종국적인 승리를 위한 길,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명확한 진로를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오한 맑스-레닌주의리론과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두 요새를 점령하는 문제,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문제 등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이며 원칙적인 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하시고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으며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승리를 위한 길에 대하여 정연하고도 심오한 대답을 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리론과 방침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망을 명확히 밝혀준 력사적인 강령으로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현 국제정세와 공산주의운동 및 전반적 세계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현조건하에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수호하고 강화하며 국제적규모에서 반제반미투쟁을 가일층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한 립장과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명시하시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풍부한 리론실천적경험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히 분석총화하시고 일반화한 빛나는 력사적문헌이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명확한 전망과 전투적과업을 제시한 위대한 강령적문헌이다. 또한 보고는 현단계에서 미제국주의의 세계전략을 때려부시고 그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키며 전반적 국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전략과 방침을 천명한 탁월한 혁명적문헌이다. 혁명과 건설에 관한 심오한 사상, 과학적인 리론, 탁월한 방침들을 정연하게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보고는 고전적의의를 가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문헌으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이 땅우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승리하여온 자랑찬력사의 총화이며 우리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키고 인민대중의 근본적요구와 리상을 구현한 웅대한 설계도이다.

또한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우리 당과 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부동한 맑스-레닌주의적원칙성과 주체적립장, 자신의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끝없는 충실성, 제국주의와는 비타협적으로 견결히 싸우며 혁명을 끝까지 철저히 수행하려는 확고한 계급적립장으로, 불굴의 혁명적의지로 일관되여있으며 거기에는 비상한 통찰력과 심오한 과학적예견성, 완강한 혁명적전개력을 가지고 언제나 혁명발전의 전도를 명철하게 내다보시면서 매 시기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고 혁명을 부단한 앙양과 새로운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이끄시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전략적구상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집중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시대, 혁명의 조류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오늘의 우리 시대가 날카롭게 제기하고있는 제반 원칙적인 문제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초미의 절박한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신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조선혁명과 전반적 세계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의 강유력한 사상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민족해방혁명, 민주주의혁명, 프로레타리아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사상—리론적보물고를 더한층 풍부히 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적경험을 발전풍부화시키는데 귀중한 기여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보고를 마치시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장내를 뒤흔드는 그칠줄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서 보고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그이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주위에 철석같이 뭉치여 수령께서 펼쳐주신 새로운 승리의 길을 따라 용기 백배하여 기세 드높이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려는 확고부동한 결의를 표시하였다.

공화국창건스무돐을 축하하여 많은 대표들이 연설하였다.

대회에서는 남조선혁명조직 대표와 계속하여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들은 각기 축하연설을 끝마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남조선혁명조직으로부터 보내온 축기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로부터 보내온 축기들을 올리였다.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여 조선소년단축하단, 청년학생축하단, 녀성축하단, 조선인민군축하단들이 대회 과정에 각각 입장하여 축하문을 랑독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와서 대회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정부대표단 단장들, 당 및 투쟁단체 대표단 단장들과 대표들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웰남민주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쏘련정부대표단 단장,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대표단 단장, 뽈스까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꾸바정부대표단 단장,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 단장, 몽골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벌가리아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일본공산당대표단 단장, 웽그리아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독일민주주의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캄보쟈왕국정부대표단 단장, 아랍련합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탄자니아련합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기네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말리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수리아아랍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이라크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모리따니회교공화국국회대표단 단장, 꽁고(브)정부대표단 단장, 부룬디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파키스탄회교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남부예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단장, 쎄일론상원대표단 단장, 네팔왕국정부친선대표단 단장, 잠비아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다오메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 단장, 챠드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 단장, 시에라레온정부친선대표단 단장, 니제르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 단장, 팔레스티나해방조직대표단 단장, 꽁고(레)혁명최고리사회대표단 단장, 베네수엘라민족해방전선대표, 뽀르뚜갈령기네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대표단 단장, 파몌말라봉기무력대표,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대표,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단 단장, 케니아인민동맹대표가 각각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공화국정부가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들을 높이 찬양하면서 이 모든 성과는 오직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의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반제반미공동투쟁에서 련대성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끝났다.

대회가 끝난뒤에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심을 담아 부르는 《김일성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의 환호성은 그칠줄 몰랐다.

경축대회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

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주체,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필승불패의 전투적위력을 시위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과 수령께서 밝혀주신 승리의 길을 따라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전진히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공화국창건 스무돐경축 평양시군중대회와 30만 평양시근로자들의 장엄한 시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9월 9일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경축평양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으며 30만의 평양시근로자들의 장엄한 시위가 진행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결정과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온나라가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영광스러운 민족적명절을 맞이한 혁명의 수도 평양시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커다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되여 있었다.

평양시 군중대회

공화국창건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에 무한히 고무된 시내 근로자들은 그이께서 밝혀주신 새로운 승리의 길을 따라 천리마의 대진군을 더욱 억세게 다그쳐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면서 어버이 수령을 모실 영광의 대회장으로 물밀듯이 모여들었다.

혁명의 수도 거리거리에는 화려한 옷차림에 꽃묶음과 여러가지 색갈의 고무풍선들, 공화국기치하에 지난 20년동안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세기적인 변혁들과 찬란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가장물들을 든 수십만 시내근로자들과 군중들로 메워졌으며 넓은 광장은 삽시에 꽉들어찼다.

대회장에는 일찌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40여년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오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확고히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대회장 상공에는 《김일성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맑스-레닌주의기치 만세!》라고 쓴 글발을 드리운 커다란 기구들이 높이 떠 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항일혁명투사들이 피로서 쟁취하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목숨으로 수호하였으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하에 륭성 번영하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과 《조선혁명 만세!》, 《우리 당의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 만세!》,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자!》, 《전세계 혁명 만세!》,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친선단결 만세!》,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자!》,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위대한 10대정강을 철저히 관철하자!》,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는 전투적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대회의 시작을 앞두고 공화국기치하에 걸어온 지난 20년간의 간고하고도 영광에찬 혁명투쟁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 보는 군중들의 얼굴마다에는 온갖 풍파를 몸소 헤치시여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신뢰와 충성심, 그이의 혁명전사로된 무한한 행복과 자랑이 흘러넘치고있었으며 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커다란 민족적자부심이 어리여있었다.

오전 9시 환영곡이 높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김일성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군중들은 환호와 함께 꽃묶음을 높이 흔들고 수백수천의 고무풍선들을 하늘높이 날리면서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조국의 운명과 자신의 모든것을 오직 수령께 의탁하고 일편단심 그이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한길로 꿋꿋이 걸어온 우리 인민들은 어버이 수령을 모시고 사랑하는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경축하게된 더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끊임없이 만세의 환호를 올렸다.

주석단에는 우리 나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책임간부들이 올랐다. 그리고 재일본 조선인 축하단 단장도 주석단에 올랐다.

주석단에는 또한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많은 외국대표단 단장들이 올랐다.

웰남민주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쏘련정부대표단 단장과 쏘련녀성대표단 단장,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대표단 단장, 뽈스까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꾸바정부대표단 단장,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 단장, 몽골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 벌가리아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웽그리아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독일민주주의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일본공산당대표단 단장,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캄보쟈왕국정부대표단 단장, 탄자니아련합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아랍련합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수리아아랍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말리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기네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이라크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모리따니회교공화국국회대표단 단장, 꽁고(브)정부대표단 단장, 남부예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소말리아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부룬디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파키스탄회교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수단공화국친선대표단 단장, 쎄일론상원대표단 단장, 레바논공화국국회대표단 단장, 네팔왕국정부친선대표단 단장, 싱가포르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 단장, 잠비아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다오메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 단장, 챠드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 단장, 시에라레온정부친선대표단 단장, 니제르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 단장, 팔레스티나해방조직대표단 단장, 꽁고(레) 혁명최고리사회대표단 단장, 베네수엘라민족해방전선대표, 뽀르뚜갈령 기네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대표단 단장, 과떼말라봉기무력대표,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대표,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단 단장, 케니아인민동맹대표

또한 주석단좌우 초대석에는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의장단성원들, 상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령들, 항일혁명투사들, 혁명렬사유가족, 공화국영웅들과 로력영웅들이 자리잡았다.

또한 초대석에는 공화국창건스무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많은 대표단들과 각국 외교대표들이 자리를 잡았다.

3대륙인민단결기구대표단, 국제민주법률가협회대표단, 국제기자동맹대표, 세계민주청년련맹대표단, 국제학생동맹대표, 전아프리카녀성대회대표,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부서기장, 아세아, 아프리카 법률가회의 상설서기국대표, 전아프리카로조련맹대표, 국제아랍로조련맹대표단, 라틴아메리카대학생기구대표단, 일본사회당대표, 아랍련합공화국공보대표단, 이라크공화국 공보대표단, 또고공보대표단, 꾸바혁명근로자중앙대표단, 웽그리아직맹중앙평의회대표단, 알제리근로자총동맹대표단, 기네근로자전국련맹대표단, 아련로조대표단, 앙골라전국근로자동맹대표, 남부예멘로동자련맹대표, 꾸바혁명근로자중앙전국농업 및 림업로동자직맹대표, 프랑스로동총련맹대표단, 다오메근로자총동맹대표단, 일본로동조합총평의회대표단, 칠레근로자통일로조중앙대표단, 상부볼따근로자직업동맹대표단, 마로끄로동동맹대표단, 쏘련공청대표단, 웽그리아공청대표단, 시에라레온전국청년운동대표단, 일본민주청년동맹대표, 알제리청년대표단, 꾸바녀성대표단, 기네민주당녀맹대표단, 알제리녀성대표단, 시에라레온녀성대표, 세네갈녀성전국리사회대표, 단마르크민주녀성련맹대표, 카나다녀성대회대표,핀란드민주녀성대표단,캄보쟈—조선친선전국위원회대표단, 나이제리아 — 조선친선협회대표단, 일조협회대표단,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대표단, 네팔—조선친선협회 위원장,감비아—조선친선협회대표단,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대표, 인도—조선문화협회대표단,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대표,핀란드—조선친선협회대표,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기자, 일본기자대표단, 우리 나라에 와있는 각국 외교대표들이 초대석에 자리를 잡았다.

군중대회에서는 내각 제1부수상 김일동지의 연설이 있었다.

연설에서는 먼저 공화국창건스무돐을 맞이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평양시민을 비롯한 전체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하였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온 귀중한 외국의 벗들을 열렬히 환영하여 형제적인사를 보냈다.

그리고 연설에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창건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이라는것을 말하면서 공화국이 창건된 이후 지난 20년동안 당과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 밑에 온갖 중첩되는 난관을 극복하고 사회적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한 제반 성과들에 대하여 렬거하였다.

또한 연설에서는 공화국북반부와는 정반대로 남조선은 지난 20년간 미제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더욱더 빠져들어가고있다는것을 지적하면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남북조선인민이 다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그날을 더욱 앞당기기 위하여 무장유격투쟁을 비롯한 각종형태의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고있는데 대하여 공화국북반부 전체 인민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전투적성원을 보냈다. 동시에 총련의 지도하에 조선인민의 민족적기개를 굽히지않고 용감하게 투쟁하고있는 60만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전투적인사를 보냈다.

계속하여 연설에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대외정책과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전례없이 높아졌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연설에서는 지난 20년간 우리 인민이 이룩한 이 모든 성과와 위대한 업적은 오직 일제식민지통치의 그 암담한 시기부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맑스-레닌주의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인민을 항

상 위대한 승리에로 인도하여 주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 뜻깊은 명절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그리고 연설에서는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쟁취하여야 할 무거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것을 강조하고 모두다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갈것을 제기하였다.

연설이 끝나자 수백발의 축포가 올랐으며 이어 30만 평양시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장엄한 시위가 진행되였다.

30만 평양시근로자들의 장엄한 시위

공화국창건스무돐경축 평양시군중대회에 뒤이어 500발의 축포소리가 울리였으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석단에 모시고 시내 30만 근로자들의 장엄한 시위가 시작되였다.

전체 시위자들과 광장에 꽉 들어찬 군중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끓어넘치는 경모의 정과 공화국창건스무돐기념 경축대회에서 하신 그이의 위대한 보고를 접한 한없는 감격과 흥분이 넘쳐있었다.

정각 오전 9시30분 군악대의 주악에 맞추어 김일성광장에 꽉 들어찬 군중들이 부르는《김일성장군의 노래》대합창이 장중하게 울려퍼지였다.

항상 조선인민을 승리와 영광에로 인도하시는 어버이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을 담은 노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세상사람들로부터《천리마의 나라》,《주체의 조국》,《사회주의의 모범》으로 불리우는 오늘의 조선이 있고 오늘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선두대렬이 광장에 들어섰다.

금빛 눈부신 공화국국장을 중심으로 1948—1968이라는 우리 공화국력사를 상징하는 표식을 든 국장대렬과 5각별 찬연한 람홍색 공화국기를 바람에 날리며 보무당당히 행진하는 국기대렬에 이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모신 대렬이《김일성동지 만세!》라는 구호를 들고 광장에 들어섰다.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소리가 광장이 떠나갈듯 일어나고 무수한 꽃송이들이 파도처럼 물결쳤다.

광장에 모여선 군중들도 보무당당히 행진하는 시위자들도 영광스러운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주석단과 초대석에 있는 외국의 벗들도 김일성동지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신뢰의 정에 넘쳐 그이께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여 인민정권수립의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으시였으며 해방후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시고 그를 공고발전시켜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창건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날 1948년 9월 9일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나라 없는 설음과 천대속에서 세기를 두고 갈망해오던 숙원을 비로소 이루게된 조선인민은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15성상 온갖 시련과 난관을 타개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하시고 그를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해방후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자주적인 혁명로선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신 그이께 자신의 모든 희망과 장래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광스러운 조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으로 우러러 추대하던 그때로부터 20년, 투쟁과 승리, 전진과 번영의 이 20년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이 땅우에 빛나게 구현되여온 자랑찬 로정이다.

로동자와 농민, 병사와 지식인들이 힘있게 머리우에《김일성저작선집》을 추켜든 조각상과《주체, 자주, 자립, 자위》라고 새긴 커다란 홰불을 형상한 가장물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상이 밝혀주는 투쟁의 길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가지가지의 업적들에 대해서 돌이켜보게한다.

오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있음으로써만이, 그리고 이 위대한 사상을 모든 부문에 구현하신 그이의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써만이 오늘의 빛나는 승리가 있고 또 휘황한 래일이 있는것이다.

주체를 형상한 가장물에 뒤이어《조선로동당 만세!》라고 힘있게 쓴 구호를 든 대렬이 행진하였다.

그 대렬속에서 선뜻 시선을 끄는것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마치와 낫과 붓을 들어 나타낸 우리 당의 표식을 보여주는 조각이다.

뒤이어 시위자들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와 함께 손에 들었던 천을 펼치고 합치여 만들어낸 파도처럼

굽이치는 36메터의 길이에 18메터의 폭을 가진 공화국기를 펄럭이며 광장으로 보무당당히 들어섰다.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이 가슴뜨겁게 울려온다.

《우리 공화국기발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오랜 기간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이 깃들어있으며 간고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인민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몸바쳐싸운 참다운 애국투사들과 영웅전사들이 흘린 붉은 피가 스며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1~2페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자!》는 구호, 혜산에 서있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그대로 옮겨온것이 아닌가싶은 큰 기념탑가장물, 유격대원차림으로 손에 붉은기를 들고 힘있는 률동을 보여주며 행진하는 시위대오, 이 모든것은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 찬연히 공화국기 나붓기는 오늘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생겨났는가를 다시금 더듬게한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시기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장래전망을 구상하여오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여 민족의 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달성할 유일하게 정당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봉화를 든 유격대원차림의 시위대오의 《봉화춤》과 항일유격대원들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가장물은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새롭고 위대한 력사적시기를 열어놓은 간고하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지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조선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이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 《항일빨찌산들처럼 일하며 생활하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든 시위대렬은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행군을 계속하여 한나산끝까지, 아니 온 세계에 혁명의 붉은 기치가 뒤덮일 그날까지 줄기차게 전진하려는 조선인민의 기상을 안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한다.

흥겨운 농악소리 울리는 가운데 민주개혁대렬이 광장에 들어섰다.

공중에 둥실 뜬 풍선에 단 《제반 민주개혁 만세!》라는 구호, 이 구호속에 얼마나 커다란 감회가 깃들어있는가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인도하시여 나라의 광복을 이룩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현명한 혁명적민주기지로선을 제시하시고 민주개혁을 실시하여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였다.

농민들을 수천년래의 봉건적착취에서 영원히 해방하는 력사적인 토지개혁의 실시, 나라의 기본생산수단을 인민의 소유로 전변시킨 중요산업국유화, 그에 련이어 발포실시한 로동법령과 남녀평등권법령 그리고 조선인민군의 창건 등 시위대렬이 들고나가는 가장물들에서 볼수 있는 이 벅찬 력사의 흐름속에서 이 땅에 인민민주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조국통일의 믿음직한 성새로 되는 민주기지가 창설되였으며 점차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갈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다.

시위대렬속에서 농악소리 맞추어 어른들도 어린소년들도 얼시구 좋다고 춤에 흥겨워났다.

경쾌한 농악소리는 갑자기 장중한 《결전의 노래》 취주악으로 바뀌며 《미제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자!》라는 구호를 앞세운 륙해공군복을 입고 총창을 비껴든 시위대렬의 률동이 광장에 나타났다.

그들의 뒤를 이어 1,211고지에서 싸우는 인민군대와 후방에서 싸우는 인민들을 형상한 가장물이 나아갔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겪게 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다.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시였으며 전쟁의 매 시기 매 계단마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전술적방침들을 명철하게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매작전들을 조직하고 지휘하시였다.

1,211고지에서 싸우는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형상한 가장물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비록 한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인민들이 수령께 끝까지 충실하려는 투지로 충만되여 있음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조선인민은 국제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을 괴수로 한 16개국의 무력침범자들을 타승하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수호하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비롯한 전반적세계혁명운동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신화》는 조선에서 부서졌고 세계인민의 고혈로 살이 찐 미제는 조선에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수령의 령도를 따라 미제원쑤들을 본때있게 때려눕힌 조선인민이 전쟁의 참혹한 페허우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쌓아올리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섰던 그때를 회상시키면서 《자력갱생》이라는 힘있는 글발과 《위대한 우리 나라 사

회주의제도 만세!》라는 구호를 든 시위대렬이 씩씩하게 행진하였다.

미제원쑤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고 떠벌이던 그 혹심한 폐허우에서 우리 인민이 무엇에서 힘을 얻고 일어섰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가장 독창적이고 현명한 길인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로선과 그이께서 제시하여주신 가장 정확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방침에서 무한한 신심과 용기를 얻고 일떠섰던것이며 후대들에게 문명하고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을 물려주려는 한결같은 지향을 품고 우리 인민은 모든 곤난과 애로를 박차고 힘차게 전진하였던것이다.

광장에는 우렁찬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혁명의 후계자들의 대렬이 들어섰다.

김일성동지의 초상기를 모신 무개차와 조선소년단련합단기를 세운 무개차를 앞세우고 소년단의 대렬을 비롯한 녀학생들의 대고, 소고, 제금, 취주악대렬이 온 광장을 흔들어 지나가고 뒤를 이어 위대한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면서 지덕체를 겸비한 조국의 훌륭한 역군으로 자라나는 학생소년대렬이 계속 나아갔다.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부럼 없어요》라는 구호와 9년제기술의무교육제를 형상한 가장물과 함께 전진하던 전체 어린이들의 대렬이 멎어서자 색동저고리를 입은 꽃봉오리들이 주석단에 달려올라가 어버이 원수님께 꽃묶음을 드리는 가운데 만경대혁명학원 학생이 앞에 나가 《조선소년단원들에게 오늘의 행복을 마련하여주신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고 소리높이 축원하였다.

순간 장내에 만세와 환호성이 요란히 울려퍼졌다. 이것은 이 나라 모든 소년들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끓어넘치는 감사의 정의 반영인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띄우시고 한손을 높이 드시여 답례하시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를 형상한 가장물, 륙해공군복과 간호원복을 입은 소년단원들의 씩씩한 분렬행진, 만경대혁명학원과 해주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 학생들의 억세인 기백이 약동하는 모습, 이 뒤를 이어 김일성동지의 립상화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우리 당의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수령의 명령지시 관철에서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의 구호를 든 대학생대렬…

이 모든 흐름은 우리 나라의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를 보여줄뿐아니라 원수님의 혁명사상을 청소년시기부터 뼈와 살로 만들고있는 우리의 믿음직한 후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천리마대진군 만세!》의 힘찬 구호와 함께 네굽을 안고 질풍처럼 내닫는 3두천리마를 형상한 가장물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을 형상한 포신과 총창, 강재가 앞으로 뻗어나고 뜨락또르며 자동차, 굴착기들과 이글거리는 쇠물이 쏟아지는것을 보여주는 가장물들 그리고 천리마작업반의 기발을 손에 들고 행진하는 시위대렬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이 땅에서 일어난 거대한 전변에 대하여 힘있게 말하여 준다.

내외원쑤들의 악랄한 공격과 방해책동 속에서 그리고 경제건설분야에서의 온갖 난관앞에서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지피시여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락후를 쓸어버리고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킨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로 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과업은 승리적으로 수행되고있으며 우리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천리마의 나라로 전변되였다.

당, 국가경제기관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킨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확립,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맑스-레닌주의적길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키며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 실로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에 새롭게 해결을 기다리는 성숙된 문제들을 가장 정확하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세상사람들로부터 높이 불리우는 《사회주의의 모범》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시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자!》,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자!》는 구호들과 대고조를 형상한 가장물들이 시위대오의 도도한 기세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하에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인민이 걸어온 자랑찬 20년, 이 20년동안에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이 땅우에 이룩한 위대한 전변과 앞으로도 수령께서 가르켜주신 보다 더큰 승리에로 힘차게 나가려는 도도한 기세의 시위대렬이 련이어 광장에 들어섰다.

수력, 화력발전소의 가장물과 전력생산의 장성도표에 뒤따라 우리 공업의 기둥인 중공업의 위력을 상징하는 용광로가장물과 함께 쇠장대를 힘있게 틀어쥐고 행진하는 용해공들, 그리고 붉은 옷을 받혀입고 콸콸 쏟아지는 쇠물처럼 설레는 장엄한 률동이 그 뒤를 따르는것은 오늘의 위력한 금속공업을 일궈세워주신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보여준다.

제철, 제강, 기계, 채굴, 화학, 건재 공업 등의 가장물과 생산도표들이 우리 공업의 위력을 과시하며 나아갔다.

직포기에서 비단천필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가장물을 중심으로 빙빙돌아가는 실토리와 북을 들고 춤추며 지나가는 직포공들과 쏟아지나오는 일용품을 형상한 가장물들은 우리 경공업의 거대한 장성모습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이윽고 광장에는 농악대렬의 대집단이 농악소리를 요란히 울리며 들어섰다.

그 대렬의 복판에 농업의 발전을 보여주는 가장물우에 세사람이 《테제》를 높이 추켜들고 나가며 그 뒤로는 손을 들어 경례하며 지나가는 비알 수염을 단 《풍년할아버지》와 근위1급기발을 들고있는 《풍년할머니》며 움직이는 집짐승의 가장물들이 련달아 나타났다.

해방전에는 식량을 자급자족도 못하던 공화국북반부를 식량의 여유를 가진 곡창으로 전변시켰고 축산물, 공예작물, 남새도 다같이 빨리 발전시킨 커다란 비약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보물고에 크게 기여한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주는 길에서 이룩된 빛나는 열매이다.

건설에서, 림업에서, 철도운수와 수산업,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인민생활향상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에 대한 높은 긍지는 다양하고 생동한 가장물을 들고 행진하는 시위대오의 흐름속에서 계속 가슴 흐뭇하게 안겨왔다.

민족예술의 개화발전과 예술의 대중화에서의 커다란 성과를 과시하며 《황금의 예술》, 《세계 최고봉의 예술》, 《진정한 혁명적예술》의 나라에서 사는 자랑을 가슴가득히 안겨주는 《부채춤》, 《장고춤》, 《꽃바구니춤》, 《수건춤》, 《북춤》, 《비라춤》 등 예술소조원들의 우아한 률동대렬이 지나갔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중심으로 그이의 앞에 선 소년단 나팔수와 그이의 좌우와 뒤에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사수하여 총을 쥐고 서있는 인민군용사며 어깨에는 총을 메고 손에는 쇠장대를 잡고선 용해공과 착암기를 쥔 광부, 벼단을 안은 녀성농민과 천을 펼쳐든 방직공, 책을 든 지식인과 대학생 등 우리 전체 인민을 상징하는 군상은 바로 우리 인민의 심정을 그대로 말하여준다.

시위대렬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 만세!》라는 구호를 들고 힘있게 행진하는 뒤로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구호와 함께 나아갔다.

시위자들은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 보고에서 수령께서 제시하신 과업—계급적원쑤들에 대해서는독재를 강화하고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문제, 로동자와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더욱 촉진할데 대한 문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갈데 대한 문제 등을 관철하기 위하여 금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빨리 넘쳐끝내고 1969년에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기어코 수행하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결의가 넘쳐 흘렀다.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자!》, 《위대한 10대정강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구호를 들고 나아가는 시위자들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계속 높여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암흑의 땅 남반부에서 공화국북반부를 우러러보며 해방과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녘의 형제들도, 멀리 해외에서 갖은 민족적천대와 멸시, 빈궁속에서 허덕이다가 비로소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하에 떳떳한 주권국가 공민으로서의 당당한 영예를 떨치고 있는 재일동포들도 모두가 민족의 태양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를 흠모하며 그이의 가르침에서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고있다.

《조선혁명 만세!》, 《미제를 소멸하자!》는 구호와 함께 공화국기발을 선두로 하여 어깨를 겯고 항쟁의 거리로 원쑤들의 준동을 짓부시며 전진하는 남조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들과 어깨에 총을 멘 무장유격대원들, 반미구국투쟁에 나선 남반부인민들을 형상하며 나아가는 시위대렬이 오매에도 잊지 못하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초상화를 모시고 전진 또 전진하였다.

《남녘땅형제들을 잊지말자!》, 《일제의 재침략책동을 분쇄하자!》, 《일당백으로 준비하자!》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자!》, 《온강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자!》의 구호들이 련달아 시위대렬과 함께 전진하였다. 이에 뒤이어 남반부에 둥지를 튼 미제와 괴뢰도당들의 그 어떠한 전쟁책동도 단숨에 짓부셔버릴수 있도록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의 기치하에 금성철벽으로 꾸려진 혁명의 기지 공화국북반부의 위력을 과시하는 가장물이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뒤이어 통일의 그날 파괴된 남조선경제와 령락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구원할 북반부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실은 통일렬차가 기적소리 요란히 남으로 달리고 남북동포들이 서로 얼싸안고 《김일성원수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는 감격적인 상봉을 눈앞에 보여주는 가장물이 《통일된 조선인민 만세!》의 구호와 함께 사람들의 가슴을 환히 비쳐준다.

이윽고 광장에는 맑스, 레닌의 초상화와 함께 《맑스-레닌주의기치 만세!》, 《전세계혁명 만세!》라고 쓴 커다란 구호들을 선두로 한 시위대렬이 들어섰다.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자!》,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반제반미통일전선을 강화하자!》 등 그들이 든 구호에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이 반영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반제반미투쟁에서 세계 인민들이 모두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천재적인 전략은 시위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한없는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로부터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 《전세계민족해방운동의 걸출한 지도자》, 《반제투쟁의 상징》으로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시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사는 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이 주석단앞을 행진하는 시위대렬속에서 그리고 광장에 모여선 군중속에서 도도히 굽이치고있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친선단결 만세!》의 구호와 싸우는 웰남인민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형상한 가장물과 함께 시위자들은 미제의 무력침략을 반대하는 영웅적구국항전에 일떠선 웰남인민들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자본과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을 힘차게 지원하려는 확고한 결의를 다지며 행진하였다.

뒤이어 《로동과 국방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앞세운 체육인대렬의 씩씩한 행진이 시작되였다.

륜체조, 스케트타기, 기계체조와 배구, 그네뛰기를 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군중들은 우렁찬 박수를 보냈다.

손에손에 꽃을 들고 《김일성동지 만세!》를 열광적으로 웨치며 행진하던 수많은 군중의 대렬이 주석단앞에 이르자 그속에서 륙해공군과 로동자, 농민, 지식인, 학생들이 《수령이시여 만수무강 하십시요!》라고 쓴 댕기가 달린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주석단앞으로 나가 김일성동지께 드렸다.

온 광장이 떠나갈듯 울리는 환영곡소리와 환호소리 만세소리가운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손을 높이 드시여 군중에게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 순간 장내는 대군중의 합창 《4천만은 수령을 노래합니다》가 장중히 울려퍼지고 이어 《김일성장군의 노래》 대합창으로 넘어갔다.

그 노래에서 시작되여 그 노래로 끝난 평양시 30만 근로자들의 장엄한 시위는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친 조선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과시하였다.

공화국내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경축하는 연회를 차렸다

9월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공화국내각에서는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경축하는 연회를 차렸다.

연회에는 당과 정부 및 근로단체 책임간부들과 조선인민군 장령들, 항일혁명투사들, 공화국영웅들과 로력영웅들, 로동자, 농민들과 과학, 교육, 문화, 보건부문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또한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세계 여러나라 정부대표단, 당 및 투쟁 단체, 국제민주단체, 각국 사회단체 대표단과 대표들, 우리 나라에 와있는 각국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연회장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연회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장내를 진감하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서 그이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연회는 애국가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장내를 진감하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서 연설을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일편단심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새로운 승리의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할 확고부동한 결의를 표시하였다.

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로동자, 농민, 군인, 녀성, 과학예술인 대표들이 그이의 만수무강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축배를 올리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손님들과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또한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축배를 들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전체 연회참가자들은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영웅적웰남인민들의 빛나는 투쟁성과와 앞으로 보다큰 전투적 승리를 위하여 축배를 들었다.

연회는 시종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와 충성심이 넘쳐흐르고 위대한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치여 조국의 통일과 공화국의 무궁한 륭성발전을 위하여,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여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굳은 결의가 충만된 가운데 진행되였다.

1968년에 진행된 주요 회의 및 대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사회하에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는 또한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 당중앙위원회와 근로단체 일군들, 성, 중앙 기관 일군들, 지방 당 및 행정경제기관 일군들 그리고 공장, 기업소 일군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 잘하기 위한 1968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

2,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하여

의정 첫째문제에 대하여는 보고가 있는 후 많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의정 둘째문제에 대해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7차전원회의결정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가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사회하에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또한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 당중앙위원회와 성, 중앙기관일군들, 근로단체일군들, 지방 당 및 행정경제기관 일군들 그리고 공장,기업소 일군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 철도운수를 비롯한 전반적 수송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전원회의 결정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의 집행정형 중간총화에 대하여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의정 첫째문제를 토의하면서 지난 기간 이 부문에서 거둔 커다란 성과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첫날부터 교통운수의 발전을 앞세우며 그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쌓을데 대한 정확한 방침을 내세웠으며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교통운수발전의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교통운수는 력사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에 전쟁에 의한 혹심한 피해를 가시고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식민지적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을 없앴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수송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는 위력한 운수로 발전하였다.

특히 전국의 철도를 전기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짧은 기간에 중요간선들에서 철도전기화가 기본적으로 끝났으며 견인력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수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할바없이 튼튼하여지고 과거에 비하여 몇배나 높아진 수송계획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전원회의는 우리 나라 교통운수가 오늘과 같이 강력한 자립적인 사회주의교통운수로 빨리 강화발전된것은 운수부문에 구현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며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의 결과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지난 기간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부문일군들이 이미 마련해놓은 운수수단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기술개건을 적극 추진시켜 수송능력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전반적으로 인민경제가 높은 속도로 발전하도록 훌륭히 보장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전원회의는 장성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달리는 천리마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전반적수송사업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교통운수부문앞에 나선 무겁고도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이 부문 일군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원회의는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각급 당조직들이 이부문 일군들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속

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그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당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와 기술을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그들속에서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며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도록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과 간부양성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철도를 비롯한 운수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자각적규률과 혁명적질서를 세움으로써 정시무사고운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운수부문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각 부문별로 구체적 대책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나라 화물수송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는 철도운수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요하게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자동차수송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리용률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자동차수송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졌으며 화물류동이 복잡해진 오늘의 조건에서 자동차리용률을 높이는데서 자동차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며 통일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전원회의는 지적하면서 여기에서 이미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자동차 관리체계를 더욱 개선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삼면이 바다로 되여있고 큰 하천들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과 경제적조건에 맞게 수상운수를 발전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바다와 강하천수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배를 더 많이 무어주며 배길을 적극 개척하고 수상운수망을 더 많이 늘이며 항만과 포구들을 개건확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의정 둘째문제에 대하여서도 심중히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인민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한 대책적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행정에서 주요하게 제기되는 과업이며 특히 오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당의 혁명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나라의 로력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데 당조직들과 모든 일군들이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가장 선차적인 과업은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근로대중의 정치사상의식수준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그들의 정치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적극 발양시키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원회의는 로동규률을 강화하며 모든 단위들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며 모든 로력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할데 대하여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모든 부문 모든 초소들에서 기술혁명을 촉진하며 기술혁신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보다 적은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여 1인당 생산액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각급 당조직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위에 굳게 뭉쳐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며 금번 전원회의결정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한층더 튼튼히 다지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달성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회의는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2차회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2차회의가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였다.

회의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결정과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남조선혁명을 적극 지원하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도당을 쓸어버리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더욱 확대강화되고있는 환경속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그리고 방청으로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경제,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예술부문 일군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또한 회의에는 우리 나라에 와있는 각국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회의에 참가한 전체 대의원들과 회의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심이 충만되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장내를 진감하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민족의 태양이신 그이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67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보고가 있은 후 많은 대의원들이 토론하였다.

회의에서는 1967년 국가예산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으킨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속에서 성과적으로 집행되였으며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결정에 따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며 인민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어렵고도 방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967년에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일층 강화되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되여 나라의 방위력이 더욱 철벽으로 다져지고 인민생활이 부단히 높아졌다.

이 모든 성과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며 그이의 현명하고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회의에서는 우리가 미제의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짓부시고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은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제때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였기때문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이 혁명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공업생산에서의 커다란 성과는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 전진속도를 높일수 없다는 그릇된 견해를 짓부셨으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불러일으키고 조직사업을 잘하며 기술을 발전시키고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한다면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견지하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였다고 강조하였다.

1967년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을 과시하는것이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한 우리 나라 재정의 우월성과 자립성과 공고성을 확증하는것으로 된다.

회의에서는 또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새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파탄의 일로를 걷고있는 남조선경제의 파괴상과 미제의 전쟁정책에 복무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철두철미 반인민적이며 략탈적인 망국 《예산》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남조선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남조선인민들이 잘 살수 있는 길은 오직 미제와 그 주구들을 때려부시고 인민들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는 길이며 공화국기치하에 조국을 통일하는 길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회의에서는 1968년도 국가예산이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결정과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에 제시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4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앙양되고있는 혁명적대고조를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작성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회의는 1968년도 국가예산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과업과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당과 국가의 제반 시책과 혁명적대고조의 현실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반영함으로써 천리마대진군에 떨쳐나서서 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일전으로 년간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증산과 절약투쟁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집행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특히 토론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부단히 혁명화함으로써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어떤 역경속에서나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수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당의 붉은 혁명전사가 될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토론자들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고도로 발양하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이 불러일으키고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있는 설비, 있는 밑천,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67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는 결정과 1968년 국가예산에 대한 법령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3일간에 걸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2차회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의 정당성과 위력,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한번 시위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제4차대회

조선직업총동맹 제4차대회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대회는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으며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이 날을 따라 더욱 확대발전하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소집되였다.

대회에는 각도(직할시) 직맹대표회들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또한 당 및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조선인민군 간부들, 과학, 문화, 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또한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매국도당의 파쑈폭압속에서도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굴함없이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의 대표들도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몸가까이 모신 영광의 대회장은 지난 40여년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번영에로 이끌어주시고계시며 우리 로동계급을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주력군으로 키워주신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불같은 충성심으로 뜨겁게 설레이고있었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영광스러운 력사도,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이룩한 모든 찬란한 성과도,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도, 우리 나라 직업동맹의 창건과 강화발전도 결코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우리 로동계급을 나라의 령도계급으로, 혁명의 주력군으로 믿으시고 그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령도적역할과 계급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해방후 그이께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 실현에로 로동계급의 조직된 력량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곧 직업동맹을 창립하시였을뿐만아니라 독창적인 직업동맹건설방침과 매 시기 직업동맹이 나아갈 길을 명확히 밝혀주시면서 그를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다.

직업동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로동운동과 직업동맹건설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로서 동맹원들과 광범한 근로대중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그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묶어세워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할데 대한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대회가 열리는날 아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장내를 진감하는 《김일성동지만세!》의 우렁찬 환호와 그칠줄 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정을 토의하였다.

1,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2, 조선직업총동맹 중앙검사위원회사업총화에 대하여

3, 조선직업총동맹 규약개정에 대하여

4,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지도기관선거에 대하여

대회에서는 먼저 조선직업총동맹 제4차대회에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밑에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직업동맹운동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직업동맹조직을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부른 당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은 대회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와 투지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축하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을 반드시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실히 보답할 결의를 굳게 다졌다.

대회에서는 의정 순위에 따라 첫째문제, 둘째문제, 셋째문제들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으며 이어 대표자격심사위원회 보고가 있었고 이것을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의정 첫째, 둘째, 셋째문제들에 대한 토론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직맹운동은 우리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당과 조선직업총동맹의 창건자이신 우리 로동계급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조선의 우수한 로동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지도하신 항일무장대오와 혁명적인 반일대중단체에 적극 참가하여 영웅하게 투쟁하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서 조국청사

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항일무장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되였고 로동계급의 대중적혁명조직의 사업경험들이 쌓아졌다. 이것은 오늘 우리 나라 직맹운동의 귀중한 밑천으로서 조선직업총동맹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창건하신 조선직업총동맹은 창립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로동계급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당의 혁명위업실천에 적극 조직동원함으로써 우리 당의 강력한 인전대이며 믿음직한 방조자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직맹건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로동계급의 대오를 공산주의적붉은대오로 튼튼히 꾸리였으며 전동맹안에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웠다.

오늘 조선직업총동맹은 전동맹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단결되고 자기 대렬안에 200여만명의 직맹원을 망라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대중조직으로 자라났으며 당과 수령께서 주시는 어떤 어려운 혁명임무도 능히 담당수행할수 있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당과 수령께서 제시하시는 혁명과업실천에로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당과 수령의 부름따라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집단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천리마 조선의 영예를 온세상에 빛내게 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우리 당 제4차대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수령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받들고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산산이 짓부시면서 혁명적대고조의 세찬 불길을 높이 추켜올렸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국방력을 반석같이 다지는데서 선봉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우리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그리고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되였다.

대회에서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직업동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승리의 로정과 이 과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와 업적들을 로동운동과 직업동맹 건설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방침과 그이의 현명하고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하면서 우리 로동계급을 나라의 령도계급으로, 혁명의 주력군으로 키워주시고 우리 나라 로동운동과 직업동맹운동을 항상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주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그리고 토론자들은 공화국창건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휘황한 길을 따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힘차게 조직동원할 구체적과업들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 제3일회의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가 오래도록 계속되는 가운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혁명과 건설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고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열화같은 충성심이 더욱 충만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모두가 자신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수령께서 펼쳐주신 영광스러운 혁명의 대로를 따라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힘있게 전진할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대회에서는 남조선 로동자대표의 연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결정서와 조선직업총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승인에 대한 결정서를 각각 채택하였다.

또한 조선직업총동맹 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대회는 남조선로동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열화같은 박수속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대회에서는 천리마강선제강소, 천리마만경대협동농장 등 국내 각지에서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와 해외동포들, 그리고 세계직련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여러나라 직맹단체들로부터 대회에 보내온 많은 축하문과 축전들이 소개되였다.

계속하여 대회는 의정 네번째 문제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지도기관선거를 하였다. 전원찬성으로 중앙위원회 위원 125명과 후보

위원 55명, 중앙검사위원회 위원 7명과 후보위원 3명을 선거하였다.

이어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사위원회 제1차전원회의를 각각 진행하였다. 중앙위원회 제1차전원회의에서는 집행위원회를 선거한 다음 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거하였다.

12월 19일 회의가 페막되는 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대회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당과 수령의 부름따라 전동맹내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동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계속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직업동맹앞에 나선 임무를 빛나게 완수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전국농업일군대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1968년 2월 13일과 14일 전국농업일군대회가 진행되였다.

전국농업일군대회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온 나라가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들끓고있는 환경속에서 열리였다.

대회에는 전국각지 협동농장 분조장, 작업반장, 관리위원장들과 리당위원회 비서들, 농업부문 대학교원들, 각급 당 및 농업 지도기관 일군들, 중앙기관 일군들 2천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결정과 1967년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심장깊이 새기고 농업생산을 급속히 앙양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을뿐아니라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면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농업전사로 자라나고있는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농업부문일군들을 대표하여 대회장에 모인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대회를 가지게 되는 커다란 긍지와 무한한 기쁨이 어리여있었다.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불같은 흠모와 충성의 정을 안고 한없이 격동된 마음으로 그이께서 주석단에 나오시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의 끓어넘치는 환호속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셨다.

순간 대회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오매에도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그리며 흠모하여마지 않던 그이를 우러러 회의장이 떠나갈듯 《김일성동지 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또 부르며 그칠줄 모르는 열렬한 환호를 보내였다.

대회장은 지난날 온갖 압박과 착취 밑에서 신음하던 자기들을 오늘과 같은 자유와 행복,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끌어주시였을뿐만아니라 전체 농민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대로를 휘황히 밝혀주시고 끝없이 희망찬 그 길로 확고히 인도하여주시고계시는 위대하신 어버이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으로 들끓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 농촌은 해마다 풍년만 드는 풍요한 농촌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농민들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 착취와 억압의 질곡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회주의농촌의 진정한 주인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되였다.

오늘 농민들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세금도, 약값도, 교육비도 모르며 다 같이 기계로 헐하게 일하고 다 같이 마음껏 배우고 다 같이 무병장수하며 다 같이 잘 사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무한히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희망차게 일하고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전변은 오로지 조국의 륭성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우리 농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항상 심려하시고 모든것을 아낌없이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높은 덕성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 조국의 광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백두밀림의 설한풍속에서 장기간에 걸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하시고 령도하시여 마침내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빼앗겼던 조국을 다시 찾아주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그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헐벗고 굶주리는 조선농민들의 처지를 가슴아파하시고 그들에게 사회적해방과 자유와 행복을 안겨줄 원대한 구상을 익히시였으며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의 토지문제의 해결경험과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농촌문제해결의 깊은 뿌리를 마련하시였다.

그리고 해방후에는 이에 기초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을 사회주의적협동화의 대로로 곧바로 이끌어주시였으며 사회주의협동화가 완성된 이후에도 농민문제, 농업문제에서 제기되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훌륭히 해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실천적경험을 과학적으로 집대성하고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

는 근본적이며 가장 힘들고 복잡한 문제의 하나인 사회주의농촌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신 위대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완성된 이후에도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며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기업적방법에 의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협동화된 농촌의 새환경에 맞게 농촌지도사업을 개선하며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강화하는 기본열쇠로 되고있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고있는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막대한 국가적부담으로 농민들에게 방대한 생산시설과 문화주택, 교육문화시설과 편의봉사시설을 무료로 건설하여주도록 하시였으며 농산물수매가격을 높여주고 농업현물세제를 폐지하고 농기계작업료를 대폭 낮추는 등 실로 헤아릴수 없이 많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어버이수령께서는 농민들이 일하는 들과 마을에 몸소 찾아가시여 친 어버이의 심정으로 농장살림살이를 의논해주시며 잘된 일을 같이 기뻐하시고 힘든 일은 풀어주시며 농민들이 나아갈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였다.

하기에 대회참가자들은 수령을 우러러 끝없이 찬호를 올리는것이였다.

대회에서는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켜 농업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는 경애하는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7년 2월에 있은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와 1966년 11월 황해남도 해주에서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농업일군들과 협동농장원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립각하여 진행되는 강력하고도 책임적인 전국가적 전인민적 지원을 받으면서 드높은 혁명적열의로 천리마의 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와 농민들이 누리고있는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면서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나라에서만이 이러한 변혁, 이러한 행복한 생활이 이룩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지난해 우리 나라 농업생산에서 전례없는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기하신 분조관리제가 정확히 도입됨으로써 농촌에서 우리 당의 모든 농업정책이 더 잘 관철되고 협동농장관리운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농민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열성이 비상히 높아지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게된 결과이라고 강조하고 분조관리제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보고자는 사회주의농촌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운영을 변천된 새환경에 맞게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제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그리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분조관리제의 창조와 도입 과정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 우월성을 구체적사실들을 들어 론증하였다.

끝으로 보고자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분조관리제를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농업생산을 가일층 앙양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제반 과업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전체 협동농장원들과 농업부문일군들이 자신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그 이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굳게 뭉쳐 이해 농업부문 앞에 맡겨진 전투적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보고에 이어 많은 동무들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협동농장원들과 농업부문일군들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대표자회결정과 농업부문일군들에게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자신들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천리마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1967년에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자기들이 달성한 모든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토론자들은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령도하고계시며 과거에 천대받고 못살던 우리 농민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주시였을 뿐아니라 사회주의협동화의 길로 확신성있게 인도하시여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하고 희망찬 새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강력히 추진되고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지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되고 농업생산에 현대적과학기술의 성과가 광범히 도입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를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결의들을 다지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당대표자회가 내놓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관철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

방력을 철벽으로 다지며 가까운 년간에 인민들의 생활을 훨씬 높일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일치하게 이미 쟁취한 승리에 조금도 자만함이 없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며 이해에 다시 한번 정당 500키로그람의 알곡을 증수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할것을 결의하였다.

계속하여 토론자들은 농촌경리부문 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 농업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함으로써 그들을 언제 어데서나 김일성동지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이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이의 명령지시를 관철하는데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되게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릴것을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농촌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농업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협동농장관리운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깊은 주의를 돌리였으며 분조관리제를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특히 토론자들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광란적인 새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경각성과 전투적긴장성을 고도로 높이고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다른 한손에는 총을 튼튼히 틀어잡고 농촌경리부문 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김일성동지 만세!》의 우렁찬 환호와 그칠줄 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위대하신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표시하였다.

대회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대회에서 주신 경애하는 수령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자신을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천리마의 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이해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에서 또다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경애하는 수령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전국렬사가족및영예군인가족대회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1968년 3월 1일부터 2일까지 전국렬사가족및영예군인가족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결정과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을 받들고 전국이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혁명적 대고조로 들끓고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무장투쟁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혁명투쟁이 더욱 확대강화되고있는 환경속에서, 특히는 철천지원쑤 미제가 침략전쟁도발책동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는 정세하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손에 무장을 들고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희생된 항일투사들의 안해들과 어머니들과 딸들,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과 후방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목숨바친 혁명전사들의 안해들과 어머니들과 딸들, 미제승냥이들을 때려눕히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조국과 인민을 피로써 지켰으며 오늘은 사회주의건설의 각부문에서 수령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계속 혁명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있는 영예군인들의 친근한 방조자가 되여 함께 혁명의 초소에 굳게 서있는 그들의 안해들이 참가하였다.

자기들을 일편단심 당과 수령께 충직한 붉은 공산주의투사로, 남편들과 자식들과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이어 그들이 다하지 못한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하여 나갈수 있는 녀성혁명가로 키워주신 위대한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이 뜻깊은 대회를 가지게 된 모든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무한한 영광과 행복감이 어리여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오시기를 정숙히 기다리고있는 시각, 대회장에 모인 전체 참가자들의 심장은 위대하고 영명하신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충성심으로 하여 그이의 혁명전사된 크나큰 영예와 긍지로 하여 한없이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들의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이 사상감정은 자신의 모든것과 조국의 운명을 전적으로 수령께 의탁하고 오직 한마음 그이를 따라 살며 투쟁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에 기초를 두고있는 것이다.

대회가 열리는 날 아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셨다.

순간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김일성동지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면서 수령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우뢰와 같은 박수가 장내를 진감하는 가운데 렬사가족, 영예군인가족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대회참가자들과 우리 나라 전체 렬사가족 및 영예군인가족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담긴 꽃바구니를 올리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경애하는 수령을 우러러 웨치는 만세의 환호는 그칠줄 몰랐으며 온 장내는 수령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 오직 이 하나의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더욱 뜨겁게 설레였다.

언제 어디서나 렬사가족 및 영예군인가족들과 함께 계시면서 즐거울때는 같이 기뻐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걱정하시고 풀어주시며 태산도 떠옮길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수령, 남편들과 자식들과 아버지, 어머니들을 대신하여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뜨거운 혈육의 정으로 자기들을 가르치시고 보살피시여 혁명의 대를 굿굿이 이어나가는 투사로 키워주신 수령, 그렇듯 흠모하여마지않으며 뵈옵고싶던 위대하신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만세를 부르고 또 부르는 대회참가자들의 영광과 행복에 겨운 얼굴마다에는 무한한 감격의 이슬이 맺히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렬사가족들과 영예군인가족들에게 항상 뜨거운 사랑과 극진한 배려를 베푸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을 수령의 충직한 전사들인 남편들과 자식들과 아버지, 어머니들의 혁명위업을 이어받아 혁명의 길, 영광의 길을 굿굿이 걸어나갈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그들에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가장 숭고한 신념과 불굴의 혁명정신과 무궁무진한 힘을 안겨주시였다.

오늘 렬사가족들과 영예군인가족들은 자기들의 남편과 자식들과 아버지, 어머니들을 혁명에 바친것을 영광으로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그들의 뜻을 이어 일편단심 수령을 받들고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다 바쳐 싸울 불같은 결의로 충만되여있다.

대회에서는 《**렬사가족 및 영예군인가족들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자!**》라는 제목의 보고가 있은 후 많은 렬사가족들과 영예군인가족들이 토론하였다.

보고에서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서와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수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운 항일혁명선렬들과 영웅전사들 그리고 영예군인들의 빛나는 투쟁업적과 그들의 뜻을 이어 혁명의 한길에서 굿굿이 싸워온 렬사가족들과 영예군인가족들의 투쟁성과들을 자랑스럽게 지적하였다.

또한 보고에서는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희생된 렬사들과 영예군인들의 가족들을 혁명의 대를 이어 나가도록 교양하시고 마음놓고 혁명과 건설에 참가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 주시면서 그들을 혁명가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의 깊은 사랑과 크나큰 배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렬사가족들과 영예군인가족들은 그이께서 그처럼 믿고 사랑하시는 혁명의 골간부대로서의 자신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느때나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일편단심 수령께 모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보고에서는 또한 렬사가족들과 영예군인가족들은 자신과 가정, 일터와 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특히 미제의 새전쟁도발책동이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른 현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 더 많이, 더 빨리, 더 잘 생산하고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며 만약 미제침략자들이 새 전쟁을 일으킨다면 남편들과 자식들과 아버지, 어머니들에게서 물려받은 총을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영웅적인민군대와 함께 원쑤들을 단매에 쓸어눕히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할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다음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을 수령의 충직한 전사들인 남편들과 자식들과 아버지, 어머니들이 수행하여온 혁명위업을 이어받아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사업과 생활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살며 혁명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는 오늘의 영광스럽고 보람찬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토론하면서 모두가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이신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워 훌륭한 혁명가의 안해, 혁명가의 어머니가 되며 자신이 혁명가로 되여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 충성을 다하며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결정과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중의 모범이 되고 사회주의전취물을 굳게 지키며 남녘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인민을 해방하며 조국을 통일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쟁취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특히 그들은 자기들의 사랑하는 남편들과 자식들과 아버지, 어머니들을 빼앗아간 피맺힌 원쑤이며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매국역적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표시하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통치를 쓸어버리기 위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혁명투쟁에 전투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였다. 그리고 만약

마제가 또다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영웅적인민군대와 함께 끝까지 싸워 놈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철저히 소멸하고 원쑤들에게 천백배의 복수의 죽음을 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호와 우뢰와 같은 박수속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전체 참가자들의 일치한 지지 찬동으로 남조선의 렬사가족들과 혁명가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대회는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심을 담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힘찬 합창으로 끝났다.

전국렬사가족및영예군인가족대회는 렬사가족들과 영예군인가족들에 대한 당과 수령의 또하나의 두터운 신임과 크나큰 배려의 표시로 된다. 대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우리 당이 렬사가족 및 영예군인가족들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들의 투쟁과 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과 뜨거운 배려를 돌리고있는가를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진행된 이 대회는 렬사가족들과 영예군인가족들로 하여금 지난시기 자기의 남편과 자녀들이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몸바쳐 수행하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수행하도록 하는데서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대회는 또한 전체 인민들과 함께 모든 렬사가족들과 영예군인가족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전쟁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추도록 함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전국청년총동원대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전국청년총동원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결정과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전국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이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철천지원쑤 미제가 전쟁소동을 더욱 미친듯이 벌림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긴장된 사태가 조성된 정세하에서 소집되였다.

이러한 정세로부터 당과 수령께서는 우리 인민과 청년들에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키고 천리마의 대진군을 다그쳐 나라의 방위력과 경제적위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며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출것을 요구하였다.

대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조국의 통일과 혁명을 위하여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수령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는 근위대, 결사대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게하며 원쑤들과 끝까지 싸울 혁명적각오를 굳게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의 앞장에서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 원쑤들이 덤벼들면 단숨에 족칠 철저한 정신적 및 물질적준비를 갖추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전투적과업들을 토의하게 되였다.

대회에는 자신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면서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견결히 옹호관철하고있는 로동청년, 농민청년 및 사무원청년들, 항일혁명투사들이 물려준 혁명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키며 원쑤들이 덤벼든다면 단매에 때려눕히고 조국을 통일할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있는 간부화되고 현대화된 일당백의 청년군인들, 당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면서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공산주의건설의 역군으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는 학생청년들과 그리고 사로청일군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번영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에서 수령의 극진한 사랑의 손길아래 혁명의 후계자로 굳세게 자라나는 크나큰 영예와 혁명과 건설에 청춘의 한몸을 바치고있다는 높은 긍지, 어버이수령을 모신 이 영광스러운 대회에 모여온 남녀청년들의 얼굴마다에는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어리여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나오시기를 기다리는 대회장은 우리 인민과 청년들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끌어주시며 우리 청년들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피시여 조선혁명의 기둥으로 키워주시는 어버이수령에 대한 끓어넘치는 흠모와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하여, 영명하신 수령의 전사,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백전백승의 로동당의 아들딸된 영예와 긍지로 하여 뜨겁게 설레이고있었다.

청년들의 심장마다에 불타는 이 숭고한 사상감정은 일편단심 수령을 따라 배우고 살며 싸워오는 과정에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박힌 신념에서 흘러나온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과 청년들

은 수령을 그처럼 열렬히 흠모하며 조국의 운명과 자신의 귀중한 모든것을 전적으로 그이께 의탁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나 추호의 동요 없이 일편단심 그이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제일생명으로, 첫째가는 의무로 간주하고있는것이다.

대회가 열리는 날 아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김일성동지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그이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우뢰와 같은 박수는 오래동안 그칠줄을 몰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그 간고한 시기에도 자신은 비록 춥게 지내시고 끼니를 건느시면서도 어린 대원들에게만은 뜨뜻이 입히고 배불리 먹이려고 언제나 심려하시였으며 그들에게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시고 전투속에서 청년공산주의투사로, 백절불굴의 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어버이 수령께서는 해방직후 복잡한 정세하에서 우리 나라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눈내리는 밤중에 청년동맹사무실을 찾아 우리 나라 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으며 책상우에 얼굴을 묻고 곤히 잠든 청년일군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시는 등 참으로 자애로운 손길로서 우리 청년일군들을 훌륭한 간부로 키워주시였다.

또한 수령께서는 나라 잃은 탓으로 헐벗고 굶주리며 배우지 못한 청년들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손수 터전을 잡아 유서깊은 만경대의 아름다운 모란봉기슭에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을 세우시고 초등, 중등 의무교육제를 거쳐 오늘은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였다.

어버이 수령께서는 또한 온강토가 전쟁의 불길속에 휩싸인 조국해방전쟁의 그 준엄한 나날,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위대한 승리에로 조직동원하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타는 고지우의 전호들을 몸소 찾으시여 격전에서 승리한 전사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고 밤중에 화선천리에 전화까지 걸으시여 청춘의 가슴으로 조국의 촌토를 지켜선 전사들이 환절기에 감기라도 걸릴세라 근심하시고 그들에게 구미에 맞는 음식을 먹일데 대해서까지 념려하시고 배려하여 주시였다.

진정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도, 건설도 후대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하시고 후대들을 위해서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제일 좋고 귀중한것을 후대들에게 선참으로 돌려주시는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시다.

세상에는 영예와 행복, 긍지도 많지만 조선에서 태여나 위대하고 자애로운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투쟁하며 생활하는 영예와 행복, 그이의 혁명전사로된 긍지보다 더 큰 영예와 행복, 긍지는 이 세상에 없다.

하기에 대회장은 수령에 대한 충성의 일념으로 비록 한몸이 부서져 가루가 될지언정 그이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청년들의 결의와 투지로 가득찼었다.

대회에서는 《**전체 청년들은 조국의 통일과 혁명을 위하여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의 명령 지시관철에서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라는 제목의 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는 미제침략자들의 광란적인 전쟁소동으로 인하여 조성된 긴장된 정세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러한 시기에 열린 본대회는 우리 청년들을 원쑤들과 끝까지 싸울 혁명적각오를 굳게 다지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부문의 앞장에 서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 만단의 정신적준비를 더 잘 갖추기 위한 투쟁에 총동원시킬것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전체 청년들은 조국의 통일과 혁명을 위하여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의 명령지시 관철에서 근위대, 결사대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 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보고자는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청년운동과 청년들에게 베풀어주신 깊은 배려와 한량없는 육친적사랑에 대하여서와 수령께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한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투쟁으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앞에 세운 불멸의 위훈에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면서 현시기 청년들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현명한 령도하에 이룩된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으로 지키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의 앞장에 서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춤으로써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또한 우리 나라 전체 청년들을 대표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이 물려준 총검을 높이 들고 수령의 령도하에 항일혁명투사들이 시작한 혁명위업을 완성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음을 그이께 보고하였다.

보고자는 계속하여 전체 청년들에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그이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뭉쳐 오직 수령께서 부르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천리마의 대진군에 총동원하며 어떠한 애로와 난관도 물리치면서 질풍같이 전진 또 전진할것을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많은 동무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와 깊은 배려에 의하여 열린 전국청년총동원대회에 참가하게 된 무한한 감격과 영광에 대하여 말하면서 대회참가자들과 전국청년들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 일찌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40여년간 우리 나라 혁명과 조선청년운동을

영광찬란한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으며 우리 청년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공산주의투사로 키워주시고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시며 자기들에게 높은 신임과 크나큰 기대를 표시하여주시고계시는 우리 인민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토론자들은 어버이수령의 끝없는 배려와 사랑속에서 우리 나라 청년들이 누리고있는 크나큰 행복에 대하여 말하면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결정과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10대정강, 수령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을 담당하고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 진진하여 이룩한 거대한 성과를 자랑스럽게 지적하면서 이 모든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미제의 전쟁도발소동이 그 어느때보다 로골화되고있는 정세하에서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을 일층 촉진시키며 미제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며 남조선형제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우리 세대에 성취하고야 말 결의를 다지였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당과 수령을 옹호하고 목숨으로 보위하는것이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이어나갈 조선청년들에게 있어서 제일생명이며 첫째가는 사명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할것을 결의하였다.

토론자들은 전체 조선청년들의 한결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조국의 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륭성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가일층의 발전과 승리를 위하여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대회 마감날인 4월 13일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시며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끌어주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전체 청년들의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이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수령의 강령적인 교시를 직접 받게된 무한한 감격과 그이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굳은 결의를 표시하였다.

대회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우뢰와 같은 박수속에 채택하였다.

또한 대회는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대회는 끝났다.

이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대회의 전과정은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세계혁명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나라 청년들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였다.

대회는 온나라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결정과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이 날을 따라 더욱 앙양되고 전체 조선인민이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소집되였다.

대회에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초소들에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천리마기수들과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남조선혁명을 지원하고 조국을 통일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는 영웅적 조선인민군 및 경비대 붉은기구분대 군인들 그리고 직업동맹일군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온 겨레가 오매에도 그리며 흠모하여 마지않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몸가까이 모실 영광의 대회장은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번영에로 인도하여주시며 우리 로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믿고 육친의 정으로 보살피시여 나라의 령도계급으로, 천리마운동선구자로 키워주신 위대하신 수령에 대한 무한한 경모와 충성의 열정으로, 그이의 혁명전사된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충만되여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떼여놓고는 조국의 광복과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달성한 그 모든 찬란한 승리도, 조선혁명의 령도계급으로서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온 우리 로동계급의 자랑찬 투쟁 행로도, 오늘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도, 조국의 통일도, 삼천리 강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꽃필 휘황한 미래에 대해서도 결코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 파쑈테로통치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이 심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온 겨레가 혁명의 수령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시기 민족의 태양으로 거연히 솟아 불패의 맑스-레닌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광복의 홰불로 캄캄한 조국땅을 밝히시며 15성상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하시고 령도하시여 마침내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였다.

수령께서는 해방후 우리 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인 조선로동당과 진정한 인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으며 당과 인민을 령도하시여 미제를 괴수로한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인민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로 힘있게 이끄시여 짧은 기간내에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확고히 수립하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유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에게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의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고 그 길로 곧게 이끌어주시였으며 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을 분쇄하고 우리 혁명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지위를 확고히 보장하여주시였으며 우리 로동계급이 주권을 자기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자기모양대로 개조하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갈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영웅적로동계급은 일편단심 그이께 무한히 충실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견결히 옹호하였다. 특히 그들은 1957년 5개년계획의 첫 걸음을 떼던 시기 우리의 경제적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내외 원쑤들의 발악적책동이 악랄한 조건하에서 이 난국을 타개하며 조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수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분연히 궐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원쑤들을 전률케하고 이 땅우에 천리마시대의 위대한 새력사를 펼쳐놓았다.

천리마운동의 세찬 불길속에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결정과 1960년 8월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주신 경애하는 수령의 강령적 교시를 성과적으로 관철하여왔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무수한 기적과 혁신으로 로동당시대를 찬란히 수놓았다.

또한 우리 로동계급은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치여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기어이 관철하라는 수령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 혁신을 일으켰으며 계속 그 기세 일당백의 혁명적기백으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고있다.

이 벅찬 투쟁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더욱더 깊어가고있다.

대회가 시작되는날 아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장내를 진감하는 《김일성동지만세!》의 우렁찬 환호와 그칠줄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경애하는 수령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대회에서는 먼저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 보내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단결하여 위대한 천리마운동에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이 달성한 빛나는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그들을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부른 축하문은 대회참가자들의 혁명적열성과 투지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이어 대회에서는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정형 총화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천리마의 대고조를 이룩할데 대하여》** 보고가 있었으며 많은 천리마기수들이 토론하였다.

대회에서 보고자는 대회가 소집된 환경과 대회가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발생한때로부터 10년,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가 있은때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면서 이 기간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전변이 이룩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보고자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해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발생 발전한데 대하여 언급하고 김일성동지께서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주신 강령적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서 달성한 제반 성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렬거하면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보고자는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위대한 전변과 천리마운동에서 달성된 커다란 성과는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끝으로 수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 원쑤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어느때든지 단매에 때려눕힐수 있게 만단의 정치 사상적 및 물질적준비를 철저히 갖출데 대한 상세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대회에서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수령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지도하시는 이 뜻 깊은 대회에 참가하여 그간 자기들이 달성한 커다란 성과를 그이께 보고하게된 기쁨과 수령의 넓고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일하며 생활하고있는 무한한 행복에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 로동계급을 항상 혁명의 주력군으로, 천리마운동의 선구자로 키워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주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세찬 불길속에서 자기들이 이룩한 성과들, 조국의 방선과 강철전선, 채굴전선, 기계전선, 수송전선, 경공업전선등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이룩한 기적과 혁신들에 대하여 경애하는 수령께 자랑스럽게 보고하였다.

그들은 우리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반석같이 다지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위력한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본보기로, 반제반미투쟁의 모범으로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였다고 한결같이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이 달성한 모든 성과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이 심화되여 모두가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한 결과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성과는 우리 당 주체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을 과시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달성한 모든 성과는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 전진속도를 높일수 없다는 썩어빠진 수정주의적궤변을 산산이 짓부시고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뚜렷이 실증하였다고 말하였다.

특히 대회 마감날인 5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천리마 기수들에게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교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혁명적대고조를 견지하며 전체 근로자들과 천리마기수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우리의 혁명력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강령적 지침이다.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직접 받은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그이께서 주신 교시를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실히 보답할 굳은 결의를 다졌다.

대회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장내를 진감하는 우뢰와 같은 박수속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남조선로동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로동계급과 전체 천리마기수들의 다함없는 충성심이 충만된 가운데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우렁찬 합창으로 끝났다.

조선인민군 붉은기중대군인열성자대회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시며 고무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6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조선인민군붉은기중대군인열성자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결정과 김일성원수께서 제시하신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인민군대에 대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두터운 신임과 사랑속에서 소집되였다.

대회에는 인민군대내에서 붉은기중대운동을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구분대를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찬 공산주의 붉은 집단으로,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꾸리는데 앞장서나가고있는 붉은기중대군인열성자들과 구분대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자기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경애하는 수령께 보고하고 새로운 과업을 받기 위해 대회에 달려온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수령께서 제시하신 전투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한 무한한 긍지와 전투적기백이 어리여 있었다.

오매에도 그리며 흠모하여 마지않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나오시기를 기다리는 대회참가자들은 일찌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때로부터 40여년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온갖 풍파를 몸소 헤치시며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으며 자위의 군사로선을 제시하시고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계단마다 인민무력건설의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친히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조직지도하시여 인민군대를 오늘과 같은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과 그이의 전사된 긍지를 안고 수령의 손길따라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탁월한 령도, 두터운 배려를 떠나서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이룩한 모든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는 민족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처하였던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우리 인민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몸소 그 진두에 서시여 15성상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직하시고 령도하시여 마침내 강도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광복하시였으며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여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격파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조선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시였다.

수령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의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이끄시여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내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는 미제의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시기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과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을 조직동원하시여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현대화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시였으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우리의 온 강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꾸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친히 이끌어주신 붉은기중대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인민군대는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차고 모든 군인들이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려는 한결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는 강철의 혁명대오로 자랐으며, 장병들간의 동지적우애와 자각적규률,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 등 아름답고 고상한 공산주의적기풍이 인민군대의 온 대오를 지배하게 되였다.

수령의 위대한 품속에서 인민군대의 핵심인 혁명적골간이 수많이 새로 자라나 오늘 우리의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가한 오랜 혁명투사들과 함께 새로 자라난 수천수만의 혁명적골간으로 꾸려진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되고 일편단심 그이께 무한히 충직한 인민군 군인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생명도 청춘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으며 언제 어떤 역경속에서도 《김일성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하였으며 그이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않고 철저히 관철하였다.

오직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는 인민군 군인들은 수령께서 지펴주신 붉은기중대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면서 전투준비와 전투력강화에서 일당백의 혁명적기백으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고있다.

회의가 시작되는날 아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장내를 진감하는 《김일성원수만세!》의 우렁찬 환호와 그칠줄 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경애하는 수령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대회에서는 **《붉은기중대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집행관철하며 전투준비, 전투력강화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보고가 있었으며 많은 군인들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수령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지도하시는 이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여 붉은기중대운동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나누게 된것이 더없는 영광이며 크나큰 기쁨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시였으며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주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수령께서 지펴주신 붉은기중대운동이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져 인민군대내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초소들에 확대되고있으며 수많은 붉은기중대들

이 2중, 3중의 붉은기중대운동에 궐기하고 대대와 련대들이 붉은기대대, 붉은기련대의 영예를 쟁취하기 위하여 떨쳐나선데 대하여 말하면서 이 세찬 불길속에서 군인들을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찬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교양육성하고 당의 군사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여 구분대의 전투력을 일당백으로 튼튼히 다진 자랑찬 성과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긍지높이 보고하였다.

토론자들은 붉은기중대운동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성과는 김일성원수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천재적이며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의 독창적인 자위의 군사로선의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붉은기중대운동의 불길속에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의 가르치심대로만 한다면 쳐 이기지못할 적이나 점령못할 요새란 없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심장깊이 새긴 인민군장병들은 난관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성과에 자만하지 않으며 일편단심 수령께 충성을 다하며 그이의 부름따라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 어떤 사나운 풍파도, 그 어떤 역경도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꺾을수 없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인하여 조성된 긴장된 정세에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원쑤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며 원쑤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일격에 쓸어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들은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토론자들은 자기 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수령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어떤 사나운 풍파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수령을 견결히 옹호하고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이의 명령이라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자신을 더 잘 준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혁명화할 뿐만아니라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조직생활과 집단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게 하며 당과 조국과 혁명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 싸우는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며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이 온 구분대들에 넘쳐 흐르게 할것을 다짐하였다.

토론자들은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과 위대한 10대정강,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주신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켜 전투준비, 전투력강화에서 보다 새로운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자기들 앞에 나선 모든 군사적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실히 보답할것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엄숙히 맹세하였다.

토론자들은 조국의 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만수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대회에서는 전체 인민군 군인들과 대회참가자들의 끓어넘치는 충성의 정을 담아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맹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당의 유일사상—김일성원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오직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함으로써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당의 군대, 로동계급의 혁명무력으로서의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끝까지 빛나게 완수하려는 철석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 *

김일성원수께서 붉은기중대 군인 열성자들과 지휘관, 정치일군들을 표창하시였다.

1968년 6월 29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군사정책을 높이 받들고 붉은기중대운동을 심화발전시켜 구분대를 하나의 붉은 집단으로, 일당백의 강철의 대오로 꾸리고 부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붉은기중대 군인열성자들과 지휘관, 정치일군들을 표창하시였다.

내각수상표창장과 선물전달식 모임에는 조선인민군 붉은기중대군인열성자대회에 참가하였던 붉은기구분대 군인들과 지휘관, 정치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된 모임에서는 먼저 내각수상표창장과 선물을 전달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 및 메달 수여식이 있었다.

수상자들과 수훈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영예의 표창을 받은 자랑과 함께 수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가 넘쳐 있었다.

그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그이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당과 수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조국을 피로써 지키는 판가리 싸움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그 기백으로 붉은기중대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여 인민군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강화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며 조국의 방선을 더욱 굳건히 지킬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립기념일을 맞는 각학교 교직원, 학생들과 상봉하시였다

사회안전성고급간부학교 창립 스무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안전성고급간부학교창립 스무돐에 즈음하여 5월 1일 이 학교를 방문하시고 교직원, 학생들과 상봉하시였다.

이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사회안전기관의 간부양성기지인 이 학교를 몸소 창설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계단, 매 시기마다 교수교양의 방향과 방도를 하나 하나 가르쳐주시며 찬란한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게 된 사회안전성고급간부학교 구내는 환영일색으로 장식되여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교직원, 학생들과 명절차림에 수기와 꽃묶음을 든 그들의 가족들이 연도 량옆에 줄지어서서 어버이수령께서 도착하실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으시여 교수교양의 방향과 방도를 명시하여 주시고 교직원,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육친의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면서 이 학교를 사회안전기관의 튼튼한 간부양성기지로 꾸려주시였으며 안전원들과 경비대 군인들을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인도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다시금 몸가까이 뵈옵고 당의 정치보위자로서 정치, 군사, 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자기들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무한한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치고있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속에 사회안전성고급간부학교가 걸어온 20년의 행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의 행로이며 자기앞에 부과된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한 자랑찬 전투적로정이였다.

학교는 지난 기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수많은 당의 정치보위자들을 양성하여 혁명초소들에 내보냄으로써 당과 수령을 보위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학교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어떤 환경속에서도 일편단심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과 수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어 끝까지 관철하고야 마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붉은 혁명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안전기관의 믿음직한 간부양성기지로 강화발전되였다.

사회안전성고급간부학교 교직원, 학생들은 경애하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된 조국의 현실속에서 누리고있는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김일성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있다.

바로 그러한 신념으로 하여 그들은 수령을 그렇듯 열렬히 흠모하며 그들의 심장은 오직 그이께 충성을 다할 결의로 뜨겁게 불타고있는것이다.

이날 아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학교에 도착하시였다.

학교구내에 꽉 들어찬 교직원 학생들속에서 《김일성동지 만세!》소리의 우렁찬 환호가 터져올라 린근산발에 끊임없이 울려퍼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학생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잠시후 운동장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이 학교창립 스무돐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준비한 집단체조 《당의 보위자》가 시작되였다.

집단체조에서 학생들은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그 어떤 침범도 일격에 격파하고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도록 일당백으로 준비된 정치사상적 및 군사기술적 위력을 훌륭히 보여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단체조를 관람하시고나서 이 학교 학생들의 학습실과 침실, 식당들을 돌아보시고 학교가 모두 알뜰하게 잘 꾸려져 학생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마음껏 배우며 생활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학교가 지닌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임무와 그 수행방도들에 대한 중요한 교시를 주시였다.

이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학교 교직원,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창립 스무돐을 뜻깊게 기념한 사회안전성고급간부학교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무한한 충성심과 백절불굴의 혁명적투지를 본받아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며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숭고한 투쟁에서 당과 수령의 정치

보위자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반드시 빛나게 수행하려는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남포, 해주 혁명학원창립 열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는 9월 2일 남포에 나가시여 창립 열돐을 맞는 남포, 해주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시였다.

여기에는 만경대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도 함께 참가하였다.

항상 흠모하여마지않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학원창립 열돐을 경축하게 된 남포혁명학원은 명절일색으로 단장되고 단정한 교복차림에 정성들여 만든 꽃묶음을 들고 원수님께서 도착하시기를 기다리는 만경대와 남포, 해주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한없는 감격과 기쁨이 어리여있었다.

학원정문앞에는 만경대와 남포, 해주 혁명학원 학생 명예위병대가 정렬하여있었다.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을 맞이할 영광의 시각을 앞두고 우리의 혁명학원들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들을 돌이켜보며 혁명학원들의 창립을 직접 발기하시고 자기들에게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원수님의 깊은 뜻과 배려를 심장깊이 되새기는 만경대와 남포, 해주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심이 끓어넘치고있었다.

실로 혁명학원 학생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깊은 배려는 태양보다 뜨겁고 바다보다도 깊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강도 일본제국주의와의 판가리싸움을 조직하시고 령도하시던 항일무장투쟁의 어려운 시기에 몸소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 학교를 세우시고 원쑤들에게 부모를 빼앗긴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아 조선혁명의 기둥으로 억세게 키워주시였을뿐아니라 해방후에는 만경대에 그리고 전후에는 남포와 해주에 혁명학원을 세우시여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영용하게 싸우다가 희생된 항일혁명렬사들의 자녀들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다가 희생된 애국렬사들의 유자녀들을 당과 국가가 맡아 대를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갈 백절불굴의 공산주의투사로 조선혁명의 골간부대로 교양육성하도록 하시였다.

혁명학원들의 창립을 직접 발기하시였고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일을 한몸에 맡아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도 한해에 몇번씩 혁명학원들을 찾으시여 유자녀들에 대한 교육교양의 방침과 내용을 상세히 가르쳐주시고 그들의 학습과 생활조건을 친어버이의 손길로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는 자기들은 비록 싸우다가 희생되더라도 자식들은 수령의 품속에서 꿋꿋이 자라나 자기들이 다하지 못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하며 완수하리라는것을 굳게 믿고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용감히 싸운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념원을 실현하여주며 이땅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할때까지 대를 이어 혁명을 하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높은 뜻이 깃들어있는것이다.

수령의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속에서 남포, 해주혁명학원은 자랑찬 로정을 걸어왔다.

지난 10년동안에 남포, 해주 혁명학원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일편단심 수령께 충직하며 정치군사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수많은 혁명전사들을 길러내여 혁명의 초소들에 보냈다. 혁명초소들에 선 그들은 대를 이어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하고있으며 대중의 앞장에 서서 수령의 명령, 지시를 철저히 관철해 나가고있다.

그들의 심정은 오직 자기들을 키워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으로 불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 싸워나갈 결의로 힘차게 고동치고있다.

이날 아침 김일성원수님께서 남포혁명학원 정문앞에 도착하시였다.

학원운동장에서는 수천명의 교직원, 학생들과 남포시민들이 일제히 《김일성원수만세!》를 부르며 꽃묶음을 높이 들어 흔들면서 경애하는 수령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먼저 혁명학원 학생명예위병대를 사렬하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환영곡이 울리고 만세의 환호가 그칠줄 모르는 가운데 환호하는 교직원, 학생들과 환영군중들에게 손들어 답례를 보내시고 학생들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 주석단에 오르시자 남녀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린 꽃바구니를 올리였다.

이어 모임이 열리자 남포, 해주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된 축하문과 축기들이 전달되였다.

축기들에는 **《동무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못다 이룬 혁명의 뜻을 계승하였고 또 혁명적인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랐으니만큼 대를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하겠습니다》(김일성)**라고 수놓아져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창립된 남포, 해주 혁명학원이 지난 10년간 우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이루어 놓은 빛나는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혁명렬사 및 애국렬사 유자녀들을 일편단심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혁명적세계관과 계급적관점이 확고히 선 직업적인 혁명가로,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열렬한 공산주의투사로 키움으로써 그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도록 할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한 축하문을 받은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마다에는 혁명에 대한 자부심과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긍지가 가득차 있었다.

모임에서는 이어 남포혁명학원과 해주혁명학원에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되였다.

계속하여 만경대와 남포, 해주혁명학원 학생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고 친히 손을 들어 조선혁명의 튼튼한 골간부대로 자라나고있는 그들, 우리 혁명의 후계자들에게 축하를 보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혁명학원 학생들의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였으며 남포혁명학원의 여러 연구실들과 교실, 식당, 기숙사들을 돌아보시고 모든것이 원만하게 보장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날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의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교시를 하시였다.

그리고 만경대와 남포, 해주혁명학원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경축행사를 하고 그이의 교시를 또다시 직접 받은 영광을 지닌 혁명학원 전체 교직원,학생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며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치여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 다바쳐 계속 견결히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졌다.

김책공업대학창립 스무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0월 2일 김책공업대학에 나가시여 창립스무돐을 맞는 이 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시였다.

항상 흠모하여 마지않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대학창립 스무돐을 경축하게된 이 대학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이날 무한한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을 맞이할 영광의 시각을 앞두고 대학이 걸어온 스무해동안의 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이 대학의 창립을 직접 발기하시고 그를 민족기술간부양성의 튼튼한 기지로,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기술종합대학으로 발전시켜주신 수령의 깊은 뜻과 육친적배려를 심장깊이 되새기는 교원, 학생들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심이 끓어넘치고 있었으며 그이의 혁명전사된 크나큰 자랑과 자부심이 충만되여있었다.

실로 이 대학이 걸어온 스무해의 로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속에서 대학을 민족기술간부양성의 기지로 튼튼히 꾸리고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수많은 기술간부들을 길러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초소들에 내보낸 자랑스러운 행로이며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당 교육정책의 정당성과 그의 커다란 생활력을 증시하는 빛나는 력사이다.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이미 자기 힘으로 민족간부의 대부대를 길러내여 자주적인 새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조국의 장래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몸소 인민의 첫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세우시고 이어 민족기술간부양성의 기지인 김책공업대학을 창설하시였다.

지난 기간 김일성동지께서는 여러차례 몸소 김책공업대학을 찾으시여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대학이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였다.

수령께서는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과 완성된 맑스-레닌주의교육원리를 명시하시고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고히 무장되고 주체적립장이 튼튼하며 리론과 실천적경험을 체득한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을 뿐아니라 교직원, 학생들의 과학연구와 교수교양사업 그리고 학습조건과 생활에 이르기까지 실로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속에서 김책공업대학은 우리 혁명과 건설에 복무하는 과학기술의 최고전당으로 발전하였으며 대학이 길러낸 수많은 민족기술간부들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면서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온갖 힘과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있다.

이날 오후 김일성동지께서 모

착하시자 환영곡이 높이 울리고 연도에 겹겹이 줄지어선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일제히 《김일성동지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꽃묶음을 높이들어 흔들면서 경애하는 수령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이 학교 실습공장의 여러부문 실습장들과 실험실들을 돌아보시면서 교직원, 학생들이 자력갱생하여 공장을 알뜰히 꾸리고 교육과 생산로동, 리론과 실천을 훌륭히 결합시켜 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대학 창립스무돐을 맞으면서 이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마련한 과학실험기구전람회를 참관하시였다.

전람회는 교직원, 학생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수교양사업과 과학 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이룩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보여주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교육정책관철에서 이 대학 교직원,학생들이 달성한 성과에 대하여 치하를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교직원, 학생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우리 나라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발전과 이 대학 사업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교시를 하시였다.

그리고 이 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대학창립 스무돐을 뜻깊게 경축하고 그이의 교시를 또다시 직접 받은 영광을 지닌 김책공업대학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위업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려는 결의를 다시금 굳게 다지였다.

평양외국어혁명학원창립 열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2월 25일 평양외국어혁명학원에 나가시여 창립 열돐을 맞는 이 학원 교직원, 학생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시였다.

항상 흠모하여 마지않은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학원창립 열돐을 경축하게 된 평양외국어학원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이날 무한한 행복과 기쁨에 휩싸여있었다.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을 맞이할 영광의 시각을 앞두고 자기 학원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돌이켜보며 학원을 창설하여주시고 우리 유자녀들에게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원수님의 높은 뜻과 크나큰 배려를 심장깊이 되새기는 교직원,학생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심이 끓어넘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그 간고한 나날에도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 학교를 세우시고 원쑤들에게 부모를 빼앗긴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부모들이 다하지못한 혁명위업을 이어나갈 불굴의 공산주의투사로 키워주시였을뿐아니라 해방후에는 만경대에, 전후에는 남포와 해주 그리고 평양에 혁명학원을 창설하시여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강도일제와 영용하게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렬사들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희생된 애국렬사들의 자녀들을 당과 국가가 맡아 혁명의 골간으로 믿음직한 나라의 기둥으로 키우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한해에도 몇차례씩 혁명학원을 찾으시여 유자녀들에 대한 교육교양의 방침과 내용에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그들의 학습과 생활조건들을 육친의 손길로 보살펴주시였다.

유자녀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는 자기들은 비록 싸우다가 희생될지언정 아들딸들은 수령의 품속에서 굿굿이 자라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하리라는것을 굳게 믿고 영용하게 싸운 항일혁명선렬들과 애국렬사들의 념원을 실현하여 주며 그들의 아들딸들이 이땅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승리할때까지 대를 이어 혁명을 하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높으신 뜻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창설된 평양외국어혁명학원은 지난 10년간 수령의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속에서 발전하여왔으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일편단심 수령께 충직한 수많은 외국어전문가를 육성하여 혁명의 초소들에 내보냈다.

혁명초소들에 선 그들은 오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기들을 키워주신 수령께 충성을 다하고 있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대중의 앞장에 서서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그리고 오늘 이 학원에서는 수많은 우리의 귀중한 유자녀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정치 사상적으로 준비되고 외국어전문지식을 소유한 우리 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이날 오후 김일성동지께서 학원에 도착하시자 교직원 학생들은 《김일성동지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꽃묶음을 높이들어 흔들면서 어버이수령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학원의 교육시설을 돌아보시고 이 학원 교직원, 학생들의 사업과 생활에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교시를 하시였으며 이 학원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학원창립 열돐을 뜻깊게 경축한 이 학원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학원에 주신 수령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촉진하려는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의 구현인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 생활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0년 2월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위력한 무기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그가 가지는 혁명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잡고있으며 그 위대한 생활력은 당,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현지지도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인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새 환경과 개인경리를 상대로 하던 낡은 사업체계, 사업방법간에 불일치가 나타났던 때 우리 나라 농촌의 한점, 청산리에 나가시여 여러 날에 걸쳐 현실을 깊이 분석료해하시고 군중들과 구체적으로 상론하시여 당 및 국가 지도, 경제관리분야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해결방도를 제시하시였으며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이것은 당,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과 사회주의건설전반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독창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철저한 주체적립장과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는 혁명적군중로선, 그리고 언제나 예리한 통찰력으로 생활이 제기하는 성숙된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시고 그것을 능숙히 풀어나가시는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방법은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원칙과 방도로 대중을 교양하고 발동하여 사업을 조직하고 진개하겠는가에 대하여 처음으로 전면적이며 포괄적인 해답을 준것으로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의 본보기로 된다.

청산리방법이 창조됨으로써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등 온갖 그릇된 사업방법과 낡은 틀을 마스고 진정한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을 가지게되였고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부단히 따라세울수 있게 되였으며 대중에 대한 령도와 사업방법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자본주의적, 기회주의적 편향을 없애고 맑스-레닌주의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할 때까지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위력한 혁명적무기이다.

뿐만아니라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창조는 대중에 대한 령도와 사업방법, 맑스-레닌주의 당건설에 관한 리론발전에서 새로운 탁월한 기여로 되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가지는 보편적 의의로하여 날이 갈수록 전세계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커다란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청산리방법의 혁명적 본질과 그 위력은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혁명적군중로선을 그 초석으로 삼고 있는데 있으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혁명과 건설에 가장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하고 장기적인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언제나 철저한 주체적립장과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원들을 교양하시여 인민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하고 각성시키도록 하시고 광범한 반일혁명력량을 묶어세우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반일민족해방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바로 항일무장투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혁명적군중로선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과 세련된 령도예술의 빛나는 전통과 경험이 이룩되였으며 그것은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발전되였고 오늘의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목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깊이있게 수행할수 있는 힘있는 사업방법일뿐아니라 일군들의 사상정치수준과 실무수준을 높이며 군중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교양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298—299페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청산리방법의 본질적 요구이며 우리 당의 일관된 확고한 원칙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이 세상사람들을 경탄케하는 천리마의 속도로 달려온것도, 최근년간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고 있는것도 그 비결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한데 있다.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지도를 통하여 웃기관과 웃일군들이 아래기관과 아래일군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혁명적인 지도방법을 제시하시면서 중앙이 도를, 도가 군을, 군이 리를 도와주는 새로운 사업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게 하시였다.

또한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고 한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여 일반화하며 사업에서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고리를 찾아내여 력량을 집중하는것은 청산리방법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지도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창조하시고 대안전기공장과 숙천군의 지도를 통하여 새로운 공업관리체계와 농업관리체계를 세우시였으며 산간지대인민들의 생활향상과 경제문화발전에서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놓은 지방 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와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북청회의를 가지게 하신것 등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고 한점을 뚫고 모범을 창조하여 일반화하며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전반사업을 밀고나가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의 수많은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또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위력한 방법일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청산리방법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교양하고 도와주는것을 원칙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할뿐 아니라 그들의 사상의식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킬수 있게 하였다.

이 모든것은 청산리방법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에 맞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는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혁명적무기라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지난 기간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 및 국가 사업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참으로 거대한 전변과 혁신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이 보급되여 당,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전변이 일어났으며 그 일군들의 지도수준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청산리방법이 군중에게 접수되여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근로자들자신의 사업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대중적인 사상개조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군중로선의 관철, 청산리방법의 일반화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빨리 확대강화하게 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을 더욱더 힘있게 추동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299페지)

실로 당,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낡은 틀이 마사지고 새로운 혁명적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서게 되였으며 일군들의 정치사상수준과 실무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이 더욱 높아지고 당사업이 사람과의 산 창조적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강화되고 전당이 생기발랄하게 전진하며 투쟁하는 불패의 전투적당으로 되였다.

매개 단위들에서 정치사상사업이 일층 강화되고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이 더욱 심화되여 전당과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세워졌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단결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것으로 되였다.

청산리방법은 군중에게 접수되여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근로자들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게하였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촉진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와 전인민적 천리마 운동을 더욱더 강력히 추동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확립으로 그 지도관리사업이 더욱 째여지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창조적열성이 고도로 높아짐으로써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돌리는 조건에서도 경제는 계속 높은 장성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공화국창건기념일전으로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1968년 전국적인 공업 총 생산액은 전해에 비하여 17%를 높인 1967년에 비해서 또다시 15% 장성을 이룩하였으며 농업생산에서는 자연기후적조건이 매우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곡총수확고는 1967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116%로 늘어난데 뒤이어 1968년에는 또다시 1967년에 비하여 111%로 늘어났다.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이 모든 승리와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그이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고있다.

생활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 때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으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과 위대한 생활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1년 12월 몸소 천리마대안전기공장에 나가시여 여러날에 걸치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가장 훌륭한 형태인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창조된 이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으며 그것은 해가 갈수록 더욱더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대안전기공장에 대한 현지지도는 사회주의경제형태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되고 생산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생산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성이 비상히 높아진 새로운 환경에서 긴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던 성숙된 문제인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명철하게 해결하심으로써 이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한 력사적 사변이였다.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매단계마다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의 형태와 방법을 독창적으로 부단히 개선발전시켜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원칙과 확고한 주체적립장,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로선,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경제관리분야에 적용하여 종래 이 분야에 남아있던 자본주의적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고 공산주의적요소를 풍부히 담고있는 가장 선진적인 기업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 독창적인 방침에 의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확립은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새롭게 전면적인 해답을 준것이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지도관리하는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길을 밝혀준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를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제요구에 맞게 정확히 지도관리할수 있게하시였으며 경제관리에서 온갖 자본주의적요소를 물리치고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고수하였으며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혁명적변혁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새로운 공업관리체계인 대안체계가 도입된 결과 경제기관, 기업소들이 모든 사업을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군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며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며 모든 사람이 동지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직장, 모든 공장, 모든 부문들이 서로 밀접히 협력하여 협동생산을 발전시키며 객관적인 경제법칙들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되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36페지)

대안사업체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밑에 경제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경제관리에서 집체성을 철저히 보장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사업체계에서는 공장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으로서 공장을 관리운영하며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장관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대하여 어느 개인이 책임지는것이 아니라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책임지며 무엇보다도 먼저 집체적령도기관인 공장당위원회가 책임집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425페지)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지배인유일관리제와는 달리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밑에 나라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주인답게 참가시키고 그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동원함으로써 있을수 있는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집체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복잡한 현대적생산을 당의 요구와 객관적현실에 맞게 관리운영할수 있게 되였다.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군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이 대안사업체계의 기본요구이다.

때문에 대안사업체계에서는 당일군뿐만아니라 행정일군, 기술

일군까지 모두가 경제활동의 모든 고리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전체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자각적 열성을 높임으로써 생산의 잠재력과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고있다.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은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을 훌륭히 구현한데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그전의 사업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공산주의적기업관리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있는 우월한 사업체계입니다. 이 새로운 사업체계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422페지)

그러므로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본성에 완전히 부합되게 경제관리에서 관료주의, 기관본위주의, 개인리기주의적요소를 없애고 상하가 합심하고 모든 사람이 동지적으로 협조하며 모든 공장, 모든 부문들이 밀접히 협력하여 사회주의적협동생산을 발전시키고있다.

대안사업체계의 우월성은 또한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과 객관적 경제법칙에 의하여 경제를 과학적이며 계획적으로 운영한다는데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서 중요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적규률을 강화하고 계획적, 균형적발전법칙의 요구에 따라 계획화사업을 잘 해나가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생산자인 로동자들과 토의하여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생산자들 자신의것으로 만드는것은 새로운 사업체계의 커다란 우점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428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통하여 계획화사업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계획화에서 국가기관들의 주관주의와 생산자들의 본위주의를 없애고 국가의 의도와 생상자들의 창의창발성을 옳게 배합하여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게 하시였다.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며 생산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도록 되여있는데 있다.

새로운 사업체계는 과거에 각각 분리되여 있던 계획작성, 기술준비, 생산과정에 대한 지도를 종합적으로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하는 새로운 생산체계, 공장참모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현대적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하였다.

이와 함께 대안의 사업체계는 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무하는 부서들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자재를 우가 아래에 현물로 날라다주는 새로운 자재공급체계와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후방공급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 단위의 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이 생산에 모든 힘을 집중할수 있게하였다.

이 모든것은 대안의 사업체계가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가장 우월한 형태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우월성을 가진 대안의 사업체계는 지난 기간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하여 인민경제에 대한 당적령도가 강화되고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항상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의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특히 자기부문에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깊이 연구 체득시켜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게하며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이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워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대중들의 주인다운 자각과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이 높아졌을뿐만아니라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전례없이 앙양됨으로써 지난 년간에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돌리면서도 경제건설을 계속 빠른 속도로 전진시켜왔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당의 경제 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공업생산에서 1967년에는 그 전해에 비하여 117%로 높였으며 1968년에는 또다시 그 전해에 비하여 115%로 높은 장성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의 장성속도가 높아질수 없다는 얼빠진자들의 소리를 여지없이 짓밟아버렸으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을 동원하는 사업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한다면 생산을 얼마든지 높일수 있다는것을 실증해 준다.

실천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군중로선에 의거한 사업방법,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을 동원하는 사업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물질기술적요새와 함께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하는 가장 우월한 공산주의적경제관리 체계이다.

실로 김일성동지에 의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창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맑스-레닌주

의 보물고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적경험을 풍부히 함에 있어서 탁월한 기여로 되며 경제관리에서 가장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적길을 밝힌것이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과 위대한 생활력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에 의하여 해마다 커다란 앙양을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1년 12월, 일련의 농촌지역들과 특히는 숙천군내 농촌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 농촌의 변천된 현실과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제때에 포착하시고 협동농장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기능과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직접 실현하는 기능을 통일시킨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으로서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창설할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시였으며 그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침과 주체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지역들에서 군인민위원회로부터 농업지도기능을 분리하여 협동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창설하고 도에는 도농촌경리위원회를, 중앙에는 농업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중앙으로부터 군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롭고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농업지도체계가 정연하게 확립되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창설은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시여 농촌경리의 지도와 관리문제를 독창적으로 능숙하게 해결하신 빛나는 모범이다.

이것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문제 해결에서의 혁명적인 전환으로 되며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풍부화하는데서 탁월한 기여로 된다.

실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확립은 승리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고 농업생산력발전을 강력히 추동하여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끊임없이 접근시키게 하는데서 광활한 전망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혁명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방침들과 교시들이 언제나 대중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고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변혁을 일으키고있는것처럼 그이께서 직접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날이 감에 따라 그 우월성이 더욱더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거대한 우월성은 무엇보다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협동경리는 대규모의 사회주의적경리이며 그것은 현대적기술로 빨리 장비되고있다. 농업의 경영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장비가 점차 공업의 수준에 가까와가는만큼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방법도 응당 공업의 기업관리방법에 더욱더 접근시켜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농업협동경리를 반드시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기업적방법으로 관리한다는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며 기업소의 모든 경영활동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기술지도의 강화, 모든 경영활동의 가일층의 계획화와 조직화, 바로 이것이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을 개선하는 기본방향이며 경제관리에서의 공업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을 없애는 기본방향이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40—41페지)

농촌에서 기술혁명이 강력히 추진되여 발전된 관개체계가 확립되고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현대적농기계들과 물, 전기, 여러가지 화학수단들이 농업생산에 광범히 도입되고있으며 선진영농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으로써 농업생산은 하나의 복잡한 기술공정으로 전환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우리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실태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기업적지도의 독창적방법을 창조하시였으며 그 규모가 가장 알맞춤한 군을 단위로 하여 매개 협동농장들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실현함으로써 농업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전반적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게 하시였다.

1968년에 11만톤의 알곡을 생산한 숙천군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의 실천적경험이 보여주는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은 군내의 기술력량과 농촌경리에 봉사하는 물질기술적수단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협동농장들의 모든 경영활동을 직접 조직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며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상태의 구체적인 조사장악과 토양의 세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농업생산전반에 걸치는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장악하고 기업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업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고있다.

그리하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은 정연한 기술지도체계를 확립하고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내밀며 매 영농공정에 따르는 기술지도를 심화함으로써 최근년간 농작물의 품종배치에서 전국적으로 커다란 혁신을 일으켜 알곡의 정당수확고를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게 하였다.

1968년에 전국적으로 논벼 정당수확고는 1967년에 비하여 550키로그람이나 더 늘어났으며 특히 평남도에서는 956키로그람, 평북도에서는 709키로그람이나 더 늘어났다.

이리하여 전국적으로 알곡총수확고는 1967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116%로 늘어난데 뒤이어 1968년에는 또다시 1967년에 비하여 111%로 늘어났다.

또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은 그것이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와 방조를 결정적으로 강화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에로 가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경제가 하나의 전인민적소유형태로 되여야 하며 따라서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로 넘어가야 할것은 틀림없는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조직은 협동적소유에 대한 국가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강화하고 이 두 소유형태의 련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여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끊임없이 접근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443—444페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공업과 농업과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부단히 접근시킨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휘황한 길을 따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이 물질 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협동경리에 거대한 혁명적작용을 미치고있으며 그것들이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농업생산에 더 잘 복무함으로써 두 소유의 유기적인 결합이 실현되여 전인민적소유가 협동적소유에 더 넓게 더 깊이 침투하게 되였으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혁명적영향이 일층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농업생산에 참가하는 모든 고리들과 물질기술적수단들이 농촌경리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과 매 시기의 영농사업에 정확히 맞물려 제때에 통일적으로 움직임으로써 로력, 물, 기계, 자재 등 모든 수단들과 력량이 집중적으로 효과있게 리용되고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가 백방으로 강화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농업생산의 급속한 장성이 보장되고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 협동경리가 선진적인 국가경리와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협동농장들이 가지고있던 산만성과 비조직성의 잔재들이 없어지고 그것들이 더욱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모든 협동농장들은 국가기업소와 밀접한 련계밑에 계획작성은 물론 로동행정, 재정 및 재산관리, 축적과 소비의 정확한 균형의 설정 등 관리운영 전반의 복잡한 문제들을 모두 능숙하게 처리해나가고있다.

이리하여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가 보다 밀접해지고 협동적소유의 발전과 그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이 일층 높아지고 로농동맹이 더욱 강화되였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확립은 또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당면한 문제들과 앞날의 전망적문제들의 해결을 밀접히 결합시켜 급속히 발전시키게 하고 지방정권기관들로 하여금 국토관리, 건설, 상업, 교육, 문화, 보건 사업들과 특히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급사업을 더 잘할수 있게 하였으며 군당위원회들이 군인민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튼튼히 틀어쥐고 군의 전반적사업에 대한 키잡이의 기능을 더욱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이 모든 사업은 김일성동지에 의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창설이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문제의 해결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킨 혁명적인 사변으로 되며 농업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하는 가장 우월하고 혁명적인 농업관리체계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개조가 전면적으로 완성되고 농촌문제가 새롭게 일정에 오르게 된 력사적조건에서 1964년 2월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제시하시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새로운 광활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발표는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수행에서 커다란 력사적 사변이였다.

이 력사적인 테제가 발표됨으로써 사회주의농촌을 어떻게 건설하며 농민들을 어떻게 공산주의에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근본문제가 새롭게 밝혀지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대한 최초의 완벽한 과학적해명이 주어지게 되였다.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길, 농민문제, 농업

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길을 명백하고도 심오하게 밝혀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과도기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위대한 농업강령이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 관한 고전적인 맑스-레닌주의문헌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개조 이후 농촌에 조성된 사회주의 경제관계와 계급관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을 깊이 분석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본질과 력사적지위, 그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도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새롭게 해명하시고 정연하게 정식화하시였다. 이로써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이 그 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린 농민문제, 농업문제는 오직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완벽한 리론실천적해명을 보게 되였으며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고 인류사회가 무계급사회에로 넘어가는 구체적행정이 처음으로 명백히 밝혀지게 되였다.

테제에 주어진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전면적해명과 함께 사회주의가 승리한 다음 농촌에서 특히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끝까지 수행할데 대한 문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적협동경리의 발전과 사회주의적근로농민의 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데 대한 문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강화하면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인 통일적지도단위와 거점을 설정할데 대한 문제 등을 비롯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사상과 리론, 방침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발전 완성시키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적경험을 풍부화하는데 귀중한 기여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농촌문제의 해결에 항상 깊은 관심과 거대한 노력을 기울이시였다.

일찍부터 우리 농민들에게 사회적해방과 자유롭고 행복한 새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익혀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독창적 방침을 제시하시고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빛나게 구현하시였으며 해방후에는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의 실시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바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 깊은 력사적뿌리가 내리고 튼튼한 터전이 마련되였으며 해방후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빛나게 구현되고 승리하여온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이의 위대한 사상, 탁월한 리론과 방침의 총화이며 집대성이다. 바로 여기에 테제의 불패의 위대한 힘이 있으며 그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잡는 강한 견인력이 있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 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문제에 해답을 준 과학적문헌》으로, 《국제적의의를 갖는 고전적문헌》으로, 《〈공산당선언〉에 대비되는 금세의 가장 위대한 문헌》으로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거기에서 커다란 고무적힘을 받고 있다.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받은 우리 인민은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드높은 혁명적열정으로 테제의 력사적위업실현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으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달려나왔다.

테제를 받들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싸워온 지난 기간은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 힘있게 내밀어 그 력사적락후성을 뿌리빼고 현대적 기술을 갖춘 더욱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나날이였으며 농민을 로동계급화하고 농업을 공업화하며 농촌을 공산주의화할데 대한 수령의 위대한 구상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나날이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새로운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테제의 위대한 사상은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4페지)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에서 끊임없이 혁명을 밀고 나가며 특히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해나가는것은 테제를 관통하고있는 기본사상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의 근원과 성격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업과 도시의 발전에 기초하여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력사적락후성을 청산하는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이것은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과업이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4—35페지)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혁명의 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그것들은 통일적과정

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

그가운데서도 사상혁명은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혁명과업이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5페지)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통일적으로 강력히 추진시켜왔다.

당의 령도밑에 농촌에서 사상혁명이 강력히 촉진되고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농민들의 정치사상생활에서는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붉은 농업근로자로 준비되고있다.

농민들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주위에 굳게 뭉쳐 일편단심 수령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하면서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그와 어긋나는 일체 불건전한 요소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할뿐만아니라 우리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무한히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키고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정열을 다 바치고있다.

또한 우리 농민들은 나라와 인민, 집단과 전체의 리익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고상한 공산주의적미풍을 높이 발양하고있으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로력적열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실로 우리 나라 농촌에서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모든 농민들이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훌륭히 교양개조되고있으며 수령께서 가르키시는 승리의 길을 따라 살기좋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 싸우고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성과이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담보이다.

다음 농촌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공업의 발전정도와 농촌의 구체적형편에 따라 선후차는 있을수 있지만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참말로 튼튼히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기술혁명의 네가지 기본과업 즉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47페지)

우리당은 농촌기술혁명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에 따라 수리화를 앞세우고 이에 전기화를 병행하였으며 수리화와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여감에 따라 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추진시켜나감으로써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기술혁명에서 수리화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강력히 진행하도록 하시였으며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이미 마련하여놓은 관개시설들을 정비보강하는 한편 대규모적인 관개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방대한 량의 고인물빼기공사와 중소하천정리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심으로써 온 나라를 관개의 그물로 뒤덮이게 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수리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나라의 하나로 되였으며 우리 농촌은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낼수있는 튼튼한 농업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며 현대적인 대기계화와 함께 중소기계화를 결합시켜 진행하며 기계화에 유리하고 그 효과성이 높은 평지대로부터 점차 산간지대로 기계화를 확대하는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농촌에는 수만대의 뜨락또르, 자동차, 현대적농기계의 대부대가 들어가 밭갈이, 김매기, 가을걷이, 낟알털기, 운반작업 등 여러가지 농사일을 해제낌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헐하게 일할수 있게 되였다.

농촌전기화는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단계에 들어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규모의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건설을 배합하여 추진시키는 동시에 중소규모의 발전소를 나라의 모든 곳에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의 모든 농촌리에 전기가 다 들어가게 하시였으며 낟알털기, 물대기 등 고정작업들은 거의 모두 전기로 할수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농촌에 많은 화학비료와 여러가지 농약을 적극 생산공급하도록 하심으로써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도 급속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농업은 자연 기후적조건이나 그 어떤 우연적요인에도 좌우되지 않고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따라 확고한 발전의 길을 걷고있다.

특히 백년래의 큰 홍수와 왕가물이 련이어 겹친 극히 불리한 조건에서도 류례없는 만고대풍이 들어 나라의 알곡 총수확고는 1967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116%로, 1968년에는 또다시 1967년에 비하여 111%로 높은 장성을 이룩하였다.

다음 농촌문화혁명도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문화혁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농촌문화혁명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실현할수 없으며 농민들에 대

한 사상교양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49페지)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과 우리 당의 올바른 인민교육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초등 및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였으며 1967년부터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자라나는 우리의 새세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키우며 모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은 지난날 개인농민때보다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그들속에서 기술자, 전문가들의 대렬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농민들의 문화생활도 대단히 개선되였다.

농업생산이 끊임없이 장성하고 당과 정부로부터 농민들에게 크나큰 배려가 돌려짐으로써 오늘 농민들은 나라에서 지어준 아담한 문화주택과 탁아소, 유치원, 진료소, 아동병동, 상점, 목욕탕 등 갖가지 문화후생시설들과 편의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진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없이 행복과 희망에 넘쳐 살며 일하고있다.

다음으로 테제의 일관된 사상은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을 사회주의하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성과적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의 하나로 제기하시고 사회주의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원의 필요성과 의의, 원칙과 방도에 대하여 새롭게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은 로농동맹을 강화하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의 도시 및 로동자구와 함께 사회주의농촌을 튼튼히 꾸리며 점차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4페지)

사회주의하에서 농촌을 모든 면에서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 확고하게 견지하여야할 강령적지침이다.

농민은 로동계급의 령도와 방조하에서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갈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지도적부문인 공업이 농업을 도와야만 농촌경리를 공업과 같이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고 선진적인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여야만 뒤떨어진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올릴수 있다.

지난 기간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당과 로동계급의 령도, 사회주의적국영공업의 강력한 지원에 의하여 급속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당과 국가는 농촌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부단히 강화하면서 모든 힘을 다하여 농촌을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주었다.

우리 당과 정부는 해마다 국가투자의 많은 몫을 농촌경리발전과 농촌건설에 돌렸으며 이에 의하여 농촌에서는 자연개조사업을 비롯한 방대한 기본건설이 진행되고 농촌문화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였으며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가 촉진되였다.

우리의 공업은 매해 더 많은 농기계, 화학비료, 농약, 건설재료, 소비품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었으며 농촌에 대한 로력적방조도 방대한 규모에 달하고있다.

농촌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혁명을 추진시키며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키며 협동농장들을 공고히하고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결정적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테제에서 제기하고있는 원칙적요구는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협동적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리는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경제관리수준과 소유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농촌경리의 지도관리를 개선하여야 하며 협동적소유를 점차적으로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 끌어올려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4권40페지)

테제에 명백히 제시되여있는바와 같이 기업적방법으로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지도관리하며 그리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것은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점차적 전환과정을 순조롭게 보장하는 참다운 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도관리문제, 소유관계문제를 밀접히 결합시켜 통일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전문적국가농업지도기관에 의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설하여주시였다.

실천적경험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보장하고 농장의 관리운영을 째이게 하며 농업에 대한 공업의 물질기술적방조를 강화하고 전인민적소유가 협동적소유에 더 폭넓고 깊이있게 침투하게 하는 유력한 공간으로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와 그 해결원칙 및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을 뿐만아니라 사회주의농촌지도에서의 지역적단위와 거점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전면적으로 정식화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실정을 가장 정확히 료해판단하시고 사회주의농촌지도에서의 지역적단위와 거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이 농촌사업과 지방의 전반적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지역적단위로 되고있으며 거점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군들은 그 크기에 있어서나 간부와 지도기관들, 물질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있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단위로서 가장 적합하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61－62페지)

우리 나라에서 지역적단위와 거점으로 되고있는 군은 농촌과 로동자구를 직접 지도하는 당과 행정의 말단지도단위로서, 지방의 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단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으로서 전반적사회주의 건설과 특히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가일층의 촉진을 위하여 모든 군들에서 지방공업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사회주의 상업답게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잘함으로써 공업과 농업간,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를 강화하고 농촌경리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군은 농촌에 선진적도시문화를 보급하는 기지로서의 군소재지를 아름답고 문화위생적으로 꾸려 농촌문화혁명 촉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군의 전반적사업의 참모부인 군당위원회는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일층 강화하여 농촌의 경제문화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잘하고 농촌에서의 당사업과 정치사상사업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 농촌은 테제가 가리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따라 곧바로 확신성있게 멀리 달려왔으며 테제의 위대한 사상은 번영하는 우리 사회주의농촌에 빛나게 구현되여 자랑찬 열매를 맺고있다.

지난 시기 우리 농촌에서 이룩된 그 모든 빛나는 성과들은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이 훌륭히 실현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확신성있게 보여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위대한 생활력

천리마운동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발기와 현명한 령도밑에 일어난 공산주의적전진운동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참가시키고 그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적극분자로 만들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빨리 나가기 위한 대중적혁신운동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시기 우리 나라에 조성된 주객관적 혁명정세 특히는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추진시켜야 할 우리 혁명의 근본적인 요구와 남보다 빨리 달려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일치한 혁명적지향을 반영하여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은 전후시기에 이루어진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에 기초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에서 쌓은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에 기초하여 생겨난 합법칙적현상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94페지)

수령의 호소를 관철하는 전당적, 전인민적인 투쟁행정에서 강선의 로동계급속에서 발단되고 전체 인민의 열렬한 지지밑에 온 나라에 급속히 퍼진 천리마운동은 혁명과 건설의 거창한 흐름속에서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줄기차게 발전하여왔다.

천리마운동이 발생발전해온 지난 10여년간 우리 나라는 힘있는 자립적민족경제와 위력한 방위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여있다. 이 로선의 본질은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한다는데 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229페지)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성이 최대한으로 발양되고 새로운 공산주의사상과 도덕이 전면적으로 승리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사회주의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촉진되였다.

천리마운동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고 내외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대중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공산주의교양이 강화되고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대중자신의 일로, 생산에서 집단적혁신운동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행정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더욱 심화발전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우에 행복한 사회주의락원을 더 빨리 건설하려는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불타는 애국심의 반영이며 당과 수령에 의하여 교양되고 그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나아가는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

력의 발현이며 항상 대중을 믿고 그들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켜 나아가는 우리 당 군중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천리마운동의 본질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체현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통하여 실현함으로써 천리마운동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천리마운동이 심화발전된것으로서 인민경제발전의 강한 추동력으로, 근로자들의 대중적경제관리의 훌륭한 방법으로 되였을뿐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교양의 방법으로 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01페지)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더욱 심화발전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발전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이 운동이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로 더욱 심화된데 있으며 또한 이 운동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근로자들을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좌우경기회주의를 견결히 배격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사업과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데 있다.

대회가 있은후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그 내용에서 뿐만아니라 포괄하는 범위에서도 급속히 확대 심화발전되였다. 공업부문에서 발생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농촌경리를 비롯하여 교육, 문화, 보건, 상업류통 부문과 가두 인민반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을 포괄하게 되였으며 이 운동은 천리마직장, 천리마공장, 천리마협동농장 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여왔다.

또한 1968년 5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깊은 배려속에 진행된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는 천리마조선의 력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기록을 남기였다.

전체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진행된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는 1960년 8월에 있었던 제1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집행정형을 총화하고 나라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천리마의 대고조를 견지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특히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력사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교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혁명적대고조를 견지하며 전체 근로자들과 천리마기수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우리의 혁명력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은 첫째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며, 둘째로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며, 셋째로 책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사람과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사상혁명을 하라는것이며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기술혁명을 하라는것이며 책과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곧 문화혁명을 하라는것입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단행본 11페지)

또한 이 해 공화국 내각에서는 결정 제19호로서 《천리마영예상을 제정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으며 동시에 《천리마영예상 수여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였다. 이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심화발전시킴으로써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욱 촉진시킴에 있어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천리마작업반, 직장, 공장들을 표창하는것으로서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당과 수령께서 베푸신 또하나의 극진한 배려인것이다.

수령의 강령적교시와 당과 정부로부터 돌려지는 극진한 배려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 나라 전체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우렁찬 천리마의 대진군에 새로운 박차를 가함으로써 천리마조선의 영예를 또한 빛내였다.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 걸쳐 눈부신 투쟁을 벌려 일대 비약을 일으켰다. 공장과 광산, 농촌과 어장들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변혁이 일어났다.

우선 천리마운동의 선구자들인 천리마기수들은 모든 근로자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 참다운 교양자들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사업인 사상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나가고있다.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학습하며 혁명전통을 학습하는것을 생활화하면서 김일성동지

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반혁명적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천리마작업반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찬 우리 혁명의 전투적 보루로 튼튼히 꾸려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전체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강화되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이 확대되고 심화됨으로써 천리마기수들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고 언제 어데서나 그이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려는 혁명적 기풍이 높아졌다. 이 기풍은 오늘 우리 나라 전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천리마기수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자!》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온 집단을 생기발랄하고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시키며 전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해나가는데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그들은 한사람이 안되면 두사람이, 그래도 안되면 온 집단이 달라붙어 어제날에 락후한 사람을 오늘은 훌륭한 사람으로, 어제날의 소극분자를 오늘은 적극분자로 교양개조하고있으며 집단과 동지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의 휴가도, 신변도 생각지 않을뿐만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쳐 나서고있다.

장마철홍수에 자기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한 사실,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자신들은 물론 가족들의 살과 뼈까지 갈라주어 10여년동안이나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을 고쳐서 다시 대지를 활보케 한 사실, 몇해동안 휴가기간과 쉬는 날을 몽땅 바쳐 전시에 헤여졌던 동지들의 혈육을 찾아준 사실 등 우리 나라에는 무수한 아름다운 붉은 꽃들이 계속 피여나고있다.

천리마기수들의 고상한 풍모와 아름다운 소행을 통하여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을 위주로 하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교양방법의 위력을 보여주며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적인 면모를 보게 된다.

진실한 공산주의교양자들인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참다운 주인공들로서 인민들의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으며 자기들의 훌륭한 행동과 기적적인 성과로써 모든 사람들을 경탄시키고 고무해주고있다.

천리마기수들은 사리와 개인의 공명을 모르며 자기의 리익보다 집단과 조직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정열을 다 바쳐 싸우고있다.

천리마작업반에서는 개인의 성과가 집단의 것으로 되며 집단의 업적이 동시에 매개인의 것으로 된다. 어느 개인의 기쁨과 슬픔은 집단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며 집단의 영예는 그를 구성하고있는 모두의 영예로 되고있다.

실로 천리마작업반에서는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공화국북반부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혁명적대가정으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그 어느때보다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다.

다음으로 천리마기수들과 모든 근로자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의 하나인 설비와 자재를 애호관리하고 절약하며 그에 정통하여 설비를 부단히 혁신하여 그 생산능력을 높였을 뿐만아니라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고 선진기술과 선진작업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기술혁명을 더욱 촉진시켰다.

우리의 형편이 10여년전 천리마운동을 시작하던 그때와 달리 우리 인민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할바 없이 강화되고 우리 근로자들치고 중등이상의 교육을 받지않은 사람은 거의나 없는 조건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고 집체적지혜를 모아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함으로써 공업총생산액을 1968년에 그전해에 비하여 15%의 높은 장성을 이룩하였다.

당과 수령의 부름에 충직한 천리마기수들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당이 내세운 전투적호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결정 그리고 전국청년총동원대회에서와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원수들을 단매에 쳐부실 그 기세로 분초를 다투어 두몫, 세몫 일하는 혁명적인 투쟁을 벌렸으며 온갖 보수와 침체를 짓부시면서 천리마의 기세로 달리고 또 달렸다.

로동계급들과 천리마기수들은 《당과 수령이 요구하는것이 공칭능력이며 작업기준량》이라고 하면서 200%, 300%를 100%로 환산하고 이것도 훨씬 넘기고나서야 기대에서 마지못해 물러서군 하였다.

천리마기수들에게는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오직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살고 행동하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로선을 끝까지 집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려는 이 한가지 생각밖에는 없다.

이것은 바로 우리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의 중요한 정신적특징이며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풍모이다.

그러기에 천리마기수들은 1968년에 이르는곳마다에서 《공칭능력》을 짓부셨다. 강선의 강철전사들은 공칭능력이 6만톤밖에 안되던 분괴압연기에 살을 붙여 오늘에 와서는 그 능력을 8배이상

이나 높였으며 《영웅의 공장》 기계전사들은 8톤밖에 낼수 없다던 전기로에서 15톤의 쇠물을 뽑았으며 60톤의 능력밖에 못낸다는 프레나에서 90톤짜리 물체를 깎았다.

혼자서 4,400추의 방추를 맡아서 이해 생산계획을 단 52일동안에 해낸 정방공, 혼자서 80대의 방직기를 다루는 방직공 등 놀라운 기적들이 수없이 창조되였다.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들과 천리마기수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6천톤프레스, 1천마력 대형준첩선, 3천500톤급 철선을 성과적으로 생산하였으며 대규모발전소, 대야금 및 화학공업기지 건설에 필요한 각종 설비들을 자체로 훌륭히 만들어내였다.

이러한 성과는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지더라도 대중속에 정치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킨다면 생산장성의 예비는 더욱더 많아지며 경제를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립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문화혁명도 성과적으로 추진하고있으며 이 어렵고도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천리마기수들이 앞장에 서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문화혁명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왔으며 그이께서 돌려주시는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온갖 조건들이 다 마련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해왔으며 1958년부터 중등의무교육이 실시되였고 1967년부터는 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자립적으로 학습할수 있는 기초지식을 가질수 있게 되였을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 교육체계의 우월성으로 하여 누구나 마음대로 공부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또한 근로자들이 얼마든지 공부할수 있게 각종 출판물들이 너너히 발행되고있다.

천리마기수들은 끊임없이 학습하며 자신들의 정치, 문화, 기술수준을 계속 높이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고 책과의 사업을 생활화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책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하나의 량식입니다.》(우와 같은 책 24페지)

천리마기수들은 수령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누구나 하루 2—3시간씩 꼭 학습할 뿐만아니라 짬만 있으면 책을 들고 한페지라도 더 읽는것을 생활화함으로써 모두가 정치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며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재능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더욱 문명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일군으로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김일성저작선집》을 사업과 생활의 교과서로,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체계적으로 깊이 학습하며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있으며 자기 부문에 주신 수령의 교시를 열번이고 백번이고 그를 철저히 관철할때까지 읽고 또 읽고있다.

또한 그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일군으로 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을 생활화하고있다.

동시에 천리마기수들은 기술지식을 습득하며 자기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온갖 열성을 다 발휘하고있다.

이와 같이 천리마기수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속에 학습기풍이 높아지고 우리 나라에 정연하게 수립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통하여 그들의 정치, 문화, 기술수준을 계속 높임으로써 당과 수령께 충실한 기술혁명의 대부대들이 자라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정전직후에 비하여 19배나 되는 42만5천700여명의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이 일하고있으며 그들의 힘과 지혜와 노력에 의하여 현대적공장, 기업소들이 훌륭히 건설되며 관리운영되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모든 지혜와 열성과 창조력이 전면적으로 발양되고있으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촉진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만일 우리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차게 벌리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웅장한 민주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크고작은 수많은 도시들을 건설할수 없었을것이며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수백, 수천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우고 선진적인 사회주의농촌경리를 건설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터전을 닦아놓을수 없었을것이며 따라서 전체 인민이 다같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주의 지상락원을 건설해놓지 못하였을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페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비상한 속도와 혁명적대고조의 계속적인 앙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천리마운동의 거대한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시위하는것이며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와 전투적기백을 과시하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이 책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항상 대중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해나가는 우리당 군중로선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

인민군대가 걸어온 영광에 찬 승리의 행로

1968년은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이 창건된지 스무돐이 되는 해이다.

1968년 2월 8일을 혁명적명절로 맞이한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이 력사적인 날에 인민군대를 친히 창건하시고 그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시였으며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오늘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으며 그이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1948년 2월 8일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장구한 기간 외래침략자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압박받아온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정권을 자기손에 쥐고 인민군대를 창건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자기 조국의 자유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정규군을 가진 당당한 자주독립국가 인민으로 되였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조선혁명을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주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수행할뿐만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할 임무를 지니고있다.

특히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이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거기에 국내반동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우리의 혁명위업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인민무력을 창설하고 강화발전시키는것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이로부터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이며 자주적인 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해방후 국내외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의 장래전도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북반부에 혁명적민주기지를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충분한 준비밑에 조선인민군을 제때에 창건하시고 그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인민군이 창건된지는 20년이지만 그는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로서 근 40년간의 빛나는 투쟁력사를 가진 영광스러운 혁명군대이다.

김일성원수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진 군대이며 항일유격투쟁의 혁명전통과 고귀한 투쟁경험과 불굴의 애국정신을 계승한 영광스러운 군대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1권 190페지)

인민군대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신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건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에서 세련되고 단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되였다.

인민군대는 항일유격대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조국의 완전독립과 통일을 위하여, 전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사상체계,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계승하였다. 여기에 바로 인민군대가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집수하고 그를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 투쟁함으로써 헤아릴수 없는 간난신고를 용감히 뚫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모든 투쟁과 생활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께 무한한 충직성,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열렬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정신, 군민일치와 관병일치의 전통적미풍 등 고상한 혁명정신, 우수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으로 일관되였다.

15성상에 걸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과정을 통하여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혁명투쟁 및 무력건설경험과 귀중한 업적들이 이루어졌으며 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적골간이 육성단련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첫날부터 유격대원들을 혁명투쟁속에서 단련육성하는 한편 그처럼 치렬한 전투와 행군의 나날에도 그들속에서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유격대원들을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불굴의 혁명투사로 육성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간고한 조건에서도 군정학습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조직지도하시고 몸소 창조

하신 전략전술과 령군술을 체득시킴으로써 유격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간부로, 군사지휘관으로 키우셨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무력건설과 함께 정확한 군사행동지대의 선정, 유격근거지 창설 등 군사전략적 문제들이 독창적으로 해결되였다.

이와함께 습격전, 유인전, 매복전, 도시진공전, 야간습격전, 조우전, 방어전, 반포위전 등 각이한 전투형식, 그리고 적과의 싸움에서 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적의 량적, 기술적 우세를 사상적, 전술적 우세로써 격파하고 적의 약점을 리용하여 항상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기력량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많은 적을 소멸케 한 령활한 전략전술이 창조되였다.

무장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이러한 풍부한 전략전술적경험은 인민군대가 계승발전시키고있는 귀중한 재부로, 밑천으로 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장차 우리 나라에 창설될 강력한 정규적인민무력의 실질적인 준비, 튼튼한 토대가 굳건히 마련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인민군대는 15성상에 걸친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구상되고 준비된 혁명무력건설의 로선과 방침, 무력건설의 풍부한 경험, 그리고 그이께서 친히 육성하신 혁명적골간이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짧은 기간에 강대한 인민의 무력으로 창설될수 있었으며 수령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영광에 찬 승리의 로정을 걸어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건된 인민군대를 현대적인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강성강화하기 위하여 인민군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하고 그의 무장장비를 개선하며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과 전투훈련을 강화하고 전투준비를 완성하며 부대내에 강철같은 군사규률을 확립할데 대한 명확한 방침과 실천적인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시 경제적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군대의 무장장비를 개선하고 인민군대를 현대화하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셨으며 인민군대를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현대적정규군으로 육성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육성함에 있어서 군대내 당정치사업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시고 그 사업의 기본방향과 방도, 구체적인 형식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우리의 정규적이고 상비무력인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강유력한 현대적혁명무력으로 육성강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신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보살핌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적들의 침략책동도 걸음마다 분쇄하고 민주기지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으며 짧은 기간내에 어떠한 강대한 적의 침공도 성과적으로 격파할수 있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된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미제국주의무력침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의 영웅적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였으며 당과 수령의 세련된 령도를 받는 혁명군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하는 지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에게 있어서 가장 엄혹한 시련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오자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미제침략자들과의 판가리싸움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께서는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영웅적투쟁과 력사적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군대가 가지는 정치사상적우월성을 현대적군사기술과 결합시키고 전술적우세를 보장하여 적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분쇄하였으며 침략자들에게 걸음마다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적의 발악적공세를 격퇴하고 적의 대집단을 포위 섬멸하며 적의 약점을 포착하여 주동적으로 도처에서 적에게 타격을 준 인민군대가 수행한 모든 성과적인 작전과 전투들은 최고사령관김일성동지의 군사예술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그이께서 창건하시고 교양육성하신 우리 인민군대는 공격전도 잘하고 방어전도 잘하며 적후투쟁도 잘하는 불패의 군대라는것을 실증하였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백두의 준령을 넘나들면서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신 항일유격대의 불멸의 위훈과 혁명정신,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한다는 높은 자각, 광명한 미래와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은 인민군 장병들에게 무궁무진한 힘과 용기를 주었다.

인민군용사들은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하였으며 인민과 혼연일체가 되여 미제침략자들에게 군사적 및 정치도덕적 참패를 주고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과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에게 놈들의 침략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패배를 줌으로써 그놈들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세계피압박민족들에게 미제와 싸워 능히 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오직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인민의 영명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 그이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군사예술의 승리였으며 군사분야에서의 수령의 주체사상의 승리였다.

주체사상, 이것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같이 군사분야에서도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되고있으며 수령의 군사사상과 군사예술의 혁명적진수를 이루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전과정을 통하여 우리 혁명의 전취물은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보위하여야 하며 우리 나라 무장력건설과 국방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으며 또 이 원칙을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수령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전쟁의 매시기, 매단계에서 조성되는 정황을 예견성있게 통찰하시고 천재적인 전략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비행기사냥군조운동, 습격조와 저격수의 활동, 영구축성물을 배합한 야전진지에 의거한 전투 등 새롭고 독창적인 전투형식과 방법들을 계속 발기하시여 능동적으로 적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로 하여금 항상 전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매전투마다 커다란 승리를 가져오도록 하시였다.

수령의 현명한 전략작전적방침에 근거하여 인민군장병들은 반공격에로 넘어간지 3일만에 서울을, 2개월동안에 남조선 전역의 90%이상을 해방하였다.

그리고 전략적후퇴시에 수령께서는 침입해오는 적의 주력을 견지하는 한편 대부대에 의한 적후투쟁을 전개하여 적을 정면과 후면으로 부단히 족치게 하시였으며 그후 적들이 대대적으로 무력을 증강하여 동서해안에서의 상륙작전과 배합한 전선에서의 공격을 계속 시도하였을 때에는 적극적인 진지방어로 이전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인민군대로 하여금 적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주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수령께서는 전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군대내 당정치사업과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는데 항상 심중한 관심을 돌리시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군대내 정치사업체계와 방법을 확립하시였다.

그리고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그이께서는 몸소 전선에 나가시여 현지에서 직접 작전을 조직지휘하시였다.

또한 전호에서 싸우는 전사들을 고무하시였으며 군인들의 생활과 건강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 인민군전사들에 대한 그이의 극진한 배려로하여 우리의 인민군장병들은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불사조와 같이 싸울수 있었으며 오직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 일편단심 수령께 충성을 다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또한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불같은 충성심의 빛나는 결실이다.

수령의 령도에 충실하며 그이께서 주시는 혁명과업을 목숨바쳐 수행하는것은 인민군대의 활동에서 철칙이며 항일무장투쟁으로부터 계승한 가장 고귀한 전통이다.

인민군장병들은 수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였으며 언제 어느때나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그이의 혁명사상을 옹호하였으며 모든 힘을 다하여 수령의 교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였다.

어떤 사나운 풍파도 어려운 역경도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끝없는 충성심을 꺾을수 없었으며 수령이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전진하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지못했다.

그들은 어떤 어렵고 가렬한 전투마당에서도 경애하는 수령의 영상을 그리면서 그이께 충실하였으며 수십수백배에 달하는 적이 덤벼들어도 그이의 가르침대로 원쑤들과 무자비하게 싸울것을 맹세다지면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떠서 원쑤를 쓸어 눕히는 결사전에 나섰다.

실로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인민군대는 강철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단련되고 강화되였으며 풍부한 경험을 체득하였다.

그리고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인민군전투원들이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우는 열렬한 혁명가로 자랐으며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로혁명가들과 함께 새로 자란 수많은 혁명가들을 가진 우리 당의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장성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에 조성된 정세와 나라의 혁명발전 및 조국통일의 전망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방에서 우리 당의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혁명적인 군사로선과 그 관철을 위한 제반 방도들을 명백히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내외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수령께서는 또한 우리 나라에 조성된 군사, 정치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 인민군대의 사명 그리고 현대전의 특성 특히는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의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위대한 군사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육성하시였으며 그를 핵심으로 하여 강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시였다.

수령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대오로, 군사기술적으로 굳건히 준비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최신무기와 선진적전투기술기재로 장비된 강철의 현대적무력으로, 가장 공고하고 가장 조직화된 믿음직한 후방을 가진 강유력한 군대로 되였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가르키신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이를 목숨으로 튼튼히 보위하고있다.

군대의 정치사상적무장은 혁명군대로서의 우리 인민군대의 특성이며 우월성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여러차례에 걸치는 군사정치일군회의들에서 변천된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 맞게 인민군대내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면서 군대내 사상사업의 방향과 내용 및 그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시하시였다.

수령의 이 강령적인 교시를 받들고 군대내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군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모든 군인들이 수령의 교시를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항일유격대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높은 계급적자각을 갖고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목숨바쳐 지키도록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강력히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모든 인민군장병들은 오직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과업이라면 어떤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관철하며 일생을 그이의 참된 혁명전사로 싸워나갈 혁명적각오로 불타고있다.

그리고 군대내에서는 모든 군인들이 인민군대의 숭고한 사명을 더욱 철저히 자각하고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정신상태는 매우 훌륭합니다. 군대내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있으며 모든 군인들이 당과 혁명을 목숨으로 보위하려는 한결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장병들간의 동지적우애와 자각적규률,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 이 모든 아름답고 고상한 기풍이 인민군대의 온 대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단행본 4페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인민군대내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조직전개되고있는 붉은기중대운동은 군인들의 사상적풍모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게하였다.

사상혁신에 기본을 둔 이 운동은 《전체 군인들은 한사람같이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하에 군인들이 생활하고있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급속히 확대됨으로써 인민군대는 더욱 강철같이 단련된 불패의 전투대오로 장성하고있으며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기풍이 군인들속에서 더욱 전면적으로 확립되고있다.

또한 인민군대는 군사기술적으로 훌륭히 단련되고 준비되였으며 그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지휘관으로부터 전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장비되였으며 전체 군인들이 한등급이상의 군사적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는 높은 군사기술과 지휘능력을 훌륭히 소유한 간부군대로 되였다.

이것은 인민군대자체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게 하였을뿐아니라 일단 유사시에 군대를 량적으로 확대하고 전민무장화에 요구되는 간부문제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는 결정적담보로 되였다.

인민군대 각군종과 병종들을 강화할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군대의 전투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인민군대는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배려에 의하여 그어떤 강적도 얼마든지 때려부실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가진 현대적무력으로 강화되였으며 모든 군종, 병종부대들이 어떤 복잡한 현대전도 승리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 기술적준비를 갖추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최신무기로 장비되였으며 모든 장병들이 다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혁명무력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하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장구한 기간에 걸쳐 일제의 조선주둔군 및 관동군과 싸워이겼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침략군대도 때려부셨으며 유격전쟁도 해보고 현대전쟁도 해본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임의의 정황에서 어떠한 제국주의침략군대도 능히 싸워이길수 있는 능숙하고 세련된 령군술과 전투력을 가진 혁명군대로 자라났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우와 같은 책5페지)

인민군대의 모든 군종, 병종은 우수한 군사전문가들을 많이 가지고있으며 인민군대의 모든 장병들은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소유하고있다.

인민군대내에서는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의 고귀한 경험을 깊이 연구하고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지휘관들의 령군술과 지휘능력을 더욱 높였으며 부대들의 전투력을 전반적으로 더욱 강화하였다.

인민군대는 그동안 대렬구성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인민군대의 대렬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밑에서 자라났고

우리 당에 의하여 교육교양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 꾸려졌으며 특히 인민군대의 핵심인 혁명적골간이 수많이 자라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를 특별히 기쁘게 하는것은 인민군대의 핵심인 혁명적골간이 수많이 자라난것입니다. 인민군대가 창건될 때에는 준엄한 혁명의 시련속에서 단련된 혁명적골간이 수천명에 지나지 않았다면 20년이 지난 오늘 인민군대내에는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가한 오랜 혁명투사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혁명적골간이 수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모든 군종, 병종에 걸쳐 우수한 군사정치간부들로 믿음직하게 꾸려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동안 인민무력건설에서 우리가 거둔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인민군대의 혁명적골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당의 귀중한 핵심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매우 고귀한 밑천입니다.》 (우와 같은책 6페지)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혁명과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일당백의 강철의 혁명대오로, 그 어떤 강대한 원쑤도 쳐부실수 있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되였다.

또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무장되여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조국보위의 임무를 담당하고있으며 전연과 후방, 해안과 종심, 그 어데를 막론하고 나라의 모든 지역에 철벽같은 방위시설이 구축되여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에 의하여 필승불패의 혁명대오로 장성강화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국적, 전인민적방위체계는 원쑤들이 어느때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침공하여온다 하더라도 일격에 격멸 소탕하여 버릴수있게 준비되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는 정전이 된 이후에도 우리 나라에서 재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원쑤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살피면서 놈들의 각종 도발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조국의 방선을 굳건히 지켰다.

인민군보병들은 원쑤들의 그 어떤 형태의 무장침공도 그때마다 무자비하게 족쳐버렸으며 인민군 해군 및 해안포용사들도 우리 나라 령해에 기여든 《경호함 56호》를 비롯한 수많은 적함선들을 동서바다 깊이 처박아버렸다.

특히 1968년초에 우리 나라 령해깊이 침입하여 정탐과 적대행동을 감행하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에도 례외없이 단호한 징벌을 안김으로써 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원쑤들의 코대를 꺾어놓았으며 미제침략자들로하여금 우리 인민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어 항복케 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강의성과 혁명성,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온세상에 시위한것이며 미제침략자들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실증해준것이다.

우리의 슬기로운 비행사들은 조국의 령공에 날아들었던 《아르비—47》 정찰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수많은 적 최신비행기들을 격추격상하였다.

실로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침략자들의 어떠한 군사적도발도 단호히 짓부시며 조국의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선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자랐다.

이와같이 인민군대는 자기의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으로서 당과 수령앞에 지닌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으며 우리 당의 혁명력사에 찬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지고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되고 현대적군사과학기술과 최신군사기술기재로 굳건히 장비된 정규무력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입니다.》 (우와같은책 7페지)

우리 인민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전체 조선인민과 함께 이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반드시 쓸어버리고 조국을 통일하며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고야 말것이다.

경애하는 수령께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인민군 (경비대)군인들에게 주신 극진한 배려

영광스러운 항일유격대의 억센 뿌리에서 솟아난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인민군의 창건자이시며 그를 오늘과 같은 불패의 전투대오로 키워주신 우리 인민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인민군(경비대)구분대들과 군인들, 사회안전원들에게 또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인민군대(경비대)를 항상 아끼고 사랑하여주시며 그의 강화발전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아끼시지 않는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의 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부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온갖 지혜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고있으며 당과 조국과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하고있는 조선인민군 군인들과 조선경비대군인들, 사회안전원들에

게 선물을 보내주시였으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웠으며 당과 인민과 사회주의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조국의 방선을 튼튼히 지키고있는 조선인민군 (경비대)의 우수한 구분대들에 축하문을 보내주시였다.

수령께서는 또한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의 군사정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로농적위대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온갖 지혜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로농적위대원들도 표창하시였다.

또한 수령께서는 지난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피로써 조국을 보위하였으며 오늘에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꽃을 피워가고있는 영예군인들에게와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답게 당과 조국을 위하여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싸우다 희생된 공화국영웅들의 가족들에게 이 명절에 즈음하여 그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실로 지난날 자기의 조국이 없고 자기의 주권과 무장력을 가지고있지 못하였음으로 하여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우리 인민에게 오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조국을 가지게하여주시였으며, 위대한 당의 향도아래 날로 륭성발전하는 사회주의제도와 오늘과 같이 불패의 혁명대오로 장성강화된 조선인민군과 조선경비대, 로농적위대를 가지게 하여주신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돌려주시는 이 극진한 배려는 바로 그이께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육친적인 사랑, 크나큰 신임의 표시이다.

영광스러운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당과 수령께서는 지난기간 인민군대의 창건과 그의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에 기여한 군인들과 당의 군사로선관철에서 공훈을 세운 수많은 인민군(경비대)장병들과 사회안전원들에게 조선인민군창건기념훈장을 비롯한 국가훈장을 주게하시였으며 당이 준 혁명임무수행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련합부대들에 근위칭호를 수여하게 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조선로동당의 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임무수행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은 조선인민군 제1보병사단과 제1비행사단에 근위칭호를 수여하였다. 그리고 조선경비대 제2106군부대에 자유독립훈장 제1급을 수여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당의 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전투력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온갖 창조적열정을 다하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한 조선인민군의 우수한 구분대들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공화국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축기와 조선인민군창건스무돐영예상을 수여하였다.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당과 수령의 두터운 배려와 신임이 깃들어있는 공동축기와 영예상기발에는 다음과 같은 글발이 수놓아져있다.

《조선인민군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 계승자로서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공화국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싸우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인민군장병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되여야하며 우리 당의 군사로선인 군대의 간부화, 군대의 현대화, 전체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

공화국내각에서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대한 당의 로선을 높이 받들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51개 대상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11개대상의 중요설비들에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칭호》를 수여하였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였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인민군대(경비대)의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그 어느것이나를 막론하고 인민군대 (경비대)를 친히 창건하시고 그를 항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인도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사랑을 떠나서는 조금도 생각할수 없다.

우리 혁명의 매단계마다 인민군대가 나아갈 천재적인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온 나라일을 돌보시는 그 바쁜 나날에도 구분대들을 몸소 찾으시여 구분대가 나아갈 방향을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군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친어버이 손길로 따뜻이 보살펴 주시는 경애하는 수령께서 이번에 또 자기들에게 이토록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배려를 돌려주시며 크나큰 신임과 기대를 표시하여주신데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그이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불타고있는 인민군 (경비대)장병들과 인민들은 앞으로도 그이의 령도를 따라 당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며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다할것을 굳게 다지고있다.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은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수령의 주위에 철통같이 뭉쳐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우리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것이다.

김일성원수께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전체 조선인민군 및 경비대 장병들이 맹세문을 드렸다

우리 당의 불패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 주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께 전체 조선인민군 및 경비대 병사 초급지휘원, 군관, 장령들이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을 다할 결의를 담은 맹세문을 드리였다.

맹세문은 김일성원수께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자기들의 지성을 다하여 드린 기념품가운데 들어있는 병풍에 금문자로 새겨져있다.

병풍에 새겨진 맹세문에서 전체 조선인민군 및 경비대장병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께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당의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게 전투력을 일당백으로 더욱 강화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결하게 싸워나아갈것을 굳게 맹세하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인민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우리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만수무강하실것을 축원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기념 경축대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기념 경축대회가 2월 7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민족적경사의 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인민무력건설의 깊은 뿌리를 마련하시고 해방후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자위로선에 기초하여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을 몸소 창건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단계마다 천재적인 군사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여 인민군대를 영광찬란한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열화같은 충성심이 끓어번지였다.

또한 우리 인민은 지난 20년간 일편단심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였고 미제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조국강토를 피로써 사수하였으며 오늘도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철벽으로 지키면서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으며 전사회에는 우리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조직되였고 인민과 혈연적련계를 맺고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복무하고있는 위력한 인민군대에 대한 두터운 신뢰와 육친적사랑이 흘러넘치였다.

대회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고 그이의 혁명로선을 견결히 옹호관철하여온 항일유격대 참가자들을 비롯하여 무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조국보위의 혁명초소를 튼튼히 지켜서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또한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과학, 문화, 예술, 출판보도부문 책임간부들,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로농적위대원들을 비롯한 시내근로자들과 인민군후방가족들,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흘려싸웠고 오늘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심장깊이 아로새기고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고있는 영예군인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에 와있는 각국 외교대표들과 무관들이 또한 대회에 참가하였다.

수령께서 나오실때를 정숙히 기다리고있는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인민군의 지난 20년간의 영웅적 투쟁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았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대회장이 떠나갈듯한 우렁찬 박수와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를 올렸다.

그들은 일찌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40여년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온갖 풍파를 몸소 타개하시면서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령도하시였으며 우리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오늘과 같은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현대화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승리의 함성이 천지를 진감하던 남진의 길에서, 1211고지의 가렬한 격전에서, 전승의 개가 높이 울린 조국의 모든 고지들에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한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오직 그이께 모든 충성을 다하며 불사조와 같이 싸워이긴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인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대회장은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수령께 인민군 군인들이 전체 조선인민군장병들과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지성어린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축대회에서는 개회사에 이어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의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동지들을 추모하며 혁명동지들의 뜻을 이어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결의를 굳게 다지면서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묵상을 하였다.

이어 애국가 주악이 있은 다음 기념보고가 있었다.

조선인민군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항일유격대가 조직된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40년간의 빛나는 투쟁력사를 가진 우리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조직하시고 령도하시는 행정에 앞으로 조국이 해방된후 강력한 현대적무력을 창건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가지시고 인민무력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으며 해방후 그에 기초하여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백두밀림속에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강력한 정규군대의 창건을 준비하여오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군사강령의 구현이였으며 이는 인민무력건설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기간의 피어린 투쟁과 노력의 고귀한 열매이다.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이며 우리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은 조선혁명의 뇌수이며 심장인 당중앙과 수령을 보위하며 우리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과 조국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믿음직하게 지키며 나라의 통일독립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싸워야할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있다.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지난 20년간은 바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성을 다하여온 보람찬 력사이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자유독립과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전취물을 굳건히 지켜온 혁명의 력사이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무력으로써 담보할수 있는 일당백의 강철의 대오로 자라온 영광에 찬 력사이다.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 미제와 그의 15개 추종국가 고용병들의 무력침공을 분쇄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 인민군용사들은 실로 불멸의 위훈을 세움으로써 우리당 력사에 찬란한 업적을 기록하여놓았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대오로, 군사기술적으로 굳건히 준비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최신무기와 선진적전투기술기재로 장비된 강철의 현대적무력으로, 가장 공고하고 가장 조직화된 믿음직한 후방을 가진 강력한 군대로 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민군대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새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흉악한 미제침략자들을 공포에 떨게하고 있다.

지난기간 인민군대가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전략과 전술,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위의 혁명적원칙과 혁명적군사로선의 위대한 결실이다.

김일성동지의 자위사상은 우리당의 군사로선과 국방정책의 확고부동한 초석을 이루고있으며 이 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국방건설이 지도됨으로써 우리의 방위력이 오늘과 같이 튼튼히 다져질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과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방위력과 인민군대의 전투력이 오늘과 같이 비상히 강화될수 있었다.

대회에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원수께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로부터 보내온 축하문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로부터 보내온 축하문이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또한 대회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김일성원수께 재일동포들로부터 축기와 축하문들을 보내온 소식과 그리고 황해제철소와 천리마청산협동농장을 비롯한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대회앞으로 축하문을 보내온 소식이 전달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자신을 우리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결정과 수령의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며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하는 우리당의 자위적인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길 결의를 다시금 굳게 다졌다.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경축연회가 있었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2월 8일 저녁 옥류관에서는 공화국내각이 차린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경축연회가 있었다.

연회에는 당과 정부의 책임간부들, 조선인민군장병들, 사회단체, 과학, 문화, 예술, 출판보도부문간부들, 항일투사들과 혁명렬사유가족들, 공화국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 영예군인들, 인민군후방가족들과 로력혁신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에 와있는 각국 외교대표들과 무관들이 연회에 초대되였다.

경애하는 수령께서 나오실 시각을 정숙히 기다리며 영웅적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20년간의 자랑찬 투쟁로정을 돌이켜보는 전체 연회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우리인민군대를 직접 창건하시고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현대화된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육성하시였으며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주고계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열화같은 충성심이 끓어번지고있었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떼여놓고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창건과 불멸의 전투적위훈으로 빛나는 그의 영광스러운 투쟁행로도,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힌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위대한 승리도,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서의 인민군대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조국의 무궁한 륭성번영도,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에 대하여도 결코 생각할수 없다는것은 투쟁과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 인민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철석같은 신념이다.

그러므로 우리인민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수령을 그처럼 흠모하며 위대한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서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을 다하는것을 최대의 영예로, 행복으로 여기고 있는것이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연회장에 나오시였다.

전체 연회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그칠줄 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일찌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때로부터 40여년간 조국과 민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온갖 풍파를 몸소 타개하시면서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연회가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연설을 하시였다. (문헌편 36페지 참조)

수령께서 하신 연설은 실로 우리의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명시한 행동강령이다.

이 강령적교시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결정과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관철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들을 새로운 위대한 승리에로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을 전개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으며 반제반미투쟁의 한길에서 우리와 어깨를 겯고 나아가는 우리의 벗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있다.

수령의 연설을 한없이 격동된 심정으로 가슴깊이 아로새기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비롯한 전체 연회참가자들은 수령의 강령적교시를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새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미제를 제압하며 원쑤들이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그들을 일격에 쓸어버리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을 통일하고야 말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었다.

이날 전체 연회참가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과 그이의 위대한 군사사상의 더욱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축배를 들었다.

연회에서는 또한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경비대, 녀성군인 및 영예군인대표들이 조선인민군과 경비대를 직접 창건하시고 그를 일당백으로 키워주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김일성동지께 축배를 올렸다.

우리 나라에 와있는 외교단 단장이 우리 나라주재 외교단을 대표하여 경애하는 수령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음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조선인민군이 수령의 령도하에 지난 20년간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투쟁행로를 걸어온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축배를 들었다.

연회는 시종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와 충성심이 넘쳐흐르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조선인민앞에 미제는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과 관련하여—

조선에서 재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쳐날뛰고 있는 미제침략자들은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유린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적대행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오던 끝에 1967년 1월에는 《경호합 56》호를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행동을 감행하다가 우리의 단호한 보복타격을 받고 바다속깊이 매장되고 말았다.

여기서 교훈을 찾지못한 미제침략자들은 1968년 1월에도 제놈들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우리측 연해에 깊이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단호한 징벌을 받고 제놈들의 범한 죄과로 조선인민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어 사죄 하였다.

단호한 징벌

조선에서 재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던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무장유격대활동에 극도로 당황망조하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각종 군사적도발행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데 이르렀다.

1968년 1월 21일과 22일 서울한복판에서 미제와 그주구 박정희괴뢰역도들을 전률케한 무장유격대원들의 맹렬한 기습작전이 벌어진 순간 미제침략자들은 마치 때나만난듯이 더욱 미쳐 날뛰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지상으로는 우리측지역을 향해 수천발의 총포사격을 감행하는 한편 해상으로는 미제침략군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원산앞바다에까지 침입시켜 엄중한 도발행동을 감행케하였다.

해상순찰과정에 이와 맞다들린 우리 해군함정들은 우리 조국의 령해에 깊이 침입하여 오만무례하게 저항해나서는 이 가증스러운 도발자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미제침략군 수명을 살상하는 한편 80여명을 전부 생포하였으며 1천여톤급 함선과 이에 장비된 고사기관총을 비롯한 저격무기 수십정과 각종 탄약 및 수류탄 수만발을 포함하여 기타 수많은 간첩용 무장장비들을 로획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한 《푸에블로》호의 도발행위는 1967년 1월 우리측 연해에 침입하였다가 단매에 녹아난 미제《경호합56》호의 침범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동해상에서 련일 감행된 모든 도발행동을 릉가하는 가장 악랄한 도발행위이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은 미제침략자들의 침략적본성을 더욱 낱낱히 폭로하여 주고 있으며 놈들이 조선에서 재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얼마나 무모하게 행동하는데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 무장간첩선함장을 비롯한 그 승무원들이 고백한바와 같이 각종 정탐설비를 갖춘 전문적인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미제침략자들의 중앙정보국의 지시에 의하여 우리 나라 령해에 깊이 들어와 여러곳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항구들과 연해에 있는 각종 군사시설들과 무력배치 상태와 공업시설 등 일련의 군사적 및 국가적기밀을 정탐하던중 조선인민군 해군함정에 의하여 나포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악랄한 도발행위는 백주의 날강도적인 침략행위이며 악랄한 전쟁도발행동이다. 실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도발행위는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새로운 란폭한 유린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침략행위이며 조선에서 재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계획적책동의 일환이며 극동과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다.

그러므로 조선인민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용허할수 없는 침략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한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자기 조국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것은 매개 독립국가들의 신성한 권리이며 그 누구도 침범할수 없는 내정문제이다. 따라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나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주권의 행사였다.

《푸에블로》호 나포, 그것은 또한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일당백의 전투력을 억세게 다지면서 원쑤들을 이땅에서 영영 쓸어버릴결의에 불타고있는 인민군군인들과 우리 인민의 100여년의 피맺힌 원쑤 미제침략자들에게 내린 단호한 징벌인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의 날강도적 범죄행위

조선에서 재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이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깊이 침입시킨것은 말그대로 날강도적인 해적행위이며 주권국가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조선에서 재전쟁을 일으키려는 놈들의 계획적인 책동의 일환이다.

미제침략자들의 날강도적인 범죄행위는 자기들의 간첩선이 미제의 간첩소굴인 중앙정보국의 임무를 받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깊이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나포되였으며 자기들의 행위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범죄적행위이고 완전한 침략행위였다는 것을 고백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함장 로이드 마크 부쳐를 비롯한 이 간첩선 선원들의 자백서들, 그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제출한 공동사죄문과 청원서, 감

사문, 기자회견들,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위치일일기록부와 항해도를 비롯한 작전문전들에서 명백히 들어났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전체 선원들이 제놈들의 범죄행위를 다시금 사죄하면서 관용성과 자비심을 베풀어줄것을 간절히 애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드린 청원서에는 다음과 같이 밝혀져있다.

즉 해양연구사업이라는 외피로 가리운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세가지 주요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간첩선으로서 설계되고 취역된것으로 첫째로 군사적의의가 있는 모든 전자신호들을 정탐할수 있으며, 둘째로 군용함선과 상선들을 사진 촬영하는 것을 포함한 육안정찰을 수행할수있으며 세째로 군사적관심사로되는 해양관찰을 수행할수있다는 것이다.

1967년 12월 초순에 기지항인 일본 요꼬스까에 도착한 이 간첩선은 이와 류사한 간첩선인 미제침략군함선 《배너》호와의 련계밑에 《픽크푸트작전》(그후《익씨이크작전》으로 개칭됨)이라는 암호이름으로 알려진 일련의 《작전》들을 수행하기로 계획되였으며 이것들은 소위 일본주둔 미해군사령관 프랭크 엘 죤슨《제독》이란 놈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작전》을 수행하였다.

12월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임무를 받고 준비사업에 착수한 이간첩선원들은 요꼬스까에 있는 동안 함에 필요한 수리와 개선을 진행하는 한편 불충분하지만 조선반도에 대하여 입수할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1968년 1월 2일 죤슨《제독》이란놈의 검열을 받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마스》,《비너스》및 《풀루트》의 암호이름으로 불리우는 세개 《작전》수역에서 정탐을 수행하며 네개의 주요관심사로 되는 항구인 청진, 성진, 마양도 및 원산에 주의를 집중시키게 되여있었다.

소위 일본주둔 미해군사령관놈으로부터 이 간첩선원들은 네가지 특수임무를 받았다.

첫째로, 조선인민군해군활동을 확인하며 둘째로, 조선인민군이 송신하는 일체 전자신호들을 도청하며 세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 연해에 침범한 미제의 무장간첩선과 같은 간첩선에 대한 반응을 판정하며 네째로, 군사적관심사로 될수있는 일체 새로운 것의 발견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이였다.

그놈들은 발견당할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놈들의 정탐행낭에 좋은 자료를 첨가할수 있는 전망이 보일때면 언제든지 다른 나라의 자주권에 속하는 령해에 들어갈수있는 《지령》까지 받았었다.

또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정탐임무 수행에서도 완전히 효력을 가지는 1966년 소위 태평양함대사령관놈의 지시 003120, 24에이 수정—2호에는 해군정탐임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세칙을 규정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해에서는 3마일 한계까지 침입하라는 것이 밝혀져있었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해에 침입하여 열흘동안 활동한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는 130개이상의 전파탐지기신호들을 도청하였으며 15회이상에 걸쳐 상선활동을 발견 및 촬영하였으며 여러곳에서 해양측정을 하였다.

놈들의 청원서에 의하면 나포되기전까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다음과 같은 지점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해에 침입하였다.

1) 룡대갑으로부터 8. 1마일(북위 40도 23분, 동경 129도 13분)

2) 어랑단으로부터 11. 2마일(북위41도 25분, 동경 130도 03분)

3) 갈단으로부터 8. 3마일(북위 41도 50분, 동경 130도 07.5분)

4) 갈단으로부터 10. 15마일(북위 41도 46.5분, 동경 130도 07.5분

5) 갈단으로부터 10.5마일(북위41도 46분, 동경 130도 07, 5분)

6) 갈단으로부터 9.8마일(북위 41도 51분, 동경 130도 10분)

7) 갈단으로부터 9.3마일(북위 41도 47분, 동경 130도 06분)

8) 서수라동으로부터 10마일(북위 41도 45분, 동경 130도 05분)

9) 갈단으로부터 7.2마일(북위 41도 50분, 동경 130도 06분)

10) 갈단으로부터 9.3마일(북위 41도 48.5분, 동경 130도 08분)

11) 갈단으로부터 9.3마일(북위 41도 47분, 동경 130도 06분)

12) 고말산단으로부터 11.1마일(북위 41도 37.5분, 동경 130도 01.5분)

13) 란도로부터 10.75마일 (북위 40도 28.1분, 동경 129도 36.7분)

14) 란도로부터 11.3마일(북위 40도 27.3분, 동경 129도 30분)

15) 마양도로부터 10마일(북위 39도 50분, 동경 128도 18분)

16) 안성갑으로부터 8.2마일(북위 39도 48.9분 동경 128도 01.9분)

17) 려도로부터 7.6마일(북위 39도 17.4분, 동경 127도46.9분)

이상의 모든 침범들은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 선원들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기록한 문전들, 로란 《씨》기록부에 의하여 확증되였을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 령해침입과 정탐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 간첩선의 함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자백에서 명백히 들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파렴치하게도 강도적인 주장과 궤변으로써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될 당시에 《공해상에 있었다》느니, 《어떠한 범죄행위도 감행하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제놈들의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책임을 모면해보려고 악랄하게 시도하였다.

다른 한편 미제국주의침략자들

은 제놈들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나라 령해에서 나포되자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벌리면서 남조선과 우리 나라 동해안일대에 숱한 침략적무력을 끌어다놓고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겠다고 공공연이 그 누구를 《위협》해 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였다.

그리고 《푸에블로》호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며 세계 여론을 오도하기 위해서도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격으로서 제놈들의 추악한 침략적본성을 더욱 더 들어내놓았을 따름이다.

미제침략자들의 그 어떤 《위협》이나 교활한 궤변도 영웅적조선인민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미제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 긴장한 정세가 조성된 환경에서도 경애하는 수령의 주위에 철통같이 뭉친 조선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은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원쑤들의 도발책동이 있을때마다 강력한 보복으로 놈들의 기도를 파탄시켰으며 원쑤들이 감히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침략자들을 이땅에서 영영 쓸어버릴 혁명적각오를 더욱 굳게 다졌다.

우리 인민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 경축연회에서 연설하시면서 우리당의 견결한 혁명적립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계속 무력을 동원하여 위협공갈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들은 이로부터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을것입니다. 있다면 오직 시체와 죽음뿐일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며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더 큰 참패를 당하리라는것을 단단히 각오해야 할것입니다.》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단행본 10페지)

경애하는 수령의 이 교시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의 표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조선에 대한 광란적인 전쟁도발 소동도,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지상과 공중, 해상 전 전선에 걸쳐 수없이 감행된 군사적도발책동도 조선인민의 굳센 혁명적의지를 꺾을수 없었으며 놈들은 그때마다 참패의 쓴맛을 보지않을수 없었다.

또한 미제의 궤변도 날이갈수록, 그리고 놈들의 파렴치성과 교활성이 더해질수록 그것은 도리여 제놈들의 범죄에 대한 더욱 엄중한 진상을 세상에 드러내놓게 하였을뿐이다.

날과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더욱 깊은 곤경에 빠지게된 미제는 더는 배겨나지 못하게되고 더욱 엄중한죄행이 드러날것이 두려운 나머지 제놈들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그런 범죄적행위를 감행하지 않을데 대하여서까지도 담보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인민앞에 미제는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대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날강도적인 침범행위와 정탐행위를 음폐하기 위하여 온갖 파렴치한 행동을 다 감행하여온 미제침략자들은 제놈들이 저지른 엄중한 범죄행위에 대한 확고한 증거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들의 견결한 립장 그리고 전세계 인민들의 단호한 규탄앞에서 더는 빠져나갈수 없게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푸에블로》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여러차례 침입하여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다시는 어떠한 미제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를 침범하지않도록 할것을 확고히 담보한다고 하면서 승무원들을 관대히 처분하여줄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문건에 서명하여 그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리하여 미제침략자들은 제놈들이 저지른 오만 무례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징벌로 세계인민의 면전에서 조선인민앞에 또한번 무릎을 꿇었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은 현행간첩범들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나 그들이 자기들의 죄행을 솔직히 자백하면서 관대히 용서하여 줄것을 거듭청원하였으며 또한 미국정부가 해당한 죄행에 대하여 책임지고 사죄한것을 고려하여 12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그 승무원들을 공화국북반부 경외로 추방하였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격분을 일으켰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은 미제의 치욕스러운 침략력사에 영원히 기록될것이며 이미 미제침략자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이 엄연한 사실을 지워버릴수 없을것이다.

이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당 자위로선의 빛나는 승리로된다.

전세계 인민들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을 통하여 다시한번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수치와 패배를 주어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린 조선인민의 커다란 승리를 한결같이 축하하였다.

× ×

15년전,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은 장소 판문점은 12월 23일 미제국주의자들이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으로하여 조선인민앞에서 또다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함으로

써 다시 한번 전세계 인민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으며 침략자, 범죄자로서의 미제의 추악한 몰골을 온 세상에 고발하는 또하나의 력사를 기록하였다.

12월 23일 9시 판문점의 회의장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심판대에 오르고있었다.

제놈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회피할수없는 물적증거앞에서 더는 빠져나갈수 없게된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문건에 서명하고 있었다.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이 있은 초기부터 제놈들이 감행한 엄중한 범죄행위를 부인하여오던 미제침략자가 사죄하는 문건에 서명하는 그 몰골은 사람들에게 15년전, 조선인민앞에서 항복문건에 서명하던 패전장군 클라크의 몰골을 련상시켰다.

12월 23일 11시가 지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는 사천교 북쪽에 모여있는 국내외 기자들과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들, 그리고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승무원들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였다.

공화국정부 대표의 성명에서는 《푸에블로》호의 승무원들이 제놈들의 죄행을 솔직히 자백하였으며 또한 미국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앞에 그들이 저지른 죄행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지고 엄숙히 사죄한것을 고려하여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승무원전원을 공화국북반부경외로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는것과 《푸에블로》호와 그에 설치된 모든 기재와 무기들은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하는데 사용된 침략과 범죄의 수단이였기 때문에 나포당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이미 몰수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1968년 12월 23일 11시 30분에 판문점을 통하여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이전 승무원 전원을 공화국북반부경외로 추방한다고 하였다.

이날 판문점에 모였던 내외 기자들속에서는 《푸에블로》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시금 표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반제적립장, 침략자와는 추호도 타협하지않는 견결한 립장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자기 죄과를 자백한 범죄자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원칙적인 관용성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였다.

제놈들이 감행한 범죄의 엄중성으로 하여 극형과 엄벌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믿고있었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이전 승무원들은 자기들에게 관용성을 베풀어준 공화국정부의 인도주의적조치에 대하여 한결같이 감사를 표시하였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함장은 전체 승무원들을 대표하여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우리 나라 령해침입과 정탐행위의 진상에 대하여 다시금 진술하면서 그 범죄의 엄중성에도 불구하고 억류되여 있는 동안 자기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하였고 오늘 살길을 열어주는 관용성을 베풀어준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감사를 드리였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의 공화국 북반부경외에로의 추방은 군사분계선이 지나간 사천교에서 진행되였다.

간첩범들의 추방에 앞서 우리측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나포당시 우리 인민군해군의 명령에 불복하고 어리석게도 무모하게 반항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선원의 시체 1구를 적측에 넘겨주었다.

시체는 우리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않고 함부로 날뛰는 원쑤들에게 시체와 죽음밖에 차례질것이 없다고 수차 언명한 우리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였으며 당당한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무모하게 덤벼치는자들은 이 시체와 같은 운명을 면할수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제침략자들은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사건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한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관용성에 의하여 그 승무원들이 살아서 도라갈수있었으나 또다시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행위와 침략행위를 감행한다면 전체인민이 무장하고 온 나라를 요새화한 조선인민은 원쑤들에게 천백배의 섬멸적타격을 가할것이며 결코 한놈도 살려보내지 않을것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도처에서 기승을 부리며 횡포무도하게 날뛰고있으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은 그들이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니며 서산락일의 운명에 놓여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전쟁광증에 걸려 날치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며 조선에서 끝끝내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이번에는 제놈들이 질러놓은 불길에 영영타죽고야 말것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으며 튼튼한 자립경제에 기초한 강유력한 방위력을 가진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앞잡이들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결코 용허하지 않을것이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1968년에도 강력히 전개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계속 남북으로 갈라진채 남아있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은 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20여년동안이나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다.

나라의 분렬은 특히 남조선인민들을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속에 빠뜨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벌써 20년이상 남조선에서 가장 반동적인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함으로써 남조선을 제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켰으며 기아와 빈궁,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고 온갖 패륜과 패덕이 휩쓰는 생지옥으로 만들어 놓았다.

오늘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외국자본의 예속경제로 전변되고 남조선의 농업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이중삼중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을뿐만아니라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참을수 없는 민족적 모욕과 멸시를 받고있으며 생존의 권리마저 항시적으로 위협당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이다.

그러므로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우에서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남조선동포들이 겪고 있는 이 참경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결코 분렬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있고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이 외래침략자들에게 갖은 민족적 모욕과 천대를 다 받고있는 이 불행한 처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도 조선의 어느량심있는 민족주의자도 자기의 임무를 다 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4권 544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년간에만도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위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방침, 이것은 우리 혁명의 등대이며 승리의 기치이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원칙적립장은 확고부동하다.

그것은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자주적원칙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자주적립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천명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도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하며 또 결코 달리는 될수 없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4권 400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그것은 전조선을 외래 침략자들의 손에 내맡기려는 매국배족행위라고 인정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떠한 외세에 의하여 해결될수 없는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입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민족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는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일관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군대가 물러간 조건에서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없이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4권 53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은 자기 나라혁명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책임지고 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 사상의 구현이다.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자주로선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이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세가지 혁명력량이 잘 준비되여야 합니다. 그 첫째는 북조선의 혁명력량이며, 둘째는 남조선의 혁명력량이며, 셋째는 국제적혁명력량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4권 8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 세계인민의 공동의 원수인 미제를 타승하고 조선혁명을 완성하며 나아가서 세계혁명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립장과 국제주의적 원칙이 철저히 관통되여있는 혁명적로선이다.

우리의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68년에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조선혁명의 기지로서의 공화국북반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북반부는 전국에서 민족해방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기지이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은 전조선혁명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4권 545폐지)

우리 당은 언제나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조선혁명의 한부분으로 여기고있으며 북반부를 전국에서 민족해방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기지로 보고있다. 우리 당은 주권을 잡은 첫날부터 이미 해방된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는것과 함께 여기에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을 꾸림으로써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기지로 전변시키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혁명기지를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단결시키는것 즉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65—366폐지)

1968년에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확고한 원칙에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전당적으로 강력히 전개하였다.

전국의 모든 기관, 모든 단위들에서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당사상사업의 거점으로하여 수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하여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연구학습하는 사업이 일층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강화되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이 확대되고 심화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고 언제 어데서나 그이의 사상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려는 혁명적기풍이 전사회에 지배하게 되였으며 온 나라가 단합되여 전진하는 붉은 대가정으로 되였다.

오늘 수령의 주위에 유일한 사상과 의지로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위대한 정치사상적통일, 그에 기초하고있는 우리의 혁명대오는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되였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모두가 남녘형제들을 반드시 해방하여야 하겠다는 혁명적각오를 굳게 가지고 필요할때에는 언제나 남조선인민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결정적투쟁에 떨쳐나설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있다.

이 해에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한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혁명적대고조를 더한층 앙양시키고 천리마의 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나라의 자립적경제력과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과 수령의 부름에 끝없이 충직한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교시와 당이 내세운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분초를 다투어 두몫 세몫 일하는 혁명적인 투쟁을 벌렸으며 온갖 보수와 침체를 짓부시고 천리마의 기세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일전으로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획기적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공업총생산액을 한해동안에 17%나 장성시킨 그 전해보다도 15%나 더 높은 장성을 이룩하였다. 농업부문에서도 전례없는 일대 풍작을 이룩하였다.

농업부문일군들과 협동농장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이 해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면서 정보마다 알곡 500키로그람 더내기 위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수십년래의 큰 가물이 든 조건에서도 전국적으로 모든 작물에 걸쳐 전례없는 풍작을 이룩하였으며 알곡 생산을 전해에 비하여 111%로 높인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리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지원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 밑천이 더욱 튼튼히 마련되였다.

이해에 우리 당과 인민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력강화에도 큰 힘을 돌리였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철석같이 다지였

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스무돐기념경축대회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강력히 추진되고 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할데 대한 당과 정부의 정확한 방침이 관철된 결과 나라의 군사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기초한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가 서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발악적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단행본 33페지)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하는 우리 당의 자위적인 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영웅적인민군대는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고 현대적무기들과 최신군사기술기재로 튼튼히 장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장성강화되였으며 전국가적 전인민적 방위체계가 더한층 굳건히 다져졌다.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킴으로써 이 해에 우리는 공화국의 령해깊이 침입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한것을 비롯하여 원쑤들의 날로 격화되는 전쟁도발책동과 군사적도발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였으며 《푸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더욱 악랄하게 감행한 미제침략자들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도발책동을 단호히 징벌하고 미제로하여금 조선인민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해에 공화국남반부에서도 혁명력량은 급속히 장성되였다.

혁명기지, 공화국북반부가 불패의 력량으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남조선에서의 혁명력량의 강화에 크게 달려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압박과 착취를 받는것은 남조선인민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서는 먼저 남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여 일떠서야 합니다. 이렇게해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제도에 직접 타격을 줄수 있으며 남조선혁명이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더 빨리 추진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80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가슴깊이 아로새긴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자신들의 결정적투쟁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철저히 때려부시고 빼앗긴 인민주권을 도로 찾을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수 있다는 자각밑에 합법적인 대중투쟁으로부터 비합법적인 지하혁명투쟁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형태의 반미구국투쟁을 강력히 벌리였다.

그들은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온갖 풍파를 몸소 헤치시며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보면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투쟁의 무기로 삼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휘황한 대로를 따라 줄기차게 싸우고있다.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반미구국투쟁으로 발전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점차 조직화되고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있으며 각계각층의 보다 광범한 군중이 이 투쟁에 참가하고있다.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지하와 산중에서 지어는 감옥과 《법정》에서까지 원쑤들과 굴함없는 투쟁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부강한 사회주의 락원으로 전변된 공화국북반부의 빛나는 현실에서 통일된 조국의 행복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수령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전략전술적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곳에서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고있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투쟁력사,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부단히 해설선전하면서 인민대중을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고있다.

이해에 지하혁명가들의 불굴의 혁명투쟁과 함께 혁명적무장유격대들이 또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였다. 혁명적무장유격대들은 서울과 경기도, 전라남도와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와 남조선강원도 등지로 지역을 확대하면서 령활무쌍한 전법으로 미제침략군과 괴뢰군경들을 수없이 처단함과 동시에 악질주구들을 처단하고 놈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용감하고 슬기로운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번영하는 공화국북반부의 휘황한 현실을 주민들에게 소개선전하고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그들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통치에 있다는것을 깨우쳐주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김일성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에 더욱 힘차게 일떠설것을 호소하였다.

남조선에서 강화발전되는 혁명가들의 무장유격투쟁과 그들의 정치사상사업은 인민들속에서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켜 광범한 인민대중을 투쟁대오에 더욱 결속시켰다.

남조선혁명가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고무되면서 로동자, 농민, 어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광범한 남조선인민들도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전쟁정책과 가혹한 파쑈폭압

을 반대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대중투쟁을 활발히 벌리였다. 임금인상과 밀린임금지불, 8시간로동제의 실시와 로조결성의 자유 등을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은 1968년 첫 한 분기동안만하여도 전해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건수에 있어서 1.4배, 참가자수에 있어서 2배로 늘어났으며 농촌수탈을 반대하며 생활대책을 요구하여 궐기한 농민들의 투쟁참가자수는 이해 상반년간에만도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3.7배로 늘어났다.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은 오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더욱 앙양되고있으며 인민들은 투쟁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더욱더 각성되고 단련되면서 장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와 그 괴뢰도당의 파쑈적 폭압과 온갖 기만술책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을 통하여 더욱더 각성되고 단련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야말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자라나게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적당한 때가 오면 반드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을 타도함으로써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82페지)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도 더욱더 강화되고있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제혁명력량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한편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입니다. 미제국주의는 국제반동의 원흉이며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입니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패망은 전세계적범위에서 그들의 패망과 밀접히 련결되여있습니다. 세계혁명력량이 더욱 강화되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더욱더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어갈수록 남조선에서의 미제침략자들의 지반은 더욱 약해질것이며 조선혁명의 승리는 더 빨리 실현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81페지)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우리 당과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으며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과 단결하여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대외적지위는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세계 수억만인민들로부터 날이 갈수록 더욱 광범한 지지를 받고있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날로 커가는 반면에 지금 미제침략자들은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강력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로선 특히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새로운 위대한 전략적방침은 오늘 반제혁명위업을 전진시킴에 있어서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일성동지의 반제투쟁전략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국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전략을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하며 미제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커다란 생활력을 가진 위대한 혁명적방침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제혁명력량은 계속 장성하고있으며 전반적세계정세는 계속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폭로규탄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할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남조선인민들과 힘을 합하여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 결정적투쟁에 동원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83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항상 가슴아파하시면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도 언제나 그것을 남조선혁명을 촉진시켜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하루빨리 오늘의 재난에서 벗어나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행복하게 살게하려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키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해방된 북조선인민들은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우리의 살림은 날이 갈수록 더욱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천리강산의 절반땅이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점당하고 같은 선조의 피를 이어받은 동포형제들이 압박과 기아에 신음하고있는 뼈아픈 현실을 한시도 잊을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1권 151페지)

이처럼 항상 남조선인민들을 심려하고 계시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하나의 제철소와 발전소를 세울때에도 통일된후 남조선경제를 복구할것을 예견하시면서 그 규모를 정하시였으며 방직공장을 짓고 비료공장을 지으실 때에도 헐벗고 굶주리는 남녘동포들의 의식주문제의 해결을 예견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을 전반적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인정하시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매시기 매단계마다 그들에게 구체적인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하고 계시며 항상 그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고무하시였다.

수령께서는 최근년간 특히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 정부정강,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들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방침, 그리고 그 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기 위하여, 그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자신의 결정적투쟁에 의해서만 억압자들을 뒤집어엎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기 위한 투쟁을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하며 여기에 모든 형태의 투쟁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단행본 79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공화국북반부 전체 인민들이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에게는 남조선인민들의 앙양되고있는 투쟁기세에 발맞추어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4권 543페지)

《우리는 언제나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성원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임무를 자기의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우와같은책 544페지)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 열망에 불타고있는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더욱 새로운 투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그리하여 1968년에 남조선인민들은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리였으며 북반부인민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한층 앙양시켜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림과 함께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나섰다.

이 해에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죄행을 폭로규탄하여 여러차례에 걸치는 공화국 정부성명, 외무성성명, 외무성대변인성명, 사회단체들의 성명과 호소문, 비망록, 성토문들을 발표하였다.

성명, 호소문, 비망록들에서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전쟁도발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행위를 폭로규탄하는 동시에 남반부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열렬히 지지성원하였다.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

이해에 공화국북반부 전체 인민들은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굴함없는 반미구국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냈으며 그들에 대한 살인재판놀음을 벌리고 온갖 날조된 《죄》를 들씌워 극악하게 처형하려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를 치솟는 격분으로 폭로 규탄하였다.

7월 15일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과 7월 16일부 사로청중앙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 공동성명에서는 또다시 경북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남조선애국자들을 체포 투옥하고 그들에게 중형을 들씌우는 죄행을 감행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도당의 범죄행위를 폭로규탄하였으며 11월 29일부 조선민주법률가협회성명과 12월 1일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는 통일혁명당성원들을 비롯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거듭되는 살인재판놀음을 벌리고 그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하려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파쑈악당을 치솟는 민족적격분으로 견결히 규탄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전개한 모든 투쟁은 자신들의 쓰라린 생활체험과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지향을 반영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며 우리 나라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에 길이 빛날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이라고 강조하였다.

성명에서는 또한 남조선에서 응당 처형되여야 할 자들은 애국자들이 아니라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온갖 불행과 재난을 들씌우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그들의 졸개가 되여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외래침략자들에게 송두리채 팔아먹으면서 애국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고있는 박정희반역도당이라고 규탄하였다.

성명에서는 또한 반미구국투쟁

의 불길속에서 감옥과 교수대도 두려움없이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전투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모두다 한사람같이 들고일어나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있는 모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무조건 즉시 석방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것과 원쑤들에 의하여 체포투옥된 애국자들에게는 놈들의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말고 《법정》투쟁을 계속 강력히 벌리여 원쑤들의 살인재판장을 놈들을 징벌하는 복수의 결전장으로, 놈들의 죄행을 온 세상에 고발하는 준엄한 심판장으로 만들라고 호소하였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성명에서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체포구금하고 가혹하게 처형하며 책동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행위를 단호히 규탄하고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면서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간고하나 결코 외롭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성명에서는 또한 남조선인민들에게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철벽의 요새로 다져진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와 전체 인민의 강력한 지지성원이 있다고 고무하였다.

또한 12월 20일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과 12월 22일부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성명들에서는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새전쟁도발책동을 더욱 로골화하면서 무고한 인민들과 녀성들에 대하여 야수적살륙만행을 감행하는데 대하여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규탄하면서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속에서 감옥과 교수대도 두려워하지않고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남조선 전체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에 전투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성명에서는 전체 남조선인민들과 녀성들은 미제승냥이들의 악랄한 살인만행을 걸음마다 폭로규탄하고 놈들의 만행에 보다큰 보복으로 대답하며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월 15일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토문에서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책동을 폭로규탄하고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철폐하기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싸워야하며 민족반역자이며 만고역적인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을 타도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고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였다.

이해에 또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기자동맹,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민주과학자협회, 조선학생위원회들은 6월 24일에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은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이며 조선과 극동지역에서의 긴장상태의 근원임을 밝히고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은 힘을 합하여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어 그들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시키며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함부로 날뛸수 없게 손발을 얽어매놓을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이해에 로동자, 농민, 학생청년들은 호소문을 발표하여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열렬히 고무하였다.

남조선로동자들에게 보내는 5월 11일부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호소문과 12월 18일부 조선직업총동맹 제4차대회 호소문들에서는 남조선 로동자들에게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의 앞장에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호소문들에서는 또한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때 온갖 시련과 풍파를 뚫고 최후까지 꿋꿋이 싸워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수 있으며 남조선혁명의 령도계급으로써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고 고무하였다.

남조선농민들에게 보내는 5월 17일부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호소문에서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쓸어버리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지하와 산중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감옥과 살인《법정》에서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전체 남조선농민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전투적성원을 보냈으며 남조선농민들의 살길은 오직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을 때려부시고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가슴속에 쌓이고쌓인 울분을 원쑤들을 태워버리는 세찬 투쟁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하라고 호소하였다.

남조선 학생청년들에게 보내는 10월 5일부 학생절기념평양시보고회 호소문에서는 혁명의 시대,

폭풍의 시대에 사는 젊은세대들에게 있어서 혁명을 하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더 보람찬 일은 없다고 강조하고 4천만 조선인민이 그처럼 흠모하고 존경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모두 혁명의 기치,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높이 청춘의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억세게 싸워나가라고 호소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돐을 맞이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9월 3일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호소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하에 나라를 통일하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에 안기려는 전체 남조선동포형제자매들의 불타는 념원을 앞당기는 길은 남조선인민들자신이 주인이 되여 남조선혁명을 적극 촉진하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로동자들, 농민들, 청년학생들, 지식인들, 녀성들, 중소상업가들, 괴뢰군장병들, 전체 남조선동포형제자매들은 반미구국의 기치하에 굳게 단결하여 남조선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호소문에서는 특히 남조선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단결력이 강한 혁명의 령도계급인 남조선로동자들에게는 남조선의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의 앞장에 서라는것과 남조선괴뢰군장병들에게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명령지시를 단호히 거부하고 동족상쟁의 새 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에게 총부리를 돌리라고 호소하였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을 폭로 규탄: 1968년에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함과 함께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새전쟁도발책동을 매걸음마다 분쇄하였으며 놈들의 죄행을 온세계에 폭로규탄하였다.

이해에 미제침략자들은 남반부인민들에 대한 파쑈테로폭압을 강화하는 한편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하여 더욱더 발광적인 전쟁도발책동을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우리 나라 령해깊이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우리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나포되게 되자 더욱더 광란적인 전쟁도발소동에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놈들의 어떠한 발악적 책동과 《위협》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을 결코 놀래울수 없었다.

공화국정부는 1월 27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의 악랄한 범죄적책동을 견결히 규탄하였으며 영웅적조선인민군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도발이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으며 원쑤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섬멸적인 타격을 가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철통같이 뭉치여 적들의 공세에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단호하고도 견결한 립장을 취함으로써 미제침략자들로하여금 우리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어 항복케 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7월 25일 비망록을 발표하여 조선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새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적책동을 전세계 인민들앞에 폭로하였으며 이에 앞서 2월 27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규탄하였다.

정부비망록과 외무성대변인성명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과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새 전쟁도발행위를 준렬히 규탄하고 남조선에서 미제는 모든 침략군과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을 공화국북반부경외로 추방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12월 23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성명에서는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미제의 침략과 도발행위를 절대로 용허하지 않을것이며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또다시 감행한다면 그들은 더욱 준엄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조선인민은 이 해에도 미제가 제놈들의 침략정책을 은폐할 목적으로 또다시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총회에 끌고간것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9월 21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12월 1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그리고 11월 25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을 통하여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의 딸라에 매수된 직업적사기한들의 어용집단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년례보고》의 기만적본질을 온 세상에 폭로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의 참가없이 조선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배치되게 유엔에서 제멋대로 조작되는 그어떤 《결의》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모두 무효로 선포한다는것을 공포하였다.

또한 7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비망록을 발표하여 미제의 비호밑에 박정희매국역도를 길잡이로하여 남조선을 재침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을 전세계인민들 앞에 폭로하였다.

비망록에서는 일본군국주의자

들이 함부로 날뛰지말것을 경고하면서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지난 시기의 력사에서 교훈을 찾을대신에 조일량국 인민들과 아세아인민들 그리고 전세계인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추종하면서 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침략책동을 계속 감행한다면 그들은 도조히데끼 등과 같은 비참한 말로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또한 5월 7일에 조선민주법률가협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기자동맹, 조선민주과학자협회, 조선학생위원회, 조선적십자회는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한후 지난 20여년간 감행한 범죄행위를 국제민주단체들과 각국민주주의적 제 사회단체들 그리고 전세계 인민들앞에 제소하는 고소장 《전세계 인민들에게 고함—조선에서 감행한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고소장에서는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한후 지난 20여년간 조선에서 감행한 가지가지의 천인공노할 인간백정의 식인종적 만행을 폭로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민주단체들과 각국의 사회단체들 그리고 전세계 선량한 인민들에게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한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을 준렬히 단죄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더욱 견결히 요구하여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지금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담겨져있는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앞길을 밝게 비쳐주는 강령적문헌으로 높이 평가하고 널리 애독하고있으며 그것을 자기들의 강력한 혁명의 무기로 삼고있다.

그들은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세계혁명운동발전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는 강령적문헌》, 《영광에찬 력사적문헌이며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의 문헌》, 《혁명과 건설에 관한 심오한 사상, 과학적인 리론, 훌륭한 방침을 정연하게 체계화하고 집대성한것으로서 고전적의의를 가지는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 문헌》으로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전략적방침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지와 공명을 표시하고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지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줄기차게 전개하고있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은 자유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인민들의 더욱더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견결한 반제반미적립장과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끊임없이 높아가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신생독립국가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맺고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평화애호인민들과 우리 인민들과의 접촉과 교류도 날로 활발해지고있으며 그들과의 련계가 더욱 밀접해지고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세계의 가는 곳마다에 수많은 벗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을 따라 더욱더 강화되여가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단행본 33페지)

오늘 세계인민들은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서뿐만아니라 세계혁명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우러러 흠모하고 존경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부르고있다.

특히 1968년에 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행사에는 세계의 수십개 나라 대표단들과 5대륙 인민들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우리 인민과 함께 우리의 민족적명절을 축하하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표시하였다.

또한 오늘 세계인민들은 우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남조선혁명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우리 인민의 투쟁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한결같이 지지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남조선에서 저지르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도당의 야수적만행을 치솟는 격분으로 규탄하고있다.

1968년에도 세계각국에서는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기간에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이 진행되였다.

이 월간에 전례없이 많은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투쟁단체 대표들이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미제침략자들을 규탄하는 전문을 보내왔으며 세계 여러 곳에서 각종 군중적모임들과 행사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쏘련, 웰남, 꾸바, 몽골을 비롯한 사회주의진영국가 인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규탄하고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집회를 광범히 진행하였다.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세계민청뷰로, 국제학생동맹 서기국, 전아프리카녀성대회, 아세아 아프리카단결기구 상설서기국을 비롯한 국제민주단체들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꾸바조직위원회, 알제리근로자동맹 서기국, 뽈스까 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일본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에서는 성명, 호소문 또는 결의문, 서한을 발표하여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열렬히 지지하였으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이 당장 물러갈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또한 이해에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일으키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을 규탄하여 발표한 1968년 1월 27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은 국제적으로 커다란 지지를 받았다.

웰남민주공화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 당, 정부 및 사회단체들과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을 비롯한 국제민주단체들에서는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특히 1월 29일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성명에서는 웰남인민은 그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독립과 주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며 미제의 모든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형제적조선인민과 어깨겯고 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월 27일부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성명에서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당과 정부의 정당한 립장을 무조건 지지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침략자들의 해적행위를 강력히 배격규탄하였다

또한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여러 자본주의나라 인민들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에서 표명된 조선인민의 정당한 립장을 지지하며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들을 광범히 벌리였다.

이해에 또한 세계각국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행복하게 살 그 날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보내였으며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폭압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은 철천지원쑤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반역도당을 쓸어버리기 위해 손에 무장을 들고 결전에 일떠서서 도처에서 활동을 적극화하면서 계속 원쑤놈들을 무자비하게 족치고있는 남조선의 혁명적무장유격대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모든 성원단체들과 진보적인 모든 민족단체 및 국제기구들 그리고 세계의 혁명적력량들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이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할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를 비롯한 국제민주단체들과 웰남로동청년동맹을 비롯한 각국 사회단체들은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테로폭압행위를 규탄하는 공보, 성명들을 발표하였는바 공보와 성명들에서는 일치하게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테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무조건 즉시 석방할것을 견결히 요구하였다.

특히 12월 10일에 국제학생동맹 서기국이 발표한 성명은 남조선애국력량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책동을 폭로규탄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해나설것을 전세계 진보적학생들과 그의 조직들에 호소하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어떠한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고있으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혁명투쟁을 계속 힘차게 밀고나가고있다.

1968년에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충천한 기세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여 새로운 기적과 혁신, 새로운 앙양과 비약을 이룩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를 더욱더 불패의 혁명기지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켰다.

공화국남반부에서의 혁명력량은 계속 장성하고있다. 혁명가들의 대렬은 날로 확대되고있으며 혁명투쟁은 더욱 적극적인 투쟁으로 급속히 확대발전하고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더욱더 많은 벗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과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정책은 세계인민들로부터 견결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날이 갈수록 우리 나라에서 조국통일의 날이 다가오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혁명은 비록 간고하나 우리 인민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반드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리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위업을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외정책분야에서 1968년에도 우리 민족력사상 일찌기 없었던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대외활동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승리이며 그 구현인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다.

항상 조선혁명뿐만아니라 세계혁명의 발전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그의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적활동의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시고 그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966년 10월에 있은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하신 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서와 1967년 12월에 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하신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관계분야에서 우리 당의 일관된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국제관계분야에서 우리 당의 일관된 정책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지원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4권 306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원칙은 온갖 착취와 압박을 모르는 우리의 국가사회제도의 본질에서 흘러 나오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공동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국제관계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립장과 견결한 반제반미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며 우리 나라와 평등한 립장에서 국가관계를 맺을것을 원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도모할것을 시종일관 천명하여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대외정책분야에서 이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할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580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적이며 반제적인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을뿐만아니라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인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운동을 비롯한 모든 반제력량을 집결하여 세계혁명운동의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대외정책에서의 주체와 자주성, 철저한 반제적립장과 국제주의 이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고 실시되여온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1933년에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씀을 하시였다.

…일본을 반대하는 모든 피압박민족과의 공동전선을 결성한다…

또한 수령께서는 그후 1936년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대외정책적과업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시였다.

《조선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밀히 련합하며 우리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과 동지적친선을 유지할것》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립각하여 당시 조선혁명의 구체적조건에 가장 알맞게 작성된 대외정책로선이였을 뿐만아니라 오늘에 있어서도 우리당 대외정책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 대외정책의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해방후 새롭게 조성된 국내국제정세와 통일된 민주주의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혁명의 구체적과업에 맞게 그리고 세계혁명의 근본적리익에 부합되게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무엇보다도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지침으로 자기의 대외정책을 세우고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였다.

반제투쟁이나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자기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여왔다.

그리하여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적

립장을 견지하여왔으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리익에 요구되는것이라면 언제든지 주동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대외정책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원래 맑스-레닌주의와 공산주의운동의 원칙자체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것이며 그것은 또한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위치와 환경,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특별히 더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오직 대외정책에서도 자주성을 견지하였기에 진정한 민족적독립을 향유할수있었으며 사회주의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외활동에서 언제나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을 첫째가는 의무로 삼아왔다.

이와 함께 우리 인민은 민족해방을 위한 장기간의 투쟁경험을 통하여 제국주의 특히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평화와 민족적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확신하고 반제반미투쟁의 원칙적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왔다.

그리하여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운동을 강화하고 미제침략자들에게 타격을 가하며 국제혁명운동의 전반적발전을 촉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여왔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활동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견결한 반제반미적립장과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끊임없이 높아가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신생독립국가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맺고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평화애호인민들과 우리 인민들과의 접촉과 교류도 날로 활발해지고있으며 그들과의 련계가 더욱 밀접해지고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세계의 가는 곳마다에 수많은 벗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을 따라 더욱더 강화되여 가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33—34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대외정책적로선에 따라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모든 혁명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단합된 힘으로 미제를 우두머리로한 제국주의의 침략세력에 강력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세계혁명위업의 승리를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이룩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폭로규탄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모든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가일층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으로하여, 그리고 자주적립장에 기초한 가장 원칙적인 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높은 권위와 위신을 획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조선인민의 참다운 민족적리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조선에서의 유일한 합법적국가로서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반제적립장에 서있는 아세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 세계 수많은 진보적나라들과 국가적관계를 맺고있다.

우리 나라는 1968년말현재 31개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 4개의 나라와 총령사관계, 8개 나라와 국가적인 무역대표부관계, 70여개의 나라와 경제교류관계를 가지고있으며 도합 100여개의 국제기구 및 단체에 들어가 적극 활동하고있다.

년중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당 및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300여개의 여러 대표단을 세계 각국에 파견하였으며 330여개의 다른 나라대표단을 받아들이였다.

특히 이해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행사에만도 세계 5대륙의 70여개 나라들에서 정부대표단들, 국제기구대표단들, 민족해방조직대표단들을 비롯하여 100여개의 여러 대표단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인민은 가는곳마다에 수많은 벗들을 가지게되였으며 공화국은 세계 인민들속에서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 《반제투쟁의 기수》로 널리 불리우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공화국은 온 누리에 빛을 뿌리고있으며 우리 당과 인민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선봉대들의 일원으로서 세계를 개조하는 진보적인류의 위업의 한부분을 영예롭게 맡아나서고있다.

바로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행사에 그처럼 많은 대표단들과 대표들이 참가하여 우리 인민들과 함께 우리의 민족적명절을 축하하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성과와 업적들을 높이 평가한것은 오늘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얼마나 높아졌으며 이 나라 인민들이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미제의 새전쟁 도발책동과 반공소동이 어느때보다도 미친듯이 감행되는 그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그 처럼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우리 나라를 찾아와 우리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루어진 사회

주의건설성과에 대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그처럼 우러러 존경과 동경의 뜻을 표시한적은 일찌기 없었다.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높아지고 그 지위가 공고화됨에 따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반면에 남조선을 강점하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날로 더욱 세찬 규탄과 배격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적들까지도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확고히 높아지고있는것을 부정할수 없게되였으며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되였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우리 인민을 이처럼 승리와 영광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서뿐만아니라 세계혁명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우러러 흠모하며 존경하고있다.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담겨져있는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앞길을 밝게 비쳐주는 강령적문헌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널리 애독하고있으며 그것을 자기들의 강력한 혁명의 무기로 삼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세계방방곡곡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아로새겨져 국제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위대한 힘을 낳고있다.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그런데 사회주의진영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협조가 진실로 공고한것으로 되며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을 강화할수있게 하려면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이 정치에서 자주성을 가지며 또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밀접히 결부시키며 우선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이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길이라고 인정하고 그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국제혁명운동의 전반적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왔다.

그 결과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사회주의진영을 허물고 사회주의의 위신을 헐뜯으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는 오늘의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에 굳건히 서서 사회주의의 위신과 영예를 고수하며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주는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놀고있다.

또한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고 전체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 있어서도 자주적립장으로부터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을 견지함으로써 그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의 의견상이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문제이기때문에 계급적형제들의 단결의 념원에서 출발하여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한다는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좌우경기회주의와의 투쟁에서 투쟁하면서 단결하며 단결하면서 투쟁할데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인 립장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수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진영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진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불패의 혁명기지이며 전세계피압박인민들과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보루이며 세계평화의 위력한 성새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58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기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이 진영나라들사이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옳바른 정책을 실시하여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강화하며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의 확고부동한 초석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417페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매개 사회주의국가들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사회주의진영의 전반적범위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또한 사회주의진영의 존재와 그 단결된 힘은 비단 사회주의나라 인민들뿐만아니라 전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으며 현시기 세계혁명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사회주의나라들의 단합된 노력에 중요하게 달려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시종일관 국제관계분야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호하고 강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과학적이고 옳은 방도로 되고있다.

이해에 우리 당과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에 따라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립장에서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힘을 기울여왔다.

우리 당은 형제당, 형제나라들이 사상투쟁과 함께 혁명투쟁의 실천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상이를 좁히고 단결의 조건을 마련하는데 힘써왔다.

우리 당과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인정하면서 웰남인민이 요구할때에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싸울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꾸바혁명을 보위하는것을 사회주의진영나라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인정하고 꾸바를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꾸바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확고한 계급적립장을 견지하였다.

우리 당과 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적호상관계에서도 언제나 계급적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협애한 민족리기주의를 없애고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발휘하며 세계 사회주의시장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은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동시에 전체 사회주의진영나라 인민들과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힘쓰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며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자주성을 견지하여나아가는것, 이것은 형제당, 형제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52페지)

이해에 우리당과 공화국정부는 뽈스까(11월 뽈스까5차당대회 참가)와 꾸바(12월)를 방문하는 당대표단과 당 및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230여개의 대표단을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에 파견하였다.

또한 이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로므니아공산당대표단(1월), 쏘련공산당대표단(2월), 독일 당 및 정부대표단(4월), 일본공산당대표단(8월), 프랑스공산당대표단(5월), 꾸바정부친선대표단(7월), 웰남정부경제대표단(7월), 쏘련정부대표단(9월), 몽골정부대표단(9월), 웰남정부대표단(9월), 뽈스까정부대표단, 웽그리아정부대표단, 로므니아정부대표단, 벌가리아정부대표단, 꾸바정부대표단, 독일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180여개의 대표단을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 형제당들로부터 받아들였다.

이해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 및 과학문화분야에서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꾸바공화국혁명정부 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창설에 관한 협정(8월)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 경제, 과학기술문화부문 협조에 관한 60여건의 협정들과 의정서들을 체결 또는 조인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간의 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문화, 체육, 출판보도분야에서의 교류가 많이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와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각방면에 걸친 부단한 래왕과 경제문화적교류는 이미 맺어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이룩함에 이바지하였다.

반제반미투쟁의 강화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정부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33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시종일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과 모든 나라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함으로써 반제투쟁과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있다.

최근년간 미제를 두목으로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반대하는 무력침공과 파괴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으며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평화를 교란하고 인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미제침략자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간파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세계침략을 위한 미제의 기본전략은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대결을 피하면서 작고 분렬된 혁명적인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은 무력으로 각개격파하

려 하며 사상적으로 나약하고 혁명을 하지 않으려 하며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공존만 부르짖으면서 인민들속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제국주의와 사이좋게 살기를 바라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사상정치적공세를 강화하여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 하는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단행본 15페지)

이에있어서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의 예봉을 웰남을 비롯하여 아세아나라들에 돌리고있다.

미제는 기만적인 《평화》와 《협상》을 떠벌이면서 웰남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달성하여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는 한편 웰남에서 당하고있는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도 새전쟁도발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특히 미제침략자들의 새전쟁도발책동은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더욱 격화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흉악한 세계전략을 때려부시기 위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기본전략으로서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릴데 대한 방침과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과 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의 반제력량은 가장 광범한 반미통일전선을 이루고 미제를 철저히 고립시키며 그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으로 미제국주의에 타격을 가하여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미제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키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수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국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전략을 성과적으로 때려부실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82—583페지)

이와 함께 김일성동지께서는 작은 나라들이라도 함께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하나씩 뜨면 미제를 능히 멸망시킬수 있다는 위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작은 나라들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의 전략에 대하여 작은 나라들이 달라붙어 미제국주의의 두족을 각개절단하는것으로 대답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미제를 타승하기 위한 작은 나라들의 투쟁전략이라고 말할수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단행본 2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반제반미투쟁의 이 전략적방침들은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 혁명승리의 무한한 신심을 북돋아주고있다.

특히 작은 나라들이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전략은 현시기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운동발전의 절박한 요구에 명철한 대답을 준것으로서 미제의 세계전략을 때려부실수있는 현실적인 길을 밝혀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전략으로써 싸우는 나라인민들의 절대적인 공명과 지지를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미제침략자들에게는 마지막 죽음의 선고와 같은 충격적인 공포를 안겨주고있다.

이해에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투쟁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도처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행위를 전세계에 광범히 폭로규탄하며 놈들을 국제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가 우리 나라 령해에서 나포되자 우리 나라 연해와 남조선에 륙해공군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하여 전쟁태세를 갖추며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면서 그 누구를 《위협》해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는 한편 《푸에블로》호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며 세계여론을 오도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의 강경하고도 단호한 립장앞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였으며 조선인민앞에 사죄문을 썼으며 무릎을 꿇고 항복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다시한번 여지없이 깨뜨려버림으로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더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은 수십차례에 걸쳐 성명, 비망록, 성토문 등을 발표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책동을 폭로분쇄하고 그를 단죄하였을뿐만아니라 제9차세계청년학생축전, 아바나문화대회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회의들에 참가하여 세계도처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행위를 신랄히 폭로규탄하고 모든 반제력량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였다.

또한 공화국정부와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은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행사에 70여개나라 대표단들과 5대륙인민들의 대표들 그리고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대표단, 아. 아인민단결기구대표단, 세계민청대표단을 비롯한 12개의 각종 국제민주단체 대표단들을 초청하여 받아들임으로써 반제반미투쟁에서 조선인민과 사회주의진영나라들을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신생독립국가 인민들과 국제민주단체 산하의 많은 군중들과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미제의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다.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는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하에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쟁온상으로 자라나고있다.

미제의 사촉하에 《한일조약》이 조작된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로

골적으로 남조선재침의 길에 들어섰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해에도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침투하였으며 60만재일동포들의 모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횡포하게 탄압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시정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과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반대하며 비법적인 《한일조약》의 페기를 주장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다른 한편 우리 인민은 미제와 국내독점자본을 반대하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일본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그에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또한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서부독일군국주의의 재생과 그의 복수주의적야망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그것을 적극 추동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을 견결히 규탄하였다.

우리 인민은 서부독일군국주의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독일인민의 투쟁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정당한 립장을 지지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모든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반미구국항전에 떨쳐나선 웰남인민의 투쟁, 미제의 무장간섭을 분쇄하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라오스인민의 투쟁, 령토완정과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캄보쟈인민의 투쟁 등 아세아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였으며 또한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무력침략을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아랍련합공화국과 수리아를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자기 조국에로 돌아가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우리 인민은 또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알제리, 기네, 말리, 꽁고(브), 탄자니아, 모리따니, 남부예멘, 예멘아랍공화국, 부룬디, 소말리아, 잠비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우리 인민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꽁고(킨),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기네를 비롯한 전체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영용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베네수엘라, 꼴롬비아, 과떼말라, 볼리비아, 도미니까, 뻬루 등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그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우리 인민은 또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자기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그들의 투쟁에 열렬한 성원을 보냈다.

△ 웰남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

우리 인민은 항상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고 형제적웰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이해에도 우리 인민은 웰남에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단호히 반대하고 영웅적웰남인민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웰남문제 해결을 위한 웰남민주공화국정부의 립장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정강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도시와 농촌 등 전국 도처에서 그리고 공장과 협동농장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군중대회, 종업원집회 등 각종 정치행사들을 조직하고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에 떨쳐나선 웰남인민들을 적극 지지성원하였으며 그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는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년중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미제의 웰남에 대한 전쟁정책을 폭로 규탄하며 싸우는 웰남인민들을 지지하는 중앙 및 지방군중대회를 도처에서 조직하였으며 웰남의 전우들에게 각종 지지전문을 보냈다.

이와함께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있고 날로 강화되는 미제의 침략책동을 물리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웰남인민들에게 온갖 형태의 원조를 주었다.

이해 7월에 려청의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웰남민주공화국정부경제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경제대표단은 웰남민주공화국정부경제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에 군사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할데 관한 협정, 경제적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할데 관한 협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간의 1969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조인(7월 8일)되였다.

공화국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평화회담》의 간판밑에 웰남에서의 전쟁확대책동과 야수적인 살인만행을 감행하는데 대하여 단호히 폭로규탄하고 웰남인민이 요구할때에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싸울 결의를 루차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이 웰남에서 직면하고있는 파국적인 군사정치적위기로부터 벗어나보려고 전쟁확대책동과 악랄한 살인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견결히 규탄하여 성명(2월 28일)을 발표하고 2월 15일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성명과 2월 25일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성명

과 그리고 2월 18일부 남부웰남유에민족민주주의평화동맹전선 위원장의 공개서한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성명에서 공화국정부는 미제침략자들이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만행과 모든 전쟁행위를 영원히 무조건 중지해야 하며 남부웰남에서 저들의 침략군과 추종국가군대 및 모든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11월 3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민주공화국의 전령토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무조건 중지한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성명과 호지명주석의 호소문에서 표명된 웰남민주공화국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성명에서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형제적웰남인민이 전면적승리를 이룩할때까지 그들의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계속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웰남문제가 웰남민주공화국정부의 4개 항목립장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정강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견결히 주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또한 남부웰남문제의 정치적해결에 관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의 성명과 남부웰남인민의 투쟁의 새로운 정세에 관한 웰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의 성명을 지지하여 11월 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평화협상》을 연막으로 삼아 웰남전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는것과 또한 놈들의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무차별폭격과 포격만행, 남부웰남에서의 범죄적인 살륙행위 등을 견결히 폭로규탄하고 싸우는 웰남인민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확고한 전투적련대성을 표명하여 2월 10일, 4월 19일, 10월 13일, 12월 10일에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직총중앙위원회, 농근맹중앙위원회, 사로청중앙위원회, 녀맹중앙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웰남친선협회, 조선남부웰남인민투쟁지지위원회중앙위원회, 웰남에 대한 미제의 죄행반대투쟁조선위원회는 웰남인민의 《전국반미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그리고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기간을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지주간》으로 설정하고 이 주간에 전국각지에서 군중집회를 비롯한 각종 대중운동을 광범히 벌려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영웅적웰남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 꾸바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

우리 당과 인민은 서반구에서 미제와 직접 맞서 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반제투쟁의 선두대렬에 확고히 서서 전진하고있는 영웅적꾸바인민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지지하고있으며 꾸바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이에 있어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국제주의적의무라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의 기치를 높이들고 자기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정확히 령도하고있으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꾸바공산당의 정당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여왔다.

이해에도 우리 당과 인민은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과 온갖 파괴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는 형제적꾸바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우리 인민은 꾸바혁명승리 8주년기념일, 꾸바인민의 플라야히론전투승리 6주년기념일을 계기로 각종 행사들을 조직하였고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전투적인 련대성을 보냈다.

또한 조선꾸바단결위원회, 조선라틴아메리카친선협회,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은 꾸바인민의 7월 26일 무장봉기 15주년에 즈음하여 1968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기간을 《꾸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영웅적꾸바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조선인민과 꾸바인민간의 전투적우의와 련대성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군중대회, 근로자집회 등을 비롯한 각종 행사들이 광범히 진행되였으며 축전 및 축하편지들을 보냈다.

집회들에서 우리 인민은 꾸바혁명을 말살하기 위한 미제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꾸바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인정하고 그를 적극 지지하고있는 꾸바인민의 혁명적립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또한 조선인민은 반미공동투쟁에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꾸바인민과 함께 영원히 어깨겯고 싸울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 라오스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라오스애국전선의 옳바른 령도밑에 미제침략자들과 국내반동세력들의 계속적인 침략책동을 분쇄하고 광활한 해방지역을 굳건히 수호하며 평화롭고 독립되고 중립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통일된 번영하는 라오스를 건설하기 위하여 싸

우는 라오스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해에 평양시인민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는 라오스 독립절 23주년에 즈음하여 기념집회를 가지고 반제반미공동투쟁에서 라오스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을 축하하고 라오스인민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견결히 규탄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는 또한 라오스 해당조직들에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보내였다.

공화국외무성은 미제침략자들이 1962년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협정이 체결된후 지난 6년간 이 협정을 란폭하게 파괴유린하고 라오스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날로 확대하고있는것을 준렬히 폭로하며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7월 22일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7월 3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라오스를 반대하는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폭격과 온갖 전쟁행위를 준렬히 폭로규탄하면서 조선인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용감한 라오스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을것이며 그들의 정의의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공화국외무성은 또한 미제침략자들이 수많은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라오스해방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과 유독성화학물질까지 뿌리면서 라오스인민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려는 무모한 책동을 규탄하여 12월 1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미제의 야수적폭격만행이 라오스에 관한 1962년 제네바협정에 대한 란폭한 파괴행위이며 라오스의 자주권과 독립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라고 지적하고 미제침략자들의 야만적인 폭격과 침략행위를 단호히 규탄하였다. 또한 성명에서는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공동의 원쑤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라오스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라오스문제는 미제의 간섭이 없이 라오스인민 자신에 의하여 그리고 라오스에 관한 1962년 제네바협정과 라오스의 현정세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라오스애국전선중앙위원회는 평양에서 두 대표단간의 공동성명(9월 24일)을 발표하고 조선인민과 라오스인민은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완전히 소멸할때까지 한전선에서 함께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 캄보쟈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간섭을 반대하고 령토완정과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캄보쟈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왔다.

이해에도 공화국정부는 미제의 침략과 악랄한 집단적살인만행을 규탄하여 발표한 7월 2일부 캄보쟈정부의 성명을 지지하여 7월 1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미제의 야수적살인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는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또한 공화국 외무성은 11월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침략군과 남부웰남괴뢰군 공중비적들이 무고한 캄보쟈주민들을 야수적으로 살해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성명에서는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 국가들과의 우호적관계의 확대발전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과 우호적관계를 맺으며 발전시키는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한 고리로 삼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95페지)

민족해방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기반에서 벗어나 정치적독립을 쟁취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식민주의체계를 밑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았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고있다.

오늘 새로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많은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우리의 고귀한 경험에서 많은것을 배우려 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적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반드시 사회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며 제국주의와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고 소탕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단행본 40페지)

김일성동지의 말씀은 민족적독

립의 공고화와 나라의 번영발전을 위한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이 나아가야 할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오늘 신생독립국가 인민들은 반제반식민주의 기치를 들고 새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생독립국가 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들의 성스러운 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제국주의의 이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을 이루고있으며 그것들은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하나의 흐름에 결합되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4권 520페지)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싸우는 신생독립국가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그들을 성심성의껏 도와주고있다.

지난날 오래동안 식민지통치를 겪었고 오늘도 나라의 남쪽절반땅을 미제에게 강점당하고있는 조선인민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적극 지지성원하였으며 이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각별히 큰 힘을 돌려왔다.

또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과의 정치적 및 경제적관계를 새로 맺으며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 나라는 1968년에 이라크공화국(1월 30일)과 남부예멘인민공화국(2월 7일)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새로 맺았으며 파키스탄회교공화국과의 사이에는 총령사관계를 설정(1월 14일)하였으며 이미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우호적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켰다.

우리 나라는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과의 경제적 및 기술적협조와 과학문화 교류도 더욱 확대 발전시켰다.

우리 나라는 기네공화국(4월 23일), 남부예멘인민공화국(7월 31일), 아랍련합공화국(3월 18일)들과의 무역협정, 기네공화국(7월 10일), 수리아아랍공화국(12월 12일)들과의 문화협정을 비롯하여 많은 신생독립국가들과의 무역 및 문화분야의 협정들을 체결하였으며 쿠웨이트, 레바논 등에 무역대표부를 개설하였다.

이해 또한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9월 11일),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6월 13일)등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조선과의 친선협회를 새로 결성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는 신생독립국가들과의 경제 및 문화교류와 함께 친선의 뉴대속에서 호상래왕과 접촉도 더욱 활발히 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이해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을 비롯하여 10여개의 여러 대표단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에 파견하였다.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은 1월말부터 2월하순까지의 기간에 쏘련, 수리아를 거쳐 이라크공화국과 남부예멘인민공화국을 공식방문하였으며 6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의 기간에는 캄보쟈왕국, 버마련방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네팔왕국을 공식방문하였다.

정부친선대표단은 이 나라 인민들에게 보내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친선적인사를 전하고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며 민족경제와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반제반식민주의의 공동투쟁에서 맺어진 조선인민과 이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켰다. 그리고 이 나라 인민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에 대한 리해를 더욱 깊게 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을 비롯한 기타 대표단들의 꽁고(브), 기네, 알제리를 비롯한 아프리카 나라들의 방문도 우리 나라와 이 나라들 사이에 이미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대표단의 중근동과 동남아세아 및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 대한 친선방문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우리 나라와 이 지역 나라들 사이에 이미 맺어진 친선과 단결을 다시 한번 뚜렷이 시위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우리 나라 대표단의 이 나라들에 대한 방문과 함께 우리 공화국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많은 대표단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공화국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기념하는 우리 인민을 축하하기 위하여 신생독립국가들로부터 26개의 정부대표단과 정부친선대표단, 국회대표단을 비롯하여 64개의 여러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기네공화국정부경제대표단, 남부예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 캄보쟈왕국회의대표단, 버마련방정부경제대표단 등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친선적나라들과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나라들로부터 100여개의 여러 대표단을 받아들였다.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대통령은 6월하순에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대통령과 그 일행은 우리 나라에 도착하면서 15리연도에서부터 20여만 군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또한 대통령을 환영하는 10여만의 군중이 모인 평양시군중대회와 이르는곳 마다에서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니에레레대통령과 그 일행은 평양시와 주변의 공장, 농촌, 문화기관들을 참관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니에레레대통령과 두 나라사이에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친선적이며 호상 리해의 분위기속에서 회담(6월 23일)을 하시였다.

니에레레대통령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기간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그의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전후 짧은 기간에 나라를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그리고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자주적인 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이것은 자기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자신의 손으로 조국을 통일하려는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의 정당한 립장과 투쟁에 대하여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은 반제반식민주의 공동투쟁에서 조선인민과 탄자니아인민들 사이에 이미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 새로운 계기로 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 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함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이해 우리 나라를 방문한 캄보쟈왕국대표단(8월초)은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를 방문한 기네공화국정부경제대표단(4월중순), 남부예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7월말), 버마련방정부경제대표단(9월말)도 일치하게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선인민이 전후 짧은 기간에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한데 대하여 감탄을 금치못했으며 우리 인민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맞는 조선인민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고위급인사들과 사회활동가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우리 당과 정부의 대내외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깊이 리해하고 우리 인민들이 달성한 모든 성과들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열렬히 축하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준렬히 규탄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즉시적인 철거를 요구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또한 이해 5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적도기네 인민사상당 총비서를 비롯한 기타 다른 많은 방문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침입시킨 미제침략자들의 날강도적인 해적행위와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면서 조선인민의 정당한 자위적조치와 견결한 립장과 정의의 투쟁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같이 조선인민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력사적처지가 같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목적이 같은것으로 하여 두터운 친선의 뉴대로 련결되여 있으며 호상 지지와 협조, 호상 래왕과 접촉은 날로 확대되고있다.

이것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우리 민족의 존엄을 존중히 여기고있는 표현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이 지역인민들의 국제적 련대성의 뚜렷한 표시이다.

× ×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대외활동에서 거둔 성과는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뿐만아니라 세계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촉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무력적위협이나 침공도 단호히 물리치고 그 어떤 간섭이나 압력에도 굴함없이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혁명적립장을 관철하여 당당히 세계무대에서 자기의 독자적지위를 공고히 하였으며 이것은 그 누구도 허물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이것은 또한 세계정세발전에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고있다.

세계혁명운동발전에 커다란 기여로되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적활동에서의 성과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의 빛나는 열매이다.

주체와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 이것은 오늘의 조건에서 세계혁명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전략적구상의 확고한 기초로 되고있다.

이에 기초하여 오늘 국제관계에서는 크고작은 나라들 사이에 자주와 평등이 말로써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그러한 시대적전환이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지난 실천행정을 통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이 전적으로 정당하며 위대한 생활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확신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진영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의 조선정전협정 위반행위

조선정전협정의 체결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조선문제의 종국적해결이 실현될때까지 일체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할것을 담보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정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첫날부터 15년이 지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루도 제손으로 도장을 찍은 그 모든 협정조항들을 위반하지 않은 날이 없다.

미제침략자들은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돌아앉자마자 조선에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예견한 정전협정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유린하면서 남조선괴뢰들과 소위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고착시킴으로써 정전협정에 대한 공공연한 배신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어떠한 작전장비도 끌어들이는것을 금지하고있는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의 요구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남조선에 새전쟁도발에 필요한 가지가지의 군사작전장비들을 부단히 비법적으로 끌어들여오던 끝에 1956년 6월에는 아무런 제한도 받음이 없이 더욱 대대적으로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끌어들이기위하여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의 리행을 감독감시할 사명을 지니고있는 중립국시찰소조들을 남조선으로부터 강제축출하였으며 그 때부터 1년후인 1957년 6월에는 우의 항목을 일방적으로 페기한다고 선언까지 하였다.

그후 미제침략자들은 원자 및 수소무기들과 수많은 최신형군용비행기와 많은 함선들을 포함한 각종 신형작전장비들을 끌어들여 남조선을 방대한 군사력이 집결된 하나의 병영으로, 군사전략기지로, 새전쟁도발의 전초기지로 전변시켰다.

미제침략자들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정전협정의 제반 요구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지 20분만에 우리측에 도발적인 총포사격을 감행한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악랄한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 왔다.

미제침략자들이 정전협정체결후 1968년 7월 25일까지 즉 15년간에 감행한 도발적인 적대행위와 위반행위는 우리 측이 항의한것만 해도 무려 5만 9,900여건에 달한다.

이처럼 조선정전을 계통적으로 파괴유린하여온 미제침략자들은 전쟁두목 죤슨이 1966년 10월 남조선에 기여들어 새전쟁도발을 고취하고 돌아간 후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심하게 감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제놈들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영웅적인 민군대에 의하여 나포되자 새전쟁도발책동은 더욱 무모하고 광란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새전쟁을 도발할 계획적인 책동의 일환으로서 백주에 우리 나라 령해에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침입시켜 날강도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하고도 도리여 도적이 매를 드는격으로 《군사적보복》을 떠벌리면서 남조선과 우리 나라 동서해안일대에 숱한 침략적무력을 끌어모아가지고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벌리였다.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측에 나포된후 즉 1968년 1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미제침략자들은 각종 구경의 포와 중전차 그리고 장갑차 등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등을 520여차에 걸쳐 비법적으로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였으며 그것으로 우리측을 반대하여 연 580여차에 걸쳐 3만 5,600여발의 총포탄을 쏘아댔다.

또한 같은 기간에 적들이 우리측을 반대하여 감행한 무장공격행위는 21차에 걸쳐 해군함선과 무장간첩선을 포함한 각종 선박들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 것은 연 6,730여척이나 된다. 그리고 각종 군용비행기 편대를 우리측 령공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감행케 하였다.

이처럼 미제침략자들이 우리측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것과 때를 같이 하여 죤슨의 특사라는놈, 태평양지역 미륙군사령관이라는놈, 《미상원 군사위원회전투태세조사특별위원회 조사단》, 미공군장관이라는놈 등 수많은 전쟁사환군들을 남조선에 보내여 현지에서 침략전쟁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남조선괴뢰우두머리들을 워싱톤에 불러들여 전쟁모의를 거듭하였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을 호노룰루에 불러다가 범죄적이며 모험적인 전쟁계획의 실현을 더욱 다그칠데 대해 모의하였다.

지어 미제침략자들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으로 하여금 저들이 조선에서 새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즉각적으로 이에 가담할것을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던 15개 추종국가와 일본군국주의도당 및 장개석도당에게까지 《요청》케 하는 동시에 저들의 침략적인 도구인 이른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이라는 꼭두각시집단을 급히 내세워 《북조선의 도발》이라는 판에 박힌 넋두리를 외우게 하고 그 무슨 《제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떠벌리게까지 조작하였다.

이와 같이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새전쟁도발을 위한 온갖 준비에 광분하는 한편 1968년에는 우리측을 반대하는 각종 군사적도발을 전례없이 격화시켰다.

미제침략자들은 새전쟁도발을 목적으로 비무장지대를 전투진지로 적대행위의 온상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년중 계속 집요하게 책동하여왔다.

1968년에 적들은 비무장지대내에 전차와 장갑차 및 각종 포를 비롯한 중무기와 자동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완전전투준비를 갖춘 무장집단을 대대적으로 비무장지대내에 끌어들여 비무장지대 자기측 부분을 하나의 전투진지로 전변시켰는바 이해 적측이 비무장지대내에 중무기와 자동무기를 불법적으로 끌어들인데 대하여 우리측이 항의한것만 하여도 무려 2천여건에 달하고있다.

이처럼 비무장지대를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로 가득찬 전투진지로 전변시켜놓은 미제침략자들은 매일과 같이 군사분계선일대와 우리측 지역에 총포사격을 가하며 땅크와 장갑차 지어 군용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우리측에 대규모적인 무장공격을 련이어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1968년 11월 3일 전선중부와 서부의 세개 방향에서 천여명의 무장집단을 동원하여 3만 9천여발의 총포사격을 가하면서 전례없이 악랄한 대규모의 무장공격을 감행한것을 비롯하여 이해 우리측을 반대하여 감행한 적들의 무장공격행위는 1967년에 비하여 3배이상으로 늘어났으며 그에 동원된 무장악당수는 정전후 14년동안에 감행한 무장공격행위에 동원되였던 그 수의 6배이상에 달하고있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우리측을 반대하는 정탐, 살인, 파괴 행위를 목적으로 우리측 지역에 무장간첩을 계속 부단히 침입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는바 이해 적측이 감행한 무장간첩침입행위는 전해에 비하여 7배에 달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또한 8월과 9월의 두달동안에 568차에 걸쳐 도합 8만 5,760여발의 포탄과 총탄을 쏘아댄것을 비롯하여 이해에 비무장지대내에서 무려 2천여차에 걸쳐 23만여발의 포탄과 총탄을 쏘아대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전해에 비하여 4배에 달하는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의 이와 같은 도발행위로 인하여 이해에 쌍방간에는 교전이 잦았으며 비무장지대는 완충지대로서의 면모를 잃고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험악한 정세가 계속되여왔다.

미제침략자들은 1968년에 지상에서 뿐만아니라 해상과 공중에서도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모한 적대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이미 세상에 낱낱이 폭로되고 조선인민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어 사죄한바와 같이 미제침략자들은 1968년 1월 전문적인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우리 나라 령해깊이 침입시켜 날강도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한 사실을 비롯해서 6월 22일에 서해 우리측 연해상에 또다시 무장간첩선을 침입시킨 사실 등 각종 해군함선들과 무장선박들을 연거퍼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1968년 1년동안 적들이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 각종 해군함선들과 무장선박들의 수는 무려 1만 2,540여척으로서 이것은 매일 34척 이상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에프5에이》 및 《에프 105》형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군용비행기들을 우리측 령공에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적도발을 부단히 감행하여왔는바 그 건수는 1968년에 그전해에 비하여 2배이상으로 늘어났다.

보는바와 같이 1968년에 미제침략자들의 군사적도발행위는 전례없이 확대되고 격증되였다. 이해 적측이 감행한 정전협정위반은 우리측이 항의한것만 하여도 무려 1만 650여건에 달한다.

미제침략자들이 우리측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는 이해 전례없이 격증되였을 뿐만아니라 그 규모와 성격에 있어서 정전후 류례없는 악랄성과 포악성을 띠고있다.

우리측을 반대하는 미제침략자들의 적대행위는 륙해공군의 모든 신형 무장장비들과 전투부대가 동원되였는데 이것은 사실상 하나의 완전한 전투작전형식을 갖춘 조직적인 전쟁도발행위였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정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하여 얼마나 광란적으로 무모하게 책동하여 왔는가를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와같은 새전쟁도발책동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정전후 류례없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험악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실로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과 그 침략정책은 조선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한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될수도, 조선과 극동에서 전쟁의 화근이 제거될수도 없다.

사실상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머물러있을 어떠한 리유와 근거도 없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은 령토의 완정과 자주권의 존중 및 내정불간섭에 관한 공인된 국제법의 제원칙에 대한 란폭한 유린일뿐만아니라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정전협정의 요구와 목적에도 전적으로 배치되는 침략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자들은 1968년에 또다시 《조선문제》토의를 유엔에 강요하고 사기와 협잡의 방법으로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면서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으며 새전쟁도발을 일삼는 저들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합리화해보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20여년동안이나 남조선인민들을 야만적식민지통치의 생지옥속에 몰아넣고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으며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새전쟁도발에 광분하고있는 제놈들의 침략정체와 범죄행위를 가리울수 없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며 우리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우리 인민은 천추를 두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응당한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온갖 발악적인 도발책동을 다하여왔지만 그때마다 놈들에게 차례진것이란 오직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숱한 송장무더기뿐이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968년도에 들어와서도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우리측 령해깊이 침입시켜 날강도적인 침략행위를 감행케하다가 응당한 징벌을 받고 조선인민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은것을 비롯하여 온갖 도발행위의 결과가 실증해주는바와 같이 제놈들 자신의 치욕스러운 침략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쓰디쓴 참패만을 맛보았을뿐이다.

만약 미제침략자들이 교훈을 찾지않고 정전을 파괴하고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에 매여달린 나머지 끝끝내 새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조선인민은 자기들에게 온갖 재난을 들씌운 극악무도한 범죄자이며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전체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의 새전쟁 도발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는 오늘 사랑하는 자기의 사회주의조국과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기 위하여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굳게 뭉쳐 혁명적경각성을 높여 원쑤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으며 침략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한 각종 군사적도발

조선에서 정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미제침략자들은 1968년에 우리측을 반대하여 각종 군사적도발을 전례없이 더욱 격화시켰다.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24차에 걸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17차에 걸치는 비서장회의들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폭로규탄하고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감행한 군사적도발행위의 그 일부만해도 다음과 같다.

※ 주해—괄호안에 《군사정전위원회 제000차회의》라고 한것은 그 회의에서 우리측이 폭로규탄한 자료임을 의미함.

〔**지상에서**〕 미제침략자들은 1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사이에 비무장지대에 비법반입한 중기관총을 비롯한 각종 자동무기들로 13차에 걸쳐 도합 4,180여발의 총탄을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쏘아대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밖에도 적들은 1월 1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비무장지대내에서 60차에 걸쳐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로 연 1,600여발의 총사격을 감행하였다. 또한 적들은 같은 기간에 55차에 걸쳐 57미리무반동포를 비롯한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비무장지대내에 비법반입하고 그를 제놈들의 초소에 설치하거나 제놈들의 군사인원들에게 휴대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60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1월 23일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를 침입시켰다가 우리측에 나포된것을 전후하여 2차에 걸쳐 105미리곡사포와 106.7미리박격포로 우리측을 향하여 수십발의 포탄을 발사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 261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사이에 106.7미리박격포를 비롯한 6문의 각종 포와 5대의 엠—47형중땅크 그리고 각종 자동무기들을 비무장지대내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였을뿐만아니라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의 기간에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동원하여 무려 56차에 걸쳐 도합 3,670여발의 총포탄을 비무장지대와 우리측에 쏘아대는 도발행동을 감행하였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2월 12일 23시경부터 다음날 새벽1시까지의 사이에 비무장지대내에 비법적으로 기관총을 비롯한 각종 자동무기들을 끌어들여 4차에 걸쳐 2천여발의 총탄을 우리측 지역에 쏘아대다가 새벽1시경에는 10여명으로 구성된 무장습격단을 동원하여 우리측 초소에 대한 무장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무장악당들은 우리 인민군 초병들의 강력한 보복타격에 의하여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62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2월 14일 88.9미리반전차로케트포를 비무장지대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였으며 2월 14일부터 18일까지의 사이에는 각종 자동무기로 우리측을 향하여 30여차에 걸쳐 연 3,500여발의 총탄을 쏘아대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놈들은 또한 2월 16일 새벽 2시경과 2월 19일 새벽 2시 20분경 각각 무장인원들을 동원하여 우리측 초소에 대한 무장습격을 감행하였다.

이 살인악당들은 그때마다 우리 인민군초병들의 단호한 보복타격에 의하여 소멸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63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2월 21일 80미

리박격포로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에 수십발의 포사격을 가하였으며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의 사이에는 중기관총을 비롯한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로 우리측을 향하여 55차에 걸쳐 연 3,300여발의 총탄을 퍼붓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군사정전위원회 제264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3월 14일부터 23일까지의 사이에 장갑차와 무반동포를 비롯한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58차에 걸쳐 490여정을 비무장지대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였으며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사이에 105미리포를 비롯한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로 우리측을 향하여 62차에 걸쳐 연 3,230여발의 총포탄을 발사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살인만행을 일삼는 미제침략자들은 또한 3월 17일 무장악당들을 동원하여 비무장지대내에서 순찰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우리측 민사행정경찰성원들을 살해할 목적밑에 수십발의 총탄을 발사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수다한 무장악당들을 동원하여 우리측에 대한 무장습격을 빈번히 감행하였다.

그러나 침입시킨 무장악당들은 우리 인민군초병들에 의하여 소멸되였거나 체포되였다.(군사정전위원회 제265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3월 25일부터 4월 16일까지의 기간에 엠47형 중땅크, 60미리박격포, 57미리무반동포를 비롯한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비무장지대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였을뿐만아니라 그것으로부터 172차에 걸쳐 3,800여발의 총포탄을 우리측에 쏘아댔으며 3월 27일과 4월 1일,2일, 4일에는 무장악당들과 간첩도당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켜 무모한 무장공격을 감행케 하였다. 특히 4월 17일에는 4차에 걸쳐 중기관총과 수다한 전투원들의 엄호하에 수많은 무장악당들을 동원하여 우리측 초소에 대한 악랄한 무장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 악당들은 그때마다 제때에 우리 인민군초병들의 보복타격에 의하여 소멸되였으며 무장공격에 앞장섰던 적측 장교를 비롯한 수많은 무장악당들은 살상포로되고 말았다.(군사정전위원회 제266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의 악랄한 무장공격행위는 4월 18일, 19일에도 계속되였다. 20일에는 70여명의 미제침략군을 동원하여 우리측에 대한 공격을 하다가 인민군초병들의 보복타격에 의하여 그것이 파탄되자 또다시 100여명을 동원하여 집중사격을 가하면서 저들의 공격시도를 실현해 보려고 발악하였다. 이로 인하여 쌍방간에는 여러 시간에 걸친 치렬한 사격전이 벌어졌는바 미제침략군은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군사정전위원회 제267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우리측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련속적으로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군사정전위원회 제267차회의에서 우리측으로부터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도 그 다음 날인 4월 21일 또다시 50여명의 무장인원을 동원하여 3대의 장갑차와 각종 중화력기재로 무장한 수다한 인원들의 엄호사격밑에 우리측에 대한 무장공격을 또다시 감행함으로써 쌍방간에는 여러시간에 걸쳐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이 전투에서 수명의 미제침략군이 사살되고 공격기도는 파탄되였다.(군사정전위원회 제268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의 우리측에 대한 무장공격은 4월 26일, 29일에도 계속되였을뿐만아니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측에 대한 총포사격도 매일과 같이 진행되였다. 4월 23일부터 30일까지의 사이에 40차에 걸쳐 연 2,000여발의 총탄을 우리측에 쏘아대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군사정전위원회 제269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5월 7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장갑차, 자동포, 57미리무반동포를 비롯한 각종 무기들을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이는 한편 3대의 군용직승비행기를 비무장지대내에 불법침입시켰을뿐만아니라 이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인 각종 무기들로 5월 1일부터 16일까지의 사이에 연 60여차에 걸쳐 2,430발의 총탄과 포탄을 우리측에 쏘아대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리고 적들은 5월 5일, 6일, 7일 연거퍼 우리측에 대한 무장습격과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이 무장악당들은 우리 인민군초병들에 의하여 모조리 체포되였다.(군사정전위원회 제270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사이에 9차에 걸쳐 20명의 무장악당들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켰으며 6월 22일에는 무장집단을 동원하여 전선서부에서 우리측에 대한 악랄한 무장공격을 감행케 하였다. 이 모든 무장악당들은 우리 인민군초병들에 의하여 모조리 체포 또는 황천객이 되였다.

동시에 미제침략자들은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의 기간에 11차에 걸쳐 9문의 각종 포와 17대의 땅크와 장갑차를 비무장지대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였으며 이 무기들로 5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의 사이에 153차에 걸쳐 1만 9,270여발의 총탄과 포탄을 우리측에 쏘아대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군사정전위원회 제271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의 사이에 105미리곡사포를 비롯한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로 우리측을 향하여 50여차에 걸쳐 연 7,700여발의 총탄과 포탄을 쏘았으며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의 사이에는 5대의 장갑차를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였으며 2대의 에취19형 군용직승기를 비무장지대에 불법침입시켰다. 이밖에도 미제침략자들은 6월 25일, 27일 무장비적들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켰다. 이 무장비적들은 인민군초병들에 의하여 현장에서 즉사되고 말았다.(군사정전위원회 제272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7월 9일 전차와 포 그리고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로 무장한 수백명의 무장악당들을 동원하여 우리측 초소와 그 주변일대에 수만발의 총포사격을 가하는 로골적인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이밖에도 7월 7일부터 11일까지의 사이에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로 우리측에 대하여 30차에 걸쳐 9,380여발의 총탄과 포탄을 쏘아대는 적대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비무장지대를 전투진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7월 8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9대의 장갑차와 엠47형땅크, 3문의 57미리무반동포를 비롯한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비무장지대내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73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7월 14일과 24일에 무장악당들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켰으며 7월 12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105미리곡사포를 비롯한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로 우리측을 향하여 54차에 걸쳐 3,300여발의 포탄과 총탄을 쏘아댔다. 그리고 7월 15일과 20일, 22일에 3대의 장갑차와 84미리박격포를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74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7월 31일과 8월 4일 수백명의 무장악당들과 장갑차를 동원하여 각종 포와 자동무기로 수만발의 총포탄을 우리측을 향하여 쏘아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조치에 의하여 적들의 기도는 분쇄되고 말았다. 이밖에도 미제침략자들은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의 기간에 연 40차에 걸쳐 7,600여발의 포탄과 총탄을 우리측에 발사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75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8월 12일, 16일, 18일, 19일, 20일 매일과 같이 무장악당들을 동원하여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켰다. 그러나 놈들은 그때마다 우리 인민군초병들에 의하여 죽거나 체포되였다. 뿐만아니라 미제침략자들은 우리측에 대한 총포사격을 계속 감행하였는바 8월 5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만도 각종 포와 자동무기로 109차에 걸쳐 1만 7,590여발의 총포탄을 쏘아댔으며 8월 6일부터 18일까지의 사이에 12대의 전차와 장갑차, 8문의 57미리무반동포, 81미리박격포, 88.9미리반전차로케트포 등 각종 구경의 포들을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76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8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의 기간에 매일과 같이 연 8차에 걸쳐 무장악당들과 무장간첩들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켰는바 이놈들은 모두 우리 인민군초병들에 의하여 체포되였거나 사살되고 말았다.

그리고 미제침략자들은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의 사이에 14차에 걸쳐 각종 포들을 동원하여 70여발의 포탄을 우리측을 향하여 쏘아댔으며 9월 1일에는 200여명의 무장인원을 동원하여 우리측 지역에 대한 총사격을 감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쌍방간에는 여러시간의 교전이 있었으며 적들은 비싼대가를 치른후에야 물러났다. 이밖에도 미제침략자들은 8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의 기간에 비무장지대의 전령역에서 연 125차에 걸쳐 1만 8,370여발의 총탄을 쏘아댔으며 8월19일부터 9월 1일까지의 사이에는 중전차와 6대의 장갑차를 비롯한 많은 무장장비들을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이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77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9월 5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비무장지대에서와 초소들에서 142차에 걸쳐 1만 6,400여발의 총포탄을 쏘아댔으며 이밖에도 9월 14일 하루동안에 전선동부와 중부의 8개 지점에서 11차에 걸쳐 수십발의 포탄과 5,600여발의 총탄을 우리측 초소들을 향하여 쏘아대는 악랄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9월 6일부터 17일까지의 사이에 10대의 장갑차와 4문의 각종 포를 비무장지대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였으며 9월 17일에는 무장간첩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키는 범죄적행위를 감행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78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9월 18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12차에 걸쳐 17대의 장갑차, 3문의 81미리박격포와 무반동포를 비무장지대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였으며 그 무기들로 같은 기간에 90여발의 포탄과 수백발의 총탄을 우리측과 군사분계선일대에 쏘아대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이밖에도 9월 18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비무장지대내에서 60여차에 걸쳐 6,400여발의 총사격을 가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적들은 9월 20일 하루동안에만도 20여명의 무장인원을 동원하여 1,000여발의 총탄을 우리측을 향하여 쏘아대다가 우리측의 강력한 보복타격에 의하여 저지되고 말았으며 9월 18일에는 무장간첩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켰다. 침입된 간첩은 인민군초병들에게 붙잡혔다(군사정전위원회 제279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9월 30일, 10월 9일과 11일, 17일에 우리측 인원들을 습격 살해할 기도밑에 무장악당들을 무리로 우리측에 침입시켰다. 그러나 이 무장악당들은 인민군초병들에게 죽었거나 붙잡히고 말았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9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사이에 39대의 땅크와 장갑차, 군용비행기, 81미리박격포를 비롯한 수많은 중장비들을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였으며 9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사이에는 각종 구경의 포와 자동무기들로 연 170차에 걸쳐 2만 950여발의 포탄과 총탄을 우리측을 향하여 쏘아댔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80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기간에 8대의 장갑차와 3문의 57미리무반동포를 비롯한 수많은 중장비와 전투인원들을 비무장지대에 불법적으로 끌어들였으며 이 중무기와 자동무기들로서 우리측을 반대하여 연 79차에 걸쳐 7,320발의 포탄과 총탄을 쏘아댔다.

우리측을 반대하는 적들의 무장공격은 더욱 악랄하였는바 10월 21일에는 70명, 10월 24일에는 2차에 걸쳐 370여명, 11월 3일에는 4차에 걸쳐 1천여명의 무장악당들을 각각 동원하여 장갑차를 비롯한 각종구경의 포와 자동무기로서 무려 5만7,800여발의 포탄과 총탄을 우리측에 퍼부으

면서 공격하여왔다. 그러나 이 무장공격은 우리 인민군초병들의 강력한 타격을 받고 그때마다 좌절되였으며 저들의 수많은 사상자를 내였을뿐이다.

특히 적들의 악랄한 무장공격과 총포사격 행위는 제281차군사정전위원회가 진행되는 당일 11월 5일에도 5개의 각이한 지점에서 계속되였는바 전선동부에서만도 3대의 땅크와 300여명의 무장인원을 동원하여 총포사격을 가하면서 우리측에 대한 무장공격을 시도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81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사이에도 6대의 장갑차와 각종 구경의 포들을 비롯한 수많은 중장비들을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였으며 11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의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인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로 연 180여차에 걸쳐 1만 8,200여발의 포탄과 총탄을 우리측에 쏘아댔다.

한편 미제침략자들은 11월 2일 16일, 17일, 25일에도 무장악당들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켜 정탐파괴활동과 무장습격을 감행케 하였다. 그러나 이 악당들은 인민군초병들에 의하여 체포되였거나 살상되였으며 일부는 격퇴되고 말았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82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또다시 12월 15일부터 27일까지의 사이에 장갑차와 81미리박격포를 비롯한 수많은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였으며 12월 9일부터 28일까지의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인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로 우리측 지역과 군사분계선일대에 연 83차에 걸쳐 4,750여발의 포탄과 총탄을 쏘아대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해상에서**〕미제침략자들은 1968년 1월 6일 무장함선의 엄호하에 수많은 무장선박들을 어선들속에 끼워 동해안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켰으며 1월 11일에도 수백척의 어선과 어선으로 가장한 간첩선을 동해안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행동을 감행케 하였다.

이보다 앞서 미제침략자들은 지난해 12월 25일 수십척의 무장선박들을 역시 어선들속에 끼워 동해 장전항북쪽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도발책동을 감행케 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968년 1월 20일까지 사이에 무장선박과 간첩선을 포함한 남조선어선들을 24차에 걸쳐 5,400여척이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키는 도발행동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60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저들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우리측 연해에 들여보냈다가 1월 23일 우리측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나포되였다. 이것을 전후하여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수백척의 범선들의 틈에 무장간첩선들을 끼워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키는 도발행동을 감행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61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2월 16일 20시경부터 21시경 사이에 또다시 무장선박들을 우리측 연해인 서해 옹진남쪽 순위도가까이에까지 도발적으로 침입시켰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63차회의)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의 기간에 14차에 걸쳐 연 630여척에 달하는 무장선박과 어선들을, 3월 8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16차에 걸쳐 725척에 달하는 무장선박과 어선들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불법침입시켰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64, 265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또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도 5차에 걸쳐 260여척을,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사이에는 8차에 걸쳐 380여척의 무장선박과 간첩선을 포함한 어선들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적도발행위를 감행케 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68, 269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의 사이에 13차에 걸쳐 무려 100여척의 무장간첩선을 포함한 어선들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켰으며 (군사정전위원회 제270차회의) 6월 22일에는 서해 연평도부근에 간첩모선을 끌어다 놓고 포항근처에 간첩선을 침입시키는 날강도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군해군이 즉시적인 대응사격을 가하여 적간첩선을 침몰시키고 거기에 타고있던 간첩집단을 몽땅 물속에 처넣었다.

이밖에도 미제침략자들은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의 사이에 13차에 걸쳐 200여척의 무장간첩선과 무장선박을 동서해 우리측 연해에 불법침입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71차회의)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7월 4일 《경호함 56호》를 동해 우리측 연해에 불법침입시킨것을 비롯하여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의 사이에 8차에 걸쳐 330척의 무장간첩선과 어선들을 동해 우리측 연해에 불법침입시키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72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7월 9일부터 11일까지의 사이에도 3차에 걸쳐 200여척을, 7월 21일에는 20여척의 무장간첩선과 어선들을 동해 우리측 연해에 불법침입시켰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73차, 274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7월 26일과 8월 5일에 290여척, 8월 22일과 9월 1일에는 320여척의 무장선박과 어선들을 동해 우리측 연해에 불법침입시켰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75차, 277차회의)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10월 2일부터 16일까지의 사이에 4차에 걸쳐 170여척, 10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사이에는 12차에 걸쳐 1,950여척의 무장간첩선을 포함한 어선들을 동해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80, 281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이에 3척의 구잠함, 1척의 경호함, 6척의 쾌속경비정, 2척의 경찰쾌속정, 4척의 경찰선을 비롯한 해군함선들과 무장선박들을, 12월 24일에는 또다시 구잠함과 무장간첩선을 우리측 연해에 불법 침입시키는 적대적행동을 감행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82, 283차회의)

〔**공중에서**〕미제침략자들은 2월 7일 3대의 《에프—4씨》형 군용비

행기편대를 우리측 통제지역인 1,211고지 동쪽 매봉, 이포리, 무산 상공까지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케 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62차회의) 놈들은 2월 18일 13시 15분경에도 군용비행기편대를 우리측 지역인 판문, 화장산, 국사봉 상공에 들여보내여 적대행위를 감행케 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63차회의)

또한 놈들은 2월 19일과 26일에 3대의 군용비행기를, 6월하순에도 에취—19형 군용비행기, 에프 105형전투추격기, 군용제트식비행기를, 7월 11일에는 2대의 군용비행기를 우리측 령공에 침입시키는 적대적행위를 감행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64, 271, 273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10월 23일 2대의 에프 5에이전투폭격기편대를 우리측 군사통제지역인 순위도와 등산곶 상공에, 12월 25일과 28일에는 군용비행기를 비무장지대에 침입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81, 283차회의)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및 비서장회의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제260차회의** 1월 20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제침략자들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해상과 지상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261차회의 1월 24일, 회의에서 우리측은 악랄한 군사적도발행위를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저들의 무장간첩선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로골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적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미제침략군의 무장간첩선은 우리의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1월 23일 나포되였다.

제262차회의 2월 14일,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제침략자들이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를 우리측 령해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케하다가 나포된 강도적인 해적행위를 계기로 벌리고있는 광란적인 전쟁소동과 때를 같이하여 지상과 공중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하는 한편 남조선에 각종 살인무기들을 끌어들이고있으며 또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있는데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263차회의 2월 19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제침략자들이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새전쟁 도발소동에 광분하면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계속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264차회의 3월 7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제침략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반공》광증에 열을 올리면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도발을 계속 감행하며 남조선에 각종 살인무기들을 끌어들이면서 정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광분하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265차회의 3월 25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제침략자들이 새전쟁도발소동에 미쳐날뛰면서 남조선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지상과 해상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도발을 계속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266차회의 4월 18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제침략자들이 정전협정의 요구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는 한편 남조선에 각종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새전쟁도발에 광분하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항의하고 그에 대하여 강력히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267차회의 4월 20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제침략자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측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장공격을 감행하면서 새전쟁도발에 광분하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268차회의 4월 23일, 회의에서 우리측은 우리의 거듭되는 항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자들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새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측을 반대하는 악랄한 군사적도발행위를 련속적으로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269차회의 5월 2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정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을 위한 역선전을 일삼으면서 전쟁방화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책동을 전면적으로 폭로규탄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270차회의 5월 17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새전쟁도발을 위하여 계속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에 집요하게 달라붙고있는 미제침략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271차회의 6월 26일, 회의에서 우리측은 우리측의 거듭되는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자들이 계속 새로운 침략

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우리측을 반대하는 각종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더욱 악랄하고 대규모적으로 감행하는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폭로규탄하고 적측에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함부로 날뛰지말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경고하였다.

제272차회의 7월 8일,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제침략자들이 계속 새전쟁을 도발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여선전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273차회의 7월 18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제침략자들이 광란적인 새전쟁도발소동을 벌리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를 더욱 집요하게 감행하고있는 적측의 범죄적책동을 다시한번 전면적으로 폭로규탄하면서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274차회의 7월 25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제침략자들이 새전쟁도발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계속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파괴유린하고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면서 적측의 범죄행위를 전면적으로 폭로규탄하였다.

제275차회의 8월 5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거듭되는 항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자들이 계속 정전협정의 요구를 유린하고 우리측을 반대하는 각종 군사적도발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면서 전쟁도발책동에 계속 매달리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276차회의 8월 20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거듭되는 항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자들이 계속 각종 군사적도발행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면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277차회의 9월 5일, 회의에서 우리측은 정전협정의 요구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새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적책동을 엄중히 항의규탄하였다.

제278차회의 9월 19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계속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광분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제279차회의 9월 27일, 회의에서 우리측은 비무장지대에 각종 중장비와 자동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며 우리측에 대한 적대적인 도발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행위를 전면적으로 폭로규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280차회의 10월 21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우리측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적극화하면서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행위를 전면적으로 폭로규탄하고 적측에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281차회의 11월 5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지상과 해상 및 공중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격화시키면서 새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전면적으로 폭로규탄하고 적측에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282차회의 12월 10일, 회의에서 우리측은 우리측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련일 격화시키는 한편 저들의 침략적정체와 새전쟁도발책동을 유엔의 이름으로 가리워보려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행위를 전면적으로 폭로규탄하고 적측에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283차회의 12월 30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조선에서 정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적인 행동을 전면적으로 폭로규탄하면서 적측에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비서장회의〕

제344차회의 1월 4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비무장지대를 전투진지로 전변시키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항의규탄하였다.

제345차회의 2월 7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제침략자들이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는 한편 비무장지대내에 각종 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며 불을 지르는 등 적대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346차회의 2월 27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을 계속 감행하는 적들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347차회의 3월 19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제침략자들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각종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는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제348차회의 4월 29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내에서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는 미제의 죄행을 폭로규탄하였다.

제349차회의 5월 14일, 우리

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비무장지대를 적대행동의 온상으로 전변시키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적책동을 강력히 항의규탄하였다.

第350차회의 5월 24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내에서 긴장성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강력히 항의 규탄하였다.

第351차회의 6월 18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제침략자들이 비무장지대내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각종 범죄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였다.

第352차회의 7월 18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비무장지대를 우리측을 반대하는 전루진지로 적대행위의 온상으로 전변시키고있는 미제의 범죄행위를 엄중히 항의규탄하였다.

第353차회의 8월 13일,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제침략자들이 비무장지대내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각종 범죄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였다.

第354차회의 8월 28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제침략자들이 비무장지대내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각종 범죄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하였다.

第355차회의 9월 24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회의에서 우리측은 비무장지대를 전루진지로 전변시키고있는 미제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第356차회의 10월 5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비무장지대를 전루진지로 전변시키고있는 미제의 범죄행위를 엄중히 항의규탄하였다.

第357차회의 10월 30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비무장지대내에 각종 자동무기와 군사인원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는 범죄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第358차회의 11월 13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회의에서 우리측은 비무장지대를 우리측을 반대하는 전루진지로, 적대행위의 온상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계속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규탄하였다.

第359차회의 11월 21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에서 긴장성을 격화시키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행위를 엄중히 항의규탄하였다.

第360차회의 12월 14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비무장지대를 재전쟁도발을 위한 전루진지로 전변시키며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유엔》의 이름으로 가리워보려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항의규탄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 ×

이상의 모든 사실은 1968년에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정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하여 얼마나 광란적으로 무모하게 책동하여 왔는가를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선인민은 우리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며 우리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에게 그때마다 응당한 징벌을 가하여 쓰디쓴 참패의 맛을 보여주었다.

미제침략자들이 여기서 심각한 교훈을 찾지않고 앞으로도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에 매여달린다면 그것은 자신의 멸망을 촉진할뿐이다.

미제침략자들의 재전쟁도발책동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정전후 류례없는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으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는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만일 미제침략자들이 끝끝내 정전을 파괴하고 재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조선인민은 자기들에게 재난을 들씌운 극악무도한 범죄자이며 20여년간 우리 조국을 분렬시키고 남조선 인민을 갖은 불행속에 몰아넣은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이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경 제

1968년에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자립적경제력과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당과 수령의 부름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은 이해에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당이 내세운 전투적구호와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7차 및 제18차 전원회의 그리고 전국청년총동원대회와 제2차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및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온갖 보수와 침체를 짓부시고 천리마의 기세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였다.

이해에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한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더욱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여 계획에 예견하였던것보다 더 큰 힘을 국방건설에 돌려야 하였으며 력사에 드문 혹심한 가물과 그로 인한 전력의 긴장성과 같은 경제적난관을 겪어야하였다.

그러나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우리 인민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분초를 아껴가며 투쟁함으로써 공업총생산액을 또다시 115%로, 알곡생산량을 111%로 높이는 기적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전국의 붉은 탄부들은 수령께서 석탄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돌려주시는 크나큰 배려에 무한히 고무되여 눈부신 로력투쟁을 벌림으로써 1968년에 7개년인민경제계획에 예견하였던 석탄고지를 선참으로 점령하였다.

1968년에 공업과 농업분야에서 달성한 이 모든 성과는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을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생산장성의 예비가 더욱더 커질뿐만아니라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힘있게 보여주었다.

1968년에 당과 정부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적밑천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면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국가에서는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긴장된 정세하에서 계획에 예견하였던것보다 국방건설에 더 큰 힘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출총액의 48.9%에 해당하는 방대한 자금을 인민경제발전에 돌리였으며 그중에서 많은 몫을 기본건설에 돌리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리용하는 새로운 공업제품생산기지가 꾸려지고 이미 있는 공장, 기업소들도 더욱 보충완비됨으로써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우리의 공업은 더욱 급속히 발전하게 되였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났다.

당과 국가에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의 발전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앞세워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앞세우는것은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조건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55페지)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전력공업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대규모발전소들의 건설을 다그쳐 50만키로와트능력을 가진 화력발전소를 완전히 조업하고 대규모화력 및 수력발전소들의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미 있는 발전소들을 더욱 정비보강하고 중소규모발전소들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결과 나라의 동력기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전력생산의 계절적파동성이 없어지고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증대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켰다.

광산 탄광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채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시하신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실행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킬데 대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탐사일군대렬을 늘이고 기술장비를 강화하였으며 채굴작업과 운반작업을 비롯한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였으며 로천채굴비중을 더욱 높이였다.

그리하여 공업의 첫공정인 채굴공업이 가공공업발전에 앞서고 나라의 원료기지와 연료기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전국의 붉은 탄부들은 수령께서 석탄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돌려주시는 크나큰 배려에 무한히 고무되여 대규모탄광들과 중소규모탄광들을 병진시키면서 눈부신 로력투쟁을 벌려 1968년에 벌써 7개년계획에 예견된 석탄고지를 선참으로 점령하는 영예를 지니였다.

국가에서는 금속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1968년에 그 전해의 1.7배에 달하는 기본건설자금을 이 부문에 돌려 이미 있는 제철, 제강소들을 개건확장하였으며 새로운 흑색야금공장들의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공업화수준과 경제적위력을 평가하는 야금기지가 더욱 공고화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요구되는 철과 강재, 여러가지의 유색금속의 생산이 훨씬 늘어났으며 우리 나라 금속공업의 자립성이 더한층 강화되였다.

이해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대표자회에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에 따라 기계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부과된 경제과업을 옳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중공업의 핵심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술적진보의 기초로 되는 기계공업의 발전에 항상 커다란 힘을 기울여온 당과 정부에서는 1968년에 1967년의 2.3배에 달하는 방대한 기본건설자금을 돌려줌으로써 청년전기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대규모의 현대적 기계공장들과 중소규모공장, 분공장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기계전사들은 이미 있는 공장들과 새로 꾸린 기계기지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6천톤프레스, 1천마력 대형준첩선, 3천톤급 대형선박을 비롯한 대형설비들과 복잡한 정밀기계들을 만들어내고 대규모발전소, 대규모야금공장, 화학공장, 건재공장 건설에 필요한 각종 설비들과 각종 철제일용품들을 자체로 생산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도 이해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화학화의 대대적인 도입은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추세이며 생산력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우리는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추진시켜 농업생산을 높이고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5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강령적인 교시에 따라 국가는 막대한 투자를 하여 노소공장, 비날론공장, 화학섬유공장, 합성수지공장, 다이야공장을 확장하고 원유가공공장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게 하였다.

대규모화학공장과 중소규모화학공장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현명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전국 각지에 꾸려 놓은 중소규모화학공장들이 계속 은을 내도록 조직기술적대책들을 세움으로써 지방에 잠재하고있는 생산적예비들을 더잘 리용하면서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을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1968년에만하여도 그 전해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화학비료와 농약 특히 우리 나라 원료에 의한 린비료, 미량원소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함으로써 알곡 정당 500키로그람 증수운동에 일떠선 협동농민들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또한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감과 일용품을 더많이 마련하여주시려는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우기 위해 화학섬유와 합성수지를 비롯한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기초화학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화학공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깊은 배려와 끊임없는 보살핌속에서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 화학섬유와 합성수지를 비롯한 각종 화학제품들을 생산하는 무기화학공업과 유기화학공업을 다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현대적인 화학공업으로, 자립적민족경제의 믿음직한 구성부분의 하나로 발전하고있다.

국가에서는 세멘트를 비롯한 각종 건재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기본건설자금을 이 부문에 돌려 이미 있는 세멘트공장들을 개건확장하고 새로운 세멘트공장들과 기타 많은 건재공장들의 신설확장공사를 성과있게 추진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있는 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품종을 늘이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대규모방직공장들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과실가공공장, 옥쌀공장, 포도주공장, 랭동공장을 비롯하여 적지않은 경공업공장들의 건설을 완공하였다. 이밖에도 종이공장, 판지공장, 일용품공장 등 수많은 새로운 공장들의 건설을 다그치고 이미 있는 경공업공장들을 개건확장하였다. 또한 대형선박을 비롯한 각종 어선과 어로기재들을 더 많이 공급함으로써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일층 강화하였다.

건설, 운수, 체신 등 부문에서도 거대한 성과가 이루어졌다.

1968년과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하에서도 단 한해동안에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많은 현대적대규모공장들을 일떠세웠으며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현대적기계설비들로 기술혁명을 하고 우리 나라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들로 인민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고있는것은 오직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옳은 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길을 따라 우리 인민을 오늘의 륭성과 번영에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도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공업의 강력한 지원밑에 1968년에 농업분야에서도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농촌경리발전을 위하여 계속 커다란 힘을 기울여 온 당과 정부에서는 이해에도 이 부문에 대한 기본건설투자를 례년보다 훨씬 늘이고 알곡증산에 떨쳐나선 협동농민들에게 막대한 국가적방조를 주었다.

국가의 강력한 지원밑에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1968년 2월에 있은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하신 수령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정보마다 알곡 500키로그람씩 더 내기위한 운동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만고대풍을 이룩하였으며 고기생산량은 126%, 과실생산량은 근 2배, 누에고치생산량은 134%로 높이였다.

그리하여 전국적인 분배몫이 1967년에 비하여 1968년에는 농가호당 분배량에서 알곡은 114%, 현금은 113%로 늘어났다.

그렇게 불리한 자연조건에서도 농업생산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이다.

오랜 세월 원시적인 농기계를 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모진 고역에 시달리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은 믿음직한 자립적공업의 힘있는 지원을 받아가며 생명수 흘러 넘치는 협동전야에서 기계와 전기,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있으며 큰 물이 나고 왕가물이 들어도 해마다 풍작을 거두며 천석군, 만석군 부럽지 않게 살고있다.

축산업부문에서는 이해에 이 부문을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며 축산물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식물해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현대적인 닭알목장, 닭고기목장들을 평양과 송림 등지에 지어주시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1968년에 전국 각지에 가금목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것을 제시하시였다.

수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일떠선 근로자들은 전인민적운동으로 그이께서 잡아주신 허전우에 21개의 새로운 현대적인 대규모가금목장들을 훌륭히 세워놓았으며 이미 있던 가금목장들을 개건확장하고 배합사료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여 놓았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전 지역에 걸쳐 각도 소재지와 로동자구가 있는곳마다 닭알과 닭고기를 생산하는 후방기지들이 꾸려지게되였으며 또 그것은 최신기술로 전문화, 집약화, 현대화되였다.

과수부문에서는 이해에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 및 당 중앙위원회 제4기제16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이미 조성한 과수원의 기술관리와 과수원건설에 력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올과실을 비롯한 새로운 과수원을 더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이해에 과실생산량이 배로 높아졌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사철 맛좋은 과실을 공급할수 있게 과실의 품종구성을 개선하였다.

1968년에 국방건설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소동으로 우리 나라에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긴장한 정세에 대처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국방력강화에 커다란 힘을 기울였다. 이해 국가에서는 1967년에 비하여 130%로 늘어난 거액의 자금을 국방비로 지출하였다.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자위적인 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영웅적인민군대는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고 현대적무기들과 최신군사기술기재로 튼튼히 장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장성강화되였으며 전국가적, 전인민적 방위체계가 한층 굳건히 다져졌다.

우리는 공화국의 령해깊이 침입한 미제의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를 나포함으로써 우리의 혁명적무장력과 전인민적방위체계의 위력을 다시 한번 힘있게 시위하였다.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미제침략자들은 발광적인 전쟁소동을 벌리면서 조선인민을 위협하여나섰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원쑤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단호하고 견결한 립장을 취함으로써 미제침략자들로 하여금 저들이 범한 침략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죄케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앞에 담보하도록 하였다.

국방분야에서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세의 추이와 우리 혁명발전의 전망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벌써 여러해전부터 명시하시고 시종일관 견지하여오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이 가져온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당 군사로선의 승리이다.

1968년에 우리 인민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분야에서 달성한 이 모든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하에 수립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다.

지금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쳐 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점령하며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공 업

전력공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위대한 10대 정강에서 전력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력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는 수력발전소건설과 화력발전소건설을 옳게 배합하며 대규모발전소건설과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시키는 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55페지)

1968년도 전력공업의 중심과업은 급격히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마련된 동력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동력기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건설을 촉진하는것이다.

동력공업을 채취공업과 더불어 인민경제의 발전에 앞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지난 20년간 우리 나라에는 자립적민족경제의 믿음직한 동력기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나라의 동력기지는 국내의 동력자원에 의거하여 수력발전소건설과 화력발전소건설을 옳게 배합하며 대규모발전소건설과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튼튼히 다져졌다.

특히 큰 용량을 가진 수력 및 화력 발전소들을 건설하고 전력공급계통을 개선함으로써 막대한 량의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였을뿐만아니라 갈수기에도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게 되였다.

또한 수원이 많은 산간지대, 내륙지대를 중심으로 한 강줄기와 큰 보이라들을 가진 공장과 기업소마다에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와 공장화력발전소들을 건설함으로써 나라의 전력계통이 미치지 못한 지방적전력수요와 보충적수요를 적지 않게 보장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 구축된 동력기지는 나라의 전기화를 촉진하고있으며 특히 중소동력기지는 대동력기지와 더불어 산간농촌의 전기화를 다그쳐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혁명을 추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수력과 화력, 대규모와 중소규모 발전소들을 병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동력기지를 튼튼히 꾸려놓은 전력공업부문에서는 1968년에 들어와 그것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전력공급의 질을 높이는데 힘썼다.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는 발전설비, 수력구조물, 설비와 구조물의 리용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장악한데 기초하여 진공적으로 낡은 수차들을 새형의 수차로 바꾸고 수력구조물들을 정비보강하며 새로운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발전기들을 과학적으로 운전함으로써 같은 물로써 그전에 비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였다.

화력발전소들에서는 기대들의 운전을 정상화하는데 모를 박고 연료의 연소조건을 개선하며 기대들의 낡은 곳을 수리하며 기대들에 대한 운영수준을 높임으로써 전력생산을 계통적으로 높이였으며 특히 갈수기의 보충적수요를 훌륭히 보장하였다.

중소규모발전소들에서도 발전소운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중소형발전설비를 부단히 개선하고 로동자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여 지방적전력수요를 상당히 충족시키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일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선 전력계통의 융통능력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변전소의 용량을 높이면서 기본간선들을 튼튼히 꾸리였으며 새로 늘어나는 중요부하에 대한 전력공급대책을 기동성있게 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전기화를 위한 당의 방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전기화를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대규모의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병행하여 추진시키며 동시에 중소규모의 발전소들을 전국 각지에 많이 건설하는것이다.

당의 전기화방침을 계속 관철하여 가까운 년간에 모든 농촌과 모든 농가에 다 전기가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46페지)

전력공업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이 휘황한 길을 따라 농촌전기화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1968년말 현재 우리 나라 전체 농촌리의 100%, 농호수의 91.2%에 전기가 들어갔으며 농산작업의 많은 부문이 전기동력화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낟알털기, 물푸기, 먹이빻이, 자르기, 나무케기와 같은 일들이 기계화되였으며 라지오, 유선방송기, 전기용품과 같은 사상, 문화혁명의 수단들이 도시처럼 널리 씌우고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또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전력을 증산하였을 뿐만아니라 많은 전력을 절약하였다.

화학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전력소비기준이 높은 압축기, 펌프, 권양기, 전기로 기타 설비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한편 많은 전력을 들여 얻어진 공기, 증기, 가스, 물 등을 흘려버리지 않고 모조리 리용함으로써 제품의 단위당 전력소비기준을 부단히 낮추었다.

동시에 불필요하게 용량이 큰 전동기들을 알맞는것으로 바꾸고 전력을 많이 쓰는 공정을 전력을 전혀 쓰지 않거나 적게 쓰는 공정으로 바꾸었으며 기대의 헛돌림을 없애므로써 많은 전력을 절약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동력공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하에 자연의 제한을 받지않는 다면적인 동력기지로, 국내자원에 튼튼히 의거하는 주체적인 동력기지로, 어떤환경에도 생산을 능히 보장할수 있는 동력기지로 꾸려져나갔다.

석탄공업

1968년에 석탄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제시한 7개년 인민경제계획의 석탄고지를 맨선참으로 점령하였다.

석탄고지에 오른 이 승리의 개가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석탄공업정책의 정당성과 그이의 탁월한 령도의 현명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붉은 탄부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표현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에서는 7개년인민경제계획에 예견한 석탄고지를 선참으로 점령함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석탄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석탄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규모탄광들과 중소규모탄광들을 병진하며 갱내채굴과 로천채굴을 배합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강화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킬데 대한 세가지 원칙까지 명시하여주시였다.

나아가서 장동윤동무가 일하는 천리마탄광의 현지지도를 통하여 석탄공업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인 생산기술지도체계, 자재공급체계, 후방공급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여 주시였다. 또한 수많은 기술자들과 선진적인기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석탄공업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놓게하여 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석탄공업부문에서는 7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기간에 현대적채굴기계설비들이 3배이상으로 늘어났고 기술자, 전문가들의 수는 4배로 증가하였으며 석탄생산량 역시 2.5배로 장성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현시기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몇가지 중심적인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시였다.

《탐사일군대렬을 늘이고 기술장비를 강화하여 예비탐사와 특히 세부탐사, 작업탐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며 선진탐사방법들을 종합적으로 도입하여 탐사속도와 효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55페지)

모든 탄광과 지질탐사대들에서는 시추공과 지질조사원을 비롯한 탐사일군대렬을 우수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석탄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각지 탄광들과 탐사대들에서는 또한 시추기와 물리탐사기계를 비롯한 선진적인 탐사수단들과 물리탐사방법을 비롯한 선진적인 탐사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도처에서 탐사속도와 탐사효률을 높이였다.

그리하여 탐사부문에서는 이미 있는 탄광들에 대한 세부탐사와 작업탐사를 통하여 대규모탄광들에서 고열탄생산비중을 높일 조건을 마련하여 주었으며, 대규모탄광들과 자체채굴기업소들에서 로천채굴장과 중소탄광들을 더많이 개발할수 있게 보장하였다.

모든 탄광들과 탐사대들에서는 열량이 비교적 많은 무연탄과 유연탄의 탐사에 커다란 힘을 넣어 고열탄생산기지를 확대하였을뿐만아니라 그 생산량을 훨씬 높임으로써 우리 나라 제철제강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각지 탄광들과 탐사대들에서도 로천채굴후보지들을 수많이 찾아내고 중기계들을 들이대여 짧은 기간에 그것들을 규모있게 개발하였다. 그리하여 갱내채굴과 로천채굴을 광범히 배합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년중을 통하여 석탄생산을 높은수준에서 정상화하게 하였다.

한편 대중소병진정책을 성과있게 관철하기 위하여 도처에서 중소탄광후보지들을 찾아내고 채굴조건과 운반조건이 좋은 탄광부터 대규모탄광들의 지원을 받아 먼저 개발함으로써 7개년계획에 예견한 석탄생산량의 상당한 몫을 중소규모탄광들에서 생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석탄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전개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기술혁명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어느 부문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작업이 많이 진행되는 채취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탄광, 광산들에서 채굴작업과 운반작업을 비롯한 고되고 품이 많이 드는 모든 작업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며 선진적인 채굴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특히 로천채굴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56페지)

각지 탄광들에서는 우선 채탄장쇠동발과 연층갱도용 쇠동발을 전반적으로 들인 동시에 이미 여러탄광들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원통채탄기와 보습채탄기, 굴개식채탄기를 비롯한 선진채탄기계들을 일반화하여 고되고 품이 많이 드는 채굴작업을 헐하고 흥겨운 일로 만들었을뿐만아니라 채탄공 1인당생산액을 훨씬 높이였다.

모든 탄광들에서는 채굴작업의 기계화와 더불어 운반작업의 기계화, 자동화에도 커다란 힘을 넣었다. 특히 운반계통을 정비하고 단일화하면서 짐을 싣고 부리는 일과 여러 방향의 운반선들을 련결하는 일을 기계화, 자동화하여 많은 손로동을 흥겨운 기계로동으로 바꾸었으며 동시에 광차들의 회전속도를 높이였다.

특히 모든 탄광들에서는 자기 탄광들의 지질조건에 맞게 장벽식채탄법, 쇠그물을 까는 분층채탄법, 공기 및 수사충전채탄법을

널리 받아들여 석탄을 보다 능률적으로 캐냈을 뿐만아니라 채탄장당 부하률과 채취률을 결정적으로 높이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7개년계획의 석탄고지를 1968년에 점령한 기세를 늦추지 말고 석탄생산을 더욱 높일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명심하고 나라의 연료기지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광 업

채취공업을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진군을 다그쳐 온 우리 나라 광산의 붉은 광부들은 1968년에도 계속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높여 광물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켰다.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전체 붉은 광부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의 광업은 해마다 급속히 확대발전되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다지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공화국의 기치밑에 지난 20년간 우리 나라 도처에서는 수천수만년 묻혀있던 금은보화들이 새로 개발되여 온 나라가 조밀한 광산의 그물로 덮였으며 오랜 광산들도 끊임없이 개건확장되여 《청춘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공업의 첫공정인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결정적으로 앞세우며 광부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의 원대한 구상과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지질탐사사업이 부단히 강화되고 광산마다 새로운 현대적채굴설비들로 장비됨으로써 광물생산은 더 다양해지고 그 생산량도 전례없이 높아졌다.

또한 지난날 정대로 바위를 쪼아내고 등짐으로 쇠돌을 져나르던 광부들의 힘겨운 로동은 우리 인민의 지혜와 힘으로 만들어낸 새형의 착암기, 압축기, 전차, 굴착기, 자동차 등이 대신하고있다.

광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나라에서는 1968년에 또다시 이 부문의 기본건설투자를 1967년에 비하여 훨씬 높이였으며 광산들에 각종 현대적채굴기계들과 설비들을 더 많이 보내주었다.

실로 지난 20년간에 우리의 광업은 다른 모든 부문과 함께 몰라보게 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채취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채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실현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 세가지 원칙을 견지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55페지)

광업부문에서는 1968년에도 수령의 가르침을 자로 삼아 예비탐사와 특히 세부탐사, 작업탐사를 계속 강화하면서 채굴작업과 운반작업을 비롯한 고되고 품이 많이 드는 모든 작업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며 선진적인 채굴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쇠돌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광물생산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켰다.

광업부문에서는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정치사업을 진행하면서 막장에 대한 생산 기술지도사업과 자재 및 후방공급사업 등을 짜고듦으로써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였다.

이리하여 각지 광산들에서는 이해에 1967년도실적보다 훨씬 많은 쇠돌을 캐냈으며 도처에서 그전의 광산적인 생산량을 한개의 갱이, 갱의 몫을 중대가, 중대의 몫을 소대가 맡아 생산하는 새기적들을 창조하였다.

그중 김윤용, 림병선, 김중선동무들이 일하는 광산들에서는 증산과제를 포함한 년간광물생산계획을 기한전에 빛나게 완수하여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 축하전보를 받은 영예를 지니였다.

이 자랑찬 투쟁속에서 김윤용동무가 일하는 광산의 붉은광부들은 경애하는 수령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어버이 수령께서 1970년도에 점령하라고 하신 쇠돌고지를 2년 앞당겨 이해에 돌파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필요한 쇠돌을 더많이, 더빨리, 더좋게 캐내기 위하여 이곳 붉은 광부들은 당과 수령의 가르침대로 고속도굴진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굴진에 힘을 넣어 확보광량을 3년분, 쇠돌캐기준비를 6개월분이상씩 확고히 앞세우면서 채광속도를 높이고 선광실수률과 쇠돌품위를 올리였다.

《당과 수령의 요구가 곧 우리의 공칭능력이며 기준량이다》라는 혁명적구호들을 막장마다에 붙이고 이해 전투에 들어선 이곳의 광부들은 혁명의 1분 1초를 아껴가며 모든 작업을 다그치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지난날 2년동안에 뚫은것과 맞먹는 굴을 단 여섯달동안에 밀어제끼고 해방전 가장 많은 쇠돌을 캐낸 1944년 한해동안의 생산량을 단 한달남짓한 사이에 해제끼는 새기록을 세웠다.

림병선, 김중선, 려영백, 박영수동무들이 일하는 광산을 비롯한 다른 광산들에서도 굴뚫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굴뚫기와 채광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의 비중을 5대 5로 보장하면서 전반적인 공정들에서 로동행정사업을 짜고들고 기술혁신의 불길을 높여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1967년도실적에 비하여 훨씬 많은 쇠돌을 캐냈다.

각 광산의 광부들은 특히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없는것은 찾아내고 모자라는것은 만들어내여 자체의 힘으로 막장작업을 기계화, 자동화하고 채굴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로동생산능률을 2배, 3배로 올리였다.

그중 김규원동무가 일하는 광산의 허춘선2중천리마채광소대에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집단적으로 짜고들어 작업반을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않

고 뛰여드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꾸리고 설비와의 사업을 강화하며 새형의 착암기를 창안제작하는 등 자체로 막장작업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함으로써 1967년실적의 2배에 달하는 년간계획과제를 3개월반동안에 빛나게 완수하는 놀라운 새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철은동무가 일하는 광산을 비롯한 많은 광산의 붉은 광부들도 나라에 더많은 쇠돌을 캐보내려는 일념으로 일손을 다그쳐 박로 및 굴진을 결정적으로 앞세우면서 채굴설비들을 잘 관리하여 그 리용률을 높이고 새로운 채굴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1968년도의 년간계획을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일전으로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각광산들에서는 또한 선광장을 정비보강하고 새로운 선광법들을 받아들여 선광실수률과 광석의 품위도 훨씬 높이였다.

그리고 당의 가르침대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강화하여 공무동력직장과 막장수리기지들을 더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 설비의 예방보수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착암기, 굴착기 등의 대당생산성과 각종 설비의 리용률을 훨씬 올리였다.

금속공업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를 지켜선 우리의 붉은 강철전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제시하신 강령적인 혁명과업을 받들고 1968년에도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필요한 강철을 더많이, 더빨리, 더좋게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우리의 강철공업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몸소 각지 제철, 제강소들을 찾으시여 용해공들의 생활을 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름따라 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쳐 온 우리의 붉은 강철전사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의 강철공업은 공화국이 창건된후 20년간 해마다 급속히 강화발전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제철, 제강소들은 지난날 선철생산에만 치우쳤던 일면성을 없애고 우리의 철광석으로 각종 규격의 형강, 환강, 강관, 특수강재 등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강재에 대한 인민경제 각 부문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킨 강력한 현대적인 흑색야금기지로 전변되였다.

당과 정부에서는 흑색금속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마다 이 부문에 대한 기본건설자금을 훨씬 높이였으며 각 제철, 제강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흑색금속공업부문에서는 1968년에 특히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제시된 과업대로 광석사별장, 소결직장, 구단광직장 등 원료처리와 제품처리능력을 보강하고 부대시설을 정비하며 산소취입을 비롯한 선진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야금설비들의 능력을 부쩍 올림으로써 철, 강재생산량을 더높일수 있는 밑천을 튼튼히 마련하였다.

각지 제철, 제강소들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많은 설비들을 만들어 이미있는 생산공정들에 살을 붙이고 모든 부문을 보강하여 강종을 늘이고 합금강생산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압연강재, 특히 박판 및 랭간압연제품과 2차가공제품생산량을 훨씬 높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금속공업, 특히 강철공업의 발전은 나라의 공업화수준과 경제적위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56페지)

수령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부강발전시키며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일념으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강철전사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로력투쟁에 의하여 1968년의 철강재생산에서는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당대표자회가 규정한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1968년에도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나선 각지 강철전사들은 우선 있는 설비들이 다 자기 능력을 내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도록 설비관리사업을 군중적으로 짜고들었다.

각지 강철전사들은 용광로, 평로, 전기로 등 모든 설비들이 곧 우리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귀중한 재산이며 자연을 정복하는 무기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설비의 예방보수 및 점검사업을 강화하였을뿐만아니라 설비를 끊임없이 개조하여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이였다.

1957년에 6만톤의 공칭능력을 가진 압연로에서 12만톤의 강편을 밀어내였던 천리마강선제강소의 붉은 압연공들은 설비관리사업을 부단히 개선하여 1968년에 이르러 압연능력을 50만톤 수준으로 높이는 혁신을 일으켰다.

각지 강철전사들은 또한 년초부터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려 로조작법을 고치고 새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제철 제강시간을 줄이였으며 로당생산성을 계통적으로 높이였다.

그중 황해제철소의 붉은 용해공들은 로상태와 원료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장입방법을 대담하게 개선하고 원유취입법을 들이대는 등 온갖 창발성을 다하여 콕스를 적게 쓰면서도 모든 용광로들에서 하루 3~4회씩 선철을 더 뽑아내였다.

그간 이곳 평로공들은 장입과 용해시에 열을 부쩍 올리고 고속도용해법을 받아들이는 한편 중기압력으로 로바닥을 가셔내고 용착작업을 진행하는 등 선진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제강시간을 종전보다 훨씬 줄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름따라 천리마운동의 첫봉화를 추켜들었던 그 기세로 계속 혁

신, 계속 전진해온 《천리마의 고향》—강선의 강철전사들도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이려는 혁명적열정으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또다시 모든 초소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여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 기상을 다시한번 떨치였다.

이곳 강철전사들은 특히 수령의 현지교시들을 자로 삼아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켜 사람과의 사업, 설비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설비가동률을 높이고 산소취입법, 석회분말취입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선진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제강시간을 단축하고 회당출강량을 높이는 등 생산과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훌륭한 모범을 창조함으로써 이해에 천리마공장의 영예를 지니였다.

흑색야금공업부문에서도 이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계속 강화하여 이해에 우리 나라에 풍부한 무연탄으로써 제철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기술적기초를 닦는 등 흑색야금공업부문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각 제철, 제강소들에서는 또한 연료, 전력을 비롯한 각종 원료, 자재, 로력을 많이 절약함으로써 제품의 생산원가를 계통적으로 낮추었다.

이렇듯 우리 붉은 강철전사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1968년에 우리의 기계공업과 기본건설을 비롯한 경제건설장과 국방건설장들에서 우리의 철강재로 생산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촉진시키였다.

기계공업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의 기초이며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공업은 전후에 전례없는 속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나라가 전쟁의 불길속에 휩싸인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벌써 전쟁승리를 확신하시고 이 땅우에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기계공업기지를 창설하도록 하시였으며 그 강화발전에 계속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단계마다 기계공업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전국의 기계공장들을 몸소 찾으시여 생산장성의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걸린 고리들을 친히 풀어주심으로써 우리 나라 기계공업을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셨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공업총생산액에서 기계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948년의 7.4%로부터 1967년에는 31.4%로 뛰여올랐으며 기계설비에대한 국내자급률은 93.1%를 차지하게 되였다.

기계공업을 창설하기 시작한때로부터 불과 15년동안에 100여년의 기계공업력사를 가진 나라들을 따라잡은 이 거대한 변혁속에서 전국 각지의 기계공장들에서는 1968년에 새형의 금속, 건재, 전력, 채굴기계설비들과 대형랭장운반선, 대형준첩선, 새형의 최신식전기기관차, 대형화물자동차, 6천톤프레스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술적개건과 새로 건설되는 대상에 필요한 방대한 량의 기계설비들을 생산하였다.

1968년에 조선소들에서는 불과 보름동안에 하루 수만공수의 로력을 대신하는 1천마력대형준첩선들이 무어졌으며 석달도 못되는 기간에 3천 750톤급 대형랭장운반선이 바다에 떴다. 또한 하루 300—1천 500공수의 로력을 대신하는 대형 및 중형굴착기들의 생산량이 일약 5배로 늘어나고 위력한 대형기계 및 중기계들의 행렬이 지축을 울리며 전국 각지에로 떠나갔다.

기계제작공업이 빠르게 발전한 결과 나라의 경제, 군사적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계화, 자동화, 전기화, 화학화가 촉진되였으며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이 보다 전면적으로 발휘되게 되였다.

1968년에 기계공업에서 달성한 이 거대한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한해를 10년맞잡이로 줄달음쳐 나아가는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위력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준다.

창조와 기적, 혁신과 비약의 한길우에서 일편단심 수령께 충성을 다하고있는 전국의 기계전사들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항상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우가 아래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혁명적사업기풍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전면적으로 발휘하여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련이어 창조하였다.

수령께서 지펴주신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불길속에서 수만대의 공작기계와 보충완비설비들이 국가계획이외에 생산되여 공정간, 기종간 균형이 더 잘 잡히고 일부 불비했던 공정과 기종이 보충완비되였다.

또한 로동자, 기술자, 과학자들간의 창조적협조가 더욱 강화되고 최신과학기술의 도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68년에 속도가 빠르고 고도의 정밀성을 가진 종합자동가공반, 새형의 연마반과 치절반의 생산이 훨씬 늘어났으며 68축 3면자동보링, 압연드릴자동반 그리고 대형프레스와 10톤급 메터함마를 비롯한 대형공작기계들과 새형의 설비생산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였다.

이 결과 소재생산기지들에서는 철강재의 실수률이 더욱 높아지고 상당한 량의 각종 규격소재들이 기계공장자체의 힘으로 충당되였으며 수많은 기계부속품과 부분품들의 생산이 소재생산에서부터 직접 형단조 프레스공정을 거쳐 완성 조립공정으로 넘어 가게 되였다.

기계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더욱 더 많아지는 생산장성의

방대한 예비들과 잠재력이 또한 보다 더 효과있게 동원리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7년 1월 20일 전국기계공업부문일군대회에서 제시하신 교시를 가슴깊이 새기고 전국의 기계전사들은 이미 새끼친 공작기계들로 큰 기계공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정비보강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로력과 설비로 단능기계들과 전문가공설비들을 만들어 전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수많은 중소규모기계공장들을 꾸리고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를 계속 심화발전시켜 나갔다.

이 결과 대규모기계공장들의 생산적부담이 훨씬 덜어지고 복잡하고 가공하기 어려우며 여러 공정을 거쳐야 만들수있는 수천종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생산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그 가공속도와 질이 더욱 높아짐으로써 종전에 큰 기계공장 여러개가 생산해야할 방대한 량의 기계제품들이 중소규모기계공장들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였다.

이리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하며 대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국토건설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전반의 기술적개건에 복무하는 대형기계생산기지들과 정밀기계생산기지들이 더욱 확대강화되였다.

한편 대규모기계공장들의 강력한 지원에 의하여 인민경제 다른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의 공무수리기지들이 기계설비생산과 수리를 겸비한 하나의 기계공업기지로 전환되였으며 지방산업공장들과 협동농장들의 기계수리기지도 전보다 튼튼히 꾸려졌다.

그리하여 1968년에 광산, 탄광, 화학, 건재, 교통운수부문을 포함한 중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60여종의 최신식채굴기계들과 자동화설비를 비롯한 수천종의 기계설비들이 자체의 힘으로 제작되였다.

당과 수령께서 가리키신 승리의 한길을 따라 현존 대규모기계공장들과 중소규모기계공장, 인민경제 각 부문의 공무수리기지들 그리고 공작기계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룩된 이 거대한 성과로 하여 1968년에 우리 나라 기계공업은 당이 내세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더잘 관철하였다.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기초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술적진보와 나라의 국방력강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기계공업의 이러한 급속한 발전은 경제가 발전하고 생산의 규모가 커져도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며 기술을 발전시켜 나아간다면 계속 높은 장성속도로 경제를 급속히 강화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하여주었다.

화학공업

조선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다 그러하듯이 지난 20년간 우리의 화학공업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지난기간 화학공업은 일제시기의 식민지적편파성과 불균형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더잘 복무할수 있도록 유기와 무기, 고분자화학공업을 겸비한 현대적화학공업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여 나라의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믿음직한 중요구성부분의 하나로 전변되였다.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추세이며 생산력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있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화학화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화학공업발전의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화학공장들을 몸소 찾으시여 생산장성의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으며 걸린 고리들을 손수 풀어주시였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우리 나라 각지에는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대규모의 암모니아합성공장, 뇨소, 린, 카리비료와 질소비료공장, 석회석과 같은 원료로 하는 대규모의 화학섬유 공장들과 합성수지 및 농약생산공장, 의약품, 산, 알카리 및 시약품생산공장 등 수많은 현대적화학공장들과 중소규모화학공장들이 새로 일떠섰다.

그리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적진보를 더욱 촉진시키게 되고 국내의 자연부원을 다각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되였다.

더우기 경지면적이 적은 우리 나라에서 경공업원료생산문제를 공업적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 그 어떤 자연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필요한 경공업원료들을 항상 믿음직하게 보장할수 있는 위력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였다.

특히 유기합성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화학공업전반의 과학기술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들이 이루어져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화학화가 급속히 추진되였다.

당과 정부에서는 이해에 화학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기본건설자금을 투자하였다.

그리하여 원유가공공장건설과 농약생산공장확장공사를 비롯한 일련의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여 새로운 화학공업부문들이 창설되였으며 나라의 화학공업을 더욱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전망을 열어 놓았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 일편단심 수령께 충성을 다하려는 화학전사들의 높은 혁명적기백과 창조적열성에 의하여 1968년에 화학비료와 농약생산부문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화학비료공장들을 계속 정비확장하고 그 생산을 정상화하는 한편 린, 카리비료와 미량원소비료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 농민들을 힘들

고 품이 많이 드는 농사일에서 하루속히 해방할데 대한 어버이 수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전국의 화학전사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방조를 받아 농약생산능력을 수배로 확장하고 그 품종과 시약방법을 개선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1968년에 헥사클로란, 디디티를 비롯하여 새롭고 효능이 높은 살충제와 살균제의 생산이 늘어나고 2,4디,피씨피를 포함한 여러가지 살초제와 성장자극제와 뇨소생산이 확대되였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대규모의 살충제 및 살초제공업기지를 창설하기 위한 사업이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화학비료생산의 급속한 증대, 농약생산의 급격한 장성에 기초하여 이해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에서는 화학화의 실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영농방법이 더욱 개선되고 알곡생산에서 종합적인 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농촌에서는 지난해에 전례에 드문 왕가물에도 류례가 드문 만고대풍을 가져왔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상응하게 집짐승먹이를 화학적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도 많은 힘이 돌려졌으며 적지않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인민생활향상에 복무하는 유기화학공업 특히 화학섬유와 합성수지공업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화학섬유부문에서는 품위가 개선되고 가공방법이 기술적으로 더욱 완성되여 인민들에게 질좋은 면직과 모직, 비단천을 비롯한 여러가지 옷감을 더많이 생산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합성수지공업에서는 염화비닐공장의 생산능력이 확장되고 페놀, 뇨소 및 멜라민수지 등 각종 합성수지생산이 늘어나고 새로운 품종의 접착제생산이 공업화되였다.

그 결과 일용품생산이 급속히 장성되고 그 품종이 훨씬 늘어나고 질이 개선되게 되였다.

한편 화학공업의 기초인 산,알카리공업이 확대강화되고 제약공장들이 확장되였다.

또한 화학공업이 더욱 다종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각종 도료, 염료, 안료들과 화학시약류, 방부제, 향료 및 세척제 등의 생산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였다.

대규모의 화학공장들과 중소규모의 화학공장들을 병진시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이해에 전국각지에는 수많은 중소규모화학공장들이 새로 꾸려지고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일층 완비됨으로써 새로운 화학제품들에 대한 국내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새로운 화학제품을 공업화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 이룩한 이러한 성과들에 의하여 1968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화학화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그에 따라 나라의 경제, 군사적위력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인민생활을 일층 향상시킬수 있게 되였다.

건재공업

조선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의 건재공업은 지난 20년간 세멘트만 생산하던 극히 보잘것없는 기형적인 공업으로부터 금속건재, 화학건재를 생산하는 현대적인 건재공업으로 발전하였다.

당과 국가에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따라 인민경제 각부문의 방대한 기본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건재공업을 그에 따라 세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20년간 건재공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금속건재, 화학건재를 비롯한 새로운 건재생산기지들이 창설되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건재공업부문에서 세멘트와 금속건재, 화학건재 생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건재공업발전에서 우리는 이미 있는 건재공장들을 정비확장하면서 새로운 건재공장들의 건설을 그에 옳게 배합하며 대규모중앙건재공업과 중소규모지방건재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59페지)

1968년에 건재공업부문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명심하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우선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기 부문에 주신 교시와 그이의 로작,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힘쓰면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에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힘차게 조직동원하였다.

그리하여 세멘트와 금속건재, 화학건재생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이미 있는 건재공장들을 정비보강하고 여기에 새로운 건재공장들의 건설을 옳게 배합하여 대규모의 중앙건재생산기지들을 더욱 확대강화하였다.

동시에 중소규모의 지방건재공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발전시키며 건재생산의 화학화, 기계화, 자동화, 프레스화 비중을 훨씬 높여 건재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면서 그 품종을 확대하며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당의 방침에 따라 이 부문에서는 세멘트, 강재, 목재 등 기본적인 건재와 함께 금속건재, 화학건재의 생산을 더욱 발전시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필요한 건재를 더많이 생산보장하며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

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하였다.

또한 일부 재건설을 여기에 옳게 배합하여 건재공업의 생산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일층 강화함으로써 생산능력을 급속히 높이였다.

이 부문 근로자들의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투쟁에 의하여 1968년에 수많은 공장들과 직장들이 새로 건설되였고 개건확장되였으며 이에 따라 세멘트, 금속건재, 화학건재, 나무건재 생산량이 훨씬 높아졌다.

1968년에 건재공업부문에서는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제시하신 김일성동지의 방침대로 세멘트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힘을 집중하였다.

이 부문의 근로자들은 현존 생산설비의 기술적개건과 정비보강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설비리용률을 한층더 높임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였을뿐만아니라 세멘트생산능력을 더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건설을 옳게 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서동훈동무가 일하는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이 수령의 현지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대중적영웅주의를 발양하여 불과 100일도 못되는 기간에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소성로를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로 건설해 내는 기적을 창조하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의 공동축하문을 받는 영예를 지닌것을 비롯하여 이 부문에서는 여러곳에 새로운 세멘트공장을 건설하며 소성로를 증설하는 개건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지방의 원료원천과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낸데 기초하여 도처에 중소규모 세멘트공장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광범히 건설함으로써 세멘트에 대한 지방적수요를 더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새로운 건설과 함께 현존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건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여 소성로의 가동률을 훨씬 높이였으며 분쇄능력과 건조능력을 보강하여 저장능력을 확장하였으며 선진기술에 기초하여 일부 공정을 현대화함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특히 소성로를 오래 돌리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내화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대책들을 세움으로써 소성로의 수리회수를 줄이고 세멘트의 생산기간을 더 늘이였다.

이해에 금속건재생산도 또한 높이였다.

중앙난방용철판과 라지에타, 쇠문, 금속조명기구 등 중요한 금속건재와 건구의 생산량을 높이며 그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리용식동무가 일하는 공장에 기계직장을 새로 꾸려 건재공업부문에서 필요한 기계제품과 부속품들을 자체로 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한것을 비롯하여 가지 금속건재공장들의 기술장비를 더욱 보충보강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품종의 금속건재를 더많이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이해에 목재와 철재를 대신할수 있게 하며 건설물을 경쾌하게 만드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화학건재생산기지에 살을 붙여 건재의 화학화를 힘있게 다그쳤다.

김석모동무가 일하는 공장 로동자들이 목재의 종합적리용률을 높이라고하신 수령의 현지교시를 힘있게 관철하여 목삭판생산계렬을 자동화한것처럼 나무건재생산분야에서도 목재가공사업을 개선하고 목재부산물로 목삭판, 목섬유판을 더많이 생산할수 있도록 그의 토대를 강화하여 목재의 종합적리용률을 더욱 높임으로써 여러가지 나무건재의 생산을 늘일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건재공업부문에서는 1968년에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가까운 장래에 세멘트생산량을 3배로 장성시키며 기타 여러가지 건재들의 생산량도 수배로 높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였다.

경 공 업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는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에 기초하여 경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것을 규정하고 소비품생산분야에서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계속 견지할것을 제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중소병진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현대적인 대규모중앙공업공장들과 함께 2천여개의 지방공업공장들로 이루어진 자체의 튼튼한 경공업기지를 가지게 되였다.

자립적인 중공업의 지원밑에 인민소비품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상품으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고있으며 질좋은 여러가지 소비품을 앞으로 더많이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마련되였다.

특히 오늘 우리 나라 경공업은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에 의거하여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으로써 인민소비품에 대한 급속히 늘어나는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계통적으로 더잘 충족시키고있다.

방직공업만 보더라도 대비날론공장과 현대적인 화학섬유공장들을 비롯한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꾸림으로써 일제 말기에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던 직물총생산량을 허창국동무가 일하는 공장의 한 직포공이 혼자서 생산해내는 그런 높이에 도달하였다.

중앙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공업도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지방원료와 유휴로력을 동원하여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 창설해 놓은 우리 나라의 지방공업은 강력한 중공업의 지원을 받아 현

매적기술로 장비되고 준비된 관리일군들과 수많은 기술자대렬을 가지게 되여 오늘 중앙공업에 못지 않은 수준에서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지방공업은 우리 나라 전체 소비품생산에서 그 절반을 담당하고있다.

더우기 우리의 지방공업은 어떤 환경에서도 생산을 정상화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높이에 이르렀다.

이 모든 자랑찬 성과들은 일찌기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위력한 중공업기지와 함께 자립적경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소비품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도록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1968년에도 당과 정부에서는 경공업부문에 계속 많은 자금을 돌려줌으로써 이미 있는 공장, 기업소들이 더잘 보강완비되고 새로운 방직공장, 종이공장, 식료품가공공장들과 랭동공장 등 수많은 소비품생산능력이 더 조성되였다.

그 결과 일용필수품, 식료품의 품종과 생산량이 더욱 늘어났으며 경공업제품의 질이 훨씬 개선되였다.

또한 본궁 2.8비날론공장을 비롯한 화학섬유공장들과 합성수지생산공장들이 계속 개건확장되고 생산공정들이 더잘 완비되여 그 생산능력이 현저히 늘어남으로써 경공업의 원료기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대중소병진정책이 더잘 관철됨으로써 이해에 지방공업의 발전에서도 성과가 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지방공업부문에서는 중앙공업공장들의 강력한 지원밑에 현존설비들을 능률적인것으로 끊임없이 개조하거나 새로운 현대적기계들을 수많이 받아들여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신천투쟁을 통하여 자기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였다.

그리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원료기지들을 더많이 조성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지방원료에 의한 생산비중을 더욱 높였으며 특히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왔다.

1968년에 경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중앙공업기업소로부터 먼저 잘 꾸리고 그 공장들을 모체로하여 주변의 작은 공장들을 맡아서 꾸려주는 분공장체계가 합리적으로 고쳐지고 그 사업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경공업제품의 생산업종이 전반적으로 정비되고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가 더욱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공업부문의 중심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공업부문의 중심과업은 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이며 원가를 낮추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59페지)

경공업부문에서는 수령의 교시를 뼈와 살로 만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모두가 나라살림살이의 주인답게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쓸모있고 알뜰하게 만드는데 온갖 열성과 창조적지혜를 다 바쳤으며 새로운 현대적설비들과 선진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 한치의 천, 한개의 제품이라도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차게 벌렸다.

〔**방직 및 제지공업**〕 1968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직공업부문에서도 일편단심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이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로력투쟁에 의하여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다.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을 정비보강하는 사업이 계속 강력히 추진됨으로써 실나이, 천짜기, 물들이기 등 중요 생산공정들사이의 능력상 균형이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 생산능력이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방직기계설비 및 부속품 생산기지가 더욱 튼튼히 꾸려져 능률 높은 현대적인 기계설비 및 부속품들이 더 많이 생산공급됨으로써 지금있는 방직설비들의 리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1968년에 방직공업부문에서는 직물의 질적구성을 개선하고 양복천을 비롯한 질좋은 옷감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쟈케트, 세타, 내의, 모포 등 겨울용상품의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 더 많은 실과 천을 생산하기 위한 눈부신 증산투쟁의 나날에 한치의 천이라도 더 많이 짜내는것이 우리 인민들을 더잘 입히시려는 어버이 수령의 높은 뜻을 꽃피워가는 길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앞당기는 길임을 깊이 자각한 우리의 방직전사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여러기대말기운동을 광범히 벌려 새기록, 새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하였다.

수령님의 전사된 혁명적자부심을 안고 혁신과 기적을 창조한것은 혼자서 80대의 기대를 맡아 년간계획을 500%로 해제낀 리화순로력영웅이나 4천 400추의 방추를 돌려 년간계획을 단 52일동안에 해낸 김인복정방공, 7개년계획기간에 수행할 자기의 생산과제를 이미 420%이상 넘쳐 실행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윤경자로력영웅만이 아니다.

수령의 교시에 무한히 충직한 각지 붉은 방직전사들은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탁탁하고 질기며 색갈과 무

니가 아름답고 다양한 질좋은 천을 더 많이 짜냈다.

이해에 피복가공부문의 로동자들은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겨울용 양복, 외투, 신발, 모자, 양말을 몸에 꼭맞게 잘 만들어 눅은 값으로 생산공급할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천을 마르거나 단추구멍 하나를 뚫어도 언제나 어린이들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시며 제일 좋은것을 먼저 돌려주시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도록 온갖 정성을 다 바치면서 모두가 사령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끝까지 해내고야 만 항일유격대 재봉대원들의 고매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긴장한 로력투쟁을 벌려 그 많은 일을 단 몇달동안에 해냄으로써 당과 수령의 두터운 배려와 높은 신임에 훌륭히 보답하였다.

제지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지금 있는 종이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필기용지, 고급용지와 포장지생산량을 훨씬 높이면서 종이의 질을 전반적으로 더욱 개선하였다.

이해에 또한 특수지공장을 건설하여 가까운 년간에 일부 공업용지와 특수지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식료 및 일용품공업**〕 1968년에 식료품공업에서는 식료가공품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를 더잘 보장하는 동시에 가공제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각지 식료품가공공장들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면서 도처에 분공장, 분작업장을 꾸리고 지방에 있는 원료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여러가지 식료품을 더많이 생산하였다. 식료상점들에서도 자체가공시설을 잘 꾸려 맛좋고 값싼 부식물들을 많이 만들어 공급함으로써 식료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더잘 보장하고 생활상 편의를 적극 도모했다.

특히 지금 있는 식료품가공공장들을 정비보강하고 새로운 식료품가공공장들을 건설하며 식료품가공능력을 훨씬 높임으로써 앞으로 식료품의 생산량과 품종을 더 확대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일용품공업부문에서는 1968년에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철제일용품, 수지제품, 유리 및 도자기제품, 목제품, 세소일용품 등 일용필수품과 문화용품생산이 급속히 장성하였다.

특히 모든 중앙공업공장들에서 생활필수품직장을 튼튼히 꾸리고 철제일용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생산이 더욱 강화되고 중앙적 및 지방적 전문화와 협동화가 일층 개선강화됨으로써 일용필수품의 품종이 더욱 늘어나고 제품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였다.

신발생산분야에서도 크게 전진하였다.

계절별, 성별, 문조별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신발의 품종이 늘어나고 가죽구두, 의혁구두와 겨울신발 생산비중이 더욱 높아졌으며 모든 신발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

1968년에 경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있는 자재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증산하기 위한 군중적운동을 벌림으로써 제품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 인민들에게 질좋고 값싼 생활필수품을 더많이 생산공급하였다.

림 업

1968년에 림업부문에서는 당대표자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보고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1963년 량강도 현지지도에서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장과 국방건설장에 더많은 통나무를 보내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림업부문에서 순환식채벌방법을 도입하여 원목생산을 높이는 동시에 제재실수률을 높이고 목삭판, 목섬유판 생산을 늘여 목재를 종합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나라의 긴장된 목재사정을 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59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이해 림업부문에서는 림산업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며 통나무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이해 림업부문에서는 현행생산과 전망생산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순환식채벌에 의한 생산의 집중화방침을 보다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통나무와 각종 림산물의 생산에서 거대한 앙양을 일으켰다.

림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여 1968년도의 나무베기, 나무모으기, 중간나르기, 마감나르기 계획을 각각 넘쳐 실행함으로써 통나무생산량을 1967년에 비하여 결정적으로 높이였다.

림업부문에서는 순환식채벌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것과 관련하여 이해에 산림탐사를 집적으로 진행하고 산림자원을 과학적으로 조사장악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였다.

산림탐사에서 지구별, 탐사대별로 필요한 기술기자재와 후방물자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탐사의 과학성을 보장하면서 일별, 순별, 월별계획을 꼭꼭 실행함으로써 이해에 산림탐사부문 앞에 나선 과제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1968년에 순환식채벌에서 기술준비와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그를 앞세우기 위해 림산작업소의 기술준비실과 시설선행작업반을 튼튼히 꾸리고 기술기자재와 설비를 비롯한 일체 보장조건을 마련하였다.

통나무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해 림업부문에서는 있는 설비를 잘 관리하고 그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당과 수령께서는 해방된 첫날부터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심히 뒤떨어졌던 림업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두터운 배려를 돌려주심으로써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산지작업의 많은 공정들을 기계화할수 있게 하시였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이 고조되고 인민경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목재수요가 비할바 없이 장성하는 사정을 고려하시고 최근년간 림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하여주심으로써 기계설비가 해마다 늘어나 오늘에 와서는 그 설비대수가 과거와는 비할바없이 현저히 늘어났다.

림업부문에서는 수령께서 보내주신 이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림산공업에 처한 구체적인 실정을 고려하여 뜨락또르를 얼지 않게 보관하는 창고와 자동차길 등을 잘 갖추는 한편 설비관리에서 예방보수와 점검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웠다.

그리고 공무수리직장들과 기계수리공장들의 기술장비를 부단히 개선하여 수리능력을 높였으며 예비부속품생산을 앞세워 설비보수에서 질을 더높이고 수리기간을 훨씬 줄였다.

특히 설비를 다루는 운전공, 수리공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설비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이해에 뜨락또르, 자동차의 가동률과 림업설비리용률을 더욱 높였다.

림업부문에서는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통나무 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림산사업소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 험한 림지조건에서 삭도잉클라잉을 놓아 통나무를 모으는 거리를 줄이였다.

떼몰이부문에서는 짐부리기와 처넣기를, 목재가공부문에서는 원료준비작업을 비롯한 구내운반작업을 기계화하여 림업로동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시켰다.

특히 림업부문에서 밀천을 적게들이면서도 통나무를 많이 나르는 떼몰이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부문의 일군들은 떼몰이방법으로 나무를 더 많이 나를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받들고 이해에도 물길로 나르는 비중을 계통적으로 높이였다.

특히 떼몰이공들은 수령께서 불러주신 《용감한 사람》이라는 문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에 무한히 고무되여 혼자타기와 여러떼합쳐타기 방법을 널리 받아들였으며 물길을 잘 닦고 문동을 비롯한 시설물들을 잘 정비보강하여 물길의 통과능력을 종전보다 부쩍 높였다.

1968년에 림업부문에서는 목재를 절약하고 실수률을 높이여 그를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나무아지로부터 나무톱밥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버리거나 랑비함이 없이 목재를 합리적으로 완전히 리용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림업부문에서는 목재가공기업소들에 꾸려진 목삭판, 목섬유판 직장들의 기술장비를 더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매공장을 기계화, 자동화함으로써 질 좋은 목삭판과 목섬유판을 그 전해보다 더 많이 생산하였다.

그리고 이해에 통나무생산과 나무켜기 및 목재가공 과정에 나오는 수많은 부산물로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나무전재품을 많이 만들었으며 새로운 나무전재공업기지와 알콜, 효모, 파인유, 송탄유 등을 생산하는 목재화학공업기지를 더 튼튼히 꾸리였다.

특히 목재를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각지 림산기업소들에서는 나무초리, 나무아지, 구새통나무 등을 모조리 리용하여 가구소재, 목통소재 해목팔프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생산량을 증대하였다.

또한 림업부문에서는 목재가공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해에 인민경제의 용도와 규격에 맞게 세부제재생산을 확대하였으며 설계를 표준화, 규격화함으로써 목재의 종합적리용률을 높였다.

수 산 업

1968년에 수산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근해어업과 함께 원해어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더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59페지)

수상동지의 교시를 빛나게 관철하기 위해 수산부문일군들은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려 원양어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중소어업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힘찬 로력투쟁을 벌렸다.

이해 6월 수상동지께서는 또다시 함남도와 함북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수산부문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먼바다물고기잡이에서 돌아온 어로공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그들의 생활을 일일이 돌봐주시고 원양어업과 물고기가공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바다를 낀 협동농장들에 들리시여 수산작업반, 수산분조를 꾸려 자기앞바다에서 중소어업으로 사철 물고기를 잡아 농장원들에게 부식물로 공급할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심려하시는 수상동지의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크낙

한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 불같은 결의를 다진 수산부문 일군들은 자기들 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충실히 실행하는것으로서 수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고저 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쳐 왔다.

어로공들은 있는로력, 있는설비로 더많은 물고기를 잡기위해 300일 출어를 보장하기에 힘쓰면서 먼바다와 가까운 바다에서 적극적으로 물고기잡이를 전개하였으며 가공공들은 《인민들의 기호와 구미에 맞게 가공품의 질을 높이자》는 구호밑에 수산물가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이리하여 1968년에 수산부문에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혁신의 불길을 높이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더많은 물고기를 공급하였다.

이해 공화국정부에서는 수산업을 보다 전망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많은 힘을 돌렸다.

조선소와 선박수리공장들을 더욱 정비보강하고 그 능력을 확장하여 대형선박을 비롯한 많은 배를 만들어냈으며 이에 따라 1967년보다 더많은 배가 물고기잡이에 나갈수 있게 되였다.

각지 선박수리공장들에서는 15일선박수리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전문화, 집중화의 방법으로 배수리를 진행하였으며 수산사업소들에서는 선박의 중소수리를 자체로 보장할수 있게 공무동력직장을 튼튼히 꾸렸다.

결과 이해 선박척당 수리기일이 단축되였으며 그 가동률도 훨씬 높아졌다.

또한 선진어로작업에 필요한 어군탐지기와 통신지휘수단들이 더 보충되고 대형선박운영을 위한 기술인재양성과 수산과학연구사업도 일층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1968년에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보다 강화되고 어로활동이 적극화됨으로써 1967년에 비하여 물고기생산량은 157%로 장성되였다.

특히 이해 먼바다고기잡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먼바다어장을 개척하여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더많이 공급하기 위하여 원양어로전사들은 과학적인 고기떼찾기를 앞세우고 선대의 통일적인 지휘를 강화하면서 부지런히 그물질하여 청어, 가재미, 명태 등을 많이 잡았다.

고급어족을 많이 잡기 위해 전착어업, 사망어업을 널리 받아들이고 청어잡이를 대대적으로 한 결과 물고기생산에서 청어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127%로 늘어났으며 고급어족의 생산비중은 90%이상으로 높아졌다.

먼바다고기잡이와 함께 가까운 바다의 물고기잡이에서도 성과가 컸다.

수산기업소들에서는 로동행정사업을 면밀히 짜고 들어 어로공의 비중을 높이면서 중소어업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어로공들은 배에 여러가지 어구를 싣고 다니면서 물고기의 습성에 맞게 2중 3중어로조직으로 풍어의 개가를 올렸다.

바다를 끼고있는 협동농장들에서 조직한 수산작업반과 수산분조원들이 적극적인 물고기잡이를 벌려 어장마다 중소어업으로 활기를 띠게 하였다.

이해 천해양식사업에서도 큰 전진이 있었다.

동서해천해양식사업소들에서는 미역, 다시마, 김, 굴 밭들을 늘이고 잘 가꾸어 수산물생산을 높이였다.

또한 담수양어사업소와 협동농장들에서는 물이 있는 모든 곳에 물고기가 욱실거리게 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잉어, 붕어 등 민물고기의 알깨우기를 제철에 하고 새끼고기를 튼튼히 자래워 호수, 저수지, 강하천들에 놓아 길러 그 자원을 부쩍 늘였다.

한편 수산물가공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도 활발히 전개되였다.

가공부문일군들은 1967년 동해안지구수산부문일군협의회에서 주신 수령의 가르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물고기가공품의 품종을 늘이며 그질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사업을 짜고들었다.

얼군고기의 비중을 늘이기 위해 랭동공장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이미 건설한 랭동공장의 능력을 높였으며 나무통을 비롯한 설비, 자재를 넉넉히 마련하여 절임품, 젓갈품 등 가공품을 많이 생산하였다.

이렇듯 1968년도에 수산업을 확고한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움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수산물을 생산공급할수 있는 토대가 보다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농　업

1968년에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1967년과 1968년에 있은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주신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농촌경리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8년 2월에 있은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오늘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이 대회에 참가한 여러 동무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협동농장원들과 농업부문 일군들에게 올해에도 매 정보에서 알곡 500키로그람씩 더 내기 위한 운동을 다시한번 힘있게 벌릴것을 호소합니다.

동무들이 일을 잘하여 이 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한다면 인민들이 넉넉하게 먹고 잘살수 있을뿐만아니라 축산업도 발전시킬수 있고 더 많은 알곡예비를 마련하여 놓을수 있을것입니다.》

(《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단행본 5페지)

수령의 부름에 충실한 우리 당

원들과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휘황한 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면서 정보마다 알곡 500키로그람을 더 내기 위한 로력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이해 농촌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혁명이 힘있게 전개되였으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이 백방으로 강화되였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고 농촌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한 결과 농업근로자들속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더욱 추진되였다. 오늘 협동농장원들을 비롯한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언제 어데서나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며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붉은 농업전사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또한 농업근로자들은 당과 국가의 극진한 배려, 로동계급의 강력한 지원밑에 기술,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당과 국가에서는 이해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기본건설투자를 1967년에 비하여 1.3배로 늘이였으며 나라의 부담으로 농촌에 여러가지 생산시설과 문화주택 및 교육, 문화, 보건 시설들을 건설하였다.

특히 이해에는 이미 마련해 놓은 관개시설을 정비 보강하는 한편 막대한 량의 고인물빼기공사와 강하천정리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였으며 평양을 비롯한 도시주변과 로동자구들의 남새생산기지들에 새로운 형태인 분수식관수체계를 도입하여 밭전면관개체계확립을 보충함으로써 어떠한 자연기후적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 놓았다.

또한 이해 농촌에 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 및 선진적인 농기계들이 공급되였으며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비롯한 농약 및 살초제가 많이 공급되였다.

이리하여 오늘 농촌에는 농민들의 정치도덕적풍모에서 거대한 전변이 일어나고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꾸려졌으며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도 일층 높아졌다.

또한 이해 농업생산에 대한 기업적지도, 기술적지도가 일층 강화되여 농사의 매 공정에 따르는 현대적과학기술의 성과가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됨으로써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거대한 우월성이 높이 발양되였다. 특히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한 수령의 교시에 따라 이미 진행한 농업기상과 토양, 작물 및 품종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일층 심화시킴으로써 일찍 여물고 소출이 높은 농작물의 새품종보급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문덕식벼모기르기》를 비롯한 선진영농기술이 널리 일반화되였으며 병충해의 철저한 방지와 물관리사업이 농작물의 생육과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진행되였다.

농업지도체계에 의한 기업적지도의 강화와 함께 분조관리제가 철저히 도입되여 농장원들의 집단주의정신과 공산주의적기풍이 높이 발양되였으며 협동농장관리운영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책임성이 더욱 높아져 모두다 공동경리발전을 위하여 더 이악하게 일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해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면서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여 1년농사의 모든 영농공정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농업생산의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수령께서 주신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1968년에 알곡 총 수확고는 1967년에 비하여 111%로 높아졌으며 그중 논벼 수확고는 113%, 옥수수 수확고는 116%로 각각 높이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에서 비약적인 전진을 보여주는 자랑찬 기록이다.

1968년에 이룩한 대풍작의 특징은 그것이 어느한 지방이나 혹은 몇개 지방에 국한된 성과인것이 아니라 벌방, 중간, 산간지대 할것없이 나라의 모든 지역에 걸쳐 일어난 앙양이며 또한 어느한 작물에 국한된 증산인것이 아니라 벼, 강냉이, 감자, 콩, 깨, 담배, 아마 등 모든 작물에 걸쳐 높은 수확이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그리고 알곡, 축산, 과수, 잠업 등 농업생산의 전반적분야에서 획기적인 앙양이 일어났을뿐만아니라 특히는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선진적집약농법의 급속한 발전으로 농작물의 정당수확고가 새로운 높이에 치달아오른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논벼 정당 수확고를 5.5톤이상 낸 협동농장들이 315개, 6톤이상 낸 농장이 150개이며 그 가운데서 특히 평양시 만경대협동농장과 평안남도 문덕군 룡오협동농장에서는 7톤이상을 냈다. 강냉이에서도 간혼작을 포함하여 농장적으로 정당 4톤이상을 낸 협동농장이 457개이며 평남도 룡강군 옥도협동농장에서는 6톤 수준에 치달아 올랐다.

또한 옛날부터 불모의 땅이라고 불리워온 백무고원의 리춘휘동무가 일하는 국영농장에서도 1,300정보의 감자밭에서 평균 정당 15.3톤, 아마는 424정보에서 정당 평균 3톤 200키로그람을 냈다.

이해에 전국적으로 논벼 정당 수확고는 1967년에 비하여 550키로그람이나 더 늘어났으며 특히 평안남도에서는 956키로그람, 평안북도에서는 709키로그람이나 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알곡 10만톤을 생산한 군들이 늘어나고 1만톤을 뛰여넘는 협동농장들이 수많이 생겨났다.

농업생산의 중요구성부문의 하나인 축산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전국농업일군대회와 개천군현지지도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온나라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매 작업반마다 2톤, 매 농가마다 100키로그람이상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군중적운동을 힘차게 벌린 결과 나라의 고기생산량을 전해에 비하여 126%로 늘였으며 국영축산업 및 협동농장 공동축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튼튼히 꾸리였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배려밑에 가금분야에서 현대적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으며 앞으로 가금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닭고기와 닭알에 대한 주민들의 높아가는 수요를 가까운 시일내에 충족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1968년에 우리의 모든 과수원들에도 과실풍년이 들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의 위대한 생활력이 높이 발양됨으로써 과수원이 더욱 규모있게 건설되였고 과실총생산량이 1967년에 비하여 근 2배로 늘어났다.

또한 이해 누에고치생산도 전해에 비하여 134%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농업생산이 어떤 불리한 자연적조건과 기타 우연적요인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해마다 련속적으로 빨리 장성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와 사회주의적농업의 본질적우월성을 시위하는것으로 된다.

농업생산의 끊임없는 빠른 장성은 협동농장들의 경제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장원대중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급속히 높였을뿐만아니라 나라의 식량문제를 더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전반적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진하였으며 나라에 더 많은 식량예비를 조성하게 하였다.

우리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와 승리, 우리 농민들이 누리고있는 행복한 생활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 농업정책의 빛나는 열매이다.

농　　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농촌에서는 기술, 문화, 사상혁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1968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알곡생산에서 또다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1968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른 봄부터 류례없는 혹심한 가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에서 또다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농업생산에서 알곡수확고는 1967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116%로 늘어난데 뒤이어 1968년에 또다시 1967년에 비하여 111%로 늘어났으며 그중 논벼수확고는 113%, 옥수수수확고는 116%로 각각 장성되였다. 공화국적으로 알곡 5만톤이상낸군이 17개이며 그중 7만톤이상낸 군은 8개에 달한다.

특히 평남도 숙천군과 문덕군, 황남도 연안군과 배천군에서는 각각 10만톤이상의 알곡을 생산하였다.

1968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한개 협동농장에서 5천톤이상의 알곡을 낸 농장이 38개에 달하였으며 그중 숙천군 열두삼천협동농장에서는 1만 2천여톤, 문덕군 룡림협동농장에서는 1만 1천여톤의 알곡을 내였다.

우리 나라에서 해마다 이렇듯 농업생산에서 계속 거대한 성과를 거두게된것은 전적으로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끊임없는 두터운 배려를 받고있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관철에로 전당과 전체인민을 조직동원하시는 한편 1968년에도 전국농업일군대회를 소집하시고 농촌경리부문의 투쟁목표와 그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다.

미제의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였던 이해의 2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친히 전국농업일군대회를 소집하시고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여 나라의 식량예비를 넉넉히 마련하는것이 곧 전쟁준비를 잘하는것이라고 교시하시면서 전체 농업근로자들에게 매 정보마다에서 알곡 500키로그람이상씩 더내기 위한 운동을 다시한번 힘있게 벌릴것을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1년농사의 중요 시기마다 농사일을 친히 진두에서 지휘하시면서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직접 조직하여주시고 걸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시였다.

전례없이 자연기후조건이 불리했던 1968년에 우리 당이 힘을 넣어 마련한 강력한 수리시설은 농업생산의 확고한 장성을 담보한 주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에 벌써 관개하천건설에 커다란 힘을 넣었으며 특히 농업협동화운동이 급속히 발전하던 전후시기에 수리화를 농촌기술혁명의 첫 자리에 놓고 그를 실현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여 짧은 시일내에 모든 논밭을 크고 작은 수천개의 저수지와 총총한 물길로 누벼놓았다.

수리화의 위력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강줄기가 마르는 혹심한 가물이 계속되는 조건에서도 튼튼한 모를 길러내여 모내기를 제철에 하였으며 논물을 농작물이 요구하는 대로 댈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증산의 중요한 요인의 다른 하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가르쳐주신대로 우리

의 로동계급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좋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준데 있다.

각종 화학비료와 농약생산량이 현저히 증가된 결과 1968년도 정당시비량은 1967년에 비하여 논벼에서는 128%, 옥수수에서는 131%로 늘어났으며 특히 린, 카리비료와 미량비료의 생산과 공급량이 빨리 늘어나 화학비료의 질적구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와 함께 농약공급량이 현저히 증가되고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각종 병해충을 제때에 없앨수 있었으며 새로운 살초제시험을 널리 조직하여 적지 않은 경험을 쌓았다.

우리 나라에서 풍작을 이룩하게 된 다른 주요한 요인의 하나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한 1966년 11월 7일에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진행한 농업기상과 토양 작물 및 품종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에 기초하여 각지방에서 이미 시험재배를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조숙다수확계통의 우수한 품종들을 전국적범위에서 널리 받아들인것이다.

1968년에 우리 나라에서 전체 논면적중 조숙다수확계통의 품종이 들어간 면적은 1967년의 13.1%로부터 45.5%, 그중 황해남도에서는 8.6%로부터 67.7%에 각각 이르렀다.

옥수수에서는 속성계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15.7%, 그중 평양시에서는 60.4%, 황해남도에서는 40.1%, 황해북도는 28.6%에 각각 이르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창설하여 주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한 기업적지도의 우월성과 분조관리제의 생활력이 1968년 농사에서 더욱 높이 발양되였다.

협동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가 심화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날로 증대되는 국가의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농업생산에 더 잘 복무하게 되였으며 특히 기술적지도가 강화되고 농촌들에서 선진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게 되였고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분조관리제가 더 잘 도입됨으로써 전체 농장원들속에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이 제때에 침투되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농장원대중의 정치적, 로력적열성이 높아졌으며 도처에서 집단적인 혁신이 일어났다.

농업근로자들은 농촌에 숨어있는 모든 예비를 동원하여 1년농사차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씨뿌리기와 모내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하였다.

문덕식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여 불리한 기후조건을 이겨가면서 튼튼한 모를 길러냈으며 6월 5일까지 일부 산간지대의 논을 제외한 전체 논면적에 모를 내였다.

이와 함께 추치질과 김매기, 덧거름주기 등 농작물가꾸기도 그 어느해보다 제철에 잘 보장하였다.

농업생산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라서고 선진적인 영농기술이 광범히 도입되였으며 모든 농사일이 가장 알맞는 시기에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정확히 수행됨에 따라 농작물의 단위당수확고는 급속히 올라갔다.

1968년에 논벼의 정당수확고는 1967년에 비하여 550키로그람이나 늘어났으며 특히 평안남도에서는 956키로그람, 평안북도에서는 709키로그람이나 더 늘어났다.

공화국적으로 군적인 논벼 정당수확고에서 5톤이상을 낸 군이 37개이며 그중 평안남도 숙천군은 논 1만 6천정보에서 정당평균 5.8톤, 평양시 만경대구역과 평안남도 문덕군에서는 6톤이상을 내였다.

옥수수에서 간혼작을 포함하여 농장적으로 정당 4톤 이상을 낸 농장이 457개이며 평안남도 룡강군 옥도협동농장에서는 6톤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국영농업부문에서 현의진동무가 일하는 농장에서는 1천 100여정보의 논에서 정당 7톤의 벼를 냈으며 그중 120정보에서는 8톤이상, 24정보에서는 9톤이상, 5정보에서는 10톤을 내였다.

또한 리준휘동무가 일하는 농장에서는 1천 300정보의 감자밭에서 정당평균 15.3톤, 424정보의 아마밭에서 정당평균 3톤 200키로그람을 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8년도 농업생산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를 높이 치하하시여 논벼 정당 5.5톤이상, 옥수수 정당 4톤이상을 낸 협동농장들에 2차에 걸쳐 선물을 보내시였으며 수많은 농업부문일군들을 표창하시였다.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1968년도에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계획을 우수하게 수행함으로써 평양시 만경대구역, 황해남도 배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리준휘동무가 일하는 국영농장지구위원회는 근위1급군 (농장지구위원회)칭호를,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 칠골협동농장과 평안남도 숙천군 칠리, 사산협동농장, 문덕군 동림, 룡오협동농장,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청단군 청단협동농장, 박창히동무가 일하는 닭목장은 근위1급협동농장(목장)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평양시 만경대구역 금천협동농장외 19개의 단위에는 근위2급칭호를, 평양시 만경대구역 원로협동농장외 27개 단위에는 선봉 1급, 평양시 만경대구역 망일협동농장외 34개 단위에는 선봉2급, 평양시 락랑구역 남사협동농장외 84개 단위에는 붉은기칭호가 수여되였다.

축 산

축산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 그리고 전국농업

일군대회에서 주신 그이의 교시와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4기 17차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 축산업을 확고한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며 축산물생산을 더욱 늘이는데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미 닦아놓은 축산업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축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이 부문의 락후성을 없애고 축산물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4권 562페지)

수령의 이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68년에 축산부문일군들은 1967년에 비하여 고기는 126%, 그중 닭고기는 243%, 오리고기는 104%, 토끼고기는 187%, 알은 194%로 생산량을 높였다.

이해 당과 정부에서는 축산업발전을 위하여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힘을 넣어 축산작업의 현대화, 자동화에 필요한 설비들과 사료분쇄기, 혼합기 등 각종 기계들을 수많이 공급하였다.

국영축산과 협동농장 공동축산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개인부업축산을 이에 배합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국영농목장과 종자집짐승생산기지를 여러곳에 꾸려놓았으며 기술일군양성사업과 과학연구기관들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기에 힘썼다.

전문화된 큰 규모의 국영목장을 비롯하여 협동농장들의 축산물생산기지가 잘 꾸려지고 개인들의 집짐승기르기가 널리 전개되여 집짐승마리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목장들에서는 자연경제적조건에 맞게 가축별로 생산을 전문화, 집약화하기 위하여 선진관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였으며 생산성이 높은 우량종으로 종축을 개량하여 집짐승별로 종축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웠다.

국영종축장들에서는 원종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종축을 체계적으로 개량하여 좋은 종자집짐승과 새끼를 원만히 공급하였으며 협동농장종축작업반들에서는 작업반비육분조와 농장원들에게 새끼가축을 많이 공급하였다. 목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먹이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논밭앞그루와 과수원사이그루, 야산 등에 먹이작물을 대대적으로 심어 전년에 비하여 사료작물면적을 더 늘였다. 그리고 이미 심어놓은 영양가 높은 다년생먹이작물을 잘 관리하며 집짐승의 먹이기지를 보다 튼튼히 꾸렸으며 말린 풀, 풀절임과 각종 농부산물을 가공하여 먹이로 광범히 리용하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작업반당 2톤, 농가호당 100키로그람이상의 고기를 내기 위한 군중적운동을 힘차게 벌린결과 707개에 달하는 농장이 이 과업을 빛나게 넘쳐 실행하였다.

특히 1968년에 가금업부문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이루어졌다.

수상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두터운 배려밑에 가금업분야에서는 현대적규모의 가금목장들이 수많이 건설되였으며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 닭고기와 닭알에 대한 주민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가까운 시일내에 완전히 충족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가금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주요도시, 로동자지구들에 일떠선 현대적인 대규모 닭목장들이 생산을 개시하여 인민들에게 많은 닭고기와 닭알을 생산공급하게 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심려하시는 어버이 수령의 크나큰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 가금업부문일군들은 닭치기의 기계화, 현대화수준을 높이며 가금업을 집약화하기 위한 투쟁을 첫자리에 놓고 이 사업을 힘차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주요 닭목장들에서는 닭들에 모이와 물을 주고 낳은 알을 주어모으며 거름을 쳐내는 일을 자동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닭들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온도, 습도를 자유로이 조절함으로써 보다 적은 로력으로 더 많은 닭을 칠수 있게 되였다.

각지 가금목장들에서는 상자식관리, 전기삿갓과 같은 선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여 닭을 살지우는 속도와 마리당 알낳이률을 높이였다.

박창히동무가 일하는 가금목장에서는 수상동지의 여러차례에 걸치는 현지지도를 받은 영예를 안고 수도시민들에게 더많은 닭알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힘찬 로력투쟁을 벌린 결과 1967년에 비하여 1968년 한해동안의 닭알생산량을 7배이상으로 높였다.

이리하여 이해 가금업부문에서는 거대한 혁신이 일어났는데 1967년에 비하여 마리당 알낳이률은 112%로 늘어났다. 또한 위생방역사업과 사료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되여 우리나라에 있는 원료원천으로서 닭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배합사료를 만들어 닭무리별로 공급하게 됨으로써 사료단위도 훨씬 줄어들었다.

과 수

1968년에 과수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해에 과수부문에서는 1961년에 있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과수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전원회의의 방침에 따라 이미 조성한 과수원의 기술관리와 과수원건설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가능한 지대들에 과수원을 더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농업지도기관들에서는 수상동지께서 1966년 11월 황해남도

현지지도에서 주신 교시에 근거하여 진행한 과학적인 과수원실태조사자료에 기초하여 기술지도에 대한 현행 및 전망 계획을 세우고 과수원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였다.

국영 및 협동 농장들에서는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적조건에 맞게 과실나무모양을 바로 잡으면서 과학적시비체계를 세우고 거름과 농약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에 힘썼다.

특히 여러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여 어린과실나무들이 열매가 빨리 달리도록 하였으며 오랜 과실나무들의 열매달리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이였다.

1968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과실을 땄는데 각종 과실의 총생산량은 1967년에 비하여 근 2배에 달하였다.

특히 북청확대회의 이후 각지 협동농장들에서 조성한 과수원들에서 점차 열매가 많이 달리기 시작함으로써 국영 및 협동 농장들에서는 과수원건설전망계획에 따라 이미 조성한 과수원에서 땅이 흘러내리지 않게 보호하며 과수원을 규모있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특히 과수원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협동농장들과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봄과 가을에 전투기간을 정하고 군중적인 운동으로 계단과 뚝을 쌓고 울타리와 물길을 치며 바람막이나무를 심는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나라의 경제적요구와 인민들의 수요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사과를 위주로 하면서 올과실과 늦과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고 양벗을 비롯하여 살구, 추리, 복숭아, 감, 대추 등 빨리 크고 열매가 일찍 달리며 로력과 농약이 적게 드는 과실나무와 고급과실의 비중을 훨씬 높이는 방향에서 새로 과수원조성사업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과수원면적이 확장되고 과실수확고가 급속히 늘어나는 실정에 맞게 과실가공 및 저장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투쟁도 전국적으로 광범히 진행하였다.

이해에 리복형동무가 일하는 과수농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영과수농장들에는 과실가공공장들이 일어섰으며 과수면적이 집중적으로 많은 황주군, 숙천군, 신천군, 북청군 등 각지 군소재지들에는 과실을 원료로 하는 식료공장들이 새로 꾸려졌다.

또한 협동농장들과 국영농목장들에는 과실저장시설들도 많이 갖추어졌다.

양 잠

1968년에 양잠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루어졌다.

1961년에 있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양잠업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각지의 야산들이 뽕밭으로 광범히 전환됨에 따라 그 면적은 해방전의 4배이상으로 늘어났다.

각지의 협동농장원들과 가두녀성들은 이미 마련된 뽕밭을 알뜰히 가꾸어 잎이 많이 달리게 하는 한편 가둑누에림을 더 늘이고 피마주를 많이 심어 사료원천을 적극 늘이면서 누에고치 증산을 위하여 적극 힘썼다.

각지에 튼튼히 꾸려진 잠업과학기관들에서는 누에알생산체계와 검사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기능자들을 많이 키워 누에치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였다.

이해에 각지 협동농장원들과 가두녀성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방조하에 뽕나무야외가지뽕사육과 가둑누에 보호사육 등 선진적인 사육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였다. 그리하여 누에치기회수를 훨씬 늘이였으며 매당 고치생산량을 급격히 높이였다.

특히 피마주누에치기에 떨쳐나선 가두녀성들은 빈땅을 리용하여 피마주밭을 적극 늘이는 한편 여러가지 보충적인 먹이들을 적극적으로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1968년에 우리 나라에서의 누에고치생산량은 1967년에 비하여 134%로 증가되였는데 그중 집누에고치는 128%, 가둑누에고치는 131%, 피마주누에고치는 478%로 그 생산량이 높아졌다.

1968년에 누에고치는 우리 나라 서해안남부지대들과 동해안북부지대들에서 특히 많이 생산되였는데 1967년에 비하여 그 생산량이 황남도에서는 160%, 황북도에서는 165%, 개성시에서는 145.4%, 함북도에서는 136%로 각각 장성되였다.

교통운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첫시기부터 교통운수발전을 앞세우기 위하여 매단계마다 교통운수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교통운수는 매우 짧은 기간에 전쟁에서 입은 혹심한 피해와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식민지적편파성과 기형성을 완전히 가시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의 수송수요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유력한 사회주의적교통운수로 발전하였다.

지금 현대적으로 꾸려진 우리의 운수생산기지들에서는 전기기관차와 내연기관차, 대형화차와 객차 그리고 화물자동차와 려객차, 승용차와 무궤도전차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마음대로 만들어내고있으며 동서해안의 조선소들과 선박공장들에서는 대형화물선과 준첩선을 비롯한 크고 작은 여러가지 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의 교통운수는 실로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여왔는데 지금 철도운수는 1946년 한해동안에 나르던 짐을 불과 20일동안에, 자동차운수는 단 2일간에 나르고있으며 선박수송도 같은 기간에 훨씬 늘어났다.

특히 1968년에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이미 꾸려진 물질기술적토대와 성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해에 당과 정부에서는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제시하신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나라의 동맥인 교통운수의 물질기술적장비를 더욱 강화하며 기관차, 객화차, 자동차, 선박 등 현존운수수단들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인민경제 각 부문의 날로 증대되는 화물수송수요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1968년에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8차전원회의에서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철도운수를 비롯한 전반적수송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당과 정부에서는 해당한 대책을 세웠다.

1968년 11월에 소집된 전원회의에서도 교통운수부문 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는 혁명적사업기풍과 강철같은 규률, 혁명적질서를 세우며 철도의 수송능력과 통과능력을 높이며 수송조직을 더욱 개선강화하며 철도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일뿐만아니라 자동차운수와 수상운수를 더욱 발전시킬 여러가지 대책을 세웠다.

언제나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교통운수부문일군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확대하고 이와 밀접히 결부시켜 《김득찬운동》, 《리만성운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 상응하게 날로 늘어나는 막대한 화물수송수요를 훌륭히 보장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철도운수**〕 1968년에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매시기 철도운수발전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온 나라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수많은 역, 대, 소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철도운수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방도들을 제시하여주시였을뿐만아니라 손수 걸린 고리들을 풀어주시고 교통운수부문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을 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그이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어 끝까지 관철하고야말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는 철도운수부문일군들은 1968년에도 한결같이 떨쳐나서 철도운수의 자립성과 물질기술적장비를 더욱 강화하고 화물수송량을 늘이였다.

1968년에 이 부문일군들은 당이 내세운 방침에 따라 철도운수발전의 기본방향이며 렬차의 통과능력제고의 결정적고리인 철도전기화를 힘있게 추진시켜 고원—홍원간을 새로 전기화함과 동시에 이미 전기화된 구간을 더잘 꾸리였다.

이해에 고원—홍원간의 철도전기화를 두달 앞당겨 끝낸 결과 이미 전기화가 실현된 평양—고원간, 홍원—명천간 두 사이를 련결시켜 신의주—평양—명천간 간선철도를 줄곧 전기기관차로 달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기본간선들의 철도전기화는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갔으며 따라서 전반적화물수송량중에서 전기철도가 맡은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있다.

또한 1968년에 철도운수수단들의 생산 및 수리능력이 례년에 비하여 훨씬 강화됨으로써 그 기술장비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8년 3월 27일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을 몸소 찾으시고 전기기관차, 내연기관차를 비롯한 운수수단들의 생산 및 수리능력을 증대시킬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 수행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이해에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철도성산하 각지 공장 일군들은 집단적기술혁신운동과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차량생산기지들을 보다 튼튼히 꾸리였으며 전기기관차, 내연기관차, 유조차, 60톤급화차를 포함한 운수수단들의 생산 및 수리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1968년에 운수수단들의 기술장비가 개선강화된 결과 기관차대당 짐끄는 량이 훨씬 많아졌다.

철길을 튼튼히 다지고 대형레루와 콩크리트침목을 대대적으로 깔며 구조물들을 더 보강하는 등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렬차의 운행속도가 현저히 빨라졌다.

또한 중계장, 역들에 문형기중기, 탑식기중기 등 많은 상하차설비들을 더 많이 들여보내고 그를 합리적으로 리용한 보람이 있어 화차회귀일수를 현저히 줄이였다.

성으로부터 각 역, 대, 소에 이르기까지 렬차운행지휘체계를 더 잘 세우고 철도인입선이 있는 공장, 기업소들과의 사업과 전국가적인 철도지원사업을 강화한 결과 1967년에 비하여 화차머무는 시간이 더욱 짧아졌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기간공업을 이루고있는 석탄, 광업, 금속, 기계, 화학공업부문의 중요화물수송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해에 또한 철도를 위생문화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려객과 화물수송에서 봉사성을 높이며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련계를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전반적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자동차운수**〕 1968년에 자동차운수부문에서도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운수수단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화물및 려객수송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해에 당과 정부에서는 많은 화물자동차와 려객자동차들을 생

산공급하여 주었으며 자동차수리기지도 더욱 튼튼히 꾸려주었다.

자동차운수부문일군들은 당과 국가에서 마련하여준 운수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수송조직을 잘 짜고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물동을 더많이 나르기 위한 긴장한 투쟁을 벌리였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자동차의 집단적통합관리운영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운전수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더욱 철저히 교양하고 자동차의 실동률을 높이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성 산하 각 자동차사업소, 운수대 수송전사들은 수송조직을 과학적으로 짜고들고 각종 선진운행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 한편 한방울의 휘발유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을 벌려 현존 운수수단으로 1967년에 비하여 더 많은 짐을 날랐으며 수송원가도 현저히 낮추었다.

한편 이미있는 도로를 전군중적운동으로 보수정비하고 적지않은 자동차길을 돌로 포장하여 자동차의 수송량과 기술속도를 더욱 높이였다.

1968년에 산간벽지를 련결하는 려객자동차의 운행구간들이 새로 늘어났으며 봉사성과 문화성도 훨씬 높아졌다.

〔**수상운수**〕 수상운수부문에서도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운수수단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 결과 1968년에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해 부두, 항만 시설들이 더 잘 정비보강되고 최신식 각종 대형선박들이 많이 건조됨으로써 수상운수의 물질기술적장비는 보다 현저히 개선되였다.

수상운수부문 전체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름따라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날로 늘어나는 화물수송량을 더많이, 더빨리 나를 일념으로 긴장하게 투쟁하였다.

1968년에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의 기계화를 힘있게 내밀면서 고리식, 반고리식 등 선진적운항법들을 광범히 받아들여 전해에 비하여 배의 리용률을 훨씬 높이였으며 따라서 화물수송량도 큰 장성을 가져왔다.

또한 선박공장과 공무동력직장들의 생산수리기지들을 보다 튼튼히 꾸리고 수리체계를 더욱 빈틈없이 세움으로써 배수리시간을 줄이였을뿐만아니라 질을 부쩍 높이였다.

또한 새로운 배길을 많이 개척하고 가까운 바다 수송과 먼거리 수송을 본때있게 조직함으로써 이해에 전에 없던 려객 및 화물 수송구간들이 생겨났으며 철도 및 자동차운수와의 련대수송도 많이 진행하였다.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전체 교통운수부문일군들은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자신들을 보다 튼튼히 무장하면서 언제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의 명령과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어 끝까지 관철하고야말 불같은 일념으로 맡겨진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체 신

1968년에 체신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제시하신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현재 있는 방송 및 통신 설비와 시설들을 더 잘 정비보강하여 그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통신과 통신설비생산품의 질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데 계속 힘을 돌렸다.

무엇보다도 먼저 체신부문에서는 이미 있는 통신설비와 시설들에 대한 정비사업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설비의 성능과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였다.

유선통신부문에서는 이미 있는 통신망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그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였다.

유선통신에서는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는 산업지구호상간, 각도간의 통신망을 현실발전에 알맞게 다시 구성하여 필요하지 않는 중계공정을 없앰으로써 산업통신을 더 원만히 보장하였다.

유선방송에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주민지구, 산업지구의 분포망에 따라 변화된 방송부하를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그에 알맞게 기계능력과 선의 종류를 맞추고 유선방송망체계도 합리적으로 뜯어고침으로써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무선방송에서는 방송의 출력과 주파수를 더욱 확대하고 설비들을 철저히 정비보강하며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방송이 보다 먼곳까지 더 잘 미치게 하였다.

우편통신에서는 현재 조직진행하고있는 체송, 수집 등 모든 공정들에서 단위별 공정시간을 재보고 불리한 작업공정과 작업조직을 적지않게 뜯어고침으로써 우편물과 출판물의 송달시간을 더욱 줄이였다.

체신부문에서는 이렇듯 이미있는 통신시설들을 잘 정비보강하여 그의 리용률을 높임으로써 같은 설비, 같은 로력으로서 경제건설장과 국방건설장에서 급격히 장성한 통신수요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체신부문에서는 또한 이해에 현존통신시설을 잘 정비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였을뿐만아니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신과 통신설비생산품의 질을 높여 통신의 신속정확성을 더 잘 보장하였다.

유선통신에서는 통신기계공, 통신선로공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각종 표준조작법과 규정들에 정통할뿐만아니라 그를 엄격히 지키고 통신리용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통신의 질을

높였다.

무선방송에서는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방송국들의 중계상태를 개선하는데 힘을 돌렸다. 지방방송국들에서는 유선중계시설과 무선중계시설을 잘 꾸리고 관리함으로써 여러 대륙의 먼곳에서도 잘 들리게 방송의 질을 한 계단 더 높이였다.

우편통신에서는 기업소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우편물과 출판물들을 깨끗이 관리하며 우편통신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더욱 높이였다.

체신부문에서는 이해에 어떤 자연조건과 정황속에서도 중앙으로부터 리에 이르기까지 각종 통신수단에 의한 지휘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가적인 범위에서 견고한 지휘통신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기동성있게 정확히 그리고 부단히 보장할수 있는 지휘체계를 세웠다.

우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유선통신망, 무선통신망, 초단파통신망 등을 잘배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구성하였으며 통신결속소들을 자연피해와 기타 피해들을 입지않게 잘 꾸리였다.

또한 각종 통신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철저히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체신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받들고 이해에도 나라의 신경을 이어나가는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기본건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가 규정한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잘 정비보강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4권 551—555페지)

수령께서 밝혀주신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1968년에 기본건설부문 앞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하며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방대한 기본건설과업이 제기되였다.

이해에 당과 정부에서는 날로 격심해지는 미제침략자들의 새로운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온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다지기 위한 방위시설을 비롯한 국방건설에 많은 힘을 돌리면서도 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1968년에 기본건설부문에서는 발전소의 건설, 새로운 탄광과 광산의 개발 및 기존 탄광, 광산의 개건확장, 화학공장의 건설, 금속공장들의 개건확장, 대형설비생산기지와 정밀기계생산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한 건설, 새로운 건재공업기지의 창설과 개건확장, 대자연개조사업을 위한 기본건설 등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는데 필요한 생산건설에 기본건설투자와 건설력량을 집중하였다. 동시에 현존생산시설들을 보강완비하기 위한 건설을 위주로 하면서 새로운 생산시설의 건설을 이에 배합하는 원칙을 계속 견지하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1968년에 인민경제 각 부문에 대한 기본건설투자액은 1967년에 비하여 훨씬 장성되였다.

기본건설에 대한 투자는 동력공업과 채취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기간적인 공업부문의 생산적건설에 집중되였으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문화후생시설 및 주택건설에도 많은 자금이 돌려졌다.

당의 붉은 건설자들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으로 일관된 주체사상인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하면서 당의 건설정책을 받들고 투자의 방향과 건설대상의 선후차를 정확히 규정하고 건설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방대한 기본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업기일을 앞당기고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였다.

1968년에도 공업의 선행공정인 동력공업과 채취공업부문에 공업건설투자의 절반이상이 돌려짐으로써 이 부문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수령의 교시가 정확히 관철되였다.

그리하여 대규모의 수력발전소건설과 화력발전소건설을 옳게 배합하며 대규모발전소들과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에 따라 이해에도 대규모의 수력 및 화력발전소건설이 강력히 추진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 중소규모 발전소건설과 송배전선건설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이미 있던 발전소들이 정비보강되였다.

이와 함께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우는데 필요한 건설도 강력히 추진되였다.

새로운 탄광, 광산의 개발공사와 개건확장, 기본 굴진과 갱도영구화공사, 대규모선광장들의 건설, 각종 선진적인 채굴설비의 도입 등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차게 벌어져 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더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이해에 석탄공업부문에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예견되였던 석탄고지를 다른 부문보다 2년이나 앞당겨 점령하는 개가를 올렸으며 광업부문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결과 인민경제의 부단한 발전에 따라 급격히 장성하는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는 믿음직한 원료, 연료, 동력기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이해에 금속공업부문의 골간에 살을 붙이기 위한 개건확장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새로운 강종을 더많이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으며 야금공업분야에서 자립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요구되는 철과 압연강재 그리고 각종 유색금속의 생산을 급속히 늘일수 있게되였다.

또한 이해에 화학공업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기본건설이 힘차게 진행되여 원유가공공업, 합성고무공업 등 새로운 화학공업부문들이 창설되였으며 비료생산능력과 경공업원료생산능력이 훨씬 높아졌다.

이밖에도 이미있는 기계공장들을 더 보강하고 완비하는 한편 대형설비생산기지와 정밀기계생산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현재있는 건재공장들을 정비확장하면서 새로운 건재공장건설을 옳게 배합하는 건설공사들과 철도전기화건설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이 부문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도처에 중소규모공장들을 많이 꾸려놓았다.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여 인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경공업건설이 또한 추진되여 모직물과 외투천을 비롯한 겨울옷감의 생산량이 부쩍 늘고 다종다양한 여러가지 소비품을 더많이 더좋게 생산할수 있게되였다.

이리하여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하여놓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더 커다란 은을 내게 되였다.

1968년에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발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농촌기본건설에도 많은 자금을 들이였다.

그리하여 이미 꾸려놓은 관개시설을 정비하여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동시에 새 관개공사, 뚝쌓기, 강하천공사, 치산치수공사, 고인물뽑기공사 등의 대자연개조를 위한 기본건설과 농촌의 생산적건설, 농촌문화주택건설이 적극 추진되여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항상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낼수 있게되였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향상되였다.

1968년에 당과 정부에서는 날로 향상되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건설을 적극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전국 도처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문화후생봉사시설, 학교, 병원, 진료소들이 일떠서 인민생활에 더잘 복무하게 되였다.

재 정

1968년도 국가예산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대표자회보고,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제시된 혁명적과업을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하였다.

이해 우리 인민들은 수령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분초를 다투어가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공화국창건기념일전으로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으며 인민경제발전에서 비상히 높은 속도를 창조하였다.

지난해 우리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미친듯한 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 계획에 예견하였던것보다 더 많은 힘을 국방건설에 돌려야 하였으며 력사에 드문 혹심한 가물과 그로 인한 전력사정의 긴장성을 겪어야 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은 온갖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전해에 비하여 공업생산액을 15%, 알곡수확량을 11%라는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1967년도 국가예산도 성과적으로 집행되였다.

생산의 급격한 장성에 따라 빨리 늘어나는 재정자원을 국가예산에 더욱더 집중시킨 결과 1968년의 국가예산수입은 전해에 비하여 122%로 장성된 50억 2천 370만원에 달하였다.

국가예산수입이 많이 늘어난 결과 1968년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 같이 힘있게 내 밀면서도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1968년에 국가예산지출은 48억 1천 289만원으로서 그 전해에 비하여 122%로 장성하였다.

그리하여 1968년에 국가예산은 모든 자금을 충분히 보장하고도 2억 1천 81만원에 달하는 수입초과를 가져왔다.

1968년에 당과 정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효과있게 리용하며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예산에서는 지출총액의 48.9%에 해당하는 방대한 자금을 인민경제발전에 돌리였으며 그 중에서 많은 몫을 기본건설에 투자하였다.

공업의 첫공정인 채취공업을 원만히 풀기 위하여 이해에 중공업건설투자에 40.2%를, 금속공업에는 1967년의 1.7배, 기계공업에는 2.3배, 건재공업에는 1.8배에 달하는 자금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투자를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국가의 방대한 투자와 로동계급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수많은 현대적공장들을 새로 건설하고 이미 있는 공장들을 새 기술로 개건확장함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부단히 전진하는

나라의 자립적민족공업의 위력을 다시한번 시위하였다.

농촌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커다란 힘을 기울여 온 당과 정부에서는 1968년에도 이 부문에 대한 기본건설투자를 1967년의 1.3배로 높이고 사회주의적농촌건설을 다그치였다.

우리 농민들은 이해에도 자립적공업의 힘있는 지원을 받아가며 생명수 넘치는 협동전야에서 더 많은 기계와 전기,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천석군》, 《만석군》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였다.

이해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미친듯이 날뛰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소동으로 우리 나라에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긴장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대책을 세웠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예산에서는 지출총액의 32.4%에 해당하며 1967년에 비하여 130%로 늘어난 거액의 자금을 국방비로 돌림으로써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자위적인 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영웅적인민군대는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고 현대적무기들과 최신군사기술기재로 튼튼히 장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장성강화되였으며 전국가적, 전인민적방위체계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시위하였다.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과 정부에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생활에 대한 당과 수령의 크나큰 배려를 실현하기 위하여 막대한 국가자금을 지출하였다.

인민들의 생활에 항상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고계시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부식물해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현대적인 닭알목장, 닭고기목장들을 평양과 송림 등지에 지어주시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1968년에 전국각지에 가금목장을 대대적으로 건설할것을 제시하시였다.

수령의 높은 뜻을 받든 전체 근로자들은 전인민적운동으로 그이께서 잡아주신 터전우에 21개의 새로운 현대적인 대규모가금목장들을 훌륭히 세워놓았으며 이미있던 목장들을 개건확장하고 배합사료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친히 분수식남새밭의 본보기를 꾸려 그 우월성을 증시하시고 남새밭에 분수식관수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리하여 이해에 204개소의 5천정보에 달하는 남새밭에 분수식관수체계가 도입되여 어떤 왕가물이 들어도 항상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남새생산기지가 꾸려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인 학생, 어린이들을 위하여 이해에도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긴장한 정세하에서도 전체 어린이들과 인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겨울양복과 솜외투, 겨울모자와 머리수건, 겨울신발과 양말에 이르기까지 거저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일제히 공급하여주시였다.

1968년에 당과 정부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1967년의 1.2배에 달하는 사회문화시책비를 지출하였다.

국가의 방대한 투자로 주택건설이 활발히 진행되여 1967년의 1.7배에 달하는 주택이 근로자들에게 새로 차례짐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주택조건이 더욱 개선되였다.

이해에도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부문에 거액의 자금을 지출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학교교실들이 새로 건설되고 각급 학교들과 간부양성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꾸려졌으며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무료교육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온 당과 정부에서는 예방의학적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고 의료봉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보다 더많은 자금을 돌림으로써 병원침대수가 훨씬 늘어나고 무상치료의 혜택이 더 많아지게 되였다.

1968년에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급휴가, 국가비용에 의한 탁아소, 유치원의 운영, 그리고 눅은 값에 의한 식량과 어린이옷의 공급 등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국가적혜택은 실로 그들이 받은 임금총액과 맞먹는 거액의것이였다.

1968년처럼 첨예하고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온갖 준엄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거둔 이 모든 성과는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를 두고있는 우리의 국가예산이 인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면서도 방대한 자금수요를 우리 자체의 힘에 의하여 완전히 보장하는 인민적이며 적자를 모르는 공고하고 자립적인 예산이라는것을 보여준다.

1968년 국가예산집행에서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와 나라의 재정토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있다.

금 융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3년 11월 28일 사회주의하에서의 은행의 본질과 임무를 밝히시고 그에 알맞게 은행체계를 고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은행체계는 인민경제계획수행에 필요한

건설 및 류동자금을 통일적으로 공급하는 중앙은행과 국가경제기관, 기업소 및 협동적소유들에서 일시적으로 수요되는 자금을 유일적으로 꾸어주는 산업은행, 그밖에 무역은행으로 꾸려졌다.

중앙은행은 지난날 하여오던 대부업무를 그만두고 재정예산에 예견된 건설 및 류동자금을 틀어쥐고 국가경제기관, 기업소에 유일적으로 공급하며 내여준 자금의 합리적리용에 대한 지도통제를 통하여 인민경제전반에 대한 재정통제를 통일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재정집행기관으로 바뀌여졌다. 또한 중앙은행은 본래의 기능의 하나인 화폐의 발행과 통화조절사업과 함께 전국적인 결제, 국가리익금의 징수, 고정재산등록사업을 맡아하고있다.

산업은행은 인민경제 각 부문 기업소들에서 일시적으로 모자라는 자금을 꾸어주는 대부업무와 협동농장에 대한 재정적지도와 통제를 맡아하는 한편 협동농장들의 고정재산을 화폐적으로 등록하고 그의 합리적리용을 감독하고있다. 또한 국가보험 및 저금, 개인송금 사업을 담당수행하고있다.

무역은행은 대외결제업무를 집행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새로운 은행체계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인민경제전반에 대하여 전인민적소유인 공업뿐만아니라 협동적소유인 농업까지도 국가가 책임지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한,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에 부합되는 사회주의적은행체계로써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빛내고있다.

1968년에 각 은행기관들은 그 우월성을 더욱 빛내여 인민경제 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계획적이며 기동적으로 가장 효과있게 실현하고 지도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인민경제발전계획수행에 이바지하였으며 주민들속에서 놀고있는 자금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재정자원의 예비를 적극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이해에 나라의 방위력을 철옹성 같이 다지며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유족하게 만들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을 철저하게 관철하는데 기여하였다.

【중앙은행】발권 및 통화조절사업 1968년에 계획적인 화폐의 발행과 기동적인 통화조절사업을 통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신 인민적시책의 실시와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르는 주민들의 화폐수입의 급격한 장성을 현금적으로 원만히 보장하고도 나라의 경제규모에 알맞는 통화량을 계속 튼튼히 유지하여왔으며 우리 나라 원의 가치를 끊임없이 높이였다.

1968년에 우리 나라 공업생산은 1967년에 비하여 115%로 장성하였으며 농업생산에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구현됨으로써 큰 성과가 이루어졌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베푸신 전체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와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혁명가의 유가족들과 후방가족들에 대한 보조금을 또다시 올린것 등 방대한 현금지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의 경제규모를 옳게 타산하여 그에 알맞게 화폐류통의 규모를 규정하고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재정예산과 세부적으로 맞물려 분기별현금계획을 세운 다음 기관, 기업소들의 사업실태를 료해한 기초우에서 화폐자금을 지출하고 재정예산과 현금계획대로 자금을 리용하도록 검열통제함으로써 적은 화폐자금으로 화폐류통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중앙집권적인 발권 및 조절사업을 강화하고 통화의 권종별배합을 옳게 함으로써 현금거래에서 화폐계산을 보다 손쉽게 하며 화폐리용에서 주민들의 편리를 적극 보장하였다.

결과에 나라의 자주적인 화폐체계는 더욱더 공고화되였다.

류동자금공급사업 은행기관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진행된 류동자금계획화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하였다. 뿐만아니라 계획된 자금공급에서는 그에 앞서 기관, 기업소들에서의 물자와 자금의 리용정형을 검토하고 절약할수 있는 예비를 공제한 집행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자금을 내여줌으로써 자금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데서 기관, 기업소들이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류동자금의 계획상 예비를 적지 않게 동원하여 더욱 효과있게 리용하였다.

발송상품에 대한 류동자금의 공급에서는 매개 부문, 매개 단위에서 자금을 계획화하고 그것을 집행하는데서는 은행기관이 중앙적인 방법으로 리용하는 체계를 세우고 기관, 기업소들의 발송상품실적에 의하여 보장하고 통제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류동자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자금이 사장되거나 편재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확대재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기동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제품의 판매와 대금의 회수를 적극 자극하여 자금의 회전을 더욱 촉진시켰다.

결과 1968년에 경제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송상품에 대한 자금공급기준은 1967년보다 절대액적으로 15%나 적어졌으며 실지 집행에서는 그보다 8%나 더 적은 자금으로 그것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은행기관들에서는 기관,기업소들이 가지고있는 물자재산을 조사장악하고 필요없거나 지나치게 가지고있는 물자, 체화사장시키고있는 미성품, 반제품, 완제품들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대책을 세우는 등 자금회전을 더욱 촉진하는 사업을 조직함으로써 수많은 예비를 동원하는 한편 물자들을 필요한 곳에 돌리여 효과있게 쓰이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류동자금공급부문에서는 1968년에 1967년보다 훨씬 장성한 인민경제발전계획을 1967년보다 적은 자금으로 보장

하였을뿐만아니라 이해 기본계획보다 상당히 높은 증산계획까지도 자금의 추가없이 원만히 보장하였다.

건설 및 대보수 자금공급사업: 1968년에 은행기관들에서는 자금공급을 통하여 건설을 집중적이며 중점적으로 하며 건설원가를 극력 낮추도록 자극하며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고 당의 건설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은행기관들에서는 채굴 및 채벌작업에 대한 자금을 기본건설자금으로 보장할데 대한 국가적 조치에 따라 자금공급절차를 새로 정하고 이 부문에서 기술적장비를 더욱 강화하며 작업을 계획적으로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자금적으로 안받침하였다. 특히 채취공업에서 선행공정인 박토작업에 대한 자금공급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실시하여 이 부문에 새로운 기술을 광범히 창안도입하고 설계단계에서 조성된 예비들을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은행기관들은 건설자금공급에 앞서 설계와 예산서를 검토하여 설계작성과정에서 기술경제적타산판계로 생긴 예비들을 찾아내는 사업들을 하였을뿐아니라 시공과정을 장악통제하여 허식과 랑비를 막아낼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건설원가를 낮추며 적은 투자로 더많이 건설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금공급과정을 통하여 자재비, 로력비의 절약대책 특히는 간접비를 극력 절약하도록 통제대책을 세움으로써 적지 않은 예비를 동원하였다.

이리하여 건설계획보다 적은 자금으로써 해당한 건설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대금결제사업: 1968년에 은행기관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세부계획화체계에 맞게 기관, 기업소 호상간에 물자를 주고받도록 하며 자금회전을 보다 촉진시킬수 있도록 하는 원칙에서 대금결제에 대한 사전사후통제를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국가자금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은행기관들은 물자수공급에 따르는 대금청구규률과 지불규률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물자인수용위임장제를 도입함으로써 은행에 의한 통제에 앞서 기관, 기업소들이 자체로 검토하며 통제하도록 자극을 강화하였으며 물자를 공급한 기관, 기업소들은 물자인수용위임장에 의하여 제때에 대금을 청구하도록 규률을 세웠다.

또한 은행기관들은 대금청구서에 대한 지불자의 확인을 기관, 기업소 현장에 나가 제때에 받아들이고 대금지불을 조직진행함으로써 자금회전을 훨씬 더 촉진시켰다.

이리하여 나라의 생산 및 류통규모가 급격히 늘고 결제거래액도 그에 상응하게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지불일수는 1967년에 비하여 1968년에 보내온 대금청구서에 대하여는 29%, 물자를 보내고 대금을 청구한 문건에 대하여는 14%가 단축되였다.

고정재산의 등록 및 감독사업: 1968년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나라의 고정재산규모는 더욱 빨리 늘어났으며 그의 합리적리용이 가지는 의의는 더욱더 커졌다.

은행기관들에서는 지난시기 조성된 고정재산에 대한 기초문서들과 현물을 대조확인하는 사업을 함으로써 그의 합리적배치와 관리, 리용 정형을 장악하고 수많은 예비들을 찾아내여 나라의 경제관리운영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새로 조성되는 고정재산에 대하여서는 자금공급과 대금결제과정을 통하여 장악등록함으로써 모든 재산이 국가재산에 제때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해 년말현재로 고정재산실사를 전국가적으로 조직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사회재산을 애호관리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사상으로 일군들을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의 애호관리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보다 활발히 조직전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산업은행] 대부사업: 1968년에 인민경제 모든 단위에서 대안의 사업체계가 더 잘 관철되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가 이루어져감에따라 은행기관들도 대부를 주고 직접 기업소에 나가 재정경영활동을 개선하는 사업을 도와주며 자극함으로써 대부를 받은 많은 기업소들에서 대부금리용기간이 단축되였을뿐아니라 대부를 리용하는 기업소수가 현저히 줄게 되였다. 또한 협동단체기업소들 특히 협동농장에 대한 국가적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자체자금의 축적이 장성됨으로써 대부를 리용하는 농장수도 극히 적어지게 되였다.

협동농장에 대한 재정적지도와 통제사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정신에 립각하여 협동농장들의 재정계획화사업과 부기계산체계를 확립하며 현금거래와 결제를 정확히 조직실시하며 경영활동을 잘 하도록 재정적인 지도와 통제사업을 강화하는데 힘을 돌림으로써 화폐수입을 높이고 지출을 절약하게 하였으며 계산 및 재정관리를 현저히 개선하게 하였다.

또한 협동농장의 고정재산에 대한 화폐적등록과 지도사업을 통하여 그의 보관, 관리 및 리용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였다.

1968년에 은행기관들은 한개 협동농장씩 집중적으로 도와주어 재산 및 재정 관리에서 본보기를 꾸리고 그를 일반화함으로써 농장들에서 재정관리수준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협동농장과 수산협동조합 신용부에 대한 지도사업을 강화하며 관리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되게 함으로써 농장원과 조합원들 자신의 신용기관으로서 호상 유무상통의 기능을 높이게 하였으며 그들의 생활을 계획적으로 꾸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집짐승기르기를 비롯한 부업수입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신용기금은 거액에 달하는 여유가 생기게 되여 은행기관에 예금시킬수 있게 되였다.

인민저금사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베푸신 전체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물질적배려와 물가인하를 비롯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당과 정부의 거듭되는 시책들에 의해 1968년에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지난해보다 현저히 높아졌으며 생활상요구되는 현금수요를 충족시키고도 어느 해보다도 많이 저금하였다. 그리하여 저금잔고는 그 어느해보다 높은 장성을 가져왔다.

특히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에서는 해를 거듭하여 풍작을 이룩하고있으며 농장원들의 분배몫은 해마다 높아가고있다. 따라서 모든 농장원들이 남아돌아가는 많은 돈을 저금하게 되여 농촌주민들의 저금잔고도 현저히 높아졌다.

국가보험사업: 1968년도에 국가보험사업은 이해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된 일대혁명적대고조와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초하여 계획을 훨씬 초과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보험은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사회주의적소유와 개인소유 재산을 보호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계획적으로 꾸리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무역은행】 1968년에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국가들, 제국주의 멍에에서 벗어나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아세아, 아프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국가적 및 경제적 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은행들간의 대외결제는 급격히 늘었다.

무역은행은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고 우리와 평등한 립장에서 은행거래관계를 맺을것을 원하는 수많은 나라 은행들과 새로 거래관계를 맺었으며 그러한 은행수는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늘어나고있다.

1968년에 적지않은 나라들과 새로 무역 및 지불협정이 체결되고 대외결제에서 우리 은행의 높은 신용이 보장됨으로써 결제에서 간접거래를 하여오던 나라들중 많은 나라 은행들이 직접거래자로 넘어갔다.

이해에 대외결제규모는 례년에 없는 장성을 가져왔으며 우리 나라와 수많은 나라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 및 친선적련계관계가 강화됨에따라 비상업적거래에 따르는 대외결제도 매우 늘었다.

【국제보험회사】 국제보험회사는 산업은행의 지도밑에 국제수송화물과 선박보험, 재보험들을 유일적으로 담당수행한다.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 대외적위신이 높아지고 대외무역이 확대발전됨에 따라 대외보험업무도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있다.

국제보험회사는 사회주의국가보험기관대표자회의에 정상적으로 참가하여 호상협조와 경험을 나누고있을뿐만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보험 및 재보험업자련맹 부위원장으로서 자주적인 민족보험의 발전과 두 대륙간의 보험분야에서 호상협조와 실무적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있다.

또한 40여개 나라의 중요보험기관들과 대리업무를 호상 교환하고 자기 업무의 정확신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대외적권위와 신임이 높아졌다.

국토건설

1968년에도 국토건설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 부문에 주신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토건설부문에서는 국토를 통일적인 계획밑에 전망성있게 개발하고 정리미화하기 위한 국토총계획을 세우고 산, 산림, 도로, 강하천, 간석지를 건설하였으며 토지, 강하천, 연안, 령해, 수산자원, 리로운 동식물 등 국토와 자원을 보호관리하고 감독통제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국토관리성은 1968년 10월부터 국토건설성으로 개편되였다.

【국토계획】 국토건설부문에서는 국토계획을 국토건설에 앞세우기 위하여 이해에도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나갈 기술준비를 앞세우는 한편 토지, 강하천, 산림, 도로, 공업, 농업, 주민지 등 15개부문의 전망배치방향을 규정한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평남도, 평북도, 함남도를 비롯한 각도(직할시)국토총계획과 군(구역)국토계획들을 작성하였다.

이 국토총계획과 국토계획에는 경제적리익과 국방상리익을 옳게 결합하여 나라의 모든 지방을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여있다.

또한 국토건설부문에서는 이해에 전국의 야산리용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야산을 그 지대의 기후풍토와 자연지리적조건 그리고 경제발전전망에 따라 경제림, 과수원, 작잠림, 방목지 등으로 종합적견지에서 리용할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았다.

특히 이 부문일군들은 이해에 강하천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기술적준비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들은 대동강운하건설총계획, 압록강과 두만강을 비롯한 수계들에 대한 종합적리용계획을 세움으로써 앞으로 우리 나라 강하천을 가장 효과있게 정리리용하게 하였을뿐만아니라 국토와 자원, 주민지구와 부동산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하였다

그밖에 이해에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수천건의 건설대상위치지정사업을 진행하여 국토의 각이한 요소 호상간, 인민경제 여러 부문간의 호상 련관을 옳게 맺어줌으로써 국토건설을 통일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였다.

【산림】 1968년도에 산림부문에서는 산림자원을 더욱 늘일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산림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그 관리사업을 심화발

전시키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였다.

이 부문에서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들에 일정한 산림보호담당구역을 떼여주고 전군중적운동으로 나무를 심고 그를 년중을 통하여 계속 보호하게 하였다.

특히 이해에 많은 기관, 기업소, 공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자체의 조림 및 채벌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조림작업반을 조직하고 자체의 림목생산기지를 꾸림으로써 앞으로 계획적으로 나무를 심고 베여 리용할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1968년에만 하여도 전군중적운동으로 8만 2천여정보에 나무를 심었다. 이 나무들은 주로 포플라, 아카시아와 같은 경제림으로서 산림의 모양을 바로 잡아 그의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방향에서 심어졌다.

산림부문에서는 이해에 산과 들에 더많은 나무를 전군중적운동으로, 계획적으로 심게 하기 위하여 나무모생산기지를 평지로부터 조림지가까이에 옮기고 잘 가꾸면서 그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의 나무심기에 나무모생산을 앞세웠다.

1968년에 조성한 경제림면적중 81%를 유지림이 차지함으로써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유지림조성과업을 148%로 초과수행하였으며 중요수종을 지역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보다 심화시키였다.

특히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나라 조건에서 산을 통하여 기름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각지에 호두농장을 조직하였으며 적지를 선택하여 호두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었다.

그리하여 공화국북반부에는 분지, 가래, 잣나무림과 함께 호두림이 만년대계의 유지림으로 들어차고있다.

또한 이해에 대동강을 비롯한 중요 강하천상류에 사방야계공사와 나무심기를 적극 진행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여기에 많은 자금과 로력을 들여 대동강상류의 치산치수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에 앞서 이 부문 일군들은 전군중적운동으로 사방야계공사의 모범을 꾸려놓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년말까지 또다시 각 도, 시, 군에 한개 이상씩의 시범대상지를 더 꾸려놓았다.

이 경험을 본받은 각 지방에서는 선후차를 가려 나무심기와 배합하여 전군중적운동으로 산허리에 돌쌓기, 흙막기, 계단쌓기, 기슭막기 등의 사방야계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국토를 잘 보호하였다.

또한 약초 및 산채를 비롯하여 각종 버섯의 인공재배에 필요한 종자를 생산하여 산림내에 뿌리였으며 이 밖에 산림자원을 대대적으로 증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약초재배모범단위를 꾸리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강하천】 국토건설부문에서는 이해에도 강하천정리와 사방야계공사를 잘하여 땅을 보호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받들고 강하천정리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당과 정부에서 이해에 많은 자금과 자재, 설비와 로력을 강하천건설사업에 돌려준 결과 압록강과 두만강을 비롯한 5대강건설과 중요 강하천, 중소하천정리사업이 동시에 힘있게 진행되였다.

강하천건설부문에서 1968년에 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파낸 로량과 여기에 돌을 쌓고 입힌 장석량만 하여도 그전해에 비하여 4배이상에 달하며 그외에 수많은 콩크리트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수만정보의 농토와 주민지구를 보호하였다.

특히 강하천건설부문에서는 이해에 당과 수령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많은 강하천건설기업소들을 조직하고 건설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였다.

1967년에 비하여 1968년에 강하천건설사업소수는 3.4배로, 건설자대렬은 2.8배로 늘어났으며 기업소들의 기술장비도 현대적인 대형 및 중형 건설기계로 개선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일군들과 설계일군대렬을 보충확대하고 그 연구사업과 설계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강하천건설사업에 기술준비를 훨씬 앞세워 나갔다.

1968년에 강하천건설사업과 함께 강하천관리운영사업도 더욱 개선되였다.

강하천관리부문일군들은 이해에 수많은 콩크리트공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관리대책을 세우고 실천한 결과 낡은 제방들을 전반적으로 고치고 구조물들을 잘 보장함으로써 국토를 믿음직하게 보호하였다.

특히 정비보강한 강하천에 전인민적운동으로 호안림을 조성하여 우리 나라 모든 강하천제방에 록음이 우거지게 하였으며 제방을 튼튼하게 보호하게 하였다.

이외에도 국토건설부문에서는 이해에 광산, 탄광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나오는 미광과 버력의 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침전지와 적치장, 옹벽공사와 석축공사를 전망성있게 진행하였다.

그중에서도 대동강, 청천강 강반에 있는 탄광, 광산들에서 수많은 침전지를 건설함으로써 미광과 더러운 물로 인한 강하천의 피해를 막았다.

【도로】 도로부문에서는 1968년에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할데 대한 당대표자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힘썼다.

이해에 중앙에 도로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려단을, 그 산하에 여러개의 건설전문기관을 새로 조직하고 길과 다리를 건설하였으며 각종 형태의 포장공사를 진행하였다.

뿐만아니라 봄과 가을에 도로수리를 전군중적운동으로 광범히 조직전개하여 수백만 립방메터에 달하는 규격자갈을 도로에 깔았으며 수천만 평방메터의 길을 정리정비하고 88만 5천본의 나무를 길량옆에 더 심었다.

특히 강원도를 비롯한 각도들에서는 지방에 있는 재료를 광범

히 탐구리용하여 흙—자갈 포장과 석비레포장 등을 진행함으로써 도로의 기술상태를 현저히 개선하였다.

또한 각 도들에서는 매해 도로를 돌로 포장해 나가기 위하여 채석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차게 벌렸다.

한편 각 도들에서는 돌포장한 평남도 온천군의 경험을 본받아 한개이상씩의 시범을 만들고 기술지도서를 비롯한 기술준비를 앞세워 나감으로써 수령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성과적으로 집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았다.

【간석지건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부터 서해안의 광활한 간석지를 개발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이 가렬하던 시기에 과학자들에게 서해안의 광활한 간석지를 개발하여 농경지로,공업용지로, 염전으로 사용할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간석지건설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54년부터 1956년까지의 3년간에 걸쳐 조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1960년부터 1961년 기간에 대상별로 조사측량한데 기초하여 간석지건설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광활한 《비단섬》과 《황금평》을 일떠세웠다.

국토관리부문에서는 이해에 정연한 간석지건설지도체계를 새롭게 세웠으며 기업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아 놓았다. 또한 과학기술대오를 믿음직하게 꾸리였으며 간석지건설사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였다.

각지의 간석지건설자들은 수령께서 펼쳐주신 설계도가 우리 나라를 보다 살기좋은 지상락원으로 꾸리며 후손들에게 더 큰 재부를 넘겨주기 위한 가장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혁명과업이라는것을 심장으로 파악하고 대자연개조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였였.

그중에서도 항상 흠모하여마지않던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비단섬의 건설자들은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자기들의 일터에 몸소 찾아오시여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생활의 구석까지 돌봐주시면서 새로운 과업을 맡겨주시는 그이의 높은 신임에 드높은 로력적성과로서 보답하기 위하여 비상한 열정을 발휘하였다.

비단섬의 건설자들은 그이께서 보내주신 대형준첩선, 대형굴착기, 자동차들을 잘 리용하여 간석지건설작업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는 단계에 들어갔으며 그이께서 가르쳐주신 공법대로 우리나라 간석지조건에 알맞는 선진공법을 받아들임으로써 간석지건설속도를 그전에 비하여 무려 7배로 높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국토건설부문에서는 1968년에 이렇게 새로운 땅을 얻어냈을뿐만아니라 있는 땅을 잘 리용하기 위한 투쟁도 벌리였다.

논밭 가운데 널려있던 주택과 좋은 땅에 심은 뽕밭, 나무모밭을 산기슭에 옮기고 기관, 기업소 및 학교들에서 필요이상 차지하고있던 땅, 물기많아 쓰지 않던 땅을 비롯하여 1968년 한해동안에만도 무려 1만 2천여정보의 땅을 농업생산에 돌렸다.

【담수양어】 1968년에 담수양어부문에서는 우선 양어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양어사업지도체계를 개편하고 그를 더욱 심화발전시켰다.

지난시기 국토건설성에서 관리운영하던 담수양어사업을 각도 인민위원회에 넘기고 지방정권기관들이 담수양어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양어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활발히 전개할수 있게하였다.

그리하여 1968년도에 수많은 새끼고기를 양어수역에 놓아주었으며 많은 물고기를 길러 인민들에게 공급하였다.

이와 함께 양어부문에서는 풀과 자연사료로서 빨리 키울수 있는 초어, 백련어, 화련어의 인공번식에 력량을 집중하여 이해에 많은 새끼고기를 생산하였으며 이고기 생산기지를 넓히기 위하여 협동농장과 기관, 기업소들에 새끼고기를 나누어 주었다.

【유용동식물】 이해에도 우리나라에 풍부한 유용동식물을 적극 보호하며 인민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왔다.

우선 1968년에도 수산자원에 알맞게 명태어업건수와 정치망어업건수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자원보호체계를 철저히 세웠으며 연안에 적지않은 보호구역을 새로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수산자원에 대한 보호증식사업을 강화한 결과 최근 2~3년간에 가재미, 밥조개를 비롯한 정착성어족들의 자원량이 현저히 늘어났다.

또한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새환경에 맞게 유용동식물보호구를 이미 신설한데 기초하여 노루, 사슴, 꿩, 메추리, 토끼들을 야주순화증식하는 사업을 광범하게 벌렸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도처에는 새로운 토끼산, 토끼섬, 꿩산, 노루산, 사슴섬들이 생기였다.

로동행정

1968년에 로동행정부문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 및 제18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결정들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분야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의 배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행정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중요하게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로력랑비를 없애고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로동

행정사업분야앞에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해결하는것이 구경은 근로자들이 얼마나 자각적으로 로동에 참가하는가, 다시말하면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졌는가 못가졌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기때문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4권 493페지)

로동행정부문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를 한종목씩 곱씹어 해설침투시키는 한편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철저히 확립하자》, 《로동행정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자》는 등의 해설제강을 통하여 사상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인내성있게 꾸준히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속에서는 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480분 로동시간을 생산에 완전히 리용하며 헐한일은 녀성들과 나이많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청년들은 어렵고 힘든 일, 보다 중요한 일을 맡아나서는 공산주의적품성이 높이 발양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일떠선 최현기동무가 일하는 기업소에서는 재적종업원수의 16.4%에 해당한 청장년로력들을 당의 부름에 따라 보다 중요한 부문에 진출시킨 후에도 계속하여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함으로써 지난해에 비하여 120%로 장성한 1968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실행하였다.

특히 김윤용동무가 일하는 기업소에서는 저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그것을 서로 맡아하려는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에 기초하여 수많은 로력예비를 얻어내여 직접부문인 갱내 로력비중을 높임으로써 그 전해보다 152%로 장성한 1968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의 광란적인 전쟁소동에 대처하여 계획에 예견하였던것보다 더 큰 힘을 국방건설에 돌린데다가 력사에 드문 혹심한 가물과 그로 인한 전력사정의 긴장성이 겹친 난관을 용감하게 극복하고 1967년에 비하여 1968년에 공업생산을 15%, 알곡수확량을 11% 더 높이는 비상한 속도를 창조하였다.

이 빛나는 성과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생산장성의 모든 요인들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결정적요인인것만큼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었다.

특히 1968년에 우리 근로자들이 달성한 빛나는 성과는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는것이 바로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이라는 김일성동지의 천재적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정당성을 또다시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나아가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그장성속도가 떠진다는 수정주의리론의 반동성을 또다시 폭로해주고있다.

【로력자원의 합리적 배치와 리용】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의 옳은 로력균형을 보장하여 있는 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력배치에서 중요한것은 생산부문 종업원수의 우선적증대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의 일군수를 규정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원칙에 확고히 서서 나라의 로력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67페지)

이 교시에 따라 내각결정 제6호 《기관, 기업소의 관리기구정원과 생산지휘부문로력을 줄이며 관리기구정원을 고칠데 대하여》 (1968년 3월 27일)가 나왔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관, 기업소 표준기구와 관리기구정원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였다.

관리기구개편을 통하여 생산기업소의 생산지휘로력과 관리로력, 비생산부문 기업소의 관리로력의 25%에 해당한 관리정원을 줄여 생산부문 특히 직접부문에 돌렸다.

이것은 기업소관리운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가 더잘 세워지고 경제지도일군들의 경제기술실무수준과 관리운영수준이 비상히 높아진 현실에 가장 알맞는 조치였다.

로동행정부문에서는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로력예비를 적극 찾아 리용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들고 로력예비탐구사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하였다.

로동조직의 개선, 480분 로동시간의 완전한 리용, 생산조직의 개선, 기술혁신운동의 광범한 전개, 설비리용률의 제고 등의 모든 요인별에 따라 로력 예비탐구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적지않은 청장년로력예비를 찾아냈다. 그리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탄광, 광산, 림업, 5대강 건설 등 긴요한 부문의 로력수요를 원만히 해결하였다.

【로동계획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 및 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은 로동계획화사업을 개선하여 나라의 로력원천을 적극 동원하며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68페지)

로동계획화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발기하신 로력대장작성사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하였다.

로력대장은 매 공장마다 생산되는 품종, 생산량, 기계설비,

로력구성상태 등 구체적 지표들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인민경제적의의가 크고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 기업소들의 로력대장과 그외의 공장, 기업소들의 로력대장을 작성리용하는 새로운 체계도 세웠다.

이와 같이 로력대장을 정확히 작성하고 리용한 결과 공장적인 기능공균형과 직종별 기능공소요계획을 보다 과학적으로 세울수 있게 되였으며 전투지휘를 보다 정확하게 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로력원천을 도, 시(구역), 군 및 중요 공장지구별로 조사장악하고 로력수요와 보장을 지역별로 철저히 맞물려주게 하는 등으로 대안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할수 있게 되였다.

【로동보호】 전체 근로자들은 이해에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깊은 배려에 의하여 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능률적으로, 흥겹게 일하면서 보람찬 생활을 누리였다.

1968년에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안전교양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일련의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였다.

우선 산업부문별로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로동안전교양사업실태를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로동안전교양사업을 부단히 발전하는 인민경제의 새로운 실정에 맞게 규범화하였으며 공장, 기업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해당한 수의 전문로동안전원을 새로 배치하여 공장, 기업소의 로동안전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끌고나갔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로동안전교양실을 전반적으로 새로 꾸렸다. 새로 꾸려진 로동안전교양실에는 로동보호사업부문에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들과 그를 집행하기 위한 방도를 실물 또는 모형들과 여러가지 종류의 직관물로 보여주는 자료들을 갖추어놓았다.

그리하여 이해에 로동안전교양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학습하고 그의 집행방도를 찾으며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창의고안합리화운동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는 거점으로 되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안전교양체계도 더욱 완성되였다.

새로 공장에 들어온 로동자들과 직종을 바꾼 로동자들에 대하여 그가 배치된 직종의 특성에 맞게 일정한 기간 국가로부터 생활비와 식량 그리고 로동보호물자까지 무상으로 공급받고 로동안전교양을 받게 계획적으로 조직하였으며 견학과 실습을 진행하고 시험에 합격된 다음에야 작업에 배치하는 엄격한 제도를 세웠다.

특히 생산기술지식과 안전지식을 특별히 더 요구하는 직종에 배치되는 신입로동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작업실습을 진행하는 체계를 세웠다.

또한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그 작업을 안전하게 보장할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양하는 작업전 로동안전교양체계를 철저히 세웠다.

해마다 3—4월과 10—11월을 전국적인 로동안전월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로동보호부문에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를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며 일체 로동안전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것을 제도화하였다.

1968년에도 국가에서는 로동보호조건을 계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통일적인 로동보호시설계획화체계를 세우고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공급하였다.

이해에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우리 근로자들은 작업복, 로동화, 로동보호용구, 영양제 등 많은 로동보호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았으며 로임과 식량까지 받아가면서 정규휴가,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의 혜택을 누리였다.

【기술기능 및 로력후비 양성사업】 1968년에 로동행정부문에서는 내각결정 제70호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전원회의 결정을 정확히 집행할데 대하여》(1967년 10월 13일)에 의하여 기술기능학습체계를 정비하고 여기에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을 망라시켜 기술기능학습을 진행하였다.

각 도(직할시) 단위로 기술기능학습날자를 정하고 한주일에 한번씩 제정한 날자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기능학습을 진행하는 체계를 세우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1968년 기사학습반과 기술학습반을 통하여 양성된 기사(전문가)와 기수(중등전문가)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이해에 많은 로동계급이 참가하고있는 기능전습반운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운영방법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기능수준을 전반적으로 한급이상 더 높이였다.

로동행정부문에서는 또한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개전의 추이에 맞게 방대하게 늘어나는 기능공후비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1968년에 공장, 기업소 단위로 기능공학교를 더 세우고 운영하였다.

특히 이 학교가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받은 중학교졸업생들을 받아들여 기능공후비로 양성하는 것만큼 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충분히 마련하며 교육교양의 수준을 높이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임으로써 기능공후비를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공장, 기업소들은 생산기지인 동시에 민족기술간부와 기능공후비양성의 믿음직한 기지로 되였다.

【정휴양 및 사회보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예산지출을 통한 근로자들의 추가적인 혜택이 굉장한 규모로 늘어날것입니다.

사회보험지출이 많아지는것은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과 년금을 줄수 있게 하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국가휴양소, 정양소, 야영소들에서 무료로 쉴수

있게 보장하여줄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33페지)

그리하여 이미 설치된 휴양소, 정양소, 야영소들이 이해에도 더 잘 꾸려졌으며 여기에서 수많은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즐거운 휴양생활의 한때를 보내였다.

그들은 휴양소, 료양소, 야영소들에 오가는 려비를 포함하여 식사비, 문화생활비 등 휴양기간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국가로부터 무료로 보장받았을뿐만아니라 휴양하는 동안에도 일할때 받던 로임의 전액을 받았다.

이해 휴양은 근로자휴양, 농민휴양, 가족휴양, 모성휴양, 부부휴양, 야영, 관광, 탐승 등 근로자들의 희망과 취미에 따라 진행되였다.

또한 이해에 국가예산에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혜택비를 더 늘이고 이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배려를 근로자들에게 정확히 돌려준 결과 만근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의 대렬이 지난해에 비하여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애국렬사유가족, 피살자가족, 전사자가족, 인민군후방가족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과 보조금, 년금을 비롯한 물질적배려가 컸으며 그들을 전사회적으로 존경하는 미풍이 더욱 발양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배려속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로동과 생활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으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꽃튀는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다.

【사회주의분배원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부단히 높이면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적생산을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8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침에 따라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계속 높은 속도를 보장하였으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왔다.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근로자들이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참가하며 온갖 창의창발성과 적극성을 다 발휘하여 일하도록 교양하는것은 당면한 경제과업수행을 위해서뿐만아니라 원래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풍모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기 위한 근본적요구이다.

로동행정사업에서 정치도덕적자극을 확고히 앞세워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이에 경제실무적사업을 옳게 안받침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하는것, 이것이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방침이다.

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부단히 높이면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생산력발전에서 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당에서 요구하는것이 곧 기준량이며 정량이다》라고 하면서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로동계급이 당과 수령께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것을 말하여주며 자기 계급의 력사적사명과 자기들이 하는 일의 정당성을 자각한 로동계급의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따라 이해 또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이에 경제실무적인 대책도 중요하게 취하였다.

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새로운 태도와 립장을 옳게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로동정량제정기관들을 각성, 각 도에 직속시키고 로동성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로동정량제정사업을 혁명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당정책요구를 옳게 관철하였다.

특히 매개 근로자들의 책임량과 기술경제적기준들을 새로 제정하고 그 실천을 구체적으로 제때에 평가해줌으로써 당의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로임을 정할 때 중로동과 경로동, 육체로동과 정신로동,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둔것은 그 무슨 물질적자극을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육체적 및 정신적힘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생활조건을 더욱 개선하며 모두가 더 높은 로력적열의와 창발성을 내여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이해에도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로임이 계통적으로 장성하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분조관리제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시킴으로써 농업로동의 특성에 맞게 사회주의분배원칙을 훌륭히 관철하였다.

물질문화생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착취와 압박이 없어지고 경제와 문화가 빨리 발전함에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끊임없이 높아가고있다.

인구 한사람당 국민소득은 계통적으로 높아가고있으며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은 해마다 장성하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실업을 모르며 모든 근로자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대해서도, 아들딸들을 공부시키는데 대해서도, 병을 치료하는데 대해서도 근심걱정을 모르고 산다.

이러한 성과는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배려, 이것은 공화국정부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목적도 결국은 모든 인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그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62—563페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부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급속히 발전시켜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뿐아니라 축적과 소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면서도 시종일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원칙에서 국민소득을 옳게 분배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실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살피시며 유족하게 해 주시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며 온갖 육친의 배려를 베풀어주신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조국에 개선하시자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시여 장차 우리 인민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물질적토대를 마련해주시는 한편 당면하게 령락된 인민생활을 급속히 추켜세우기 위한 중요한 시책들을 련이어 강구해 주시였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먹을 걱정을 없앤다는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공장과 땅의 주인으로 되게하여 주시고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마음껏 일할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였을뿐아니라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하시고 우리 농촌에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촉진시키시였으며 몸소 논판에 들어서시여 농사짓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였다.

인민들에게 더 많은 쌀을 주시려고 애써오신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배려밑에 오늘 우리 나라는 식량이 부족하던 지대로부터 여유있는 지대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나라로 전변되였으며 도시와 농촌, 평야지대와 산간오지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식량에 대하여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풍족하게 살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하루속히 더 많은 고기와 닭알, 생선을 먹이기 위하여 새로운 현대적인 가금목장을 꾸려주시고 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빈틈없이 마련해 주시였으며 거액의 국가자금으로 현대적인 원양어선단을 무어 먼바다의 물고기까지 대대적으로 잡아오도록 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일어난 또하나의 커다란 전변은 누구나 다 입을 걱정을 모르게 되였다는 사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 토스레옷 한벌 변변히 걸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속히 좋은 옷을 넉넉히 해입히시려는 위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일찌기 간석지의 감탕길과 무성한 갈대숲을 몸소 헤치시며 화학섬유의 원료기지를 꾸릴데 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우리 나라에 많은 벼짚과 강냉이짚에서 옷감을 뽑아낼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실현시켜주시였다.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있는 조선의 화학섬유—비날론도 김일성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극진한 보살핌밑에서만 세상에 태여날수 있었다.

어버이 수령의 세심한 지도의 결과로 오늘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인 화학섬유공업과 방직공업의 기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전국도처에 중소규모의 방적공장과 방직공장들이 일떠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인민들이 쓰고사는 집문제를 해결하는데 크나큰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벽돌 한장, 세멘트 한포대 성한것이 없던 전후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우선 훌륭한 다층주택부터 많이 짓도록 하시였으며 대대손손 오막살이에서 살아온 우리 농민들에게 수십만동의 농촌문화주택을 무상으로 지어주도록 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벌방지대로부터 두메산골에 이르기까지 즐비하게 들어선 아담한 농촌 문화주택도 그 하나하나가 어버이 수령께서 농촌생활의 특성과 농민들의 기호를 세심히 타산하시고 친히 제시해주신 설계에따라 세

워진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인민들에게 의식주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는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시였을 뿐만아니라 우리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인민을 선진적인 과학과 찬란한 문화를 소유한 문명한 인민으로 행복한 문화생활의 향유자로 되게하기 위하여 언제나 심려하고계시는 어버이 수령의 크나큰 배려밑에 오늘 우리 인민은 학교와 과학연구기관, 출판물과 라지오, 영화관과 극장, 병원과 휴양소 할것없이 온갖 문화시설과 수단들을 그쯘히 차려놓고 마음껏 일하고 공부하고 휴식하면서 문화적으로 살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망국노의 비운이 서리였던 그 암담한 시기에 벌써 우리 인민들의 문명한 래일을 위하여 조국광복의 위대한 강령에 《의무적인 면비교육》실시문제를 제시하시였고 새 사회건설의 첫 시기부터 이 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수령께서는 우선 일제의 식민지 노예교육제도를 청산하고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다 공부할수 있는 인민적교육제도를 수립하여주시는 동시에 성인교육체계, 통신 및 야간교육, 단기강습 등 온갖 형태와 방법으로 우리 인민들이 하루빨리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경제를 관리운영할수 있는 과학기술문화를 가지도록 하여주시였다.

어버이 수령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어려운 조건에서도 1956년부터 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였고 1958년에는 동방에서 맨 처음으로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였으며 1959년부터는 학생들의 수업료가 전반적으로 폐지되였다.

그이께서는 배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더욱 훌륭히 실현하여주시기 위하여 1967년부터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게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이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무료로 공부할수 있는 광활한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98개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나되는 269만명의 학생들이 돈한푼 들이지않고 마음껏 과학과 기술을 배우며 새 사회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의 문화생활수준을 높여주기 위하여 해마다 국가예산에서 사회문화시책비 지출을 계통적으로 높이여 인민들의 문화생활에 필요한 온갖 시설과 수단들을 빠짐없이 갖추도록 하시였으며 근로자들이 문화적으로 휴식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 주시였다.

그이의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각종 영화활영소와 극장들이 수많이 세워졌고 전국각지에는 수백수천을 헤아리는 군중문화회관들과 영화관들이 일떠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무병장수하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평화시기도 아닌 가렬한 전쟁의 환경속에서 이미 인민들에 대한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촌, 광산과 어촌 그 어디를 가나 사람이 살고 일하는 곳이면 다 병원과 진료소들이 그물처럼 늘어서있고 사람들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마음껏 병을 보이며 약을 쓰고있다.

어버이 수령께서는 녀성들에게 산전산후의 유급휴가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아이가 많은 녀성들이 휴식과 문화생활을 충분히하며 가정일과 자녀교양을 잘 돌볼수 있도록 그들의 실정에 맞게 하루의 로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고 8시간과 꼭 같은 보수를 주는 크나큰 혜택을 베풀어주시였다. 지어는 휴양소에까지 탁아소를 설치하여 아기를 가진 녀성들도 마음껏 휴양생활을 할수 있도록 배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성들이 부엌일에서 시간을 덜 보내도록 직장상점, 밥공장과 가족식당 같은 편의봉사시설도 대대적으로 내오게하시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따뜻한 배려에 의하여 실로 오늘 우리 인민은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일자리가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밥을 빌어먹는 사람도 없으며 모든 근로자들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대해서도 아들딸들을 공부시키는데 대해서도 병을 치료하는데 대해서도 근심걱정을 하지 않게 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일하고 배우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게 되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33페지)

1968년에도 당과 수령의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은 더욱 유족하여졌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에도 인민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몸소 극진히 헤아리시고 인민들의 더욱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하여 또다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더 원만히 풀기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축산업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그이께서는 부식물 해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현대적인 닭알목장, 닭고기목장들을 평양과 송림등지에 지어주시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이 해에 전국 각지에 가금

목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것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터전까지 일일이 잡아주시였다.

그리하여 이 해에 수령께서 잡아주신 터전우에 21개의 새로운 현대적인 대규모 가금목장들이 훌륭히 세워짐으로써 인민들의 식탁을 더욱 푸짐히 할수 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떨구지않고 더많이 공급할수 있도록 보살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분수식남새밭의 본보기를 꾸려 그 우월성을 중시하게 하시고 남새밭에 분수식관수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결과 이 해에만도 204개소의 근 5천정보에 달하는 남새밭에 분수식관수체계가 도입되여 어떤 왕가물에도 항상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어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더 많이 공급할수 있는 튼튼한 남새기지가 마련되였다.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인 학생, 어린이들을 위하여 언제나 깊은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에 그 긴장한 정세에서도 학생, 어린이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고 그들을 더잘 키우며 인민들의 복리를 더한층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체 어린이들과 인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겨울양복과 솜외투, 겨울모자와 머리수건, 겨울신발과 양말에 이르기까지 겨울나이용 일체를 거저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일제히 공급하여 주시였다.

이밖에도 이 해에 당과 정부에서는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올린 수백개의 협동농장들에 막대한 선물을 보내주었다.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과 정부에서는 1968년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생활에 대한 수령의 크나큰 배려를 실현하기 위하여 막대한 국가자금을 지출하였다. 이 해에 당과 정부에서는 1967년의 1.2배에 달하는 사회문화시책비를 지출하였다.

국가의 방대한 투자로 이 해에 주택건설이 활발히 진행되여 1967년의 1.7배에 달하는 주택이 근로자들에게 새로 차려짐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주택조건은 더욱 개선되였다.

또한 당과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에 확립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기술혁명의 빠른 속도에 상응하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학교 교실들을 새로 건설하고 각급 학교들과 간부양성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 거액의 자금을 지출하였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무료교육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아가면서 자녀들을 새사회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더 훌륭히 키울수 있게 되였다.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온 당과 정부에서는 이 해에도 예방의학적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고 의료봉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보다 더많은 자금을 보건부문에 돌림으로써 병원침대수는 훨씬 늘어났으며 근로자들에게 전반적무상치료의 혜택이 더많이 차례지게 되였다.

특히 이 해에 공화국정부에서는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고 이 부문에 많은 혜택을 돌려 전해에 비하여 탁아소어린이수는 1.4배, 유치원어린이수는 1.3배로 늘였으며 콩우유, 간유사탕, 린산칼슘 등 영양제를 많이 만들어줌으로써 어린이들을 훌륭히 키우고 사회적로동에 참가하는 모성들의 편의를 더잘 도모할수 있게 하였다.

1968년에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이와 같은 사회문화시책이외에도 계속 거저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식량과 주택을 보장받는 등 국가로부터 더많은 추가적혜택을 받았다.

이리하여 근로자들은 이 해에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급휴가, 국가비용에 의한 탁아소, 유치원의 운영 그리고 눅은 값에 의한 식량과 어린이옷의 공급 등으로 국가로부터 임금총액과 맞먹는 거액의 추가적혜택을 받았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위한 이 모든 조치는 항상 우리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문화적으로 더 잘 살게 하기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경애하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사랑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취해진것이며 또한 그것은 그이의 령도하에 우리 나라에 튼튼히 꾸려진 자립적민족경제의 무진장한 위력과 사회주의제도의 거대한 우월성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상품공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상업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상업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상품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상품공급사업의 발전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여주시였으며 이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가적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특히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중요한 정치사업의 하나로 강조하시면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커다란 배려를 돌리시였으며 몸소 산간오지의 자그마한 상점까지 찾으시여 상품공급을 더 잘할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판매원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수상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국

진한 배려속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상업이 도시와 농촌의 상업류통령역을 유일적으로 지배하고있다. 생산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사회주의토대를 계속 강화하면서 상업망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상품공급사업을 계속 개선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생활향상에 적극 복무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도시에서는 물론 지난날에는 상품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던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질좋은 상품을 유일한 값으로 마음대로 살수있다.

이것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자주적인 상업을 창설발전시킬데 대한 수령의 위대한 구상과 그이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사회주의상업리론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1968년에 당과 수령께서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돌려주시는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인민소비품생산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부단히 장성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상업은 더욱 빨리 발전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강화하며 당의 상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상업부문일군들의 노력에 의하여 사회주의상업의 우월성은 더 잘 발양되였다.

상업부문앞에 나선 영예롭고도 보람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상품공급사업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상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상업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일군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운 항일유격대원들의 고매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그들처럼 참된 인민의 충복이되도록 일군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고 상품공급사업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도록하였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책임적으로 해결해주려는 상업일군들의 애국적열성과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업망을 잘 포치하고 더욱 늘이며 상업시설들을 현대화하여야 할것이며 지역별, 계절별, 계층별 수요에 맞게 상품을 잘 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포장 및 배달, 야간 또는 이동 판매를 잘 조직하는 등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3∼564페지)

상업부문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심장깊이 아로새기고 그의 관철을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결과 1968년에 근로자들에 대한 식료품과 일용필수품 및 문화용품의 공급량이 계속 증대되였으며 특히 겨울용 상품의 판매량이 훨씬 높아졌다.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업부문에서는 식료상점을 주민지대에 최대한으로 접근시키며 공장, 기업소들의 직장상점을 확대하고 농촌에서 위탁상업망을 늘이는 등 상업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상업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일층 높임으로써 분초를 다투어 증산투쟁을 벌리는 근로자들의 생활상편리를 더 잘 보장하였다. 그리고 상업부문에서는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리고 공업의 지원밑에 현대적인 상업설비와 도구들을 더 잘 갖추어 상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일층 강화하였으며 특히 과실, 남새, 고기, 물고기 등의 저장시설과 랭동시설을 더 많이 늘이였다.

1968년에 주문제에 기초한 상품공급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상품공급에서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업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지대별, 각계층들의 수요를 옳게 장악한데 기초하여 생산에 정확히 맞물려 상품원천을 충분히 조성하였으며 상업부문에서의 자체가공사업을 일층 강화하였다.

한편 상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다같이 골고루 공급할 상품, 로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상품, 농촌에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할 상품 등 주민수요의 지역별, 계절별, 계층별 특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기초우에서 선후차를 가려 공급하는 상품배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였다.

그리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중요도시들과 로동자지구에 식료상품이 골고루 정상적으로 공급되였을뿐만아니라 고기, 닭알, 남새, 기름을 비롯한 부식물생산을 늘여 그 공급이 훨씬 증대되였으며 농촌주민들에 대한 공업상품공급사업이 더욱 개선되였다.

특히 상업일군들은 상점을 언제나 문화적으로 알뜰히 관리하고 상품의 포장과 진렬, 판매시간 등 모든 면에서 인민들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는 동시에 배달판매, 야간판매, 이동판매를 널리 조직하는 등 봉사성을 부단히 높여 근로자들의 편의를 백방으로 도모하였다.

1968년에 편의봉사부문에서는 리발소, 목욕탕, 양복점과 각종 수리수선망들을 더 많이 늘이고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더잘 도모할수 있도록 봉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짜고 이동봉사, 주문, 배달 등을 널리 조직하였다. 특히 편의시설용 부속품의 생산 및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늘어나는 각종 일용필수품의 수리를 더 잘 보장하였다.

이리하여 1968년에 우리의 사회주의상업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잘 수행하였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봉사활동을 일층 개선강화하였다.

도시경영

우리 나라에서 도시경영사업은 도시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흥겹게 할것을 목적으로하는 중요한 봉사사업으로 되고있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도시주민들의 비중은 더욱 증대되고있으며 도시의 규모도 날로 확대되고있다.

도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도시경영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서나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시의 건물들과 거리, 나라와 사회의 모든 재산을 사랑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기들이 걸어다니는 길도 사랑해야 하며 건물들과 거리를 사랑해야하며 나라와 사회의 모든 재산을 다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 집을 쓰고있으나 래일은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쓰고살수 있으며 오늘은 내가 이 걸상에 앉아있지마는 래일은 다른 사람이 이 걸상을 쓸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있는 집과 자기가 쓰는 걸상, 책상들을 사랑해야 하며 자기가 공부하는 학교와 일하는 공장들을 다 사랑해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47페지)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도시경영부문에서는 도시의 건물들과 거리, 모든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알뜰히 꾸리는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였으며 근로자들을 이 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도시경영성을 새로 내오고 독자적으로 사업할수 있게 하였다.

도시경영지도체계의 개편은 도시경영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당의 가장 현명한 조치였다.

1968년에 도시경영부문에서는 새로 개편된 지도체계에 상응하게 대렬을 꾸리는 한편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이해에 도시경영부문에서는 평양시를 비롯하여 함흥시, 원산시를 중심으로 각시, 군 소재지들을 알뜰히 꾸리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조직전개함으로써 도시면모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였다.

〔**건물관리 및 구획정리**〕 도시경영부문일군들은 당과 국가의 배려가 전체 근로자들에게 제때에 옳게 돌려지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더 아름답게 꾸리는데 모를 박고 보수정비하면서 공공건물을 더 화려하게 꾸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수만세대의 주택들과 수많은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을 더 잘 보수정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주택들과 공공건물들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하여 이미부터 건물관리기업소안에 있던 지구작업반, 건물유지관리반 등 각이한 관리체계를 전국적으로 단일한 건물관리반으로 개편하였다. 따라서 건물관리사업을 동(읍), 인민반주민들속에 더욱 침투시키게 되였다. 건물관리일군들의 건물에 대한 순회점검체계를 세워 그들의 책임성을 높이게 하였다.

건물관리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조직전개하는 사업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도시경영부문에서는 평양시 모란봉구역을 그 본보기로 만들고 전국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 각 도, 시, 군 소재지들의 주택과 공공건물들은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려짐으로써 근로자들의 주택조건과 문화휴식조건이 그 어느때보다 개선되였을뿐만아니라 건물의 수명도 훨씬 늘일수 있게 되였다.

도시경영부문일군들은 또한 천리마북새동의 모범을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하여 구획정리사업에 도시주민들을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이르는곳마다에서 주택주변에 아담하게 울타리도 만들고 잔디도 심으며 작은길까지 블로크 또는 돌로 포장하였으며 매집에 포도나무, 대추나무, 살구나무 등 과일나무를 심고 꽃밭을 가꾸어 거리를 더욱 아담하고 화려하게 꾸리였다.

또한 수도가 있는데는 공동세탁장과 어린이들의 샤와장을 만들고 주택구획내의 곳곳에 미끄럼대, 그네, 흔드리, 회전대, 철봉대, 비행기, 씨름터 등 어린이들을 위한 놀음터를 수많이 만들어주었다.

〔**도로정비 및 관리**〕 도시경영부문일군들은 도시도로를 잘 정비관리하며 그것을 대대적으로 포장하는 사업에 큰 힘을 돌리였다.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 시, 군 소재지들의 기본도로들을 포장하여 도시구획도로와 작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전군중적운동으로 돌 또는 자갈을 깔며 사람이 다니는 길에는 보도블로크를 아담하게 깔아 도시의 문화성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교통상 편리를 도모하게 하였다.

길에 돌포장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하여 평안남도 온천군에 돌포장에 대한 본보기를 만들고 각 도(직할시) 도시경영부문 해당일군들에게 시범상학을 주어 온천군소재지와 개성시를 비롯한 각 도시들에서 길을 포장하게 하였다.

함흥시에서는 광재를 가지고 돌 포석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흥남, 룡성, 성천구역내 중심거리들에 아담하게 깔므로써 적은 투자를 들여 견고하고 영구적인 길을 만들었다.

또한 1968년에 도시경영부문에서는 하천정리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조직진행하였는데 대동강제방을 쌓은것을 비롯하여 각 도, 시 주변을 흐르는 강하천정리사업을 잘하여 홍수의 피해를

부터 도시를 보호하였으며 제방에 돌담을 쌓고 잔디를 입히고 나무를 심어 도시풍치를 한층 돋구게 하였다.

평북도 정주군에서는 1968년에 시내옆을 흐르는 서추천제방공사를 다그쳐 제방을 튼튼하고 보기좋게 쌓음으로써 근로자들로하여금 더욱 아름답고 깨끗한곳에서 문화적인 생활을 즐기게 하였다.

〔**상하수도**〕 이해에 도시경영부문에서는 상하수도를 잘 보호하며 관리하는데 각별한 힘을 기울였다.

지역별 수압상태, 각 주택들에 대한 물공급정형, 상하수도시설망의 배치정형을 일체 조사장악하고 주민들에게 물공급을 더 잘하기 위하여 현존 수원지의 일부 불비한 시설들을 보수정비하고 물생산량을 최대한으로 늘이였다. 또한 예방보수체계를 세워 하수도망과 시설물들을 보수정비하고 설비운전공들과 관리공들을 고정담당시켜 순회점검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결과 물의 도중 손실이 없어지고 주민들에게 음료수를 더욱 충족하게 공급할수 있게 하였다.

도시경영부문에서는 수원지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정비보강하고 위생문화적으로 더잘 꾸렸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례년에 드문 왕가물이 계속되였으나 수원지들에서 많은 물을 생산하게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물공급을 보다 더 충족하게 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도시경영부문에서는 웅대하게 건설되는 도시들의 규모에 상응한 대규모의 수원지들을 건설하고있다.

함흥, 청진, 원산, 사리원시를 비롯한 큰 도시들과 순천, 추원을 비롯한 수많은 군소재지들에 상하수도시설들을 확장 보강하는 한편 새로운 건설을 더많이 진행하였다.

오수덕이라고하면 예로부터 하늘아래 첫동네라고 불리워 왔다. 해방전 이곳 오수덕사람들은 샘물이 전혀 없어 고인비물이나 눈을 녹여 먹으며 살아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68년에 당과 정부에서는 1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국가자금을 들여 이곳에 상수도를 건설하여 압록강의 맑은물을 끌어올려 주민들에게 공급할수있게하였다.

또한 서해안일대와 물이 비교적 나쁜 지대의 도시주민들과 농민들의 음료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여 농촌집들에서 간단한 려파장치로 물을 먹을수 있게 하였다.

〔**열 및 온수난방**〕 1968년에도 이 부문에서는 열관리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이 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혁신운동을 힘차게 일으켜 열설비들을 철저히 보수하여 열의 손실을 없애였다.

그리하여 실생활에 리용되는 열의 비률은 더욱 높아졌으며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적응하게 온수난방체계가 적극 도입될수 있게 되였다.

평양시에서는 중앙난방공사를 계속 다그치며 많은 새집들과 다층문화주택들, 공공건물들에 중앙난방체계를 도입하였다. 이 중앙난방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더운집에서 살며 더운 물을 일상적으로 쓸수있게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화위생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하였다.

〔**원림화**〕 1968년에 도시경영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공원을 더 잘 꾸리는 한편 도처에 새로운 공원을 더 많이 건설하였으며 큰 유원지들도 개척하였다.

이 부문에서는 공원과 유원지의 건설 및 보수, 나무심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도처에 소공원을 아름답게 꾸리는 한편 봉화, 와우도, 팡석천, 길성포, 송도원 유원지들과 구성문화휴식공원을 비롯한 공원과 유원지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여기서 즐겁게 휴식하며 자기 조국과 향토를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택구획과 공공건물주변 그리고 도시의 길옆과 빈땅, 이르는곳마다에 푸른잔디밭과 꽃밭을 만들고 도시주민들과 기관, 기업소 및 학교의 록화근위대원들이 동원되여 알뜰히 관리하게 함으로써 사철 아름다운 꽃을 볼수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을 우리의 자연과 향토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있는 식물원과 동물원사업에 큰 배려를 돌려주시였을뿐만아니라 이 부문사업을 직접 지도하여 주시면서 몸소 꾸며까지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식물원을 비롯한 여러 식물원들에 식물을 종류와 품종별로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재배하도록 지도하여주시였다.

또한 수령께서는 우리 나라에 있는 좋은 새들과 산짐승들을 잡아다가 각 도소재지들에 동물원을 꾸리여 근로자들을 즐겁게하며 우리 나라 동식물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우리의 자연과 향토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할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1968년에 원림부문의 기업소들은 국가의 부담을 덜고 자체로 걸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으며 온갖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휘하였다. 결과 평양동물원을 비롯하여 함흥, 원산 동물원들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었을뿐만아니라 오히려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게 하였으며 앞으로 자체로 걸어 나갈수있는 토대를 만들어놓았다.

또한 1968년에 평양동물원을 비롯하여 각 도(직할시) 동물원들에 박제품직장 또는 작업반을 조직하고 우리 나라에 있는 아름답고 좋은 새들과 동물들을 잡아다가 실물 그대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실물교육을 주게 하였을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의 동물들을 다른 나라에까지 널리 소개선전할수 있게 하였다.

보 건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따뜻이 보살피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인민보건문제를 조선혁명의 강령적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시고 언제나 그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리하여 인민혁명정부내에는 의료부가 설치되여 있었고 유격근거지—해방지구 각구들에 유격대병원과 민중병원이 설치되여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병치료를 담당수행하였다.

그이께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주권문제, 인민들의 사회경제적처지의 개선을 위한 혁명적시책과 함께 인민보건에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예방의학을 확고히 견지하며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주체적인 의학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인민보건건설에 관한 기본방침들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혁명적보건강령과 항일무장투쟁시기 의료사업에서 이룩된 고귀한 업적과 경험들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적보건전통으로 되였다.

이러한 력사적뿌리에서 자라난 인민보건제도가 있음으로하여 지난날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밑에서 돈없는 사람들은 병나서 죽어야만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세상, 인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가 베풀어지고있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일찌기 그 어느나라에서도 실현해보지 못한 가장 인민적인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다.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병치료나 약값을 모르게 되였으며 어느 때 어느곳에서도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충분한 의료봉사를 받을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보건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은 당과 국가가 실시하는 인민적보건시책과 함께 보건일군들이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환자치료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고치지 못하는 병까지도 다 고쳐낸다는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행본 1968년판 56페지)

수령의 가르침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사회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키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더많이 받게 하고있으며 그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더욱 개선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 모든 사람들의 수명은 20년씩이나 골고루 늘어났다.

이것은 오직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며 인민들이 병에 걸리기전에 병을 철저히 예방할데 대한 우리 당 보건정책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

〔**위생방역**〕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군중을 적극 동원하자면 보건기관과 보건일군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자들에게 위생지식을 가르쳐주는 위생선전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그들속에서 당의 보건정책을 철저하게 해설침투시키는 정치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일군들은 그 누구를 물론하고 위생지식보급의 안내자로 되여야 하며 치료예방기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인민들의 보건위생의 학교로, 군중적인 위생방역운동의 중심으로 되여야 하겠습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행본 1968년판 4페지)

수령의 이 강령적인 교시를 높이 받들고 보건부문에서는 1968년에 위생방역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기 위하여 우선 위생선전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였다.

이미 있던 위생방역소에서 위생선전부를 분리하여 중앙에다 위생선전사를 두고 각 도에는 위생선전소를 내왔다. 그리고 시, 군 위생방역소에는 선전일군들을, 치료예방기관들에는 위생선전담당의사들을 두게 하였다.

이러한 위생선전망들에서는 자기의 기능을 더욱 높이여 위생선전뿐만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을 위생방역사업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하는 조직자적역할도 훌륭히 수행하였다.

위생방역사업에는 직맹, 농근맹, 녀맹 등 근로단체들과 학교 학생들이 광범히 참가하였는데 문화혁명의 거점인 학교들에서는 위생강의를 학교과정안에 넣어 학생들에게 위생지식을 가르쳐주며 매주 위생지식보급의 날을 정하고 학생들을 위생선전사업과 전염병매개물을 없애는 일에 적극 동원시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생문화사업에 광범한 군중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에 위생지도위원회의 조직을 직접 발기하시고 위생문화사업에 대한 전국가적 사회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해마다 봄, 가을에 위생월간을 설정하게 하고 이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강력히 전개하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 조치에 따라 이해에도 위생지도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제고되였으며 위생월간에 광범한 군중을 적극 조직동원시킨 결과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은 날을 따라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려졌으며 인민들의 건강은 더욱 증진되

여갔다.

1968년에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인민적운동으로 힘차게 전개된 위생문화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올리였다.

각급 위생방역기관들과 산업병원들에 있는 로동위생과가 더 잘 꾸려지고 이 부문 일군들의 역할이 높아져 로동위생에 대한 지도가 한층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은 위생적으로 더욱 개선되였다.

이와 함께 농촌위생, 식료위생, 영양위생, 어린이위생이 발전하는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개선강화되였다.

특히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정신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보건위생사업이 발전되였고 농민들의 문화생활은 더욱 개선되였다. 농촌문화후생시설이 완비되였으며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문화적으로 꾸리였다.

모범위생군창조운동이 계속 강력히 추진되여 모범위생군대렬이 늘어나고 많은 모범위생리(동), 모범위생인민반들이 나왔으며 오늘 우리 농촌은 깨끗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되였다.

식료공업부문과 사회급양망들에서도 생산문화와 위생관리가 개선강화되였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체력의 증진을 위한 탁아소, 유치원, 학교위생에 대한 지도가 강화되고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치료체계가 더 잘 세워졌다.

위생방역기관들에서는 이해에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 식생활,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위생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한 군중교양을 계속 강화하면서 우리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위생방역기관들의 역할이 한층 높아지고 위생방역사업이 군중적운동으로 벌어진결과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은 더욱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지고 리병률이 계속 줄어들었으며 인민들은 무병장수하게 되였다.

〔**치료예방**〕 우리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언제나 따뜻이 보살피시며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보건제도의 인민적성격과 그 우월성에 기초하여 해방직후부터 우리 당 보건정책에서 예방의학적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도록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의학의 기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학에서 기본은 예방, 다시말하여 근로자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학은 곧 예방의학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행본 1968년판 195페지)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의 붉은 의료일군들은 병이 발생하기전에 미리 검열진찰하여 치료함으로써 어린이들과 근로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그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켰다.

우리의 보건일군들은 공산주의자로서의 자기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함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환자에 대한 끝없는 정성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살피였다. 이리하여 근로자들을 로동과 국방에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에 대한 의료방조의 물질기술적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는데 그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당과 정부에서는 보건부문에 많은 자금을 돌려 도시와 농촌, 공장지구에 현대적인 치료예방기관들을 건설하였으며 특히 채굴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중요산업로동자들에 대한 의료방조를 이해에도 계속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농촌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정신에 근거하여 우선 군인민병원, 농촌진료소를 비롯한 농촌보건기관들을 더 잘 꾸리였다. 그리고 군인민병원을 기지로하여 농촌의료기관들에 대한 기술적지도와 의료봉사조직사업을 개선강화하였다.

특히 김일성동지의 1966년 1월 20일교시에 근거하여 1968년에는 병없는 리 창조사업이 적극 추진되였으며 농촌보건위생사업이 한층 강화되였다.

한편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더 잘 차례지도록 의료봉사조직과 방법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부단히 개선강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선진적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를 해마다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오늘은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등 전문과 의사들의 담당구역제까지 실시하고있다.

특히 1968년에는 내과의사들이 직장(갱)을 직접담당하고 의료방조를 주게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의학은 생산현장에 더욱 접근하게되였고 따라서 로동자들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할수있게되였다.

또한 현재의 보건시설망실태를 조사한데 기초하여 불합리하게 있는 병원, 진료소들을 통합 또는 정비확장하고 보건일군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 배치함으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전문과적의료방조가 더욱 강화되였으며 동의의료방조가 실속있게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광천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국의 풍만한 자원을 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리용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이 오늘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광천자원이 인민들의 건강보호증진에 널리 개발리용되고있다.

특히 이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각지에 분포되여있는

온천과 약수를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보다 널리 개발리용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온천과 약수터에 새로운 료양소들이 더 건설되였고 이미 있던 료양소들도 더욱 정비확장되였다. 그 시설과 설비들이 더 잘 꾸려졌으며 약수와 온천의 성분연구사업이 강화되여 근로자들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료양치료가 실시되였다.

그밖에 료양소와 그 부근에 있는 군병원들에 있는 광천외래과들에서 많은 근로자들에게 전문과적인 광천물리치료혜택을 주었으며 계절료양소와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료양소들이 운영되였다.

석왕사, 강서약수를 비롯하여 효능높은 약수를 도시와 산업지구들에 공급하였으며 각급 치료예방기관들에 감탕을 생산공급하여 근로자들의 병치료에 리용하도록하였다.

〔**어린이와 녀성들의 건강보호**〕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의 미래이며 우리 혁명의 귀여운 꽃봉오리들인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씩씩하고 명랑하게 키우며 녀성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미래이며 우리혁명의 계승자들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인 어린이들을 잘 키우고 옳게 교양하는것은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행본 1968년판 176폐지)

어린이들을 잘 키울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에서는 각급 치료예방기관, 어린이보호기관, 특히 규모가 큰 공장, 기업소의 탁아소 등 곳곳에 아동병원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을 보다 튼튼히 키우고 어머니들이 마음놓고 일할수있게 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근로녀성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며 그들이 마음놓고 일할수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크나큰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정기휴가, 산전산후휴가 등이 보장됨으로써 지난날 녀성들에 대한 온갖 멸시와 학대, 그들의 건강을 해치던 온갖 사회적불평등과 근원이 영원히 청산되였으며 녀성들의 로동위생 및 로동보호사업 등 로동조건을 더욱 개선하며 그들의 사회적진출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특히 1968년에 공장, 기업소마다에 녀성위생실을 비롯한 여러가지 로동위생시설들이 더 잘 꾸려지고 탁아소, 유치원, 식당, 수리소 등 각종편의후생시설들이 곳곳에 설치되여 오늘 우리 나라 녀성들은 가정부담에서 벗어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아이가 많은 녀성들에게 하루의 로동시간을 여섯시간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들이 휴식과 문화생활을 충분히 하며 가정일과 자녀교양을 잘 돌볼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보건부문에서는 어린이들과 녀성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에 대한 의료방조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였다.

특히 1968년에 시, 군인민병원에 산원을, 농촌진료소들에는 산실을 더 잘 꾸리고 산부인과와 그 외래의사수 및 침대수를 늘이고 조산원들을 양성배치하는 등 녀성들의 건강보호에 사별한 수의를 돌렸다.

그리하여 어린이들과 녀성들에 대한 의료방조가 더욱 강화되고 도시와 농촌의 근로녀성들에 대한 무료해산방조의 범위가 넓어졌다.

〔**보건일군양성**〕 우리 나라에서는 병원, 진료소들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보건일군들을 양성하는 사업과함께 현재 의료부문에서 일하고있는 의료일군들의 정치사상적수양과 자질을 높이는 사업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건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정치일군들이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로 나가도록 한다면 보건일군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건강하게 만들어 그들이 공산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행본 1968년판 54—55폐지)

《보건일군들은 직업상 특성으로 보나 맡겨진 임무의 중요성으로 보아 누구보다 먼저 공산주의자가 되여야 하며 그것도 가장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되여야 합니다.》(우와같은책 55폐지)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의학대학을 비롯한 의학교육기관들과 의료부문에서는 의료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가장 철저한 공산주의자로 되게하며 의학과학발전에서 사대주의를 뿌리빼고 주체를 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함흥약학대학을 새로 창설하였으며 의학교육기관들의 학생모집인원수를 늘이고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고 현대 의학과학기술을 충분히 소유한 수많은 의사, 준의, 간호원자격을 가진 의료일군들을 양성해 내였으며, 현재 의료부문에서 일하고있는 의료일군속에서도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하는 기풍이 확립되였다. 오늘 우리의 보건일군들은 자기의 피를 뽑고 살과 뼈를 떼여내여 다 죽으나 다름없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며 소경이 눈을 뜨게하고있다.

1968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과 각 도 보건간부양성소를 물질기술적으로 잘 꾸리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된 간호원과 준의 등 중등보건일군들을 수많이 양성해 내였다.

또한 이해에 중앙보건학교를 신설하여 보건기관간부양성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전문과의

사 양성사업과 의사재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보건일군들의 정치기술실무수준을 한층 높이였다.

그리하여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주체적인 의학기술을 소유한 의료일군들이 수많이 보건부문에 진출하였으며 수많은 의사, 준의, 약제사, 조제사, 조산원들을 재교육하였다.

보건일군양성기관들에서는 나라의 자연부원을 인민보건사업에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며 근로자들의 로동 및 생활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였으며 거기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인민보건실천에 도입되였다.

특히 의학자들이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 림상의학을 전면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려 세우기 위한 투쟁을 벌린결과 일부 남아있는,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급성과 만성질병들을 완전히 없애는데서 큰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또한 현대적의학과 함께 동의학을 발전시키고 민간료법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과학연구사업에서도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의료기구 및 의약품생산공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7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하신 결론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와 여러 교시들에서 현실적요구에 맞게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과업을 주시였으며 그 해결대책을 밝혀주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구공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으며 의료부문에서 요구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얼마든지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이 공업분야에서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였으며 생산을 적극 전문화하며 약학대학과 연구기지를 새로 꾸리고 약초생산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리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부산물로도 수많은 합성의약품을 다량 생산하고 있으며 항생소공업까지 마련되였다.

최근년간 보건부문에서는 제약 및 의료기구 생산기지를 더 꾸리고 기존 생산면적과 설비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늘이며 품종을 확대하고 그 질을 개선하였다.

특히 1968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생약생산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분산되여있는 약초재배기지를 정비하여 약초생산을 전문화, 집약화하고 이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단위당수확고를 높이였으며 전인민적운동으로 약초를 가꾸고 걷어들이여 수매관리하는 체계를 세워 많은 생약을 생산하였다.

생약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생약을 원료로 하는 제약공업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각 도(직할시)에 있는 생약관리소와 각 시, 군 생약분소들을 더 튼튼히 꾸리고 도생약관리소의 제약직장을 제약공장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고 군인민약국의 생산기능을 높여 생약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생산량을 더욱 높이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병원, 진료소들에는 더 많은 의약품이 공급되였으며 이것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크게 리용되였다.

우리 나라 인민보건사업에서 달성한 이 모든 찬란한 성과들과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에 대한 그이의 끝없는 사랑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어린이보육교양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에 언제나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면서 제일 좋고 훌륭한것은 우선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셨으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셨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보육원, 교양원대회에서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혁명을 하고 건설을 하는것이 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한것이라면 어린이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 점차 모든 어린이들을 다 탁아소, 유치원에서 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450폐지)

경애하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헤아릴수 없이 간고하였던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늘 아동단원들과 어린이들을 념려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솜옷과 잠자리와 학용품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시였으며 그들을 친어버이사랑으로 키우고 교양하여 모두 열렬한 혁명투사로 교양육성하시였다.

또한 해방후 새 사회건설에 착수하던 첫시기의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가렬처절하였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도, 모든것이 다 파괴되였던 전후 폐허우에서도 김일성동지께서는 제일먼저 각급 학교들과 탁아소, 유치원, 애육원 등 아동교양 및 양육시설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여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양육교양하게 하시였고 그처럼 바쁘신 틈에도 공장과 농촌, 어촌 할것없이 가시는 곳마다 탁아소, 유치원에 들리시여 어린이들을 추울세라 더울세라 보살펴 주시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는 1966년 10월 20일 전국 보육원, 교양원대회를 직접 발기하시고 이 대회에서 탁아소, 유치원사업에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어린이들에 대한 당과 수령의 지극한 사랑과 끊임없는 배려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 공장과 기업소 그 어디를 가나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을 비롯한 어린이양육시설과 교양시

설이 아담하게 꾸려졌으며 여기에서 우리의 어린이들은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나고있으며 마음껏 뛰놀면서 교양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귀여운 어린이들을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우고 교양하며 녀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높은 덕성의 빛나는 구현인 동시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뚜렷한 표현이다.

탁아소, 유치원을 전국가적으로 잘 꾸려주며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1968년에 내각결정 제56호로써 구체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우리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따뜻이 키워주고 보살펴 주시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하여 언제나 깊은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그이께서는 1968년에 그 긴장된 정세에서도 어린이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하고 그들을 더잘 키우기 위하여 전체 어린이들에게 겨울양복과 솜외투, 겨울모자, 겨울신발과 양말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공급하여주시였다.

1968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탁아소, 유치원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5월 23일부터 사흘동안에 걸쳐 탁아소, 유치원지도일군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어버이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밑에 지난기간 탁아소, 유치원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그이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어린이들을 더 튼튼히 더 잘 키울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특히 탁아소, 유치원을 더 확장할데 대한 문제,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발전하는 현실과 그들의 특성에 맞게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보육원, 교양원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하면서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어버이 수령의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를 다지였다.

〔**어린이보육교양을 위한 지도사업의 강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8년 1월 6일에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탁아소, 유치원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 강화하도록 배려하여 주시였다.

어버이 수령의 극진한 배려와 지도에 의하여 중앙과 각 도, 시, 군 인민위원회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한 지도사업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혁저히 개선하였으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국가에서는 탁아소, 유치원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탁아소, 유치원을 더욱 알뜰히 꾸리고 더 잘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탁아소, 유치원군(시, 구역)》쟁취운동을 전사회적,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릴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탁아소, 유치원들은 더욱 아담하고 훌륭하게 꾸려졌으며 여기에서 우리의 어린이들은 수령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슬기로운 예지와 씩씩한 기백을 키우며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고있다.

〔**어린이보육교양시설의 개선강화**〕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보육원, 교양원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탁아소,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잘 키우고 교양하려면 보육원, 교양원들의 열성과 함께 여러가지 물질적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담하고 깨끗한 집이 있어야 하고 어린이의 양육과 교양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이 있어야 하며 아이들에게 먹일 좋은 음식물도 있어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452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밑에 어린이들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 국가적시책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탁아소, 유치원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있으며 그 액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돌리면서도 1968년도 탁아소, 유치원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지난해에 비하여 훨씬 더 높이였다.

그리하여 이해에 탁아소어린이수는 1.4배, 유치원어린이수는 1.3배로 늘었다.

최근 10년동안에 탁아소수는 83배로, 유치원수는 64배로 장성하였으며 탁아소어린이수는 87.4배로, 유치원어린이수는 51배로 늘어났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와 로동자구는 물론 녀성들이 일하는 그 모든 곳에 탁아소, 유치원이 설치운영되여 여기에서 어린이들은 국가적비용으로 훌륭히 보육교양되고있다.

또한 1968년 8월과 9월의 탁아소, 유치원지원월간에 국가적, 사회적 지원으로 탁아소, 유치원의 내외시설과 각종 교구비품, 놀이감과 운동유희기자재들을 더 보충해 주었다.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당과 국가에서는 어린이들의 교구비품과 놀이시설들을 생산하는 전문공장을 각 도(직할시)에 조직하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에 쓸 자금을 따로 조성하여놓고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시설들과 비품을 충분히 갖추며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는 곱고 질긴 여러가지 놀이감을 많이 생산하며 어린이들의 몸을 단련시키는데 필요한 잠주머니, 해빛쪼임대, 자외선등을 많이 만들어 줄 구체적대책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비품들은 충분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보육원, 교양원의 양성**〕 우리

어린이들을 그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보육원, 교양원대회에서 보육원, 교양원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보육원, 교양원들의 사업은 남의 집 아이보개일이 아니라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을 길러내는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며 우리 조국의 미래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443페지)

1968년에 국가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탁아소, 유치원사업의 직접적인 담당자들인 보육원, 교양원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어린이보육교양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녀성들로 보육원, 교양원대렬을 튼튼히 꾸렸다.

그리고 보육원, 교양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학습,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였다. 또한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교양방법적기능을 높이기 위한 학습기풍을 세우는 동시에 이동강습, 경험교환회, 방식상학, 교재토론회, 견학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그들의 자질을 체계적으로 높이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탁아소, 유치원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 교양원대학(또는 교원대학)에 유치원간부양성반을, 고등의학학교에 탁아소간부양성반을 각각 병설하여 탁아소소장, 유치원원장들을 재교육하고 시(구역), 군 보육원, 교양원양성소에서 보육원, 교양원들을 재교육하는 한편 보육원, 교양원들을 널리 통신교육망에 받아들여 양성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해당교육기관들에서는 국가가 제정한 교육강령에 의하여 교수요강을 철저히 집행하며 부단히 개선하고 교수요강의 질을 높여 탁아소, 유치원일군들의 정치기술실무수준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언어행동과 사상도덕적풍모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이 시기부터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년령, 심리적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깊이 알게 하며 모든 어린이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투사로 키우는데 유능한 보육원, 교양원들을 체계적으로 길러내고있다.

〔**어린이건강보호의 증진**〕 1968년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기 위하여 탁아소, 유치원을 위생문화적으로 잘 꾸리며 그들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부모들과 함께 특히는 보육원, 교양원들 그리고 해당병원, 위생방역소, 진료소, 아동병동 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어린이들의 건강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에 철저히 립각하여 예방접종사업과 건강검진사업을 계획대로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였다.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따라 국가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치료예방체계를 세우고 의약품, 의료기구 및 위생재료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었다.

또한 녀성들에게 산전산후의 유급휴가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아이가 많은 녀성들이 자녀교양을 잘 돌볼수 있도록 그들의 실정에 맞게 하루의 로동시간을 여섯시간으로 줄이였다.

그리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을 위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였다.

탁아소, 유치원들에 대한 정연한 공급체계를 확립하여 고기, 물고기, 기름, 암가루, 사탕, 과자, 닭알, 우유 등 식료품과 직물류들을 공급해주었다.

수령의 교시대로 튼튼한 공급기지를 꾸리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시(구역), 군에 탁아소, 유치원의 물자를 공급하는 상점을 조직하며 어린이식료품을 생산하는 전문공장과 작업반을 내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식료품을 더욱 많이 그리고 빨리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실로 국가적부담으로 탁아소,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며 나라의 수백만 모든 어린이들을 다 받아들여 앞날의 공산주의건설자로 훌륭히 키우고있는 우리 나라 탁아소, 유치원사업의 이 모든것은 자애롭고 고결한 덕성을 지니신 어버이 수령의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교 육

세상사람들로부터 《교육의 나라》로 불리우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사랑속에서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고있다.

수령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그 간고한 나날에도 조국의 광복과 삼천리 조국강토우에 세워질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조국광복의 위대한 강령에 《의무적인 면비교육》실시문제를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청과 아동단을 조직하시여 우리 나라 청소년운동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길을 열어주시였을뿐만아니라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는 아동들에게 학교를 지어주시고 두툼한 옷을 해결해 주시였으며 가렬한 전투와 행군속에서도 소년중대원들을 한품에 안아키우셨다.

해방후 새 사회건설의 첫시기부터 그이께서는 가장 훌륭한 집

이 우선 청소년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하여 차례지게 하시였으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으셨다.

후대육성을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계시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땅우에 마련된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여 가장 우월하고 훌륭한 교육제도를 세워주시였다.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와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한데 뒤이어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배합하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게됨으로써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소년학생들이 조선혁명의 참다운 후계자로 자랄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교육교양을 부단히 개선하도록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였으며 매시기 교육내용과 방도들에 대하여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키우는데서 교육기관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기초는 학교교육에서 닦아져야 합니다. …교육기관들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기본수단의 하나입니다. 다시말하여 교육기관은 국가의 문화교양자적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한개 기관으로서 사상교양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단행본 6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강령적교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인민교육기관들이 확고하게 견지하여야 할 공산주의적 교육학으로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후대 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며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키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 강령적지침으로 되고있다.

교육부문에서는 수령의 간곡한 교시를 높이 받들고 학교교육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주체를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1968년에 교육부문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통하여 수령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게 하였다.

또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그어느때 보다도 강화하였으며 계급교양을 기본으로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였다. 이리하여 청소년학생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하고 보위하며 수령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않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시켰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교교육이 우리의 혁명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교육교양사업으로 전환되였다.

학생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는 교육교양체계를 확립하고 학생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인입하며 그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학교, 사회, 가정 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한 사업 등이 우리 나라 학생들의 사상과 도덕, 학습과 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그의 위대한 생활력이 날을 따라 더욱더 발휘되고있다.

1968년에 후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육성사업에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환경속에서도 우리의 청소년학생들을 위하여 인민교육사업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1968년에 함흥에 약학 및 의료기구공업부문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함흥약학대학이, 서부석탄지대의 중심지인 개천에는 석탄공업부문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평남석탄공업대학이 창설되였으며 일하며 배우는 교육체계인 구성공업대학, 평남공업대학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학들이 새로 창설되였다.

특히 이해에 어버이 수령께서는 공화국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학생복, 솜외투, 털모자, 털신까지 공급해주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각급 학교들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269만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하고있다.

지금 인민경제 모든부문에서는 정전직후에 비하여 19배나되는 42만 5,700여명의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이 일하고있다.

1968년에 교육부문에서는 김책공업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대학들이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어버이 수령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속에서 자기대학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총화하였다.

김책공업대학 창립 스무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창립되였고 그이의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발전하여온 김책공업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1968년 10월, 어버이 수령을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스무돐을 맞이하였다.

1948년에 경애하는 수령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김일성종합대학의 공학부와 운수공학부가 분리되여 김책공업대학이 창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자체의 민족기술간부양성의 튼튼한 기지를 가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일곱차례나 몸소 이 대학을 찾으시여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교육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였을뿐만아니라 대학사업의 모든 부문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와 육친적인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창립이래 김책공업대학은 사상혁명과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대학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교직원, 학생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며 혁명의 후계자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공산주의적혁명가로 육성하는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학은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난 20년간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대학은 창립이래 교육내용에서 당정책학습을 첫자리에 놓았으며 실험실습과 전공실습을 강화하는 등 그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정력을 다 하였다.

그리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지히 확립되고 현대과학기술을 충분히 소유한 수많은 민족기술간부들을 양성해 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는 창립스무돐을 맞는 김책공업대학에 공동축하문을 보내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대학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였다.

원산농업대학 창립 스무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창립된 원산농업대학은 1968년 10월에 자기의 창립스무돐을 기념하였다.

대학은 지난 20년간에 농업기술인재양성의 믿음직한 기지로, 우리 당의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거점의 하나로 강화발전하여온 자랑찬 로정을 총화하였다.

원산농업대학은 창립이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육부문에주신 교시와 그이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에 이바지할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고 농업기술기능을 충분히 소유한 기술인재를 수많이 양성해 내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창립 스무돐을 맞는 이 대학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였다.

평양의학대학창립 스무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손길아래서 태여나고 자라온 평양의학대학은 이해 10월에 창립 스무돐을 맞이하여 의학교육의 최고전당으로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총화하였다.

평양의학대학은 창립이래 철저히 조선혁명에 복무하는 당의 대학으로, 현대적 시설을 갖춘 의학부문의 종합적인 대학으로 우리 나라 의학과학기술발전의 훌륭한 거점의 하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서고 현대의학기술을 충분히 소유한 수많은 의학기술인재들을 양성해내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창립 스무돐을 맞는 이 대학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였다.

평양사범대학 창립 스무돐;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사랑과 뜨거운 배려밑에 창립되고 발전해온 평양사범대학은 1968년 10월에 자기의 창립 스무돐을 기념하였다.

수령께서 교육부문에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평양사범대학은 창립이래 대학을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였고 당과 수령을 위해서라면 목숨바쳐 싸울줄 아는 교육일군들을 수많이 양성하였다. 오늘 평양사범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교육일군들은 우리의 후대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창립 스무돐을 맞는 이 대학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였다.

해주교원대학 창립 스무돐; 1968년 11월에 해주교원대학은 자기의 창립 스무돐을 기념하였다.

어버이 수령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창립이래 이 대학은 미더운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는데 크게 이바지할 교육일군들을 수많이 양성해 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는 창립 스무돐을 맞는 이 대학에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평양건설대학 창립 열다섯돐; 1968년 10월에 우리 나라 건설기술일군양성의 전당인 평양건설대학은 자기의 창립 열다섯돐을 기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창립된 이 대학은 지난기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수많은 건설기술일군들을 양성해 내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창립 열다섯돐을 맞는 이 대학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였다.

함흥기술사범대학창립 열돐; 1968년 12월에 중학교의 기초기술과목교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함흥기술사범대학은 자기의 창립 열돐을 기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가장 밀접히 결합시킬수 있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초기술과목교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 기술사범교육기관을 창설하시였다.

수령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창립된 이 대학은 지난 십년동안 그이의 지극한 사랑과 배려밑에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보통교육부문의 기초기술과목교원을 양성하는 튼튼한 기지로 장성발전하여왔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는 창립 열돐을 맞는 이 대학에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평양체육대학 창립 열돐; 우리 나라 체육기술인재양성의 전당인 평양체육대학은 1968년 10월에 자기의 창립 열돐을 기념하였다. 이 대학은 창립이래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높은 체육기술을 소유한 수많은 체육기술인재들을 양성해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는 창립이래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체육기술인재를 수많이 길러낸 이 대학에 공동축

하문을 보내였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였고 1958년에는 동방에서 맨 처음으로 력사적인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된데 뒤이어 1967년부터는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배합하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잘 실시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잘 실시하는것입니다. 우리는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잘 실시하여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나라의 생산력발전과 기술혁명의 빠른 속도에 따라세워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70—571페지)

보통교육부문에서는 수령의 이 교시를 높이 받들고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잘 실시하며 교육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적 요구에 따라세우기 위하여 교원, 학생들 속에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모든 학교를 사상혁명의 기본수단으로 문화혁명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였다.

보통교육부문에서는 교원, 학생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매 시기 제시되는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제때에 침투하고 학습하는 당정책교양체계를 철저히 세웠다.

수상동지의 교시학습과 교수과정을 통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들에서는 교육부문에 주신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 그리고 수상동지의 현지교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들이 진행되였다.

이 과정에 교원, 학생들은 수령의 위대한 교육사상을 따라배우고 인민교육사업에 돌려주시는 그이의 두터운 배려에 대하여 더욱 깊이 체득함으로써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해 목숨바쳐 싸울줄 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다운 역군으로 되기 위한 혁명적 열의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

특히 보통교육부문 학교들에서는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 《김일성원수혁명활동연구실》을 더 잘 꾸리고 이를 거점으로 수령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혁명사상을 따라 배웠다.

그리하여 교원, 학생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촉진하였으며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우는 학교교육사업을 성과있게 수행해왔다.

이해에 학교들에서 1967년에 비하여 수십만명의 학생들을 더 받아들이는것과 관련하여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된 많은 대학졸업생들을 각급 학교 교원으로 배치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교원들에 대한 당정책강습과 과목강습, 경험교환회, 방식상학을 정상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렸고 그들의 정치 실무적 자질을 한계단 높였다.

또한 당과 국가에서는 학교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데서 인민정권기관의 역할을 높이고 사회적관심을 불러일으켜 《모범교육군(시, 구역)》칭호 쟁취운동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학교들을 모범학교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왔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도움을 주는 참고서적과 학용품 그리고 실험기구를 비롯한 교구비품들을 충분히 생산공급하였다.

이해에 이 부문 학교들에서는 과정안, 교수요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교육내용에서 당정책을 첫자리에 놓고 학습하게 하였으며 일반지식을 더 넓힐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를 내왔다.

동시에 교수교양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과정안에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혁명전통교수시간을 많이 늘이고 인민학교, 중학교들에서 《공산주의도덕》과목 교수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위한 일련의 대책도 취하였다.

이해에도 학생들 속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구호밑에 《모범분단》, 《천리마학급》칭호쟁취운동을 활발히 벌려 자기들을 수령의 충직한 참된 전사로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참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학생들의 몸을 단련시키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전개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생들속에서 쓸모있는 지식과 함께 공산주의적도덕교양 그리고 체육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옛날부터 지덕체가 다 갖추어져야 한다고 한것이 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반드시 그들속에서 몸을 단련하는데 큰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58페지)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교육부문에서는 학교들에 체육기자재를 보충하여 체육설비를 완성하는 한편 체육교수의 질을 높이며 과외체육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해에 특히 전국적으로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전달계주, 전국중학생체육대회, 전국중학생집단체조경기대회, 전국중학생스케트 및 스키대회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대회를 조직함으로써 학생들을 튼튼한 체력을 소유한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고등기술교육〕 우리 나라의 각지에 설치되여 있는 고등기술학교들은 해마다 수십만명의 학생들을 받아들여 그들을 기수, 중등전문가로 양성해 내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빠른속도로 전진함에 따라 기술인재의 급격한 장성에 그 질을

따라 세워야할 긴절한 과업이 이 부문학교들에 중요하게 나섰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1968년에 보통교육부문에서는 고등기술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학제들을 새로 개편하였으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사상, 기술, 문화혁명에 더 잘 복무할수 있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현대과학기술리론을 소유한 기술자들을 양성할수 있도록 학과목의 지표와 교수시간을 훨씬 늘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고등기술교육부문에서는 새학제에 의한 교육내용에 맞게 과정안, 교수요강을 새로 작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새로작성되는 과정안에 수령의 위대한 교육사상과 우리 당정책이 철저히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정책과목교수를 비롯한 정치과목교수의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과목들을 세분화하여 새로운 지표를 더 내왔으며 기초과학기술과 중요기초과학기술부문의 학제를 1년 더 연장하였다.

또한 고등기술교육부문에서는 사회과목교수의 과학사상성을 더욱 높여 학생들에게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당정책의 정당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교수에서 반드시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결부된 산기술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교수에서 과학사상성을 높이며 교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여주기 위하여 부문별 교원강습을 조직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기술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오랜기간 생산기술교육을 천시하던 낡은 교육관념을 청산하고 학교교육과 실생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새 세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길,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창설하여 주시였다.

1968년에 이 교육부문에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기술학교들을 더 설치하고 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에 많은 힘을 돌렸다.

이 부문 학교들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원 학생들속에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하여 교수내용을 고쳤을뿐만아니라 학생들에게 자기가 실지 일하는 부문의 전문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과정안을 세분화하며 지표를 더 내옴으로써 전문기술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할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학생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회정치리론과목교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연기술과목교수에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기술발전에 따르는 쓸모있는 현대과학기술적내용을 충분히 담음으로써 그들의 사상기술지식수준을 한계단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이 교육부문에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학생들이 자기가 실지 일하는 분야에서 전문기술을 가지고있는 조건하에서 주간학생들에 비하여 실습기간을 줄이고 실험교육의 시간수를 더 늘이였다.

또한 전체 학생들에게 해당 전공부문의 교과서와 참고도서들을 비롯한 모든 학습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 주었다.

그리하여 이해에도 일하면서 배우는 기술교육을 통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이바지할 기수 및 중등전문가들이 수많이 나왔다.

〔**사범교육**〕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새로운 조건에 맞게 1968년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각급학교 교원들의 양성을 전문화하며 그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사범교육의 체계를 일부 고치고 더욱 완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사범교육사업을 다른 교육사업에 앞세워 우리 당과 혁명의 붉은 교육자의 후비를 더잘 육성할것을 절실히 요구하는 현실에 맞게 각도에 정연하게 설치된 고등기술학교, 중학교 교원들을 양성하는 사범대학과 인민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들을 사범교육의 훌륭한 진당으로 꾸리는데 힘을 돌렸으며 중학교의 기초기술과목 교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함흥기술사범대학을 더욱 튼튼히 꾸리였다.

사범교육의 교수교양사업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교조주의, 사대주의, 봉건유교사상, 부르죠아사상, 온갖 기회주의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동시에 사범대학과 교원대학들에 공산주의교양학과를 새로 내왔고 일부 사범대학에는 당정책사학과와 녀성교육학과 등을 새로 내옴으로써 사범교육에서 로동계급적선이 확고히 선 교육체계를 확립하였다.

사범교육부문 각 대학들에서는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강화할데대한 수령의 교시를 받들고 학생들에게 교수방법, 교양방법, 학교관리방법을 가르쳐줄수 있도록 실험실, 연구실들을 더잘 꾸렸다.

이를 위하여 평양사범대학에 교수법연구실을 모범으로 꾸리고 여기에서 창조된 경험을 각 대학에 일반화 하기 위하여 방식상학과 견학을 광범히 조직하였다.

교원들의 자질을 짧은기간내에 더욱 높일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교원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 한편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원대학의 통신교육, 고등기술학교, 중학교, 인민학교 교원 및 유치원교양원 자격시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취함으로써 그들의 정치리론수준과 전문지식수준을 한계단 높이였다.

이해에 교원양성부문 각급학교들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배운 리론에 근거하여 인민학교, 중학교들에 내려가 교편을 직접 잡고 교수교양에 참가하면서 학교를 도와주도록 하는 현실침투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는 한편 그들을 생산로동 및 사회적 사업에 적극 참가시켰다.

이와 같이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

히하고 실천투쟁을 통하여 혁명적단련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로, 유능한 사회정치활동가로 튼튼히 준비된 수만명의 교원들을 길러 각급학교들에 내보내였다.

〔고등교육〕 이해에 고등교육부문에서는 평남석탄공업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대학들이 새로 창설되였으며 교육시설들이 더욱 튼튼히 정비되였다.

이해에 특히 고등교육부문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1968년 3월 14일에 주신 교시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를 높이 받들고 교육기관들을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기본수단으로, 사상교양의 중요한 무기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우선 고등교육부문에서는 교직원, 학생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사업의 첫 자리에 놓고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연구와 교수과정을 통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며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이에 있어서 먼저 교원들부터 혁명화하는데 중요한 력량을 기우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교육사업은 영광스러운 혁명사업입니다.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교양자들자신이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되여야하며 혁명가로 되여야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43페지)

수령의 이 교시를 높이 받들고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 함흥의학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부문 각 대학들에서는 교원자신들부터 먼저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 하기 위하여 강좌들에서 수상동지의 로작, 현지교시를 부문별로 깊이 있게 학습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였다.

또한 교원들의 조직생활을 더욱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을 산 정치활동가로 만들기 위해서 수시로 로동계급을 비롯한 군중속에 들여 보내여 당정책의 선전자로 되게 할뿐만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을 배우게 하며 학생들에게 생산과 결부된 산 지식을 배워주도록 하였다.

고등교육부문 각 대학들에서는 또한 과학연구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수상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과정안과 교수요강, 교재와 교과서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일관되고 우리나라 실정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으로 만드는데 력량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교수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당정책화하는데 힘을 돌림으로써 사회과학부문 과목교수는 물론 자연과학부문의 과목교수에서도 해당부문의 당정책을 밀접히 결부시켜 하나의 기술을 배워주어도 우리 나라 혁명에 이바지하고 인민경제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게 하였다.

1968년에 고등교육부문에서는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학생들이 배운 리론을 실천을 통하여 더욱 공고히 하고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다.

김책공업대학에서만 하여도 제철, 제강, 유색금속, 야금을 비롯한 수많은 실습시설들을 더 보강하거나 새로 꾸려놓고 공장에서의 현지생산실습과 함께 교내실습을 강화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으며 이것은 인민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함흥화학공업대학에서는 생산현장에서 강의도하고 실습도 하는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공장의 기계제품생산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학생들의 전공과목기술수준도 한층 높였다.

원산농업대학에서도 천리마청산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곳에 30여개의 현지실습지와 수많은 교내실습장을 잘 꾸리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종합적기계화체계에 의한 새로운 벼농사법에 대한 실험실습을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생산실습과정을 통한 이러한 교육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미 배운 리론을 종합적으로 실천활동을 통하여 검증해보며 전공과목기술을 리론실천적으로 더욱 깊이있게 알도록 함으로써 졸업후 즉시 생산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학생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사회정치활동에 참가시키기 위한 사업도 적극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리론수준도 한층 높이며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도 더욱 촉진시켰다.

이해에 고등교육부문에서는 교원, 학생들속에서 《천리마학급》, 《천리마대학》칭호쟁취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적극 발양시켰으며 항상 대학들이 혁명적기백과 공산주의적미풍으로 차넘치게 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후대교육에 대한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정규교육체계와 함께 공장대학, 통신대학 등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발전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에서 떨어지지 않고 자기의 전공부문과 희망에 따라 마음껏 고등교육을 받고있다.

1968년에는 당과 수령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평남기계대학을 비롯한 여러 공장대학이 새로 많이 창설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 통신대학도 주간대학과 함께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장소가 아니라 학생들을 혁명가로, 유능한 사회정치활동가로 교양육성하는 강력한 기지로 되고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부문에서는 교육교양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하여 교수내용을 전반적으로 개

선하는데 중심을 두고 교수요강과 과정안, 교과서와 참고서에 수상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해에 새로 개선한 과정안에는 학생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교육내용에서 당정책을 첫자리에 놓은 한편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생산기술발전에 따라 실지 써먹을수 있는 과학기술을 배울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로동자대학생들이 자기가 일하는 분야의 일정한 전문기술을 가지고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주간학생들보다 생산실습시간수를 줄이고 그 대신에 과학리론과 실험교육을 더많이 받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이 부문 교원들은 과외시간의 대부분을 학생들이 일하는 생산현장에서 보내면서 생산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로하여금 교수내용을 쉽게 리해할수 있게 하며 배운 지식을 생산실천에서 제때에 써먹을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총림공업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부문의 각 대학들에서는 로동자대학생들의 힘으로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완성하였으며 공장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함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요구되는 기계 및 생산설비를 보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얼마나 거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뚜렷이 실증해준다.

과 학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업으로 제기되는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나라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당면한 기술개건사업을 원만히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과학연구사업의 기본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 기본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것입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만 과학자들의 창발성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할수 있으며 자기 나라의 자원, 자기의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의 경제를 더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9페지)

우리 당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매우 짧은 기간내에 청소한 우리의 과학을 개화기에 들어설수 있게 하였으며 멀지않은 장래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울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놓았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68년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자신들을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었다.

또한 주체적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렸으며 이와 함께 당과 로동계급의 위업에 끝까지 충실한 인테리로써 자신들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한편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전문기술지식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생산현장과의 련계밀에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진행한 결과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욱 빨리 추진시킬수 있는 주체적인 과학기술의 성과를 이룩하였다.

1968년에 사회과학부문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40여년간의 피어린 투쟁으로 이룩된 혁명적업적을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하고 해설하는것은 사회과학앞에 제기된 선차적이며 근본적인 문제이다.

사회과학부문 과학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기 위하여 자신들부터 먼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였다.

1968년에 사회과학부문에서 연구한 성과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전국사회과학부문 과학토론회와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보고연구를 위한 과학토론회,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전국교육과학연구토론회와 김일성종합대학 학술발표회 등 수많은 토론회와 발표회들에서 종합발표되였다. 이 모임에서 토론되고 발표된 수많은 론문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연구하는데 바쳐졌다.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전국사회과학부문 과학토론회에서는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 《주체사상은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 《혁명의 무기로서의 사회주의문학예술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등 20여제목의 연구성과들이

발표되였다.

또한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보고연구를 위한 전국과학토론회에서는 경축대회보고에서 천명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창조성을 과학리론적으로 밝히고 그것이 우리 나라 혁명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령적지침이라는것을 론증하는 14건의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토론회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보고에서 천명하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대한 문제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성을 밝히는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리론실천적인 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은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고 론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나라의 북반부에 사회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자면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41페지)

《적대계급의 준동이 있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으며 나라의 공업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지 못한 사회는 아직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책 43페지)

토론회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의 완전한승리에 대한 이 명제의 위대성을 밝히였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그이의 탁월한 혁명사상의 위대성도 론증하였다.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전국교육과학연구발표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교육사상과 그의 빛나는 구현에 대하여, 그의 위대성과 독창성, 생활력에 대하여 연구한 과학성과들인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은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교육학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소년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혁명투사로 육성하는 독창적인 혁명적교육방도를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의 빛나는 구현인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우월성과 거대한 생활력》,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 등 46개 제목의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다음으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연구하는것은 사회과학앞에 제기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선렬들의 불요불굴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본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50페지)

수령의 교시를 높이받들고 1968년에 사회과학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를 과학리론적으로 깊이 연구하며 혁명전통내용전체를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혁명전통연구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들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전국사회과학부문 과학토론회에서 발표된 론문 《혁명전통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과 그외 수많은 론문들,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경축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보고연구를 위한 전국과학토론회에서 발표된 수많은 론문들을 들수있다.

또한 1968년에 사회과학부문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주체를 세워 허무주의와 복고주의를 반대하고 당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을 결합시키기 위해 적극 힘썼다.

우리 말을 주체성있게 발달시키기 위한 어휘정리사업을 대중적토론의 방법으로 진행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1964년 1월 3일과 1966년 5월 24일 교시를 높이받들고 출판물들과 방송을 통하여 《우리말 다듬기》토론을 광범히 진행하여 출판물들과 학교교과서 및 기판들에서 표준으로하여 쓸수있는 우리말의 기초를 묶을수 있게 되였다.

1968년에 기술과학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제시하신 강령적인 교시를 높이 받들고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연구사업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였다.

과학연구에서 주체확립—이것은 과학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무기로된다. 그러므로 주체확립은 과학발전의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내원료로서 공업생산을 발전시키며 부족한 원료는 더 찾아내고 없는 원료는 대용자재로 만들며 우리의 실정에 맞게 기술혁명을 촉진하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였다.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하는 비날론생산과 갈을 원료로하는 인조섬유의 공업화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룩된 경험에 기초하여 1968년에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부단히 개척해나갔다.

여기에서 많은 력량이 돌려진것은 기술공학 특히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이였다.

1968년에 기술과학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에서 얻은 성과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전국자연기술과학부문 학

술발표회에서 종합발표되였는데 이 발표회에 제기된 500여건의 론문중에서도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을 비롯한 기초과학과 최신과학분야에서 긴절하게 나서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과학원기계공학연구소에서 내놓은 우리 나라 무연탄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연소방법을 내용으로 한 론문 《비등식 화실 보이라에 대한 연구》, 어렵고 복잡한 기구학적문제를 해결하는 힘든 작업공정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는데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론문 《경사지용 뜨락또르에 대한 연구》, 기계공업의 모체로 되는 공작기계들을 자동화하며 새로운 특수정밀기계와 자동 및 반자동기계를 연구도입하는데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를 해명한 론문 《숫자식프로그람조종체계의 원리적용 연구》를 비롯하여 선진적인 형단조프레스방법, 형가공 및 압착가공분야에서의 새기술을 취급한 론문들은 기계공업부문의 현실적문제를 해명한것으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채취공업부문학술발표회에 제기된 《채탄장기계화에서 얻은 경험》, 《완경사중 박층조건에서 장벽식채탄법 도입경험》등 60여건의 론문들에서는 우리 나라 광산탄광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업과 물리탐광 및 지구화학에 대한 연구사업 그리고 지압현상을 밝힌 기초우에서 효과적인 채광 및 채탄법을 발전시키고 새 기계설비를 연구도입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채취공업이 새기술에 토대하여 급속히 발전하고있음을 여러모로 확증하였다.

화학부문학술발표모임에서는 《우리 나라 원료에 의한 카리비료제조에 대한 연구》, 《살초제혹합에 대한 연구》등 수많은 론문들이 제기되였는데 이 론문들은 현존비료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높이며 우리 나라 자원을 가지고 린비료와 카리비료, 미량원소비료를 생산하며 살초제를 비롯한 각종 농약들을 생산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한것으로써 큰 의의를 가진다.

교통운수부문학술발표회에서는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견인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철도의 통과능력을 높일데 대한 실천적방도들이 토론되였다.

론문 《평라선통과능력제고대책에 대하여》와 《전기기관차의 성능제고를 위한 연구》등 많은 론문들에서는 인민경제발전에서 선결조건으로되는 교통운수의 발전을 앞세울데 대한 수상동지의 교시관철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음을 여러모로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과학자들과 과학연구기관 호상간의 련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간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70페지)

1968년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수령의 이 교시를 받들고 과학연구사업을 생산현장에 더욱 접근시켜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함으로써 당면한 기술개건사업의 촉진에 이바지하였다.

과학원 고분자연구소 과학자들이 공장의 수지제품원료생산자들로부터 제기된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기술혁신안을 그들과 힘을 합쳐 짧은 기간내에 완성한것을 비롯하여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카리, 린 비료를 생산할수 있게하였으며 새로운 가소제를 찾아내여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로서 질좋은 박막까지 생산할수 있게하는 과학적성과를 이룩하였다.

농약연구집단은 우선 화학부산물들과 우리 자체의 원료를 충분히 리용할수 있도록 과학연구범위를 더욱 넓히면서 전공분야에서 제기되는 과학리론 및 실천적문제들을 해명하고 그 실험실적 생산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화학부산물에 의한 일련의 농약생산에 성공하고 새로 건설되는 농약직장의 조업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농업과학연구부문 과학자들은 섬유의 길이가 20~30센치메터 더 긴 새로운 아마종자를 길러내고 그것을 량강도의 전반적지역에 일반화하였으며 고지대에 알맞는 남새종자를 길러내고 가꾸는 방법을 연구해 내여 높은 산지대에서도 남새를 자급자족할수 있게 하였다.

1968년에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과학원과 꾸바공화국 과학원간의 1969—1970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의정서가 평양에서 조인되였으며 조쏘과학기술협조상설분과 위원회 제1차회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는데 여기에서는 1968년도 두 나라간에 진행될 과학기술협조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의정서를 조인하였다.

문학예술

우리 나라 문학예술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문예사상이 구현된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이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대렬이 오늘과 같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친 문학예술인들의 대부대로 장성한것도, 우리의 문학예술이 전면적인 개화기에 들어섰으며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이며 가장 아름다운 예술로 꽃피게 된것도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직접적인 배려와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미 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힘차게 고

무추동하고 강력한 정치사상적무기로써 인민의 리익과 혁명의 리익에 복무해야 한다는 철저한 당적이며 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예로선과 활동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시기 몸소 건설하신 혁명적문학예술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에 기초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민족문학예술이 나아가야 할 가장 현명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시종 이 로선에 립각하여 혁명과 건설의 매단계마다 문학예술부문 앞에 새로운 방향과 방도들을 천명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문학예술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광활한 전망을 열어주시였을뿐만아니라 개별적작품들의 사상예술적성과와 그의 시정방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였으며 작가, 예술인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려주시고 그들의 창작조건과 생활상문제에 대해서까지 세심한 육친적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고계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무려 1천200여회에 걸쳐 우리 문학예술부문에 직접적인 지도를 주시였으며 작가, 예술인들이 나아갈 길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문학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한 작가를 만나시고도 친히 식사를 같이 나누시면서 무려 9시간동안이나 밤이 지새도록 혁명문학창작의 소재들까지 일일히 말씀하여 주시는가 하면 어느한 창작가의 작품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몸소 10여회나 보시고 작품의 주제로부터 하나하나의 장면과 제목에 이르기까지 고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오늘과같이 찬란하고도 전면적인 개화기에 들어설수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문예정책을 관철하여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와 현시기 우리 근로자들의 장엄한 투쟁모습을 형상화한 수많은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였습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로동자와 농민의것으로 되였으며 광범한 군중속에서 더욱 찬란히 꽃피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89페지)

당과 수령의 세심한 지도와 극진한 배려속에서 지난기간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과 《천리마동상》과 같은 불멸의 기념비적작품들을 비롯하여 서사시 《백두산》, 장편소설《두만강》(1부), 대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연극 《승리의 기치따라》, 《우리의 어머니》, 《붉은 선동원》, 기록영화들인 《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 《우리의 어머니 강반석녀사》, 예술영화들인 《분계선마을에서》, 《정방공》, 《한지대장의 이야기》, 《최학신의 일가》, 《성장의 길에서》(1, 2부), 《강물은 흐른다》, 《유격대의 오형제》(1, 2, 3부), 《마을사람들속에서》, 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음악무용극 《밝은 태양아래》, 무용극 《붉은기발》, 군무 《고난의 행군》, 유화 《보천보의 횃불》, 《진격의 길에서》등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우수한 예술작품들을 내놓음으로써 근로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인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세계선진적인민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고있으며 《천리마조선》의 《황금의 예술》로 《주체의 조국》의 《혁명적예술》로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문학예술은 그 어떤 좌우경적편향도 모르고 오직 당과 수령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여 왔으며 철저히 당적이며 인민적인 투쟁의 문학예술로 되였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의 문예정책을 높이 받들고 당사상전선의 일익을 믿음직하게 담당해나가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을 적극 고무하는 강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복무하고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전위적예술로서 세계의 진보적문학예술, 혁명적문학예술의 모범으로 되고있다.

1968년에 우리 문학예술인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과 그이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높은 덕성을 형상화하는데 온갖 창조적열성을 바쳤으며 수령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혁명의 시대에 상응한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문학예술분야에서는 수령의 위대한 풍모와 고매한 덕성을 빛나게 형상한 작품들과 위대한 수령의 혁명적가정에 대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여 우리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단편소설《눈석이》, 연극 《승리의 기치따라》, 《우리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기록영화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과 《우리의 어머니 강반석녀사》, 가요들인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국립민족가극극장이 창조한 민족가극《해빛을 안고》중에서 주인공의 노래), 《김일성원수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위대한 어머님의 사랑》, 조선화《천리를 걸으시여》, 유화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오》, 《결전을 앞두고》, 출판화 《합에 오신 수상동지》, 《명신학교운동회날에》, 《부녀회원들속에 계시는 강반석녀사》 등은 이 주제 분야에 바쳐진 우수한 작품들로서 우리의 혁명적인 문학예술의 보물고에 새로운 기여를 하였다.

1952년부터 1953년 7월까지의 준엄한 력사적시기를 시대적배경

으로 하고있는 연극 《승리의 기치따라》(희곡창작사집체작, 천리마극립연극극장 만경대창작단창조)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영광에 찬 승리에로 인도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높은 덕성, 천재적군사전략가로서의 그이의 위대한 풍모를 진실하고도 생동한 예술적화폭속에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작품은 또한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군인들과 우리 인민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16개국무력침공자들을 쳐물리친 빛나는 승리에 대하여, 그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에 대하여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힘있게 펼쳐보였다.

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달성할수있은 강위력한 힘의 원천이 바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음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여 주었으며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쳐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미제침략자들의 멸망상을 잘 보여주었다.

조선기록영화촬영소 만경대촬영단에서 만든 장편천연색기록영화 《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혁명가로, 탁월한 혁명의 수령으로 키우시였으며 일생을 조국의 광복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신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후대교육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자이시며 강의한 의지와 고매한 풍모, 높은 덕성을 지니신 견결한 혁명가이신 김형직선생의 생애와 혁명활동에 바쳐진 작품으로써 이해 문학예술부문의 귀중한 성과로 된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을 따라 배우며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으며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하기에 모든 힘을 다하고있는 때에 이 영화를 만들어 내놓은것은 참으로 우리 문학예술의 자랑이며 영예로 되는것이다.

영화에서 보는바와 같이 김형직선생의 전생애는 일편단심 나라의 독립과 후손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열렬한 애국자의 생애였으며 어떤 시련속에서도 꺾일줄 모르는 굳센 의지,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열정과 미래에 대한 굳은 확신으로 충만된 혁명가의 빛나는 생애였으며 온가족과 친척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혁명가로 교양하시였을뿐만아니라 청소년들을 《원대한 뜻》을 가진 애국자로 교육교양하신 진정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자의 생애였다.

영화는 김형직선생께서 나서 자라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4천만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만경대와 선생께서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보급 이전시기의 가장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조직하신 봉화리 그리고 점차 반일혁명투쟁무대를 넓혀 나아가신 중강진, 림강, 팔도구, 무송 등지의 사적들과 유물들을 화면을 통하여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혁명적투지를 가지고 새력사의 새벽길을 향하여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신 김형직선생의 빛나는 투쟁모습을 힘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사회안전성 붉은기연극단이 창조한 연극 《우리의 어머니》는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악랄하게 강화되고 이에 항거하는 대중들의 폭력투쟁이 앙양되던 1920년대말～1930년대초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일유격대창건을 준비하던 때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품은 바로 조선혁명의 위대한 전환이 마련된 이 거대한 력사적시기에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녀성해방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신 불굴의 공산주의투사이시며 조선녀성의 가장 위대한 전형으로서의 강반석어머님의 빛나는 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으며 자제분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우신 위대한 혁명가의 어머니로서의 고결한 풍모와 높은 덕성, 아름다운 품성을 여러모로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연극을 통하여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어머님의 투쟁정신과 혁명적애국사상, 강의성과 불굴의 투지,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시는 탁월한 정치활동가로서의 어머님의 풍모와 아름다운 인품을 배우며 대를 이어 끝까지 혁명하기 위하여 사회와 가정을 어떻게 혁명화하여야 하는가를 배우게 된다.

이 연극을 창조함에 있어서 창조집단배우들의 소박하고 진실한 연기는 주인공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성철이와 성남이를 비롯하여 어머니를 둘러싼 기타 등장인물들의 성격창조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연극《우리의 어머니》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높이 받들고 사회안전성연극단 창조성원들이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합쳐 1968년에 이룩한 우리 문학예술의 특출한 성과작의 하나로 된다.

오늘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그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혁명전통주제의 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하는것은 전체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이 주제분야에서 선차적으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를 형상화한 걸출한 작품들을 창작하는것이였다. 이해에 우리 문학예술은 가요 《포평나루터》, 조선화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 《보천보의 총소리》, 《영광스러운 우리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내놓았다.

또한 혁명전통주제작품창작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무한한 충성심과 15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 그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고귀한 투쟁업적과 경험 그리고 각종 투쟁형태와 방법을 옳게 묘사한 예술영화들인 《유격대의 오형제》(1, 2, 3부), 《마을사람들속에서》, 《한녀공작원》, 민족가극 《해빛을 안고》(국립민족가극극장 창조) 등이 창작됨으로써 우리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함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4년 11월 7일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작품을 통해서 혁명가의 일생이라는것이 간고한것이지만 한번 각오하면 그렇게 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청년들을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교양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50페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창조집단은 바로 문학예술부문에 주신 수령의 이 교시를 창작활동의 유일한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그의 관철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를 훌륭히 창조해내였다.

영화는 작품의 중심주인공들인 준하(사촌형), 준여, 준민, 준호, 준식의 투쟁과 생활을 중심으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방대한 력사적이야기들을 폭넓게 보여주면서 그들 오형제와 그들의 온 일가가 어떻게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수령께 모든 충성을 다하였는가를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이 작품의 성과와 특징은 무엇보다도 1930년대의 시대상을 주인공들의 운명선과 실생활을 통하여 폭넓게 그렸으며 이로부터 영화의 화면마다에 생활적정서가 풍만히 흘러넘치고있는데 있다.

천연색예술영화 《마을사람들속에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로부터 직접 임무를 받고 적구에 들어간 녀성지하공작원이 각계각층군중을 교양하여 조국광복회에 묶어세우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형상하였다.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민족통일전선체에 묶어세워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 올리며 조국의 광복을 더욱 앞당길데 대한 수령의 원대한 구상과 방침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높은 예술적형상속에 보여준 작품으로서 이해 영화예술의 높은 성과로 된다.

이해에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조선화《적함사냥군》, 유화 《문경고개》, 《녀성보잡이》 등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1930년대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세운 불멸의 위훈과 그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용감성을 그린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또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관철에로 불러일으키고있는 가요 《10대정강의 노래》,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우리의 천리마기수들에게 주신 수령의 교시를 기본내용으로하여 만든 가요《천리마작업반행진곡》그리고 그들의 창조적로력투쟁을 형상한 예술영화《한 작업반에서》, 조선화《용해》를 비롯하여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의 장엄한 로력투쟁과 천리마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수많이 창작되였으며 단편소설《총소리가 울려퍼진다》, 유화 《4. 19의 용사들》 등 남조선혁명임무수행에 바쳐진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이 작품들은 우리의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남반부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계속혁명의 사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968년에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영광스러운 우리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과 우리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이 경축행사들에 바쳐지는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한것으로 하여 이채를 띠였다.

평양시내 3천명 예술인들이 새로 창조한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과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창조한 노래와 춤 《수령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작품들과 문학 및 음악부문 현상응모에 당선된 작품들을 그 실례로 들수있다.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은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 15성상에 걸치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마침내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해방후 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우리나라를 오늘과 같은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4천만 조선인민이 드리는 영광과 충성의 송가이며 날로 륭성발전하는 천리마조국에 대한 열렬한 찬가이다.

일제통치의 검은 구름이 내려덮였던 그때로부터 1930년대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과 조국의해방, 평화적건설시기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의 방대한 력사적시기를 포괄하는 이 작품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이 승리에서 승리를 이룩하여 온 영광에 찬 투쟁로정을 거대한 서사시적화폭속에 집대성한

빛나는 예술적창조물로서 수령의 혁명적문예사상을 관철하는 길에서 우리 문학예술이 달성한 빛나는 성과를 과시하였다.

민족적정서와 혁명적감정이 잘 어울린 투쟁의 선률, 섬세하고 약동적인 무용률동의 강력한 표현성, 폭풍을 헤가르는듯한 시의 격조, 높은 형상력을 가진 무대미술과 조명의 립체성이 하나의 변화무쌍한 예술적조화를 이루면서 작품이 담고있는 거대한 정치사상적내용을 훌륭히 형상하고있는 음악무용서사시《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은 그의 높은 사상예술성으로하여 우리의 근로자들은 물론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세계 각 대륙의 여러나라들에서 온 외국의 벗들속에서도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인민군협주단에서 공연한 노래와 춤《수령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도 인민군군인들과 우리 근로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40년간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이 작품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군사사상의 빛나는 승리와 그이의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령도의 현명성, 위대한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무한한 흠모, 불타는 충성심을 영웅서사시적대화폭속에서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이 작품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간고한 나날과 혁명과 수령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무한한 충성, 그들이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그 뿌리에서 태여났으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하에 일당백의 강철의 대오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승리와 영광으로 충만된 지난 20년간의 전투적로정을 감회깊이 더듬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문학 및 음악부문현상응모에는 창작가들과 로동자, 농민, 사무원 그리고 인민군군인들이 보낸 4천 650여편의 문학작품들과 2천여편의 음악작품들이 투고되였다.

작품들가운데는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위대한 풍모를 형상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조직하시고 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과 그 과정에 이룩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또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직접 계승한 조선인민군과 우리 인민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고상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고있는 천리마기수들의 영웅적투쟁 그리고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에 일떠선 남반부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을 형상한 작품들과 기타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들어있었다.

이해에 우리의 예술인들은 벌가리아의 수도 쏘피아에서 진행된 제9차세계청년학생축전 (7월 31일—8월 3일)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쟁취함으로써 천리마조선의 《황금의 예술》을 다시한번 온세상에 과시하였다.

세계 수십개국에서 온 수많은 예술인들이 참가한 축전에서 우리 나라 예술인들은 민족기악, 무용, 민요, 고전창, 사회정치에 관한 노래 등 여러부문에 출연하여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일상적으로 련마한 예술적기량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33개의 금메달, 14개의 은메달, 8개의 동메달, 도합 55개의 메달을 받았다.

축전에서는 당선된 종목의 매개 출연자들에게 모두 메달을 주는것이 아니라 당선된 종목에 한해서만 메달을 준만큼 이 축전에서 우리 예술인들이 쟁취한 성과는 실로 큰것이다.

군무《고난의 행군》, 《총을 잡은 남녀의 아들딸》, 《협동벌의 풍년맞이》, 《지상락원》을 비롯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무용작품들을 가지고 무용부문경연에 참가한 예술인들은 19개종목에 출연하였는데 그 모든 종목에서 입선하였다.

그중에서도 수령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무한한 충성심,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혁명적동지애를 훌륭히 형상한 혁명전통주제의 군무《고난의 행군》은 대절찬을 받았으며 이 부문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 수립된 가장 훌륭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무한한 기쁨을 훌륭히 형상한 독무《청춘의 기쁨》은 24개국에서 출연한 34개의 독무 및 쌍무경연종목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

민족기악부문예술인들은 경연에 8개종목을 가지고 출연하였는데 역시 모든 종목이 당선됨으로써 6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 및 1개의 동메달을 받았다.

특히 관악8중주에 출연한 예술인들은 김일성동지의 반제혁명로선을 받들고 미제를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할 우리 인민의 확고한 결의를 반영한 《혁명을 위하여》를 훌륭히 연주하여 이 부문의 최고점수를 받았다.

또한 남성중창, 녀성고음독창, 남성저음독창 등에서 도합 3개의 금메달을 받았으며 그 밖에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더 차지하였다.

고전창부문에서는 5명의 독창가수들이 우리의 고유한 민족고전을 노래하여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받았다.

이와 같이 제9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우리의 예술인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창조한 높은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으로

일관된 혁명적예술의 빛나는 모범을 온세계에 시위하였다.

1968년에 우리 나라에는 꾸바민요가수단, 민주독일성악단, 로므니아인형극단이 방문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과 함흥, 원산 등지에서 공연하였다.

특히 공동의 원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우리 인민과 튼튼히 어깨걷고 싸워 나가고있는 영웅적꾸바인민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을 가지고 방문한 꾸바민요가수단의 공연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꾸바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피델 까스뜨로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 강한 반제반미투쟁정신,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성스러운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 그리고 반드시 멸망하고야말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로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군중문화

우리 나라에서 군중문화사업은 당사상사업의 한부분으로서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의 군중문화사업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전체 근로자들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당정책관철에로 그들을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우리의 군중문화사업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 있다.

수령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대중정치교양사업에서 군중문화교양사업이 노는 거대한 역할과 의의에 대하여 항상 강조하시면서 초기지하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군중문화교양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이 사업의 발전방향과 기본내용, 그 형식과 방법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친히 시와 노래를 지으시고 연극대본을 쓰시였으며 반제청년동맹원들과 아동단원들 그리고 유격대원들의 예술활동을 직접 지도하시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의 창작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이러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활동과 군중문화사업의 심오하고도 풍부한 사상적내용과 다양하고 생동한 형식과 방법들은 해방후 우리의 문학예술활동과 군중문화사업의 빛나는 전통으로 되였으며 그것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더한층 심화발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나라의 참다운 주인이 된 근로인민이 문화와 예술의 향유자로 되게하며 그들이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창조할데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지도를 주시였으며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도시와 공장, 기업소, 농촌들에 극장, 영화관, 군중문화회관, 구락부와 민주선전실, 도서관 등 군중문화시설들을 꾸며주시고 인민들의 높아가는 문화적수요에 따라 그 수를 해마다 늘여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시였다.

준엄한 전쟁의 환경속에서 그리고 모든것이 재더미로 되여버린 전후의 그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 인민은 누구도 훌륭한 극장이나 영화관을 생각하지 않았다. 정말 형편이 그처럼 어려운 때 극장이 모자란다거나 영화관 설비가 불비하다고하여 그것을 탓할 사람은 누구도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하더라도 인민들에게 노래와 기쁨을 주고 문화휴식을 주려고 깊이 심려하시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때에 모란봉에 지하극장을 지어주도록 하시였고 전후의 긴장된 조건에서도 평양대극장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의 새 전당을 지어주시였다.

어느 공장이나 농촌, 자그마한 산간마을 할것없이 현지지도를 하실 때마다 수상동지께서는 로동자,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그들이 준비한 예술소조의 소박한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였다. 그리고는 잘되고 못된 점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로동속에서 피여나는 예술의 꽃을 살뜰히 키워주시였으며 우리의 문화와 예술의 높은 봉우리에로 한걸음한걸음 쳐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학예술을 군중속에서 발전시키며 대중화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인민속에 있는 재능을 찾아내고 발양시켜 로동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는 곳마다에서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고 예술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30페지)

수령의 교시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대중을 문학예술활동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하여 도시와 로동자지구, 농어촌은 물론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의 이르는 곳마다에 문학, 음악, 무용, 미술 등 각 부문에 걸쳐 문학예술소조가 조직되였다. 이 문학예술소조들에서는 수령의 교시와 우리 당의 정책을 관철하고있는 자기들의 보람찬 로동과 행복한 생활을 반영한 여러가지 음악, 무용 작품들과 토막극, 재담, 노래재담, 노래이야기, 시극 등 새로운 형식의 예술소품들을 창작하여 공연활동을 널리 진행하였다.

로동자, 농민, 사무원 등 근로자들로 조직된 이 소조들은 작가, 예술인들의 도움밑에 발전하였다. 특히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 시(구역)군, 도 그리고 전국적범위에서 해마다 조직된 예술소조경연, 전람회, 작품현상모집 등을 통하여 소조원들은 창작수준과 예술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여왔다. 이 과정에 우수한 작품

들이 수많이 창작발표되였으며 군중예술의 이러한 발전에 따라 새로운 작가, 예술인들이 자라났다.

우리 나라 예술이 세계인민들로부터 《세계 일등급의 예술》, 《황금의 예술》로 높은 찬양을 받게된것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로하여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군중예술의 튼튼한 지반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였다.

각 도와 시(구역), 군들에 있는 군중문화회관들에서는 군중문화일군들과 문학예술소조지도자의 양성 및 재교양사업, 군중문화사업의 새로운 경험의 보급, 생산현장에서의 군중문화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각 공장, 기업소의 로동자문화회관, 협동농장의 구락부와 민주선전실은 로동자들과 농장원들의 사상문화교양사업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1968년에 군중문화사업은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선진적인 도시의 문화와 생활양식, 공산주의도덕을 농촌에 보급하기 위하여 위력한 교양수단인 영화와 함께 전문예술인들이 창작한 연극, 가극, 무용극 등이 농촌에 적극 들어갔다.

특히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의 로작들과 혁명전통자료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도서들과 신문, 잡지들이 온 나라 곳곳에 더 널리, 더 깊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상수양에 큰 도움을 주었다.

박물관에서는 관내에서의 교양과 함께 이동박물관을 조직하여 여러곳을 돌며 교양하는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모든 군중문화사업의 첫째가는 임무는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였다.

1968년에 군중문화사업의 중심을 근로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의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수령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가슴깊이 새기고 뼈와 살로 만들게 하는데 두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심도있게 진행하며 그들의 일반지식과 기술지식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심중한 관심을 돌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군중문화수단들을 동원하여 농장원들의 사상교양에 도움을 주는 한편 새로 만든 《토양》 《논벼와 물》, 《논물관리》, 《사과나무모양만들기》, 《나무를 잘 심자》 등 농업부문 과학영화를 집중적으로 돌려 농장원들로 하여금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전문단체 예술인들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무대예술작품들을 가지고 전국의 군과 협동농장들을 찾아가 공연함으로써 로동자, 농민들의 정치, 문화수준을 높여주었으며 그들의 예술소조사업을 방조하였다.

1968년에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과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기념하여 전국적인 예술축전과 전람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다양한 군중문화사업이 광범히 조직진행되였다.

【박물관】 조선혁명박물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배우는 혁명의 학교, 우리 당 사상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되고있는 조선혁명박물관은 1968년 8월 1일에 창립 스무돐을 맞이하였다.

이날 조선혁명박물관에서는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온 자랑찬 로정을 총화하는 기념회가 있었다.

조선혁명박물관은 1948년 8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창립되였다.

이 박물관의 창립은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에서와 우리 인민의 사상정치생활에서 커다란 사변이였으며 우리 나라 박물관발전력사에서 새 단계를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1958년 11월 3일과 1961년 1월 13일의 이 박물관에 대한 현지교시는 혁명박물관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박물관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력사적자료와 유물을 보여줄뿐만아니라 혁명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천명된 혁명사상과 혁명로선, 전략전술과 그의 정당성, 항일투사들의 혁명에 대한 충실성, 혁명투쟁의 간고성 등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하며 유물과 자료진렬, 해설과 대중교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과 주체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배려속에서 지난 20년간 조선혁명박물관이 걸어온 로정은 박물관일군들이 그이의 강령적인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행정이였으며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과정이였다.

1968년에 조선혁명박물관 일군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사상과 혁명로선,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그이의 고매한 풍모와 덕성을 연구하는 배움의 전당으로 더잘 꾸리는데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였다.

그리하여 이 박물관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충만된 박물관으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 그이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혁명업적과 경험 등을 풍부하게 담고있는 박물관으로 되였다.

최근 5년간에 800만을 넘는 국내 근로자들이 이 박물관을 참관

하였으며 근 100개의 나라들로 부터 3만여명의 외국손님들이 박물관에 와서 우리 수령의 혁명력사를 연구하고 반제혁명투쟁의 귀중한 경험을 배웠다.

혁명의 학교인 조선혁명박물관에는 장구한 기간 조선인민의 반제투쟁, 특히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하고 자랑찬 승리의 로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이 크게 17개호실로 나뉘여 진렬되여있다.

제1호실에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영웅적으로 싸운 항일유격대를 형상한 조각이 있다.

2—3호실에는 19세기후반기(1866—1875년) 외래 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의 반일투쟁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전시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우리 혁명의 요람지인 유서깊은 만경대의 고향집을 보여주는 사진으로부터 시작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이 있다.

김일성동지의 증조부이신 김응우선생께서는 우리 나라에 기여든 미제의 해적선《샤만호》를 불살라버리는 애국투쟁의 앞장에 나서시여 영용하게 싸우시였으며 조부님이신 김보현선생은 나라의 독립을 념원하시여 《나라 빼앗긴 백성에게는 항거의 길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자제분들을 반일투쟁에 나서도록 고무하시였으며 조모님이신 리보익녀사도 왜놈들에 대한 증오심이 강하셨고 일제경찰의 모진 박해와 억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우셨으며 자제분들의 앞날을 위하여 근면한 로력으로 모진 가난을 이겨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은 일생을 조국의 광복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바친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였다. 김형직선생의 지도하에 우리 나라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앙양되였다.

박물관에는 김형직선생의 《조선국민회》활동과 관련한 《일제의 비밀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박물관에는 또한 강반석녀사의 혁명활동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동지의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행복, 녀성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빛나는 생애를 다바쳐 싸우신 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탁월한 선각자이시다.

제4호실에는 김일성동지의 초기혁명활동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이 호실의 첫부분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1923년 봄부터 1925년 초까지 창덕학교를 다니시다 아버님께서 체포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열네살때 유년시절과 소년시절의 가지가지의 사연이 깃든 조국의 고향 만경대를 떠나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굳게 결심하시고 압록강을 건너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때를 회상하시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열네살 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김일성선집》 1권 1963년판 11페지)

박물관의 다음 부분에는 김일성동지께서 아버님의 뜻을 받들고 열다섯살때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화전의 《화성의숙》에 다니실 때 계시던 기숙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진들과 그이께서 비합법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시고 지도하시면서 혁명활동을 하신데 대한 자료 등이 전시되여있다.

또한 유화《공청회의를 지도하시는 김일성동지》, 청년들의 회의, 연극 및 군사놀이장소로 리용하던 무송의 《삼바위》, 《길림유문중학교》와 그이께서 공부하시던《교실》 및《기숙사》, 자주 공청회의를 조직지도하시던 《길림북산공원》과 거기에 있는 《약왕묘》의 사진과 그 지하실로 오르내리실 때 쓰시던 《사다리》,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조직하고 지도하신데 대한 여러가지 문헌자료, 귀중한 사적물들이 있다. 또한 《일제의 비밀자료》도 있다.

5—9호실들에는 항일무장투쟁의 첫째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인 김일성동지께서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무장대오를 조직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하신때로부터 1936년 남호두회의 직전까지 기간의 김일성동지 혁명활동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을 전시하였다.

5호실의 첫부분에는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유격대창건을 위한 혁명활동을 하실 때 비밀회의장소로 리용하시던 안도 서문밖거리에 있는 집과 다락, 그때 깔고 앉으시던 말안장, 항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시던 시기 어머님과 함께 계시던 안도현 소사하에 있는 유서깊은 집이 있다.

또한 항일무장투쟁 초시기 김일성동지께서 유격대원들을 비롯하여 공산주의자들에게 당건설문제에 대하여 강의하신 강의요지, 그 강의를 받아쓴 항일유격대원들의 학습장, 그이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반영한 혁명적출판물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다.

다음에는 유격근거지에서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이 쓰던 재봉기부속품, 가위, 낫, 여러가지 그릇들, 의료기구, 아동학교에서 쓰던 비품들, 인쇄도구들을 비롯하여 귀중한 사적물들이 진렬대안에 소중히 전시되여있다.

박물관에 진렬된 항일유격대원들이 식량대신으로 한 잣나무와 소나무껍질을 비롯한 수십종의 풀뿌리, 나무껍질들과 그것을 갈던 매돌 등 가지가지의 사적물들은 유격대와 인민들이 투쟁의 나

날 얼마나 고난에 찬 생활을 하면서 싸웠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여기에 있는 3·8식보총을 비롯하여 적들로부터 피로써 빼앗은 각종 무기들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자체로 만들어낸 연길폭탄을 비롯한 수많은 무기들 그리고 병기창모형은 항일무장투쟁초기의 간고성을 잘 알수 있게 한다.

또한 사판의 조종이 시작되자 아군을 표시하는 빨간 불빛과 적을 표시하는 불빛이 나타나 1933년 12월부터 1934년 1월까지 40여일간에 걸쳐 진행된 소왕청유격근거지방어전투의 전과정을 보여주는 방이 있다.

박물관에는 1935년 2월말—3월초에 열리였던 다홍왜회의 장소와 그해 3월 하순에 열린 요영구회의 장소를 찍은 천고의 밀림속에 뜻깊은 귀틀집이 자리잡고있는 사진들이 있다.

또한 한장의 지도앞에서 북만원정의 로정을 더듬어보게 한다.

이와 같은 자료들이 보여주는 바와같이 항일무장투쟁첫단계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에 기초하여 항일무장대오를 조직하시여 넓은지역에서 적극적인 군사활동과 정치공작을 진행하시였다.

한편 그이께서는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시고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무장투쟁을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의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이처럼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첫단계에서 무장대오를 중심으로 한 혁명력량을 꾸리고 우리 나라 혁명의 급격한 앙양을 일으키시였다.

10—15호실들에는 항일무장투쟁의 둘째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인 1936년 2월 남호두회의로부터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 직전까지 기간의 김일성동지혁명활동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을 전시하였다.

10호실 전시장에는 남호두회의와 관련한 자료들이 있다.

박물관에 있는 남호두의 수림속에 자리잡은 귀틀집—바로 여기에서 1936년 2월에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불러일으킨 력사적인 남호두회의가 열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위대한 혁명로선과 전략적방침이 혁명실천에서 구현됨으로써 그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실증된 력사적사실을 10호실로부터 그 다음 방들에 진렬된 자료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1936년초에 남호두를 떠난후 그해 3월에 김일성동지께서 간부회의를 소집하신 곳인 안도현 미혼진밀영사진, 《조국광복회강령을 작성하시는 김일성동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화가 있는 그밑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께서 쓰시던 만년필이 소중히 진렬되여있다.

또한 1936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걸쳐 진행된 동강회의에서 발표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 규약 그리고 그 기관지인 《3. 1월간》등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박물관에는 당시 조선혁명의 참모부—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희샤즈거우밀영이 있다.

백두산의 해묵은 아름드리나무를 찍어 지은 귀틀집, 소박한 책상과 그 우에 등잔이 놓여있는 침실, 난로와 그 량옆에 통나무를 절반 갈라 만든 걸상, 김일성동지께서 밤이 지새는줄 모르시고 조국의 장래를 구상하시고 적을 쥐락펴락할 전략전술을 세우시던 그 밀영이 있다.

1937년 8월 한달동안에 장백현의 한개 부락에서만도 41명이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였다는 자료, 국내에 반일격문을 붙인 사실을 쓴 자료, 북만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받들고 활동한 자료 등 수많은 력사자료들은 김일성동지의 지도하에 조국광복회의 조직이 국내깊이와 동만, 남만, 북만의 넓은 지역에까지 확대되여갔다는것을 알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조국광복회조직확대를 위한 투쟁자료를 전시한 이 12호실 다음방에서는 자동적인 전기장치로 하나의 흐름속에서 보천보전투의 력사적인 대화폭을 보여준다.

처음 보천보일대의 지형을 모사한 사판을 보게 되며 다음에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250여리의 대자연을 반영한 국내진공작전개판도가 펼쳐진다.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전략전술에 넋을 잃은 적들이 《유격대의 주력이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고 떠들면서 일대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 하고있을 때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서강밀영을 떠나 희샤즈거우밀영에 진출하시여 이곳에서 구체적인 국내진공작전계획을 짜시고 제반 준비사업을 갖추신데 기초하시여 《금성철벽》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적들의 삼엄한 경비진을 뚫고 압록강을 건너 보천보를 들이침으로써 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승리를 거두시였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이의 연설을 듣는 군중들의 모습은 암흑속에서 밝아오는 조국광복의 서광과 함께 조선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를 직접 맞이했고 그이의 부름 따라 앞날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고 일어서던 수십여년전 우리 인민들의 그날의 감격을 안겨준다.

박물관의 다음호실에는 항일유격대원들이 어찌나 자주 펼쳐들고 읽었던지 보풀이 일어 글자가 잘 보이지 않게 되자 그우에 다시 글자획을 덧그어 가지고 읽었다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그이의 지도밑에 발간된 수많은 혁명적출판물들이 전시되여있다.

15호실에서는 남패자로부터 압록강연안에로 진출한 100여일의 간고한 《고난의 행군》로정을 보여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시련에 찬 투쟁의 자취를 말해주는 무기와 배낭, 눈우를 신고다니던 설피와 얼음우로 행군할 때 쓰던 사갈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적물들은 고난의 행군길에서 부닥친 난관이 실로 한두가지가 아니였다는 것을 가슴뜨겁게 보여준다.

이와 같은 자료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의 둘째 단계에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일대에 새로운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적에 대한 적극적공세로 넘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시기 항일무장투쟁을 광활한 지역에로 확대하고 대규모적인 군사활동을 강력히 조직전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이 시기에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보다 전면적으로 추진시키시였다.

이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의 둘째단계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당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같이 추진시켜 우리 나라 혁명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16—17호실에는 항일무장투쟁의 셋째단계에 해당하는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로부터 1945년 항일무장투쟁이 종국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기간의 김일성동지혁명활동에 대한 자료들을 전시하고있다.

첫부분에 김일성동지께서 또다시 조국에로 진군하시였을 때 항일유격대원들이 그이를 모시고 첫날밤을 숙영한 청봉숙영지모형이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시며 다가올 전투승리를 구상하시던 사령부, 질서정연하게 꾸려졌던 병실과 취사장의 자취들, 고깔불자리 등 가지가지의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다.

또한 《조선청년들이여! 속히 달려나와 일제를 반대하는 전쟁에 참가하자!》, 《일제파쑈군벌을 타도하자!》 등 수많은 혁명적구호를 새겼던 나무들을 보게 된다.

전창, 베개봉, 무포를 비롯한 숙영지들, 《갑무경비도로》, 신사동 방향에 진출하였을 때 사령부로 정하였던 귀틀집, 부대집결처였던 대홍단벌의 국사당 등의 사진들 그리고 일제의 패배상을 말해주는 자료들, 이 모든것들은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의 자랑찬 승리의 진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다음 호실에는 조국해방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1940년대 전반기의 투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전투훈련을 맹렬히 진행하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하루의 야외정치활동을 마친 대원들》등 당시의 사진들에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였는가를 알수있다.

박물관의 마지막 호실에는 1945년 10월 14일 평양공설경기장(지금의 모란봉경기장자리)에서 있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장면이 전시되여있다.

언제나 우리 인민이 마음속깊이 아로새기고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금치못하던 김일성장군, 그이를 바로 지척에서 우러러보고 그이의 말씀을 듣게 되는 기쁨으로하여 이날 평양시민들은 감격과 흥분으로 들끓었으며 사람마다 목청껏 웨치는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은 대회장과 전조선땅을 진동시켰다.

이와 같은 자료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의 셋째단계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국내외정세에 대처하여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위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한편 수많은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을 적후방 특히 국내깊이까지 파견하시여 적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인민대중을 반일반전투쟁에로 세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리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빛나는 최후승리를 달성하였으며 드디여 우리 인민은 반세기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노예의 멍에에서 해방되였다.

혁명의 학교인 조선혁명박물관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은 김일성동지야말로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령도자이신가를 다시한번 심장깊이 느끼게 된다.

이 박물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배우며 경애하는 수령 그이의 령도를 받들고 어떠한 풍파가 앞을 가로막아도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나아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신천박물관; 1958년 8월에 창립된 신천박물관은 황남도 신천군 신천읍에 있다.

박물관에는 100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한 미제침략자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강도적 침략행위와 조선에서 감행한 야수적만행을 력사적으로 폭로하는 자료들 특히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 황남도에서만도 수만명의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미제살인귀들의 식인종적만행을 폭로하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조상때부터 우리 인민의 철천의 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투쟁정신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조선력사박물관; 이 박물관은 1945년 12월 1일에 창립되였다.

박물관에는 원시사회로부터 19세기까지의 기간에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력사적유물과 자료들이 원시사회(원시군, 모계씨족사회, 부계씨족사회), 노예사회(고조선), 봉건사회(세나라 시기, 신라와 발해시기, 고려시기, 리조후반시기)의 순서로 전시되여있다.

조선미술박물관; 이 박물관은 1954년 9월 28일에 창립되였다.

박물관에는 기원전 3～4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사이에 창작된 미술유산들과 현대미술가들이 창작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형예술작품들이 시대별, 작가별, 종류별로 나뉘여 진렬되여있다.

1968년에 미술박물관에서는 문학예술부문에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미술가들이 창작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새로 더 진렬하였다.

조선민속박물관; 이 박물관은 1956년 2월 10일에 창립되였다.

박물관에는 착취자들을 반대하여 싸워온 우리 선조들의 강의한 생활과 풍습을 보여주는 유물과 자료들이 전시되여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도움을 주고있다.

1968년에 박물관에는 일제식민지 통치하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로동자, 농민들의 소박하면서도 강의한 생활문화와 풍습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자적본성이 담긴것과 대비하여 새로 더 진렬하였다.

【기념관】 조국해방전쟁기념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1953년 8월에 창립되였다.

1968년에 조국해방전쟁기념관은 창립 열다섯돐을 맞이하였다.

기념관은 창립후 15년간의 사업을 통하여 조국해방전쟁을 영광스러운 승리에로 이끄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조선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전략전술과 고매한 덕성으로 우리 인민과 군인들을 교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영웅적으로 싸워 이긴 군인들과 인민들의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으로 교양하였다.

지난 기간 기념관은 대외선전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는데 120여개 나라에서 온 7만여명의 외국손님들이 이 기념관을 보았다.

조국해방전쟁기념관에는 조선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계승하여 창건된 영웅적 조선인민군과 인민이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1950—1953년)에서 거둔 력사적승리와 그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고귀한 투쟁업적과 경험을 보여주는 전시품들이 진렬되여 있다.

첫부분에는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과 그것을 직접 계승한 조선인민군의 창건 및 그의 강화발전을 보여주는 자료가 전시되여있다.

또한 여기에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의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준비와 놈들의 불의의 침공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전시되여있다.

다음 부분에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전략전술, 고매한 덕성에 관한 자료들, 수령께 충성의 맹세를 다지고 용감히 싸운 조선인민군대와 조선인민의 대중적영웅주의, 전쟁시기 군대내 당정치사업에 관한 자료들이 진렬되여 있다.

세번째 부분에는 김일성동지의 참다운 전사들인 조선인민군 각 군종별, 병종별 군인들의 영웅적 투쟁자료들과 그리고 미제침략자들이 저지른 야수적만행과 패망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진렬되여 있다.

밖에 있는 진렬장에는 전쟁시기에 조선인민군이 빼앗았거나 파괴, 격추한 미제침략군의 각종 구경의 포와 전차, 비행기 등 군사기재들과 정전후 공화국북반부에 불법침입했다가 파괴된 전차와 비행기들이 전시되여있다.

【군중문화회관】 각 도, 시(구역), 군에 있는 군중문화회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로동자문화회관 그리고 협동농장들에 있는 구락부, 농촌러들과 작업반, 동, 인민반에 이르기까지 있는 민주선전실과 교양실은 대중교양의 거점으로 되고있다.

1968년에 군중문화회관들에서는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사상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회관들에서는 특히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지난 40여년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반영한 작품들과 항일무장투쟁을 내용으로 한 작품, 계급교양을 기본으로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을 내용으로 한 문학예술소품들을 출판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예술소조들에 내려보내여 공연하게 하였다.

회관의 창작 및 예술 지도일군들은 생산기업소 소조원들을 찾아가 그들의 문학예술소조사업이 생산과 떨어지지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게하며 기동선동대활동을 적극 지도하여 근로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수령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도와주었다.

이 과정에 우수한 문예소조원들과 예술소조지도자들을 양성하였다.

또한 회관들에서는 시랑송, 노래보급, 토막극, 재담 등 군중문화의 다양한 형식들과 책읽기, 이야기모임, 영화보급 및 감상

회, 강연회, 담화 등 군중교양의 이러저러한 방법을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였다. 예술경연과 주제모임, 사진전람회 등 여러가지 모임과 직관선전을 통하여서도 근로자들의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언어문화수준을 높여 주었다.

【도서관】 우리 나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각도(직할시), 시(구역), 군 도서관들 그리고 38개의 아동도서관과 공장, 기업소, 기관에 수많은 도서관(실)이 있다.

이 도서관들에서는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각분야에서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그들의 과학,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도서보급일군들은 관내에서의 열람사업과 함께 생산현장의 근로대중속에 들어가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의 로작들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인민들 속에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등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수령의 교시관철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는 불굴의 혁명투사로 준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과학, 문화, 기술 도서들도 적극 보급하여 기술문화혁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

전체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에서 도서관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의 로작은 도서관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많이 들어간다.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상동지의 로작과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근로자들에게 더 깊이, 더 많이 학습하게하며 그 리용에 대한 사업을 한계단 발전시키기 위하여 1968년 7월에 전국도서관일군들의 경험발표회가 혜산에서 있었다.

경험발표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기 위한 근로자들의 열의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는 조건하에서 그들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 결의를 다지면서 수령의 로작을 가지고 생산현장을 찾아가서 그들의 학습에 도움을 준 것 등 모범적인 경험들을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1968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독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도서보급에 중심을 두고 일하였다.

도서관에서는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더잘 꾸려놓고 그것을 거점으로 독자들을 수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렸다. 여기에서는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혁명사상연구에 필요한 책을 안내하는 일, 수령의 로작 해제사업, 혁명전통자료연구발표회, 독서감상회 등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유일사상체계확립과 과학, 기술, 문화 수준제고에 도움을 주었다.

이해에 도서관에서는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의 혁명활동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진것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혁명활동을 연구하는 모임을 광범히 조직하였다. 또한 보천보전투승리 서른한돐과 항일유격대창건 서른여섯돐 등 기념일을 계기로 독자모임을 조직함으로써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전람관】 공업및농업전람관; 이 전람관은 1956년 9월 27일에 창립되였다.

전람관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로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을 보여주며 수령의 주체사상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여기에는 전쟁직후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떠선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천리마진군을 계속 다그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이룩한 성과와 업적을 보여주는 실물과 자료들이 중공업, 경공업, 농업, 건설, 운수 등 인민경제 부문별로 나뉘여 진렬되였다.

1968년에 새로운 전시품들을 보충하고 전반적으로 진렬을 고친 전람관은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일을 앞두고 다시 문을 열었다.

중공업관은 반자동나사연마반, 고속도만능선반, 프로그람선반을 비롯한 최신 공작기계들, 발전설비들과 채취공업설비들, 여러가지 강종과 강재들, 화학비료와 농약 등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힘과 지혜의 열매들을 전시품으로 보충하였다.

위력한 기계공업과 전력공업, 채취공업과 야금공업, 화학공업 등 중공업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이 우리의 기술과 지혜, 우리의 원료를 가지고 자력갱생하여 만든 여러가지 기계제품들과 크고 작은 설비들은 마음먹고 달라붙기만하면 무엇이든지 만들수 있을만큼 우리 나라 중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을 실물로 보여주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 필요한 기계설비의 98.1%를 국내에서 생산보장하고있을뿐아니라 해방전에 공업생산에서 기계공업이 차지하는 몫이 1.6%밖에 안되였던 우리 나라가 지금은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세계시장에까지 내놓을수있게 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실물들은 지난날 뒤떨어진 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가 이제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발전된 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였음을 실증해주고

있다.

농업관도 많은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특히 농업의 발전을 더 생동하게 보여줄수있도록 훌륭히 고안되고 설계된 새로운 모형들과 직관물들로 꾸려졌다.

우리 나라 관개건설사업의 비약적발전모습을 조선지도의 모형우에 표시하여 설명해주는 수리화에 대한 생동한 사관을 비롯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전기화, 화학화의 발전모습과 선진적인 영농방법의 광범한 도입정형을 보여주는 자료들 그리고 알곡을 비롯한 여러가지 농산물과 축산물 등 우리 나라 농업의 급속한 장성을 보여주는 모든 전시품들은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나라의 중앙 경공업공장, 기업소들과 지방경공업공장들에서 만든 여러가지 옷감을 비롯하여 일용품과 식료품들 그리고 수산업의 발전과 교육, 과학, 문화, 보건의 발전을 보여주는 전시품들은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켜 자체의 힘으로 먹고 입고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당의 정책이 얼마나 큰 힘을 내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어머니전람관; 이 전람관은 1961년 11월 17일에 창립되였다.

전람관은 1961년 11월에 있은 전국어머니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전람관에서 녀성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자녀들을 여러모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키우는데 도움을 줄 좋은 경험과 방법들에 관한 자료들, 녀성들과 어린이들에게 돌려지는 당과 수령의 지극한 배려에 관한 자료들이 크게 두개 부문으로 나뉘여 전시되여 있다.

첫번째 방에는 혁명가의 안해이시며 혁명가의 어머니이시며 탁월한 녀성활동가이시며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신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생애와 혁명활동에 관한 자료들 그리고 김일성동지의 어린시절에 관한 자료들, 수령께서 우리 녀성들에게 돌려주시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있는 자료들이 들어있다. 또한 여기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녀성혁명가들과 항일유격대를 적극 도운 녀성들 및 아동단원들의 투쟁과 생활에 관한 자료들과 함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녀성들의 투쟁과 녀성영웅들에 관한 자료들, 해방후 인민경제 각분야에서 자라난 녀성혁신자들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두번째방에는 어린이교양에서 지침으로되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어린이들에 대한 그이의 두터운 배려에 대한 자료들, 어린이들을 성격과 취미에 맞게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역군으로 키우는데서 얻은 경험에 대한 자료들이 탁아소시기, 유치원시기, 학교시기로 나뉘여 진렬되여있으며 어린이들에 대한 계급교양자료들도 전시되여있다.

1968년에 전람관일군들은 전람관을 통한 해설선전사업을 하는 한편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초기혁명활동에 대하여》, 《강반석어머니를 따라 배우자》, 《아들딸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자》 등 제목으로 기관, 기업소의 녀성들과 가두 녀성들, 평양시주변 협동농장 녀성들 속에서 이동전람회, 이동강연회 등을 널리 진행하였다.

【평양학생소년궁전】 이 학생소년궁전은 우리 청소년학생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키워주고 보살펴주시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대교육교양에 대한 원대한 구상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1963년 9월 10일에 창립되였다.

1968년에 창립 다섯돐을 맞이하였다. 창립이래 이 궁전의 각 연구소조에 망라되여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며 대중정치활동과 군중문화체육활동에 망라된 청소년학생수는 수십만명에 달한다.

또한 지난 5년동안에 30여개의 정부수반급 대표단을 비롯하여 100여개나라에서 온 1천 300여개 단체의 1만 수천명의 외국손님들이 이 궁전을 돌아보았다.

학생소년들의 훌륭한 과외교양기관인 평양학생소년궁전은 로동당시대에 창조된 웅대하고 화려한 기념비적건물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제일 좋은 곳에 궁전의 터를 잡아주시고 설계와 건설 그리고 관리운영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500여개의 방을 가진 궁전에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및 예술의 각 부문의 기술과 지식을 배우며 재능을 꽃피우기 위한 200여개의 연구실과 활동실, 100여개의 련습실에 1천 300여석의 관람석을 가진 궁전극장, 천여명을 수용하며 배구, 롱구, 체조 등 여러가지 체육경기를 할수있는 체육관, 수만권의 책을 가지고있는 도서관, 대중정치활동실, 영화관, 1천여명의 학생들이 갖가지 오락기구를 가지고 놀수있는 유희오락실이 마련되여있다. 그리고 밖에는 체육경기장, 기상관측장, 자동차운전실습장과 소동물사, 실습포전과 여러가지 놀음터들이 갖추어져있다.

궁전에는 천체망원경, 공작기계, 자동차 등 수천종의 실험기구들, 민족악기들과 양악기들, 화구들과 체육기자재, 무대의상, 련습옷, 유희오락기구 등 과학지식탐구와 예술 및 체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조건이 넉넉히 마련되여있다. 이 모든것은 후대들에게 제일 좋고 귀중한것을 먼저 돌려주시는 수령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있으며 나라에서는 궁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마다 막대한 자금을 돌리고있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의 사명은 학생소년들을 어려서부터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이께 무한히 충직하도록 교양하며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기 위한 종합적학교로서 전문적인 과외교양의 거점적역할을 하는데있다.

한편 궁전활동을 통하여 얻은 좋은 과외교양경험과 자료, 지도리론을 종합체계화하여 전국과외교양기관들에서 일반화하는 보급기지의 역할도 하고있다.

이로부터 궁전에서는 모든 학생소년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는 한편 그들에게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써먹을수있는 산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고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며 로동을 사랑하고 공중도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하고있다.

궁전에는 김일성원수혁명활동연구소조를 비롯한 정치교양부문연구소조, 사로청 및 소년단 건설에 대한 교양부문소조, 물리, 화학, 공작기계 등 과학기술교양부문소조, 체조와 롱구, 배구 등 체육교양 부문소조, 음악, 무용, 미술 등 정서교양부문소조 등 지덕체교양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조가 100여개나 조직되여 있다.

인민학교로부터 고등기술학교까지의 각급학교학생들은 자기희망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을 기한으로 각 연구소조들에 망라되여 자기 전문부문지식을 부단히 높이고있다.

매일 1만여명의 학생들이 학교공부를 끝마치고 찾아오는데 그들은 궁전에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며 일반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깊이 배우고 있다.

대중정치활동실에서 학생들은 웅변대회, 글짓기대회, 과학토론회, 미술작품전람회, 창작품발표회, 시랑송모임, 음악발표회, 예술경연대회, 다채로운 체육활동에 광범히 참가하고있다.

궁전에서는 기사, 기수 전문가들이 각 연구소조와 활동실에 배치되여 학생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고있으며 이들과 함께 박사, 학사, 예술인 등 저명한 사회활동가들과 대학생들이 적외력량으로 자원하고있다.

【극장】 평양대극장; 평양대극장은 아름다운 민족적형식과 사회주의적내용에 현대적건축기술을 잘 배합하여 1960년 8월에 준공한 인민을 위한 문화의 대전당이다.

웅대한 규모를 가진 이 건물에는 예술창조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과 현대적봉사시설이 훌륭히 마련되여있다.

1968년에 평양대극장에서는 평양가무단과 국립민족가극극장 및 국립가극극장 창조집단이 창조활동을 하였다.

이해에 평양대극장무대에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경축하여 평양시내 3천명 예술인들이 출연한 대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조국》,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조선인민군협주단이 창조한 노래와 춤 《수령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가극 《4천만의 념원을 안고》(국립가극 극장), 《해빛을 안고》(국립민족가극극장) 등 10여개 작품이 공연되여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천리마국립연극극장; 이 연극극장은 문학예술부문에서 맨 먼저 천리마극장의 영예로운 칭호를 받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혁명적작품을 창조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극장은 1968년에 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칭호를 받았다.

2중천리마를 타라고 하신 수령의 교시를 받들고 이해에는 또다시 천리마배우작업반이 2중천리마작업반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수령께서는 천리마국립연극극장에 친히 열여덟차례나 현지지도하여주시였으며 그때마다 작품, 연출, 연기, 지어는 대사와 배우들의 의복, 신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자애로운 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이 극장 만경대창작단에서는 1968년에 당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혁명적작품창작에서 기본으로 되는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형상한 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를 창조하였다.

이 극장 창조집단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거점으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면서 창작적정력과 지혜를 다 하여 《승리의 기치따라》를 비롯한 여러종목의 작품들에서 위대한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국립교예극장; 이 극장에는 교예예술의 특성에 맞게 어떤 종목의 교예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원형무대, 일면무대, 공중무대가 합리적으로 배치되여 있으며 원형무대에서는 계절을 가림없이 수중교예, 빙상교예도 다 자유로이 할수 있다. 극장에는 또한 2개의 악사실을 비롯하여 대, 중, 소 련습장들, 공중준비실과 현대적봉사시설이 훌륭히 마련되여있다.

국립교예극장창조집단은 1968년에 당의 문예정책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현실적내용을 담은 교예종목들을 많이 창작하여 가지고 혁명의 수도와 각 지방들을 돌며 공연하였다.

새로 창작한 작품들 가운데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전국적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을 교예의 형식으로 형상한 수많은 종목이 들어있다. 그중에는 자전차교예 《수령의 기치따라》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쇠물증산에 떨쳐 나선 용해공들의 투쟁을 형상한 《용해공의 기쁨》을 비롯하여 《의자쌓기》, 《그네뛰기》등 교예종목들이 들어있다. 또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일떠선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무장획득을 위한 투쟁을 내용으로 한 《무장탈취》와 남반부 괴뢰《국회》내에서의파벌싸움을 풍자한 《그놈이 그놈》 등 막간극들과 요술 《분수재주》와 《금붕어나오기》, 동물교예 《개유희》, 《곰유희》 등이 들어있다.

이 극장배우들이 출연한 이러한 작품들의 공연은 평양과 지방의 광범한 근로자들 속에서 환영을 받았다.

【예술축전】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경축 전국로동자예술축전;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이며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경축하는 전국로동자예술축전이 1월과 2월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시, 군 경연과 도, 시(직할시)경연을 통하여 뽑힌 각지 공장, 기업소 예술소조원들로 무어진 13개 도, 시(직할시)의 로동자예술소조원들이 참가하였다.

예술소조원들은 우리 당의 정확한 문예정책을 높이 받들고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소질과 재능을 꽃피워 창작한 음악, 무용, 로막극, 재담 등 다채로운 형식의 예술소품들로 예술축전무대를 장식하였다.

축전무대에서는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끌어 주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그이께 드리는 우리 로동계급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정을 담은 작품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일편단심 그이를 수반으로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께서 내놓으신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과 현지교시들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말려는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담은 작품들, 남녘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을 하루속히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려는 그들의 혁명성과 전투적기백을 담은 작품들이 많이 공연되였다.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불굴의 혁명정신을 그린 작품들, 혁명전통을 직접 이어받은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와 고상한 정치도덕적풍모를 반영한 작품들,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며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지켜나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들이 무대를 장식하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벅찬 현실속에서 로동자대중이 집체적지혜를 모아 창조하고 자신들이 직접 출연한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생활감정의 진실성으로하여 관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불러일으켰다.

축전은 당과 수령의 따뜻한 품속에서 우리 로동자예술소조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더욱더 대중화되면서 날로 활짝 꽃피고있음을 뚜렷이 시위하였으며 로동자예술소조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열어놓았다.

축전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별 심사결과순위

1등 자강도 로동자종합예술소조

2등 평양시와 함북도로동자종합예술소조

3등 평북도와 함남도로동자종합예술소조

△ 음악부문 1등

합창 《김일성장군의 노래》, 《후방도 철벽이다》(자강도)

《김일성장군의 노래》, 《수령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평남도)

남성중창(특등) 《혁명가》, 《전로공의 일솜씨》(함남도)

남성중창 《혁명군의 노래》, 《쇠물폭포 쏟아지네》(평남도) 《끝나지 않은 경기》(함북도)

녀성중창 《만경대》, 《어머니공장이라오》(자강도)

가야금병창《밀영의 등불》(량강도)

와공후병창《수상님교시대로 큰배를 무어내세》(함북도)

민요제창 《수상님 은덕에 보답하세》, 《군대와 인민은 한몸이라네》(평양시)

북과제창 《몽땅 쓸어버리자》, 《고명로를 증산하세》(함북도)

남성중창 《쇠물폭포로구나》, 《내고향 살기 좋아》(평남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제일 좋다》, 《보물산이 좋다》(지질총국)

《수령님의 품속에서 길이 살리라》, 《나는 굴진공》(평북도)

녀성독창 《신바람나요》, 《비단짜는 처녀》(자강도)

《수상님 뵈옵던 날》, 《검사공의 자랑》(자강도)

《살기 좋은 내고향》, 《농장벌의 새 노래》(평양시)

《꽃수건의 노래》, 《만경대의 노래》(함남도)

음악극 《가재수의 도끼소리》(평남도)

노래이야기 《필승의 신념》(지질총국)

민족기악병창 《수상님 교시 받들고》(함북도)

민족기악합주 피리를 위한 협주곡 《동맥을 지켜간다》(함남도)

기악합주 《불꽃튀는 조선장》(평남도)

양금독주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평북도)

가야금독주《첫봉화》 (황남도)

△ 무용부문 1등

녀성군무(특등) 《천리마직포공》(평양시)

남녀군무 《조국의 하늘은 철벽이다.》(평남도)

《여기도 1211고지다》(평남도)

남성군무 《밀림속의 병기창》(함북도)

녀성군무 《인민의 옷감》 (평북도)

《일당백》(함북도)

《부녀회원의 지성》(함북도)

4인무 《은금실 뽑아 꽃비단 짜세》

△ 가무부문 1등

《수령님의 교시대로 유리에서 비단을 짰습니다》(평남도)

△희술부문 1등

스케취(특등) 《검덕골에 꽃이 핀다》(함남도)

스케취 《우리는 행복합니다》(황남도)

합창시(특등) 《우리는 로동당시대의 시간을 창조한다》 (함북도)

연극 《우리는 오직 수령의 사상 하나밖에 모른다》(량강도)

《불씨》(강원도)

토막극 《지옥으로가는 보물상자》(개성시)

《남잡이가 제잡이》(자강도)

시극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량강도)

합창시 《동력초병의 영예》(평양시)

재담 《금수와 강산이》(지질총국)

《크링카—이것은 금덩어리이다》(함북도)

대화시 《한오리의 실을 두고》(량강도)

《원수님의 참된 딸》(자강도)

△ 교예부문 1등

평북도로동자종합예술소조

△ 무대미술부문 1등

함북도로동자종합예술소조

전국예술축전(연극부문); 1968년도 전국예술축전(연극부문)이 10—11월까지 기간에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강령적교시와 연극부문에 주신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실천행정에서 거둔 성과를 보여준 축전에서 많은 장막극과 함께 토막극, 재담 등 다양한 형식의 소품들이 무대를 장식하였다.

그 가운데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 그이께 무한히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형상한 작품들과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방과 후방에서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용감성을 반영한 작품들이 들어있다.

또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는 천리마기수들과 인민군대를 형상한 작품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그린 작품들도 들어있다.

전국 음악, 무용 개인경연; 전국음악무용개인경연은 1968년 11월에 진행되였다.

경연에는 중앙과 지방의 음악, 무용부문예술단체들과 예술부문 학교들에서 추천된 300여명의 예술인들과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제4선경연에는 함흥과 평양에서 3차에 걸쳐 진행한 경연에서 뽑힌 우수한 예술인들과 학생들만이 참가하였다.

경연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창작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음악, 무용작품들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문학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우리의 음악무용예술이 시종일관 인민의 예술로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하고있음을 보여주었다.

수령의 크나큰 배려속에서 훌륭히 련마해온 창작적재능과 예술적기량을 남김없이 시위한 경연은 음악무용예술을 혁명의 시대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좋은 경험을 남기였다.

경연에서 1등당선자를 낸 단체는 다음과 같다.

△성악부문

국립민족가극극장

평양가무단

함남도가무단

△기악부문

평양가무단

평양음악대학

△무용부문

평양가무단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1968년 7월 17일부터 29일까지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전국 각지의 학교경연과 시, 군 경연을 거쳐 각 도(직할시)경연에서 뽑은 우수한 학교단체들과 학생소년들이 참가하였다.

축전은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하여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먼저 돌려주시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우리 나라 학생소년들의 행복한 생활과 그들속에서 활짝 꽃피는 예술소조의 발전모습을 시위하였다.

축전무대에 오른 작품들은 누구나 다 같이 마음껏 배우고 일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주시고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오늘의 행복을 안겨주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 어린이들에 대한 지극한 배려, 수령의 명령에 끝까지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과 아동단원들을 형상하였다.

또한 축전무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우월감과 민족적자부심을 담은 작품들, 어버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면서 수령의 참된 아들딸로 자라고있는 자기들의 희망에 넘치는 행복한 생활을 담은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축전은 학생소년들속에서 문예활동이 대중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있으며 작품들의 사상예술성과 연기형상수준이 높아지고있음을 시위하였다.

심사결과 단체별순위는 다음과 같다.

1위 황남도

2위 평양시

3위 자강도

제5차전국방송극축전; 축전은 1968년 11—12월에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중앙과 지방의 10여개 연극단체가 참가하였다.

축전참가자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형상한 작품들과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또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장의 들끓는 현실속에서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영웅적로동계급의 투쟁과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인민군대의 고상한 정치도덕적풍모를 그린 작품들,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내용으로 한 작품들 그리고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의 무장유격대와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을 내용으로 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그 가운데서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상한 덕성을 형상한 《복받은 가정》, 항일무장투쟁을 조직하시고 승리에로 령도하신 수령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끝없는 충성심을 보여준 《그들의 임무》와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는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내용으로 한 《조국의 지도앞에서》 등이 좋게 평가되였다.

축전작품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등 《조국의 지도앞에서》(평양극장)

2등 《복받은 가정》(천리마국립연극극장)

《그들의 임무》(원산연극단)

3등 《청년류벌공》(혜산연극단)

제7차전국학생소년방송예술축전; 1968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제7차 전국학생소년방송예술축전에는 보통교육부문의 1천 300여개 각급 학교 학생 1만 2천 300여명이 1천 570편의 노래와 기악, 시, 시극, 합창시 등 여러가지 종목의 작품을 가지고 참가하였다.

작품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여러모로 준비된 수령의 참된 전사로 씩씩하게 자라나는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 혁명전통과 계급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내용으로 하고있었다.

심사결과 단체상을 받은 학교들

청진고등경공업학교

강원도 통천군 통천중학교

김책시 쌍암중학교

【전람회】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사진전람회;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사진전람회는 1968년 1월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1967년 6월 4일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돐을 맞아 량강도 혜산시에 세운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유격대원들이 공산주의 붉은 기치를 높이들고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15성상 피흘며 싸워온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전로정을 높은 사상적내용과 완벽한 예술적형식에 집대성하여 상징한 로동당시대의 걸출한 창조물이며 위대한 혁명적대작의 하나이다.

전람회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맑스-레닌주의적 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신 조선혁명의 탁월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와 그이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항일유격대원들과 애국적인민들 61명의 군상으로 이루어진 기념탑의 깊은 사상예술적 내용을 훌륭히 보여주었다.

전람회장에는 기념탑의 앞부분과 량옆 즉 동쪽과 서쪽부분의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찍은 70여점의 사진들이 전시되였다.

이 사진들은 1930년대에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아 싸운 항일유격대원들이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한 위대한 력사적승리와 수령에 대한 그들의 끝없는 충성심,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적동지애 등을 기본사상으로 하는 탑의 기본주제와 그것을 더욱 심화해주고있는 부주제들의 사상예술적 내용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탑의 앞부분을 찍은 사진에서 가운데 서계시는 김일성동지의 모습은 조선혁명의 령도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김일성동지의 예지와 예리한 통찰력,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서의 신고와 풍파를 몸소 앞장서 이겨내시는 강의성과 불굴의 투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높은 덕성, 풍부한 인간성을 훌륭히 재현한것으로 보는 사람들로하여금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더욱 두터이하고있으며 일편단심 그이를 따라 나아갈 굳은 결심을 다지게 한다.

그 왼쪽에 서있는 항일유격대원의 형상은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지켜온 백절불굴의 투사로서 혁명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성격적특질을 지니고있으며 그이의 오른쪽에서 나아가는 항일유격대 녀대원의 형상은 조국의 광복을 위한 싸움에서 슬기와 용맹을 떨친 녀투사의 전형적성격을 보여주고있다.

동쪽면의 사진들은 《조국광복의 서광을 따라서》로 부터 시작하여 《조국진군》, 《진격》을 내용으로, 서쪽면의 사진들은 《무장을 위하여》로부터 시작하여 《고난을 뚫고》, 《격멸》을 내용으로 형상하였다.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기념사진전람회와 미술전람회; 조선인민군 창건 스무돐기념사진전람회와 미술전람회가 1968년 2월에 평양에서 열렸다.

전람회장에는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창건되였으며 조선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한 령도를 따라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전투적행로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1천 800여점의 사진이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시기,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시기로 나뉘여 전시되여있었다.

백두산천지를 배경으로 서계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을 첫방에 모신 전람회장의 처음부분에는 조선인민군이 직접 계승한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대한 사진들이 나붙어있었다. 이 사진들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

한 시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선두에 나서신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지도하심으로써 우리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혁명적새시기를 열어놓았음을 보여주고있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천재적인 전략전술, 인민의 수령으로서의 높은 덕성을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

전람회장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전쟁시기의 사진들은 세계《최강》을 떠벌이던 미제침략군과 15개 추종국가고용군을 반대하는 3년간의 전쟁에서 청소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은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매 시기와 매 단계마다 탁월한 전략전술적 방침을 내세우시고 군대와 인민을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령도하셨기때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그이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대와 인민은 필승불패이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여실히 확증해주고있다.

전후시기의 사진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구현한 우리 당의 자위로선이 훌륭히 관철된 결과 조선인민군이 지난 스무해 동안에 수많은 혁명가들의 대부대로 튼튼히 꾸려지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현대적군사기술기재로 장비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유력한 혁명무력으로 준비되였으며 어떠한 적들의 침공도 물리칠수있게 되였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 나라 령해에 침입해들어왔다가 1967년에 조선인민군 해안포병들의 명중사격에 의해 갈아앉은 적의 《경호함 56》호와 1968년 1월 23일에 붙잡힌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우리 령공을 침범했다가 인민군고사포병들에 의하여 박살이 난 미제침략군 비행기의 잔해와 더러운 비행사의 시체 등의 사진들은 미제가 감히 침범한다면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리라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한편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기념하는 미술전람회가 2월에 열렸다.

전람회에는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앞두고 창작한 조선화와 유화, 출판화, 조각, 산업미술, 공예 등 다양한 종류의 미술작품이 전시되여있었다. 대부분 미술소조원들이 창작한 이 작품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조직하시고 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그것을 계승한 조선인민군의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전투적로정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기백이 넘치는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었다.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사진전람회; 영광스러운 우리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기념하는 사진전람회가 1968년 9월에 평양에서 열렸다.

두개의 큰 건물에 전시된 사진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건된 공화국이 지난 스무해동안에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관철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와 자랑스러운 업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다. 전람회 첫부분에는 우리 인민정권의 력사적뿌리에 대한 사진들이 나붙어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내놓은 인민혁명정부로선에 따라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는 장면과 그가 수행한 민주주의적시책들을 보여주었다.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에 당과 인민정권을 세우고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한것을 보여주는 사진들, 해방후 짧은 기간에 일어난 커다란 력사적변혁을 보여주는 사진들은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쌓아올린 빛나는 혁명적업적과 풍부한 경험이 있었고 수령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줄기찬 로력투쟁이 있었기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이룩될수 있었음을 잘 보여주었다.

3년간의 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때려엎은 다음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및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담은 사진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후의 주객관적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제시하신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실증해주고있으며 천리마운동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빛나는 승리를 잘 보여주었다.

전람회장에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여 누구나 다 같이 마음껏 배울수 있는 인민적 교육제도의 우월성과 과학,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서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전시되여 있었다. 압박과 착취가 없는 사회주의하에서 어버이 수령의 따뜻한 배려를 받으며 보람차게 일하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인민들의 사회문화생활을 반영한 이 사진들 앞에서 관람자들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의 정책의 정당성을 가슴깊이 느끼며 가장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4천만 조선인민이 다 같이 수령의 해빛아래 행복하게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결의를 다지였다.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기념하는 사진전람회는 각도, 시, 군 소재지들에서도 열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경축국가미술전람회; 공화국창건 스무돐경축 제10차 국가미술전람회는 1968년 9월에 열

렀다.

전람회장에는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각지 미술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그린 700여점의 우수한 미술작품들이 나붙어있었다.

전시된 작품들 가운데는 일찌기 어린시절부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항일유격대를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였으며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인 조선로동당과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이 땅우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강위력한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를 일떠세우신 전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40여년간의 혁명활동력사와 위대한 혁명사상,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반영한 작품이 많이 전시되여있었다.

특히 공화국정부수립 경축군중대회 주석단에 오르시여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수령의 모습을 조선화의 큰 화폭에 담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과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내용으로한 조선화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 등의 작품들이 관람자들의 좋은 평을 받았다.

또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장령들 앞에서 작전을 지휘하시는 김일성동지를 형상한 유화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 전선의 한구분대를 찾으시고 전투원들을 전쟁승리에로 고무하여주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화 《결전을 앞두고》 등이 주목을 끌었다.

전람회장에는 이 밖에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공화국의 기치하에 우리 인민이 지난 스무해 동안에 거둔 커다란 성과와 업적,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높이고있는 천리마기수들의 보람찬 투쟁, 근로자들의 행복한 생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남북조선인민들의 투쟁모습 등을 반영한 미술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여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전국보통교육부문학생미술작품전람회; 1968년 9월에 열린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전국보통교육부문미술작품전람회에는 보통교육부문 각급학교 학생들이 보내온 1천 200여편의 작품가운데서 추린 조선화, 유화, 수채화, 크레용화, 선전화, 연필화, 판화, 만화, 공예 및 수예품, 산업미술작품 등 다양한 종류의 미술작품 350여점이 전시되였다.

후대들에게 언제나 제일 좋고 훌륭한 모든것을 먼저 돌려주시는 김일성원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기들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면서 씩씩하게 자라고있는 각지 학생소년들은 자기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주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활동과 높은 덕성을 형상한 작품들을 전람회에 내놓았다.

또한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항일유격대원들과 아동단원들의 불굴의 투쟁모습과 그것을 본받은 학생들과 소년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와 유격대들을 도와 싸운 모습을 그린 작품들,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자라고있는 자기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다.

전람회작품가운데서 입선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도별	1등	함남도
	2등	강원도
	3등	평남도, 평북도
대학별	1등	남포사범대학
	2등	평양교원대학

第16차 전국예술사진전람회; 1968년 10월에 열린 이 전람회에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형상한 사진들,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혁명적학습기풍을 찍은 사진들이 전람회장에 많이 나붙어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경애하는 수령께서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쌓인 조선인민군 해군병사들과 함께 걸어오시는 모습, 로동자들의 합숙에 들리시여 어버이 심정으로 그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시는 모습 그리고 공장의 기대앞에서 새로 만든 제품을 만져보시며 로동자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치하하시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은 보는 사람들로하여금 어버이 수령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더욱 깊게 하였다.

전람회장에는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고있는 천리마기수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 눈부시게 발전하는 도시와 사회주의문화농촌, 교육, 문화, 체육, 보건 등 사회문화의 발전 모습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반영한 사진들이 나붙어 있었다.

전람회장에는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방침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당 군사로선이 훌륭히 관철되고있음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많이 나붙어 있었다.

전람회에는 그전보다 작품수도 훨씬 더 많았고 특히 천연색예술사진의 사상예술적수준이 높아지고있음을 보여주었다.

체 육

우리 나라에서 체육은 근로자들을 창조적로동과 국방에 더잘 준비시키는 사업이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나라의 륭성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앞으로 조선의 체육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건국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발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민주조선을 건설할 씩씩한 건국투사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민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단련시키는 전인민적체육을 발전시켜야 합니다》(《김일성선집》 1권 1967년판 22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1946년 체육인대회에서 하신 이 교시는 우리 나라 인민체육발전의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주권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고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체육은 인민의 것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우리당 체육정책의 기본은 국방체육을 위주로 한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로동과 함께 국방에 더 잘 준비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현대전에 적응하도록 단련시키기 위하여 국방체육을 광범히 조직전개하며 국방체육을 위주로한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수령의 이 교시는 미제와 싸워 이기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보장하자면 정신적준비와 함께 육체적준비도 잘 갖추어야 한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에서 출발한것이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체육이 대중화됨으로써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단련되였으며 그 억센 체력과 불굴의 투지로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떠밀어나가고있다.

체육이 대중화된 결과에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재능있는 체육인들이 수많이 배출되였으며 그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체육문화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대한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다.

또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며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릴데 대한 당정책이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체육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붉은 체육인들은 국제무대에 진출하여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과 함께 조선체육의 눈부신 발전모습을 당당하게 시위하고있다.

【군중체육】 국방체육을 위주로 한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로동과 국방에 더잘 준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68년에 체육부문에서는 국방체육종목들을 내용으로 한 각종 체육경기대회를 광범히 조직하였으며 해당 단위의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군중체육을 광범히 진행하였다.

각급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인민정권기관들, 근로단체들과 체육지도기관들에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워 체육생활에 대한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높이는 한편 국방체육을 위주로 한 체육을 대중화하며 정상화하기 위한 조직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체육소조와 종목별 소조들을 책임진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였다.

그리하여 각급 학교들, 공장, 기업소, 사무기관, 도시와 농촌, 림산마을 등 어디에가나 우리 나라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은 국방체육을 위주로 하면서 성별, 년령, 체질과 취미에 따라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기고있으며 아침체조, 업간체조, 랭수마찰 등은 그들의 문화생활에서 떼여낼수 없는 중요한 한부분으로 되였다.

각급 체육지도기관들과 학교,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한단위에 체육모범을 창조하고 각종 몸단련수단과 방법들을 광범한 대중속에 보급일반화하며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어느곳에 가나 군중적인 체육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집단체조; 1968년에 우리 나라 청소년학생들은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학교체육을 발전시켜 온 자랑찬 성과를 집단체조를 통하여 시위하였다.

씩씩하고 절도있는 체조와 유연한 체육무용에 높은 예술성을 배합한 집단체조를 통하여 우리 나라 청소년학생들은 어버이 수령님의 참된 전사로 지덕체를 다 갖춘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자라고있으며 일상적으로 훈련한 우수한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김일성원수님탄생 쉰여섯돐을 맞이하여 진행된 집단체조**《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배우자》**

4장 2절로 된 이 집단체조에서는 씩씩하고 절도있는 체조동작과 다양한 예술적조형으로써 어버이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훌륭히 형상하고 수령님을 따라 배우는 청소년학생들의 그이에 대한 충성과 흠모의 정을 보여주었다.

집단체조**《대를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자》**(남포, 해주혁명학원창립열돐을 맞이하여 진행)

전투적이고 씩씩한 체조동작에 다양한 예술성을 배합한 이 집단체조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하시고 령도하시는 그 어려운 나날에도 원쑤들에게 부모를 빼앗긴 어린이들을 혁명의 붉은 피줄을 꿋꿋이 이어나갈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깊은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는 원수님의 높은 덕성을 훌륭히 형상하고 그이의 육친적인 사랑속에서 조선혁명의 기둥들이 억세게 자라나는 자기들의 자랑찬 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대집단체조**《천리마조선》**(공화국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진행)

전7장과 서막과 종막으로 된 이 대집단체조에는 4만 5천여명의 평양시내 청소년학생들이 참

가하였다.

대집단체조《천리마조선》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공화국의 깊은 뿌리에 대해서와 그리고 공화국의 기치하에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로선과 정책들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천리마의 기세로 달려온 우리 인민의 영광에 찬 전투적로정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들,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여 우리 혁명의 종국적인 승리를 위하여 더욱 견결히 끝까지 싸우려는 우리 인민의 전투적기백 등을 씩씩한 체조동작과 장엄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었다.

이 대집단체조에서 청소년학생들은 깊은 정치사상적내용과 높은 예술성, 조직성과 규률성으로 하여 일상적으로 단련되고 훈련된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전국중학교 집단체조 경기대회(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경축하여 진행)

7월부터 10월말까지의 사이에 진행된 경기대회에는 각 중학교 단위로 모든 학생들이 참가하였는데 도별 경기성적 순위는 다음과 같다.

1등 황남도, 자강도

2등 황북도, 량강도, 함남도

3등 평남도, 함북도, 평북도

학교체육; 1968년에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의 각급 학교들에서는 체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켰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과정안을 통한 체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과외체육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학년과 체질에 맞게 다양한 체육종목들을 선택하였다.

혁명전적지달리기, 집단체조, 철봉, 너비뛰기, 높이뛰기, 수영, 스케트, 국방체육 등 다양한 체육종목들을 발전시켜 학생들을 로동과 국방에 더욱 믿음직하게 준비시키고있다.

집단달리기; 군중체육을 생활화하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기 위하여 각지 공장, 기업소 사무기관, 인민반들에서는 아침체조, 업간체조와 함께 집단달리기를 정상화하였다.

집단달리기를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는데 여러 기념일을 계기로 실시된 《혁명전적지 달리기》를 통하여 자신들을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무장하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였다.

인민체력검정; 매해 전통적으로 진행하여 온 인민체력검정사업은 이해에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이해의 인민체력검정사업에서는 특히 천리마강선제강소를 비롯한 생산기업소부문의 로동계급속에서 합격자대렬이 현저히 늘어났다.

학교부문 학생들속에서는 참가자의 전부가 인민체력검정 해당급에 합격하였다.

체육후비육성 및 간부양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배려로 설치된 청소년체육구락부는 1968년에도 체육선수후비육성기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해에 청소년체육구락부들에서는 교수훈련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 결과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된 수백명의 유망한 체육선수후비들을 육성해 내였다.

평양체육대학을 비롯한 각 도 사범대학과 교원대학 체육학부들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높은 체육기술을 소유한 우수한 체육간부들을 수많이 육성해 내였다.

체육기술향상; 1968년에 우리 체육인들은 체육기술의 발전에서 주체를 세우며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릴데 대한 우리당 체육정책을 계속 완강하게 관철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체육의 대중화에 의하여 국방체육을 위주로 한 체육기술이 급진적으로 향상되였다.

특히 사격, 모형항공 종목을 비롯하여 배구, 권투, 롱구, 체조 등 일련의 체육종목의 기술이 발전하여 공화국기록갱신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하여 녀자배구, 남자탁구, 녀자빙상, 축구 등 여러종목에서 우리 체육은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떨치고있다.

배구; 우리 나라 선수들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독특한 배구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68년에 이 부문에서는 맹렬한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배구기술은 확고하게 세계적수준에 올라섰다.

우리 나라 녀자배구선수들은 1968년에 진행된 제9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웽그리아 등 강팀들을 물리치고 단연 제1위를 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쏘련 붉은기녀자배구종합선수단을 3대 0으로 이김으로써 우리 나라의 녀자배구가 세계패권자로 등장하고있음을 보여주었다. 남자배구도 전년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배구선수후비도 수많이 자라났는데 매개 체육단배구선수단들이 독립적으로 국제경기에 나가 매번 승리하군하였다.

축구; 1968년에 여러차례에 걸쳐 국내축구련맹전을 진행하였는데 매번 치렬한 격전을 벌리였다.

그것은 강한 선수단들이 많이 출연하였기 때문이였다.

경기에서는 2. 8선수단, 압록강선수단, 평양시선수단, 제비선수단이 비교적 강하여 승부를 다투었으며 여기에서 체육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롱구; 롱구부문에서는 중장거리투사를 위주로한 속도전술체계를 더욱 완성하며 공고화하는 방향에서 훈련을 진행하였다.

결과 우리 나라 롱구기술도 세계적수준에 들어섰다. 1968년에 진행된 롱구경기에서 로동자선수단, 2.8선수단, 압록강선수단(이상남자), 2.8선수단, 압록강선수

단, 평양시선수단 (이상녀자)이 비교적 우수한 단체들이였다.

탁구; 이미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고있는 우리 나라 남자탁구선수들은 1968년에 주로 새로운 높은 기술을 련마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평양시선수단, 압록강선수단, 로동자선수단들에서 새로운 탁구선수후비들이 수많이 자라났다.

체육단; 1968년에 각 도 체육단과 중앙급체육단들에서 훈련하고있는 체육인들은 자신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체육인들의 대렬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졌고 모든 종목에 걸치는 체육기술을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맹렬한 훈련이 진행되였다.

이해에도 2·8체육단, 압록강체육단, 평양시체육단을 비롯한 15개의 체육단과 각 도 체육단들이 활발히 활동하였다.

【국방체육】 근로자들의 체력을 현대전에 적응하도록 단련시키기 위하여 국방체육을 위주로 한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에서는 1968년에 국방체육을 광범히 조직진행하였다.

전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국방체육을 위주로 한 체육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체력을 전면적으로 단련하고 군사기술과 동작에 익숙되며 모든 어려운 조건들을 이겨낼수있는 강의한 육체적저항력을 길러내기 위해 국방체육훈련을 생활화하였다.

일상적으로 훈련된 국방체육기술의 높은 발전수준은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기념하여 진행된 전국인민체육대회 종목별 경기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전국국방체육대회에서는 락하산정점강하를 비롯한 여러종목의 락하산경기들과 ㅎ 2급 모형활공기, ㄱ 2급 모형무동력기, 선조종식, 방사속도기의 비행, 격검, 모터찌클 등 수십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되였는데 여기에는 평양시를 비롯하여 각 도(직할시) 철도성의 국방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체육기술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얻은 성과를 훌륭히 보여주었다.

【주요체육경기】 1968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일을 맞이하여 진행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전달계주, 제3차 공화국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중앙급 체육대회와 각 도, 시, 군 체육경기들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또한 이 해에 우리 나라 선수들은 여러차례의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영웅조선의 높은 체육기술을 온 세계에 시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전달계주 계주대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는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및 청년학생들 수만명이 참가하였다.

계주대렬은 보천보, 중강, 1211고지, 두만강로동자구, 판문점, 평성 등 6개지점에서 출발하였다.

편지전달계주의 첫대렬이 8월 12일 우리 나라 북단 두만강로동자구에서 떠나 10월 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들어섰다. 이날 모란봉경기장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평양시의 각 도 계주대렬학생대표들이 전달하였다.

공화국창건 스무돐경축 제3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체육대회 이 제3차 공화국체육대회에는 각 도에서 선발된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여 륙상, 마라손, 체조, 격검, 헤염, 탁구, 야구, 정구, 사격, 레스링, 유술, 씨름, 축구, 배구, 롱구, 송구, 궁술, 까애크, 조정 등 모든 체육종목에 걸쳐 경기를 진행하였다.

이 체육대회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방과 결합된 체육, 생산과 결합된 체육, 교육과 결합된 체육을 정상적으로 하여 련마해온 자기들의 튼튼한 체력과 높은 체육기술, 완강한 투지를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날로 발전하는 우리 나라 대중체육의 일단을 과시하였다.

대회에서는 자전거경기에서 3개의 공화국 신기록을 수립한것을 비롯하여 륙상경기에서만도 지난 제2차 공화국체육대회의 기록을 15개종목에 걸쳐 뛰여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종합성적순위

1위 평양시

2위 평북도

3위 함남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경축전국중학생체육대회 (10월6—12일, 평양);

대회에는 각 도(직할시)에서 학교별대항경기를 걸쳐 선발된 2천 6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경기에서 청소년학생들은 지덕체를 다 갖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할데 대한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평상시에 련마해 온 단련되고 세련된 체육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종합성적순위

1위 함남도

2위 평남도

3위 평양시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경축전국학생빙상경기대회(1월 21—23일, 강계)

속도빙상, 휘거, 호케이 등 종목에 걸쳐 도별 대항으로 진행된 경기에서는 날로 발전하는 청소년학생들의 높은 스케트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종합성적에서 1위를 한 단체

대학부문—평양체육대학선수단

고등기술학교부문—자강도선수단

중학교부문—자강도선수단

제8차 전국역전경주대회 (4월 14일 평양—남포간도로)

종합성적순위
1위 평양시
2위 황남도
3위 함남도

조선인민군군사3종경기대회(10월 1—3일)

조선인민군 각 구분대들에서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잘 준비된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여 사격, 수류탄던지기, 장애물극복경기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평상시에 땀을 많이 흘리면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전투정치훈련에서 모든 정력을 다바쳐온 인민군군인들의 전투적기백과 그 어떤 원쑤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일당백의 기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중앙 및 도 체육단 체육대회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경축전국체육단 호케이경기대회(2월13—20일, 혜산);
우승한 단체 순위
제1위 평양시체육단
제2위 량강도선수단
제3위 자강도선수단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경축조선인민군 종목별체육경기대회(1월28일—2월8일);

경기대회에는 중앙체육단선수들이 참가하여 축구, 롱구, 배구, 권투, 력기, 레스링, 유술 등 수십가지 체육종목들을 가지고 경기를 하였다.

주요종목에서 1위를 한 단체
탁구—백봉산체육단
권투—제비체육단
레스링—반룡산체육단
유술—묘향산체육단
력기—월비산체육단
롱구(남자)—제비체육단
(녀자)—초병체육단
배구(남, 녀)—반룡산체육단

항일유격대창건 서른여섯돐기념 중앙 및 도체육단 종목별경기대회;
주요 종목에서 1위를 한 단체
롱구(3월 24일—4월 1일)
(남자)—2·8체육단
(녀자)—초병체육단
탁구(3월 27일—4월 11일)
(남자)—압록강체육단
(녀자)—2·8체육단
축구(3월 28일—4월 15일)—초병2조 선수단

5. 1절기념 종목별경기대회(4월 26일—5월초);
주요종목에서 1위를 한 단체
권투, 력기—2·8체육단

공화국창건 스무돐경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체육대회체육단경기 (8월 1—11일); 경기에서는 70여개의 공화국 신기록이 수립되였다.

우리 나라선수단과 외국선수단과의 주요 체육경기

제9차세계청년학생축전체육경기(7월 29일—8월 5일, 벌가리아수도 쏘피아); 경기는 쏘피아(남녀배구, 체조 기타 구기부문)와 쁠로브지브(권투), 하쓰꼬보(레스링), 쁠레벤(탁구) 등에서 진행되였다.

각종 경기들에 참가한 우리의 체육인들은 체육부문에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가슴깊이 새기고 평상시에 련마해온 높은 체육기술과 완강한 투지, 그리고 고상한 도덕적풍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경기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고 영웅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다시한번 떨치였다.

특히 우리 나라 녀자배구팀과 탁구선수들은 구라파의 강자들을 물리치고 단연 제1위를 하였다.

우리의 체육인들은 이 경기들에 참가하여 1개의 우승컵과 금메달 17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9개, 도합 48개의 메달을 쟁취하였다.

사회주의국가청소년국제녀자배구경기대회(9월 18—24일, 꾸바의 수도 아바나);
우리 나라청소년녀자배구팀 제1위

우리 나라 녀자롱구선수단과 꾸바녀자롱구종합선수단과의 친선경기(5월 9—19일, 평양);
2·8녀자롱구선수단은 81 대 45로,
평양시녀자롱구선수단은 77 대 66으로,
압록강녀자롱구선수단은 95 대 56으로,
우리 나라 녀자롱구종합선수단은 77 대 47로 각각 승리

우리 나라 남자롱구선수단과 웽그리아인민군 남자롱구선수단과의 친선경기(5월 17—28일, 평양);
2·8남자롱구선수단은 72 대 54로,
월비산남자롱구선수단은 81 대 67로 각각 승리

우리 나라 남자탁구종합선수단과 웽그리아남자탁구선수단과의 친선경기(7월 7일, 평양);
첫경기에서 우리 나라가 5대 1로 승리

우리 나라 축구선수단과 민주독일 에르푸르트 로트—와이스축구선수단과의 친선경기(7월 11—14일, 평양);
로동자선수단은 3 대 1로,
반룡산선수단은 4 대 0으로 각각 승리

우리 나라 유술선수단과 뽈스까유술종합선수단과의 친선경기(10월3—6일 평양);
2·8선수단과 청년종합선수단은 각각 26전 16승 3무승부 7패로,
평양시 선수단은 20전 18승 1무승부 1패로 승리

국제탁구경기대회(2월초, 부꾸레슈띠);
우리 나라남자탁구선수는 단체전에서 제1위

국제권투경기초청대회(4월 12—14일, 웽그리아);
우리 나라 선수들은 57키로그람급과 75키로그람급에서 각각 1위

우리 나라 녀자배구선수단과 뽈스까녀자배구종합선수단과의 친선경기(2월 뽈스까);
첫경기에서 3 대 2로,
둘째경기에서 3 대 0으로 각각 승리

우리 나라 남녀궁술선수단과 웽그리아남녀궁술선수단과의 친선경기 (8월 9일, 웽그리아);
개인전에서 우리 나라 남녀궁술 선수들 각각 1위

출판보도

우리 당 출판물의 창간자이시며 지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출판물의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제시한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과업

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김일성선집》 4권 1960년판 562페지)

근로대중의 의사의 진정한 대변자이며 집단적선전자, 조직자인 우리의 당적출판물들과 통신, 방송은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당이 제시한 과업실천에로 조직동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출판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이길수 있는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초기부터 손수 신문과 잡지, 소책자들을 수많이 집필출판하시였으며 그것이 혁명투쟁의 가장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간하신 《3.1월간》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은 항일무장투쟁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 출판물의 선전선동자, 조직자적역할을 높이며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 대중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고귀하고 풍부한 경험들과 빛나는 업적들이 이룩되였다.

이러한 혁명적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우리 출판물의 가장 영광스러운 전통으로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발간한 혁명적출판물의 직접적계승자인 우리의 당적출판물들은 당의 수중에 장악된 계급투쟁의 예리한 무기, 사상혁명의 가장 위력한 무기,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수단으로서 우리 당이 제시한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다.

1968년에 우리의 당적출판물들과 통신, 방송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였다.

우리의 기자, 편집원들이 이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신들부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특히 출판보도부문에 주신 그이의 교시를 심오히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수령과 함께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유일사상체계가 똑바로 선 수령의 참된 문필전사로서 글을 쓰고 편집하는 것이였다.

1968년 7월 12일부터 13일, 량일간에 걸쳐 진행된 조선기자동맹 제3차대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사업에서 기자, 편집원들이 해야할 과업을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당적출판물들과 통신, 방송이 지난기간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일상적인 세심한 배려밑에 당의 강유력한 사상적무기로 더욱 강화발전하여온 자랑찬 로정을 총화하였다.

또한 대회에서 우리의 기자, 편집원들은 자기들에게 돌려주시는 수령의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경애하는 수령의 주위에 철통같이 묶어세우는 사업에 전력을 다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기자, 편집원들은 근로자들속에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 혁명사상을 적극 해설선전하며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반항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을 결의하였다.

우리의 기자, 편집원들은 출판보도부문에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기자동맹 제3차대회에서 결의한대로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있는 지혜와 정력을 다바치였다.

우리의 출판물들은 우리 당 사상전선의 전초선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적극 해석선전하며 수령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어김없이 관철하는데로 전체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다른해에 비하여 1968년에는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발행하는 사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여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968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1967년에 비하여 김일성동지의 로작발행을 종수에서 3배, 부수에서 2.1배나 늘였으며 혁명전통교양자료출판은 종수에서 3.8배, 부수에서 2.3배로 늘이였다.

출판보도부문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당적출판물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관지답게 사상전선의 제1선에서 당성과 로동계급성의 기치를 더 한층 높이들고 집단적선전자,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로작출판】 우리 나라에서는 1968년에 1945—1967년시기의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묶은 《김일성저작선집》 전4권을 모두 출판하였다.

《김일성저작선집》의 출판은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김일성저작선집》에는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를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문화의 모든 분야에 구현한 우리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들이 집대성되여있다.

1945—1956년 시기를 포괄하는 《김일성저작선집》제1권에는 이시기 김일성동지의 론문, 보고, 연설, 담화들 가운데서 중요한 저작 38건이 들어있다.

8.15해방후 평화적민주건설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는 한편 경제분야에서 자본주의적발전을 제한하면서 국영부문의 지배적지위를 보장하고 민족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이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준비사업은 성과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없애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는 과정에 귀중한 경험과 업적을 남기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고 최후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전후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이 절실히 요구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제때에 농업협동화 문제를 내세우시고 농촌경리와 도시상공업 및 수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였다.

《김일성저작선집》제1권에 들어있는 로작들은 우리 혁명이 가장 복잡하고 간고하던 시기에 당과 인민이 나아갈 명확한 길을 명시하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어준 력사적문헌이다.

제1차 5개년계획기간 (1957—1960년)을 포괄하는 《김일성저작선집》제2권에는 이시기 김일성동지의 연설, 보고, 담화들가운데서 중요한 저작 21건이 들어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과 그 공고화,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 새환경에 적응한 당 및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의 확립, 사상, 문화혁명의 추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위한 투쟁등에 대한 전략전술을 휘황하게 밝히시였다.

제1차5개년계획기간에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기초를 축성하는 불멸의 업적을 남기였으며 내외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고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김일성저작선집》제2권에는 이러한 업적과 경험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총화되여있다.

이 저작선집은 사회주의기초축성의 력사적승리를 담보한 위대한 강령적문헌이다.

1961—1963년 시기를 포괄하는 《김일성저작선집》제3권에는 이시기 김일성동지의 연설, 보고, 결론들가운데서 중요한 저작 15건이 들어있다.

1961—1963년,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 미제를 괴수로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던 때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전술적 방침을 옳바르게 내놓으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세계혁명을 촉진시키는데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김일성저작선집》제3권에 수록된 저작들에는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다그치며,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관리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역할을 높이며, 당 사업을 개선하고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며, 모든 사람을 교양개조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며 세계혁명을 촉진하는것과 같은 원칙적인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풀어나간 현명한 전략전술이 천명되여있다.

《김일성저작선집》제3권에 들어있는 로작들은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중첩되는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건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위대한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를 불패의것으로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게한 강령적지침이다.

제3권에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이 일관하게 흐르고있다.

1964—1967년 시기를 포괄하는 《김일성저작선집》제4권에는 이시기 김일성동지의 론문, 연설, 보고, 결론, 강의, 서한, 담화들가운데서 중요한 저작19건이 들어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며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원칙과 방도,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이 저작선집에 수록된 로작들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적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여 우리 조국을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게한 강령적문헌이다.

《김일성저작선집》제4권에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로작들이 들어있다.

이로서 1968년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1945—1967년시기의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묶은 《김일성저작선집》전4권을 모두 출판하였다.

《김일성저작선집》에는 조선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전략과 전술이 전면적으로 천명되여있으며 우리 당과 인민이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내외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새 사회를 건설하여온 고귀한 경험과 불멸의 업적이 과학적으로 분석총화되여있다.

1968년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1968년 9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 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우리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초미의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신 김일성동지의 이 보고는 민족해방혁명, 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종국적인 승리를 이룩할때까지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심오한 사상과 과학적리론, 탁월한 방침들을 정연하게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강령적문헌이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1967년 12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하신 공화국정부정강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이 로작에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고 그를 모든 분야에서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조선혁명의 총적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의 투쟁과업이 명시되여있다.

한편 이 로작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조선인민자신의 주체적력량에 의하여 책임적으로 완수하며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1968년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한 김일성동지의 문헌집《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하여》에는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구현하여 인민정권을 세우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인민정권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신 그이의 위대한 로작 29건이 들어있다.

이 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의 인민정권이 걸어온 자랑찬 승리의 로정과 인민정권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을 총화하고 인민정권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한 력사적문헌집이다.

단행본으로 출판된 김일성동지의 문헌집《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는 우리의 혁명과 건설, 우리의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불후의 저작들이 들어있다. 문헌집은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하신 보고, 공화국정부의 10대 정강과 《조선인민군창건에 즈음하여》, 《인민군대를 강화하자》 등 수많은 로작들로 묶어졌다.

또한 1968년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연설《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경축연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이 연설에는 지난 20년동안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무장력인 인민군대가 쌓아올린 불멸의 위훈과 업적, 성과들이 지적되여있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이 명시되여있다.

1959년 10월 17일 전국지방산업 및 생산협동조합열성자대회에 참가하였던 영예군인들앞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을 비롯한 그이의 천재적인 로작 여러건이 묶어진 김일성동지의 문헌집《영예군인들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세운 위훈과 업적을 헛되이 하지 말고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1968년에 출판된 김일성동지의 문헌집《직업동맹사업에 대하여》에는 김일성동지께서 직업동맹을 창설하신때로부터 우리 혁명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직업동맹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심혈을 바치신 그이의 강령적로작 22건이 들어있다.

김일성동지께서 1960년 2월 18일 강서군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연설《새 환경에 맞게 군당단체의 사업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와 1955년 4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관료주의를 퇴치할데 대하여》, 김일성동지께서 1954년 5월 11일 교통운수부문 모범일군회의에서 하신 연설 《교통운수부문일군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단행본으로 각각 출판하였다.

1968년에 출판된 김일성동지의 문헌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와 농업근로자동맹사업에 대하여》는 김일성동지께서 농업부문과 농업근로자동맹앞에 주신 중요한 연설, 론문 등 수십건의 로작들로 묶어졌다.

문헌집에 들어있는 1964년 2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비롯

하여 1960년 2월 8일 강서군 청산리당 총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등 로작들에서 그이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또한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결론 《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와 에르네스또 체 게바라 전사 한돐에 즈음하여 친필하신 김일성동지의 론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혁명전통교양자료출판】 1968년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수많이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의 빛나는 혁명활동과 고매한 품성에 대하여 서술한 《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은 크게 4개측면으로 나누어져있다.

김형직선생의 빛나는 업적과 숭고한 혁명정신, 고매한 덕성과 풍모를 담은 이 책은 오늘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종국적인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귀중한 교과서로 된다.

또한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1—9권을 다시 출판하였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는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투쟁과 생활의 산 교과서이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대중의 심장에 파고들어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혁명의 강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고있다.

1968년에 다시 출판한 회상기책들에는 200여편의 귀중한 회상기들이 들어있다.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인 참가자들인 회상자들은 회상기들에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조직하고 승리에로 이끄신 혁명의 천재적인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위대한 혁명투사, 공산주의자의 전형으로서의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풍모와 높은 덕성에 대하여, 그이에 의하여 지도된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서술하고있다. 또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 진실로 맑스-레닌주의적이며 공산주의적인 혁명적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등 실로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내용들을 자기가 직접 체험한것, 보고 들은 사실에 기초하여 감동적으로 쓰고있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가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것은 그것이 오늘 우리 인민들뿐만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끝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시며 그들이 흠모하여 마지않는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산기록이라는데 있으며 세계혁명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한 15성상의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에서 그이께서 이룩하신 세계사적인 위대한 혁명업적과 사업경험이 생동하게 수록되여 있는데 있다.

또한 1968년에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10권을 새로 출판하였다.

이 책에는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조직령도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와 탁월한 령군술과 높은 덕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이의 령도를 받들고 일편단심 혁명의 길에서 충성을 다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고상한 혁명가적풍모를 보여주는 회상기 15편이 들어있다.

또한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1—2권을 다시 출판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적사업기풍, 높은 덕성을 감명깊게 보여주는 이 책의 1권에 22편, 2권에 25편의 회상기가 들어있다.

단행본으로 출판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선전선동활동》은 크게 두개부분 즉 《항일무장투쟁시기 선전선동활동의 내용》, 《항일무장투쟁시기 선전선동의 형식과 방법》으로 나뉘여 수록되였다.

1968년에 새로 출판한 회상실기 《인민들속에서》6, 7권에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그이의 높은 덕성과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회상실기들이 들어있다.

【문예도서출판】 1968년에 근로단체출판사에서는 《수령의 참된 전사들》1권, 《위대한 수령을 따라 배우자》1권, 《수령의 부름따라》1권, 시집《수령께 드리는 송가》 등 수령에 대한 로동계급의 불타는 충성심과 그들의 영웅적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묶은 책을 출판하였으며 문예출판사에서도 시집《수령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철벽의 요새》, 가요곡집 《초병의 노래》 등 수많은 책들을 출판하였다.

× ×

1968년에 우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당이 제시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건설의 과업실천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해 7월 9일 우리 나라 출판보도부문에서는 신문《조선인민군》창간 스무돐을 기념하였다. 신문《조선인민군》은 창간첫날부터 당적이며 혁명적인 정치신문으로서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모든 군인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특히 그이의 천재적인 자위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기위해 투쟁해온 자랑찬 로정을 총화하였다.

신문《조선인민군》은 오직 수령의 령도만을 받으며 당의 유일사상으로 숨쉬고 활동하면서 자기의 전투적인 필봉으로 온갖 기회주의, 교조주의, 사대주

의, 종파주의,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반혁명적사상조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주체사상을 구현하는데 모든 군인들을 힘차게 동원하였다.

지난 20년동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육친적인 배려밑에 영광스러운 전투적행로를 걸어온 신문《조선인민군》의 기자, 편집일군들은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더욱 단련되였으며 어떤 난관과 풍파가 앞을 가로막아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길을 따라 용감히 전진하며 그이께서 주시는 과업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들어 끝까지 수행하고야 마는 당과 수령의 충직한 전사로, 언제나 군인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그들을 교양하며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훌륭한 정치활동가로 열렬한 문필전사로 믿음직하게 자라났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는 지난 기간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인민군대의 강화발전과 우리 혁명위업의 수행을 촉진함에 이바지한 신문《조선인민군》의 커다란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축하문을 보내였다.

【통신】 조선중앙통신사는 일간 《조선중앙통신》, 《사진통신》, 《영문통신》, 《로문통신》, 《프랑스문통신》, 《에스빠냐문통신》 등 통신과 《조선중앙년감》을 비롯한 대내외선전사업에 필요한 출판물을 편집발행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방향영문방송,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방향프랑스문방송, 구라파방향로문방송 그리고 국내 각 지방을 대상으로하는 지방방송을 하고있다.

【방송】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국내 및 대외방송을 조직진행한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 여러나라 방송국 및 단체들과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의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분야에서 국제적협조를 강화하고있다.

【신문】 우리 나라에는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을 비롯한 당 및 정부기관지들과 함께 사회단체 기관지, 기타 각 계층을 대상으로하는 중앙신문들과 각도(개성시)에서 발행하는 지방신문 등 20여종 있으며 기타 생산기업소들과 국영농목장, 대학들에서 발간하는 신문도 있다.

1968년말 현재 우리 나라에서 발행하고있는 주요신문들은 다음과 같다.

《**로동신문**》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민주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로동청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자신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농업근로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소년신문**》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평양신문**》

《**평양타임스**》(영문)

【잡지】 1968년에 《근로자》를 비롯한 사회과학부문잡지, 《수학과 물리》를 비롯한 자연기술과학부문잡지, 《조선문학》, 《조선예술》, 《조선영화》를 비롯한 문학예술부문잡지, 《새세대》를 비롯한 학생소년잡지, 《오늘의 조선》(영문, 프랑스문, 일문), 《새조선》(중문, 로문), 《조선무역》(로문, 영문), 《조선우표》(영문)를 비롯한 대외선전부문잡지 등 수많은 정기간행물들이 발행되였다.

1968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출판보도분야에서의 국제적교류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국제기자동맹대표의 우리 나라 방문을 비롯하여 웰남, 꾸바, 몽골,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아랍련합공화국, 꽁고(브), 수리아 등 여러나라 기자대표단 및 대표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미제강점하의 남조선

어버이수령의 극진한 배려, 위대한 수령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

어버이수령의 뜨거운 사랑과 극진한 배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고있는 남녘형제들을 심려하시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있고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이 외래침략자들에게 갖은 민족적 모욕과 천대를 다 받고있는 이 불행한 처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도 조선의 어느 량심있는 민족주의자도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44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분렬된 조국을 하루속히 통일하고 남조선인민들을 불행에서 해방하는것을 언제나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여기시고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그들도 북반부인민들과 같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기 위해 항상 심려하고 계신다.

실로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실 때에도 분렬된 조국과 남조선인민들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어버이수령님, 그이께서는 하나의 공장을 건설하고 하나의 관개공사를 추진시키며 하나의 옷감생산지표를 설정하실때에도 언제나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할것을 예견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벌써 우리 나라를 유족하고 문명한 살기 좋은 락원으로 만드시려는 위대한 구상을 품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소 투쟁의 앞길을 개척하여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이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통일의 위업을 하루속히 성취하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지시는 한편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고통과 불행을 가슴아파하시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배려를 돌리고계신다.

1957년 5월 김일성수상님께서는 남조선에 극심한 식량위기가 조성되여 전체 농가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약 100만호의 농민들이 식량이 떨어져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찾아 무리로 산과 들을 헤매다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때에 공화국 내각결정으로 백미 10만석을 남조선절량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보내주실데 대한 육친적인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와 괴뢰도당의 악정으로 빚어지는 재해를 입고 혹심한 고통을 겪을때에는 리재민들의 신변을 념려하시여 그들에게 막대한 구호물자를 보낼데 대한 조치를 여러차례에 걸쳐서 취하시였다.

1959년 여름 남조선일대를 휩쓴 풍수해로 수천명의 주민들이 희생되고 약 80만명에 달하는 리재민들이 집과 세간살이를 잃고 한데에 나앉아 신음하고있었을때에도 김일성동지께서는 위급한 처지에 빠진 남녘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북반부에 남반부리재민구호위원회를 조직하시고 많은 구제물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기로 하시였다.

남녘땅동포들을 구원하려는 그이의 뜨거운 어버이사랑과 극진한 배려는 1960년에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회의에서 강구하신 대책에도 반영되여있다.

수령께서 마련하신 이 대책들에는 파괴된 남조선민족경제와 령락된 인민생활을 추세우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막대한 량의 전력과 석탄, 선철, 압연강재, 세멘트, 목재, 판유리, 공작기계, 비날론, 인조섬유, 합성수지, 가성소다 등을 해마다 보내며 수년내에 10만세대분의 다층주택을 지어 남조선의 가난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것이 예견되여있다.

여기에는 또한 20만톤능력의 제철, 20만톤능력의 제강, 15만톤능력의 압연흑색야금종합공장과 4개의 수력발전소를 비롯하여 세멘트공장, 공작기계공장, 농기계공장, 광산기계공장, 비료공장, 판유리공장, 인조섬유공장 등을 우리의 설비와 기술로 건설해줄데 대한 대책과 함께 서울에 자동차수리공장을 건설하며 해마다 1천대의 철도차량을 보내줄 조치도 취해져있다.

수령님께서는 황폐화된 남조선농촌을 복구하며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농민들도 공화국북반부농민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간공사에 요구되는 불도젤, 굴착기, 기타 기계설비들과 관개공사와 치산치수사업에 필요한 세멘트, 철재, 목재 기타 자재들 그리고 농업을 기계화하는데 요구되는 뜨락또르, 화물자동차와 기타 농기계들을 보내며 해마다 부림소를 4만～5만마리씩 보내주실데 대한 대책을 취하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수년내에 적어도 100만정보의 땅을 개간하여 토지 없는 농민들과 토지 적은 농민들, 리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한편 62만정보의 수리불안전답을 수리안전답으로 만들데 대한 문제들을 제시하시고 그 해결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대책에서 도탄에 빠진 남조선어업을 발전시키며 어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3천 500톤급 가공모

선과 400~500톤급중형철조선을 포함한 700척의 기관선을 년차별로 보내며 어선들의 동력화에 필요한 열구엔진과 디젤엔진 그리고 어항들의 복구확장과 신설에 필요한 자재들도 보내주실것을 예견하시였다.

어버이 수령께서는 그후 1961년과 1963년 그리고 1964년에도 남조선인민들에게 이러한 배려를 거듭 돌리시였다.

1964년 3월에만하여도 김일성수상께서는 미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밑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만석의 쌀과 10만톤의 강재, 10억키로와트시의 전력, 1만톤의 화학섬유를 비롯하여 세멘트, 목재, 기재류 등을 무상으로 보내주시기로 하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수많은 남조선의 실업자들과 집재고아들 및 류랑걸식하는 아동들을 북반부에 받아들여 그들에게 일터와 생활을 보장하며 청소년들을 받아들여 공부시킬데 대해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대책을 강구하시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먹을것을 구하려고 거리를 헤매거나 의지할곳 없는 수십만의 고아들과 걸식아동들 및 가난한 청년학생들과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1958년 8월 21일 내각결정으로 백미 15만석, 천 500만메터, 수산물 1만톤, 신발 400만켤레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또한 곤난한 처지에 있는 남조선 청년학생들을 그 일부라도 도와주기 위하여 임의의 남반부대학에서 취학하고있거나 앞으로 취학할 대학생 3천여명에게 항구적으로 매달 1천원(당시의 화페로)씩의 장학금을 제공할 기금을 설정할데 대하여 대책을 취하게 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1959년 1월 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브라질, 빠라과이 등 남미주의 노예주들에게 중신노예로 팔리여가게 될 남조선동포들을 공화국북반부에 넘겨받아 그들의 희망과 기능에 따라 직업을 알선해주고 생활안정을 보장해주실데 대한 뜨거운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남녘인민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배려는 한량이 없다. 바로 이에서 힘을 얻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그이께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책동으로 실업과 빈궁, 기아와 질병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어버이 수령을 무한히 흠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김일성수상님의 따뜻한 손길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다.》, 《도탄에 빠진 현남조선을 구원할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는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밖에 없다.》

이것은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이 자기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온갖 극진한 배려를 다 돌려주시고계시는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충성심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자기들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워나가려는 불타는 심정을 반영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 참가하였던 남조선혁명조직대표는 위대한 수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격동된 심정으로 말하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와는 판이한 암흑세상에서 살고있으나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마냥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희망을 키우며 의지를 가다듬고있습니다. 로동자, 농민들은 그이의 초상화와 공화국기발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일일천추 그이의 넓은 품에 안길 그날을 위하여 싸우고있으며 청년학생, 지식인들은 수령의 로작연구에 심혈을 기울이며 그속에서 삶과 투쟁의 진로를 찾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영상은 어린이들로부터 로인들에 이르는 남조선의 모든 인민들에게 깊이 간직되여 있으며 우리의 투쟁과 승리의 기치로 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한 로동자는 그이의 뜨거운 어버이사랑과 끊임없는 배려를 생각할때마다 가슴이 후더워지며 새 힘이 솟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남조선동포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육친의 심정으로 헤아려보시면서 우리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항상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동력과 대상, 현단계에서의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과 그 수행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뜻을 받들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더욱 굳게 싸워나가겠다.》

남조선농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항상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며 온갖 육친적배려를 돌려주시는데 대하여 감격을 금치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김일성원수님의 친어버이와 같은 혈육의 정을 가슴깊이 간직한다.》

《참 그분의 정치와 배려에는 머리가 수그러진다. 그분은 진실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수상님의 은덕을 바다에 비기랴, 태산에 비기랴!》

남조선의 한 청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반부에서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학용품을 주고, 철따라 옷을 주고, 지어 대학생들과 고등기술학교 학생들에게는 돈까지 주어 공부시킨다니 김일성수상님은 참 고마운 분이시다.…

청소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이의 품속에서 마음껏 공부해보았으면 한이 없겠다.》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오늘에 비로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항일의 기치, 조국광복의 기치,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신 그때로부터 그이께서는 벌써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시였다.

그러기에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그이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빛나는 혁명활동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의 위대한 승리가 있고 보다 휘황한 래일이 약속되고 있음을 감명깊게 이야기하고 있다.

해방직후인 1945년 12월 29일부 남조선의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이 격조높이 썼다.

《우리민족이 낳은 군사적천재이시며 영웅이신 김일성장군! 일찌기 일본제국주의의 압제아래 우리 민족이 암담한 경지에 빠져있을때 김일성장군의 존재는 그 이름과 같이 민족의 태양이였고 희망이였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 이름 알아 용기를 얻었으며 위대한 투쟁에로 궐기하였던가.》

이것은 이 한 필자만의 심정이 아니라 당시 모든 남조선 사람들의 심정을 바로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것이다.

남조선주민들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이룩된 공화국 북반부의 휘황찬란한 성과에 대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로정과 결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김일성장군님은 하늘이 낸 애국자이십니다. 일제때부터 싸우신 김일성장군님이 정치를 하시니 공화국북반부 사람들은 잘 살수밖에 없습지요.》

《왜놈들과 총칼을 맞대고 싸우신 김일성장군님이 오늘은 나라를 령도하시니 일이 잘 될밖에 없습지요. …남조선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남조선사람들이 잘 살자면 수상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김일성장군님은 일본놈을 반대하여 만주벌판에서 고생하시면서 싸우신 애국자이시기에 백성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주시고 백성들의 아픔을 해결해주실수 있다.》

남조선의 괴뢰군 중하층장교들과 사병들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김일성장군이야말로 조선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끝까지 전개하시여 나라를 되찾으신 참다운 애국자이시며 우리 민족의 둘도없는 령도자이시다.》

《일제시기 만주벌판과 백두령봉에서 싸우시던 바로 김일성장군님이 지금 공화국북반부에서 정치를 하고계시는데 공화국북반부에는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이 없고 무료교육과 무상치료가 실시되고 로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행복하게 살고있다더라, 우리가 김일성장군님의 품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무한한 존경과 흠모의 정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하여 더욱 두터워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여년간 오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몸을 다 바치셨으며 또 바치고계시다.

그이께서는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그 간고한 15성상의 나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어린 시절부터 혁명의 길에 나서신데 대하여 경모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나는 김일성수상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있다. 열네살때 압록강을 건느시면서 하신 장군님의 말씀이 얼마나 훌륭하신가! 장군님은 어렸을때부터 남다르셨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진정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은 항상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인민적사업작풍과 덕성에 대하여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전쟁시기 우리 마을에 인민군대가 왔을때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옹호하고 존중히 하는 정신에 놀랐다. 이때에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이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는것을 알았다.》

더우기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남반부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깊은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며 남조선의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고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고있으며 그이를 령도자로 모시고있는 긍지드높이 그이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남조선의 한 주민은 자기의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특히 남조선 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조국을 통일시켜 우리들을 몹쓸 정치에서 해방해주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야기는 아직도 나의 머리에 쟁쟁하다.

남조선의 몹쓸 정치가 아니였더라면 우리 조국은 이미 통일되였을것이며 남반부 동포들도 오늘과 같이 인간생지옥에서 신음하지 않고 그이의 사랑밑에서 북반부 동포들처럼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을것이다.》

남조선의 한 청년은 《아무리 사회제도가 좋다고 한들 인민을 옳게 령도하시는 수령이 안계시면 오늘의 북조선을 생각할수 없을것이다. 나는 김일성수상님의 그 위대하고 현명한 령도에 감복했으며 4천만 조선인민의 령도자로서 그분이 계심을 무한한 민족적자랑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긍지높이 자기의 심정을 말하였다.

남조선의 한 주민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원수의 높고 깊은 사랑의 손길로 남녘의 암운을 휘몰아칠 그날이 어서 오기를 위해 그이의 가르침 따라 오직 내 한몸을 바침을 다짐한다.》

영명한 수령의 따사로운 품안에 안기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불타는 념원

남조선의 혁명가들은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드린 축하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암흑통치하에서도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당신을 우러러 휘황한 앞길을 내다보고있으며 형언할수 없는 무권리와 빈궁속에서도 경애하는 당신의 령도하에 륭성발전하고있는 자기의 진정한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래일의 행복을 확신하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길, 공화국이 나가는 승리와 영광에 찬 길에서 래일의 조국, 자기들의 밝아올 앞날을 내다보고있다.

한 남조선의 혁명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화국북반부와 김일성원수에 대한 존경과 신뢰 이것은 전체 남조선인민들을 하나의 지향으로 결속하여주는 위대한 기발이다. 이 기발이 있기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남조선인민들은 그 처절한 피바다속에서도 굴함없이 멎음이 없이 또 길을 잃지 않고 날과 더불어 더욱더 단결되여가면서 싸워나갈수 있었던것이다.》

남조선의 한 어민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화국북반부는 암흑속에 시달리는 우리 남조선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와 같다. 우리가 찾고있는 자유와 권리, 윤기 띠고 활기띤 생활이 북에서는 훌륭히 실현되고있다는것을 알기때문이다. 그런 정치며 제도가 남조선땅에도 꼭 펼쳐질 날이 오리라 믿으면서 우리는 난관을 물리치며 살고 투쟁한다.》

남조선인민들의 이러한 념원과 신념은 간고한 시련속에서 생활체험을 통하여 나온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공화국 북반부를 동경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위대하신 김일성수상님의 영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 북반부에는 지상락원이 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 나는 잘 알고있다.

농민들은 세금을 모르고 9년제 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어린이 세명이상을 가진 어머니의 로동시간이 6시간으로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있다. 언제면 우리도 그런 세상에서 살수 있겠는가.》

《북조선이야말로 참된 지도자에 참된 정치를 가진 하늘아래 제일 좋은 사회이다.》

《김일성수상님이 정치를 잘 하시여 백성들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자식을 공부시킬 걱정, 병나면 치료할 걱정, 아무 걱정 없는 희한한 세상이 공화국 북반부 세상이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직업에 귀천이 없는 공화국북반부 정치는 제일 좋은 정치이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깊은 배려에 의하여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살고있다. 그러기에 남조선의 각계 각층 주민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무한히 동경하면서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적들의 가혹한 폭압속에서도 영명하신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반미구국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의 한 가난한 주민은 다음과 같이 결의를 다지였다.

《나는 죽어도 김일성수상님의 혁명사상과 공화국북반부 사회주의제도를 믿고…혁명에 몸바쳐 나설 결심을 하였다. 혁명을 하다가 죽는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혁명을 하다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그이께서 돌보아주실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하신 령도를 따라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기세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는 불길처럼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따뜻한 품안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백번 쓰러졌다 백번 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투지로 과거 항일혁명투사들처럼 불사조와 같이 싸우고 또 싸울것이다.》《내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더라도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총탄이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혁명투쟁에 몸바쳐 나설것을 굳게 맹세한다.》라고 말하면서 용감히 싸우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그이의 혁명성과 높은 덕성에 대해,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의 행복한 락원으로 전변된 공화국북반부의 찬란한 현실에 대해 대중들에게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전개하고있다.

남조선 동해안일대의 애국적어민들은 혁명조직을 뭇고 어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40여년간의 혁명력사와 혁명사상을 선전하는한편 그이의 현명한 령도하에 이룩된 공화국북반부의 찬란한 성과와 행복한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소개선전하였다.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흠모하면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여 그이의 자애로운 품속에 안기려는 념원에 불타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더욱 확고히 안겨주기 위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이러한 활동은 원쑤들의 폭압을 박차고 도처에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청년학생들이 중심이 되여 조직된 《독서회》성원들은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선서문》을 작성

하고 《조선로동당 수령 김일성 수상님께 충성을 맹세》하면서 조선로동당력사와 맑스-레닌주의서적을 연구하였다.

통일혁명당성원들은 《김일성선집》을 비롯한 수령의 불후의 로작들과 《김일성전기》를 연구하고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한편 그것을 대중속에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남조선의 한 녀성은 고달픈 생활속에서도 시집갈때 입으려고 한푼두푼 모아 마련한 양단폭에 《김일성원수 만세》라고 수놓은 선물을 보내왔으며 70고령의 로인은 수령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기 위하여 자기집에서 대대로 가꾸어 온 지방특산물을 보내왔다.

남조선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날로 더욱 더 깊어 가고 있는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흠모의 정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동경은 북쪽하늘을 우러러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그려보는 그들의 불같은 심장속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노래에서도 잘 표시되고있다.

남조선강원도 원성군 문막면에 사는 한 애국청년은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 공화국북반부의 찬란한 현실에 대하여 4년여에 걸쳐 마을사람들에게 진지하게 해설선전하였으며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내의 애국청년들도 원쑤놈들의 삼엄한 감시의 눈을 피해가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선전문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돌려읽으면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나라의 북반부에 이룩된 위대한 변혁들을 소개선전하였다.

서울의 고려대학교 교수들은 남조선의 교원대중을 포함한 지식계층들에게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선전을 광범히 진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의 두터운 배려속에서 아무 근심걱정없이 과학연구에 힘을 기울여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키우고있는 북반부 지식인들의 끝없이 행복한 처지에 비추어볼때 과학연구는 고사하고 그날그날 먹고입고 살아갈 걱정이 태산같은 너무나도 다른 자기들의 처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수령에 대한 흠모의 정이 얼마나 높아가는가 하는것은 적들의 가혹한 폭압하에서도 《김일성장군만세!》,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대중들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르며 지어는 적들에게 체포되여가서까지 《나는 김일성수상을 지지한다.》고 거리낌없이 말하고있는 사실이 잘 설명해주고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흠모하면서 그이의 따사로운 품속에 안길 그날을 바라고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에 날로 더욱 힘차게 나서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김일성수상님의 령도를 받들고 우리도 싸우자》고 굳게 결의를 다지면서 여러가지 형태의 반미구국투쟁을 세차게 벌리고있다.

남조선도처에서는 애국적인민들이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병영, 초소를 련속 습격하여 각종 무기와 탄알을 빼앗아내여 자체무장을 강화하고있으며 적들의 군용렬차들을 탈선전복시키며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놈들의 《작전용통신선》과 《경비전화선》등을 끊어치우는 등으로 원쑤들에게 타격을 가하고있다. 또한 그들은 적들의 주요기관을 폭파하고 불을 질러 놈들의 략탈문건을 없애버리는가 하면 괴뢰기관들에 접근하여 폭압문건들을 빼앗아내여 불살라버리는 등 눈부신투쟁을 억세게 전개하고 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보면서 그이의 품안에 안길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갈 결의와 신심에 불타고있다.

1968년의 남조선정세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정세발전의 전반적추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은 장성하고있으며 정세발전의 전반적 추이는 반혁명에 불리하게,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84페지)

이해에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은 악랄한 군사파쑈독재에 더욱더 매여달리면서 침략과 전쟁정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그러나 원쑤들의 이러한 무모한 책동은 제놈들의 목을 스스로 졸라매는 결과를 가져왔을뿐이다.

그것은 혁명과 반혁명과의 격렬한 투쟁행정에서 혁명력량은 장성강화되고있는 반면에 반혁명세력은 더욱 고립약화되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가 일층심화된데서 실증되였다.

특히 이해의 남조선정세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남조선인민들이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그 어느때보다 더욱 굳게 결속되여 그이께서 가르치신 혁명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간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적들의 온갖 파쑈적탄압을 박차고 《김일성수상님의 가르치심이 확고한 라침판이며 등대이다.》라고 하면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반미구국항쟁에 용감히 떨쳐나섰다.

남조선인민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혁명적진출은 적들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에 싸이게 하였으며 놈들을 헤여날길 없는 진탕속에 몰아넣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의 심화

범죄적전쟁정책과 악랄한 파쑈폭압책동

미제침략자들은 세계도처에서, 특히 아세아와 남조선에서 무너져가는 제놈들의 침략진지를 확보해보려고 이해에도 침략과 전쟁정책에 더욱더 매여달리면서 남조선에서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모든 요소들을 없애치우기 위한 군사파쑈독재를 강화하고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였다.

놈들의 이러한 새전쟁도발책동은 군사적기밀을 탐지할 목적으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공화국북반부 령해 깊이 침입시켰다가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그것이 나포된 이후 시기에 더욱 미친듯이 감행되였다.

미제 무장간첩선의 공화국북반부령해침입은 바로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계획적인 책동의 한 고리였다.

놈들은 웰남침략전쟁에서의 참패를 돌려세워 보려고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며 나아가서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면서 그 실현에 미쳐날뛰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이해에 들어서자부터 전쟁계획의 직접적인 작성자들과 집행자들, 호전적인 살인장군들을 남조선에 련이어 들여보내여 전쟁도발음모를 꾸미며 박정희군사깡패들을 전쟁도발에로 추겨대였다.

남조선에 기여든 전쟁두목들은 전쟁도발준비정형과 이른바《전시체제》에로의 개편실태를 《검토》하고 전쟁준비를 다그쳤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계획에 따라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의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괴뢰군의 무력도 늘였다. 적들은 전쟁분위기를 돋우기 위하여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연습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리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도발행위를 쉴새없이 저질렀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괴뢰들과 아세아반동들간의 군사적결탁을 실현시켜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의 군사행동기지로 만들고 특히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돌격대로 삼아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려고 흉책하였다.

흉악하고 교활한 미제는 제놈들의 침략행위를 가리워보려고 《북으로부터의 침략의 위협》이니 하는 따위의 깨여진 나발을 연신 불어대면서 광란적인 《반공》소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발악은 남조선의 혁명적무장유격대들이 박정희역도가 도사리고있는 《청와대》근방에까지 진출한 이후 더욱 도수가 높아졌다.

이것은 《푸에블로》호 나포, 무장유격대의 적극적인 진출 등으로 호되게 얻어맞은 얼빠진자들의 마지막발악에 지나지않았다.

그런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허장성세를 부리면서 전쟁정책을 뒤받침하며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여러가지 파쑈적악법들을 만들어내는 한편,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고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생지옥으로 전변시켰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42페지)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충실한 개 박정희도당은 남조선전역을 파쑈광란의 도가니로 전변시킨것으로도 부족하여 괴뢰경찰을 《전투경찰》로 개편확장하고 새로운 인민탄압도구로서 《향토예비군》을 만들어냈다. 심지어 놈들은 열여덟살이상의 모든 주민의 열손가락 지문까지 받아내는 《주민등록법》과 같은 류례드문 파쑈적악법을 꾸며내는 등 폭압체제를 발악적으로 강화하면서 탄압의 예봉을 남조선의 혁명적애국력량을 말살하려는데 돌리였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의 혁명적 무장유격대의 진출을 가로막으려고 주민들의 집을 강제로 소개시키고 지난날 일제가 하던식으로 《집단부락》을 만들어내며 체포구금한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극악무도한 살인《재판》을 련달아 벌렸다.

파쑈교형리들은 이해에 통일혁명당《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사건》들을 날조하여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함부로 들씌웠다.

그러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그 어떤 야만적인 폭압도 자유와 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억센투지를 꺾을수 없었으며 놈들의 발악은 인민들의 반미구국항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부채질한것으로 되였을뿐이였다. 그리하여 광범한 남조선인민대중을 한편으로 하고 미제와 박정희매국도당을 다른편으로 하는 사이에는 민족적 계급적모순이 더욱 심각하여져갔다.

경제의 전면적파탄과 인민생활의 악화

이해에 미제식민지통치위기가 보다 심화된 징표의 하나는 남조선경제가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인민생활이 극도로 악화된것이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발광적인 전쟁정책과 략탈의 강화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전면적으로 파산되고 농업도 보기드문 대흉년으로 극심한 파탄을 가져왔다. 이리하여 남조선전역이 절량과 굶주림속에 휩쓸려들어갔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범죄적인 전쟁정책실현을 위하여 경제의 군사화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이를 위해 침략적인 외국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인민수탈에 발악적으로 달라붙었다.

침략적인 외국자본의 침투와 수탈의 강화로 남조선경제의 예속화는 더욱 심화되였으며 그 파산몰락과정이 촉진되였고 인민생활은 참을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 이르렀다.

남조선경제에 대한 외국독점자본의 지배가 강화됨에 따라 그와 결탁한 매판자본가들의 손아귀에 중요공업생산과 시장이 독점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조업상태는 전면적으로 악화되고 건잡을수 없이 파산몰락되였다.

11월말 현재 중소기업의 평균 가동률은 40~50%에 지나지않았으며 특히 중소탄광들은 그 90% 이상이 완전히 문을 닫았거나 휴광상태에 이르렀으며 나머지 탄광들의 가동률도 20~30%를 넘지 못하였다.

특히 남조선농업의 전면적인 파탄은 남조선경제를 더욱 심각한 파국에 몰아넣었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전쟁준비에 쓸 자금을 짜내기 위해 농촌에 대한 수탈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이해에 농촌으로부터의 자금수탈은 수백억원을 헤아렸다.

미제와 괴뢰도당의 반동적농업정책과 강도적수탈로 말미암아 황폐화된 남조선농업은 전해에 이어 계속 혹심한 흉작을 가져왔다. 놈들 자신이 인정하고있는바와 같이 곡물생산은 례년에 비하여 230만톤~250만톤이나 줄었다. 이리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은 1969년에 1968년에 사들인 148만9천톤의 1.8배나 되는 270만톤의 외국쌀을 사들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경제의군사화책동과 생산의 파탄으로 재정금융의 혼란도 심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모자라는 자금을 채우기 위해 지폐를 마구 찍어냄으로써 통화량을 급격히 늘게하였다. 이에 따라 물건값이 치온라 중요상품 도매물가는 전해에 비하여 최고 53.3%나 비싸졌으며 쌀값은 한가마니에 7천원을 넘어 미제가 강점한이래 《최고기록》을 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러한 경제의 파국에서 헤여나보려고 더욱 더 인민수탈에 매여달렸다.

놈들이 1968년에 인민들로부터 빼앗아낸 《조세》의 총액은 2천억원에 달하였다. 이는 1962년의 약 7배, 전해에 비하여도 49%나 붙은 것이다.

이밖에도 《도로국채》를 비롯한 갖가지 명색의 《국채》와 강제저축 등으로 인민들의 푼전마저 털어내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놈들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참을수 없는 굶주림에 허덕였으며 생활난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기약할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 이른 남조선인민들은 앉아서 죽느니보다 일어서서 싸울결의를 굳게하고 단연 투쟁의 길에 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20여년동안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오직 전인민적인 항쟁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철저히 때려부실 때에만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으며 빼앗긴 인민주권을 도로 찾을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단행본, 80페지)

위대한 수령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과감하게 싸우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 《유일한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 받들면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들의 투쟁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있다.

그들속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보고, 위대한 10대정강과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천명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사상은 《우리 민족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척할수 있다는 정신을 우리들에게 주었》으며 《남녘땅 형제들에게 조국통일의 확고한 전망과 나아갈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고 하면서 수령께서 밝혀주신 자주통일방침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 혁명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원쑤들과 맞서 끝까지 용감하게 싸움으로써 수령께 무한히 충성할 굳은 결의를 다음과 같이 다지였다.

《우리에게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나라의 북반부에 반석 같이 다져진 불패의 혁명기지가 있고 북반부형제들의 전투적인 지지성원이 있다. 우리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굳게 뭉쳐 싸워나갈 때 그리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뜻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일편단심 수령께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이미 헤여날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최후발악하고있는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승할수 있는것이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력사적임무를 수행할수 있을것이다.》

남조선의 혁명적무장유격대의 지원밑에 혁명적인 당과 대중조직을 뭇고 인민정권을 세운 경상북도 울진군과 봉화군 인민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며 자기들의 결의를 이렇게 다지였다.

《우리도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를 받들고 싸우자!》《미제놈들과 박정희역도놈을 때려부시자!》, 《우리도 무장을 들고 싸움에 나서자.》, 《새정치, 새제도, 새생

활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서 나의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다하여 투쟁할것을 서약한다.》

남조선의 한 애국자는 조국통일이 결코 《유엔》이나 그 어떤 외세에 의하여 실현될수 없으며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대로 우리 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수상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은 우리 민족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척할수 있다는 정신을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시였다. …나는 김일성수상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몸바쳐 싸우겠다.》

평양에서 있은 조선직업총동맹 제4차대회에서 남조선로동자대표는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투쟁결의를 다지였다.

《우리는 도처에서 미제의 각을 뜨라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놈들의 숨통을 졸라맬것이며 그들의 충실한 졸개인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고야 말것이다. …특히 우리는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자체를 튼튼히 무장하며 전체 남조선인민들을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묶어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싸워나갈것이다. 그리하여 적당한 때가 오면 전인민적폭동으로써 혁명의 화약고를 폭발시키고 그 불길속에 원쑤들을 모조리 처넣을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으며 그이에 대한 충성심은 날로 깊어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항상 승리에로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자기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신다는것을 확신하고있는데로부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서고있다.

반미구국투쟁의 앙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이룩될수 없으며 인민들은 오직 혁명적방법에 의해서만 주권을 쟁취할수 있습니다. 물론 혁명력량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작은 규모의 투쟁과 큰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가지 투쟁형태를 옳게 배합하여 혁명투쟁을 발전시켜나아갈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79페지)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에 대한 전략전술적 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기들의 혁명조직을 확대하면서 무장투쟁을 비롯한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특히 그들은 위대한 수령의 주위에 인민대중을 결속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통일혁명당, 임자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인민혁명당, 남조선해방전략당, 민주주의비교연구회, 정심회, 독서회 등의 《사건》과 그리고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경북대학교의대사건》등 일련의 《사건》들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혁명조직들과 애국자들의 대오는 급격히 자라났다.

청년학생들이 중심이 되여 조직된 독서회성원들은 《김일성수상님께 드리는 신서문》을 작성하고 《조선로동당 수령 김일성수상님께 충성을 맹세》하면서 조선로동당력사와 맑스-레닌주의 서적을 연구하였다. 통일혁명당에 망라된 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의 주위에 인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하여 우선 자신들이 《김일성전기》와 《김일성선집》을 비롯한 로작들을 연구하고 수령의 혁명력사와 혁명사상을 배우면서 잡지 《청맥》을 통하여 인민들을 교양하였다. 통일혁명당은 《민족해방전선》, 《조국해방전선》 등을 조직하고 그 산하에 9개의 대중조직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통일혁명당 성원들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웠으며 심지어는 감옥안에서와 《법정》에서도 투쟁을 계속하였다.

이 당의 서울시 책임자로 활동하던 김종태는 탈옥투쟁을 벌리는 등으로 적들에게 타격을 가하였으며 모든 가능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혁명적영향을 감방안의 여러 사람, 지어《간수》에게까지 부어넣어 모두가 반미구국투쟁에 일어서도록 불러일으켰다. 또한 《법정》에 선 그와 그의 전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전사답게 싸웠다. 그리하여 여러번에 걸친 《공판정》은 김종태와 그의 혁명동지들이 미제와 박정희매국역적들의 죄행을 낱낱이 폭로하여 이를 전세계에 고발하고 준엄히 단죄하는 마당으로 변하였다.

또한 괴뢰군내 각성된 중하층장교들은 지하혁명조직인 통일혁명당에 가입하여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주구들을 반대배격하는 애국활동을 하여왔다. 그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림으로써 남조선을 해방하고 독립과 자주권을 찾아야 하겠다는 열렬한 지향을 안고 통일혁명당에 가담하여 학습을 통한 자체수양을 쌓는 한편 괴뢰군들속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로운 활동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이며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해 반미선동을 줄기차게 진행하였으며

반미시위를 단행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활발히 추진시켜왔다고 한다.

1967년 후반기부터 조직전개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무장유격투쟁은 이해에 들어서면서부터 적극적으로 전개되였으며 그 활동범위는 더욱 확대발전하였다.

적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해 10월말까지 남조선무장유격대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북도 등지에서 수많은 전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100여명의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을 처단하고 200여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11월부터 년말까지 태백산지구에서 령활하게 활동한 무장유격대는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면서 선전공작을 적극전개하여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와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남조선혁명가들의 무장유격투쟁과 정치선전사업은 또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투쟁대오에 결속시켰다. 경상북도 울진지구에서는 무장유격대의 도움밑에 마을사람들에 의하여 혁명적인 당과 구국청년동맹, 혁명부녀회가 조직되고 봉화군에서는 군인민위원회가 조직되였다. 뿐만아니라 청장년들은 《우리는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를 받들고 싸우겠다.》고 하면서 유격대에 입대할것을 앞을 다투어 탄원해나섰다.

인민들은 무장유격대를 힘껏 도와나섰다. 그들은 원쑤들의 경계가 극히 심한 조건하에서도 무장유격대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방을 제공하고 경비를 서주며 침식을 보장하는 등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혁명적무장유격투쟁과 지하혁명투쟁의 영향밑에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투쟁도 힘차게 벌어졌다.

1968년 1월—10월까지의 사이에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은 1천 30여회에 걸쳐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렸다. 이에는 전해 같은 기간의 1.3배에 이르는 103만 70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 대중적투쟁에서는 로동자, 농민들의 진출이 현저하게 강화되였으며 그 투쟁이 더욱더 정치적성격과 적극적형태를 띠고 발전하였다.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자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을 박차고 임금과 수당금의 인상, 밀린임금의 즉시지불, 8시간로동제의 실시, 로동조건의 개선, 단체협약의 체결과 로조활동의 자유보장, 민족적멸시와 차별대우의 반대 등을 기본요구조건으로 내걸고 투쟁을 확대강화하였다.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행정에서 의식성이 높아진 남조선로동자들은 《투쟁위원회》와 같은 투쟁조직체를 뭇고 공동행동을 취함으로써 투쟁을 더욱 조직화하고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철도부문로동자들이 《철도로동자대우개선중앙투쟁위원회》와 그 산하에 《대구지구투쟁위원회》, 《순천지구투쟁위원회》 등 지역별 투쟁조직을 뭇고 싸운것은 그 단적인 례로 된다.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은 이와 같이 조직화되여갔을뿐만아니라 그들의 투쟁의 예봉이 더욱더 미제를 반대하는데로 돌려졌다. 미제침략군기관과 미독점기업체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투쟁은 이해 1월—9월사이에만도 전해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투쟁건수에서는 1.5배, 참가자수에서는 3.4배로 늘었다.

자기 동료에 대한 민족적모욕과 박해에 격분하여 미제야수들에게 뭇매를 안긴 부산부두로동자들의 투쟁, 조선인 로동자들을 박해한 미제침략군놈들을 집단적으로 징벌한 경기도 시흥군내 녀성들의 투쟁 등은 투쟁의 예봉을 점차 미제침략자들에게 돌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농민들은 이해에 미제와 그 주구들의 토지략탈과 각종 수탈을 반대하며 농업시설의 개선과 영농조건의 보장을 요구하여 견결히 싸웠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이에 남조선농민들이 벌린 투쟁건수는 250건에 달하였으며 이에는 연 35만 7천여명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1.9배로 장성한것이다.

로동자들의 앙양되는 반미기세에 호응하여 농민들도 비행장을 비롯한 군사기지와 군용도로건설을 위한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군사깡패들의 토지략탈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웠다. 농민들의 이와 같은 투쟁은 상반년간에만하여도 1967년 같은 기간의 2.5배나 되였다.

이러한 추세는 청년학생, 지식인들과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 및 중소상기업가들의 진출에서도 볼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였다.

이것은 혁명적무장투쟁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모든 투쟁이 미제를 몰아내며 괴뢰도당을 쓸어버리고 인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점차 발전하여나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이 전개하고있는 당면한 모든 투쟁을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며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92페지)

이해에 남조선인민들과 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대로 투쟁의 예봉을 점차 정권을 위한 투쟁에로 돌리였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혁명력량은 비할바없이 장성한 반면에 남조선에서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반혁명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였다.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일층 격화되였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배격당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으며 그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다.

미제식민지통치체제의 혼란

앙양되는 혁명정세 앞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체제는 일대 혼란속에 빠져들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활동하고있는 혁명적무장소조들의 활동과 로동자, 농민, 어민, 군인, 청년학생, 언론인, 교육자 그리고 량심있는 민족자본가를 포함한 광범한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고있으며 그들을 일대 혼란속에 몰아넣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81페지)

혁명적무장유격투쟁을 비롯한 인민들의 폭력적진출이 강화됨에 따라 괴뢰경찰과 《공무원》들속에서 정치적동요가 심하여져 괴뢰통치기구 하부 말단의 기능이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괴뢰경찰과 공무원들속에서는 파쑈통치기관에 복무하기를 거부하거나 《공무수행》을 공공연히 태공하는 현상이 늘어났다. 2월 한달동안에만하여도 376명의 괴뢰경찰이 그 직에서 물러났으며 전라남도에서는 10월말까지에 277명의 괴뢰경찰이 사퇴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면 직원들가운데 50%가 퇴직을 요구하여나섰다. 또한 괴뢰경찰은 무장유격대의 《토벌》에 동원되지 않는것을 최대의 《소망》으로 삼고있다. 그들은 《토벌》에 끌려나가게되면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출동을 거부하였으며 《향토예비군》내에서도 동원을 거부하는 현상이 늘어갔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괴뢰도당들도 《무장유격대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나 이에 맞서는 우리 형편은 출동명령을 내려도 마지못해 복종하는 순경과 대비할때 개탄을 금치못한다》고 비명을 질렀다.

급해맞은 미제와 괴뢰도당은 괴뢰경찰들에 대한 벌칙을 일층 강화하며 사퇴하는 괴뢰경찰들에게는 《급료》를 전부 빼앗고 2년동안 어떠한 직업에도 취직할수 없게한 개악된 이른바 《경찰공무원법》을 12월 17일 괴뢰국회에서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괴뢰군들속에서도 침략전쟁에 끌려나가는것을 기피하며 괴뢰군살이를 거부하는 현상이 늘어갔으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불평불만이 높아갔다.

그것은 괴뢰군내에서 도망병수가 늘어가며 상하부간의 알륵이 심화되고있는데서 나타났다.

괴뢰군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속에서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전쟁도발책동과 괴뢰군내에서의 파쑈폭압을 반대하는 집단적투쟁이 날을따라 강화되여갔다.

3월에 김해공병학교 학생들이 미제와 괴뢰도당의 차별대우를 반대하여 집단탈영한 사실과 5월에 대구군의학교 400여명의 《간부후보생》들이 파쑈폭압에 항거하여 시위를 벌리고 괴뢰군대장놈을 들로 까뭉힌 투쟁은 그 례로 된다.

또한 괴뢰군병사들속에서는 미제침략군과 박정희매국도당에 대한 반감이 커갔다. 이들은 《미국놈은 우리 등만 쳐 먹는다》, 《박정희는 매국노이며 우리 가족들을 못살게하고있다》는 등으로 쌓인 불만을 터뜨리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괴뢰군병사들의 민족적, 계급적각성이 점차 높아지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며 동시에 상하부간의 모순대립이 날카로워지고 있음을 실증해주는것이다.

특히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있어서 심대한 타격으로 된것은 공화국북반부령해를 침범한 《푸에블로》호 문제로 미제가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사죄한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커다란 반향이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를 조선인민의 또 하나의 승리라고 기뻐하였으며 반면에 반동지배층내부에서는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가 더욱 지배하게 되였다.

이처럼 미제의 식민지통치체제가 무너져감에 따라 괴뢰반동지배층들도 극도의 불안에 쌓여 갈팡질팡하고있을뿐아니라 그 내부에서는 의연히 더러운 《정권》 쟁탈을 위한 개싸움질이 더욱 험악하여져 갔다.

박정희군사깡패들의 당인 《민주공화당》내에서는 《대통령》 감투를 에워싸고 미제의 철저한 주구들인 박정희역도와 김종필역도간에 권력다툼이 벌어졌다. 이 매국노들의 권력다툼은 5월에 있은 《한국복지연구회》 (《민주공화당》내 김종필중심의 비밀분파조직) 우두머리들이 박정희역도에 의하여 잡혀간 사건을 계기로 김종필이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일단《정계》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빚어짐으로 하여 절정에 이르렀다.

이러한것으로 말미암아 괴뢰통치집단 내부는 더욱 혼란에 빠져들게 되였다.

이리하여 《민주공화당》은 분렬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박정희도당은 반대파의 반격과 정치적지반의 분렬로하여 심각한 궁지에 몰려들었다.

이것은 반혁명세력내부가 심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점차 와해과정을 걷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남조선정세의 중요특징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악랄한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새로운 더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고있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84페지)

이해에 남조선에 조성된 정세는 그 어떤힘으로도 파멸의 한길을 내닫고 있는 추세를 결코 막아낼수 없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사태를 돌이켜 세우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놈들은 더욱더 멸망의 함정에 깊이 빠져든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께서 밝혀 주신 혁명의 길을 따라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 불같은 념원을 안고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공화국의 기치밑에 나라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총검의 탄압을 박차며 굴함없이 싸워왔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스무해동안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북반부인민들의 위대한 성과와 그들의 힘있는 지원에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워왔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02페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에서 남조선 인민들은 피도 많이 흘렸고 우여곡절도 겪지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조국통일의 강력한 성새인 공화국북반부에 이룩된 찬란한 성과가 있음으로 하여 백절불굴의 기세로 투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기치이며 통일된 조국의 미래이며 남조선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이며 힘의 원천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원쑤들의 모진 억압과 착취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는 남녘땅형제들을 미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하고 자애롭고 따사로운 공화국의 품안에 안아주시기 위하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가장 올바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의 실현을 위해 온갖 대책을 다 취하셨으며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끊임없는 배려를 돌리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받들면서 공화국의 기치밑에 통일독립된 조국땅에서 그이를 모시고 살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다.

남조선혁명조직들의 활동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이 반제반봉건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적 당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이 없이는 인민대중에게 명확한 투쟁강령을 줄수 없으며 혁명군중을 굳게 묶어세울수 없으며 군중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할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41~142페지)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 민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온갖 수단을 다 리용하여 혁명조직을 확대강화하기에 분투하여왔다.

남조선인민혁명당은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로 조직된 혁명조직이다. 이 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비롯한 일체 외국군대의 철수와 남북조선의 서신, 문화, 경제 교류를 통한 자주적인 통일을 주장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1964년 3월 15일에는 열렬한 애국자이며 불굴의 혁명투사인 김종태를 비롯한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통일혁명당을 조직하였다. 통일혁명당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작가, 교원, 언론인, 의사,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기업가, 정계인사 및 괴뢰군장교 등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각층 애국적인사들과 남녀선각자들이 망라된 혁명조직이다.

또한 전라남도 임자도를 중심으로 한 광범한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한 애국자들의 혁명조직,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대수 박사를 중심으로 한 혁명조직 등 일련의 조직들이 활동하였다.

남조선혁명조직들의 유일한 지도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이였으며 그들의 투쟁의 지침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이였다.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자신들을 무장하며 대중을 수령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우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수령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작은 규모의 투쟁과 큰 규모의 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형태를 옳게 배합하면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싸웠다.

통일혁명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철저한 주체사상인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패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지도적사상으로 삼았으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에 확고히 의거하여 투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88~389페지)

수령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통일혁명당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자기의 투쟁강령으로서 로동자, 농민을 핵심으로 한 강력

한 혁명력량을 편성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며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함으로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위업을 완수할것을 내세웠다.

통일혁명당성원들은 《무장투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며 《각종 학술연구써클을 조직하여 당의 지도간부를 양성》하며 《모든 조직을 장차 유격대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사상무장》을 시키는 동시에 《전술간부를 획득》하는 등 14개 항목에 걸친 투쟁임무를 설정하고 혁명활동을 전개하여왔다.

통일혁명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대로 남조선에서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들속에 뿌리를 박고 당조직을 전투적이고도 탄력성있는 혁명적조직으로 꾸리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다. 특히 이 당은 자기의 지도적 골간을 꾸리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리면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들 가운데서 우수한 핵심분자를 선발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통일혁명당은 남조선에서 수많은 지도적골간과 핵심을 가지게 되였다.

이와 함께 이 당은 자기 주위에 각계각층 군중을 묶어세우기 위한 대중적지반을 마련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다.

통일혁명당은 《민족해방전선》과 《조국해방전선》을 뭇고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형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한편 산하에 각계각층 군중을 망라한 9개의 민주주의적써클을 조직하였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출신들을 모체로하여 조직한 《새문화연구회》는 그 밑에 력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법률 등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분야별로 공산주의리론에 립각한 학술연구와 사상무장》을 위하여 힘썼으며《청년문학가협회》는 각대학출신의 선진적인 문학가, 평론가, 시인,신문기자 등을 망라하고 그들을 통하여 대중속에 혁명적영향을 확대하여나갔다.

《불교청년회》는 성균관대학교와 동국대학교출신들을 망라하고 그밑에 《총산수양회》를 조직하여 핵심들을 육성하는 한편 《일반신도층에 침투》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며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서울대학교출신 및 재학생들을 모체로 조직된 《동학회》는 자주적인 조국통일을 주장하면서 전인민적인 《민중봉기방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민족주의연구회》는 동국대학교출신 및 재학생들을 모체로 하고있으며 《경우회》는 서울대학교 출신 및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였다. 그리고 《기독청년경제복지회》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비롯한 각대학출신 및 재학생중의 《기독교계통의 학생들을 모체》로 조직되였다.

《청맥회》는 리화녀자대학교출신 및 재학생들을 모체로 한 녀학생들의 조직체로서 광범한 녀성들을 대상으로 혁명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서울시를 비롯하여 남조선 주요도시에 조직하고 운영한 《학사주점》에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출신을 중심으로 1960년대에 각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또는 재학중인 선진적인 지식인 학생들이 망라되였다.

통일혁명당은 이와 같이 그 산하에 《써클》들을 조직하고 당주위에 광범한 군중들을 묶어세우면서 조직적지반을 꾸렸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결정적투쟁을 준비하여 나갔다.

김종태를 비롯한 통일혁명당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혁명활동을 전개하는 전행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패의 혁명사상으로 우선 자신들이 튼튼히 무장하며 또한 대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김일성선집》을 비롯한 수령의 불후의 로작들을 탐독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투쟁력사와 혁명사상을 배우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였다.

그들은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을 통하여 자신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 방침을 깊이 체득하였다. 또한 그들은 수령께서 전개하신 40여년간의 위대한 혁명투쟁력사가 기록된 《김일성전기》를 통하여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수령의 빛나는 혁명활동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배우면서 그것을 군중에게 해설선전하여 남조선인민대중을 위대한 수령의 주위에 굳게뭉치게 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다.

통일혁명당성원들은 당 기관지 《혁명전선》을 발간하여 자체의 사상무장을 위하여 힘쓰는 한편 인민대중을 교양하기 위하여 당 기관잡지 《청맥》을 광범한 대중속에 보급하였다. 《청맥》은 1964년 8월에 창간호를 낸후 1967년 6월까지의 기간에 무려 4만 4천여부를 발간하였다.

통일혁명당성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투쟁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에 대하여 널리 선전하였으며 그이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감명깊게 해설선전하였다.

김종태를 비롯한 통일혁명당성원들은 남조선의 기본군중들뿐만아니라 괴뢰군들속에까지 들어가 정치선전사업을 조직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괴뢰군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이 정치적으로 각성되여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고있다. 통일혁명당의 영향을 받은 괴뢰군 각 병종의 중하층장교들은 《김일성전기》를 탐독하면서 괴뢰군병사대중과 중하층장교들속에서 수령에 대한 선전을 힘있게 진행하였다.

이와함께 통일혁명당 성원들은 산하의 각종 《써클》을 통하여 정치선전사업을 활발하게 조직전개하였다.

각《서클》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각각 그 산하에 망라된 대중의 특성에 맞게 정치사상사업을 진행하였다.

례하면 《불교청년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통일》을 주장하였으며 녀학생들의 조직체인 《청맥회》는 《자주적민족주의와 반미, 반제, 반자본, 반봉건을 표방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지향》하면서 조선로동당의 평화통일로선을 지지찬동하는《학습회》를 조직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학사주점》은 여러가지 교양방법과 함께 특히《이동문고》를 통하여 당에 망라된 모든 성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과학적인 세계관과 선진리론으로 교양하기에 노력하였다.

통일혁명당은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사상사업을 진행하며 많은 군중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교양하였으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결정적투쟁에로 준비시켜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력량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준비될수 없으며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장성강화될수 있습니다. 투쟁의 시련속에서 혁명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이 나오고 인민대중이 각성되며 혁명력량이 장성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92페지)

수령의 교시를 심장으로 접수한 통일혁명당성원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통일혁명당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1967년 6월 8일에 꾸며낸 괴뢰국회의원 《선거》와 7월 1일에 감행한 괴뢰 《대통령취임식》 놀음을 계기로 이를 분쇄하기 위한 시위투쟁을 면밀히 조직지도하였다. 또한 새로운 전쟁도발에로 박정희괴뢰도당을 내몰기 위하여 서울에 기여들었던 전미부대통령 험프리란놈을 반대배격하여적극적인 반미시위투쟁을 조직전개하였다.

이러한 시위투쟁은 남조선의 30개 지역에서 무려 20여일이나 계속되였다. 여기에는 145개의 대학 및 중고등학교학생 20만 4천여명이 참가하였으며 3만 2천여명의 각계각층인민들이 또한 이에 합세하였다.

이 당은 합법적인 대중투쟁과 함께 무장유격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한 공고한 거점도 창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런데 혁명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활동하던 과정에 이해 7월 김종태를 비롯한 이 당의 일부성원들은 원쑤들에게 체포투옥되였다.

통일혁명당을 비롯한 남조선혁명조직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력을 미치였다. 지하혁명조직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각성되고 있는 남조선의 로동자들을 비롯한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미반괴뢰투쟁기세는 날로 드높아가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의 예봉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더욱 집중되고있다. 뿐만아니라 그들의 투쟁은 그 조직성과 적극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끊임없이 확대 발전하고있다.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일부는 투쟁과정에서 원쑤들에게 체포되여 그 포악성과 야수성에 있어서 류례없는 온갖 악독한 고문과 박해를 당하고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전사답게 꿋꿋이 살며 싸우려는 혁명적정열로 들끓고있는 그들은 어떠한 야수적고문에도 굴하지않고 원쑤들의 감옥과 《법정》에서도 견결히 투쟁하였다.

통일혁명당, 인민혁명당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에 망라된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원쑤들의 《법정》에 나서서도 미제침략자들의 저주로운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자기들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대한 높은 긍지를 안고 불굴의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철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놈들에 의해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려는것은 모든 조선사람들의 민족적임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싸우는것이 결코 죄로 될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바로 흉악한 범죄자로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할자들은 다름아닌 미제침략자들과 그에 아부하면서 매국배족행위를 일삼는 박정희괴뢰무리들이라는것을 단호히 선언하였다.

《공판정》에 나선 김종태의 안해 림녕숙을 비롯한 녀성혁명가들과 애국자들도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청산하며 더우기 미제야수들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의 수많은 어머니들과 안해들과 어린이들이 참을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억울하게 피흘리며 쓰러지고있는 그 참을수 없는 민족수난을 가시기 위하여, 그리고 자라나는 귀여운 후대들의 앞날을 위하여 반미구국의 기치를 든 자기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하여 긍지높이 웨치면서 놈들과 견결히 싸웠다.

이리하여 원쑤들이 거듭 벌린 《공판》놀음은 사실상 혁명가들이 미제와 박정희매국노들의 죄행을 낱낱이 폭로규탄하며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단죄하는 투쟁의 마당으로 되였다.

수령의 전사답게 불굴의 투지와 불타는 혁명적정열을 안고 원쑤들의 감옥과 《법정》에서도 이와 같이 굴함없이 싸운것은 물론 통일혁명당의 성원들만이 아니다.

경상북도의 대구감옥에 갇혀있던 안아무개를 비롯한 2명의 혁명가들이 원쑤들의 모진 박해와

탄압속에서도 모든 기회를 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유력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민족번영을 이룩하고있는 공화국북반부의 찬란한 현실을 감명깊게 들려주면서 《혁명적인 서적들을 많이 읽을것을 권고》하고 《공산주의사상을 두터이》할데 대하여 일깨워주었을뿐만아니라 《간수》에게까지 혁명적영향을 주어 혁명활동을 도와나서게한것도 남조선혁명가들의 굴함없는 옥중투쟁의 하나이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오직 한마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안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충실히 집행함으로써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남조선혁명조직들의 슬기로운 투쟁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은 급속히 장성강화되고있으며 혁명투쟁은 힘차게 발전하여왔다.

남조선의 혁명적무장유격대들의 투쟁

무장유격투쟁의 적극화

남조선에서 1967년 하반기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여온 혁명적무장유격투쟁은 1968년에 들어와서 더욱 적극화되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파쑈테로통치밑에서 더는 견딜래야 견딜수 없게 되여 앉아서 죽느니보다는 차라리 일어서서 싸워야 한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제도를 전복하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싸우고있는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82페지)

남조선에서 혁명적무장유격대는 1967년에 120여회를 진출하여 95회의 전투를 진행하였는데 1968년에 넘어와서는 그것이 급격히 확대되였다.

이해에는 10월까지에 전투를 진행한건만도 200회를 훨씬 넘었다. 11월과 12월에는 태백산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혁명적무장유격대들이 적들과의 수많은 전투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혁명적무장유격대들이 적들과의 수많은 전투를 벌리였다.

회수에서 뿐만아니라 그 활동지역도 거의 남조선 전역에 확대되였다.

남조선무장유격대들은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남조선강원도 등 광범한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광범한 지역에서 활동한 무장유격대들에는 로동자, 농민뿐만아니라 선진적인 지식인들과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된 괴뢰군장병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애국적인민들이 망라되였다.

무장유격대 자체의 규모를 보더라도 처음 수명의 무장소조활동으로부터 수십명으로 되는 소부대활동으로 확대강화되였으며 저격무기뿐만아니라 박격포까지 사용하면서 원쑤들에게 더욱 호된 타격을 가하였다.

남조선혁명적무장유격대들은 1월 21일 서울시내 한복판에 나타나 미제의 개 박정희역도놈이 둥지를 틀고있는 《청와대》의 코앞까지 진출하여 괴뢰경찰놈들을 무리로 쓸어눕히고 4대의 군용차량을 까부셨으며 4월 30일 밤에는 역시 서울 한복판에 있는 괴뢰《국제전신전화국》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을 공격하여 수류탄벼락을 들씌웠다.

혁명적무장유격대들은 남조선의 광범한 지역에서 적들을 족치는 수많은 전투를 대담하게 벌리여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알려진 자료에 의해서만도 무장유격대들은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이에 서울시 종로괴뢰경찰서장, 괴뢰군 15련대장 〈토벌대장〉, 괴뢰보안사령부 충청남도서산분견대장 등을 비롯하여 100여명에게 중경상을 안기는 징벌을 가하였다. 그밖의 수많은 악질주구들과 특무들을 체포하여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였으며 군용렬차 4대를 까부시고 군수창고들을 습격파괴하였으며 《토벌》에 내몰은 적의 직승비행기까지 쏴떨구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11월에 들어와 태백산지구를 넘나드는 여러 남조선혁명적무장유격대들은 적들과의 전투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였다. 적들이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경상북도 울진지구에서만도 11월 3일부터 29일까지의 사이에 괴뢰군과 악질주구 50명을 처단하고 37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남조선의 혁명적유격대들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진 혁명적사상체계와 불굴의 혁명정신 그리고 령활한 전투경험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의 충직한 전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극복하면서 남조선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 나갈수있다는 각오밑에 싸우고있다.

남조선의 혁명적무장유격대들은 원쑤들을 족치는 용감한 무장투쟁에 인민들에 대한 정치선전사업을 능숙하게 결합시키고 그들을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의 주위에 철석같이 묶어세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였다.

7월말 전라남도 목포시내와 령암군의 갈마산에 각각 진출한 무장유격대들은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의 혁명사상을 받들고 싸우는 무장유격대이다.》, 남조선인민들을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파쑈통치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우리는 싸우고있다.》, 《싸우는 길만이 오늘의 처지에서 벗어

날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민들에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11월초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의 한 마을을 1주야동안 완전히 장악한 한 혁명적무장유격대는 《우리들은 천대받고 굶주리는 오늘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김일성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무장을 잡고 싸우는 유격대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 남조선사람들이 이와 같이 굶고 짓눌리고 도탄속에 빠지게 된것은 미국놈들과 박정희괴뢰역적놈들이 판을 치고있기 때문이다.》라고 깨우쳐주며 원쑤놈들을 때려부시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한 싸움에 한사람같이 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들은 북반부형제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생활하고있는 찬란한 현실을 마을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것이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이 마련하여주시였다는것과 그이께서는 원쑤들의 폭악한 발굽에 짓밟혀 신음하는 남반부동포들에게 북반부인민들과 꼭같은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심려하고 계신다는것을 일깨워주었다. 그들의 이러한 정치선전사업은 온 마을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로 하여금 북반부를 우러러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경모의 정을 표시하면서 그이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원쑤와의 싸움에 힘있게 나설 각오를 새로이 다지게 하였다.

남조선의 혁명적무장유격대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유격대원들을 교양하시여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한 혁명적사업방법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인민들에게 정력적인 정치선전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을수 있었으며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었다.

남조선의 혁명적무장유격대들은 정치선전사업을 진행하여 인민들에게 혁명의식을 안겨주고 그들을 적극적인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경상북도 울진군에 진출한 한 무장유격대가 그곳 인민들에게 로동자, 농민이 혁명에서 승리하려면 정치적참모부인 당을 조직해야 되며 그 당의 지도하에 모든 인민들이 정치적조직에 망라되여야 한다고 깨우쳐주고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혁명적조직을 내올데 대해 제기하자 많은 인민들은 앞을 다투어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 결의를 담은 입당청원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다.

또한 이곳 청년들과 녀성들은 청년동맹과 부녀회조직을 무었고 《유격대에 입대하여 남북통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결의하여나섰다.

그밖에 무장유격대들이 나타난 남조선각지에서 인민들과 청년들은 《우리도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를 받들고 싸우자!》, 《새정치, 새제도, 새생활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서 나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여 투쟁할것을 서약한다.》 등의 투쟁결의를 다지면서 무장대오와 혁명조직들에 참가할것을 탄원하여나섰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무장유격대들과 함께 인민주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도 전개하였다. 례하면 경상북도 봉화군 인민들은 무장유격대와 함께 미제의 식민지통치기관을 뒤엎고 군인민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자기들의 손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이것은 혁명적무장유격대의 활동이 남조선인민들속에 커다란 작용을 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발악하는 원쑤들의 폭압이 우심한 간고한 정황하에서도 무장유격대들이 광범한 지역에 진출하여 적들을 족치고 전과를 확대할수 있은것은 중요하게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인민들로부터의 물심량면으로 되는 지원을 받은데 기인하였다.

각지 인민들은 혁명가들이 손에 무장을 잡고 싸움에 나선 목적이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엎어버리고 원쑤들에게 짓밟힌 나라의 절반땅을 해방하고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위대한 어버이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마음껏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는 자신들의 민족적 숙망과 사활적인 요구를 반영한것이기때문에 모든것을 다하여 지어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쳐가면서 무장유격대들을 지원하여나서고있는것이다.

남조선 각지 인민들은 우선 자기 지방에서 활동하는 무장유격대들이 유격전 및 공작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기 위해 물심량면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었다.

1월 24일 경기도 파주군 원릉면 룡산골에 무장유격대가 나타나자 마을 인민들은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한편 신변을 보호해주고 그 일대의 적들의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유격대의 활동을 적극 보장하기에 모든것을 다하였다. 남조선강원도 고성군, 경기도 고양군내 인민들을 비롯하여 남조선 각지 인민들도 이처럼 유격대들을 지원하였다.

특히 11월에 들어와 경상북도와 남조선강원도 일대에서 활동한 무장유격대들과 이 지방 인민들간의 혈연적련계와 그에 기초한 인민들의 유격대에 대한 백방의 지원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오늘 원쑤 미제를 쓸어버리기 위한 혁명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남조선에서 계승되여 꽃피여나고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일대 인민들은 자기 마을에 나타난 유격대원들을 방에 안내하고 산에서 언 그들의 몸을 녹여주기 위해 불을 지펴 구들을 덥히며 한편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여 더운 음식을 그들에게 대접하였다. 주로 로인들과 녀성들이 이렇게 하고있을때 장정들은 집주위와 마을어구에서 경비를 서

고 적들이 기여들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모진 생활고를 겪는 인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유격대원들의 만류와 이를 뿌리치고 유격대원들을 정성껏 돕고 아끼려는 인민들의 자기희생지미풍이 한데 어울려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케 하였다.

인민들은 무장유격대들의 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그밖에도 여러가지 협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다양한 암호조직 및 신호체계를 설정하여 적들의 폭압이 극심한 속에서도 유격대들의 진출과 활동을 보장하며 그 신변을 믿음직하게 보호한것도 그 하나의 일례이다. 뿐만아니라 인민들은 유격대들의 길안내를 맡아나서 행군길을 헛갈리지 않게 하여주며 새로운 공격목표에 무난히 당도하여 적들의 뒤통수를 쳐서 전멸시킬수 있도록 적극 도왔다.

인민들과 유격대들은 사실상 일심동체가 되였다. 유격대들은 한 마을에서 공작을 끝낸 다음에는 적들의 행패로 인민들에게 화가 미칠것을 걱정하여 인차 적기관에 《신고》할것을 거듭 당부하고 떠나군하였으나 인민들은 인민들대로 유격대들의 안전을 념원하는 나머지 적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한다 하여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함으로써 원쑤놈들의 《토벌작전》을 파탄시켜놓군하였다.

무장유격대들과 인민들간의 이러한 련계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끝없이 흠모하면서 그이의 따사로운 품안에 안겨 진정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날을 앞당기려는 공통된 목표와 지향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것이다.

적극화된 애국적 인민들의 폭력투쟁

무장유격투쟁과 함께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은 반미구국투쟁의 기치 밑에 도처에서 적의 무기를 탈취하며 적군용렬차를 습격 탈선시키는 등의 투쟁도 활발히 벌리였다.

남조선의 애국청년들은 5월 9일 충청남도 강경—연무역사이에서 달리는 적 군용렬차에 돌벼락을 들씌웠으며 9월 3일 경상북도 고모역과 경산역 사이에서는 달리는 적군용렬차에 총탄을 퍼부었다.

11월 3일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은 남조선강원도 원성군 산림면에서 길이 4키로메터나 되는 《치악굴》속에 들어가 철길을 끊어놓음으로써 적군용렬차를 탈선전복시켜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철길을 끊거나 철길우에 바위와 기타 장애물들을 설치함으로써 적군용렬차를 탈선전복시키는 애국자들의 투쟁은 이밖의 여러곳에서 줄기차게 일어났다.

5월 14일 애국적 인민들은 경기도 파주에서 미제침략군 제4유도탄사령부 자동차를 습격하여 적군사비밀문건을 빼앗아내고 9월중순 충청북도청주지방의 괴뢰경찰기관을 습격하여 경찰문건을 불살라버린것을 비롯하여 적들의 군사경찰비밀문건을 빼앗아 놈들의 군사경찰정보를 탐지하여 무장유격투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투쟁도 곳곳에서 전개되였다.

또한 적들의 전쟁도발준비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놈들을 혼란속에 몰아넣기 위한 투쟁의 한 고리로서는 이밖에 적들의 군용통신선 및 경찰경비전화선을 잘라치우는 애국적인민들의 대담한 투쟁도 줄기차게 벌어졌다. 이러한 투쟁은 남조선 이르는 곳마다에서 단행되었는데 특히 경기도의 양주, 부천, 파주 등 미제침략군 및 괴뢰군의 소위 전연지대에서 더욱 활발히 전개되였다. 적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8년 하반기동안에 경기도내에서 단행된 군용 및 경찰통신선의 절단투쟁은 45건을 헤아렸으며 이에서 절단된 통신선의 길이는 2만 6천여메터에 달하였다.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꾸준히 학습하면서 그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자신을 무장하기 위하여 이 해에도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무기고와 초소, 괴뢰군경놈들의 숙소 등을 습격하여 많은 무기와 탄알들을 빼앗아내였다.

충청북도 청주지방에서는 이해 9월 중순 어느날 야밤에 10여명의 애국청년들이 괴뢰경찰 《주재소》를 습격하여《경비》를 서고있던 6명의 경찰놈들을 꽁꽁 묶어놓고 경기관총 1정과 소총, 그리고 많은 탄알을 빼앗아 가지고 자취를 감추었으며 충청남도의 한 지방에서는 애국적주민들이 적들의 무기고철창을 뚫고 15정의 기관총을 빼앗아내였다. 또한 경기도 련천의 애국적인민들은 이곳에 있는 미제침략군의 포사격장에 뚫고들어가 포 확대조준기와 3정의 무기를 빼앗아내였으며 경기도 파주지구의 애국적인민들도 미제침략군 2사단 병참대무기고에서 여러자루의 권총을 빼앗아냈고 역시 파주지구의 괴뢰 《향토예비군》 초소에서 소총을 빼앗아냈다. 그리고 경상북도 울진의 괴뢰경찰《경비초소》와 남조선강원도 원주의 괴뢰경찰서 무기고에서 각각 무기들을 빼앗아낸것등은 적들의 병영,초소를 상대로하여 남조선혁명적 인민들이 전개한 무기획득을 위한 많은 투쟁들중의 일부이다.

이밖에도 남조선의 광산, 탄광, 토목공사장들에서는 폭약과 뢰관이 로동자들에 의해 외부에 반출되는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며 괴뢰군병사들속에서 무기와 탄알을 가지고 병영을 뛰쳐나가는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무기획득을 위한 이와 같은 정력적인 투쟁의 결과 이해에 남조선의 혁명적인민들은 저격무기뿐만 아니라 박격포와 같은 중무기로 자체무장을 일층강화할수 있었던것이다.

남조선의 각지에서 손에 무장을 잡은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영웅적투쟁과 슬기로운 활동은 헐벗고 굶주리며 천대받고 압박받는 인민들에게 새로운

투쟁 의욕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철천의 원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때려부시기 위한 싸움에로 힘있게 나서게 하였다.

반면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적들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무리들은 제놈들의 운명에 《최악의 위기가 닥쳐왔다.》고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있다.》고 비명을 올리였다.

로동자들의 투쟁

1968년에 남조선혁명의 기본계급인 로동자들은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들의 악랄한 폭압을 박차고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그들의 투쟁은 정치적성격을 띠고 더욱 조직화되면서 확대발전하였다.

로동자들의 투쟁은 전력, 광산, 철도, 체신, 방직 등 기간산업부문을 비롯하여 모든 부문에서 세차게 벌어졌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로동자들의 투쟁은 280건으로서 196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33건이 늘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과 가혹한 착취밑에서 그 어느 계급보다도 정치적무권리와 비참한 처지를 강요당하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은 임금인상, 로동조건의 개선, 8시간로동제의 실시, 로조결성 및 활동의 자유 등의 구호를 들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이해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수천수만명을 단위로 남조선전역에서 끊임없이 전개되였다.

12월 부산지구의 화학섬유부문로동자 2천 400여명과 부산시내 여러 인쇄공장로동자들은 임금 120%의 인상과 단체계약의 체결, 로동조건의 개선 등 다섯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일제히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2만여명의 남조선체신부문로동자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을 상대로 임금 45% 인상과 새로운 단체계약체결, 로동조건의 개선 등의 요구조건을 들고 이미 1967년 8월부터 진행해오던 투쟁을 10월 3일에 와서는 파업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남조선로동자들은 8시간로동제와 유급휴가제의 실시, 부녀자와 소년로동의 보호 등 정치적요구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그들의 투쟁을 정치적투쟁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켰다. 8시간로동제의 실시를 전면에 내걸고 오래동안 투쟁한 부산일대 40여개의 해운업체 로동자들과 유급휴가제와 부녀자와 소년로동의 보호 등을 요구하여 싸워온 《금성직물공업사》 녀성로동자들의 투쟁은 그 대표적인 실례였다.

또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그 규모가 전례없이 확대되였을뿐만아니라 점차 조직화되고 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다.

미제침략군기관을 비롯하여 철도, 체신, 광산 등의 각부문로동자들은 년초부터 수만 또는 수천명이 참가하는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그 투쟁들은 남조선전역에 번졌다.

이해 상반년중에 있은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 1건마다에 망라된 평균인원수를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보면 500명미만으로부터 2천명이상으로 급격히 불었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조직성도 일층 강화되였다. 그것은 우선 남조선로동자들이 《파업위원회》나 《투쟁위원회》와 같은 조직체를 뭇고 그 지도밑에 통일적인 행동을 취한데서 나타났다.

전해에 이어 년초부터 활발히 전개된 철도부문로동자들의 투쟁은 《철도로동자대우개선중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조선전역의 3만여명의 철도로동자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으며 그들의 행동통일을 보장하였다.

그들은 이 《중앙투쟁위원회》밑에 대구와 순천 등지에 지역적 《투쟁위원회》를 편성하고 서울에서 지방말단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지령에 따라 전체가 움직이며 단결된 힘으로 오랜기간 완강히 싸워 적들에게 큰 타격을 가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략탈적인 《연료전환정책》을 반대하는 싸움에 나선 1만 3천여명의 탄광부문로동자들은 《중앙》 및 지역별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두리에 굳게 뭉쳐 억세게 싸웠다. 3천여명의 부산시내 피복부문로동자들도 30여개의 작업장들을 망라하여 《쟁의 투쟁위원회》를 뭇고 그 지휘밑에서 조직적으로 투쟁하였다.

진주역 하역로동자들의 투쟁과 《남조선석탄공사》 11개지구 1만 3천여명의 투쟁에는 가족들까지 합세하였으며 인천지구 2천여명의 섬유부문 로동자들의 파업은 섬유부문로동자 2만 3천여명에게 번져 대규모적인 공동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삶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대중적투쟁에서 종래 약점으로 되여있던 자연발생성과 산만성이 극복되고 그 규모와 조직성이 더욱 확대강화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이해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에서는 또한 임금인상과, 밀린임금의 즉시지불 등 경제적요구와 함께 8시간로동제와 유급휴가제의 실시, 부녀자 및 소년로동에 대한 보호, 로조결성 및 활동의 자유보장 등 민주주의적요구가 전면에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요구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부산시내의 한 모직회사 로동자들은 박정희괴뢰도당과 한짝인 기업주놈이 하루의 휴식도 없이 매일 18시간이상 고된 로동을 강요하면서 결근을 하면 《어떤처벌도 받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며 로조에 가입하면 일터에서 내쫓거나 가두어놓고 때리는 등 참을수 없는 박해를 가하는데 격분하여 집단적으로 들고일어나 8시간로동제의 실시와 로조활동의 자유를 요구하여 견결히 싸웠다.

4천여명의 부산시내 섬유부문로동자들이 8시간로동제의 실시

를 전면에 내걸고 싸운것이라던가 경상남도 울산의 비료공장 로동자들 3천여명이 유급휴가제의 실시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투쟁을 전개한것 등은 그 중의 한두가지 실례이다.

이에 있어서 전라북도 전주의 《백양편직물공장》로동자들의 투쟁은 남조선로동운동에서 새로운 추세를 보여주었다.

《백양편직물공장》의 로동자들은 8시간로동제의 실시와 집단해고반대 등의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하여 4개월 이상이나 줄기차게 싸웠다.

그런데 악질기업주놈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12시간 내지 18시간의 노예로동을 강요하자 로동자들은 자체로 로조를 조직하고 자기들의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다음 두달동안이나 8시간로동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로동자들이 지난 20여년동안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착취와 압박밑에서 시달려온 쓰라린 생활체험을 통하여 점차 새제도, 새사회에 대한 지향이 높아지고있음을 보여준다.

남조선로동자들속에서는 빈궁과 무권리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려는 지향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로조의 결성과 그 활동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높아지고있다.

대구의 《조선기업사》로동자들 600여명이 로조결성을 방해하는 박정희파쑈악당들에 항거하여 파업투쟁을 단행한것을 비롯하여 부산의 《인조견직물공장》의 로동자들이 전개한 대중적인 투쟁들은 모두 로조결성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것들이였다.

남조선로동운동의 이러한 발전추세에 급해맞은 미제와 그 주구들은 로동자들의 투쟁을 짓누르기 위해 파쑈적인 《로동쟁의법》을 뜯어고치며 대렬을 와해시키려고 로동자들속에 룩두들을 박아넣는 등 갖은 악랄한 탄압책동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로동자들은 원쑤들의 파쑈폭압을 박차고 적극적인 투쟁으로 놈들에게 대항해나섰다.

남조선로동자들이 전개한 투쟁의 그 대부분이 파업, 시위, 습격 등 적극적인 성격을 띤 투쟁이였다는것은 그것을 잘말해주고있다.

《쌍룡세멘트공장》의 수백명 로동자들은 기업주의 악랄한 착취행위에 격분하여 회사사무실을 습격하고 기물을 모조리 부셔버렸으며 대구의 《영화직물회사》의 300여명 로동자들은 기업주놈이 임금을 잘라먹으려들자 일제히 몰려가 창고를 열어제끼고 천과 그물 등을 나누어 가졌다. 남조선 강원도 춘천의《대룡회사》로동자들도 기업주놈이 밀린로임을 준 대신 도리여 앞잡이들을 내세워 박해를 가하려는데 격분하여 놈들을 때려눕히면서 폭력투쟁을 전개하였다.

2만여명의 남조선체신부문로동자들이 임금의 45% 인상과 단체계약의 체결, 로동조건의 개선 등 다섯가지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한덩이로 굳게 뭉쳐 48일간이나 싸워 끝내 원쑤들을 굴복시키고야만것도 그 례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투쟁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때까지 한사람의 리탈자와 락오자 없이 단결하자》는 구호를 전면에 제기하고 굳게 단결함으로써 투쟁에서 승리한것이다.

이것은 남조선로동자들이 지난 시기 투쟁경험에 비추어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오직 단결함으로써만이 승리할수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략탈적이며 매국적인 《연료전환정책》을 반대하는 11개지구의 《석탄공사》산하 로동자 1만 3천여명의 투쟁에는 100여명의 일반주민들이 합세하였다.

서울에서 일본《항공회사》에 고용된 남조선로동자들이 원쑤놈들의 민족적박해에 항거해나섰을 때에는 이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시내의 각계층 주민들이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몰려가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이와 같이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면서 투쟁의 창끝을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 괴뢰도당에게 점차 집중하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반미반괴뢰투쟁은 특히 무장유격대의 용감한 투쟁에 고무되면서 더욱 활발히 전개되였다.

남조선의 무장유격대가 서울 한복판에까지 진출하여 원쑤놈들을 기습소탕한 1월 21일이후 한달 남짓한 기간에 남조선 각지에서 전개된 로동자들의 투쟁은 그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건수에 있어서는 1.3배, 참가자수에 있어서는 3.2배로 늘어났다. 이 동안에 박정희괴뢰도당을 직접 상대로 한것은 전체 투쟁건수의 40%로부터 65%로 급속히 늘어났다.

그리하여 1968년 상반년기간에는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을 대상으로 한 투쟁의 비중이 94%로 늘어났다.

미제침략군부대에 고용된 남조선로동자들의 반미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된데서도 그것을 찾아볼수있다.

이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그 건수에 있어서 그 전해 한해동안에 비하여서도 2배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들은 미제침략자들의 살인적인 강제로동과 강제해고, 조선사람에 대한 민족적모욕과 멸시 등을 반대하여 나선 집단적인 시위, 롱성투쟁 등을 벌리면서 간악한 미제의 죄행을 폭로규탄하였다. 또한 미제침략군기관 로동자들의 투쟁은 호상련대성을 유지하면서 가족까지 합세하여 대규모적으로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특히는 놈들의 새전쟁도발책동에 큰타격을 주었다.

7월 경기도 오산지구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2천여명의 로동자들은 미제어용신문이 남조선로

동자들을 《범죄자》, 《도적》으로 몰아대는데 격분하여 그를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가진후 미제침략자들은 《공개사과하라》는 프랑카트를 앞세우고 미제침략군의 오산기지와 그 주변거리를 누비면서 강력한 반미시위를 전개하여 원쑤들을 떨게하였다. 부평에 있는 미제침략군부대에 고용된 로동자들은 놈들의 혹사에 격분하여 《투쟁위원회》를 뭇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남조선로동자들은 미제사환군들을 남조선에서 쫓아내기 위한 요구를 들고 적극적인 반미투쟁을 전개하였다.

6월에 경기도 오산지구의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로동자들은 11명의 조선인로동자들을 부당하게 집단해고한 미제침략자 마틴이란놈을 추방하라고 웨치면서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전라북도 군산지구의 이 부문로동자들도 조선인로동자를 가혹하게 착취하며 인권을 유린하고있는 《인사처장 존슨》이라는 미국계집년을 즉시 내쫓을것을 요구하여 싸웠다.

10월에 경기도 수원지구의 이 부문로동자들은 《회사감독》라드라란 미제승냥이놈이 18시간 로동을 강요하고도 부족하여 매일 2시간이상 연장작업을 시키면서 남조선로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있는 횡포한 행위에 격분하여 대중적인 시위를 단행하였다.

이어 11월에는 의정부지구의 이 부문로동자들도 조선인녀성로동자를 리유없이 《도적》으로 몰아 독방에 끌고가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폭행을 가한 미제승냥이놈의 만행에 격분하여 미제침략군 1군사령부안에서 규탄대회를 가진후 범죄자를 남조선에서 당장 내쫓으며 다시는 그런 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로동자들앞에서 다짐할것을 요구하여 완강히 싸웠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남조선로동자들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더욱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조직적으로 단결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자들은 이 해에 원쑤들의 폭압을 박차고 더욱 용감히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를 높임으로써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철폐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앞장서나갔다.

농어민들의 투쟁

이해에 남조선농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토지략탈과 봉건적착취를 비롯한 각가지 수탈을 반대하며 하천제방 및 관개시설의 건설 등 영농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렸다.

초보적인 집계에 의하더라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이에 남조선농민들은 250건의 각종 투쟁을 벌렸다. 이에는 연 35만 7천 40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1967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1.9배의 장성으로 된다. 1967년 10월까지에 있은 농민투쟁이 그 전해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건수에 있어서 1.5배, 참가인원수에 있어서 4.7배로 장성하였다는것을 고려할때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이 현저하게 확대발전하였음을 알수 있다.

이해의 남조선농민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미제와 괴뢰도당의 토지략탈과 봉건적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이 전면에 나선것이다. 특히 토지략탈을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전쟁준비를 위한 군사기지의 확장과 군사적의의를 갖는 철도, 도로, 항만의 확장및 군수공장건설과 관련한 토지수탈에 항거하여 나선 투쟁으로서 이 투쟁은 1월부터 9월까지사이에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140%로 장성하였다.

토지략탈과 봉건적착취를 반대하는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은 그 건수와 참가자수에서 장성하였을뿐만아니라 투쟁에서의 요구내용과 규모 및 조직적 측면에서 새로운 발전추세를 보여주었다.

경상남도 진양군내 2만여명의 농민들을 비롯하여 남조선 각지 농민들은 토지략탈을 반대하여 《토지수탈반대투쟁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인민적토지략탈정책을 항의규탄하는 한편 생존의 권리를 위한 자기들의 요구를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직접 드리대기 위해 수백명으로 되는 《피해주민 대표단》을 조직하여 서울에 파견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경상북도 영일군 대송면내 4천여명의 농민들은 1967년말부터 군사적인 시설물공사를 벌려놓고 수많은 농토를 략탈하려는 미제와 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을 반대규탄하는 성토대회와 시위투쟁 등을 완강하게 전개하여 1968년 여름에는 놈들의 공사를 끝내 저지파탄시켰다. 이해 2월에 경상남도 울산시내 농민들도 미제와 괴뢰도당이 전쟁준비를 위하여 토목공사를 벌려놓고 140여정보의 농토를 빼앗아 못쓰게만든데 항의하여 괴뢰시청과 토목공사장 현장 등에 몰려가 집단적인 롱성과 항의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놈들을 굴복시키고 요구조건을 관철하였다. 12월에는 도내 마산시의 80여명 농민들이 군용도로를 닦기 위해 수많은 농토와 집까지 빼앗아간 원쑤놈들에게 항거하여 《배고파 못살겠다. 생활대책을 세우라.》는 프랑카트를 괴뢰시청정문에 걸어놓고 괴뢰악당들과 맞서 여러차례의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 대구시 방촌동내 수십명의 농민들은 군용 비행장건설을 위해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 군사깡패들이 빼앗아간 농토의 반환을 요구하여 용감히 싸웠다.

농민들은 또한 자기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매판자본가, 지주놈들에게 넘기려는 박정희괴뢰집단의 토지략탈책동에 항의하여 《토지는 농민의 것이다!》, 《피와 땀으로 개답한 땅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기회사에게 그냥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남조선어민들의 투쟁도 현저히 확대되여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만도 약 1만 2천 700명이 각

종 투쟁에 참가하였다. 이해 1.4분기간의 투쟁참가인원수만 보더라도 1967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8배에 달하였다.

어민들은 해상에서 벌리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군사깡패들의 군사연습소동과 어장강탈 및 어민탄압책동을 반대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렸다.

경상남도 마산, 거제, 충무, 삼천포와 전라남도 려수 등 남해안 어민들은 남조선 100만어민들의 생명선인 어장을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팔아넘긴 박정희매국도당의 죄행을 폭로규탄하면서 일본해적선들을 남조선어장에서 내쫓을것을 요구하여 년초부터 줄기차게 싸웠다. 전라남도 려수지방어민들은 12월에 군수물자의 수송을 위한 항구와 도로를 정비확장하기 위해 배길을 막아버리려는 괴뢰도당의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하게 싸운결과 놈들의 책동을 저지파탄시켰다.

남조선어민들의 이러한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어장을 확보하고 어로조건의 보장을 위한 투쟁이 확대강화되고있는것이다.

남조선강원도 대진과 거진 등지의 수천명의 어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해양경찰대》를 내몰아 이른바 《어로저지선》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7척의 어선을 묶어놓고 어민들을 파쑈적인 《반공법》과 《수산업법》에 걸어 잡아가는데 격분하여 일제히 출어를 중지하고 구속된 어민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싸웠다. 12월 6일《어로저지선》을 철폐하고 어장을 제대로 보장할것을 요구하여 일어선 동해안 어민들의 투쟁에는 수십만명이나 참가하였다.

적들의 전쟁준비책동과 농토 및 어장략탈을 반대하는 농어민들의 투쟁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그 투쟁들이 집단적인 시위, 롱성 등 적극적인 형태를 띠고 장기간에 걸쳐 완강하고 줄기차게 전개되고있는것이며 투쟁에서 승리하고있는것이다.

경상북도 영일군 대송면과 경상남도 울산시내 농민들의 투쟁만보더라도 항의와 요구서를 들이대는것으로 부터 시작하여 집단적인 시위와 롱성투쟁에 이르기까지 각종 형태의 투쟁을 몇해에 걸쳐 계속 줄기차게 벌리여 끝내 적들을 굴복시키고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였다.

남조선농어민들은 또한 미제와 괴뢰도당의 각종수탈을 반대하며 농어업시설의 개선과 영농조건 및 어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하여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박정희괴뢰도당과 그 어용수탈기구의 량곡수탈을 비롯한 각종수탈행위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은 1967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60%로 장성하였다. 미제와 괴뢰도당의 농업시설 파괴책동으로 혹심한 가물을 입은데 항거하여 하천제방공사와 관개수리시설의 건설을 요구하는 투쟁은 같은 기간에 일어난 농민투쟁 총건수의 47.7%를 차지하는 102건에 달하였다. 특히 가물을 가장 혹심하게 입은 전라남도를 비롯한 호남지방과 령남지방 농민들의 투쟁이 전남조선적으로 전개된 이러한 투쟁의 37%를 차지하였다.

논에 물 한방울 댈수 없을 정도로 관개수리시설을 파괴하여 농사를 망치게 해놓고도 더 많은 전쟁비용과 군량미 등을 짜내려고 갖은 악랄한 방법으로 수탈에만 미쳐날뛰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략탈행위를 반대하여 일떠선 남조선농민들은 괴뢰악당놈들의 사무실에 몰려가 기물을 까부시고 악질출개놈들과 지주놈을 처단하는 등 폭력투쟁을 전개하였다.

때가 지나도록 모를 내지 못하고있던 충청남도 론산군 가야곡면 양촌리내 농민들은 괴뢰군훈련소에 보내는 송수관을 끊고 그 물을 논에 끌어넣어 모내기를 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렸다. 전라남도 고흥군 중앙면내 농민들은 논에 물을 대지 못하여 모내기조차 못하고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관개시설은 만들지 않고 강제부역만 강요하는 괴뢰앞잡이놈을 쇠스랑으로 까눕혔다. 남조선강원도 횡성군 립석리에서는 머슴사리하던 박아무개청년이 (8월) 당초 약속했던 몇푼의 품삯마저 제대로 안주면서 인간이하의 고역과 학대만을 강요하는 양지주놈을 단호히 처단해버렸다. 전라북도 김제군 봉남면내 농민들은 (10월)비료값을 《회수》한다는 구실밑에 세간살이에까지 《차압》딱지를 붙이며 수탈에만 미쳐날뛰는 괴뢰《농업조합》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악질출개놈에게 뭇매를 안기고 사무실의 기물들을 모조리 마사버렸다.

이 몇가지 실례들은 계급적원쑤놈들에 대한 남조선농민들의 쌓이고 쌓인 분노의 폭발로서 미제와 괴뢰도당의 반인민적정책과 략탈책동을 더는 그대로 두지 않으려는 그들의 억센 투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민들도 괴뢰도당의 어용수탈기구와 악질 선주놈들의 가혹한 수탈을 반대하고 어로장비의 개선과 어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하여 《살길을 마련하라》, 《악질선주놈을 처단하라》등 구호를 들고 집단적인 항의와 롱성, 시위 등 적극적인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정책과 악정하에서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겪고있는 남조선농민들과 어민들은 이 한해동안 생활체험을 통하여 원쑤놈들을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절박한 생활처지도 개선할수 없으며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더욱 깊이 깨닫고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함께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더 과감히 떨쳐나섰다.

이해 남조선농어민들의 투쟁에서 찾아볼수 있는 다른 하나의 특징은 당면하게 제기되는 생활상 요구들을 민주주의적요구들과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점차 대중적이며 조직적인 투쟁으로 발전한것이다.

그것은 남조선농어민들의 투쟁이 종래의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점차 극복하면서 각종 형태의 투쟁조직의 지도밑에 한개 군 또

는 한개 면, 리를 포괄하여 대규모적으로 전개된데서 나타났다.

상반년간에 있은 농민투쟁만 보더라도 참가자수가 500명이상 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투쟁이 1967년 상반년에 비하여 3.9배로 장성하였으며 투쟁 1건당 참가규모로보더라도 같은 기간에 400여명으로부터 1천 200여명으로 3배로 늘어났다.

이해 여름과 가을에 걸쳐 군사기지와 관련되는 공사놀음을 벌려놓고 숱한 농토를 못쓰게 만들었을뿐만아니라 2천여세대의 주민집까지 헐어버리고 강제이주시키려는 괴뢰악당놈들에게 항거하여 대중적이며 조직적인 투쟁을 벌린 남조선강원도 린제지방의 6만여명농민들의 투쟁, 이른바 《매상》의 명목밑에 생산비도 안되는 엄청난 헐값으로 피땀흘려 생산한 잎담배를 빼앗아가려는 략탈책동에 격분하여 다음해부터는 잎담배경작을 아예걷어치울것을 집단적으로 결의해나선 전라남도 순천지방의 3천여명농민들의 투쟁, 이에 앞서 전라북도 남원군 이백면내 3천여명의 농민들이 미제와 괴뢰도당의 반동적농업정책을 규탄하면서 수해방지대책을 요구하여 조직적투쟁을 전개한 사실 등은 그 대표적 실례들이였다.

이 투쟁들은 모두가 한개군 또는 한개 면, 리의 전체농민들이 괴뢰도당의 악정과 학정에 집단적으로 맞서나선 대중적이며 조직적인 투쟁들이다.

조직성이 강화되고있는 다른하나의 측면은 농민들도 로동자들처럼 괴뢰도당의 어용수탈기구자체를 배격해나서면서 자체의 리익을 대변할수 있는 조직을 무어가지고 그의 지도밑에 완전히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있는것이다.

8월 24일 경상북도 영일군 죽장면 현내리내 수십명의 농민들은 괴뢰어용수탈기구인 《농업조합》의 악질졸개놈들이 이미 낸 비료값을 가로채 먹은 다음 그것을 다시농민들에게 들씌워 강탈하려는 추악한 사기협잡행위에 격분하여 《농업조합》에서 집단적으로 탈퇴하였다. 9월 23일 경상북도 달성군 서면 강천리 농민 150여명도 역시 괴뢰졸개놈들의 수탈행위를 배격하면서 집단탈퇴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5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내 1천여명의 농민들은 괴뢰도당의 부당한 농토강탈책동에 항거하여 자체조직들의 지도밑에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앞서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내 5개리의 650여세대의 농민들과 남조선 강원도 춘성지방 20개부락의 1천 300여명의 농민들도 각각 자체의 투쟁조직을 무어가지고 통일적이며 조직적인 투쟁을 벌렸다. 이러한 투쟁들은 농민투쟁에서 조직성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들이다.

특히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내 농민들은 지난 기간의 뼈저린 체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체의 투쟁조직들을 무어가지고 그의 지도밑에 《한치의 땅도 내놓을수 없다》고 웨치면서 생사를 판가리하는 그 어떤 투쟁도 벌릴 결의밑에 완강히 싸움으로써 괴뢰악당놈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조직적투쟁에로의 지향성과 발전추세는 어민투쟁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1월초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면 후포항 어민들은 어항을 보수하라는 요구조건을 들고 자기들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위원회》를 무은 다음 이의 지도밑에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때에는 어민총궐기대회를 열것을 결의하는 등으로 힘찬 투쟁을 벌렸다. 전라북도 군산의 어민들은 어선을 파괴한 괴뢰도당과 놈들과 한작인 악질기업주놈에게 항거하여 《피해어선대책위원회》라는 투쟁조직을 무어가지고 약 한달동안이나 괴뢰경찰까지 끌어내여 파쑈폭압에 미쳐날뛰는 악당놈들과 맞서 억세게 싸웠다.

또한 12월에 《어로저지선》이요 뭐요하면서 어장을 강탈하고 어민탄압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괴뢰도당의 폭압책동에 맞서 《투쟁위원회》를 무은다음 어민대표들이 모임을 갖고 《어장을 내라》는 등 5개조항의 결의문과 항의문을 채택하여 박정희역적놈에게 들이대기로하는 등으로 과감히 싸운 남조선동해안의 속초, 주문진, 거진, 대진, 아야진 등 5개항 어민들의 힘찬 투쟁도 그 대표적 실례의 하나이다. 이해의 남조선 농어민들의 투쟁은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강력한 혁명적 진출에 고무되면서 당면한 생활개선을 위한 투쟁으로부터 점차 미제와 괴뢰도당을 반대하는 정치적투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남조선농어민들의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투쟁은 더욱더 광범한 대중을 망라하면서 대규모적으로, 조직적으로 급격히 확대발전하였을뿐만아니라 반미반괴뢰투쟁에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남조선농어민들은 정치적으로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그들의 혁명력량은 더욱 장성강화되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의 투쟁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청년학생, 지식인들은 학원의 군사화와 모리화를 반대하며 교육제도의 민주주의적개혁을 요구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46페지)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위대한 수령의 이 강령적인 교시를 높이 받들고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학원에 대한 파쑈화와 모리화, 그리고 군사화를 반대하며 학원의 민주화와 수학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학원의 파쑈화와 모리장화를 반대하는 투쟁】 남조선에서 교육을 식민지통치와 침략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리용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

희괴뢰도당은 학원에 대한 파쑈적 탄압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학원안에서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학생들과 교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며 각급 학교들에 《교육자》의 탈을 쓰운 제놈들의 졸개들과 특무들을 수많이 박아넣고 학생들의 일거일동을 감시 탄압하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은 학원의 민주화를 위하여 원쑤들의 파쑈적폭압을 물리치고 용감히 싸웠다.

이해 4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생들은 학원을 폭압의 도가니로 전변시킨 미제와 박정희파쑈도당을 《4월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선언하고 놈들에게 《제2의 4.19가 일어날것》임을 명심하라고 단호히 경고하여나섰다.

5월에 충청남도 서산농업고등학교 학생 500여명은 깡패놈들을 동원하여 학원을 탄압하는 파쑈악당들을 반대배격하여 고깽이와 삽 등을 둘러메고 일대 시위를 단행하였다.

전라남도 광주고등학교의 1천 400여명의 학생들과 이 학교의 량심적교원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학교안에 제놈들의 졸개와 특무들을 박아넣으려는 흉악한 책동을 반대하여 《학원의 질서를 동요케 하지 말라》는 프랑카트를 들고 학교운동장에서 성토대회를 가지고 학원에 대한 파쑈화책동을 신랄히 폭로규탄하였다.

이밖에 마산상업고등학교 학생 1천 500여명이 《학원을 민주화하고 깡패를 없애라》고 웨치면서 시위를 전개한것을 비롯하여 남조선곳곳에서 학원의 파쑈화를 반대하는 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이와함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교육정책과 특히 학원의 모리장화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수학처지가 더욱 나빠짐에 따라 이를 반대배격하는 투쟁들이 힘차게 벌어졌다.

9월 서울의 성북중고등학교학생 2천 500여명이 학원을 돈벌이를 위한 《기업체로 전락》시킨 괴뢰도당의 학원모리행위를 반대하며 학업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대구의 령남대학교부속공업고등학교 학생 1천 800여명은 《공납금》 인상책동을 반대하여 동맹휴학을 벌리였다.

또한 전라남도 려수의 려항녀자실업고등학교 학생 1천 500여명은 학원을 략탈장으로 전변시킨 원쑤놈들을 규탄하여 《우리는 참다운 학교를 원한다》는 프랑카트를 앞세우고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과 그 앞잡이놈들의 학원에 대한 모리장화를 반대배격하는 학생들의 투쟁은 어느 학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년중 끊임없이 전개되였다.

【학원의 군사화와 강제적전쟁훈련 강요책동을 반대하는 투쟁】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병력증강을 위해 남조선의 학원을 제놈들의 침략의 대포밥을 길러내는 련병장으로 더욱 전변시키고있다.

놈들은 청년학생들속에서 더 많은 대포밥을 긁어모으기 위해 1968년부터는 남조선의 대학생들뿐만아니라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을 소위 《학도군사훈련단》에 끌어넣고 발광적인 전쟁훈련에 내몰았다.

원쑤들의 이와 같은 악랄한 책동은 남조선의 전체 청년학생들의 격렬한 반항을 불러일으켜 그것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이 남조선 도처에서 세차게 벌어졌다.

10월 경상북도의 대구고등학교 학생들은 체육시간 마저도 전쟁훈련시간으로 돌리고 거의 매일같이 강제적훈련에 내모는 미제와 군사깡패들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면서 전쟁훈련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싸웠다.

이에 앞서 9월에는 남조선강원도의 춘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들을 침략전쟁수행의 대포밥으로 만들어 민족반역의 길로 내몰려는 박정희반역도당들의 강제적인 전쟁훈련강요책동을 배격하여 집단적으로 수학을 거부하였다.

11월 전라남도 광주숭명고등학교 학생 1천 600여명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전쟁물자수송을 위하여 학교주변을 가로지르는 철도부설공사를 하려는 것을 반대하여 공사현장에 몰려가 치렬한 버티기투쟁을 벌렸다. 놈들의 전쟁준비책동을 반대하는 이러한 투쟁은 남조선도처에서 계속 힘차게 벌어졌다.

이와 함께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의 괴뢰군징집책동을 반대배격하는 청년들의 투쟁기세도 급격히 드높아졌다. 놈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전라남도의 한개 도에서 11월 말현재 괴뢰군징집을 거부한 청년들의 수는 1천 700여명에 달했다. 이것은 괴뢰군에 끌려나가기를 거부하는 청년들의 투쟁기세가 얼마나 견결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괴뢰군징병을 거부하는 청년들의 투쟁은 남조선의 모든 지역에서 더욱더 광범히 전개됨으로써 병력증강에 미쳐날뛰는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학원에 대한 파쑈화 및 군사화와 모리장화를 반대하며 진정한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투쟁을 그들의 수학처지의 개선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였다.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만도 시위, 동맹휴학, 버티기 등 여러가지 형태의 이러한 투쟁이 156건이나 전개되였으며 이에는 5만 1천 5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학원의 민주화와 수학조건의 개선을 위한 학생들의 투쟁은 이해에 더욱더 조직화되면서 완강성을 띠고 전개되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학생들의 투쟁이 학원의 범위를 벗어나서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으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사실이다.

특히 그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무한히 흠모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자체를 튼튼히 무장하는 동시에 이를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들속에 해설, 선전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웠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한 독서회성원들은 《조선로동당 수령 김일성수상님께 충성을 맹세》하면서 《나의 생명을 바쳐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다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학습하였으며 공산주의교양강좌를 조직하고 진리를 연구체득하며 동지들을 규합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남조선강원도의 춘천농업고등학교학생들은 서클조직인《백호클럽》을 조직하고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서울대학교와 기타 각 대학생들이 4.19봉기 8주년을 계기로 반외세, 반전, 반파쑈, 반매판의 기치를 들고 정의의 반미구국항쟁에 떨쳐나설것을 선언해 나섰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은 이와 같은 투쟁을 통하여 자체의 력량을 준비하고 투쟁대오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대중을 각성시키면서 혁명투쟁을 한층더 심화발전시킴에 있어서 교량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반파쑈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지식인들의 투쟁】 남조선의 지식인들은 이해에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 및 청년학생들과 함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반파쑈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반미구국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과학자, 교원, 예술인, 언론인, 기술자, 의사 등 광범한 지식인들은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한편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과 파쑈폭압책동을 반대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신문과 잡지 등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류례드문 파쑈폭압책동으로 암흑천지로 화하고있는 남조선 실태를 신랄히 폭로규탄하였다.

2월 괴뢰국세청출입기자들은 취재기자들에게 거듭 폭행을 가한 박정희파쑈악당들의 죄행에 대하여 괴뢰국무총리 놈에게 항의하고 날로 더 심해가는 언론탄압과 기자들에 대한 박해행위를 즉시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3월에는 남조선의 기자단체인 《한국기자협회》의 《경상북도지부》와 경상북도 괴뢰경찰국 출입기자단은 괴뢰경찰놈들의 비행을 사실대로 보도한 기자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압해나선 파쑈악당의 만행에 대하여 《언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항의하고 이를 즉시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8월 남조선의 언론인단체인《신문편집인협회》성원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제놈들의 전쟁도발책동의 일단을 사실대로 보도한 《동양통신사》의 기자들을 체포구금하고 박해를 가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사태에도 강력히 결속하여 투쟁해나갈것》을 결의해 나섰다.

남조선의 한 언론인은 《현정부의 본질은…간섭과 위협과 탄압》이며 오늘의 남조선은 《검은 쇠사슬만 칭칭 감겨있다》고 하였으며 한 작가는 박정희괴뢰도당이 지식인들의 《머리의 세포속에까지 검열관을 넣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한 평론가는 바로 이러한 탄압속에서 현사회를 폭로규탄하여 쓴 작품들이 《하늘을 덮고 땅을 덮을 만큼》 많으나 발표되지 못하고 《책상설합속에서 원고지 잉크색만 퇴색》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지식인들은 이러한 사태하에서 《정의와 자유를 옹호하는 투쟁을 일순간도 중단》할수 없으며 힘에는 힘으로 폭력에는 폭력으로 해결해야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지금 젊은 지성인들의 가슴은 설레이고있어 언제 어데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는 몰라도 민주주의와 겨레의 최저한의 생존권을 위하여서라면, 그리고 부패와 타락의 정치풍토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라면 무능한 정치인들과 모리배 경제인들을 언제던지 앞장서 몽개버릴 태세》에 있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지향을 대표하여 남조선의 선진적지식인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정권을 반대하는 여러가지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여 왔으며 또 벌리고있다.

이리하여 이해의 남조선지식인들의 투쟁은 종래의 제한성을 점차 극복하고 적들의 파쑈폭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조건하에서도 새로운 발전적 추세를 보이면서 심화되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보고에서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 정강에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신 이후 남조선지식인들속에서자주, 자립에 대한 주장의 목소리가 더욱 힘있게 울려나왔다.

남조선의 지식인들은 외세에 의존하여 매국배족행위를 일삼으며 인민들에게 망국노의 생활을 강요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이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대주의를 하면 민족적자부심이 없어지게 되며 민족적자부심이 없어지면 끝내는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인민들에게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자주의식을 높일것을 절절히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광범한 지식인들은 《우리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바랄것이냐,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우리자신이오, 우리가 바랄것은 오직 우리자신의 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한결같이《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이라는 민족자결로선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와 박정희괴뢰

도당의 매국배족적죄행을 날카롭게 폭로규탄하였다.

남조선지식인들의 이러한 굳은 결의와 확고한 신념은 진리탐구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고 폭압과 가난이 휩쓰는 오늘의 생지옥속에서 벗어나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 마음껏 행복을 누릴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려는 그들의 불타는 념원에서 나온것이다.

이리하여 남조선의 애국적지식인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체득하기에 정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기들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을 무어 합법적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면서 이에 비합법적인 투쟁을 밀접히 결부시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있다.

그들은 지하에서, 감옥과 《법정》에서도 용감히 싸웠다.

기타 계층들의 투쟁

1968년에 판자집철거를 반대하며 생활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남조선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의 투쟁과 살인적인 세금부과와 점포강제철거 및 반인민적인 재정융자책동을 반대하는 소상인, 중소상기업가들의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놈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의 투쟁은 1월—10월 기간에 177건이나 있었다. 이에는 1967년의 같은 기간보다 23%나 더 늘어난 13만 2천여명의 주민이 참가하였다.

남조선의 도시빈민들은 군사시설과 군용도로의 확장놀음을 벌려놓고 자기들의 집을 강다짐으로 헐어버리려는 미제강점자들과 박정희파쑈악당의 죄악적인 강제철거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웠다.

1월 하순에 부산시 충무동내 1천여명의 주민들은 괴뢰시청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자기들의 집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군사시설을 만들려는 원쑤놈들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면서 시위와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리였다.

남조선 강원도 강릉과 전라남도 광주지방주민들은 군용비행장을 확장하려고 자기들의 집들을 마구 헐어치우려는 미제와 괴뢰도당의 강제철거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웠다.

남조선주민들의 강제철거반대투쟁에서 특징적인것은 수십 대중적이며 폭력적성격을 띠고 전개되고 있는것이다.

부산시 영주2동 3천여명의 주민들은 1월 16일 박정희괴뢰도당이 4천여세대의 가난한 주민들이 살고있는 판자집들을 강제로 헐어버리려고들자 괴뢰시청에 몰려가 한때 그곳을 완전히 점령하고 강제철거책동을 당장걷어치우라는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거부해나서는 악질관리놈들에게 몽둥이찜질을 안기여 여러놈을 까눕혔다.

3월 29일에는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일대 500여명의 주민들이 괴뢰동사무소를 점령하고 놈들의 강제철거책동을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하면서 탄압에 미쳐날뛰고있는 괴뢰경찰놈들을 때려눕혔다.

강제철거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발전하였다.

서울시 중구 동자동일대주민들은 2월 28일 놈들의 강제철거책동과 함께 괴뢰국회를 반대하는 프랑카트를 들고 괴뢰국회앞에 몰려가 시위를 벌리였다.

서울시 영등포구내 주민들은 미제의 지시밑에 이른바 《무역박람회》라는것을 벌리면서 자기들의 집을 모조리 헐어버리게 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을 반대하여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후에도 이곳 주민들은 괴뢰국회 건물앞에 몰려가 《추위를 앞두고 집을 헐리울수 없다》고 웨치면서 시위와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렸다.

원쑤놈들의 강제철거책동에 격분한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내 400여명의 주민들도 《거처를 빼앗지 말라》는 프랑카트를 들고 박정희괴뢰도당의 소굴을 향해 가두시위를 벌리였다.

그들은 탄압에 미쳐날뛰는 500여명의 괴뢰경찰놈들과 맞서 하루종일 용감히 싸웠다.

남조선의 가난한 주민들은 삶을 위한 자기들의 생활조건의 개선과 직들의 가혹한 탄압을 반대하여서도 견결히 싸우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일자리를 얻을수가 없어 날품팔이로 겨우 그날그날을 살아가고있는 경기도 양주군내 1천여명의 주민들은 8월에 밀린품삯을 받아내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였다.

놈들의 《토목공사장》에 강제로 끌려나가 고된 로동을 넉달씩이나 강요당하고도 한푼의 품삯도 받지 못한데 격분한 그들은 이날 현장에 몰려가 괴뢰악당놈들에게 《품삯을 왜 안주느냐》고 항의하면서 그것의 즉시지불을 요구하여 앉아버티기투쟁을 전개하였다.

충청남도 공주군내 수백명의 주민들과 전라북도 정읍군내 1천여명의 가난한 주민들도 한두달씩 밀린 품삯을 받아내기 위하여 각각 괴뢰군청에 몰려가 완강히 싸웠다.

전라남도 광주시내 수백명의 실업자들은 2월초에 괴뢰시청에 몰려가 《먹을것이 없어 굶어죽게 되었다》고 웨치면서 《당장 먹을 쌀을 내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전라북도 장수군내 가난한 주민들은 매일같이 수십, 수백명씩 괴뢰군청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배고파 못살겠다. 쌀을 내라》고 웨치면서 삶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쌀을 요구하는 가난한 주민들의 이러한 투쟁은 경상남도 남해, 진양, 함양군과 충청남도 대전, 공주 등지를 비롯하여 남조선 곳곳에서 련중 계속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악정과 학정밑에 일할래야 일할 자리가 없고 먹을래야 먹을것이 없는 인간생지옥속에 빠져든 남조선의 가난한 주민들은 새전쟁도발준비에

미쳐날뛰면서 한푼의 군사비라도 더 짜내기 위하여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는 놈들의 가혹한 략탈행위를 반대하여 또한 억세게 싸웠다.

전라남도 목포시 대성동 주민대표 100여명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몇달채 수도물을 주지 않고 수도세만 빼앗아내는데 격분하여 지난해 8월 14일 괴뢰시청에 일제히 몰려가 《돈만 빼앗아내지 말고 먹을 물을 보내라》고 웨치면서 줄기차게 싸웠다.

서울시 중구 저동 주민들도 한달이상이나 수도물을 주지 않고 수도세만 그전의 20배가 되는 7천원씩을 받아내려는 괴뢰악당놈들의 날강도적인 수탈책동을 단호히 반대하여 싸웠다.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투쟁은 도시 빈민뿐만아니라 소상인 및 중소상기업자들속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였다. 그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들씌우는 과중한 세금부담과 점포강제철거 그리고 재정융자에서의 차별조치를 반대하며 영업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하여 견결히 싸웠다.

경상북도 대구시내 100여명의 령세상인들은 놈들이 시장사용료를 한꺼번에 종전보다 200%나 더 끌어 올린데 참을수 없어 2월 24일에 괴뢰시청에 몰려가 그 악랄한 수탈책동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웨치면서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리였다.

서울시 괴뢰시청앞에 있는 70여명의 령세상인들도 4월 10일에 놈들의 가혹한 세금략탈을 반대하여 집단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이해 1～10월 기간에만도 령세상인들과 중소기업가들의 투쟁이 72건이 있었으며 이에는 1만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남조선 도시빈민들과 소상인, 중소기업가들의 투쟁은 혁명적무장유격투쟁과 로동자, 농민들의 대중적투쟁에 고무되면서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과 범죄적인 새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는 정치적성격을 띠여갔다.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상패리내 200여명의 주민들은 지난해 8월초에 미제침략군놈들이 아무런 리유없이 부락민 8명에게 폭행을 감행한데 격분하여 놈들의 부대정문에 몰려가《폭력미군놈들을 잡아내라》고 웨치면서 완강히 싸웠다.

이에 앞서 인천시내 수십명의 주민들은 죄없는 가난한 주민들을 잡아가두고 폭행을 가한 미제침략군을 반대하여 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기면서 완강히 싸웠다.

9월초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봉천동내 3천여명의 주민들이 임신 7개월이 된 마을녀성을 곤봉으로 때리고 구두발로 마구 차서 실신케한 이곳 경찰놈들을 반대하여 《깡패경찰을 몰아내라》고 쓴 프랑카트를 들고 괴뢰봉천파출소에 몰려가 사무실 유리창과 기물을 마사버리는 등 폭력투쟁을 벌렸다.

제주도 제주시내 1천여명의 주민들은 1월 3일에 제주대학에 모여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용비행장건설을 반대하는 군중집회를 열고 《투쟁위원회》를 뭇고 놈들의 새 전쟁도발준비를 신랄히 규탄하면서 완강히 싸왔다.

이 투쟁은 사실상 적들이 살륙비행기를 끌어들이지 못하게 한 투쟁으로서 놈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전라남도 려수에서는 적들의 려수군항확장을 위한 도로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전개되였다.

범죄적인 침략전쟁도발준비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군사깡패놈들은 려수군항을 확장하면서 항구내에 도로확장공사를 벌려놓고 주변인민들을 매일과 같이 강제동원시켰을뿐만아니라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다짐으로 내밀므로써 공사장에 끌려나간 사람들은 물론 그주변에 있는 인민들까지 하루 여러명씩 인명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불만을 품어오던 이곳 50여명의 주민들은 놈들의 공사장에 일제히 몰려가 자기들이 입은 막심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것과 공사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여 시위를 벌렸던것이다.

주민들의 이 시위투쟁에 의하여 한때 놈들의 공사현장은 완전히 혼란상태에 빠졌었다.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향도리내 500여명의 주민들은 전쟁연습으로 매일과 같이 총을 쏘아대면서 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있는데 격분하여 적들의 사격장에 몰려가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라고 웨치면서 항거하여 싸웠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반역도당이 그 어느때보다도 파쑈폭압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한 조건하에서도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과 기타 계층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일층 강화되였으며 그들의 투쟁이 조직적이며 대중적인 투쟁에로 발전하여가고 있다것을 보여준다.

괴뢰군속에서 높아가는 반전반파쑈기세

남조선에서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반미반괴뢰투쟁이 앙양됨에 따라 정치적으로 각성되기 시작한 괴뢰군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 속에서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전쟁도발책동과 파쑈화를 반대하며 괴뢰군살이를 거부하는 현상이 늘어가고있다.

1968년에는 3만여명의 괴뢰군병사들이 치욕스러운 괴뢰군살이를 거부하여 병영을 탈주하였다. 이것은 전해의 탈주병 1만 5천명에 비하면 2배로 되는것이다. 이에서 주목되는것은 병영을 뛰쳐나온 괴뢰병사수의 급격한 증가뿐아니라 무기를 가진채 탈주하는 현상이 늘어가고있는것이다.

괴뢰 군전방 한 사단에 소속되여 있는 황아무개병사는 경계망을 뚫고 (6월 14일)카빙총과 탄환을 탈취하여 가지고 도망쳤다. 이틀후에는 보초근무를 섰던 한 병사가 소총과 탄환 수십발을 가지고 자취를 감추었다.

괴뢰군병사들속에서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악질장교놈들을 처단해버리며 파쑈적몽둥이규률에 집단적으로 항거해나서는 현상이 또한 늘어가고있다. 적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월부터 3월까지사이에만도 괴뢰장교놈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병영에서 빠져나간 병사들의 수는 1만 97명이나된다. 이것은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30%나 부른것이다. 그 가운데서 악질장교놈을 처단한 사건만도 3월중순부터 6월중순까지의 사이에 80여건이나 있었다. 여기에는 800여명의 괴뢰군병사들이 참가하여 악질장교놈 16명을 죽이고 18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괴뢰군상층장교놈들에 대한 항거는 개별적으로만 아니라 집단적인 항거투쟁의 형태로도 일어나고있다. 5월에 괴뢰군 중하층장교 43명은 《복무》년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쑤놈들이 이구실 저구실을 붙여 제대시키지 않는데 격분하여 집단적으로 항거해나섰다.

또한 괴뢰군병사들은 파쑈적몽둥이규률을 반대하여 폭력으로 항거해나서고있다. 괴뢰군 제8831부대 12대대 8중대소속 리아무개병장은 호되게 기합을 받은데 격분하여 악질장교놈의 가슴팍에 복수의 총탄을 쏘아박았다. 이에 앞서 괴뢰륙군 제1202공병단 로태우 2등병은 악질장교놈을 쏴죽이고 카빙총 한 자루와 실탄 45발을 가지고 도망하였다. 이러한 항거는 개별적투쟁으로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폭력투쟁으로도 전개되였다. 6월 6일 군의관 후보생 400여명은 집단적으로 파쑈적기합에 항거하여 《련대장》놈을 돌로 까눕히는 동시에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렸다.

괴뢰군의 움직임에서 특히 주의를 끌게 하는것은 그들속에서 반미감정이 드높아가고있는 사실이다.

괴뢰군병사들은 미제침략자들이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틀어쥐고 자기들을 침략의 대포밥외의 다른 아무것으로도 여기지 않으며 온갖 멸시와 학대를 일삼고있는데 대한 불만과 증오로 차있다. 그들은 괴뢰군부대들에 들어앉아 모든것을 좌지우지하는 미제침략군고문놈들을 《양코배기》, 《빈깡통 같은 놈》, 《죽일놈》 등등으로 부르면서 놈들에 대한 반감과 증오를 표시하고있다. 영국신문 《타임스》지의 서울특파원이 괴뢰군병사들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지휘관들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쓰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제침략군부대에 얽매여 모욕과 박해를 받아온 김원배병사는 12월 29일 중서부전선의 미제침략군 1군단포사령부 사격장에서 미제침략군무리들에게 총탄을 퍼부어 헌병중위놈을 포함한 여러명의 미제침략군놈들을 족쳐버렸다. 이보다 앞서 서울 영등포구에서 조선사람을 함부로 때리며 행패를 부리는 데이비드란놈을 비롯한 세놈의 미제승냥이들의 만행을 보게된 한 괴뢰군병사도 이 원쑤놈들에게 복수의 총알을 안겨 징벌하였다.

괴뢰군병사들속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반미기세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과 결합되여 하나의 반미운동으로 번질 추세를 보여주었다. 괴뢰륙해공군 각 병종부대내의 각성된 중하층 장교들은 남조선지하혁명조직의 하나인 통일혁명당에 참가하여 미제를 몰아내고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리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적활동을 괴뢰군내의 광범한 병사들과 중하층 장교들속에서 전개하였다. 괴뢰 《륙군사관학교》교수부 교관인 신영복을 비롯한 지하혁명조직에 망라된 중하층장교들은 여러 경로를 거쳐 입수한 사회주의서적들 특히 《김일성전기》를 통하여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혁명사상을 배우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들은 괴뢰군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속에서 정치선전사업을 진행하여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을 위대한 수령의 주위에 묶어세우는 한편 반미반괴뢰투쟁을 벌렸다. 그들은 미제의 죄악상을 낱낱이 폭로규탄하는 반미선동을 줄기차게 진행하였으며 반미시위를 단행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추진시켜왔다.

괴뢰군내부에서의 이러한 자체투쟁의 영향과 그리고 공화국의 위력의 장성과 그 국제적위신의 제고는 역시 괴뢰군들속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용사들의 자위적조치에 의한 미제의 《경호함56》호의 격침,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나포와 관련하여 괴뢰군들속에서는 공화국의 위력에 대해 굳은 신임을 표시하였다.

또한 괴뢰군속들에서는 《정말 김일성장군의 령군술은 훌륭하다. 이제 다시 미국놈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때에는 제놈들이 지른 불길에 타버리고 말것이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전쟁의 불을 지르자는것은 참으로 얼빠진것이다. 그것은닭알로 바위를 치자는 망상과 같다.》고 말들을 하고있다.

괴뢰군의 어느한 사단에서는 다섯명의 병사들이 500여명의 동료들앞에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원수 만세!》를 소리높이 웨쳐 거기에 모인 병사들을 무한히 격동케 하였다. 다른 사단의 하층장교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고 남조선괴뢰군병사들이 오늘의 저주로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김일성 수상님의 가르치심을받들고 싸워야한다고 하면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쳤다.

이것은 괴뢰군병사들과 하층장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에 대한 무한한 흠모와 그이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탁월한 방침을 받들고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하고있으며 반미구국투쟁의 앙양속에서 괴뢰군내에서도 반미반괴뢰투쟁이 점차거세차가고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침략과 전쟁책동의 강화

【군사전략기지로 전변】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강점자들이 남조선을 더욱더 아세아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전변시키고있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는것은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만드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기어든 첫날부터 일관하여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뿐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전 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여왔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84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더욱더 군사전략기지로 만들려는 책동은 아세아와 남조선에서 제놈들의 식민지통치의 위기가 심각화됨에 따라 일층 강화되였다.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의 《가장 가치있는 전초기지》로 간주하고있는 미제는 이곳을 윁남침략전쟁과 직결시키는 동시에 저들의 군수물자공급기지로, 군수기재의 수리기지로 삼고있는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려고 획책하여왔다.

미제는 이러한 침략계획을 실현하는데 남조선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면서 군사기지의 신설 확장,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무력증강(병력과 장비), 남조선경제의 군사화 등을 다그쳤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새전쟁 도발을 위한 미제의 군사전략기지로, 군사부속물로 더욱 전락되였다.

미제의 이와 같은 범죄적책동은 특히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나라 령해를 침범한 사건이 있은후부터 더욱 발악적으로 감행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니 미국회상하원 《군사위원회》회의니 하는것들을 련이어 벌려놓고 이른바 《조선정세》를 검토하는 한편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새전쟁도발준비를 다그칠데 대한 《지시》를 연거퍼 주며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4월에는 박정희역도를 직접 호노룰루에 불러내여 《호노룰루전략회담》을 벌려놓고 전쟁도발음모를 꾸미였다.

한편 미제침략자들은 전쟁광 죤슨의 《특사》, 미국무성 극동담당차관보, 미태평양지구총사령관놈을 비롯한 미국방성 및 태평양지구 륙해공군사령관놈, 군사작전참모, 통신, 군사기지, 병참관계의 전쟁사환군들을 《조사단》이니, 《군사사절단》이니 하는 명색으로 남조선에 들여보내여 직접 현지에서 제놈들의 전쟁도발음모를 지휘검토케 하였다.

전쟁미치광이들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하여 《지상과 공중에서 불의의 공격을 가하여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이면서 남조선에 대한 무력증강을 강화하는 한편, 침략무력을 상시적인 《전투경계태세》에 몰아넣고 도발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여왔다.

【무력증강과 침략적군사동맹조작책동】 미제와 박정희군사깡패들은 이미 꾸며놓은 침략계획에 따라 우선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놈들은 대구, 광주등지를 비롯한 각지에 있는 군용비행장의 확장 및 신설공사를 벌리고 서울—부산간, 서울—인천간의 군용도로를 새로 닦으며 진해를 비롯한 여러 항만을 개축 또는 확장하였다.

특히 미제침략자들은 오래전부터 기도해온 남조선을 핵 및 유도무기기지로 만들려는 범죄적계획을 로골적으로 추진시켰다. 이해 7월에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상전의 지시밑에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서 핵무기로 장비한 이른바 전략폭격기들이 자유로 오르고내릴수 있는 공군기지공사를 서둘러댔다.

군사전략기지화에 날뛰여온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병력 및 장비를 증강하는데 급급하였다. 적들은 《푸에블로》호 사건이후 경기도 오산에 미제침략군《제5공군전방사령부》를 설치하고 미국본토와 일본 및 태평양지역에 배치하였던 수백대의 전투폭격기들과 1만 2천여명의 침략군 무력을 끌어들였으며 동해안일대에 미제7함대무력의 일부를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등 《전투태세》를 갖추기에 바빴다.

이와 함께 괴뢰군 무력증강을 꾀해나선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괴뢰군내에 2개의 독립기갑려단, 한개의 준전투비행단과 1개의 훈련비행단, 10개의 해안경비대대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전투부대들을 늘였다.

놈들은 괴뢰군의 전반적복무기간을 연장하는것과 함께 18살부터 27살 미만의 청년들을 강제징집하여 소위《보안교육》을 주어 《군사훈련》에 내몬다음 괴뢰군에 편입시켜 병력을 늘이려고 꾀하였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박정희군사깡패들은 동족상쟁과 인민탄압에 쓸 괴뢰군의 《별동대》로써 이른바 《향토예비군》이라는것을 만들어 여기에 모든 남조선청장년들을 강제로 끌어넣고 그 《무장화》를 서둘러댔다.

한편 미제는 괴뢰군의 장비증강을 위하여 이해에 남조선괴뢰들에게 주기로한 1억 6천만 딸라의 군사《원조》외에 1억딸라의 군사 《원조》를 더 주었으며 그리하여 신형전투기를 포함한 수백대의 각종 전투폭격기들과 신형수륙량용장갑차, 구축함, 경비정, 대공포 등 숱한 작전장비를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이것은 혁명적인 작은 나라와 분렬된 나라들을 각개 격파하면서 세계제패의 침략적전략의 실현을 위해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이 범죄적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해에 미제와 그 주구들은 무

력증강과 함께 남조선경제의 군사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미제에 의한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는 우선 남조선의 군사경제적 잠재력을 동원하여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군사물자수요를 현지에서 조달하기 위한 군수산업을 신설확장하며 모든 산업을 군사적수요에 복종시키는 등 경제를 《전시체제에로 개편》하는데 목표를 두고 감행되였다.

남조선을 이처럼 재전쟁도발의 온상으로 전변시키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괴뢰들과 아세아반동들간의 군사적결탁을 실현하여 남조선을 군사행동기지로 만들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돌격대로 삼아 조선에서 범죄적인 전쟁을 일으키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이 만들어낸 《아세아태평양지역각료리사회》를 침략적군사동맹으로 완성시키며 사실상 새로운 군사뿔럭인 《아세아태평양조약기구》를 조작하려고 저들의 충실한 개 박정희역도를 9월에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 등지에 보내여 쑹쑹이를 꾸미게 하였다.

그러면서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괴뢰도당을 시켜 이른바 요청형식을 취하게 하여 지난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하였던 16개국으로부터 1953년의 소위 《참전16개국공동선언》을 재확인하게 함으로써 제놈들이 일으키려는 조선침략전쟁에 괴뢰들과 추종국가들을 다시 끌어넣으려고 흉책하였다.

특히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괴뢰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을 군사적으로 결탁시키기 위해 기를 썼으며 일본반동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에 적극 가담해나섰다.

이해 6월과 8월에 서울에서 열린 《한일국회의원간담회》와 《제2차한일각료회의》들에서는 소위 《한일간의 공동운명》을 웨쳐대면서 남조선괴뢰군과 일본《자위대》와의 직접적인 협동을 체결하는 문제, 동해안의《감시》를 일제의 해상《자위대》가 담당할데 대한 침략적문제들이 모의되였다. 특히 여기에서는 일제 《방위청》과 남조선괴뢰국방부 및 외무부사이에 《조선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실무자급협의회》를 상시적으로 가지기로 하였으며 《미일한군사동맹작전체계》밑에서 공동작전에 필요한 군사정보망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군사인원의 호상래왕, 조선침략전쟁을 가상한 도발적인 《합동군사훈련》, 일본의 동북지역에 배치한 《자위대》들을 조선에 가까운 서남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제와의 쌍무적인 침략적군사동맹에 얽매여있는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 사이에는 미제를 중심으로하여 사실상의 《미일한군사협력체》가 형성되여있으며 어느때나 공동행동을 취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미제침략자들은 이것을 주축으로 하여 아세아의 괴뢰들을 긁어모아 제놈들의 침략도구로서의 새로운 군사동맹을 만들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효과있게 써먹으려고 책동하고있다.

【범죄적인 전쟁도발책동】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추구하여온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군사기지화책동이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미반괴뢰투쟁을 앙양시켜 저들의 식민지통치지반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자 출로를 모험적인 길에서 찾으려고 조선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파괴하고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면서 전쟁도발에 미쳐날뛰였다.

이러한 도발책동은 전쟁광 존슨이 박정희역도를 호노룰루에 불러다가 범죄적이며 모험적인 전쟁계획의 실현을 다그쳐댄이후 더욱 미친듯이 감행되였다.

적들은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을 매일과 같이 끌어내여 이른바 《번개작전》이니, 《한미공동합동작전훈련》이니, 미제7함대와의 《합동해상훈련》이니 하는 등의 명목으로 전쟁연습을 감행하여 남조선천지를 화약냄새와 포연으로 뒤덮었다. 이에서 미제는 남조선경외에 있는 제놈들의 무력까지 동원하여 전례없는 대규모의 군사연습을 벌렸다.

이해 11월에 감행한 《제1야전군훈련》은 괴뢰군이 생긴후《최대규모의 기동연습》으로서 이에는 괴뢰군만하여도 무수히 끌려나왔다.

놈들은 미제침략군 제7함대의 수많은 해적함들을 동원하여 부산을 비롯한 일련의 항구들에 입출항하는 훈련까지 감행하였으며 12월에는 공격용 항공모함을 동해에 끌어들여 《한미합동기동훈련》을 벌렸고 지어 미제82공정사단의 수천명의 침략군병력을 미국본토로부터 직접 《공중수송》하여 군사분계선일대에 투입하려는 도발적인 불장난을 기도해나섰다.

그러면서 적들은 군사분계선과 해상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도발행위를 쉴새없이 감행하였다.

1968년 한해동안에 적들이 감행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는 우리측이 항의한것만하여도 무려 1만 650여건에 이른다.

미제침략자들은 재전쟁도발을 목적으로 비무장지대를 전투진지로, 적대행위의 온상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년중 계속 집요하게 책동하여왔다.

적들은 비무장지대내에 전차와 장갑차 및 각종 포를 비롯한 중무기와 자동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비무장지대 적측부분을 하나의 전투진지로 전변시켰다. 이해에 적측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우리측이 항의한것만 하여도 2천여건에 달한다.

미제침략자들은 11월 3일 군사분계선중부와 서부의 세개방향에서 1천여명의 무장집단을 동원하여 3만 9천여발의 총포사격을 가하면서 악랄한 대규모의 무장공격을 감행한것을 비롯하여 이해에 우리측을 반대하여 감행한 적측의 무장공격행위는 1967년에 비하여 3배이상으로 늘었으며 그에 동원된 무장악당수는 지난

14년동안에 감행한 무장공격행위에 동원된 그것의 6배이상에 이르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또한 우리측을 반대하는 정탐, 살인, 파괴행위를 목적으로 우리측 지역에 무장간첩을 계속 끊임없이 침입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이해에 적측이 감행한 이와 같은 무장간첩침입행위는 전해에 비하여 7배이상에 달하였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8월과 9월의 두달동안에 568차에 걸쳐 도합 8만 5천 760여발의 포탄과 총탄을 쏴댄것을 비롯하여 비무장지대내에서 2천여차에 걸쳐 23만여발의 포탄과 총탄을 쏴대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전해에 비하여 근 4배에 이르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상에서뿐만아니라 해상과 공중에서도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모한 적대적행위를 끊임없이 저질렀다.

1월에 우리측 령해 깊이 침입하였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을 비롯하여 6월 22일에 서해 우리측 연해상에 또다시 무장간첩선을 침입시켰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각종 해군함선들과 무장선박들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켰다.

이해 적들이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 각종 해군함선들과 무장선박들의 수는 무려 1만 2천 540여척으로서 이것은 매일 평균 34척이상의 해군함선과 무장선박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것으로 된다.

한편 적들은 《에프 5에이》 및 《에프 105형》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군용비행기를 우리측 령공에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적도발을 감행하였다. 이해에 들어와 적들이 감행한 이와 같은 공중침범행위는 전해에 비하여 2배이상이나 늘었다.

전례없이 격증된 적들의 군사적도발행위는 그 규모와 성격에 있어서 정전후 류례없는 악랄성과 포악성을 띠였으며 그리고 이에 적들의 륙해공군의 모든 신형무장장비들과 전투부대가 동원된 사실은 사실상에 있어서 하나의 완전한 전투작전형식을 갖춘 조직적인것이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것은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정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해 얼마나 광란적으로 무모하게 책동하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리하여 조선에서 긴장상태는 격화되였으며 남조선은 조선과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전쟁발원지로 전변되여 가고있다.

군사파쑈독재의 강화

미제침략자들과 괴뢰도당은 제놈들의 식민지지배와 범죄적인 전쟁정책의 실현을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야수적인 폭압으로 뒤받침하려고 발악을 하였다.

남조선의 실지 통치자인 미제는 제놈들의 식민지통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그의 앞잡이들을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을 짓누르기 위한 탄압에로 내몰았다.

미제살인귀들과 그의 충실한 개 박정희파쑈악당은 이 해에도 남조선인민들의 앙양되는 혁명적진출을 막아보려고 미쳐날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파쑈탄압의 예봉이 애국적민주력량에 돌려지고있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파쑈화정책에서 추구하는 주되는 목적은 자기들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 실현에서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들의 파쑈적폭압의 예봉은 인민들의 온갖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고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탄압하는데 돌려지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87페지)

【파쑈적법체제와 폭압체계의 강화】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마저 말살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등 수많은 파쑈악법들을 만들어낸 미제와 그의 식민지괴뢰들은 이 해에도 악명높은 《반공법》, 《주민등록법》, 《수산업법》 등을 더욱 개악하였다.

놈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요구도 《정치범》으로 몰아 처벌하게끔 되여있는 《반공법》의 적용범위를 더 넓히도록 뜯어고쳤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파쑈적악법인 《주민등록법》과 그것을 안받침 할 《주민등록법시행령》이라는것을 만들어내여 강압실시하였다.

이 악법을 휘둘러 놈들은 18살이상의 모든 남조선인민들을 강제로 등록시키고 《등록증》에 열손가락의 지문을 찍게 하며 《유일고정번호》까지 붙여놓게 하였다. 박정희반역도당은 세계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이와 같은 파쑈악법으로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막아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는 남조선어민들의 지향을 또한 억누르려고 이른바 《수산업법》이란 악법을 만들어냈다.

이에 의하면 남조선의 모든 어선들은 무조건 《어선단》에 망라되여 어로작업을 해야 하며 물고기잡이를 나가는 어민들은 반드시 《반공교육》을 받아야 하며 《승선증》이란것을 가져야 배에 탈수 있게 되여있다.

이것은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이 남조선에서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기 위한 살인적 《법》체제를 꾸리기에 얼마나 광분하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악법의 개악, 조작과 함께 파쑈악당들은 폭압기구와 폭압력량들을 대대적으로 늘였다.

원쑤들은 무장유격대를 이른바 《토벌》하기 위한 《작전계통을 일원화》한다고 떠들어대면서 괴뢰군경과 새로 인민탄압에 내몬

《향토예비군》을 통일적으로 지휘할수 있는 《통합사령부》를 조작하였다. 그리고 괴뢰군의 10개 예비사단에 1개 대대씩의 《기동타격대》를 두며 종래에 있던 괴뢰경찰의 《대공행동대》와 각종 《기동경찰대》를 통합하여 이른바 《전투경찰대》란것을 만들었다.

놈들은 파쑈폭압체계의 개편과 함께 괴뢰경찰력을 또한 보강하기 위해 3개의 《경찰서》와 수십개의 《지서》, 《파출소》를, 그리고 5천여명의 경찰을 늘였다.

그리하여 이미 있는 탄압도구들과 《사복》을 입은 특무, 정보원, 테로분자들이 남조선주민 10명에 한놈의 비례로 뒤를 따르게 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인민탄압의 총본거인 《중앙정보부》에는 무려 40여만의 특무, 정보원들이 있으며 놈들은 주민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며 악랄한 탄압행위를 감행하고있다.

5만명이 넘는 괴뢰경찰도 산하에 32만의 《경찰정보원》과 《민간경찰보조기구》를 갖고있다. 이밖에 60여만의 괴뢰군이 인민탄압에 내몰리고있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군사불한당들은 이와 같이 남조선을 특무, 정보망으로 뒤덮고있으며 파쑈광란의 도가니로 전변시켰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극도에 이른 탄압 만행】 박정희파쑈악당들은 도처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경찰, 헌병, 방첩대놈들을 끌어내다가 사람들의 신분을 조사하고 《영장》없이 마구 잡아가고있으며 밤중에 렬차에서 내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심한 검문끝에 손바닥에 고무도장을 눌러 그것을 《통행증》으로 삼게하는 광태를 부리고있다.

놈들의 이 야만적인 《검문》, 《검색》소동과 검거선풍이 얼마나 악랄한가는 단하루동안에만도 1만 700여명의 죄없는 주민들을 잡아가두고 야만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특히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원쑤들의 탄압만행은 실로 극도에 이르고있다. 미제살인귀들과 박정희파쑈악당은 통일혁명당《사건》, 인민혁명당《사건》, 임자도혁명조직《사건》,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민족주의비교연구회《사건》등 여러가지 《사건》을 꾸며내여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마구 잡아가두고 고문학살하며, 살인재판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 사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용서할수 없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통일혁명당《사건》 : 미제와 박정희도당에 의하여 탄압받은 통일혁명당은 1964년 3월 15일 남조선 지하혁명조직의 하나로서 조직되였다.

이 당에는 서울동국대학교 출신 통일혁명당서울시 책임자를 비롯한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작가, 교원, 언론인, 의사,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및 량심적인 기업가, 정계인사, 괴뢰군장교 등 남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이 망라되여 있다.

이 당은 자기의 투쟁강령으로서 로동자, 농민을 핵심으로 한 강력한 혁명력량을 편성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세력을 몰아내고 그 주구들을 타도하며 나라의 자주통일을 성취함으로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위업을 완수할것을 내세웠다. 이 당의 성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로선과 전략전술적 방침에 튼튼히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전개하여왔다.

이와 같이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활동을 힘차게 전개하여오던 통일혁명당 일부 성원들은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에 의하여 불행하게도 1968년 7월 체포투옥되였다.

미제와 그의 주구 박정희반역도당은 통일혁명당 성원들을 잡아가두고 온갖 야수적고문과 박해를 가하며 《공산침투》니 《반역행위》니하는 당치않은 《죄명》을 날조하여 혁명가들을 학살처형하려고 흉책하였다.

그러나 놈들의 그 어떤 흉악한 기도도 통일혁명당성원들의 억센 투지를 꺾을수는 없었다.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은 살인《공판정》에서 《반공》 넋두리를 외워대여 애국자들을 처형하려고 이러저러한 구실을 꾸며대였으나 그 때마다 투사들의 서리발 같은 론박과 항거에 부닥쳐 박산이나고말았다.

그리하여 여러번에 걸친 《공판정》은 사실상 김종태와 그의 혁명동지들이 미제와 박정희매국노들의 죄행을 낱낱이 폭로하여 이를 전세계에 고발하고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이름으로 준엄히 단죄하는 마당으로 변하였다. 악에 받친 놈들은 감옥안에서 이 당의 전라남도 도당 위원장 최영도에게 악랄한 고문을 가해오던 끝에 그를 무참히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또한 살인악당들은 이 당의 성원들의 강력한 항거와 비발치듯한 국내외여론과 규탄에도 불구하고 1969년 1월 25일에 벌린 살인 《공판》에서 김종태와 그의 진우 4명에게 사형, 다른 4명에게 무기징역을 그리고 김종태의 안해, 형, 동생을 포함한 21명에게는 15년까지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하는 용서할수 없는 죄행을 감행하였다.

인민혁명당《사건》 : 인민혁명당은 1962년 1월에 《혁신계》인사들과 애국적인 언론인, 지식인, 교수 및 청년학생들로 조직되였다.

이 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며 남북간의 서신, 문화, 경제의 교류를 통한 자주적통일을 주장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활동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인민혁명당이 《국가반란을 목적으로》하여 조직되였으며 《정부전복》을 기도하였고 이당의 주장이 공화국북반부의 정치로선에 부합된다는 구실밑에 1964년 6.3투쟁직후

인민혁명당의 성원들인 41명의 《혁신계》인사들과 언론인, 지식인, 교수, 청년학생들을 체포구금하였다.

파쑈악당들은 애국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기 위하여 련일 전기고문 등의 야만적고문을 감행하였다.

이 살인마들은 《조서》를 꾸미기 위해 《친구를 맞난것을 집선으로 규정하고, 술을 나눈것을 회담으로 보고 악수를 한것은 비밀약속으로》보는 등의 악랄한 방법으로 거짓사실을 꾸며냈다.

그러나 놈들의 살인법정에 나선 애국자들은 일치하게 박정희군사깡패들이 날조한 《사건》의 내막을 폭로하고 자기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에 항거하여 완강하게 싸웠다.

인민혁명당 성원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종식시키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자기들의 투쟁은 남조선사회발전의 객관적요구와 남조선인민들의 절박한 지향을 반영한것이며 민족적량심으로부터 출발한 정당하고 애국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제살인귀들과 그 주구들은 이 해에 《선고공판》을 벌려놓고 애국자들중 한명에게는 사형을, 다른 한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애국자들에게는 5년까지의 징역형을 언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임자도지하혁명조직《사건》: 이 혁명조직에는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어민, 언론인, 교육자,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들이 망라되였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임자도를 중심으로 해남, 령암, 강진, 목포, 광주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혁명조직의 성원들은 출판물을 발간하여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여왔다.

또한 그들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사회주의소조를 조직하고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연구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새 제도를 남조선에도 세워야 한다는 결의밑에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활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통일되고 부강한 조국강토에서 4천만이 함께 행복을 누리려는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 정당한 애국적활동이다.

그러나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은 애국자들을 잡아가두고 잔인무도한 고문을 가하면서 당치않은 《죄》를 뒤씌워 처형하려하였다.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이란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이 남조선의 애국적력량을 탄압말살하기 위해 음모적방법으로 꾸며낸 순전히 날조된《사건》이다. 놈들은 이에 관련시켜 12명의 애국적인민들을 체포구금하고 온갖 악독한 고문과 박해를 가하던끝에 악명높은 파쑈악법인《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걸어 처형하려하였다.

파쑈악당들이 벌려놓은 《공판정》에 나선 권아무개라는 애국자는 원쑤들이 《범죄》의 굴레를 씌우기 위해 꾸며낸 모든 허위적 사실들을 단호히 폭로규탄하였다. 그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남조선을 해방하고 오직 《로동자, 농민계급을 핵심으로 착취없는 사회를 건설하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비호해나서는 더러운 괴뢰들인 민족반역자들을 재판해야 할 것이라고 박정희괴뢰도당을 통렬히 규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1969년 1월 18일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에 관련된 혁명가들에 대한 《재판》을 벌려놓고 2명에게 사형을, 기타 성원들에게는 무기, 16년 등의 중형을《선고》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미제의 조종밑에 박정희매국역적들이 꾸며낸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이란 서부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학술연구와 학업에 종사하고있던 남조선출신 학계, 문화계 인사들과 류학생들에게 소위《간첩》활동을 하였다는 《죄명》을 뒤씌운《사건》이다.

놈들이 있지도 않은《사건》을 날조하여 처형한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쑈테로통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싸워온 애국자들이다.

그들은 국토의 분렬로 인하여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하루속히 청산하고 남조선인민들이 한결같이 념원하고있는 통일된 조국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행복하게 살 그 날을 앞당기려는 지향을 갖고 싸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매국적《한일회담》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하는 한편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그 실현방도, 남북간의 문화교류의 타당성과 남북간의 학생대표들의 교류, 남북조선체육혼성팀의 구성 등 응당 론의하여야 할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매국도당은 미제의 사촉밑에 이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말살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이라는것을 날조하여 진보적인 애국인사 34명을 잡아가두었으며 그 밖에도 160명의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을 불러들여 《조사》하였다.

미제와 파쑈악당들은 제놈들이 꾸며낸 이 《사건》을 합법화하며 제멋대로 만들어낸 《조서》내용을 승인시키기 위해 투옥된 애국인사들에게 야만적인 고문과 온갖 악행을 다하였다.

그러면서 놈들은 살인 《공판》놀음을 벌려놓고 파쑈적인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그중 3명에게는 사형, 1명에게는 무기징역, 30명에게는 15년까지의 극형과 중형을 《선고》하는 천추에 용납못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민족주의비교연구회《사건》: 민족주의비교연구회는 1963년 9월 17일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의 진보적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조직된 합법적학술단체이다.

지도교수 1명 회원 60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1개월에 1~2차씩 학술연구발표회를 가지고 학술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회지》도 발간하였다.

그들은 학술연구발표의 형식으로 박정희괴뢰도당이 떠들고있는 이른바 《민족주의》의 반동적본질과 그 기만성을 폭로하고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들을 론의하였으며 광범한 사람들에게 진보적이며 선진적인 사상을 선전하였다. 또한 민족주의비교연구회성원들은 범죄적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일어난 1964년 3•24, 6•3투쟁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미제와 매국역적박정희도당은 이들의 애국적투쟁을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내란음모》를 《선동》하였다느니 《반공법》과 《폭발물사용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느니 하는 따위의 《죄명》을 꾸며내는 한편 이 단체가 인민혁명당《사건》과 관련되여있다는 터무니 없는 트집을 잡아 민족주의비교연구회성원들을 잡아가두었다.

악당들은 제놈들이 꾸며낸 이 《사건》을 합법화하기 위해 민족주의비교연구회성원들에게 온갖 야만적고문과 박해를 가하였으며 살인 《공판》을 벌려놓고 꾸며낸 《공소사실》을 인정시켜 애국자들을 처형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투옥된 이 단체들의 강력한 법정투쟁을 통하여 날조된 《사건》의 내막이 낱낱이 폭로됨으로써 적들의 흉악한 기도는 파탄되였다. 그리하여 1967년 7월에 열린 괴뢰서울 고등법원 제2심《선고공판》에서 박정희파쑈악당놈들은 《한일협정비준반대시위를 벌리기는 했으나 내란을 음모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반공법〉을 어긴 증거도 찾아볼수 없다.》고 《판결》하고 가두었던 이 단체성원들을 모두 무죄석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끝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반역도당은 제놈들이 꾸며낸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에 이 단체성원들이 관련하여 괴뢰정부전복음모를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죄명》을 뒤집어씌워 그들을 또다시 체포투옥하였다.

그러나 《법정》에 나선 이 단체성원들은 첫 《공판》에서부터 원쑤들의 야만적고문에 격분을 표시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며 사실을 날조하여 자기들을 체포투옥한 적들의 흉악한 목적과 죄행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공판정》에 나선 이 단체의 한 성원은 원쑤들의 야만적고문의 일단을 폭로하여 괴뢰 《중앙정보부의 고문실에서는 강제적방법으로 잠을 재우지 않고있으며 코와 입에 물을 부어넣는가하면 수십시간씩 발가벗긴채 가죽띠로 때려 혁띠가 두 동강이 났으며 그로 인하여 고문실은 피와 물로 가득차있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민족주의비교연구회성원들은 강력한 《법정》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적들에 의하여 날조된 이 《사건》의 내막을 백일하에 폭로하고 놈들을 궁지에 몰아넣었으며 자기들의 활동의 정당성을 론박할 여지없이 증명하였다.

애국자들의 완강한《법정》투쟁으로 말미암아 살인《공판》은 여러번 중단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악당놈들은 《공소장자체가 추상》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얼토당토않은 《죄명》을 들씌워 끝내 그 성원들중 2명에게는 2년징역, 기타 2명에게는 1년까지의 징역형을 《구형》하였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사건》: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1967년 5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김대수박사를 중심으로 한 혁명조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이에 망라된 수많은 대학교수들과 지식인들을 체포투옥하였다.

이들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싸워왔다.

적들은 이 애국자들의 정당한 활동이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을 반미구국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키리라는데 당황하여 있지도 않은 《간첩단사건》이라는 것을 꾸며내여 처형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김대수교수를 비롯한 애국자들은 자기들의 활동이 그 누구의 《지령》에 의한것이 아니며 오늘의 빈궁과 무권리 그리고 민족분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여 싸웠을뿐이며 따라서 이것은 결코 《죄》로 될수 없다고 단호히 항거하였다.

그런데 원쑤들은 1967년 10월부터 1968년 6월까지의 사이에 7차에 걸쳐 살인 《공판》을 벌려놓고 김대수박사에게는 무기징역을, 다른 3명의 애국자들에게는 15년까지의 징역형을 들씌우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파쑈악당들이 꾸며낸 우의 모든 《사건》들은 남조선에서 뒤흔들리는 식민지통치를 추켜세워보려고 원쑤들을 반대하는 애국적민주력량을 탄압말살하기에 제놈들이 얼마나 발악을 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놈들은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있을뿐만아니라 또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앙양되는 혁명적진출과 공화국북반부의 찬란한 현실이 그들속에 미치는것을 가로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적들은 이해 10월부터 1969년 1월 23일까지사이에 제멋대로 그어 놓은 동해 《어로저지선》을 넘었다는 《죄》로 110척의 고기배를 묶어놓았으며 736명의 어민들을 잡아가두거나 심문을 하였다.

심지어 놈들은 조난당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왔다가 돌아간 어민들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및 《수산업법》위반으로 몰아 처형하려하였으며 《요시찰인》으

로 등록해놓고 뒤조사를 하고있다.

남조선전역을 항시적인 《계엄》상태에 두고 무슨 《단속》기간이니 뭐니하면서 련중 검거선풍을 일으켜온 박정희파쑈도당은 이해 6월에 서울과 기타 중소도시들에서 이른바 《박쥐작전》이란것을 벌려놓고 이에 괴뢰경찰 1만 5천명과 《향토예비군》 4만명을 끌어내여 죄없는 주민들을 1만 700여명이나 잡아가두고 야만적인 폭행을 감행하였으며 8월에는 남조선 강원도지역에서 소위 《룡호작전》이란것을 벌리여 1천 259명의 주민을 잡아가두고 갖은 만행을 감행하던 끝에 230여명을 《즉결재판》하는 등의 지랄을 부리였다.

미제야수놈들과 박정희군사깡패들은 11월에 영등포구 사당동 뒷산마을에 400여명의 괴뢰경찰과 관리놈들을 내몰아 50여채의 집마다에 달려들어 석유를 뿌리고 불을 달아 삽시간에 마을을 불바다속에 잠그는 치떨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하였다.

놈들의 이러한 파쑈광란은 혁명적무장유격대의 진출을 막아보려는 발광적인 탄압소동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적들은 이해 11월 한달동안에만도 남조선강원도 일부지역에 연 50만에 이르는 《향토예비군》과 괴뢰군경을 끌어내여 무장유격대 《수색》작전을 미친듯이 벌렸다.

이처럼 인민탄압에 눈이 뒤집힌 놈들은 무장유격대와 인민들간의 련계를 끊어버리려고 흩어져있는 집들과 화전민들을 강제로 철거시켜 《집단부락》을 만들며 지어 《멸공소년단》, 《멸공부녀단》 등 반동단체를 만들어 여기에 어린이, 부녀자들을 강제로 끌어넣어 유격대 《색출》에 내몰았다.

그러면서 박정희반역도당은 제놈들의 죄행을 가릴 목적으로 언론탄압을 강화하였으며 언론출판기관을 더욱 반동화하기에 급급하였다.

놈들은 이해 7월에 저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실을 보도하였다하여 《동양통신필화사건》이란것을 조작해가지고 《국가기밀을 루설》하였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각 신문, 통신사 편집국장 18명을 포함한 50여명의 언론인들을 잡아다 《조사》하고 박해를 가하였다. 뿐만아니라 《수사경찰》놈들이 신문사, 편집국에 침입하여 기사원고와 편집일지를 압수하고 기자들에게 함부로 폭행을 가하는 등 언론, 출판에 대한 공공연한 정치테로행위까지 감행하였다. 놈들은 이해에도 악명높은 《신문통신등록에 관한 법령》에 걸어 잡지《청맥》, 《대학생월보》, 《신생활》 등 67종의 정기간행물을 폐간시켰다.

실로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반역도당의 파쑈적전횡은 그 야만성과 횡포성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제국주의파쑈독재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광란적인 《반공》소동】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범죄적인 전쟁정책과 악랄한 파쑈적폭압소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1968년에도 께여진 《반공》소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남조선에서의 《반공》, 이것은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을 실현하며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항상 되뇌이는 구호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반공》의 간판을 내걸고 제놈들의 악독한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을 합리화하려고 하였다. 이해에 들어와서 놈들이 《반공》소동을 악랄하게 벌린것도 그 연장이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반공》을 제놈들의 류혈적인 파쑈테로통치를 《합리화》하며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가리기 위한 중요한 정치, 사상적 수단으로 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자기들의 횡포한 파쑈테로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온갖 기만책동을 다하고있으며 특히 〈반공〉을 중요한 정치사상적수단으로 리용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반공〉은 인민들을 탄압하며 정치적반대파를 제거하는것으로부터 전쟁소동을 일으키며 동족상쟁을 고취하는데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의 약〉으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87페지)

남조선에서 《반공》소동은 미제와 괴뢰도당이 궁지에 빠질수록 그 도수가 높아져가고있는것이 하나의 상례로 되여있다.

1968년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반공》소동에 더욱 매여달린것은 제놈들의 식민지통치위기가 보다 심각화된 사정과 관련된다.

놈들의 전쟁정책과 파쑈폭압책동은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반미반괴뢰투쟁에로 번져갔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흠모의 정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륭성발전하는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는 심정이 날을 따라 급격히 높아가고있다. 이러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새정치 새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력량으로 전변되여가고있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바로 남조선인민들의 이러한 지향과 투지를 꺾어보려고 어리석게도 류혈적인 파쑈폭압과 광란적인 《반공》소동을 일으키고있는것이다.

놈들은 비할바없이 우월한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와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정책을 헐뜯으며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외곡중상과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정치도덕적품성을 모독, 훼손하려고 더러운 기만선전을 일삼았다.

그러면서 교활한 이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부르죠아반동사상의 류포와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숭미사상의 고취, 미제식민

지통치하의 인간생지옥으로 변한 남조선사회에 대한 미화분식 등에 미쳐날뛰였다.

이해에 놈들은 《반공》선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종래의 소위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개편하고 여기에서 《반공》선전, 언론, 출판물에 대한 통제, 그리고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허위선전 등을 단일적으로 하게 하였다.

또한 《반공련맹지부》가 없는 농어촌군들에 《지부》를 만드는 등 《반공》선전 도구를 늘구는데 급급하였다. 특히 놈들은 조국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을 막아보려고 《유엔 감시하의 통일》을 선전하기 위한 《국토통일연구원》이란것도 내왔다.

한편 박정희매국도당은 교원, 의사, 목사의 탈을 쓰고 《반공》숭미사상과 《미국식생활양식》을 부식시키며 정탐파괴활동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미제의 사상침략도구의 하나인 《평화봉사단》 189명을 끌어들여 요소요소마다에 박아넣었다. 이와 함께 놈들은 《아세아태평양지역각료리사회》의 침략기구의 하나인 《사회문화쎈터》란 사상침략기구를 서울에 두게하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반동사상공세를 기도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상전의 조종밑에 이른바 《정신무장》을 고아대면서 각급학교들에서 《반공도의교육》을 더욱 강화하게 하며 괴뢰군내에서 《정훈교육》, 《공무원》들속에서는 《반공》 강습회, 농민들을 대상으로하는 《반공》 야학까지 설치하는 등 별의별 지랄을 다하였다.

심지어 놈들은 《반공》사상과 노예적굴종사상을 고취하는 이른바 《국민교육헌장》이란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념불외우듯하라고 남조선인민들에게 강요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푸에블로》호 사건이후 제놈들의 전쟁도발책동을 가리우며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한 제놈들의 책임을 얼버물여보려고 더욱더 집요하게 《반공》소동에 매여달렸다.

미국무장관 러스크란놈은 우리측 령해에 침입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우리인민군 해군의 응당한 자위적조치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무장유격대의 활동을 소위《북조선의 도발》로 묘사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조선에서 정세가 첨예화된듯이 떠들어댔다.

미제의 충실한 개 박정희괴뢰도당은 상전의 《반공》나발에 맞장구를 치면서 《북으로부터의 침략기도》니 《침입》이니 뭐니하고 궤쳤다. 군사불한당들은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반공대회》요 무슨 《승공사상계몽운동기간》이요하는 따위의 광대놀음을 끊임없이 벌렸다.

상전과 주구들의 광대놀음판에 한몫끼여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각서리떼들도 《북조선의 도발》이니 뭐니하면서 상전이 시키는대로 얼빠진 《성명》을 발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놈들이 얼마나 미친듯이 《반공》소동을 벌리고있는가를 보여주는 실례들이다.

그런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범죄적인 전쟁도발을 흉모할 때마다 《반공소동》을 더욱 미친듯이 벌려왔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 세워놓은 제놈들의 식민지통치제도를 공화국북반부에까지 확대하려고 리승만도당을 사촉하여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했을 때에도 바로 그러하였던것이다.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할 무렵에 미제침략자들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남조선에 물심량면의 원조》를 주어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괴뢰군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일삼았다. 그리고 전쟁도화선에 불을 지를 사명을 띠고 남조선에 기여들었던 악명높은 전쟁방화자 덜레스란놈은 괴뢰국회에서 《시기가 성숙되였으니 북조선에서 먼저 침입하였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북조선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하라.》고 괴뢰도당을 채찍질하였다. 놈들은 박정희군사불한당들을 사촉하여 리승만역도가 불어대던 《북진통일》의 재판인 《승공통일》의 나발을 요란스럽게 불어대게 하면서 전쟁도발과 파쑈폭압에 미쳐날뛰게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적들의 이러한 범죄적책동은 남조선인민들과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켜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를 보다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을뿐이였다.

식민지통치체제의 혼란

1968년에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체제는 밑뿌리로부터 크게 뒤흔들렸다. 그것은 반혁명세력이 극도로 고립약화되고 파쑈통치체계가 걷잡을수 없는 혼란속에 빠져 마비상태에 이르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났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전쟁정책과 광란적인 파쑈화책동은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의 불만과 반항을 더욱 불러일으켰으며 놈들은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배격당하게 되였다.

【식민지통치체제의 마비】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실현을 위해 손에 무장을 잡고 일떠선 남조선혁명적무장유격대의 적극적인 활동과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거세찬 투쟁은 적들을 공포에 떨게하였을뿐아니라 일대 혼란속에 몰아넣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전개한 거세찬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에 겁을 집어먹은 괴뢰경찰들과 《공무원》들속에서는 괴뢰통치기관에 복무하는것을 거부하며 그 직에서 물러나는 현상이 급격히 늘어갔다.

놈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6년까지는 《공무원》의 퇴직자수가 년평균 1만 5천명이였다면 1967년에 2만 3천명, 1968년에는 더 급격히 늘어 5월말 현재 1만 5천명을 넘었다. 2월 한달동안에만 하여도 376

명의 괴뢰경찰이 경찰노릇을 그만두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변직원 900명 중 50%가 그 직에서 물러난것을 요구하고있는 등 괴뢰행정기능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이에 바빠맞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요즘 경찰의 규률이 해이》되고 《상부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표시하며 임무수행에 불충실한 경찰이 많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이런 경찰은 엄벌에 처하겠다》고 악을 썼다. 그러면서 놈들은 특히 많은 괴뢰경찰들이 《근무시간에 리탈하며 무단결근》을 함부로 한다고 고아대면서 불안을 감추지 못하였다.

1월 21일 무장유격대가 박정희역도가 도사리고있는 《청와대》까지 육박하여 괴뢰종로경찰서장놈을 비롯한 악질 주구놈을 처단하자 서울시 《중부경찰서》정보주임이란자와 괴뢰순경놈들은 비상출동을 기피하여 집으로 뺑소니를 쳤으며 서대문 괴뢰경찰서산하 홍제동 《파출소장》놈은 무장유격대들이 악질주구놈을 처단하고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다. 4월 3일 국제전신전화국폭파사건 때에도 그 장소에서 경비를 서고있던 4명의 경찰이 거기서 빠져나와 집으로 도망쳤다. 이 밖에도 괴뢰경찰들은 무장유격대 《토벌》에 내몰리는것을 두려워 《일반범죄》를 잡는다는 핑계로 《경찰서》에도 오래동안 나오지 않고 숨어있었다 한다.

괴뢰통치기관에서 일하고있는 《공무원》들은 눈치만보고 자기직무를 태공하고있다. 이들속에서는 세상은 이미 금이 갔으니 《이 금이 간 세월에 둥군둥군 살자》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되고있다. 일부 《관청》들에서는 백지우에 제목만 써놓고 퇴근할 시간만 기다리거나 출입문에 《출장》이라는 패쪽을 달아놓고 《공무를 처리하지 않는》현상이 늘어났다. 그리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여야 할 서류들이 《당무자의 서랍속에서 딩굴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공무원》들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기능은 심히 약화되였으며 심한 혼란상태에 이르게 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러한 파국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소위 《중앙기강위원회》를 다시 정비하고 그 밑에 무슨 《감사반》이요, 《행정진단반》이요 하는것을 두는 한편 《공무원》들의 활동을 얽매놓는 여러가지 《규정》과 지시를 마구내리며 또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구별》하기 위해 패쪽을 달게 하였다.

그러나 놈들이 벌린 이른바 기강놀음은 아무런 효력도 나타내지 못하였을뿐더러 통치체제의 혼란은 괴뢰군내에도 미쳐갔다.

괴뢰군들속에서는 염전염군기운과 괴뢰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이 드높아져갔다. 적들이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이해에 병영을 빠져나간 괴뢰군병사수는 3만 수천명이나되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정책과 파쑈폭압을 반대하여 《상관》의 명령에 반발하거나 악질장교를 처단하는 현상이 급격히 늘어났다.

혁명적무장유격대가 태백산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적극 활동하던 12월초에는 《토벌작전》에 내몰린 괴뢰군병사 20명이 한장소에서 스스로 총을 쏴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현상까지 있었다. 이것은 괴뢰군내부의 혼란상태가 어느정도에 이르고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것이다.

또한 남조선괴뢰군내부는 정치도덕적으로 더욱더 부패해졌으며 《군기》의 혼란과 무질서는 극도에 이르고있다. 괴뢰군상층장교놈들은 향락과 치부, 부화방탕을 위하여 사기, 횡령, 절취, 뢰물의 강요, 략취 등 부정부패행위를 일삼고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신문들은 《지켜지지 않는 명령…흐트러진 〈군기〉…이런것들을 다스릴 국군헌병부대의 부패…이것은 단순한 사건이라거나》 또는 괴뢰군내부의 일부에 국한하는것이 아니라 전체 괴뢰군내에 《만연되고 우심해지고있는 현상이다.》라고 썼다. 괴뢰군우두머리놈들도 괴뢰군내부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군기》와 지휘체계가 문란하고 이로 인하여 《각종 사고와 부패가 계속 나타나고있다》고 비명을 질렀다.

남조선괴뢰군내부에서뿐만아니라 적들이 이해에 조작한 《향토예비군》들속에서도 훈련을 기피하는 현상,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집단적으로 뭇매질을 가하는 현상 등이 수많이 일어났다. 서울시 성북구에서는 《향토예비군소집통지서》를 띄웠으나 대상인원의 50%가 훈련을 기피하였으며 강원도 삼척군 《예비군》훈련에는 훈련대상자의 74%가 참가하지 않았다. 9월 서울시 로량진 신림동중대 《향토예비군》대원 40여명은 고된 작업을 강요하는 괴뢰반동관료들에게 뭇매질을 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급해맞은 놈들은 《정신의학검사소》, 《정신진단반》, 《인간관계개선위원회》 등 해괴한것들을 만들어내여 폭압과 감시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도망병》체포를 도맡아하는 괴뢰헌병대를 매개 괴뢰경찰서, 지서, 파출소단위에 두는 놀음까지 벌렸다. 한편 이해를 《군복무리탈자 특별단속의 해》로 정해놓고 년중 《도망병 색출》에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또한 괴뢰군내에서 파쑈적 《정훈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대대》에까지 《정훈장교》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괴뢰군내에서의 염전염군기세는 더욱더 퍼져갔을뿐이다.

괴뢰군병사들의 민족적, 계급적 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속에서는 미제침략군을 극도로 증오하고있다. 그리하여 이들속에서는 《미국놈은 우리 등만 처 먹는다.》, 《미국하사관놈들 앞에서 국군장교가 쩔쩔 매는것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고 공공연히 말하고있다. 또한 참을수 없는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는 자기들의 가족들과 제대군인들의 생활처지를 본 그들속에서는 《박정희의 골통을 총으로 쏘겠다.》, 《박정희는 매국노이며 우리 가족들을 못살게 하고있다.》는 등 쌓인 불만을 터뜨리고있다.

이것은 괴뢰군내에서 반미반괴뢰감정이 높아가고있으며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제놈들의 손발로 여기고있는 폭압기구자체가 벌써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반동지배층내의 대립과 알륵의 심화】 미제식민지통치의 붕괴과정이 촉진됨에 따라 괴뢰지배층내부에서의 동요와 혼란도 더욱 심해져 통치집단내는 사분오렬상태에 빠져들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 어찌되던지간에 제놈들의 출세와 치부만을 생각하는 매국노들은 멸망의 운명앞에서도 더러운 권력쟁탈을 위한 개싸움질만을 련신 벌렸다. 이해 괴뢰지배층내의 대립과 알륵의 초점으로 된것은 앞으로 있을 1971년 괴뢰대통령《선거》에서 더러운 대통령감투를 계속 눌러쓰려는 박정희역도의 소위 《3선개헌》책동과 이를 저지파탄시키고 제놈이 그 감투를 쓰려고 이미부터 흉책해온 김종필역도간의 암투가 표면화된 그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감투를 에워싼 개싸움질은 박정희와 김종필 두 역적놈사이에 일기시작하였으나 그것이 이 기회에 제놈들도 한몫끼여 《정권》야욕을 채워보려는 괴뢰국무총리, 괴뢰국회의장놈 등 괴뢰우두머리들 호상간의 싸움질로 번져갔다. 이리하여 괴뢰통치집단내부의 대립과 알륵은 더욱 격화되여 괴뢰통치는 걷잡을수 없는 혼란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였다.

교활한 박정희역도일파는 이미 1967년에 감행한 괴뢰국회의원선거 때부터 벌써 《3선개헌》을 목표로 하여 그 정치적지반을 꾸리며 반대파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여 왔었다. 괴뢰국회를 제놈의 심복들로 꾸린 박정희역도는 권력을 제놈에게 더욱 집중시키기 위해 《청와대비서실》직제를 전면개편하고 그《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친《개각》놀음을 통하여 반대파세력들을 제거하였다. 심지어 이 역도는 2년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대비하려고 제놈의 깡패당인 《민주공화당》의 각 도, 시의 조직들에 《1971년을 향한 선거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정수당원을 각 3천명으로 확보》해 놓으라고 하는가하면 이른바 《공화당기간조직정비소동》까지 벌리였다. 이것은 미제의 충실한 개 박정희역도가 정권욕에 얼마나 환장을 하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박정희매국역적의 이러한 책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통령》자리를 은근히 탐내여온 김종필역도와 정일권 등의 매국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지 않을수 없었다. 그 가운데서도 박정희역도와 김종필역도간의 권력쟁탈을 위한 암투가 6월의 《국민복지연구회》사건을 계기로 로골적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국민복지연구회》란것은 김종필역도가 박정희역도의 《3선개헌》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제놈이 괴뢰대통령으로 올라앉을수 있는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민주공화당》내의 비밀조직이였다.

김종필역도는 제놈의 충복인 김룡태란자를 내세워 조작한 《국민복지연구회》내막이 탄로되자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지 않을수 없게 되였으며 그 이후에는 더욱더 은밀한 방법과 형태로 제놈의 야욕을 실현하려고 꾀하였다. 이자는 《민주공화당》을 《탈당》한 이후에도 남조선 각지를 싸다니면서 정치적 《인기》를 얻으려고 기를 썼다.

두 역도간의 대립알륵은 괴뢰우두머리인 정일권등의 권력쟁탈을 위한 암투와 서로 엉켜 더욱 혼란상을 띠게 되였다. 이놈은 박정희역도를 업는척 하면서 《대통령》자리를 은근히 탐내고있다. 특히 이 자는 김종필역도가 《의장》자리에서 물러난것을 기화로하여 《민주공화당》내의 김종필반대세력을 규합하여 제놈의 지반을 꾸리려하였다.

소위 《개헌》책동을 에워싼 지배층내의 대립알륵은 통치집단내부에서 뿐만아니라 괴뢰정권을 호시탐탐노리고있는 야당인 《신민당》에서도 일어났다. 이 당의 유진오란자는 제놈도 1971년에 괴뢰대통령선거에 후보로나서서 맞서싸우겠다고 고아대면서 《3선개헌안》이 제기된다면 어떠한 《극한투쟁도 불사할것이며 불길한 사태가 일어날것이다.》라고 울러대고있다.

남조선괴뢰통치집단내에서의 대립알륵은 갈수록 날카로워져가고있으며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의 정면충돌에로 번지간 추세를 보이였다.

그리하여 군사깡패들의 《민주공화당》은 분렬의 위기에 직면하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은 반대파의 반격과 정치적기반의 분렬 및 혼란으로 하여 심각한 궁지에 빠져있다.

이해에 박정희괴뢰도당의 대외적고립도 더욱 심화되였다. 《아세아의 솜베》로 락인되고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배격당하여 놈들스스로도 《국제적고아》로 자인하고있는 남조선의 박정희반역도당은 괴뢰로서의 그 추악한 정체가 세계인민들의 면전에 더욱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그 국제적고립도 보다 심화되였다.

특히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을 비롯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놈들의 야만적탄압은 박정희도당이야말로 미제의 철저한 식민지고용리이며 파쑈악당이라는것을 남김없이 폭로하여 주었다. 이리하여 지어 프랑스와 서부독일사회계에서까지도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만행을 규탄하고 그것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제의 전쟁정책에 추종하여 범죄적인 《태평양 군사동맹》조작을 위해 오스트랄리아(9. 16—18), 뉴질랜드(9. 19—23)의 패거리들을 찾아간 박정희도당은 그곳 인민들의 맹렬한 배격을 받아 도적개모양으로 뺑소니쳐 다니는 가련한 괴뢰의 몰골을 그대로 보이였다. 9월 20일 80여명의 뉴질랜드 로조활동가들과 대학생들, 《우리의 아들을 구원하라 운동》의 성원들은 《박정희야 너의 방문은 우리를 불명예스럽게 하고있다》, 《박정희와 놀러오라는

미국의 괴뢰이다》, 《물러가라, 졸리오코도 같이 데리고가라》고 웨치면서 시위를 단행하였다.

이렇듯 남조선괴뢰도당은 안팎으로 고립배격당하고있으며 놈들의 통치지반은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는것이다.

【괴뢰군내부의 부패와 혼란】

남조선괴뢰군내부는 정치도덕적으로 어느때보다도 더욱 부패해지고 있으며 혼란과 무질서가 지배적인것으로 되여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날로 심해가는 부정부패는 곧 괴뢰군내에도 반영되여 괴뢰군 상층부에 들어앉아 있는 장교놈들속에서 부화, 타락과 치부만을 추구하는 현상이 날로 더욱 심해졌다.

남조선괴뢰군 상층부에 들어앉아있는 장교놈들이란 본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출신들과 미제의 정탐배들로 구성되여 있다. 때문에 이놈들에게있어서는 식민지고용군의 본질로 되는 부화방탕, 착취와 사기협잡, 전취, 뢰물강요 등은 하나의 습성으로 되고있다.

괴뢰군상층에 있는 장교놈들은 거의다 첩을 데리고있고 매일과 같이 부화와 향락을 추구하면서 그 비용을 짜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미제와 괴뢰도당의 전쟁준비가 발광적으로 감행되던 시기인 이해 3월 괴뢰군 어느 한 부대의 상층장교놈들은 군수기자재들인 불도젤, 발동기, 전화기, 자동차부속품, 피복 등 189품목에 이르는 6천 543점이나 팔아서 사치와 향락에 탕진하였다는것이 폭로되였다.

괴뢰군 상층 장교놈들은 괴뢰군병사들을 제놈들 돈벌이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착취자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있다.

괴뢰군 7830부대 상급장교 염아무개란놈은 괴뢰군병사 50여명을 강제로 동원시켜 300여정보의 산림을 도벌하여 팔아 제 배속을 채웠다. 괴뢰군 어느 한 부대장이란놈은 군수기재와 괴뢰군병사들을 어느 한 기업가의 작업장에 내몰아 얻은 수입을 가로채먹었다.

돈벌이에 눈알이 뒤집힌 괴뢰군 상층장교놈들은 제놈들의 특권적지위를 리용하여 밀수행위들을 계속감행하고있다. 1월 괴뢰공군참모총장이라는놈은 《남부웰남공식방문》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돈벌이를 위하여 손목시계 300개를 밀수입하여 팔아먹었다.

괴뢰군 상층 장교놈들은 돈벌이와 향락을 위하여 괴뢰군병사들에게 차례지는 얼마안되는 식량, 부식비, 봉급 등을 중간에서 가로채먹는일까지 서슴치않고 있다.

괴뢰군 제2신병훈련소 윤아무개라는 악질장교놈은 모리간상배와 짜고 사병식량용군량미를 여러차례에 걸쳐 1,000여가마니를 횡령하여 제배속을 채웠다. 괴뢰륙군 제3지구의 악질장교놈들은 지난 5년간 《장병》 봉급, 부식비, 피복비 등 3천여만원을 횡령하여 평택지구에 수만평의 토지를 사서 제놈의 소유로 만들었다.

또한 괴뢰군 상층장교놈들은 괴뢰군병사들에게 돌려지는 얼마안되는 식량, 부식비, 피복 등을 가로채여 제놈들의 배속을 채움으로하여 병사들의 생활처지는 비할바없이 악화되고있다.

괴뢰군병사들의 주식은 하루에 잡곡으로 500그람 되나마나하고 부식비는 얼마안되는 예정액의 40%도 안되는것이 차례지고있다. 약간의 《봉급》마저도 《진지공사비》, 《송별비》, 《화식비》, 《등유비》 등 각종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잘리우고있다.

여기에 하루 10여시간이상의 가혹한 전쟁연습과 진지공사, 악질장교놈들의 개인집《종》노릇까지 강요당하고있다.

그리하여 괴뢰군병사들속에서는 심한 영양부족과 그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일상적인 몽둥이《기합》까지 당하여 기절하여 쓰러지는 현상이 보통일로 되고있다.

괴뢰군내부의 사기협잡과 부화타락은 그들속에서 염전사상을 더욱 퍼뜨리고있으며 상층장교들과 하층병사와의 갈등과 모순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괴뢰군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은 대부분이 근로자출신이며 상층장교놈들과 계급적으로 타협할수없는 모순관계에 있다.

특히 남조선에서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반미반괴뢰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정치적으로 각성되기 시작한 괴뢰군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은 악질적인 상층장교놈들을 증오배격하며 그놈들을 처단해 버리는 투쟁을 도처에서 벌리고있다.

괴뢰군병사들이 상층장교놈들을 반대하며 수치스러운 미제의 고용병살이에서 벗어져나오는 청장년들의 수는 더욱 늘어가고있다. 1965년에 1만여명이 괴뢰군 《병영》에서 《탈주》했다면 1966년과 1967년에는 그것이 각각 1만 5천여명으로 늘어났으며 1968년에는 첫 5개월동안에만도 1만 5천여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괴뢰군병사들이 악질장교놈들의 행패에 항거하여 놈들을 처단해버리는 사건들이 늘어나고있다.

이해 3월 20일 괴뢰륙군 8831부대 리한수병장이 리아무개라는 소대장놈의 행패에 격분하여 그 자리에서 처단해버리고 탈출해나온것을 비롯하여 괴뢰군 63통신대대 서기순병사는 악질헌병놈을 처단해버리는 등 이러한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남조선 한 신문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총기로 사살하는것 같은것은 지금은 별다른 이야기거리도 안되리만치 자주 일어나고있다.》고 썼다.

괴뢰군내부의 이와같은 갈등은 상층장교놈들사이에서도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이놈들은 직위를 탐내여 음으로 양으로 파벌투쟁을 벌리고있다. 괴뢰륙군《사관학교》출신장교들과 《학도훈련단》출신장교놈들이 서로 배척해오다가 3월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하여 7명이 나가너부러진것을 비롯하여 과거《일본사관학교》출신장교들과 《만주사관학교》 출신장교간

기타 지역별출신간의 파벌투쟁 등이 그칠사이없이 계속되고있다.

남조선 괴뢰군내부의 이와같은 부패와 혼란은 괴뢰군자체의 반동적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인 현상으로서 미제의 식민지고용군대로서의 그 본질이 변하지않는 한 그것이 더욱 심화되여갈뿐이라는것을 조성된 사태는 잘 보여주었다.

일제의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

범죄적인 아세아침략계획 실현을 위해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과의 결탁을 집요하게 추진시켜온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서의 거듭되는 참패와 남조선에서의 식민지통치의 위기가 보다 심각화됨에 따라 《한일》간의 결탁을 일층 다그쳤다.

【군사적결탁의 강화】 미제는 아세아를 지배하기 위한 침략적 전략실현에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그를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 하였으며 일본반동들은 이를 좋은 기회로 삼아 제놈들을 《맹주》로 하는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날뛰였다.

미제의 조종하에 범죄적 《한일조약》이 조작된 후 강화되기 시작한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과의 군사적 결탁은 미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하여 더욱 강화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일한공동작전체계》에 근거하여 남조선에 공공연하게 각종 《대표단》, 《시찰단》의 명목으로 《자위대》의 우두머리들과 이전 《황군》장교놈들을 련이어 남조선에 들여보내여 군사시설과 괴뢰군부대들을 시찰케하고 밀담들을 진행케 하는 등 군사적결탁을 꾀하여왔다.

1968년에 일본군국주의 우두머리들이 남조선에 무리로 쓸어들어 《한일협력위원회》니 뭐니 하는 각종 침략단체들을 조작하고 괴뢰도당과의 정치, 군사, 경제적 결탁을 강화하였다.

이른바 《한일협력위원회》는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기초한 《한일》간의 정치, 군사, 경제적 결탁을 강화하기 위한 침략기구이다.

미제를 등에 업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다시 실현해보려는 간악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숭고한 민족적위업을 백방으로 방해하여나서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침공하기 위한 범죄적인 군사작전계획까지 짜놓고 박정희군사불한당과의 군사적결탁을 책동하여왔다. 악명높은 《세개화살작전》, 《날아가는 룡작전》, 《달리는 황소작전》 등의 침략적계획을 오래전부터 짜놓고 기회만을 노리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하는 즉시로 놈들자신이 이에 직접 가담할수 있도록 《립전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1967년부터 총경비 2만 3천 300억원을 들여 《제3차 방위력 정비계획》(1967—1971년)이란것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침략계획은 특히 놈들이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지속함에 있어서 《후방체계를 충실히 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미제의 조종밑에 이해 6월과 8월에 서울에서 있은 《한일국회의원간담회》와 《제2차한일각료회의》들에서는 이른바 《한일간의 공동운명》에 대해 고아대면서 일본 《자위대》와 직접적인 협동체결문제, 동해안감시를 일본 《해상자위대》가 담당할데 대한 문제들이 모의되였다. 《한일각료회담》과 《한일국회의원간담회》란 본래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침략과 전쟁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간의 정치, 군사, 경제적결탁을 보다 긴밀하게 할 목적밑에 만들어낸 침략기구이다. 이 침략기구들에서 모의가 있은후 일본방위청과 남조선괴뢰국방부간에는 조선에서 재전쟁도발과 관련한 《실무자급협의회》가 여러번 진행되였으며 또한 《미일한군사공동작전체계》하에서 적들이 침략전쟁을 도발할때에 쓰일 각종 반항공조치경보망체계, 군사정보 체계 등을 마련하려는 책동이 추진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할 때 일본 《자위대》를 《유엔군》의 이름으로 조선전선에 파견하기 위한 《유엔협력법안》까지 만들어 놓았으며 《자위대》를 조선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배치하고 출동태세를 갖추게하였다.

조선침략의 기회만을 노리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그의 침략적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였다. 우리 나라 령해에 깊이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영웅적조선인민군에 의하여 나포되자 미제침략자들이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겠다고 위협공갈하여 나섰을 때 사또반동도당은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에 있는 기지들을 미제침략자들이 소위 조선작전에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륙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함정들을 《전투태세》에 들어가게 하였다. 일본《자위대》의 서부항공방면대의 후꾸오까현의 가스가 기지를 중심으로 《경계태세》를 강화하였으며 미야자끼현의 나이다하라기지에 있는 제5항공단은 《에프 104》형 비행기 50대로써 《경계태세》를 취하게하였다. 또한 후꾸오까현의 쯔이끼기지의 제8항공단은 《에프 86》비행기 150대로써 《긴급태세》를 취하였다.

이처럼 미제침략군과 함께 제놈들의 《자위대》를 《비상전투경계태세》에 들어가게 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의에 침공하기 위한 일련의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감행하였으며 서부일본지대의 항공

《자위대》 기지들에서는 《긴급출격태세》를 취하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하여 일본사또반동도당은 박정희군사깡패들에게 주는 군사장비와 군수물자의 량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남조선에서의 군사시설건설과 무기생산 등 전쟁준비를 경제기술적으로 적극도와 나섰다.

일본 《요미우리》신붕(6월17일)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을 방문하였던 일본국회의원대표단과 남조선괴뢰국회의원들간의 밀담에서는 《오끼나와에 있는 메이스—비등의 핵무기를 비롯한 주요 전략기지와 미싸일요격발사시설들을 제주도에 옮겨 한일량국과 극동지역방위에 편하게》할데 대한 문제가 론의되였다고 한다. 이것은 놈들의 군사적결탁이 어느정도에 이르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정치, 문화의 침투 강화】 미제의 조종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군사적결탁과 함께 정치, 경제적결탁을 강화하기에 골몰하였다. 놈들은 매국적 《한일조약》이 체결되기가 바쁘게 남조선에 《대사관》을 비롯한 《총령사관》, 《령사관》을 설치하고 이를 침략의 정치적거점으로 하여 지난날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에서 정치, 외교, 군사, 경찰, 경제 관계의 이른바 전문가놈들을 수많이 들여보내고있다. 남조선에 기여든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그의 사환군들은 지들의 손때묻은 앞잡이들을 긁어모아 각종 《친일》단체들을 만들어내여 침략의 지반을 닦으며 일본군국주의사상과 퇴폐적인 왜색문화를 대대적으로 침투시키고있을뿐만아니라 탐욕적인 독점체상사들을 적극 침투시켜 각 방면에서 침략의 발판을 꾸리기에 급급하였다. 일본에는 《일한협력위원회》, 《중앙일한협회》, 《일한친화회》, 《일한우호협회》 등 50여개의 《친한》단체들이 만들어지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친한》단체의 조작과 보조를 맞추어 남조선에는 여러가지 반동적인 《친일》단체들이 조작되여 활개를 치고있다. 이러한 《친일》단체는 남조선에 20여개나 무어져있으며 여기에는 남조선괴뢰정권의 《각료》들과 《국회의원》놈들을 비롯하여 반동관료배들과 매판자본가놈들이 수많이 들어있다. 이것들은 《일한협력위원회》의 그것과 같이 순전히 침략도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리고 남조선에 있는 《친일》단체들은 과거 《일진회》와 같이 일제침략의 길안내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친한》단체뿐만아니라 또한 《창가학회》, 《천리교》 등 군국주의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반동적종교단체를 남조선에 뿌리박게하고 그것을 통하여 일본군국주의사상을 고취하고있다.

남조선에는 지난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조선과 동남아세아 침략에서 앞잡이역할을 다한 《천리교》만하여도 850여개의 교회에 수십만명에 달하는 신도들이 있다. 지어 《천리교》는 학교까지 세우고 남조선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친일사상을 《교육》하고있으며 《강습소》를 차리고 《교직자》들을 양성하여 각지에 파견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문화침투를 무제한 허용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썩어빠진 미국식 문화와 함께 왜색, 왜풍이 남조선사회를 더욱 어지럽히고있다.

남조선의 서점들과 영화관들에서는 색정주의적인 일본책과 영화가 판을 치고있다.

이런 실태에 대하여 남조선신문까지도 박정희도당이 《당초에 내세운 민족주체성옹호론은 어디론지 행방불명이 되고 사회는 날로 〈왜색〉문화가 판을 치게 되였다.》, 《출판계, 영화계, 광고계 할것 없이 다투어 몰렴치한 〈왜색〉도입정책을 하고있는 그 꼴은 도대체 장차 이 민족을 어디로 끌고갈 작정인가…

오늘날 이 땅의 문화는 바야흐로 중대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일본독점체들의 경제침략의 강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침략을 목적으로 이미 만들어놓은 《한일경제각료회담》, 《한일합동체간담회의》, 《보세가공촉진회》 등 20여개에 이르는 경제침략기구들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략을 본격화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침투는 그 규모가 더욱 커가고 침투형태가 다양해지고있다.

《한일협정》이전에는 일본독점자본이 《연불수출》과 《보세가공》의 형식으로 침투하였다면 《한일협정》이후는 《보세가공》, 《연불수출》과 함께 차관과 합작투자의 형식으로 침투하고있다. 교활한 일본독점자본가놈들은 드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반일감정을 고려하여 형식상 《원조》요, 《공동개발》이요, 《경제기술적협력》이요하는 기만적구호를 들고 차관과 합작투자로 남조선경제에 파고들고있다.

놈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7년말현재 박정희괴뢰도당이 끌어들이기로 확정된 일본으로부터의 외자도입총액은 60건에 2억 7천 294만 딸라에 달한다. 그중 이른바 차관이 45건에 2억 6천 461만 6천딸라, 직접투자가 15건에 832만 4천딸라이다. 이것은 남조선에 들이밀고있는 외국독점자본총액의 28.6%에 해당하는것으로 미국독점자본침투의 다음가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남조선에 기여들고있는 미쯔비시, 미쯔이 등 일본독점자본의 대부분은 지난날 조선에서 식민지략탈에 이골이난 자들이다. 남조선에서 어느 정도의 지반을 꾸린 일본독점자본은 주요경제부문의 경영권을 제놈들의 손아귀에 거머쥐려고 더욱 적극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이미 남조선의 선박건조 및 수리 부문에서 80%, 염화비닐공업부문의 100%, 섬유공업부문의 30%를 지배하고있을뿐만아니라 동력, 건재, 화학공업부문에 깊이 파고들어 중공업의 원료공급계통을 독차지하고있다. 외국독점자본의 무제한 침투

로 인하여 남조선의 경제명맥은 미제를 비롯한 일제독점자본의 수중에 더욱 깊이 장악되여가고 있다.

일본독점회사인 《마루베니이이다》는 남조선의 《동림수산》이 150만딸라의 차관을 제기일에 반환하지 않는다 하여 이 회자의 선박관리운영권을 빼앗았다. 이처럼 일본독점자본가놈들은 날이 갈수록 남조선경제를 깊이 파먹어들어가고있으며 저들의 완전한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특히 지적할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략이 남조선경제의 군사화촉진에 직접관련되여있는 사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일본독점자본을 리용함으로써 제놈들의 부담을 덜려고 책동하고 있으며 일제는 그들대로 그것을 남조선에 대한 재침의 터전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있다.

일본군국주의독점자본은 남조선에서 《근대화》의 이름아래 확장되고있는 군수산업부문에 기여들어 미제의 전쟁준비를 극력 도와나서고있다. 남조선에 침투한 일본독점자본의 군사침략적성격은 우선 놈들의 침투대상에서 뚜렷이 나타나있다.

남조선에 기여든 일본독점자본의 82%(1967년초 현재)는 군사적수요와 직결된 화학, 건재, 운수, 방직, 전력공업부문에 침투하였으며 특히 건재공업과 같은 공업부문에 일본독점자본이 많이 투하되고있다. 남조선에서 건재 특히 세멘트공업은 비행장, 항만, 도로, 교량 등과 같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들의 신설, 확장에 전적으로 리용되고있는 공업부문이다.

이러한 군사적목적과 관련하여 남조선에 기여드는 일본독점체들은 대부분 군수업체들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세멘트공업부문에 침투하고있는 《미쯔비시중공업》은 일본에서 군수품생산의 40%를 차지하는 큰 군수기업체이다.

또한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략에서 일제독점자본이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것은 《보세가공무역》이다. 《보세가공무역》은 일본독점자본이 남조선의 값눅은 로동력과 보잘것없는 《유휴시설》까지 동원리용함으로써 자본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적게 넣고 많은 리득을 짜내는 가장 략탈적인 경제침투형태이다. 남조선의 중소기업들은 일본독점자본의 《보세가공공장》들에 점차 예속되여가고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본독점자본은 남조선의 모든 중소기업들을 좌우할수 있는 지배체계를 수립하려하고있다. 일본독점회자인 《마루베니이이다》는 남조선매판자본가들인 《삼성재벌》, 《삼호재벌》들과 결탁하여 이미 100여개의 남조선기업체들과, 《미쯔이붓산》은 40여개의 기업체들과 《보세가공》계약을 맺고 이들을 저들의 청부공장으로 만들었다.

일본독점체들은 또한 《자원개발무역》의 명목으로도 남조선기업가들에게 해당부문 개발에 자재와 기술을 얼마간 대주고 거기에서 《개발》한 광물, 농축산물, 수산물 등을 체계적으로 략탈해가고있다. 농산물략탈을 위하여 일본독점체놈들은 이른바 《계약재배》라는 이름으로 남조선농업에 5천만딸라의 자본을 투하하고있다. 또한 일본독점자본은 9천만딸라의 《어업차관》을 들이밀고 그것을 미끼로 하여 남조선수산자원을 제멋대로 략탈해가고 있다.

그리고 《연불수출》의 명목으로도 일본독점체들은 저들의 과잉상품을 남조선에 팔아먹고있다. 놈들은 《연불수출》을 통하여 저들의 체화상품의 판매난을 해결하고 지불연기를 구실삼아 대부리자까지 빼앗아내고있다. 뿐만아니라 이렇게 처리하는 과잉상품과 원자재 및 설비들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보다 20～30%나 더 비싸다.

이해에 일본독점자본은 남조선경제에 더욱 깊숙히 파고들기 위해 은행들의 지점망을 서울에 설치하였으며 《기술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인 기술자들을 직접 들여보내였다. 한편 놈들은 미제의 침략적《평화부대》를 모방하여 만든 이른바 《경영자평화부대》란것까지 남조선에 들여보내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경제적지반을 꾸렸을뿐아니라 더욱더 흉악한 략탈적요구를 들고 나왔다. 이 자들은 경제적침략기구인 《한일경제각료간담회》,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한국사무소》 등을 통하여 남조선괴뢰들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일본인 《공업소유권제도》를 빨리 세울것을 요구하였으며 일본인기업에 대한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조세협정》 등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기여드는 일본독점자본이 남조선에서 제놈들의 침략적 및 략탈적야망을 실현하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서둘러대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군사화로 말미암은 경제의 전면적파탄

【경제의 군사화책동】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만들면서 극히 보잘것 없는 남조선경제의 잠재력마저 이 흉악한 목적달성을 위해 동원리용하려고 미쳐날뛰였다. 남조선경제에 대한 이와 같은 군사화책동은 최근년간에 더욱 적극적으로 감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증대되는 국사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군사화하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85페지)

1968년에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군사깡패들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경제의 군사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미제의 전쟁두목들은 이해 5월에 남조선괴뢰국방장관이란놈을

워싱톤에 불러들여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른바 《전투태세완비3개년계획》을 〈확인〉해 주는 한편 《군수산업의 육성》정책을 추진시켜 군사기지와 시설들을 확장할것과 군수공업을 신설할것 등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남조선 4개지역의 소위 《경제전략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전략적배치》에 대해서도 모의하였다.

이에 앞서 2월에 남조선에 기여들었던 전쟁두목 존슨의 《특사》번스, 미태평양륙군사령관, 남조선에 있는 미제침략군 현지사환군놈들과 박정희괴뢰도당사이에는 무력증강과 함께 경제의 《전시체제》에로의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음모들이 꾸며졌다.

미제의 충실한 개 박정희반역도당은 이미 꾸며진 범죄적인 계획에 따라 군수품현지조달을 위한 군수공업의 건설과 그밖에 전쟁도발준비를 위한 여러가지 경제적《비상조치》를 취하고 군사부문건설에 집중투자하기로 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시설과 군사경제적잠재력을 강화하는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괴뢰정부의 지출예산을 대폭 늘이게 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1968년에 미제의 지시대로 1967년보다 34.8%(572억원)나 더 많은 2천 215억원의 전쟁예산을 꾸며냈다. 1969년에는 그것이 무려 3천 266억 7천만원으로 늘었고 그 가운데 군사비는 811억 5천만원으로 불었다. 더우기 《근대화》의 이름아래 군사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투융자는 1961년에 비하여 1969년에는 4.3배나되는 948억 7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물론 이와 같이 늘어난 지출예산의 수입원천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다.

박정희매국도당은 경제의 군사화에 필요한 국내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괴뢰정부가 조작된 이래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대대적인 《세제》개악을 하여 세률을 대폭 끌어올리고 새로운 갖가지 《세금》종목을 늘임과 함께 《세금》 부과대상을 늘이는 등으로 《세금》수탈에 날뛰였다. 이해 괴뢰도당의 조세총징수액은 2천 33억원으로서 1967년에 비하여 무려 872억원이나 더 많다. 남조선출판물들이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1969년에는 1968년보다 642억원이나 더 많은 2천 675억원인바 이것은 1961년에 비하여 13배나 되는것이다. 놈들의 《세금》수탈은 이밖에 각종 《지방세》와 가렴잡세들이 있으며 여기에 군사적부역 《국채》, 강제《저축》, 인플레 등까지 고려하면 미제와 박정희악당들의 수탈책동은 가혹성에 있어서 실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횡포한것이다.

미제는 경제의 군사화에 따르는 경비를 긁어모으기 위해 박정희도당으로 하여금 불환지페를 마구 찍어내게 하여 통화팽창을 조장시켜 인플레에 의한 간접적인 수탈을 또한 꾀하였다. 남조선의 통화량은 1968년 11월말현재 1967년보다 250억원이나 늘어난 1천 459억원에 달하였다. 이것은 곧 인플레에 의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추가적수탈이 더욱 강화되고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미제와 괴뢰도당은 증대되는 군사적수요를 충족시키며고 남조선농촌에서 수탈원천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책동도 감행하였다.

놈들은 《농업조합개발계획》이니, 《축산진흥4개년계획》이니, 《농촌근대화 3개년계획》이니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여 군사적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18개품종의 작물을 강제재배케하며 농촌수탈기구인 《농협》을 정비강화하는 등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매국적인 외국자본 도입책동】

박정희매국도당은 경제의 군사화에 소요되는 방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략탈적인 외국독점자본을 끌어들이기에 미쳐날뛰였다.

놈들이 년간에 끌어들인 외국자본액은 1967년에 81건에 2억 5천 517만 6천딸라였던것이 1968년에 들어와서는 10월 1일현재 98건에 4억 5천 810만 2천딸라로 급격히 늘었다. 그리하여 10월 1일까지 확정된 총액은 337건에 14억 1천 187만딸라에 이르고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재정《차관》이 94건에 4억 7천 500여만딸라, 상업《차관》이 175건에 8억 5천 200여만딸라, 직접투자(합작투자를 포함)가 98건에 8천 476만딸라로 되여 있다.

이러한 외국독점자본은 주로 군사적의의를 갖는 동력공업, 운수, 통신, 건설부문에 투자되고 인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농업, 수산업부문에는 거의나 투자되지 않았다. 1968년 9월 18일현재 외국독점자본의 투자정형을 보면 동력공업, 화학공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부문에 외국독점자본도입확정총액의 43.5%에 달하는 5억 4천 252만 2천딸라가 침투되여있다.

이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 구걸하여 끌어드리는 외국독점자본의 대부분이 군사적잠재력리용에 씌여지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박정희매국도당은 미제의 조종밑에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을 비롯한 침략적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많은 자금을 꾸어들였다. 9월에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서울—인천간 군용도로건설에 필요한 680만딸라의 《차관》을 끌어들이기로 했으며 그밖에도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등에서 2억 2천여만딸라의 《차관》을 얻으려고 책동하였다.

매국노들은 략탈적인 외국독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남조선경제를 외래탐욕자들에게 송두리채 내맡기는데까지 이르렀다.

박정희반역도당은 이른바 《경제의 개방체제》, 《무역의 자유화》 등의 매국적인 간판을 내걸고 종전에 형식적으로나마 통제하는척하던 《수입금지품목》을 대폭 줄이고 관세를 훨씬 낮추는 등 외국독점자본이 제마음대로 들이밀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또한 괴뢰정부내에 두었던 《외자도입사업촉진위원회》를 《외자도입관리위원회》로 개편하였으며 외국독점체상사들이 마음대로 활

동할수 있도록 《등록허가를 간편》하게 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괴뢰도당은 미제의 사촉밑에 2월에 《제3차한일민간경제협력간담회》, 4월에 《대한국제경제협의체총회》, 《한미상공장관회담》 등을 련달아 벌려놓고 외국독점자본의 남조선침투를 구걸하였고 6월에는 구라파지역에 《사절단》까지 보내여 영국, 이딸리아 등 7개국을 한달동안이나 싸다니게 하면서 《외국자본구걸외교》를 벌리게 하였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매국도당은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수탈한 막대한 자금과 끌어들인 외국독점체의 자금을 비행장을 비롯한 군사기지들과 군사시설들을 확장하는데 투하하였다. 또한 남조선에서 군사행동의 기동력과 그 보급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군용도로, 항만, 철도 등을 신설확장하며 전략물자를 확보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그러면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들의 정치적지반인 지주, 매판자본가들에 의거하여 경제의 군사화를 추진시키려고 지주, 매판자본가들을 비호 육성하는데 골몰하였다. 놈들은 매판자본가들에게 각종 특혜와 폭리를 취할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주었다. 괴뢰정부는 매판자본가들에게 수천딸라에 이르는 《지불보증》을 하여 주었을뿐아니라 각종 공사의 이름아래 괴뢰정부재정투융자의 대부분을 넘겨주었다. 또한 주식의 《대중화》와 《민주화》라는 구실밑에 《판영기업체》를 시가보다 훨씬 눅게 매판자본가들에게 팔아넘겼으며 《세금》을 감면하고 독점가격으로 상품을 팔도록 조건을 마련하여주어 폭리를 얻게하였다.

농촌부문에서도 적들은 농민들에 대한 영농자금의 지출을 억제하면서 이른바 《영농자금의 효률제고》, 《축산진흥》 등의 명목밑에 지주들에게 낮은리자로 장기간 집중융자하여 주었으며 경제의 군사화에 필요한 《군납》과 수출품의 생산분야에 외국독점자본을 끌어들여 많은 리윤을 얻게끔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미제와 괴뢰도당에 의한 이와같은 남조선경제의 군사화책동은 파멸적인 후과를 가져오고있다. 그것은 우선 민족공업의 전면적인 파탄과 그 식민지적예속성이 일층 심화되고 또한 남조선농업의 심각한 파탄과 인민생활의 극도의 령락에서 여지없이 나타나고있다.

【파산몰락하는 남조선공업】

1968년에 들어서면서 미제침략자들과 그주구 박정희괴뢰도당에 의해 더욱 발악적으로 감행된 범죄적인 전쟁정책과 농업생산의 전면적인 파탄의 영향으로 남조선공업은 이해에 《최악의 파멸상태》에 이르렀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공업은 파산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미국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의 압박으로 밀미암아 민족공업은 더욱더 령세화되여가고 있으며 끊임없이 파산몰락하고있습니다. 민족자본가들의 경리는 절대다수가 중소기업체들이며 지금 그 80%이상이 휴업하거나 불완전한 조업을 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39페지)

남조선경제를 예속시키고 그를 군사적부속물로 만들기 위해 발광해온 미제침략자들은 이해에 들어서면서 남조선 공장 총수의 98.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략탈과 예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제놈들의 전쟁정책실현에 종속시키기 위하여 경제의 군사화를 적극 감행하였다.

이와 함께 놈들은 저들의 독점자본을 끌어들이고 남조선의 매판자본을 비호하고 육성하는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이들을 더욱더 령세화시키고 부단히 파산몰락케 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미제침략자들에 의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된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이해에 그 전해보다 2.3배나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당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는 탄광들의 90.8%와 전체 기업들의 69.3%가 년중 계속 휴업하였다. 경상북도내 중소공장들의 82%와 충청남도내 113개의 중소공장들도 이해에 모두 파산당하거나 가동을 멈추었다.

전라남도에서는 《모든 공장들이 거의 휴업》하게 됨에 따라 《각종 산업활동이 마비》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업체란 거의나 찾아볼수조차 없게 되였으며 중소기업체들의 90%이상이 만성적인 휴업과 조업단축상태에서 허덕이고있다.

남조선민족산업의 이러한 전면적인 파산은 새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 주구놈들의 범죄적책동들이 얼마나 엄중한 후과를 가져다주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 공장, 기업소, 광산들의 파산몰락을 재촉하고 예속을 심화시키는 식민지략탈정책의 후과는 남조선민족산업이 겪고있는 심한 경영난들에서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남조선민족산업은 범죄적인 전쟁비용을 짜내려는 미제와 그 주구놈들의 략탈책동과 남조선에 물밀듯이 쓸어들어 시장을 빼앗고 예속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는 외래독점자본의 압력, 그리고 부문간 경제의 균형파탄으로 인한 련쇄작용으로 자금난과 판매난, 세금난, 원료난, 전력난 등이 악화되여 무리로 파산당하고있다. 그중에서도 자금난은 중소기업체들의 파산을 재촉하는 가장 심각한 경영난으로 되고있다.

1968년 괴뢰 《예산》에서 제놈들의 군사경찰비를 그 전해보다 50%나 불구어놓은 박정희괴뢰도당은 더많은 자금을 미제침략군의 전쟁정책실현을 위한 경비로 지출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대부마저 극력 억제하였다.

지난 1년간 남조선중소기업부문이라는 명목밑에 보잘것없는 자금이 은행들에서 대출되였으나

그것마저도 대부분은 민족자본가들이 아니라 박정희괴뢰도당을 비롯한 매판자본가, 악질착취배놈들에게 돌려졌다. 그리하여 남조선중소기업가들은 그 60%가 매달 10%이상의 리자를 물어야하는 고리채를 얻어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1968년 한해동안에 남조선중소기업가들이 걸머진 고리사채는 그 전해보다 32%나 더 늘어났으며 그 리자로 수탈당한 자금만도 200억원이상에 달하게 되였다. 그런데 박정희괴뢰악당놈들은 《금리를 조정》한다는 간판밑에 9월과 11월에 세차례에 걸친 《단계별금리 조정》 놀음을 벌려놓고 《중소기업자금대출리자》를 대폭 끌어올렸으며 그 융자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함으로써 중소기업가들이 얼마안되는 이른바 중소기업자금마저 거의나 융자받을수 없게 만들었다.

한편 남강도의 무리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군사경찰비를 짜내기 위해 년중 계속 《세법》들을 뜯어 고쳐 기업이 령세되고 경영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상 더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략탈을 더욱 강화하는것과는 반대로 미제침략자들은 제놈들의 식민지통치의 지반인 매판자본가들을 비호조장하기 위해 예속자본가놈들이 물어야할 142억원의 세금을 면제해준후 그것을 남조선중소기업가들에게 들씌웠다. 적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중소기업가들의 세금부담률은 1957년부터 1960년사이에 1.6배 증가하였다면 박정희괴뢰도당이 집권한이후 1961년부터 1966년사이에는 무려 5배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 악랄한 략탈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중소탄광, 광산들이 무리로 파산당하였는데 그의 29~36%가 전적으로 자금난에 기인하였다.

남조선민족산업은 이밖에도 심한 원료난과 판매난에 허덕이고 있다.

남조선경제에 대한 미제의 예속화정책으로 민족경제가 전면적으로 파탄됨에따라 농산물원료와 공업원료를 전적으로 미국이나 일본독점자본들에 의거하고있고 수입되는 원료는 매판자본이 독점하고있는 조건에서 남조선중소기업은 원료, 자재구입에서 각종 제한조치로 억제를 당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매판자본가놈들에게는 원료를 수입하도록 자금까지 융자해주면서도 중소기업들에는 자본토대가 없다는 구실밑에 단 한푼도 꾸어주지 않고있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수입한 원료도 매판자본가와 매판적인 중개상인들에게 넘겨주어 팔게함으로써 남조선중소기업가들이 원료구입에서 미일독점재벌들과 매판자본의 2중3중의 수탈을 강요당하게 하고있다.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이러한 제한조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전쟁정책이 로골화됨에 따라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괴뢰악당놈들은 미제침략자들의 전쟁정책수행을 위해 얼마되지 않는 원료마저 군수물자 등을 생산하는 매판기업들에 따돌림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원료구입난을 극도에 이르게 하였다. 그런데 이에 겹쳐진 농촌의 대흉년과 수산업의 파탄 등으로 얻을수 있던 약간의 농산물과 수산물 원료마저 더는 얻지 못하게 된 남조선중소기업가들은 이해에 무리로 파산당하였다.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농산물원료를 가공하여 약간의 제품을 만들어온 경상북도내 농산물가공공장들은 이해에 그 82%가 완전히 파산당하였으며 전라남도내 90여개소의 정미소들이 찧을 쌀이 없어 몽땅 휴업하고있다.

남조선중소기업은 또한 규모의 령세성, 기술수단의 락후성, 원료자재의 불리한 구입조건 등으로 원가가 많이 들면서도 제품의 질이 낮기때문에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견디여낼수 없으며 제품판매시장에서 부단히 밀려나게되여 항상 심한 판매난을 겪고있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들과 결탁된 매판자본가놈들이 경영하는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지배케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판매난을 격화시키고있다.

특히 남조선중소기업체들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이 《경제의 자유화》를 떠들면서 미국과 일본 등지의 독점재벌들을 제한없이 끌어들여 시장을 독점케함에따라 더욱 극심한 판매난에 빠져들고있다. 일례로 박정희역도의 길안내를 받아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독점재벌이 저들의 식료상품인 《코카콜라》를 남조선시장에 퍼뜨리고 그 판매를 독점하게 되자 상품의 판로를 빼앗기게 된 남조선의 토착자본기업인 청량음료생산자들은 이 해에 무리로 파산당하고말았다.

남조선경제에 파고들어 예속을 더욱 강화하는 외래독점자본과 미제침략자들의 비호밑에 살찌가는 일부 매판자본의 압력으로 청량음료생산업체와 인쇄출판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제재 및 목제품생산업체들이 특히 극심한 판로난에 허덕이고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민족산업기업체들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놈들의 가혹한 략탈책동과 농촌의 대흉작으로 인민들의 구매력이 그 전해보다 45%나 줄어들게 되여 얼마안되는 생산제품마저 팔지 못하게 됨에따라 빚만 더욱 늘어나 나중에는 경영을 더는 계속하지 못하고 파산당하거나 휴업하기에 이르고있다.

자금난, 원료구입난, 판매난과 함께 남조선공업은 심한 전력난과 급수난 등으로 또한 막심한 고통을 당하고있다.

박정희반역도당은 새전쟁준비를 위해 1968년중에 얼마 생산되지도 않은 전력마저도 미제침략자들의 군수용과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매판자본의 기업들에 집중공급하는 반역적책동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이해에 남조선민족산업기업체들은 그의 88.4%가 심한 동력난에 허덕이여왔으며 부산시내 방직, 염색, 제분기업체들은 공업용수를 최소한 소요

량의 10분의 1밖에 얻지 못하여 년중 계속 조업을 단축하였다.

남조선의 중소탄광들은 또한 미제와 괴뢰도당이 전쟁준비의 한 고리로 감행한 《연료전환정책》의 영향으로 파멸적인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해에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상전 미제의 비싼 유류를 더 많이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한편 범죄적인 전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남조선의 석탄대신 미국의 유류를 사쓸것을 강요하면서 남조선 탄광들을 대량적으로 폐쇄하는 반역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조선중소탄광들은 그 90%가 폐광 또는 휴광상태에 빠져들었으며 일부 가동하고있다는 중소탄광들도 그의 가동률은 20~30%를 넘지 못하였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원쑤놈들에 의해 발광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범죄적인 전쟁정책이 남조선공업을 얼마나 극심한 파산몰락의 구렁텅이속에 몰아넣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공장총수의 압도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체들의 대부분이 이처럼 겹쳐지는 경영난으로 무리로 파산몰락함에따라 제조업생산수준은 보잘것없던 일제말기의 수준보다도 형편없이 낮은수준으로 떨어지고있다. 남조선공업생산량은 1968년 1월에 들어서면서 일제말기수준의 87% 정도밖에 안되던 그 전해보다 또다시 대폭 줄어들었는데 광업은 18%, 전력은 4.7%, 제조업은 1.5%나 떨어졌다. 2월과 3월, 4월에 들어서면서도 공업생산수준은 계속 낮아졌다. 2월에는 공업생산량이 1월보다 3%나 줄어들었고 4월에는 3월보다 6%나 또다시 감소되였다.

공업생산기업체들의 무리지은 파산과 공업생산량의 계통적인 감소는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이는 또한 미제에 의한 남조선경제의 예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침략기지로, 잉여상품의 판매시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식민지적 락후성과 기형성을 띤 기존 금속, 기계, 화학 공업 등 중요 시설들을 파괴하였으며 농업과 수산업도 파산상태에 몰아넣음으로써 민족공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완전히 막아놓았다.

이와 함께 미제는 1968년에 들어와서 《경제자유화체계》의 확립을 떠들면서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에게 강요하여 외래독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종래의 여러개 악법들을 하나로 단일화하게 하고 거침없이 외래자본이 남조선에 쓸어들수 있게 함으로써 남조선경제에 대한 예속을 일층 강화하였다. 결과 남조선에 침투하기로 확정된 외국자본은 1968년 11월말현재 9억 1천만딸라에 달하게되였으며 남조선공업은 원료, 기자재보장에서 자립성이 완전히 상실되여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생산을 유지할수 없는 예속경제로 더욱 급격히 굴러떨어졌다.

남조선공업이 원료적으로 외국자본에 전적으로 예속되고있는데 대하여서는 남조선출판물들도 《8.15후 20여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자체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생산이 아니고 외국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생산하고 외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해야 국민생활을 지탱할수 있도록 마련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가》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농업의 전면적파탄】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외국자본의 예속경제로 전변되고있으며 남조선농업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41페지)

1968년 한해동안 남조선에서는 민족공업의 파탄과 그의 식민지적예속성이 더욱 심화된것과 함께 농업의 파탄도 심하였다.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이 대흉작을 입었고 수백만을 헤아리는 농민들이 농사를 망치고 살길을 찾아 헤맸으며 무서운 절량과 기근상태가 온 농촌을 휩쓸었다.

20여년간에 걸친 미제식민지통치의 악독한 후과는 실로 이 한해동안에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1968년에 남조선농촌에서는 《70년래의 대흉년》이 들어 알곡생산이 평년에 비해 약 200만톤이나 감소되였던 1967년보다도 더 심한 흉년이 들었다.

지난날 곡창지대의 하나로 알려졌던 전라남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한 면적이 모를 내야할 전체 면적의 약 30%나 되였으며 겨우 벼를 심었던 면적중에서도 그 40%는 논에 물이말라 벼가 타죽었다. 그 가운데서도 라주군 동강면과 공상면, 목포와 섬지방인 압해도, 고흥군 남양면 등지에서와 같이 《벼농사는 물론 밭농사까지 전멸상태》에 빠져 《쌀한알 생산할수 없》는 곳이 수다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라북도와 경상남북도를 비롯한 기타 지방들에서도 형편은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알곡생산은 저들이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평년작보다 최소한 230~250만톤이나 줄어들었다.

벼농사뿐만아니라 6—7월에 거어들인 밀보리 농사도 대흉작을 입어 그 수확이 남조선강원도에서는 예정량의 80%,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와 경기도 등지에서는 40~50%씩이나 각각 감소되였으며 옥수수, 콩 등 밭작물의 피해는 더욱 막심하였다.

기타 담배를 비롯한 공예작물과 남새, 과일 등 어느 부문할것없이 대흉작을 입지않은것이란 없다.

이해에 남조선농촌은 남조선의 한 신문도 지적한바와 같이 모든 곡식이 가물에 타고 메마를대로 메말라 실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오직 절망뿐》인 황막한 지대로 전변되였다.

그리하여 1969년에는 1968년의 1.8배나 되는 270만톤에 달하는 방대한 량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남조선농업의 심각한 위기에 대해서는 박정희괴뢰도당들도 《8.15후 최악의 파멸상태에 빠졌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을수 없었다.

남조선농업생산의 전면적파탄은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령락시켰다.

농가호당 평균수입은 최저생계비의 약 4분의 1밖에 안되는 도시근로자들의 세대당 소득에 비해서도 그 62%밖에 안되였으며 특히 0.5정보 미만의 토지를 경작하는 령세농가의 수입은 38%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에 농민들이 지고있는 호당 부채액은 1960년의 5배에 달하는 3만여원에 이르고있으며 전체농가의 95%가 년간 100~200%의 비싼 리자를 물어야 하는 고리채에 얽매여있다.

그리하여 농민들속에서는 절량과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며 또한 온가족이 집단자살을 하는 등 처참한 현상이 년중 계속되였다.

남조선농업생산이 파괴되고 농민생활이 이처럼 극도로 령락된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괴뢰도당의 반인민적책동의 악독한 후과임은 더 말할것도 없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난 20여년간 남조선농촌에서 제놈들의 식민지적략탈에 유리하도록 봉건적착취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농업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여지없이 마사버렸다.

놈들은 이미 10여만정보의 농토를 빼앗아 군용지로 리용하고있으며 최근년간 군사기지확장과 경제의 군사화에 미쳐날뛰면서 더욱더 많은 토지를 략탈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농촌의 기본생산수단인 경지면적은 8.15당시에 비하여 20여만정보, 파종면적은 40여만정보나 줄어들었다. 남조선토질에는 맞지도 않는 미국의 잉여비료를 강제로 끌어들여 시비케한 결과 현재 리용되고있는 경지면적마저 그 70%이상이 완전히 산성화되였다.

더우기 치산치수나 관개수리시설은 하지 않고 《군사전략상필요》하다는 구실밑에 일제시기부터 있던 약간의 수리시설마저 닥치는대로 마사버렸다. 놈들의 이와 같은 반동적농업정책은 남조선농업생산에 파멸적후과를 가져다주고있다. 적들자신이 인정하는바에 의하더라도 논면적중 수리불안전답과 천수답이 차지하는 비중은 박정희역도가 괴뢰정권에 들어앉은 첫 5년동안에 7%나 늘어났다. 또한 전체 경지면적중에서 88%까지가 상시적인 수해의 위협을 받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농촌은 조금만 비가 오지 않아도 가물피해, 약간한 비에도 큰물피해를 입어야하는 《만년한재, 만년홍수》의 황폐한 땅으로 되여 이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평균 100억원 이상에 이르고있다.

1968년에는 한재와 홍수로 실로 305억 5천 600만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것이다.

농업생산력의 파괴책동의 후과는 농기구의 경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일제시기에 있었던 약간의 농기구수리시설마저 여지없이 파괴되여 새로운 농기구생산은 말할것도 없고 낡은 농기구의 수리조차 못하는 형편에 있다. 따라서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겨우 호미와 낫으로 농사를 짓고있는 형편이다. 다른 한편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더많은 전쟁비용과 군량미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조선농촌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였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지주놈들을 통하여 수확물의 절반이상을 략탈하는 외에 군량미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세》, 각종 강제 《매상》 등을 통하여 매년 남조선농민들로부터 300~400만석의 량곡을 수탈하고있다. 놈들은 이밖에도 80~100여종에 달하는 각종 가렴잡세를 농민들에게 들씌워 강탈하고 있으며 농촌 각지에 만들어 놓은 어용《농업조합》을 통한 고리대행위를 통하여 또한 매년 수십억원의 돈을 추가적으로 수탈해내고있다.

미제와 괴뢰도당의 농촌경리파괴정책과 농촌수탈책동은 이해에 더욱더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놈들은 남조선농촌에서 더 많은 수탈원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슨 《개발계획》이니, 《근대화계획》이니 하는 허울좋은 간판들을 내걸고 곡물생산을 고의적으로 억제하면서까지 더많은 《군납품》을 생산하고 경제의 군사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구조를 개편하는 범죄적책동까지 꾸미였다.

뿐만아니라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농촌수탈기구인 《농업조합》을 정비강화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남조선농촌에서 해마다 빼앗아가는 소작료와 각종 세금, 《저축금》, 잡부금 이외에도 농사를 망치고 굶주리는 농민들에게서 1967년의 182%나되는 량곡과 수십억원의 자금을 《매상》과 《회수》의 명목밑에 빼앗아내기 위하여 일대 수탈소동을 벌렸다. 놈들은 이 방대한 량곡과 자금을 깡그리 걷어들이기 위하여 졸개놈들에게 《책임량》까지 주어 농촌수탈에 내몰았는가하면 농민들이 제놈들의 강도적요구에 잘 응하지 않는다하여 그들의 살림도구에 《차압》딱지를 붙이고 당장 먹을 몇되박의 쌀까지 빼앗아가는 날강도행위를 뻐젓이 감행하였다.

원쑤놈들의 이 강도적략탈책동은 그렇지 않아도 농사를 망치고 굶주리는 남조선농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그런데 박정희괴뢰악당놈들은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이른바 《기업화》라는 명목밑에 주곡인 벼의 생산을 줄이고 축산물과 담배, 양잠 등 이른바 《수출작물》생산을 강요함으로써 남조선을 미일독점재벌들

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가들의 잉여농산물판매시장으로 더욱더 전변시키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였다. 그러면서 이 악당놈들은 《농지법》이라는것을 새로 조작하여 지주, 부농들에게 토지와 자금을 무제한으로 집중시킬수 있도록하는 《립법》조치를 취하는 등 죄악행위를 감행해나서고있다.

【수산업의 극심한 파탄】 공업 및 농업과 함께 1968년에 남조선 수산업의 파탄도 극심하였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광란적인 전쟁준비책동과 가혹한 략탈책동으로 남조선수산업은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 들었다.

남조선수산업의 극심한 파탄상은 우선 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여지없이 파괴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수산업의 기본생산수단인 어선은 이해에도 수많이 파괴되었거나 침몰되여 그 척수는 초보적인 집계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필요량의 6분의 1밖에 안되며 특히 1만 4천여명의 어민들이 살고 있는 전라남도 진도와 조도면같은데서는 200여척의 고기배가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어선은 불과 27척밖에 안되여 대부분의 어민들이 년중 바다에 나가지조차 못하였다.

그런데 현재 남조선에 있다는 고기배마저 85%이상이 돛배들이며 이것도 대부분이 낡을대로 낡아서 거의 쓸수 없게 된것들이다. 몇척 안되는 발동선들도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것은 거의 없고 그 70%이상이 선체와 기관 등이 낡아 못쓰게된것들이다.

남조선수산업의 파국적실태에 대해서는 남조선출판물까지도 《어민의 생산수단이 기껏 돛배가 아니면 나무잎같은 소형선박이므로 어민을 죽이고있다.》고 하면서 《연안에서는 고기가 안잡히고 조금 멀리나가려하니 파도에 못이겨 되돌아오고있다》고 그 한심한 형편을 감추지 못하였다.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이처럼 혹심하게 파괴된 결과 이해 남조선의 어획고는 보잘것 없었던 그 전해에 비해서도 훨썬 줄어들었다. 이해 8월말 현재로 남조선 서해안어민들이 잡은 물고기는 례년의 20%밖에 안되였으며 남조선에서 손꼽히는 어장의 하나인 경상북도 감포어장에서도 송치성어기에 어획고가 역시 례년의 20%밖에 안되였다. 특히 남해안의 정치망업자들의 어획고는 이해에 1967년에 비하여 74%나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남조선강원도에서의 명태어획고도 50%나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 전쟁도발소동에 어느때보다도 미쳐날뛰면서 남조선강원도 화성군 앞바다의 어장을 략탈하여 미제침략군의 사격장으로 만든것을 비롯하여 동서남해안의 중요어장들과 어항들을 략탈하여 군사훈련장으로 더욱더 전변시켰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더 많은 전쟁비용을 짜내기 위해 어민수탈을 일층 강화하였다. 《선박세》의 명목밑에 빼앗은 세금만도 1957년의 무려 10배나 끌어올려 강탈하였으며 악질선주들과 어용수탈기구들을 통하여 남조선어민들이 잡은 물고기의 대부분을 각종 명목밑에 수탈해갔다. 원쑤놈들의 어민수탈책동이 얼마나 악랄하고 가혹한가 하는것은 고기배한척이 1년동안에 빼앗기는 돈이 무려 20～30만원이나 되고있다는 사실이 잘 말하여주고있다.

특히 이해에 발광적으로 감행된 미제와 박정희괴뢰악당들의 파쑈적어민탄압책동과 매국배족적죄행은 남조선수산업을 돌이킬수 없는 파국적위기에로 몰아넣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룡성발전하는 공화국북반부의 휘황찬란한 발전모습이 제놈들의 학정밑에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알려지는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있는 원쑤놈들은 바다에까지 이미 쳐놓았던 이른바 《어로저지선》이라는 파쑈폭압망을 남쪽으로 더 옮겨놓고 남조선어민들이 고기떼를 따라 이 부근에 얼씬만 해도 무슨 《반공법위반》이니 하면서 닥치는대로 붙잡아다 가두는 폭압만행을 감행하고있다.

11월 26일 하루동안에만도 놈들은 남조선동해안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고기떼를 따라 이른바 《어로저지선》에 접근했다하여 41척의 배와 선원 68명을 잡아가두었다.

미제의 사촉하에 일본군국주의도당과 이른바 《어업협정》이라는것을 조작하고 남조선어장을 일제날강도들에게 팔아넘겨 남조선연해어장에서 일본해적선들이 판을 치게하고있는 박정희반역도당의 매국배족행위로 인한 후과도 이해에 더욱 혹심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비호밑에서 일본해적의 무리들은 남조선근해에까지 제멋대로 밀려들어와 숱한 물고기를 잡아갔을뿐만아니라 원시적설비밖에 갖추고있지 못한 남조선어선들과 어구어망들을 닥치는대로 파괴하는 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이해에 소위 《공동규제수역》내에서 일본해적선들이 잡은 물고기의 량은 1967년의 2배로 늘어난 반면에 남조선어민들의 어획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개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행동으로 인한 남조선수산업의 극심한 파탄, 이것은 남조선어민들에게 헤아릴수 없이 막심한 고통과 재난을 들씌우고있다.

남조선어민들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로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최저생계비의 6분의 1도 안되는 형편이며 어민의 절대다수를 이루고있는 령세어민들은 《추운겨울도 가림사이 없이 차거운 물속에 발을 적시며 개벌에 나가 조개와 해초를 따지 않으면 목숨을 이어나갈수 없》는 기막힌 처지에 있다. 남조선어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2중 3중의 략탈과 착취밑에서 3만원～10만원의 빚을 걸머지고 무서운 굶주림에 신음하고있다.

특히 미제와 박정희괴뢰악당들의 날로 더 악랄해지는 파쑈폭압책동으로 남조선동서해안의 20여

만의 어민들이 극심한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중 적지않은 어민들이 어업으로는 《목에 풀칠조차 할수 없다.》고 하면서 미제와 박정희도당에게 울분을 터뜨리고 집과 어구를 팔고있다. 남조선강원도 고성군 거진 등 4개 지구에서만도 7천여명의 어민들이 추운겨울에 살길을 잃고 다른 지방으로 떠났다.

남조선수산업을 파국적위기에 몰아넣은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들의 반동적, 반인민적 정책과 이로하여 농어민들에게 들씌워진 2중3중의 재난과 고통 이것은 남조선농어민들을 반미구국투쟁에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였다.

【불어난 전쟁예산과 강화된《긴축》, 략탈】 박정희괴뢰도당은 1968년에 미제침략자들의 지시와 조종밑에 1967년보다 34.8%(572억원)나 더 많은 2천 215억원의 《전례없는 팽창예산》을 꾸미내였다.

괴뢰도당은 미제상전의 전쟁정책에 추종하여 이 엄청나게 불어난 자금으로 괴뢰군을 늘이고 그 장비를 증강하며 무장유격투쟁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반미구국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식민지파쑈통치기구를 늘이며 남조선경제를 군사화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은 1968년에 미제상전의 지시대로 《국방력강화에 중점을 두고 무장유격대 탄압을 위한 장비의 현대화와 전투태세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른바 《국방비》라는 명목의 직접적군사비만도 엄청나게 불어났던 그 전해의 그것보다 24.6%나 늘이였는데 이것은 놈들의 집권첫해인 1961년의 직접적군사비에 비하여 3.6배나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렇듯 많은 자금을 쏟아부어 놈들은 군함, 항공기, 새로운 저격무기 등을 끌어들여 괴뢰군의 장비를 《현대화》하고 예비사단을 전투사단으로 개편하며 남조선의 청장년들을 더많이 끌어들여 괴뢰군을 늘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968년도 괴뢰정부예산의 반동적본질은 이처럼 직접적군사비가 늘어난데서만이아니라 또한 무장유격투쟁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드높아가는 반미구국투쟁기세를 억누르고 허물어져가는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군사파쑈테로통치기구유지비가 전례없이 불어난데서도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원쑤놈들의 파쑈테로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일반경비》는 1967년에 비하여 35.6%, 1961년의 그것에 비하여서는 무려 350%가 더 불었다.

이리하여 괴뢰정부의 1968년도 예산총액에서 직접적군사비와 파쑈테로통치기구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5.2%에 이르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밖에도 《군수산업의 개발육성》이니, 《일반산업의 전시산업으로의 전환》이니, 《고속도로건설》이니 뭐니하면서 철도, 도로, 항만, 통신 시설을 정비강화하여 군사기동력을 높이는 한편 이른바 《군납업》을 비롯한 군사적의의를 가지는 일부 산업부문들을 키우기 위하여 《재정투자 및 융자》총액(《특별회계》포함)의 82%를 쏟아넣기로 하였다.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괴뢰정부예산은 전적으로 미제의 전쟁정책집행을 위한 군사비와 파쑈통치기구유지비로 탕진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미제의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이 방대한 전쟁예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여 군사비를 충당》하라는 미제상전의 지시대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세금수탈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이리하여 1968년 괴뢰예산에서의 조세수탈규모는 그 전해보다 48.8%(567억원)나 더많은 1천 728억원으로 불어났으며 《예산》 수입총액에서 인민들에 대한 조세수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7년의 70.6%로부터 1968년에는 78%로 높아졌다.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의 생활형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이렇듯 엄청난 세금을 들씌워 강탈해내기 위하여 략탈적인 《세법》들을 더욱 개악하는 한편 세금수탈기구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날강도적인 수탈소동을 벌렸다.

박정희매국도당은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금융체계를 통한 이른바 《긴축》과 인민들에 대한 략탈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강화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군사잠재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금융체계를 통한 자금수탈을 강화하며 군사적의의를 가지는 부문에 종사하는 매판자본가들과 지주놈들에게 은행자금마저 집중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가들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자금류통을 마비상태에 빠뜨리는 등 파국과 혼란을 더한층 심화시키였다.

매판자본가들로 하여금 이해에 그 전해보다 37%나 더 많은 외래독점자본을 끌어들이게한 괴뢰악당놈들은 그에 대한 《지불보증》을 한답시고 일반은행에서 850여억원의 자금을 빼앗아내였으며 《도로국채》, 《산업금융채권》 등 갖가지 채권을 찍어내여 강제로 들씌움으로써 남조선의 가난한 근로자들과 중소기업가들에게서 이해에 1961—1967년간에 빼앗아낸 금액과 거의 맞먹는 200여억원의 자금을 추가 수탈하였다.

최저생계비의 4분의 1~5분의 1밖에 안되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기아임금과 일제시기의 강제공출의 재판인 갖가지 농산물 《매상》대금 등에서 미리 10%까지를 떼내고 지어는 《국민학교》 어린이들과 가정부인들에게까지 일정한 책임량을 들씌우는 등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이해에 또한 놈들은 1천여억원의 자금을 이른바 《저축》이라는 명목밑에 강탈해내였다. 괴뢰도당은 경제의 군사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매판자본가들에게만 자금대부를 더욱더 집중하였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1천만원이상씩 꾸어준 대부금이 전체 대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7년의 41%로부터 1968년에는 57%로 늘어났다는 사실에

서도 명백히 알수있다.

이와 반면에 괴뢰도당의 략탈적 《금융긴축》으로 말미암아 남조선기업체총수의 98%를 차지하고있는 중소기업체들은 거의 모두가 은행자금을 얻어쓰지 못하고있으며 간혹 얻어쓴다해도 대부금의 10~15%의 금액을 《사례금》 등으로 내야한다.

그리하여 중소기업가들은 은행자금을 얻어쓰지 못하고 본전보다 리자가 더많는 고리채를 얻어쓰고있는데 이해에 중소기업가들이 얻어쓴 고리채액은 1967년에 비하여 32%나 더 불어났으며 고리채에 대한 리자로 빼앗긴 금액만도 43억원이나 더 불어난 200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연체대출금과 부도수표가 급격히 늘어나 자금거래는 례년에 볼수없는 극심한 혼란과 파탄의 진구렁텅이에 빠져들었다.

남조선경제의 파탄과 혼란은 담보없는 지폐의 람발로 인한 통화팽창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화되였다.

괴뢰도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해 12월말현재 남조선 화폐발행고는 1967년말보다 276억원이나 더 많은 957억원에 달하였다.

괴뢰도당이 이해에 《통화안정증권》이니, 《재정안정증권》이니 하는것들을 련방 찍어내여 통화를 강제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지폐의 람발로 인한 통화량의 급격한 팽창을 막을수 없어 1968년말현재 남조선통화량은 1년전보다 298억원이나 더 불어난 1천 498억원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남조선의 화폐가치는 여지없이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급격히 뛰여올랐다. 1962년말부터 최고액권으로 발행하기 시작한 500원짜리 지폐가 전체 화폐발행고중에서 1967년말현재 47%를 차지하였다면 이해말에는 60%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반면에 100원짜리 지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로부터 37%로 떨어졌다. 이리하여 이제는 100원짜리 지페는 물론 500원짜리 지페도 가지고다니는데 거치장스러운 것으로 쓸모없는것으로 되여 1천원짜리 지페를 새로 찍어내야 하게 되였다고 놈들자신이 비명을 지르고있다. 즉 그만큼 화페가치가 떨어져버린것이다.

괴뢰도당에 의한 세금 및 료금의 인상과 통화의 급격한 팽창, 경제파국의 심화 등으로 물가는 더욱 급격히 뛰여올랐다. 특히 인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곡물가격은 이해에들어 11개월간에만도 평균 32.2%, 식료품은 20%, 기타 생활필수품은 1.5~2배로 뛰여올랐다. 이리하여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임금은 이해에 들어 9개월 동안에 만도 약 8%나 떨어졌으며 남조선인구의 70%를 차지하고있는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미제와 그앞잡이들 특히 지주놈들의 가혹한 착취와 극심한 흉작으로 보다더 엄청나게 떨어졌다.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반동적금융정책이 빚어낸 이러한 파국적현상은 남조선경제 전반에 심각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참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밑에서 신음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이중삼중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기약할수 없는 끝없는 불안속에서 살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41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경제를 제놈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실현을 위한 군사적부속물로, 과잉상품의 독점적판매시장으로 전변시키고 남조선인민들을 무제한하게 착취략탈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군사적강점과 략탈적인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만들고 《원조》의 몇배에 달하는 막대한 군사비를 남조선인민들에게서 짜내고있다. 파쑈적 《군사정변》이후에만도 괴뢰정부의 직접적 군사비는 3.6배로 늘었다. 미제의 조종밑에 괴뢰도당은 해마다 예산의 압도적부분을 군사비로 쓰고있다. 1968년에는 예산지출의 75%이상을 군사경찰파쑈통치비로 돌렸다.

이 방대한 군사비지출을 위하여 박정희반역도당은 파쑈적 《군사정변》 이후 남조선인구 한사람당 《세금》 부담액을 2배이상으로 높였다. 1968년에 남조선인민들의 《조세》 부담액은 1966년에 비하여 2.6배에 달하는바 이것은 이해 괴뢰정부 예산수입의 78%를 차지하는것이다.

미제와 박정희군사악당들은 이러한 《세금》 수탈로써만이아니라 제놈들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통하여서도 남조선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있다.

【가혹한 식민지 노예로동】 미제와 괴뢰도당은 《십장제》, 《감독제》 등과 같은 군사봉건적인 통제체제속에 로동자들을 얽매놓는 이른바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향상운동》 등과 저임금정책으로 로동자들의 피땀을 무자비하게 짜내고있다.

놈들은 로동자들에게 하루에 12~18시간의 식민지노예로동을 강요하고있으며 휴일과 휴식은 물론 아무런 로동보호대책도 없이 로동강도를 계속 높이고있다. 최근년간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면서 로동강도를 종전보다 또다시 배이상으로 더 높였다.

외래독점자본가놈들과 매판자본가놈들은 남조선로동자들을 희생으로 하여 더 많은 초과리윤을 짜내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로동계급의 상대적 절대적빈궁화는 갈수록 심해지고있다.

직업을 가지고있는 로동자들의 생활처지를 보더라도 그들은 아무런 로동보호시설도 없는 위험

개소에서 혹사당하고있다. 남조선출판물들도 남조선의 모든 로동자들이 유해롭고 위험한 작업조건속에서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고 쓰고있다.

놈들은 간단히 해결할수 있는 발판같은것조차 제대로 만들어놓지않아 수많은 부두로동자들이 작업중 바다물에 떨어져 희생되게 하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이러한 작업조건하에서 매일 12～18시간 이상의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극히 짧은 점심시간마저 떼우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녀성로동자들과 소년, 소녀로동자들은 자본가놈들의 혹심한 착취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인간이하의 천대를 받고있다. 녀성로동자들이 압도적다수를 차지하고있는 방직공업부문에서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로동을 하고있다. 자동차운수부문 로동자들인 녀차장들의 경우에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19시간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이들은 고역을 치르다가 작업장에서 죽어가는 일이 흔히 있다. 진양화학녀성로동자 김정순은 야간작업중 잠시 휴식한 《죄》로 《로무조장》이란놈한테 매를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수많은 소년, 소녀로동자들이 1년중 휴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매일 16시간의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로동보호시설이 전혀 없는 작업조건과 로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혹사는 빈번한 로동재해를 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로동재해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바 로동자 1천명당 7명이라는 놀라운 사망률을 내고있다.

경기도에서만해도 1월부터 6월말까지 1천 969건이상의 로동재해가 있었으며 1968년 6월 남조선 강원도 도계탄광에서는 갱이 무너져 수십명이 단번에 희생되였다.

남조선에서는 20～30대의 청년들도 로동을 시작한지 1년만되면 벌써 각종 무서운 질병에 걸려 신음하고있다. 대부분의 로동자들이 폐결핵, 위장질환, 유해가스중독, 직업성난청, 영양부족 등에 걸려 병마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고있다. 경기도 파주군에 있는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로동자 김동섭은 충병에 걸려 처한테 업혀서 서울시내의 네곳의 병원을 찾아다녔으나 렌트겐촬영비 천원이 없어 진찰 한번 받아보지 못한채 병원문턱에서 숨을 거두고말았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마소처럼 혹사당하면서도 살인적인 기아임금을 받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임금실태는 후진국에서도 가장 낮은 임금수준》에 있으며 그나마 반년내지 일년간 밀리기가 보통일로 되고있다. 또한 로임은 날마다 내려가고 물가는 날을 따라 뛰여오르고있어 로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계속 낮아지고있다. 제주도 광업부문로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생계비의 5분의 1밖에 안된다.

또한 공장, 기업소들의 파산과 집단해고 등으로 수백만 로동자들이 일터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다. 전라남도 광주시에서만도 1만 1천명이상의 로동자가 완전실업상태에 있다.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로동자들이 이국땅에 끌려가고있는데 1968년 7월 22일현재 1만 5천 100여명의 조선인로동자가 남부웰남에서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고있으며 갖은 천대를 다 받고있다.

【식민지반봉건적착취하의 농민】 남조선농민들은 식민지반봉건적 착취관계에 얽매여 착취와 략탈을 당하고있다. 약 10만의 지주가 총경지면적의 40%를 차지하고 140만호의 농가를 착취하고있다.

남조선농촌의 기본생산자대중인 소작농들은 여러가지 형태로 지주놈들에게 예속되여 수확고의 50～60%를 소작료로 략탈당하고있다. 농민들은 또한 식민지적략탈을 당하고있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범죄적전쟁준비를 위한 비용을 짜내기 위해 농촌에 수탈공세를 들이대고있다. 놈들은 《농지세》, 《토지등기세》, 《재산세》 등 직접세를 통하여서만도 해마다 100만석이상의 량곡을 빼앗아가고있으며 《산림조합비》, 《지십자회비》, 《기생충박멸회비》, 《결핵협회비》, 《장정회비》, 《도로수리비》, 《군경원호비》, 《파웰장병위문금》, 《면기성회비》, 《송별회비》 등을 비롯하여 수십종의 가렴잡세를 통하여서도 50억～7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농민들로부터 털어가고있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량곡 《매상》의 이름밑에 해마다 수백만석의 량곡을 빼앗아가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은 상품류통과정에서와 신용체계를 통하여서만도 농가호당 평균 총수입의 30%이상을 수탈당하고있다.

미제와 막정희괴뢰도당의 광란적인 전쟁정책과 반동적인 농업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농업생산력은 심히 파괴되고 농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비참해지고있다.

적들의 반동적인 농업정책과 전쟁준비책동으로 경지면적은 8.15전에 비하여 20만정보, 파종면적은 40만정보나 줄었으며 《군용지》로서 10만정보의 농토를 빼앗겼다. 특히 최근 년간에 더욱 심화된 한, 수재와 적들의 반인민적인 시책으로 경지면적은 더욱 줄어들고있다.

농업생산력의 이와 같은 파괴로 생산량은 8.15당시에 비하여 3분의 2로 줄었으며 남조선은 해마다 80만～100만톤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근지대로 전변되였다. 최근년간에 그것이 더욱 심화되여 1968년에도 120여만톤의 식량을 외국으로부터 사들였다.

농업생산의 감퇴와 미제와 괴뢰도당의 가혹한 수탈로 남조선농민들의 실질소득은 끊임없이 낮아지고있다. 적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1년에 비하여 1966년에 농민들의 실질 소득수준은 25%나 떨어졌고 령세농의 경우에는 57%나 급격히 낮아졌다. 이리하여 농민들의 실질소득수준은 도시주민들의 수준에 비해 62.8%, 특히 령세농의 경우 38.2%에 지나지 않는 한심한

형편에 있다.

이와 반면에 농민들의 빚은 계속 늘어 1961년의 81억원으로부터 1968년에는 730억원으로 9배나 늘어 농가의 95%가 년리자 100~200%이상의 빚을 걸머지고 있으며 농호당평균 부채액은 3만여원에 이르고있다.

남조선 총 농가호수에서 빈고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5~1964년간에 71.4%에서 75%로 높아졌다. 절대다수의 남조선농민들은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고있으며 0.5정보 미만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가을이 끝나자부터 절량되고있으며 0.5~1정보 미만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인 경우에도 이른봄에 량식이 떨어진다. 이리하여 남조선 농촌에서는 농사를 제대로 지어도 해마다 평균 100만호의 절량농가가 생긴다. 이해에는 남조선 총 농가의 80%에 해당하는 200만호가 량식이 떨어져 굶주림에 시달렸다. 예로부터 쌀고장으로 이름이 높던 령남, 호남지방에서는 전체 농가의 98%가 완전히 절량상태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산간벽지는 물론 섬, 평야지대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전역에 걸쳐 절량과 기근이 휩쓸었으며 《배고파 못살겠다》는 아우성소리가 온 남녁땅을 뒤덮었다. 경상남도 영주군을 비롯한 남조선농촌의 도처에서 먹을것이 떨어진 농민들이 중년남녀를 비롯하여 10살미만의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밥을 얻으며 무리를 지어 다니였으며 농촌지역내 3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업을 그만두고 품팔이와 식모살이, 남의집 아이보개 등으로 집을 떠났다.

절량된 농민들의 대부분은 혹심한 굶주림을 참다 못해 앞날을 생각할 여지도 없이 살인적인 고리채를 얻어쓰는가하면 토지, 가수, 부림소 기타 가재도구와 농사를 하자면 없어서는 안될 농업생산수단들을 평시의 절반 값도 안되는 헐값으로 팔아 식량을 마련하였다. 그런것조차 팔것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은 혹심한 굶주림을 참다못해 살길을 찾아 온 가족이 집단적으로 농촌을 떠나기도하며 혹은 한 가족이 같은 곳으로 가지못하고 일정한 목적지와 방향도 없이 하나씩 뿔뿔이 헤여저갔다. 괴뢰도당이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최근 년간 농촌으로부터 도시에로 흘러들어간 농민들의 수는 해마다 40만~50만을 헤아린다. 전라북도의 한개 도에서만도 해마다 평균 6만~8만여명이 농촌을 떠났다.

공업이 전면적으로 파괴되여 실업자가 넘쳐흐르고있는 도시가 농촌에서 흘러드는 로동력까지 흡수할수 없는것은 뻔한 일이여서 도시에 밀려간 농민들의 대부분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도처에서 류리걸식하거나 하루하루의 날품을 팔아 나날을 겨우 넘어가는 형편이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들의 전쟁준비를 위한 자금과 량곡을 긁어내기 위해 남조선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놈들은 갖가지 《세금》과 빚을 농민들에게 마구 들씌우고 《재산차압》을 하는 등 날강도적방법으로 그것을 걷어들이기에 미쳐날뛰였다.

경상남도 내포리내 90%이상의 농가가 식량이 떨어져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략탈자들은 1967년의 182%로 늘은 365만석의 쌀을 농민들로부터 빼앗아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놈들은 일제놈들이 조선인농민들을 착취하기 위해 실지수확량보다 높게 매긴 《토지등급제》를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1967년보다도 15%나 더 많은 《농지세》를 들씌우고있다. 이런 현상은 이곳에만 한한 것이아니라 남조선 모든 농촌 지역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어민들의 한심한 생활형편】 남조선어민들의 생활형편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남조선에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가족을 포함하여 115만 7천여명이나 된다. 그 가운데 24만 100여명(21%)이 고용로동자들이고 67만 5천여명(58%)이 겸업하는 어민들이며 24만 1천여명(21%)이 어업을 전업으로 하고있다. 어업로동자들은 아무런 생산도구도 없는 임금로동자로서 그들의 월평균로임은 최저생계비의 6분의 1도 안된다. 그나마 몇달씩 밀려가고있다. 《삼양수산》에 고용된 140여명의 어업로동자들은 넉달동안 혹사당하고도 한푼의 로임도 받지 못하였다.

겸업을 하고있는 어민들의 대부분이 낡고 뒤떨어진 원시적인 어구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며 그것만으로는 생활을 할수 없어 농사를 짓거나 다른 품팔이를 하는 사실상 반실업상태에 놓여있는 령세어민들이다.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민들의 경우에도 물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해 수입이 없는데다가 박정희악당들이 들씌우는 과중한 세금부담과 빚에 짓눌려 점차 령세화되며 파산몰락하고있다. 남조선어민들은 《면허세》, 《수수료》, 《부과세》, 《소득세》, 《영업세》 등을 비롯하여 수십종의 《세금》을 물어야 하며 비싼 리자의 빚을 물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남조선어민치고 2~3만원의 빚이 없는 사람이 없다. 괴뢰도당은 심지어 어민들에게 어업자금을 꾸어주지 않고도 주었다고 하면서 독촉장을 내는가 하면 이미 빚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재산차압》을 하는 등 날강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이에 겹쳐 물가는 치오르고 어장에서의 일제어선들의 해적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선어민들의 생활은 말할수없는 도탄속에 빠져들고있다.

매국적 《한일협정》 이후 일제어선들이 남조선근해에까지 기여들어 물고기를 마구 잡아가는 바람에 어획량은 이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다. 이로 말미암아 어민들의 생활고는 극도에 이르고있다. 그들은 나은경우라야 고구마, 보리, 해초를 주식으로 하고있으나 그것도 두끼밖에 먹지 못하고있으며, 죽도제대로 먹지 못하고있는형편이다. 남조선의

신문도 어민들의 이러한 생활참상을 가리켜 《사철보리고개의 어부》라고 하였다.

경상남도 신수도에서는 210호중 130호가 절량상태에 있었으며 춘궁기는 80%이상이 굶거나 고구마죽과 바다풀로 겨우 연명해갔다. 남조선의 대부분 령세어민들은 《추운 겨울도 가릴사이 없이 차거운 물속에 발을 적시며 개벌에 나와 조개와 해초를 따지 않으면 목숨을 이어갈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극심한 주택난과 음료수난】 남조선인민들은 극심한 주택난을 겪고있다. 남조선에는 총 세대수의 33.2%에 해당하는 174만여세대가 집이 없어 한데에서 살거나 움막속에서 살고있으며 집없는 세대수는 해마다 16만 5천씩이나 늘어가고있다.

농업의 파탄으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은 도시의 주택난을 더욱 심하게 하고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남조선의 32개 주요도시의 주택형편을 보면 47.9%인 87만 1천 750세대가 집이 없어 남의집 곁방살이를 하거나 한데서 살고있다.

서울의 경우를 놓고보면 집없는 세대수가 1963년에는 27만 9천호, 1965년에는 40만 7천호로서 해마다 평균 4만여호씩 늘어나고있다.

그리하여 서울에는 집없는 세대가 총 세대의 59%나 되며 랭천동같은데서는 심지어 주민의 60%가 남의집 세방살이를 하고있다.

남조선에는 집이라고 쓰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도 나은것이 없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대부분이 한평도 못되는데서 5~6 식구가 살고있다. 그러나 이것마저 근 50%는 20년이 지난 낡은 집들이며 채광이나 통풍조건이 극히 나쁜것은 말할것도 없고 도시에서마저 이런 집들에는 대부분이 전등이나 수도시설이 없다.

그러나 미제야수와 박정희파쑈악당은 《근용도로》요 미관상 좋지 않은 《철거구역》이요 하는 따위의 명목으로 서울에서만도 1968년 한해동안에 1만 5천여채를 헐어버렸다.

남조선에서 이와 같은 주택사정으로 한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격증하고있다. 10월 8일 서울 장충공원과 성동구에서 굶주림에 지친 60살되는 로인과 28살나는 녀인이 집이 없어 한데서 초가을 선기에 벌써 목숨을 잃었다.

물문제로 인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상고통도 극심하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들에서는 수도물이 모자라 물 한지게에 60~100원씩 주고 사먹고있다. 서울에서는 전시민의 30%, 부산에서는 37%, 대구에서는 27%의 시민들이 수도물을 먹지 못하며 나오는 수도물마저도 대장균, 적리균 등을 비롯한 온갖 전염병균이 욱실거리며 수도에서 지렁이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늘어만가는 만성질환과 전염병】 먹고 쓰고사는 문제가 최악의 경우에 이른 남조선에서는 뇌염과 장티브스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이 상시적으로 퍼져 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보건정책으로 말미암아 인민들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있다.

놈들은 《무의면일소》를 떠들어왔으나 남조선에서 무의면은 793개소나 된다. 이것은 1966년에 비하여 106개소나 더 는 것으로 된다. 경상북도 월성군을 비롯한 적지 않은 군들에는 군적으로 의사가 한명도 없다.

그러므로 전염병과 만성질환이 해와 달을 따라 늘어가고있다. 결핵환자는 해마다 13만명씩 늘어가 그 수는 140만명이나 되며 감염자는 무려 1천 800만명을 헤아리고있다. 결핵환자들 가운데 치료도 못받고 죽어가는 환자는 매해 6만~7만명에 이르고있다. 지스토마환자는 450만명, 신경환자는 200만명에 달한다.

특히 농촌의 보건상태는 더욱 한심하다.

남조선 농촌 인구에서 9살까지의 어린이를 제외한 1천 104만 6천 490명중에 여러가지 만성질환에 걸려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있는 수가 795만 3천 466명으로서 72%를 차지하고있다. 그중 결핵환자의 비률이 제일 높다.

남조선농촌에서 토착병으로 되고있는 지스토마는 그 감염이 심하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북도의 대부분지역에는 간지스토마환자만도 이지방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도에는 페지스토마환자만도 인구의 64.2%나 된다.

이밖에 암, 문둥병, 정신병, 마약중독 등 여러가지 만성질환이 급격히 퍼지고있다. 남조선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해 3만명을 넘는다.

농촌에 의료기관이 없기때문에 주민들은 병의 고통을 덜기 위해 자기들이 재배한 양귀비를 쓰고 있는데로부터 마약중독자도 더욱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남조선강원도의 린제군과 홍천군내 주민의 20%가 마약중독자이다.

치료기관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있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있다는 병원들도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인민들에 대한 략탈과 돈벌이수단으로 되고있기때문에 환자들은 엄청나게 비싼 치료비를 내지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해마다 인민들에게 과중한 치료비를 들씌우고있다. 놈들은 1968년에 치료비를 그전해에 비하여 약 50%나 더 올렸다.

1968년현재 각종 치료비는, 초진료비 150원, 외래진찰료비(1회) 500~600원, 렌트겐 촬영료 600~700원, 처치료 1천원, 해산방조비 2천 500~3천원, 맹장수술비 1만~1만 2천원이다.

또한 놈들은 입원치료비를 악랄한 방법으로 더 많이 끌어올렸다.

남조선병원들에서 하루에 받아내는 입원치료비는 입원료, 식비, 주사료, 약값, 간호비 등을

합쳐 1천 500원이나 된다. 개별적으로 의사를 청원하여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여기에다 50%, 치료까지 받을 경우에는 100%를 가산하여 물어야한다.

특히 박정희괴뢰도당은 1968년부터 입원보증금을 입원현장에서 내지 못하면 입원할수 없게 하였다. 입원보증금은 6천~8천원이나 된다.

이러한 실정에서 뼈빠지게 일을 하여도 그날끼니조차 이어가기 힘든 로동자들이나 한해 농사를 지어도 추수 때부터 절량되는 농민들이나 품팔이로 죽도 제대로 먹을수 없는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이 병원치료, 더우기 입원치료를 받을수 없다는것은 더 말할 여지조차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어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발전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일하며 마음껏 배우며 무상치료의 혜택으로 무병장수하는 공화국 북반부를 동경하며 경애하는 수령의 품안에서 북반부 형제들과 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미구국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용감하게 싸우고있는것이다.

남조선괴뢰군의 웰남 증파책동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의 거듭되는 섬멸적인 타격앞에서 심대한 패배를 당한 미제침략자들은 1968년에도 더많은 남조선청장년들을 남부웰남의 침략전쟁마당에 끌어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이해 4월 미제의 전쟁두목 죤슨이 놈들의 충실한 개 박정희역도를 직접 하와이의 호노룰루에 불러내여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할 음모와 함께 괴뢰군의 남부웰남증파에 대한 모의를 한데 뒤이어 5월에 괴뢰국방장관이란놈을 워싱톤에 불러들여 《제1차 한미국방장관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거듭 쑹쑹이를 꾸몄다.

놈들은 괴뢰공군 및 이른바 기계화부대를 보내여 이미 남부웰남에 끌어간 괴뢰군의 무장력을 보강하는 한편 새로 1개사단 규모의 괴뢰륙군전투병력과 《군수지원용역단》이라는 이름으로 1만여명의 괴뢰군제대자들을 더 내몰려고 책동하였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6월에 남부웰남에 끌려가 미제의 총알받이로서 갖은 위험한 고비를 치르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병사들중 1천 600여명을 《제대》시켜 현지에서 그대로 《군수지원용역단》으로 잡아두었다.

《군수지원용역단》이란 군수물자의 운반과 군사기지의 보수, 확장 등 그가 강요당하고있는 《임무》가 다를뿐 사실상의 전투병력이다.

박정희만역도당은 동족을 이처럼 무제한 총알받이로 떠넘기는 대가로 미제상전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아 파멸에 직면한 제놈들의 더러운 운명을 다소나마 더 이어가려고 천추에 용납못할 배족행위를 서슴지않고있는것이다.

교활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군수지원단》이요, 《후방요원》이요, 《교체병력》이요 하는 갖가지 명색으로 남조선청장년들을 남부웰남의 죽음의 진펄에 계속 내몰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6월에 놈들은 남부웰남침략전쟁터에 끌려가 미제의 군수물자 수송 등에 내몰리고있는 괴뢰군의 《군수지원부대》를 비롯한 《후방지원병력》 가운데서 5천명으로 《전투려단》을 만들어 일선에 내몰고 그 자리를 메운다는 구실밑에 더 많은 남조선청장년들을 계속 끌어갔다. 미제에게 명줄이 달려있는 박정희매국도당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맞추어 《아세아에서 성조기와 더불어 언제까지나 함께 행동할 자는 다름아닌》 제놈들이라고 하면서 상전의 요구라면 《10개사단의 병력도 동원하겠다》고 떠벌이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괴뢰군을 《미국의 비용으로 무장되고 유지되는 고용병》이라고 공공연히 떠벌리면서 이미 끌어간 5만여명의 괴뢰군병력을 제놈들의 치욕스러운 총알받이와 인민탄압의 도구로 리용하고있으며 그들을 항상 제일 어려운 전투의 앞장에 내몰아 무리죽음을 시키고있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반역도당에 의하여 남부웰남에 끌려간 괴뢰군장병들은 미제침략군을 막아주는 치욕스러운 《울타리》 노릇을 강요당하면서 제일 위험한 전투의 일선에 내몰려 끊임없이 《상죽음》을 당하고있다.

7월 12일 괴뢰군의 한 《대대장》놈을 포함한 여러명의 장병들이 남부웰남의 빈딘지구에서 인민해방무장력의 불벼락을 맞아 몰살당하였다.

남부웰남의 중부지역에서 12월 21일 정찰에 내몰렸던 남조선괴뢰군의 한부대는 그곳 인민해방무장력의 맹렬한 공격에 의하여 몽땅 녹아났다. 미제침략자들의 범죄적인 《초토화작전》에 몰려나가 죄없는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살륙만행을 일삼던 남조선괴뢰군의 《백마사단》 제30련대의 《중대장》놈을 포함한 괴뢰군 한부대 병사들이 인민해방무장력의 정의의 징벌을 받아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보다 앞서 투이 호아주소재지부근의 동 타크에서도 인민해방무장력의 기민한 포위공격작전에 의해 남조선괴뢰군 1개중대가 몽땅 녹아났다.

괴뢰도당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남부웰남에 끌려간 괴뢰군장병들 가운데서는 1967년 한해동안에만도 1천 60명이 백골이 되여 돌아왔으며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한 부상자들의 수도 1천 770여명이나 된다.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전투의 앞장에 내몰렸다가 밀림과 진펄속에 죽은채 버려졌거나 《입원치료》에서 제외된 부상자들을 합치면 실지 사상자수가 이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는것은 뻔하다.

인간백정 미제침략자들은 제놈들의 총알받이로 끌어간 남조선

괴뢰군을 남부웰남의 죄없는 주민들을 학살하는데 내몰아 전추를 두고 씻을수 없는 죄행을 저지르게 하고있다.

그러면서 미제침략자들은 제놈들의 범죄행위에 가담하기를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괴뢰군장병들을 그 자리에서 총살하였을뿐아니라 《정글이 급하다》느니 《부상병처리가 시끄럽다》는 구실밑에 남조선괴뢰군 부상자들에게 폭격과 포사격을 퍼부어 그들을 없애치우는 천인공노할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미제악한들은 괴뢰군병사들의 시체를 《배트콩의 시체》라고 하면서 제놈들의 더러운 《전과》를 꾸며내는데 리용하기까지하였다.

남부웰남에 끌려간 남조선괴뢰군병사들은 날이갈수록 자기들이 용서될수 없는 죄악의 길에 내몰려 치욕과 범죄를 강요당하고있음을 깨닫고있으며 미제와 괴뢰도당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면서 그 치욕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견결히 떨쳐나서고있다.

범죄적인 동족매매책동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종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들의 군사파쑈통치가 빚어낸 극심한 생활고와 만성적인 실업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며 웰남침략전쟁에서 궁지에 빠진 미제상전에게 값싼 대포밥을 바치는 길 《외화》를 긁어들여 제놈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민》과 《로동력수출》이란 명목으로 범죄적인 동족매매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박정희반역도당은 괴뢰정권에 들어앉은 이후 《실업자구제》니 《기술습득》이니 하는 기만적구호를 내걸고 1961년 12월에 이른바 《이민교섭단》을 남미주에 떠내보낸것을 비롯하여 이 범죄행위를 계획적으로 추진시킬 목적으로 《해외이민위원회》라는것을 만들어내고 《해외이민법》까지 꾸며냈다.

그리하여 놈들은 1962년 12월에 제1차로 브라질에 《이민》한것을 비롯하여 1967년 9월현재 무려 1만 6천 363명을 해외의 노예주놈들에게 팔아먹었다.

《이민》에 뒤이어 1963년부터는 《로동력수출》이란 명목으로 남조선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을 서부독일, 미국, 카나다, 남부웰남 등지의 탐욕적인 독점자본가놈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었다.

이리하여 범죄적인 《이민》과 《로동력수출》이란 명목밑에 해외의 농장주들과 독점자본가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은 1968년 3월현재 4만 2천 663명이나 된다.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은 《이민》과 《 로동력수출》을 대대적으로 감행할 목적밑에 1965년 11월에 《해외개발공사》라는 전문기구를 만들어내였다. 뿐만아니라 《이민 제2차 5개년계획》이니 《로동력수출 5개년계획》이니 하는것을 만들어가지고 《계획》기간(1966—1970년)에 《농업이민》 4천 88세대, 약 2만 5천여명을, 《로동력수출》은 4만 5천 900명을 외국농장주들과 독점자본가놈들에게 팔아넘기려고 책동하였다.

이해에 놈들은 《농업이민》으로 남조선인민들을 계속 남미주에 팔아넘겼을뿐아니라 특히 빠라과이와는 10년간의 계획으로 《이민협정》을 맺고 5천세대를 떠넘길 음모를 꾸미였다. 또한 웰남을 비롯한 동남아세아 및 카나다 등지에 1만명을 《로동력수출》의 명목으로 팔아먹을것을 꾀하였다.

웰남침략전쟁을 확대하려는 미제의 책동에 발맞추어 대포밥제공의 일환으로서 남부웰남에 대한 《로동력수출》이 최근년간에 급격히 늘어났다. 1968년현재 남부웰남에 끌려간 남조선로동자, 기술자들의 수는 약 2만명에 달한다.

범죄적 《로동력수출》을 통하여 괴뢰도당이 긁어들인 《외화》는 1968년 3월현재 7천 830만딸라에 달한다. 박정희매국도당은 이것을 미제침략자들의 전쟁정책집행과 인민탄압을 위한 비용 그리고 제놈들의 배를 채우기에 탕진하였다. 동족매매에 맛을 들인 박정희도당은 《로동력수출 5개년계획》기간에 또다시 1억딸라의 《외화》를 더 긁어들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놈들은 이 죄악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이민》으로 가면 《일확천금》을 실현할수 있다느니 《농장의 소유자》로 될수 있다느니 하면서 《이민》으로 갈것을 강요하고있다. 또한 《로동력수출》에 대해서는 《취직문제가 해결됨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으며 《좋은 기술을 배울수 있다》고 선전을 하고있다.

그러나 해외에 팔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남조선로동자들과 기술자들에 의하여 박정희반역도당의 선전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더할나위 없이 드러났다.

《로동력수출》로 팔려간 남조선로동자들의 비참한 처지: 미제의 충실한 개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해외로 팔려간 남조선로동자들의 처지는 매우 비참하며 외국독점자본가놈들의 값싼 노예로서 짐승과 같이 혹사당하고있다.

남부웰남전쟁터로 팔려간 남조선로동자들은 직접 미제의 중요한 진략지점에 배치되여 놈들의 군사기지확장과 보수작업에 내몰리고있다. 이들은 미제침략군의 온갖 횡포뿐만아니라 애국적인 웰남인민들의 미제침략군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으로 하여 항시 불안과 죽음의 위협에 부닥치고있으며 가혹한 로동조건을 비롯한 민족적인 차별대우와 부당한 해고 등 위협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고있다.

례하면 남부웰남에 있는 《한진회사》에 고용된 600여명의 남조선로동자들은 날마다 미제의 군수물자를 배에서 부리고 창고까지 나르는 등 참으로 힘겨운 일을 강요당하고있다. 또한 그들은 페스트, 코레라 등 무서운 전염병의 위협을 늘상 받고있다.

이처럼 해외에 팔려간 남조선로동자들은 짐승과 같이 혹사당

하고있을뿐아니라 귀중한 목숨마저 잃고있다.

1966년 1월 한달동안에 미국놈의 회사에 고용된 로동자들속에서 작업중 혹은 전투에 말려들어 죽은 사람이 14명,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3명, 도합 27명이나 된다.

서부독일군국주의자들에게 팔려간 탄광로동자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에 간 광부들은 인간의 존엄은 고사하고 값싼 노예적로동으로 어둡침침한 굴속에서 끊임없이 죽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구자로 되여가고있다. 광부로 팔려갔던 김교민은 작업중 사고로 엄지손가락이 잘리웠으나 서독략탈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대책도 없이 《로동불가능》이라고 딱지를 붙여 해고하였으며 광부 김철변도 역시 로동재해로 병신이 되여 되돌아왔으나 한푼의 보상도 못받았다.

놈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7년 10월 31일현재 서독에 팔려간 2천 51명의 남조선로동자들 중 굴속에서 죽은 사람이 16명, 불구 또는 몸이 허약하여져 일을 할수 없게된 사람이 633명,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이 265명이나 된다. 이들은 낯선 이국땅에서 일자리도 없이 거리를 헤매고있다.

《이민》으로 팔려간 남조선이민들의 비참한 처지: 미제와 괴뢰도당의 범죄적인 《이민》책동으로 해외의 탐욕적인 농장주놈들에게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의 처지는 극히 비참하다.

이른바 《이민》이란 명목으로 브라질, 빠라과이 등지에 팔려간 《이민》 2천 914명중 3분의 1이 넘는 983명이 《정착지》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하여갔으나 그곳에서도 강제추방을 당하거나 혹은 날품팔이 등으로 겨우 연명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 남미주 14개국에 팔려간 《이민》중 대부분(80%)이 도시로 밀려들어 구두수리, 담배장사, 식모살이 등으로 간신히 살아가고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이민》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폭로된바와 같이 《농장의 소유자》가 될수 있다는 박정희매국도당의 거짓선전에 속아서 팔려가기는 했으나 실지 목적지에 이르고보니 약속된 농장이란것은 사람다닐길도 없으며 평지는 거의 없고 있다는 농지는 높은 돌산이 아니면 물이 늘상 고여있는 《소택지》여서 그곳에서 도저히 살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짐승도 살기 어려운 곳에로 노예상인들에게 팔려간 많은 사람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치솟는 격분으로 저주하면서 그 무서운 소굴을 벗어나기 위해 도시와 다른나라로 빠져나가고있는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와 그의 개 박정희도당이 떠벌이는 《실업문제해결》이요, 《외화천금》이요 하는 선전이 얼마나 거짓이며 《이민》과 《로동력수출》이 얼마나 범죄적인가를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해외에 팔려간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처지로부터 점차 각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생존의 권리와 《로동조건 개선》, 《임금인상》, 《민족적차별대우반대》 등 요구조건을 내걸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다. 1967년 11월 23일 남부웰남《감람》에서 미국놈이 경영하는 《빈넬회사》에 고용된 2천명의 남조선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미제침략자들의 민족적모욕과 차별대우에 격분하여 파업과 폭동으로써 항거하여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한것은 그 실례로 된다.

이와 같이 범죄적인 《이민》과 《로동력수출》의 반인민적이며 매국배족적정체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뿐아니라 세계인민들 앞에 날날이 폭로되고있으며 이 죄악적책동은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닥치고있는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더욱더 악랄해지고있는 미제살인귀들의 야수적만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국강도들의 만행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수많은 애국적인민들과 죄없는 겨레들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우리의 자매들이 모욕당하며 짓밟히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41페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은 놈들이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이해에 미제침략자들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제놈들이 로골화하고있는 새 전쟁도발책동과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야수적만행을 더욱 횡포하게 감행하였다.

1968년 1월 1일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2리 앞길에서 미제침략군 데이비드 호만이라는 인간백정놈이 부락인민들에게 아무런 유없이 행패를 부리다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운전수를 차밖으로 밀어던진 다음 길가에 있던 주민들에게 미친듯이 차를 몰아 그중 윤성환주민을 깔아죽이는 잔인무도한 만행을 감행한것을 비롯하여 미제살인귀들의 살인만행은 쉴사이 없이 저질러졌다.

2월 27일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한주민집에 뛰여든 미제침략군 우드라는 살인악당놈은 임순희녀성에게 달려들어 행패를 부리다가 그 녀성의 목을 졸라죽이고 그 집에 불까지 지르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두발가진 짐승인 미제야수놈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인간도살행위이다.

2월 29일 경기도 련천군 련천면 동현리에서 포사격훈련을 벌려놓고 화약내를 풍기다가 길을 가는 주민들을 과녁삼아 포를 쏘아 그중 리용원주민을 무참히 살해한것도 바로 다름아닌 미제침략군의 인간백정놈들이였다.

또한 3월 28일에는 미제침략군 마델이란놈이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에서 조선인로무자 김동식을 아무 까닭없이 마구 때려 이발 3개를 부러뜨리고 그의 혀까지

잘라내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5월 24일 미제침략군놈들은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주린 창자를 채우려고 풀뿌리를 캐러 나온 3명의 어린이들을 불도젤의 육중한 차바퀴로 깔아죽이는 잔인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의 짐승같은 만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있을뿐아니라 조직적이며 계획적이며 집단적으로 더욱 포악하게 감행되였다.

7월 경기도 부평에서 미제침략군 20명이 5명의 남조선인민들을 붙잡아놓고 무리로 칼부림을 하였으며 평택군 평택면에서는 40여명의 미제침략군이 덤벼들어 조선청년들을 때리고 주민들의 집을 마스고 도망쳤다.

미제침략군의 이러한 악독한 만행은 1월부터 7월까지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만도 286건에 달하였다.

미제침략군의 만행은 이처럼 끊임없이 감행되였으며 그 건수는 날을 따라 더욱 늘어갔다.

8월 5일 미제침략군 휘트맨이란놈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림원택청년이 벙어리인가 아닌가를 실험해본다면서 군견을 풀어 그의 온몸을 물어뜯게 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9월 6일 미제침략군 503병대소속 크라스밀리란놈은 인천시 중위동에 사는 강정화녀성을 아무런리유도 없이 권총으로 쏘아죽였으며, 10월 6일에는 대구시 왜관에서 브라운이란 미제침략군병장놈이 리예선녀성을 강간하고 목을 눌러 죽였다.

미제침략군들은 10월 9일 경기도 평택군에서 김현미라는 소녀를 군용차로 깔아죽였으며 10월 31일에는 경상북도 대구에서 미제침략군 두놈이 길가는 조선녀성을 짚차에 끌어올려 수욕을 채우려다가 완강한 반항에 부닥치자 달리는 차밖으로 그 녀성을 차던지고 달아나는 극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11월 8일에는 미제침략군 1군단소속 월슨이라는 야수놈이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되여있는 김순자녀성을 붙들어놓고 갖은 모욕을 다하던 끝에 강제로 옷을 벗기고 2시간동안이나 외딴 방에 가두어넣고 구두발로 마구 차고 닥치는대로 매질을 하여 그의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흡혈귀적만행을 감행하였다. 같은 달에 경기도 파주군에 도사리고있는 미제침략군의 한 인간백정놈은 박민규(6살), 권철(7살) 등 3명의 천진란만한 어린이들을 붙들어다가 과자모양으로 생긴 쥐약을 먹여 그 자리에서 죽이고 손벽을 치며 히히닥거리는 천추에 용납못할 살인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또한 12월 14일에는 경기도 인천시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부대의 찬슨이라는 악당놈이 임신부인 안경선녀성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반항에 부닥치게 되자 미친듯이 때려 중태에 빠뜨리고 가장집물을 모조리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같은 달 17일에는 경기도 평택군에 도사리고있는 미제침략군 세놈이 아무런 리유도 없이 하진숙녀성에게 집단폭행을 가하고 그를 난로불에 마구 지져 심한 상처를 입히는 악독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미제침략군의 이러한 야수적만행은 아메리카대륙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곳 원주민들을 닥치는대로 살륙하고 략탈하며 멸살시킨 제놈들 조상들의 그 흡혈귀적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사람죽이는것을 도락으로 삼으며 사람의 피를 보고 좋아하는 미제침략자들은 제놈들의 그 피묻은 발길이 닿는 남조선도처에서 끊임없이 죄없는 주민들을 살상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하며 민가에 불을 지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살인강도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야수놈들의 만행은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매국도당사이에 범죄적 《한미행정협정》이 꾸며진 이후에 더욱더 심해졌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이 범죄적문건이 《효력》을 발생한후 7개월동안에 미제침략군이 저지른 만행건수는 그 이전 시기 년평균만행건수에 비하여 무려 10배를 넘고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한미행정협정》이 꾸며진이후 형식적으로 《기소》한것은 불과 몇건뿐이다. 이것은 《한미행정협정》이라는것이 미제침략자놈들에게 치외법권적인 무제한한 특권을 보장해주는 극악한 침략과 매국의 문건이며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미제침략군의 온갖 범죄행위를 적극 조장해주는 흉악한 매국배족의 무리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바로 박정희괴뢰도당과 같은 매국역적의 무리들을 앞잡이로 내세우고 남조선에서 제멋대로 주인행세를 하면서 온갖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여왔으며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어느 하루도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실로 20세기의 야만이며 사람죽이는것을 쾌락으로 여기고있는 악독한 살인광들이며 흉악한 날강도놈들인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해온 지난 20여년간은 바로 미제야수놈들의 가지가지 천인공노할 범죄적만행으로 가득찬 저주로운 나날이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조선인민에 대한 천인공노할 만행은 조선전쟁도발후 더욱 잔인성과 야수성을 띠고 감행되였다.

《닥치는대로 죽이라, 설사 그대들앞에 나타난것이 어린이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그대들은 될수 있는대로 많은 조선사람을 죽임으로써 미국시민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라.》

바로 이것이 미제침략자들의 구호였으며 우리 인민에 대한 대도였다.

이러한 야수적구호밑에 미제승냥이들은 도처에서 피비린내나는 살륙만행을 감행하였다. 1951년 9월 15일 미제국주의자들이 발표

한 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침략전쟁도발후 1년남짓한 동안에 놈들이 남조선에서 학살한 주민의 수만도 무려 100만을 헤아렸다.

피에 굶주린 미제살인귀들의 야수성과 잔인성은 특히 놈들이 공화국북반부의 일부 지역을 일시적으로 강점했던 시기에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났다.

미제야수놈들은 불과 한달남짓한 동안에 신천, 은률, 양양, 평양을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의 수많은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미제살인귀들은 제놈들의 더러운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손발을 자르고 몸을 토막토막 절단하였으며 어린이들을 어머니앞에서 총창으로 찔러죽였으며 집단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생매장하거나 불태워 죽였다. 또한 사람의 배를 가르고 오장을 들어내며 이마에 못을 박고 눈알을 뽑아버렸으며 녀성들을 릉욕하고 젖가슴을 도려내거나 자동차에 얽어매여 끌고다니며 세균무기와 화학무기로 살륙하는 등 실로 인간도살자 히틀러파쑈악당을 훨씬 릉가하는 류혈적이며 야수적인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잔인성과 야수성으로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을 살륙한 이 흉악무도한 철천의 원쑤가 전후에도 계속 남조선을 강점하고 침략과 략탈을 추구하여 우리 인민에게 민족분렬의 재난을 강요하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있으며 그들을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고있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날을 따라 포악해가는 미제침략자들의 귀축같은 만행에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터뜨리면서 대중적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특히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흠모하면서 그이의 령도밑에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불타는 일념을 안고 무장유격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고있으며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에게 복수의 징벌을 안기고있다.

짓밟힌 민족교육과 민족문화

【식민지노예교육】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고 인민들을 제놈들의 온순한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교육분야에서도 일관하게 반동사상주입을 감행하여왔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이러한 범죄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남조선청소년학생들에게 반동적인 악명높은 《반공도의》교육을 강화하고있다.

특히 놈들은 1968년부터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에서 《반공》과목시간을 종전보다 더 늘이는 한편 학교입학시험에 《반공》과목을 포함시켜 이에 합격하는가에 따라 입학을 결정하는것과 같은 악랄한 책동까지 감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어린이들속에서 반공을 생활습관화하여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공화국북반부의 찬란한 현실을 철면피하게도 왜곡중상한 내용을 담은 추악한 반동서적들을 대대적으로 찍어내여 《국민학교》의 나어린 학생들에게 강다짐으로 팔아넘기고있는가하면 이제 겨우 말귀를 알아듣는 철부지 어린이들에게까지 《반공》그림책과 만화책들을 강제로 읽히우고있다.

또한 놈들은 《반공》교육의 한 고리로서 《도의》교육을 강화하고있다. 놈들의 《도의》교육은 청소년학생들에게 《계급협조》, 《로자협조》와 같은 굴종의 정신을 설교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와 같이 학원을 반동화하기에 급급하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또한 학원을 군사화, 파쑈화하여 완전히 반동의 소굴로 전변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의 학원들은 한심한 형편에 있습니다. 진보적이고 량심적인 교원, 학생들은 검거, 투옥, 고문, 학살당하고있으며 학교는 페쇄되거나 혹은 반동의 소굴로 화하고있습니다.》(《김일성선집》 1권 369페지)

미제와 박정희군사깡패들은 1968년 4월부터 대학 1~2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전원을 소위 《학도군사훈련단》에 강제로 끌어내여 범죄적인 전쟁훈련을 강요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체육시간을 군사훈련에 돌리고 《군사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며 군사과목을 완전히 수업해야 진학할수 있도록》 강압적조치까지 취하였다.

한편 미제와 박정희괴뢰악당들은 학원의 군사화와 함께 파쑈적 탄압책동도 강화하고있다.

학원내에 《교육자》의 탈을 씌운 제놈들의 졸개들과 특무들을 수많이 박아넣고 학생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감시하고있는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들은 수많은 진보적인 학생들과 교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며 학원에서 내쫓고있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남조선청년학생들속에서 날로 앙양되는 혁명적진출을 가로막기 위하여 괴뢰문교부에 《학생지도위원회》라는 탄압기구를 설치하고 《교직단체법안》까지 조작하여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교원, 학생들을 계통적으로 탄압하고있다. 또한 놈들은 학원내에 《청년학생사상연구회》라는 비밀정보조직을 만들어 학생으로 가장한 정보원을 밀어넣는 한편 《중앙정보부》의 특무들을 학교에 박아넣어 교원, 학생들의 정치사상동태와 모든 활동을 감시하며 지어 교원들의 강의내용까지 간섭하고있다.

때문에 남조선출판물들도 남조선에서의 학교는 《중앙정보부의 분실과 같은 형편》이라고까지 비난하고있다. 이밖에도 놈들은 여

러가지 모략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용공》분자로 몰아 탄압하고있으며 파쑈적인 《학원정화운동》과 같은것을 벌려 교원, 학생들의 정치훈련과 진리탐구를 가로막고있다.

남조선에서 학교들은 미제침략자들의 군사기지화정책과 식민지노예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는 사라지고 괴뢰군양성을 위한 련병장으로, 괴뢰들에게 치부를 주며 전쟁책동의 자금조달을 위한 마당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학원은 《수탈의 장소》, 《모리장》으로 전변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학원모리에서 《공납금》과 잡부금은 그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놈들은 학교운영을 학생들의 《공납금》에 의거하게 하고있으며 《공납금》의 많은 부분을 떼내여 군사경찰비로 돌리고있다.

남조선에서 《공납금》과 잡부금은 무려 60여종에 달하고있는데 그 액수와 종류는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1968년에도 놈들은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들의 《공납금》과 잡부금을 종전의 그것보다 25%, 대학은 50%나 더 끌어올렸다. 이해 박정희괴뢰도당이 《공납금》의 이름아래 학생들에게서 빼앗아낸 금액은 실로 남조선전체통화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76억 4천 600여만원에 달하였다. 학원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러한 략탈행위로 말미암아 1968년 한해동안에도 남조선에서는 미취학아동이 17만~20만명이나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취학대상자의 28~33%에 해당된다.

미제의 충실한 개 박정희괴뢰악당은 학원략탈을 더욱 강화하여 가난한 학생들의 배움의 길을 가로막기 위하여 이른바 《중학교입학추첨제》라는 또하나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교육제도를 꾸며냈다. 이에 의하면 중학교입학은 아동들의 지망과는 관계없이 《추첨》에 의해서 입학학교가 결정되게 된다.

놈들은 이러한 제도를 1969년도에 제1차적으로 서울에서 적용실시하고 1970년도에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인천, 대전 등지에서 실시하며 1971년도까지는 남조선전역에 걸쳐 실시할것이라고한다.

미제와 그의 개 박정희괴뢰악당들이 꾸며낸 이 《중학교입학추첨제도》는 사실상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등 돈과 《권세》있는자들의 자식들만을 입학시키고 학비부담을 감당해낼수 없는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의 학교입학을 막자는것이다.

그것은 박정희괴뢰악당놈들이 《경제능력이 있는 학생들만이 추첨에 응할수 있을것이다》라고 떠벌인데서도 알수 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학생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략탈해가면서도 학교시설에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아 학생들의 학업조건은 한심한 상태에 있다.

《국민학교》의 교실형편만 보아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중도퇴학자들이 그처럼 많은 조건에서도 교실이 모자라 60명이 수용인원이라고하는 한개 교실에 80명, 지어 160명까지 수용하고 있으며 4부제, 5부제, 《야외수업》까지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현재 있는 교실들도 그 대부분은 보수를 한번도 하지 못해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험한 교실》들이다. 일례로 전라북도에서는 《국민학교》의 부족교실수가 800여개에 달하고있는데 그나마 있다는 교실들도 그 70%는 곧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위험한 교실》들이라 한다.

교육시설의 이러한 암담한 상태를 놓고 남조선의 한 출판물이 남조선에서의 《국민교육은 동서고금을 통해 최고최대의 파산상태에 직면하고있다.》고 지적한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교육의 파탄은 교원의 부족에서도 드러나고있다.

적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 정원보다 모자라는 교원수가 중고등학교는 45%, 대학의 경우는 69%에 달하고있다. 《국민학교》의 경우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으로하여 적지 않은 학교들에서 학생들이 《교원없는 수업》을 하고있으며 어떤 학교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있다.

【짓밟힌 민족문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문화와 조선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온갖 패륜과 패덕이 남조선전역을 휩쓸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41페지)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문화는 미제와 박정희괴뢰악당들의 사상문화침략정책에 의하여 여지없이 파괴말살되고있으며 미제의 썩어빠진 문화와 《미국식생활양식》이 판을 치고 있다.

미제는 사상문화침략을 위한 남조선현지지배기구들과 그리고 《원조》, 《인사교류》, 《문화교류》, 출판물, 방송, 문학예술 등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퇴폐적이며 말세기적인 미제의 문화와 《미국식생활양식》을 광범히 퍼뜨리고있다.

1968년에도 《평화봉사단》이요 뭐요하는 여러가지 탈을 쓴 수많은 미제의 특무놈들이 남조선에 련달아 기여들었다.

남조선에는 《교원》, 《의사》의 탈을 쓴 이러한 미제의 특무놈들이 230여명이나 기여들어와 학교와 농촌 등지에 파고들어 남조선인민들의 《벗》인듯이 가장하면서 《반공》숭미사상을 퍼뜨리는 한편 정탐, 첩보 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사상문화침략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고유한 민족문화와 아름다운 미풍량속은 파괴말살되고있으며 패륜과 패덕이 사회생활의 건전한 모든것을 좀먹고 있다.

남조선에서 흔히 볼수 있는 문예작품만 보더라도 그 절대다수는 《반공》숭미사상, 불안과 절

망, 색정과 타락, 인간증오와 전쟁선동, 종교사상 등을 고취하고있는 자연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것들이다. 영화관들에서 상영되고있는 영화는 남녀간의 추잡한 치정관계, 자살, 살인, 강도, 전쟁미치광이들을 이른바 《현대인의 감정》으로, 《용감한 영웅》으로 묘사했거나 찬양한 퇴폐적이며 반동적인 영화들이다.

민족문화와 예술뿐만아니라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미풍량속도 더러운 《미국식생활양식》에 의하여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있다.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륜리와 고상한 례의도덕은 그 빛을 잃고 돈만 아는 개인리기주의와 강탈, 살인, 자살 등 갖가지 범죄행위가 남조선사회의 구석구석을 휩쓸고있다.

이와 같이 썩어빠진 말세기적인 미제의 문화와 《미국식생활양식》의 침습과 함께 남조선에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사상침투도 강화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조선에서 옛지위를 회복할것을 망상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침략과 함께 사상문화침략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그것은 우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소위 《인사교류》라는 명목밑에 제놈들의 군국주의적사상문화의 머슴군들을 무리로 남조선에 들여보내여 침투공작을 벌리게 하며 다른 한편 남조선의 반동적사상문화분야에 종사하는 민족반역자인 친일분자들을 일본에 불러다가 지시를 주어 돌려보내는 등 방법으로 사상문화의 침투범위를 확대하고 그 토대를 굳히기에 골몰하고있는데서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1968년에만도 《일본문화인방한시찰단》이요, 《일본저널리스트한국시찰단》이요 하는 간판을 떠멘 자들이 남조선에 련이어 기여들어 언론, 교육, 문화 분야에 대한 침투공작을 악랄하게 벌리였다. 남조선에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부식시키기 위한 사명을 걸머지고있는 자들만하여도 1천여명을 헤아리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방법과 함께 제놈들의 군국주의를 신격화하여 우상화하는 내용의 출판물과 색정적인 출판물 그리고 썩어빠진 영화와 류행가들을 대대적으로 침투시키는 방법도 리용하고있다. 1968년의 7월 한달동안에 상영된 반동적인 일본영화만도 30여편에 달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신문이 일본 영화와 류행가가 물밀듯이 쓸어들어 판을 치고있는데 대하여 《최근의 한국사회에 대한 일본의 침투는 놀라울 정도이다.… 일본의 류행가가 다방과 술집에서 흘러나오고 조선사람과 인연이 없는 사무라이영화가 초만원이다.》라고 분격을 표시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남조선청소년들의 민족적각성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것을 노리면서 색정적인 소설과 잡지들을 비롯한 반동적인 《황색출판물》들을 대대적으로 침투시키는데 혈안이 되고있다. 서울시내에만하여도 뻐젓이 간판까지 내건 《일본서적전문서점》이 9개나 있다. 이러한 서점들에서 한해동안에 팔리는 《황색출판물》이 7만 7천여종에 수십만부에 달한다.

일본군국주의사상문화와 침투범위가 여러면으로 확대되고있는것은 언어생활에서의 일본어의 침습이 급격해지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사실상 오늘의 남조선말은 20여년간에 걸친 미제의 강점밑에서 양키말의 침습으로 어지러워질데로 어지러워진데다가 일본어의 최근년간의 급격한 침투로 그것은 더욱더 고유조선어로서의 면모를 잃고 잡탕어로 전락되고있다. 일본어는 남조선거리들에 도사리고있는 일본 《료리집》들과 며관들을 거점으로 해서 또한 남조선각지에 늘어난 《일본어강습소》들을 통해서 조장되고있다. 서울에는 정식간판을 버젓이 단 《일본어강습소》만하여도 20개소를 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은 미제의 썩어빠진 문화와 함께 왜색왜풍이 만연된 《문화적2중식민지》로 전락되고있다. 남조선을 방문한 서방기자들이 서울을 갱과 살인과 패덕의 거리로, 악명높은 미국의 시카고와 일본 도쿄의 《긴자》거리와 대비하고있는것은 사태의 진상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심화되는 사회적 부패와 혼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의 한심한 사회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에서 정치적 및 경제적위기는 더욱 심각화되였습니다. 경제가 더욱 파탄되고 인민생활은 계속 악화되고있으며 부패와 사회적무질서는 더욱 심하여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400페지)

미제의 썩어빠진 문화와 생활양식의 침습으로 병든 남조선사회는 온갖 패륜과 패덕, 범죄와 사고투성이로 차있다.

【심화된 부정부패】 남조선사회에서 하나의 고질로 되고있는 부정부패는 이해에 더욱 심하였다.

인민들에 대한 악랄한 착취방법의 하나인 더러운 부정부패와 사기협잡행위는 박정희괴뢰도당과 반동관료배들속에서 더욱 심하게 감행되였다.

적들이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7년 6월 1일부터 1968년 5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괴뢰정부와 괴뢰관영기업체들에서 폭로된 각종 부정부패행위만도 3천 105건에 도합 9억 6천 346만여원에 달하였다.

이것은 괴뢰정권이 순전히 협잡배들의 소굴이며 놈들은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 더러운 부정행위를 일삼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부정부패행위는 매판자본가들에게 이른바 《특혜》를 주는 형식과 괴뢰정권이 소유하고있는 주식을 매판자

본가들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방법 등을 통하여 감행되고있다.

박정희역적놈이 자동차 조립업체에 지나지 않는 《신진자동차공업회사》에 《면세 특혜》를 해주고 한해동안에만도 12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먹은것은 그 한례이다.

저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8년 1월부터 6월까지사이에 괴뢰관리들이 감행한 부정부패행위는 1천 626건에 달하였다.

추악한 부정부패와 사기협잡행위는 괴뢰금융기관과 괴뢰도당의 관리기업체 등에서까지 공공연히 감행되였다.

1968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괴뢰금융기관들에서 저지른 부정부패사건은 3천 800여건에 달하였으며 저약부문에서는 1월부터 7월까지사이에 2만 6천 700여건이나 있었다.

【격증된 각종 범죄】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퇴폐적인 문화와 썩어빠진 생활양식의 침습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부패는 더욱 심화되고 온갖 범죄가 보다 늘어갔다.

남조선통신보도에 의하면 1968년에 남조선에서 각종 범죄는 1967년에 비하여 배이상으로 늘어났다.

범죄는 부패한 미제의 생활양식이 부식된 결과 살인, 강도 등 폭력행동이 동반된 범죄행위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남조선신문은 썩어빠진 미국영화를 보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대표적 실례를 들면서 《대구에사는 류아무개의 범행동기는 <지하실의 멜로디>라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서처럼 <승강기를 타고 지하실에 침입한 그대로를 모방했다》고 썼다.

저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 곳곳에 있는 미국식깡패조직을 닮은 폭력조직이 무려 50여개나 있는데 그중 25개가 서울에 있다.

남조선의 한 신문은 《사회의 밑바닥에 폭력배준동이 가시지 않기때문에 인민들은 언제나 불안》에 싸여있다고 하면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가 계속되는 한 남조선에서 폭력범은 없어질수 없으며 반면에 날로 증가될것이라고 썼다.

【《사건 풍년을 이룬해》】 1968년에 남조선에서는 각종 사고가 그 어느해보다도 많이 일어나 인민들을 불안에 싸이게 하였다.

그중에서도 극심했던것은 교통운수에서의 혼란과 사고, 그로 인한 막심한 인명피해였다.

저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이에만도 남조선 곳곳에서 일어난 철도사고와 자동차사고는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천 330여건이나 늘어난 2만 200여건에 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근 2천명의 사람들이 무참히 목숨을 잃었고 2만 4천 540여명의 려객들이 불구자가 되는 등의 재난을 입었다. 그 가운데서도 서울이 가장 심하였는데 서울시내에서는 그 전해에 비하여 4천 983건이나 더 늘어난 1만 1천 452건의 교통사고가 있어 1만 260여명의 주민들이 사상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출판물들은 1968년은 남조선에서 《사건풍년을 이룩한 해》라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에서의 극심한 교통사고의 원인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철도를 비롯한 모든 수송수단을 전쟁준비를 위한 군수물자 수송에 집중하고 일반려객 및 화물 수송부문을 전면적으로 파괴한데 있다.

남조선 강원도내 일반려객수송에 배당하고있는 철도차량의 70%이상, 경상북도의 북부지대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90%는 오래전에 폐차처분했어야 할것들이다. 여기에다 철길과 도로 구조물들이 파괴된 사정, 군용선이외의 일반도로는 좁고 로반이 전반적으로 패우고 마사진 사정, 그우에 남조선에서 제놈들 세상처럼 날뛰는 미제침략자들이 군용차들을 미친듯이 몰고 싸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있는 사정 등은 교통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하였다.

해상에서의 사고도 많다.

선박들의 충돌과 전복, 조난 등 해상사고는 이해에도 군산, 려수, 목포, 마산, 제주도, 인천 등지의 해상에서 련달아 일어나 그 건수는 전해의 2배에 달하였다.

남조선에서는 범죄적인 새 전쟁도발책동에 날뛰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련습소동으로 말미암아 폭발물사고도 많이 일어나 수많은 주민들이 재난을 당하였다.

저들이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8년 한해동안에 남조선에서는 110건의 폭발물사고가 발생하여 62명의 주민들이 귀중한 생명을 빼앗겼으며 158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해에 남조선에서는 화재도 그칠사이없이 일어났다. 한 해동안에 3천 574건의 불이 일어나 702명의 사상자를 냈을뿐만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인민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물질적피해를 입었다.

1968년에는 로동재해도 심하였다. 남조선 강원도에 있는 광산들에서만도 한해동안에 5천 380건의 로동재해가 발생하여 112명의 광부가 죽고 5천 800여명이 종신불구자가 되였거나 심한 부상을 입었다.

특히 이해에 남조선에서는 6개월이나 계속된 가물로 말미암아 피해가 막심하였다.

가물은 농업을 비롯하여 공업, 인민생활 등 모든 부문에 피해를 주었다.

가물은 무엇보다도 농사에 일대 타격을 주었다.

남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보리, 감자, 남새 등은 거의나 말라죽고 하곡의 대부분을 망쳤다. 가물이 가장 심했던 령동지방에서는 보리파종면적의 90%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의 피해는 하곡뿐만아니라 추곡작물인 옥수수, 콩, 고구마에까지 미쳐 거의나 파종하지 못하였으며 주작인 벼농사도 크게 피해를 입었다.

재일조선공민

어버이 수령의 극진한 배려, 위대한 수령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무한한 흠모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는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인도하고계시며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전체 해외동포들을 친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으로 보살펴주고계신다.

김일성원수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당당한 공화국공민으로서 살아나아가는 재일 동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예로운 해외공민들이다.

재일 동포들은 자기들을 육친의 정으로 끊임없이 아끼고 사랑하여주시며 혁명의 한길로 곧바로 이끌어주시는 김일성원수를 무한히 흠모하며 신뢰하고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그이께 충성을 다하는것을 변함없는 생활신조로 가슴깊이 아로새기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해외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육친적배려로 하여 재일동포들은 해외에 있으면서도 국적법으로 보장된 공화국공민의 영예를 지니게되였으며 각계층 동포대표들은 나라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대의원으로 선출되는 영예까지 지니게 되였다.

지난날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망국노의 설음에 어리였던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의 최고주권을 행사하는데 참가하게 된 이 영예, 이 기쁨은 오직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안겨줄수 있는것이며 그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공화국공민으로서 살며 일하게 된 재일동포들만이 누릴수 있는 영예이며 기쁨인것이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기반에서 조국이 해방된 감격적인 그날 조선동포들이 살고있는 일본의 곳곳에서 울려퍼진 《김일성장군 만세!》의 거세찬 함성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하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전체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였다.

암흑에 잠겼던 우리 강토에는 김일성원수의 탁월한 령도하에 조선인민의 참된 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였으며 우리 조국은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 그리고 철벽의 방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현해탄 거친 물결에 피눈물 뿌리며 이국땅의 죽음터로 끌려가던 재일동포들, 왜땅의 지하갱도에서 타는 목 축여줄 한모금의 물이 그리워 모대기던 그들이 애타게 부르짖은것은 오로지 조국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재일동포들의 절절한 이 념원은 이룩되였으며 그들은 오늘 동방의 일각에 거연히 솟아 그 찬란한 빛을 온 누리에 뿌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있고 권위있는 해외공민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육친적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재일동포들은 일제통치의 그 암담한 시기에도 민족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꿋꿋이 살수 있었으며 오늘은 조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 자기들의 권리를 요구할수 있게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계승자로서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몸바쳐나서게되였다.

김일성원수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재일동포들은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땅에 있으면서도 소생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휘황히 빛나는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보람차게 살며 일하며 싸우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로 하여금 일본반동들이 재일동포들의 조국에로의 귀국사업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며 또한 재일동포들에 대한 거듭되는 탄압행위와 살상만행에 대해 제때에 항의규탄하는 동시에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할것을 일본사또반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재일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막대한 금액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1957년부터 1968년말까지 사이에 29차에걸쳐 무려 73억 1천 651만 5천 793원에 달하는바 이것은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의 발전을 성과있게 보장하는 중요한 물질적담보로 되고있으며 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재일동포들을 무한히 고무해주고있다.

수령께서 보내주신 첫 교육원조비를 받았을때 전체 재일동포들은 무한한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처럼 자기들에게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에 대하여 다함없는 감사와 최대의 영예를 드렸다.

정기룡동포는 그때의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1957년 4월초순의 어느날이였다. 당시 총련 우사분회장으로서 회의에 참가했던 나는 회의석상에서 감격적인 이 소식에 접하였다. 보고를 듣는순간 나의 가슴은 기쁨과 감격으로하여 뜨거운것이 북받쳐올랐다.

얼마나 그리워하고 동경하던 조국이며 얼마나 절절한 심정으

로 경모하며 우러러 받들어온 수령님이신가!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 수령님께서는 귀중한 외화를 아끼시지 않고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으니 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시며 배려이신가!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는 인자하신 수령님이 계시고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온 몸에 새로운 용기와 힘이 솟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운 배려속에서 오늘 총련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자주교육체계를 가지고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실시하고있으며 자식들에게만은 자기들이 겪은 무지와 몽매의 쓰라림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재일동포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절절한 소원을 마음껏 풀어가면서 공화국공민된 높은 긍지와 행복감에 휩싸여있다.

이처럼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는 수령께 드리는 경모의 정으로 가득차있으며 그들의 심장은 그이께 드리는 충성의 격정으로 맥박치고있다.

교또에 사는 리동포는 《수령님의 혁명적가정과 그리고 초기혁명활동을 포함한 40여년간의 위대한 혁명투쟁력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흠모의 정으로하여 심장은 높뛰기만 한다.

김일성원수님을 민족의 수령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긍지와 자랑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웨치고싶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김청년은 《세계 청년들속에서 조선청년들처럼 행복한 청년들은 없다. 김일성원수님을 수령으로 모시고있으며 그이께서 몸소 이룩하신 조선청년운동의 뿌리를 이어받아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자랑과 행복과 휘황한 미래만이 약속되고있다.

수령님의 로작들과 그이의 위대한 혁명투쟁력사를 심오히 학습함으로써 자신을 그이께 무한히 충직한 전사로 단련해나갈것이며 일편단심 그이의 부름따라 나아갈것이다.》라고 결의다지였다.

한 《민단》동포도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시며 이 세상에 더 없는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이의 가르침따라 애국사업에 나설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의 이 숭고한 사상감정은 어느 한 계층이나 어느 한 지역에 사는 동포들만의 심정이 결코 아니며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사상감정인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륭성발전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을 그리워하는 재일동포들의 절절한 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계시며 오랜 세월을 두고 이국땅의 설한풍에 시달려온 재일동포들을 뜨겁게 안아주고계신다.

재일동포들에 대한 그이의 이 크나큰 사랑, 이 따뜻한 보살핌으로하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였으며 8만 8천여명의 재일동포들이 꿈결에도 잊지 못하던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이들 귀국동포들은 오늘 흠모하여 마지않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품에 안기여 그이의 온갖 육친적인 배려속에서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이 행복하게 살고있다.

이들은 모두다 각자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직장에 배치되여 조국동포들과 함께 보람찬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각기 재능과 소질에 따라 각급 학교에 입학하여 마음껏 배우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귀국동포들이 사회주의 조국의 품안에서 행복하게 살고있건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그들의 가정과 직장, 학교와 기숙사를 찾으시여 어버이와 같은 세심한 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신다.

그러기에 오늘 전체 귀국동포들은 경애하는 수령의 이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온갖 재능과 지혜, 창발성을 다 발휘하여 일편단심 당과 수령께 충실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공화국의 영예로운 해외공민단체이며 60만재일동포들의 강력한 민주주의적민족적조직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결성되였으며 공고발전되였다.

수령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총련의 지도밑에 재일동포들은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랑찬 업적을 쌓아올리고있으며 자기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있게 진행하고있다.

이리하여 재일동포들은 공화국의 공민된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계승자로서의 영예를 빛내이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총련의 이러한 업적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여 총련일군들과 애국적동포들에게 매 시기마다 국가수훈을 베풀어주셨으며 표창장과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교수, 부교수의 학직을 비롯하여 공훈배우, 공훈예술인 등 갖가지 영예로운 칭호를 베풀어주시였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서는 재일본조선인축하단성원들을 친히 만나시여 그들에게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으며 총련의 일군들과 애국적상공인들에게 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훈장을 비롯한 국가수훈과 표창의 영예를 안겨주시였고 총련의 애국사업에서 특출한 모범을 창조한 학교들과 분회들에는 내각결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칭호》를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혁명위업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가운데서도 재일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그처럼 극진히 보살펴주시며 그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빛발처

럼 밝혀주시고 그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신다.

재일동포들은 오랜 생활체험을 통하여 오직 수령의 령도를 따라 나아감으로써만 조국의 륭성발전과 민족의 번영도, 자기들의 행복도 있을수 있다는것을 굳게 믿고있으며 그이의 가르침대로 살며 싸울때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써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60만재일동포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그들에게 보람찬 투쟁과 승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덕수동지에게 보내신 신년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새해에 의장동지를 비롯한 총련간부들과 재일동포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공화국정부 주위에 굳게 뭉쳐 총련조직을 더욱 실속있게 꾸리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게 지키며 조국의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1968년에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월에 제기한 총련사업의 기본방향에 튼튼히 의거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을 가장 선차적이며 근본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그 어느 때 보다도 힘있게 벌렸다.

총련은 특히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전후하여 전개한 《100일간 혁신운동》을 통하여 정치사상사업을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벌렸다.

총련은 무엇보다도 먼저 일군들과 동포들속에 김일성원수의 교시를 철저히 침투시키는 한편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로작 그의 구현인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에 대한 학습 그리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학습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총련은 1968년—1969년도 학습계획에서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그이의 위대한 10대 정강, 수령의 혁명력사와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기본학습과목으로 제기하고 수령의 혁명사상,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깊이 연구체득하도록 일군들과 동포들속에서 학습을 철저히 강화하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이 학습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경축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총련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총련중앙 제8기 제4차회의가 있은 후 더욱 활발히 진행되였으며 일본각지에서 수령의 보고를 해설침투하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총련의 옳바른 지도에 의하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속에서는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수령의 로작학습과 정책학습, 혁명전통학습이 대중적운동으로 전개되였으며 그것이 제도화되고 생활화되여갔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자체를 튼튼히 무장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첫째가는 과업으로 여기고 그를 위하여 학습에 모든 정열을 다 기울였으며 이에는 실로 종래의 5배나 되는 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수령의 로작들과 당정책,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자체사업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힘썼다.

이리하여 총련일군들과 전체 재일동포들이 수령의 교시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을 자기들의 변함없는 의지로, 확고부동한 생활신조로 삼게 되였다.

모든 분회들에서 새벽독보회를 가지는 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였으며 동포들이 살며 일하는 모든 거주지와 직장들에서, 나아가서는 산간벽지의 토목공사장에서까지 동포들의 글읽는 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김일성저작선집》을 여러번 읽고 추려썼으며 그이의 위대한 10대정강은 평균 10번이상 읽었으며 그 중에는 50번, 100번 읽은 일군들의 모범이 창조되였다.

례하면 총련 히로시마현에서는 위대한 10대정강을 100번 읽은 일군들을 비롯하여 전체 일군수의 40%가 수십번씩이나 읽었으며 나머지 일군들도 모두 10번이상 읽고 추려썼다.

또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회상기》100번 읽기운동과 매일아침 한제목읽기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총련 도꾜도 아다찌지부 오끼노분회 일군들과 동포들은 《회상기》학습을 매일 아침 빠짐없이 진행하여 그 모범을 보이였다.

총련은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하여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수령의 따사로운 보살핌속에서》 등 수령의 로작과 혁명전통자료들을 무려 43만 1천여부나 새로 발간보급하였는바 이것은 지난 12년간에 발간보급한 50만부에 거의 맞먹는것으로서 수령의 교시와 로작학습, 정책학습과 혁명전통학습이 얼마나 광범한 대중적운동으로 전개되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실례로 된다.

이 과정에서 수령에 대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심에 의하여 일본각지에 정중히 꾸려진 《김일성원수연구실》을 거점으로하고 각종 교양망들을 통하여 수십만의 동포들을 김일성원수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고있다.

특히 강사들의 책임성이 높아짐에 따라 매개 학습반들에서는 종전의 주1회의 학습을 년말에 와서는 주2회~3회씩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되였다.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투쟁은 필연적으로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이러저러한 낡은 사상경향과의 투쟁을 동반하였다.

총련일군들은 조직사상생활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였으며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낡은 사상경향과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다.

이해에 총련은 수령의 로작 및 교시학습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총련은 일군들과 동포들로 하여금 김일성원수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깊이 학습체득하게 함으로써 조선혁명을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오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며 그이께 끝까지 충실하도록 교양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유일한 전통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발밑에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한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입니다.》(《김일성선집》 5권 317페지)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에 있어서 우선 일군들속에서 혁명전통을 애국전통과 혼돈하거나 비속화하는 사소한 경향에 대해서도 그를 견결히 반대하며 김일성원수께서 이룩하신 진정한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총련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였다.

총련은 이 해에도 수십만부에 달하는 혁명전통자료들을 출판보급하였으며 특히 김일성원수의 전기《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과 《조선인민의 넘원을 안고》를 출판보급하였다.

일군들과 동포들을 김일성원수의 혁명사상과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데서 거점으로 되는 《김일성원수연구실》이 총련의 각급 기관들과 분회, 사업체, 학교들에 실속있게 꾸려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였다.

일군들과 동포들속에서의 혁명전통교양은 이 해 4월 15일 수령의 탄생 56주년을 맞으면서 또한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앞두고 벌어진 《100일간 혁신 운동》기간에 더욱 군중적으로 심도있게 진행되였다.

혁명전통교양망은 지난시기보다 2배 이상으로, 거기에 망라된 일군들과 동포수는 5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주1회의 집체학습을 2~3회씩 진행하게 되였다.

《회상기》 백번읽기운동과 하루 한제목읽기운동은 이해에 더욱 많은 단위들에서 수많은 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을 망라하여 군중적으로 전개되였다.

특히 《100일간혁신운동》기간에는 《100일간혁명전통학습》이 수많은 분회와 직장들에서 진행되여 총련의 모범분회창조운동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총련 도꾜도 아다찌지부 오끼노분회, 가나가와현 가와사끼지부 나까오패분회, 효고현 히가시고베지부 히가시데분회를 비롯한 거의 대다수의 2중모범분회와 모범분회들에서는 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은 물론 관하 동포들 수의 절반이상을 망라하여 혁명전통집체학습을 진행하게 되였다.

또한 총련 오사까부 이꾸노시지부 미유끼모리 북4분회에서와 같이 동포들이 집중하여 살고있는 조건을 살려 골목단위 《회상기》독보모임, 록음듣기모임, 영화감상모임을 수시로 조직하여 관하 동포들을 혁명전통교양에 광범히 망라하고있으며 동포들이 흩어져 살고있는 곳에서는 5호담당제와 개별교양을 배합하여 관하 모든 동포들을 망라하고 있는데도 적지 않다.

혁명전통교양은 청년학생, 녀성, 상공인들 속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수 많은 학생들이 김일성원수의 혁명적가정과 초기혁명활동을 담은 《조선인민의 넘원을 안고》를 무려 수백번씩이나 읽고 그것을 본받아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혁명전통교양은 일군들은 물론 각계각층 동포들을 광범히 망라하여 군중적인 학습운동으로 전개됨으로써 그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총련의 제반 사업수행에서 애국적헌신성과 정치적창발성을 발휘하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으며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있다.

총련은 혁명전통교양을 군중적으로 진행함과 함께 그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이고 심도를 깊이하는데 주의를 돌렸다.

일군들과 동포들은 《회상기》한제목을 읽어도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확고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시고 조선인민을 올바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김일성원수의 현명한 령도와 높은 덕성, 혁명가적풍모를 깊이 연구체득하고 자신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조국을 멀리 떨어진 이국땅에 살면서도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를 받으며 총련사업에 헌신할수 있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 깊이 아로새기고 그이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끝까지 충실할 일념으로 총련이 내세운 과업들을 힘차게 수행하였였.

총련일군들은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였으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 명령과 지시에 어긋나는 현상과는 추호도 용서함이 없이 비타협적으로 싸운 항일유격대원들에게서 배움으로써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그리고 총련사업발전에 저애로 되며 일군들의 원칙적단결

을 좀먹는 온갖 낡은 사상경향과 비조직적현상을 반대하여 사상투쟁을 강력히 원칙적으로 진행하게 되였다.

또한 일군들과 동포들은 수령께서 주신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아무리 어려운 혁명과업일지라도 중도반단하는 일이 없이 제기일내에 수행하고야마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청산극복하고 총련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정력을 다 기울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오직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한 길을 따라 나아가고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

1968년에 총련은 동포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해에 총련은 성인학교, 청년학교 사업을 계속 강화하며 특히 20대, 30대의 남녀동포들과 동포상공인들을 광범히 망라하여 교양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첫공정으로서 우리 말과 글을 잘 배우도록 하며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확립하도록 하였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의 탄생 56주년과 조선인민군 창건 스무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서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새 전쟁도발책동이 격화된 조건하에서 각지에서 청년, 녀성, 상공인등 각계각층별로 대중정치선전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대중정치선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총련은 우선 군중선전교양체계와 수단들을 더욱 정비강화하는데 힘썼다. 이리하여 《김일성원수연구실》과 강연구들이 보다 잘꾸려졌으며 분회와 분회단위에서 5호담당제가 확립되였다.

특히 분회원들의 역할이 훨씬 높아졌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진행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총련은 재일동포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 힘썼다. 특히 위대한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 그이의 령도밑에 눈부시게 륭성발전하는 조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체득하고 원쑤를 철저히 미워하며 생활에서 양풍과 왜풍을 배격하고 민족주체를 세우도록하는데 힘썼다. 총련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군중적으로 진행하는데 노력하면서 구두선전에 큰 비중을 두고 매시기 대중강연사업을 체계성있게 조직진행하였다.

또한 대중교양의 중요수단인 출판보도사업의 정치사상성을 높이며 독자수를 늘이는데 주력하였다.

총련은 이해에 《조선주보》를 새로 발간하였다. 그리고 총련출판물들의 독자수를 늘이는데 힘썼다.

그리하여 지난시기보다 수배나 더 많은 각계각층 동포들을 망라하여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나아가는 자부심과 사회주의강국의 공민된 영예와 긍지를 안겨주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조국을 침해하려는 원쑤들을 철저히 증오하며 그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이 강화됨으로써 일군들과 동포들을 김일성원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높은 덕성,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고 그이의 령도를 따라 나아가는 공화국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총련애국사업수행에 힘차게 나서게 하였다.

총련조직을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

1968년에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총련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 먼저 주력하였다.

총련은 전체 일군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원칙적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또한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적원칙을 확고히 세웠으며 한편 기층조직인 분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이와 함께 총련은 각급 기관과 조청, 녀맹, 상공회 등 산하 단체조직들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한층 높이는데 힘을 기울였다.

총련은 정치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 자리에 놓고 그것을 힘있게 밀고나갔으며 각급 기관을 김일성원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된 일군들로 꾸리고 간부일군들의 교양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속에서 전체 일군들은 김일성원수의 교시를 무조건 관철하기 위하여 원칙적단결을 일층 강화하였으며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원칙을 튼튼히 세웠다.

총련은 각급 기관과 조청, 녀맹, 상공회 등 산하단체조직들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그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높이였다.

총련은 김일성원수의 위대한 청산리교시를 자체사업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고 한 단위에서 모범과 긍정을 창조하여 그를 적극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모든 일군들이 현실에 깊이 파고 들어 실정을 과학적으로 연구분석한 기초우에서 정확한 해결대책을 세우며 동포대중에게서 배우며 가르치면서 서로 힘과 지혜를 합하여 총련 결정관철에 전심전력하게 됨으로써 조직사업은 사람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전

확되였으며 총련의 결정이 동포대중속에 거침없이 들어가고 동포들이 과업실천에 적극 나서게 되였다.

특히 이해에 총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높은 사업성과와 애국적열성으로 맞이하려는 일군들과 동포들의 애국적충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100일간혁신운동》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였다.

《100일간혁신운동》 궐기모임들에는 무려 10여만명의 일군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운동은 총련의 모든 단위, 모든 분야에서 혁신의 불길을 일으켜 이해의 벅찬 과업들을 기한을 훨씬 앞당겨 2배, 3배로 넘쳐 수행할수 있게 한 힘찬 추동력으로 되였다.

《100일간혁신운동》과정에서 모든 일군들이 동포의 집을 한집한집 방문하면서 《100일간혁신운동》의 목적과 의의를 철저히 해설해 주고 제기된 과업의 내용과 의의 그 수행방도를 가르쳐주고 동포들과 같이 상론함으로써 그들을 과업관철에로 크게 불러일으켰다.

총련중앙은 주요 13개현지방본부들과 중소지방본부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방조사업을 진행하여 걸린 문제를 풀어주고 사업발전을 위한 구체적방도를 제기함으로써 실제사업에서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이 총련중앙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하부를 도와주게 되였으며 본부, 지부일군들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아래에 내려가 하부일군들을 적극 도와주고 가르쳐주며 걸린 문제를 풀어주고 서로 합심하여 사업을 밀고나갔다. 특히 《100일간혁신운동》기간에 본부, 지부일군들은 분회일군들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었다.

또한 일군들은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력량을 집중하여 무수한 긍정적모범들을 창조하게 되였다.

전체 재일동포들의 집단적 혁신운동인 《100일간 혁신운동》에서 달성한 성과는 바로 총련 사업에서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김일성원수의 청산리교시와 대안의 사업체계를 구현하여 사업체계와 방법을 크게 개선한데서 얻어진 빛나는 결실이다.

군중의 힘을 믿고 군중에 의거하며 군중을 발동시키는 청산리방법은 총련의 모범분회창조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100일간혁신운동》과정에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김일성원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들의 애국적 충성심과 창조적적극성이 높아짐에 따라 총련이 강화되고 그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개선됨으로써 모범분회창조운동이 더 한층 심화발전되였다.

1968년에 모범분회창조운동은 총련의 모든 사업분야를 포괄하여 총련분회, 조청반, 녀맹분회, 교육회, 학교교원과 학생집단, 상공회, 신용조합, 《조선신보》분국 등 1천 800여개의 총련 및 그 산하단체들의 기층단위들에서 힘차게 벌어졌다.

10월에 있은 총련분회 열성자 제7차대회에서는 실로 504개의 분회와 집단들이 2중모범분회 및 모범분회를 비롯한 모범칭호를 쟁취하였다.

이것은 1961년부터 1967년까지 7년간에 걸쳐 수여된 수의 약 2배에 달하는바 이 사실은 모범분회창조운동이 1968년에 들어와 특히《100일간혁신운동》기간에 얼마나 확대발전되였는가를 말해주는것이다.

모범분회창조운동은 총련앞에 나선 과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거대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칭호》를 받은 총련 후꾸오까현 나가바루분회를 비롯한 많은 모범분회들에서는 전체 분회위원들을 총련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도록 교양육성하며 열성자대렬을 부단히 확대공고화하고 각계각층 동포들을 자기 조직에 망라하였다. 또한 분회위원들의 성격, 취미, 체질에 맞게 분공을 조직하며 그 실행을 일상적으로 방조하고 제때에 총화함으로써 분회사업을 분회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이리하여 많은 분회들에서는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총련의 기층조직으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어김없이 실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칭호》를 받은 총련 히가시고베지부 히가시데분회를 비롯한 많은 분회들이 자기 조직을 튼튼히 꾸려 1968년도 과업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한 사실은 그에 대한 한가지 실례이다.

모범분회창조운동을 통하여 지난날 파묻히고 억눌리고 짓밟혔던 동포대중의 지혜와 재능은 오늘 활짝 꽃피고있으며 그것은 총련의 애국사업에서 마침내 자랑찬 열매를 맺고있다.

이와 같이 모범분회창조운동을 비롯한 모범창조운동이 더욱 줄기차게 전개됨으로써 총련조직은 김일성원수의 혁명사상이 틀어차고 확고한 대중적지반을 가진 위력있는 조직으로, 내외 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자체 조직을 튼튼히 보위하며 동포들의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킬수 있는 조직으로, 수령의 부름따라 조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업

1968년에 총련은 내외반동들의 탄압박해책동을 견결히 반대하며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와 귀국의 권리를 비롯한 모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는 위대한 10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조선공민들의 민족적권리를 침해하며 그들을 박해하고 멸시하는 모든 부당한 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것이며 해외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을 언제나 견결히 지지성원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80페지)

수령의 이 교시에 고무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공화국공민된 긍지와 민족적자부심을 더한층 높여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하게 떨쳐나섰다.

일본사또반동도당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이른바 《동화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학교법》을 꾸며내려고 미쳐 날뛰였으며 조선대학에 대한 인가를 계속 방해하여왔다.

때문에 총련과 동포들은 일본반동정부의 이 흉악한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1967년 3월에 《외국인학교법안》의 반동성을 폭로규탄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보장할것을 요구하여 전기관적, 전동포적인 대중적인 투쟁을 벌리는 동시에 광범한 일본인민들과 국제여론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하였다.

일본사또반동정부가 《외국인학교법안》을 립법화하려고 책동한 1967년 3월부터 1968년 5월까지 사이에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14만명에 달한다. 이 투쟁에는 일본의 이름있는 학자, 문화인 8만명도 참가하였다. 또한 일본의 각 정당들과 6천여개에 달하는 사회단체들이 《외국인학교법안》을 반대하며 조선대학설치인가를 요구하였다.

일본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61개에 이르는 지방자치체의회들이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의 권리옹호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재일동포들은 거세찬 투쟁과 사회여론의 압도적인 지지속에서 4월 17일 조선대학의 인가를 쟁취하였으며 6월에는 세번째로 《외국인학교법안》을 페안하지 않을수 없게 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조선대학을 포함한 7개학교의 설치인가와 4개현의 교육회법인인가를 새로 쟁취함으로써 1968년말현재 자주학교 149교중 135교, 25개 현교육회중 23개 현교육회가 법인인가를 쟁취하여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합법성을 더욱 확대공고화하였다.

총련은 이해에 학부형들과 동포들의 드높은 애국열성에 의거하여 조선대학제2연구당을 비롯하여 11개 학교의 새 교사들을 1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훌륭히 건설하였다.

특히 우리 학교가 없던 니이가다에 처음으로 우리 초중급학교가 훌륭히 건설되였으며 오사까에서는 여러곳에 현대적인 새 교사들이 웅장하게 건설되였다.

또한 총련은 교육일군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교육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조직사상사업을 강화하였으며 학교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교원들이 교수교양사업의 질을 한층 높였으며 학교내 소년단, 조청단체가 더욱 강화되고 학생들속에서 수령을 따라배우기 위한 학습열의가 한층 높아졌다.

사또반동도당은 특히 《외국인등록증 개신》놀음을 계기로하여 재일동포들에게 《영주권신청》과 괴뢰《한국국적》을 계속 강요하기 위하여 《영주권신청 절차 간소화》니 《대우개선》이니 하는 기만선전을 요란스럽게 퍼뜨리면서 모든 권력기구와 수많은 특무들을 동원하여 위협, 공갈, 협박 등 온갖 수단을 다하였다.

총련은 《한일협정》의 범죄적인 내용과 그 본질을 내외에 철저히 폭로하는 동시에 계통적인 대중정치선전사업을 통하여 전체 재일동포들이 그를 반대배격해 나서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자기들의 공화국공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 바로 공화국의 주권을 옹호하는 중요한 투쟁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였다.

특히 《외국인등록증갱신》 시기에 내외반동들의 범죄적인 책동이 일층 로골화되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공화국공민의 영예를 고수하기 위하여 내외반동들의 《영주권신청》과 괴뢰《한국국적》강요책동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이와 같은 투쟁속에서 도꾜, 오사까, 사이다마, 미에 등지에서는 일본반동당국이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괴뢰《한국국적》 강요 행위를 정식으로 사죄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범죄적책동을 파탄시켰다.

지난시기 내외반동들에 의하여 부당하게 괴뢰《한국국적》을 강요당한 동포들속에서는 조선국적으로 고치는 운동이 더욱 강화되였다.

이리하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내외반동들의 보다 우심하고 악랄했던 범죄적책동을 배격하고 공화국공민된 영예를 굳건히 고수하였다.

총련은 또한 귀국사업의 즉시재개와 조국으로의 왕래자유의 전면적실현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재일동포들의 귀국사업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재일동포들의 조국으로의 왕래의 자유를 한사코 가로막았다.

미제의 새전쟁도발책동에 적극 가담해나선 일본반동당국은 조일적십자단체간의 모스크바회담과 뒤이어 열리였던 콜롬보회담을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

계속하여 일본반동당국은 저들의 부당한 태도를 고집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며 여론을 기만하고 귀국사업의 즉시재개를 요구하는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하기 위하여 갖은

술책을 다하였으며 5월 28일 공화국적십자회가 내놓은 정당한 제의를 덮어놓고 거부하였다.

뿐만아니라 일본반동당국은 귀국사업을 전면적으로 파괴하려고 귀국자집결소인 니이가다쎈터를 완전히 폐쇄하고말았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일본반동당국의 귀국사업파괴책동을 견결히 폭로규탄하며 공화국적십자회의 제의대로 조일적십자회담을 즉시 열고 귀국사업을 끝까지 보장할것을 요구하는 군중집회와 항의요청투쟁을 쉴새없이 진행하였다.

일본 사또반동도당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투쟁에만도 10수만명의 동포들이 참가하였으며 또한 지방에서도 수많은 동포들이 련일 지방당국에 대한 항의요청투쟁에 떨쳐나섰다.

재일조선공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일본의 77개 중앙단체를 망라하고있는 《재일조선인의 귀국과 민족교육을 지키는 련락회의》를 비롯하여 광범한 일본인민들이 적극적인 지원행동을 전개하였으며 자기 정부당국에 대한 항의요청에 각계층 대표들이 수많이 참가하였다.

이와 같은 군중투쟁을 완강히 전개하는 한편 총련은 조국에로의 자유래왕을 위한 《법적》 투쟁을 적극 전개하였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의 일본《재입국불허가》를 취소하는 도꾜지방재판소 및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내리게함으로써 일본반동정부당국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내외여론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어느 외국도 아닌 바로 일본의 재판소에서 일본반동정부당국이 패배한 이 엄연한 사실은 20년간이나 재일조선공민들을 감금상태에 얽매여놓은 일본정부의 탄압과 민족적차별책동이 얼마나 악랄한것인가를 실증한것으로 된다.

총련의 지도밑에 재일동포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8명의 동포들이 일본재입국허가를 쟁취하여 그리운 조국을 방문할수 있게 되였다.

1968년에 총련은 재일조선공민들의 공민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동포상공인들의 기업권을 비롯한 재반 권익을 지키며 동포신용조합사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사또반동도당은 재일조선공민들의 인권과 생활상권익을 심히 침해유린하였다. 특히는 전체 재일동포들이 총련조직에 굳게 뭉쳐 자기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며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합법적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권리를 유린박탈하려고 총련조직을 파괴 탄압하기에 미쳐날뛰였다.

또한 놈들은 소위 《북조선간첩사건》, 《밀출국사건》을 날조하여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에 광분하면서 총련간부들을 부당하게 체포하며 총련조직을 탄압하려고 간악하게 책동하였다. 일본반동당국은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하여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강제추방을 더욱 손쉽게 하려고 획책하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사또반동도당의 이러한 범죄적책동의 본질을 제때에 철저히 폭로규탄하였으며 총련조직의 합법적지위를 공고히 하고 수많은 강제추방대상자동포들의 재류권을 적극 옹호하였다.

한편 동포들의 생활상문제들을 적극 해결하여주면서 공화국공민다운 생활기풍을 세우도록 힘썼으며 동포애적구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총련은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상공회조직을 튼튼히 꾸리게하였다. 또한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일본반동정부의 소위 《사찰》, 《특별조사》등의 부당한 탄압을 견결히 반대하고 동포상공인들의 기업권을 비롯한 제반 권익을 적극 옹호하였다.

동시에 동포상공인들속에서 상부상조의 미풍을 발양하여 여러가지 협동사업을 강화하며 공동구입, 공동판매사업을 더욱 발전시켰다.

특히 총련산하 28개 신용조합은 1968년도 년간사업지표를 4개월이나 앞당겨 수행하여 8월말에는 10만 1,787명의 조합원과 787억 7천 500만원의 예금액을 가지게 되였으며 아오모리현과 이와데현에서 새로 동포신용조합 설정인가를 쟁취하였다.

수령의 강령적 교시를 높이 받들고 총련이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이와 같은 성과는 오직 총련만이 원쑤들의 탄압과 박해책동을 철저히 반대하고 재일동포들의 권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그들의 진정한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것을 내외에 뚜렷이 실증하였다.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위업을 하루바삐 완수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의 숭고한 민족적임무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44～545페지)

총련은 위대한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일군들과 동포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혁명사상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강유력한 사상리론실천적무기로 되고있으며 총련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위한 초석이며 총련의 모든 사업의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담보로 되고있다.

총련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회의에서는 《미제의 조선에서의 새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토의 결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100일간혁신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총련은 우선 일군들과 동포들의 조국통일에 대한 관점을 바로세우기 위하여 그들속에 조국통일에 대한 김일성원수의 위대한 구상과 그의 구현인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침을 체계적으로 해설침투하는 한편 일군들과 동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결같이 움직일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이 사업을 전기관적, 전동포적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총련은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하여 조성된 긴급한 정세에 비추어 재일동포들속에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불러일으키게 힘썼다.

이와 함께 총련은 미제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를 붙잡은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자위적조치의 정당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였으며 날강도 미제침략자들의 범죄적행위를 온 세계에 철저히 폭로하였다.

한편 총련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폭압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 각지에서 급격히 확대발전하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무장유격투쟁을 마치도 《북으로부터의 침입》인듯이 떠벌이면서 미친듯이 《반공》소동을 벌렸으며 인민혁명당《사건》,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통일혁명당《사건》등 각종 《사건》들을 조작하여 매일과 같이 살인재판놀음을 벌려놓고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극형과 중형에 처하는 천추에 용허못할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총련은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제때에 성명과 담화를 통하여 또는 여러가지 형태의 크고작은 수많은 군중모임과 각종 선전물들을 통하여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도당의 《반공》, 《반공화국》선전과 소위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터무니없는 허위기만선전을 철저히 폭로하는 동시에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을 혈육의 정으로 열렬히 지지성원하였다.

또한 총련은 미제의 사촉하에 매국역도 박정희도당의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살인재판놀음을 철저히 폭로규탄하면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내외여론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결과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는 미제와 그의 개 박정희괴뢰도당의 살인재판놀음을 견결히 규탄하는 동시에 검거투옥된 남조선혁명가들의 즉시 무조건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왔으며 수많은 일본인민들이 괴뢰주일《대사관》에 몰려가 집단적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총련은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미제의 조종하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박정희도당과 정치, 경제, 군사적 결탁을 더욱 강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보다 로골화하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을 폭로규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총련은 남조선인민들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남조선으로부터의 래왕자들을 동포애적심정으로 맞이하는 운동을 전동포적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총련은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민단》산하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하층단합을 위주로 한 통일전선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매국도당은 《반공》의 구호밑에 《시국강연회》요, 《민중대회》요 하는것들을 벌려놓고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을 요란스럽게 벌리면서 《민단》산하 동포들을 저들의 범죄행위에 끌어들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총련은 《민단》 산하 동포들을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위대한 주체사상,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에 대한 교양을 하기 위해 적극 로력하였다.

이와 함께 총련은 3.1봉기 등 민족적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가질데 대하여 거듭 제의하는 한편 인권과 민족적권리옹호 등 절박한 생활상문제를 가지고 《민단》과 그 산하 동포들과의 공동행동과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그들과의 단합사업을 주동적으로 능숙하게 진행하였다.

특히 총련은 모범분회창조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민족단합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많은 긍정적 모범들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공》, 《반공화국》, 《반총련》소동과 민족분렬책동을 철저히 파탄시키고 《민단》산하 동포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나서도록 하였다.

《민단》산하 동포들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적극지지하여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총련은 내외반동들의 민족분렬책동을 견결히 반대하는 동시에 동포들속에 《통일세력》의 가면을 쓰고 민족분렬책동을 일삼고있는 일부분자들의 정체를 발가놓았으며 놈들을 철저히 고립시켰다.

이와 같이 1968년에 총련은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실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총련이 이룩한 이 모든 성과는 김일성원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구현한 총련결정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실증하였으며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나아가는 총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문학예술, 체육 및 출판 보도 사업

총련은 이해에도 문학예술, 체육 및 출판보도 사업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동포대중속에 사회주의적민족문화와 예술을 활짝 꽃피우며 출판물들의 보급망을 늘이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총련의 지도밑에 작가, 예술인들은 동포대중속에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그이의 높은 덕성 그리고 빛나는 혁명력사를 선전함에 있어서 우선 자신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철저히 체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과에 수령에 대한 충직성,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를 위한 투쟁, 나라의 자주적통일촉진을 위한 투쟁을 내용으로 한 문학작품과 미술작품 및 연극, 영화작품들이 창작되여 동포들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경축하는 문예작품현상모집, 중앙예술축전, 미술전람회 등의 행사를 통하여 정치사상성이 높은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문학부문응모작품으로 110편의 단편소설을 비롯하여 희곡, 수필 등 산문작품과 대화시, 동시, 가사, 동요 등이 있으며 음악무용부문에서도 새로운 노래와 춤들이 창작되였다.

문예작품현상모집응모작품들에는 재일동포들이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 있는 모습들이 묘사되고있다.

또한 작품들에는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형상되여있다.

응모작품들은 그 어느 작품에서나 경애하는 수령의 깊은 사랑과 크나큰 배려에 고무되면서 수상님을 무한히 흠모하고 그이께 끝까지 충실하려는 불타는 충성심이 넘쳐흐르고있었다. 또한 중앙예술축전(11월 12일—18일)에는 많은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축전은 학생부문, 일반부문, 가무단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였는데 출연자들은 2백여종목을 가지고 공연하였다. 예술축전에 앞서 상연된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경축하는 대음악무용서사시《위대한 수령께 영광을 드립니다.》는 재일동포들과 청소년, 예술인들의 수령에 대한 충성의 송가로써 총련의 교육문화사업의 자랑스러운 성과를 집대성하여 내외에 과시한것이였다.

미술부문에서도 공화국창건스무돐기념미술전람회를 가지였다. 전람회에는 36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거기에는 《100일간 혁신운동》에서 이룩된 성과들과 재일동포들의 투쟁모습들을 묘사한 작품들이 많았다. 또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을 그린 《4천만의 위대한 수령을 우러러》, 《초소—지하조직회의》, 《해빛을 찾아서》등 우수한 성과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이밖에 조각, 무대예술, 만화 등의 성과작품들도 적지 않게 출품되였다.

재일본조선중앙예술단은 174회의 공연에 30만 2천여명을, 연극단은 67회의 공연에 3만 3천여명, 각 지방 가무단은 연 3천 300여회의 공연을 통하여 40여만명의 관객들을 구경시켰다.

축구단은 200승의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과학연구사업에서도 주체가 서고 높은 연구성과가 이룩되였다.

이해에 총련의 출판보도사업도 더욱 발전하였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9월서방》을 비롯한 출판보도기관들의 지반이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출판보도내용의 정치사상성도 보다 높아졌다. 《조선신보》, 《조선청년》, 《조선녀성》, 《조선상공인신문》, 《시대》, 《조선주보》 등을 비롯한 우리 말로 발간되는 신문잡지들과 외국말로된 《조선시보》, 《피플스코레아》 등 30종의 출판물들의 독자수가 계속 늘었다.

대외사업

1968년에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높이 받들고 대외사업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

총련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의 정당성과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과 고귀한 경험들을 일본인민들과 세계 인민들에게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총련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당대표자회보고,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비롯한 그이의 로작들과 교시들을 각종 출판물들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특히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의 보고는 각계각층의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각국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 보고에 접한 광범한 일본인민들이 김일성동지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우러러보면서 무한히 경모하며 두터운 신뢰를 표시하고있다.

한편 총련은 미제의 조선에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철저히 폭로규탄하고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과 관련하여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당시 총련은 미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과 전쟁정책을 폭로규탄함으로써 일본인민들과 세계인민들로 하여금 미제를 규탄하고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해 나서도록 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1968년에 총련은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8월에 진행된 14차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대표단을 보내여 국제반제평화옹호운동의 발전과 대회의 성과적진행에 기여하였다.

총련은 일본의 정당, 사회계,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층의 광범한 일본인민들에게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조국통일방안을 끊임없이 소개선전함과 함께 조일 두 나라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범죄적책동을 폭로규탄하는 공동투쟁을 통하여 일본인민들과의 련대성을 일층 강화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조국통일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에 대한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총련은 조일 두 나라 인민들간의 경제문화교류와 인사왕래의 촉진, 일본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였다.

이해에 총련 한덕수의장은 윁남민주공화국창건 23주년에 즈음하여 호지명주석에게,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15주년에 즈음하여 피델 까스뜨로 루쓰수상에게 축전을 보낸것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축전을 교환하였다.

총련결성 13주년에 즈음하여서는 세계 여러 나라 사회계와 국제기구로부터 총련결성 13주년을 열렬히 축하하는 동시에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총련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며 앞으로 총련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는 수많은 축전들을 받았다.

총련은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대외정책을 높이 받들고 대외사업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을 높이였으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받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는 1955년 5월 25일 결성되였다.

총련은 사상, 정견, 신앙 및 사회적지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총련의 강령과 규약을 지지승인하는 재일본조선인단체와 인사들로 구성되여있다.

총련은 전체 재일조선공민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그들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공화국정부주위에 결속시키는 유일한 민주주의적조직체이며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재외공민단체이다.

총련은 48개의 지방 현본부들과 300여개의 지부 및 2천여개의 분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산하에는 조청, 녀맹을 비롯한 13개의 계층별단일단체들과 과학, 문화, 예술, 출판보도, 경제 등 13개의 사업기관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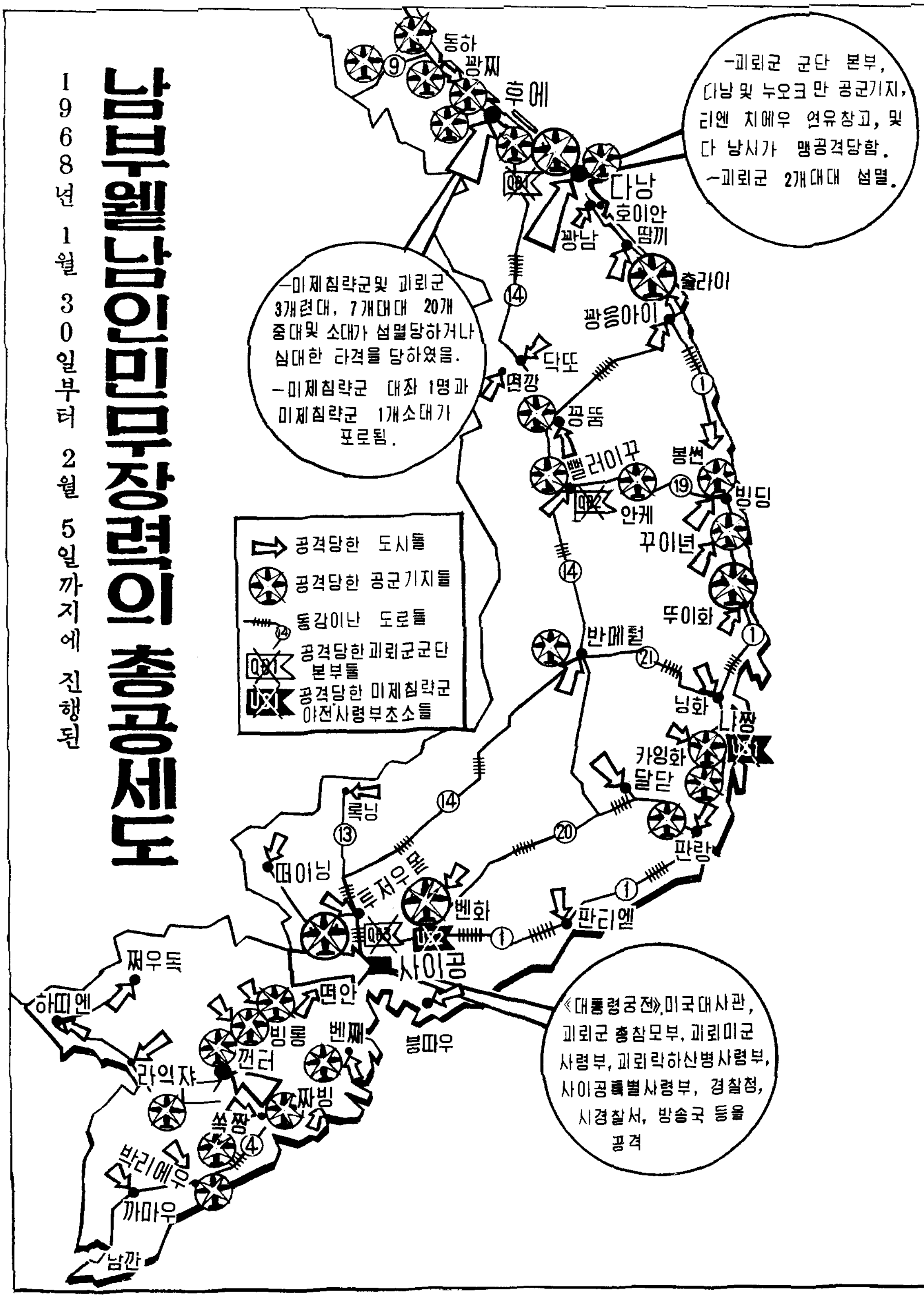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한덕수**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재일본조선인중앙교육회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재일본조선인과학자협회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재일본조선인상공련합회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협회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재일본조선인통일동지회
재일본조선인불교도련맹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구월서방
학우서방
조선문제연구소
조선화보사
시대사
조선중앙예술단
조선연극단
조선총련중앙학원
재일본조선인통신교육협회
동해상사주식회사
조선청년사



…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 대회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는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국제서술



남부윁남인민무장력의 총공세도

1968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에 진행된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실뿐만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다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가정에서 태여나시여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간 오직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고계신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그 진두에서 15성상 준엄한 시련을 몸소 타개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튼튼한 터전을 닦아놓으시였다.

해방후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당과 인민정권—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창건하시고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자주적인 혁명로선에 기초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심으로써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전변시키시였다.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을 원수격멸의 승전에로 령도하시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미제국주의자들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에 인민경제의 어려운 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였으며 전체 인민을 천리마대진군에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 나라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불패의 방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면서 동시에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위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의 수행에로 전체 조선인민을 조직동원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뿐만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거대한 공헌을 하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세계혁명발전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해결방도를 제시하시고 실천적투쟁을 통하여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고수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세계혁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계신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풍부한 경험과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과 세계적인 초미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있으며 그이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가장 위대하고 걸출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우러러 보면서 그이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존경을 보내고있다.

아래의 자료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40여년간의 혁명투쟁력사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탁월한 령도와 높은 덕성, 그이의 천재적인 로작들에 대한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출판물들의 수많은 반향 가운데서 1968년도에 발표된 일부 자료들을 종합한 것이다.

김일성동지의 40여년간의 혁명투쟁력사 그리고 조선혁명에 대한 탁월한 령도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시절부터 혁명활동을 개시하시였고 손에 무장을 들고 15성상 피어린 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강도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시였다.

해방후에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혁명적로선을 제시하시고 가혹한 착취와 압박,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를 오늘과 같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와 불패의 방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조선혁명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그이의 령도하에 혁명과 건설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은 제국주의 특히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시절부터 혁명활동을 개시하시였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남부웰남해방직업련맹 대표단 단장 휭 판은 《김일성동지께서는 14세의 어린나이였으나 매우 큰 뜻을 품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제를 물리치지 않고는 조국에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시였다. 우리는 열네살때 무엇을 알았겠는가?

김일성동지는 세계력사에 드문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말하였다.

아랍 신문 《쥬르날 에집션》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전세계의 위대한 반제투사의 한분이신 김일성수상》이라는 표제의 론설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직은 귀여움을 받을 어린 나이에 벌써 혁명적인 항쟁의 길에 오르시여 그 활동의 폭을 넓히심으로써 나라의 해방자로, 온 아세아의 위대한 영웅의 한분으로 세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견결한 투사의 한분으로 되신 그 분에 대하여 생각하고있다.

그분은 다름아닌 김일성수상이시다.》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베네수엘라대표 로베르또 로드리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찌기 15살때부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이후 그이의 40여년간의 혁명투쟁력사와 혁명업적은 실로 찬란하다. 그러기에 전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그이를 세계혁명의 탁월하고 위대한 령도자로 칭송하고있는것이다.

그이는 혁명투쟁을 어떻게 전개할것인가 하는것을 가르쳐준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아바나주재 브라질 혁명조직대표 알루이시오 베라노는 《조선인민의 천재적인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부터 조선인민이 나아갈 혁명투쟁의 앞길을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합법적혁명활동을 위한 가장 초보적인 가능성마저 억제당하였던 당시 조선의 구체적현실을 깨뚫어보시고 혁명을 발전시키며 인민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정당한 방침으로써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조직발전시키셨다.》고 하였다.

쎄일론신문 《스릴라거》 1968년 4월 16일호는 《김일성수상》이라는 표제의 론설에서 《반일투쟁이 수많은 제한성과 결함으로 하여 실패하고 조선인민이 간악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폭압통치하에서 신음하고있던 간고한 나날 젊은 김일성수상께서는 새로운 반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백두산에서 혁명의 홰불을 높이 추켜드시였다.》라고 썼다.

알제리 《라 레뿌블리크》지는 항일유격대창건 36주년을 기념하는 론선에서 《항일유격대가 창건됨으로써 일제에 의하여 천대받고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헤매던 조선인민은 억압자들을 무력으로써 내몰수 있는 자기의 첫 인민적무장력을 가지게 되였다. 1930년대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일대 결정적전환의 시기였다.》라고 썼다.

캄보쟈신문 《소리아》 1968년 4월 11일호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조선인민》이라는 표제의 론설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수상께서는 1932년 4월 25일 조선의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애국적인 청년들로써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뿐만아니라 해방지역에서는 인민혁명정권이 수립되고 반제반봉건적인 제반민주주의적개혁이 실시되였다. 이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들이 이룩되였으며 그것이 해방후 조선인민의 새조국건설에서 귀중한 경험으로 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외부의 물질적지원도 없이 무기와 탄약, 피복과 식량을 비롯한 모든것을 원쑤와 싸우면서 자체로 해결하여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파시즘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이라크신문 《알 무와틴》 1968년 6월 25일호는 아바나문화대회에서 채택된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에 조직전개된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의 문헌 전문을 게재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수상께서 조직전개하신 15성상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은 반혁명무력에 혁명무력으로 대항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다른 모든 형태의 대중운동을 힘차게 고무추동하고 각계각층인민들에게 강력한 혁명적영향을 주어 전반적 조선혁명운동을 일대 앙양에로 불러일으켰다.》

꾸바공산당 라스 빌라스주당공업비서 알도 디아스는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진행된 보천보전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조선인민뿐만아니라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 이 승리는 몬까다에서 되풀이되였으며 베네수엘라와 꽁고(킨)에서 되풀이되고있으며 앞으로 3대륙의 모든 싸우는 나라들에서 되풀이될것이다.》

알제리 로조활동가 미스라우이메지안은 《사실상 보천보의 밤하늘에 오른 투쟁의 홰불은 일본제국주의강점하의 식민지철채밑에서 신음하던 조선인민에게 생기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서광으로 되였을뿐만아니라 그당시 파쑈독일과 이딸리아, 일본제국주의, 미영제국주의 등 모든 제국주의침략자들의 발굽밑에서 신음하던 전세계의 혁명적인 피압박인민들에게 투쟁의 신심을 안겨주는 거대한 사변으로 되였다.》라고 말하였다.

알제리혁명박물관 관장이며 알제리 옛투사 전국리사회 알제주리사회 의장인 모하메드 쉐리프

주아디는 《항일무장투쟁은 간고한 투쟁이였다. 이 투쟁에서 특히 우리들을 경탄케 하는것은 15년간의 항일무장투쟁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하신 김일성수상의 비범한 정치, 군사적령도이다.

나는 정치와 군사를 밀접히 결합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지도하신 김일성수상의 전략적방침과 그이께서 직접 창조하신 다양한 유격투쟁경험들이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기여를 하리라고 확신한다.

특히 나를 감동시킨것은 김일성수상께서 직접 대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시여 언제나 그들속에서 생활하시고 위험한 때일수록 싸움의 앞장에 나서시여 난국을 친히 헤쳐나가신것이다.… 혁명의 령도자와 인민대중의 굳은 통일단결—이것은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가져다준 중요한 요인이다. …인민대중속에 뿌리를 내린 혁명투쟁은 승리한다. 항일무장투쟁은 바로 이와같은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해주었다.》라고 말하였다.

아바나주재 가이아나인민진보당대표 랄 바하두르는 아바나 문화대회에서 채택된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에 조직전개된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문헌을 읽고 《이 문헌이야 말로 미제를 반대하며 나라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혁명적 인민들에게 투쟁의 방도와 경험을 가르쳐주는 진정한 교과서이다.》라고 말하였다.

까나리아섬 자결독립운동 총비서 안또니오 꾸빌로는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15성상에 걸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력사적로정은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자기자신의 힘에 대한 신심, 그리고 부단한 정치사상사업으로 하여 애국주의정신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인민들과의 긴밀한 련계에 기초하고있는 전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이룩된 이 모든것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귀중한 보물고로 된다.》라고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하고 령활한 전략전술로써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미국력사상 처음으로 참혹한 군사적패배를 주었다.

꽁고(레)혁명최고리사회 위원장 가스톤 수미알로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원수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로서 전세계에 광범히 알려졌으며 앞으로도 계속 알려질것입니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끝없이 존경을 표시하고있는 꽁고(레)혁명최고리사회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미제침략자들의 소위 〈강대성〉에 대한 신화가 조선땅에서 분쇄되였다는것을 다시한번 굳게 확언하는 바입니다.

이와같이 두세기동안이나 자기의 소위 〈강대성〉을 자랑해오던 미제침략자들은 114회의 저들의 침략전쟁에서 처음으로 조선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세계혁명운동에는 지도자들이 많은것은 사실이나 김일성수상과 같이 위대한 지도자는 드문것입니다.

이로부터 꽁고(레)혁명최고리사회는 전세계인민들이 그처럼 열렬히 흠모하여마지않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에게 련대성을 표시하게됨을 무한한 행복으로 여기고있는것입니다.》

쎄일론의 사회활동가인 프레마랄 쿠마라시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킨데 대하여 규탄하면서 《유엔의 기발아래 감행된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은 김일성원수님이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김일성수상의 현명한 령도하에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달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세계프로레타리아트의 성새인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를 수호하는 초병이며 국제무대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사회주의나라이며 해방투사들에게 고무를 주는 원천이다.》라고 말하였다.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은 1968년 6월 19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철거를 위한 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발표한 호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전조선을 강점할 목적으로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미제는 유엔의 간판밑에 저들의 륙해공군의 대부분과 15개추종국무력까지 끌어들여 가장 야수적인 전쟁방법으로 도시와 마을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조선인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인민군대와 인민은 김일성원수의 탁월한 령도밑에 영웅적으로 싸워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였으며 전세계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과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를 위한 투쟁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인민이 달성한 이 력사적 승리는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을 굴복시킬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알제리신문 《라 레쀼블리크》 1968년 6월 26일호는 《미제의 내

리막길의 시초》라는 표제의 글에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하에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조선인민의 력사적승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의 승리는 미제침략자들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인민은 미제침략군이란 〈불패〉의 군대가 아니며 미제와 싸운다면 놈들을 타승할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창조하였다.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 조선인민의 이 위대한 경험은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며 특히 미제가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정책에 매달리고있는 오늘의 복잡한 정세하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인민의 이 위대한 승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의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조선력사에서 있어보지 못한 민족적 대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은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전조선을 재더미로 만들어놓고 〈조선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것이다〉라고 떠벌렸다.

그러나 조선은 김일성수상의 현명한 령도밑에 재더미로부터 불과 몇해동안에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보통 발전인것이 아니라 수백년동안 발전한 구라파의 수준에 도달한 그러한 발전이다.

현재 조선은 공업, 농업, 도로, 철도 등 모든 분야에서 구라파의 발전한 나라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정말 이것은 경탄하지않을수 없는 일이다.》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줄리어스 케이 니에레레는 《우리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각하의 현명한 령도하에 조선인민이 귀국을 보위함에 있어서 또한 귀국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일을 하였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당신들을 축하하며 또한 우리는 당신들로부터 배울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캄보쟈신문 《소반품》 1968년 6월 17일호는 《조선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김일성수상의 현명한 령도》라는 표제의 론설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김일성수상의 탁월한 령도를 지적하고 특히 김일성수상께서 제시하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이 경제로선은 철두철미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립장에서 작성되였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수상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함으로써 나라를 짧은 기간에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조선인민은 자기들을 그처럼 믿어주시고 아껴주시며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의 령도의 현명성과 덕성에서 앞날의 승리와 영광을 찾고있으며 따라서 수령의 교시를 이악하게 관철하고있다.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일대 고조가 일어나고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기적이 창조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조선인민이 달성한 성과는 김일성수상의 혁명적전개력과 령활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가능하였던것이다.》

일조협회 회장 나가노구니스께는 《김일성수상은 력사를 창조한 지도자이시다. 이런 지도자의 출현은 몇세기에 한두번 있기도 힘들다.

김일성수상의 청산리지도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밝혀진 진리는 모든 나라에 다 해당될수 있는 맑스-레닌주의의 산 모범이다.》라고 말하였다.

캄보쟈신문 《소반품》 1968년 6월 17일호는 천리마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조선인민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수령의 부름을 받들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절약하고 증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높임으로써 내외의 원쑤들에게 반격을 가하였다.

위대한 천리마운동은 조선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되였다. 이 운동은 자연과 사회 그리고 사람의 의식령역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변혁을 일으키게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돐 경축대회에서 연설한 캄보쟈왕국정부 외무상 노로돔 프리싸라는 《당신들은 김일성수상의 정확하고 현명한 령도하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들고 천리마속도로 전진하여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당신들의 경험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로부터 새로 해방된 모든 인민들을 위한 찬란한 모범으로 되고있으며 암흑과 반동세력에 대한 승리의 신심을 굳게 하여주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원우수위원장이 보내온 축전에는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라는 구호하에 조선인민은 천리마의 속도로 수많은 난관과 희생을 극복하면서 전쟁의 상처를 빠른기간내에 가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락후한 농업국가로부터 현대적이고 발전된 공업과 부단히 향상되는 물질문화생활과 미제와 그와 결탁한 일본군국주의도당 및 박정희괴뢰도당의 온갖 새전쟁도발음모와 책동을 분쇄할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로, 남조선을 해

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위한 확고한 기지로 전변시키는데서 휘황한 승리들을 달성하였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우루과이 기자 쌀로몬 쑤추아르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풍부한 식량과 국가에서 지어준 아담하고 화려한 문화주택에서 풍족하게 사는 농민들을 보았으며 기술학교와 대학 그리고 모든 농촌마을의 탁아소와 유치원들에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나라의 배려를 받고있는것을 보았다. 전국적으로 관수시설이 잘되고 한치의 땅도 묵이지않고 기름지게 가꾼 모든 땅에서 풍요한 결실이 무르익고있다. 또한 모든 농촌에 전기가 들어갔다. 우리는 이 휘황한 현실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여기서 가슴뜨거이 느끼게 되는것은 농촌에 대한 김일성수상의 크고도 세심한 배려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돐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던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교육성국무비서 리쵸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의 현명한 령도밑에 짧은 기간에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교육분야에서 휘황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조선에서 진행되고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은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의 모범으로 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이미 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으며 청소년들은 먹을걱정, 입을걱정을 모르며 아무러한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배우고있다. 청소년들을 교육교양하기 위한 훌륭한 학교들과 각종 설비들이 이르는 곳마다에 갖추어져있다.》

라틴아메리카대학생기구 위원장 움베르오 에르난데스 데이노쏘는 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고 감상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소년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투사들로 자라나고있다.

이 소년궁전을 통하여 조선소년들이 외래침략자들을 때려부실수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자라나고있음을 볼수있다.》

국제학생동맹부위원장 까를로스 옥따비오 벨로는 어린이들의 즐거운 야영생활을 보고 《웃음이 가득차고 행복에 찬 조선의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나는 조선로동당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놓았는가를 재삼 느끼게 되며 김일성수상이 얼마나 훌륭한 령도를 하고계시는가를 가슴깊이 느끼게 된다.

우리는 조선의 어린이들이 항일빨찌산들의 뒤를 이어 지덕체를 겸비한 훌륭한 투사가 되리라는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였다.

칠레로조대표단의 한 성원인 까르로스 움베르또 파르데스는 조선로동당의 보건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장 큰 인상을 받은것은 인간에 대한 배려와 관심, …특히는 모든 환자들에 대한 무상치료제이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하에 전체 조선인민의 건강은 날로 증진될것이며 그들의 행복은 더욱 높은 수준에 반드시 도달하리라는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시에라레온녀성조직 전국련맹대표인 도라라이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수상은 높은 덕성을 지니고계실뿐만아니라 현명하신 분이시다.

그이는 조선인민에게 항상 깊은 배려를 돌리고계신다.

조선인민은 무상치료를 받고있다. 나와 같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다.

김일성수상만세! 무상치료제 만세!》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의 베르나르도 아라다는 《공업과 농업, 교육, 문화에서 달성한 성과는 오직 김일성동지와 같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기때문이다. 당신들이 달성한 성과와 경험은 아직도 해방과 주권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나라들에 실천적교훈으로 되며 교과서로 된다.》라고 말하였다.

앙골라전국근로자동맹 총서기 루부알루 빠스깔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달성된 성과에 크게 감동하였다.

조선인민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은 싸우는 나라 인민들에게 거대한 고무로 된다.

그것은 자유로운 인민들이 자기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다면 경제와 문화 및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거대한 진보를 이룩할수 있는가를 충분히 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 도시 및 농촌관계상 파예즈 이스마일은 조선인민이 달성한 성과의 비결이 《첫째로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념을 안겨주시고 인민들을 결속시켜 지난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유격투쟁에로 이끄신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건설투쟁과 사회주의에로 인도하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수상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이 있기때문이다.

둘째로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께서 교시들과 연설들에서 제시하신 명백한 원칙이 있기때문이다.

또한 조선인민들이 김일성수상의 두리에 뭉쳐 그이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사회주의로 나가는 길인 국유화와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공업화와 계획화를 실현하고 있기때문이다.

세째로 그것은 수령과 자기의 위업을 믿고 투쟁과 희생속에서 자기들의 신념을 표시하며, 많은 희생과 범죄적인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할줄 모르는 영웅적조선인민이 있기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국제기자동맹 위원장 에르망 종모미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20년! 이것은 한 사람의 생애에서 아주 긴 세월이지만 한나라의 력사를 두고 볼때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조선의 20년간은 실로 200년 맞잡이다. 조선인민은 지난 20년동안에 나라의 면모를 놀랍게 발전시켜 놓았다…》

알제리로조활동가 미스라우 이메지안은 《수백수천의 혁명가로부터 시작하여 전체 인민이 혁명가로 자라난 조선의 경험은 혁명을 령도하여 승리에로 이끌어가는 수령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일찍부터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셨으며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그렇게도 우러러보는 훌륭한 사회주의조선을 건설하신 김일성수상과 같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김일성수상과 같이 그렇듯 철저한 반제적립장을 취하며 그렇듯 확신성있게 사회주의건설을 지도하는 령도자들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고있으나 언제 실현될것인지 그것은 기약할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김일성수상과 같은 위대한 령도자는 세상에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적 조국통일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고 계신다.

유엔상주 꾸바공화국대표 리까르도 알라르꼰 데께싸다는 《항일무장투쟁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수십년간 조선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인도하여 오신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족을 자주적통일의 실현에로 반드시 인도하게 될것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그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 자신이 해결할수 있는 조선인민자신의 문제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 단장인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시톤 꼼마담은 판문점을 돌아보고 감상록에 《조선문제는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해결되여야한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음흉한 침략적기도를 계속 추구한다면 놈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앞에 멸망되고야 말것이며 얻을것이란 오직 죽음과 시체뿐일것이다.》라고 썼다.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대표 무르시사이드 엘딘 아브델하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수상의 주체적인 조국통일방안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조선문제는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문제이며 조선인민의 내부문제이다.

그렇다고 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결코 배제하는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일환이기때문이다. 전세계인민들은 조선인민의 정당한 립장과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알제리근로자총동맹 전국지도부성원이며 알제리 철도로조 총서기 미스라우 이메지안은 감상록에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분야에서 거둔 거대한 성과는 남반부인민들에게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으며 그들의 해방투쟁을 고무하고있다. 조선인민들의 모범을 본받아 지금 웰남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미국놈들을 반대하고있다. 미제는 조만간에 지구상에서 멸망할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서 조선인민은 외롭지않으며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들은 조선인민을 지지하고있다.》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경축행사에서 한 탄자니아련합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에쓰. 에이 마수와냐는 자기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각하의 령도하에서 남북이 통일될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전체 조선인민의 단합된 힘앞에서 미제는 망하고야 말것이며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승리할것입니다.

나는 타국의 내정불간섭정책에 대하여 어제하신 김일성수상각하의 천재적인 말씀을 지지합니다. 이는 세계의 대소국가를 포함한 여러국가들간의 친선관계의 튼튼한 기초입니다.》

또한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챠드공화국 정부 친선대표단 단장 두니아 마르크는 자기의 인상담에서 《조선방문기간 우리가 시종일관 느끼고있는 점은 전체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치고있는것과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이 반드시 통일되리라는 확신이다.》라고 말하였다.

일본 오끼나와인민당 위원장 세나가가메지로는 자기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오끼나와인민당의 이름으로 김일성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탁월한 령도밑에 그 주위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도당의 침략과 매국책동을 분쇄하며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푸에블로〉호사건에서 볼수있는바와 같이 미제의 침략과 도발행위를 단호히 물리치고 나라의 주권을 견결히 수호하고있다.》

공화국창건 스무돐경축행사에 참가한 기네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쉐리프 쎄꾸는 자기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전조선이 하나의 가정으로 계속 남아있었더라면 세계로동계급의 저명한 수령의 한분이시며 그로하여 전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자랑으로 되시는 용감한 김일성수상의 현명한 령도밑에 얼마나 더 위대한 성과들이 이룩되였겠는가 하는것을 상상할만 하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기네인민은 항상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조국을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있으며 계속 지지할것이다.》

또한 뽀르뚜갈령 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대표단원은 감상문에 《조선문제는 조선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한다.

우리 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침략자들의 끊임없는 범죄적도발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할때까지 언제나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할것이며 조선인민의 편에 서 있을것이다.》라고 썼다.

프랑스로동총련맹대표단 단장은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선이 하루속히 통일되여야한다. 이 투쟁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한다.》라고 말하였다.

다오메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 단장인 다오메공화국 전농업상이며 경제 및 사회위원회성원 꿀리까 쵸제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통일이 빨리 실현되기를 축원한다. 그러기 위하여 미제는 남조선으로부터 당장 물러가야한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령토를 해방하기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있다.

천재적이며 류례없는 위대한 분이신 김일성원수로부터 용감성으로 교양받고있기때문에 조선인민은 강한 의지와 영웅주의를 소유하고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은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게 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그의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은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40여년간 조선혁명은 어데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체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조선혁명을 곧바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였다.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운명을 구출하였으며 이 땅에 민족적대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뿐만아니라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시대의 가장 보편적진리를 체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열렬한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혁명적인민들이 견지하고 나아가야 할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칠레사회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칠레 대표인 알베리오 피에로는 《우리 혁명가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배우고 또 본받아야 할것이다. 이것을 본받아야만이 동방에서 빛을 뿌리고있는 조선과 같이 매개 나라들이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추진시켜 나갈수 있을것이다. 그러기에 그이의 이 혁명사상은 바로 우리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천금보다도 귀중한 가치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마뿔라가마 비뿔라싸라는 《김일성수상의 주체사상과 그의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에 커다란 공감을 가진다. 나는 여러나라를 방문하였지만 김일성수상께서 령도하시는 조선과 같이 훌륭한 나라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작은 나라로서 철저히 자주, 자립의 길로 나가는 나라는 세상에서 조선뿐이라고 생각한다. …김일성수상의 주체사상과 자주정책은 다른 나라들의 모범으로, 고무로 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캄보쟈신문 《뺀르류메또》 1968년 6월 15일호는 《조선의 자주적발전》이라는 표제하에 발표한 론설에서 《김일성각하께서는 1930년대에 벌써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장차 민족공업을 건설할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오늘 조선에서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 발전된 경제를 건설할수 있은 그 근저에는 바로 그이의 주체사상이 놓여있다.》고 강조하였다.

꾸바에 와 있는 도미니까 《6월 14일혁명운동》 대표 에우헤니오 뻬레스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의 모든 활동과 투쟁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며 동시에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탁월한 혁명사상이다.》라고 하면서 《천재적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훌륭히 구현됨으로써 조선이 세계에 찬란한 빛을 뿌리는 강유력한 나라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콩고(레)혁명최고리사회 위원장 가스톤 수미알로는 《김일성수상의 주체사상이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부강한 사회주의국가로 되였으며 온 나라는 불패의 철벽으로 전변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알제에 와 있는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대표 퐈그레쓰 쉬케르러마는 《김일성수상의 주체사

상은 혁명을 하자는 유일하게 옳은 사상이며 혁명을 자체의 힘으로 완수하자는 정당한 립장이다.

김일성수상의 주체사상에는 혁명가의 굳은 지조와 결심, 자기힘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락관주의정신이 맥박치고있다. 혁명을 함에 있어서 자체의 힘을 믿는것보다 더 위력한것은 없다.》고 하면서 《자기힘을 믿고 자기힘에 의거하는 혁명가적립장에서 조선혁명의 먼 앞날을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판단하시는 김일성수상의 명철한 통찰력 그리고 그이의 굳은 혁명가적의지, 옳은 전략과 전술,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의 혁명가들은 소위 〈정예〉를 자랑하던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이어 패배를 주고 백번 싸워 백번 승리할수 있었다. 조선혁명가들이 항일무장투쟁에서 승리한 로정은 김일성수상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승리한 력사적로정인것이다.

해방후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가고있는 오늘의 조선의 력사도 김일성수상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꽃피여가는 영광스러운 승리적로정인것이다.

우리는 조선의 경험을 통하여 혁명투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똑똑히 알았다.…

김일성수상의 주체사상은 짐바브웨인민의 반제무장투쟁을 고무하는 거대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아바나에 와 있는 뻬루민족해방군 대표 헤쑤스마싼은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도 절대로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 라틴아메리카혁명가들은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우리의 혁명투쟁에서 사상적인 방조로 되며 지침으로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버마세계평화위원회 서기장 더킨 틴은 《김일성수상께서 제시하신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은 조선뿐만아니라 세계의 모든 신생독립국가들에 있어서도 고귀한 교시로 될뿐만아니라 반미민족해방을 위하여, 세계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전세계인민들의 투쟁강령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아바나에 와 있는 뿌에르또 리끄독립운동대표이며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뿌에르또 리끄대표인 까를로스 빠딜라 로드리게스는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기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신성한 혁명투쟁에 일떠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진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신 김일성동지의 이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가들로 하여금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빠지지않고 자주적립장에 서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이끌어나갈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주체사상은 수세기에 걸쳐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착취를 당하여온 3대륙 인민들에게 진정한 해방의 길을 밝혀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확고한 주체적립장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은 가장 철저한 정치적자주의 나라로 되였다.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청년동맹 부총비서 싸아드나 아브델 까데르는 《현재와 같이 복잡한 정세하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구현하는것은 매개 나라의 혁명승리를 위한 관건적문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화란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파울 데 그로트는 자기당 기관지 《드 바아르하이트》에 발표한 《먼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라는 글에서 《현세계정세와 공산주의정책문제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견해와 립장은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 견해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은 국제적인 한초소를 차지하고있는 중요한 사회주의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나 혹은 쏘련정부의 견해를 진부하게 되풀이하지 않고 문제를 독자적으로 고찰하고있기때문이다.》라고 썼다.

쎄일론의 사회활동가 프레마란주마라시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자주로선은 정확한 맑스-레닌주의로선이다. 이 정확한 로선이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미치는 그 거대한 영향력을 누구나 알게 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앙골라인민해방운동당 부위원장 도밍고 다 실바는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자주적립장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며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앙골라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고있다.…

앙골라의 혁명투사들은 김일성수상께서 천명하신 자주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아바나주재 과떼말라 무장봉기군 대표 프란씨스꼬 마로낀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사상은 우리의 혁명투쟁을 크게 고무하고있을뿐만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데 대한 사상은 조선을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부강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다.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지방정부 및지방발전상 피터 아브알라흐 키수모는 《세상사람들이 조선을 우러러보는것은 조선이 어떠한 외세에도 의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립경제를 건설하였기때문이다. 조선은 외부원조가 없어도 생존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첫나라이다. 우리 탄자니아도 이

길을 따르고있다. 우리는 조선의 자립경제에서 모범을 받을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조선을 방문하였던 네팔대표단 단장 푸르나 바하두르는 《조선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하여 지켜야할 자력갱생의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을 일치하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은 자신의 모범으로 그들을 고무하고있으며 앞서나가고있다.》고 말하였다.

칠레공화국 하원부의장 호세 이슬라는 2.8비날론공장을 참관하고 《바로 이 공장은 국내의 원료로 생산을 하며 자체의 수요를 보장하는 방법으로써만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후진국가들은 반드시 조선의 이와 같은 경험과 모범을 본받아야 한다. 조선의 이 경험과 모범은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하였다.

남부웰남대표단 단장 렌티빈은 《우리 남부웰남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기초하고있는 조선인민의 로동정신을 높이 찬양하고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성과는 우리들에게 매우 귀중한 고무로 된다. 이는 해방된 인민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준다.》라고 말하였다.

모잠비크해방전선 재정비서 로렌소 무타까는 《자립경제건설에서 조선인민이 달성한 성과와 경험은 모잠비크의 현실에 적용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모잠비크가 독립되면 처음으로 관계를 설정할 나라는 다름아닌 조선》이라고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위의 혁명로선은 조선을 난공불락의 불패의 나라로 전변시켰다.

레바논신문 《일랄야암》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이 가지는 의의》라는 표제의 론설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킴에 대한 로선은 조성된 정세에 대한 명철한 과학적판단에 기초하여 김일성수상께서 처음으로 제시하신 명철한 새로선이다. 이 로선에는 조선로동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립장이 구현되여있으며 확고한 반제적립장이 반영되고있다.》고 썼다.

웰남신문 《인민》 1968년 1월 26일호는 《조선인민군과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소동과 위험앞에서도 강철의 요새마냥 굳건히 서있다. 조선인민은 백전백승의 정의의 힘을 가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금 사회주의진영의 강력한 나라이다.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계승하고있는 조선인민은 이미 1950년—1953년 전쟁에서 미제침략군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었다.

전체 조선인민은 무장하였으며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였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이 철벽의 요새에 머리를 들이받는다면 놈들의 목대는 부러지고 말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알제리신문 《라 레뿌블리크》 1968년 6월 26일호는 《김일성수상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공고한 토대가 축성되였으며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의 위대한 군사로선에 의하여 전인민적인 방위체계가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는 문자 그대로 철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제놈들이 지른 불에 타죽고야 말것이다.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은 자기 수령의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에게 치명적이며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것이다. 불을 즐기는 자들은 불에 타죽고야 말것이다.》라고 썼다.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은 맑스—레닌주의를 가일층 발전시키고 그 보물고를 풍부히 한 위대한 문헌이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제반 리론실천적문제들과 세계혁명발전과정에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들에 대한 명철한 해답을 주는 불후의 로작들과 맑스-레닌주의를 가일층 발전시킨 위대한 문헌들을 수많이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로작들은 세계 광범한 지역의 혁명가들과 사회활동가들, 인민들로부터 높은 찬양을 받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는 조선혁명을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완수하려는 혁명적립장과 불굴의 의지로 충만된 전투적강령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출판물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세계적의의를 갖는 정치적강령》, 《혁명투쟁의 기치》, 《전세계 정치가들을 위한 교과서》라고 하면서 그에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웰남 《인민》지 1968년 3월 24일호는 《조선혁명의 승리적로선》이라는 표제의 론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10대정강은 지난 수십년간에 걸친 조선혁명의 특출한 경험들

을 총화하고 이에 따라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강령적문헌이다.》

수리아신문 《니달 팔라힌》 1968년 1월 31일호는 《김일성수상께서는 정부정강에서 원쑤들과 싸워 어떻게 승리를 쟁취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였다.》고 하면서 《공화국정부정강은 제국주의자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긴 새로운 혁명적인 폭탄》이라고 강조하였다.

버마신문 《뉴라이프 오브 버마》 1968년 3월 13일호는 《10대조항으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은 세계적의의를 가지는 정치강령》이라고 하였다.

일본의 로동교육협회 회장인 야나기다겐쥬로는 자기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수상께서 제시하신 10대정강은 공산당선언에 비길수 있을만큼 박력있는 력사적문헌이다.

김일성수상의 령도밑에 오늘 비약적전진을 계속하고있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련이어 발표하는 이번의 10대정강을 비롯한 모든 문헌들은 거기에 원쑤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조선인민의 민족적분노와 혁명적정열이 생생히 맥박치고있어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강력한 박력을 가지고있다.》

파키스탄 신문 《리더》 1968년 3월 18일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수상께서 발표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은 전체 조선인민에게 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휘황한 홰불로 투쟁의 기치로 될뿐만아니라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의 지침으로 되고있다.

10대정강은 우리가 반드시 심오히 연구하고 구감으로 삼아야할 귀중하고도 중요한 국제적의의를 가지는 정치적문헌이다.》

꽁고(레)혁명최고리사회 위원장 가스톤 수미알로는 김일성동지의 10대정강을 읽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부정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나라의 국경선의 한계를 훨씬 벗어나 전체 반제력량과 매개 혁명조직들로 하여금 침략과 착취세력을 반대하는 무자비한 투쟁에 일떠서게 하고있다.

바로 이러한것으로 하여 꽁고(레)혁명최고리사회는 이 정강이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혁명조직들, 그리고 반제력량으로부터 전적인 지지를 받을만하며 그들의 공동의 강령으로 된다고 인정한다.…

꽁고(레)혁명최고리사회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통치방법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 꽁고(레)의 반제력량을 대표하여 진보적인 력량과 반동세력간의 치렬한 투쟁이 진행되는 이 결정적인 시기에 모든 민족해방력량들의 행동의 지침으로, 그리고 행동통일의 상징으로 되고있는 20세기의 위대한 혁명투사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정부정강을 자기자신과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의 공동의 강령으로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하였다.

인도신문 《이브닝뷰》 1968년 1월 7일호는 정강전문을 게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수상께서 발표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새 정강은 전세계 정치가들이 응당 심도있게 연구하여야 할 력사적이며 고무적인 테제이다.…

김일성수상께서 발표하신 력사적인 정강은 전세계 정치가들을 위한 하나의 교과서이다.…공화국정부의 새 정강은 인민의 행복과 세계평화와 정의의 위업을 촉진하기 위한 김일성원수님의 끝없는 정열과 열정을 반영하고있다. 전체 조선인민이 자기의 수령의 이와같은 정열을 본받고 있는 바로 여기에 조선이 불패의 업적을 이룩하고있는 비결이 있다. 전체 인도인민들은 이 정신을 잘 본받아야 할것이다. 오늘 전세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모범으로 우러러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세아의 자랑이며 본받아야할 하나의 모범이다.》

일본 전파뉴스사 사장 야나기자와야스오는 《이 정강은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문헌이다. 불과 2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일제식민지통치의 쇠사슬에 얽매인 동방의 작은 나라로서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고있던 조선이 오늘은 이와같은 위대한 정강을 발표하여 세계혁명운동을 크게 고무하고있는것은 20세기의 력사적인 사변이라고 말하지않을수 없다.》고 하였다.

쎄일론국회의원 다나팔라 웨라세케라는 《김일성수상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에서 하신 말씀은 황금과도 같은것이며 그것은 세계 진보적 세력들이 나아갈 유일하게 정당한 길을 밝혀주고있다.》고 하였다.

탄자니아수도 다르에스 살랍에 가있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당 대표 다니엘 치펀다는 《현대의 가장 명확하고 현실적이며 실천성있는 맑스-레닌주의적 혁명로선인 자주, 자립, 자위로선으로 일관되여 있는 공화국정부정강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뿐만아니라 혁명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문헌이다.…정강은 우리들에게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자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겠는가 하는 명확한 길을 가리켜주고있다.》고 하였다.

전아프리카청년운동 부총비서 아레프 끼아이뚜아주는 자기 담화에서 《조선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께서 발표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10대정강은 자력갱생하지 않으면 외세의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진리를 명백히 론증함으로써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거대한 혁명적 영향을 주고있다. 자주성을 견지하며 자력갱생하는것은 혁명의

원칙적인 기본요구로서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이 우심해지고있는 조건하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자주로선이 가지는 거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알제리 전국녀성동맹 대외관계비서 모그따리녀사는 《…정강에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있으며 또한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도가 구체적으로 지적되여 있다. 정강에서 천명된 모든 문제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수상께서 발표하신 정부정강에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목적과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명철하게 구체적으로 해명되여있다.》고 하였다.

꾸바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위원회 총비서 하이메 고롬베뜨는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공화국정부정강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정확히 적용한 귀중한 문헌이다.》라고 하면서 《정강은 주체사상과 자주적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대내외정책분야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결함에 대한 원칙적립장들을 천명함으로써 조선혁명뿐만아니라 세계혁명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있다.》라고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론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는 세계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견결한 립장과 반제반미투쟁의 전략전술을 천재적으로 밝힌 위대한 문헌이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사들은 김일성동지의 이 론설을 《3대륙인민의 투쟁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강령적문헌》, 《싸우는 인민들에게 있어서 지도적지침》, 《천금보다 더 귀중한 문헌》으로 높이 찬양하고있다.

아바나문화대회에 참가했던 기네공화국대표 쉐리프는 《김일성동지의 론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제투쟁앞에 나서고있는 절박한 문제들을 명철하고도 심오하게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론설은 3대륙인민들의 반제투쟁에서 얻은 교훈을 집대성한 귀중한 문헌이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았다.》라고 하였다.

아바나에 가 있는 베네수엘라 좌익혁명운동당대표 까를로스 빼라씨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론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에서 세계혁명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문제들에 대한 매우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이 문헌은 우리 라틴아메리카혁명가들에게 커다란 힘을 북돋아주고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자주로선은 세계혁명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은것이다.》

이라크신문 《바그다드 옵써버》 1968년 4월 12일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아바나에서 발간된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기관리론잡지 〈뜨리꼰띠넨딸〉 창간호에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수상의 론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수중에 쥐여진 반제반미투쟁의 위력한 사상리론 실천적무기로서 그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날이갈수록 생활에서 더욱 확증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쎄일론신문 《싱할》 1968년 1월 22일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수상의 론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는 전세계인민들을 반제투쟁의 길로 인도하고있다.》라고 제목한 론설에서 김일성동지의 론설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의 이 론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 특히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혁명의 길을 밝혀주는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반제투쟁정신의 상징이다.》

알제리 빠뜨리스 루뭄바 렬사아동학원 원장 우마따 잘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문헌에 담긴 사상은 우리의 마음에 딱 맞는다.

이 문헌은 길지는 않으나 많은 것을 말해주고있으며 반제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것을 다 포괄하고있다.

우선 문헌에 담긴 철저한 반제반미사상은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있다.…

김일성수상의 반제자주사상은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길잡이다.

이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다면 제국주의는 어디에서든지 함부로 날뛰지 못할것이며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멸망을 안기게 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혁명가들과 선각자들은 자기 인민을 이 사상으로 교양하고 또 교양해야 한다.

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는 김일성수상의 반제자주적인 립장을 따라야 하며 조선의 모범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위원장 삼 누조마는 자기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는 김일성수상께서 발표하신 론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에서 천명하신 로선에 의거하고있다.

우리는 이 론설에 천명된것처

럼 반제반미투쟁에서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호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전아프리카로조련맹 동부, 중부 및 북부 아프리카지역 대표이며 탄자니아 전국근로자동맹 집행위원회 위원인 다비드 짐비힐레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수상께서는 반제반미투쟁에 관한 정확한 전략전술적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론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를 타승하기 위한 판가리싸움에서 전세계인민들이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을 제시한 강령적의의를 가지는 참다운 교과서이다. …

우리 탄자니아와 아프리카근로자들은 그이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에서의 유일하게 정당한 이 길을 따라 나아갈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아바나문화대회에 참가했던 팔레스티나대표 아벨은 《김일성동지의 론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는 세계 모든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강령이다. …손에 무장을 잡고 싸우고있는 팔레스티나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론설에서 강조하신 사상을 잘 리해하고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않을것이며 끝까지 싸워 원쑤들을 소멸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라고 말하였다.

쎄일론 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인 다르마다사 갈레라는 《김일성수상의 론설은 쎄일론인민의 전진을 위하여서도 정확한 길잡이로 되고있으며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전진을 담보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김일성수상의 사상을 높이 추켜드는것이 진보를 위한 신성한 과업이라고 확신한다. …

우리는 응당 그이를 존경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 해방된 인민의 이름으로 이 론설이 실천에 옮겨질것을 축원하자》라고 호소하였다.

라틴아메리카학생기구 상설서기국 우루과이대표 라몬 에피르메는 《김일성동지의 론설은 조선인민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반제투쟁정신을 반영하고있으며 우리 시대의 모든 혁명가들에게 정확한 투쟁로선을 명시해주었다.》고 강조하고 《오늘 김일성동지의 권위는 전세계인민들속에서 더욱 높아졌으며 모든 혁명가들은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의 정을 품고있다.》고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연설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는 조선인민의 견결한 반제반미립장을 다시한번 천명한 전투적문헌이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연설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를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이 연설은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된다고 하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은 김일성동지의 연설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조선인민군은 미제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분쇄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다.

조국과 인민의 해방을 위한 항일무장투쟁에서 세련된 오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있는 조선인민군은 오늘 자기대렬에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단련된 수많은 영웅들을 가지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방위체계가 확립되였으며 전국이 철벽같은 요새로 되고있다.》고 하였다.

수리아국방및혁명수호위원회 기관지 《알 키파하 알 무쌀라흐》 1968년 5월 2일호는 김일성동지의 연설을 게재하면서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시며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2월 8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미제국주의와 남조선에 있는 그의 반동주구들의 도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그를 현대화할데 대한 과업을 상세히 제시하시였다.

친선적이며 형제적인 나라가 건설과 해방투쟁에서 이룩한 현대적인 투쟁경험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하여 이 글을 발표한다.》

짐바브웨 아프리카인민동맹 대표 스테팬 느코모는 《김일성수상의 말씀은 짐바브웨인민을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해주고있으며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고있다.》고 하였다.

꾸바에 있는 미국인협회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광란적인 새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면서 김일성동지의 말씀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새힘을 북돋아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립장과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활기를 북돋아주고있다.》고 하였다.

까히라주재 바수톨랜드대회당 대표 엘 아메화데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날강도적인 해적행위를 규탄하면서 《김일성동지의 연설은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된다고 하였다.

캄보쟈신문 《프쫀더피엡》 1968년 2월 9일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승리》라는 제목의 론설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제는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한다. 조선인민은 그 누구에게도 굴복한 력사가 없으며 18년전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패배를 안긴 경험있는 인민이다.

우리는 김일성수상각하의 현명한 령도하에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휘황한 성과를 달성하고있는 조선의 벗들에게 충심으로 축하를 보내며 이를 기쁘게 생각하고있다.》

쎄일론 23개 대중단체 대표들

의 집회에서 채택한 김일성수상께 드리는 1968년 2월 21일부 결의문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수상의 령도를 받고있는 조선인민은 자기의 용감한 행동으로 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반제투사들의 홰불로되고있습니다.》

아련신문 《알줌후리아》는 《어떻게…작은 나라 조선이 거대한 악마인 미국놈의 뺨을 후려갈겼는가?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령해에 깊이 침입한 〈푸에블로〉호를 나포하고 거만한 미국놈의 코대를 꺾어놓았는가? 어떻게 적은 인구를 가진 조선이 미제의 침략에 대처할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질수 있게 되였는가?》라고 묻고 그것은 《경모하는 김일성수상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때문이며》, 《용감한 인민을 가지고있고 미국놈을 두려워하지않고 미제를 증오하는 사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라크신문 《알 줌후리예》는 다음과 같이 썼다.

《위대한 조선인민이여, 당신들은 어떻게 그처럼 용감한가! 조선인민이여, 당신들은 지난시기에도 지금도 위대하고 훌륭하다! 당신들의 의지는 위대하고 당신들의 타격력은 강하고 당신들은 매우 훌륭하다.

당신들이 바로 미제에게 패배와 수치를 준 인민들이다.…모든 인민들은 당신들의 편에 있다. 세계의 자유투사들은 당신들을 지지하고있다.》

까히라주재 뽀르뚜갈령 기네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대표 빅도르 마리아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위협과 공갈도 조선인민의 투쟁을 결코 좌절시키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조선인민의 힘의 위대성을 잘 알고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에게는 항상 승리만이 있을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라크의 신문 《알무스타프》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과 같은 나라를 무시할수 있었는가? 위대한 조선인민, 당신들은 얼마나 용감한가! 위대한 조선인민군, 당신들은 위대하며 불패이다! 당신들은 미제에게 패배를 준 인민이다.》라고 경탄을 표시하면서 《용감하다! 세계자유인사들이여, 머리를 처들라! 조선이여! 전세계인민들은 당신들과 함께 있을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천명한 위대한 강령이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출판물들은 김일성동지의 보고를 《20세기 중엽의 공산당선언》, 《전반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위대한 원리적, 강령적 문헌》, 《신생독립국가들과 전세계혁명적 인민들의 나아갈 앞길을 밝혀준 진실한 맑스-레닌주의교과서》라고 높이 찬양하고있다.

캄보쟈신문 《렐르쥬뻬또》 1968년 10월 26일호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이 보고는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명확한 전망과 전투적 과업을 제시한 위대한 강령적문헌이며 현단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전략을 파탄시키고 그의 종국적 멸망을 촉진하며 전반적국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전략과 방침을 천명한 탁월한 혁명적 문헌이다.

또한 이 보고는 혁명과 건설에 관한 심오한 사상과 과학적인 리론, 탁월한 방침들을 정연하게 체계화한 고전적의의를 가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문헌이다.…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서 강유력한 사상 리론 실천적 무기로되는 이 보고는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밑에 해방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고무를 주게될것이며 반면에 민족적독립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을 반대하며 침략과 전쟁에 미쳐날뛰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강력한 타격으로 될것이다.》

아련신문 《알 아흐바르》지 1968년 11월 2일호는 《김일성동지의 보고의 중요성은 그것이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정치적강령이라는데 있는바 보고에는 민주주의민족혁명을 수행하며 사회주의혁명의 로대를 수립하며 사회주의의 완성에로 나가는 전기간에 낡은 사회를 붕괴시키고 숭고한 사회주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혁명과 사상혁명을 어떻게 수행할것인가에 대한 혁명적인 립장과 경험이 제시되여있다.》라고 썼다.

알제리민족인민군기관지 《엘제이쉬》 편집자 스마일 메주버는 《김일성수상의 이번 보고를 읽고서 우리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 어떻게 혁명을 계속하여야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해야하는가를 똑똑히 알게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명백한 길을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세계혁명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다.》라고 자기 소감을 말하였다.

일조협회 리사장 하다나까마사히루는 김일성동지의 보고에 대한 자기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수상의 보고전문을 읽고 깊이 느낀것은 이 보고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헌일뿐만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위대한 원리적,강령적문헌이라는 그것이다.》

브라질 사회활동가 알루이시오 베라노는 《조선인민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수상의 보고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의 빛나는 총화로 될뿐만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혁명적나라들을 위한 리론실천적으로 고귀한 가치를 가지는 문헌이며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우는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는 고무적인 투쟁강령으로 된다.》라고 말하였다.

콩고(브)공화국 사법 및 로동상 알로이스 무밀레노이는 《김일성수상각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는 우리 나라와 같이 청소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위대한 학설이다.》라고 말하였다.

전인도민주당위원장이며 영문주간지 《이브닝 뉴》의 편집자인 피엘 라간팔은 도꾜에서 발행되는 《인민조선》지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1968년 9월 7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수상이시며 원수이신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보고는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문헌이며 그 의의와 영향력에 있어서 1848년에 맑스와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선언〉에 맞먹는것이다. 보고는 〈20세기중엽의 공산당선언〉으로서 전세계 사회주의리론가들에게 곧 인정될것이다. 사실 보고는 사회주의정권과 건설의 복잡한 문제들과 현대의 자본주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전략과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서 위대한 조선인민이 직접 얻은 경험에 기초하고있음으로하여 맑스와 엥겔스의 위대한 로작보다 더 뛰여나고있으며 더 큰 의의를 가지고있다.》

알제리 철도로조 총서기 미스라우이 메지안은 《금번 김일성수상의 보고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혁명운동과 그리고 미제를 괴수로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모든 자본주의나라 혁명운동에 보내는 위력한 호소로 된다.

이것은 3대륙나라 인민들의 투쟁과 자본주의나라로동운동에서 견지해야할 구체화된 방향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쎄일론신문 《스릴라》지 1968년 10월 1일호는 《김일성수상께서 하신 보고는 반제투쟁,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적해불이다.》라고 썼다.

일본 도꾜경제대학 이전 학장 가나자와신지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실로 김일성수상의 보고는 혁명과 건설에 관한 심오한 사상, 과학적인 리론,훌륭한 방침을 정연하게 체계화하고 집대성한것으로서 고전적의의를 가지는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문헌이다.》

쎄일론신문 《자나디나》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열렬히 지지찬양하는 론설을 실으면서 《김일성수상께서 제시하신 반제투쟁로선은 민족해방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혁명적인민들이 따라야할 로선이다. 이 반제투쟁로선은 필승불패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쏘련에서 공부하고있는 3대륙학생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보고를 지지환영하여 그이께 보내온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신의 위대한 문헌에서 무한한 힘과 용기를 얻은 우리 3대륙학생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발전과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3대륙인민들의 반제투쟁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김일성동지의 론문《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는 미제를 두목으로 한 제국주의를 격파하고 세계 사회주의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전략전술을 밝혀준 력사적문헌이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반제투사들은 김일성동지의 이 력사적인 론문을 가리켜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문헌》,《앞길을 밝혀주는 빛나는 등대》, 《무한한 힘과 신심의 원천》이라고 한결같이 말하면서 이 문헌에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세네갈 청년운동 전국비서이며 전아프리카 청년운동 부총비서인 바바간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론문은 제국주의자들의 자본의 힘이나 〈원조〉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나아가려는 신생독립국가들의 앞길을 밝혀주고있으며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투쟁방향을 명시해주고있다.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에는 국경이란 없다.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론문은 혁명투쟁을 진행하는 나라 인민들과 제국주의의 압제속에서 어려운 고비를 겪고있는 인민들속에서 거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론문이 자본의 철쇄와 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치고 공정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신생독립국가들과 그리고 싸우는 나라 인민들의 념원을 훌륭히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알제리에 주재하고있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대표 힐베르또 드라싸는 《이 론문에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전략이 규정되여있다.

이 론문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3대륙인민들의 전략이며 리론이라고 말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이 론문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전선에서 혁명적인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제조건들을 분석하시고 제국주의침략에 대처한 3대륙인민들의 투쟁방도와 형태 그리고 그들이 틀어쥐고 나아가야할 투쟁전략을 명시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까나리아섬 자결독립운동 총비서 안또니오 꾸빌로는 김일성동지의 론문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론문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사회주의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와 이 투쟁에서 국제적련대성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명백히 천명한 비범한 문헌이다.…

실로 이 문헌은 심오하며 새로운 명제와 로선들로써 충만된 고귀한 문헌이다.》

아바나주재 가이아나인민진보당대표 랄 바하두르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는 실로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하고계실뿐만아니라 세계의 전반적인 투쟁을 능숙하고 명철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령도하고계신다.

이번에 발표하신 그이의 론문은 반제혁명투쟁을 더욱 강화하는데로 전 세계 혁명적인민들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또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정당한 방도들을 제시한 위대한 문헌이다. 그이께서는 이 론문에서 세계혁명투쟁을 어떻게 발전시키며 전개할것인가하는 구체적방도들을 상세히 명시하시였다.

그이의 이 명제들은 아직 세계의 그 어느 혁명가도 령도자도 천명하지 못한 고귀한 투쟁방침이며 방도이다.

나는 이 론문을 읽으면서 그 하나하나의 구절에 깊이 감동되였으며 앞으로 우리의 혁명투쟁을 어떻게 전개할것인가하는 앞길이 환히 트이는것만같이 느껴졌다.》라고 자기의 소감을 말하였다.

아랍만해방인민전선 총사령부 상무위원 아흐마드 갈리쎄이프와 총사령부 정치위원이며 이 전선 총사령부의 남부예멘인민공화국주재대표인 탈랄 싸이드는 공동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수상을 세계혁명의 가장 위대한 수령의 한분으로서 충심으로부터 존경하고있다.

김일성수상의 론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은 뜻과 커다란 실천적의의를 더욱 더 느끼게된다.

이 문헌에 담겨져있는 그이의 사상은 특히 무장을 잡고 민족해방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우리들에게 투쟁방향을 명시하여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직접 손에 무장을 잡고 싸우는 우리 인민들에게 그이의 사상을 알려주어 혁명승리를 앞당겨 나가도록 할것이다.》

라틴아메리카대학생기구 상설서기국 빠나마대표 쎄싸르 까라스낄라는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론문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매장하기 위한 반제혁명투쟁의 전략전술적 방침들과 방도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심으로써 반제투쟁에 나선 혁명적인민들에게 무한한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 로작은 세계 반제혁명투쟁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귀중한 문헌이다.…

우리는 이 론문에 담겨져있는 모든 사상과 원칙들, 그리고 방도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혁명투쟁에서 반드시 적용하여 구현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꾸바공산당중앙위원회위원이며 전국탁아소위원회 위원장인 골레멘떼나 쎄라는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이 론문은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와 신심을 안겨주며 특히는 우리 꾸바인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고있다. 그이의 론문이 가지는 의의는 그것이 다만 리론적인 혁명을 하고있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혁명적인민들을 위하여 투쟁의 교과서로 무기로 되고있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아바나주재 베네수엘라 좌익혁명운동대표 프란씨스꼬 곤살레스는 《이 론문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3대륙의 혁명적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일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적전략을 밝혀주는 위대한 문헌이며 투쟁강령으로 된다.

이 론문에는 3대륙의 혁명적인민들과 혁명가들이 반제혁명투쟁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새로운 리론실천적 명제들과 로선들이 제시되여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김일성동지의 이 론문은 맑스-레닌주의의 보물고를 보다 더 풍부화하였으며 특히는 세계반제혁명운동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것으로하여 리론실천적면에서나 사상적측면에서 고귀한 강령적문헌으로 된다.》라고 말하였다.

아바나주재 꽁고(레)민족해방리사회대표부 대표이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꽁고대표인 쑴부 에드왈드는 《사실 그이의 론문은 세계반제혁명운동발전에 대한 단순한 분석인것이 아니라 혁명투쟁에 떨쳐나선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심오하게 연구하고 배워 실천에 옮겨야 할 강령적 지침이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혁명투쟁의 휘

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빛나는 등대이며 힘의 원천이다.

바로 그러기에 세계의 모든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로 우러러보고있으며 그이에 대한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김일성동지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서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에 대한 현명한 령도와 맑스-레닌주의혁명적원칙에 대한 충실성, 철저한 반제반미적립장, 그리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발전을 위한 탁월한 리론실천적공헌으로 하여 세계인민들로부터 높은 존경과 두터운 신뢰를 받고계신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혁명정부수상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는 《김일성동지는 현세계의 가장 걸출하고 탁월하고 영웅적인 사회주의지도자들중의 한분으로서 그이의 력사는 사회주의위업에 복무하는 한 혁명가가 쓸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력사의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아랍민족회의 의장 안와르 엘 사다트는 《조선인민뿐만아니라 독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반동세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김일성수상을 경애하며 흠모하고있다.》고 하면서 《김일성수상은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위대한 사상가이시며 설계가이시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평화를 위한 위대한 투사이십니다.》라고 하였다.

적도기네인민사상당 총비서 헤쑤스 모바 오보노는 김일성동지께 보내온 1968년 5월 21일부 서한에서 《나는 적도기네인민들과 적도기네인민사상당의 이름으로 당신의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대한 충실성과 강경한 반제반미적립장,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리론실천적공헌으로 하여 당신을 조선의 태양으로,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부르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투쟁로정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 커다란 본보기로 되며 등대와도 같이 앞을 환히 밝혀줍니다.》라고 썼다.

레바논신문 《일랄야암》지 1968년 4월 14일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수상께서는 조선혁명뿐만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고계신다.

김일성수상께서는 수많은 로작들을 통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앞에 나선 복잡한 문제들과 전략전술적문제들에 관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해답을 주셨다.

김일성수상께서는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대한 충실성과 철저한 반제반미적립장, 그리고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을 위한 탁월한 리론실천적공헌으로하여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높은 존경을 받고계신다.》

버마조선친선협회와 버마평화위원회는 김일성동지탄생 56주년에 즈음하여 보내온 축전에서 《오늘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자립의 주체로선으로 조선인민을 승리에로 령도하고계시는 타수이시며 또 이 주체로선을 견지하면서 세계 공동의 원쑤 미제를 타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들과 세계인민들을 포함하는 통일전선을 지도하시는 분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다.》라고 강조하였다.

쎄일론신문 《스릴라거》지 1968년 4월 16일호는 《김일성수상》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심오한 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풍부하게 발전시키셨으며 세계혁명발전을 추진시키셨다.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한 원칙적인 립장으로 하여 김일성수상께서는 진정한 혁명가들의 감탄과 존경을 받고계신다.》

프랑스공산당 정치국위원이며 세계직련 부의장인 브노와프라숑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을 위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찬양하면서 《김일성수상은 폭풍시대에 국제혁명의 수레바퀴를 전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는 탁월한 령도자》라고 하였다.

공화국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 단장인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시톤 콤마담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을 방문하는 기간 우리는 김일성원수님이야말로 위대한 혁명사상을 가지신 분이시며 세계에 비할바 없는 애국자이시기에 조선인민을 오늘과 같이 부유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할수 있었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진정 김일성원수님이야말로 세계에 더없는 가장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사상가이시며 세계에서 가장 진정한 공산주의자이시다.》

또한 다오메공화국 전농업상이며 경제 및 사회위원회 성원인 플리까 쬬제프는 《바로 그 천재, 그이는 탁월한 령도자 김일성원수이시다. 그이는 기적의 창조자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력사의 거인이시며 위대한 심장을 지닌 영웅이시며 대중의 단결자이시며 위대한 영재이시며 인민을 벗으로 하는 위인이시며 교양자이시며 인류의 사상을 대변하는 분이시며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위대한 사상의 불씨를 안겨주시는 홰불이시며 세계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라고 말하였다.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대표단 단장인 쎄일론 사회활동가이며 전공산당 총서기인 프레말란 쿠마라시리는 《김일성동지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

실뿐만아니라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경애하는 스승이시며 진실한 벗이시다.》라고 하면서

《인류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세계 모든 혁명전사들은 김일성동지를 공산주의운동과 노예적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투쟁에서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의 한분으로 흠모하고있다.

조선인민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킨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은 오늘 수억만 사람들의 심장을 불태우고있다.》라고 강조하였다.

꽁고(레)혁명최고리사회 위원장 가스톤 수미알로는 김일성수상은《반제반미투쟁을 진행하고있는 모든 투사들의 최선두에서 계신다.그이는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위대한 투사이시다.》라고 하였다.또한 그는《세계혁명력량의 중심에 서 계시는 당신의 영상은 모든 전투적인 인민을 비쳐주며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해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제해방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가리켜주는 태양》이라고 하였다.

버마세계평화위원회 총서기장 더킨 린은《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만을 령도하고계시는것이아니라 세계의 피압박 피착취인민들에게 투쟁의 길을 가리켜주시는 분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캄보쟈신문《소반품》1968년 4월 11일호는《그이께서는 조선뿐만아니라 세계 모든곳에 찬란한 빛을 뿌려주고계시는 붉은태양이시다.》라고 썼다.

파키스탄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서기장 미라즈칼리드는 《파키스탄사람들은 직접 김일성수상님을 한번 뵙고싶어하는 심정을 가지고있으며 그이를 대단히 경모하고있다.》고 하면서《김일성수상은 조선인민의 수령이실뿐만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수령으로 되고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아르헨띠나조선친선협회대표단 단장 쎌레아르메체띠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현대력사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김일성동지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걸출한 지도자이라는것을 알고있다. 김일성동지는 그이의 현명성과 강의성으로 하여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게 잘 알려져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와 같은 그러한 탁월한 령도자를 알지 못하고있다.》고 하였다.

꽁고(브)제인민간의 친선협회 위원장 비딸발라는 《김일성수상은 자신의 공적과 영웅주의로 하여 명성이 높은 령도자이시며 애국주의의 최고봉의 전형이시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참된 모범이시다.》라고 하였다.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는 김일성동지의 탄생 56주년을 기념하여 발행한 《천리마》특간호에서 김일성수상님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반제반미투쟁의 최선두에 서계시는 가장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우리 시대에 사는 혁명가들의 불요불굴의 스승》이시다라고 썼으며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 아바나상주대표 까를로스 빠딜랴는 김일성수상께서는《세계의 모든 혁명가들의 가장 순결한 감정을 대표하고계신다.》고 하였다.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수많은 혁명가들, 진보적인 사회활동가들은 김일성수상의 높은 덕성과 고매한 풍모만 보아도 인민의 수령의 모범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이께 최대의 존경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영국과학자협회 위원장 우스터교수는 김일성동지의 높은 덕성과 인민적사업작풍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이께서 보여주신 그 솜씨와 용기가 바로 그이로 하여금 전설적인 민족적영웅의 영예를 지니게 하였으며 조선전쟁기간에 최고사령관으로서 활약하신 그이의 훌륭한 업적이 이것을 장식하고있다.

그이의 영향력의 근저에는 그이의 락천주의와 인민대중에 대한 신임이 안받침되여있다.

그이께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락천적으로 그리고 정열적으로 감화시키는 가장 훌륭한 덕성을 소유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그와같은 덕성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신다. 그이께서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적인 방법도 견결히 반대하신다. 그이께서는 오직 전체 인민이 국가가 취하는 방침을 진정으로 접수할 때만이 성과가 달성될수 있다고 간주하고계신다.》

알제리의 언론인 까멜 끄루쉬는《현지에 내려가 인민과 상론하여 나라의 정책을 세우시고 그 집행대책을 포치하신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또 내려가시고 또 거기서 새로운것을 발견하시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시는 김일성수상의 령도방법은 인민대중을 승리에로 동원하는 진정한 인민적령도방법이다. 인민대중을 력사발전의 동력으로 간주하시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혁명적으로 풀어나가시는 김일성수상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의 조선인민은 천리마조선인민으로 되였다. 우리는 김일성수상께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고계시는 현지 지도방법을 통하여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고계시는 그이의 고결한 정신과 높은 덕성을 배웠으며 관료주의와는 정반대되는 인민적사업작풍의 모범을 보았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꾸바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 성원인 호쎄 마누엘은《…그이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고매한 인품과 덕성을 지닌분이시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이는 실로 혁명적락관주의와 겸손성, 소박성을 겸비하신 분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마다에서 자신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그대로 반영하시였으며 전세계에서 억압당하는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와 맑스-레닌주의의 영원한 생활력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시고 가르쳐주시였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민족해방전선 위원장 엘리아쓰 마느이끄 까메르는 자기의 인상기에서 《조선인민은 언제나 자기 인민과 함께 계시며 기쁨이 있을때나 희생이 있을때나 그 어느 시각에도 항상 인민의 진두에 서계시며 40여년간의 혁명투쟁의 나날에도 언제나 인민을 독창적으로 정확하게 령도하시였으며 인민의 것이라면 무심히 보지않으시고 자그마한것까지 풀어주시려고 언제나 심려하고계시는 진정한 인민의 수령을 모시고있다.》고 썼다.

까나리아섬독립자결운동 총비서 안또니오 꾸빌로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20세기 혁명력사에서 날이 갈수록 더 높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고계신다.》고 하였다.

인도신문 《내슈널 프란트》지 1968년 4월 20일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수상에 대하여 쓴다는것은 마치도 태양앞에서 등불을 켜들고있는것과 같다. 그이께서는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조선인민뿐만아니라 전세계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고계신다. 아세아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수상께서는 맑스-레닌주의적인 전략전술로써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물리쳤으며 오늘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커다란 타격을 주고계신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그이의 명성, 권위, 강대성, 현명성은 적들까지도 인정하고있으며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적들은 전률한다.》

나이제리아산림및땅구아농장원협회 중앙집행리사회 서기장 이제아이에 오모래지에는 오래동안 마음속깊이 흠모하여 마지않던 김일성수상님을 직접 만나뵈옵고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 그것은 위대한 김일성수상이 령도하시는 불패의 나라이다. 김일성수상은 현대조선과 피압박인민들을 대변하는 맑스-레닌주의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사상과 교시로써 조선뿐만아니라 전세계피압박인민들에게 실제로 해빛을 비쳐준다》고 하였다.

이것은 비단 이 한사람만의 심정이 아니다.

지금 싸우는 3대륙인민들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 사회활동가들은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신뢰와 존경을 표시하면서 그이를 《피압박인민들의 붉은 태양》으로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의 한분으로 무한히 경모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이렇듯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이 우러러 받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를 자기의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을 최대의 자랑으로, 영광으로 여기고있으며 그이의 충직한 혁명전사된 높은 영예를 간직하고 그이께 끝까지 충실하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세계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김일성! 그이는 붉은 태양

위대하도다,
여기 조선에서 솟아오른 빛나는 태양
그 붉은 태양은 위대하신 그이 김일성!
그 빛발 온세상 압박받는 사람들에게 비쳐가고
사람들은 김일성사상을 가슴마다에 간직하여라.

불타는 태양이 어찌 조선만을 비친다하랴,
휘황한 그 빛발 어찌 조선만을 위합이라 하랴,
그 태양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세아
피압박인민들의 붉은 등대여라.

조선혁명의 불길을 지펴준 그 불꽃
오늘은 압박받는 나라마다에서 타오르는도다.
오늘은 멀리멀리 압박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상은 빛발과도 같이 거침없이 비쳐가도다.
…

나이제리아산림및땅구아농장원협회 중앙집행리사회
서기장 이제아이에 오모래지에

혁명의 거세찬 대조류가 온세계를 휩쓴 1968년

1968년은 미제를 괴수로한 제국주의 반동세력과 세계반제혁명력량간의 격렬한 투쟁이 벌어진 한해였다.

이 해에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도처에서 미제를 괴수로한 제국주의 반동세력들과의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서 놈들을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더욱 깊이 몰아넣음으로써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를 새로운 위대한 승리로 수놓았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를 괴수로 한 세계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의 완전한 멸망과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의 종국적승리는 필연적인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72페지)

이 장엄한 혁명의 시대의 조류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제반혁명사상은 세계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무한한 용기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이 나아갈 길과 투쟁의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요구, 혁명력량의 호상관계와 혁명정세를 명철하게 통찰하고계시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40여년간의 혁명력사를 통하여 쌓으신 풍부한 경험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투쟁의 실천적경험을 총화하시고 혁국제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위대한 변혁의 시대, 혁명의 대조류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현시대의 요구에 상응하게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새롭게 천명하시고 미제를 종국적으로 타승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명확한 길을 가리키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도처에서 모두가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새로운 위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시대—혁명의 시대가 해결하여야할 세계혁명의 가장 근본적이고 절박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맑스-레닌주의적해답을 주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를 타승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서 광범한 반제력량이 공동으로 미제국주의에 타격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야 할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미제의 힘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전략을 성과적으로 짓부실수 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더욱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 견결히 투쟁한다면 매 전선에서 인민들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미제국주의를 때려눕힐수 있습니다.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국놈들의 팔다리도 뜯어내고 머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여러 나라 인민들이 사면에서 공격을 들이대고 모두 달라붙어 각을 뜨면 그들은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70—7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미투쟁전략은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흉악한 각개격파전략을 분쇄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인 방도를 명시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찾아보려고 헛되이 시도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모험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금년에도 방대한 자금을 군사비에 돌려 군비경쟁을 발광적으로 벌리면서 특히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조선과 웰남을 비롯한 아세아의 전반적인 지역과 세계의 일련의 지역들에서 모험적인 군사적도발과 침략행위를 미친듯이 감행해 나섰다. 이에 있어서 놈들은 핵공갈과 《평화적침투》, 탄압과 회유기만 등 소위 량면정책에 의거하면서 혁명적인 나라들은 무력침략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며 사상적으로 나약한 나라들은 사상정치적공세를 강화하여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날뛰였다.

미제의 이 흉악한 책동에 대처하여 세계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현대식민주의아성이며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 놈들의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려야 한다.

미제의 각을 뜨는 전략—이것은 바로 주되는 적인 미제에 창끝을 집중하여 사면팔방으로부터 집단적인 반격을 가하여 놈들을 완전히 수세와 피동에 몰아넣는 진공적인 전략이며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분쇄함으로써 그의 세계전략전반을 제압하고 파탄시키는 적극적인 전략이며 련속적인 강력한 타격으로 미제의 힘을 최대한 분산약화시키고 그 자체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키며 나가서는 제국주의진영의 전반적진지를 약화시키고 세계제국주의의 전면적붕괴를 촉진시켜 나가는 혁명적전략이다.

실로 력사에 의해 그 정당성이 확증되고 현실생활에 의하여 그 생활력이 더욱 실증되고있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반제혁명사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다란 견인력과 생활력을 가지고 세계에서 일어나고있는 위대한 변혁과정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전세계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반제반미투쟁의 승리를 위한 위대한 불패의 사상을 안겨주신 혁명의 천재적인 수령 김일성동지를 《세계인민을 반제반미투쟁과 자유와 독립에로 이끄시는 탁월한 령도자》로, 《피압박인민들의 붉은 태양》으로, 《현대의 가장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로 경모하면서 바로 그이의 반제혁명사상에서 진로를 찾고 미래의 승리를 내다보면서 이 해에도 혁명의 거세찬 조류를 타고 힘차게 전진하였던것이다.

1968년의 국제정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로선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하였다.

미제의 각을 뜨는 투쟁에 일떠선 세계의 혁명적인민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세기동안 서방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략탈당하여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용감히 일떠서 력사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민족해방의 세찬 조류가 막을수 없는 힘으로 밀려오고있다. 3대륙의 수억만 사람들이 자기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고있으며 이미 쟁취한 혁명의 성과를 고수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체계는 급격히 무너져가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19페지)

실로 이 해에 제국주의와 혁명력량, 진보와 반동간의 격렬한 투쟁무대로 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민족해방혁명의 대조류가 온갖 낡고 썩은 시대의 오물들을 힘있게 떠밀어 제끼면서 홍수와 같이 거세차게 밀려들었다. 세기를 두고 천대받고 억눌렸던 수난에 찬 이 대륙의 수억만인민들은 반제반미투쟁의 기치, 자유와 해방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의 흉악한 전략에 대처하여 투쟁의 창끝을 미제에 더욱 힘있게 돌리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놈들이 발붙이고있는 그 모든곳에서 놈들의 손발을 얽어매고 각을 떠내면서 투쟁의 시대, 혁명적폭풍우의 시대인 이 해의 력사를 힘있게 앞으로 떠밀고 나아갔다.

세찬 격랑을 일으키며 막을수 없는 힘으로 온세계를 도도히 휩쓸고있는 이 장엄한 혁명의 거세찬 조류앞에서 미제를 괴수로하는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은 몸부림을 치며 력사무대에서 밀려나고있다.

이 해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이 반제반미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력사적승리는 결코 평탄한 길에서가 아니라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제국주의 반동세력들과의 격렬한 판가리싸움을 통하여 쟁취된것이다.

미제의 숨통을 조이는 아세아

미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처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더욱 로골화하였다.

놈들은 특히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이 지역의 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고 악랄하게 날뛰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 더 많은 침략무력을 끌어들이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중추로하는 새로운 아세아 《반공》 군사동맹을 꾸며내려고 책동하면서 웰남침략전쟁을 발광적으로 확대강화하는 한편 침략전쟁의 불길을 아세아 전역에로 확대하려고 발광하였다.

미제는 1968 회계년도에 800여억딸라에 달하는 직접적군사비의 많은 몫과 그리고 대외 《원조》 총액의 4분의 3을 아세아에 집중하는 한편 미제침략군무력을 남부웰남을 비롯한 아세아의 일련의 지역에 더욱 끌어들였다. 미제가 일본군국주의자들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 통제와 지배를 일층 강화하며 《미일공동작전체제》 밑에 놈들을 조선과 아세아침략을 위한 전투작전에 더욱 밀어넣은 사실, 남조선괴뢰 박정희역적의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행각, 뉴질랜드반동두목 홀리오크의 일본, 남조선행각, 타이괴뢰 프라파스의 필리핀, 대만, 남조선행각과 이른바 《아세아태평양지역각료리사회》 (아스파크)회의 등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핵심으로 새로운 아세아 《반공》 군사동맹을 조작하려고 미쳐날뛴 사실들은 미국놈들의 이러한 책동의 련쇄된 고리들이였다.

미제는 특히 남조선에 새로운 침략무력과 군사장비를 계속 끌어들이고 괴뢰군을 가일층 무장시키며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로골화하면서 조선에서 새전쟁을

일으키려고 분별없이 발광하였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은 놈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같은 모험적인 발광으로써 남조선에서 위기에 처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구원하며 전조선과 아세아를 정복하기 위한 흉악한 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망상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의 망상은 조선인민의 뭔배에 걸려 여지없이 부서져 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밑에 일당백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란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과 인민들은 미제의 온갖 도발행동을 걸음마다 분쇄하였으며 우리 나라 령해깊이 침입하여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와 그 선원들을 범행현장에서 붙잡음으로써 무모한 도발에 날뛰고있는 미제의 오만한 코대를 통쾌하게 후려갈기였으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분쇄하고 그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반제투쟁의 기수로서의 혁명적기개와 백절불굴의 투지를 온 누리에 다시한번 힘있게 시위하였다. 온 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은 미제의 치욕스러운 침략력사에 또하나의 수치스러운 페지를 기록하게 하였다.

한편 이 해에 남조선 전역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역도를 쓸어버리기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조직전개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파쑈테로통치밑에서 더는 참을래야 참을수 없게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혁명적무장투쟁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투쟁을 힘차게 벌려 미제와 그 주구들에 련속적인 타격을 주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이 용감한 투쟁은 미제의 침략정책에 심각한 파렬구를 조성하고있으며 그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반제투쟁의 가장 치렬한 전선의 하나인 조선에서의 미제의 침략정책의 이와같은 심대한 파산은 놈들의 세계전략의 핵을 이루고있는 아세아전략의 파산을 가일층 촉진케 하고있다.

1968년에 영웅적웰남인민들도 남부를 해방하고 북부를 수호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반미구국항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웰남인민의 영웅적항쟁에 의하여 미국군대는 패배를 거듭하고있으며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타산과는 반대로 웰남전쟁은 침략자들의 무덤으로 되고있다. 웰남인민의 구국항전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독립과 자유를 지킬 결의를 가지고 있으며 전세계인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는 인민은 타승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4페지)

웰남의 죽음의 진창속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이미 수년간 헛된 발악을 거듭해온 미제국주의자들은 1968년에 또다시 4만 5천여명의 미제침략군을 남부웰남에 새로 끌어들이고 300여억딸라(미제군사비총액의 근 30%)의 웰남침략전쟁비를 탕진하면서 남부웰남에서 대규모의 《초토화작전》을 미친듯이 벌리는 한편 북부웰남을 반대하는 파괴적인 공중전쟁을 새로운 규모로 확대강화하였다.

놈들은 이러한 발광으로써 년내로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의 기본력량을 《전제소멸》하고 북부웰남인민들의 투지를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웰남침략전쟁의 국면을 제놈들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동남아세아에서 사회주의진영의 한고리를 떼여내며 나아가서는 위기에 직면한 제놈들의 세계전략의 돌파구를 뚫어보려고 망상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흉악한 기도는 생사를 결단하고 영웅적항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웰남인민의 단호한 항거에 부딪쳐 여지없이 뒤집어지고말았다.

이미 국토의 5분의 4와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한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과 인민들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정확한 령도밑에 1월 31일부터 남부웰남전역에서 세인을 경탄케하는 대규모적인 총공세와 전면적인 봉기로써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에게 숨돌릴새 없는 호된 타격을 련속 가하여 원쑤들을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더욱 깊이 몰아넣었다.

총공세가 시작된 이후 1968년 1년동안에 남부웰남인민과 그 무장력은 23만명의 미제침략군과 추종군을 포함한 63만여명의 적을 살상포로하고 6천대의 비행기를 격추파괴하였으며 1천척의 함선을 격침격파하고 땅크, 장갑차 7천여대를 포함한 1만 3천 500대의 군용차를 녹여내는 빛나는 전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1966년과 1967년 두해동안에 거둔 전과를 합친것보다 더 큰것이였다.

총공세기간에 사이공에 둥지를 틀고앉은 미국놈들의 대사관, 미제침략군사령부, 해병대사령부, 괴뢰대통령《관저》, 괴뢰해군및 특공대사령부, 심리전본부, 괴뢰경찰청, 남부웰남주둔 남조선괴뢰 두목놈의 사무실 등 적들의 주요 군사 및 정치적 본거지들이 련속 얻어맞아 묵사발이 되였으며 미제침략군의 주요거점과 기지들이 불바다로 되고 괴뢰군과 괴뢰통치기구들이 전면적인 마비상태에 빠져들어갔다. 한편 적들의 일시적인 강점지역들에서는 인민들이 봉기를 일으켜 도처에서 괴뢰정권을 뒤집어엎고 혁명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이 과정에 200여만명의 인민들이 적의 기반에서 해방되고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조직인 웰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이 새로 결성되여 적들의 고립은 가일층 심화되였다.

남부웰남인민과 그 무장력의 전투력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남김없이 과시한 총공세를 계기로

미제의 모든 군사작전들과 소위 《평화계획》은 완전 파산을 고하고 놈들은 극도의 수세와 피동에 빠져들어갔으며 남부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민주웰남을 반대하는 파괴적인 공중전쟁에서도 미제는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다.

지난 1년동안에 민주웰남의 상공에서는 570여대의 미제침략군의 비행기가 박살났는바 이로써 북부웰남에 대한 강도적인 폭격을 개시한 이래 미제침략자들이 잃어버린 비행기수는 무려 3천 200여대를 기록하게 되였다.

폭탄으로써 민주웰남인민을 결코 굴복시킬수 없으며 그것이 도리여 남북웰남인민의 반미투지를 더욱 굳게 해주고 제놈들 자신의 패배와 고립을 일층 촉진케하는 역효과만을 빚어내게 되자 미제는 11월 1일부터 웰남민주공화국의 전령토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무조건 중지한다는것을 선포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이 해에 웰남인민이 거둔 또 하나의 커다란 승리로 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하려고 발광하고 있으나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병력원천의 고갈, 막대한 전쟁비용 지출로 인한 재정경제위기의 심화, 웰남에서 피묻은 손을 떼라는 세계여론의 강경한 요구 등에 부딪쳐 침략적야망의 실현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였다.

사실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정책이 종국적파산의 운명에 처했으며 이 지역에서 놈들이 쫓겨날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웰남침략전쟁의 이 참담한 현실태와 암담한 전망으로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커다란 혼란과 공포, 비판에 휩싸여있다. 전쟁두목 존슨의 입에서까지 《우리(미국)의 앞길은 료원하며 피와 땀과 눈물이 더 뿌려지게될것》이라는 비명이 울려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불굴의 땅 웰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발전은 자기의 정당한 위업을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떠선 인민은 그어떤 힘으로써도 결코 타승할수 없으며 침략과 전쟁에 미쳐 날뛰는자에게는 오직 비참한 패배의 운명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 력사에 의해 확증된 엄연한 진리를 다시한번 웅변으로 실증해 주고있다.

지난 1년간 라오스인민의 반미구국항전도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미 국토의 3분의 2와 인구의 절반이상을 해방한 라오스인민해방군과 인민들은 《적을 주동적으로 들이쳐 계속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단호히 분쇄》해 버릴데 대한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의 호소에 따라 금년초부터 남북을 련결하는 1천 700여키로메터의 긴 전선에서 미제와 우익반동군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들이대여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그들은 근 1년 남짓한 기간에 1천 460회의 전투를 진행하여 적 2만여명을 소멸하고 170대의 비행기를 격추파괴하였으며 적강점지역에 있는 근 2만명의 인민들과 남바크, 파티, 타톰, 무옹보를 비롯한 전략적요충지들을 해방하였다.

이 승리적인 전진속에서 10월말에 진행된 라오스애국전선 제3차대회에서는 미제가 라오스에서 《특수전쟁》을 벌린이래 4년간의 정세를 총화하고 새로운 투쟁강령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라오스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은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이리하여 라오스해방지역을 강점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허물어지는 침략지반을 수습하고 나아가서는 웰남침략전쟁을 위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보려던 미제의 타산은 여지없이 틀어지고말았으며 놈들의 《특수전쟁》전략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캄보쟈인민들도 미제와 그 주구들의 격화되는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존엄을 굳건히 지켜나아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온갖 구실을 붙여 캄보쟈를 반대하는 국경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한편 캄보쟈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파괴암해책동을 악랄하게 벌리였다. 이렇게함으로써 놈들은 캄보쟈를 반제전선에서 떼여내며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독립을 말살하려고 시도하였다.

캄보쟈 왕국군과 인민들은 미제침략군과 그 주구들인 남부웰남, 타이괴뢰들의 무분별한 도발책동과 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제때에 쳐물리침으로써 적들에게 응당한 반격을 가하였다. 특히 그들은 5월 28일 메콩강을 따라 침입해 들어온 미제상륙정과 그 선원들을 나포함으로써 원쑤들의 위협공갈에도 굴함없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결의를 다시한번 힘있게 시위하였다.

수년전 타이동북부에서 무장투쟁의 첫 봉화를 든 타이인민의 애국적무장부대는 금년에 나라의 71개주중 31개주의 110개군에로 투쟁범위를 확대하면서 도처에서 미제와 그 주구 타놈—프라파스도당에게 계속 호된 타격을 주었다.

타이 애국적무장부대는 우돈과 같은 미제침략군의 대공군기지를 습격하는 대담한 작전을 전개하면서 지난 1년간에 1천 450여명의 적을 쓸어눕혔다. 이리하여 지금 미제와 그 주구들은 타이가 《제2의 남부웰남으로 전변》되고 있다고 공포에 찬 비명을 계속 올리고있다.

미제가 《태평양의 고요한 안식처》로 자처하던 필리핀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무장투쟁이 새로운 규모로 확대강화되여 원쑤들을 불안에 떨게하고있다.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공격기지, 보급기지, 수리기지로되고있는 일본에서도 반미투쟁의 거세찬 불길이 타올라 미제와 그 앞잡이 사또도당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금년에 들어

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인 통제와 지배를 일층 강화하면서 놈들을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더욱 내몰았다.

사또도당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정치사회생활의 전면적인 파쑈화를 강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침략과 팽창에 바싹 열을 올렸다. 특히 놈들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을 둘러싸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일대 모험적인 전쟁도발소동을 벌리고있을때 그를 적극 지원해 나서면서 침략적인 《자위대》를 《비상경계태세》에 두고 동해에서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벌리는 등 우리나라를 반대하는 침략소동을 로골적으로 벌렸다.

이렇게함으로써 사또반동무리들은 미제의 충실한 침략의 길잡이로서 조일량국인민의 흉악한 원쑤로서의 더러운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 보였다.

그러나 미일반동들의 이러한 책동은 무엇보다도 우선 일본인민들속에서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제놈들 자신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였다.

이 해에 일본에서는 미제의 침략정책과 사또도당의 대미추종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오끼나와의 즉시, 무조건, 전면반환을 위한 《공동행동월간》(1월 8일—4월 28일), 미제의 윁남침략전쟁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군국화책동을 반대하는 100만 군중의 전국적인 항의투쟁(10월 21일), 침략적인 일미 《안보조약》의 폐기와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철폐를 위한 《공동행동》(11월 1일—10일) 등에서 뚜렷이 표현된 바와같이 일본인민들은 대중적인 진출을 강화함으로써 아세아에 대한 침략과 팽창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는 미일반동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자기들의 단합된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1968년에 미제가 저들의 대외침략정책에서 가장 많은 힘을 넣었던 아세아전략이 심대한 파산의 운명에 직면하고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의 이러한 전면적인 파산은 세계제패를 위한 놈들의 흉악한 책동을 여지없이 뒤흔들어놓음으로써 미제국주의의 종국적패망을 가일층 촉진케 하였다.

세계도처에서 타오르는 반미투쟁의 불길

미제국주의자들은 비단 아세아에서만 녹아난것이 아니다.

미제의 흉악한 침략의 마수가 뻗치고있는 그 모든곳에서 인민들은 놈들의 각을 뜨는 싸움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이해에 아랍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제압하면서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존엄을 굳건히 지켜나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금년에 이스라엘반동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에 박차를 가하면서 놈들을 아랍국가들을 반대하는 무모한 도발에로 극력 내몰았다. 이미 중동전쟁이후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에게 비행기, 땅크, 공격용미싸일을 포함한 무려 5억 2천 500만딸라의 《군사원조》를 제공한바 있는 미제는 또다시 50여대의 《팬톰》분사식비행기를 넘겨주기로 정식 결정하고 이 지역에서 긴장상태를 계속 첨예화시키는데로 나아갔다.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촉밑에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은 아랍국가들과의 접촉지점들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키는 한편 엄중한 무력도발을 거의 매일같이 감행해 나섰다. 특히 3월말 요르단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침공, 9월 8일 수에즈운하의 전전선에 걸쳐 아련을 반대하는 장시간에 걸친 포사격과 10월말 까히라 남방 280마일지점에 있는 발전소와 다리에 대한 폭격, 12월 28일 레바논의 베이루트국제비행장에 대한 불의의 공격 등은 놈들의 이러한 침략책동에서 주목할만한 사건들이였다.

한편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이와같은 범죄행위를 가리고 아랍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하며 세계여론을 기만해 보려고 갖은 모략을 다 꾸몄는바 이에 있어서 지난 10월초 흉악한 호전광인 미국부대통령 험프리란 놈이 들고나온 이른바 《중동평화안》은 그의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무력도발과 기만적인 《평화》책략을 배합한 음흉한 책동으로써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아랍국가들을 각개격파하며 나아가서는 이 지역에 저들의 신식민주의적지배권을 확립해 보려고 흉악하게 발악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강화되는 이러한 발악적인 책동은 도리여 이 지역 인민들의 세찬 항거를 더욱 불러일으켰다. 아련, 수리아를 비롯한 아랍나라들은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일층 강화하며 이스라엘강점자들을 영원히 쓸어버리기 위한 전투태세를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였다.

아련대통령 나쎄르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이른바 《중동평화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일시적으로 강점당한 아랍의 모든 땅을 힘으로써 도로 찾으며 아련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을 굳건히 지켜나아갈데 대한 아련인민의 철석같은 결의를 천명하였다.

11월 3일 아련내각은 조성된 사태를 토의하고 미제와 그 주구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우심해지는 도발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아련의 전초선에서는 아련군이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감시하면서 도발을 일삼고있는 원쑤들에게 그때마다 단호한 징벌타격을 안기고있으며 후방에서는 광범한 로동자, 농민, 학생들속에서 《인민방위군》 창설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11월 30일 수리아국가수반 아따씨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무장시켜 아랍나라들을 또다시 공격하게 하고있다.》고 규탄하면서 《우리(수리아)는 이스라엘을 반대하여 무장투쟁과 전면전쟁을 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과 끝까지 싸워 승리하려는 수리아인민의 굳은 결의를 그대로 천명한것이다.

요르단군과 인민들도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도발책동을 제때에 분쇄하면서 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고있으며 강점된 령토를 찾기 위한 준비태세를 강화하였다.

조국을 다시 찾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선 팔레스티나항쟁투사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야수적인 탄압을 박차고 도처에서 원쑤들의 병영, 기지시설들을 대담하게 공격소탕하면서 강점당한 아랍땅의 모든 지역에로 무장투쟁을 확대하였다.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이 성스러운 투쟁에서 아랍국가들과 인민들간의 전투적인 단결의 뉴대는 날로 확대강화되고있는바 9월초 아련의 까히라에서 열린 아랍련맹리사회회의는 단합된 힘으로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과 끝까지 싸워 승리하려는 아랍인민들의 한결같은 결의를 다시한번 시위하였다.

이 해에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 기네,짐바브웨, 남아프리카 애국자들도 투쟁대오를 더욱 정비강화하고 무장투쟁범위를 넓히면서 도처에서 식민주의의 보루를 허물어제끼는 진공전을 강화하였다.

반미민족해방혁명의 불길은 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도 힘차게 타올랐다.

꾸바혁명의 승리적인 전진과 그의 영향하에 날로 앙양되고있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에 질겁한 미제는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도발과 함께 라틴아메리카 반동들을 규합하여 집단간섭을 꾀하는 한편 다른편으로는 파괴전복활동을 일층 로골화하면서 서반구에서 크게 뒤흔들리고있는 저들의 침략지반을 어떻게나 유지해 보려고 필사적으로 발광하였다. 산 살바도르에서 있은 《중미국가수뇌자회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있은 미주국가기구성원국 군사두목놈들의 회의, 12월 20일 베네수엘라 친미반동들을 사촉하여 공해상에서 꾸바어선을 나포하는 엄중한 도발을 감행한 사실 그리고 뻬루, 빠나마를 비롯한 일련의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전복활동과 파괴암해책동을 악랄하게 벌린것 등은 놈들의 이러한 책동의 중요한 일환들이였다.

그러나 영웅적꾸바인민들은 미제의 거듭되는 도발책동과 경제봉쇄책동에 대처하여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를 들고 용감하게 싸움으로써 사회주의진영의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먹어들어가려는 미제의 기도를 좌절시키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고수하였으며 또 고수하고있다. 미제를 맞받아 용감히 싸우고있으며 서반구대륙에 확고히 자리잡고있는 꾸바의 존재는 반미반독재, 민족해방을 위한 이 대륙 인민의 투쟁에 커다란 혁명적작용을 미치고있으며 그들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손에 무장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때려엎기 위한 결전장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섰다.

이 해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과떼말라, 뻬루, 뿌에르또 리꼬, 니까라과 등 도처에서 무장유격대들은 새로운 유격근거지들을 확보하고 산림과 농촌으로부터 도시에로, 매복과 소부대의 활동으로부터 보다 큰 규모의 기동에 의한 적극적인 공세에로 투쟁의 폭을 넓히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안겨주었다.

이 치열한 투쟁행정에서 1968년에 콜롬비아에서는 《까밀로 또레스 혁명해방군》이라는 명칭을 가진 유격대가, 과떼말라에서는 반미반독재혁명력량들인 무장봉기군과 《11월 13일 혁명운동》이 유일한 조직으로 통합된 과떼말라무장봉기군이, 뿌에르또 리꼬에서는 《해방무장대》라는 새로운 무장부대가 각각 새로 조직되여 맹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니까라과에서도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이 새롭게 앙양되였다.

이러한 사태를 개탄하면서 미제 어용신문 《시카고 데일리 뉴스》까지 라틴아메리카의 도처에서 《무장한 사람들이 산과 밀림속에서만 싸우고있는것이 아니라 수도를 포함한 여러 도시들에까지 처들어가고있으며 그의 힘은 광범한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 날로 장성하고있다.》고 비명을 올렸다.

무장투쟁과 함께 이 대륙의 전지역에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미제는 물러가라!》, 《독재정권을 타도하라!》는 구호밑에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은 경제투쟁으로부터 정치투쟁으로, 시위투쟁으로부터 폭력투쟁으로 급속히 발전해갔다.

이리하여 어제날까지만 하여도 미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간주해오던 라틴아메리카대륙은 오늘 미제의 각을 뜯어내는 결전장으로 전변되였다.

지난 1년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파괴활동과 전복음모, 내부교란과 사상적와해, 민족분렬, 나라들간의 알륵조작, 소위 《원조》 등 간악하고 교활한 책동으로 신생독립국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을 반제전선에서 하나하나 떼여내여 우경에로 돌려 세우려는 미제의 흉악한 책동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또한 크게 발전하였다.

알제리, 이라크, 남부에멘, 기네, 탄자니아, 공고(브)를 비롯

한 수많은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미제의 소위 《원조》에 의한 경제적예속과 횡포한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자주자립의 기치하에 나라의 경제적독립과 완전한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또한 중근동과 아프리카의 여러나라들에서는 《외교관》, 《평화군》, 《관광객》의 탈을 쓰고 파괴활동을 일삼던 미국놈들이 쫓겨났으며 염세와 타락을 설교하고 반공숭미사상을 퍼뜨리며 반제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반동적인 미국영화들의 상영을 금지해 버렸다.

특히 아프리카대륙에서 민족해방운동이 확대발전하고 대륙인민들간의 통일적인 진출이 강화되는 환경속에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진행된 제5차 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자회의는 제국주의자들의 련합된 공세에 대처하여 아프리카인민들간의 전투적인 련대성을 일층 강화하며 대륙에서의 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세움으로써 완전한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앙양된것과 함께 서구라파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독점자본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이 현저히 장성 강화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앙양된 로동운동에서 특히 주목을 끈것은 투쟁의 규모가 전례없이 확대되고 조직성이 일층 강화되였으며 투쟁이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 폭동적인 형태로 발전하면서 반동통치집단을 더욱더 위기에 몰아넣고있는 사실이다.

1968년 5—6월에 프랑스 전국을 휩쓴 1천여만 근로자들의 총파업, 11월 중순과 12월초에 이딸리아 전역에서 일어난 《전후최대의 총파업》, 독점자본가놈들에게 2천만파운드의 손실을 가져다준 300만 영국기계제작공업부문 로동자들의 전국적인 파업, 일본에서 대규모적으로 벌어진 근로자들의 봄철 및 가을철 공동투쟁, 5.1절에 즈음하여 세계도처에서 새롭게 앙양된 근로자들의 대중적인 진출 등은 대표적인 실례들이다.

자본주의세계 전반을 휩쓸고있는 줄기찬 로동운동은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자본주의 반동세력의 전반적인 정치, 경제적 위기를 가일층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미제를 괴수로하는 제국주의 반동세력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각국인민들간의 전투적인 단결과 련대성이 민족적인 범위에서나 세계적인 범위에서 더욱 강화되고있는것은 하나의 국제적인 조류로 되고있다.

그것은 특히 미제의 범죄적인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여 싸우는 웰남인민을 지지성원하기 위한 투쟁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였다.

이 해에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은 항의시위, 군중집회, 련대성파업, 지원금모으기운동, 서명수집운동 등 여러가지 투쟁을 통하여 웰남인민에게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미제는 웰남에서 피묻은 손을 떼라!》, 《미제에게 죽음을 주라!》는 목소리가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뢰성처럼 울려퍼지는 가운데 도처에서 분노한 인민들에 의하여 미국놈의 대사관과 령사관이 습격 파괴당하고 존슨의 허수아비가 불에 타 재가루가 되며 미국놈의 기발이 갈기갈기 찢기우고 해외《친선려행》에 오른 존슨, 험프리 등 미제의 악명높은 두목놈들이 뻥끼세례, 썩은 닭알벼락을 얻어맞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세계인민들의 련대성은 미제의 새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서도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일에 즈음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광범히 진행된 여러가지 행사들은 그의 좋은 실례들이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이처럼 미제의 각개격파전략에 대처하여 서로 힘을 합쳐 일떠섬으로써 현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인 반제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미제의 고립과 패배를 가일층 촉진시켰다.

실로 그 어디에 가나 오늘날 미제승냥이들이 편안히 발을 붙이고있을 곳은 없게 되였으며 도처에서 놈들은 얻어맞고 몰리우고있다.

지난 1년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거세차게 일어난 반제반미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을 이루면서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평화와 민족적독립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전반적인 위업을 크게 전진시켰다.

제집안에서조차 발편잠을 잘수 없게된 미제

세계도처에서 혁명적인민들에게 련속 된매를 맞고 만신창이된 미제는 이 해에 서방 《동맹국》들로부터도 심한 랭대와 배격을 받았다.

1968년에도 서방세계에서는 영국의 구라파 《공동시장》 가입문제, 침략적인 나토기구의 개편과 현 자본주의통화제도의 개혁문제 등을 둘러싸고 제국주의렬강간에 치렬한 개싸움이 벌어져 제국주의 진영의 분렬과정이 일층 촉진되고 미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였다.

이미 1967년 5월에 구라파 《공동시장》측에 정식 가입신청을 냈다가 프랑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한 영국의

윌슨반동정부는 1968년에 들어와 미제의 적극적인 뒤받침을 받아가면서 《공동시장》에 뚫고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역습전을 집요하게 벌렸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영국의 《공동시장》 가입에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갖고있는 서독군국주의자들과 《공동시장》의 기타 성원국들을 구슬려 프랑스의 완고한 립장을 굽히기 위한 《집단공세》를 취하는데로 나아갔다.

1968년 9월과 10월에 있었던 벨지끄외상 아르멜이란자의 본, 로마, 런던행각, 화란수상 드 용과 외상 룬스란자의 본행각 그리고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련속 진행된 구라파 《공동시장》 6개국 《농업상회의》와 《각료리사회회의》 등은 바로 이러한 책동의 한 고리로서 마련된것이였다.

놈들은 빈번한 행각과 밀담들에서 영국을 《공동시장》에 받아들임으로써 폐쇄된 이 《시장》을 더욱 개방할데 대한 저들의 《기본립장들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기본립장》들을 고수하여 《통일행동》을 취하며 만약 프랑스가 계속 완고하게 나아간다면 프랑스를 제외한 《공동시장》성원국들이 공동으로 《시장》 밖에서 영국과 경제무역관계를 더욱 확대할데 대한 문제까지 공론하였다. 이 자들은 바로 이와같은 방법으로 프랑스를 강박하여 그의 립장을 돌려세우고 영국의 《공동시장》가입을 어떻게나 성사시켜 보려고 타산하였던것이다.

이것은 《공동시장》을 발판으로 하여 저들의 세력권을 확대하기에 몰두하고있는 프랑스에 대한 새로운 역공세가 아닐수 없다.

이러한 사태발전에 악이 받친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영제국주의자들이 대미추종에서 벗어나 서구라파대륙에 더욱더 낯을 돌리며 《공동시장》의 리해관계를 훼손시킬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않겠다는것을 《명백히 담보》하지 않는 이상 그의 《공동시장》 가입에 절대로 찬성할수 없다고 하면서 도리여 반격을 가해나섰다.

이러하여 영국의 《공동시장》 가입기도는 또다시 좌절되고말았다.

이것은 《공동시장》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자국의 심각한 재정—경제위기를 《타개》하며 나아가서는 서구라파에서 잃었던 옛 맹주의 지위를 회복해보려고 꿈꾸고있는 영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영국을 《공동시장》에 박아넣어 이 배타적인 《시장》을 내부로부터 파괴하고 서구라파시장을 독점하려고 집요하게 획책해온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심대한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미제는 또한 1968년에 들어와 나토, 세아토 등 침략기구들의 회의를 빈번히 벌려놓고 뿔뿔이 흩어지고있는 《동맹국》들을 틀어쥐여 저들의 침략정책 수행에로 더욱 내몰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그때마다 프랑스, 파키스탄, 로이기를 비롯한 일련의 성원국들이 그에 등을 돌려대거나 랭담한 태도를 표시해 나섰다.

도리여 프랑스와같은 제국주의 렬강은 미제의 지위가 걷잡을수 없이 뒤흔들리고있는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미제의 침략도구인 나토기구를 뜯어고칠것을 주장하면서 서방세계에서의 미제의 군사적인 패권을 허물기 위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딸라가 극심한 위기를 겪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프랑스는 딸라와 파운드 중심의 현 자본주의통화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것을 완강히 주장하면서 재정금융면에서도 미제에 도전해 나섰다.

한편 이른바 《미국—에스빠냐 방위조약》 갱신문제와 《나토전략문제》를 둘러싼 아귀다툼에서 표현되고있는 바와같이 에스빠냐, 노르웨이, 단마르크와 같은 하찮은 《동맹국》들까지도 이제와서는 미제의 명령정책에 고분고분 순종하기를 거부해 나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실들은 한때 서방제국주의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미제가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로 굴러떨어지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 해에 미제는 국내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존슨도당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은 미국내 광범한 인민들의 항거를 세차게 불러일으켰으며 중병에 걸린 미국경제를 수습할수 없는 파국의 구렁텅이로 더욱 깊이 몰아넣었다.

특히 1968년에 미국에서는 독점자본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파업투쟁,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는 광범한 대중적운동,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흑인들의 폭동 등이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더욱 확대심화되면서 존슨반동집단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미국의 광범한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존슨도당의 탄압회유책동과 황색로조상층분자들의 분렬와해책동에도 굴함없이 대중적인 진출을 현저히 강화하였다. 특히 그들의 투쟁이 정치적성격을 강하게 띤 대규모적인 파업으로 확대되면서 미제의 침략 및 전쟁정책에 직접 타격을 주는데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29개주에 있는 주요 동광산들과 동제련소들을 휩쓸면서 미국의 전체 동생산의 90%를 마비시킨 동생산부문 로동자들의 전국적인 총파업, 미국 동남부해안 연안일대의 모든 항구들을 마비시키고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위한 군수물자수송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한 7만 5천여명의 부두로동자들의 총파업, 15개에 달하는 미국의 주요 알루미니움공장을 마비상태에 몰아넣은 2만 1천명의 알루미니움공장 로동자들의 파업투쟁 등은 이를 실증해주는 몇개의 실례에 불과하다.

근로자들의 파업투쟁과 함께 존슨반동정부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도 강화되였다.

《범죄적인 웰남침략전쟁을 즉시 중지하라!》, 《우리는 웰남에 끌려가지 않을것이다!》—이러한 구호밑에 전국 도처에서 미제의 웰남침략을 규탄하는 항의시위, 군중집회, 징집령장소각운동 등이 쉴새없이 벌어졌다.

4월 27일 미국 전국을 휩쓴 존슨도당의 윁남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대중적인 진출에서도 다시한번 실증된바와 같이 이 투쟁은 각계층 군중과 지어는 미제침략군의 일부 병사들까지 망라하는 대중적이며 조직적이며 폭동적인 운동으로 힘차게 발전하였다.

미국인민들의 정치투쟁은 흑인폭동과 합류되여 더욱 거세찬 호름을 이루면서 존슨도당을 크게 위압하였다.

특히 4월초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폭발하여 순식간에 워싱톤, 뉴욕, 로스안젤스, 볼티모어 등 125개 도시로 확대된 미국흑인들의 대규모적인 폭동은 처음부터 적극적인 폭력투쟁의 형태로 진행되였으며 그 예봉이 바로 전쟁광 존슨도당을 반대하는데로 돌려졌다.

미국을 진감하고있는 인민들의 이 대중적인 투쟁은 세계각국 혁명적인민들의 반미투쟁과 함께 미제국주의자들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미제지배층놈들속에서까지도 《현재 미국에는 2차대전 이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고 비명을 올리지 않을수 없었다.

한편 미제는 엄중한 재정—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특히 윁남침략전쟁의 《계단식확대》로 미국에서는 생산이 침체감소되고 국제수지적자가 늘어나고있으며 금예비가 줄어들고 국가재정이 긴장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빈궁화가 가일층 촉진되였다.

미제의 국제수지적자는 40억딸라를 헤아리고있으며 금예비는 193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리하여 존슨반동정부는 미국의 국내화폐류통을 보증할 《법정준비금》마저 보유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미제가 걸머진 300여억딸라의 해외단기채무를 그 3분의 1만이라도 물어줄만한 량의 금을 갖지못하고있는 형편에 처하였다.

특히 1968년에 자본주의 금융계를 휩쓴 통화위기는 그렇지 않아도 악화된 미제의 재정경제형편을 더욱 긴장시켰다.

3월과 5월에 새롭게 폭발한 프랑, 파운드, 딸라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 금융시장들에서 광란적인 《금구입소동》이 다시 벌어지게 되면서 금값은 무려 1온스당 45딸라의 수준에로까지 폭등하고 국제준비통화로서의 딸라의 가치는 여지없이 떨어졌다. 이리하여 금의 뒤받침을 받을수 없게된 딸라는 맥을 출수없게되고 이에 따라 딸라, 파운드중심의 현 자본주의통화제도가 그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는 사태가 조성되였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로서 재정경제위기의 이러한 첨예화는 미제국주의의 지반을 허물고있으며 그의 쇠퇴몰락을 더욱 앞당기고있다.

× × ×

1968년의 국제정세는 국제적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격렬한 계급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의 혁명적폭풍우속에서 세계의 혁명적력량이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우심해가는 침략과 전쟁정책을 힘있게 제압하면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력사의 로정을 승리적으로 밟아나가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모든 반동세력들은 이 력사의 장엄한 전진을 가로막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하다는것을 론박할수 없는 사실로써 다시한번 확증하였다.

이 해의 국제정세발전은 또한 세계반제혁명력량이 확대강화되고 우리의 국제적벗들과 전우들이 더욱 많아짐으로써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국제적력량이 믿음직하게 장성강화되고있으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더욱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조선인민은 우리세대에 반드시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고야 말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와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세계 모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그들과 함께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쓸어버릴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 나아갈것이다.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인류의 가장 흉악한 원쑤인 미제국주의는 패망하고 말것이며 세계혁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아세아주

중 국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아세아대륙의 동쪽에 자리잡고있다. 서북지방은 높은 산악지대, 남서지방은 산맥을 이루고있다.

동부의 36%는 평야와 언덕지대이다.

전국해안선의 길이는 1만 4천키로메터이다.

서부지대는 대륙성기후이며 동남지방의 해안지대는 습기가 많고 비가 많이 오며 기온의 차는 크지 않다.

【면적】 959만 7,000km²(그중 대만의 면적 3만 5,759km²)

【인구】 7억명(1967년말)

다민족국가로서 한족이 전인구의 93%를 차지하며 그밖에 50여개의 민족이 있다.

여러개의 언어가 있으나 공용어는 한어이다.

【수도】 베이징(주민 663만명, 1958년 12월)

정 치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자본주의렬강의 침략을 받았다.

1912년에 봉건청조가 전복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밑에 로동계급의 혁명적진출이 앙양되였고 1921년에는 중국공산당이 창건되였다.

1945년 8월 항일전쟁승리후 중국인민은 미제의 졸개인 장개석도당을 반대하여 또다시 국내전쟁을 진행하였다.

장기간에 걸치는 중국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승리로 끝났으며 1949년 10월 1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였다.

1954년 9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기 제1차회의에서 헌법을 채택공포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농업, 수공업 및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수행하였다.

1964년 10월 16일 중국서부지역에서 첫 핵폭발시험을 진행하였다.

1967년 6월에는 수소탄폭발시험이 진행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휴회기간에는 상무위원회가 그 사업을 수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3기로서 1964년에 선거되였다.

【국무원】 국가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총리 주은래

【정당, 사회단체】 **중국공산당** 1921년 7월 1일 창건. 당원수 1천 709만명(1961년 6월)

주석 모택동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인민정치협상회의, 중화전국총공회,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국부녀련합회, 중국조선우호협회 (1958년 9월 창건).

【우리 나라와의 관계】 중국은 1949년 10월 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53년 11월에는 조중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7년 12월에는 조중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1년 7월 11일에는 조중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1968년 3월 중국정부통상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두 나라간에 1968년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를 조인하였다.

이해 12월에는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1968년 1월 28일 중국정부는 미제침략자들이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를 우리 나라 령해에 깊이 침투시켜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사회 중국에는 유용광물의 품종이 다양하며 그의 매장량도 많다.

지하자원으로는 철광, 석탄, 원유, 동, 아연, 연, 안티몬, 석, 몰리브덴, 망간, 수은, 월프람 등이 있다.

산림면적은 약 1억 700만정보에 달한다. 산림면적은 동북지방의 흑룡강성, 길림성, 내몽골북부에 약 40% 집중되여 있다.

중국은 사회의 물질적생활을 위하여 유리한 지리적환경을 가지고있으나 인민혁명승리전에는 경제적으로 락후한 농업국가였다.

그리고 중국경제의 대부분이 외국독점체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었으며 심한 기형성을 띠고있었다. 경제에서 농업과 가내공업이 77%를 차지하였으며 공업의 구성에서도 경공업이 중공업보다 우세하였다.

생산력배치에서도 심한 편파성을 띠고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 경제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1949—1952년에는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는 한편 공업의 기본부문과 농업생산량을 혁명전수준에 도달하게 하였다.

나라의 사회주의적공업화의 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제1차 5개년계획(1953—1957)기간에 기존공업부문을 강화하며 동시에 새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였으며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제2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였다.

주요농산물은 벼, 콩, 수수, 조, 목화, 밀, 차, 담배, 고구마, 감자 등이다. 서부고원지대에서는 면양과 산양을 많이 기르며 동부평야지대에서는 돼지, 소, 말 등 집짐승과 가금을 많이 기른다.

【출판보도】 **통신** 신화통신.

신문 인민일보(중국공산당기관지), 광명일보, 베이징일보, 해방군보.

몽 골

(몽골인민공화국)

아세아대륙의 동부에 있으며 쏘련, 중국과 접경하고있는 내륙국이다. 중서부는 주로 산악지대이며 남쪽은 사막지대이다. 국토의 대부분은 해발 1천~2천메터 되는 높은 고원지대에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대륙성기후로서 춥고 메마르며 강수량이 매우 적다.

【면적】 156만 5,000km²

【인구】 112만 7,000명(1966년말)

주민은 할하족 70%, 그밖에 몽골어계 종족들과 까자흐족 등이 있다.

【수도】 울란 바따르(주민 26만8, 800명, 1968년초)

정 치

몽골은 자본주의발전단계를 거치지않고 봉건사회로부터 직접 사회주의사회로 넘어간 나라이다.

1206년 진기스한에 의하여 통일적인 국가로 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이후 몽골인민들은 몽골인민당(현재 몽골인민혁명당)의 령도밑에 중국의 국민당군벌들과 국내봉건승려들을 때려부시고 1921년 7월에 혁명정부를 수립하였으며 1924년 11월에 몽골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해 11월 8일 제1차 대인민후랄회의에서는 몽골력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적헌법을 채택하였다.

1925년 몽골인민혁명당 제4차대회는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당의 기본과업을 규정한 강령을 채택하였다.

1940년 몽골인민혁명당 제10차대회에서는 사회주의기초축성의 주요과업을 규정한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1940년 6월 제8차 대인민후랄회의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였다.

1966년 6월에 진행된 인민혁명당 제15차 대회에서는 몽골에서의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 제4차 5개년계획(1966—1970년)에 관한 지시문을 비준하였다.

1968년 12월에 있은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업기업소들의 설비리용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업소들에 유능한 간부들을 보장해줄데 대한 조치들에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해 12월에 진행된 대인민후랄회의에서는 1969—1970년도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국가계획에 관한 법안과 1969년도 국가예산에 관한 법안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대인민후랄】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3년이다. 현재의 대인민후랄은 제6기로서 1966년 6월 29일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잠스란긴 쌈부

【정부】 수상 윰좌긴 쩨덴발(1966년 7월—)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당** 1921년 3월 1일에 창건된 몽골인민당이 1924년 8월에 몽골인민혁명당으로 개칭. 당원수 4만 8천 570명(1966년 6월).

제1비서 유. 쩨덴발.

직업동맹, 혁명청년동맹, 근로녀성동맹, 몽골조선친선협회 1960년 8월 12일 창건. 위원장 므. 르함수렌

【우리 나라와의 관계】 몽골은 1948년 10월 15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6년 5월 13일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 11월 2일에는 경제 및 문화협정을 맺었다. 1968년 12월에는 두 나라 정부간의 1969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68년 9월 몽골정부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또한 몽조친선협회대표단과 몽골인민교육성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직맹대표단, 경제기술대표단, 조몽친선대표단등이 몽골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을 중심으로한 농촌경리이다. 주요 집짐승은 양, 말, 염소, 락타 등이다.

1968년에 축산일군들은 600만마리이상의 집짐승새끼를 길러냈으며 6천동의 집짐승우리를 건설하였다.

축산업의 발전과 함께 최근년간 알곡과 사료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이 새로운 부문으로 발전하고있다. 1968년에 총파종면적은 1967년에 비하여 3.4%가 늘어 약 50만정보에 달하였다. 이해 농업협동조합농산일군들은 4만 3천 700톤의 낟알과 2천톤의 남새를 거두어들였다. 협동조합의 물질기술적토대도 강화되였다. 1968년에 조합원들은 360대의 화물자동차와 53대의 발전기 및 기타 농기계들을 받았다.

1967년에 몽골에는 30개의 국영농장과 284개의 농업협동조합, 38개의 축산기계작업소가 있었다.

공업분야에서는 연료, 동력공업을 비롯한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발전하고있다.

5개년계획(1966—1970년)의 첫 3년동안에 공업은 년평균 7.9%의 속도로 장성하였다.

이 기간에 공업부문에 투하된 자금의 80%는 새기업소들을 건설하고 이미 있는 기업소들을 개건하는데 돌려졌다. 1968년에 공업은 1940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량의 제품을 불과 40일 남짓한 기간에 생산하고있다.

산림면적은 1천 500만정보에 달하는데 해마다 5천 600만립방메터의 목재가 생산된다.

1968—1969학년도에 467개의 일반교육학교에서 19만 6천 600명의 학생들이, 19개의 중등직업학교에서는 9천 500명의 학생들이, 6개의 대학에서는 약 7천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1968년에 의사수는 그 전해에 비하여 10.6%, 병원수는 12.5% 늘어났다.

【출판보도】 **통신** 몬짜메(몽골통신)

신문우넨(몽골인민혁명당과 정부기관지), 허덜머르(직업동맹기관지), 잘로츠딘 우넨(혁명청년

동맹기관지).

잡지 나뢴 아미드랄(인민혁명당기관잡지).

웰 남

(웰남민주공화국)

인도지나반도의 동쪽에 자리잡고있다. 북부, 서북부 및 중부는 고원지대이며 동북부와 서남부는 평야지대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무더운 열대성기후에 속하며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하노이의 년평균기온은 23.6°C이다.

【면적】 약 33만km²(그중 북부웰남 15만 8,800km²)

【인구】 3,100만명 (그중 북부웰남주민은 1,700만명)

기본주민은 경족(웰남족)으로서 전체 인구의 87%를 차지한다. 소수민족으로는 태족, 묘족등 수십개 민족이 있다.

공용어는 웰남어이다.

【수도】 하노이 (주민 65만명)

정 치 1858년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1885년이후 완전히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대전시기인 1940년에 일제가 웰남을 강점하였다.

1945년 8월 19일 웰남인민은 호지명동지를 수반으로하는 웰남로동당(당시는 인도지나공산당)의 령도밑에 총봉기를 일으켜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을 타도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였다.

1945년 9월 2일 독립을 선포하고 동남아세아에서 첫 인민민주주의국가인 웰남민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웰남인민들은 1946년 12월부터 또다시 웰남을 강점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킨 프랑스침략자들과 미제무력간섭자들을 반대하여 8년여의 승리적인 항전을 수행하여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1954년 7월 21일 웰남인민의 독립, 자주권, 통일 및 령토완정을 인정하는 제네바협정이 조인되였다. 제네바협정에 따라 북위 17°선을 경계로 남북이 림시적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협정에는 2년내에 전국적인 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통일을 실현할것을 예견하였다. 또한 협정은 웰남에 외국의 군사인원과 각종 무기의 반입, 군사기지의 건설을 금지하며 웰남을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참가시키지 않을것을 규정하였다.

제네바협정을 체결한후 웰남민주공화국정부는 일관하여 그를 엄격히 준수하였으며 협정에 규정된 기본원칙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웰남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남부웰남을 저들의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키며 나아가서 웰남민주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흉악한 목적밑에 웰남에 관한 제네바협정을 그 체결직후부터 란폭하게 파괴유린하였다.

미제는 남부웰남에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1964년 8월 《바크보만사건》을 날조하여 남부웰남에서의 침략전쟁을 북부웰남에까지 확대하고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북부웰남 전령토를 공격하였다.

웰남인민들은 북부를 수호하고 남부를 해방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 반미구국항전을 전개하고있다.

1965년 4월 7일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는 웰남문제해결에 관한 4개항목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1. 웰남인민의 근본적인 민족적권리인 독립, 자주권, 통일 및 령토완정을 인정하여야 한다. 미제는 제네바협정에 엄격히 립각하여 남부웰남에서 자기 군대, 군사인원, 무기, 탄약 및 온갖 종류의 전쟁물자를 철수하며 그곳에 있는 미제군사기지들을 해체하며 남부웰남괴뢰정권과의 군사동맹을 폐기하며 동시에 남부웰남에 대한 간섭 및 침략정책을 중지하여야 한다. 미제는 북부웰남에 대한 모든 전쟁행동을 중지하고 웰남민주공화국의 령토와 자주권에 대한 모든 침해행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웰남의 평화적통일이 실현될때까지 웰남이 잠정적으로 두 지대로 분렬되여있는 동안 웰남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의 군사조항들이 엄격히 준수되여야 한다. 즉 두 지대는 외국과의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담하는것을 삼가하여야 하며 이 지대들에는 외국의 군사기지, 군대 또는 군사인원들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3. 남부웰남문제는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강령에 따라 남부웰남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4. 웰남의 평화적통일의 실현은 외국의 간섭없이 두 지대 인민들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웰남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웰남은 반미투쟁의 가장 치렬한 전선으로 되고있습니다. 바로 불굴의 웰남땅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세계반제평화애호력량과 미제국주의침략세력간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웰남인민은 이 투쟁의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자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할뿐아니라 사회주의나라들을 보위하여,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여 영웅하게 싸우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83페지)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대의원 455명중 남부웰남출신대의원은 83명이다. 1964년에 선거되였다.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 정

【주석】 손덕승 (1969년 9월 23일—)

【정부】 수상 범문동 (1964년 7월—)

【정당, 사회단체】 **웰남로동당** 전신은 1930년 2월 3일에 창건된 인도지나공산당이다. 1951년 2월 3일에 웰남로동당으로 개칭. 당원 및 후보당원수 54만명(1962년)

주석 호지명 (1969년 9월 3일 서거)

민주당, 사회당, 조국전선, 직업총련맹, 로동청년동맹, 청년련맹, 녀성동맹, 웰남조선친선협회 1965년 8월 12일 창설.

【주요사건】 1968년에 북부웰남인민과 정부는 미제의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영웅적인 투쟁에서 전면적인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미제를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었다.

4월 3일 웰남민주공화국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웰남에서 심대한 패배를 당한 미제국주의자들이 3월 31일 《제한된 폭격》과 웰남민주공화국과의 《조속한 회담》을 떠들면서 다른 한편 웰남침략전쟁을 강화하려는 놈들의 음모를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웰남민주공화국정부는 자기의 선의를 보이기 위하여 회담이 시작될수 있도록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과 기타 모든 전쟁행위를 무조건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확정하기 위하여 미제와 접촉할 자기의 대표를 임명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5월 3일에 외교부는 웰남민주공화국정부의 선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예비적접촉을 위한 장소선택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고의적으로 접촉토의를 지연시키면서 남북웰남전역에서 전쟁을 확대하고있는 미제의 파렴치한 행동을 강력히 폭로하였다.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에도 불구하고 웰남민주공화국정부는 미제와 정식대화를 가지기 위하여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폭격과 기타 모든 전쟁행위를 무조건 중지할것을 미제와 결정하며 그후 쌍방에 관계되는 기타 문제들에 관하여 대화를 가지도록 자기 대표를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프놈 펜이나 와르샤와와 마찬가지로 빠리를 쌍방간의 정식대화를 위하여 적당한 장소로 간주한다는것과 1968년 5월 10일 혹은 그보다 며칠후에 대화가 시작될수 있다는것을 표명하였다.

5월 13일에 시작된 빠리대화에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대표는 쌍방간에 합의된 의정 즉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과 기타 모든 전쟁행위를 즉시 무조건 중지할데 대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대표의 정당한 요구를 집요하게 거부하고 웰남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웰남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의 침략행위와 교활한 책동을 체계적으로 폭로 규탄하였다. 또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대표는 웰남민주공화국에 이른바 《호상성》과 《자제》에 대하여 요구해나서며 북부웰남이 남부웰남을 《침략》하고있다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대화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전투장에서 얻지못한 목적을 《회담》으로 달성하려 하며 세계인민들 앞에서 제놈들의 전쟁확대음모를 가리고 숨돌릴 시간을 얻어 제놈들의 처지를 개선하여보려는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폭로하였다.

5월에 진행된 웰남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는 빠리대화에서의 미제의 침략적이며 호전적인 책동을 배격하고 《모든것을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기 위하여》라는 구호를 실천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당면과업을 토의하고 전체 남부웰남인민들과 전투원들을 반미구국항전의 완전한 승리에로 불러일으켰으며 웰남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강력히 지지할것을 전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인민들과 여러 나라의 국회와 정부에 호소하였다.

7월 20일 호지명주석은 전국인민들과 전투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여 전국의 우리 인민들은 반미구국항전을 더욱 완강히 추진시켜야 한다.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우리 3천 100만 동포들은 온갖 난관과 희생을 무릅쓰고 싸워이길것을 다짐하고있다》는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성명에서 호지명주석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그만두고 북부웰남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중지하며 남부웰남으로부터 일체 미제침략군과 추종군을 철수하며 웰남인민이 자기 내정문제를 자유로이 해결할수 있게 될때 평화는 즉시 회복될것이라는 웰남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반미구국항전에 일떠선 북부웰남인민들은 호지명주석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1968년 한해동안에만도 570대의 미제비행기를 박산냈다.

미제침략자들이 북부웰남에 대한 파괴전쟁을 개시한 1964년 8월 이래 1968년 11월 1일까지 미제침략군의 비행기 3천 343대를 쏴떨구고 수천명의 비행사를 살상포로하였으며 143척의 적함선을 격침 또는 격상함으로써 적들의 계단식전쟁확대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미제의 파괴전쟁을 타승하였다.

미제는 웰남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패배를 당하고 세계사회여론의 강력한 압력에 부딪쳐 더욱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지게 되자 빠리대화를 5개월간이나 정돈상태에 빠뜨리게 한후 11월 1일 하는수 없이 웰남민주공화국의 전령토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무조건 중지한다는것을 선포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웰남민주공화국정부는 11월 2일 성명을 발표하여 웰남민주공화국의 전령토에 대한 미제의 폭격 및 포격이 중지된후 웰남문제의 정치적해결을 강구하기 위하여 《쌍방에 관심사로 되는 기타 문제들》을 미제와 토의할것이며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와의 합의밑에 웰남민주공화국대표들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대표들, 미제와 사이공괴뢰대표들로 구성되는 회의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면서 성명은 사이공괴뢰대표들의 이 회의참가는 웰남민주공화국이 이 괴뢰행정부를 인정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성명에는 웰남문제해결에 관한 웰남인민의 립장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4개항목이며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정강이라는것을 재천명하였다. 웰남문제의 정확한 정치적해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미제는 웰남에 대한 모든 간

섭과 침략책동을 그만두고 웰남인민의 기본적인 민족적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월 3일 호지명주석은 전국인민들과 전투원들에게 웰남땅에서 《단한명의 침략자라도 남아있는 한 그를 쓸어버리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미제는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무조건 중지한다고 한뒤에도 의연히 웰남에 대한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그만두려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웰남에 대한 저들의 침략전쟁을 도리여 새로운 형태와 수법으로 더욱 악랄하게 강화하였다. 놈들은 이른바 《대표권문제》를 가지고 빠리회의를 질질 끌면서 비행기와 함선을 내몰아 웰남민주공화국의 령공과 령해를 침범하고 정찰행위와 도발책동을 감행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강도적이며 파렴치한 전쟁행위를 규탄하여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성명을 발표하여 이러한 침략행위로부터 생기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미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웰남인민들의 거듭되는 경고와 전세계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웰남에 대한 침략기도를 버리지않고 웰남민주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침략행위에 계속 매달렸다.

그러나 웰남정세는 미제의 어떠한 기만술책과 위협공갈도 웰남땅에서 미제침략군의 마지막 한놈을 쓸어버릴때까지 힘차게 싸우려는 웰남인민의 투지는 꺾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1969년 1월 25일 미제는 빠리에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대표단이 참가하는 회의에 사이공괴뢰들을 이끌고 참가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0년 1월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7년 11월 20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8년 1월 29일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는 미제무장간첩선을 나포한 조선인민의 자위적조치를 지지하며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웰남정부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한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불가침의 신성한 자위적권리라고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웰남세계평화위원회, 웰남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웰남조선친선협회를 비롯한 많은 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여 우리 나라 령해에 기여들어 범죄행위를 감행하던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영웅적조선인민군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범문동수상은 5월 웰남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 정치보고에서 새 전쟁을 준비하려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모든 행동을 분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불요불굴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였으며 미제가 남조선으로부터 침략군을 철수하고 조선인민자신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나라를 통일하도록 할것을 요구하였다.

8월 5일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책동하고있는 미제를 규탄하고 웰남인민은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를 반대하여 조선인민과 어깨겯고 싸울것이라고 천명하였다.

7월 25일 웰남외교부는 미제를 등에 업고 남조선을 침략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2일에는 유엔총회 제23차회의에 《조선문제》를 상정시켜 토의케 하려는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조선의 통일은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 자신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이룩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월 25일 하노이에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군중대회를 진행하였다.

6월 15일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확대회의를 가지고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의 호소문을 지지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형제적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웰남문제해결을 위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4개항목의 립장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정강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웰남인민이 자기의 내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웰남에 관한 제네바협정체결 14주년에 즈음하여 호지명주석이 7월 20일 전체 웰남인민과 전투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천명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립장을 지지하며 싸우는 웰남인민에게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여 7월 22일 호지명동지에게 전문을 보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모든 힘을 다하여 형제적웰남인민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것이며 웰남민주공화국정부가 요구할때에는 언제나 웰남인민과 함께 싸울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습니다.》** 라고 지적하시였다.

11월 3일 우리 나라정부는 미제가 웰남민주공화국의 전령토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무조건 중지한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웰남정부성명과 호지명주석의 호소문에서 표명된 웰남민주공화국의 립장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우리 나라 정부는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과 포격의 무조건중지는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정의의 구국투쟁에서 영웅적웰남인민이 쟁취한 빛나는 승리이며 또한 전세계 평화애호력량의 거대한 승리이며 또한 미제침략자들의 수치스러운

참패로 된다고 지적하고 조선인민은 형제적웰남인민이 전면적인 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그들의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것이라고 천명한 정당한 립장을 지지하였다.

11월 16일에는 타이에 살고있는 웰남공민들에 대한 타이반동지배층의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3월 13—17일, 7월 14—20일까지의 기간을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지주간》으로 설정하고 이 주간에 극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는 형제적웰남인민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군중집회를 비롯한 대중운동과 각종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9월 1일에는 웰남민주공화국창건 스물세돐 평양시기념회가 진행되였다.

1968년 7월 8일 우리 나라 정부가 웰남정부에 경제 군사적 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할데 관한 협정이 각각 조인되였다.

또한 이날 두나라 정부간의 1969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이밖에 1968년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1968년 계획서(7월), 1968—1969년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과 경제적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할데 관한 사업계획서(8월)가 조인되였다.

1968년 9월 웰남정부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다. 그밖에 웰남으로부터 정부경제대표단(7월), 웰남로동당 중앙위원회직속 당력사연구부대표단(5월), 로동청년동맹대표단(5월), 녀성대표단(6월), 보건대표단(10월)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조선웰남친선협회대표단(9월), 보건대표단(12월)이 웰남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웰남은 석탄, 철, 주석, 망간, 텅그스텐, 금, 연, 린산염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주요농산물은 벼, 옥수수이며 고무, 사탕수수, 바나나, 야자, 커피 등도 생산된다. 산림자원은 국토의 60%를 차지하며 질좋은 원목이 생산된다.

1968년에 북부웰남에서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폭격이 계속된 어려운 환경에서도 경제는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는데 특히 농촌경리를 발전시킬수 있는 공장들이 많이 건설되였다. 지방공업총생산액은 1967년보다 8.2% 늘어났다. 이리하여 농업생산이 늘어났으며 중공업과 농업간의 련계가 강화되였다.

수백개의 대소기계공장들이 일떠서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군 및 협동조합들에도 작은 기계공장들이 건설되여 지방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석탄생산에서도 큰 전진이 있었다. 미제야수들의 폭격이 가장 심하였던 광 빈주의 탄광들에서는 년간 생산과제를 기한전에 초과수행하였다.

하이퐁조선소에서는 적의 공습속에서도 생산조직을 개선하여 로동생산능률을 전년에 비하여 16.4%나 높이고 원가를 19%나 낮추었다.

탄 롱제철소는 년간계획을 2개월이상 앞당겨 실행하였다.

1968년에 경공업공장들과 소규모의 공업 및 수공업협동조합들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기업소들의 총생산액은 계획수자를 초과하고 1967년도에 비해 15.5%나 장성하였다. 그중 방직, 가정용품 및 식료품생산은 20.8%나 더 증가하였다.

자연재해와 미제야수들의 폭격등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1968년에 농촌에는 또다시 풍년이 들었다. 그리하여 협동농장의 토대가 더욱 굳건히 다져졌고 정보마다 5톤이상의 소출을 내는 조합들이 늘어났다.

국영농장의 농산물수확량도 부단히 장성하였다. 1964년에 국영농장의 차생산은 7배, 귤은 20배, 커피는 약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에 젖소마리수는 31.2%, 오리는 24.5%나 각각 늘었다. 국영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도 강화되였다.

논관개면적은 1964년의 84.5%로부터 86.5%로 늘어났으며 발관수면적은 19.8%로부터 49.6%로 늘어났다.

1967—1968학년도에 1만 1천 545개의 학교에서 366만 2천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었다. 이것은 전전에 비하여 학교수는 24%, 학생수는 27%나 늘어난것으로 된다.

1968년 7월 정부는 1968—1969학년도부터 대학 및 전문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것과 대학을 더 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웰남통신

신문 인민 (웰남로동당기관지) 구국(조국전선기관지), 로동(직업총련맹기관지), 인민군(웰남인민군기관지).

잡지 학습(웰남로동당리론잡지)

남부웰남

【면적】 17만 1,700km²

【인구】 1,400만명

정 치 1954년 7월 21일 제네바협정에 의하여 웰남은 북위 17°선을 림시경계선으로 림시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미제는 이것을 좋은 기회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대신하여 남부웰남에 기여들었다.

미제는 제네바협정을 파괴하고 1956년 3월 남부웰남에 극악한 괴뢰정권을 조작하였으며 애국적무장력을 소멸할 목적으로 무력을 동원하고 파쑈통치를 발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남부웰남인민의 모든 운동을 반대하여 류혈적인 탄압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1961년 남부웰남에서 이른바 《특수전쟁》이란것을 벌렸다. 《특수전쟁》에서 실패하자 미제는 1965년에 《국부전쟁》으로 넘어갔으며 남부웰남에 미제침략군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다.

미제와 그 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 남부웰남인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따라 1960년 12월 20일에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이 창건되였다. 이때로부터 남부웰남인민들은 강유력한 지도력량과 뚜렷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조직된 력량으로써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수 있게 되였다.

1961년 2월 15일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남부웰남의 각지에서 활동하던 애국적무장력들이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으로 통합됨으로써 남부웰남인민은 무장한 반혁명을 격파할수있는 자기의 진정한 혁명무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반미구국항전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3군 즉 해방군, 유격대, 민병의 력량을 부단히 강화하는 한편 남부웰남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로 애국력량을 조직동원하였다.

1965년 3월 22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웰남문제해결에 관한 5개항목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1. 미제는 제네바협정의 파괴자이며 가장 흉악한 전쟁도발자이며 침략자이며 웰남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2. 영웅적남부웰남인민들은 남부웰남을 해방하며 독립되고 민주주의적이며 평화롭고 중립적인 남부웰남을 건설하며 나라의 재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반드시 미제를 몰아내고야 말것이다.

3. 용감한 남부웰남인민들과 해방군은 남부웰남을 해방하고 북부웰남을 수호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낼 자기들의 신성한 임무를 완수할것이다.

4. 남부웰남인민들은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전세계인민들의 열렬한 지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며 5대륙의 벗들로부터 무기와 기타 전쟁 물자들을 포함한 모든 원조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것을 선포한다.

5. 우리는 전체 남부웰남인민들을 단결시키고 무장시키며 계속 영웅적으로 전진하며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인 반역자들을 타도할것이다.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과 인민들은 전령토의 5분의 4, 주민의 3분의 2이상을 해방하였다.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1969년 6월에 구성되였다.

주석 휭 떤 팔

【정당, 사회단체】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1960년 12월 20일에 창건되였다. 전선은 남부웰남의 애국력량을 집결한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이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남부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의 조직자이며 령도자이다.

1967년 8월 20일 민족해방전선 비상대회에서는 창건당시에 채택된 강령을 발전시켜 새로운 정강을 채택하였다.

정강은 전체 인민이 일치단결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괴뢰정권을 타도하고 자기의 민족적권리를 쟁취하며 남부웰남의 독립, 민주주의, 평화 및 중립을 달성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할것을 천명하였다.

위원장 원 후 수

인민혁명당 1962년 1월 1일에 창건. 로동계급의 혁명적전위대로서 남부웰남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웰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 1968년 4월 20일 남부웰남의 로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상공업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창건된 반미구국통일전선이다. 동맹은 독립, 자유, 민주주의, 평화, 중립, 번영을 이룩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에로 점차 전진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할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부웰남민주당, 해방직업동맹, 해방농민동맹, 해방청년동맹, 해방녀성동맹.**

【주요사건】 1968년에 영웅적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과 인민들은 민족해방전선의 령도밑에 전쟁의 주도권을 틀틀히 틀어쥐고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전면적이며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특히 년초부터 시작된 적강점지역의 거의 모든 도시들과 군사기지들에 대한 전례없는 총공세와 전면적인 봉기는 침략자들을 더욱더 피동과 수세에 몰아넣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이리하여 남부웰남의 반미구국투쟁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

인민해방무장력의 총공세 인민해방무장력과 인민들은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데 대한 민족해방전선의 1월 30일부 대공세명령을 받들고 3차에 걸쳐 남부웰남전역에서 전면적인 일제공격을 들이댔다.

1차공격(1월 30일부터)에서 인민해방무장력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사이공을 비롯한 다낭, 유에 등 대도시들과 40여개 주의 거의 모든 주소재지들과 도시들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적들의 심장부인 미제의 대사관, 웰남주둔미제침략군사령부, 미제해병대사령부, 미제야전군사령부, 미제침략군의 최대의 공군기지인 탄 손 누트비행장을 비롯한 수십개의 공군기지들과 적의 대보급기지와 각종 병기창고들을 들이쳐 미제침략군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다. 또한 이 공격에서 티우—키괴뢰도당의 《독립궁전》, 괴뢰군합동본부도 녹아났으며 중앙과 지방의 괴뢰통치기구는 마비상태에 빠졌다. 인민해방무장력은 원쑤들의 감옥을 파괴하여 수많은 애국자들을 석방하였으며 농촌 700여개소에서 160여만명의 인민들을 적통치기반으로부터 해방하였다. 미국놈들은 넓지 못한 일부 도시들과 제놈들의 기지에로 더욱 몰려들어갔다.

이리하여 남부웰남에서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근본적으로 유리하게 전환시키고 계속적인 대공세로서 적들을 종국적으로 패망시킬수 있는 전망과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 1차공격기간에 인민해방무장력은 미제침략군과 괴뢰군 및 추종군 총병력의 3분의 1이상을 소탕해버렸으며 적비행기총수의 약 40%와 장갑차총수의 약 3분의1, 군수물자의 50% 이상을 마사버렸다. 그리하여 놈들의 주요전략계획들은 모조리 파탄되였다.

2차공격(5월 5일부터)에서는 1차공격에서 차지한 지역을 공고히 하면서 적들의 방어력을 더욱 분산약화시키고 특히 사이

궁을 비롯한 120여개의 도시와 중요군사기지 등을 거의 동시에 공격하였다.

적들은 1차공격에서 인민해방무장력의 공격을 《미리 알지 못하였기때문에》 얻어맞았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더 많은 침략군을 긁어모아 《수색작전》을 벌리여 인민들을 마구 학살하였다. 이런 정황속에서 인민해방무장력은 사이공시를 2중 3중 포위하고 괴뢰《대통령궁전》에서 4키로메터 떨어진 지점에까지 공격해들어갔으며 대담한 시가전을 벌렸다. 결정적인 전투를 앞두고 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는 5월 6일 전체 남부웰남인민과 전투원들에게 거듭 드센 공격을 들이대여 《완전한 승리를 결정적으로 쟁취하자》고 호소하였다. 이 호소에 따라 강점지역 인민들과 전투원들은 더욱더 많은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투쟁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이 기간에 남부웰남주재미제대사놈의 집과 괴뢰수상놈의 집을 비롯하여 미제침략군해병대사령부 등 적들의 주요본부들이 거의 동시적으로 포탄벼락을 맞았으며 주요군사도로들이 동강이 났다.

3차공격(8월부터)에서 인민해방무장력은 적들을 제소굴에 몰아넣고 무리죽음을 줌으로써 놈들의 《수색작전》을 산산이 짓부셨다. 이 기간에는 130여개의 도시, 읍, 주소재지 및 군구들과 30개의 저비행장들을 일제히 공격하여 불벼락을 안겼다.

인민해방무장력은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을 소탕하는 승리적인 전투를 통하여 정치사상적으로 뿐만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인민해방무장력의 대렬은 적들의 초토화작전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장성하였으며 그들의 전투수단들은 부단히 개선되고 화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인민해방무장력은 저격무기로부터 위력있는 대구경포와 로케트포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사정거리와 화력을 가진 다양한 무기로 장비되였으며 능숙하게 사용하였다. 이와같은 강력한 전투수단을 가지고있는 인민해방무장력은 웰남전쟁의 구체적인 전투정황에서 창조한 독창적인 전법에 의하여 미제침략군의 수적 기술적 《우세》에 대한 혁명군의 전략전술적우세를 시위하였다.

1968년에 인민해방무장력은 1966년과 1967년 두해동안의 전과를 합한것보다 더 큰 전과를 거두었다. 특히 1968년에 소탕된 미제침략군수는 1961년부터 1967년까지의 기간에 녹아난 미제침략군수와 거의 같았다.

1968년도 전과

적살상포로수	63만명
그중미제침략군과 추종군수	23만명
파괴한 비행기수	6천대
파괴한 땅크와 장갑차수	7천대
파괴한 군용차	6천 500대
격침 또는 소각한 함선	1천척
그중 1만톤급이상의 배	40척
파괴한 포	100여문
소각한 탄약고와 연료창고	700여개
폭파한 다리	700여개

인민들의 봉기와 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의 출현 1968년에 적강점지역의 광범한 인민들은 인민해방무장력의 총공세에 합세하여 전면적인 봉기를 일으켜 반미구국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사이공, 유에, 다낭 등 적강점하의 모든 도시들과 농촌들에서 각계각층 인민들이 혁명적인 봉기를 일으켜 적통치기구를 짓부시고 악질주구들을 처단하였으며 인민혁명정권을 수립하였다.

적강점하에 있는 모든 도시들과 농촌지역주민들의 봉기가 합류됨으로써 그 투쟁은 남부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전례없었던 대규모적인 대중적무장투쟁으로 전변되였다.

인민봉기에 의하여 1천여개의 마을들이 더 해방되고 인민들에게 완전히 장악되였다. 200여만명의 인민들이 적의 통치기반에서 해방되였으며 인민해방위원회가 많은 마을, 군 및 주들에 수립되였다.

사이공에서 《민족 및 평화력량동맹》, 유에시에서 《민족민주주의 및 평화동맹전선》 등 혁명조직들이 출현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미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웰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이 결성되였다. 4월 20일 《웰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 창립대회에서는 전체 남부웰남인민들에게 반미구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독립, 민주주의, 평화 및 구국선언》을 채택하였다.

선언에서 동맹은 모든 애국적력량과 인사들을 단합시키며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며 괴뢰정권을 타도하고 민족련립정부를 수립하며 독립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쟁취할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맹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과 공동행동을 취하며 토의할것을 주장하였다. 11월 3일에 발표한 남부웰남인민의 투쟁의 새로운 정세에 관한 성명에서는 남부웰남문제의 정치적해결에 관한 11월 3일부 민족해방전선의 성명을 지지하고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이 전체 남부웰남인민의 민족통일전선의 《거대한 기본전루터》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리하여 남부웰남인민의 반미구국통일전선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발전되고 티우—키도당은 완전히 고립되였다.

남부웰남문제해결을 위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투쟁 2월 15일에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성명을 발표하여 남부웰남주민들에 대한 미제와 티우—키도당의 살인만행을 폭로규탄하고 놈들의 범죄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며 종국적승리를 달성하려는 남부웰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운동과 실천적조치들을 취할것을 사회주의국가정부와 인민 그리고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국가정부 및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6월 10일 민족해방전선은 웰남민주공화국과 미제와의 빠리정식대화에서 남부웰남사태를 외곡하고있는 미제를 준렬히 규탄하고

전체 웰남인민은 힘을 합쳐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어깨겯고 싸울 신성한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남부를 해방하는 위업에서 남부웰남인민은 주로 자기의 힘에 의거하고있지만 북부형제들이 보내주는 모든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7월 14일에는 미제가 남부웰남에서 침략전쟁을 중지하지 않는한 군사기지를 철폐하지 않는한, 외국의 간섭없이 남부웰남의 내정문제를 남부웰남인민자신이 해결하도록 내맡기지 않는한 남북웰남인민들은 종국적승리를 쟁취할때까지 손에 무기를 잡고 계속 싸울것이라고 성명하였다.

11월 3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자기의 정강에 따라 남부웰남문제의 정치적해결에 관한 립장을 천명하였다.

1. 남부웰남은 자기의 신성한 권리 즉 독립과 민주주의, 평화와 중립, 번영과 조국의 종국적인 평화적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싸울것을 결의하고있다.

2.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종식시키고 남부웰남으로부터 저들의 모든 군대와 추종군과 모든 전쟁수단을 끌어내가며 남부웰남에 있는 모든 미군사기지들을 없애치워야 한다.

3. 남부웰남인민의 내부문제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정강에 따라 외부의 간섭없이 광범한 민족민주주의적련합정부의 수립과 남부웰남에서의 자유로운 총선거실시를 통하여 남부웰남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4. 웰남의 통일은 웰남 두 지대 인민에 의하여 한걸음 한걸음 평화적인 방법으로 두 지대간의 협의와 합의에 기초하여 외부의 간섭없이 결정되여야 한다.

5. 남부웰남은 외국과 그 어떤 형태의 군사동맹도 맺지않으며 평화적공존의 5개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수립하는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할것이다. 캄보쟈왕국과는 그의 독립과 자주권과 중립, 그리고 그의 현국경에 의한 령토완정에 기초하여, 그리고 라오스와는 이 나라에 관한 1962년 제네바협정을 존중하는데 기초하여 각각 선린관계가 설정될것이다.

성명에서 민족해방전선은 1968년 11월 2일부 성명에서 천명된 웰남민주공화국의 립장을 지지하였으며 웰남민주공화국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미제와 그의 괴뢰대표로 구성되는 4자회의를 진행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에 사이공괴뢰대표가 참가한다는것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이 그《정권》을 인정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명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때까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정당한 립장에 강력한 지지를 주며 남부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 더 적극적인 지지를 줄것을 세계의 모든 정부들과 모든 단체들과 모든 민주주의적인사들, 미국내의 진보적인민들을 포함한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11월 3—5일까지 민족해방전선과 웰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대표단간에 회담을 열고 남부웰남인민의 투쟁과 행동방향에 관한 공통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회담에서 두 대표단은 웰남민주공화국의 4개항목립장과 웰남문제의 정치적해결에 관한 11월 2일부 성명에서 천명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립장, 남부웰남문제의 정치적해결에 관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립장과 민족해방전선의 11월 3일부 성명, 그리고 남부웰남인민의 투쟁의 새로운 정세와 관련한 웰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의 11월 3일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괴뢰군과 괴뢰정권의 붕괴 괴뢰군내에서는 장병들이 자기 총소와 무기들을 인민해방무장력에 넘겨주거나 치욕스러운 괴뢰군살이를 박차고 집단적으로 무기를 메고 인민의 편으로 넘어오는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1968년에는 적부대내에서 애국적장병들이 봉기를 일으켜 악질분자들을 처단하고 《혁명군》을 조직하여 총부리를 미제와 그 괴뢰군들에게로 돌리게 되였다.

2월 1일 괴뢰제1사단 병사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군》을 조직하여 인민의 편으로 넘어왔으며 12월 8일 타이 닌주 카툼지역에 둥지를 틀고있던 괴뢰군 제343《특공대》중대의 병사들이 일제히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자들은 중대본부에 사격을 가하여 미제침략군 《고문》놈과 악질주구놈을 처단하였으며 다른 중대 병사들도 폭동자들을 진압하라는 미제와 괴뢰군지휘관놈의 명령을 거부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민족해방전선의 편으로 넘어온 괴뢰군 제5사단 제2대대와 제31《특공대》대대는 2월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와 티우—키도당은 웰남인민의 철천지원쑤라고 규탄하고 전체 괴뢰군이 미제의 총알받이로 되지말고 인민의 편으로 넘어올것을 호소하였다. 1968년에는 수십만명의 괴뢰군이 인민의 편으로 넘어왔는데 대공세가 시작된 첫 6일간에만도 괴뢰군총수의 3분의1에 달하는 20만명이상이 붕괴되여 괴뢰군을 무기력상태에 빠지게 하였으며 괴뢰군의 전면적인 붕괴 와해과정을 더욱 촉진시켰다.

미제침략군과 괴뢰군간의 모순도 더욱 첨예화되였다.

2월 인민해방무장력이 케산지역의 랑베이를 점령한후 미제가 케산으로 패주하려는 괴뢰군을 막아서자 괴뢰군들은 몽땅 해방지역으로 넘어오고말았다.

괴뢰행정기관내에서도 또한 혁명적봉기가 일어났으며 수많은 관리들이 인민의 편에 서서 반미구국투쟁을 전개하였다.

소위 《대통령궁전》과 사이공경찰청, 적강점하에 있는 괴뢰주, 군 당국에 있던 많은 관리들이 인민해방무장력편으로 넘어왔다. 괴뢰악질주구들이 처단되였으며 괴뢰정권은 완전히 와해되였다.

궁지에 빠진 미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

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취약성을 실증하여주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횡포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72페지)

남부웰남의 인민해방무장력과 인민들의 혁명적공세에 의하여 패배당한 미제와 그 주구들은 저들의 궁지에서 헤여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였으나 이미 기울어진 저들의 군사정치정세를 수습할수 없었으며 놈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려운 곤궁에 빠져들어갔다.

놈들은 사이공—촐론 및 기아딘에 《자유폭격지대》까지 설정하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파괴하는》 초토화작전을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1968년 상반년에만하여도 130개의 도시들과 주소재지 및 군소재지들의 주민구역에 폭탄과 포탄을 퍼붓고 20개주에 유독성화학물질과 독가스를 뿌려 수만명의 주민들을 살상하였다. 메콩강3각주지역의 42개의 농촌마을들에서 1만여채의 집을 파괴하였다.

미제는 《평화》, 《협상》에 대하여 떠벌리면서 한편으로 남부웰남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였다.

7월 미제는 남부웰남괴뢰와 호노룰루에서 전쟁확대회의를 벌리고 1968년말까지 남부웰남괴뢰군을 《80만으로 증가》 시키라고 하였으며 남부웰남에 가있는 침략군에 대한 현대적무기공급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떠벌렸다. 9월 25일 미국방장관이란놈은 남부웰남주둔 미제침략군을 결코 《줄일 의향이 없다》고 지껄여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4만 5천명의 미제침략군, 3천 300여명의 타이괴뢰군이 남부웰남에 기여들었으며 남부웰남 각곳에서 강제징집소동을 더욱 요란하게 벌렸다.

11월중순부터는 남부웰남 각지에서 《평화촉진계획》이란 새로운 악명높은 군사작전을 벌렸다. 미제는 이 작전에 《비—52》전략폭격기와 함께 북부웰남에서 야만적인 폭격만행을 감행하던 전투폭격기를 모조리 동원하였으며 미제해병대, 남부웰남괴뢰군, 남조선괴뢰군 등 대병력을 동원하였으나 제놈들의 패배를 만회할수 없었다.

11월 16일부터 미제가 7천명의 대병력을 동원하고 《비—52》 전략폭격기와 지어 해적선 《뉴저시》호의 지원사격까지 받으면서 벌렸던 소위 《소탕전》에서는 미제침략군과 괴뢰군 2천명이 인민해방무장력에게 녹아났으며 놈들은 그통에 하는수 없이 이 《작전》을 중지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제의 농촌 《평정계획》은 인민해방무장력의 총공세에 의하여 완전히 파탄되였다. 미제침략군은 더욱 좁은 국부적지역에서 군사기지와 도시방어에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며 사이공을 비롯한 적들의 주요소굴들은 임의의 시각에 인민해방무장력에 의하여 점령될 항시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미제는 1968년에 54만 5천명(1967년에는 50만명)의 미제침략군, 7만여명의 추종군, 60여만의 남부웰남괴뢰군, 침략적태평양함대의 대부분을 동원하여 무려 150여만의 침략무력을 밀어넣고 340여억딸라를 탕진하면서 가장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확대하였으나 1968년 한해동안에 근 50%의 유생력량을 잃었다.

미제는 전례없는 커다란 군사정치적패배를 당하고 11월 1일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무조건 중지하고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과의 빠리회의를 접수한다는것을 선포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6년 5월 외교대표부급의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상설대표부가 우리 나라에 설치되였다.

1968년 1월 30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미제무장간첩선의 우리 나라 령해침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과 인민들이 더 견결히 싸워 미제의 침략전쟁을 완전히 분쇄하며 놈들에게 더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나라의 영예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에 호응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6월 28일 회의를 열고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며 조선문제해결을 조선인민자신에게 맡겨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8월 10일 민족해방전선은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제의침략책동을 규탄하여 발표한 우리 나라 정부비망록에 천명된 우리 나라 정부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10월 2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유엔총회 제23차회의에 《조선문제》를 상정시켜 토의케 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이 사이공을 비롯한 남부웰남 강점지역의 거의 모든 도시들과 적군사기지를 일제히 공격하여 빛나는 승리를 거둔것과 관련하여 2월 5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윈우수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축전에서 《**조선인민은 영웅적웰남인민들의 새로운 승리를 자신의 승리와 같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를 열렬히 축하하고있습니다.…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남부웰남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것이며 반미공동투쟁에서 남부웰남인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아갈것입니다.**》라고 지적하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이 남부웰남에서 감행하고있는 야수적인 살인만행을 규탄하여 2월 10일 외무성성명을, 2월 28일에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정부성명에서는 웰

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고있으며 형제적웰남인민의 정의의 항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는 조선인민은 웰남인민이 요구할때에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싸울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천명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는 남부웰남인민들에 대한 미제의 살인만행을 규탄하고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남부웰남 사회단체들에 전문을 보냈다.

11월 5일 우리 나라정부는 남부웰남문제의 정치적해결에 관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성명과 남부웰남인민의 투쟁의 새로운 정세에 관한 웰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의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남부웰남내부문제는 남부웰남인민의 일치한 지향과 의사를 구현하고있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정강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68년에 남부웰남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대표단(7월), 남부웰남가무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2월 14일—20일까지를 《남부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지주간》으로 설정하고 남부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며 남부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기 위한 각종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경제, 사회 남부웰남령토의 5분의 4와 인구의 3분의 2가 해방되였으며 이지역 인민들은 민족해방전선의 령도하에 새생활을 누리고있다.

해방지역에서는 해방전선의 정강에 따라 토지개혁이 실시되고있다. 남부웰남의 320만헥타의 논과 기타 경지면적중에서 200만헥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였다. 이리하여 농민들의 증산의욕은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적의 공격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민들은 호상협조와 공동작업을 하고있는데 1968년 2월까지만도 광 남주와 푸엔주에서는 8천 500개의 호상협조반과 공동작업반이 무어졌다. 농민들은 경지면적을 확장하고있으며 알곡 및 공예작물의 생산도 계속 높이고있다. 이 밖에 철공소, 목재가공, 방직, 제당 등과 같은 부문의 수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미제의 폭격과 놈들의 《습격작전》이 빈번히 감행되는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있다.

애국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체계가 수립되고있으며 교육사업이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고있다.

소수민족들의 17개언어의 글자가 새로 제정되여 보급되고있다.

모든 부락들에 위생초소가 있으며 각주와 각군 마다에는 큰 병원들이 있다.

의사 및 준의를 양성하는 의학대학과 의료부문양성소들이 설치되여 해마다 많은 의료일군들이 배출되고있다.

1968년에 300개의 예술소조들이 여러지역에서 공연을 하였으며 이동영사대들이 활동하고있다.

1968년 현재 50여종의 정기간행물들과 100여종의 간이출판물이 발행되였다.

미제강점지역의 경제는 파괴령락되고있다. 농업생산은 심히 떨어지고 몇개안되는 공장마저 미제에게 빼앗기고 화폐가치는 부단히 떨어지고있다. 미제와 괴뢰도당의 착취와 략탈로 인하여 인민들의 생활은 여지없이 파괴되고있다.

퇴패한 문화와 폭행, 절도 등이 성행되고있으며 주민들의 모든 민주주의적자유는 억압당하고 독립에 대한 그 어떤 지향도 탄압을 받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해방통신(해방지역통신)

신문 기애퐁(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기관지), 기애퐁광(인민해방무장력기관지).

예 멘

(예멘아랍공화국)

아라비아반도의 서남쪽끝에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열대성기후이며 지역별차이가 매우 심하다. 사나의 최고기온은 35°～40°C이다.

【면적】 19만 5,000km²

【인구】 700만명(1966년)

주민의 절대다수는 아랍인이고 그밖에 약간의 페르샤인, 소말리아인 등이 있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사나 (주민 7만명), 타이즈 (주민 4만명, 제2수도)

정 치 예멘은 1923년에 토이기의 기반에서 벗어나 독립왕국으로 되였다. 예멘은 1958년에 아랍련합공화국, 수리아와 함께 아랍국가련방을 형성하였다가 1961년 12월 23일에 여기에서 탈퇴하였다. 1962년 9월 26일에 예멘왕국륙군 참모장이였던 살랄이 군주제도를 전복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예멘왕당파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을 사촉하여 1962년 8월 예멘공화국에 대한 무력간섭을 감행하였다. 1964년 11월에 교전국간에 정화협정이 체결되였다. 그후에도 미영제국주의자들은 고용병들과 예멘의 왕당파들을 동원하여 계속 예멘아랍공화국을 말살하기 위한 악랄한 음모책동과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1967년 4월 미제는 예멘의 주요도시 타이즈를 폭파할 목적밑에 이 도시에 있는 무기고에 포사격을 감행하는 악랄한 행위까지 감행하였다. 미제의 비렬한 음모책동에 격분한 예멘인민들은 반미시위를 단행하였으며 미제의 《원조사절단》을 몽땅 내쫓았다. 미제는 어떠한 파괴행동으로써도 예멘인민을 굴복시킬수없게 되자 이해 11월에 왕당파반란자들을 사촉하여 예멘에서 내란을 도발케 하였으며 반란자들에게 1천

여명의 제국주의고용병들을 대주어 수도 사나를 포위공격하였다.

예멘정부는 전국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인민자위대를 새로 조직하고 전체 인민을 원쑤들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정부군과 인민들은 원쑤들에게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여 놈들의 수도공격시도를 분쇄해버렸으며 싸움이 시작된지 두달동안에 5천여명의 적을 죽이고 500문의 포를 빼앗았다.

한편 왕당파반란자들에게 일시 기만당하였던 종족들이 공화국정부를 견결히 지지해나섰다. 예멘서북부 13개 부족의 추장 400여명은 1968년 7월 회의를 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1만명의 군대를 모집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으로부터 국경을 지키겠다고 결의하였다. 이리하여 왕당파의 통제하에 있던 서부지역이 공화국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공화리사회】 최고주권기관이다. 의장 아브둘 라흐만 알 이리야니

【정부】 수상 하싼 알 아므리 (1967년 11월—)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동맹 집권당이며 유일당이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3월 9일 예멘은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설정 및 외교대표교환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4년 9월 18일에는 문화협정을 맺었다. 1968년 9월 예멘정부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경지면적은 약 230만헥터이며 한해에 2~3모작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수수, 보리, 밀, 옥수수, 목화, 커피, 야자, 종려 등이다. 알곡중 90%이상을 차지하는 수수는 년평균 90~120만톤 생산된다. 목화는 년평균 5천톤 생산된다. 동부지방과 홍해연안에서는 주로 축산업을 한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은, 찌단, 망간, 석탄, 철, 동, 류황, 석회석 등이다. 공업기업소로는 알루미니움공장과 소규모의 제분소, 방직공장, 비료공장, 제철소, 주물공장 등이 있다. 1963년 9월에 처음으로 사나에 발전소가 건설되였다. 1963년에 국립은행이 창설되고 민족화폐 리알이 발행되였다.

1965년 11월에 학생수는 6만 6천명, 학교수는 930개 있었다. 주민의 90%이상이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예멘통신 (1968년 2월 창설)

신문 예멘소식, 혁명, 공화국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도네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사이에 있으며 1만 3천 677개의 섬으로 되여있다.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6천여개에 달한다. 섬들에는 산이 많으며 대부분이 화산맥에 속한다. 년평균기온이 25°~27°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약 2천 400미리메터이다. 적도무풍지대에 있기때문에 태풍이 없다.

【면적】 190만 4,345km²

【인구】 1억 500만명 (1965년)

주민은 100여개 종족으로 구성되여있는데 주요종족은 쟈바족, 순다족, 마두라족이다. 국어는 인도네시아어이다.

【수도】 쟈까르따(주민 411만 6,630명, 1967년)

정 치 인도네시아는 1596년부터 화란의 침략을 받았다. 화란식민주의자들은 1602년에 이 나라에 《동인도회사》를 창설하고 인도네시아전역을 지배하다가 1800년에 정식 식민지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때로부터 나라가 독립될때까지 인도네시아인민들은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하였다.

1926—1927년에는 공산당이 지도한 인민봉기가 있었다.

인도네시아인민들은 1942년 3월에 이 나라를 강점한 일본제국주의자들과도 맞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1945년 8월 17일 독립하였다. 그러나 화란과는 련방관계에 있었다. 1946년 11월에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은 화란식민주의자들이 또다시 인도네시아를 침략함으로써 4년간의 류혈적인 전쟁이 있었다. 1950년에 인도네시아련방림시국회는 《단일국가헌법초안》을 채택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4년 8월에는 《화란—인도네시아련방》에서 탈퇴하였다. 인도네시아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1963년 5월 1일 서부이리안에 대한 화란의 행정권이 인도네시아에 이관되였다.

1965년 9월 30일 《9월 30일운동》이 일어났다가 10월 1일 진압되였다. 《9월 30일운동》후 우익반동세력은 미제의 사촉하에 공산당과 진보적사회단체들을 비법화하고 수많은 공산당원들과 진보적인사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1966년 6월 제4차 림시인민협상회의에서는 수카르노에게 종신대통령칭호를 줄데 대한 1963년 5월의 제2차림시인민협상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2년내에 총선거를 실시할것을 선포하였다.

1968년 3월 림시인민협상회의 제5차회의에서는 수하르또를 대리대통령(1967년 3월 림시인민협상회의 비상회의에서 임명)으로부터 대통령으로 승격시키고 총선거는 1971년 7월까지 연장하며 대통령, 부대통령은 총선거에 의하여 새로 구성되는 인민협상회의에서 1973년 3월에 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림시인민협상회의】 최고주권기관이다.

【협조국회】 림시인민협상회의가 결정한 정책을 대통령이 집행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한다.

【정부】 대통령 수하르또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5월 23일 창건.《9월 30일운동》후 비법화. **민족당, 회교승려협회.**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1년 6월 17일 우리 나라와 인도네시아간에 총령사급의 령사관을 설치할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1964년 4월 16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가 맺어졌다.

1963년 11월 15일에는 무역협정, 과학기술 및 문화협조에 관

한 협정이 맺어졌다.

1968년 9월 인도네시아정부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은 약 75%를 차지한다. 주요 농작물로는 외화획득의 주요한 원천인 생고무, 차, 종려, 커피, 코코아, 키니네가 있으며 야자, 사탕, 담배, 쌀, 옥수수, 콩, 감자 등이 생산된다. 생고무는 년 65만 7천톤(1964년)생산되며 이 나라 재정수입의 기본원천으로 되고있다.

지하자원으로는 주석, 석유, 철광석, 석탄, 보크사이트, 니켈, 망간, 금, 은, 동, 크롬광, 아연 등이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350년간의 화란식민주의자들의 통치와 략탈,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략탈로 혹심하게 파괴되였으며 식민지적편파성과 기형성이 지배적이다.

공업에는 로동능력소유자의 약 10%가 종사하며 그중 약 40~50%는 소규모기업소들에서 일한다. 공업에서는 채굴공업, 농산물가공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공업생산액에서 채굴공업은 약 60%를 차지한다. 가공공업의 약 40%는 외국에서 사들이는 원료와 보조자재에 의거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석유, 생고무, 주석, 코프라, 담배, 사탕, 차 등이다.

주민의 90%는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안따라통신, 민족통신.

신문 암뻬라 레뷰, 베리따 유다, 쟈까르따 타임스, 메르데까, 와르따 하리안, 씨나르 하리반.

캄보쟈

(캄보쟈왕국)

인도지나반도의 서남부에 자리잡고있다. 평균기온은 28°C이다. 년간을 통하여 기온의 변화는 비교적 적다.

【면적】 18만 1,035km²

【인구】 626만명 (1968년말)

주민의 약 75%는 크메르족이며 그밖에 타이족, 라오족, 카족, 프논족 등 20여개의 종족들이 있다. 공용어는 캄보쟈어이며 프랑스어도 통용된다.

【수도】 프놈 뻰 (주민 약 60만명)

정치 1863년 8월에 프랑스제국주의의 《보호국》으로 되였고 1940년 9월 일제에게 강점되였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자 캄보쟈는 또다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보호국》으로 되였다.

1953년 11월 9일 캄보쟈는 완전독립을 선포하였다. 1954년 7월 인도지나문제에 관한 제네바협정에 따라 캄보쟈의 독립, 자주 및 중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1955년 9월 25일 캄보쟈는 프랑스련방에서 탈퇴할것을 결정하였으며 1957년 9월에는 영구중립법을 채택하였다.

캄보쟈의 이와같은 반제적인 립장에 불만을 품은 미제는 캄보쟈의 반역도당인 《자유크메르운동》을 부추겨 정부전복음모를 꾸미는 한편 남부웰남, 타이반동집단들과 함께 국경침범사건을 도발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죽이고 랍치하며 재물들을 소각 략탈하는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캄보쟈정부는 미제의 압력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과 중립 및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한 립장을 취하였다.

1963년 11월에 미제의 경제《원조》를 배격하고 1965년 5월에는 미제와의 외교관계를 끊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1966년 1월 미제의 침략도구인 《아세아기금》 프놈 뻰사무소를 폐쇄한것을 비롯하여 놈들의 침략에 반격을 가하였다.

1966년 12월에는 미제의 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과 모든 관계를 끊고 박정희도당의 《총령사》를 내쫓았다.

1967년 5월에는 캄보쟈의 현국경을 인정하지않는 나라와는 국교를 동결시킬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8년 10월 17일 캄보쟈정부는 침략적인 세아토가 캄보쟈를 이른바 《보호지역》으로 선포한데 항의하고 이것은 캄보쟈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준렬히 규탄하였다. 11월 15일 캄보쟈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캄보쟈의 《안전》에 대한 미제의 《보호》라는 미제의 회유기만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면서 미제의 그 어떤 《보호》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현순간까지 캄보쟈가 직면하고있는 주되는 위험은 미제침략군과 남부웰남괴뢰군의 침공에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캄보쟈정부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도발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있으며 침략자들을 쓸어눕히고있다.

캄보쟈해군은 1968년 5월 20일 캄보쟈령해깊이 기여든 미제가 용선한 필리핀견인선 1척을 나포하였으며 7월 17일에는 캄보쟈의 령토수역에 기여든 미제침략군의 상륙정을 붙잡았으며 배에 탔던 놈들을 무장해제하고 몽땅 사로잡았다.

7월 22일 캄보쟈외무성은 해적선승무원들을 석방하라는 미제의 무근거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미제해적선과 거기에 탔던 승무원들을 캄보쟈의 법에 따라 처리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1960년 6월—)

【의회】 왕국회의(상원)와 국민회의(하원)로 되여있다.

【정부】 수상 뻰 누트(1968년 2월—)

【정당, 사회단체】 인민사회동맹 집권당이며 유일당이다. **사회주의청년동맹, 캄보쟈 조선친선전국위원회** 위원장 킴 띠트.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3월 캄보쟈는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다. 1963년 11월에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 1964년 4월에는 문화및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4년 12월 20일에는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10월 우리 나라와 캄보쟈간에 1967—1968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1968년 9월에 캄보쟈정부대표단, 캄보쟈조선친선전국위원회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으며 캄보쟈왕국회의대표단(8월), 농업대표단(6월)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6월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이 캄보쟈를 방문하였다.

6월 17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게 보내는 친서와 선물을 대표단 단장이 전달하였다.

1968년 8월 7일 캄보쟈정부는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탄압행위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약 86.6%가 농민이다.

주요농산물은 벼, 옥수수, 고무, 목화, 야자, 커피 등이다. 벼재배면적은 241만 4천헥터, 고무재배면적은 5만 9천헥터이다. 1966—1967년에 벼는 245만 7천톤, 고무는 5만 1천 350톤 생산하였다.

수산업은 담수어업이 기본이다. 1965년에 물고기는 약 18만톤 잡았다.

산림면적은 약 7만 8천여평방키로메터이며 매해 목재는 30만립방메터 생산된다.

캄보쟈는 1963년 11월 미제의 《원조》를 거부한후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독립전에는 하나도 없던 현대적공장들을 건설하였다.

내부자원에 기초한 년산 500만메터의 능력을 가진 방직공장, 년산 5천톤의 능력을 가진 제지공장을 비롯하여 합판공장, 정미공장, 세멘트공장, 제당공장, 다이야공장, 마대공장들이 건설되였다.

1968년에 112만 2천여명이 각급학교에서 공부하고있었다. 그중 대학생수는 1만 4천 500여명에 달하였다. 국가예산에서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은 매해 늘어나고있는데 그것은 1955년에 12.8%였다면 1968년에 22.5%였다. 정부는 인민들의 전반적인 교육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1964년부터 문맹퇴치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캄보쟈통신 신문 민족주의자(인민사회동맹기관지), 캄보쟈보(정부기관지), 조국보.

수리아

(수리아아랍공화국)

지중해연안에 자리잡고있다. 대부분은 고원지대이며 동부와 내륙지방은 사막이다. 년평균기온은 19°C이다.

【면적】 18만 4,479km²

【인구】 600만명(1968년말)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인과 쿠르드인이며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다마스커스 (주민 63만 6,400명, 1968년말)

정치

1516년 토이기에 강점되여 오토만제국에 편입되였다가 1920년에 프랑스제국주의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1941년이후 영국과 프랑스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가 1946년 4월에 독립을 쟁취하였다.

1961년 9월 수리아아랍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6년 3월에 누레딘 아따씨를 수반으로 하고 유세프 자인을 수상으로하는 새 정권이 수립되였다. 자인정부는 이해 12월에 제국주의자들이 소유하였던 《이라크석유회사》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또한 대상공업기업소들을 무상몰수하여 국유화하였으며 봉건령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1967년 6월 5일 미제의 사촉하에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이 아랍나라들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자 즉시로 반격을 가하였으며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고 미국놈들을 수리아령토로부터 모두 내쫓을것을 명령하였다.

수리아정부는 미제의 사촉하에 수리아를 반대하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전쟁기간에 광범히 조직되였던 지원병부대를 민병조직인 인민군에 편입시킴과 함께 방위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68년 4월 12일 정부는 수도주위와 국경연안에 방어시설을 축성할데 대한 지시를 내리고 전국을 요새화하기 위한 광범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2월에는 경제를 전시체제로 개편할것을 명령하였다.

수리아인민들은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금헌납운동을 벌리며 어떠한 무력침공도 막아내기 위한 인민방위체계를 수립하고있다. 수리아인민들은 6월에 미제와 결탁한 반정부음모자들을 적발분쇄하였으며 9월에는 골란고지지역에서 감행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두차례에 걸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렸다.

11월 30일 다마스커스에서는 미제의 지지를 받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수십만명의 시위와 군중집회가 있었다. 집회에서 국가수반 누레딘 아따씨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반대하여 무장투쟁과 전면전쟁을 하기로 결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정부】 국가수반겸 수상 누레딘 아따씨(1968년 10월—)

【정당,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에 창건. 총비서 할레드 바그다슈. 아랍부흥사회당(바아스당), 수리아근로자로동조합총련맹, 농민조합련맹, 녀성동맹.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10월 4일 우리 나라와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66년 7월 24일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되고 이해 8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967년 6월 28일 김일성수상께서는 우리 나라 정부가 수리아에

군사원조를 무상으로 주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수리아국가수반 누레딘 아따씨에게 전문을 보내시였다.

1968년 9월 수리아정부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수리아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는 1968년 1월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를 우리 나라에 침입시켜 정탐행위를 감행케 한 미제의 침략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수리아교원련맹은 미제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전문을 직총중앙위원회에 보냈다.

1968년 5월 조선중앙통신사와 수리아아랍통신사간의 보도교환 및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2월에는 우리 나라와 수리아간에 1968—1969년도 문화교류에 관한 계획서가 조인되였다.

경제, 사회 농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의 약 65%가 농업에 종사한다.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이며 농산물은 수출액에서 85%를 차지한다.

경지면적은 약 600만헥터이며 주요농산물은 목화, 밀, 보리, 감자, 콩, 포도, 담배, 기장 등이다.

공업에서는 경공업이 위주이며 그중에서도 방직 및 식료가공공업이 발전하였다. 방직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지하자원으로는 린회석, 원유, 소금, 망간, 크롬, 철, 천연가스 등이다.

최근년간 수리아정부는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68년 6월까지 지주의 땅을 몰수하는 사업을 끝마치고 몰수토지의 85%를 땅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땅을 받은 농민들은 땅을 공동으로 경작하는 협동조합운동에 광범히 참가하고있는데 그수는 1968년말에 5만 1천여명에 이르고있으며 《농업협동조합》수는 750여개에 달하였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중소규모의 저수지건설과 함께 1967년에는 60만헥터의 메마른 땅에 물을 보낼수있는 유프라테스강의 뚝건설공사에 착수하였다. 1968년 3월에는 농업생산에 종사할 기계화작업소를 창설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수리아정부는 1966년에 이 나라의 석유채굴권과 석유제품의 68%를 독점하고 이 나라의 자원을 무제한하게 략탈해 가던 3개의 미영 석유독점체들의 석유회사를 국유화하고 석유자원을 널리 개발함으로써 년간석유생산량을 450만톤으로부터 750만톤으로 늘어날수 있게 하였다.

훔스석유정제공장이 확장되고 타르투스에 새로 석유저장소를 건설하였다.

이리하여 원유정제량을 150만톤으로부터 1967년에는 270만톤으로 늘이게 하였다.

정부는 민족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특히 국영경제부문이 노는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투자의 70%를 국영경제부문에 돌리고있으며 1968년 6월에는 국가계획위원회를 창설하고 통일적인 계획밑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1967년까지의 5년간에 공업총생산액은 16.7% 장성하였다.

1968년에 다브카—알레포, 타르투스—아카리 구간의 철도가 개통되였다.

1967년 10월 정부는 사립학교들을 국가가 통제할것을 결정하였으며 국가가 제정한 통일적인 교수요강과 교과서들만 리용하기로 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수리아아랍통신사.

신문 알 바아스(바아스당기관지), 알 사우라 (정부기관지), 알 피다아, 니달팔라힌.

이라크

(이라크공화국)

서남아세아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절반은 사막지대이다. 기후는 대륙성기후이며 년평균기온은 17°C이다.

【면적】 44만 4,442km²

【인구】 854만 7,000명 (1968년말)

주민은 아랍인이 절대다수이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바그다드 (주민 212만 4,300명, 1965년 10월)

정 치 영국의 《위임통치령》으로 있다가 1932년에 독립을 쟁취하였다.

1958년 7월에 파이살왕조가 전복되고 카셈을 수상으로 하는 공화국정부가 수립되였다. 1959년 3월 침략적인 군사동맹인 《바그다드조약》에서 탈퇴하고 42년간 이라크를 강점하고있던 영침략군을 몰아냈다. 동시에 미제와 맺었던 일련의 예속적인 협정들을 폐기하였다.

1963년 2월 아레프가 카셈정권을 전복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였다.

1964년 5월 이라크—아련련합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여 량국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통합대통령리사회와 통합정치지도부가 창설되였다.

1967년 5월 이라크정부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이 수리아를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개시하여 아랍나라들에 엄중한 위기를 조성하자 수리아와 군사협정을 맺고 아련과 수리아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1967년 6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이 미제의 사촉하에 아랍나라들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자 이라크는 이 전쟁에 직접 참가하였다. 그리고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고 이 나라들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지하였다.

1968년 7월 17일 군사정변이 일어나 새로 《혁명리사회》가 구

성되고 아호마드 하싼 알바크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바크르정부는 미제의 위협공갈에도 불구하고 정부내에 기여들었던 미제의 앞잡이들을 몰아내고 미제와의 외교관계를 끊었다.

8월 이라크정부는 미제독점체들의 청량음료회사를 국유화한데 뒤이어 9월에는 미제가 운영하던 간첩소굴인 알 하키마종합대학을 정부의 수중에 장악하였으며 이 대학에서 《목사》란 미명하에 갖은 파괴활동을 감행하던 수십명의 미국놈들을 내쫓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12월 10일 이라크대통령 바크르는 미제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인민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혁명적분위기를 조성할것》을 호소하였다.

12월 14일 혁명리사회는 미제의 간첩들, 인민의 원수들 및 반혁명분자를 재판하기 위한 혁명재판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이라크정부는 이라크정부전복음모를 꾸미고있던 미제와 이스라엘고용간첩 16명을 적발처단하였다.

이라크정부는 10월 15일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요르단에 있는 이라크지원군을 증강하기로 결정하였다.

【혁명리사회】 1968년 7월 17일에 창설된 립법기관이다.

【정부】 대통령 겸 수상 아호마드 하싼 알바크르(1968년 7월 17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4년에 창건, 현재 비법화. 바아스당(집권당), 쿠르드민주당, 로동조합총련맹.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9년 7월 우리 나라와 통상및지불협정과 문화협조협정을 맺었다.

1968년 1월 30일에는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설정하며 대사급외교대표를 교환하는데 합의하였다.

8월 31일 우리 나라와 이라크간에 1968—1969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이라크국방상은 1월 미제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우리 나라 령해깊이 침입시켜 정탐행위를 감행한것을 신랄히 규탄하고 범죄자들은 응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68년 9월 이라크정부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정부대표단이 1월에 이라크를 방문하였으며 12월에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이 이라크로동조합총련맹 제4차대회에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 인구의 80% 이상이 농목축업에 종사한다.

경지면적은 약 600만헥타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쌀, 대추, 목화 등이다. 대추는 매해 35만톤 이상 (세계생산량의 약 80%)생산되며 이 나라 국민소득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지하자원으로는 석유, 연, 석탄, 동, 망간, 니켈, 대리석 등이 있다. 석유매장량은 약 33억 5천만톤이며 석유는 1965년에 6천 460만톤 생산되였다.

석유세수입은 이라크재정예산의 44%, 국민소득의 3분의1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라크 석유는 오래동안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장악되고 있었다. 이라크정부는 이러한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1964년에 창설한 국영석유회사를 확장하여 석유자원을 적극 개발하면서 미영제국주의석유독점체들의 석유채취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해마다 경지면적을 늘이며 관개시설을 건설하는 등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기술적대책을 취하고있다.

공업부문에서는 최근년간 철근콩크리트침목공장, 종합방직공장, 통졸임공장 등 30여개의 공업기업소들이 신설확장되였다. 1968년 4월에 수도 바그다드와 바스라사이를 련결하는 철도가 개통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이라크통신 신문 알 자우라, 알 줌후리아, 알 아암, 알 무와틴, 알마싸.

남부예멘

(남부예멘인민공화국)

남부예멘은 인도양과 홍해, 페르샤만에 면한 아라비아반도의 남단에 자리잡고있으며 페림섬, 스코트라섬을 포괄하고있다. 구라파, 아세아, 아프리카를 련결하는 경제군사적인 요충지로 되고 있다.

해안지대는 습기가 많고 더우며 내륙지대는 대륙성기후이다. 최고기온은 35°C, 최하기온은 26.6°C이다.

【면적】 29만 80km²

【인구】 150만명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아덴 (주민 약 10만명)

정 치 1839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아덴항을 강점하고 이를 거점으로 점차 남부예멘전체를 강점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962년 4월 추장국, 회교왕국, 교주국, 소왕국 등의 졸개들을 긁어모아 《남아라비아련방》을 조작하고 1963년 1월에 아덴식민지를 이에 병합하였다.

남부예멘인민들은 영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1963년 8월 남부예멘민족해방전선이 조직되였고 이해 10월 14일 라드판지역에서 첫 무장투쟁의 불길이 일어났다. 그후 투쟁은 더욱 고조되여 각곳에서 영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영식민주의자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여도 1966년 한해동안에 남부예멘인민들은 510여차의 대소전투를 진행하였으며 1967년 8월 한달동안에만도 3천여명의 영침략군을 살상하였다.

인민들의 강력한 무장투쟁에 의하여 1967년 8월말에 《남아라비아련방》괴뢰정부가 무너졌고 1967년 11월 26일까지 영침략군이 쫓겨났다. 이리하여 남부예멘은 1967년 11월 30일 129년간의 영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남부예멘정부는 쟁취한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 식민지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해 12월말 남부예멘정부는 《군대로부터 봉건주의의 마지막 잔재를 청산》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여 영식민주의자들의 괴뢰고위군사관리들과 왕족출신의 군사장교들을 몰아냈다. 또한 정부는 외국독점재들과 판료배들, 도망친 추장들, 회교군주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1968년 10월에는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하여 봉건령주, 반동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땅없는 농민들에게 분배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청소한 남부예멘인민공화국을 말살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군사적압력을 가하는 한편 남부예멘에 저들의 괴뢰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남부예멘에서 쫓겨난 왕, 관료배와 국내반동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주어 그들을 반란에로 내몰았다.

남부예멘정부는 원쑤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인민방위군》, 《인민경찰》을 새로 조직하여 원쑤들에게 반격을 가하였다.

남부예멘인민들은 1968년 2월과 8월에 베이한 라헤쥐지역에서 무장반란을 일으킨 제국주의고용병과 반혁명분자들을 소탕하였으며 12월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국경초소인 샤라라부근에 기어든 원쑤들을 물리쳤다. 공군전투기들은 남부예멘령내에 기여들어 파괴 및 도발책동을 일삼던 미제의 지원을 받는 왕당파반란자들과 고용병들의 소굴을 폭격하여 소탕하였다.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살림 알리 루베이(1969년 6월—)

【정부】 수상 알리 하이탐 (1969년 6월—)

【정당, 사회단체】 **남부예멘민족전선** 1963년에 창건. **로동조합총련맹**, **남부예멘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아브둘라 바리 까쎔.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2월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이 남부예멘을 방문하였으며 2월 7일 남부예멘과 우리 나라간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으며 대사급외교대표를 교환할데 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교관계설정과 관련하여 남부예멘대통령에게 보내신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번 우리 두 나라간의 외교관계설정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를 괴수로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우리 두 나라 인민들간에 맺어진 전투적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로 됩니다.》

1968년 7월 남부예멘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7월 31일 우리 나라가 남부예멘인민공화국에 경제 및 기술적원조를 제공할데 관한 두 나라 정부간의 협정이 조인되였다. 9월 남부예멘정부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경축행사에 참가하였다.

경 제

아덴부근의 인민들은 주로 부두, 원유정제공장 등에서 일하며 연해 주민들은 어업을, 그외 지역의 주민들은 농목축업을 한다. 경지면적은 약 6만헥터이며 목화, 담배, 밀, 보리, 기장, 남새, 과일, 커피 등을 재배한다. 목화는 매년 5천 500톤, 과일, 남새는 년 30만톤 정도 생산되며 매해 6만 9,700톤의 물고기를 잡는다.

아덴항에서는 매달 평균 500여척의 원양선박들에 연료를 공급해준다. 아덴에는 500만톤능력의 정유공장이 있다. 독립후 남부예멘정부는 경제에서의 식민주의후과를 청산하고 경제적자립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정부는 1968년 6월 식민주의자들의 독점회사인 《아비야》회사 (목화가공회사)를 국유화하고 각 지방에 목화생산협동조합을 내오기 위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8월에는 경제를 유일적인 계획에 따라 통제하며 자연부원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고 모든 자연부원을 국가의 관할하에 두게 함으로써 민족공업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이 토대우에서 농산물가공공장, 방직공장 등 경공업발전에 힘을 돌리는 한편 농업협동조합과 국영농목장을 조직하였다. 또한 토지개간, 관개사업을 실시하는 등 농업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1968년에 2천여세대에 토지가 분여되였다.

【출판】 신문 알 타우라 (아랍어), 《14—두러버》.

버 마

(버마련방)

인도지나반도의 서쪽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고원지대이다. 기후는 열대 및 아열대에 속하며 평균기온은 20°C이상이다. 년평균강수량은 1천미리메터이상이다.

【면적】 67만 8,033km²

【인구】 2,698만명(1969년)

주민의 약 64.3%가 버마족이며 기타 샨족, 카친족 등 소수민족이 있다. 국어는 버마어이나 영어가 많이 통용된다.

【수도】 랑군(주민 178만5,000명, 1969년)

정 치

1824년부터 영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85년에 영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에는 일제가 버마에 기여들었으며 일제가 패망하자 또다시 영제국주의자들이 버마를 강점하였다.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버마는 1948년 1월 4일 독립하였다.

1955년에 버마는 영제국주의자들과 1947년에 맺었던 《방위협정》을 페기하였으며 제국주의적관세특혜제도로부터 탈퇴하였다.

1962년 2월 버마군 총사령관이며 총참모장이였던 네윈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우누정권을 뒤엎고 군인들로써 혁명리사회와 내각을 조직하였다.

1962년 4월 30일 혁명리사회는 《사회주의로 가는 버마의 길》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7월 4일에는 《사회주의로선당》을 조직하였다.

1964년 3월에는 《사회주의로선당》이외의 모든 정당들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네윈정부는 식민주의후과를 청산하고 나라의 독립을 공고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63년 버마에서 오래동안 파괴활동을 감행하여온 미제의 침략적인 《포드기금》과 《아세아기금》의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여 영식민주의자들과 공동으로 경영하던 기업소들과 16개의 외국은행을 국유화하였다. 또한 이해 2월에는 림업의 국유화를 선포하였다. 1966년에는 파운드 블럭에서 탈퇴하였다.

1968년 12월 버마정부는 60개의 방직기업소와 큰 식료품상점, 공업품상점을 포함한 168개의 상공업기업소를 국유화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랑군에 있는 모든 영화관을 국유화하였다.

【혁명리사회】 17명의 군인들로 조직되였으며 립법권을 행사한다.

【정부】 수상 네 윈 (1962년 3월—)

【정당, 사회단체】 **버마공산당** 1939년 8월 창건. 1948년에 비법화. **사회주의로선당** 집권당이며 유일당이다. **사회주의로동부대** 유일한 로조단체. **버마조선친선협회** 1963년 8월 14일 창립. 위원장 우 옹 푸 윈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7년 10월 2일 버마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1958년 3월 랑군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였다. 1961년 5월 두 나라간에는 령사관계가 맺어졌으며 6월 랑군에 우리 나라 총령사관이 설치되였다.

1968년 9월 버마련방정부경제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6월에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이 버마를 방문하였다.

1968년 2월 버마조선친선협회와 버마세계평화리사회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우리 나라 령해에 불법침입시켜 간첩행위를 감행케한 미제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4월 11일 랑군에서 광범한 사회계인사들의 참가하에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56주년기념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버마조선친선협회와 버마세계평화리사회의 공동축전이 채택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월 22일 랑군에서 진행된 군중집회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이 즉시 물러갈것을 요구하는 버마조선친선협회, 버마세계평화리사회, 아.아단결위원회 공동성명이 채택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세계적인 벼생산국으로서 농업에서 벼재배가 기본으로 되고있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의 약 80%를 차지한다. 주민의 약 80%가 농사를 하고있다.

농경지는 약 861만 2천헥터(1965년)인데 그 대부분이 논이다. 주요농산물은 벼, 땅콩, 황마, 목화, 콩, 사탕수수, 밀, 담배 등이다.

벼는 1967년에 800만톤 생산하였으며 60만톤을 수출하였다.

공업은 국민소득에서 약 20% 차지한다. 공업의 대부분은 농산물과 림산물가공공업이다. 1965년에 국가기업소들의 생산액은 공업생산액에서 60%이상 차지하였다.

지하자원으로는 월프람, 석, 연, 아연, 탕그스텐, 석유 등이 있다. 버마령토의 60%는 고무, 종려, 찌크 등 290여종의 각종 나무들이 무성한 산림지대이다.

버마정부는 오랜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새 생활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업과 농업의 자립적발전에 큰 관심을 돌리고있다.

1966—1967회계년도에 공업, 농업 및 운수의 발전을 위하여 9억 5천 300만카트를 투자하였으며 4개년경제발전계획 (1967—1970년)에 따라 수십개의 공업기업소들을 건설하였다. 1967년 11월에는 버마경제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쌀겨기름공장이 건설되였으며 또한 이해에 버마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기 력사상 처음으로 주철관, 천연가스정제설비를 만들었다. 1967년에는 1963년부터 진행해온 와샤웅관개공사가 완공되여 1만 2천정보의 논에 물을 대주고있다.

1965—1966년에 버마에는 605개의 고등학교와 858개의 중등학교가 있었다.

1967—1968년간에 485개의 소학교와 중학교가 더 늘어났다. 버마정부는 식민주의의 후과인 문맹을 퇴치하기 위하여 각지에 강습소를 설치하여 문맹퇴치사업을 광범히 진행하고있다.

1967년에 대학생수는 2만 5천명이였다.

주민의 80%가 불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버마통신 **신문** 워킹 피플즈 데일리(혁명리사회계), 룩따버 뚜네씽 (정부기판지), 루두, 뱅가드, 뉴 라이프 오브 버마, 랑군 데일리.

인 도

(인도공화국)

아세아주의 남쪽 인도양연안에 있다. 남부는 열대지대로서 무더우며 북부히말라야고산지대는 년중 눈에 덮여있다. 년평균기온은 북부에서 15°~24°C, 남부에서 24°C이다.

【면적】 294만 8,389km²

【인구】 5억 1,977만명(1968년 3월 1일)

주민의 46.3%가 힌두스탄족이며 그밖에 벵갈족, 텔루구족, 타밀족, 아쌈족 등이 있다. 공용어로 영어를 써왔다. 정부에서 1965년부터 힌두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수도】 뉴델리 (주민 264만 4,000명, 1961년)

정 치

1600년에 영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7년 영식민주의자들의 분할책동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두 지역으로 갈라져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서 각각 독립하게 되였다.

인도는 1950년 1월 26일 헌법을 제정하고 《영련방》내의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카슈미르문제를 둘러싸고 인도와 파키스탄간에 끌어오던 분쟁은 심화되여 1965년 9월에는 전면적인 무장충돌로 전변되였다. 두 나라는 1966년 1월 따슈껜트에서 수뇌자회담을 진행하고 정화하였다.

1965년—1966년에 인도각지에서 굶주림에 시달린 인민들의 대중적시위와 폭동이 있었으며 1968년에도 처지개선을 위한 인도인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7월부터 인도의 신문자로동자들과 신문일군들은 임금인상과 로동조건개선 등을 요구하여 두달여에 걸친 완강한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파업으로 인도의 거의 모든 신문들의 인쇄소가 문을 닫았다. 처지개선을 위한 투쟁은 부두로동자, 공무원, 농민 등 각계각층들 속에서 광범하게 전개되였다.

11월 20일 미제의 악명높은 호전광이며 사환군인 맥나마라란놈이 인도에 기여든것을 계기로 칼커타에서 강력한 반미시위가 벌어졌다.

11월 21일 이 도시 시민들은 미제의 《공보원》앞에 모여 맥나마라의 허수아비를 화형에 처하면서 미제의 웰남침략책동을 규탄하였다. 칼커타시 학생들은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놈들의 폭행과 미제호전광의 행각에 항의하여 이날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였으며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아버렸다. 10월 인도의 국제과학연구소는 인도에서 파괴활동을 감행하는 미제의 《아세아기금》으로부터 《원조》를 받는것을 거부하였으며 안드라프라데슈주정부는 미제의 간첩집단인 《평화군》 성원들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통령】 자키르 후세인(1967년 5월—)

【의회】 상원 (련방원)과 하원의 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인디라 간디 (1967년 3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3년에 창건. 국민대회당(집권당), 자유당, 인민당, 전인도민주당, 인민사회당, 전인도로조대회, 전인도청년련맹, 인도조선문화협회 위원장 씨•브람. 피카쉬.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3월 인도는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뉴델리에 우리나라 총령사관이 설치되였다.

1968년 12월 9일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과 인도정부무역대표단간에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과 1969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68년 2월 10일 인도진국평화옹호위원회와 인도아.아단결위원회를 비롯한 인도사회단체들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나라령해에 깊이 침입하여 엄중한 적대행동을 감행한 것을 규탄하는 련석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조선에서 새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는 미제침략자들을 규탄하는 결의가 채택되였다. 6월 26일에는 델리에서 인도조선문화협회의 주최하에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군중집회를 진행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1968년 9월 인도조선문화협회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

인구의 70%이상이 농사를 하고있다. 총생산액에서 농업이 73%를 차지한다. 인구의 15%밖에 안되는 지주와 부농이 경지면적의 85%를 차지하고있다. 경지면적은 약 1억 5천만헥타이며 그중 4분의 3이 알곡재배면적이다. 경지면적에서 관개면적은 약 16% 밖에 안된다. 주요농산물은 벼, 밀, 황마, 차, 목화, 보리, 옥수수 등이다. 알곡생산량은 약 8천만톤 (1965—1966년)에 달하며 매해 많은 식량을 수입한다. 공업부문에서는 10개의 대자본가들이 전체 공업의 약 70%를 독점하고있다. 국가독점자본은 전체 주식회사자본의 30.4%를 쥐고있다. 또한 인도공업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독점자본에 많이 예속되여있다.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철광석, 보크사이트, 동 등이 있다. 국가총예산의 70%이상이 세금으로 충당되고있다. 1966년말에 실업자는 1천 700만명에 달하였다. 총인구의 85%가 힌두교도이며 약 10%가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프레스 트라스트 오브 인디아

신문 뉴 에이지 (공산당계), 나브바라트 (국민당계), 이브닝뉴, 탄지르단, 힌두스탄 오브 인디아, 피플즈 데모크라시.

세 일 론

남부아세아의 인도양상에 있는 섬나라이다. 아세아와 구라파, 대양주를 련결하는 교통상 중요한 지점에 놓여있다. 년평균기온은 26°～30°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연해 평야에서 1천～1천 900미리메터이다.

【면적】 6만 5,610km²

【인구】 1,064만 4,800명 (1963년 7월)

주민중 싱할족이 약 68%, 타밀족이 약 23%를 차지한다. 국어는 싱할어이다. 1966년 1월 국회에서는 북부 및 동부주들에서 타밀어를 공용어로 사용할데 관

한 법안이 채택되였다.

【수도】 콜롬보 (주민 51만명, 1963년)

정 치 1517년에 뽀르뚜갈, 1656년에는 화란의 침략을 받았으며 1795년부터 영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8년 2월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독립후 통일국민당이 집권하였다. 1956년 4월에 자유당정권이 수립되였다. 자유당정부는 1961년에 석유법을 채택하고 1963년말까지 미영독점체들의 석유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1965년 3월 통일국민당이 다시 집권하였다.

쎄일론인민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며 웰남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을 지지하고있다. 2월 18일 콜롬보의 각계층인민들이 진행한 집회에서는 웰남인민과의 련대성을 표시하며 반미구국투쟁에서 그들이 거둔 승리를 축하하는 결의가 채택되였다.

【총독】 윌리암 고팔라와 (1962년 3월—)

【국회】 상하 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다드리 세나나야케(1965년 3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3년 7월 창건. 통일국민당(집권당), 자유당, 평등사회당, 련방당, 로조련맹, 청년련맹, 자유당청년단, 진보녀성협회,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1961년 10월에 창건. 위원장 챤드라 구나쎄케라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2월 쎄일론은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1963년 5월 우리나라 무역대표부가 콜롬보에 설치되였다.

1964년 1월 25일에는 두 나라간에 령사관계가 맺어졌으며 2월 7일에 우리 나라 총령사관이 콜롬보에 설치되였다.

1968년 1월 21일 콜롬보에서는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으로 다시 추대되신것을 경축하는 집회를 가지고 김일성수상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2월 21일에는 조선인민의 반미투쟁을 지지하며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는 23개의 대중단체 대표들의 집회가 있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령해에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침입시킨 미제를 규탄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께 드리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3월 27일에는 이와 관련하여 31개 정당, 사회단체의 공동주최하에 대군중시위가 단행되였다.

이밖에 쎄일론인민들은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 조국해방전쟁승리 열다섯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 조선로동당창건 스물세돐을 기념하는 군중집회를 가지고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축하편지를 채택하였다.

12월 쎄일론의 23개 민주주의적사회단체들은 유엔에서 《조선문제》를 토의케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968년 9월 쎄일론국회대표단과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는 농업이 기본이며 그중에서도 차, 고무, 야자재배가 위주로 되고있다. 경지면적은 약 160만헥터인데 그중 3분의 2가 차, 고무, 야자재배이다. 이 3대 작물은 농업생산액의 75%, 국민소득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차생산에는 이 나라 로동력의 약 5분의 1이 종사하고있다. 1968년에 차는 4억 9천 560만폰드, 고무는 3억 2천 787만폰드에 달하였다.

공업생산액은 국민소득의 약 5%를 차지한다. 공장은 대부분 차, 고무, 야자 등 농산물을 가공한다. 진주도 이 나라 특산물의 하나이다.

미제의 압력으로 1967년에 루피의 평가인하가 실시되였다.

싱할족의 대부분은 불교도이며 타밀족은 주로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쎄일론.

신문 포워드(공산당계), 쟈나디나(평등사회당기관지), 스리랑카, 네이숀, 트리뷴, 썬, 신할레.

파키스탄

(파키스탄회교공화국)

파키스탄은 1천 500키로메터의 인도땅을 사이에 두고 동부파키스탄과 서부파키스탄의 두부분으로 나누어져있다. 동부파키스탄은 평원지대이며 서부파키스탄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이다. 카라치의 1월 기온은 평균 14°C, 6—7월 기온은 32.5°C이며 평균강수량은 116.8미리메터이다.

【면적】 94만 7,695km²

동부파키스탄 14만 1,157km²

서부파키스탄 80만 6,538km²

【인구】 1억 287만 6,000명 (1965년)

동부파키스탄 6,423만 8,346명 (1968년 3월)

서부파키스탄 4,620만명 (1964년)

동부파키스탄주민의 95%는 벵갈족이고 서부파키스탄에는 바르찌족, 판찰족들이 많다.

국어는 벵갈어(동부파키스탄에서 많이 쓴다)와 우르두어(서부파키스탄에서 많이 쓴다.)이며 1972년까지 영어도 공용어로 쓰게 되여있다.

【수도】 이슬라마바드 (서부파키스탄에 있다. 새로운 수도 이슬라마바드가 완성될때까지 정부기관은 라왈핀디에 있다), 제2수도는 다카(동부파키스탄에 있다. 주민 53만 8,000명)

정 치 파키스탄은 인도의 일부로 있다가 1858년에 영국의 《직할통치령》으로 되였다.

1947년 8월 15일 인도에서 떨어져나와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고 1956년 3월 회교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8년 10월 아유브 한이 군사정권을 수립하

였다. 1962년에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고 국회가 성립되였다. 파키스탄은 미제의 침략적 군사동맹인 《쎄아토》와 《쎈토》에 가담하였으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성원국이다.

1965년 9월 파키스탄은 쎈토에 요청한 《원조》가 부결되자 쎈토로부터 자기 인원을 철수하였다.

뿐만아니라 쎈토와 쎄아토의 군사연습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각료리사회》, 《군사고문관회의》에도 참가하지 않거나 옵써버로 참가하고있다.

1968년 6월 6일 파키스탄외상은 국회에서 파키스탄이 미제침략자들이 꾸며낸 악명높은 침략적군사기구들과 《점차적으로 관계를 끊고있으며》 이 기구들의 《군사활동에 더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1968년 1월 파키스탄정부는 페르샤만지대에 파키스탄을 포함한 새로운 침략적인 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음모를 배격하였다.

5월 20일 파키스탄외상은 정부가 서부파키스탄에 있는 미제의 페샤와르공군기지(미제의 《유—2》 간첩비행기기지로 리용되고 있었다)를 철페한다는것을 결정하고 이를 미제에게 정식 통고하였다고 언명하였다.

파키스탄정부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대표밥을 보내달라는 미제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파키스탄인민들속에서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규탄하며 웰남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2월 15일 라호르에서 대규모의 반미시위가 일어났다. 시위자들은 미제의 령사관, 공보기관, 《미국은행》지점들을 습격하고 건물내 시설들을 짓부셔버렸으며 서류들을 불태워버렸다. 2월 19일에는 하이데라바드에서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규탄하는 대중적인 반미시위가 있었다. 시위자들은 《미국놈들은 아세아에서 물러가라!》 《영웅적웰남인민만세!》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미제의 공보기관을 둘러싸고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는 웰남에서의 미제의 범죄행위를 규탄하고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을 당장 그만둘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11월 7일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요구하여 일어난 학생들의 반정부시위는 폭동으로 발전하여 여러날 진국을 휩쓸었다.

【국민의회】 1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예이.엠 야히아 한 (1969년 3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8년 인도공산당에서 떨어져나와 창건. 1954년 7월이래 비법화. 회교도련맹당(집권당), 민족아와미당, 인민당, 민족민주주의전선, 로조련맹, 민족청년련맹, 전파키스탄녀성협회,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6년 11월 8일 우리 나라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7년 7월 28일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파키스탄에 개설되였다. 1968년 1월 14일 령사관계가 맺어졌으며 3월 6일 우리 나라 총령사관이 파키스탄에 개설되였다.

1968년 9월 파키스탄정부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7월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87%가 농사하고있다. 국가수입의 80%를 농업에서 얻고있다.

주요농산물은 황마, 목화, 벼, 사탕수수, 담배 등이다. 황마생산량은 세계황마생산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황마는 매년 약 200만톤 생산되며 수출총액의 50%를 차지한다. 1967년에 알곡은 2천만톤 생산하였다.

제3차 5개년계획기간(1965—1970년)에 이 나라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는 농업문제, 특히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관개수리, 농경지확장, 영농법의 개선 등에 큰 관심을 돌리고있다. 공업에서는 방직, 황마가공, 제탕, 담배, 제지 공업 등이 위주로 되고있다. 중공업은 1964—1965년도에 국민총생산에서 12.8%를 차지하였다.

1968년에 황마공장은 32개 있었으며 여기에서는 매년 125만톤의 황마제품이 생산되고있다.

파키스탄경제는 20개의 독점자본가들에게 집중되여있다. 이 20개의 재벌은 파키스탄 총공업자본의 66%, 은행자본의 80%를 장악하고있다.

1967—1968년에 외국자본의 채무리자는 1억 300만딸라에 달하였다.

1968년에 실업자는 약 700만명에 달하였다. 1969년부터 학교들에서는 영어대신에 민족어를 쓰고있다. 1965—1966학년도에 학교수는 직업학교와 기술학교를 포함하여 3천 100여개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파키스탄통일통신.

신문 타미르, 데일리 뉴스, 파키스탄 옵써버, 꽁스탄.

싱가포르

(싱가포르공화국)

말라이반도의 남쪽끝에 있는 싱가포르섬을 비롯한 몇개의 섬들과 인도양상에 있는 로쥐제호트보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년간 최고기온은 31°C, 최저기온은 24°C이다. 장마철과 건조기의 구분이 명백치않으며 년간 강우량은 2천 500미리메터이다.

【면적】 585km²

【인구】 200만 3,800명(1968년 12월말)

중국인 약 76%, 말라이인 약 14%, 기타 파키스탄, 인도인 등이 산다.

【수도】 싱가포르 (주민 154만 9,000명)

정 치 19세기 20년대에 이 섬에 침입한 영국식민주의자들이 1867년에 싱가포르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제2차대전시 일제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영국식민주의자들이 다시 침입하였다. 1959년 6월

싱가포르는 외교권과 국방권이 없는 영령말내의 《자치국》으로 되였다. 1963년 9월 신식민주의 도구인 말레이시아련방의 한개 주로 편입되였다가 1965년 8월 말레이시아련방에서 탈퇴하여 독립을 선포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은 싱가포르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고있으며 미제와 함께 이 나라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고있다.

【립법평의회】 1원제의 립법기관이다.

【대통령】 인취 유소프 빈 이스하크

【정부】 수상 리관유 (1965년 8월—)

【정당, 사회단체】 인민행동당(집권당), 사회주의전선, 인민련맹, 로동당, 통일인민당, 전국로동조합회의.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5월 13일 싱가포르와 우리 나라간에 무역협정이 체결되였으며 평양과 싱가포르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1968년 6월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이 싱가포르를 친선방문하였으며 9월 싱가포르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 싱가포르는 국제무역중심지의 하나로 되고있다. 오래동안 식민주의자들의 통치와 략탈의 결과 경제는 기형적으로 발전하였다. 즉 경제전반이 무역(중계무역)과 직접, 간접으로 련관되여 있는데 이 나라 국민소득의 80%이상이 무역과 관련된 경제부문으로부터 얻어진다. 국내공업과 농업으로부터는 10% 정도의 소득을 얻고있다.

최근년간 싱가포르의 중계무역은 제국주의독점체들의 무역공세로 난관에 부딪치고있다. 싱가포르정부는 식민지예속의 통치에서 물려받은 락후한 식민지경제의 기형성을 청산하고 자립적인 경제를 창설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도로, 철도, 항만, 전력, 수도, 전화 등 시설을 자체로 생산공급할데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결과 싱가포르에는 새로운 《쥬롱공업지구》가 창설되였는데 여기에는 년간 10만톤능력의 강철공장과 1만톤급이상을 수리할수있는 조선소, 세멘트공장, 성냥공장, 직물공장 등 일련의 공장들이 건설되였다.

【출판】 신문 바리산 (싱가포르사회주의전선기관지), 민보, 남양상보.

레 바 논

(레바논共和國)

지중해의 동부연안에 자리잡고 있으며 수리아, 이스라엘과 접경하고있다. 지중해연안의 기후는 여름에 무덥지않고 겨울에도 따뜻하다. 그러나 산악지대 산봉우리들은 년중 눈에 덮여있다. 대부분 지방에서 10—4월까지는 장마철이다.

【면적】 1만 400km²

【인구】 222만 7,000명(1963년 12월)

대부분이 아랍인이며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베이루트 (주민 60만명, 1963년)

정 치 레바논은 16세기에 토이기의 침략을 받아 오토만제국의 일부로 있다가 1920년에는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으며 1943년 12월 22일에 독립하였다.

1958년에 샤문정부는 미제로부터 1천만딸라의 《특별경제원조》를 받은 대가로 베이루트부근에 공군기지를 창설할 권리와 미제 6함대의 레바논 해군기지 사용권리를 미제에게 주었다. 미제는 레바논에 각종 침략기관들을 설치하고 이 나라 인민들과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일삼고있다.

1965년 5월 레바논은 서독군국주의자들이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맺은 것과 관련하여 서독과의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이 아랍을 침공하자 6월 6일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이날 베이루트인민들은 미제대사관에 불을 질렀다.

1968년 12월 28일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베이루트 국제비행장을 습격하여 려객기 13대와 비행장시설을 파괴하고 12월 31일에는 4개 편대 비행기들이 남부 레바논상공에 침입하여 저공비행하였으며 1969년 1월 2일에는 레바논진지들에 포사격을 감행하였다. 레바논인민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베이루트공항습격사건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을 규탄하는 광범한 투쟁을 벌렸다. 또한 이들은 레바논에서의 의무병역제실시, 국경의 요새화 등을 주장하면서 야피정부의 사직을 요구하였다. 1969년 1월 8일 야피정부가 무너지고 1월 15일 카라미를 수상으로하는 새내각이 구성되였다.

【국회】 1원제의 립법기관이다.

【대통령】 촬스 헬로우(1964년 9월—)

【정부】 수상 라쉬드 카라미 (1969년 1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에 수리아레바논공산당으로 창건되였다. 1958년 12월에 레바논공산당으로 분리되였다. 1947년에 비법화. 국회민주전선(집권당), 사회주의진보당, 팔랑게당, 민주전선당, 자유애국자당, 자치로조련합, 레바논조선친선협회 1969년 3월 창립, 위원장 맘두흐 아브달라.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9월 우리 나라와 레바논간에 무역협정이 체결되였으며 1968년 2월 14일 베이루트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개설되였다. 1968년 9월 레바논국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경 제 중계무역이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베이루트항은 자유항으로서 구라파와 아세아의 상품교류를 위한 지점으로 되여있다. 국민소득에서 무역이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식료, 방직, 세멘

트공업이 전체 공업자본의 약 60%를 차지하며 공업총생산액의 약 50%를 차지한다. 레바논정부는 외국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레바논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액은 이 나라 총투자액의 약 98%를 차지한다. 그 대부분은 미제와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독점하고있는데 미제의 회사는 450여개나 된다.

주요농산물은 귤(년산 약 12만톤), 포도, 사과, 레몬, 바나나, 양배추, 밀, 보리, 담배 등이다.

경지면적은 27만헥타이며 농산물생산에서 과일이 60%, 남새가 20%를 차지한다.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철광석, 유색금속 등이 있다.

【출판】 신문 일랄 아암, 알 아르비르.

쿠웨이트

(쿠웨이트추장국)

페르샤만 서북부에 있다. 대부분이 사막지대이고 물이 거의 나지 않는다.

【면적】 2만 5,500km²

【인구】 46만 8,000명(1965년)

주민의 절대다수는 아랍족들인데 그중 절반이상은 팔레스티나인, 애급인, 레바논인, 이라크인 등이며 원주민은 총인구의 약 45%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쿠웨이트(주민 21만명)

정 치 1899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61년 6월 17일 독립하였다.

1963년 1월에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헌법이 채택되였다. 헌법에서는 립헌군주제와 의회책임내각제를 규정하였다. 이해 1월 30일 첫 국회가 선거되였고 내각이 구성되였다. 정당은 없다.

쿠웨이트는 1965년 5월 서독군국주의자들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은것을 반대하여 서독과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1966년 7월 아프리카식민지들에 대한 뽀르뚜갈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그와 외교관계, 령사관계, 무역관계를 끊었다. 1967년 6월 이스라엘괭창주의자들이 아랍을 침공하자 쿠웨이트정부는 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추장】 사바흐 알 살렘 알 사바흐(1965년 11월—).

【국회】 1원제이다.

【정부】 수상 쟈베르 알 아흐마드 사바흐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9월 17일 쿠웨이트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1968년 3월 20일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쿠웨이트에 개설되였다.

경 제 경제의 기본은 원유채취업이다. 석유매장량은 약 90억톤으로 추산되고있으며 년 석유생산량은 1억톤이다. 국가수입의 90%이상이 석유공업에서 들어온다. 그러나 석유채취공업은 미영제국주의독점체들에 예속되여있으며 인구의 3분의 1이 외국석유회사의 착취로동에 종사하고있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이 값싼 로동력과 풍부한 석유의 략탈을 통하여 해마다 투하한 자본의 500%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쿠웨이트인민들은 이러한 착취와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과의 예속적인 《석유협정》의 갱신을 요구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리권과 활동범위를 제한축소하는 한편 《쿠웨이트국립석유회사》를 창설하였다. 민족공업창설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도 취해지고있는데 최근년간에 음료공장, 발전소 등이 건설되였고 1968년 5월에는 화학비료공장이 건설되었다.

주요농산물은 콩, 남새 등이다. 토지는 거의 족장들과 상인들이 독점하고있다.

해변가의 주민들은 어업과 진주채취에 종사한다.

1966년에 쿠웨이트종합대학이 창설되였다.

【출판】 신문 아흐바르 쿠웨이트.

네 팔

(네팔왕국)

히말라야산맥의 산록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절반이상이 해발 900메터를 넘는 산악지대이다. 최고기온은 40°C이상(남부), 카트만두지역은 년평균 약 14°C이다.

【면적】 14만 700km²

【인구】 1,029만 4,484명(1965년)

쿠르카족, 네와르족, 라나족 등이 있다. 국어는 네팔어이며 힌두어, 영어도 통용된다.

【수도】 카트만두(주민 22만 390명, 1961년)

정 치 1814년에 영식민주의자들이 쿠르카전쟁을 일으켜 1816년에는 네팔을 저들의 《속령》으로 만들었다. 1846년 쟌바하두르 라나가 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군사정변을 일으켜 라나일가의 군사독재정권을 세웠다. 이리하여 형식상 국왕은 있었으나 실권은 라나일가가 장악하였다. 제2차대전후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인도에서 몰려나게 됨에 따라 네팔에 대한 영식민주의자들의 지배권도 끝장났다. 1951년 2월 네팔 트리부반국왕은 네팔대회당과 합세하여 100여년간 집권하여온 라나일가의 세습적인 군사독재통치를 전복하고 립헌군주국을 선포하였다. 그후 네팔대회당은 1960년 12월 국왕을 제거할 정변음모를 꾸몄다. 이러한 기회를 리용하여 미제는 국왕과 대회당내각을 전복하기 위하여 네팔쿠르카당에 많은 무기와 자금을 대주어 수차 반정부무장정변을 꾸몄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네팔왕은 1960년 12월 15일 국회를 해산하고 1961년 1월에는 모든 정당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직접 자기가 집권하였다. 1962년 12월 16일 의회제도를 폐지하고 참사회(판챠야트)제도를 실시할데 대한 헌법을 선포하였다.

【국왕】 마헨드라 비르 비크람

샤흐데바(1955년 3월—)

【전국참사회】 (판챠야트) 1원제 립법기관이다.

【국가리사회】 국왕의 최고자문기관이다.

【정부】 수상 수리야 바하두르 타바(1967년 5월—)

【정당, 사회단체】 1961년 1월이래 정당들의 활동은 금지되였다. 공산당 1949년 9월 창건, 현재 비법화. 네팔조선친선협회 1959년 11월 9일 창립. 위원장 프렘 바하두르 칸사카르.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7월에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이 네팔왕국의 초청으로 네팔을 방문하였으며 9월에는 네팔정부친선대표단과 네팔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 농업이 국민총생산액에서 80%이상을 차지하며 주민의 약 90%가 이에 종사한다. 경지면적은 약 456만헥터(55%가 논)인데 남부평원지역에 집중되여있다.

주요농산물은 벼, 밀, 옥수수, 콩, 감자, 목화, 황마, 담배 등이다. 알곡 년생산량은 약 200만톤이다. 축산업에서는 양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공장들의 대부분은 인도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지하자원으로는 동, 철, 운모, 대리석, 석탄, 아연, 금, 은, 석유 등이 있으며 산림자원과 수력자원이 많다. 립헌제가 수립된후 네팔에서는 식민주의후과를 청산하고 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3개년계획 (1963—1965년)이 수행된 결과 수력발전소, 방직, 마대, 사탕, 담배, 성냥공장 등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건설되여 직물수요의 30%, 소비품수요의 60%를 국내상품으로 보장하고있다.

최근년간 네팔정부는 농업생산지분포에서의 불균형의 퇴치, 경지면적확장 등 농업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과 교통운수의 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민족간부 및 기술인재양성사업에서도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네팔교육기관들에서는 민족어로 교육이 실시되고있다. 주민의 대다수가 힌두교도와 불교도이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왕국)

아프가니스탄은 쏘련, 파키스탄, 이란 등과 접경하고있는 내륙국이다. 령토의 75%는 산악지대이다. 기후는 대륙성기후이며 년평균강수량은 300～400미리메터이다.

【면적】 65만 5,000km²

【인구】 1,468만 4,000명 (1965년)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인이며 따지크인, 우즈베크인, 뚜르크메니야인 등 20여개 민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푸슈트어 (농촌에서 주로 통용)와 페르샤어 (도시에서 주로 통용)이다.

【수도】 카불(주민 약 40만명)

정 치 18세기중엽까지 부단히 외래침략을 받아오다가 1747년에 왕국을 창건하였다. 1838—1842, 1878—1880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았으며 1880년에는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제1차대전후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여 1918년 5월 27일 독립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은 립헌군주국이며 회교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령역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국왕이 회교교주로 되여있다.

1967년 6월 아프가니스탄정부는 윁남문제는 외국의 간섭이 없이 윁남사람 자신들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하였으며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폭격의 무조건중지를 주장하였다. 6월 12일 아프가니스탄국회는 아랍국가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8년에 유엔에서 《조선문제》토의시 아프가니스탄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아프리카나라들이 제기한 남북조선대표 동시초청안에 찬성하였다.

【국왕】 모하메드 자히르 샤흐 (1933년—)

【국회】 상하 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누르 아흐메드 에테마디(1967년 11월—)

경제, 사회 주민의 약 90%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며 농업생산이 국민소득의 90%를 차지한다. 경지면적의 약 90%가 알곡경작지인데 주로 밀을 재배한다. 그밖에 벼, 보리, 옥수수, 과일, 면화, 사탕 등이 재배된다. 알곡년생산량은 약 370만톤이다. 주요가축으로는 면양, 염소, 소, 노새, 말, 락타 등이다.

수출품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양털의 년생산량은 1만 2천～1만 4천톤, 양가죽은 400만장에 달한다.

공업에서는 옥석제품, 융단 등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가내 수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은, 철, 연, 아연, 석탄, 류황, 대리석,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으며 수력자원이 많다.

독립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두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 1967년부터는 3차 5개년계획에 착수하였다. 이 기간에 장갈라교자동차수리공장을 비롯하여 직물, 방직, 세멘트공장들과 도로들이 건설되였다. 또한 카불강계곡의 수만헥터의 땅을 옥토로 전변시킬수있는 큰 댐이 건설되였으며 석유자원과 600억립방메터의 가스산지를 비롯한 수많은 자연부원이 개발되였다. 1967년 6월에는 아프가니스탄 최대의 나군루수력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무역은 쏘련과 파키스탄(카라치항구)을 경유하여 진행하고있다. 인구의 95%가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바크타르통신 신문 이슬라 (정부기관지), 모사바트, 아니스, 카불 타임스.

라오스

(라오스왕국)

인도지나반도의 중앙에 자리잡고있는 내륙국이다.

령토의 대부분이 높은 산과 넓은 산림지대로 되여있다. 메콩강류역에 넓은 평야지대가 있다.

평균기온은 1월에 북부에서 15°C, 남부에서는 23°C이며 7월에는 북부에서 28°C, 남부에서 30°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2천~3천미리메터이다.

【면적】 23만 6,800km²

【인구】 약 300만명

주민의 3분의 2가 라오족이며 그밖에 카족, 묘족, 인니족과 중국인, 웰남인 등도 산다.

【수도】 비엔티안 (주민 11만명)

정 치

1893년에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되였다. 제2차대전시기에는 일제의 강점하에 있었다.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워온 라오스인민들은 1945년 10월 12일 림시항전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1946년에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또다시 라오스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라오스인민들은 수파누봉의 령도밑에 구국항쟁을 전개하였다. 1949년 1월 20일 라오스인민의 진정한 무장력인 라오스인민해방군(1965년까지 파테트라오전투부대로 불리워옴)을 창건하여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으며 1954년에는 전국령토의 2분의 1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망라하는 삼 누아, 퐁살리 및 아토페우주를 해방하였다.

1954년 7월 20일 라오스의 독립, 주권, 령토완정을 인정하는 제네바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이 항쟁은 승리적으로 끝났다.

1956년 1월 6일 라오스인민의 영광스러운 기치인 라오스애국전선이 창건되였다.

1957년 11월 3파련립정부(애국전선, 중립파, 우파)가 수립되여 라오스의 통일이 실현되였다. 1958년 5월 전국선거에서 애국전선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미제는 친미반동도당을 사촉하여 1959년 7월에는 애국전선 지도자들을 체포하는 한편 애국력량을 반대하는 국내전쟁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애국전선의 령도밑에 혁명투쟁이 또다시 전국적규모에서 앙양되였으며 많은 지역에서 인민들이 궐기하여 지방인민정권을 세웠다.

1960년 애국전선의 지지와 협조밑에 괴뢰군내의 애국적부대들이 비엔티안에서 봉기를 일으켜 비엔티안반동정부를 뒤엎고 애국군대와 함께 비엔티안과 히엥 광주의 일부지역을 장악하였다. (그후 해방지역으로 넘어온 병사들은 애국적인사들과 함께 진정한 애국적중립파를 이루고 애국전선의 편에 굳건히 서서 반미구국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 1962년 애국적무장력은 남타전투에서 1천 500여명의 적을 쓸어눕히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1961년 6월 쮸리히에서와 같은해 10월 힌호프에서, 1962년 6월 자르평원에서 진행된 세 관계측 회담에서 림시민족련립정부의 구성과 인치가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1962년 7월 23일 미제국주의자들이 라오스를 반대하는 간섭과 침략을 포기하고 라오스의 독립, 자주권, 중립을 존중하고 라오스해방지역에 대한 일체 공습을 즉시 중지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협정이 조인되였다.

미제는 제네바협정을 체계적으로 유린하고 1964년 4월 19일 자기들의 주구들로 하여금 라오스 3파민족련립정부를 전복케 하고 라오스에 미제와 그 추종국가 군사인원들과 무기 및 군수물자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비—52》형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수많은 비행기들로 라오스애국력량이 장악하고있는 지역들을 야수적으로 폭격하였다.

미제는 라오스를 새형의 식민지로, 인도지나와 동남아세아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라오스우파괴뢰군과 남부웰남, 필리핀, 장개석잔당 등 괴뢰군대까지 긁어모아 해방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미제의 야만적인 《특수전쟁》이 감행되였다. 미제는 궁지에 빠진 웰남침략전쟁에서 출로를 찾기 위하여 1967년부터 라오스해방지역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정치적교란책동을 로골화하였다. 특히 1968년 10월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무조건 중지한다고 한 이후 중부 및 하부 라오스를 자들의 전략적교두보로 전변시키려고 꾀하면서 이 지역들에 대한 폭격과 《소탕작전》과 탄압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1968년 11월 1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만도 도합 1만 1천여차의 공습에서 2만 1천개의 폭탄을 떨구고 수백발의 로케트탄을 쏘았으며 유독성화학물질을 마구 뿌려 무고한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미제살인귀들은 하루평균 510여차례의 폭격을 감행하고 10월 이전시기보다 10배나 더많은 폭격과 로케트탄을 퍼부었다.

라오스인민들은 라오스애국전선의 령도하에 미제의 간섭과 침략을 분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애국적무장력은 적들의 교활한 책동과 야만적인 폭격 및 《소탕작전》에 대처하여 《주동적으로 적을 들이쳐 계속 승리를 쟁취》하며 《해방지역을 공고화》할데 대한 애국전선의 호소(1968년 1월)에 따라 전전선에 걸쳐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이리하여 1964년이래 1968년말까지 15만명의 적을 소멸하고 6만여자루의 각종 무기를 빼앗았으며 1천대(1969년 1월 22일까지)의 적 비행기를 쏘떨구고 전령토의 3분의 2와 인구의 절반이상을 해방하였다.

1968년 한해동안에만도 애국군대는 약 1천 460회의 전투를 진행하여 2만여명의 적을 쓸어눕히고 6천 300여점의 각종 무기를

빼앗았으며 170대의 미제비행기를 박산냈다.

1967년에 비하여 소탕된 적군수는 30%나 늘어났으며 포로수는 7배, 의거자수는 2.5배, 폭동을 일으킨 우파괴뢰군장병수는 2배로 각각 늘어났다. 완전히 소멸된 적 대대수는 전년의 4배나 되였다. 이리하여 적들은 우파괴뢰군 총병력의 3분의 1이상의 유생력량을 잃었다. 1968년에 남바크, 파티, 타톰, 타비엔, 무옹보, 무옹무옹과 9호도로 등 적의 전략적요충지들을 새로 장악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 놓았다.

정치분야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다.

애국적무장력과 인민들간의 단결과 각 민족들간의 단결이 강화되고 해방지역의 각급 정권기관들이 근로자들의 리익을 수호하고 그들의 생산과 전투를 지도하며 사회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는 근로인민의 정권으로 강화발전하였다. 청년, 녀성, 농민들의 조직들과 애국전선의 모든 기관들이 더욱 공고화되고 애국전선과 애국적중립파세력간의 동맹이 강화되였다.

미제는 군사 정치적인 심대한 패배로 하여 피동과 혼란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고있으며 미제상전과 라오스졸개들간의 모순은 격화되였다.

미제의 앞잡이들은 무력해지고 당황망조하고있을뿐만아니라 첨예한 내부모순에 부딪쳐 급격히 붕괴되고있다. 이미 기본적으로 파탄된 미제의 《특수전쟁》은 더욱더 궁지에 빠졌다.

1968년 7월 23일 애국전선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라오스에 대한 간섭, 침략 및 파괴행위를 중지하고 1962년 제네바협정을 엄격히 존중하며 라오스의 자주권, 독립, 중립, 통일 및 령토완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라오스문제는 외부의 간섭없이 1962년 제네바협정과 라오스의 현구체적정세에 기초하여 라오스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9월에 진행된 라오스애국전선과 진정한 중립파의 제3차전국정치련합회의에서는 전체 인민과 함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을 최후 승리를 거둘때까지 더욱 강화할것을 다짐하였으며 해방지역을 전체 인민의 공고한 투쟁의 기지로 건설할것을 호소하였다.

1968년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에 걸쳐 진행된 애국전선 제3차대회에서는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과감히, 광범히 전개하며 평화롭고 독립된 중립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통일되고 번영하는 라오스를 건설할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천명한 12개조정강을 채택하였다.

【국왕】 사방 바타나 (1959년 11월—)

【정부】수상 수반나 푸마

【정당, 사회단체】 애국전선 파테트 라오선투부대(라오스인민해방군의 전신)내의 진정한 애국자들을 골간으로 한 《라오스자유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하여 1956년 1월 6일에 창건되였다.

라오스에서 반제반봉건민주혁명을 수행할것을 목적으로 한다. 애국전선은 전체 라오스인민과 각정당들이 단결하여 미제와 친미반동무리들을 쓸어버리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각 민족들의 평등을 보장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할것 등을 당면과업으로 내놓고있다.

위원장 수파누봉

중립당, 평화중립민족적화목및통일옹호위원회, 라오스청년련맹.

【우리 나라와의 관계】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 보고에서 **《조선인민은 라오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무장간섭을 견결히 규탄하며 민족적독립을 위한 라오스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12월 10일 우리 나라 외무성은 미제침략자들이 라오스에 대한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려고 무모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8년 9월 5일부터 25일까지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경축행사에 참가하였으며 9월 24일에는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대표단간의 공동성명이 조인되였다.

경제, 사회 경지면적은 국토의 8%이며 인구의 95%가 농사하고있다.

지하자원으로는 주석, 연, 동, 금, 망간, 무연탄 등이 있다.

주요농작물은 벼, 옥수수, 땅콩, 담배, 목화, 커피, 아편, 고무 등이다. 벼의 경작면적은 약 75만헥타이며 벼수확고는 년산 약 50만톤이다. 목재는 매해 약 6만립방메터 생산된다.

라오스애국전선은 해방지역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제건설 3개년계획(1968—1970)을 실시하면서 생산과 전투를 배합하여 진행하는 방침을 취하고있으며 갓 해방된 지역 농민들에게는 씨앗과 농쟁기들을 제공하고있다.

해방지역에서 관개면적은 1만헥타에 달하고있으며 1967년 한해동안에만도 500정보의 새 땅을 일구었다.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농기구, 도자기, 직물,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수십개의 공장들이 일떠섰으며 전통적인 수공업이 복구확장되고있다.

반미투쟁과 인민생활향상에 더 잘 복무하도록 상업망이 늘어나고있다. 1968년에 국영상점 95개를 포함하여 160개의 상점들이 새로 설치되였다.

각급학교에서는 민족어로 교육사업이 진행되고있다.

1968—1969학년도에 해방지역의 학생수는 4만명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전학년도에 비하여 11%, 1945년에 비하여 4배나 더 많은것으로 된다. 교원수는 전해에 비하여 30% 늘어나 2천 200명에 달하였다.

교원양성을 위하여 삼 누아에

중앙사범학교가 건설(1967년)되였다.

해방지역에는 11개의 주병원과 700개이상의 침대를 가진 31개의 군병원들이 있으며 200개의 면과 60%의 마을들에 보건위원회가 조직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복무하고있다. 중앙과 각 지방마다 예술단체들이 조직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파테트 라오 통신사(애국전선의 대변기관)

신문 라오 하크사트(애국전선 기관지).

일 본

우리 나라와 조선동해를 사이에 두고 동남쪽에 널려있는 섬나라이다. 큰 섬들인 혼슈, 홋까이도, 큐슈, 시고꾸와 기타 수많은 작은 섬들로 구성되여 있으며 기후는 우리 나라와 비슷하나 비교적 강우량이 많다.

【면적】 36만 9,662km²

【인구】 9,828만 1,955명 (1965년 12월 1일)

【수도】 도꾜 (주민 1,133만 6,230명, 1968년 8월)

정 치 1867—1868년에 신흥 부르죠아세력이 일으킨 개혁 즉 《명치유신》에 의하여 봉건제도가 타도되고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며 19세기말—20세기초에 걸쳐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부르죠아지들은 봉건제도의 잔재인 《천황제》를 유지하고 거기에 반봉건적인 지주들과 밀접히 결탁하여 국내인민들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와 파쑈적탄압, 다른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침략전쟁과 강도적략탈을 감행하였다.

《명치유신》후 일제는 10여차에 걸친 략탈전쟁을 거듭하였다.

1894—1895년에 청일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배상금과 대만, 팽호렬도 등을 중국으로부터 략탈하였고 1904—1905년에는 로일전쟁을 일으켜 남부싸하린과 중국의 료동반도, 대련, 려순항을 손아귀에 넣었다. 일제는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1875년에 조선에 대한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1910년에는 침략적인 《한일합병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일제는 조선에서 미증유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조선인민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였다. 또한 조선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지어 조선사람의 말과 이름마저 빼앗으면서 조선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징용, 징병으로 수백만명의 청장년들을 죽음의 대포밥으로, 강제로동으로 내모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선을 아세아침략의 거점으로, 병참기지로 전환시킨 일제는 1918년에 쏘련을 반대하여 7만여명의 군대를 씨비리와 싸하린지역에 들이밀고 10억원의 군사비를 지출하였으며 1938년에는 하싼호, 1939년에는 할힌골강지역에서 새로운 반쏘공격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

1931년에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고무하에 중국동북을 침공하여 괴뢰《만주국》을 조작하였고 1937년에는 중국본토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1936년에 쏘련을 반대하여 나치스독일과 《반공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40년에는 독일, 이딸리아와 더불어 침략적인 3개국 《군사동맹》을 조작하였다. 이리하여 일제는 1941년에 태평양지역에서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대동아공영권》의 구호밑에 아세아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려고 날뛰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15성상에 걸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과 쏘련군대의 참전에 의하여 1945년 8월 15일 일제는 패망하였으며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되였다.

전후 일본을 강점한 미제는 제반 국제협정들을 란폭하게 짓밟고 일본이 처하고있는 전략적위치와 그의 인적, 물적 잠재력을 리용하여 일본을 재군국화하고 사회주의진영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돌격대》로 길러내기에 미쳐날뛰였다.

전후에 응당 처단되여야할 전범자들과 군국주의 특권관료배들이 미제의 비호를 받아 되살아나 국가권력의 자리에 또다시 들어앉았을뿐만아니라 2차대전이전시기의 파쑈악법들이 하나하나 복귀되고 국가기구가 더욱더 반동화되였다. 수많은 우익파쑈단체들과 《폭력단》깡패들이 공공연히 되살아나 군국주의부활과 정치의 반동화를 더욱 급속히 추진시켰다.

미제는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삼고 그를 골간으로 하여 아세아에서 새로운 침략적군사동맹을 조작하며 일본을 자기의 아세아핵전략체계에 얽매여두려고 획책하고있으며 다른한편 재생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면서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미제의 월남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50년 6월 미제가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자 곧 그와 공모하여 이해 8월 10일에는 소위《경찰예비대설치》에 관한 《정령》을 조작하고 《지원자》모집노름을 벌려 《경찰예비대》(그후 일본군국주의의 침략군대인 《자위대》로 되였다)를 만들어 수많은 일본침략군대들을 비밀리에 조선전선에 출동시켰다.

일제는 일본에 있는 미제침략군항공기지들과 기타 군사시설을 신설 확장하여 미제항공대의 우리 나라 침공을 도왔을뿐만아니라 이러저러한 형태로 직접 조선전선에 수많은 군사인원들을 파견하여 남조선에 있는 미제의 공군기지들에서 조선인민을 학살하는 만행에 복무케 하였다. 미제의 조선침략전쟁 3년간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침략군에게 소위 《특수》(미제침략군이 주문한 전쟁물자)형태에 의하여 제공한 전쟁물자만하여도 무려 22억딸라에 달하였다. 이와같이 과거 36년간 조선인민을 억압착취한 일본군국

주의자들은 또다시 조선인민의 흉악한 원쑤로 등장하여 악독한 적대행위와 살인만행을 감행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1951년 9월 미제와 일방적으로 《단독강화조약》을 맺고 침략적군사동맹조약인 일미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제침략군의 일본강점과 군사기지화를 합법화하였으며 일본의 재무장과 침략적군사동맹에 가담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 《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전령토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공격기지, 수리기지, 보급기지로 되고있으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와의 종속적동맹관계가 이루어졌다. 미일반동들은 그후 《미일선박대차협정》(1952년), 《미일우호통상조약》(1954년), 《미일상호방위원조협정》(1954년) 및 기타 수많은 《군사원조협정》들을 조작해냄으로써 침략적공모를 일층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조약》들을 통하여 일본본토에는 148개의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가 설치되였으며 이 밖에 685개가 넘는 일본 《자위대》기지들과 일본의 항만, 도로 등도 미제의 침략전쟁에 리용될수 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일본《자위대》의 무기, 탄약의 관리 및 사용, 훈련계획의 작성, 군사간부의 선발배치 등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미제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오끼나와에는 아세아 최대의 미군사기지가 설치되였으며 약 4만 5천여명의 미제침략군이 상시적으로 도사리고있다.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 있는 이 모든 군사기지는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리용되였고 오늘 조선에서의 새전쟁도발을 위하여,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위하여, 특히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전적으로 복무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62년 8월 《한일군사협력안》을 조작하여 《자위대》의 조선출동의 길을 열게 하였다. 1963년 6월에는 악명높은 《세개화살작전》계획을 완성시켰으며 이어 《날아가는 룡작전》계획(1964년), 《달리는 황소작전》계획(1966년 9월)과 같은 우리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일련의 흉악한 전쟁계획들을 짜놓고 그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도발행위들을 적극 감행해나섰다.

1965년에는 미제의 조종하에 남조선괴뢰도당과 침략적인 《일한조약》을 체결하고 조선과 나아가서는 다른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해외팽창책동을 합법적으로 감행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일한조약》체결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침투를 본격적으로 감행함으로써 또다시 남조선에 침략과 예속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령토를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위한 기지로 제공하고있을뿐만아니라 웰남침략전쟁에서 궁지에 빠진 미제를 돕기 위하여 의료일군, 기술자, 군사교관 등의 이름으로 많은 인원을 보내고있으며 미제침략군의 《주문》에 따라 각종 무기류들과 막대한 군수물자들을 공급하며 웰남침략전쟁에서 얻어맞은 비행기까지 수리해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적극 가담하는 한편 《원조》, 《공동개발》, 《경제협력》의 간판밑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침투하여 자기들의 팽창야망을 이루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의 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사또 에이사꾸(1967년 2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7월 15일 창건. 당원수 약 30만명. 의장 노사까 산조

사회당, 민주사회당, 공명당, 자유민주당(집권당), 로동조합총평의회, 전일본로동총동맹, 중립로동조합련합회의, 민주청년동맹, 신일본부인회,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 일조협회, 일조왕래자유실현련락회의, 재일조선인인권옹호회, 조선연구소, 일조학술교류촉진회, 일조무역회, 재일조선인민족교육문제간담회.

【주요사건】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1968년에도 미제의 아세아침략과 전쟁정책에 복무하는 한편 군사력을 증강하며 파쑈통치체계를 강화하면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해외팽창에 더욱 날뛰였다.

일본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정책을 반대하며 일본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웠다. 그들은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였으며 조선인민과 웰남인민을 비롯한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 대한 련대성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군국화, 파쑈화를 위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책동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있으며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충실히 복무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또다시 아세아침략의 옛꿈을 실현하여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면서 조선과 다른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쟁계획까지 짜놓고 있으며 그밖의 다른 지역들에 공공연히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새 전쟁을 적극 준비하고있으며 일본은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미제의 공급기지로 또한 공격기지로 복무하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69~70페지)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서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아세아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에 부딪쳐 헤아릴수 없는 궁지에 빠진 미제가 제놈들의 아세아침략전략을 수습해보려고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요구를 전례없이 높인것과 관련하여 더욱더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

1968년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지시(1967년 11월 미일제국주의 두목간의 밀담에서)에 따라 조선을 포함한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과 이 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고 탄압말살하기 위한 《미일공동작전태세》를 중심으로 하는 미일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의 침략전쟁준비와 핵기지화를 다그칠것과 그러기 위하여 범죄적 미일 《안보조약》을 그 기한이 끝나는 1970년 이후에도 그대로 《견지》해 나갈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정치, 경제, 군사, 사회의 모든 령역에서 군국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1968년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제3차방위력정비5개년계획》(1967—1972년)에 기초하여 30만을 넘는 침략무력인 《자위대》의 현대적무장화와 핵무장화를 위해 4천 270여억원이라는 방대한 군사비를 지출하였다.

핵무장을 위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기도는 1968년 5월 일본국회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사또란 놈이 일본이 미제의 《핵우산》에 들어가있는것만으로 《만족할수 없》으며 《일본에 핵무기를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것은 일미〈안보조약〉의 내용에 구속을 가하는것으로 된다》고 떠벌인데서 더욱 똑똑히 드러났다. 이런 궤변으로써 사또도당은 핵무장화를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자위대》를 보다 성능이 높은 핵유도무기로 장비하기 위한 새형의 유도탄개발을 진척시켰고 《자위대》의 현존 미싸일대대를 대폭 늘이고 소형핵탄두를 나를수 있는 《아르30》로케트부대와 화학부대를 신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쳤다. 항공 《자위대》의 새로운 주력기로서는 미제침략군과 《공동작전을 짤수 있고》 다른나라 령토를 《칠수도 있는》 《에프 4팬톰》 전투폭격기가 선정되였다. 이 공중비적의 행동반경은 일본의 이다즈께기지에서 전조선을 포괄하고있다.

무력증강과 함께 《자위대》의 무장부대들은 미제침략군과의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련이어 감행하면서 전쟁준비를 갖추어나갔으며 《유엔군》과 《웰남국제감시기구》에 참가하며 오끼나와의 《방위》를 분담한다는 구실밑에 《자위대》를 조선과 웰남 그리고 기타지역에 내몰기 위한 길을 터놓으려고 집요하게 날뛰였다. 미제의 조종밑에 사또도당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해외파병과 전쟁수행을 금지하고있는 현행일본헌법을 뜯어고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을뿐만아니라 《자위대》를 《유엔군》의 한 성원으로 해외에 파견하는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것을 기본골자로 한 이른바 《유엔과의 협력에 관한 법안》을 조작하고 그것을 립법화하려고 책동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전쟁준비는 1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우리 나라령해침입사건을 계기로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소동을 벌린 미제와의 공동음모에서 더욱 똑똑히 드러났다. 극도에 달한 놈들의 전쟁준비는 침략적인 《미일공동작전체제》를 보충강화하는 방향에서 직접 미제의 지휘봉에 따라 감행되였으며 미일제국주의자들은 이를 위하여 《미일군사협의위원회》라는 상설군사기구까지 내왔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 모든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군국주의사상과 복수주의사상을 고취하기에 날뛰였다.

사또도당은 10월 23일 《명치유신 100주년기념식전》을 국가적행사로 선포하고 이것을 전후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등 각방면에 걸쳐 군국화를 위한 악랄한 사상선전깜빠니야를 벌렸다.

사또도당은 침략전쟁준비의 일환으로서 경찰을 비롯한 인민탄압기구와 첩보기관들을 확장하고 각종 파쑈적악법들을 꾸며내는 등 나라의 파쑈화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제놈들의 전쟁정책수행에서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탄압말살하려고 꾀하였다.

1968년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일본에 있는 미제침략군기지들과 민용항공비행장까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리용되였으며 2월부터 오끼나와에는 《비—52》전략폭격기가 기어들어 그 기지에서 웰남에 대한 장거리폭격을 감행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침략자들에게 보다 많은 전쟁물자를 생산공급함으로써 막대한 《횡재》를 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다른 한편으로 《지역적협력》을 고창하면서 《아세아태평양지역각료회의》, 《동남아세아농업개발회의》 등을 통한 아세아반공군사동맹조작책동을 강화함으로써 이 침략블럭의 《맹주》가 되여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보장해주며 동시에 저들의 아세아침략야망의 실현을 촉진하려고 책동하였다.

또한 아랍국가들에 대한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적극 지지해나섰으며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함으로써 미제의 침략정책수행을 도와주었다.

미일반동무리들을 반대하는 일본인민들의 투쟁 1968년에 일본인민들은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 평화와 삶의 권리를 위하여 거세찬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일미 《안보조약》을 계속 《견지》하며 침략과 전쟁에 미쳐날뛰는 미일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일본인민은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을 반대하며 일본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일본인민의 투쟁은 미제의 아세아침략과 일본군국주의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세계평화의 위업에 기여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25페지)

일본인민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전쟁소동을 반대하여 우선 미제침략군의 기지를 철거시키고 미국놈들을 내쫓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특히 일본인민들의 투쟁은 1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을 통하여 미제침략자들이 일본을 발판으로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엄중한 전쟁도발책동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세차게 타올랐다. 이 투쟁의 불길은 그후 6월 2일 전쟁연습을 벌리고있던 미제침략군의 《에프4팬톰》전투폭격기가 큐슈대학건물에 떨어져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을 계기로 더욱 확대되여 일본전국을 휩쓸었다. 6월초 큐슈대학이 자리잡고있는 후꾸오까에서 시작된 일본인민들의 강력한 미제침략군기지반대투쟁은 삽시간에 60여개 도시로 확대되였으며 한달 이상이나 계속되였다.

광범한 민주력량과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인민들은 《군사기지를 없애치우지 않으면 짓부셔버리겠다》, 《미국놈은 물러가라》 등 격노에 찬 구호를 웨치면서 미제침략군기지주변에서, 미제대사관앞에서 강력한 시위를 벌렸으며 도처에서 시위와 집회, 파업을 단행하였다.

미제침략군기지를 반대하며 미일《안보조약》을 때려부시기 위한 6월 7일의 전국통일행동, 7월 1일을 전후하여 요꼬다, 다찌가와 등 도꾜주변의 미제침략군 주요기지들에서 전개된 도꾜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격렬한 기지반대투쟁 등은 미제의 강점하에서 쌓이고 쌓인 일본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이 얼마나 크며 미제침략군기지를 없애치우고 미국놈을 내쫓으려는 그들의 결의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힘있게 시위하였다. 일본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은 미제침략군기지를 없애치우기 위한 공동행동기간(11월 1일부터 10일까지)에, 그리고 11월 19일 미제의 전략폭격기 《비—52》 1대가 오끼나와에서 추락되여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고를 계기로 다시 앙양되였다.

대미종속하의 군국화, 파쑈화를 다그치면서 인민대중에 대한 수탈과 착취를 강화하고있는 사또도당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정치적진출과 경제투쟁이 또한 고조되였다.

1968년의 봄철공동투쟁의 첫 전국통일행동이 전개된 2월 25일 일본각지의 600여개소에서 250여만의 로동자들은 《물건값을 내리라》, 략탈적인 《합리화를 반대한다》라는 구호와 함께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 일본의 군국화, 파쑈화를 반대하는 구호를 내걸었으며 자기들의 정당한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서 견결히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투쟁결의는 3월 26일의 전국통일행동에서 훌륭히 관철하였다.

봄철투쟁은 4월 15일의 84개 대탄광의 10여만 탄부들의 24시간총파업, 4월 25일 각부문 로조단체들에 뭉친 수십만로동자들의 대규모파업으로 발전하였다. 단결된 로동자들의 힘의 위력은 10월 8일(200만명)과 10월 21일(100만명)의 공동투쟁을 포함한 가을철투쟁에서도 과시되였다.

이해에 일본인민들은 오끼나와에 대한 미제의 강점을 끝장내기 위하여 강력히 투쟁하였다.

빼앗긴 땅 오끼나와를 되찾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1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계속된 오끼나와의 즉시 무조건 반환을 위한 《공동행동월간》에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전개되였다. 4월 28일밤 오끼나와의 나하시에서는 약 20만명의 주민들이 미제침략군의 오끼나와강점후 최대규모의 반미모임과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일본인민들속에서는 또한 미제의 웰남침략과 이에 가담한 사또도당을 단죄하며 영웅적웰남인민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앙양되였다.

특히 웰남에로의 미제침략군의 군수품수송을 방해하고 일본국철에 의한 미제침략군비행기 연료수송의 50% 증가를 파탄시킨 로동자들의 파업투쟁, 웰남인민에게 1억여원의 지원금을 보낸 광범한 인민들의 모금운동 등으로 영웅적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고무해주었으며 미일반동들의 침략정책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밖에도 일본인민들은 사또도당의 군국주의교취와 헌법개악 그리고 인민탄압책동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에 일본반동지배층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광란적인 전쟁소동에 편승하여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을 감행하였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더우더 횡포한 적대시정책을 감행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극도에 달한 미제의 새전쟁도발소동을 적극 지지해 나섰을뿐만아니라 《자위대》로 하여금 미제침략군과 함께 《경계태세》와 《긴급출격태세》를 취하게 하였으며 지어 공화국북반부를 불의에 침공하기 위한 일련의 도발적인 전쟁연습까지 벌리게 하였다. 또한 놈들은 남조선의 군사, 정치, 경제에 대한 침투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군수품공급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이미 짜놓은 조선침략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분별없이 날뛰였다.

사또도당은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한고리로서 귀국의 권리와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비롯한 재일조선공민들의 제반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탄압말살하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사또도당은 미제의 조종하에 8월 일본에서 진행된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의 일본입국을 거부하였으며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경축행사에 참가한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의 일본재입국을 거부하는 횡포한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인민들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새전쟁도발소동과 사또도당의 적대시정책을 반대하며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일본공산당을 비롯한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이 미제의 날강도적인 음모책동을 신랄히 규탄하는 성

명과 담화 등을 발표하였으며 2월 2일에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 도발을 규탄하는 일본인민들의 중앙항의집회》가 진행되였다. 1만 8천명의 집회참가자들은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에서 손을 맞잡고 힘차게 싸워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수백만의 일본로동자들은 만일 미제가 조선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단호한 투쟁으로써 놈들의 침략에 맞서겠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일본인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전후하여 모임을 가지고 지난 20년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거둔 빛나는 업적과 성과들을 높이 찬양하였다.

또한 이해 일본인민들은 내외 반동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재일조선동포자녀교육의 최고 전당인 조선대학교의 인가조치를 쟁취함에 있어서와 사또도당이 집요하게 획책한 《외국인학교제도법안》의 국회상정을 저지시킴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였다.

1968년 2월과 8월에 일본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8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인 미야모도겐지동지를 단장으로하는 일본공산당대표단은 8월 25일 조선로동당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9월 일본공산당대표단, 일조협회대표단, 일본로동조합총평의회대표단, 일본사회당대표, 일본민주청년동맹대표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이밖에 일조협회대표단(7월), 일조인민친선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지지하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선인민과 일본인민간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공로가 있는 일본의 각계인사들 194명에게 공화국훈장과 메달을 수여하였다.

11월 5일 우리 나라 외무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의 일본재입국 허가를 거부하며 재일동포들의 조국에로의 자유래왕을 방해하는 일본반동정부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제, 사회

일본경제는 2차대전후 미제의 비호하에 되살아난 독점재벌들에게 장악되여있다. 전후 미제는 포츠담선언에 기초하여 일본독점자본을 해체한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에게 종속시키고 저들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협력자》로 재편성하기에 미쳐날뛰였다. 그리하여 주요산업부문에서 독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7년에 전쟁전수준에 접근하였으며 1957—1958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전후 세번째경제공황 이후 자본과 생산은 더욱 집중화되였다. 일본의 전체 기업체중에서 0.15%밖에 되지않는 소수 독점자본기업체의 수중에 전국기업 총자본액의 70%이상이 장악되여있다. 되살아난 일본독점자본가들은 최대한의 리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생산을 확대하였으나 일본인민들의 구매력의 저하로 경제는 심각한 《과잉》생산위기에 부닥치고있다. 국민소득에서 개인소비가 차지하는 몫은 부단히 저하되여 전전의 60%로부터 47~48%로 떨어졌다. 일본은 경공업원료인 양모와 면화는 전혀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있으며 중공업원료인 철광석은 96%, 원유는 99%, 보크사이트, 니켈은 100%, 소금은 80%를 해외시장에 의존하고있다. 판로난과 함께 이러한 심한 원료난으로 말미암아 일본독점자본가들은 커다란 위협을 받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이러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해외팽창과 군사화에서 찾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팽창의 주되는 대상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다. 그중에서도 놈들은 동남아세아에 해외침투의 중심을 두고있다.

1960년부터 1965년간에 해외《원조》자금 13억 6천만딸라중 그의 70%를 아세아침투에 돌렸으며 1965년 일본반동정부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연불수출》총액중 72%가 동남아세아지역에 돌려졌다. 1967년에는 《대외원조》의 73.6%를 아세아에 집중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지역에 침투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녹아난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을 보강해주는 동시에 저들이 직접 통제하는 안정된 판매시장과 값눅은 원료원천지를 획득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독점자본의 해외팽창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놈들은 2차대전기간에 일본침략군이 감행한 략탈과 만행에 대한 《배상금》 지불과 《원조》, 차관, 연불수출 등의 형태로 국가자본을 수출하고있으며 그밖에 사자본이 침투하며 또한 《기술원조》란 구실밑에 이 나라들에 침투하고있다.

1966년 3월 현재 근 12억딸라에 달하는 《배상금》중 60%가 지불되였는데 그에 기초하여 일본상품수출은 근 50% 증가시켰으며 1억 딸라를 넘는 200여개의 민간독점체들을 진출시켰다. 1967년 3월까지 해외에 지출한 사자본은 약 12억딸라에 달하고있다.

이와 같은 교활한 방법으로 일본독점자본은 특히 남조선진출을 확대하고있다.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청구권》, 《경제협력》의 명목으로 10억딸라를 주었으며 선박건조와 수리부문의 80%, 염화비닐공업의 100%, 보세가공공업의 100%, 섬유공업의 30%를 지배하고있다.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충실히 복무하면서 해외팽창의 길에 본격적으로 달라붙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지원밑에 무기의 《국산화》란 구실밑에 경제의 군사화를 대대적으로 촉진시켰다. 1968년 일본 《방위청》은 《자위대》장비의 국내생산비률을 20%로부터 80%로

높일것을 결정하였으며 1967년부터 1971년까지의 기간에 《자위대》의 주요장비를 위해서만도 일본독점자본에게 9천억원~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주문》을 할것이라고 하였다.

미일독점자본의 이러한 책동은 일본경제에 난관을 조성하고 인민생활에 엄중한 타격을 주고있다.

일본의 전체 기업소수의 99.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소들의 파산건수는 계속 늘어나 1968년에는 2차대전후 최고기록인 1만 776개에 달하였다. 중소기업소들의 대대적인 파산은 일본의 계급적 및 사회적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농업의 황페화로 인하여 농민들의 계급적분화와 리농이 급격히 촉진되고있다. 사또도당은 방대한 군사비조달을 위하여 공채의 대대적인 발행, 세금의 인상, 물가의 인상 등 각종 악랄한 방법으로 인민수탈을 강화하였다.

전쟁과 침략을 위한 인민수탈정책으로 1960년이래 생계비는 계속 올랐는데 이로 말미암아 인민들의 생활처지는 령락되고있다. 이 기간에 물가는 61% 올랐으며 1968년에는 1967년보다 5.6%나 올랐다. 그중에서도 쌀값은 80%, 고기, 남새, 과일 등은 2배로 뛰여올랐다.

1968년에 교통사고로 1만 4천 200여명이 죽고 82만 8천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1952년부터 1967년까지 미국놈들이 일본인민들에게 저지른 범죄건수는 살인살해사건만하여도 1만 6천 265건에 달한다.

【출판보도】 **통신** 지지통신, 교도통신, 재팬프레스.

신문 아까하다(일본공산당기관지), 아사히신붕, 마이니찌신붕, 요미우리신붕.

필리핀

(필리핀공화국)

동남아세아 태평양의 서부에 자리잡고있으며 7천 10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그중 사람이 사는 섬은 약 740여개에 달한다. 가장 큰 섬이 루손도이다. 년평균기온은 27°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600~1천미리메터이다.

【면적】 29만 9,404km²

【인구】 3,234만 2,000명 (1965년) 대부분이 필리핀인이며 기타 필리핀인과 에스빠냐인과의 혼혈인이 산다. 국어는 타갈로그어이나 영어와 에스빠냐어도 통용된다.

【수도】 케손 (주민 39만 5,000명) 1948년에 수도를 케손으로 결정하였으나 정부소재지는 아직 마닐라(주민 179만명)에 있다.

정 치

필리핀은 1565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하에 있었다. 1896년에 필리핀인민들은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봉기를 일으켰다. 이 기회를 리용하여 미제는 1898년에 《미국—에스빠냐전쟁》을 일으켜 에스빠냐로부터 필리핀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제2차대전시기인 1942년 5월에는 일제가 필리핀을 강점하고 괴뢰정부를 조작하였다. 2차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자 미제가 다시 필리핀을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1946년 7월 4일 필리핀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구실밑에 필리핀헌법에 《평등권리법안》(미국인은 자연부원의 개발, 공공사업분야에서 필리핀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을 첨가시키고 그후 《무역협정》, 《군사원조협정》, 《호상방위조약》 등 일련의 예속적인 불평등협정을 강요하여 필리핀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계속하면서 자기들의 통제하에 두고있다. 필리핀에는 약 30개의 미제군사기지가 있으며 2만여명의 미제침략군이 도사리고있다.

미제의 사촉하에 필리핀반동지배층은 1954년에 침략적인 세아토에 가담하였으며 1957년 5월에는 《반정부법안》을 조작하여 필리핀공산당과 진보적단체들을 비법화하고 파쑈통치를 실시하고있으며 미제의 대포밥으로 2천여명의 군대를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내몰고있다.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일떠선 필리핀인민들의 반미반정부투쟁은 오래동안 줄기차게 전개되여왔다.

1942년 필리핀에서 첫 무장조직인 후크발라하단(필리핀인민해방군)이 조직된이래 여기에는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이 망라되여 제2차대전시기 1만명을 망라한 대부대를 가지고 일제침략자들과 맞서싸우면서 해방지역까지 창설하였다. 그후 해방군은 확대강화되여 마닐라북부와 중부루손도의 광활한 농촌지대에서 투쟁하고있는데 중부루손도에서는 80여개의 부락(1968년)을 애국적무장력이 완전히 틀어쥐고 지방정부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애국적무장력의 조직망은 농촌뿐만아니라 도시들에까지 지어는 미제침략군의 기지에까지 뿌리박고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이리하여 이 지역의 괴뢰행정기구는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고있다.

【국회】 상하 량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1965년 11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11월 7일 창건, 1957년에 비법화. 총비서 헤수스라바. **자유당**(집권당), **국민당**, **민족주의꿍만당**, **로동조합련합회**, **자유로동조합회**.

【주요사건】 1968년에 필리핀에서는 무장투쟁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반미반정부투쟁이 세차게 전개되였다.

무장투쟁은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여 소부대의 활동으로부터 대부대활동으로, 소규모적인 습격, 매복전, 원쑤들의 군사시설파괴, 공장과 주구들의 처단 등으로부터 주동적인 공격작전으로, 농촌에서의 활동단계로부터 도시공격에로 이행하고있다.

애국적무장력은 9월과 10월에 중부루손도와 마닐라북부지역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적들을 주동적으로 공격하여 미제와 반동정부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10월 4일에는 중부루손도 콘세프시온시에서 반동적인 지방당국을 들이쳤고 10월 5일에는 30여명의 무장대가 대낮에 마닐라북쪽 45마일지점의 도시를 습격하여 관리놈들과 경찰놈들을 처단하였다. 10월 15일에 100여명의 무장대들이 마닐라에 쳐들어가 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도시를 일시에 혼란상태에 빠뜨렸다.

이 시기에 팜판가주, 타를라 불라칸주, 바탄주, 누에바 에시자주를 비롯한 광활한 지역에서 활동하고있는 애국적무장력들도 인민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활동지역을 넓히며 진공적인 투쟁을 진행하였다.

애국적무장력의 활동에 급해맞은 미제와 마르코스도당은 애국적무장력을 《소탕》하기 위하여 10월 중순에 2천여명, 10월 29일에는 또다시 1천여명의 괴뢰군을 내몰아 《소탕작전》을 벌린다고 일대소동을 일으켰으나 허탕치고 말았다.

미제와 마르코스도당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정치투쟁도 강화되였다.

특히 1968년초 미제침략군이 제놈들의 군사기지부근을 지나가는 필리핀소년을 도적으로 몰아 살해한것을 계기로 인민들의 투쟁의 예봉은 직접 미제에 돌려졌으며 이 투쟁에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이 망라되였다.

그들은 《미국놈은 제소굴로 돌아가라!》, 《미제는 첫째가는 원쑤이다!》 등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8월 16일 마닐라에서 로동자, 학생들은 미제대사관과 대통령집 앞에서 필리핀에 있는 미제침략군기지의 철페를 요구하였으며 필리핀의 자원을 략탈해가는 미제독점체들을 규탄하였다. 9월 24일에는 필리핀과 미제간에 맺은 《협정》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미제대사관에 돌벼락을 안겼다. 10월 4일 수천명의 군중들은 미제침략군의 클라크공군기지부근에 모여 미제의 허수아비를 불태워버리고 이 기지의 출입문을 2시간반동안이나 막아 미국놈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 이 모든 투쟁에서 인민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싸우는 웰남인민들에 대한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미제의 총알받이로 끌려간 필리핀청년들을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인민들의 투쟁의 압력으로 필리핀국회는 남부웰남에 끌려간 필리핀공병부대유지비지출의 승인을 몇달째 끌다가 끝내 끝장보지못하였으며 3월 20일에는 필리핀공병부대의 선발대 75명을 철수시키지 않을수없었다. 또한 앤젤레스시당국은 클라크공군기지 정문밖에 자리잡은 이 도시를 《미군출입금지》구역으로 선언하고 이 기지에 이르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농산물은 담배, 사탕수수, 코프라, 마닐라삼, 벼, 옥수수 등이다. 인구의 약 75%가 농업에 종사한다. 경지면적은 약 678만헥타, 산림면적은 1천 317만헥타이다. 지하자원으로는 철, 동, 망간, 크롬, 금 등이 있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의 15~17%를 차지한다.

광업, 림업, 대외무역 등 경제의 주요부문은 주로 미제와 일제독점체들이 쥐고있다.

1965년 10월현재 250만명의 완전실업자와 600만명의 반실업자가 있었다. 아세아에서 가장 기독교도들이 많은 나라이다.

【출판보도】 **통신** 필리핀보도사.

신문 마닐라 타임스, 마닐라 크로니클.

브루네이

칼리만탄도의 북부에 자리잡고있으며 해안지대에는 비교적 넓은 평야가 있으며 내륙은 500메터내외의 구릉지대로 되여있다. 적도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5°C~26°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천 500~3천 500미리메터이다.

【면적】 5,765km²

【인구】 9만명

말라이족, 다야크족, 중국인 등이 살며 말라이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브루네이(주민 약 2만명)

정 치

원래 오늘의 북부칼리만탄 전부가 브루네이였다.

1613년에 에스빠냐, 그후에는 영식민주의자들이 침입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분할하여 브루네이에서 1846년에 사라와크를, 1877년에는 사바호를 떼여내여 세지역을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1959년 9월부터 형식상《자치》가 실시되고있다. 최고통치자로서 추장이 있으나 외교, 국방, 국내치안에 대한 권한은 영국고등판무관이 쥐고있다. 브루네이인민들은 오래전부터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있다. 1959년에 사라와크에서 무장폭동이 일어났으며 1962년 12월 8일에는 브루네이에서 브루네이인민당의 지도하에 대규모적인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2만 5천여명에 이르는 봉기군은 일거에 20여개의 도시를 점령하고 영국식민주의자들의 기관과 경찰서들을 들이쳐 영식민주의자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주었다. 1963년 1월 1일 브루네이인민당 위원장 아자하리를 수상으로하는 북부칼리만탄혁명정부가 수립되였으며 북부칼리만탄민족해방군이 조직되였다. 북부칼리만탄민족해방군은 브루네이에서뿐만아니라 사라와크, 사바호 등 북부칼리만탄 각지에 해방지역을 설치하고 영침략자들과 말레이시아련방 괴뢰군에게 타격을 가하고있다. 북부칼리만탄민족해방군은 이 지역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수만명의 무장대오로 장성강화되고있다. 1965년 3월에는 북부칼리만탄의 정당, 사회단체 모든 민족주의자들을 망라하는 민족통일혁명전선이 결성되였다.

【정당, 사회단체】 **브루네이인민당** 1956년 8월에 창건. 북부칼리만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위원장 에이. 엠 아자하리. **브루**

네이련맹, 민족통일혁명전선.

경 제 경제의 기본은 석유채취업이다. 석유로동자수는 전체 로동자총수의 4분의 3을 차지하고있다. 원유생산량은 매년 약 500만톤에 달하는데 95%는 수출된다. 천연가스, 산림자원이 많다. 주요농산물은 벼, 야자, 고무 등이다. 고무는 매해 약 1천여톤 수출된다. 식량의 3분의 2는 수입한다.

말레이시아련방

말레이시아련방에는 말라이 반도의 남쪽에 있는 말라이와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과 접경한 사라와크 및 사바호의 세 지역이 포괄되여있다. 이 지역들은 해안지대를 제외하고는 전령토가 산림지대이다.

【면적】 32만 9,067km²(그중 말라이 13만 1,287km², 사라와크 12만 1,668km², 사바호 7만 6,112km²)

【인구】 약 850만명

말라이인, 중국인, 인도인 등이 산다. 말라이어, 중국어, 영어 등이 통용된다.

【수도】 쿠알라 룸푸르(주민 약 50만명)

정 치 말레이시아련방은 영제국주의자들이 동남아세아에서 무너져가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계속 유지하며 이 지역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조작해낸 신식민주의도구이다. 1963년 9월 말레이시아련방이 선포될때에는 말라이, 싱가포르, 사바호, 사라와크 등 네 지역이 망라되였다. 《련방》이 조작되자 이 지역 인민들은 강력한 반말레이시아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65년 8월에는 싱가포르가 련방에서 탈퇴하여 독립하였다.

말레이시아련방은 말라이의 11개주와 사라와크 및 사바호를 각각 1개주로하여 13개주로 이루어져있다. 각 주는 주헌법과 주의회를 가지고있다. 말레이시아련방은 영련방성원국이며 영제국주의자들과 《공동방위조약》을 맺고있으며 영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군대를 주둔시키고있다.

미제는 말레이시아련방에서 웰남침략전쟁을 위한 물자를 조달받고있으며 말라이의 도시들을 웰남침략전쟁에 참가한 미제침략군의 《휴양및휴식》장소로 전변시키고있으며 말라이에 《밀림전》학교란것을 만들어놓고 수천명의 미제침략군과 남부웰남괴뢰군을 《훈련》시키고있다.

말레이시아련방 인민들은 미, 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나라의 해방과 완전독립을 위하여 무장투쟁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대중운동을 전개하고있다. 북부칼리만탄지역에서 활동하고있는 애국적무장력은 1968년에도 식민주의자들의 침략기관들과 군사요새들을 들이치며 적순찰대를 때려눕히는 등 제국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을 가하였다. 말레이시아련방 정부는 1966년 9월에 북부칼리만탄의 전지역과 말라이의 일부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련방의회】 량원제의 최고립법기관이다.

【중앙정부】 수상 아브둘 라흐만(1963년 9월—)

【정당, 사회단체】 **말라이공산당** 1930년 4월에 창건. 1948년에 비법화. 총비서 진평. **련합당**(집권당), **말라이인민전선당, 사라와크인민련합당, 사바호련맹당.**

경 제 취업인구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농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고무재배이다. 고무재배면적은 말라이반도 총경작지의 약 67%에 달하며 말라이로동자총수의 절반이상이 여기에서 일하고있다. 고무는 국민소득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러나 고무농장의 많은 부분이 영제국주의자들에게 장악되여있다. 공업은 주석광 및 석탄채굴공업이 위주로되고있다. 주석광채굴공업의 60%는 영제국주의자들과 기타 구라파인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작물인 쌀은 수요의 3분의2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하고있다. 미제는 1959년에 말레이시아련방과 미제의 투자를 담보한다는 《협정》을 체결한후 말라이에 기여들어 많은 리윤을 짜내고있으며 대은행들의 지점, 독점재들의 지사 등을 조작하여 이 나라의 자연부원을 략탈하기 위하여 날뛰고있다.

타 이

인도지나반도의 중부에 자리잡고있다. 북부와 서부는 산지이다. 년평균기온은 27°C이다.

【면적】 51만 4,000km²

【인구】 3,355만 2,000명(1968년)

대부분이 타이족이며 기타 중국인, 말라이족, 크메르족 등 20여개족이 있다. 국어는 타이어이다.

【수도】 방코크(주민 190만명)

정 치 타이는 제2차대전전까지 동남아세아에서 유일한 《독립국가》였으나 실제상 영국에 예속되여 있었다. 1932년에 립헌군주국을 선포하고 1939년 6월에 샴이라고 하던 나라이름을 타이라고 고쳤다. 타이반동들은 1941년에 일제와 《군사동맹》을 맺고 일제의 아세아침략에 가담하였다. 1947년 11월 미제는 일제의 패망후 타이에 기여든 영제국주의세력을 물리치고 괴뢰정권을 조작하였다.

미제는 1954년에 타이를 침략적인 세아토에 끌어들였으며 한편 타이괴뢰들과 《군사원조협정》, 《경제기술협조협정》 등을 맺었다. 이를 통하여 미제는 타이령토에 30여개의 공군기지, 20여개의 해군기지, 4개의 로케트기지 등을 설치하고 아세아침략의 중요한 발판으로 삼고있다. 또한 타이에는 5만여명의 미제침략군이 도사리고있다.

타이반동들은 1950년에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미제의 졸개로서 참가하였으며 자기의 침략군을 남조선에 강점시켜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있을뿐만아니라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과 함께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적극 복무하고있다. 타이반동들은 미

제의 웰남침략전쟁에 8천명의 타이청년들을 대포밥으로 내몰고있다.

웰남민주공화국과 라오스해방지역에 대한 폭격에 동원되는 미제침략군의 비행기총수의 80%가 타이의 공군기지들에서 뜨고있다.

타이인민들은 타이애국전선의 지도하에 미제와 타이반동지배층을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하고있다.

1965년 8월 동북부에서 무장투쟁의 첫 봉화를 올린 타이의 애국적무장력은 점차 커다란 힘으로 장성강화되고있다.

타이무장투쟁은 동북부 산간지대로부터 농촌지역에로 확대되고있으며 남부지역들과 또한 미제의 군사기지들과 괴뢰통치기관이 집중되여있는 중부지역 및 북부지역들에서도, 적의 소굴인 수도 방코크부근에서까지 전개되고있다.

많은곳에 유격근거지들이 창설되고있으며 이 유격근거지들을 거점으로 도처에서 적들에게 공격을 들이대고있다. 미제는 타이에 끌어들인 제놈들의 침략군의 3분의1을 애국적무장력에 대한 《토벌작전》에 내몰고있으며 애국적무장력을 소멸하기 위하여 타이반동들에게 수많은 딸라와 무기, 장비들을 제공하고있다. 그러나 무장투쟁은 계속 앙양되고있으며 미제와 타놈도당의 통치지반은 뒤흔들리고있다.

【국왕】 푸미폰 아둘라디트 (1950년 5월—)

【제헌의회】 1원제이다.

【정부】 수상 타놈 키티카쵸른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2년 12월 2일 창건. 1947년에 비법화. **애국전선** 1965년 1월 1일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로써 결성된 애국적인 반미반정부조직. **독립운동, 애국로동자련맹, 애국청년조직.**

【주요사건】 1968년에 타이에서는 애국전선의 지도하에 미제와 타놈도당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이 새로운 추세를 보이면서 더욱 고조되였다.

년초에 들어서면서 애국적무장력은 매복습격전으로부터 적초소와 진지, 경찰서, 적병영들을 주동적으로 공격하였다.

2월초순에 애국적무장력은 주동적으로 14차에 걸쳐 괴뢰군초소를 공격하였으며 7월 26일에는 타이에 있는 미제침략군의 가장 큰 비행장의 하나인 우돈공군기지를 불의에 들이쳐 비행기 4대를 까부시고 미제침략군을 쓸어눕힘으로써 적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하반년부터는 광활한 농촌지역에 진출하여 대부대활동을 전개하면서 해방지역을 창설하였다.

1968년말현재 애국적무장력은 전국의 31개주와 110개의 군에서 활동을 전개하면서 북부타이의 로이에주, 페트차분주, 피사누로크주의 일부지역들에서 타놈도당의 반동통치를 뒤집어엎고 인민의 주권기관들을 세웠다.

또한 애국적무장력은 주동적인 포위공격작전 등 큰 규모의 전투를 진행하면서 한 지점에서 적들과 오랜시간 대치하여 싸움을 벌렸다.

애국적무장력은 12월 15일 방코크북쪽 350마일 떨어진 탄이지역에 도사리고있는 타이괴뢰군특수병영을 14일간이나 포위하고 공격을 들이댔으며 12월 24일에는 타이괴뢰군전방《사령부》와 비행장이 있는 눔 사크를 공격하고 이 지역을 련결하는 전략도로를 1주일동안이나 차단함으로써 적들의 모든 련락을 끊어버렸다.

무장장비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애국적무장력은 2월 31일에 타이애국전선이 장악하고있는 케크노이, 카오카드 소크촌락을 《토벌》하려고 달려드는 500여명의 괴뢰군을 로케트포와 대형무기로 몽땅 소멸해버렸으며 뒤이어 방코크북쪽 약 240마일 지점에 있는 괴뢰군병영 2개를 완전히 마사버렸다.

타이애국전선창건 네돐을 《전투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11월부터 벌린 공세에서는 더욱 큰 전과를 올리였다. 적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북부의 세개주에서 활동하는 무장력은 미제침략군과 타이반동군의 진지를 50여차례 들이쳐 150여명을 쓸어눕혔으며 놈들의 직승비행기 10대와 수많은 군용차를 까부시고 적들의 《지휘부》와 적기관 3개를 불태워버리고 많은 무기와 군수품을 로획하였다.

1968년에 애국적무장력은 수백차례의 전투를 진행하여 적 1천 450여명을 쓸어눕히고 비행기 25대를 쏴떨구거나 마사버렸다.

이와 같은 전과와 전국각지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무장투쟁에 기초하여 광범한 무장력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1969년초에 애국적무장력을 인민해방군으로 통합하고 타이인민해방군 최고사령부를 창설하였다.

타이인민들의 무장투쟁에 질겁한 미제와 타놈도당은 전국에《완전비상대세령》을 내리고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학살하는 등 폭압선풍을 일으키고 북부지역을 폭격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토벌작전》을 벌렸다. 3월 미제는 무장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타이괴뢰군들에게 2억 5천만딸라의 《군사원조》를 주겠다고 하였으며 병력수송기 수십대를 넘겨주었다. 미제는 《유격전진문훈련》을 받은 악명높은 미제침략군 《특수부대》를 타이에 끌어들이는 한편 남부웰남의 《전략촌》을 본딴 강제수용소를 만들어 인민들을 그속에 가두어넣고 유격대와 인민들의 련계를 끊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타이인민들의 반미반정부무장투쟁은 더욱 장성강화되여 미제와 타놈도당을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경 제

주민의 85%가 농민이며 국민소득의 약 80%를 농업이 차지한다. 경지면적은 약 620만헥타인데 대부분이 논이다. 주요농산물은 비, 고무, 옥수수, 담배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은, 철, 망간, 주석 등이 있다. 경제명맥은 미제가 틀어쥐고있으며 예산지출의 절반이상이 군사경찰비로

충당되며 재정수입의 90%이상을 근로자들로부터 빼앗는 세금으로 채우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다.

말디브

(말디브공화국)

말디브는 쎄일론 서남쪽 640키로메터 떨어진 인도양상에 있다. 2천여개의 산호초로 되여있으나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약 200개이다. 그중 제일 큰 섬은 말레섬이다. 강도, 호수도 없다.

【면적】 298km²

【인구】 9만 3,000명 (1963년)

인도인, 말라이인, 아랍인 등이 산다. 기본언어는 중카라어이고 일반적으로 영어가 통용된다.

【수도】 말레 (주민 1만 2,000명)

【정부】 대통령 이브라힘 나시르(1968년 11월—)

정 치 말디브는 1887년에 영국식민지였던 쎄일론의 《속령》으로 되였다. 1948년에 쎄일론이 독립하자 말디브는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54년 2월에 말디브는 군주제를 선포하였다. 1960년 2월에 국방 및 외교권을 제외한 《내부자치권》을, 1965년 7월 26일에는 독립을 쟁취하였다.

1968년 3월과 9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추장통치를 철폐하였으며 11월 11일 새 헌법을 발포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은 1960년 2월에 협정을 강요하여 30년간(1956년부터) 말디브의 간도기지를 비롯한 기타 군사시설의 사용권을 강탈하고 여기에 해공군을 주둔시키고있으며 말디브인민들에 대한 적대행동을 감행하고있다. 말디브인민들은 영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있다.

경 제 말디브는 땅이 척박하기때문에 알곡이 생산되지 않는다.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과 무역에 종사한다.

주산물은 물고기와 야자이다. 물고기를 수출하고 식량을 수입한다.

부 탄

히말라야산맥의 동남부고원지대에 있는 작은 나라이다. 동남쪽과 북쪽은 중국, 남쪽은 인도, 서쪽은 시킴에 접경하고있다.

【면적】 4만 6,600km²

【인구】 67만명

주민중 보티아스족이 약 80%, 네팔족이 약 20%이다. 언어는 티베트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푸나카 (겨울수도), 팀부(여름수도)

【국왕】 지그므 도르지 왕휴크 (1950년 10월—)

부탄은 1910년부터 영제국주의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인도의 독립과 함께 부탄도 영제국주의자들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1949년 8월부터 국방 및 외교권은 인도가 장악하고있다. 부탄에는 왕의 자문기관으로써 협의위원회가 있으며 그밖에 국가회의가 있다. 정당은 없다.

주요농산물은 쌀, 인도밀, 보리, 옥수수 등이며 고무, 사향도 생산된다. 동, 석탄, 석고가 채취된다.

산림면적이 국토의 70%를 차지한다. 교통수단으로서는 물소, 당나귀, 말 등을 리용한다. 화폐는 인도루피를 사용한다.

시 킴

히말라야산맥가운데 있다. 중국의 티베트지방과 인도사이에 있는 요충지이다.

【면적】 7,109km²

【인구】 16만 2,000명(1961년 3월)

네팔족, 보티아스족, 라프챠족 등이 산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행정중심지】 강토크 (주민 6,800명, 1961년)

【국왕】 쿠마르 팔덴 톤다프 남갈(1963년 12월—)

시킴은 1817년부터 영제국주의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50년 12월에 인도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인도가 시킴의 외교, 국방, 교통부문을 쥐고있다.

국왕이 립법권, 행정권을 가지고있다. 국왕의 자문기구로서 국가리사회가 있다.

정당으로는 국민당, 국민대회당, 국가대회당 등이 있다.

주산물은 쌀, 인도밀, 수수, 과일, 직물, 목재 등이다. 동, 연, 아연 등이 채굴된다. 털과 가죽을 수출하며 인도, 티베트 등과 교역한다.

이 란

(이란왕국)

이란은 아세아대륙의 서남쪽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초원과 사막지대이다. 대륙성기후이다.

【면적】 164만 5,000km²

【인구】 2,500만명

페르샤인(인구의 약 50%), 아제르바이쟌인, 쿠르드인, 아랍인 등이 산다. 국어는 페르샤어이다.

【수도】 테헤란 (주민 230만명)

정 치 이란은 1906년에 립헌군주제국가로 되였다.

1935년에 페르샤라고 부르던 나라이름을 이란이라고 고쳤다.

1953년에 미제의 사촉하에 군사독재정권은 영제국주의자들과 국가관계를 회복하고 원유의 리권을 미영독점체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란은 1955년 10월 침략적인 쎈토에 가입하였으며 1959년 3월에는 미제와 《쌍무군사조약》을 맺었다.

이란에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군사, 경제 《고문》들이 있으며 이자들은 이란내정에 간섭하면서 파괴활동을 하고있다.

【국왕】 모하메드 레자 파흘레비(1941년—)

【국회】 상원, 하원의 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아미르 아바스 호베이다(1965년 1월—)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전신은 1941년 9월에 창건된 이란공

산당이다. 총비서 리자 라드마니쉬. 민족전선, 신이란당(집권당), 인민대회당.

경제, 사회 주민의 절반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수입은 국민소득(석유수입제외)의 약 80%를 차지한다.

토지의 대부분은 국왕과 지주, 추장, 사원이 독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목화, 벼, 담배, 과일, 사탕무우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못하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한다.

공업의 기본은 원유채취공업이다. 석유매장량은 약 50여억톤으로 추산되며 해마다 약 1억 2천만톤 생산된다.

이란의 석유는 미, 영,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마드돔(인민당기관지), 메르에 이란, 케이한 인터내슈널, 테헤란 저널.

요르단

(하쉐미트요르단왕국)

요르단은 이스라엘, 수리아,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와 접경하고있는 내륙국이다. 서부는 비옥하고 요르단강 동부지대의 5분의 4는 사막지대이다.

【면적】 9만 6,610km²

【인구】 213만명 (1969년 8월)

주민들은 아랍족인데 그중 절반이상이 팔레스티나인이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암만 (주민 약 35만 6,000명, 1969년 8월)

정 치 요르단은 팔레스티나의 일부로서 제1차대전전까지 오르만제국의 예속하에 있었고 전후에는 영제국주의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가 1946년 5월에 독립하였다.

요르단은 1962년 8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예멘아랍공화국을 무력침공하였다.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이 아련을 침공하자 즉시로 이스라엘에 선전포고하고 보복타격을 가하였다.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은 요르단을 비법적으로 침공하여 서부요르단지역을 강점하였으며 그후 계속 요르단에 대한 군사적공세와 도발을 계속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요르단인민들은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다.

1968년 1월 12일에 18세로부터 40세까지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을 2년동안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시키는 전반적의무병역제를 실시할데 관한 법령을 발표하였으며 5월 2일 전국전선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미제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강점된 아랍땅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동원하여 단합할것을 요르단인민에게 호소하였다. 요르단인민은 3월하순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이 1만 5천명의 병력을 밀어넣고 불의의 대규모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을때에 적군용기 3대를 쏘아떨구고 땅크와 장갑차 25대를 파괴하였으며 수백명의 적병을 살상하는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다.

【국왕】 후쎄인 1세(1952년—)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바흐자트 알 탈후니 (1968년 12월—)

경 제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농업에서는 목축업과 알곡생산이 위주로 되고있다.

국토의 약 10분의 1이 경지이고 기타는 사막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콩, 일년감, 포도, 무화과, 바나나, 담배 등이다. 주요경제명맥은 미제독점체들이 쥐고있다. 미제는 이 나라의 3분의 2의 지역에서 원유개발권을 가지고있다.

이스라엘

지중해의 동부에 자리잡고있으며 아련, 요르단, 수리아등과 접경하고있다. 기후는 겨울에 습하고 여름에는 메마르다.

【면적】 2만 755km²(1949년 아랍국가들과의 정전선에 의한것, 1947년 11월 29일 팔레스티나분할에 관한 《유엔결정》에 의하면 1만 4,000km²)

【인구】 257만 9,000명(1966년 1월)

주민중 유태인이 절대다수이며 기타 아랍인이 약 30만명 있다. 국어는 헤브라이어이다.

【수도】 예루살렘(주민 17만명)

정 치 이스라엘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반아랍감정과 팽창야욕을 리용하여 저들의 중근동침략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팔레스티나를 분할하여 조작한 나라이다.

팔레스티나는 16세기초부터 제1차대전전까지 토이기제국의 기반하에 있었으며 1920년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은 팔레스티나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팔레스티나에서 아랍인들을 내쫓고 유태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세계도처에서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모아들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이 팔레스티나를 강점한 초기에는 유태인이 불과 5만명이였다). 이자들은 미영 제국주의자들의《군사원조》를 받아 팔레스티나의 아랍인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을 교활하게 리용한 미제는 1947년에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티나에 대한 영제국주의자들의 《위임통치》를 종식시키고 이 지역을 아랍국가와 유태인국가로 분할하도록 하였으며 1948년 5월 14일에는 팔레스티나땅에 이스라엘이란 유태인국가만을 조작해냈다. 미제는 이스라엘을 아랍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에로 내몰기 위하여 서독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여 체계적으로 무장시켰다. 이리하여 이스라엘팽창주의는 아랍국가들에 대한 미제의 군사전략에서 손때묻은 앞잡이로 이 지역의 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을 끄기 위한 《별동대》로 되고있다.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은 1948년 5월부터 1949년 7월까지 아련, 수리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를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전쟁》을 일으키고 약 9천 700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아랍인들의 령토를 빼앗았다.

1956년에는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과 한짝이 되여 아련을 무력침공하였다.

1958년부터 1964년 6월까지 이스라엘이 아랍나라들의 령공, 령해, 령토를 침범한 사건은 무려 1만 9천 717건에 달하였다. 1967년 4월에는 수리아에 대한 공공연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으며 이해 6월 5일에는 미제의 사촉하에 아랍인들을 반대하는 강도적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영제국주의자들과 공모하여 직접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시나이반도와 요르단강서쪽의 아랍지역 및 수리아의 일부 령토를 강점하였다.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은 비법적으로 강점한 아랍땅을 영원히 차지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면서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아랍나라들과의 접촉지점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계속 군사도발을 일으키고있다.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은 1968년 3월 요르단에 대한 대규모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8월 30일과 9월 3일에는 수리아의 골란고지지역과 쿠네이트라지구에서 수리아측에 대하여 기총사격을 감행하였다.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은 9월 8일 수에즈운하의 모든 전선에서 아련령토에 대한 포사격을 감행하여 주민들을 살해하며 평화적인 시설들을 파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죄행을 가리워보려고 이 사건이 아련측의 《사전계획에 의한것》이라고 떠벌리면서 유엔안보리사회에 《제소》까지 하는 연극을 꾸몄다. 뿐만아니라 2월 28일에는 레바논의 베이루트국제비행장을 습격하는 도발행동을 감행하였다.

【의회】 1원제이다.

【대통령】 잘만 샤자르 (1963년 4월—)

【정부】 수상 골다 메이르 (1969년 3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 마파이당(집권당), 마팜당, 자유당, 헤루트당, 공산주의청년동맹, 민주녀성련맹.

경 제 경제는 외국자본 특히 미제의 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다. 외국투자액중 미제의 자본은 약 70%를 차지하며 이것은 해운 및 은행과 화학, 제탕, 석유공업 등을 지배하고있다. 기타 부문은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본이 통제하고있다. 대부분이 사막이고 땅이 척박하며 주민의 14.4%가 농업을 하고있다. 중요농산물은 귤, 밀, 보리, 옥수수, 담배, 사탕무우 등이다.

국방비는 1966—1967회계년도에 총예산액의 40%를 차지하였다. 1966년말에 실업자는 8만 5천명이였다.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왕국)

아라비아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대부분이 고원과 사막지대이다.

【면적】 160만km^2

【인구】 750만명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인이고 기타 유태인, 페르샤인, 인도인 등이 있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리야드 (주민 35만명, 정부소재지), 메카(주민 25만명, 회교성지)

정 치 사우디 아라비아는 제1차대전전까지 오토만제국의 속령 (헤쟈즈, 네지드)으로 있었다. 대전후 이븐 사우드(네지드왕)는 령토확장을 위하여 헤쟈즈를 강점하여 아라비아반도를 통일하고 1932년에 나라이름을 사우디 아라비아왕국으로 고쳤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세습군주제국가이다. 국가의 모든 법률은 회교성전에 기초하고있으며 국회도 정당도 없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1962년에 예멘왕당파를 지원하여 예멘아랍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1966년 10월 미제침략자들에게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비행장들과 항구들을 임의의 시각에 마음대로 사용할수있는 권한을 주었으며 미제와의 《군사협정》에 의하여 미제로부터 무기와 군수물자들을 얻어쓴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예멘왕당파들과 남부예멘반동들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훈련시켜 이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반란에로 내몰고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내정에 부단히 간섭하고있다.

이리하여 사우디 아라비아는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군사기지, 침략기지로 리용되고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있다. 1967년 1월 사우디 아라비아민족주의자들은 미제의 군사시설과 송유관을 폭파시키는 등의 투쟁을 벌렸다.

【국왕】 파이살 이븐 아브델 아지즈 이븐 싸우드

경 제 반유목 반농업국가이다. 경지면적은 약 21만 헥타로서 국토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 주요농산물은 야자, 옥수수, 쌀, 보리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석유, 철, 석, 금, 은, 동, 아연, 몰리브덴, 보크사이트 등이다. 석유매장량은 약 82억톤 (1964년)이며 석유수입은 국가예산수입의 80～90%를 차지한다. 1965년에 석유는 9천 900만톤 생산되였다. 그러나 석유채굴권은 미제와 일제, 이딸리아 등 제국주의자들에게 장악되여있다. 미제의 《아라비아미국 석유회사(아람코)》는 1933년부터 110만평방키로메터의 령토를 1999년까지 《조차》하고 매년 1천 500만톤 이상의 석유를 략탈해가고있다. 미제석유독점체인 《아람코》는 자기의 석유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군대, 경찰, 정보기관 등을 가지고있으며 약 20만명이상의 아랍인로동자들을 고용하여 12～16시간의 노예로동을 강요하고있으나 미국로동자의 6분의1에 해당하는 기아임금을 주고있다. 광업은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카나다 등의 독점체들이 틀어쥐고 매해 약 250만 영

파운드에 해당하는 자원을 략탈해가고있다.

바레인제도

(바레인추장국)

바레인제도는 페르샤만에 있는 몇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가장 큰 섬이 바레인섬($556km^2$)이다. 바레인주변은 산호초로 둘러싸여있으며 산림이 없다. 식물은 재배식물과 사막지대에서 자라는 풀뿐이다.

【면적】 $598km^2$

【인구】 18만 2,200명(1965년)

주민은 아랍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이란인, 흑인 등이 있다.

【행정중심지】 마나마 (주민 6만 2,000명)

정 치 바레인은 1892년에 영제국주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이 나라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1942년에 형식상 추장을 내세워 행정리사회(최고기관)를 조작하여 식민지통치를 계속하고있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바레인제도에 해군 및 공군기지를 설치하여 이 지역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고있다.

바레인제도인민들과 바레인민족해방전선 (1956년에 결성)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고있다.

1965년 3월 이 나라 인민들은 석유로동자들에 대한 미제독점체들의 부당한 해고를 반대하여 대규모적인 폭동을 일으켰다.

1967년 6월 바레인은 이스라엘 팽창주의자들의 아랍침공에 항의하여 미영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수출을 일체 중지하였다.

【추장】 이사 빈 술만 알 할리파(1961년—)

경 제 석유가 주되는 생산물인데 그의 매장량은 약 4천만톤이며 1965년에 석유는 280만톤 채취되였다. 석유에서 얻는 수입이 국민소득의 75%를 차지한다. 석유채취권은 미제독점체들이 가지고있다. 또한 이 나라에서는 진주가 많이 채취되는데 최근년간 일제의 독점체들이 독점하고있다.

경지면적은 전체 면적의 5%에 지나지 않으며 농업생산물은 벼, 남새, 목축사료 등이다.

바레인제도는 수입상품의 70%를 린접나라들에 재수출한다.

카 타 르

(카타르추장국)

페르샤만 남쪽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반도다. 반사막지대이며 년평균 강수량은 101미리메터이다.

【면적】 2만 $2,000km^2$

【인구】 5만 5,000명 (1962년)

【행정중심지】 도 하 (주민 4만 5,000명)

정 치 카타르는 1916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추장이 있으나 영제국주의자들이 통치하고있다. 카타르에는 미제해군기지가 있다.

카타르인민들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며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있다.

경 제 카타르에는 석유자원이 많다. 1965년에 탐사된 매장량은 약 3억 8천 900만톤에 달하며 1965년에는 1천 50만톤의 석유가 채굴되였다. 석유의 채취 및 가공은 미, 영,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장악하고있다. 카타르에서는 목축업과 진주채취도 한다.

오 만

아라비아반도의 동남쪽에 있다. 해안을 제외한 령토의 대부분은 고원이다. 열대성기후이다.

오만은 무샤히하트 싸힐 오만(페르샤만에 면해있다), 마스카트오만 (아라비아해에 면하고있으며 남부예멘과 접경하고있다.) 이마마트 오만(오만내륙지방)으로 갈라져있다.

【면적】 29만 $4,400km^2$ (그중 무샤히하트 싸힐오만공국 8만 $2,000km^2$

【인구】 65만명 (그중 무샤히하트 싸힐오만공국이 10만명)

무샤히하트 싸힐 오만공국

대부분이 아랍족이며 아랍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두바이 (주민 5만명)

영제국주의자들의 《보호령》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무샤히하트 싸힐 오만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공군기지로 리용되였으며 현재는 영제국주의자들의 공군기지로 리용되고있다.

석유가 많이 매장되여있는데 이 지대의 석유채취공업은 미, 영, 프랑스 등의 외래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마스카트 오만추장국

대부분이 아랍인이며 인도인과 흑인도 있다.

아랍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마스카트(주민 5,500명)

영제국주의자들의 《보호국》이다. 명목상 추장이있으나 실권은 영제국주의자들이 쥐고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958년에 이곳에 해군기지,공군기지를 창설하였으며 1960년에는 저들의 침략군 약 2천400명을 끌어들여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고있다.

주민의 90%가 농목축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목화, 담배, 대추, 야자 등이다. 사막지대에서는 락타를 기른다. 석유가 채굴되는데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독점하고있다.

이마마트 오만 (오만회교교주국)

【행정중심지】 니즈와 (주민 4,500명)

【교주】 갈리브 빈 알리

1913년에 오만의 내륙지방인민들이 반영봉기를 일으켜 오만회교교주국(이마마트 오만)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오만에서의 민족해방투쟁】 1955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오만 회교교주국을 저들의 지배하에 넣기 위하여 마스카트 오만괴뢰도당을 사촉하여 오만회교교주국을 공격하는 내란을 일으키게하고 직접적인 무장간섭을 시작하였다.

1957년 7월 오만인민들은 회교교주 갈리브 빈 알리의 지도밑에 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그 괴뢰들을 반대하여 대규모의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영식민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군을 끌어들여 이마마트 오만 종족들에 대한 야수적인 폭격을 감행하였다. 오만인민들은 민족해방군을 조직하여 내륙산악지대를 근거지로하고 해안지대 도시들과 주요교통로들을 교란시키는 등 무장투쟁을 확대하였다.

1960년초에 오만민족해방군은 오만령토의 4분의 3에 달하는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63년에는 전국의 유격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그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민족해방군 최고사령부》를 설치하고 병력을 5만명으로 증강하였다.

1966년 7월 18일 《오만민족해방전선》은 무장투쟁개시 9주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오만인민의 투쟁목적은 영식민주의통치를 제거하며 아라비아반도에서 식민주의자들의 리익에 복무하고있는 반역자들과 앞잡이들의 정권을 청산하는것》이라고 하였다.

1965년 6월 도파르산맥에서 대규모의 무장투쟁이 시작되였으며 《도파르해방전선》이 창건되였다. 《도파르해방전선》은 도파르북부산악지대의 넓은 부분을 해방하고 광활한 지역에 진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1968년 9월에 진행된 《도파르해방전선》 제2차대회에서는 이 조직의 이름을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으로 고쳤으며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유일한 길은 《조직적인 혁명적폭력》이라고 결정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영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각이한 립장을 가진 오만의 다른 투쟁조직들과의 통일전선을 결성하며 《강력한 반제통일전선을 이끌고 나갈수있는 혁명적인 당》을 창건하기로 결정하였다.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은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해방군》을 가지고있으며 그에 의하여 해방된 도파르북부산악지대에서는 영제국주의자들이 수탈하던 각종 세금이 페지되고 일련의 사회개혁이 실시되고있으며 인민들에 대한 해방인민전선의 정치교양사업이 진행되고있다.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해방군》은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계속 영제국주의자들을 족치고있다.

1968년 2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에만도 100명의 적을 살상하였으며 11월에는 4차례의 전투에서 영제국주의자들과 그의 고용군 41명을 살상하고 적비행기 1대를 쏘아 떨구었다.

오만에서 활동하고있는 민족해방투쟁단체로서는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서부지역), 《오만민족해방전선》(중부지역), 《바흐레인민족해방전선》(동북부) 등이 있다.

토 이 기

(토이기공화국)

토이기는 다다넬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세아와 구라파 두 대륙에 걸쳐 있다. 건조한 대륙성기후이며 강수량은 적다. 앙카라의 년평균 강수량은 230미리메터이다.

【면적】 77만 6,980km²

【인구】 3,139만 1,200명(1965년 10월)

토이기족이 80%이상이고 기타 쿠르드인, 그루지야인, 아랍인 등이 산다. 언어는 토이기어이다.

【수도】 앙카라 (주민 90만 2,200명, 1965년)

정 치 1919년 5월에 왕제가 철페되고 1923년 10월에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941년에 파쑈독일과 《우호호상불가침조약》을 맺었으며 제2차세계대전시기에는 파쑈독일을 적극 도와나섰다. 전후 토이기는 미영제국주의의 충실한 졸개로서 침략적인 나토와 쎈토에 가담하였다. 토이기는 미제와 《쌍무군사협정》을 비롯하여 54개에 달하는 예속적인 협정을 맺고있으며 미제는 이를 통하여 토이기의 내부문제, 국가안전문제에 이르기까지 통제하고있으며 무기도 저들의 승인이 없이는 사용할수 없게 하고있다. 미제는 토이기에 100여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군사전략기지로 리용하고있다.

토이기는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미제의 앞잡이로서 참가하였으며 1964년 8월에는 끼쁘로스에 대한 무장간섭을 감행하고 그후 계속 령토팽창책동을 감행하고있다. 1962년에는 서독군국주의자들과 《군사원조협정》을 맺었다.

토이기인민들은 토이기가 나토에서 탈퇴하며, 토이기에 있는 미제군사기지를 철페하고 미제와 맺은 예속적인 협정을 페기할것 등을 요구하여 대규모의 반미반정부시위, 집회 등 각종 형태의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고있다.

인민들의 반미반정부감정이 증대되는 정세속에서 토이기반동정부는 1966년 12월 남부월남에 파병해 달라는 미제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1967년 6월에는 미제가 아랍나라들의 반항에 부딪쳐 리비아에 있는 제놈들의 군사기지를 토이기에 옮기자는 《제의》와 이라크가 미제와 외교관계를 끊자 바그다드에 있는 자기 리권을 대표해 달라는 미제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또한 1967년 8월 희랍에서 벌어진 《나토합동군사연습》에는 참가하지도 않았다.

【국회】 상하 량원제이다.

【대통령】 세보데트 수나이

【정부】 수상 술레이만 데미렐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1월 창건, 1923년 비법화. 로동당, 정의당 (집권당), 공화인민당, 신토이기당, 공화농민민족당, 사회민주당, 로동련맹평의회.

경제, 사회 주민의 약 77%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경지면적은 약 2천534만헥타이며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담배, 목화, 과일등이다. 고원지방에서는 축산업을 위주로 하는데 주로 면양, 산양들을 기른다.

지하자원은 크롬, 석탄, 석유, 철광석 등이다. 주요공업은 크롬과 석탄채굴을 위주로하는 채광업이다. 경제명맥은 미제의 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으며 민족공업은 마비상태에 있다. 토이기의 14개석유회사들중 그의 78%는 미제가 차지하고있으며 미제의 경제적침투로 1962년 9월에만도 995개에 달하는 토이기의 회사들이 파산당하였다. 1957년~1967년간에 식료품값은 106.8%로, 생계비는 2배로 올라갔다. 1965년에 150만명의 실업자가 있었다.

【출판】 신문 쭘후리에트, 타스비르, 자페르.

끼쁘로스

(끼쁘로스공화국)

끼쁘로스는 지중해의 동쪽에 있는 섬나라이며 구라파, 아세아, 아프리카의 3대륙을 련결하는 군사적요충지이다.

【면적】 9,250km^2

【인구】 59만 8,000명(1966년 3월)

희랍계주민 82%, 토이기계주민 18%, 공용어는 희랍어와 토이기어이다.

【수도】 니코시아 (주민 10만 3,000명)

정 치 끼쁘로스는 4세기말에 희랍제국의 령토로 되였다가 1571—1878년에는 토이기제국에 강점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자기 나라에 병합하였으며 1925년에는 직할식민지로 만들었다.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던 끼쁘로스인민들의 무장투쟁은 제2차세계대전후 더욱 앙양되였다.

희랍계주민들은 끼쁘로스의 희랍복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토이기는 끼쁘로스가 희랍계인과 토이기계인으로 분할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끼쁘로스내정에 간섭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두 민족간의 분쟁을 각방으로 조장시켰다. 이와 같은 분쟁끝에 1959년 2월에 영국, 희랍, 토이기간에 쮸리히와 런던에서 회담을 벌리고 1960년 7월 6일에는 끼쁘로스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불평등협정을 이 나라에 강요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영제국주의자들은 끼쁘로스에서 99평방마일의 군사기지를 강탈하였으며 희랍과 토이기침략군이 각각 끼쁘로스에 주둔하게 되였다. 쮸리히협정에 의하여 식민주의자들이 작성한 헌법에 의하면 의회, 정부, 국가기관들은 희랍계주민 7, 토이기계주민 3의 비률로, 군대는 6대 4의 비률로 구성하며 대통령은 희랍계인, 부대통령은 토이기계인으로 선출하며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의회에서 채택된 법령과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1963년 11월 마카리오스대통령은 비법적으로 강요된 불평등조약인 쮸리히 및 런던협정의 수정과 소수민족인 토이기계주민에게 많은 권리를 준 헌법의 페기를 선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영제국주의자들은 끼쁘로스반동들을 부추겨 1963년 12월 두민족간의 류혈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리고 《질서유지》라는 미명하에 침략적인 《유엔평화유지군》이란것을 조작하여 이 나라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였다. 토이기는 1964년 8월 끼쁘로스 촌락을 폭격하는 등 무장도발을 감행하였다. 끼쁘로스 문제를 둘러싼 미영제국주의자들과 토이기, 희랍 등의 책동으로 두 민족간의 무장충돌은 첨예화되여 1967년말에는 도처에서 사격전과 폭탄폭발사건들이 일어났다.

1967년 12월 토이기의 부추김을 받은 토이기계주민들은 끼쁘로스의 정부와 완전히 구별되는 《림시정부》와 최고주권기관인 《정부회의》를 세우고 부대통령인 쿠츄크 (토이기인)를 대통령과 의장직을 겸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토이기계주민들의 조직적인 분렬을 공식화하였다.

【의회】 1원제립법기관이다.

【정부】 대통령 마카리오스 (1960년 8월 16일—)

【정당, 사회단체】 **근로인민진보당** 전신은 1926년에 성립된 공산당. 1941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침. 총비서 파파이오아노우. **애국전선, 민족련맹, 전끼쁘로스로동련맹, 통일민주청년조직, 녀성련맹.**

경제, 사회 주민의 절반이상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감자, 밀, 목화, 보리, 귀밀 등이다. 철, 동, 크롬 등 지하자원이 많으며 경제에서 채광업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장기간의 식민지통치와 국내정세의 불안정으로하여 인민생활은 곤난하며 해마다 수천명이 살길을 찾아 해외로 떠다닌다.

구라파주

쏘 련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쏘련은 구라파주의 동부와 아세아주의 중앙 및 북부에 위치하고있다. 쏘련의 기후는 북부는 한대(전령토의 16%), 중부는 온대(80%), 남부는 아열대(4%)에 속한다. 최저기온은 씨비리의 동북부(웨르호얀쓰크)에서 령하 약 70°C이고 최고기온은 우즈베크남부(째르메즈)에서 약 50°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깝까즈산맥일대에서 2천 500미리메터, 서부지역에서 500~600미리메터, 중앙아세아지역에서 80미리메터이다.

【면적】 2,240만 2,000km²(구라파지역 560만km², 아세아지역 1,680만km²)

【인구】 2억 3,700만명(1968년 1월), 로씨야족(인구의 60%), 우크라이나족(인구의 20%), 백로씨야족, 우즈베크족, 따따르족 등 70여개의 민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로씨야어이다.

【수도】 모스크바(주민 650만 7,000명, 1967년 1월 1일)

정 치 1905년 로씨야에서 첫 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났고 1917년 2월에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에 의하여 짜리전제제도가 전복되였다. 1917년 11월 7일(음력으로는 10월) 레닌의 령도밑에 로씨야로동계급은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을 수행함으로써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되는 새로운 형태의 쏘베트사회주의국가를 형성하였다. 쏘련인민은 1918—1921년에 청소한 쏘베트국가를 압살하려던 14개 제국주의무력간섭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준동을 승리적으로 물리쳤다. 1922년 12월 30일 제1차 전련맹쏘베트대회에서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이 형성되였다. 1924년 12월에 진행된 쏘련공산당 제14차대회에서는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이 제시되였으며 이 로선은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1926년 12월에 소집된 쏘련공산당 제15차대회에서는 농촌의 집단화방침이 제시되였다. 이 방침은 1929—1934년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수되였다.

1936년 12월 5일 쏘련헌법이 채택되였다. 1941년 6월 22일 파쑈적인 히틀러독일의 무력침공이 시작되였다.

1945년 5월 9일 쏘련인민들은 히틀러파쑈도당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쏘베트조국을 수호하였다. 쏘련인민들은 7차에 걸치는 5개년인민경제계획(1959—1965년간의 7개년계획 포함)을 수행함으로써 락후하였던 로씨야를 발전된 경제력과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 거대한 진보를 이룩하였다.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에는 15개의 가맹공화국, 20개의 자치공화국, 8개의 자치주가 있다.

【최고쏘베트】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련맹쏘베트와 민족쏘베트로 구성되였다. 현 최고쏘베트는 제7기로서 1966년 8월에 선거되였다.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엔. 웨. 뽀드고르느이

【정부】 수상 아. 엔. 꼬씌긴(1966년 8월—)

【정당, 사회단체】 **쏘련공산당** 1903년 7월 30일 창건. 당원 및 후보당원수 1천 318만명(1968년).

총비서 엘. 이. 브레쥬네브

쏘련직업동맹, 전련맹레닌공산청년동맹, 쏘련청년단체위원회, 쏘련녀성위원회, 쏘련조선친선협회 1958년 7월6일 창설. 위원장 엔. 엔. 따라쏘브.

【주요사건】 1968년 7월 17일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대표단들의 와르샤와회합 결과》를 토의하였다. 11월에 진행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농업문제와 기타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7월에 진행된 최고쏘베트 제4차회의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를 가일층 개선하기 위한 문제와 기타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법령과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8년에 쏘련에서는 쏘련군대 창건 50주년을, 쏘련레닌공청창립 50주년을 기념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2일 쏘련은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49년 3월 17일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1955년 2월 5일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 9월 5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60년에는 상업 및 항해조약, 1961년 7월 6일에는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1968년에는 조쏘정부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2차회의(6월), 제3차회의(12월)의정서가 조인되였다. 또한 1969년도 통상에 관한 의정서, 1968년도 문화교류계획서 등이 조인되였다. 1968년에 쏘련정부대표단(9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또한 쏘련공산당대표단(2월), 쏘조친선협회대표단, 작가대표단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68년 2월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이 쏘련군대창건 50주년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정부통상대표단, 직맹대표단, 사로청대표단, 문화대표단, 조쏘친선협회대표단 등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1968년 6월 25일 모스크바에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미제를 규탄하며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를 진행하였다.

9월 6일에는 모스크바에서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 집회가 진행되였다.

경 제 쏘련에는 유용광물이 많다. 석탄, 니탄, 원유, 천연가스, 철, 망간 등은 매장량에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한다. 수력자원도 많으며 목재자원은 500억립방메터에 달한다.

경작할수있는 토지면적은 5억 4천 280만헥터이며 주요농작물은 밀, 옥수수, 감자, 콩, 해바라기, 사탕무우, 목화, 대마 등이다.

5개년계획(1966—1970년)의 첫해인 1966년에 공업총생산액은 혁명전에 비하여 66배에 달하였다.

석탄과 철광석 생산은 세계 제1위이며 강철생산은 10월혁명후 50년간에 약 50배로 장성하여 1968년에 1억 700만톤에 도달하였다. 이해 원유는 3억 900만톤 생산되였다.

기계제작공업은 1967년에 공업총생산액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게 되였으며 공업부문에 종사하는 총인원수의 3분의 1을 망라하고있었다.

1968년에 국민소득 장성에서 계획지표가 달성되였으며 공업제품생산이 8.1% 장성하였다.

중공업분야에서는 전력, 광물성비료, 합성수지, 자동차 및 계산기계들의 생산이 늘어났다.

1968년에 알곡수확고는 1억 6천 920만톤에 달하였으며 알곡과 축산물에 대한 국가수매계획이 넘쳐수행되였다.

1968년에 1천 600키로메터의 철도간선이 전기화되여 전기화된 철도의 총연장 길이는 3만키로메터에 달하였다.

사회, 문화 쏘베트정권기간에 로동자들의 실질소득은 6.5배로, 농민들의 수입은 8.5배로 장성하였다.

1968년에 인민경제 각부문에서 일하는 년평균 로동자, 사무원들의 수는 1년 동안에 280만명이 늘어 8천 510만명에 달하였다.

이해 고등 및 중등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 140여만명이 인민경제 각부문에 진출하였다.

1967년에 학생수는 7천 600만명, 그중 초등학교 학생수는 4천 300만명, 전문 및 중등전문학교 학생수는 420만명, 대학생수는 430만명이였다.

쏘련에서는 1957년 10월에 첫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때로부터 1967년까지 우주공간연구를 위한 220여개의 각종 기구를 지구궤도에 올려보냈다. 1968년에는 사람이 탄 우주비행선 《쏘유즈—3》호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정류소 《쁘로똔—4》호가 발사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따쓰(쏘련통신사), 아. 뻬. 엔(노보쓰찌보도사).

신문 쁘라우다(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이즈베쓰찌야(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꼼쏘몰쓰까야 쁘라우다(레닌공청 중앙위원회기관지), 뜨루드(직업동맹 중앙평의회기관지), 끄라쓰나야 즈베즈다(국방성기관지).

잡지 꼼무니스트(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리론잡지).

뽈 스 까

(뽈스까인민공화국)

뽈스까는 구라파동북쪽 쏘련과 민주독일의 중간지대에 있으며 북쪽은 발찍해에 면하고있다.

국토의 대부분은 평지대(평균높이 173메터이고 남쪽에 산맥들이 있다.

기후는 동구라파대륙성기후와 서구라파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아 변화가 심하다. 대체로 따뜻하다. 년평균기온은 7~9°C이며 년평균 강수량은 500~700미리메터이다.

【면적】 31만 2,520km²

【인구】 3,240만명(1969년 1월) 주민은 서슬라브족의 뽈스까인이고 언어는 서슬라브어족에 속하는 뽈스까어이다.

【수도】 와르샤와(주민 129만 6,000명, 1969년 1월)

정 치 뽈스까국가의 기원은 1천년전으로 알려져있다. 뽈스까는 1918년 11월 7일 부르죠아민족국가로 재생되기까지 약 130년간 외래침략자들의 예속하에 있었다.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은 사회적 및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뽈스까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추동하였다.

1918년 11월에 뽈스까는 정식 독립하였으며 1920년에는 림시혁명위원회가 조직되였다.

1939년 9월부터 뽈스까는 히틀러독일의 침략을 받았다. 쏘련군대와 뽈스까 제1군의 진격으로 히틀러독일의 강점하에서 나라의 일부가 해방되자 1944년 7월 루블린에서 첫 인민정권의 집행기관으로서 《뽈스까민족해방위원회》가 창건되였다. 이 위원회는 1944년 7월 22일 《7월 선언》을 발표하였다.(뽈스까인민들은 이 날을 나라의 해방과 재생의 날로 기념하고있다).

《뽈스까민족해방위원회》는 1944년 12월 31일에 뽈스까림시정부로 재조직되였다.

1947년 1월 19일 립법기관이 선거될때까지 뽈스까에서는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들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현행헌법은 1952년 7월 22일 립법회의 (쎄임)에서 채택되였고 그후 일부 수정되였다.

【쎄임】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재의 쎄임은 제4기로서 1965년 5월 30일에 선거되였다. 쎄임휴회기간의 최고기관은 국가쏘베트이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마리안 쓰삐할쓰끼 (1968년 4월—)

【정부】 수상 유제프 찌란께비치(1965년 6월—)

【정당, 사회단체】 **통일로동당** 1948년 12월 15일 로동당(1942년 1월 5일 조직)과 사회당이 합당하여 창건되였다. 당원 및 후보당원수 202만 9천 968명 (1968년 6월말)

중앙위원회 제1비서 블라지슬라브 고물까.

통일농민당, 민주당, 인민통일전선, 직업총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농촌청년동맹, 녀성련맹.

【주요사건】 1968년 11월 뽈스까통일로동당 제5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와 인민뽈스까의 사회주의의 강화 및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당의 과업에 대한 보고, 당중앙검사위원회 보고가 토의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새로운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사위원회가 선거되였다.

4월에 진행된 쎄임회의에서는 일련의 정부법안들을 토의하였으며 국가쏘베트 위원장 선거가 있었다.

뽈스까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대회(1월)에서는 청년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여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1968년 년중을 통하여 뽈스까인민군 창건 25주년, 공산당창건 50주년 및 통일로동당 창건 20주년, 뽀즈난무장폭동 50주년 등 일련의 큰 기념행사들이 있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6일 뽈스까는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2년 6월 2일에는 무역협정을, 1956년 5월 11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8년 9월 뽈스까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이해 11월에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뽈스까통일로동당 제5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밖에 뽈스까로부터 정부통상대표단, 문화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나라로부터 과학원대표단, 광산대학교원대표단 등이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11월 11일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과 뽈스까정부통상대표단간에 1969—1970년도 장기통상협정과 1969년 통상의정체결에 관한 의정서가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이 밖에 1968년에 두 나라간에는 1968년도 상품호상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문화협조에 관한 1968—1969년도 집행계획서, 두 나라 과학원간의 1968—1969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각각 조인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은 석탄, 갈탄, 니탄, 원유, 천연가스, 철, 아연, 동, 니켈, 류황, 소금, 칼리염 등이며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산림면적은 령토의 약 25.3%를 차지한다.

3차 5개년계획(1966—1970년)의 세번째해인 1968년에는 까또비쩨도의 아연종합공장, 《바일—돈》 금속실험공장, 쉐슈브도의 《쓰딸레바 볼라》 야금공장의 산소직장을 비롯한 일련의 큰 공업 시설들이 꾸려졌으며 하부쎌레지야의 《류빈》 동광과 《뽈꼬비쩨》 동광들이 일을 시작하였으며 또한 《쓰비노우시쩨—2》호 항구가 새로 꾸려졌다.

1968년 뽈스까의 공업생산에서 기계제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기간에 24.4%로부터 29%로 늘어났으며 화학공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7.4%로부터 9.4%로 늘어났다.

뽈스까에서는 선박공업이 발전되였으며 1968년에만도 수십척의 배가 건조되였다.

농업생산은 1938년에 비하여 1968년에 1.6배로 늘었다. 사탕은 1964년에 비하여 12만톤 더 생산하였다.

국민소득은 1938년에 비하여 1968년에 4.5배로 늘어났다.

뽈스까에서는 1945—1968년기간에 45만명의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받았다. 1968년 현재 대학은 75개에 달한다.

【출판보도】 **통신** 빠쁘(뽈스까통신), 로동자보도사.

신문 《뜨리부나 류두》(통일로동당기관지), 《글로쓰 쁘라찌》(직맹기관지), 《슈단다르 믈로디호》(사회주의청년동맹기관지), 《졸네쥬 월노스찌》(인민군 기관지)

잡지 노웨 드로기(통일로동당리론잡지), 쥐찌 빠르띠(통일로동당생활잡지).

체스꼬슬로벤스꼬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체스꼬와 슬로벤스꼬의 두 지역으로 이루어졌으며 구라파 중심부에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대서양의 영향을 받는 대륙성기후이다. 쁘라하의 년평균기온은 10°C이다. 강수량은 450～1천 500미리메터이다.

【면적】 12만 7,859km²

【인구】 1,430만 5,030명(1967년 7월 1일) 주민의 대부분은 체스꼬인, 슬로벤스꼬인이고 그밖에 독일인, 뽈스까인, 우크라이나인들이 있다.

【수도】 쁘라하(주민 102만 5,000명, 1965년말)

정치 기원7세기에 첫 왕국이 건립되였다. 11세기전반기에 오늘의 슬로벤스꼬지역이 웽그리야에 병합되고 체스꼬는 1620년에 오지리제국에 병합되였다.

1918년 10월 28일 체스꼬슬로벤스꼬는 독립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지지밑에 부르조아지들이 정권을 장악하고있었다.

체스꼬슬로벤스꼬는 1939년부터 파쑈독일의 강점하에 있다가 1945년 5월 9일 히틀러파시즘의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1945년 7월에는 민족전선정부가 수립되였다. 1946년 5월 제1차민족회의선거를 실시하고 새 련합정부를 수립하였다.

1948년 2월 공산당의 령도하에 체스꼬슬로벤스꼬 로동계급은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전복하고 부르조아제도의 복귀를 시도하던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반혁명음모를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였다.

2월사변승리후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산업, 은행, 상업부문의 국유화를 실시하였으며 토지개혁을 완수하였다.

1960년 7월 11일 민족회의는 새헌법을 채택하고 나라 이름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으로 고쳤다.

【련방회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그의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루드위끄 스워보다(1968년 3월 30일—)

【정부】 1969년 1월 1일 새련방정부 구성.

수상 올드르쥐호 체르니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5월 14일에 창건, 1948년 6월에 사회민주당과 합당.

당원 및 후보당원수 169만 8천명(1966년 1월 1일).

제1비서 구스따브 후싸끄.

인민당, 사회당, 슬로벤스꼬부흥당, 민족전선, 직업동맹, 청년동맹, 녀성동맹.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21일 우리 나라와 체스꼬슬로벤스꼬간에 외교관계가 맺어졌다.

1954년 12월 21일 량국간에 경제 및 기술적협조를 위한 협정, 1956년 6월 23일에는 문화협조협정이 맺어졌다.

1968년에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이 체스꼬슬로벤스꼬 5. 1절 기념행사에 참가하였으며 두 나라간에 문화협조에 관한 1968년도 사업계획서가 조인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은 석탄, 갈탄, 철, 망간, 흑연, 주석, 동, 우라니움 등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사탕무우, 옥수수, 호프, 아마 등이다.

인민경제 각 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총수중 약 40%가 공업부문에서 일하고있다.

기계제작공업과 금속공업은 이 나라 인민경제 특히 중공업의 중심을 이루고있다.

1967년에 전해에 비하여 일용품생산은 5.2%, 식료공업생산은 4.4% 늘었다.

1967년의 농업생산액은 1966년에 비하여 3~5% 더 많았다.

주요수출품은 기계와 설비를 비롯한 공업제품이며 공업원료와 식료품을 수입하고있다.

1966~1967학년도에 9년제 초등학교 학생수는 216만 4천명, 중등 및 전문학교 학생수는 28만 4천명, 대학생수는 13만 9천명이였다.

1966년 7월 1일부터 전체 주민들에 대한 무상예방치료제가 실시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체떼까(체스꼬슬로벤스꼬통신사), 따뜨라 쁘레쓰(슬로벤스꼬통신사)

신문 루데 쁘라보(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기관지), 쁘라쩨(직업동맹 중앙평의회기관지), 믈라다 프론따(청년동맹기관지).

잡지 노바 믜쓸(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리론잡지)

로므니아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구라파의 흑해연안에 자리잡고있다.

동구라파의 대륙성기후와 중구라파의 해양성기후가 심하게 엇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기온은 45°C로부터 령하 35°C까지 심한 변화를 일으킨다. 년평균기온은 10°C(부꾸레슈띠는 11°C), 년평균강우량은 635미리메터이다.

【면적】 23만 7,500km²

【인구】 2,000만명 (1969년 6월)

주민의 대부분은 로므니아인이며 그밖에 웽그리아인, 독일인 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로므니아어이다.

【수도】 부꾸레슈띠(주민 150만명, 1968년)

정 치 로므니아는 4세기동안이나 토이기의 지배하에 있다가 1878년 로씨야—토이기전쟁에서 토이기가 진후 토이기기반에서 벗어나 1881년에 왕국을 선포하였다.

로므니아에는 1938년에 군주독재가 수립되였다.

1940년에 로므니아는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 1944년 8월 23일 로므니아인민들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무장봉기를 일으켜 파쑈독재정권을 뒤엎고 나라를 해방하였다.

1945년 3월 6일 로므니아에는 첫 인민민주주의정부가 수립되였으며 1947년 12월 30일에는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해방후 주권을 잡은 로므니아로동계급들은 로므니아공산당의 령도밑에 토지개혁(1946년부터 1949년기간에 3단계에 걸쳐 실시됨), 산업국유화(1948년 6월 11일법령발표)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여 지주, 자본가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였다.

1965년 7월에 진행된 로므니아공산당 제9차대회에서 1966—1970년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5년 8월 21일에는 1952년의 헌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새 헌법을 채택하고 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대민족회의】 대민족회의는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이다. 상임위원회는 국가쏘베트이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쓰꾸(1967년 12월—)

【정부】 수상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1965년 8월 21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5월 8일에 창건되였다. 1948년 2월에 사회민주당과 합당하여 로동당으로 되였다. 1965년 7월 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당의 명칭을 공산당으로 고쳤다. 당원수 145만명(1965년 7월)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직업동맹, 공산청년동맹, 전국녀성리사회.

【우리 나라와의 관계】 로므니아는 1948년 11월 3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3년 10월 23일에는 경제 및 기술협정, 1956년 5월 12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8년에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의 초청으로 로므니아공산당대표단이 1월 30일부터 2월 4일기간에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9월에는 로므니아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또한 로므니아문화대표단, 인형극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정부통상대표단, 직맹대표단, 문화대표단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1968년에 두나라 정부간의 1969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두나라 과학원간의 1968—1970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실행을 위한 1968—1969년도 사업계획서가 각각 조인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은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석탄, 소금, 망간, 동, 몰리브덴, 보크사이트 등이며 주요농산물은 밀, 옥수수, 사탕무우 등이다.

산림면적은 령토의 27%에 달한다.

로므니아의 공업생산은 이 나라에서 기본생산수단이 국유화된 1948년에 비하여 13배로 장성하였다. 그중에서도 기계제작공업은 나라의 공업에서 중요한 부문으로 되였다. 1968년에 기계제작공업은 전체 공업생산의 4분의1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해방전에는 필요한 기계와 설비의 95%를 수입하던 로므니아는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을 자체로 생산하여 국내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고있다. 화학공업, 석유공업, 전기공업 등 중공업부문들도 발전하였다. 1967년에는 1948년에 비하여 3배나 더 많은 원유를 채취하였다.

1968년에 560개의 새 생산설비들과 주요대상들이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주민들의 사회문화적활동과 봉사를 위한 물질기술적기초가 확대되였다.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집단경리가 이룩된후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이 늘어나고있다.

1968년에 여러지역들에서 가물의 영향이 있었으나 농업생산은 주민들과 인민경제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1968년 가을에 전국적으로 약 9만 3천대의 뜨락또르와 기타 농기계들이 일하였다.

또한 이 해에는 그전해에 비하여 10% 더 많은 화학비료가 농촌에 공급되였다.

로므니아에서는 8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종합대학, 단과대학의 주간, 야간 및 통신학부들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수는 1968년에 약 15만명이였다.

1968—1969학년도 현재 로므니아에서는 주민 5명에 1명이 학교에 다니고있다.

1968년에 3천개의 교실을 새로 지었다.

1968년초에 로므니아에는 400여개의 현대적종합진료소, 약 600개의 병원과 실험실들이 있었다.

【출판보도】 **통신** 아제르쁘레쓰 **신문** 쓰끈떼아(로므니아공산당기관지), 로므니아 리베러(대민족회의 및 내각기관지), 문까(직맹기관지), 쓰끈떼아 띠네레뚤루이(공산청년동맹기관지), 아버라레아 빠뜨리에이(인민군기관지).

웽그리아

(웽그리아인민공화국)

구라파동쪽에 있는 내륙국이다. 이 나라 령토의 5분의 4이상이 평원과 언덕지대이다. 기후는 비교적 따뜻하고 건조한 대륙성기후이며 년평균기온은 10~11°C이다. 년 평균강우량은 600미리메터이다.

【면적】 9만 3,030km²

【인구】 1,223만 6,000명(1968년 1월 1일)

주민의 절대다수가 웽그리아인(마쟈르족)이고 기타 로므니아인, 슬로벤스꼬인, 쎄르비아인, 독일인 등이 산다.

【수도】 부다뻬슈뜨(주민 201만명, 1969년 1월)

정 치 9세기말에 아세아로부터 이동한 마쟈르족이 1001년에 웽그리아국가를 형성하였다. 그후 웽그리아는 몽골과 토이기의 침략을 받고 그 기반하에 있다가 1867년에는 오지리에 병합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지리—웽그리아제국이 패망한후 1918년에 웽그리아는 부르죠아공화국으로 되였다. 위대한 10월사회주의혁명의 영향을 받아 웽그리아로동계급은 1919년 3월에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로동계급의 정권인 쏘베트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음모책동으로 쏘베트정권은 전복되고 1919년 8월에 또다시 파쑈군사독재정권이 수립되였다.

웽그리아는 1944년에 히틀러독일에 강점당하였다가 1945년 4월 4일 히틀러파시스트기반에서 완전히 해방되였다.

1949년 8월 18일 국가회의에서 채택된 헌법에 의하여 인민공화국으로 되였다.

1956년 10월 전복된 국내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이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반혁명도발사건을 일으켰으나 웽그리아인민들은 이를 진압해버렸으며 이해 11월에 로농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국가회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이다.

현국가회의는 1967년 3월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로숀찌 빨

【로농혁명정부】 수상 포크 예네(1967년 4월—)

【정당, 사회단체】 사회로동당 1956년 11월 1일에 창건. 전신은 1948년 6월 공산당(1918년 11월 창건)과 사회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된 근로자당이다. 당원수 56만 5천명(1966년 11월)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

애국인민전선, 직업동맹, 녀성전국리사회, 공산청년동맹.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1월 11일 웽그리아는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6년 6월 20일에는 량국간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맺어졌다.

1968년 3월에 진행된 웽그리아 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는 미제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우리 나라 령해 깊이 침입시켜 악랄한 도발행동을 감행케한 것을 규탄하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8년에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5월), 군사대표단(7월), 사로청대표단(11월)이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1968년 9월 웽그리아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이밖에 웽그리아로부터 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4월), 국가회의대표단(9월), 정부통상대표단(11월), 녀성대표단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68년에 두나라 보건성간에 1968—1969년도 보건 및 의학과학부문협조계획서(3월), 1968년도 과학기술협조의정서(4월), 1969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11월) 등이 조인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은 보크사이트, 석탄, 원유, 망간, 철, 천연가스 등이며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등이다.

조림면적은 전령토의 15.6%에 달하며 이 나라에는 1억 7천만립방메터에 해당하는 나무가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후 웽그리아공업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흑색금속공업을 비롯하여 유색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등이 창설 또는 확장되였으며 처음으로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였다.

특히 풍부한 국내 자원에 기초하여 알루미니움제련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그 생산량에서 이미 영국을 앞서고있다.

1967년에 공업제품생산은 2차대전전에 비하여 6배이상에 달하였다. 1968년에 공업의 사회주의적부문은 1967년에 비하여 5%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였다. 특히 화학, 기계, 야금공업이 발전하였다.

기계제작공업은 1950년에 비하여 6.2배, 화학공업은 약 11배로 늘었다.

최근년간에 식료공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여 많은 식료공장이 확장 개건되였다.

식료공업생산은 1949년에 비하여 4배로 늘어났다.

1968년에 농업생산은 1967년보다 1～2% 장성되여 710억포린트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생산하였다. 1968년에 한헥터당 평균 약 2.5톤의 알곡을 걷어들였으며 밀은 한홀드 (0.57헥터)에서 1톤 450키로그람 생산되였다. 이해에 농업근로자들은 그전해에 비하여 3～4% 더많은 농산물을 국가에 수매하였다.

과수원과 남새밭 총면적은 약 31만헥터에 달하며 과일은 년평균 약 95만 5천톤 수확된다.

1968년에 웽그리아에는 2천 828개의 농업협동조합이 있었다.

1966—1967학년도에 중등학교 학생수는 37만 5천명, 대학생수는 8만 9천여명이였다.

1967년에 6천 890명이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엠떼이(웽그리아통신).

신문 네프싸바드 샤그(사회로동당기관지), 네프 싸바(직맹기관지), 마쟈르 넴제뜨(애국인민전선기관지).

잡지 따르샤달미 세므레(사회로동당정치리론잡지), 빠르뜨 엘레뜨(사회로동당생활잡지).

벌가리아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발칸반도의 동남부에 있으며 로므니아, 토이기, 희랍, 유고슬라비아 등과 접경하고있다.

남부는 아열대성기후이나 대부분의 지역은 대륙성기후이다.

【면적】 11만 1,030km²

【인구】 840만 1,000명(1968년말)

주민의 대부분이 남슬라브계의 벌가리아인이다.

공용어는 벌가리아어이다.

【수도】 쏘피아(약 90만명, 1968년 10월)

정 치 벌가리아는 약 5세기동안 토이기봉건왕조의 통치하에 있었다. 로씨야—토이기전쟁 (1877—1878)에서 토이기가 패배한후 벌가리아는 토이기기반에서 해방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과 벌가리아공산당의 지도밑에 국내에서는 혁명운동이 앙양되였다.

그리하여 1919년에 인민농민동맹정부가 수립되여 진보적인 개혁들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가정변에 의하여 1923년 6월 9일 벌가리아에는 파쑈독재가 수립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는 파쑈독일에 강점당하였다. 벌가리아공산당은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항쟁에 전체 애국력량을 조직동원하였으며 벌가리아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었다. 1944년 9월 9일 벌가리아인민들은 벌가리아공산당의 령도밑에 쏘베트군대의 승리적인 진격의 유리한 환경속에서 전인민적무장폭동을 일으켜 파쑈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정부를 수립하였다.

1945년 11월 인민회의선거가 진행되였으며 1946년 9월 15일 벌가리아인민공화국이 선포되였다.

해방후 벌가리아인민들은 토지개혁(1946년 3월 12일 법령발표) 산업국유화(1947년 12월 법령발표) 등 일련의 민주개혁들을 실시하였다.

1947—1948년 2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함으로써 벌가리아는 전쟁에서 입었던 피해를 기본적으로 가셨다.

1966년 11월에 진행된 벌가리아공산당 제9차대회에서는 제5차 5개년계획(1966—1970년)을 제시하였다.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인민회의는 1966년 2월 27일에 선거되였다. 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상임위원회가 인민회의 사업을 수행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게오르기 뜨라이꼬브

【정부】 수상 또도르 집꼬브 (1966년 3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03년이후 사회민주로동당으로 불리워오다가 1919년 5월 25일 공산당으로 개칭되였다. 당원 및 후보당원수 61만 179명(1966년 11월 현재)

제1비서 또도르 쥡꼬브

인민농민동맹, 조국전선, 직업동맹, 지미뜨로브공산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우리 나라와의 관계】 벌가리아는 1948년 11월 29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5년 7월 25일 두나라간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에는 무역협정이 맺어졌다.

1968년 9월 벌가리아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정부통상대표단, 직맹대표단이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1968년에 우리 나라와 벌가리아간에 1968년도 문화교류계획서, 1969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으로는 석탄, 철광석, 연, 아연, 동, 망간, 은, 금, 원유, 자연가스 등이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해바라기, 사탕무우, 담배, 포도, 과일, 남새 등이다.

벌가리아인민들은 최근년간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과거에 락후하였던 중공업의 여러 부문을 추켜세웠다. 야금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창설되였다. 이리하여 벌가리아공업은 1939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량을 10일동안에 생산하고있다.

1939년에 공업과 농업에서 생산한 제품간의 비률관계가 농업에 유리하게 22대 78이였다면 1967년에는 공업에 유리하게 76대 24로 변하였다.

많은 공업대상들이 건설되고있는데 1968년에는 15개의 공업기업소가 일을 시작하였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이 장성되고있다.

1968년에 관개면적은 총경지면적의 20.2% 이상에 달하게 되였다. 1967년말에 평균 4천헥타의 경작지를 가진 866개의 로력협동농업경리와 38만 2천 800헥타의 땅을 경작하는 225개의 국영농업경리가 있었다.

1968년에 무역총액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였다.

벌가리아는 1966년 제5차 5개년계획에 착수하였다.

1968년에 전체 벌가리아인구의 4분의1이 학생이였는데 그중 대학생수는 8만 4천명이였다. 고등교육기관은 26개였다.

1968년에 의료일군수는 9만여명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벌가리아통신

신문 라보뜨니체쓰꼬 젤로(벌가리아공산당기관지), 오쩨체스트벤 프론트(인민회의 및 조국전선기관지), 뜨루드(직맹기관지), 나로드나믈라제쥬(공청기관지), 나로드나아르미아(인민군기관지)

잡지 노보 브레메(벌가리아공산당리론잡지).

알바니아

(알바니아인민공화국)

알바니아는 발칸반도의 서쪽 아드리아해에 면하고있으며 유고슬라비아, 희랍과 접경하고 있다.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이다.

늦가을부터 이른봄까지 비가 많이 오며 여름은 무덥다. 여름의 평균기온은 25~26°C이고 1월의 평균기온은 6°C~8°C이다.

구라파에서 강수량이 제일 많은 나라들에 속한다.

【면적】 2만 8,748km²

【인구】 200만명(1968년)

주민의 대부분은 알바니아인이며 그밖에 희랍인, 토이기인, 벌가리아인 등이 산다.

【수도】 티라나(주민 17만명, 1968년)

정치 알바니아는 15세기부터 5세기동안 토이기의 지배하에 있다가 1912년 11월 28일에 독립하였다. 1927년에 알바니아는 이딸리아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1939년 4월에는 이딸리아에 완전히 강점 당하였다. 1943년 7월 파쑈이딸리아가 2차대전에서 패망하자 1943년 9월 히틀러독일에 강점당하였다. 공산당의 령도밑에 이딸리아 및 독일파시스트 강점자들과 국내반역자들을 반대하여 전개한 알바니아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1944년 11월 27일 알바니아는 히틀러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되였으며 1946년 1월 11일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6년 4월 14일에 헌법을 채택하였다. 해방후 알바니아는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고 1949—1950년의 2개년계획을 거쳐 1951년부터는 5개년계획수행에 착수하였다.

1966년 11월에 진행된 알바니아로동당 제5차대회에서는 제4차 5개년계획(1966년—1970년)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이다. 인민회의 휴회기간에는 상임위원회가 최고주권기관으로 된다. 현인민회의는 제6기로서 1966년 9월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하지 레쉬(1966년 9월에 재선)

【정부】 수상 메흐메트 쉐후(1966년 9월 재선)

【정당, 사회단체】 알바니아로동당 1941년 11월 8일 공산당으로 창건되였다가 1948년 11월 제1차당대회에서 로동당으로 고침. 당원수 6만 6천 327명(1966년 11월).

제1비서 엔베르 호쟈

직업동맹, 로동청년동맹, 녀성동맹, 민주주의전선.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5월 17일에 우리 나라와 알바니아간에 외교관계가 맺어졌다. 1955년에 두 나라간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 7월 1일에

는 기술 및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맺어졌다.

1968년 12월 11일에 티라나에서 우리 나라정부통상대표단과 알바니아인민공화국정부통상대표단간에 1969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경제, 사회 지하자원으로는 피치, 석유, 크롬광, 동, 석탄, 천연가스, 철, 니켈 등이 있다.

1968년 공업생산계획은 102.7%로 수행되였다.

주요농산물은 밀, 옥수수, 목화, 올리브, 포도, 귤, 담배 등이다. 1968년에 파종면적은 1967년에 비하여 7.5% 늘어났다. 알곡수확도 1967년에 비하여 장성하였다. 축산업은 농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주요집짐승은 양과 염소이다.

주요수출품은 농산물, 원유, 피치, 철, 니켈광 기타 공업제품이다. 알바니아는 1966년부터 제4차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아따아(알바니아통신사)

신문 제리 이 포풀리트(로동당기관지), 바슈키미(민주주의전선기관지), 뿌나(직맹기관지), 제리 이 리니스(로동청년동맹기관지).

잡지 루가 에 빠르띠써(알바니아로동당기관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독일은 구라파의 중앙에 자리잡고있으며 북쪽은 발찍해에 면해있다. 전반적으로 대륙성기후이나 바다를 끼고있어 해양성기후의 영향도 받는다. 년평균기온은 약 7°C, 년평균강수량은 600~700미리메터이다.

【면적】 10만 8,174km²

【인구】 1,709만 5,925명(1967년 8월말)

주민의 대부분은 게르만족이며 공용어는 독일어이다.

【수도】 베를린(주민 107만 7,000명, 서부베를린 제외)

정치 1871년에 독일제국이 창건되였다. 독일은 1914년에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제1차세계대전을 도발하였다가 패망하였다. 제1차 대전후 독일군국주의자들의 파쑈적탄압이 강화되였으나 독일로동계급의 혁명적진출은 더욱 강화되였다.

1918년 가을에 이르러 독일에서는 11월혁명이 폭발하였다. 11월초 칼 항구에 집결되여있던 독일함대해병들의 폭동을 비롯하여 함부르그, 라이프치히 및 기타 많은 도시들에서 대중적폭동이 련이어 일어났으며 11월 9일에는 반동적군주제도가 전복되고 로동자병사대의원쏘베트가 창실되였다.

그러나 당시 독일로동계급은 혁명적당을 가지지 못한데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지 못하였으며 11월혁명을 사회주의혁명으로까지 발전시키지못하였다.

11월혁명이 실패한 후 독일로동계급은 1918년 12월 30일 자기의 전위대인 공산당을 창건하였다.

1933년에 집권한 히틀러는 파쑈독재를 수립하고 1936—1937년에 일본, 이딸리아와 《반공협정》을 맺고 1939년에 제2차대전을 도발하였다. 1941년 6월 쏘련에 대한 불의의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쏘련군대의 결정적반격에 의하여 1945년 5월 9일 히틀러독일은 패망하였다.

전후 독일은 쏘, 미, 영, 프랑스 등 4개국에 점령되였으며 독일의 최고주권은 4개국대표로 구성된 대독관리리사회에 속하게 되였다.

1945년포츠담협정은 독일에서 파쑈분자들과 군국주의자들을 청산하고 독일을 민주화하며 경제적 및 정치적 통일을 보장하며 강화조약을 체결할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미, 영,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포츠담협정을 뒤엎고 1949년 9월 서독에서 단독국가를 조작하고 재군국화하였다.

민주독일인민들은 독일사회통일당의 령도밑에 나라의 동부에서 파시즘의 잔재를 숙청하고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독일분렬책동과 서독재군국화를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1949년 5월 30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10월 7일에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1946—1949년간에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으며 1949년부터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에 착수하였다. 1968년 4월 6일 새 사회주의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투표가 진행되였다.

1968년 4월 9일부터 1949년 헌법이 폐지되고 새헌법이 효력을 발생하였다.

【인민의원】 최고주권기관이다. 1967년 7월 2일에 선거되였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발테르 울브리히트

【정부】 수상 윌리 슈토프(1967년 7월—)

【정당, 사회단체】 **독일사회통일당** 1946년 4월 21일 민주독일에서 독일공산당(1918년 12월 30일 창건)과 독일사회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 당원수 176만 9천 912명(1966년)

제1비서 발테르 울브리히트

민주농민당, 기독교민주동맹, 민족민주당, 민주주의독일민족전선, 자유독일직업총동맹, 자유독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주요사건】 1968년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정부는 서부베를린을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사회주의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활동의 전초기지로, 《반공》전선의 중심지로 리용하고있는 미제와 서독군국주의자들에 대한 일련의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3월 11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서독과 서부베를린에서 사는 신나치즘적이며 반동적인 서독국가민주당 당원이거나 또는 신나치즘활동에 가담하고있는 반동분자들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들어오거나 령토를 지나가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4월 13일에는 서독군국주의두목들이 동부독일을 거쳐서 서부베를린에 기여드

는것을 금지시켰다.

6월 인민의원회의에서는 서독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더욱 격화되는 정세에 대처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령토를 거쳐 서부독일과 서부베를린에로 래왕하는 려행자들에게 의무적인 사증제도를 실시하며, 서독의 반동적인 출판물들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 들어오는것을 금지하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도로들과 수로들을 리용하는 서부독일 및 서부베를린 상사들에 도로 및 수로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1월 3일 정부는 서독군국주의자들이 서부베를린에서 반동적인 기독교민주동맹의 이른바 당대회라는것을 하려고 책동하고있는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11월 7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5년 1월 27일 두 나라간에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 6월 12일에는 경제 및 문화협정이 맺어졌다.

1968년에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 정부통상대표단, 군사대표단, 직맹대표단, 친선문화대표단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였다. 1968년 9월 독일정부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돐 기념행사에 참가하였으며 독일사회통일당 및 정부대표단, 정부통상대표단, 문화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1968년에 두 나라간에는 경제기술협조와 관련되는 협정(11월) 장기지불에 관한 협정, 1969년 상품류통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968년 9월 6일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독일민주주의공화국내각 및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전국리사회의 공동주최로 베를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돐 기념집회가 진행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으로 갈탄, 카리염, 우라니움 등이 있으며 유리와 도자기 원료 등이 많다.

주요농산물은 밀, 감자, 사탕무우, 유지작물 등이다.

주요공업부문은 화학, 기계, 광학정밀기계, 금속가공, 섬유, 도자기, 유리, 식료품, 팔프공업이다.

1968년에 국민소득은 5.3%, 공업총생산액은 6%, 로동생산능률은 7% 늘었다.

화학공업부문생산은 최근 10년동안에 2배로 늘었으며 1968년에 그것은 공업총생산액의 17%를 차지하였다.

최근년간 이 나라에서는 슈웨쩬원유가공종합공장을 비롯한 일련의 화학공업기업소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이 나라의 화학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석유화학공업은 1958년에 비하여 6배에 달하는 원유를 가공하여 3배나 더 많은 합성수지와 합성섬유를 생산하고있다.

선박건조부문에서는 1968년 생산계획을 101%로 완수하였다.

1968년 10개월 동안에 총 배수량이 약 24만톤에 달하는 100여척의 배를 만들었다.

농업 및 림업의 총생산량은 1967년에 227억 8천 300만마르크에 달하였다.

1968년에 이 나라에서 알곡은 평균 1헥타에서 3.18톤씩 거두어들였으며 축산물생산은 거의 5% 장성하였다.

1968년에 13만대의 뜨락또르와 약 1만 8천대의 콤바인이 일하였다. 농촌에서는 1960년보다 4배나 더 많은 농업기사, 축산전문가, 농기계기술자들이 일하고있었다.

1966~1967년기간에 각종 농업학교 및 고등교육기관들에서 9만명의 농업전문가들이 양성되였다.

1968년에 수출계획은 1967년에 비하여 9% 장성하였으며 선박수출은 약 30% 증가되였다. 수출에서 경공업이 5분의 1을 차지한다.

1967년에 대학생수는 약 11만 5천명이였으며 의사수는 2만 1천 365명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아데엔

신문 노이에스 도이취란트(사회통일당기관지), 쓰찌알리스티쎄 데모크라티(국가쏘베트 및 내각기관지), 트리뷰네(자유독일직업총동맹기관지)

잡지 아인하이트(사회통일당리론잡지), 노이에르 웨고(사회통일당생활잡지).

서부독일

【면적】 24만 8,000km²

【인구】 5,600만명(1965년초)

주민의 대부분은 게르만족이다. 공용어는 독일어이다.

【행정중심지】 본(주민 14만 3,500명, 1962년)

정치

1949년 9월 미, 영, 프랑스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서독에 단독국가가 조작되였다.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일본과 서부독일에서는 인류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군국주의세력이 빨리 되살아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는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자라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69페지).

전후 미제는 서부독일을 사회주의나라들과 기타 평화애호국가들을 공격하기 위한 《돌격대》로 내몰기 위하여 포츠담협정을 비롯한 국제협약들을 란폭하게 짓밟고 서부독일을 급속히 재생재무장시켰으며 그의 복수주의적야망을 적극 부추겼다.

미제는 서독군국주의의 재무장을 위하여 1945—1966년간에만도 약 50억딸라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주었으며 서독침략군의 핵무장화를 위하여 원자기자재들과 원자원료 등을 넘겨주었다. 미제는 서독을 제놈들의 침략기지로 리용하기 위하여 26개의 각종 군사기지를 서독땅에 설치하였으며

25만명에 달하는 침략군을 강점시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제의 비호하에 서독에서는 2차대전이전 히틀러의 파쑈악법들이 하나하나 복귀되고 파쑈단체들이 득세하였으며 히틀러의 졸개인 파시스트잔당들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을 장악하게 되였다.

1956년 1월에 이른바 《훈련부대》라는 간판밑에 6천명으로 조작되였던 침략적인 서독 《련방군》은 과거의 나치스군대두목들이 골간으로 되여 근 50만명으로 증강되였다. 이리하여 제2차 대전에서 패망한 독일군국주의는 급속히 되살아났으며 구라파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자라났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하에 되살아난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돌격대》로 나서서 저들의 복수주의적팽창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이에 있어서 서독군국주의자들은 서부베를린을 서독에 통합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활동의 전초기지로, 《반공》선전의 중심지로 리용하고있다.

놈들은 서부베를린에 80개이상의 정탐파괴기관의 지부들을 조작하고 그를 발판으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간첩, 파괴, 암해활동을 일삼고있으며 악명높은 반동적인 《리야드》를 비롯한 방송국들을 통하여 사회주의국가들을 중상모독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하고있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사회주의나라를 침략하려는 로골적인 침략책동을 감행하면서 오데르—나이쎄국경선을 비롯한 구라파의 현국경선의 변경을 떠들며 히틀러도당이 탈취(1939년)하였던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서부지역을 제놈들에게 넘겨줄데 대한 강도적요구를 들고나오면서 사회주의나라 령토를 빼앗으려는 야욕을 공개적으로 들어내놓고있다. 또한 놈들은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하여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고 간첩, 암해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충실한 주구인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원조》를 주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박정희도당의 살인만행의 직접적인 공범자로 되고있다.

놈들은 1967년에 박정희괴뢰도당으로 하여금 서부독일과 서부베를린에 살고있는 조선사람들을 비법적으로 랍치하여 살인재판에 넘기게 하였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세계전략에 적극 복무하면서 일본군국주의와 손을 맞잡고 아세아, 아프리카나라들에 침투하여 이 나라들에 대한 팽창을 강화하려고 날뛰고있다.

놈들은 《원조》를 미끼로 이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아랍인민들의 철천지원쑤인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에게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비용을 대주며 살인무기연구에 종사하는 《특수전문가》 놈들까지 보내고있다.

또한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 및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윁남침략전쟁의 적극적인 공모자로서 남부윁남의 침략적병참기지건설에 동원되고있으며 침략적인 군사인원과 살륙무기를 미제에게 제공하고있다.

【국회】 련방참의원(상원)과 련방의회(하원)로 구성.

【대통령】 하인리히 류브케

【정부】 수상 쿠르트 게오르그 키징게르(1966년 12월—)

【정당, 사회단체】 독일공산당 1918년에 창건.

제1비서 맑스 라이만. 기독교민주동맹(집권당), 기독교사회동맹, 사회민주당(집권당), 자유민주당, 전독일당, 국가민주당, 독일평화동맹, 독일로동총동맹.

【주요사건】 1968년에 서독군국주의자들은 세계도처에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편승하여 나라를 더욱더 군국화하고 모든것을 전시체제로 이행시키면서 복수주의적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뛰였다.

키징게르도당은 소위 《련방군》을 증강하면서 《제2의 군대》라고 불리우는 《후방방위군》을《45만으로 늘이려고 획책하면서 《후방방위군》 훈련소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다. 1968년에는 직접적군사비만도 1967년보다 50억마르크 더많은 250억마르크나 처넣었으며 그밖에 핵무장화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쓸어넣었다.

1968년 6월 키징게르도당은 인민탄압을 강화하고 파쑈화정책과 해외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꾸며낸 침략적이며 파쑈적악법인 《비상법》을 《상원》에서 강압통과시켰다.

키징게르도당은 악명높은 《비상법》에 해외침략을 감행하며 국내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임의의 시각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18세이상의 남자들을 《민간방위조직》에 강제편입시켜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인민들의 재산을 강제징발할것을 공공연하게 반영하였다. 놈들은 이러한 극악무도한 악법을 꾸미냄으로써 미제의 사촉밑에 서독의 인적 및 물적자원을 모조리 동원하여 임의의 시각에 침략전쟁을 감행할수있게 전쟁준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키징게르도당은 6월 독일민주주의령토내에 있는 서부베를린에서 제놈들의 《국회》를 열었으며 10월 27일부터 11월 2일에는 서부베를린에서 《각료회의》를 비롯한 군국주의자들의 각종 모임을 벌리고 침략적인 음모를 꾸미는 도발행동을 감행하였으며 새 파쑈정당인 국가민주당은 서부베를린을 발판으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도발소동을 벌리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1968년에 서독인민들은 나라의 파쑈화와 해외팽창에 날뛰고있는

서독군국주의자들과 그 상전인 미제를 반대하여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8년 4월 11일 키징게르도당이 서독의 파쑈화를 반대하여 싸우는 한 학생단체의 지도자를 암살하려고 한것이 직접적동기로 되여 폭발한 학생들의 시위는 서독의 500여개도시들과 서부베를린을 휩쓸어 며칠간 계속되였다.

시위에 떨쳐나선 학생들과 인민들은 키징게르도당의 파쑈적탄압을 반대하고 윁남인민의 투쟁과 미국흑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구호를 웨치면서 서독의 반동적인 기관들과 미제령사관, 미제침략군의 본부를 습격하여 미제의 더러운 기발을 찢어버리고 경관들과 맞서 격전을 벌렸다.

5월 29일 전국각지에서 학생들은 키징게르도당이 꾸며낸 파쑈악법인 《비상법》을 반대하여 대규모적인 항의시위를 벌렸고 대학과 공공건물들을 점령하고 경찰과 맞받아 싸우는 등 삽시간에 서부독일을 혼잡상태에 몰아넣었다.

프랑크 푸르트에서는 4월 27일부터 며칠간 대학생들이 대학을 점거하고 경찰들과 완강히 싸웠다. 이 도시의 로동자들은 모임을 열고 키징게르도당의 반인민적인 파쑈책동을 항의규탄하였다. 5월 30일 하이델 베르그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주변에 바리케트를 쌓고 달려드는 경찰놈들과 완강히 싸웠다. 이날 본에서는 광범한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군국주의두목놈들이 모의를 벌리고있는 건물을 둘러싸고 시위투쟁을 벌림으로써 놈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비상법》에 항의하여 서독청년들속에서는 강제징집을 거부하는 수가 계속 늘어났다. 6월초현재 징집기피자수는 1965년 1년간의 징집기피자수의 3배이상에 달하였다.

서독련방군내에서도 군국주의부활에 항거하여 도망치는 병사들의 수는 1968년 상반년만하여도 1천 300여명에 달하였다.

7월 30일에 니제르랑슈타임에서는 군대복무를 거부하는 병사들의 시위가 있었다.

12월 5일 본의 청년학생들은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파쑈도당의 살인재판놀음에 항의하여 남조선괴뢰 《대사관》과 수상놈의 집앞으로 밀려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였다. 이러한 시위투쟁은 하이델베르그를 비롯한 서독의 여러도시들에서도 광범히 전개되였다.

경제,사회 키징게르도당은 서독재무장을 위하여 해마다 막대한 자금을 국방비에 밀어넣으면서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고있다. 특히 핵무기에 대한 야망을 로골적으로 들어내놓으면서 원자공업에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있는데 1966—1967년 기간에만도 이 부문에 대한 투자는 250억마르크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서독에서 약 300개에 달하는 군수기업체들이 원자공업에 종사하고있다.

미제는 서독경제의 기초인 서독독점자본을 장악하고 그 군사적잠재력을 백방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서독경제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고있다.

1968년현재 서독에는 2천여개의 크고 작은 미제상사들이 침투하고있으며 80%에 달하는 서독상사들을 통제하고있다. 특히 미제는 서독의 전자공업, 전기공업, 화학공업 및 자동차공업부문에 대한 침투를 강화함으로써 서독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그것을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에 리용하고있다. 서독경제에 대한 미제의 독점자본의 침투와 키징게르도당의 반동적경제정책으로 군수공업부문에서 자본의 집중화과정이 촉진되고있으며 중소규모기업은 계속 파산되고있다.

이리하여 서독에서 공업생산이 침체되고있다.

1968년까지의 약 10년간에 석탄공업부문에서만도 대규모탄광 76개와 중소규모탄광 160개가 문을 닫았으며 이 기간에 코크스공장 29개, 련탄공장 14개가 문을 닫았다. 이리하여 석탄생산량은 해마다 줄어들었다.

군사비증가로 1967년 국가부채는 전해보다 80억마르크 늘어나 485억마르크에 달하였다. 1967년에 실업자는 67만 3천명에 달하였으며 1949—1967년간에 60만호의 중소농가가 파산되였으며 210만명이 도시로 나왔다. 1968년까지 약 20년동안에 마르크의 가치는 25% 떨어졌으며 생계비는 36% 올랐다.

서독에서는 수십만명이 집이 없어 전염병에 만연되고있는 《집단정착지》에서 살고있다.

이러한 《집단정착지》는 함부르그만 하여도 23개에 달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데페아

신문 프라이에스 폴크(독일공산당기관지), 디 와르하이트, 디 벨트, 프랑크푸르테르 알게마이네 짜이퉁, 데르 쿠리에르.

오 지 리

(오지리공화국)

구라파대륙의 중앙에 자리잡은 내륙국이다. 남부 지방의 기후는 내륙성기후에 가까우며 북부산악지대의 년평균기온은 7～8°C이다.

【면적】 8만 3,849km²

【인구】 721만 5,000명(1965년 10월)

대부분이 독일인이고 그외 슬라브인, 마쟐인, 이딸리아인이 있다. 공용어는 독일어이다.

【수도】 윈(주민 165만 6,100명)

정 치 1867년에 형성된 오로만제국이 제1차 대전에서 패배하여 무너지고 1918년에 오지리공화국으로 되였다. 1919년 《윈조약》으로 국경선이 확정되였다. 1939년 3월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에 해방되여 쏘,미, 영, 프랑스 4개국의 공동관리하에 있었다.

1955년 5월 15일 대오국가조약이 조인되였고 같은해 10월 국회는 오지리의 《영구중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오지리반동지배층은 이에 배치되게 1956년에 미

제와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을 맺었으며 같은해 4월에는 침략적인 나토와 련결된 《구라파리사회》에 가담하였다.

1960년 11월 오지리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오지리에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여있다.

【국회】 련방의회(상원)와 국민의회(하원)의 량원제이다.

【대통령】 프란쯔 요나스 (1965년 5월 23일—)

【정부】 수상 요세프 클라우스 (1966년 4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에 창건. 위원장 프란쯔 뮤리. 인민당(집권당), 사회당, 자유당, 로조련맹.

경제, 사회 주요경제부문은 광공업이다. 공업에서는 흑색금속, 기계제작 및 화학공업, 원유채취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오지리의 전기 및 화학공업 등의 압도적부문은 외국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농촌경리에서는 축산업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쌀보리,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못한다. 주요수출품은 선철, 기계, 목재, 종이 등이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에이 신문 외스테르라이히쉐 폴크스슈팀메(공산당기관지), 원 짜이퉁(정부기관지).

핀란드

(핀란드공화국)

북구라파의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동쪽(북위60도의 북극권이북)에 있다. 호수가 6만개나 있으며 령토의 70%이상은 산림이다.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린다. 높은 위도상에 있지만 기후는 비교적 따뜻하다.

【면적】 33만 7,009km²

【인구】 469만 6,000명(1968년말)

주민은 핀족(약 90%), 스웨리예족 등이다. 공용어는 핀란드어이다.

【수도】 헬싱키 (주민 49만 6,000명, 1965년)

정치 사회주의 10월혁명의 결과 핀란드는 1917년 12월제정로씨야의 예속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는 히틀러독일의 쏘련침략에 가담하였다가 패전하였다.

1947년 2월에 쏘련과 강화조약을 맺었다. 1966년이후 핀란드에서는 《좌익—중간인민전선련립정부》(공산당원들도 참가)가 집권하고있다.

1964년 7월 우리 나라와 무역대표부를 교환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핀란드는 유엔에서 《조선문제》 토의시 미제의 《결의안》에 계속 기권하는 립장을 취하였다.

1968년 9월 핀란드조선친선협회대표, 핀란드민주녀성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의회】 1원제

【대통령】 우르호 케코넨(1968년 2월 재선)

【정부】 수상 라파엘 파시오 (1968년 2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9월에 창건. 위원장 아아르네 사아리엔. 인민민주주의동맹, 중앙당,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련맹, 핀란드인민당, 민족련합당, 로조총련합, 민주청년동맹, 핀란드조선친선협회.

경제, 사회 목재 및 제지공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목재가공공업은 공업총생산량의 3분의1, 국민소득의 70%, 수출의 85%이상을 차지한다. 농촌경리에서는 축산업이 위주로 되고있으며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주요수출품은 목재가공제품, 팔프, 선박 등이다. 화페단위는 마르까이다.

【출판보도】 통신 수오멘 티에로로이 미스로(에스티티)

신문 칸산 우티세트 (공산당기관지), 수오멘 소씨알리 데모크라티(사회민주당기관지).

프랑스

(프랑스공화국)

프랑스는 구라파주의 서부에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대체로 따뜻한 해양성기후이나 산악지방에서는 추위와 더위의 차이가 심하다. 남부 지중해연안은 아열대성기후이다. 여름평균기온은 16~17°C이며 겨울평균기온은 2~8°C이다.

【면적】 55만 1,208km²

【인구】 5,000만명(1967년 1월)

주민의 대부분이 켈드족과 프랑크 부르군드족으로 구성된 프랑스인이다. 국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빠리(주민 850만명)

정치 프랑스는 9세기말에 형성되였으며 14세기에 통일된 민족국가로 되였다. 1789년 부르죠아혁명에 의하여 군주제도가 철폐되고 1791년에 제1공화국이 수립되였다.

1804년에 나폴레옹제국이 수립되였으며 1814년에는 부르봉왕조가 부활되였다. 1848년 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수립되였다. 1852년이후 루이 보나빠르트 나폴레옹의 제2제정을 걸쳐 1870년에 《제3공화국》이 수립되였다.

1871년 3월 18일 빠리로동계급은 력사상 최초의 프로레타리아혁명으로서 자본가계급의 정권을 뒤엎고 새로운 로동계급의 정권인 빠리콤문을 선포하였다. 빠리콤문은 인민에 대한 탄압과 략탈을 일삼던 부르죠아지들의 상비군을 페지할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고 낡은 경찰기구를 마사버렸으며 부르죠아의회제국가기구를 철페하고 그것을 새로운 형태의 정치조직으로 바꾸었다. 빠리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혁명적전취물인 콤문을 원쑤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으나 콤문은 자체의 불철저성과 반혁명의 발악적인 무장공격으로 말미암아 72일간 존재하고 실패하였다.

《제3공화국》은 제2차대전시 페당정부가 히틀러독일에 항복함으로써 끝장났다.

1944년 8월 빠리가 해방되고 1946년 12월 새 헌법이 효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제4공화국》이 시작되였다.

2차대전후 프랑스반동지배층은 미제의 이른바 《마샬안》을 접수하고 침략적군사쁠럭들인 나토와 세아토에 가담하였다. 1950년에는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다. 1954년에 서독군국주의를 부활시키기 위한 《빠리협정》을 체결하였다. 1957년에는 서독군국주의자들과 함께 구라파에서 미영제국주의세력을 구축하고 자기들의 령도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배타적인 구라파 《공동시장》을 조작하였다.

1958년 5월 가장 반동적인 세력과 군대상층의 반란으로 《제4공화국》이 전복되였다. 6월 1일 드 골이 수상으로 되였고 10월 5일 새 헌법이 공포되였으며 그해 12월 21일 선거에서 드 골이 《제5공화국》의 첫 대통령으로 되였다.

1958년 헌법에 따라 《제4공화국》의 《프랑스련합》을 《프랑스공동체》로 개조하였다.

드 골이 집권한 이래 프랑스는 서구라파지역에서 미제의 세력을 배제하고 서구라파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려는 목적밑에 프랑스를 중심으로하는 《구라파인에 의한 구라파건설》을 제창하여 나섰다.

프랑스는 이러한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1967년에 미제의 침략적군사기구인 나토의 군사통합사령부에서 자기군대를 철수하였으며 프랑스땅에 있던 《나토군최고사령부》, 《중구라파군사령부》, 《서구라파주둔 미군사령부》와 기타 나토산하기구들을 철수시켰다.

경제문제들에서도 프랑스는 자본주의국제통화문제, 영국의 《구라파공동시장》 가입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제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섰다.

【국회】 국민의회(하원)와 참의원(상원)의 량원제이다.

【대통령】 퐁피두(1969년 6월-)

【정부】 수상 샤방 델마(1969년 6월—).

【정당,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2월에 창건. 총비서 왈데크 로쉐. **《제5공화국옹호민주주의자동맹》**(집권당), **민주주의및사회주의좌익련맹**(사회당, 급진사회당, 통일사회당 등의 련합)

【주요사건】 1968년에 프랑스에서는 반동정부의 반인민적정책과 독점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특히 5—6월에 걸쳐 프랑스로동자들과 근로자들은 전국적인 대규모의 총파업을 일으켜 반동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5월 13일 《르노》 자동차공장로동자들과 《뉴드 아비아숑》 비행기공장 로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로동자들의 파업은 급속히 퍼져가 전국을 휩쓸었다. 파업자들은 야금, 섬유, 자동차, 화학, 조선공업 등 기간적인 400여개 공장들과 교통운수기관, 발전소들을 점령하였으며 여기에 합류하여 과학기관, 은행 등의 종업원들과 정부기관의 종업원들까지 일손을 놓았다. 파업자들은 임금인상을 비롯한 경제적요구들과 함께 일련의 민주주의적요구들을 제기하였으며 반동당국의 반동적시책을 반대하여 나섰다.

로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하여 농민들도 전국적인 투쟁에 들어갔으며 파업로동자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면서 반동당국의 반인민적농업정책에 항의하였다. 로동자들과 근로자들의 대규모의 파업에 당황한 프랑스반동정부는 5월 19일 《내각긴급회의》를 열고 수많은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하는 등 《비상조치》들을 취하였으나 파업은 더욱 확대되여 빠리를 비롯한 여러 도시거리들과 공장들에서는 바리케트를 쌓고 군경놈들의 진압책동에 맞서나섰다.

1천만이상의 근로자들이 참가한 이러한 대중적인 파업은 단순한 경제적인 범위를 벗어나 《드골은 사임하라!》, 《경찰국가를 타도하라!》는 구호밑에 직접 드골반동정부를 반대하는 정치적성격을 강하게 띤 투쟁으로 급속히 발전함으로써 프랑스제국주의에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조성하였다.

로동자들의 전국적파업으로 거의 모든 기업체와 교통수단을 비롯하여 사회경제기관과 정부기구가 마비되였다. 프랑스반동정부가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해도 1개월여의 총파업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국민생산액은 6% 줄었으며 독점자본가놈들은 30억딸라의 손실을 보았다.

근로자들의 투쟁과 함께 5월에는 빠리를 비롯한 전국 각지 청년학생들은 프랑스반동정부의 반인민적교육정책을 반대하여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규탄하여 프랑스력사상 최대의 시위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함으로써 반동정부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프랑스는 1967년 4월 12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표부가 빠리에 개설되였다.

1968년 5월 프랑스공산당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9월에는 프랑스로동총련맹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경제,사회

프랑스에서의 재정경제형편은 최근년간 이 나라 경제에서의 침체, 국제수지의 악화, 정부지출의 지나친 팽창 등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고있다.

프랑스반동정부는 서구라파에서 자기의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야심밑에 군비경쟁, 특히 핵무기와 전략무기개발을 미친듯이 다그치면서 군사비지출을 세입능력이상으로 해마다 증가시켰다. 1968년 프랑스의 직접적군사비지출만도 전해에 비하여 10.7% 더 늘어났다. 여기에 1968년 5～6월에 있은 근로자들의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말미암아 산생된 경제

적손실은 그렇지않아도 악화된 프랑스의 재정경제형편을 가일층 악화시켰다. 이리하여 프랑스에서는 《프랑위기》가 조성되게 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때 자본주의 금융계에서 상대적인 안정을 보인듯하던 프랑은 그 지위가 여지없이 뒤흔들리게 되였다.

1968년 1년동안에 프랑스에서는 그 전해에 비해 5억 9천 600만프랑이나 더 많은 56억 4천 900만프랑의 무역수지적자가 났다. 11월 한달동안에만도 프랑스의 금 및 외화예비는 13억 8천 200만프랑이나 줄었다. 이미 프랑스반동정부는 프랑화의 신용을 뒤받침할 목적으로 저들이 소유하고있는 준비금중에서 그 절반을 써버렸는데 이러한 사정은 프랑의 지위를 더욱더 위태롭게하는 결과를 빚어내였다.

이러한 사태에 바빠맞은 드골반동정부는 1968년 11월 24일 물가인상, 긴축조치,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긴급차관의 도입 등을 기본골자로하는 이른바 《프랑방위책》을 황급히 꾸며냈으나 이것은 프랑스에서의 재정금융활동을 더욱더 억제하고 제국주의나라들간의 경제적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도리여 프랑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빚어냈다.

프랑스반동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인민수탈에 더욱 매달렸다.

1968년 프랑스에서 전반적인 물가가 5%나 올라갔는데 특히 1967년 10월부터 1968년 10월까지의 1년간에는 8.2%나 뛰여올랐다.

경제의 침체와 기업의 조업단축 등으로하여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1968년에 불완전취업자수는 36.2%나 늘어났으며 실업자는 55만명이상에 달하였다. 로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부단히 저하되고있으며 반동당국의 반인민적농업정책에 의하여 중소농민들이 대량적으로 파산몰락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에프피
신문 유마니떼(공산당기관지), 뽀쀨레르 드 빠리(사회당기관지), 꽁바(드골계), 쥬르날 오피시엘(정부공식기관지), 몽드.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발칸반도의 북서부에 있으며 아드리아해에 면해있다. 아드리아해연안은 지중해성기후이며 내륙지대는 대륙성기후이다.

【면적】 25만 5,804km²

【인구】 2,025만 7,000명(1968년말)

주민은 주로 남슬라브민족들이며 언어는 세르비아어, 크로아찌아어 등 남슬라브어가 공용어로 되여었다.

【수도】 베오그라드(주민 99만 2,000명, 1966년초)

정치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유고슬라비아의 찌또집단은 맑스-레닌주의를 배반하고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으로부터 떨어져나갔으며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을 반대하고있으며 국제혁명운동을 파괴하는 활동을 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36—337페지).

유고슬라비아는 1945년 5월 히틀러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되고 이해 11월에 련방인민공화국으로 선포되였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의 찌또집단은 맑스-레닌주의를 배반하고 사회주의진영국가들을 비방 중상하는 길로, 제국주의자들과 공모하는 길로 나감으로써 저들의 수정주의적본성을 드러내놓았으며 국제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주구로 전락되였다.

찌또도당은 미제의 별동대로서 국내적으로는 《특수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대외적으로는 소위 《적극적인 공존》과 《블럭불가담》이라는 간판밑에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내부로부터 와해분렬시키기위한 파괴공작을 감행하고있다.

찌또도당은 저들의 수정주의로선을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강령으로 성문화하였으며 이것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성문화한 이른바 헌법이란 것을 조작하였다.

1950년 9월 6일 당시 외상직에 있던 까르젤리란놈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며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를 변호하는 《성명》까지 발표하였다.

찌또도당은 1951년에 미제와 《호상방위조약》을, 1952년에는 《경제협조협정》을 맺었으며 1954년 8월에는 미제의 사촉하에 희랍, 토이기와 함께 침략적인 나토와 쎈토를 련결하여 아세아와 구라파 사회주의나라들을 포위하기 위한 침략적인 군사동맹인 《발칸동맹》을 조작하였다.

뿐만아니라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을 공공연히 반대하였다.

찌또도당은 유엔을 미제의 철저한 침략도구로 만들기위하여 책동하고있으며 미제의 웰남침략과 아랍나라들에 대한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시켜주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1945년 11월—)

【련방인민의회(쓰꿉쉬나)】 5개의 의원 (련방경제, 교육문화, 보건, 사회복리, 행정정치)으로 구성.

【련방집행위원회(정부)】 수상 슈펠라크(1967년 5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동맹》 1919년 4월에 창건된 공산당을 1952년 11월에 현재이름으로 바꿈. 위원장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사회주의근로인민동맹, 직업동맹, 인민청년동맹.**

경제, 사회 찌또도당은 전인민적소유는 《간접적공유제》라느니 《사회주의와 국가적소유는 두개의 량립될수없는 개념》이라느니 하면서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거부하며 경제에 대한 국가적통제를 철폐하고 소위《자본분권화》를 실시하고있다. 《로동자치제》

의 미명하에 기업소들이 생산활동의 조직으로부터 생산량과 품종, 가격의 결정, 리윤의 분배, 기업의 분리와 통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것을 결정하도록 되여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리윤추구가 경제활동의 최고법칙으로 되고있다. 따라서 경제에서의 자유경쟁파 자본주의적 및 투기적 요소들의 장성, 물가등귀와 실업의 장성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착취에 기초한 개인기업이 허용되고있다.

1966년 4월현재 베오그라드에서만도 5천 여개의 개인작업장들이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그것이 근 16만개에 달하였다. 기업소들간의 자유경쟁으로 기업소들의 파산이 늘어나며 물가가 올라가고있다.

농촌에서는 《농촌로력협동조합》들이 해산되고 토지의 매매, 소작제, 고용로동의 사용이 허용됨으로써 농촌경리는 자본주의화되였다.

대외무역에서도 국가통제를 철폐하고 무역의 《자유화》를 실시하고있다.

1968년 2월에 실업자는 34만명이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난 실업자수는 약 30만명에 달하였다. 《미국식생활양식》의 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패타락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따뉴그

신문 뽈리찌까, 꼼무니스트, 보르바.

희 랍

(희랍왕국)

발칸반도의 남부와 에게해 및 지중해에 널려있는 100여개의 섬들로 구성되여있다. 령토의 4분의 3은 산지이다. 해안지대와 섬들의 기후는 아열대성기후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동부지방에서 400~700미리메터, 서부에서는 900~1천 200미리메터이다.

【면적】 13만 2,562km²

【인구】 843만명(1965년 9월)

희랍인이 절대다수이며 그밖에 토이기인, 유태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희랍어이다.

【수도】 아테네(주민 185만 3,000명, 1963년말)

정 치 1830년에 왕국으로 독립하였다. 1924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1935년에 다시 전제제도를 세우고 1936년에 파쑈독재정부를 세웠다.

제2차세계대전 초기에 이딸리아에, 1941년에는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4년 10월 15일 해방되였다.

희랍은 침략적인 나토성원국이며 1953년에는 미제와 《군사기지협정》을 맺었다. 희랍에는 미제군사기지가 설치되여있으며 미제 《고문》들이 제멋대로 활개치면서 파쑈화의 길로 나가고있는 희랍반동정부를 부추기고있다. 희랍반동들은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이 앙양되자 1967년 4월 20일 미제의 사촉하에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군사독재정권을 세웠다. 군사독재정권은 국회를 금지하고 국내진보적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있다.

【국왕】 콘스탄티노스 2세(1964년 3월—)

【정부】 수상 게오르게 파파노풀로스(1968년 6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 17일 창건. 위원장 아포스톨로스 그로조스. **중앙동맹, 국민급진당, 로동총련맹, 전국청년통일련맹.**

경 제 경지면적은 국토의 25%밖에 안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담배, 포도, 올리브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 못한다.

공업부문에서는 채취공업, 방직공업, 식료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는데 대부분을 미제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화폐단위는 드라크마.

스웨리예

(스웨리예왕국)

북구라파의 스칸디나비아반도 동쪽에 있다. 산림, 하천, 호수가 많다. 스톡홀름의 1월 평균기온은 −2.5°C, 7월 평균기온은 17°C이다.

【면적】 44만 9,200km²

【인구】 795만명(1968년말)

대부분이 스웨드족이고 기타 덴족, 고드족, 핀족들이 있다. 공용어는 스웨리예어이다.

【수도】 스톡홀름(주민 112만 4,900명, 1965년 1월)

정치 스웨리예는 1906년 노르웨이와의 련합왕국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한 립헌군주제국가이다.

중립국으로서 조선정전중립국감독위원회에 참가하고있다.

1967년 4월 스웨리예정부는 1957년에 맺었던 남부웰남괴뢰정권과의 외교관계를 끊기로 결정하고 남부웰남주재 스웨리예대사를 소환하였다. 같은해 5월에는 미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기나라에서 미제의 전쟁범죄를 반대하는 러쎌국제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1968년 3월 스웨리예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정강을 지지하였으며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폭격 및 포격의 무조건중지를 요구하였다.

1968년 10월 스톡홀름에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보도처를 설치하는데 동의하였다.

미제가 웰남침략전쟁을 일으킨 후 스웨리예에서는 반전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이 앙양되였다.

1968년 3월 10일 스톡홀름시민들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아랍나라침략에로 내모는 미제를 규탄하여 시위를 벌렸으며 5월 8일에는 이스라엘 《외상》이란 자가 스웨리예에 기여들자 비행장에서 강력한 시위를 벌렸다.

미제를 반대하는 웰남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시위와 모임들이 도처에서 벌어졌다. 11월에는 웰남인민과의 련대성주간에 사진전람회, 영화감상모임 등이 광범히 벌어졌다. 이러한 행사에는 70여개의 단체들이 참가하였다.

각지 학교들에서는 친미사상을 퍼뜨리는 반동교원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 반동적교육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는 투쟁 등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국왕】 구스타브 아돌프 6세(1950년 10월—)

【의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타게 에를란데르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좌익당** 1917년 5월에 창건. 위원장 헤르만손. **사회민주당**(집권당), **중앙당, 인민당, 보수당, 로조중앙련맹, 민주청년동맹, 녀성동맹.**

경제, 사회 제지, 목재가공, 야금, 조선공업과 해운업이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경지면적은 령토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

농업에서는 알곡생산보다 축산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쌀보리, 보리,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화폐단위는 크로나이다.

【출판보도】 **통신** 스웨리예통신 **신문** 니 다그(공산주의자좌익당기관지), 아프톤 블라데트, 스벤스카 다그불라데트.

노르웨이

(노르웨이왕국)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서남쪽에 있다. 국토의 72%가 산지, 하천, 호수(전령토의 약 4%), 섬들이다. 해안지대는 겨울에도 따뜻하며 1월평균기온이 북부에서 —3°C, 남부에서는 2°C정도이다.

【면적】 32만 3,917km²

【인구】 376만 7,000명(1966년 말)

주민의 대부분이 노르드족이다. 공용어는 노르웨이어이다.

【수도】 오슬로(주민 48만5,000명, 1964년 1월)

정치 노르웨이는 14세기이래 단마르크, 스웨리예의 예속하에 있다가 1905년에 독립하였다. 1940년에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 5월에 해방되였다. 침략적인 나토성원국이며 오슬로에는 《나토북부군사령부》가 있다.

1968년 6월 13일 오슬로인민들은 노르웨이의 나토탈퇴를 요구하여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10월 《웰남에 대한 련대성주간》에는 50개 도시와 주민지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고 미제의 웰남침략을 규탄하였다. 노르웨이정부는 남부웰남에 고용병을 파견해달라는 미제의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1968년 6월에 진행된 나토 《각료리사회》에서는 나토의 지중해무력을 강화할데대한 미제의 제기를 거부해나섰다. 1968년 9월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대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국왕】 올라프 5세(1957년—)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페르 브르텐(1965년 10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3년에 창건. 위원장 레이다르 테라르센. **사회주의인민당, 로동당, 중앙당, 보수당, 자유당, 기독교인민당, 로조련맹, 공산청년동맹, 녀성동맹,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

경제, 사회 경제에서 주요한 부문은 해운업과 수산업, 림업이며 팔프제지, 선박, 전기, 화학, 야금, 기계제작공업 등이 공업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산림자원이 많으며 팔프제지공업제품의 5분의 4를 수출한다. 경지면적은 국토의 3%에 해당하며 농업생산은 국민소득의 약 6%를 차지하는데 그중 4분의 3은 축산물이 차지한다.

【출판보도】 **통신** 노르웨이통신사(엔 티 비)

신문 프리헤테(공산당기관지), 아르바이다 블라데트.

이슬란드

(이슬란드공화국)

북대서양상의 섬나라이다. 북쪽끝은 북극권에 속하며 여름에는 밤에도 어두어지지않는 백야가 계속된다. 화산과 온천이 많으며 기후는 난류의 영향으로 춥지않다.

【면적】 10만 3,000km²

【인구】 20만 1,975명(1968년 12월)

주민은 노르드족과 켈족으로 이루어져있다. 공용어는 이슬란드어이며 단마르크어도 통용된다.

【수도】 레이캬비크(주민 8만 918명, 1968년 12월)

정치 이슬란드는 1944년 단마르크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하고 같은해 6월 17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9년 침략적인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1951년 5월 미제와 《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을 통하여 미제는 이슬란드를 저들의 군사기지로 전변시키고 자기의 침략군을 주둔시키고있다.

1968년 6월 23일 이슬란드인민들은 이슬란드의 나토탈퇴와 미제군사기지의 철폐를 요구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의회】 량원제인 립법기관이다.

【대통령】 아스게이르 아스게이르손(1964년 8월—)

【정부】 수상 야르니 베네딕트손

【정당, 사회단체】 **통일사회당** 1938년에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좌파가 련합하여 조직. 위원장 에이나르 올게이르손. **독립당**(집권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로조련맹.**

경제, 사회 어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어획고의 50%는 대구이다.

지하자원으로는 이슬란드장석, 갈탄, 류황 등이 있다. 농촌경리의 기본은 면양사육과 젖생산이다. 주요농산물은 감자, 사료작물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어류와 어류가공제품, 육류 등이다.

【출판보도】 **신문** 알티두 블라디드, 모르건 블라디드.

영 국

(대브리텐및북아일랜드련합왕국)

구라파대륙의 서북방해상에 있는 섬나라이다.

잉글랜드, 웰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와 기타 섬들로 구성되여있다. 북위 50° 이북에 있으나 메히꼬만류의 영향으로 기후는 따뜻하다.

【면적】 24만 4,100km²

【인구】 5,459만 5,000명(1965년)

주민의 대부분이 앵글로삭손족이고 스코틀랜드에 켈트족이 있다.

【수도】 런던(주민 834만 6,000명)

정치 영제국주의는 16세기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선때로부터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나라들과 대양주를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와 략탈을 감행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840—1842, 1856—1860년에 중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였고 인도인민의 민족적봉기(1857—1859)를 무참히 탄압하였으며 1853—1856년에는 로씨야를 반대하여 크림전쟁을 일으켰다.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후에는 쏘베트주권을 반대하는 무장간섭을 조직하였으며 미제와 프랑스제국주의자들과 더불어 1938년에 《뮨헨협정》으로서 히틀러의 전쟁도발책동을 촉진시켰다. 1939년 9월 영제국주의자들은 파쑈독일의 침공의 창끝이 자국에 돌려지자 쏘련에 《동맹》을 요청하면서 히틀러독일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히틀러독일이 쏘련을 침공한후 영제국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쏘련과 《동맹》하는체 하면서 뒤에서는 파쑈도배들과 결탁하고 제2전선형성을 태공하였다.

전후 영제국주의자들은 미제와 함께 나토, 세아토 등 침략적인 군사동맹과 배타적인 경제기구들을 조작하였으며 또한 서독군국주의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한 《빠리협정》을 조작하였다. 이리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고있으며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고있다.

1950년에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여 조선인민을 무참하게 학살하였으며 1956년에는 미제와 함께 아랍련합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1965년 11월에는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스미스도당을 사촉하여 남로데시아의 《독립》을 선포케 하고 진정한 독립을 위한 이 나라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고있다.

1967년 6월에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적극 추종하여 저들의 침략기지를 미제침략군에 제공하고있으며 군사인원과 각종 흉기들을 보내여 웰남인민들을 학살케 하고있다. 특히 윌슨도당은 군용개, 화학 및 세균무기까지 대주는 악랄한 방법으로 궁지에 빠진 미제를 도와나서고있다. 뿐만아니라 쓰러져가는 남부웰남괴뢰도당을 부축하기 위하여 1967년에 40만파운드, 1968년 첫 두달동안에는 27만파운드를 주었다.

윌슨반동정부는 1968년에도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추종하여 경제를 군사화하고 해마다 방대한 군사비를 탕진하면서 전쟁준비에 미쳐날뛰였다. 한편 윌슨도당은 이로부터 초래된 재정경제 위기를 막기 위하여 임금동결, 세금인상, 물가통제 등 《초긴축조치》로써 인민들에 대한 악랄한 착취와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윌슨도당의 침략과 략탈정책을 반대하여 영국인민들은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특히 1968년에는 근로자들의 파업투쟁이 한층더 강화되여 윌슨반동무리들의 정치, 경제적위기를 더욱더 심화시켰다.

1968년 첫 10개월간에만도 영국에서는 독점자본가놈들에게 2천만파운드의 손실을 가져다준 300만 영국기계제작공업부문 로동자들의 장기간의 전국적인 파업(5월), 영국의 철도수송을 마비시키고 영국의 수출무역에 엄중한 손실을 준 30여만 철도로동자들의 전국적인 파업 (6월말—7월초)을 비롯하여 무려 1천 965건의 파업이 일어났는데 여기에는 214만 1천 300명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파업으로하여 이 나라 독점체들은 420만 이상의 로동일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은 1962년 이래 가장 많은 수자였다.

그중 영국자동차독점체들은 첫 9개월동안에만도 그 전해 같은기간보다 거의 2.5배나 늘어난 무려 67만 8천로동일을 잃어버렸다.

윌슨도당의 반동적인 대내외정책은 레이버당내에서까지 배격당하고있으며 윌슨반동정부가 물러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갔다. 1967년 11월 파운드평가인하이후 재정상이란놈이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1968년 3월에는 브라운이란놈이 외상직에서 물러나지 않을수없었다. 윌슨반동정부를 지지해나서던 반동어용로조인 합동기계로조까지 1968년에 들어서면서 윌슨도당의 반인민적인 소득세정책에 항의하여 파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윌슨반동정부는 1966년 집권이래 최악의 정치경제적위기에 부딪쳐 그 지반은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

1968년에 영국인민들속에서는 미제의 웰남침략과 미제에 추종하고있는 윌슨반동도당을 규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1968년 7월 21일 런던시민 약 1만여명은 군중집회를 열고 미제의 웰남침략을 당장 중지할 것과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과 인연을 끊을것을 윌슨반동도당에게 요구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경찰놈들의 탄압을 박차고 미제대사관으로 밀려가 미제는 《웰남에서 손을 떼라》, 《우리는 남부웰남민족해방

전선에 련대성을 보낸다》고 웨치면서 미제의 웰남침략을 규탄하였다.

10월 27일에는 만체스터, 버밍감 등 영국 각곳에서 모여온 4만여명의 근로자들이 런던에서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규탄하며 싸우는 웰남인민들을 지지하는 대군중시위와 집회를 진행하였다. 시위자들은 인민탄압에 동원된 8천 500여명에 달하는 경찰놈들의 저지선을 뚫고 미국놈들의 대사관과 미제에 추종하는 오스트랄리아놈들의 대사관에 밀려들어가 미제침략군과 미제고용군을 당장 웰남에서 끌어내갈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시위자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에 적극 추종하고있는 윌슨도당을 강력히 단죄규탄하였다.

【국왕】 녀왕 엘리자베스 2세 (1952년—)

【의회】 상하 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해롤드 윌슨(1964년 10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7월에 창건. 총비서 죤 골랜. 레이버당(집권당), 보수당, 자유당, 로동조합콩그레스, 공산청년동맹.

경제, 사회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독점자본가놈들이 이 나라 전체 재부의 75%를 차지하고있으며 그중 인구의 1%밖에 안되는 대독점자본가놈들이 전체 재부의 42%를 장악하고있다.

또한 영국경제는 미제독점체들의 수중에도 장악되여있는데 영국경제에 대한 미제의 경제적침투는 최근년간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68년에 영국에 대한 미제독점자본가들의 투자총액은 1950년에 비하여 8배이상 늘어나 약 70억딸라에 달하였다.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미제독점체들은 영국경제의 10%를 장악하고있는데 특히 자동차공업의 50%, 계산기생산의 약 80%를 장악하고있다.

1957년에 영국가공공업총생산액의 5.7%를 차지하였던 미제독점자본은 1968년에 영국공업 총생산량의 25%이상을 차지하였다.

공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와 함께 미제독점자본은 은행을 통하여 영국경제를 틀어쥐고있다.

1964—1967년간에 영국에 있는 미제의 은행지점수는 17개로부터 25개로 늘어났으며 이 기간에 그 재산은 27억딸라에서 82억딸라로 늘어났다.

이리하여 영국경제는 사실상 미제에 예속되고있으며 미제의 침략전쟁수행에 리용되고있다.

1968년에 영국의 경제형편은 윌슨도당이 미제의 침략전쟁정책에 추종하면서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더욱 악화되였다.

1968년에 대외무역적자는 7억파운드에 달하였다. 윌슨반동정부는 1967년 11월에 파운드를 평가인하하고 수출을 증가시키려고하였으나 그후 첫 3개월동안에 대외무역적자는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여 17억파운드에 달하였다. 국제수지적자도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1968년 1.4 분기에 그것은 무려 2억 8천 200만파운드에 달했다. 이것은 파운드평가인하를 초래한 1967년도 국제수지적자의 50%이상에 달한것이였다. 국제수지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금 및 외화예비는 계속 고갈되여 1968년에는 1억 3천 600만파운드나 줄어들었으며 반면에 다른 나라에 물어주어야할 빚은 40억파운드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리하여 윌슨반동정부는 외국의 빚의 4분의 1도 물어줄만한 량의 금 및 외화예비도 갖고 있지못하는 비참한 형편에 놓이게 되였다. 윌슨반동정부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8년에 4억 1천 200만파운드의 예산적자를 냈다.

이와 같은 재정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1968년에는 1967년보다 9천 100만파운드나 많은 22억 9천 600만파운드에 달하는 방대한 군사비를 지출하였으며 해외에 널려있는 침략군의 유지비로 매해 3억 5천만파운드를 지출하고 있다.

윌슨도당은 저들이 직면하고있는 재정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세금을 올리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시키며 물건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1968—1969회계년도에 9억 2천 300만파운드를 짜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1968년 한해동안에만도 5천 733가지의 필수품값을 올렸으며 교통료금은 10～20%, 집세는 3년간에 무려 70%나 올렸다.

윌슨도당의 가혹한 착취와 수탈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는 더욱 악화되였다.

1968년에 독점자본가놈들은 전해보다 20% 더 많은 리윤을 짜낸 반면에 근로자들의 생계비는 1966년 1월부터 1968년 12월까지 12.3% 올라갔다. 1968년에 실업자는 약 62만명에 달하였으며 매해 3만명의 어린이들이 학비가 없어 학교를 그만두고있다.

1967년에 공업부문에서 일어난 로동재해는 약 14만건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30여만명의 로동자들이 죽었다.

【출판보도】 통신 로이터, 프레스 아소시에이숀

신문 모닝스타(공산당기관지), 데일리 미러(레이버당계), 데일리 텔레그라프(보수당계), 가디언(자유당계).

아일랜드

(아일랜드공화국)

대서양상에 있는 섬나라이다.

구름이 많고 안개가 많이 끼며 찬비가 내리는것이 특성인데 가을과 겨울에 심하다.

【면적】 7만 8,283km²

【인구】 284만 9,000명(1965년 9월)

주민의 대부분이 아일랜드인이다. 영어와 아일랜드어를 쓴다.

【수도】 더블린(주민 66만 3,000명)

정 치

아일랜드는 1937년에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1949년 4월에 아일랜드는 영련방에서 탈퇴하고 《아일랜드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의회】 량원제인 립법기구이다.

【대통령】 예이몬 데발레라(1966년 6월—)

【정부】 수상 오도네일르(1963년 3월—)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자유당(집권당), 통일당, 레이버당, 아이레공화군, 아이레로동련맹.

경제, 사회 주민의 40%가 농사한다. 1963년에 국민소득에서 농업, 어업, 림업은 21%, 공업은 31%를 차지하였다. 주요농산물은 귀밀, 보리,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통화는 아일랜드파운드. 주민의 88%가 천주교도이다.

단마르크

(단마르크왕국)

구라파북부의 유틀랜드반도와 부근의 섬(약 500개)들로 이루어지고있다. 해류의 영향으로 여름은 선선하고 겨울은 따뜻하다. 년평균기온은 8°C이다.

【면적】 4만 3,042km²

【인구】 481만 3,000명(1968년말)

주민의 대부분은 덴족, 언어는 단마르크어이다.

【수도】 코펜하겐(주민 138만 2,000명, 1969년 1월)

정 치 단마르크는 1940년 4월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 5월 5일 해방되였다. 단마르크는 침략적인 나토성원국이며 미제와 《그린랜드공동방위조약》을 맺고있다. 1961년 12월에는 서독군국주의자들과 함께 《발찍해합동사령부》를 조작하였다.

단마르크인민들은 정부의 반동적인 대내외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데 1968년 5월 1일에는 전신전화회사일군들의 처지개선을 위한 파업투쟁으로 단마르크의 전신전화망이 마비되였다.

1968년 9월 단마르크민주녀성련맹대표가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국왕】 프리데리크 9세(1947년 4월—)

【의회】 1원제인 립법기관이다.

【정부】 수상 엔스 오토 크라그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에 창건. 위원장 크누드 에스페르센. 사회민주당(집권당), 온건자유당, 보수당, 급진당, 로조련맹, 공산청년동맹, 민주녀성련맹.

경제, 사회 농업은 축산업을 위주로하고있다. 경지면적에서 알곡파종면적은 6~7%, 공예작물파종면적은 4~5%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목초재배에 리용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공업에서는 농산물과 수산물가공, 선박건조 및 선박설비품생산이 기본으로되고있다. 지하자원은 적으며 공업원료는 수입한다.

주요수출품은 축산물, 선박, 화학제품, 기계류와 설비품 등이다.

【출판보도】 통신 단마르크통신 신문 랜드 오그 폴크(공산당기관지), 벨링스케티덴데(보수당계).

화 란

(화란왕국)

구라파대륙의 북서부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5분의 2는 바다물의 높이보다 낮다. 해양성기후이며 년평균강수량은 650~700미리메터이다.

【면적】 3만 2,400km²

【인구】 1,280만명(1968년)

주민의 대부분은 화란인이며 공용어는 화란어이다.

【수도】 암스테르담(주민 87만 2,400명), 정부소재지는 헤그(주민 60만 2,440명, 1964년 1월)

정 치 화란은 15—16세기에 벨지고, 프랑스북동지방, 룩셈부르그를 포괄하는 령토를 차지하고있었다. 그후 해외식민지략탈에 광분한 화란은 17—18세기에 인도네시아의 많은 부분과 동남아세아의 일부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화란은 1810년에 프랑스에 병합되였다가 1813년에 다시 독립하였다. 1945년 8월 인도네시아가 독립하자 화란은 미, 영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인민을 반대하는 식민지전쟁을 도발하였다가 패배하였다.

화란은 침략적인 나토성원국이며 기타 제국주의의 정치, 경제, 군사기구에 가담하고있다.

1950년에는 미제의 주구로서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으며 1968년에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복무할 군수공장을 화란령에 설치케하였다.

화란인민들은 정부의 반동적인 대내외정책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있다.

1967년 10월부터 1968년 1월까지 수도시민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여 1만 8천키로메터에 달하는 《암스테르담—하노이시위행진》을 단행하였으며 이 기간에 2차에 걸쳐 미제 령사관을 포위하였다. 2월 6일과 4월 13일에는 화란의 나토탈퇴와 화란에서 나토사령부를 쫓아낼것을 요구하여 강력한 시위투쟁을 벌렸다.

【국왕】 울리아나 녀왕(1948년 9월—)

【국회】 량원제의 립법기구이다.

【정부】 수상 젤레 질슈트라(1966년 11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창건, 위원장 파울 데 그로트 로동당, 천주교인민당, 평동사회당.

경제, 사회 공업이 경제에서 주도적부문을 이루고있다. 주요공업은 선박건조, 전기기계, 식료공업 등이다. 가공공업의 대부분은 대외시장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미제는 기업체주권의 구입, 차관의 제공 등으로 화란 경제의 주요명맥을 틀어쥐고있다. 미제독점체들의 침투와 미제의 전쟁정책에 추종하는 화란반동정부의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계속 몰락하고있는데 1967년에 560여개의 중소기업소,

150개의 운수, 체신회사가 파산되였다.

농촌경리에서는 축산이 위주로 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감자 등이다. 1968년 첫 10개월간에 생계비는 3.7% 올랐다. 1967년말에 실업자는 약 10만명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화란통신(에이엔피)

신문 드 바이르하이트(공산당기관지), 헤드 브라이에 볼크(로동당기관지).

벨지크

(벨지크왕국)

구라파대륙의 서북부에 자리잡고있다. 온대해양성기후이다. 평균기온은 1월에 1°~3°C, 7월에는 14~19°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500~700미리메터이다.

【면적】 3만 507km²

【인구】 949만 9,234명(1965년 12월 31일)

화란계의 프라망인이 약 55%, 프랑스계의 왈롱인이 45%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프라망어이나 독일어도 쓴다.

【수도】 브류쎌(주민 145만 3,500명)

정 치 1516년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1714년에는 오지리의 속령으로 되였다. 1795년에는 프랑스에 병합되였다가 1815년에 화란에 편입되였다. 1830년에 벨지크는 독립을 선포하고 군주국으로 되였다. 벨지크왕당파들은 1908년에 아프리카의 꽁고(킨)를, 1919—1962년까지는 동부아프리카의 르완다—부룬디를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1940년 5월에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4년 9월에 해방되였다. 벨지크는 침략적인 나토성원국이며 《구라파석탄강철공동체》, 구라파 《공동시장》, 《유라톰》 등을 비롯한 각종 제국주의 군사, 경제기구에 가담하였다. 벨지크는 미제의 주구로서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으며 1964년에는 꽁고(킨)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직접 무장간섭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벨지크인민들은 정부의 반인민적인 파쑈정책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하고있다. 4월 20일 전국각지의 건설로동자들은 로동조건의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하였으며 10월 15일에는 각 도시들에서 정부의 반동적인 교육정책을 반대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10월 24일 브류쎌시민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고 웰남인민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국왕】 보도앙1세 (1951년—)

【국회】 량원제인 립법기관이다.

【정부】 수상 가스톤 에이켄스 (1968년 6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9월에 창건. **기독교사회당**(집권당), **사회당**(집권당), **왈롱근로자당**, **자유당**, **벨지크공산주의청년동맹**, **로동총련맹**.

경제, 사회 공업은 식민지들의 자원을 략탈하여 유지되고있으며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벨지크에 투자된 외국투자액중 70~80%는 미제독점자본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등이나 국내식량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금속, 화학 및 방직제품이다. 1968년 11월 현재 완전실업자는 12만 1천명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벨지크통신(비이 엘 지 에이)

신문 드라포 루쥬(공산당기관지).

룩셈부르그

(룩셈부르그대공국)

구라파대륙의 서북부에 있는 내륙국이다.

【면적】 2,586km²

【인구】 32만 8,000명(1965년 9월)

주민의 대부분은 룩셈부르그인이며 독일인, 프랑스인이 많이 산다.

언어는 독일어, 프랑스어를 쓴다.

【수도】 룩셈부르그(주민 8만명)

정 치 16세기부터 1794년까지 에스빠냐, 프랑스, 오지리의 지배하에 있었다. 1842년부터 독일의 예속하에 있다가 1867년에 《영구중립》을 선포하고 대공국으로 되였다. 1948년에 소위 《영구중립》을 페기하고 나토(전체 병력을 나토에 편입), 《서구동맹》, 구라파 《공동시장》, 《구라파석탄강철공동체》 등 침략적인 정치, 군사, 경제기구에 가담하였다. 1950년에는 미제의 앞잡이로서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다.

【국왕】 쟌 (1964년 11월—)

【국회】 1원제이다.

【정부】 수상 피에르 베르네르 (1964년 6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1월 6일 창건. 총비서 도미니키 우르바나. **기독교사회당**, **사회로동당**, **민주당**, **인민독립운동당**.

경제, 사회 채광업과 야금공업이 경제의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강철생산이 공업생산액의 70%, 수출의 85%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감자, 포도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 못한다. 주요수출품은 강철, 금속제품 등이다.

통화는 프랑, 국교는 로마카톨릭교이다.

【출판】 신문 드 짜이퉁(공산당기관지), 룩셈부르게트 워로트(천주교계).

스위스

(스위스련방)

구라파중앙에 있는 내륙국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며 기후는 따뜻하다. 제네바의 평균기온은 1월에 0.6°C, 7월에 19.3°C이다. 년평균 강수량은 800~1천미리메터이다.

【면적】 4만 1,288km²

【인구】 811만5,000명(1969년)

주민의 절반이상이 독일계통이며 기타 프랑스인, 이딸리아인들이 많이 산다. 언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딸리아어를 쓴다.

【수도】 베른(주민 16만 7,000명, 1963년)

정 치 스위스는 로마제국의 통치하에 있다가 1648년에 독립하였다. 1798년에 프랑스에 강점되였다가 1803년에 다시 독립하였다.

1815년 윈회의에서 《영구중립국》으로 되였다. 스위스는 유엔이나 미제의 정치, 군사쁠럭들에 직접 참가하지않고있으며 조선정전중립국감독위원회의 성원국으로 되고있다.

스위스는 《구라파자유무역지대》, 《구라파경제협력기구》 등 배타적인 경제쁠럭에 참가하였으며 1966년 6월에는 미제와 《원자협정》을 맺었다.

【국회】 량원제의 립법기관이다.

【정부】 정부인 련방회의는 국회량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되는 내각성원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내각성원중에서 매년 륜번제로 선출한다. 대통령 퐁 모스(1968년 12월—)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21년에 창건된 공산당과 좌익사회주의 그루빠들이 합동하여 1944년에 조직. 급진민주당, 기독교사회인민당, 사회민주당, 로조련맹.

경 제 지하자원은 적다. 경제에서 시계, 치차를 비롯한 정밀기계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시계부분품은 주로 가내수공업으로 생산한다.

전체 농업생산에서 축산업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알곡생산량은 국내수요의 약 절반밖에 되지않는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관광업이 국가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시계, 계기류, 합성수지제품, 직물 등이다.

【출판보도】 통신 스위스통신. 신문 레뷰 크리엘(로동당기관지), 노이에르 츄리셀 짜이퉁

이딸리아

(이딸리아공화국)

이딸리아는 구라파대륙의 서남쪽 지중해연안에 자리잡고있다. 지중해에 돌출한 이딸리아반도와 사르디니아섬, 시씰리섬을 포함한 7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아열대성기후이다.

【면적】 30만 1,226km²

【인구】 5,317만 1,000명(1966년 8월 1일)

주민의 대부분이 이딸리아인이고 독일, 프랑스 등 소수민족들이 산다. 공용어는 이딸리아어이다.

【수도】 로마(주민 312만 9,000명, 1965년 8월말)

정 치 1870년에 이딸리아의 통일이 이룩되였다.

1922년에 집권한 무쏘리니의 파쑈정권은 1935—1936년에 에티오피아를 강점하였고 1936년에는 히틀러독일과 함께 에스빠냐에 대한 무장간섭을 감행하였다. 1937년에 침략적인 일독《반공협정》에 가담하였다.

1939년 4월에 알바니아를 강점하였으며 1940년 6월에는 쏘련, 영국, 프랑스에 선전포고하고 파쑈히틀러독일과 함께 쏘련을 침공하였다. 같은해 12월에 미제에 선전포고하였다. 히틀러도배에 대한 쏘련군대의 섬멸적타격과 이딸리아인민들의 반파쑈투쟁으로 1943년 7월 파쑈이딸리아는 패망하였다. 무쏘리니의 독재정권이 멸망한후 1946년 6월 이딸리아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딸리아반동정부는 1949년에 침략적인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미제에게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초기지로 자기령토를 제공해주고있다.

1959년에는 이딸리아에 미제의 핵 및 로케트기지를 설치하도록 허용하였다.

전후 이딸리아에서는 정치세력호상간의 알륵과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으로 말미암아 20여회에 걸치는 정부위기와 수십차례의 정부교체가 있었다.

【대통령】 쥬제페 사라가트(1964년 12월 28일—)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루 모르(1968년 12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1월에 창건. 총비서 루이지 롱고. 사회당, 프로레타리아통일사회당,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 자유당, 사회운동당, 로동총련맹, 공산청년동맹, 녀성동맹.

【주요사건】 1968년에 이딸리아에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각계층인민들이 독점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리였다.

1968년에 금속, 기계, 화학공업을 비롯한 중공업부문로동자들과 경공업, 운수, 상업부문의 로동자들이 매일같이 파업투쟁을 벌림으로써 독점자본가놈들과 반동당국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파업에 참가한 로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로동조건의 개선, 단체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며 해고와 실업을 반대하여 호상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면서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1968년 11월 14일 전후 이딸리아에서 가장 큰 1천 200만명의 전국적인 총파업이 있었으며 19일에는 100만명이 파업을 일으킴으로써 이딸리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생산과 교통이 마비되였다.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됨에 따라 반동지배층내에서의 혼란은 가일층 심화되였으며 레오네도당은 부득불 정권에서 물러나지않으면 안되였다. 12월초에는 처지개선을 요구하는 시씰리섬농민들의 투쟁에 대한 반동정권의 류혈적인 탄압책동에 항의하여 일어난 반정부투쟁이 폭동으로 화하여 전국을 휩쓸었다. 여러도시들에서 로동자들과 학생들이 반동당국의 청사와 경찰소들을 습격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일체 생활이 마비되였으며 반동지배층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또한 반동정부의 수탈정책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과 반동적인 교육정책을 반대하며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도 강화되였다.

또한 이딸리아인민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며 미제에 추종하고있는 이딸리아반동정부를 규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1968년 3월 로마, 제노아에서 수천명이 시위를 벌리고 미제대사관과 령사관으로 밀려가 웰남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만행을 규탄하였으며 미제의 기발을 찢어버렸다. 4월에는 플로렌스, 엠플리, 라벤나 등 여러도시 로동자들은 작업을 중지하고 미제의 웰남침략을 중지할것을 요구하는 군중모임을 가졌다. 또한 이딸리아의 전국 각지 근로자들은 11월 30일을 영웅적웰남인민과의 련대성의 날로 정하고 싸우는 웰남인민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는 군중집회와 시위들을 진행하였다.

경제, 사회 지하자원으로는 아연, 연, 망간, 보크사이트, 수은, 대리석, 천연가스 등이 있다. 철, 석탄, 원유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2차대전후 이딸리아경제에는 미제와 서독군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이 급속히 침투되였다.

1958—1968년간에 이딸리아에 대한 외래독점체들의 투자액은 5천 125억리라였으며 그중 미제의 투자액은 2천 15억리라였다.

주요농산물은 밀, 감자, 포도, 올리브, 옥수수 등이다. 이딸리아경제는 국내시장수요와 투자의 감소 등으로 해마다 경제위기를 겪고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있는데 1967년 5월부터 1968년 5월간에만도 과일, 남새, 알곡값이 13.8% 올랐다.

1967년 6월부터 1968년 6월간에 반동정부가 인민들로부터 빼앗아낸 세금은 27.9%나 늘었다.

독점자본의 억압과 착취에 못이겨 살길을 찾아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1968년 상반년기간에 13만 4천 500명이 해외로 떠났다. 1951년부터 1966년까지의 기간에 그수는 220만명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안사

신문 우니타(공산당기관지), 아반티(사회당계), 코리에레 데라쎄라, 메싸 젤로, 파에제 쥬스.

바티칸

(바티칸시국가)

이딸리아의 로마시내 바티칸언덕우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시국가이며 로마천주교의 중심지이다.

【면적】 0.44km²

【인구】 1,000명(1964년)

【법왕】 파울 6세

법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바티칸은 세계도처에 널려있는 교회들, 천주교 정당 등과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하여 천주교를 전파하고있으며 미제의 침략정책을 적극 옹호하면서 사회주의국가들과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각종 암해, 파괴, 정탐행위들을 감행하고있다.

산 마리노

(산 마리노공화국)

중부이딸리아의 아페닌산맥중에 있다.

【면적】 61km²

【인구】 1만 6,000명(1964년)

주민의 대부분은 이딸리아인이며 언어는 이딸리아어이다.

【행정중심지】 산 마리노(주민 3,000명)

정치 301년에 성립된 구라파 최초의 공화국이다. 1851년에 오지리와 로마의 무장간섭을 받았으며 1862년에는 이딸리아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45—1957년간에 공산당과 사회당의 련립정부가 집권하였다. 이딸리아반동들의 책동으로 이 련립정부는 전복되고 1957년 10월에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의 련립정부가 집권하였다.

【의회】 1원제이다.

【정부】 국가원수이며 정부수반인 2명의 섭정이 있다.

【정당】 **공산당** 1921년에 **성립.** 총비서 에르 멩길도 가스페로니. **사회당,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

경제 축산업, 포도재배 등을 한다.

수산물은 포도, 포도주, 축산물, 밀, 석재 등이다. 관광업이 수입의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딸리아화페를 쓴다.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공국)

오지리와 스위스 사이에 있다.

【면적】 157km²

【인구】 1만 8,000명(1964년)

주민은 독일계인으로 구성. 언어는 독일어이다.

【행정중심지】 바두쯔(주민 3,700명)

【국왕】 프랑쯔 요제프 2세

리히텐슈타인은 1719년에 공국으로 되였고 1867년에 영구중립을 선포하였다. 제2차대전시기에 파쑈독일에 강점되였다가 해방되였다. 이 나라의 외교, 군사, 재정은 스위스가 틀어쥐고있다.

시민진보당, 조국동맹 등 정당이 있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주민의 90%가 천주교도이다.

모 나 코

(모나코왕국)

프랑스의 동남부에 있다. 년중 날씨가 맑고 따뜻하다. 전령토가 건물로 차있다.

【면적】 1.49km²

【인구】 2만 3,000명(1965년)

모나코인이 약 3천명정도이고 그외는 프랑스와 이딸리아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언어는 프랑스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몬테 카를로(주민 약 1만명)

모나코는 프랑스의 《보호》하에 있는 립헌군주국이다. 몬테 카를로에는 《국제해수욕장주식회사》, 카지노에는 《공설도박장》이 있다. 국가수입의 원천은 관광업과 도박장이다. 립법권은 의회(1원제)에 있다.

【국왕】 레니에 3세(1949년—)

【정부】 국무상 장 레이몽(1963년—)

안 도 라

(안도라공화국)

프랑스와 에스빠냐사이의 피레네산맥속에 있는 나라이다. 좁은 골짜기와 높은 산으로 되여있다.

【면적】 453km²

【인구】 1만 5,000명(1964년)

기본언어는 카타로니아어이나 프랑스와 에스빠냐어도 통용된다.

【행정중심지】 안도라 (주민 1,500명)

안도라는 1278년부터 프랑스와 에스빠냐의 공동관리하에 있다. 립법권은 총참사회에 있고 행정권은 총참사가 임명하는 장관에게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목축업을 하며 포도, 담배를 재배한다. 관광업이 국가수입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에스빠냐

구라파대륙의 서남단 이베리아반도에 있다. 아열대 지중해성기후이다.

【면적】 50만 3,486km²(발레아르, 카나리아군도포함)

【인구】 3,278만 8,000명(1968년)

주민의 대다수가 에스빠냐인이며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마드리드(주민 263만 4,600명, 1965년 10월)

정 치 16세기에 방대한 식민지소유국가였던 에스빠냐는 17세기이래 영국, 화란, 프랑스, 미국과의 식민지략탈전쟁에서 일부 식민지들을 빼앗기고 자기의 식민지였던 중남미나라들이 독립함에 따라 쇠퇴하였다.

에스빠냐인민들은 1931년 4월 왕정을 뒤엎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36년 2월에 인민전선정부가 수립되여 민주개혁을 실시하였다. 이해 7월 프랑코가 파쑈독일 및 이딸리아 무력간섭자들의 도움을 받아 반혁명내란을 일으켜 1939년에 프랑코독재정권을 수립하였다. 프랑코도당은 1953년 9월에 미제와 《방위조약》을 체결(1963년 9월에 갱신)하였다. 이 조약에 의하여 미제는 에스빠냐에 4개의 해공군기지를 설치하고 1만 5천명의 미제침략군을 주둔시키고있다. 1968년 9월 이 《조약》의 기한이 만료된것과 관련하여 미제는 이 《조약》의 갱신을 강요하는 회담을 벌렸다.

에스빠냐는 자기 나라에 있는 미제의 기지들을 앞으로 5년간 더 존속시키는 대가로 6억딸라(5년간 에스빠냐가 미제로부터 받은 《군사원조》 액의 7배)의 《군사원조》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존슨도당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리하여 침략기지를 공짜로 사용하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인 에스빠냐간의 리해관계의 대립으로 회담은 파탄되였다.

에스빠냐인민들은 프랑코독재정권의 반동적인 대내외정책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하고 있다.

1968년 3월 방직, 야금, 건설부문로동자들이 정부의 반인민적인 수탈정책에 항의하여 로동성에 항의서를 들이대였으며 각지에서 파업, 항의시위 등이 련일 벌어졌다.

특히 1968년에는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 및 집회들이 전국 각지에서 광범히 벌어졌다.

【의회】 1원제의 립법기관이다.

【정부】 총통 겸 수상 프랑시스코 프랑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4월 창건. 위원장 돌로레스 이바루리. **팔랑헤당**(집권당).

경제, 사회 로동인구의 약 절반이 농사하고있다.

그중 1%밖에 안되는 지주들이 농경지의 절반을 독점하고있으며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토지가 없다.

주요농산물은 밀, 옥수수, 올리브, 포도 등이다. 농산물생산액중에서 알곡이 42%를 차지한다.

철, 석탄, 동, 수은 등 지하자원이 있다. 공업으로는 방직, 식료, 담배, 조선, 자동차, 전기, 세멘트공업이 있다. 경제명맥은 외국자본에 장악되여있다.

프랑코도당의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로동사고는 매해 100만건에 달하며 이로 인하여 6천여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고있다. 학교에 다녀야할 100만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지못하고있다.

에스빠냐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살길을 찾아 해외로 떠나가고있는데 1968년말현재 그수는 400만명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이에프이통신 **신문** 문도 오브레로(공산당기관지), 마드리드(팔랑헤당계).

뽀르뚜갈

(뽀르뚜갈공화국)

구라파대륙의 서남부 이베리아반도의 서쪽에 있다. 기후는 아열대 지중해성기후에 속한다.

【면적】 9만 2,200km²(아조레스, 마데이라군도 포함)

【인구】 916만 7,000명(1965년 6월)

절대다수의 주민이 뽀르뚜갈인이며 공용어는 뽀르뚜갈어이다.

【수도】 리스본(주민 81만 1,400명, 1963년)

정 치 1910년에 공화국으로 되였고 1931년에 집권한 살라자르독재정권은 미제를 비롯한 나토성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앙골라, 뽀르뚜갈령기네, 모잠비크에 10만명의 침략군

을 투입하여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식민지 전쟁을 감행하고있다. 뽀르뚜갈에서는 파쑈정당인 국민동맹과 어용로조 이외는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과 로동자들의 파업은 금지되고있다. 1959년부터 대통령선거도 간접적으로 하면서 인민들의 사소한 민주주의적권리까지 말살하고있다.

【의회】 량원제(국민의회와 조합의회)로 된 립법기관이다.

【대통령】 아메리코 데우스 토마스(1965년 7월—)

【정부】 마르쎌로 카에타노(1968년 9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3월 창건. 총비서 알바로 쿤할. **국민동맹**(집권당), **민족해방전선**(지도부는 알제에 있다).

경제, 사회 주요농산물은 올리브, 포도, 보리, 옥수수 등이다. 주석, 망간, 석탄, 동 등 지하자원이 있다. 공업은 보잘것 없으며 그것마저 미, 영, 서독, 프랑스 등 제국주의자들에게 장악되여있다. 코르크생산을 많이하며 수산업이 주요산업의 하나로 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코르크, 물고기, 포도주, 월프람 등이다.

어린이 1천명당 88.6명이 굶어죽거나 병들어 죽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뽀르뚜갈통신(에이 엔 아이).

신문 아반떼(공산당기관지), 자리오 다 만하(국민동맹기관지).

말 타

지중해중부에 있으며 구라파, 아세아, 아프리카를 련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5개의 섬으로 되여있으나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3개이다. 그중 제일 큰 것이 말타섬(면적 246km²)이다.

【면적】 316km²

【인구】 32만 4,000명(1965년)

말타인외에 구라파인들이 산다. 언어는 말타어외에 이딸리아어와 영어도 쓴다.

【수도】 발레타(주민 1만 8,348명, 1963년)

정 치 말타는 1798년에 프랑스에 강점되였다가 1800년부터 영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되였다. 말타는 1947년부터 내부자치를 실시하였으며 1964년 9월 21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964년 7월 말타에 《군사조약》을 강요하여 10년간의 군대주둔권과 언제든지 말타를 강점할수 있는 권리를 탈취하였다.

말타에는 나토지중해사령부가 있으며 4천명(1965년말 현재)의 영침략군이 말타를 강점하고있었다.

말타인민들은 말타에 대한 미, 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1968년 11월 말타섬반제전선은 미제침략군 제6함대가 말타령해에 불법침입한것을 규탄하여 미제해적선이 지중해에서 물러갈것을 요구하였으며 말타로조는 《말타섬에 어떤 기지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규탄하였다.

【립법회의】 최고립법기관이다.

【정부】 수상 지. 올리비에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국민당**(집권당), **말타반제전선, 말타로조**

경 제 경제는 영국독점자본에 완전히 장악되여있다. 경작지는 1만 4천 500헥터이며 주산물은 밀, 목화, 올리브, 포도 등이다.

공업으로는 과실 및 남새, 통졸임, 담배, 맥주, 가구 등을 생산하는 수공업공장이 있을뿐이다.

주요 자본주의나라들의 실업자수

(나라이름)	(실업자수)	(년 도)
미국	550만명(반실업자 1천만명)	1968년
영국	62만명	〃
프랑스	55만명	〃
서독	67만 3천명	1967년
일본	50만명	〃
이딸리아	66만 9천명(반실업자 100만명)	〃
카나다	37만 3천명	1968년
화란	10만명	1967년
벨지크	12만 1천명	
토이기	150만명	1965년
인도	1천 700만명	1966년말
필리핀	250만명(반실업자 600만명)	1965년
에과도르	100만명	
우루과이	20만명	
칠레	30만명	
유고슬라비아	34만명	1968년

아프리카주

알제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아프리카북부에 자리잡고있다. 북쪽은 지중해에 면하고있으며 마로코, 모리따니, 말리, 니제르, 뜌니지 및 리비아와 접경하고있다. 북부지역 해안연선의 1월 평균기온은 12°C이며 7월평균기온은 25°C이다. 남부사막지대는 여름철의 평균기온이 35~40°C에 달한다. 년강우량은 북부산악지대에서 1천 200미리메터, 남부사막지대에서 50미리메터 이하이며 비가 전혀 오지않는 지역도 있다. 전반적으로 년중을 통하여 12월에 강우량이 많다.

【면적】 238만 4,741km²

【인구】 1,210만 2,000명 (1966년말 현재)

주민은 아랍족(60%), 베르베르족(30%)등이다. 인구의 약 90%는 북부지중해 연안에서 살고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알제(주민 120만명, 교외인구포함, 1967년)

정 치 15세기에 하이라딘 바르바르싸가 에스빠냐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여러 봉건령지로 분렬되였던 나라를 통일시켰으나 1520년에 오또만제국에 정복되여 그의 한개 주로 되였다.

18세기에 알제리봉건령주들이 독립을 선포하였으나 알제리는 1830년부터 132년간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었다.

19세기에 에미르 아브델까데르가 지도한 17년간의 반프랑스무장투쟁을 비롯하여 자유와 독립을 위한 알제리인민의 투쟁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알제리에 침입한 초기부터 끊임없이 전개되였다. 특히 1954년 11월 1일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무장봉기는 알제리민족해방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였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알제리전쟁에 약 80만명의 침략군과 83억딸라의 군사비를 밀어넣었다. 미제는 프랑스제국주의자들에게 42억딸라의 군사원조와 프랑스침략군이 알제리에서 사용한 무기의 75%를 대주었으며 서독군국주의자들은 3만 5천명의 고용병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영용한 알제리인민은 프랑스침략자들을 쳐부시고 7년반에 걸친 무장투쟁에서 승리 (1962년 3월 18일 정화협정을 조인)를 쟁취하였다.

1962년 6월에 민족해방전선은 토지개혁의 실시, 무역, 금융, 동력, 광물의 국유화 등 민족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다는것을 규정한 《트리폴리》강령을 채택하였다. 1962년 7월 1일 자결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7월 5일 알제리는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9월 25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8년 1월 31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하려는 알제리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138년동안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군사기지로 리용되여온 메르쓰엘게비르군항으로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마지막부대가 쫓겨났다.

알제리정부는 5월 13일 제국주의독점자본가놈들이 가지고있던 석유 및 가스공급회사들을 완전히 국가의 통제하에 넣었으며 5월 21일에는 이 자들의 소유인 기계, 비료, 건재부문의 회사 27개를 국유화하였다. 6월 14일에 알제리정부는 또다시 제국주의독점자본가놈들의 18개회사를 국유화하였다.

12월 16일부터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창건 여덟돐에 즈음하여 알제리에서 《웰남인민과의 련대성주간》을 시작하는 모임을 조직하였다. 한편 남부웰남청년 및 인민들과의 국제련대성위원회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미제침략자들을 규탄하고 영웅적웰남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알제리정부는 1969년부터 만 19세되는 전체 남녀 청년들을 1년간씩 의무적으로 《국가복무제》에 참가시킴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군비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혁명리사회】 최고주권기관이다.

【정부】 수상겸 국방상 후아리 부메디엔 (1965년 7월—)

【정당, 사회단체】 민족해방전선당(유일당이며 집권당) 1954년에 창건되였다. 근로자총동맹, 민족해방전선청년단체, 전국녀성동맹.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8년 9월 25일 우리 나라와 알제리간에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에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 (11월)과 사로청대표단(11월)이 알제리를 방문하였으며 알제리로부터는 알제리정부대표단(9월), 알제리근로자총동맹 대표단(9월), 알제리청년대표단(9월), 알제리녀성대표단(9월), 알제리공보성대표단(8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알제리는 유엔총회 제23차 회의에서 미제와 그추종국가들이조작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안》에 반대투표하였다.

유엔총회에서 알제리대표는 미제의 침략과 새전쟁도발책동을 폭로규탄하는 강한 연설을 하였다.

경제, 사회 알제리의 기본경제부문은 채취공업과 농업이다. 알제리는 독립직후에 프랑스식민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의 토지 300만헥터를 국유화하여 빈농과 고농들로 구성된 《자치관리위원회》에 넘겨 농민들이 경작하도록 하였다.

1963년에 알제리정부는 외래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45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한것을 비롯하여 해마다 국유화조치를 취하였으며 1968년에도 외래독점체 소유의 공장, 기업소

59개를 국유화하였다. 이리하여 국가통제하의 공업부문은 전국공업기업소의 80%를 차지하게 되였다. 1966년 6월에는 전국은행을 창설하였으며 미국, 영국, 이딸리아 등 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13개의 외국 보험회사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알제리국가보험회사를 창설하였다.

알제리는 1967년부터 3개년 경제계획을 실시하고있다.

알제리에서는 주민의 절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파종면적은 약 310만헥터이다.

정부는 1968년에 알제리 총장비예산의 16.6%에 해당하는 자금을 농업분야에 돌렸으며 농업성의 행정예산을 1967년에 비하여 25.7%나 더 증가시켰다. 포도를 비롯한 과수업과 남새재배업이 발전하였는바 그것은 농업총생산액의 43%에 해당하고있다. 특히 포도재배면적은 40만헥터이며 1968년에 1천 400만헥터리터의 포도주를 생산하였다.

정부는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조성한 방대한 포도원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알곡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과수, 남새, 유지작물과 축산업을 발전시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첫 조치로서 1967년에 34만헥터의 포도원을 알곡생산기지로 바꾸었다.

알제리의 주요공예작물은 담배, 목화, 사탕무우, 올리브, 해바라기 등이다.

1968년에 사탕무우는 7만 5천 658톤 생산하였으며 올리브기름은 약 1만톤을 수출하였다.

정부는 축산업발전에도 힘을 돌리고있는바 1962년에 면양이 300만마리였다면 1967년에는 600만마리에 이르렀다.

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채취공업이다. 채취공업제품은 국내공업 총생산액의 70%를 차지하고있으며 그중에서도 원유는 공업총생산액의 50%를 차지한다.

원유는 약 40억 8천만톤, 천연가스는 2조립방메터, 쇠돌은 약 10억톤이상 매장되여있다.

1968년에 원유는 4천만톤 생산되였다.

1967년에 쇠돌은 300만톤이 수출되였으며 연, 아연, 동은 3만톤 수출되였다.

광업분야에서 1968년의 수출액은 1억 4천 500만디나르에 달하였다.

독립후 알제리정부는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통제를 실시하면서 국가가 일체 식료품, 금속공업제품 등의 수출입을 장악하였다.

대외무역에서 프랑스에 대한 의존성을 점차 버리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을 확대하였다.

알제리 수출품의 약 90%이상이 농업 및 광업 원료이며 수입품의 약 70%가 기계설비와 자동차를 포함한 공업상품이다.

주요수출상품은 원유, 가스, 포도주, 귤, 올리브, 쇠돌, 가죽, 남새 등이다.

독립후 알제리정부는 민족간부양성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있다. 1968년도에는 국가예산의 25%에 해당하는 9억 470만디나르를 교육부문에 배당하였다.

1962년 초등학교 학생수가 66만명이였다면 1968년에는 165만명으로, 중등학교 학생수는 3만 5천명으로부터 18만 5천명으로, 대학생수는 600명으로부터 1만 2천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정부는 고등교육부문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고있다.

알제리는 교육의 《아랍화》와 《민주화》방침을 제시하고 교원양성 특히 아랍어 교원양성사업을 강화하고있으며 학령아동의 취학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문맹퇴치사업을 체계적으로 벌리고있다.

1966년말 현재 의사수는 1천 732명이였으며 침대수는 4만 3천개였다.

주민의 대다수가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알제리통신사(아 빼 에스)

신문 엘 무쟈히드 (당정부기관지), 레볼류시옹아프리캐(민족해방전선당 기관지).

기 네

(기네공화국)

기네는 서아프리카에 있으며 뽀르뚜갈령기네, 세네갈, 말리, 상아해안, 리베리아, 시에라레온과 접경하고있다. 년평균기온은 20~28°C이며 제일 더운때는 4월이다. 년평균강우량은 3천~4천미리메터이다.

【면적】 27만 5,000km²

【인구】 400만명 (1966년현재)

주민은 풀베족(약 40%), 만딩그족(약 25%), 수수족(약 14%) 등으로 이루어졌다. 널리 사용되고있는 언어는 풀베어와 수수어이며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꼬나크리(주민 20여만명, 1966년)

정 치

1848년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온 기네는 1895년에 프랑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885—1887년기간에 기네인민들은 민족적영웅 사모리 투레의 지도하에 프랑스침략군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렸으며 1900년과 1908년에 대중적인 반프랑스투쟁을 세차게 벌렸다.

제2차대전후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기네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강화되자 1957년에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해외령지 《기본법》을 조작하고 기네에 《반자치공화국》의 지위를 줌으로써 기네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해보려고 책동하였으나 기네인민들은 세쿠 투레의 지도하에 식민주의자들의 흉책을 분쇄하고 1958년 10월 2일 기네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11월 2일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였다.

1963년 기네정부는 아프리카독립국가 수뇌자회의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전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기금》의 설립을 제의하였으며 이 회의결정에 따라 이해 8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

1964년 11월 8일 세쿠 투레대통령은 당, 국가 및 사회생활분

야에서 중요한 개혁을 예견한 《기네민주당의 투쟁강령》을 제시하였다.

1965년 11월 22일 기네정부는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반정부사건을 조작한것과 관련하여 프랑스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7년 1월 27일 기네전국혁명리사회는 군사복무와 민병을 조직하며 《혁명수호위원회》를 창설할것을 결정하였다.

1968년 1월 1일 기네에서는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는 아호메드 세쿠 투레를 기네공화국 대통령으로, 75명을 민족회의 의원으로 선거하였다.

1월에 열린 아프리카통일기구 해방위원회 제12차회의에서 연설한 세쿠 투레는 자기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효과적원조를 주기 위해 아프리카나라들이 통일전선을 형성할것을 호소하였다.

1월말에 진행된 기네전국녀성대회에서는 제국주의와 국내반동들을 반대하여 싸울 기네녀성들의 결의를 담은 결정을 채택하였다.

2월중순 기네민병들과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으로 기네정부를 전복할 목적밑에 국경선을 넘어온 무장한 반혁명분자 약 500명을 체포하였다. 기네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기네에서 파괴활동을 감행하려는 반혁명분자들이 자국령토를 리용하지 못하도록 할것을 린접나라들의 정부와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3월 8일 기네아프리카민주혁명청년대회에 참가한 청년대표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해방을 위해 싸우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2월 초에 기네의 여러 도시들에서 국가기관, 당, 사회단체 열성자 및 군대간부들의 회의가 있었다. 꼬나크리시 열성자회의에서 세쿠 투레는 제국주의와 반동분자들을 반대하여 싸우기 위하여 군대와 민병대렬을 꾸리며 인민들의 통일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아호메드 세쿠 투레(1968년 1월 1일 재선)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집권당이며 유일당) 1947년 5월 14일《아프리카련맹》의 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58년 11월 19일에 독립적인 정당으로 발족하였다. 총비서 세쿠 투레. 전국근로자련맹, 아프리카민주혁명청년, 전국녀성위원회.

【우리 나라와의 관계】 기네는 1958년 10월 8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1년 6월에 우리 나라와 기네공화국간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1968년 4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또한 7월 30일 우리 나라와 기네공화국간에 1968—1969년도 문화교류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조인되였다.

두 나라간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반제반미투쟁에서 호상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968년에 대표단의 래왕도 더욱 많았다.

9월 25일—10월 15일간에 기네공화국 독립 10주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녀성대표단(1월—2월), 직맹대표단(4월—5월)이 각각 기네를 친선방문하였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 경축행사에 참가할 기네공화국정부대표단(9—10월), 정부경제대표단(4월), 기네공화국 외무담당국무비서(6월), 군사대표단(8월), 기네전국근로자련맹대표단, 기네민주당 녀성대표단(9—10월)이 각각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기네정부는 1968년도를 《농업생산발전의 해》로 규정하고 전체 인민을 농산물증산투쟁에로 불러일으키였다.

주민의 90%가 농사를 함으로써 농업이 경제의 기본으로 되고 있는 기네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확대, 농경지와 관개시설의 확장, 농업기술일군양성, 특히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였던 단작화(차, 바나나)를 퇴치하고 다각화에 력량을 집중한 결과 주요농산물인 벼, 야자, 바나나, 커피, 조, 강냉이, 파인애플, 락화생생산을 증대시켰다.

또한 민족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도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식민주의자들의 통치시기에 성냥하나 제손으로 만들지 못하던 기네인민은 자기의 힘으로 세멘트공장, 사탕공장, 통졸임공장, 육류가공공장 방직공장(년 2천 200만메터생산)등 수십개의 공장을 건설하였다.

늘어나는 나라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니콘에 수력발전소 (3천 200키로와트)를 건설하였다. 기네의 년 총수력발전량은 1958년에 2천만키로와트시로 부터 1966년에는 2억키로와트시로 장성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철, 보크사이트(매장량에서 세계 제1위), 금, 금강석, 망간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파인애플, 차, 종려, 보크사이트, 금강석 등이며 수입품은 공업제품이다.

독립전에 기네는 불과 몇개의 학교밖에 없었으나 1968년에 소학교수는 1천 600여개로 늘었으며 여기에서 4천여명의 교원들이 15만명의 어린이들을 공부시키였다. 252개의 중학교들에서는 3만 6천명의 학생들이 공부하였다. 독립전에는 하나의 대학도 없었는데 1968년에는 3개의 대학에서 많은 민족간부를 길러내였다.

주민의 95%가 문맹자인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기네민주당 8차대회가 제시한 1970년까지 문맹을 퇴치할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1968년에 기네정부는 사회사업성에 새로 전국문맹퇴치국을 만들었으며 민주당의 초급당위원회들에 문맹퇴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였다.

보건부문에서도 전진을 가져왔는바 1967년의 침대수는 1958년의 1천 903대로부터 6천 860대로 늘었다.

원주민의 90%이상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 신문 호로야 (민주당기관지).

말 리

(말리공화국)

말리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서 기네, 상아해안, 상부볼따, 모리따니, 세네갈, 니제르, 알제리와 접하고있다. 북쪽사막지대의 강우량은 100미리메터, 기타 지역은 700미리메터 내외이다. 년평균기온은 35°C인데 4—5월에는 60°C까지 오른다.

【면적】 120만 4,021km²

【인구】 465만 4,000명(1966년 현재)

밤바라족, 뻴족, 뚜아레족, 도공족, 프리니족, 마르카족, 송가이족, 마링케족 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민족어인 말링케어도 많이 쓰고있다.

【수도】 바마코(주민 15만명)

정 치 말리는 1895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고 1904년에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 통합되였다. 1956년에 《반자치제》가 실시되였고 1958년 11월 24일 《반자치공화국》으로 되였다.

1959년 4월에 세네갈과 통합하여 말리련방을 형성하였으며 1960년 6월 20일 《프랑스 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60년 8월 20일 세네갈이 련방에서 떨어져나감으로써 말리련방은 해체되였으며 1960년 9월 22일 수단민족회의는 나라이름을 말리로 고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전에는 수단이라고 하였음)

독립후 말리는 프랑스와 맺은 모든 협정을 끊고 1961년 2월 11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떨어져나왔다. 또한 식민지경제기구를 철폐하고 1961년 9월까지 말리에 있던 프랑스침략군대와 관리들을 쫓아냈으며 프랑스의 군사기지들을 철수시켰다.

1965년 6월 27일 말리민족회의는 대상인들의 활동을 제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12월 16일 말리는 남로데시아의 스미스도당을 지지하는 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6년 수단련맹당 정치위원회는 모디보 케이타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국혁명수호위원회를 결성하였다.

1967년 8월 22일 수단련맹당 정치위원회를 해산하였고 1968년 1월 16일에는 민족회의를 해산하고 림법대표단을 구성하였다.

1968년 5월말에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농촌경리의 협동화문제에 관한 전국적인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1968년 11월 19일 모디보케이타정권은 군사정변에 의하여 전복되고 민족해방군사위원회와 림시정부가 수립되였다.

【민족회의】 1964년 4월 12일에 선거된 민족회의는 1968년 1월 16일에 새로운 민족회의가 선거될때까지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림법대표단을 구성하였다.

【정부】 대통령 요로 디아끼떼 (1968년 11월 23일—)

【정당, 사회단체】 수단련맹당 1946년 10월 《아프리카민주련맹》의 지부로 창설, 1948년 수단련맹당으로 발족됨. 1959년말에 아프리카독립당수단지부와 합당. **말리전국로동자련맹, 수단청년동맹, 수단민주녀성동맹.**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10월 31일 말리공화국은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1년 7월 5일 바마코에서 우리 나라와 말리공화국간에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965년 10월 21일 바마코에서 우리 나라와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련락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966년 8월 25일 바마코에서 우리 나라의 원조로 건설된 도자기공장 조업과 관련한 최종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6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스무돐기념 경축행사에 말리공화국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 농업과 목축업을 기본으로하는 농업국가이다. 인구의 95%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있다. 말리의 경지면적은 3천만헥터이다. 농업과 목축업은 국민총생산액의 70%를 차지한다. 농업은 세네갈강과 니제르강 골짜기들에서 발전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기장, 조, 벼, 강냉이, 고구마, 마니오크 등이다. 이러한 작물의 파종면적은 총파종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한다. 이밖에도 목화와 락화생이 잘된다. 목축업은 북부의초원지대에서 발전하고있다. 양, 염소, 말 등 집짐승마리수에 있어서 서아프리카 나라들중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수출품은 락화생, 쌀, 목화, 집짐승과 기타 축산제품이다.

말리에는 금, 철, 린산염, 망간, 주석, 연, 보크사이트 등 지하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다.

망간광의 큰 산지가 탐사되였으며 바마코 근처에서 보크사이트 매장지가 발견되였다.

독립후 말리는 비누공장, 주단공장, 통졸임공장 (2개), 랭동도살장, 화강암가공공장(2개), 담배공장, 벽돌공장, 정미소, 수력발전소, 도자기공장, 사탕공장 성냥공장, 직조직장을 새로 건설하였다.

1968년에는 방직공장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세멘트공장과 농업에 요구되는 린산염가공공장이 건설되고있다. 독립당시 하나의 중학교도, 전문적인 고등교육기관도 없었으며 주민의 98%가 문맹자였다. 독립후 근 20개의 중학교와 대학들이 개교되였으며 1966—1967학년도의 중학생수는 19만 8천 646명에 달하였다. 1968년도 초등교육분야의 학생수는 18만 5천 977명이였으며 6만여명의 성인들이 새로 문맹을 퇴치하였다. 독립후 1968년 9월 현재로 보건분야에서는 의사, 약제사, 조산원들을 포함한 1천 678명의 의료일군들이 양성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말리통신사 (일간불레찐발간)

신문 에쏘르(민족해방군사위원회 기관지), 바라껠라(말리전국로동자련맹기관지).

우 간 다

(우간다공화국)

동부아프리카의 고원지대에 위치하고있으며 수단, 케니아, 탄자니아, 꽁고(킨), 루안다와 국경을 접하고있다. 적도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1.5°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900~1천 500미리메터이다.

【면적】 24만 3,410km²

【인구】 746만 4,000명 (1964년 현재)

주민은 아프리카인 (99%), 인도인, 파키스탄인, 아랍인, 구라파인으로 이루어졌다. 언어는 영어이나 스와힐리어도 쓴다.

【수도】 캄팔라 (주민 12만명)

정 치 1894년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은 부간다왕국(우간다가 3개의 왕국으로 되여있음)을 강점하였으며 1896년에는 우간다의 전령토를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으로 1962년 3월 1일 내부자치정부가 세워지고 이해 10월 9일에는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3년 9월 민족회의에서 영국총독놈을 우간다인 대통령으로 바꾸었으며 국가의 중요한 직위에서 영국놈들을 몰아내고 아프리카인으로 바꾸는 《아프리카인화》정책을 제기하였다.

1966년 4월 15일에 채택된 새 헌법에 따라 련방을 이루고있던 우간다는 단일국가로 되였다.

1967년 9월에는 공화국을 선포하고 부간다, 분요로, 앙꼴레, 토로의 세습왕국을 철폐하는 헌법을 채택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주의를 제지하였다.

1968년 1월 18일 우간다국방상은 공과대학생들앞에서 한 신식민주의를 폭로하는 강의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신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나라들을 전복하고 파괴정권을 조작하기 위한 파괴책동을 하고있다고 폭로하고 신식민주의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5월 16일 대통령은 남로데시아의 스미스인종주의도당을 돕고있는 영제국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을 규탄하면서 남로데시아문제는 아프리카인들 자신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말하였다.

8월 17일 우간다의 싸우는 웰남인민과의 련대성 지지위원회가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는 우간다인민은 웰남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다고 지적하고 미제의 웰남침략정책을 단호히 규탄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아폴로 밀톤 오보테 (1966년 4월—)

【정당, 사회단체】 인민대회당(집당권), 우간다민주당, 카바카예카당, 우간다국민대회당, 련합민주당, 아프리카련맹, 로동련맹, 인민대회당청년조직, 녀성동맹.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3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우간다공화국간에 외교관계가 맺어졌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인데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약 60%이며 대외수출에서 농산물은 90%(농산물중 커피와 목화가 88%)를 차지한다.

주민의 90~94%가 농업과 목축업을 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기장, 수수, 콩, 락화생, 마니오크, 강냉이, 벼, 감자 등이다.

집짐승으로는 양, 염소 등을 기른다.

지하자원으로는 동, 텅그스텐, 주석, 금, 은, 린회석, 망간, 코발트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으나 동과 주석밖에 캐내지 못하고있다.

정부는 1966년 7월부터 제2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에 착수하였다.

1967년에 전력생산량은 1966년에 비하여 10.9%나 장성한 7억 400만키로와트를 생산하였으며 1967년의 사탕은 전해에 비하여 1만톤이나 더많은 13만 5천 245톤을 생산하였다.

정부는 1968년에 국가예산의 27~29%를 교육부문에 돌리고있다. 학령아동의 66%가 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

아 련

(아랍련합공화국)

아련은 아프리카대륙 동북단에 있으며 지중해와 홍해에 면하여있다. 서부국경지대에는 리비아산맥이 펼쳐져있고 동부에는 나일강이 있다. 아련은 열대성기후이고 약 96%의 지역이 사막지대이기때문에 나일강은 아련인민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일강하구 동쪽에는 수에즈운하가 있다. 나일강 상류지방의 년평균기온은 26.5°C이다. 이 나라 년평균강수량은 65미리메터이다.

【면적】 100만 2,000km²

【인구】 3,180만명(1968년 7월 1일 현재)

인구의 90%가 아랍인이고 기타 베트베르족 등 소수민족이 있다. 언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까히라(주민 421만 9,853명, 1966년)

정 치 애급은 1517년에 토이기의 침략을 받아 19세기초까지 오로만제국의 한개 주로 예속되여있었다.

1869년에 수에즈운하가 완공되자 영국과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애급을 자기들에게 예속시키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였다. 영국제국주의자들은 1882년에 반영폭동을 구실로하여 까히라를 무력으로 강점하였다.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토이기가 교전국이라는 구실로 1914년 12월 8일에 애급을 《보호국》으로 선포하였다.

애급인민들의 반영투쟁의 결과 1922년 2월 애급은 독립왕국으로 되였다. 1936년 8월 영제국주의

자들은 애급왕국에 《영—애20년 동맹조약》을 강요하여 수에즈운하지대에서의 군대주둔권을 차지하였다.

1952년 7월 23일 애급인민들은 나쎄르의 지도밑에 친영파르크왕조를 전복하고 1953년 6월 18일 애급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6년 6월 23일 애급인민들은 가말 아브델 나쎄르를 대통령으로 선거하였으며 애급땅에서 영제국주의침략군을 최종적으로 몰아냄으로써 같은해 6월 18일 애급에 대한 70년간에 걸친 영국식민주의자들의 군사적강점을 끝장냈다.

1956년 7월 26일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이 발표되자 이해 10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침략자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애급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으나 애급인민들은 이를 물리치고 민족적독립을 수호하였다.

1962년 5월 21일—7월 14일에 있은 《인민력량전국대회》는 《민족행동헌장》을 채택하였으며 《아랍사회주의동맹》을 창건할것을 승인하였다.

1964년 3월 민족회의 선거가 실시되였으며 민족회의는 림시헌법을 채택하였다. 헌법에서는 아랍련합공화국을 《근로인민력량의 동맹에 기초한 민주주의적사회주의국가》로 규정하였다.

1965년 5월 아련정부는 서독군국주의자들이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에게 군사적원조를 주면서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설정한데 항의하여 그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7년 6월 5일 미제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전쟁을 불의에 도발케하였다. 결과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은 아련의 시나이반도와 서부요르단 그리고 수리아의 고산지대의 일부를 강점하였다.

6월 7일 아련정부는 미제와 외교관계를 끊고 미국놈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놈들을 내쫓았으며 아련에서 미국영화상영을 금지시켰다.

아련은 6월 9일에 정화에 동의하였다.

나쎄르대통령은 《3월 30일 강령》을 발표하여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이 강점한 아랍땅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대중과 나라의 군사, 정치 및 정신적예비를 동원할것을 제기하였다. 5월 2일 아랍련합공화국은 이 《3월 30일 강령》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찬성을 받았다.

9월 15일에 아랍사회주의동맹 전국대회는 정치 및 군사적동원문제를 토의하고 이스라엘을 타승할때까지 인내성을 발휘할것을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아련정부는 9월말에 전쟁에 대처하여 도시소개사업을 추진하며 각종민간방위 및 민간항쟁운동계획들을 검토하였다.

10월 10일 나쎄르대통령은 아랍사회주의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에 강점된 모든 령토들을 무력으로써 도로 찾아야한다고 강조하였으며 11월에는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처하여 아련에 완전한 공중방위망이 포치되고있다고 언명하고 아련이 요르단령토에서 진행되는 팔레스티나항쟁투사들의 작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명하였다. 아랍련합공화국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증대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11월 중순에 인민방위군을 조직하였다. 12월 4일 나쎄르대통령은 매개 아랍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따로따로 협상할데 대한 미제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격하고 아랍령토들을 해방하려는 아련인민들의 결의를 강조하였으며 10월 10일 아련외상 리아드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에 대한 미제의 무기공급을 신랄히 규탄하고 미제가 중동평화회복을 방해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가말 아브델 나쎄르(1965년 3월 15일에 선거, 1967년 6월 19일 내각개조 이후부터 수상을 겸임)

【정당, 사회단체】 1953년 1월에 발표된 정당금지법에 의하여 일체 야당의 활동은 금지되여 있다. **아랍사회주의동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62년 7월 인민력량전국대회의 결정에 따라 민족련맹이 해산되고 아랍사회주의동맹이 조직되였다. 위원장 가말 아브델 나쎄르. **로동총련맹, 사회주의청년조직.**

【우리 나라와의 관계】 아련은 1957년 12월에 우리 나라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1961년 7월에는 령사관계를, 1963년 8월 24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 경축행사에 아랍련합공화국 정부대표단, 로조대표단, 공보대표단 등이 참가하였으며 10월에는 아련친선문화대표단, 아련기자대표단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9월에 영화대표단이 아련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아련정부는 공업의 국유화를 통하여 이미 형성된 자본에 의거하여 경제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외세의 정치, 경제적 압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있다.

1965년에 전력은 50억키로와트시, 원유는 712만톤, 쇠돌은 50만 7천톤을 생산하였다.

아련에서는 강철생산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1955년 강철생산량이 10만톤에 불과하였다면 1965년에는 3배나 되는 30만톤의 강철이 생산되였다. 현재 아련의 헬루안시에 대규모의 종합야금공장이 건설되고있는데 이 공장이 1970년에 완공되면 매년 150만톤의 강철이 생산된다. 석유생산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1968—1969회계년도에 총예산액 20억 700만애급파운드중 많은 몫이 국가경제 부문의 발전에 돌려지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되는 대상들에 의해서만도 국민소득을 5%이상 장성시킬것을 계획하고있다.

농업분야에서도 커다란 발전이 이룩되였다. 이 나라 농업발전에서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아스완

댐 공사는 이미 1964년 5월에 제1단계 공사를 끝냈으며 제2단계 공사도 마감단계에 있다.

1952년 9월에 채택된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토지소유는 최고 200페단(1페단은 0.42헥터)까지로 제한하였으며 1961년 7월에는 100페단까지 제한하였다. 토지개혁에 의하여 87만 5천 44페단(1964년 현재)이 몰수되였으며 69만 6천 380페단(1966년 현재)이 분배되였다. 총인구의 60%이상이 농민이며 한농호의 경지면적은 평균 0.8헥터이다. 경지는 약 350만헥터이다. 실지 경작면적은 260만헥터, 파종면적은 460만헥터(거의 모든 곳에서 1년에 2~3회 수확)이다. 주요농작물은 목화, 벼, 강냉이, 과실, 밀 등이다. 목화파종면적은 총경지면적의 30%이상이며 농업총생산액에서 30~35%를 차지한다.

1968년에는 1페단에서 234키로그람의 목화를 생산하였다. 또한 1968년에 전국적으로 약 250만톤의 쌀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1966년에 비하여 50만톤이나 늘어난 것으로 된다.

아련의 주요수출품은 농산물(목화, 락화생, 벼 등)과 면직물, 원유, 다이야,사탕 등이다.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목화 (수출액의 약 70%)이다.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흑색금속, 석탄, 콕스,종이 및 밀 등이다.

아련에서는 초등의무교육제와 일부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제가 실시되고있다. 회교가 국교임으로 학교교육에서는 회교를 기본과목으로 정하고있으며 까히라에 세계최대의 회교대학이 있다. 주민의 약 91%가 회교도이다.

1965—1966학년도에 초등학교 학생수는 341만 7천 753명, 중학교학생수는 60만 950명,고등학교 학생수는 31만 195명,기술학교학생수는 4만 9천 448명, 대학생수는 14만 143명이다.

1966년에 병원과 진료소는 3천 459개, 침대수는 6만 6천 862개였다. 1968년말 아련에서는 주민 2천명에 의사 1명이 차례지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중근동통신사(멘통신)

신문 알 굼후리아, 알아흐람, 알 메싸, 알 아흐마르, 에집숀 가제트

모리따니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모리따니는 서부아프리카나라로서 사하라사막 서부에 자리잡고있으며 에스빠냐령 사하라, 알제리, 말리, 세네갈과 린접하고 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사막과 반사막지대이다. 년평균기온은 25°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200~600미리메터정도이다.

【면적】 116만 9,000km²

【인구】 120만명(1967년 현재)

주민의 75%는 아랍인들과 혼혈한 베르베르족이며 나머지는 흑인종이다. 국어는 아랍어이며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누아크 쇼트(주민 8,000명, 1964년)

정 치

모리따니는 15세기부터 뽀르뚜갈 및 영국과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았으며 1920년에 와서 프랑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모리따니인민들의 투쟁의 결과 1958년 11월 모리따니는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60년 11월 28일에 독립하였다.

1968년 1월 누아크 쇼트에서 모리따니인민당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는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웰남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결의는 또한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침략후과를 가시기 위한 아랍인민들의 투쟁과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기네 애국자들의 투쟁, 그리고 남아프리카와 남로데시아의 인종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과 지지를 표시하였다.

6월 8일 내각회의에서 모리따니정부는 미제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과 뽀르뚜갈 및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과 일체 경제관계를 끊을데 대한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10월에는 모리따니민족회의가 제국주의자들,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과의 그 어떤 무역도 금지하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모리따니정부는 대내적으로 식민지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자주》, 《민족경제건설》 정책을 실시하며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지지하며 자유애호나라들과 특히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민족회의】 립법기관으로서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1968년 1월 30일 재선)

【정당, 사회단체】 1965년 2월에 유일당제법안을 채택하였다.

모리따니인민당 1961년에 창건, 집권당이며 유일당이다. 당원수 약 14만 4천명. **전국근로자련맹,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1968년 4월 11일 창설. 위원장 모하메드 울드 디알리.

【우리 나라와의 관계】 모리따니는 1964년 11월 12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남조선괴뢰도당과의 외교관계를 주동적으로 끊었다.

1965년 9월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1967년 10월에 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협정을 각각 맺었다.

1968년 4월 11일 모리따니수도 누아크 쇼트에서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결성대회에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6월 29일에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꼬나크리에서 진행된 기네에서 공부하고있는 모리따니 학생들의 집

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을 경축하기 위하여 모리따니조선 친선 협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모리따니회교공화국 국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모리따니는 농목축업국가로서 경제에서 축산업(주민의 70%이상이 종사)이 기본이다. 주로 면양, 염소(1959년에 800만마리), 소(125만마리), 락타 (50만마리) 등을 기르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수수, 쌀, 보리, 콩, 기장, 남새 등이며 대추, 야자, 아라비아고무도 생산한다.

지하자원으로는 철함유량이 65%인 쇠돌(1968년에 780만톤생산, 매장량 2억톤)과 동, 크롬광, 주석, 바나듐, 니켈, 원유 등이 있으나 개발권은 제국주의독점체들이 차지하고있다. 모리따니정부는 최근년간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없애고 자립경제로선을 제기하고 자체의 기술과 원료로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모리따니는 물고기도 많이(년 25~30만톤) 잡는다. 최근년간 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항만과 물고기잡이 시설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있다.

모리따니는 1960년도에 이 나라에 몇개의 초등학교에서 약 2천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었을 뿐이였고 중학교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1968년도에는 235개의 초등학교와 11개의 중학교들에서 2만 5천여명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였다. 또한 교원들의 100%가 모리따니사람으로 교체되였으며 사범전문학교들에서 해마다 많은 민족교육일군들을 키우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도이다.

꽁 고(브)

(꽁고공화국)

중부아프리카에 있는 꽁고는 가봉, 까메룬, 중앙아프리카, 꽁고(킨)와 접경하고있다. 꽁고(브)의 서남부는 대서양에 면하고있다. 년평균기온은 22~27°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1천~1천600미리메터이다.

【면적】 34만 2,000km²

【인구】 110만명(1965년 현재)

주민은 반트족을 비롯한 여러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고 민족어로는 꽁고어, 크리어, 트크어 등이 있다.

【수도】 브라자빌(주민 13만 5,600명)

정 치 꽁고는 반트족이 형성한 왕국이였다. 꽁고는 1875년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아오다가 1880년 9월에 프랑스《보호령》으로 되였으며 1910년에는 프랑스령적도아프리카에 편입되여 《중앙꽁고》라고 불렀다.

꽁고인민들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통치를 반대하여 오랜기간 투쟁하였다. 특히 꽁고의 민족적영웅 마조카의 지도하에 1934년부터 9년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을 벌려왔다.

1958년 11월에 꽁고는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면서 《꽁고공화국》으로 불리게 되였다.

꽁고는 1960년 8월 15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풀베르 율루괴뢰정부를 꾸미여 꽁고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식민주의정책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1963년 8월 애국적인 인민들은 대중적인 파업과 폭동을 일으켜 율루반동정부를 타도하고 8월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다.

1968년 1월에 꽁고(브) 민족회의는 모든 은행, 회사, 기업소 및 기관들의 간부들을 아프리카인들로 교체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7월부터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에 의한 정변의 위험성이 조성되자 8월초에 군부가 정변을 일으키고 전국혁명리사회를 조직한후 헌법을 페지하고 모든 권력을 전국혁명리사회에 집중시켰다.

9월에 전국혁명리사회는 마쌈바 데바대통령의 사임을 접수하고 내각을 개조하였다 (12월에 다시 개조)

또한 혁명리사회는 8월에 해산하였던 로조단체, 청년단체, 녀성단체들을 지도할 림시기관인 로조련맹전국 집행위원회, 민족혁명운동청년조직전국집행위원회, 혁명녀성동맹 전국집행위원회 등을 창설하였다.

9월 9일에 꽁고(브) 정부는 꽁고(킨)의 모부투도당이 그 나라 혁명운동지도자의 한사람인 물렐레를 사형한것과 관련하여 꽁고(킨)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2월 21일 꽁고(브)정부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창건 8주년에 즈음하여 남부웰남인민들에 대한 련대성군중대회를 조직하여 웰남인민들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꽁고(브)인민은 《자력에 의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자》라는 구호를 내세우고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의 침략과 파괴책동으로부터 민족적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방건설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있고 종족들간의 화목과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전국혁명리사회】 나라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정부】 수상겸 계획 및 관리상 알프레드 라울(1968년 12월—)

【정당】 **민족혁명운동당** 1964년 7월 2일에 창건, 집권당이며 유일당이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에는 두나라간에 과학기술협조협정과 무역 및 지불협정 그리고 우리 나라가 꽁고에 경제 및 기술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이 맺어졌다.

1966년 12월 16일에 문화협정이, 1967년 3월 22일에 통신 및 방송협정이, 9월 21일에는 우편물교환협정이 각각 맺어졌다.

1968년 9월에 꽁고(브) 혁명승리 5주년기념행사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또한 꽁고로부터는 정부대표단(9월), 기자대표단(6월)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꽁고는 농업과 림업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로서 주민의 4분의 3이 이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땅콩, 마니오크(감자의 일종), 기장, 수수, 바나나, 벼, 커피, 코코아, 사탕수수 등이다.

꽁고정부는 나라의 농업발전에 커다란 주목을 돌려왔다. 정부는 혁명승리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비롯한 착취배놈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을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한편 농업협동조합들을 무어 여기에 농민들을 점차적으로 인입시켰다.

새로 창설된 협동조합들은 국가적지원 특히 많은 재정적지원을 받아 날로 공고화되여가고있다.

집권당인 꽁고민족혁명운동당은 《청년들은 농촌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농촌에서 《청년협동마을》들을 조직하며 《농업부흥봉사단》을 농촌에 파견하여 농민들 속에서 정치선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농민들은 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있다. 주요농산물인 마니오크, 기장, 수수 등의 수확고는 해마다 늘어나고있는바 1967년에 마니오크는 80만톤이나 생산되였다.

또한 농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이 꽁고에서는 잘되지 않는다고 말해오던 커피, 사탕수수도 재배하고있는데 1967년에는 벼와 커피를 각각 1천 200톤씩 생산하였으며 앞으로 이 경험에 기초하여 이 작물들을 보다 더 대대적으로 심을것을 계획하고있다.

산림은 전국면적의 58.5%를 차지하고있으며 목재생산량은 40만립방메터이다.

지하자원은 풍부하나 아직 전면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현재 채굴하고있는 주요한 자원은 금, 연, 주석, 동, 소금,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이다.

1968년에 자나가지역에서 4억톤이상의 매장량을 가진 큰 철광산지가 새로 발견되였다. 기업소는 국영기업, 합영기업 및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혁명후 정부와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적극 개발하며 나라의 경제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에 직접 복무하는 새 기업소들을 짓는데 많은 힘을 돌리고있으며 외국회사들을 점차 국유화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국영기업소 건설에 많은 힘이 기울여진 결과 1968년에 총 발전능력 75만키로와트에 달하는 《쿠이루강 땜》이 새로 건설되였고 뽀앙뜨누아르시에는 야금공장들이 일떠섰고 《쏘쑥니아라》 사탕공장과 《싸브꽁고》 비누공장 등 일련의 공장들이 건설되였다.

1968년의 총생산액은 381억 아프리카프랑에 달할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는 1963년에 비해 132억프랑이 더 장성하는것으로 된다.

주요수출품은 목재(수출의 60%) 땅콩, 코코아, 커피, 연광 등이며 수입품은 기계류, 식량, 소비품 등이다.

정부는 민족교육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을 돌리고 있다. 독립후 1967년말까지의 기간에 학교수와 학생수가 2배로 늘어났으며 각급 학교들에서 20만 1천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1968—1969 학년도에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20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초등학교에 갈 나이에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고있다. 고등학교교육기관으로서는 브라자빌종합대학과 고등사범학교가 있다.

민족교육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들에 기초하여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의 과반수가 배물교를 믿으며 기독교, 이스람교도 믿고 있다.

【출판보도】 **통신** 꽁고(브)통신 **신문** 에뚜바 (민족혁명운동당기관지), 디팡다, 브라자빌신문.

가 나

(가나공화국)

서아프리카의 상아해안과 또고 사이에 있으며 기네만에 면하여 있다. 기후는 열대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해안과 중부산림지대에서 22~23°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1천~2천미리메터이다.

【면적】 23만 7,800km²

【인구】 880만 3,000명(1969년 8월 현재)

주민의 대부분이 아산티족, 에웨족 등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아크라 (주민 39만명)

정 치 15세기말부터 화란, 뽀르뚜갈 등 서방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아온 황금해안은 1844년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가나인민들은 민족적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1807—1901년기간에 여덟차례에 걸치는 대중적인 반영투쟁을 벌렸으며 1948년에는 영국상품배격투쟁을 1개월간이나 벌렸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1954년 4월 자치국으로 되였고 1957년 3월 6일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고 종전의 나라 이름인 황금해안을 가나로 고쳤으며 영제국주의자들의 후견령이던 서부또고를 가나에 편입시켰다.

1960년 4월 헌법을 채택하고 7월 1일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느크루마가 초대대통령으로 되였다.

1960년 12월 가나는 기네, 말리와 함께 《아프리카국가동맹》을 형성하였으며 1961년에는 영국놈 장교들을 몰아내고 군대에 대한 자치권을 장악하였다.

1966년 2월 24일에 가나의 일부군대와 경찰이 대통령의 외국려행중에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쥐였으며 정부와 민족회의 및 인민대회당을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하였다. 또한 대통령 부재시에 활동하는 최고집권기관인 대통령

리사회를 해산하고 《민족해방리사회》를 선포하였다.

1968년 9월에 가나에 있는 영제국주의독점체의 보험회사 《가디언 에슈런스》에서 일하는 가나근로자들이 가혹한 착취와 인종차별조치에 항의하여 파업을 벌려 영제국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정부】 1966년 2월 24일에 7명으로 구성된 《민족해방리사회》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의장 조세프 안크라

【정당】 《민족해방리사회》는 1966년 3월 1일에 모든 정당을 해산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8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주민의 3분의 2이상이 농사를 하고 있다. 농업은 영제국주의자들이 코코아 생산만을 위주로하는 단작경리를 강요한 결과 기형적으로 발전하였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바나나 락화생, 강냉이, 수수, 커피, 야자, 생고무 등이다.

산림면적은 1천 370만헥터에 달하며 가나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가나의 주요광물은 금, 금강석 망간, 보크사이트이며 이밖에 석회석, 화강석, 석탄, 알루미니움, 석유 등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 망간, 금강석, 금, 보크사이트, 목재이며 수입품은 식량, 음료, 담배, 공업원료, 화학제품, 기계 및 수송설비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와 기독교를 믿으며 그외에 원시종교도 믿는다.

【출판】 신문 가나 타임스(정부기관지), 이브닝뉴스.

탄자니아

(탄자니아련합공화국)

탄자니아는 탄가니카와 잔지바르로 구성되였다. 탄가니카는 동아프리카에 있으며 동쪽은 인도양에 면하고 콩고(킨),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우간다, 케니아와 접경하고있다.

기온이 가장 높을 때의 평균기온은 35°C이며 가장 낮을때는 15°C이다. 년평균 강우량은 1천 200미리메터이다.

잔지바르는 아프리카대륙에서 36키로메터 떨어져있는 잔지바르섬과 펨바섬으로 구성되여 있다. 기온이 가장 높을때의 평균기온은 33°C이며 가장 낮을때는 22°C이다.

【면적】 93만 9,719km²

【인구】 1,223만 5,000명(1967년현재, 그중 잔지바르 35만 4,000명)

주민의 98,6%가 남아프리카인과 아랍인이며 기타 인도인, 파키스탄인, 구라파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스와힐리어와 영어이다.

【수도】 다르에스 살람 (주민 27만명, 1967년)

정 치 탄가니카는 1890년에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한후 1919년에 영국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1961년 12월 9일 탄가니카는 《영련방》안에서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62년 12월 9일에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잔지바르는 1890년에 영식민주의자들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63년 12월 10일 잔지바르는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으나 영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반동적아랍왕족이 집권하였다.

1964년 1월 12일 잔지바르인민은 무장폭동을 일으켜 군주제도를 전복하고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4년 4월 26일 탄가니카와 잔지바르는 련합하여 탄자니아련합공화국을 형성하였다. 련합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련합후에도 잔지바르는 국방, 안전, 경제, 문화분야에서 독자적권한을 행사하며 자기의 립법기관과 행정기관을 가지며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1965년 1월 정부는 각 성들에 있는 외국인 비서들을 아프리카사람으로 교체하였다.

1966년 6월 14일 처음으로 탄자니아 중앙은행을 창설하고 영식민주의자들이 쓰던 화폐 (동아프리카쉴링)대신 자체의 화폐(탄자니아쉴링)를 가지게 되였다. 10월 4일 민족회의는 청년들을 생산과 국방에 준비시키기 위하여 민족복무대를 조직할데 대한 계획을 승인하였다.

탄자니아정부는 경제분야에서 협동화운동을 실시할데 대한 백서를 발표하였다.

1967년 2월 5일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대통령은 《사회주의와 자력갱생에 관한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의 정책》이라는 《아루샤선언》을 발표하였다.

그후 정부는 탄자니아에 있는 모든 외국은행들과 보험회사들, 중요무역회사들과 공장들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1월 22일 잔지바르에서 토지개혁이 완수되였다.

12월 1일 탄자니아의 아루샤에서 탄자니아, 우간다, 케니아대통령들은 6월 6일 캄팔라에서 체결된 동아프리카 나라들이 서로 협조할데 대한 조약이 효력을 가진다고 선포하였다.

1968년 1월 11일 민족회의에서 《아루샤선언》의 간부표징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였다. 그에 의하면 당 및 정부의 지도자는 《개인의 소유로 되여 있는 어떠한 기업에서도 주주로 될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집세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여있다.

1월 29일에 정부는 탄자니아에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대표부를 설치하는데 동의하였다.

5월 4일 민족회의는 나라의 리익에 해로운 자료들을 싣는 정기간행물들의 발행을 금지시킬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새법령을 채택하였다. 다르에스 살람의 신문들과 방송은 이 법령이 외국독점자본이 발행하는 친서방적경향을 띤 신문들에 적용되는것이라고 전하였다.

12월 14일 탄자니아에 새로운 회교복리협회가 창설되였다. 이

에 따라 정부는 12월 19일에 동아프리카에 있는 회교복리협회의 탄자니아지부를 해산시켰다.

【민족의회】 일원제 최고립법기관이다.

【정부】 대통령 및 무력최고사령관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1965년 재선, 외무상 지방행정 및 농촌개발상직을 겸임함)

제 1부대통령 쉐이크 아베이드 아마니 카루메 (잔지바르대통령)

제2부대통령 라쉬디 므파우메 카와와

【정당, 사회단체】 **탄가니카아프리카인민족동맹** (탄가니카의 집권당이며 유일당) 1954년 7월 7일 창건, 위원장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 **아프리카쉬라지당** (잔지바르의 집권당이며 유일당) 1957년 2월 5일에 창건, 위원장 쉐이크 아베이드 아마니 카루메. **탄가니카로동자전국동맹, 전국녀성동맹.**

탄가니카에 아프리카인민족동맹의 **청년동맹**이 있으며 잔지바르에는 **혁명로조련맹**, 아프리카쉬라지당의 **청년동맹**이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1월 13일 탄자니아는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6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탄자니아련합공화국정부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였으며 11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탄자니아련합공화국정부간의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66년 7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탄자니아련합공화국정부간의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68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체류기간 김일성수상과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대통령은 친선적이며 호상리해의 분위기속에서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김일성동지와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대통령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그리고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하고 의견일치를 보았다.

9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탄자니아련합공화국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0월에는 탄자니아 시참의회 및 지방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독립전에 탄자니아는 락후한 농업국가였다. 그러나 《아루샤선언》이 발표된후 민족경제건설을 위한 사업이 급속히 추진되였다.

1967년 탄가니카에서의 중요농산물인 사이잘삼은 21만 6천 600톤 (세계총생산량의 3분의 1), 커피는 4만 7천 700톤, 솜은 6만 9천톤 생산되였다.

경제에서 축산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데 1967년 현재 소는 996만 7천마리, 염소는 412만 9천마리, 양은 278만마리 있었다.

탄자니아는 금강석, 금 등 지하자원이 많은데 1967년에 금강석 197.6 키로그람, 금 1만 8천 트로이온스, 소금은 3만 5천톤 생산되였다.

정부는 《아루샤선언》이 발표된후 제국주의독점체들이 소유하고 있던 은행보험회사, 제분소, 식료품회사들과 중요 사이잘삼회사들을 국유화하거나 정부의 통제밑에 넣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사이잘삼방직공장, 면방직공장, 세멘트공장 등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사이잘삼 (20만톤), 솜(6만 2천톤) 커피 (2만 8천톤), 금강석(165키로그람), 캐슈콩, 가죽, 금, 차 등이다.

탄가니카는 제1차 5개년계획 (1964년 7월 1일—1969년)을 수행하고있다.

독립후 교육, 문화, 보건분야에서도 발전을 가져왔다. 1962년부터 1967년기간 초등학교학생수는 51만 8천 663명으로부터 75만 3천 114명으로, 중학교 학생수는 1만 4천 175명으로부터 2만 5천 151명으로, 대학생수는 203명으로부터 1천 313명으로 장성하였다. 초등학교들에서는 스와힐리어로 수업하고있다.

잔지바르는 주로 정향을 재배하는 락후한 농업국가였다. 그러나 1964년 1월 혁명후 정부는 토지개혁을 완수하고 농업에 현대적농기계들을 도입하였으며 자본가들이 소유하였던 모든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다. 잔지바르정부는 또한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있다.

1968년 3월 국영가축 및 신발공장이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7월에 40여종의 약품을 생산하는 첫 제약공장이 건설되였다. 또한 12월에는 대외무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영무역회사를 내왔다.

잔지바르는 5개년계획 (1967—1971년)을 수행하고 있다.

탄자니아에는 기독교, 회교, 배물교, 힌두교 등이 있다.

【출판】 **신문** 내슈널리스트(당 및 정부 기관지), 우후루, 누구무모.

부룬디

(부룬디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중부에 있으며 루안다, 탄자니아, 꽁고(킨)와 국경을 접하고있다. 기후는 적도계절풍기후에 속한다. 년평균기온은 23~25°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천~1천500미리메터이다.

【면적】 2만 7,834km

【인구】 300만명(1964년 현재) 주민은 바후루족(약 75%), 와투치족 및 피그미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부줌부라 (주민 4만 5,000명)

정 치

독립전까지 《루안다—부룬디》로 불리워온 이 나라는 19세기말부터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90년에 독일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22년부터는 벨지크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도구로된 유엔의 조작하에 1946년 12월부터는 《유엔후견령》으로 되였다.

1957년에 《루안다부룬디민족동맹》이 창설되고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기세가 높아지자 이에 불안과 공포를 느낀 벨지크식민주의자들은 1959년 11월 와투치족과 바후투족간에 리간을 조성시켜 대규모의 충돌을 일으켜 놓고는 《질서회복》이라는 구실밑에 의회《선거》 놀음을 벌렸다.

부룬디인민들은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1962년 7월 1일 루안다와 분리되여 독립을 달성하였다. 독립은 달성하였으나 봉건세력이 인민들을 기만하여 정권을 잡음으로써 이 나라는 또다시 봉건왕국으로 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간섭을 받아왔다.

1966년 1월 10일 부룬디인민들은 부룬디내정에 간섭하는 미제대사놈과 기타 미제대사관놈 2명을 몰아냈다.

봉건군주제도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앙양되여 1966년 7월에 수상으로된 미쉘 미촘베로는 이해 11월 28일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세습적인 봉건통치집단을 뒤집어엎고 부룬디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민족의회】 최고립법기관이며 일원제이다.

【정부】 현정부는 1966년 12월에 구성되였다. 대통령 겸 수상 미쉘 미촘베로

【정당, 사회단체】 통일민족진보당 부룬디로동자련맹, 부룬디전국학생동맹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3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부룬디공화국정부간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부룬디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정부는 토지를 개량하고 선진영농방법을 도입한 결과 식량을 비롯하여 주로 수출하는 커피, 차, 목화생산을 증대시켰다.

이 나라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커피는 1967년에 그전해보다 5천톤이나 더많은 1만 9천톤이나 생산하였으며 같은기간에 차생산도 50%나 장성하였다.

주요농산물은 수수, 강냉이, 밀, 콩, 고구마, 락화생, 차, 커피, 목화, 담배, 바나나 등이다.

부룬디는 좋은 자연목장을 리용하여 목축업도 발전시키고있다. 뿔난집짐승은 41만 5천마리(주로 뿔이 긴 소), 양과 염소는 100만마리에 달하며 돼지도 기른다. 탄가니카호에서는 담수어업을 발전시키고있다.

지하자원은 풍부히 매장되여있지만 개발되지 못한채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광물로서는 금, 주석, 탕그스텐 등이 있다. 그러나 지하자원의 대부분은 아직 벨지크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략탈당하고있다. 공업에서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이 나라 정부는 외국자본가들의 경영활동을 금지시키고 그 관리일군들을 몰아냈다.

부줌부라에는 세멘트공장, 맥주공장, 방직공장 등이 있다.

부룬디정부는 후대교육과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상방조를 강화하며 인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로 힘을 기울이고있다.

소말리아

(소말리아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북단에 있는 나라로서 에티오피아, 케니아와 접경하고있으며 북부는 아덴만에, 동부는 인도양에 면해있다. 기후는 매우 덥고 비는 적게 온다. 년평균기온은 30°C이다.

【면적】 63만 7,593km²

【인구】 250만명 (1966년현재) 주민의 대부분이 소말리아인이며 기타 흑인, 아랍인, 인도인 등이다. 공용어는 이딸리어, 영어, 아랍어이다.

【수도】 모가디쇼 (주민 16만명)

정 치 통일적인 나라였던 소말리아는 1449년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수개의 소공국으로 분할되였으며 그후 1880년대에 와서는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분할되였다.

19세기말부터 외래강점자들을 반대하며 민족적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여오던 소말리아인민들은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섰으며 1959년 2월부터는 무장투쟁을 벌리였다. 이리하여 1960년 6월 26일 영령 소말리아가, 6월 30일에는 이딸리아령 소말리아가 독립을 달성하고 7월 1일에 70여년간 분할되였던 두 지역을 통합하여 단일한 소말리아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령 소말리아는 아직도 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고있다. 독립후 소말리아인민은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소말리아정부는 외국인 회사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몰수하여 국유화하였으며 국가 및 기타 일련의 기관들에서 외국인들을 내쫓고 아프리카인간부들을 들여앉히는 조치도 취하였다.

1968년 1월 27일에 민족회의는 새로운 국영해운회사를 창설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3월1—13일까지 진행된 소말리아청년리사회 제1차 대회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영웅적 윁남인민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는 결의와 아랍나라들에 대한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침략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5월 29일 소말리아정부는 최고재판소 소장자리에서 외국인을 몰아내고 자기 나라 사람으로 임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소말리아인민은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고있는 프랑스령 소말리아인민들의 해방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다.

【민족회의】 일원제.

【대통령】 대통령 아브디라쉬드 알리 쉐르마르케(1967년 6월—)

【정부】 1967년 7월 13일 구성 수상 모하메드 하지 이브라힘 에갈

【정당, 사회단체】 청년련맹당(집권당), 민주련맹, 민족대회당, 민족통일전선, 로동총련맹, 청년동맹, 학생동맹, 녀성협회.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4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말리아공화국간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소말리아공화국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인구의 80%가 반농업, 반목축업을 하고있으며 10%가 농사만을 하고있다. 정부는 식민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던 바나나재배원과 목장들을 몰수하여 국영농목장을 만들었으며 농업에서 단작경리를 퇴치하고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인데 생산량은 년간 약 10만톤이며 그중 95%는 수출한다. 이밖에 강냉이 목화, 락화생, 사탕수수, 벼, 밀 등이다.

정부와 인민은 축산업발전에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적극 리용하여 목축업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1968년현재 이 나라에는 1천 550만마리의 소를 비롯하여 락타, 면양, 산양 등 2천만마리의 집짐승이 있다. 지하자원으로는 망간, 연, 동, 주석, 운모, 석돌, 알루미니움 및 기타 희유금속이 많다.

소말리아인민은 빌라드시에 년산 1천만메터의 생산능력을 가진 방직공장, 쥬바강하류와 북부의 베르베라시에 대규모의 화력발전소, 베르베라시에는 현대적인 항구(1969년 1월완공)가 건설되였다.

독립후 식민주의자들의 학교를 몰수하는 한편 새학교를 세우며 언어위원회를 창설하고 민족문자를 제정하는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다. 1968년에 20개의 병원과 수십개의 진료소들이 있었다. 주민의 대부분은 회교를 믿는다.

프랑스령 소말리아

(아파르—이싸해안)

아프리카 동북단에 있는 소말리아 서쪽에 접해있는 지역이다.

【면적】 2만 3,000km²

【인구】 8만 1,000명(1961년현재)

주민의 대부분은 소말리아족과 다나크족이며 그밖에 아랍인과 구라파인도 있다.

【행정중심지】 지브티(주민 4만 1,000명)

1880년에 이 지역을 강점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1882년에는 제놈들의 《보호령》으로 만들었으며 1958년 9월에는 식민지로 선포하고 총독통치를 실시하고있다. 1967년 3월 19일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독립을 위한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하는 동시에 세계사회여론을 기만하여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이른바 《국민투표》 놀음을 벌렸으며 이해 6월에는 프랑스령 소말리아의 이름을 《아파르—이싸해안》으로 고쳤다. 1967년 3월 20일 프랑스령 소말리아인민들은 지브티에서 《국민투표》결과를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3월 21일 소말리아정부는《국민투표》놀음을 무효로 선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은 반유목민이며 해안지대에서는 어업과 제염업도 한다. 일년감을 비롯한 남새와 과실 등이 생산된다.

석고, 운모, 류황 등을 캐낸다

적도기네

(적도기네공화국)

아프리카의 중부기네만에 위치하고있으며 까메룬과 가봉에 접경하고있는 리오—무니지대(2만 6천평방키로메터)와 기네만에 있는 4개의 섬으로 구성되여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평균 600~900메터의 고원지대이다. 기후는 무덥고 습기가 많으며 년평균기온은 25°C이상이며 년평균강우량은 2천미리메터이다.

【면적】 2만 8,051km²

【인구】 26만 5,000명(1968년현재)

주민의 대부분은 파브웨족과 반투족이며 그밖에 구라파인(8천 600명)이 있다. 언어는 에스빠냐어를 쓴다.

【수도】 산타 이사벨 (주민3만 7,200명)

정 치

1886년에 적도기네를 완전히 강점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이 지역 토착주민들의 봉기를 진압하고 총독을 파견하여 식민지통치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1960년 4월 1일부터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적도기네를 에스빠냐의 령토의 일부분이라고 선포하고 두개의 해외주를 설치하여 원주민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장기간의 식민지적 압박과 략탈을 당하여 온 적도기네인민은 1959년부터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벌렸다.

1963년 12월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저들을 반대하는 적도기네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자 《공민투표》라는 기만극을 통하여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하고 제놈들의 식민지통치지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주구로서 《자치정부》를 조작하였다. 그러나 적도기네인민들은 《자치정부》를 반대하고 나라의 완전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을 계속 벌려왔다. 1965년 5월 적도기네인민들은 《적도기네인민사상당》의 지도하에 대중적시위를 벌리면서 강력히 투쟁하였다.

1966년 8월에 《적도기네인민사상당》은 적도기네의 즉시적독립을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적도기네인민들은 미제의 지원을 받는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위한 오랜 투쟁을 통하여 2세기에 걸친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1968년 10월 12일 민족적독립을 달성하였다.

【정부】 련합정부로 1968년 9월에 구성되였다.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

【정당, 사회단체】 **적도기네인민사업당** 1948년에 창건, 당 산하에 청년, 녀성, 로조단체들이있다. 총비서 헤쑤스 므바 오보노 **적도기네민족해방운동당** (집권당), **적도기네인민운동동맹, 페르난도뽀자결독립당.**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10월 15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께서는 적도기네의 독립에 즈음하여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969년 1월 30일 우리 나라와 적도기네공화국간에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한다. 주요 생산물은 코코아(년산 2만 8천톤), 커피(9천 400톤), 목재등이며 그중 리오-무니에서는 주로 커피(총생산량의 80%이상)가 생산되며 페르난도-뽀섬에서는 코코아 (총생산량의 90%)가 생산된다. 적도기네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90%, 코코아의 100%, 목재의 40%를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략탈해간다. 공업은 에스빠냐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락후하며 약 100여개의 소규모적인 가공공장이 있으나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운영된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 커피, 목재 등이며 수입품은 일용필수품과 기성복, 직물, 자동차 및 세멘트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문맹자이고 약 3만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고있다. 15개의 중학교가 있다. 전국에는 16개의 병원에 1천 404개의 침대가 있다.

잠 비 아

(잠비아공화국)

중부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서 탄자니아, 꽁고(킨), 앙골라, 뽀쯔와나, 짐바브웨 등과 국경을 접하고있다. 기후는 무덥지않으며 가장 더울 때(10월)의 평균기온은 20∼25°C이며 가장 선선할 때 (7월)의 평균기온은 15∼20°C이다.

【면적】 75만 2,000km²

【인구】 361만명(1965년현재)

주민은 70여종족들로서 아프리카인이 그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타 인도인, 구라파인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루사카(주민 13만 8,000명)

정치 19세기후반기부터 잠비아(북로데시아)는 서방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왔다. 1890년에 영식민주의자들은 독일과 뽀르뚜갈 식민주의자들을 이 나라에서 몰아내고 지배권을 차지한 다음 1891년에는 이 나라를 저들의 《보호령》으로 만들고 1920년부터는 이 나라에 대한 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1953년에는 이 나라를 《중앙아프리카련방》에 강압편입시켰다.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을 벌려오던 잠비아인민들은 1961년 8월에 영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렸으며 1962년 3월에는 독립을 요구하여 전국에서 시위와 군중집회를 가졌다.

이러한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63년 12월에 《중앙아프리카련방》을 해체하고 1964년 4월 1일 내부자치권을 쟁취하였으며 10월 24일에는 《영련방》내의 공화국으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8년 3월 22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원을 받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비행기들이 잠비아의 3개농촌을 폭격하여 주민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또한 빈번한 국경침범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잠비아인민들은 모임과 시위를 가지고 자기 조국을 수호할 굳은 결의를 표시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4월 19일에 열린 민족통일독립당전국대회에서 정부가 미영제국주의독점체회사들을 비롯한 운수, 양조, 건설, 도매, 소매, 목재, 수산 등 각 부문 25개의 주요기업소를 통제하게 되였다고 발표하였다.

8월말 잠비아정부는 잠비아의 수역에 불법침입한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의 발동선을 나포하고 거기에 타고있던 남아프리카경찰놈들을 사로잡았으며 9월에 잠비아군대는 2차에 걸쳐 잠비아령공을 침입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비행기를 격퇴시켰다.

9월 17일 잠비아정부는 《교원》의 탈을 쓰고 간첩행위를 감행한 미제 《평화군》을 잠비아에서 내쫓았다.

12월 19일 독립후 처음으로 대통령 및 민족회의 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수상을 겸임)

【정당, 사회단체】 **민족통일독립당** (집권당), **민족진보당, 로조대회.**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4월 12일 잠비아는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9월 잠비아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잠비아는 아프리카나라들중 채광업이 발전한 나라이다. 담배, 식료, 목재가공 공장이 있다. 국민소득의 80%는 채광업에서 들어온다.

지하자원으로는 동, 코발트, 철, 연, 아연, 우라니움, 크롬, 금, 은, 금강석, 망간 등이 풍부하다. 특히 동은 국민총생산의 40%∼55%, 수출의 90∼95%를 차지한다.

농촌경리는 독립전의 단작경리(강냉이, 담배)로부터 다각적경리로 바뀌여지고있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1965년에 비하여 1968년에 1.5배), 락화생(1965년에 비하여 1968년에 75% 장성) 담배, 조, 마니오크, 콩, 남새, 육류 등이다.

잠비아정부는 1968년에 60만톤

의 석탄생산을 목표로 하여 투쟁을 벌렸으며 까푸에강에 20만키로와트의 출력을 가지게될 발전소 제1계단공사를 완공하며 1천 695키로메터의 길이를 가진 송유관을 건설함으로써 년 71만 2천톤의 석유를 잠비아의 동광지대로 보낼수 있게 하며 루사카와 다르에스 살람간의 철도부설공사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독립후 잠비아정부는 잠비아종합대학을 비롯하여 14개의 중학교를 건설하였다. 소학교 학생수는 1962년에 2천 500명에 불과하였다면 1966년에는 1만 6천명으로 늘어났다. 1970년에 가서 잠비아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할것을 계획하고 그 사업을 다그치고 있다.

1962년 잠비아에 270명의 의사가 있었다면 1966년에는 400명으로 늘었다.

챠 드

(챠드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중부에 자리잡고있는 내륙국가로서 니제르, 리비아, 수단, 중앙아프리카, 까메룬 등과 접경하고있다. 전 령토의 3분의 1이 사막으로된 건조한 나라이다. 년평균기온은 29°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100~250미리메터이다.

【면적】 128만 4,000km²

【인구】 330만명 (1964년 현재)

주민은 하우사족, 지라족과 기타 유목민들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포르라미(주민 15만명 1966년)

정 치

19세기중엽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기 시작하였고 1910년에는 프랑스령 적도아프리카에 편입되였다가 1911년에 프랑스령 적도아프리카가 독일의 식민지로 넘어감에 따라 챠드도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파쑈독일이 패망하자 챠드는 또다시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21년에 챠드의 탈로디지역 인민들이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식민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에 질겁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1927년에 민족운동지도자들과 회담하겠다고 기만해 놓고는 400여명의 챠드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계속 투쟁을 벌려오던 챠드인민은 1935년에 10여명에 달하는 식민주의관리놈들을 처단하였다.

1957년초에 챠드는 《반자치공화국》으로, 1958년 11월에는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다. 그후 민족적해방을 위한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1960년 8월 11일 챠드는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달성하였다.

1964년 4월 29일 민족회의는 3개월 이내에 챠드에서의 프랑스침략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챠드에 있는 프랑스침략군의 군사기지의 철페를 요구하였다.

1965년 11월 챠드정부는 남로데시아의 백인인종주의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아프리카나라들의 공동행동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이 수상, 국방상, 내상을 겸한다.

대통령 프랑수와 똠발바예 (1962년 4월 재선)

【정당, 사회단체】 챠드진보당 유일당이며 집권당이다. 챠드전국근로자동맹, 챠드전국녀성동맹, 챠드진보당청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5월 8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챠드공화국간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챠드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챠드는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쌀, 락화생 등인데 그중에서 목화생산은 이 나라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한다.

1967—1968년에 목화를 10만 2천톤 생산하였다.

1965년에 소는 400만마리, 양은 450만마리, 말은 약 15만마리 있었다.

챠드는 5개년계획(1966—1970년)의 수행기간 총 투자액 470억 1천 200만 아프리카프랑중에서 3분의 2를 농업에 돌리고있다.

공업분야에서는 솜, 기름, 정미, 양조, 가죽 공장들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집짐승, 육류, 가죽, 락화생 등이다.

챠드정부와 인민은 《경제의 아프리카화》를 위하여 경제기관들을 아프리카인들로 꾸리고있다.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주민의 대부분이 문맹자인 조건하에서 문맹퇴치사업과 학교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1965—1966학년도 초등학교 학생수는 15만명 (독립전의 3배)이였다.

수도 포르라미에 첫 국영인쇄소가 건설되여 교과서와 민족신문을 찍어내는 기지로 되였다.

주민의 44.1%가 회교도, 51.9%가 원시종교를 믿는다.

수 단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아프리카대륙에서 령토상 제일 큰 나라로서 이 대륙의 동북부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의 하나이다. 북부 사막지대의 8월기온은 52.5°C이며 강우량은 적다. 강우량이 많은 남부는 열풍이 몰아치고 습도가 높다.

【면적】 250만 5,823km²

【인구】 1,354만명(1965년 현재)

주민의 약 70%를 차지하는 북부주민은 아랍인과 혼혈인(아랍인—흑인)이며 약 30%를 차지하는 남부주민은 흑인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하르툼(주민 13만 6,000명)

정 치 19세기 70년대부터 애급을 발판으로 세력범위를 확장하기 시작한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899년에 애급에 강요하여 수단에 대한 영국과 애급의 《공동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수단을 사실상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수단인민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용감하게 일떠서 싸움으로써 1953년 1월에 수단의 자결권을 쟁취하였으며 1955년 11월에 영국침략군을 수단에서 몰아냈다. 1955년 12월에 독립을 달성하고 1956년 1월 1일에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4년 10월 30일 수단인민은 혁명을 일으켜 친서방적인 군사독재통치를 청산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경제의 《수단화》구호를 내세우고 민족경제를 창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1966년 10월에 수단국가 최고위원회는 수단정부를 전복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반대하여 간첩활동을 하거나 국가안전과 독립을 위협하는자들에게 사형을 언도할것을 규정하는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승인하였다.

1967년 6월 미제국주의자들과 이스라엘괭창주의자들이 아랍나라들을 반대하여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을때 수단정부와 인민은 아련에 1천 500명의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며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고 자기 나라에서 미국놈을 몰아내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1968년에 수단정부와 인민은 미제와 이스라엘괭창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8월에 수단인민들은 군중집회와 시위를 열어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웰남인민에게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남부웰남의 투사들에게 보낼 원호금수집운동을 벌렸다.

또한 수단정부는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괭창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의 무장투쟁에 참가할 청년지원병들을 훈련시키기로 결정하고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전국혁명리사회】 1969년 5월 25일 군인 9명과 사민 1명으로 구성되였다.

【정부】 수상 아부바까르 아와달라흐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6년에 창건, 총비서 아브델 할레크 마흐쥬브. 《알 움마당》, 련합민주당, 인민민주당, 수단아프리카민족동맹, 남부수단전선, 수단조선친선협회 1969년 4월 11일 결성, 위원장 아흐메드 엘싸이드.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6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수단민주주의공화국정부간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수단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85%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있다. 수단은 주로 목화를 재배하는 농업국가이다.

목화재배면적은 전국농경지의 40%에 해당하는 40만정보에 달하고있으며 목화수출은 대외수출총액의 70%를 차지하고있다.

이밖에 주요농산물은 아라비아고무 (년 4만톤), 수수, 참깨, 락화생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은, 철, 망간, 우라니움, 크롬, 아연, 원유, 운모, 마그네시움 등이 있다.

공업으로는 규모가 크지않은 세멘트공장 및 건재공장과 맥주, 향료, 담배공장이 있다.

수단정부는 독립후 외국의 경제적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나라의 공업발전에 많은 힘을 돌리고있으며 경제의 《수단화》정책을 작성하였다.

1965년—1966년도 학생수는 독립초기의 13만명으부터 54만 6천명으로 늘었다.

주민의 대부분은 회교(북부주민)와 원시종교(남부주민)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수단통신사 신문 텔레그라프, 앗 수단 알 샤디드, 엘 라이알 아람.

리 비 아

(리비아왕국)

아프리카대륙의 북부에 위치하여 지중해에 면해있으며 아련, 차드, 수단, 니제르, 알제리, 뜌니지와 국경을 접하고있다. 령토의 3분의 2가 사막이며 강이 없다. 그러나 깊지않은 땅속에서 물이 많이 솟아난다. 기후는 낮과 밤의 차이가 심한 건조한 열대사막기후이다. 사막지대의 년평균강수량은 25미리메터이다.

【면적】 175만 9540km²

【인구】 155만 9,399명(1964년 8월 현재)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이며 이딸리아인, 희랍인 등도 있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트리폴리(주민 20만 2,000명, 1963년), 벤가지(주민 8만 4,000명)이다. 정부기관은 가을과 겨울은 트리폴리에, 봄과 여름은 벤가지에 있게 된다.

정 치 19세기초에 토이기에 강점되여 오토만제국에 편입되였다가 1911—1912년의 이딸리아토이기전쟁결과 이딸리아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영국과 프랑스침략자들에게 강점되였다가 1951년 12월 24일 련합왕국으로 독립하였다.

1963년 4월 29일 리비아는 련방제를 폐지하고 중앙집권제 나라로 되였으며 나라 이름을 《리비아왕국》으로 고쳤다.

1967년 중동전쟁 전야에 아련에 대한 이스라엘괭창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의 위협이 조성되였을때 리비아정부는 《어느 아랍국가에 대한 침략일지라도 리비아는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선포하고 아련에 지원병을 파견하였으며 중동전쟁기간에 서방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수출을 금지하였다.

외국군사기지의 철폐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하려는 리비아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1968년 3월 국회는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체결한 군사협정을 페기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에 앞서 2월초에는 영제국주의침략군이 벤가지군사기지에서 쫓겨났다.

【국왕】 모함메드 이드리스 엘 세누씨(1951년—)

【국회】 량원제

【정부】 수상 아브델 알 바꾸쉬(1967년 10월—)

【정당, 사회단체】 정당은 없고 트리폴리에 **리비아로동조합총련맹**이 있다.

경제, 사회 주민의 80%는 농목축업에 종사한다. 농경지는 390만헥터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락화생, 올리브, 남새 등이다. 주요집짐승은 락타, 양, 염소 등이다.

공업으로서는 원유채취공업이 기본이며 이밖에 식료, 방직, 가죽공장들이 몇개 있다.

지하자원은 석유, 린산염, 철, 광석, 주석, 망간 등이 풍부하나 아직 자체로 개발하지 못하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채굴하여 략탈하여가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석유 (수출액의 98%), 락화생, 집짐승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문맹자이며 국교는 회교이다.

뜌니지

(뜌니지공화국)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나라로서 북쪽과 동쪽은 지중해에 면해있으며 남쪽과 서쪽은 리비아 및 알제리와 접하고있다. 국토의 약 절반은 사막지대이다. 기후는 건조한 아열대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이 7월에 25~32°C이며 1월에 5~12°C이다. 북부의 년평균강우량은 700미리메터, 중부는 400미리메터, 남부는 200미리메터 이하이다.

【면적】 12만 5,200km²

【인구】 467만 5,000명(1966년 현재)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족(90%)과 베르베르족이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뜌니스(주민 70만명)

정 치 오또만제국의 속령이였던 뜌니지는 1837년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81년에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되였고 1883년에는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는 히틀러독일의 강점하에 있었다.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찾기 위한 뜌니지인민들의 75년간의 반프랑스투쟁에 의하여 1956년 3월 20일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57년 7월 25일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에도 뜌니지를 강점하고 내정에 간섭하던 프랑스침략군대를 뜌니지인민들은 1963년 10월 15일 비제르타기지에서 몰아냈다.

1968년 1월에 뜌니지의 지식인들은 호소문을 발표하여 존슨도당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것을 자기 나라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4월에 뜌니지인민들은 아랍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며 아랍지역에 대한 간섭과 침략을 계속 강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인 《쎈토》에 자기 나라를 끌어넣으려는 미제를 규탄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1964년 11월 재선)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프랑스공산당 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34년에 독립적인 정당으로 창건, 총비서 모함메드 엔다피. **데스트르사회당** (집권당), **로동자총련맹, 농민련맹, 대학생련맹, 녀성련맹.**

경제, 사회 뜌니지는 주민의 4분의 3이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올리브, 귤, 포도 등이다.

공업에서는 채굴공업이 기본이다. 그러나 이의 대부분은 프랑스독점자본가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지하자원으로는 린회석, 철광, 원유 등이 있다.

【출판보도】 통신 뜌니지아프리카통신사.

신문 악씨옹(데스트르사회당기관지).

마로꼬

(마로꼬왕국)

아프리카주의 서북쪽에 위치하며 지중해와 대서양에 면해있다. 북부의 지중해연안은 산지이고 대서양연안은 평야이다. 동부지방은 덥고 건조하며 남부지방의 여름평균기온은 30~40°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400미리메터정도이다.

【면적】 44만 5,577km²

【인구】 1,332만 5,000명(1965년 현재)

주민은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 절대다수이며 그외에 프랑스인과 유태인들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라바트(주민 26만 2,000명), 탄지르 (1962년 1월부터 여름수도로 결정)

정 치 19세기 40년대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은 마로꼬는 1912년 3월에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되였고 남부이프니지대만은 에스빠냐에 강점당하였다.

1923년 12월 18일 프랑스, 에스빠냐, 영제국주의자들은 마로꼬의 탄제르지역을 소위 《국제관리》지역으로 만들었다.

1951년 4월 《마로꼬민족전선》이 결성됨으로써 마로꼬에서의 반프랑스투쟁이 세차게 일어났다. 이해 11월 10일에는 카사불랑카에서, 1953년 1월에는 전국각지에서 반프랑스폭동이 련이어 일어났으며 1955년에는 마로꼬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전국적투쟁이 일어났다.

앙양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56년 3월 2일 마로꼬는 독립되였다. 에스빠냐령 마로꼬도 이해에 귀속되였으며 10월에는

탄제르지역의 《국제관리》도 철페되여 1960년 4월 마로끄에 통합되였다.

1968년 9월에 마로끄대학생들은 미제의 주구남부웰남괴뢰도당과 외교관계를 끊으며 남부웰남인민의 유일한 대표인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을 인정할것을 자국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웰남민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을것을 요구하였다.

10월에 마로끄의 신문 《팔랴스띤》과 《알 끼파호 알 와따니》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에게 아랍인민들을 학살하는데 리용하기 위한 군사적지원을 강화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을 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국왕】 물라이 하싼 2세(1965년 3월—)

【국회】 량원제

【정부】 수상 모하메드 벤히마(1967년 7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프랑스공산당지부로 창건되였다가 1943년에 독자적정당으로 창건. 제1비서 알리 야타와. 립헌제도옹호전선, 민주사회당 (집권당), 독립당, 마로끄인민력량전국동맹, 로동총련맹, 근로자총련맹, 청년련맹.

경제, 사회 농업 및 목축업국가이다. 경지면적은 약 500만헥터이며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포도, 올리브 등이다.

남부초원지대에서는 목축업을 주로 하는데 주요 집짐승은 소, 말, 염소, 당나귀, 노새 등이다.

경제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30%정도이다. 공업의 주되는 부문은 채취공업이다.

지하자원은 린산염, 무연탄, 쇠돌, 망간, 연, 아연, 코발트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밀, 보리, 강냉이, 망간, 린산염, 물고기통졸임 등이다.

1966년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수는 120만명에 달하였다.

【출판】 신문 알 알람, 오피니옹, 팔랴스띤, 알 끼파호 알 와따니

이 프 니

(에스빠냐식민지)

마로끄의 서남쪽끝에 위치하며 대서양에 면해있다.

【면적】 1,500km²

【인구】 6만명 (1967년 현재)

【행정중심지】 시드 이프니(주민 1만 1,000명, 1961년)

마로끄의 령토였던 이프니는 1860년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강점되였으며 1958년에는 에스빠냐의 한개 주로 되였다. 1956년에 마로끄가 독립한후 이프니인민들은 마로끄에로의 귀속을 요구하여 투쟁하고있다.

주민의 대다수는 어업과 농사를 한다. 농작물은 맥류와 과실이다.

에스빠냐령 사하라

마로끄의 서남쪽에 자리잡고있으며 세기에 엘하므(8만 3천평방키로메터)와 리오 데 오로(19만평방키로메터)의 두 지역으로 구성되였다.

【면적】 27만 3,000km²

【인구】 약 7만명

주민은 대부분이 유목민(3만명)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중심지】 빌라시스네로스(주민 3,000명)

1916년에 에스빠냐는 사하라에 식민지통치제도를 수립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하였다.

마로끄의 독립후 사하라인민들은 마로끄와의 재통합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리고있다. 1958년초에는 사하라 전지역에서 폭동이 있었으며 1961년 3월에는 남부마로끄와의 접경지대에서 무장투쟁이 벌어졌다.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이다. 주요집짐승은 락타, 염소, 면양 등이다.

오아니스에서는 보리, 밀, 올리브를 재배한다.

주요지하자원으로는 린회석, 쇠돌, 카리염, 동, 석유 등이 있다.

세네갈

(세네갈공화국)

아프리카주 서쪽인 대서양연안에 있으며 모리따니, 말리, 뽀르뚜갈령 기네 및 감비아와 접경하고있다. 산림과 초원 그리고 강이 많다. 12월과 1월의 최저 기온은 11°C이며 3월과 5월의 기온은 42°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남쪽지방에서 1천 800미리메터이고 북쪽지방에서 250미리메터이다.

【면적】 20만 1,000km²

【인구】 350만명(1967년 현재)

주민은 월로프족, 쎄레이족, 뚜꾸러르족 등의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다카르(주민 52만 5,000명, 1966년)

정 치 중세기에 서아프리카의 가나, 수단(현재의 말리)왕국의 속령으로 있다가 1815년부터 프랑스식민지로 되였다.

1946년에 프랑스령 서아프리카공동체에 가입하였다가 1959년에 말리와 합병하여 말리련방을 형성하였다. 1960년 4월 4일 말리련방의 성원국으로 독립하였으며 그해 8월 20일에 이 련방에서 떨어져나와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3년 3월 3일 수상내각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책임제로하는 헌법을 채택하였다. 이해 7월에 뽀르뚜갈과 남아프리카의 일체 상품수입을 금지하였다.

1968년 2월 9~12일기간에 수도 다카르에서 세네갈강류역의 자연부원을 리용하기 위한 말리, 기네, 모리따니 및 세네갈 대표들이 참가한 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성원국들의 경제발전계획과 이 나라들 호상간의 보다 광범한 협조문제가 토의되였다.

2월 25일 세네갈에서 대통령선거와 민족회의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3월말 기네의 라베시에서 기네, 말리, 모리따니, 세네갈 수뇌자들

은 《친선적인 나라들간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협조》를 목적으로 세네갈강류역국가 기구를 창설하였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9월에 수도 다카르에서 세네갈강류역국가기구 참가국 보건상들의 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이 지역 나라들의 인민보건사업을 발전시키며 호상협조를 위한 목적에서 인민보건최고통일리사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196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세네갈녀성전국리사회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이 수상을 겸한다.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1968년 2월 25일 재선)

【정당, 사회단체】 진보련맹(집권당), 아프리카독립당, 전국근로자동맹, 세네갈청년운동, 세네갈녀성전국리사회.

경제, 사회

인구의 95%가 농사하는 농업국가이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략탈과 치부를 위하여 락화생단작경리만을 강요당하여온 식민지적후과를 없애고 농업의 다각화에 많은 관심을 돌려왔다.

주요농산물은 조, 벼, 밀, 강냉이, 목화, 마니오크 등이다.

공업은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발전하였다. 공업의 총생산액이 나라 총수입의 20%를 차지하며 직물, 세멘트, 담배 등은 국내수요의 80%를 충족시킨다.

공장, 기업소 수는 약 300여개에 달하며 특히 락화생기름 생산은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였다.

민족교육 분야에서도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독립후 세네갈에서는 새로운 민족간부들이 양성되였으며 1975년에 가서는 전체 학령아동이 학교에서 공부할수 있게될것이 예견되고있다.

주민의 75%가 회교도이며 5%가 기독교도이다.

【출판 보도】 통신 세네갈 통신사.

신문 유니떼 (진보련맹기관지), 다카르—마땡(일간신문).

감 비 아

아프리카대륙 대서양연안의 감비강하류에 있다. 지형이 평탄하고 낮은 평야로 되여있다. 기후는 비오는 여름과 건조한 여름으로 구분되며 수도에서 년평균기온이 7월에는 27°C, 2월에는 24°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1천~1천 500미리메터이다.

【면적】 1만 367km²

【인구】 31만 6,000명(1963년 현재)

주민은 말린케, 풀베, 월로프종족들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바더스트 (주민 2만 8,000명)

정 치

1793년에 영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가 1831년에는 영식민지 시에라레온에 병합되였다. 1843년부터 영국의 단독식민지와 《보호령》으로 되였다.

감비아인민들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1959년 6월에 수도에서 반영시위를 벌렸으며 1960년 2월에는 수도의 로동자들이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렸다.

감비아인민들은 영제국주의 통치를 반대하는 오래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1963년 10월 4일부터 내부자치를 실시하게 되였으며 1965년 2월 18일에는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달성하였다.

1968년 감비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야 비 죤스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 참가하였다.

【총독】 죤 와이론폴

【의회】 일원제

【정부】 수상 다비드 쟈와라(1963년—)

【정당, 사회단체】 인민진보당, 통일당, 련합당, 민주대회련맹, 감비아조선친선협회 (1968년 결성)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경지면적은 22만 1천헥터이며 주요농산물은 락화생, 조, 수수, 강냉이, 기장 등이다.

공업기업소는 거의 없고 식물성기름, 천, 가죽 등을 수공업적기술에 기초하여 생산하는 기업소들이 몇개 있을 뿐이다.

수출품은 락화생(75%)외에 가죽과 야자열매 등이며 수입품은 식료품과 일용품, 직물, 금속제품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문맹자이며 학령아동들 중 20%밖에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뽀르뚜갈령 기네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에 면하여있는 나라로서 세네갈, 기네와 국경을 접하고있다. 이나라는 대륙부문과 비싸고스제도 등 60여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동부대륙지방은 덥고 건조하며 그밖의 지방은 비가 많이 온다. 년평균기온은 24~26°C이다.

【면적】 3만 6,135km²

【인구】 52만 7,000명(1965년 현재)

주민의 대부분이 반투족이고 그외에 약 2천 500명의 뽀르뚜갈인이 있다.

【행정중심지】 비싸우(주민 2만 7,000명)

정 치

베르데갑제도의 한 부분이였던 이 지역을 1446년부터 침략하기 시작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이 지역 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으로 내륙지방에는 오래동안 침입하지 못하다가 1879년에 식민지로 만들고 총독통치를 실시하였다.

뽀르뚜갈령 기네인민들은 침략자를 반대하는 끊임없는 투쟁을 하였다.

특히 1956년 6월 뽀르뚜갈령 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이 조직된후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이 앙양되였다.

1959년 8월 3일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비싸우에서 일어난

부두로동자들의 총파업을 류혈적으로 탄압하여 많은 로동자들을 학살하였다.

뽀르뚜갈령 기네애국자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 1961년 8월 3일부터 직접적인 무장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손에 무장을 잡고 민족적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떠선 뽀르뚜갈령 기네애국적인민들은 간고한 시련을 뚫고 굴함없는 영웅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1968년에 전국령토의 70%를 해방하였으며 많은 적을 소멸하였다.

1월초에 애국적무장력은 불라시부근에 둥지를 틀고있는 뽀르뚜갈식민주의군대의 본부를 들이치는 대담한 작전을 벌리여 수백명을 죽이고 수십명을 사로잡았으며 적병영 14개나 불살라버렸다.

3월에는 거 135명을, 4월에는 100여명에 달하는 적을 살상하고 수많은 군수물자들을 로획하였다. 주로 농촌을 근거지로 무장투쟁을 벌렸다면 3월초에 애국자들은 도시들에 대한 대담한 집중공격에로 넘어가 비싸우로부터 12키로메터 떨어진 비싸마도시를 들이쳐 적들을 섬멸하고 이 도시를 해방하였다.

5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뽀르뚜갈령 기네애국자들은 뽀르뚜갈식민주의 군대의 군용차 100여대를 파괴하였으며 군용선박 1척을 빼앗고 4척을 물속에 처박았으며 또 놈들의 비행기 5대를 파괴하는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또한 애국자들은 요새화된 여러 병영을 들이쳐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으며 병영 10개를 점령하고 4개를 파괴하였다.

196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뽀르뚜갈령 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대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정당, 사회단체】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1959년 9월 창건, 민족해방투쟁을 령도. 총비서 아밀카르 카브랄.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해방운동, 인민동맹, 해방인민동맹, 아프리카민주련맹.**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산물은 락화생, 코코아, 종려, 벼, 담배, 사탕수수, 목화 등이다.

공업은 농산물가공을 위한 몇개의 가공공장이 있을 뿐이며 주요수출품은 락화생기름, 야자기름 등 농산물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방지역은 곡창지대로서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되고 해마다 벼수확이 늘어나고있다. 해방지역 인민들은 자급자족하고있다.

1968년에 해방지역의 157개의 각급학교에서는 1만 5천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에게 민족교육과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해방지역에는 병원과 진료소들도 꾸려놓았다.

베르데갑제도
(뽀르뚜갈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서쪽끝 대서양상에 있는 15개의 섬으로 구성되였다.

【면적】 4,033km²

【인구】 20만 1,1500명(1960년 현재)

【행정중심지】 프라이마 (주민 약 3,500명)

1945년에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51년에는 형식상 뽀르뚜갈의 《해외주》로 되였다.

최근년간 베르데갑제도에서는 뽀르뚜갈령기네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과 베르데갑제도해방전선의 지도하에 민족해방운동이 앙양되고있다.

1968년 7월 29일 뽀르뚜갈령기네 및 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총비서 아밀카르 카브랄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베르데갑제도에서도 무장투쟁을 벌릴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고 말하면서 이 투쟁은 섬의 구체적 실정에 비추어 유격투쟁으로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피마주, 귤, 사탕수수, 마니오크, 강냉이, 감자, 바나나 등이다.

축산물로는 염소, 뿔난 집짐승, 돼지 등이다.

시에라레온

서아프리카에 있으며 동쪽은 기네, 남쪽은 리베리아와 접경하고 서쪽은 대서양에 면해있다. 년평균 기온은 약 27°C이며 해안지대의 년평균강우량은 최고 5천미리메터이다.

【면적】 7만 3,326km²

【인구】 300만명(1967년말 현재)

주민은 멘데족을 비롯한 13개 아프리카인종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밖에 구라파인과 아세아인들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프리타운 (주민 12만 8,000명)

정 치 15세기 중엽부터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던 시에라레온은 1866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식민지통치기간 시에라레온인민들은 영국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 특히 1955년 2월 프리타운로동자들의 총파업은 무장봉기로 발전하였으며 1958년에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은 영제국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리하여 1961년 4월 27일에 독립을 쟁취하였다.

1968년 4월 17일 시에라레온에서는 륙군의 하사관들과 하급장교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그들은 14명으로 구성된 《부패일소혁명운동》과 7명으로 구성된 《전국리사회》를 조직하였으며 4월 27일에는 시아카 프로번 스티븐스를 수상으로하는 민간정부를 구성하였다.

6월에 시에라레온의 《스파이스》호와 신문《데일리 메일》 19일호는 아프리카나라들에서 파괴전복활동을 감행하고있는 미제를 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출판물은 미제침략의 척후병인 《평화군》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

조하고 미제가 남부웰남과 남아프리카 그리고 남로데시아의 반인민적인 폭압《정권》을 적극 비호하고있는것을 규탄하였다.

8월초 조세프 에이 존단장을 비롯한 시에라레온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9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시에라레온정부대표단, 시에라레온전국청년운동대표단, 녀성조직전국련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정부】 수상 시아카 프로빈스티븐스(1968년 4월 27일—)

【정당】 전인민대회당(집권당), 시에라레온인민당, 시에라레온전국청년운동, 시에라레온녀성조직전국련맹

경 제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벼, 락화생, 코코아, 커피, 생강 등이다.

풍부하게 매장되여있는 철, 보크사이트, 크롬 등 지하자원에 의거하여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고있다. 그리하여 년산 5만톤 능력의 세멘트공장과 70만켤레능력의 신발공장을 비롯하여 정미공장, 기름공장, 가구공장 등을 가지게 되였다.

주요수출품은 철광석, 금강석, 크롬, 종려씨, 코코아, 커피 등이며 수입품은 식료품, 기계설비, 직물, 석유 등이다.

리베리아

(리베리아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연안에 있다. 기후는 적도기후로서 가장 더울때(3월)의 기온이 27°C이며 추울때(8월)기온이 23°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2천～4천미리메터이다.

【면적】 11만 1,400km²

【인구】 260만명 (1965년현재)

주민의 대부분(90%)이 아프리카인이며 기타 아메리카흑인과 백인들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몬로비아 (주민8만명)

정 치

1822년에 《미국식민지협회》의 소위 해방노예들이 국가를 형성하여 미국놈총독의 통치를 받았다.

1847년 7월 26일 리베리아는 독립하였으나 실권은 인구의 1%밖에 안되는 소위 해방노예의 후손들이 쥐고있었고 토착주민들은 무권리상태에 있었다.

1959년에 미제와 예속적인 《방위협정》을 맺었다.

1968년 1월에 리베리아의 부두로동자 2천여명이 처지개선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을 벌렸으며 씨노주에 있는 림업회사의 전체 로동자들이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파업을 벌렸다.

【국회】 량원제

【정부】 수상을 겸임하는 대통령은 3선이 금지되고있으나 현대통령은 1968년 1월에 여섯번째로 대통령 자리에 들어 앉았다.

대통령 윌리암 바카나라트 싸드라취 타브멘

【정당】 진정독립당 (집권당이며 유일당이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주요농산물은 고무, 커피, 종려, 쌀, 바나나, 락화생, 코코아 등이다.

경제의 기본은 고무생산인데 이 생산량의 90% 이상을 미제독점체가 장악하고있다.

지하자원은 철, 금강석, 망간, 흑연, 보크사이트, 우라니움, 동, 아연, 운모 등이다.

고무와 쇠돌을 수출하고 식료품과 식량을 수입한다.

보건시설은 보잘것없고 주민의 90%이상이 문맹자이며 어린이들의 취학률은 10%에 불과하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상아해안

(상아해안공화국)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서 기네만에 면해있으며 가나와 리베리아사이에 있다. 적도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1월에 23°C, 7월에 25°C이다. 남부는 습도가 높고 비가 4천미리메터 내리며 북부는 습도가 적고 비는 820미리메터 내린다.

【면적】 32만 2,500km²

【인구】 400만명 (1968년초 현재)

주민은 바울레족, 크루족, 말린케족 등 많은 종족들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아비장(주민 25만명, 1964년)

정 치

15세기부터 뽀르뚜갈, 에스빠냐, 화란,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1887—1889년 기간에 상아해안은 프랑스 침략자들의 식민지로 되였고 1904년에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편입되였다.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상아해안인민들의 오랜 투쟁을 통하여 1958년 12월 4일 《프랑스공동체》내의 한개 자치국으로 되였고 1960년 8월 7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61년 2월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러나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1961년 4월 24일 대외, 국방,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상아해안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예속적인 《협조협정》을 강압적으로 맺었다.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펠릭스 우프에보아니(수상겸임)

【정당, 사회단체】 상아해안민주당(집권당), 민족해방위원회, 상아해안근로자총련맹.

경제, 사회

주민의 95%가 농사를 하는 농업국가이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코코아, 바나나, 종려, 벼, 강냉이, 목화, 마니오크 등이다.

커피, 코코아 가공공장들을 비롯하여 소규모의 석유 가공공장 및 방직공장들이 있으나 프랑스독점자본가들이 차지하고있다.

지하자원은 금강석, 망간, 석유, 철 등이 있으나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수출품은 커피, 코코아, 목재,

바나나 등이며 수입품은 기계류이다.

어린이의 취학률은 30%에 불과하며 보건시설은 한심한 형편이다.

상부볼따

(상부볼따공화국)

서아프리카중심에 위치하고있으며 말리, 니제르, 다오메, 또고, 가나, 상아해안과 접경하고있다. 기후는 적도계절풍기후로서 12—1월에 24~26°C이고 4—5월에는 30~35°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1천미리메터이상이다.

【면적】 27만 4,000km²

【인구】 465만명(1965년 현재)

주민은 모시족, 보보족, 구룬시족, 로비족 등 여러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와가두구(주민 15만명 1967년)

정 치 19세기 후반기로부터 상부볼따를 침략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1909년에 이 나라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1943년에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 강압편입시켰다.

민족적독립을 위한 상부볼따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58년 12월 11일 《프랑스공동체》 내에서 자치공화국을 선포하였고 1959년 새 헌법에 의하여 볼따공화국을 상부볼따공화국으로 고쳤다. 1960년 8월 5일에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1년 4월에 《프랑스공동체》에서 떨어져나오는 동시에 프랑스와 《협조협정》을 맺었다.

1966년 1월 3일에 상부볼따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켰으며 총참모장 상굴레 라미자나가 정권을 잡았고 헌법의 폐지, 민족회의와 정당, 사회단체 해산을 명령하였다.

1967년 9월에 있은 제 22차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 상부볼따외상은 남로데시아의 스미스와 그의 군대는 《종주국인 강국》들에 의하여 유지되고있다고 규탄하고 《우리들은 모잠비크, 앙골라, 뽀르뚜갈령 기네의 습지들에서 싸우고있는 용감한 투사들에 대한 사심없는 지지를 표시한다》고 함으로써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였다.

또한 상부볼따대표는 유엔총회에서 《수년동안 아무것도 한것이 없는 〈언커크〉에게 자기의 노력을 강화할것을 요구할것》이 아니라 《언커크》를 《조선인민들이 그렇게도 열망하는 재통일을 촉진시킨보다 더 훌륭한 기회를 가질수 있는 기구로서 근본적으로 교체》할것을 주장하였으며 표결에서도 《언커크》 해체안에 찬성하였다.

196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상부볼따 근로자직업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협상위원회】 라미자나정부에 직속된 결의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군사정변후 해산된 국회, 당 및 사회단체들의 역할을 대행한다.

【정부】 대통령 겸 수상 상굴레 라미자나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며 경제의 주요부문은 목축업이다. 집짐승으로는 양, 염소, 소를 기르는데 유리한 방목지가 많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강냉이, 기장, 벼, 락화생, 조, 수수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동, 망간, 우라니움 등이 있으나 아직 전면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집짐승, 물고기, 락화생 등이다.

1967—1970년간의 4개년경제발전계획을 채택하고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나라의 경제를 일떠세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또 고

(또고공화국)

서아프리카의 기네만북쪽해안에 면해 있는 나라로서 가나와 다오메 사이에 있다. 기후는 장마철을 제외하고 평균기온이 30°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천 500미리메터이다.

【면적】 5만 5,600km²

【인구】 160만 3,000명(1965년 현재)

주민은 에웨족, 미나족, 다곰비족, 팀족 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로메 (주민 10만명, 1963년)

정 치 1884년 독일식민주의자들에 의해 강점당했으며 1919년에는 《위임통치구역》이라는 명목하에 두개지역 즉 프랑스령또고와 영령또고로 분할되였다. 1946년 12월에 또고는 분할된 형태로서 《후견령》으로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또고인민들은 두지역의 통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그리하여 영령또고는 1957년 3월에 가나에 통합되였으며 프랑스령 또고는 1960년 4월 27일 독립을 달성하였다.

독립후 1963년과 1967년에 두차례의 정변이 있었다.

【민족회의】 1967년 1월 13일 군사정변으로 해산되였다.

【정부】 현정부는 1967년 4월에 구성되였다.

대통령 에띠엔스 에야데마

【정당, 사회단체】 **인민민주동맹, 통일당, 《쥬벤또당》, 또고전국로조련맹.**

경제, 사회 주민의 90%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경작할수 있는 땅은 211만헥터이나 경지면적은 그것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목화, 강냉이, 코프라, 락화생, 종려 등이다.

공업용으로는 솜타는공장, 기름짜는 공장(종려기름) 등 몇개의 농산물가공공장이 있을 뿐이다.

지하자원으로는 린광, 철광석 보크사이트, 크롬광, 흑연, 석유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대외수출의 64%), 커피, 야자씨, 린산염, 목화 등이며 수입품은 직물, 식료품, 금속제품과 기계 등이다.

어린이의 취학률은 30%에 불과하며 주민의 대부분이 문맹자이며 원시적종교를 믿는다.

다 오 메

(다오메공화국)

서아프리카의 기네만에 면해있는 나라로서 또고와 나이제리아사이에 끼여있다. 기후는 적도계절풍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1월에 24°C, 7월에 30°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1천~2천미리메터이다.

【면적】 11만 2,622km²

【인구】 257만 6,600명(1969년 8월) 주민은 폰족, 요루바족, 벨족 등 30여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뽀르또노보(주민 6만명)

정 치 17세기초부터 뽀르뚜갈, 화란, 영국,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노예무역의 중심지로 되였던 다오메는 1900년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으며 1902년부터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 강압편입되였다.

독립을 위한 다오메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58년 12월에 《프랑스공동체》내에서 자치공화국으로 되였다.

1960년 8월 1일 다오메는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1961년 2월 11일에는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떨어져나왔다.

1964년 9월에 다오메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라파주시에 있던 프랑스침략군의 군사기지가 철폐되였으며 모든 프랑스침략군이 이 나라에서 쫓겨났다.

1967년 12월 27일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부가 정권을 잡고 15명으로되는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68년 5월초에 다오메에서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으나 유권자의 4분의 1도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는 무효로 선포되였다. 그리하여 6월 26일 《군사혁명위원회》는 에밀 진수를 대통령으로 지명하고 7월 28일 대통령 《신임투표》를 진행한 결과 진수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196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다오메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과 다오메근로자총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민족의회】 일원제

【정부】 대통령 에밀 데룰린 진수(1968년 7월 28일—)

【정당, 사회단체】 공화당, 민주주의당, 진보련맹, 근로자총동맹

경제, 사회 원주민의 90% 이상이 농업과 목축업 및 어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종려(총 경지면적의 50%이상), 강냉이, 마니오크, 락화생, 수수, 커피, 목화, 바나나 등이다.

철, 크롬 등의 지하자원이 있으나 개발되지 못하였으며 야자기름을 짜며 솜을 타는 소규모의 농산물가공공장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종려기름과 종려씨이며 그 수출액은 이 나라 년수출액의 약 87%에 달한다.

어린이의 취학률은 29%에 불과하며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 종교를 믿고있다.

나이제리아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서부아프리카의 서쪽 기네만에 면하고있으며 니제르, 다오메, 까메룬 및 챠드와 접경하고있다. 년평균기온은 20~23°C이다.

【면적】 87만 8,000km²

【인구】 5,640만명 (1964년 현재)

다민족국가로서 북부에 하우사족, 동부에 이보족, 서부에 요루바족이 살고있으며 이 외에 300여개의 종족이 있다. 언어는 150여종이 있으나 주로 호싸어와 요루바어를 사용하며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라고스 (주민 67만 5,000명)

정 치 15세기 이후 300년간 나이제리아는 영국, 에스빠냐, 프랑스, 뽀르뚜갈, 화란 등 식민주의자들의 노예매매지대로서 《노예해안》으로 불리였다.

1914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나이제리아의 전령토를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제2차 대전후 식민지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의 민족적해방을 위한 투쟁이 강화되여 나이제리아는 1961년 10월 1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1961년 6월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후견령》이던 북부까메룬이 나이제리아에 편입되고 1963년 10월 1일 련방공화국을 형성하였다.

독립이후 각 종족간 (북부주와 남부주간)의 대립이 격화되여오다가 1963년의 인구조사를 둘러싸고 국내분쟁이 더욱 심화되였다.

1966년 8월 1일 륙군성원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전륙군참모장이던 하우사종족의 고원이 정권을 장악하자 나이제리아동부주 군정장관인 오쥬크는 고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을 선언하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한 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의 내부정세를 교활하게 악용하여 지방주의와 종족주의를 선동하면서 반목과 리간을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책동하였다.

1967년 5월 30일 오쥬크가 동부주는 나이제리아련방으로부터 떨어져나가 《비아프라공화국》으로 《독립》한다고 선포함으로써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과 《비아프라공화국》 사이에 《전쟁》이 진행되고있다.

1967년 8월 31일 나이제리아군사정부는 1966년 5월 25일에 이론시정권이 련방공화국을 공화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었던것을 다시 12개주로 구성된 련방공화국으로 고쳤다.

【최고군정회의】 나이제리아최고지도기관이다.

【정부】 련방집행리사회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당, 사회단체】 북부인민대회당, 공민민족회의, 민족민주당, 사회

주의로동당, 나이제리아산림및땅구아농장원협회, 로조대회, 청년대회, 전국학생동맹.

【우리나라와의 관계】 1967년 2월 18일 나이제리아 서부주의 주소재지 펜니시에서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위원장 이제 아이에 오모래지에.

196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종려, 코코아, 락화생, 담배, 목화, 고무 등이다.

공업에서의 기본은 원유, 콜롬바이트 (자본주의세계생산량의 약 85%를 차지) 주석, 석탄, 종려기름(생산량에서 세계1위) 등의 채취공업과 원유가공공업이다.

지하자원으로는 원유(매장량 15억톤), 콜롬바이트,주석, 석탄 등이다.

나이제리아에는 8개의 대학, 22개의 전문학교, 514개의 중학교, 317개의 사범학교가 있다.

보건부문에서는 200여개의 병원과 산원이 있다. 주민의 약 절반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 신문 웨스트 아프리칸 파일로트, 데일리 스케취, 모닝 포스트, 에드완스.

니제르

(니제르공화국)

서부아프리카 사하라사막지대에 있는 내륙국가로서 알제리, 리비아, 나이제리아, 다오메,말리, 상부볼따,챠드와 접경하고있다. 년평균강수량은 남부에서 250~350미리메터, 북부에서 100미리메터이다.

년평균기온은 30°C이며 가장 더운 5—9월에는 46°C까지 올라간다.

【면적】 128만 7,000km²

【인구】 340만명(1968년 현재)

주민은 하우사족(50%), 제르마족, 송가이족 등 흑인이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며 그외에 풀베족 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니아메(주민 5만 2,000명)

정 치 19세기후반기부터 니제르에 침입하기 시작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1908년에 니제르의 전령토를 식민지로 만들어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 통합시켰다.

1906년과 1916년에 니제르인민들은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대중적폭동을 통하여 식민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었으며 그후에도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을 계속 벌렸다.

1957년에 니제르는 《반자치공화국》, 1958년에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으로 1960년 8월 3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달성하였으며 1961년 2월 11일 니제르는 《프랑스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왔으나 이해 4월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협조협정》을 맺었다.

1964년에 사와바당의 반정부사건이 있었으며 1965년 5월에 대통령 암살미수사건 등이 있었다.

196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니제르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국민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이 수상을 겸한다.

대통령 아마니 디오리(1965년 10월 재선)

【정당, 사회단체】 니제르진보당(집권당), 사와바당 당산하에 로조,청년 및 녀성단체들과 민주주의전선 등이 있다. 니제르전국로동자동맹.

경제, 사회 농업과 목축업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로서 주민의 94%가 이 부문에 종사한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지대로 되여있기 때문에 농사는 주로 니제르강류역에서 많이 한다.

주요농산물은 조, 마니오크, 사탕수수, 목화, 락화생(수출의 80%를 차지), 쌀 등이다.

1967년에 집짐승은 소(300여만마리), 양(700여만마리), 말, 락타등이 있었다.

독립후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막지대에서 물원천을 찾아내기 위한 탐사사업을 추진시키면서 도처에서 우물을 파며 저수지와 제방 등 관개시설들을 건설하고있다.

또한 짧은 기간에 중소규모의 세멘트공장과 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벽돌공장, 방직공장 등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되였다.

주요지하자원으로는 철, 주석동, 우라니움, 석유, 먼, 소금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있다.

문맹자가 많으며 사망률이 높은것을 고려하여 정부는 민족간부양성사업과 문맹퇴치운동을 추진시키고있다.

한편 국가기관들과 군대내에서 외국인들을 니제르인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진행되였다.

까메룬

(까메룬련방공화국)

아프리카대륙서해안의 기네만에 면하고있으며 가봉과 나이제리아 사이에 있다. 년평균기온은 25°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천600미리메터이다.

【면적】 52만km²

【인구】 515만명 (1966년현재)

주민은 반투족(남부),세미반투족(서부), 풀베족,함족과 셈족의 혼혈종 등 130여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수도】 야운데(주민 11만명 1966년)

정 치 15세기말부터 구라파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온 까메룬은 1902년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1916년에 까메룬을 강점한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1919

년에 이른바 《밀러, 시몽》협정을 조작하고 이 나라를 영령까메룬(서부)과 프랑스령까메룬(동부)으로 분할하여 통치하였다.

까메룬인민들은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1929—1931년간에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렸으며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는 직접 반파시스트전쟁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1946년 12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도구인《유엔》을 통하여 까메룬을 영국과 프랑스의 《추전령》으로 만들었다.

1956년 7월부터 까메룬인민은 프랑스령 까메룬의 쓰나가산속에서 무장투쟁을 벌렸으며 그후 영령 까메룬에도 무장투쟁을 확대시켰다.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에 의하여 1960년 1월 1일에 프랑스령 까메룬이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61년 2월에는 영령 까메룬이 독립을 쟁취하였다.

1961년 10월 1일 두지역까메룬 인민들은 분렬된 까메룬을 다시 통합하여 까메룬 련방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영령까메룬의 북부지역만은 나이제리아에 편입되였다.)

1966년 6월 이 나라 4개정당지도자회의에서 《까메룬련맹》, 《까메룬민족민주당》, 《까메룬통일대회》, 《까메룬인민전국대회》를 합당하기로 결정하여 이해 9월 1일 《까메룬전국동맹》을 창건하였다.

【련방민족회의】 일원제이며 동서까메룬은 자기의 립법회의를 가지고있다.

【정부】 대통령은 련방정부의 수상을 겸임하며 련방성원인 매개국가의 수상을 임명한다.

대통령 엘하지 아호마드 아히죠(1965년 3월 재선)

동부까메룬수상 씨몬 비에르춘기

서부까메룬수상 오규스텐 느굼주아

【정당, 사회단체】 **까메룬인민동맹, 까메룬전국동맹**(집권당), **민주녀성동맹, 민주청년련맹.**

경제, 사회

주민의 85%가 농사를 하는 농업국가이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세계 제5위), 커피, 바나나, 담배, 목화, 벼, 수수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보크사이트, 금, 주석, 철반토, 석유, 천연가스 등이다.

1966—1967년에 코코아생산은 1964—1965년에 비하여 3배로, 커피생산은 2배로 장성하였다. 1968년에 목화를 1만 9천톤 생산하였다. 목재는 1967년에 50만립방메터 생산하였다.

1968년 8월에 년산 1천 920톤 능력의 코코아기름공장이 건설되였다.

1963년에 창설된 련방종합대학(1964—1965년도에 1천 150명)이 있으며 어린이의 취학률은 50%이다.

【출판보도】 **통신** 까메룬통신 **신문** 유니떼 (까메룬전국동맹 기관지), 라 드레스뒤 까메룬, 레포르트 까메르내즈.

중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아프리카에 있는 내륙국가로서 챠드, 까메룬, 수단, 콩고와 각각 국경을 접하고있다. 남부의 기후는 무더운 적도기후이며 북부는 열대기후다. 기온이 제일 낮은 때인 12월에 19°C이고 가장 높은 6—7월에는 34°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남부에서 1천 500미리메터이며 북부에서는 400미리메터이다.

【면적】 61만 7,000km²

【인구】 225만 5,536명 (1969년 1월 1일 현재)

주민은 바이아족, 반다족, 만쟈족 등 8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방기(주민 23만 8,000명, 1966년)

정 치

1885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우방기샤리(현재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를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1910년에는 프랑스령적도아프리카에 강제적으로 편입시켰다.

1911년에 독일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가 제1차 세계대전후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 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독립을 위한 이 나라인민들의 세찬 투쟁으로 우방기샤리는 1958년 12월 1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자치공화국을 선포하고 나라 이름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고쳤다.

1960년 8월 13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해에 다코대통령은 흑아프리카사회진화운동의 1당제를 확립하였다.

1965년 12월 31일 군 최고 사령관 베델 보카싸(다코의 사촌형)가 군사정변을 통하여 정권을 잡았다. 정권을 잡은 보카싸는 1966년 1월 4일 나라의 헌법을 폐지하며 민족회의를 해산하고 국고조사위원회를 조직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8년 2월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자기 나라에 와있으면서 경제적 리익을 침해하는 해독행위를 감행하는 서부독일군국주의자들의 림시대리대사놈을 몰아냈다.

【정부】 1966년 1월에 10명의 군인 및 사민들로 구성, 대통령 장 베델 보카싸

【정당, 사회단체】 **흑아프리카사회혁명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중앙아프리카공화국로조련맹, 민족청소년동맹, 녀성동맹**

사회, 경제

주민의 90%가 농사를 짓는다. 경지면적은 약 150만헥타이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커피, 고무, 담배, 락화생, 벼 등이다.

목재는 1966년에 19만립방메터 생산되였으며 다른 나라에 많이 수출된다.

지하자원으로는 쇠돌 (철함유량 68%)을 비롯하여 금, 금강석, 동, 연, 아연, 석유, 우라니움 등이 풍부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민족경제발전4개년계획 (1967—1970년)을 수행 하고있다. 1967년도에 약 4만톤의 목화를 생산하였으며 1968년에 락화생은 7만 4천톤이 생산되였다.

독립후 10년동안에 이 나라의

학생수는 지난 식민지통치시기에 비하여 2배로 늘어났으며 학령아동의 50%이상이 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

병원침대수는 식민지통치시기에 비하여 2배로 장성하였으며 국내에는 약 100개의 예방치료소와 200개이상의 의료소들이 설치되였다.

주민의 25%가 천주교를 믿고있으며 5%가 회교를, 기타는 원시종교를 믿고있다.

가 봉

(가봉공화국)

아프리카대륙서해안의 기네만에 면하고있으며 꽁고(브), 까메룬과 접경하고있다. 전국의 80%가 산림으로 되여있다. 기후는 열대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5~28°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천 500~2천 500미리메터이다.

【면적】 28만 7,000km²

【인구】 63만명(1968년 현재)

주민은 피그미족, 판족 등을 비롯하여 약 50여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리브르빌(주민 3만 1,000명)

정 치 16세기부터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을 받아온 가봉은 1862년에 해안선일대를 프랑스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그후 1910년에는 프랑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면서 프랑스의 적도아프리카의 한개 령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가봉에서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1957년초에 가봉을 《준자치공화국》으로 만들었다. 1960년 8월 17일에는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선포케 하였다.

가봉은 형식상 독립을 선포하였으나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프랑스에 완전히 예속되여있다.

1967년에 《평화》의 탈을 쓰고 이 나라에 기여든 미제의 《평화군》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가봉정부는 9월에 40여명을, 12월에는 57명의 《평화군》을 몰아내기로 결정하였다.

【국민의회】 일원제

【정부】 대통령이 수상을 겸임한다.

대통령 알베르 베르나르 봉고(1967년 11월—)

【정당】 가봉민주련맹(집권당), 가봉사회민주동맹, 가봉민족통일당.

경 제 경제의 기본은 광업 림업 및 목재가공공업이다. 경제의 전반은 프랑스독점체들이 차지하고 가봉인민을 착취하고있다.

무나나지역에는 많은 우라니움광이 매장되여있으며 매년 10만톤을 채굴하고있다.

지하자원으로는 망간, 원유, 우라니움 등이 있다.

1967년에 새로운 큰 원유산지가 발견되여 1970년에는 800만톤의 원유를 생산하게 될것이 예견되여있으나 나라의 원유생산은 외국독점자본에 쥐여져있다.

목재의 80%는 합판 가공에 적합한 장미나무이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나무감자, 사탕수수, 락화생 등이다.

꽁 고(킨)

(꽁고민주공화국)

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있다. 서쪽은 대서양 꽁고(브)와 북쪽은 중앙아프리카, 수단, 동쪽은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탄가니카호), 남쪽은 로데시아 및 앙골라와 접하고있다. 년평균기온은 27°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1천 500미리메터이다.

【면적】 234만 5,409km²

【인구】 1,598만 6,000명(1966년현재)

주민의 대부분이 반투족이며 200여개의 부족으로 갈라져있는데 그중 반투계족이 총 인구의 84.2%를 차지한다.

【수도】 킨샤사(주민 38만 9,600명 1966년)

정 치 꽁고는 19세기 70년대부터 프랑스와 벨지고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아오다가 1908년에 벨지고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꽁고인민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50여년간의 투쟁끝에 1960년 6월 30일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후 벨지고식민주의자들은 꽁고의 지하자원이 풍부한 카탕가주만이라도 계속 장악해 보려고 1960년 7월 8일 꽁고(킨)에 대한 무력간섭을 감행하는 한편 7월 11일에는 저들의 주구 쏨베를 사촉하여 카탕가주를 《독립국》으로 선포하였다. 이 기회를 리용하여 미제는 《유엔》의 간판밑에 제놈들의 침략군을 꽁고(킨)에 들여밀어 꽁고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였으며 9월 14일에는 모부투를 사촉하여 군사정변을 일으켜 국회를 해산하고 합법적인 루뭄바정부를 전복케 하였으며 1961년 1월 루뭄바 수상과 그 전우들을 학살케하였다.

1960년 12월 루뭄바정부의 부수상이던 기젱가는 키산가니(스탠리빌)에 루뭄바의 합법적정부를 옮기고 자신이 수상직을 담당하였다.

1961년 8월 3일 미제의 조종밑에 조작된 아둘라도당은 《유엔군》의 직접적인 참가하에 합법적인 기젱가정부를 1962년 3월에 해산시켰다. 미제는 《유엔군》을 리용하여 애국력량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민족분렬책동과 식민주의자들의 앞잡이들인 모부투, 아둘라, 쏨베, 킴바 등을 부추겨 빈번한 《정권》교체를 통하여 저들의 침략정책 수행에 유리한 지반을 꾸리려고 미쳐날뛰였다.

1965년 11월 미제를 등에 업고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모부투는 자기의 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하나의 행정단위인 주를 21개주로부터 8개주로 줄이였다.

1968년 1월 4일 꽁고(킨)의 수도 킨샤사에서 시민들은 미제호전광두목중의 한놈인 험프리가 꽁고(킨)에 기여든것을 반대하여 반미시위를 벌렸다. 시위자들은 그놈의 자동차를 둘러싸고 주먹으로 자동차를 내리치면서 《살인

자는 물러가라》라는 구호들을 웨쳤다.

2월에 모부루괴뢰도당은 꽁고(킨) 대학생들이 반미시위를 일으켰다는것으로하여 꽁고(킨) 대학생 총련맹 전국집행위원회를 해산하고 지도자들을 투옥하였다.

10월에 모부루괴뢰정권은 꽁고(레) 최고혁명리사회 부위원장 물렐레를 체포하여 사형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꽁고(킨)인민들은 미제의 간섭과 그에 추종하는 모부루괴뢰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1968년 9월 꽁고(레) 최고혁명리사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국회】 일원제

【정부】 대통령 수상 겸 국방상 죠세프 데지레 모부투(1965년 11월—)

【정당】 《인민혁명운동당》, (집권당) **꽁고(레) 최고혁명리사회** 꽁고민족해방리사회 지도기관을 대신하여 1965년 4월에 조직. 위원장 가스톤 수미알로.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채광업과 공예작물생산이다.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서 《세계의 원료창고》로 알려져있으나 제국주의 독점체들이 략탈하여 가고있다.

지하자원으로는 금강석, 우라니움, 코발트, 동, 금, 주석, 망간 등이 있다.

경지면적은 5천만헥터에 달하며 주민의 3분의 1이 이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밀, 야자, 종려, 목화, 고무, 차, 나무감자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광물과 공예작물이며 주요 수입품은 미제의 잉여농산물이다.

농업생산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 인민들의 생활은 매우 곤난하다.

로력자의 절반이 실업자이다.

1967년 6월 종전의 꽁고프랑을 폐지하고 새 화폐 《자이르》를 만들어 냈다.

원주민의 65~70%가 문맹자이며 전반적주민이 카톨릭교를 믿는다.

【출판】 **신문** 레볼루시옹(민족해방리사회기관지).

카 빈 다

(뽀르뚜갈식민지)

꽁고와 앙골라의 접경지대인 대서양연안에 있다.

【면적】 7,770km²

【인구】 4만 6,277명

카빈다인민들은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을 진행하였다. 1960년 9월과 1961년 7월에 카빈다인민들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군중적인 시위를 벌렸다.

1963년에는 카빈다의 무장한 애국적인민들이 뽀르뚜갈식민주의군대를 들이쳐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주민의 대부분은 식민주의자들의 재배원에서 일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종려, 락화생 등이다.

루 안 다

(루안다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부에 있으며 꽁고(킨), 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와 국경을 접하고있다. 루안다는 계속되는 우기와 짧은 건조기가 교체되는 적도계절풍기후에 속한다. 년평균기온은 18~21°C 이며 년평균강수량은 900~1천500미리메터이다.

【면적】 2만 6,383km²

【인구】 301만 8,000명(1964년 현재)

주민은 바후루족(약 84%), 와투치족, 피그미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끼갈리(주민 1만명)

정 치 1890년 부룬디와 함께 독일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차 세계대전후인 1922년부터는 벨지크식민지로 되였다.

1946년부터는 《유엔후견령》으로서 행정상 꽁고(킨)에 예속되여있었다.

1957년에 나라의 독립을 주장하는 《루안다 부룬디민족동맹》이 창설되고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기세가 높아지자 이에 불안을 느낀 벨지크식민주의자들은 1959년 11월 《민주화》라는 간판밑에 바후루족의 정당인 파르메후투당을 부추겨 와투치족에 대한 폭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리하여 수만명의 와투치족을 우간다 등에 몰아내고 바후루족이 정권을 잡게하였다. 정권을 잡은 바후루족은 국왕을 몰아내고 공화제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1962년 7월 1일 루안다부룬디는 루안다왕국과 부룬디왕국으로 분리되여 각각 독립하였다.

【국회】 최고립법기관으로서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이 수상을 겸임한다 .

대통령 그레고와르 까이반다 (1965년 5월—)

【정당, 사회단체】 **파르메후투당**(집권당), **아프르소마** (사회진보협회) **루안다민족동맹.**

경 제 목축업을 위주로하면서 커피,목화 차,담배 등을 생산하는 농업국가이다.

주민의 주되는 식량은 강냉이, 밀, 고구마이다. 서부지방에서는 주석, 탄다르광도 채굴한다. 그러나 풍부하게 매장된 지하자원은 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략탈당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집짐승, 주석, 탄다르광 등이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왕국)

아프리카대륙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소말리아, 수단과 접경하고있다. 전령토가 고원지대이며 화산이 많고 지형에 따라 기후의 차이가 심하나 대체로 열대계절풍기후에 속한다. 년평균강

우량은 수도에서 1천 300미리메터, 제일 무더운 아피르분지는 250미리메터이다.

【면적】 118만 4,320km²

【인구】 2,366만 7,400명(1968년말 현재)

주민은 암하라족(약 50%)과 가라족이 있으며 남부에는 샴가르족, 동부에는 다나키르족, 소말리아족 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암하라어와 영어이다.

【수도】 아디스 아베바 (주민 63만 7,831명, 1967년 9월)

정 치 1869년부터 이딸리아의 침입을 받아오다가 1935년 10월 이딸리아에 강점되였다. 1940—1941년에 민족적독립을 위한 이 나라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된 시기를 리용하여 영식민주의자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이딸리아침략자들을 몰아내고 1942년 1월에 에티오피아에 이른바 《주권》을 부여하는 협정놀음을 벌렸다.

1952년 9월 인민들의 앙양된 투쟁에 의하여 영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였던 에리트리아가 에티오피아에 편입되여 련방을 형성하였다가 1962년 12월에는 에티오피아의 한개 주로 되였다.

에티오피아는 1950년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1966년 9월에 남조선강점 소위《유엔군사령부》에서 자기 군사대표단을 철수하였다.

1968년 1월 6일에 에티오피아의 수도 대학생들은 이 나라에 기여든 미제호전광 험프리를 반대하는 반미시위를 벌렸다. 대학생들은 피에 굶주린 이 호전광이 자기대학에 온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미국놈아, 제집에 돌아가라》, 《미제침략자는 웰남에서 물러가라》 등의 구호판을 들고 항의집회를 벌렸다. 이에 질겁한 험프리란놈은 이 대학《방문》을 취소하지 않을수 없었다.

국가기관의 주요한 자리는 왕족일파가 차지하고있으며 정부의 주요기관(외교, 재정 등)과 군대에는 미국놈《고문》과 《전문가》들이 있다.

【국왕】 하일레 셀라씨에 1세 (1930년 1월—왕위는 세습제)

【의회】 량원제

【정부】 수상 테샤피 테자즈 아크릴루 웰드

【정당, 사회단체】 정당은 없고 다만 왕실가족을 지지하는 유일한 합법적정치조직인 민족애국련합회가 있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부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주민의 90%이상이 이에 종사하고있다. 경지면적의 약 90%는 왕족, 봉건지주, 교회 등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밀, 보리 유지작물,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축산업은 이 나라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68년 2월 현재 1억 1천 500만마리의 뿔난집짐승, 양, 염소등이 있었다.

공업은 국민소득에서 3%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철, 백금, 동, 석탄, 은, 망간, 돌솜, 류황, 운모, 연, 린산염 등이다.

수출품은 커피(50%), 집짐승, 곡물 등이다.

주민의 60%가 기독교도이며 기타는 회교도이다.

케 니 아

(케니아공화국)

동부아프리카에 위치하고있으며 우간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와 국경을 접하고있다. 해안지대는 습하고 무더우며 고원지대는 년중 가을철날씨이다. 년평균기온은 20°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750~1천미리메터이다.

【면적】 58만 2,600km²

【인구】 1,020만 9,000명(1968년 10월현재)

주민은 아프리카인(937만명), 구라파인, 인도인, 아랍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어이나 스와힐리어도 사용한다.

【수도】 나이로비 (주민 35만 5,000명, 1967년 6월)

정 치 케니아는 1895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1920년에는 그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은《특별거주지》를 만들어놓고 600여만명의 케니아인민들을 전령토의 5분의 1도 못되는 척박한 지대에 강제로 이주시켜 가혹하게 탄압하고 착취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에 케니아인민들은 민족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세차게 벌렸는데 특히 1952년《마우마우》(반식민주의적인 애국적농민조직)의 지도하에 케니아농민들이 일으킨 무장투쟁이 있은후부터 그것은 대중적투쟁으로 발전되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여 일떠선 3년간(1953—1955년)의 농민들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1억 5천 200만파운드를 지출하였다.

그러나 1963년 6월에 케니아인민들은 조모 케니아타를 초대 수상으로하는 자치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이해 12월 12일 《영련방》내의 자치국으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4년 11월 3일 새 헌법을 채택하고 이에 기초하여 12월 12일 공화국을 선포하고 영국침략군대를 쫓아냈다.

1968년 1월 7일에 케니아의 수도시민들은 자기 나라에 기여든 미제호전광 두목의 한놈인 험프리를 규탄하여 시위를 벌렸다.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를 규탄하는 구호판들을 들고 거리에 떨쳐나선 시위자들은 험프리가 탄 자동차의 앞길을 막아나섰으며 이놈을 께둘리기 위해 마구덤벼들어 폭행을 감행하는 경찰과 맞서 싸우면서 미제의 팽창 및 침략정책을 규탄하였다.

196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케니아인민동맹대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민족회의】 량원제

【정부】 현 정부는 1967년 1월 5일 구성

대통령 김 수상 조모 케니아타

【정당】 케니아아프리카인민족동맹

(집권당), 케니아인민동맹, 사회주의당

경제, 사회 주민의 96%가 농사를 하는 농업국가이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차, 사이잘삼, 밀, 보리, 담배, 목화 등이다.

축산업도 비교적 큰 규모로 진행되고있다. 오랜기간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경제는 외국자본 특히 영제국주의자들의 독점자본에 예속되여있다.

그러나 독립후 정부는 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토지와 기업소들을 국유화하고 새로운 공업기업소들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수출액의 30%), 사이잘삼, 차 등인데 농업및 축산제품이 90%를 차지한다.

1964년에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수는 17만명이였다.

주민은 배물교, 기독교, 회교도를 믿는다.

【출판】 신문 이스트아프리칸 스탠다드, 데일리 네이숀, 타이파레오

모잠비크

(뽀르뚜갈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동남부에 위치하고있으며 탄자니아, 느그와베르, 남아프리카와 접경하고있다. 평지대가 비교적 많고 해안선에는 항만들이 많다. 북쪽해안지대의 년평균기온은 25°C,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강우량은 1천~1천 500미리메터이다.

【면적】 78만 3,000km²

【인구】 695만 6,000명 (1966년 현재)

주민은 원주민인 반투족이 대부분이며 기타 구라파인, 아세아인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뽀르뚜갈어이며 원주민은 스와힐리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로렌스 마르케스 (주민 18만 3,800명)

정 치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1700년부터 이 나라를 제놈들의 《보호령》으로 만들었으며 1871년부터는 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1899년에 식민지통치자들은 《로동법》을 만들어 원주민들에게 제놈들의 농장이나 건설장에서 로동할것을 강요하였다. 또한 놈들은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남로데시아와 남아프리카의 탄광과 광산에 팔아넘기는 대가로 매년 100만파운드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나라의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을 벌려오던 모잠비크인민들은 1962년 5월에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망라하여 모잠비크해방전선을 조직하였다. 1963년 9월 이 전선은 해방을 위한 투쟁방도로써 무장투쟁로선을 제기하였다.

1964년 9월 25일 무장투쟁은 해방전선의 지도밑에 독재자 살라자르도당의 식민지폭압통치를 반대하는 전인민적폭동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초기 니아사호와 잠베지강지역에서 6~7명의 애국자들로 조직된 몇개의 무장소조가 1968년에 와서는 1만 5천명의 훈련되고 현대적무기로 무장한 투사들을 가진 대부대로 자라나 도처에서 뽀르뚜갈침략자들을 족쳤다. 2월 8일—3월 19일까지의 기간에 까보델가도주에서 활동한 애국자들은 식민주의군대 66명을 소멸하였으며 적들의 큰 2개의 초소와 병영 그리고 《전략촌》을 들이쳐 큰 타격을 주었다.

3월 15일—5월 14일까지의 기간에 테떼주와 니아싸주에서 뽀르뚜갈식민주의군대 140여명을 소멸하고 군용차와 많은 적병영을 불살라버렸다.

8월 10일 모잠비크유격대는 무에다시지역에 있는 뽀르뚜갈침략자들의 비행장에 박격포와 기관총사격을 퍼부어 적기 12대를 파괴하고 비행장의 연유창고와 비행장시설물 및 여러대의 자동차를 파괴하였다.

7월에 열렸던 모잠비크해방전선 제2차대회후 유격투쟁은 더욱 앙양되여 5만여명의 식민주의자들의 《정예부대》와 맞서 용감히 싸우고있는 유격대는 카브델가도주와 니아싸주 등 여러곳에서 수십차례의 습격작전을 벌린 결과 1968년에만도 뽀르뚜갈침략군 1천 500여명을 죽이고 군용자동차 100대를 파괴하였으며 비행기 20대를 쏴떨구는 등 적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모잠비크애국자들은 무장투쟁을 개시한후 지난 4년동안에 전국 령토의 5분의 1을 해방하였으며 그리고 침략군 약 7천명을 죽이고 500대의 적군용자동차를 파괴하였다. 애국자들은 또한 42대의 비행기와 직승비행기를 쏴떨구었다.

【정당, 사회단체】 아프리카인민족동맹, 민족주의당, 모잠비크해방전선 1962년 5월 결성, 모잠비크의 무장투쟁을 지도, 위원장 에두아르드 몬들라네 (1968년 7월에 모잠비크해방전선 제2차대회에서 재선)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구라파인농장주들은 159만 2천헥타의 토지를 차지하고 아프리카인 농민들은 겨우 49만 4천헥타의 토지밖에 못가지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사이잘삼, 목화, 야자, 강냉이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주석, 석탄, 보크사이트, 돌솜, 석유, 월프람 등이 있다.

모잠비크는 료양지로, 해수욕장으로, 유람지로 널리 알려져있다.

종교는 기독교, 회교, 원시종교 등이 있다.

모잠비크해방전선은 자력으로 농업협동조합과 호상협조반을 조직하고 농업의 발전과 식량해결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67년 대풍작을 이루어 주변 나라들에 700여톤을 수출하였다.

또한 해방지역에서는 100여개의 인민학교에서 1만여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있다. 해방지역에는 큰 병원과 400여개소의 진료소가 있어 인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말라위

(말라위공화국)

중부아프리카에 위치하며 탄자니아의 남쪽 니아사호 서쪽에 있다. 전령토에 걸쳐 남북으로 길고 좁은 지구대가 뻗어있으며 그의 높이는 200∼500메터이다. 그러나 북부는 바다의 표면보다 200메터정도 낮다. 적도무역풍기후로서 가장 추울 때 (7월)의 평균기온은 14∼19°C이다.

【면적】 11만 9,311km

【인구】 375만 3,000명(1963년 현재)

주민은 대부분이 아프리카인이며 기타 구라파인 아세아인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좀바(주민 1만 7,690명)

정 치 19세기말부터 영국, 뽀르뚜갈, 독일 등의 침략을 받아온 말라위는 1891년 5월에 영제국주의자들의《보호령》으로 되였고 1953년 10월에《중앙아프리카련방》에 강압편입되였다.

민족적독립과 《련방》의 해체를 요구하는 말라위인민들은 1959년 2월 16일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아프리카인 애국자들을 비법적으로 체포한것을 계기로하여 70여일간이나 반영투쟁을 벌렸다.

이러한 투쟁에 의하여 1960년 7월에 립법회의를 선거할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1963년 2월에는 자치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해 12월에는 《중앙아프리카련방》에서 떨어져 나왔다.

1964년 7월 6일 《영련방》내의 자치국으로서 독립을 선포하고 1891년부터 니아살랜드로 불리워오던 나라 이름을 본명대로 말라위(불길이라는 뜻)로 고쳤으며 1966년 7월 6일 말라위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립법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이 수상을 겸임한다.

대통령 헤스팅그스 카무주 반다(1966년 5월—)

【정당, 사회단체】 말라위대회당(집권당), 전국로동련맹.

경제, 사회 농업발전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가지고있으나 영식민주의자들은 차, 담배, 커피 등의 재배만을 강요하였기때문에 농업은 극히 기형성을 띠고있다.

독립전에는 인구의 0.3%밖에 안되는 백인들이 전국경지면적의 85%이상의 비옥한 땅을 독점하고있었다.

주요농산물은 담배, 차, 목화 강냉이, 마니오크, 락화생, 커피, 쌀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돌솜, 보크사이트, 동, 석탄, 금, 철광, 망간 금강석, 석유 등이 있다.

매년 15만명의 말라위인들이 품팔이로 이웃 나라에 가며 어린이들의 3분의 2가 학교에 가지 못한다.

짐바브웨

(남로데시아)

남아프리카의 잠베지강 이남에 있다. 북쪽은 잠비아, 서쪽은 뽀쯔와나, 남쪽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동쪽은 모잠비크와 접경하고있다. 년최고기온은(10—11월) 38°C이상이며 년평균강우량은 762미리메터이다.

【면적】 38만 9,400km²

【인구】 446만명(1966년말 현재)

주민은 대부분이 아프리카인(421만명)이며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구라파인으로 이루어졌다.

【수도】 솔스베리(주민 약 31만명)

정 치 영국, 독일,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던 이 지역(잠베지강 남북의 약 115만평방키로메터의 고원지대)은 1895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3년 1월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은 날로 커지는 짐바브웨인민들의 반식민지투쟁을 탄압말살하고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로데시아(잠비아), 남로데시아, 니아살랜드 (말라위)를 합하여 《중앙아프리카련방》을 조작하였다.

그러나 1962년 8월에 일으킨 인민들의 무장봉기를 비롯한 이 지역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63년 12월 31일에 조작된 련방제는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영국제국주의침략자들은 가장 흉악한 인종주의두목 스미스란놈을 내세워 백인정권을 조작하고 1965년 11월 11일 남로데시아의 일방적인 《독립》을 선포케하였다.

1966년 4월 28일 용감한 짐바브웨의 해방투사들은 솔스베리 서쪽에 있는 시노이아에서 스미스도당의 군대에 첫 공격을 들이댐으로써 짐바브웨의 무장투쟁의 해불을 추켜들었다.

1968년에 원쑤들에게 더욱더 큰 징벌을 가할 결의에 충만된 짐바브웨애국자들은 1월 2일 잠베지계곡에서 남아프리카와 남로데시아의 식민주의군대를 들이쳐 놈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3월에 짐바브웨 애국자들은 약 130명의 인종주의군대를 소탕하고 적분사식비행기 2대와 직승비행기 1대를 쳐떨구었으며 4월에는 약 10일동안에 적 114명을 소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7월 22일에 유격대는 놈들의 삼엄한 경계하에 있는 카리바비행장을 들이쳐 많은 적들을 죽였으며 다음날에는 비행장부근의 적 《군인구락부》를 들이쳐 적들게 큰 타격을 주었다.

1968년에 와서 1만∼2만명의 대오로 급격히 자라난 짐바브웨애국자들은 솔스베리 북쪽에 다른 새로운 전선을 펴고 남아프리카 애국자들과 긴밀히 협동작전하여 스미스와 포스터인종주의군대에 강한 공격을 들이댐으로써 놈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196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립법회의】 일원제

【정부】 수상 이완 스미스 (1964년 4월 —)

【정당, 사회단체】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 1953년에 창건된 《아프리카민족대회당》을 중심으로 1961년 12월에 조직, 나라의 완전독립과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도하고있다.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 로데시아전선, 범아프리카사회동맹, 짐바브웨아프리카인로조대회.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하고 있다. 경지면적의 70% 이상을 인구의 5.7%밖에 안되는 백인들이 차지하고 이나라 농민들을 착취하고 있다.

주요농산물은 담배(농업총생산액의 60~80%), 강냉이, 목화, 락화생 등이다.

지하자원은 철광, 돌솜, 크롬, 동, 니켈 등이 풍부하나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아프리카인들은 하루 12~14시간이상 일해도 임금은 백인로동자들의 20분의 1밖에 못받으며 그나마 각종 잡세로 빼앗기고있다.

주민의 80%가 문맹자이며 백인은 기독교를, 아프리카인은 원시종교를 믿는다.

앙 골 라

(뽀르뚜갈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서남부에 위치하고있으며 꽁고, 잠비아, 서남아프리카와 접경하고있다. 내륙 지방은 적도계절풍 기후이고 해안지대는 열대무역풍기후로서 가장 더울 때에 평균기온이 17~28°C이다.

【면적】 124만 6,700km²

【인구】 515만 4,000명(1966년 현재)

반투족이 주민의 97%를 차지한다. 언어는 반투어이다.

【행정중심지】 무안다(주민 22만 5,000명)

정 치 1885년부터 뽀르뚜갈식민지로 되였으며 1951년부터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앙골라를 저들의 《해외주》로 선포하고 파쑈적인 총독통치를 실시하였다.

1957년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파쑈기구인 《국가정보 및 치안경찰》법을 만들어놓고 인민들을 체포, 학살하였으며 1961년에는 2만 5천명의 침략군을 투입하여 앙골라인민을 반대하는 식민지전쟁을 벌려 수많은 앙골라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앙골라인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벌렸다.

앙골라인민들의 무장투쟁은 1961년 2월 4일 무안다에서 식민주의자들의 영창과 헌병대본부를 습격한 봉기로부터 시작되여 3월 24일에는 시에라다 감바산악지대에서 24명의 애국자들이 20자루의 총을 가지고 첫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유격근거지를 창설한 때로부터 더욱 견결히 벌어졌다.

1967년에 뽀르뚜갈식민주의군대 1천 930여명을 소멸한 앙골라인민무장력은 1968년을 《새로운 승리의 해》로 되게 할것을 선포하고 도처에서 원쑤들을 족치였다.

1967년 10월—1968년 2월까지의 사이에 동부 전선에서 활동한 앙골라유격대들은 4개의 뽀르뚜갈식민주의군대의 병영을 들이쳐 적군 279명을 죽이고 약 460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그밖에 많은 손실을 주였다.

3월—6월까지의 사이에 앙골라유격대들은 뎀보스, 무안다 및 남부안고노 지역들에서 벌린 전투들에서 589명의 뽀르뚜갈식민주의군대를 죽이고 많은 적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7월—12월중순까지의 사이에 카빈다주에서 앙골라애국자들은 현대적 무기를 갖추고 보다 대규모적인 작전을 벌려 적들을 족친결과 침략군 3천 227명을 죽임으로써 놈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였다.

1968년에 앙골라유격대는 종전에 없었던 동부전선을 새로 폄으로써 4개전선에서 적을 족쳐 령토의 3분의 1과 인구의 5분의 1을 해방하였으며 1968년 말에는 국내의 15개주중 9개주에서 보다 적극적인 유격활동을 벌리였다.

196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앙골라전국근로자동맹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정당, 사회단체】 인민해방운동당 1956년 12월 창건, 앙골라민족해방투쟁을 령도. 인민련맹, 통일전선당, 전국로동자협회, 전국근로자동맹.

경제, 사회 농업과 광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150만헥터의 좋은 땅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 종려, 사탕수수, 락화생, 강냉이, 바나나, 나무감자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금강석, 석유, 동, 망간, 갈탄, 운모, 연, 아연쇠돌, 우라니움, 월프람 등이 풍부하나 식민주의자들에게 략탈당하고있다.

주민의 90%가 문맹자이며 어린이 사망률이 60%나 된다.

그러나 인민정권이 수립되여 새 생활이 창조되고있는 해방지역에서는 생산이 늘어나고있으며 초등학교들이 창설되였다.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하는 해발 평균 1천 200메터의 고원지대이다. 중부고원지대는 우량이 많고 기온의 차가 적다. 년평균강수량은 650미리메터이다.

【면적】 122만 3,000km²

【인구】 1,850만명 (1967년 현재)

주민은 아프리카인(1,300만명), 백인(약 300만명), 혼혈인 (약 152만명)이며 기타 아세아인, 아랍인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프레토리아(주민 41만 6,000명, 1961년)

정 치 19세기초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은 무력으로써 이 나라를 강점하고 1909년에《남아련방법안》을 조작하여 케이프

타운과 나타르를 합병하고 1910년 5월 자치령인 남아프리카련방을 조작하였다.

그러나 제 2차세계대전후 영제국주의자들은 급격히 앙양된 남아프리카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에 부딪쳐 종전의 방법으로는 식민지통치를 유지할수 없게 되자 교활한 술책으로써 남아프리카의 정권을 백인인종주의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1948년 식민지통치의 변종인 백인인종주의정권이 조작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비호하에 정권을 잡은 버워드도당은 《통행증법》, 《파괴활동금지법》등 70여종의 악법을 만들어 원주민들을 무참하게 체포, 구금, 학살하였다.

1959년 버워드도당은 《반투자치법》을 조작하여 총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원주민들을 착취하며 지하자원을 략탈하기 위해 이 나라 총면적의 13%밖에 안되는 7개지역의 메마른땅으로 강제이주시키고있다.

1961년 5월 31일 남아련방으로 불러오던 나라 이름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고쳤다.

1968년 5월 1일 보스터도당은 새로운 악법을 조작하여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원주민들의 대중적진출을 막아보려고 발광하였다.

그러나 남아프리카인민들은 백인인종주의정권을 뒤집어엎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여러해전부터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무장투쟁을 벌리고있다.

【의회】 량원제

【대통령】 허오필루스 돈게스 (1967년 2월—)

【정부】 수상 존 보스터(1966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아프리카대륙에서 처음으로 창건. 국민당(집권당), 통일당, 남아프리카통일전선, 자유당, 진보당, 남아프리카로조대회.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채광업이다. 경작지의 87.5%를 백인들이 차지하고 아프리카인들을 착취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밀, 목화, 담배, 사탕수수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금강석, 우라니움, 석탄, 동, 철, 연, 망간, 크롬 등이다.

백인인종주의도당이 조작한 악법에 의하면 16세이상의 원주민은 27가지의 신분증을 가지고있지않는 경우 백인농장에서 강제로동을 당하며 흑인과 백인의 결혼시에는 8년간의 징역형에 처하며 일체 폭동, 집회를 금지하며 인종별로 주민을 등록하고 오락시설을 분리하고 공산당원들과 애국적민족주의자들을 체포하게 되여있다.

아프리카인 로동자들은 하루 14시간이상의 고된 로동을 하면서도 백인로동자 로임의 20분의 1밖에 받지못한다.

실업자수는 50만에 달하며 어린이의 사망률은 20~30%나 된다.

서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서남단에 위치하며 남아프리카, 앙골라, 잠비아와 접경하고있다. 해안지대는 사막성기후이고 내륙지방은 고원성기후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50~500미리메터이다.

【면적】 82만 3,876km²

【인구】 55만 4,000명(1963년 현재)

주민은 아프리카인 (44만 1,000명), 구라파인(7만 8,000명), 혼혈인(2만 5,000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통일적인 언어가 없다.

【행정중심지】 윈드후크 (주민 4만 3,000명, 1962년)

정 치 15—16세기기간에 뽀르뚜갈, 화란, 영국, 독일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915년 7월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조작한 남아련방(현재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강점되였고 1920년 12월부터는 남아련방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그후 남아련방은 1949년 4월에 《서남아프리카사무수정법안》을 조작하고 서남아프리카를 자기의 령토에 포함시켰다.

서남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은 제2차세계대전후 앙양되였다. 특히 민족동맹과 인민단체의 결성과 함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1963년 11월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던 민주단체들은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여 왔다. 그리하여 1966년 5월부터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1968년에 보스터인종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에서 서남아프리카애국자들은 수많은 남아프리카 침략군을 소멸하였다.

11월초에 서남아프리카애국자들은 서남아프리카의 카프리비지방에 있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므파챠군사기지를 들이쳐 20여명의 적을 죽이고 5대의 군용자동차를 마사버리는 등 무장투쟁을 개시한 이후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 많은 군용자동차와 비행기들까지 마사버리는 전과를 올렸다.

서남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장관이 통치한다.

【립법리사회】 1968년 10월에 남아프리카의 보스터도당이 민족적 독립을 위한 서남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려고 만들어낸것이다.

【정당, 사회단체】 **민족동맹**, 1958년에 조직, 서남아프리카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인민단체**, **오밤보인민당**, **국민당**, **통일당**, **서남아프카당**, **서남아프리카로동자련맹**

경 제 경제의 주요부문은 채광업과 목축업이며 해안지대에서는 어업도 한다.

백인인종주의자들이 농목축업을 할수 있는 토지의 87%를 차지하고 아프리카인들을 착취하고 있다.

축산업은 소, 면양 기르기를 기본으로 하고있으며 주요농산물은 강냉이와 약간한 밀, 기타 공예작물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금강석, 바나듐, 연, 동, 망간, 아연, 우라니

움, 탕그스텐, 철, 금, 은 등이 있다.

느그와네르

(느그와네르왕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령토안의 동북부에 있는데 뽀르뚜갈령모잠비크와 접경하고있다. 건조한 아열대기후에 속하며 년평균강수량은 500～1천 400미리메터이다.

【면적】 1만 7,366km²

【인구】 30만명 (1967년 현재)

주민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인(약 98%)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므바바네(주민 3,000명)

정 치 1834년부터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던 스워질랜드는 1906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영국놈 고등판무관의 통치를 받았다.

1964년 1월에 립법회의 창설을 예견한 헌법이 효력을 내여 같은해 6월에 립법회의 선거가 진행되였다.

스워질랜드인민들의 독립을 위한 오랜 투쟁에 의하여 1967년 4월 25일부터 새로운 헌법이 실시되였다. 그리하여 영제국주의자들의 《보호령》이던 스워질랜드가 《내부자치권》을 가지게 되였다.

1968년 9월 6일에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 이름을 느그와네르로 고치였다.

【의회】 량원제

【국왕】 사브후자 2세

【정부】 수상 마코쉬니 둘라미이

【정당, 사회단체】 진보당, 민주당, 임보코드워민족운동당 (집권당), 범아프리카단결대회.

경제, 사회 60여년간에 걸친 영국식민지통치하에 있은 덜 발전된 농업국가이다. 토지의 대부분은 백인농장주들이 차지하고 이 나라인민들을 착취하였다.

주요농산물은 쌀, 강냉이, 사탕수수, 락화생, 감자 등이며 주요축산물로는 소, 염소, 양 등이 있다.

주요지하자원으로는 돌솜, 쇠돌, 금, 은 등이 있다.

주민의 약 6분의 1이 식민주의자들의 농장에 고용되여 있었거나 남아프리카의 광산들에서 품팔이로 생활하였다.

보쯔와나

(보쯔와나공화국)

남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있는 열대초원지대이며 서남부는 사막지대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서남아프리카, 짐바브웨와 접경하고있다. 기후는 아열대성에 속하며 항상 건조하다.

【면적】 71만 2,000km²

【인구】 55만 9,000명(1967년 현재)

주민은 아프리카인(99%), 구라파인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가베로네스 (주민 8,000명)

정 치 1885년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의 남부지역을 《영령 베추아날랜드》로 북부지역을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1910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영령 베추아날랜드》를 남아프리카련방에 통합시키여 케이프타운주로 되게 하였다. 또한 북부지역마저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책동하였으나 이 나라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목적을 달성할수 없었다.

베추아날랜드인민들은 1961년 인종차별과 아프리카인들의 선거권을 박탈한 《헌법》을 반대하여 마페키에서 군중집회와 시위를 벌렸으며 1962년에는 진정한 독립을 요구하여 로바쉬군중들이 투쟁을 벌렸다.

1965년 3월 1일 《내부자치제》를 쟁취하였으며 1966년 9월 30일에는 독립을 달성하였고 나라이름을 보쯔와나공화국으로 고쳤다.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세레즈 크하마(수상겸임)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민주당(집권당), 보쯔와나독립당, 베추아날랜드로조대회.

경 제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이다. 축산물은 국민소득의 75%를 차지한다. 경작할수 있는 땅은 약 800만헥터인데 그중 5%만이 파종된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수수, 콩 등이나 많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지하자원으로는 돌솜, 망간, 동, 연, 철, 금 등이 매장되여 있으나 외래독점자본가들에게 략탈당하고있다. 수출품은 축산물과 돌솜이다.

성년남자의 절반이상이 매년 이웃 나라로 품팔이를 떠난다.

레 소 토

(레소토왕국)

남아프리카공화국령토내의 동부에 위치하고있다. 1월 평균기온은 25～26°C, 7월 평균 기온은 15°C이다. 그러나 겨울에는 때때로 기온이 령하로 내려가며 산지에는 눈이 내린다. 년평균강수량은 750～1천미리메터이다.

【면적】 3만 344km²

【인구】 88만명(1965년 현재)

주민은 99.5%가 아프리카인으로 이루어졌다. 언어는 반투어와 줄루어를 쓴다.

【수도】 마세루(주민 3만 4,000명)

정 치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843년에 바수톨랜드의 최고추장 모쉐슈를 강박하여 《보호통치》를 접수케 하였으며 1868년에는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1878—1881년사이에 바스톨랜드인민들은 영국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인민봉기를 벌렸으며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위한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1959년 9월에 《내부자치권》을 쟁취하였

1968년 9월 15일 까나리아섬인민들은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위한 큰 시위투쟁을 벌렸다. 갈다르시 로동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수백명의 농민들이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려 식민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정당, 사회단체】 **까나리아섬자결독립운동** 1964년 10월 22일 결성, 총비서 안또니오 끼빌로. **까나리아자치운동.**

경 제 주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과거에는 목축업을 위주로 하면서 약간한 알곡작물을 재배하는 한편 도자기업에 종사하였다.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된 이후에는 일년감, 옥파, 감자, 귤, 바나나 재배가 위주로 되였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바나나, 옥파, 감자, 귤 등이다. 물고기도 잡는다.

공업은 락후하며 원유정제공장, 세멘트공장, 화학공장 및 수산물가공공장을 가지고있을뿐이다.

모리샤스도

말가슈의 동쪽 인도양상에 있는 작은 화산섬이다. 기후는 때때로 열대태풍이 있으나 비교적 좋다. 년평균강수량은 서부해안 지대에서는 762미리메터, 산지대에서는 5천미리메터이상에 달한다.

【면적】 1,865km²

【인구】 약 80만명

주민은 인도인 (68%), 아랍인 중국인, 백인들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어이나 프랑스어도 사용한다.

【수도】 포트루이스(주민 12만명)

정 치 1715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통치를 받았으며 1810년부터 근 160년동안은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었다.

자유와 해방을 위한 모리샤스섬 인민들의 오랜 투쟁에 의하여 1967년 8월에는 내부자치제가 실시되였으며 1968년 3월 12일에는 아프리카에서 39번째로 독립을 쟁취하였다.

【정부】 수상 시부사가르 람굴람

【정당】 **레이버당(집권당), 사회민주당, 해방전선.**

경 제 사탕수수재배가 경제의 기본(사탕의 년생산량 약 68만톤)을 이루고있다. 식량은 10분의 1도 충족못하고 수입에 의존한다.

공업은 락후하며 몇개의 제탕가공공장이 있을 뿐이다.

이 밖에 가공공업이 있다. 목재도 어느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그의 년 생산량은 1만 5천립방메터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사탕 및 그 제품이나 그 리윤의 전부는 외국독점자본가들이 차지하고있다. 교통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쎈트 헬레나도

(영국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서쪽남부 대서양상에 있는 작은 섬이다. 열대지대에 속하나 산이 많고 기후는 서늘하다.

【면적】 122km²

【인구】 4,760명

【행정중심지】 제임스타운(주민 1,700명)

1633년에 화란에 강점되였고 1651년이후에는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강점하였다. 1673년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이 섬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선포하고 총독정치를 실시하고있다. 제2차 대전시기를 전후하여 영제국주의자들은 이섬에 침략적해군기지들을 건설하였다.

주민의 대다수는 농업과 목축업을 하고 있으며 이섬에 정박하는 선박들의 봉사사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대마, 아마, 남새, 과실 등이다.

산 토메도, 프린씨페도

(뽀르뚜갈식민지)

서아프리카의 기네만에 있다. 동북부해안지대는 저지대로서 무덥고 강수량이 많다. 중부지대는 산이 많고 따뜻하다.

【면적】 964km²(산토메도 824km²)

【인구】 6만 3,700명(1965년 현재)

주민은 반투족(90%), 메티스족(8%)이며 기타 구라파인으로 이루어졌다. 총인구의 88%가 산토메도에서 산다.

【행정중심지】 산토메(주민 8,000명)

1485년 이 섬에 침입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 의하여 쫓겨났다가 19세기에 이 섬을 다시 강점하였다.

1951년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이 섬을 제놈들의 《해외주》로 선포하고 총독통치를 실시하고있다. 산 토메도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정치범의 류형지로서 《죽음의 섬》이라고 불리우고있다.

정당으로는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산 토메도, 프린씨페도해방위원회**가 있다. 이 해방위원회는 아프리카인들을 궐기시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지도하고있다.

이 섬은 미제와 뽀르뚜갈, 서독군국주의자들의 략탈을 받고있다.

경제는 농업이 위주로되고있으며 뽀르뚜갈침략자들이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코코아, 커피 코프라 등 수출용작물을 재배하고있다.

세이쉘제도

(영국식민지)

서부인도양상의 92개의 섬으로 구성되여있다. 년평균기온은 26.1°C이며 년평균 강수량은 2천402미리메터이다.

【면적】 404km²

【인구】 4만 3,750명(1962년 현재)

주민은 주로 반투족, 구라파인, 인도인이다.

【행정중심지】 빅토리아 (주민 약 1만명)

1756년에 프랑스, 1794년에 영

국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 1810년에 모리샤스섬에 속하였다가 1814년에 다시 영국의 식민지로 되여 1903년부터 영국놈 총독의 통치를 받고있다.

정당으로는 민족적독립을 주장하는 세이쉘제도인민통일당 (서원장 레네)이 있다.

주민의 대다수는 어업과 농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야자, 마닐라(향료), 계자이며 인도에 수출 한다.

레유니옹

(프랑스식민지)

말가슈의 동쪽 인도양상에 있는 섬이다. 열대성 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0°C이다.

【면적】 2,511km²

【인구】 37만 5,000명 (1964년 현재)

주민의 대부분은 흑인과 혼혈인이며 그밖에 인도인 말가슈인들과 회교들이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행정중심지】 쌍 데니스(주민 4만 2,000명)

【정당】 레유니옹공산당 프랑스공산당의 지부로 있다가 1959년 5월부터 독립적인 정당으로 발족하였다. 총비서 뽈 베르제스.

1643년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여 1793년부터 레유니옹(처음에는 부르봉이라함)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1810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1815년에는 다시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46년부터는 프랑스의 《해외주》로 되였다.

주민의 50%이상이 농사를 하며 경작지는 7~8만헥터이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벼, 감자, 콩, 락화생 등이다. 그밖에 향초도 생산되는데 그 생산량은 1960년에 21만 8천톤이였다.

공업은 프랑스독점자본에 의하여 운영되는 보잘것 없는 제탕공업 뿐이다.

주민의 60%가 문맹자이며 원주민의 평균수명은 24세이다.

【출판】 신문 떼무아나쥐 (레유니옹공산당기관지), 레 퓨쁠

코모르제도

(프랑스식민지)

아프리카대륙과 말가슈섬 사이의 인도양상에 있는 6개의 섬으로 구성되여있다. 기후는 습도가 높고 년평균 기온은 23°C이다.

【면적】 2,171km²

【인구】 18만 1,000명 (1965년 현재)

주민은 안딸라우또라족, 말라가씨족, 인도족 등으로 이루어졌다. 아랍어를 널리 사용한다.

【행정중심지】 자우지

1841년부터 프랑스침략자들이 침입하여 1912년에 프랑스식민지로 만들었다. 1914년에 이섬을 말가슈의 한개 성으로 만들었고 1947년에 분리시켰다.

코모르제도는 프랑스의 총독에 의하여 통치된다.

코모르제도민족해방운동의 지도하에 코모르제도인민들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며 섬의 독립을 요구하여 투쟁을 점차 확대하고있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 주로 양기르기이다. 주요농산물은 야자, 외닐러(향료의 일종), 코코아, 바나나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회교도를 믿는다.

미 주

꾸 바

(꾸바공화국)

꾸바공화국은 카리브해와 안틸제도에 있는 1천 600여개의 크고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이며 최고기온은 35°C, 최저기온은 15°C이다. 년평균 강우량은 600미리메터이다.

【면적】 11만 4,500km²

【인구】 793만 7,200명(1967년 현재)

주민은 백인, 혼혈인, 흑인으로 이루어져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아바나(주민 168만명, 1967년)

정 치 꾸바는 16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가혹한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던 꾸바인민은 1868년 10월 10일 까를로스마누엘 데 세스뻬데스의 지도밑에 제1차 독립전쟁에 일떠서 견결히 싸웠다. 1878년에 산혼조약에 의하여 10년간의 전쟁이 끝난 뒤로부터 1895년까지의 약 20년동안 호세 마르띠를 비롯한 투사들이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30년간에 걸친 꾸바인민의 영웅적투쟁으로 에스빠냐의 힘이 진했을때인 1898년에 악독한 미제침략자들이 에스빠냐에 전쟁을 선포하고 꾸바를 강점하였다.

1902년 5월 20일에 꾸바는 독립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그후에도 꾸바의 정치, 경제적 실권은 미제의 손아귀에 쥐여져 있었다. 미제는 1903년에 관따나모를 강점하고 그곳을 저들의 해군기지로 만들었다. 그후 미제는 1906—1909년까지 꾸바에서 총독통치를 실시하였는바 1912년, 1917년에는 이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무력을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더 확대되였다.

이리하여 1933년 9월 10일 반제적인 인물인 안또니오 기떼라스를 수반으로하는 새정부가 구성되였다.

그러나 미제는 이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책동을 꾸미였다. 미제의 지지밑에 바띠스따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인민들을 탄압하였으며 나라를 미제의 통치하에 내맡겼으며 독재통치를 실시하였다.

꾸바인민은 미제의 식민지적예속과 독재정권의 폭압통치를 반대하여 거연히 일떠서 싸웠다.

1953년 7월 26일에 피델 까스뜨로를 선두로 165명의 애국자들이 당시 바띠스따괴뢰정권의 군사요새였던 《몬까다》병영을 공격하였다.

이 첫 무장투쟁은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의 반공격에 의하여 실패하였고 피델 까스뜨로와 그 전우들이 체포되여 옥중생활을 하게되였다. 청년투사들의 완강한 법정투쟁과 이를 지원하는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55년에 피델 까스뜨로와 그 전우들이 석방되였다. 석방된 혁명투사들은 메히꼬에 망명하여 새로운 투쟁계획을 짠후 1956년 12월 2일에 범선《그란마》호를 타고 오리엔떼주해안에 상륙하였다. 이때 적들의 불의의 추격으로 많은 동지들이 희생되였으나 살아남은 12명은 일곱자루의총을 가지고 씨에라 마에스뜨라 산에 들어가 유격투쟁을 확대하였다.

1958년 8월부터 봉기군은 6개종대로 나누어 총공격에로 넘어갔으며 드디여 1959년 1월 1일 바띠스따독재정권을 타도하고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꾸바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미국의 코앞에서 일어난 사회주의혁명의 첫승리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위대한 10월혁명의 계속입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진영을 서반구에까지 확대하고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운동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입니다. 꾸바공화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혁명의 기지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29페지)

1959년 1월 3일 수립된 혁명정부는 1959년을 《해방의 해》, 1960년을 《토지개혁의 해》, 1961년을 《교육의 해》, 1962년을 《계획화의 해》, 1963년을 《조직의 해》 1964년을 《경제의 해》, 1965년을 《농업의 해》, 1966년을 《련대성의 해》, 1967년을 《영웅적웰남의 해》, 1968년을 《영웅적 유격대원의해》로 정하고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켰다.

지난 10년동안 꾸바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꾸바침략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특히 1961년 4월 17일에 미제침략군 약 2천명이 쁠라야 히론에 기여들었을때 꾸바인민은 72시간내에 적들을 완전히 소멸하는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1962년 10월 22일 시작된 《카리브해위기》시에도 꾸바인민은 미제의 해상봉쇄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며 꾸바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였다.

1968년 1월 2일 아바나의 호세 마르띠혁명광장에서 진행된 혁명승리 9주년 경축집회에서 연설한 피델 까스뜨로수상은 《1968년은 혁명을 촉진시키며 건설에 최대의 력량을 돌려야 할 매우 긴장된 로동의 해로, 우리의 미래를 락관적으로 바라볼수 있게 해

주는 해로 될것》이라고 말하면서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동요없이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9년동안 혁명의 길을 걸어온 꾸바는 절대로 이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을것이며 혁명사상으로 더욱 무장하여 앞으로 계속 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것》이라고 말하면서 국제주의전사로서 용감히 싸우다가 희생된 에르네스또 체 게바라의 혁명정신을 본받기 위하여 1968년을 《영웅적유격대원의 해》로 규정하였다.

1월 23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아바나에서 공산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이 회의에서는 반당반혁명적인 선전물들을 비밀리에 배포하였으며 국가비밀문건들을 외국인들에게 넘겨주었고 꾸바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리간시키는 책동을 감행한 반당반혁명분자들을 당대렬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13일부터 피델 까스뜨로 수상의 호소에 의하여 시작된 개인상공업을 국유화하기 위한 투쟁은 3월말에 이르러 전국적범위에서 그 첫단계가 끝났다. 첫단계에서 5만 5천 636개의 개인상공업이 국유화되였다.

4월 19일 뿔라야 히론전투승리 7주년 경축집회에서 피델 까스뜨로수상은 《미국으로부터 90마일 떨어진곳에서 혁명을 수행하고 있는 꾸바인민은 모두가 로동자이며 병사이며 학생으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지개혁법령 발포 9주년이 되는 날인 5월 17일을 《농민의 날》로 성대히 기념하였다.

9월 28일 피델 까스뜨로수상이 꾸바혁명수호위원회 창립 8주년 경축집회에서 연설하면서 혁명이 전진함에 따라 적들의 준동은 강화되며 적들이 존재하는한 사상과 실천활동분야에서 계급투쟁이 존재한다는것을 잊어버리거나 경각성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10월 10일 오리엔떼주 만사닐료에 있는 라데마하구아 국가유적지에서 꾸바인민의 100년간의 투쟁기념야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에서 연설한 피델 까스뜨로 수상은 《1868년 10월 10일부터 1968년 오늘까지 우리인민이 걸어온 길이 끊임없는 전진의 길, 위대한 비약, 급속한 전진의 길이였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과업은 제국주의와 맞서 혁명을 수호하며 미래에로의 전진속에서 우리의 의식을 심화시키며 우리의 력사를 고수하여 우리의 혁명적사상을 공고히하며 이 혁명적사상의 쿠리를 인식하며 후진국가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투를 전개하는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11월 20일 혁명정부는 꾸바어선 《알레끄리》호를 공해상에서 비법적으로 나포한 베네수엘라 친미독재정권의 야만적인 해적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각서를 발표하였다.

12월 2일을 꾸바혁명정부는 민족적명절인 혁명군절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통령】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1959년 7월 17일—)

【혁명정부】 수상 피델 까스뜨로 루쓰(1959년 2월 16일—)

【정당, 사회단체】 꾸바공산당 《7월 26일 운동》과 인민사회당 및 《3월 13일 혁명 지도부》가 통합되여 통일혁명조직을 꾸렸고 이 조직을 사회주의혁명통일당으로 고쳤다가 1965년 10월 2일 사회주의혁명통일당 중앙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당의 이름을 공산당으로 개칭하였다.

제1비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

근로자중앙, 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련맹, 혁명수호위원회, 민간방위전국리사회,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꾸바조직위원회.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8월 29일 조선과 꾸바간에 외교관계가 설정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8년 6월 21일 우리 나라에 머므르고있는 꾸바가금대표단을 만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8월 4일 꾸바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과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대표단을 만나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오찬회를 베푸시였다.

6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꾸바 가금대표단 성원들에게 로력훈장, 국기훈장들을 수여하였으며 8월 2일에는 꾸바정부친선대표단과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대표단 성원들에게 공화국 훈장들을 수여하였다.

8월 6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꾸바공화국혁명정부간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회 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꾸바가금대표단, 꾸바공청대표단, 꾸바녀자롱구종합선수단(5월), 꾸바기자(6), 꾸바벼재배기술대표단, 꾸바정부친선대표단, 꾸바정부경제 및 과학기술협조대표단, 유엔상주꾸바대표(8월), 꾸바과학원대표단, 꾸바녀성대표단(9월), 꾸바전국 틱아소위원회 대표단(10월), 꾸바정부통상대표단, 꾸바혁명수호위원회대표단(11월)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조선꾸바단결위원회 대표단(4월), 직맹대표단(5월), 조선건축가대표단(12월), 당및정부 대표단(12월)이 각각 꾸바를 방문하였다.

1월 27일 꾸바공산당중앙위원회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자위적 조치를 지지하며 《보복조치》를 운운하면서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일으키고있는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2월 7일부 《후벤뚜드 레벨데》지는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 《조선인민군창건에 즈음하여》를 게재하였다.

4월 23일 아바나 설비제작공장에서 항일유격대창건 36주년 기념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꾸

바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월간》이 진행되였다. 7월 29일 꾸바의 삐나르 델리오주에서 이 월간의 페막행사가 진행되였는데 여기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9월 11일 아바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 경축군중집회가 진행되였는데 여기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10월 10일부 《그란마》지는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론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게재하였다. 이 론설과 관련하여 아바나종합대학 교수 미겔 에쓰떼빠노가 10월 중순에 담화를 발표하였다.

경제, 사회

꾸바에는 망간, 크롬, 니켈, 코발트, 동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다. 혁명승리후 꾸바인민은 나라의 풍부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민족경제건설에 힘을 기울인 결과에 과거의 식민지적예속성과 기형성을 극복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농업과 공업을 가지게되였다. 비료공장, 야금공장, 세멘트공장, 니켈공장 등 중공업부문의 기업소들이 신설 확장되고 방직 및 식료품 공장들이 도처에 일떠서게되였다.

1968년에 세멘트 생산량은 혁명전에 비하여 2배에 달하였으며 1970년에 가서 그것은 250만톤에 이르게된다. 누에비따스의 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여러개의 중소형 발전소들이 도처에 일떠섰으며 전력생산량이 현저히 장성하기 시작하였다. 혁명승리후 10년간에 발전 능력은 54만 1천키로와트나장성하였으며 현재 이 나라의 전력생산량은 혁명전에 비하여 24배에 달하였다. 비료생산은 혁명전에 비하여 2배로 증가하였다. 1968년의 원유채취량은 1959년 채취량의 3배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채취한 원유는 미제의 지배하에 45년간에 채취한 원유의 2배에 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사탕, 커피, 옥수수, 담배, 코코아 등이다. 꾸바에서는 1959년 5월과 1963년 10월에 발표된 2차에 걸치는 토지개혁들을 통하여 농촌에서 낡은 착취제도를 없애고 농촌경리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혁명정부는 이와 함께 기계화, 수리화, 화학화 방침을 세우고 농업을 다각적인 경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오늘의 꾸바전야에는 9천 328대의 농기계들이 리용되고 있으며 1970년에 가서 그수는 1만 2천대로 늘어날것이다.

1968년에 150만톤의 비료를 뿌렸으며 사탕생산량은 550만톤에 달하였으며 1970년에가서 그것은 1천만톤에 이르게될것이다. 1968년 벼생산은 전해에 비하여 2배로 장성하였고 1970년에 가서 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게된다. 축산업도 빠른속도로 발전하고있다. 1970년에가서 농업생산량은 1959년 1월 1일 이전에 비하여 2배에 달하게될것이며 앞으로 농업생산은 해마다 15% 이상의 장성속도를 보장하게된다.

1961년에 꾸바는 70만 7천여명의 문맹자를 퇴치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문맹자없는 나라로 되였다. 1968—1969학년도에 인민학교 학생수는 144만 1천명, 대학생수는 3만 5천명이였으며 30여만명의 학생이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고있다. 지금 꾸바에서 6살부터 16살까지의 학생들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할 대책을 취하고있다.

1968년에 보건부문에 지출된 예산은 2억 2천만페소였다. 병원수는 혁명전에 비하여 3배 이상에 해당하는 180여개에 이르고있으며 침대수는 혁명전에 비하여 8배 이상에 달하는 4만 7천 660대에 달하고있다. 약 7천 600명의 의사들이 있다. 지난 10년간 근 100만명의 근로자들이 새로 지은 아담한 문화주택을 받았다.

【출판보도】 통신 쁘렌싸 라띠나 (라틴아메리카통신사)

신문 그란마(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후벤뚜드 레벨데(공청기관지), 베르데 올리보(혁명군주간잡지), 보에미아(혁명군월간잡지).

카 나 다

북미대륙의 북부에 자리잡고 있다. 카나다의 령토는 넓지만 그 절반이상이 북극권내에 속하므로 기후는 같은 위도상에 있는 구라파나라들 보다 차다. 그러나 대서양과 태평양 남쪽연안은 강수량이 많으며 기후는 따뜻하다.

【면적】 996만 547km²

【인구】 2,074만 4,000명(1968년 6월 1일 현재)

주민은 영국인(43.8%), 프랑스인(30.4%) 기타 독일인, 인디안 등이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수도】 오타와(주민 50만명, 1966년)

정 치

1763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에 이르는 기간 영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카나다인민들의 독립운동이 세차게 일어났다.

1867년 7월 1일 《영련방》에 속하는 자치령으로 되였다. 1951년 12월 나라 이름을 카나다자치령으로부터 카나다로 고쳤다.

카나다는 침략적인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담하였으며 1950년에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침략군을 파견한 조선인민의 원쑤로서 오늘은 미제에게 적극 추종하고 있다.

그러나 카나다인민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정책과 친미반동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특히 1968년에 카나다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는 웰남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지지하며 생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을 년중 줄기차게 진행하였다.

5월 24일 카나다인민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여 미국놈의 령사관에 폭발물을 던져 령사

판전물을 파괴하였다. 9월 6일에 카나다대학생들은 집회를 열고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항의하면서 미제의 침략을 두둔하고있는 자국반동당국을 규탄하고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또한 9월 12일 진보적인 카나다사회계층들은 몬트리엘에서 집회를 열고 존슨도당의 웰남침략전쟁을 항의 규탄하였으며 10월에는 캄사크시에서 미제의 범죄적인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여 싸우는 영웅적웰남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가 있었다.

한편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도 계속되였다. 2월에 미국놈 회사에서 일하던 로동자들이(37일간), 6월에는 카나다의 선박회사들, 철도, 팔프, 농기계공장들에서 수만명의 로동자들이, 7월에는 체신부문 로동자 2만 4천여명이(23일간), 9월에는 건설부문 로동자 3만여명이 장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고야 말았다.

【총독】 조지 바니에(1959년 9월—)

【의회】 량원제

【정부】 수상 엘리오트 트루도 (1968년 4월 20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6월에 창건. 총비서 윌리암 카슈탄. **자유당**(집권당), **진보보수당**, **사회신용당**, **신민주당**, **로동회의**.

경제, 사회 공업에서는 지하자원과 산림자원을 초보적으로 가공수출하기 위한 유색금속공업과 팔프제지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니켈, 백금, 금, 은, 아연, 동, 원유, 철, 연, 주석, 우라니움 등이다.

경지면적은 국토의 8%이며 인구의 20%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강냉이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밀, 원유, 목재, 팔프, 니켈 등이다.

1968년말현재 실업자수는 37만 3천여명이나 된다.

【출판보도】 **통신** 카나디안프레스

신문 카나디안 트리뷴(공산당 기관지), 글로브, 앤드 메일(진보보수당계통), 토론토 데일리 스타(자유당계통).

미 국

(아메리카합중국)

북미대륙의 한 복판에 있다.

기후는 대체로 온대에 속한다. 남북지역의 차가 심하다.

【면적】 936만 4,000km²

【인구】 2억 225만 4,000명 (1969년 1월 현재)

주민은 아메리카인디안(60만명), 흑인(1,990만명) 기타 다른 나라들에서 이주해온 사람과 그 후손으로 이루어졌다.

【수도】 워싱톤(주민 80만 8,000명, 1964년)

정 치 해적의 무리들이 원주민인 아메리카인디안을 대량살륙하는 피바다속에서 1784년에 아메리카합중국이 생겨났다. 해적의 후예인 미제침략자들은 18세기말부터 20세기 중엽에 이르는 동안에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나라들을 빼앗기 위한 침략전쟁을 무려 110여차나 감행하였으며 도합 8천 900여회나 피비린내나는 극악무도한 살륙전을 벌렸다. 수많은 침략전쟁을 통하여 미제의 령토를 10배이상이나 넓히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샤만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여년동안이나 우리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단행본 75페지)

1850년대부터 미제는 이른바 《조선개방안》을 꾸며내여 1860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침략에 나섰다. 이때로부터 100여년간 미제 날강도는 조선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계속 감행하였다.

미제는 1866년에 무장해적선《샤만호》를, 1871년에는 《조선원정함대》를 우리 나라에 침입시켰다가 조선인민들에게 호되게 얻어맞았다. 1882년에 미제는 리조봉건통치배들에게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강요하고 광산채굴권과 기타 경제리권을 빼앗아냈으며 1905년에는 《타프트—가쯔라협정》을 조작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조선강점을 적극 도와나섰다.

미제는 오늘도 조선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에 날뛰고있다.

1898년에 에스빠냐에 전쟁을 걸어 필리핀, 괌도, 뿌에르또리꼬를, 1903년에는 빠나마운하지대를 빼앗았다. 미제는 두차례의 세계대전에 참가하여 막대한 리윤을 얻어 전후에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날뛰였다.

2차대전후 미제는 앙양되는 민족해방투쟁을 진압하며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며 서구라파를 예속시키기 위하여 1947년에 소위 《트루맨주의》와 《마샬안》을 실시하였다.

《반공》을 침략의 중요한 방패로 삼고있는 미제는 《반공》의 이름아래 사회주의진영을 반대하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침략적군사 쁠럭인 나토를 만들어놓고 세계도처에 군사기지망을 늘어놓았으며 일본과 서독에서 군국주의를 재생시켰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흉악한 침략전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본전략은 더욱더 많은 미국무력을 이 지역에 집중하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비롯한 자기들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봉쇄하고 공격하며 아세아에서의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고 식민지통치를 부지하려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19—320페지)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 있는 미제는 1945년에 남조선

을 강점하고 1950년에는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미국 력사상 처음으로 참혹한 정치군사적패배를 당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참패를 당한 미제는 《세아토》, 《쎈토》 등의 침략적 군사쁠럭들을 만들고 필리핀, 남조선, 대만의 괴뢰도당 및 일본 반동들과의 쌍무《군사협정》 등을 조작하여 사회주의진영에 대한 군사포위망을 늘이려고 날뛰였다.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은 1961년에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며 라오스에 대한 무장간섭을 감행하는 한편,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도발에 미쳐날뛰면서 개별적사회주의나라들을 이 진영에서 하나하나 떼여내려고 책동하였다.

1967년 6월에는 이스라엘 괭창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살인광 죤슨의 침략과 도발이 파탄되고 미제가 더욱더 세계적으로 고립되게 되자 미제독점지배층은 1968년 11월 선거놀음을 통해 죤슨을 악명높은 반공전쟁광 닉슨으로 갈아치웠다.

【국회】 량원제

【정부】 미제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은 행정과 군대를 틀어잡고 있다.

대통령 리챠드 닉슨(1969년 1월 20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5월에 창건, 총비서 거스 홀. **흑인펜서당, 민주당, 공화당**(집권당) **에이에프엘—씨아이오합동로조** 기타 독립적인 로조로서 **국제부두및창고로조, 국제광산제련 및 용해공로조** 등 약 50여개 있다. **전국유색인종지위향상위원회, 전국흑인대회, 평화옹호전국위원회.**

【주요사건】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를 비롯한 세계혁명력량의 장성과 식민지체계의 붕괴로 말미암아 제국주의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였습니다. 제국주의의 내부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간의 갈등이 격화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강력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18페지)

1968년에 미제침략자들은 국내외 도처에서 호되게 얻어맞아 걷잡을수 없는 파멸적위기에서 허덕이였다.

내부로부터 녹아나는미제: 1968년에 전쟁광 죤슨도당은 범죄적인 웰남침략전쟁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계단식 전쟁확대》에 더욱더 매여달리였다. 죤슨도당은 웰남침략전쟁비용으로 284억딸라(1968—1969회계년도)를 예산에 올렸다가 더 추가하여 기록적인 344억 딸라에 달하게 하였으며 이 방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득세를 10%나 끌어올렸다. 웰남에서 무리로 죽어넘어지는 대포밥을 채우기 위해 매달 2만～3만명을 긁어모아 웰남에 끌어갔다. 이리하여 웰남강점 미제침략군 병력을 1967년말의 약 50만명으로부터 1968년말에는 54만 4천명으로 늘이였다.

전쟁방화자 죤슨도당은 1968년초부터 남조선 전역에서 인민들의 무장투쟁이 앙양되고 제놈들이 우리 나라 령해깊이 침입시켰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게되자 제놈들의 예비공군과 해군항공대대 지원부대를 서둘러 소집하는 한편 《제3기동군》이라는 새로운 해적단까지 만들어 우리 나라 근해에 배치하고 남조선기지들에 수백대의 전투폭격기를 증강하는 소동을 벌리였다. 놈들은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을 경계태세에 두고 지상, 해상, 공중으로부터 끊임없이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광란적인 침략과 전쟁정책은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로하여금 격분과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높이게 하였으며 국내인민들속에 불안과 반항을 빚어내였다.

1968년에 미국내에서의 반전투쟁은 로동자들과 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각계층인민들의 집회와 시위, 롱성투쟁, 성명발표 등 각이한 형태로 더욱더 조직적으로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특히 대학생들은 죤슨도당의 웰남침략전쟁과 대학의 군사화, 파쑈화,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여 1968년 1월—6월 기간에만도 101개의 대학에서 220여차례나 대중적인 시위투쟁을 벌렸으며 국내도처에서 징집령장을 불태워버렸다. 또한 현역군인들도 죤슨도당의 더러운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웰남전쟁에 끌려가는것을 단호히 거부하여 《탈주》하였는데 그 수는 놈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7년에 4만 227명으로부터 1968년에는 5만 3천 357명으로 늘었다.

4월 27일 전국적인 웰남침략전쟁반대투쟁의 날에 뉴욕, 시카고, 보스톤, 쌘프랜씨스코 등 동서해안의 주요 도시들과 지방도시인민들은 일제히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며 웰남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대중적인 군중집회와 시위투쟁을 벌렸다.

8월 25—27일사이에 시카고의 수많은 로동자들과 청년들은 웰남침략전쟁과 대통령선거놀음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을 치렬히 벌렸는데 26일에는 공원중심부에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기발을 달아올렸으며 8월 27일에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기발과 붉은기를 휘날리면서 악명높은 전쟁광들이 《대통령선거운동본부》로 쓰는 호텔을 포위하고 미제의 웰남침략을 규탄하였다.

1968년에 미제의 웰남침략정책과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요구하여 수백만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한 수천건의 파업투쟁은 그 규모와 수에 있어서 최고기록에 이르렀다. 이 파업투쟁에는 교통운수, 체신, 야금, 화학 등 일련의 기간공업부문의 로동자들이 망라됨으로써 웰남침략전쟁의 파국에서 허덕이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커

따란 타격을 주었다.

2월 13일 전국동제련부문의 6만명의 로동자들은 7개월이상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동생산의 90%를 마비시켰으며 끝내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였다.

4월 18일 통신전화부문의 16만 5천여명의 로동자들은 21년내 가장 큰 파업을 일으켰으며 6월 29일 미국 전체 상선대들의 반수이상을 차지하는 4만 5천여명의 해원들이 전국적총파업을 일으켰다. 동북해안 7만 5천명 부두로동자들은 10월 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일으켜 약 500여척의 대형 선박들이 오도가도못하고 항구들에 못박히게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집행에 심대한 타격을주었다. 11월 24일부터 5일간에 걸쳐 워싱톤, 뉴욕, 쌘프랜씨스코, 로스안젤스를 비롯한 전국도처에서 수천수만명의 각계층 인민들이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며 대통령선거놀음을 반대하는 집회, 시위행진을 벌렸고 선거표, 선거자등록부를 불살라 버렸다.

1968년에 미제국주의자들의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흑인들의 투쟁은 더욱더 정치성을 띠면서 시위, 폭동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치렬히 벌어졌다.

4월 4일에 미제반동지배층이 흑인운동 지도자 마틴루터 킹을 암살한 사건을 계기로 4월 5일 뉴욕, 워싱톤 등 45개도시에서 일제히 일어난 미국흑인들의 투쟁은 한주일동안에 125개 미국도시들을 불바다로 만들었으며 미제독점자본가들에게 2억 6천 500만딸라의 손실을 주었다. 또한 흑인들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미제의 소굴 워싱톤은 근 2천동의 건물이 불타버렸거나 파괴되여 마치 《폭격을 맞은것과같이 황폐화》되였다.

미제국주의통치배들은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흑인들의 진출을 가로막기 위하여 발톱까지 무장한 경찰과 군대를 내몰았으며 군견과 땅크, 비행기, 폭탄, 지어 독가스까지 써가면서 폭동군중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새 《민권법》을 조작하는 등 회유와 기만의 방법으로 수습해보려고 날뛰였다.

그러나 흑인들의 투쟁은 도처에서 그칠새없이 계속 일어났다. 5월 5일 전국각지에서 5개의 행진로를 따라 미제의 소굴 워싱톤으로 모여든 수많은 흑인들은 5월 19일부터 대중투쟁을 시작해서 6월 23일까지 끊임없이 치렬한 투쟁을 벌렸다.

1968년 웰남침략을 반대하는 로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미국인민들의 완강한 진출,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며 자유와 평등을 위한 미국흑인들의 투쟁,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기 위한 미국로동계급의 힘찬투쟁 등 미국국내에서 줄기차게 타오른 혁명투쟁의 불길은 미제국주의의 통치체제자체를 위협하면서 그 최후 멸망을 촉진하였다.

세계도처에서 녹아나는 미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취약성을 실증하여주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횡포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습니다. 다른 한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 앙양되고 있으며 그 투쟁대렬은 더욱더 늘어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72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위기는 1968년에 국내에서 뿐만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더욱 심화되였다.

미제는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책동을 더욱 미친듯이 감행하였으나 그것은 혁명적인민들의 항거에 부딪쳐 걸음마다 파탄되고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이 격화됨으로써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갔다.

미제호전광들은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제놈들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에 정탐임무를 주어 조선의 령해깊이 여러번 침입시켰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1월 23일 미제해적들은 영웅적조선인민군 해병들에게 나포되였다.

미제의 승냥이들은 광란적인 전쟁 소동에 매달리였으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한다》는 조선인민의 단호한 기개와 금성철벽의 방위력앞에서 여지없이 분쇄되였다. 놈들은 마침내 12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지 않을수 없게 됨으로써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다시 한번 조선에서 산산쪼각이 났다. 뿐만아니라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은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 놓았다.

조선에서의 미제침략전쟁정책의 이와같은 심대한 패배는 놈들의 침략적인 세계전략의 전반과 그의 핵을 이루고있는 아세아전략의 파산을 가일층 촉진시켰다.

미제침략자들은 웰남침략전쟁의 패배를 만회하고 제놈들에게 유리하게 전국을 돌려세워 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미제는 4월 4일 《웰남전쟁참전 7개국 외상회의》라는것을 소집하여놓고 웰남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쑥덕공론을 벌렸다. 존슨도당은 5월에 오스트랄리아의 주구 고톤을, 10월에는 뉴질랜드의 홀리오크를 워싱톤에 불러다놓고 동남아세아 침략전쟁에 대포밥을 더댈것을 강요하는한편 아세아에서의 새로운 반공군사동맹기구를 조작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웰남침략전쟁을 확대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남부웰남인민들의 호된 불벼락에 녹아나고 말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1월말—2월초와 5월에 남부웰남인민들이 전역에서 일으킨 총공세와 전면적봉기로 심대한 정치, 군사, 도덕적 참패를 당하였으며 놈들이 자랑하던 《공중우세》도 북부웰남 인민들의 복수의 불벼

라에 녹아났다.

남북웰남인민들로부터 이러한 치명적타격을 받은 미제는 3월 31일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부분적폭격중지》를, 11월 1일에 전령토에 대한 폭격과 포격의 무조건 중지를 발표하지 않을수없게 되였다. 미제는 웰남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라오스에서 《제2전선》을 펴려고 발악하면서 해방지역에 대한 폭격을 미친듯이 강화하고 괴뢰군의 재편성을 서두르는 한편 괴뢰도당으로 하여금 강점지역들에서 이른바 《평정계획》이라는 이름밑에 인민탄압을 강화하도록 내몰았다. 그러나 이러한 온갖 책동은 전전선에 걸쳐 라오스애국적무장력을 비롯한 라오스인민의 단호한 반격에 부딪쳐 파탄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이 해에 존슨도당의 침략전쟁확대책동은 종국적파탄의 구렁텅이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갔다. 이러한 파국에서 헤여나기 위해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비호하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서독복수주의자들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더욱더 리용하려는 책동을 강화하였다.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자들로하여금 나라의 군국화를 더욱 촉진시키며 아세아 반공군사동맹을 조직하기 위한 책동을 더 한층 강화하게 하였다.

미제는 조선을 포함한 아세아 사회주의나라들과 이 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고 탄압하기 위한 미일 공동작전태세를 중심으로하는 미일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의 침략전쟁준비와 핵기지화를 다그치며 미일 《안보조약》을 그 기한이 끝나는 1970년이후에도 계속 《유지》 하려고 날뛰였다. 그러기 위해 미제는 사또도당으로 하여금 우선 《제3차 방위력정비 5개년계획》을 통한 일본군국주의의 침략무력의 증강과 현대화, 핵무장화를 촉진시키게하였으며 전쟁준비를 위한 《미일군사협의위원회》라는 상설군사기구까지 만들어냈다. 미제는 사또도당으로하여금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사건에서 시종일관 저들의 새전쟁도발책동을 적극 지지해 나서게했을뿐만아니라 《자위대》로 하여금 미제침략군과 함께 《경계태세》와 《긴급 출격태세》를 취하게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일련의 도발적인 전쟁연습까지 벌리게하였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일본군국주의도당으로 하여금 남조선의 군사, 정치, 경제에 대한 침투를 더욱 강화하고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군수품공급을 대대적으로 늘이게 하였다. 이해에 서부독일군국주의자들을 재생무장시키려는 미제의 책동도 강화되였다.

아세아와 구라파에 두개의 전쟁온상을 지탱강화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규탄과 배격을 더욱더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혁명적인 나라들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의 침략전략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거세찬 항거에 부딪쳐 놈들은 더욱더 국제적고립의 구렁텅에 빠져들어갔다.

미제는 또한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부추겨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케하려고 끊임없이 책동하였다. 존슨도당은 1월과 12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우두머리를 불러다 전쟁모의를 벌렸으며 비법적으로 강점한 아랍땅을 영구히 병탄하려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에게 《팬톰》 제트전투폭격기 50대와 호크미싸일, 땅크 등 침략의 흉기를 쥐여주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중동전쟁 이후에만도 1966년에 준 군사원조의 2배나되는 5억 2천 200만딸라의 군사원조를 줌으로써 중동에서의 침략의 장본인이며 아랍인민의 원쑤로써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 이스라엘침략자들은 강점된 아랍땅을 되찾으려는 아랍인민들의 투쟁과 팔레스티나를 해방하려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특히 강점된 아랍땅 전지역에서 무장투쟁이 확대됨으로써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아랍나라들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의 간악한 전략은 파탄되였다.

미제는 나라의 독립과 존엄을 고수하며 반미적립장을 지키고있는 캄보쟈에 대한 파괴활동과 캄보쟈국경을 침범하는 도발책동을 강화하였으며 웰남전쟁을 이 나라에까지 확대하려고 날뛰였다. 놈들은 해적선을 캄보쟈령해에 침범시켜 해적 행위를 감행하려 하였으나 캄보쟈인민의 자위적조치에 의해 나포당함으로써 된매를 얻어 맞았다.

전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인 미제는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의 마수를 뻗치였으나 반제 반미투쟁의 길로 더욱더 힘차게 일떠서고 있는 혁명적인민들의 반격앞에서 종국적 멸망의 길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갔다.

1968년에 막을수 없는 힘으로 앙양된 거세찬 반제반미투쟁앞에서 녹아나는 미제의 추악한 몰골은 혁명을 하는 작은나라 인민들이 승리의 신심을 다지고 힘을 합쳐 미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며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새로운 반미투쟁전략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히 보여주었다.

미제는 3대륙 인민들의 강력한 항쟁에 부딪쳤을뿐만아니라 제국주의 렬강간의 적대적모순과 대립이 격화됨으로써 이미 내디딘 내리막길에서 더욱더 허우적거리게 되였다.

1968년에 미제는 특히 제놈들의 충실한 동맹자, 졸개들로부터까지 랭대와 항거를 받았다. 미제는 년초부터 서부독일군국주의자들에게 서독 주둔 미제침략군의 유지비 몫을 늘이라고 압력을 가했지만 끝내 이를 거부당하였으며 에스빠냐에 군사기지협정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6억딸라의 《원조》를 더주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는 항거에 부딪쳤다. 또한 토이기와 이란은 《대미추종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면서 미제의 침략적 군사쁠럭인 나토와 쎈토성원으로서의 《의무》를 태공하였

다. 게다가 필리핀,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괴뢰들까지 웰남침략전쟁에 대포밥을 더내라는 미제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렇듯 미제는 세계도처에서 얻어맞았으며 안팎으로 완전히 고립되였다.

이 엄연한 사실들은 미제가 발악한다 하더라도 력사의 장엄한 흐름을 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심각한 경제 위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취약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아직도 많은 죄행을 저지를수 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있다. 미제국주의가 가장 횡포하게 행동하는 오늘 그의 취약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25페지)

1968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심각화된 경제위기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나보려고 경제의 군사화와 침략전쟁에 매여달리였지만 이것은 도리여 제놈들의 경제적위기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국가예산의 80% 이상을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진압하며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적목적에 탕진하다.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위하여서만도 1968년에 344억딸라나 쏟아부었다.

미제는 웰남침략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쟁경기》를 자극하여 침체된 공업생산과 농업위기를 막아보려고 시도하였으나 그것은 허사로 되고 말았다.

막대한 전쟁비용의 지출은 일부 군수공업을 제외한 전반적인 산업계에 침체와 후퇴를 가져다주었다. 이것은 또한 재정팽창을 초래하고 전후 어느 년간에도 보지못한 심한 통화팽창을 조성하다.

미국놈들의 침략전쟁의 계속은 또한 무역면에서 30여년래에 처음보는 파괴를 가져다주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8년의 무역에서 수출은 겨우 9% 증가된 반면에 수입은 23%나 늘어났다.

이러한 경제적 침체와 후퇴를 막아보려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시장에 침투하여 다른 나라들의 공업제품을 물리치려고 여러가지로 책동하였다. 특히 미제는 《원조》를 리용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국내생산을 촉진하려고 꾀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미제의 《원조》 자금을 취급하는 《미국제개발처》의 처장이란 놈까지도 미국상품이 다른나라의 상품에 비하여 10～14%나 더 비싸서《환영》을 받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실토하였다.

미제는 또한 《케네디 관세일괄인하》조치라는것을 리용하여 자본주의시장을 장악하려고 하였으나 《구라파공동시장》의 높은 관세장벽에 부딪쳐 난관을 겪고있으며 신생독립국가들로부터 배격을 받고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은 미제의 국제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딸라위기를 일층 심화시키고있다. 딸라 위기의 심화는 미제의 경제적불안에 대한 제국주의렬강의 불신과 그에 따르는 극심한 금파동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딸라가치의 저락은 딸라의 신용을 밑받침해주는 미제의 금보유량이 감소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미제는 1949년에 자본주의 세계 금보유액의 71.1%를 넘는 246억 딸라를 자기 수중에 장악하고 있었다면 1968년에 그것은 104억딸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미제는 저들의 경제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약화되고 자본주의세계의 딸라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높아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금 1온스당 35딸라라는 《공정가격》을 기어코 유지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시도는 1968년에 완전히 파탄되여 일반시장에서의 금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금융시장에 대한 미제의 지배가 끝장났으며 딸라《만능》을 자랑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한 저들의 경제적지배를 돌이켜 세워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미제는 우선 국내의 통화팽창을 억제하여 딸라가치를 회복하며 수출상품의 경쟁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968년에 두차례에 걸쳐 대부리자률을 올리는 한편 자금의 해외 류출을 방지하는데 날뛰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였다. 《뉴욕련방준비은행》은 1968년의 미국경제를 회고하면서 《인플레를 조장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자금공급과 은행실용은 인플레가 격심한 조건에서 요망되지 않을 정도로 팽창》하였으며 수입이 막대하게 늘어난 결과 무역수지가 악화되였다고 개탄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공업과 금융면에서뿐만아니라 농업에서도 심한 위기를 겪었다. 중소규모의 농장이 계속 파산되였으며 계급분화가 끊임없이 진행되여 농촌경리의 령락을 촉진시켰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중소농장이 파산되였고 이에 종사하던 농장주들의 빚은 매년 늘어갔다. 그것은 1967년에만 하여도 40억딸라나 늘어났으며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악화되였다.

미제의 어용출판물까지도 《중소농장주들의 빚은 재난적인 수준에 달하였으며》 《그들이 은행의 무분별한 착취를 받지 않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명을 질렀다.

이리하여 파산몰락한 중소농장주들과 거기서 일하던 농업로동자들이 도시로 모여들어 실업자로 되여가고있는데 이 수는 년 80여만에 달하고있으며 농업위기는 미제의 경제적난관을 일층 촉진시키고있다.

한편 웰남침략전쟁으로 하여 재정위기는 날이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미제는 매년 전쟁비용을 늘여가고 있는데 이로인하여 놈

들은 국제수지에 20억~30억딸라의 적자를 초래케하였다.

군사비의 계속되는 증가는 재정적자를 면할수 없게 하고있는바 1967회계년도에 뒤이어 1968년도에도 250억딸라의 적자를 보게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인민들의 세금부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1969년 예산집행에서도 재정적자를 감행하고있다.

【악화되는 인민생활, 썩어빠진 사회문화】 웰남침략전쟁에 따르는 군사비의 증대는 인민생활을 불안과 고통에로 몰아넣고있다. 미국놈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8년에 물가는 1967년에 비하여 5% 더 올라감으로써 제2차대전후 최고기록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생활필수품은 매우 비싸졌는데 옷, 식량, 가구 등의 값은 7~10% 올라갔으며 이에 따라 생활비는 날로 증대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인민들에 대한 세금략탈은 계속 강화되였다. 1965년도에 비하여 1968년에는 2배이상의 직접세를 인민들로부터 짜내여 웰남침략전쟁비용을 메꾸었다.

그 결과 인민들의 구매능력은 계속 줄어들고있으며 중소기업은 재정난과 판매난으로하여 파산몰락하고있다.

이리하여 실업자수는 완전실업자 550만명을 포함하여 1천 550만명을 헤아리고있으며 7천 700만명의 빈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미국은 범죄의 소굴로서 놈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8년 1월—9월까지 범죄건수는 1967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19%나 늘어났다. 그중에서 특히 폭력적인 범죄는 22%나 늘어났으며 강간죄는 17%, 살인죄는 15%나 늘었다. 이 기간에 살인사건의 65%와 전체 폭행사건의 23%는 총을 사용한 범죄였으며 그것은 1967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26%나 늘어난것으로된다.

또한 이해에 대통령 위협사선수도 최근 3년간에 비하여 500%로 늘었다.

미제의 《수사국장》이란놈은 이러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공포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공포는 《사람들로하여금 밤에 거리를 다니기가 무섭게하는 강도, 도적, 략탈자, 살인자들》이 일으키고 있다고 실토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밖에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가 한시각도 쉴새없이 일어나고있으며 이로인하여 1년에 수백만명이 부상당하거나 생명을 잃고있다.

놈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8년에 교통사고로 죽은수만하여도 5만 5천 500명이나 된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 유피아이, 유에스아이에스.

신문 워커(공산당기관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크리스챤 사이언스 모니터, 워싱톤 포스트.

메 히 꼬

(메히꼬합중국)

북미대륙 남쪽끝에 자리잡고있다. 고원지대의 기후는 대체로 따뜻하고 해안지대는 무덥다. 북부는 강수량이 적고 남부는 강수량이 많다. 해안선에는 크고 작은 약 70개의 항구가 있다.

【면적】 196만 9,000km²

【인구】 4,567만 1,000명(1967년말 현재)

주민은 55%가 에스빠냐—인디안혼혈인이며 기타 백인, 인디안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메히꼬(주민 744만 3,075명, 1968년)

정 치 1521년부터 300년동안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메히꼬인민들의 독립을 위한 완강한 투쟁으로 1821년 9월 16일에 독립을 쟁취하고 1824년에는 련방공화국을 세웠다.

10월 혁명의 영향하에 메히꼬에서도 로동자, 농민운동이 앙양되였다. 1917—1934년까지의 사이에 토지를 요구하여 일어난 농민들의 반정부투쟁으로 열아홉번이나 대통령이 바뀌였다.

1934—1940년기간에 집권한 대통령은 인민들의 압력밑에 미영석유기업소들을 국유화하고 토지개혁도 일부 실시하였다.

메히꼬정부는 1961년 4월에 꾸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였으며 미제의 계속되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 꾸바와 외교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1966년 8월에 메히꼬인민들은 미제침략자를 반대하여 싸우는 웰남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련대성상설전국위원회를 창설하였다.

1968년에 메히꼬인민들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세차게 투쟁하였다.

3월 메히꼬민주녀성동맹은 웰남녀성들과의 련대성서명운동을 벌리였으며 웰남인민에게 보내는 의약품과 원호금수집운동도 벌렸다.

또한 4월에는 메히꼬시에서 로동자, 농민, 학생 및 진보적지식인 등 5천여명이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여 시위와 군중모임을 가졌으며 2만여명의 대학생들은 영웅적웰남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며칠간의 《대학생축신》모임을 가졌다.

한편 생존의 권리와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로동자, 학생들의 세찬투쟁도 있었다.

6월에 메히꼬시에서 5만명의 방직공들은 임금을 올릴것과 단체계약을 연기할것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렸다. 7월부터 시작된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은 그투쟁대렬이 8만여명을 넘었으며 시위탄압에 동원된 군사두목놈을 포함한 여러놈의 장교와 병사들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고 자동차, 뻐스, 지어땅크까지 불태워 버리면서 년중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메히꼬잡지 《씨엠쁘레》 특파기자는 조선방문 인상담에서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마

련하여주신 사회주의길을따라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있다고하면서 특히 조선땅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혁과 승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원수께서 창조하신 천리마운동의 결과이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힘주어말하였다.

【의회】 량원제

【정부】 대통령 구스따보 디아스 오르다스(1964년 12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9월에 창건. **립헌혁명당**(집권당), **국민행동당, 인민사회당, 메히꼬민족해방운동, 로동자농민총련맹, 메히꼬민주녀성동맹, 공산청년동맹.**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광업이다. 경지 면적은 전면적의 15%이며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목화, 밀, 사이잘삼, 커피, 사탕수수, 땅콩, 담배 등이다. 밀의 파종면적은 전국파종면적의 75%를 차지한다.

공업의 기본은 채취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은,금,아연, 연, 동, 철, 석탄, 류황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커피, 연, 아연, 동, 류황 등이다.

메히꼬는 《민족자본》에 의한 경제발전을 장려하면서 가공공업에 힘을 넣고있다.

주민의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고있다.

【출판】 신문 엑셀씨오르(보수계), 울띠마스 노띠씨아스(반동적신문), 엘. 우니베르살 노베다 데스, 라 쁘렌사, 엘 나씨오날 (정부계)

과떼말라

(과떼말라공화국)

중미대륙에 자리잡고있다. 전국의 3분의 2는 산악지대이다. 년평균기온은 25~30°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천~3천미리메터이다.

【면적】 10만 8,900km²

【인구】 471만 6,000명(1967년 현재)

주민의 60%는 인디안, 35%는 인디안과 에스빠냐인의 혼혈인이며 기타는 백인과 흑인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과떼말라(주민 약 60만명, 1966년)

정 치 1524년부터 300여년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에 독립을 선포하고 다음해에 메히꼬에 합병되였다가 1834년에 《중미련방》에 가입하였다. 1839년에 이련방에서 떨어져 나와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1898년 미제에 강점되였다가 1944년 10월에 다시 독립을 쟁취하였다.

1951년 3월에 국내민주력량의 지지하에 집권한 아르벤스정부가 민주주의적인 법령을 제정하자 미제는 국내반동들을 부추겨 파쑈정권을 조작한 다음 1958년 1월 이디고라스독재정권을 수립하하였다.

1960년 4월 친미도당 이디고라스는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고 자국령토를 미제의 반꾸바책동의 근거지로 내맡겼다.

1962년부터 시작된 과떼말라의 애국적인민들의 무장유격투쟁은 1964년에 그의 지도력량의 통합밑에 무장봉기군이 창설됨으로써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1967년 무장봉기군사령부가 새로 조직됨으로써 무장유격투쟁은 힘있게 전개되였다.

1968년에 무장봉기군과 《11월 30일혁명운동》이 같은 정치적 및 군사적로선밑에 과떼말라무장봉기군으로 통합되여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자라나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지도하였다.

9월에 무장봉기군은 수도 과떼말라시에서 150키로메터 떨어진 할빠다구아지방에 《토벌작전》을 하러 기여든 반동정부군을 불의에 들이쳐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싸발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장봉기군은 몇해동안에 이와 같은 전투를 87차나 벌려 187명의 적을 죽이고 305명의 적에게 부상을 입히는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다.

7월에는 친미독재악당의 우두머리놈이 도사리고 있는 대통령궁전을 폭발시켰으며 11월 13일에는 수도 중심거리에있는 반동정부군의 군인부락, 선거등록 사무소 및 영국놈의 령사관에 폭발물을 던져 파괴하는 등 대담한 습격작전을 벌렸다.

과떼말라인민의 무장투쟁은 그의 예봉을 자기 나라 인민에게 갖은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는 미제를 반대하는데로 돌렸다.

1월 16일에 과떼말라의 무장봉기군은 미제의 《군사고문단》 단장 웨베라는 놈을 비롯한 미제침략자들에게 기관총사격을 퍼부어 놈들을 죽여버렸으며 3월 중순에는 이른바 《반유격전》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여든 미제해병대놈들의 숙소를 습격하여 여러놈을 죽였다.

또한 7월에 애국적인 무장인원들은 미국놈의 대사관에 폭발물을 던져 파괴하였으며 미제침략군의 길잡이인 미제 《평화군》의 사무소를 부셨다.

8월 28일 애국적무장인원은 1965년부터 과떼말라에 기여들어 미제의 략탈과 침략정책을 집행하여온 존고던 메인이라는 대사놈을 수도의 번화한 거리에서 기관총으로 쏘아 즉사시켰다.

【국민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멘데스 몬떼네그로(1966년 7월—)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49년 9월 28일에 창건된 공산당이 1952년에 로동당으로 이름을 고침. 총비서 베르나르도 알바리도 몬손. **혁명당**(집권당), **민족해방당, 민주제도당, 민족혁신당, 기독교민주당, 국민혁명운동, 혁명민주동맹, 과떼말라로조련맹, 자치로조련맹.**

경제, 사회 주민의 76%가 농사를 하는 농업국이다.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지주들이 전국토지의 70.5%를 장악하고 농민을 착취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목화, 사탕수수, 강냉이, 벼 등이다.

지하자원은 석유, 연, 아연, 은, 안티몬, 크롬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바나나, 목화 등이다.

주민의 80%가 문맹자이며 97%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 **신문** 쁘렌사 리브레, 라오라, 베르다드(로동당기관지).

살바도르

(살바도르공화국)

중미국가들중 제일 작은 나라로서 태평양에 면해 있다. 나라의 대부분은 산악과 고원지대이다. 년평균기온은 22~24°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천 500~1천 800미리메터이다.

【면적】 2만 4,258km²

【인구】 302만 8,000명(1966년말현재)

주민의 대부분이 인디안과 구라파 혼혈인이며 기타는 인디안, 백인등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산 살바도르(주민 28만명, 1965년)

정 치 1524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 독립을 선포하고 《중미련방》에 가입하였다가 1839년에 독자적인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32년에 농민을 주력으로 한 무장봉기자들이 서부지역에 로동자농민정권을 수립하자 친미독재자인 마르띠네스는 로동자농민정권을 가혹하게 진압하고 1만명의 인민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968년 살바도르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인 독재정권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하였다.

2월 17일부터 수도 산 살바도르시 교원들은 친미독재정권의 반동적인 교육정책을 반대하여 파업을 벌렸다.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은 1만여명의 교원들은 25일간이나 계속된 투쟁을 통하여 승리를 쟁취하였다.

7월 6일 살바도르인민들은 《중미국가수뇌자회의》를 소집하기 위하여 이 지역 5개 나라의 졸개두목들을 거느리고 산 살바도르에 기여든 미제의 전쟁두목 죤슨에게 썩은 닭알과 뼁끼벼락을 들씌우고 몰아냈다.

12월에 살바도르 전국대학생협회와 웰남과의 련대성위원회는 《웰남인민과의 련대성주간》을 설정하고 미제침략자를 반대하여 싸우는 웰남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를 가졌다.

【의회】 일원제

【정부】 대통령이 수상을 겸임한다.

대통령 피델 싼체스 에르난데스(1967년 7월—)

【정당】 **공산당** 1930년에 창건. **국민화해당**(집권당), **혁신행동당**,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 **《4월 및 5월》혁명당**.

경제, 사회 주민은 75%가 농사를 한다. 인구의 4%에 불과한 대지주들이 이 나라 주요농산물인 커피재배원의 53%를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목화, 강냉이, 사탕수수, 벼 등이다.

지하자원은 금, 은, 동, 철, 석탄, 연 등이다.

농촌주민의 40%가 완전실업자이며 평균수명은 30세다. 다섯살아래 어린이의 80%가 결핵환자이다.

10세이상 주민의 52%가 문맹자이며 주민의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는다.

온두라스

(온두라스공화국)

중미에 있으며 과떼말라, 니까라과, 살바도르와 접경하고있다. 카리브해안의 평지는 기온이 높고 년평균강수량이 5천미리메터에 달하나 산악지대는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이 적다. 령토의 4분의 3이 고원지대이다.

【면적】 11만 2,088km²

【인구】 236만 3,000명(1966년말 현재)

주민의 대부분은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의 혼혈인(90%)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떼구시갈빠(주민 15만 4,429명, 1964년)

정 치 1520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에 독립하였다.

1825년에 메히꼬에 병합되였고 그후 중미련방을 거쳐 1839년에 독립공화국으로 되였다.

1963년 10월 3일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사위원회를 조작하였던 미제의 주구 로페스 아렐라노는 1965년 2월 16일 극단적인 테로의 분위기속에서 《제헌회의선거》를 실시하여 국민당의 《승리》를 날조하였다.

1968년 9월에 온두라스의 근로자들은 북부 온두라스로조련맹의 호소에 호응하여 친미반동군사정권의 략탈적인 경제정책을 반대하여 시위와 파업을 벌렸다. 친미도당의 탄압을 막차고 근로자들은 파업투쟁을 통하여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고야말았다.

【국회】 일원제

【정부】 대통령 오스왈도 로페스 아렐라노(1963년 10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7년에 창건. **국민당**(집권당), **자유당**, **민족개량운동당**, **온두라스로조련맹**.

경제, 사회 주민의 80%가 농사를 한다. 토지는 전체 인구의 5.2%밖에 안되는 지주들에게 집중되여있고 75%이상의 농민들은 토지를 못가지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커피, 목화 등이며 마호가니, 목재자원도 있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은, 연 등이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커피, 은, 목재 등이다.

주민의 73.8%가 빈민굴에서 살고있으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는 총어린이의 60%나 된다. 약 64만명의 문맹자가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영령 온두라스

중미에 있으며 메히꼬, 과떼말라와 접경하고있다. 열대기후로

서 년평균기온은 24~27°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천미리메터이다. 전국령토의 92%가 산림지대이다.

【면적】 2만 2,957km²

【인구】 10만 6,000명(1965년 현재)

주민의 약 50%가 흑인이고 기타는 백인, 인디안혼혈인 등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행정중심지】 벨리제(주민 4만명)

16세기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62년 5월 12일 영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되였다.

1964년 1월 1일부터 국방, 외교, 국내치안 기타 중요한 문제를 제외하고 극히 제한된 《내부자치》를 실시하는 자치정부가 수립되였다.

【정부】 수상 죠지 프라이스(1964년 1월—)

【정당】 **인민통일당** 1950년에 창건(나라의 독립과 경제사회개혁을 주장). **민족독립당.**

경제의 기본은 림산업이다. 목재는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경지면적은 20만헥터에 불과하며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사탕수수, 야자, 쌀, 콩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기독교를 믿는다.

니까라과

(니까라과공화국)

북쪽은 온두라스, 남쪽은 꼬스따리까와 접경하고 있는 중미나라이다. 기후는 변화가 심하고 령토의 절반이상은 밀림지대이다. 고원지대는 땅이 비옥하고 기후가 온화하나 해안저지대는 열대적이고 화산이 많다.

【면적】 14만 8,000km²

【인구】 117만 8,000명(1966년 말 현재)

주민의 70%가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의 혼혈인이며 기타 흑인, 인디안, 백인 등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마나과(주민 27만 4,900명, 1964년)

정 치 1524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에 독립하였다. 1823—1838년 기간에 《중미련방》성원국으로 되였다가 1838년에 련방해산과 동시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8년 니까라과인민들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투쟁을 벌렸다.

3월에 수도 마나과에서 학생들은 청년들의 권리와 민주주의적교육을 옹호하기 위해 싸울 학생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친미도당의 반동적교육정책을 규탄하였다. 또한 곡주림에 허덕이는 농민들은 가혹하게 착취하는 지주놈의 땅을 점거하였다.

9월에 니까라과 싼디노해방전선에 망라된 유격대원들이 이 도시에있는 독점자본가놈들의 창고를 습격하여 파괴하였으며 다른날 한 무장성원들은 수도의 마나과에있는 은행을 들이쳤다.

또한 유격대원들은 온두라스와의 국경지역과 보까이씨또지역에서도 반정부무장활동을 벌려 친미독재정권에 큰 타격을 주었다.

【국회】 량원제

【정부】 대통령은 수상을 겸임한다.

대통령 아나스따씨오 소모사(1967년 2월—)

【정당, 사회단체】 **사회주의당** 전신은 1925년에 창건된 공산당을 1944년에 현재 이름으로 고침, **국민자유당**(집권당), **전통보수당, 공화동원당.**

경제, 사회 주민의 80%가 농사를 한다. 전체 토지의 85%를 소모사도당의 25가족이 차지하고 농민을 착취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목화, 사탕수수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은, 동, 주석, 망간 등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목화, 목재 등이다.

주민의 77.5%가 문맹자이며 대부분의 주민이 기독교를 믿는다.

꼬스따리까

(꼬스따리까공화국)

니까라과와 빠나마 사이에있는 중미나라이다. 령토의 대부분은 산이며 기후는 축축한 열대기후이며 년평균강수량은 3천미리메터이다.

【면적】 5만 1,000km²

【인구】 148만 6,000명(1966년 말 현재)

주민의 대부분은 인디안, 에스빠냐인, 백인의 혼혈족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산 호세(주민 16만 6,000명, 1964년)

정 치 16세기초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 독립하였다.

1824년에 《중미련방》에 참가하였다가 1938년에 련방에서 떨어져 나와 1939년에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 나라는 20세기초부터 미제독점체들의 침략을 받아왔으며 1930년경부터는 실제상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1968년 꼬스따리까인민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며 친미반동정권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웠다.

4월에 진행된 꼬스따리까종합대학학생련맹 제10차대회 참가자들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견결히 규탄하고 미제침략군이 웰남땅에서 당장 물러갈것을 단호히 요구하였다.

7월에 5천여명의 대학생들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친미도당이 진보적력량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국가안전기관》의 철폐를 요구하여 시위를 벌렸다.

10월에 리몬항의 부두로동자들은 임금을 절반으로 낮춘 기업주놈들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렸으며 산 호세의 근로자들은 립법회

의 전분야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을 개선하며 로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할것을 요구하는 대규모의 집회와 시위를 벌렸다.

【국회】 일원제

【정부】 대통령이 수상을 겸임한다.

대통령 호쎄 호아낀 뜨레호스 (1966년 6월—)

【정당, 사회단체】 **인민전위당** 전신은 1930년에 창건된 공산당이며 1943년에 현재 이름으로 고침. **민족통일당**(집권당), **민족해방당**, **자유당**, **인민사회동맹당**, **꾸바혁명의벗꼬스따리까협회**, **근로자련맹**

경제, 사회

인구의 절반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코코아, 담배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은, 철, 석유, 망간, 류황 등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코코아, 바나나 등 농산물이다.

꼬스따리까의 실업자는 수만명에 달하는데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 리몬시에서만도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실업자이다.

주민의 20%가 문맹자이며 대부분의 주민이 기독교를 믿는다.

빠나마

(빠나마공화국)

빠나마는 중미와 남미주를 련결하는 지대에 위치하고있으며 꼴롬비아, 꼬스따리까와 접경하고 남쪽은 태평양, 북쪽은 카리브해에 면하고있다. 중앙에는 빠나마운하가 있다. 기후는 열대성이다. 특히 카리브해안은 비가 많이 내린다.

【면적】 7만 4,470km²(운하지대제외)

【인구】 128만 9,000명(운하지대제외, 1966년 현재)

주민은 인디안과 구라파인의 혼혈인(65%), 흑인(13%), 백인(11%), 인디안(10%)이며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빠나마 (33만 8,000명, 1965년)

정 치

빠나마는 16세기부터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에 독립하였다. 1930년에 꼴롬비아에 병합되였다.

20세기초부터 이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한 미제는 1930년에 꼴롬비아가 운하건설조건을 거부하자 강압적으로 꼴롬비아로부터 빠나마를 떼여내고 그해 11월에 예속적인 《빠나마—미국조약》을 강요하여 운하와 그 량안 각각 8키로메터 너비의 지대를 《영구조차지》로 탈취하였다.

미제는 1904—1914년의 빠나마운하건설기간에 6만여명 인민들의 목숨을 빼앗았으며 수십만명을 불구자로 만들었다. 이것은 운하길이 1메터에 평균 1명이 죽은것으로 된다. 미제는 이 운하에서 매년 1억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으며 운하지역에 36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수만명의 침략군을 주둔시키고있다.

빠나마인민들은 민족적독립과 운하지대의 귀속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은 1936년에 《미국—빠나마조약》을 수정하고 운하사용료를 올리고 미제가 리용하는 운하지구이외의 토지를 도로 빼앗았으며 1947년에는 일부지역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몰아냈다.

그들의 반미애국투쟁은 꾸바혁명이 승리한후 더욱 강화되였다. 1959년 11월에 로동자들과 학생들은 빠나마운하의 국유화를 주장하여 대대적인 시위를 벌리고 미제대사관을 습격하였다.

미제는 앙양되는 반미투쟁으로 1960년 9월에 운하지대에 대한 빠나마의 명목상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고 1963년 1월에는 운하지대에서 빠나마와 미제의 기발들을 동시에 게양하는데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제가 량국국기를 동시에 게양할데 대한 협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것을 계기로 1964년 1월 9일 빠나마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반미폭동이 폭발하였다. 1903년의 예속적인 조약을 반대하여 민족적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은 미제침략군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미제대사관, 미국놈들의 회사들을 비롯한 놈들의 침략 및 략탈기관들과 미국놈자동차들을 습격소각하였으며 도처에서 미제침략군을 때려눕혔다.

1968년 1월 9일 《추고의 날》에 인민들은 미제에 굴종하고있는 빠나마정권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1964년 1월 9일 운하지구에서 미제침략군의 총탄에 맞아 희생된 투사들을 추모하는 군중집회와 시위를 벌렸다.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부딪쳐 할수없이 미제는 예속적인 《운하조약》을 재검토하기로 《약속》하지 않을수 없었으나 빠나마반동지배층과 비밀회담을 벌려놓고 본질적으로 이전것과 동일한 새 《운하조약》을 조작하였다.

미제는 새로운 《운하조약》에서 종전과 같이 빠나마에서 주인행세를 하며 수많은 군사기지를 유지하며 대륙의 혁명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반게리라전》 훈련소를 둘수있게 할것 등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 목적을 실현하는데 현집권당이 적당치 않다고 간주한 미제는 빠나마에서 대통령임기가 끝나기도 전인 5월 12일에 대통령선거놀음을 벌려놓고 보다 충실한 자기졸개를 대통령으로 가라치웠다.

미제는 선거일에 5천명의 미제침략군을 전투준비를시켜 선거에 무력으로 간섭하였으며 빠나마 《국민근위대》는 경계망을 펴고 유권자들을 강제로 선거장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선거된 대통령 아리아스 역시 인민들의 압력밑에 운하에 관한 종전의 《조약》을 수정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것을 요구하자 미제는 운하에서의 저들의 리권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느끼고 10월 11일에 군부를 사촉하여 정변을 일으키고 13일에는 《국민근위대》의 고위장교였던 호세마이라 피닐라를 대통령에 들여 앉혔다.

빠나마인민들은 군사정변으로 조작된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미제침략군의 빠나마운하 강점을 반대하여 더욱 완강

하게 투쟁하였다.

피닐라가 대통령으로 임명된 직후인 10월 13일 인민들은 빠나마의 중심거리에서 총격전을 벌리였으며 일부 국경지역들에서는 국경경비대의 초소들을 점령하였다.

빠나마종합대학학생들은 정권을 탈취한 반동적군벌의 폭압통치를 반대하여 거의 1개월동안 동맹휴학을 벌린데 뒤이어 12월초에는 미제침략군의 빠나마운하강점을 반대하며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

【국민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호세마이라 피닐라(1968년 10월 13일—)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공산당에 기초하여 1943년에 창건. 총비서 루벤 다리오 쏘우스. **전국민족애국련합당, 민족동맹, 사회당, 선봉인민운동, 로동조합총련맹, 인민청년동맹, 전국평화옹호위원회.**

경제, 사회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경작지는 국토의 15.4%이며 식량수요의 약 60%를 수입한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마, 커피, 쌀, 파인애풀, 강냉이, 코코아 등이다.

경제명맥은 미국독점자본가놈들의 예속하에 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철, 수은, 류황, 석유 등이다.

빠나마에는 약 4만명의 실업자가 있으며 3만 5천여명이상의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못하고 10세 이상의 문맹자는 20만명이다.

【출판】 신문 에스트렐라 데 빠나마, 엘 빠나마 아메리카, 로오라, 아띨란띠꼬, 마소(인민당 기관지).

【빠나마운하지대】 빠나마운하의 량측 8키로메트의 지대를 말한다.(빠나마시와 꼴론시는 제외) 면적 1,432 평방키로메터(그중 륙지면적이 952평방키로메터), 인구는 4만 8,700명 (그중 미국인 3만 5,700명 1963년말).

행정 중심지는 발보아 하이츠.

【빠나마운하】 남북미주대륙의 중앙부에 있으며 대서양과 태평양을 련결하는 갑문식운하(2중의 벽과 수도관을 사용하여 배를 통과시키는 운하), 길이 64키로메터, 너비 90～300메터.

하 이 티

(하이티공화국)

카리브해상에 있는 하이티섬의 서쪽 3분의 1을 차지하고있다. 열대성 기후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천미리메터 내외이다. 산지가 많은 산악국이다.

【면적】 2만 7,800km²

【인구】 448만 5,000명(1966년말 현재)

주민의 90%가 흑인이며 나머지는 혼혈종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포르토 프란스(주민 25만명, 1964년)

정 치 하이티는 1697년을 전후하여 에스빠냐와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다.

18세기말부터 독립운동이 앙양되여 1804년에 프랑스침략군을 몰아내고 독립하였으며 1806년에 첫 흑인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하이티는 1822년에 도미니까를 정복하고 22년간 지배하였다. 1915년 7월 수도에서 반정부폭동이 일어나자 미제는 《자국민보호》라는 구실밑에 무장간섭을 감행하여 하이티를 강점하였다.

1957년 9월 미제는 친미분자 듀발리에를 부추겨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게 하였다. 친미분자 듀발리에는 1961년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량원제로된 립법회의를 일원제로 만들었다.

또한 듀발리에친미분자는 1963년 5월 대통령선거를 반대하고 1964년 6월 22일에는 자신이 종신대통령이라는것을 선포하면서 발광하였다.

이해부터 친미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이 시작되여 1966년에는 민주력량의 단결이 강화되였으며 정치단체들은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인민들을 반미반정부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립법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프랑소와 듀발리에(수상겸임)

【정당, 사회단체】 인민통일당, 1934년에 창건된 공산당의 후신. **혁명행동통일당**(집권당), **사회민주당, 민주련맹당, 혁명해방전선, 전국해방운동, 전국로동총련맹.**

경제, 사회 하이티는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경지면적은 전국면적의 3분의 1이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 바나나, 코코아,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아연광, 망간, 석탄, 석유 등이 있으나 그 채굴량은 적다.

이 나라에는 병원이 8개밖에 없으며 전국병원 침대수는 1천개도 못되며 주민 1만 5천여명에 의사 1명이 차례진다. 출생한 어린이의 대부분은 질병과 영양부족으로 죽고있다.

주민의 85%가 문맹자이며 학령어린이의 대부분이 학교에 못간다. 전국에 57개의 학교가 있을 뿐이다.

【출판】 신문 하이티 저널, 레 나티오날, 라팔랑제.

도미니까

(도미니까공화국)

카리브해상에 있는 하이티섬의 동쪽 3분의 2를 차지하고있다. 기후는 열대성에 속한다. 년평균기온은 25～27°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천～2천미리메터이다.

【면적】 4만 8,700km²

【인구】 388만 9,000명(1967년말 현재)

주민은 인디안—구라파혼혈인(67.5%), 백인, 흑인으로 이루어졌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싼또 도밍고(주민 67만 7,780명)

정 치 1492년부터 하이티와 함께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695년부터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1804년 독립하였으며 1822년에는 하이티에 정복되였다가 1844년에 하이티로부터 분리되여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16—1924년에 걸쳐 미제침략군에 강점되였으며 1930년부터 1961년 5월 30일까지 테로독재가 계속되였다.

이 나라 인민들은 1960년부터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진행하여 1964년에 와서는 6개의 유격전선을 창설하고 투쟁을 확대하였다.

1965년 4월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은 반동적인 군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국가궁전을 점령하였으며 봉기군지도자 프랑시쓰꼬 까아마니오를 림시대통령으로 선거하였다. 선거된 림시대통령은 새정부를 구성하였다.

이에 당황한 미제는 무력으로 인민을 탄압하고 친미분자인 고도이를 괴수로하는 정권을 조작하였다.

1966년 1월에 60여개 로조단체의 반미반독재투쟁에 호응하여 전국로동자의 80%가 시위와 파업에 참가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1968년에도 인민들의 반미반정부투쟁은 강화되였다. 도미니까 근로자들은 7월에 미제의 사상적 침투를 반대하여 미제의 공보원과 《도미니까—미국문화협회》 청사에 폭발물을 던져 두개의 건물에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10월에 싼또 도밍고종합대학리사회는 도미니까교육기관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반대하여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를 규탄하였다.

8월에 도미니까인민들은 친미주구 발라게르가 한 집회에서 반인민적연설을 떠벌리려할때, 10월에는 한 《의식》에 참가하였을 때 폭발물을 던져 연설을 중지시키고 《의식》을 파탄시켰으며 궁전을 지키는 장교놈의 사무실을 습격하는 등 친미주구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9월초에 운전수들과 도시 운수부문일군들은 독재정권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여 파업을 벌렸다. 파업은 수도를 비롯한 전반적지역의 교통을 마비시켰다.

【국회】 량원제

【정부】 대통령 겸 수상 호아낀 발라게르(1966년 7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5년에 창건. **《6월14일혁명운동》, 인민동맹, 혁명당, 애국인민당, 기독교사회혁명당, 민주혁명민족당, 도미니까로동련맹, 로동자련합전선.**

경제, 사회 인구의 70%가 농사를 하는 농업국이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국민소득의 60%를 차지), 커피, 코코아, 바나나, 담배, 강냉이 등이다.

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석탄, 석유, 철광석, 동, 유색금속 및 희유금속 등이 있다.

주민은 63%가 문맹자이며 학령어린이의 절반이상이 공부를 못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 신문 리베르따드, 엘이 헤14(《6월 14일 혁명운동》기관지)

자마이카

꾸바의 남쪽 카리브해상에있는 섬나라이다. 령토의 대부분은 산간지대이다. 낮은 해안지대의 년평균 기온은 26°C이나 산간지대에서는 18°C이다.

【면적】 1만 1,400km²

【인구】 184만명(1966년말 현재)

주민의 대부분은 흑인과 인디안이며 백인도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킹스톤(주민 12만 3,213명, 1960년)

정 치 1494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1670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있었다.

1961년 10월 자마이카는 1958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자마이카와 서인도섬들로써 조작하였던 《서인도련방》에서 탈퇴하고 1962년 8월 6일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3년 6월 6일 미제는 《방위협정》을 강요하여 체결하고 이 나라를 제놈들의 군사기지로 만들었다.

1968년 6월 21일 킹스톤항구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은 자본가놈들의 착취에 항의하며 임금을 철저히 높일것을 요구하여 파업을 벌렸다. 파업으로 항구는 마비되였었다.

【국회】 량원제

【정부】 수상 유 쉬어러(1967년 4월—)

【정당】 레이버당(집권당), **대중국민당, 자유인민운동.**

경 제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바나나, 커피, 코코아, 담배 등이다.

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린회석, 연, 아연 등이다. 주민 6명당 1명이 실업자이다.

뿌에르또 리꼬

(뿌에르또 리꼬자유동맹국)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로서 기후는 온화하다.

【면적】 8,900km²

【인구】 272만 5,000명(1967년 현재)

주민의 대부분은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와 영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싼 후안(주민 64만 8,000명)

정 치 1898년을 전후하여 에스빠냐와 미제의 식민지로 있었다.

뿌에르또 리꼬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이 앙양되여 1952년 7월 25일 《내부자치령》으로 되였다. 그러나 여전히 미제의 식민지예속하에 있으며 미제의 중요한 군사기지로 리용되고있다.

1968년에 뿌에르또 리꼬인민들은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의 지도밑에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3월과 11월에 뿌에르또 리꼬인민들은 미제의 총알받이로 월남

침략전쟁터에 끌려가는것을 거부한 청년들을 감옥에 가두며 100여명의 청년들을 재판에 넘기며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렸다.

한편 뿌에르또 리꼬애국자들과 무장대는 3월에 미제의 연유땅크를, 4월에는 미국놈들이 들어있는 두개의 려관을, 5월에는 미국놈들이 경영하는 화학공장과 큰 상점들을, 7월에는 미국놈의 두 영화관을 습격하고 폭탄을 던져 큰 손실을 입히였다.

9월에 해방무장대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울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오늘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은 우리 나라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다.

【총독】 루이스 무노스 마린(1964년—)

【의회】 량원제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4년에 창건. 총비서 람보 미라발. **인민민주당**(집권당), **국가공화당**, **독립운동**, **로동총련맹**.

경제, 사회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바나나, 커피, 담배, 과실 등이다, 금, 은, 주석, 연, 동, 대리석 등 지하자원이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의 공업전반에 침투하여 공업기업소의 80%이상을 독점하고있으며 수입품의 4분의 3과 수출품의 95%를 차지하고 매년 3억딸라이상을 략탈해가고있다.

농경지의 80%를 장악하고있는 미제는 이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사탕수수를 비롯한 농작물을 략탈하여가고있다.

250여만명의 인민들은 령락되여 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으며 실업자수는 8만여명에 달한다.

주민들의 평균수명은 30세를 넘지못하며 살길을 찾아 해외에로 흩어져간 주민수는 90만명이나 된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까리브해의 서인도제도의 남안에 있는 섬나라이다.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으며 6—12월은 우기이다.

【면적】 5,128km²(트리니다드섬은 4,829km²)

【인구】 94만 7,000명(1964년 현재)

주민은 흑인(약 43%), 인디안(약 36%), 혼혈인(약16%), 백인 등이며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포트 오브 스페인(주민 10만명)

정 치

1498년에 발견된후 1797년까지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1802년부터 160년동안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었다.

1958년에 자마이카 및 기타섬들과 함께 《서인도련방》에 편입되였다. 이 나라 인민들의 오랜 민족해방투쟁으로 1962년 8월 31일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국회】 량원제

【정부】 수상 에르크 윌리암스

【정당】 **민주로동당**(집권당) 1956년에 창건. **인민민족당**.

경제, 사회

주요지하자원은 원유와 피치이며 이 나라 수출의 40%를 차지한다. 석유공업은 그 대부분을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코코아, 야자, 귤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문맹자이며 기독교를 믿는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공화국)

남미대륙의 북부에 위치하며 꼴롬비아, 브라질, 가이아나와 접경하고 북쪽은 카리브해에 면하고있다. 서북부는 산악지대이고 동남부는 광활한 밀림지대이며 나머지는 평원이다. 기후는 아열대에 속하며 년평균기온은 25∼29°C이다.

【면적】 91만 2,000km²

【인구】 1,238만 5,000명(1967년말 현재)

주민은 혼혈인(66%), 백인(20%),흑인(10%), 인디안(2%) 등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까라까스(주민 150만명, 교외주민 포함)

정 치

1550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1년 6월 5일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1821년에 꼴롬비아의 일부로 되였다가 1830년에 꼴롬비아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하고 련방공화국으로 되였다. (1950년까지 련방공화국으로 부름)

1958년 12월 선거에서 대통령으로된 베땅꾸르는 미제의 충실한 주구로서 반인민적정책을 실시하였다.

베땅꾸르는 1961년 11월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1962년 5월에는 공산당과 좌익혁명운동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인민들은 베땅꾸르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1961년부터는 무장유격투쟁을 벌렸다. 1962년 6월에 조직된 민족해방전선은 진보적인 로동자, 농민, 학생, 애국적인 군인 등 광범한 계층들로 구성된 민족해방군을 조직하였다.

1966년 4월에 팔꼰주의 꼬르산맥에 또 하나의 새로운 유격전선이 형성되여 전국 20개주중 11개주에서 7개의 유격전선을 펴고 도처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숨통을 조이였다.

1968년에 보다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간 유격부대들은 농촌지대를 기본으로하면서 도시공격작전도 강화하여 도처에서 미제와 그 주구 독재정권의 지반을 짓부시는 맹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유격부대들은 팔꼰주를 중심으로 한 여러주의 농촌지역들에서 매복, 습격 등 각종방법으로 반동정부군에 집중적인 타격을 주어 독재정권을 혼란에 빠뜨렸다.

5월 13일 민족해방군의 한 유

격부대는 이 나라의 서부주들에서 비행기와 포까지 동원하여 《토벌작전》을 벌린 반동정부군과 치렬한 전투를 전개하여 많은 적을 요정냈다.

7월 중순에 유격대는 동남지방의 아쁘레주 낀떼르마을에서 경찰서를 들이치고 놈들의 무전시설을 파괴하였으며 많은 무기와 탄약을 빼앗았다.

10월 10일 민족해방군의 한 부대가 볼리바르시로부터 약 200키로메터 떨어진 싸오 프란시쓰꼬데 빠라구아마을을 점령한후 반동당국자들이 반인민적선거를 위하여 설치해 놓은 지방선거위원회에 불을 질러놓았다.

12월 5일 까라보보주 소재지 바렌씨아에서 유격부대가 선거장에 사격을 가하여 반동지배층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이러한 습격전투와 함께 유격대는 대중적인 지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군중정치공작을 강화하였다.

4월과 5월 유격부대들은 아라구아 마을과 따빠마을을 점령하고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마을주민들을 불러일으켰다.

12월에도 한 유격부대는 아쁘레주와 팔꼰주의 마을들을 여러시간동안 장악하고 지방인민들에게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유격대의 투쟁목적을 해설선전하였다.

1968년도 무장투쟁의 특징은 투쟁의 예봉을 미제에게 돌렸다는 점이다.

4월 21일 한 유격대가 수도 까라까스 가까이에서 미국놈이 경영하는 가장 큰 송유관을 폭파시켰으며 5월 5일에는 미제석유회사의 자동차에 소이탄을 던져 불태워버렸다. 또한 10월에 까라보보주 니르구아 지역에서 유격대가 베네수엘라인민을 가혹하게 착취하고있는 미제독점자본가놈의 소유지를 점령하고 많은 식량을 빼앗았다.

유격대들의 적극적인 공세에 질겁한 독재당국은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유격대《토벌》에 날뛰였으나 인민들의 투쟁기세는 날을 따라 높아갔다.

1968년에 무장투쟁과 함께 독재정권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근로자들의 대중적투쟁도 활발히 전개되였다.

3월중순 마라까이보시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청소로동자들에 대하여 경찰놈이 최루탄을 쏘며 닥치는대로 족이고 체포하는 악귀같은 만행을 저질렀을때 약 3천명의 도시근로자들이 반정부시위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독재통치를 반대한다》라는 정치적구호를 내세우고 돌맹이로 경찰놈들을 까눕혔으며 주의회 의장의 집을 들이쳤다.

이때 주변도시의 10만명의 근로자들이 동정파업을 선포하고 친미독재정권의 폭압통치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러한 대중적인 지원밑에 청소로동자들은 15일간의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여 마침내 파업투쟁에서 승리하였다.

8월에도 전국의 부두로동자들은 미국놈의 배가 베네수엘라에 기여든데 항의하여 일제히 파업을 일으키고 모든 항구들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미국놈의 배를 내쫓았다.

6월 베네수엘라 종합대학학생 2천여명은 당국의 반동적교육정책을 반대하여 동맹휴학을 선포한후 대학청사를 차지하고 국회청사를 포위하여 반정부시위를 벌렸다.

베네수엘라 친미반동당국은 11월 20일 공해상에서 고기잡이하던 꾸바어선 《알레그리아》호를 무장공격하여 비법적으로 랍치하는 해적행위를 감행하고 선원들에게 야만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베네수엘라 군사깡패놈들은 파렴치한 해적행위를 반대하는 《알레그리아》호 선원들의 투쟁과 꾸바인민들의 완강한 투쟁 그리고 세계 진보적사회계의 세찬 규탄에 의하여 12월 《알레그리아》호를 돌려보내지 않을수 없었다.

【국회】 량원제

【정부】 대통령 라파엘 깔데라 (1969년 3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7년 8월에 창건. 총비서 헤쑤스 파리아. **좌익혁명운동당, 민주행동당, 공화민주련맹당, 기독교민주당**(집권당), **민족인민전위당, 전국민주전선, 민족해방전선및민족해방군** 1961년 6월에 조직, 베네수엘라 인민들의 무장투쟁을 지도.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것은 석유공업과 광업이다. 석유와 철광석이 풍부하며 기타 금강석, 금, 석탄, 망간, 니켈, 수은, 류황 등이 있다.

농업은 극히 락후하며 로동인구의 34%가 이에 종사한다. 농촌에서는 락후한 원시적기술에 의한 생산이 지배적이다.

농업인구의 1.5%인 대토지소유자들이 경지면적의 78.7%를 차지하고있는 반면에 71.6%의 농민들은 겨우 2.3%의 토지를 소유하고있을 뿐이다.

식량은 국내소비의 50% 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있으며 많은 량의 농산물을 수입한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바나나, 커피, 담배, 목화, 사탕수수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석유 및 석유제품, 철광석, 코코아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 운수수단, 경공업제품, 식료품, 화학제품 등이다.

미제의 가혹한 략탈과 정부의 반인민적정책으로 인민생활은 극히 령락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 신문 라 레뿌블리까 (정부기관지), 뜨리부나뽀뿔라르 (공산당기관지), 이스끼에르다 (좌익혁명운동), 뿌에블로 이 레볼루시온 (민족해방전선기관지)

가이아나

라틴아메리카의 동북부에 위치하고있다. 기후는 적도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6~28°C, 년평균강수량은 2천미리메터 내외이다.

【면적】 21만 4,970km²

【인구】 64만 1,000명(1965년

초 현재)

주민은 인도인(약 49.2%), 흑인(31.7%), 인디안, 혼혈인 등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죠지타운(주민 16만 2,000명)

정 치 1596—1626년 기간에 가이아나는 영국과 프랑스침략자들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4년에 3개의 식민지로 분할되면서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 앙양되여 1953년에 의회선거를 실시한결과 인민진보당의 쟈간정부가 수립되였다. 쟈간정부가 일련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자 이에 당황한 영제국주의자들은 이해 10월에 무력으로 쟈간정부를 전복하였다.

그러나 1957년 8월과 1961년 8월에 있은 선거에서 인민진보당이 다시 승리하였다. 1961년 8월 자치정부를 수립하였다.

1966년 5월 26일 독립을 요구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자 미제는 영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른바 《독립》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미제가 영령 가이아나인민들의 장기간에 걸친 완강한 투쟁앞에서 더는 종래의 통치수법으로 저들의 식민지를 유지할수없게된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수법을 바꾼데 불과한것이였다.

1968년에 가이아나인민들은 진정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반미투쟁을 강화하였으며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반정부투쟁을 벌렸다.

3월 21일 수도주민들은 미제의 대사관에 몰려가 흑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는 인종차별정책을 규탄하였다. 6월에는 미제의 가혹한 식민지적략탈정책을, 7월에는 미제의 윁남침략정책을 반대하여 인민진보당 총비서가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를 호되게 규탄하였다.

11월 14일에는 사탕공장로동자 1만여명이 정부의 반동적인 선거법의 철폐를 요구하여 세차게 파업을 벌렸다.

【립법회의】 일원제, 최고립법기관이다.

【정부】 수상 포베스 버남(1964년 12월—)

【정당, 사회단체】 인민진보당 1950년에 창건. 총비서 체디 쟈간. 인민민족대회당(집권당), 통일력량당, 로동총련맹, 진보청년동맹.

경 제 주민의 대부분은 농민이며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쌀, 야자, 커피, 코코아 등이다.

주요자원은 보크사이트, 망간, 금, 금강석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사탕, 보크사이트, 망간, 벼, 목재, 금, 금강석 등이다.

화란령 가이아나

남미대륙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 14만 2,822km²

【인구】 33만명(1962년 추정)

주민은 크리올인, 인디안, 구라파인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중심지】 파라마리보(주민 10만 7,000명, 1958년)

1667년에 화란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대전후 미제는 경제적 침략을 강화하였으며 1962년 4월에는 화란과 《협정》을 맺고 이 나라를 제마음대로 략탈하고 리용할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다.

령토의 90%는 사람이 살지 않으며 주민의 70%가 농사를 한다. 주산물은 보크사이트, 커피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보크사이트, 철, 금, 은, 동이 있으나 개발되지 못하였다.

프랑스령 가이아나

브라질의 북부에 있다.

【면적】 9만 1,000km²

【인구】 3만 4,000명(1962년 추정)

주민은 인디안, 흑인, 프랑스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중심지】 카이엔느(주민 2만 8,500명)

1815년에 프랑스식민지로 되였고 1946년에 형식상 프랑스 해외현으로 되였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산물은 사탕수수, 바나나, 코코아,

브라질

(브라질합중국)

남미주동북부를 차지하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세계에서 제4위)브라질의 북부에 적도가 통하고있으므로 기후는 대체로 열대에 속한다. 사철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다만 건조기와 우기로 구분된다.

【면적】 851만 6,037km²

【인구】 8,800만명 (1968년초 현재)

주민은 백인(약 63.4%), 흑인(약 14.6%), 갈색인(약 21.2%) 등 이주민이 많다. 국어는 뽀르뚜갈어이다.

【수도】 브라질리아(주민 18만명)

정 치 16세기초에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580년에 에스빠냐식민지로 되였고 1640년에 다시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822년에 독립하여 돈 페뜨로왕국을 선포하였다.

1889년 11월 왕국을 뒤엎고 《련방공화국》을 세웠으며 1891년에 나라 이름을 《브라질합중국》으로 고쳤다.

1961년 반동적군부의 압력으로 《의회책임제》로 넘어갔으나 1963년 1월 국민투표를 통하여 다시 《대통령책임제》로 되였다.

1968년에 브라질인민들은 미제의 간섭과 친미정권의 매국배족적인 정책을 반대하며 민족적리익과 민주주의적자유, 생활상처지 개선을 위한 투쟁을 벌렸다. 특히 학생들은 미제와 반동정부가 맺은 《교육협정》을 반대하며 학원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대규모적인 시위, 동맹휴학, 항의성명의 발표 등 각종형식으로 반미반독재투쟁을 년중 줄기차게 벌렸다.

3월 28일 리오 데 쟈네이로 종

합대학학생들이 높은 학비를 반대하며 학습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시위를 벌렸다. 이때 경찰놈이 한대학생을 살해하는 야수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이 희생된 학생의 장의식에 모인 1만여명의 대학생들은 학우의 시체를 메고 《양키놈들을 몰아내자》, 《독재를 타도하자》라고 웨치면서 경찰놈들의 만행을 단죄하는 시위를 벌려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규탄하였다.

전국을 휩쓴 투쟁기세에 질겁한 친미독재정권은 22개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무기로 무장한 정규군과 기마경찰대를 동원하여 시위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그러나 시위자들은 상점들과 자동차를 까부시고 수명의 경찰을 사살하고 미제 《원조사절단》사무실을 불태우는 등 완강한 투쟁을 벌려 전국을 완전히 마비상태로 만들었다.

또한 싼 빠울로에 있는 미제의 《령사관》을 비롯한 큰 건물들에 약 한달동안에 다섯번이나 폭탄을 던져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9월 27일 리오 데 쟈네이로시 주민들은 윁남침략전쟁에서 많은 윁남인민을 학살한 범죄자인 미제의 륙군참모총장이란놈이 브라질에 기여든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제의 《군사사절단》건물에 폭탄을 던져 놈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10월 12일에 싼 빠울로에서 새로 투쟁을 시작한 브라질민족해방군은 윁남침략전쟁에 참가하여 범죄행동을 감행하였으며 반동정부에 반유격전술을 가르치고있던 미제침략군 한 대위놈을 처단하였으며 10월 19일에는 친미괴뢰정권의 2명의 고위관리놈의 집을 습격하고 폭발물을 던져 집을 파괴하였다.

12월 13일에 친미군사독재정권은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막아보려고 국회를 무기한으로 해산시키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적권리를 10년간 박탈하고 출판물에 대한 반동군부의 검열을 실시하며 전국에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추태를 벌렸다. 그러나 도처에서 미제와 친미군사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더 광범한 계층에 영향을 미쳐 지어 국회내에서까지 많은 국회의원들이 독재정권의 전횡을 정면으로 공격하며 놈들의 파쑈적조치에 항의하여 싸웠다.

【국회】 량원제. 1968년 12월 13일에 국회를 《무기한》해산하였다.

【정부】 대통령 겸 수상 꼬스따 에 실바(1967년 3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3월 25일에 창건, 당원수 1만 5천명(1968년 현재). **로동당, 전국민주련맹당, 사회주의당, 사회진보당, 사회당, 기독교민주당, 공화당, 로동총련맹, 브라질조선문화협회** 1962년 8월 1일에 성립.

경제, 사회 브라질은 인구의 63.8%가 농목축업을 하고있다. 이 나라의 총경지면적의 62.2%를 농촌인구의 3.4%에 불과한 지주들이 가지고 농민들을 착취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코코아, 강냉이, 담배, 목화, 콩 등이다. 주요집짐승은 소, 돼지, 양 등이다.

석탄, 망간, 우라니움, 철, 금, 원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나 개발되지 못하였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목화, 사탕, 목재, 철광석, 담배 등이다.

미제침략자들의 가혹한 략탈과 친미도당의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인민들은 기아와 빈궁속에서 허덕이고있다.

실바도당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8년에 매일 평균 100여명의 어린이가 굶어죽었으며 영양부족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어린이가 200만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브라질어린이의 58%가 공부를 못하고있다. 주민의 약 75%가 문맹자이다.

1967년 6월—1968년 6월까지의 기간에 도시에서 물가는 24.53%나 뛰여올랐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 보도】 **통신** 아싸 쁘레쓰(브라질통신사)

신문 끌라쎄, 오뻬라리아, 노부스 루무쓰, 울띠마오라.

꼴롬비아

(꼴롬비아공화국)

남미대륙의 서북부에 있다. 서부에는 안데스산맥이 뻗어있고 동부는 고원지대이다. 기후는 아열대에 속하나 4계절의 구분이 명확치 않으며 다만 3개월을 주기로 교체되는 건조기와 우기에 의하여 계절이 구분된다.

【면적】 113만 8,338km²

【인구】 1,918만명 (1967년말 현재)

주민은 주로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의 혼혈인(60%), 백인(20%), 흑인 등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보고따(주민 148만 7,920명, 1964년)

정 치 16세기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 독립을 위한 원주민들의 대규모적인 폭동에 의하여 1819년 7월 20일 독립하였다. 같은해 베네수엘라, 에꽈도르를 통합하여 《대꼴롬비아련방》을 형성하였다.

1829—1831년에 에꽈도르, 베네수엘라가 떨어져나가자 1886년에 나라 이름을 꼴롬비아공화국으로 바꾸었다.

1903년에 미제는 꼴롬비아에 침입하여 이 나라의 한개 성이였던 빠나마를 분리하여 《독립국》으로 만들었다.

꼴롬비아는 1950년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직접 참가한 조선인민의 원쑤이다.

독립이후 정권쟁탈을 벌려온 보수당과 자유당은 1957년 12월에 헌법을 개정하고 앞으로 16년간 량당이 대통령자리는 4년간씩 륜번제로, 의회의석과 각료직은 절반씩 각각 나누어가지기로 하였다.

1948년에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유격대가 조직되였으며 19

64년부터는 유격대들의 투쟁이 더욱 치렬하여졌다.

1968년에 꼴롬비아민족해방군과 새로 활동을 시작한 혁명해방군은 독재정권의 가혹한 테로통치에도 불구하고 포위, 습격, 매복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투를 벌려 많은 반동정부군을 쓸어눕혔다.

민족해방군의 부대들은 3월초에 똘리마주에서 큰 전투를 벌려 많은 적을 소멸하였으며 4월에는 쎄싸르주에 있는 까치라강근방에서, 다른한 부대는 베이바시에서 적을 습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100여명으로 구성된 한 부대는 서남지방에 있는 까우까주, 똘리마주 등에서 맹렬한 전투를 벌려 많은 적들을 쓸어눕혔다.

5월말 민족해방군은 이 나라 북부지대에서 활동을 강화하면서 유격대 《토벌작전》에 나선 정부군의 한 부대를 들이쳐 놈들의 《토벌작전》을 파탄시키고 적들에게 많은 손실을 주었다.

8월에 《까밀로 또르레스 혁명해방군》이라는 이름을 지닌 새로운 유격부대가 출현하여 반동정부군을 매복습격하여 적들을 소멸하기 시작하였다.

10월에 들어서면서 혁명해방군은 안띠오끼아주 뿌에르또 바르리오 근방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빠울에서 반동정부군을 매복습격하여 적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

11월에 보야까주와 싼딴데주 사이의 지역들에서 여러번 적들을 공격하여 장교놈들을 비롯한 여러놈의 적을 쓸어눕혔다.

12월에 우일라주의 니에바시 근처에서 혁명해방군은 반동정부군을 들이치는 치렬한 전투를 벌려 많은 적들을 죽였다.

무장투쟁의 강화와 함께 근로자들과 학생들의 반미반정부 시위와 파업도 년중 계속되였다.

2월 꼴롬비아의 로조련맹을 비롯한 진보적사회단체들은 호소문을 발표하여 세계도처에서 미제가 감행하고있는 침략책동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호소문은 특히 미제침략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새로운 전쟁도발책동들을 감행하고있으며 영웅적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는것을 폭로규탄하였다.

9월말부터 꼴롬비아의 한 항구에서 시작된 수천명의 부두로동자들의 파업은 10월에 들어서면서 더욱 세차게 일어나 주요항구를 마비시키고 당국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10월에는 미제의 소유로 되고있는 꼴롬비아의 《아비안카》회사를 비롯한 민용항공회사에서 일으킨 비행사들의 파업은 여러날 계속되여 8천여명의 승객을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었으며 미제에게 커다란 손실을 입혔다.

【의회】 량원제

【정부】 대통령 까르로스 레라스 레스뜨레뽀 (1966년 8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7월에 창건. **자유당**(집권당), **보수당, 자유혁명운동당, 독립로조련맹, 공산청년동맹, 로동자련맹, 웰남민주단결위원회.**

경제, 사회

농촌인구의 3%에 불과한 지주들이 농경지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민의 61%가 토지의 겨우 3%를 가지고있을뿐이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목화, 강냉이, 코코아, 쌀, 밀 등이다. 커피는 이 나라 수출의 77%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석탄, 금, 백금, 철 등이나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실업자수는 50만명, 반실업자는 190만명이나 된다. 학령아동의 60%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며 주민의 50%가 문맹자이다.

주민의 대다수는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 보스 쁘로레따리아(공산당주간잡지), 레볼루시온(공산당리론잡지), 라 레뿌블리까, 보스델라 데모끄라시아, 엘 씨글로, 프에르사스 이르마다스(유격대신문).

에꽈도르

(에꽈도르공화국)

남미대륙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부는 뻬루, 북부는 꼴롬비아와 접경하고있다. 서쪽은 태평양에 면해있다. 적도 바로 아래에 있기때문에 기후는 무덥다. 년평균기온은 25°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50미리메터이다.

【면적】 27만 700km^2

【인구】 524만 8,000명(1966년말 현재)

주민의 약 80%는 인디안과 혼혈인이고 기타는 백인과 흑인들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끼또(주민 37만 5,000명) 정치, 경제 생활의 중심지는 과야낄(주민 60만명)

정 치

1532년부터 3세기동안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고 1819년에는 꼴롬비아의 일부분으로 되였다.

1822년에 독립을 쟁취하고 1930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선포이후 정변이 빈번하여 1965년까지 헌법을 10회이상이나 개정하고 거의 50여회나 대통령이 바뀌였다.

1968년 에꽈도르인민들은 미제의 내정간섭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친미도당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여 년중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 또한 영웅적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침략책동을 규탄하는 각종 행사들을 벌려 미제를 규탄하고 웰남인민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2월초에 에꽈도르인민들은 전국에서 미제의 예속적인 《리오 데자네이로 의정서》 조인일을 계기로 강력한 반미시위와 군중집회를 벌렸다. 끼또시에서 진행된 시위참가자들은 《미제는 조선과 웰남에서 물러가라》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죽음을 주라》라고 쓴 구호판을 들고 시위를 벌렸으며 과야낄의 군중집회에서 한 연설자는 에꽈도르의 령토의 일부를 빼앗은 미제가 영웅적웰남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있으며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파렴치한 도발행동을 감행하고있다고 지적하고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3월 18일 10만명의 로동자들은 미제독점체들의 가혹한 착취와 독재정권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며 생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시위와 파업을 벌렸다.

6월 1일 과야낄에서 무장한 인민들이 2일에 실시될 선거선전을 하고있던 2개의 방송국을 들이치고 방송국내의 시설을 파괴하는 등 놈들의 국회선거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렸다.

7월 21일 암바도시의 인민들은 미제침략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는 윁남인민에게 련대성을 표시하여 장거리시위행진을 하였다. 그들은 수도까지 행진하여 가는 도중 도처에서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만행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24일 수도에 도착한 그들은 대규모의 군중집회를 열고 영웅적윁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을 단호히 규탄하고 동남아세아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물러갈것을 견결히 요구하였다.

【민족회의】 량원제

【정부】 대통령 벨라스꼬 이바라(1968년 8월 31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전신은 1926년 5월 23일에 창건된 사회당인데 1930년에 공산당으로 개칭. 총비서 뻬드로 사아드. **자유당**(집권당), **보수당**, **사회기독교운동**, **자유급진당**, **사회혁명당**, **인민혁명운동**, **민주인민동맹**, **로동총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경제, 사회

주요경제부문은 농업으로서 주민의 약 65%가 이에 종사한다.

경작할수있는 농경지는 전 령토의 약 10%인데 369명에 불과한 지주들이 경지면적의 41%를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코코아, 커피, 쌀, 감자 등이며 식량은 자급자족하지못하고 수입에 의존한다.

주요지하자원은 동, 금, 원유, 철광석, 은, 석탄, 류황 등이다.

바나나와 코코아, 커피는 이 나라 수출에서 85%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나라의 무역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장악되고있다.

주민 1인당소득은 매우 낮으며 이 나라의 실업자수는 100만여명에 달한다.

주민의 50%이상이 문맹자이며 대부분의 주민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 **신문** 엘 뿌에블로(공산당기관지), 엘메꾸리오(보수당기관지), 라 띠엘라(사회당기관지)

페 루

(페루공화국)

남미대륙의 서쪽 대평양연안에 남북으로 뻗어있는 나라로서 에파도르, 꼴롬비아,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와 접경하고있다. 해안지방과 아마존강상류의 밀림지대를 내놓고는 대부분이 고원이다. 평지대기후는 무더우나 산악지대는 춥다.

【면적】 124만 9,000km²

【인구】 1,238만 5,000명(1967년말 현재)

주민은 인디안(약 46%), 인디안—구라파인의 혼혈인(약 45%), 백인(약 8%)들로 이루어졌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리마(주민 171만 5,000명, 1966년)

정 치

1531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821년 7월 28일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5년 6월부터 좌익혁명운동당 총비서 루이스에라 뿌엔떼의 지도밑에 산악지대에서 유격투쟁이 개시되였다.

1968년초부터 반동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 유격대들은 도처에서 반동정부군을 습격하여 많은 원쑤놈들을 족치였다.

2월초에 마드레스 데 디오스지방에서 유격대들이 정부군 순찰대를 들이쳤으며 빠맘부꼬, 싼후 안데오로 그리고 이남바리강기슭에서 맹활동을 전개하여 반동정부군 순찰대를 여러놈 쓸어눕히는 등 반동정권에 큰 타격을 주었다.

3월말에 메싸 벨라다에서 진행된 전투에서 적들에게 큰 손실을 준바 있는 한 유격부대는 4월 중순에 싼디아고 데츄꼬지방에로 활동범위를 넓히고 물레밤바에서 놈들이 새로 건설한 다리를 폭파하고 군용자동차를 전복시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적극적으로 전개된 유격대의 활동에 고무되여 대중들의 반정부투쟁도 강화되였다.

7월 2일 미제의 소유인 《또께빨라》 동광에서 일하는 2천 200명의 로동자들이 미제자본가놈들의 략탈을 반대하여 무기한 총파업을 벌렸으며 8월 19일에는 뻬루의 자동차운전수 6만여명이 친미독재정권의 반인민적인 물가인상정책을 반대하여 물가를 낮출것을 요구하여 전국적인 파업을 벌렸다.

8월 26일에 농민 3천여명이 당국의 반동적인 경제정책을 반대하여 시위행진에 떨쳐나섰으며 또한 수도 리마에서는 대학생들이 미제의 예속화정책을 반대하여 시위를 조직하고 《혁명이냐 죽음이냐》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경찰놈들의 최루탄공격을 박차고 견결히 싸웠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날로 앙양되는 근로자들의 반미반정부투쟁에 질겁한 뻬루반동정부는 8월 28일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10월 3일 친미독재자인 벨라운데 떼리의 폭압통치(1963년부터)를 반대하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투쟁이 날을 따라 고조되자 이에 불안을 느낀 미제는 륙군사령관인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라는 친미주구놈을 부추겨 반동적인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뻬루근로자련맹은 군사정변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근로자들이 파업을 일으켜 군사정변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수도 리마에서는 7만 5천명의 로동자들이, 뜨루힐로에서는 2만 5천명의 사탕부문로동자들과 대학생들이 파업과 시위를 벌리고 정변을 조작한 군사깡패들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국회】 량원제. 1968년 10월 3일 반동적인 군사정변으로 조작된 혁명리사회는 국회를 해산하였다.

【정부】 군부우두머리들로 1968년 10월 3일 반동적인 내각을 조작

대통령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8년에 창건, 총비서 싸뚜르니노 빠레데스. **인민행동당, 기독교민주당, 인민당, 인민혁명당, 쁘라띠스뜨 민족운동당, 좌익해방운동당, 민족혁명운동당, 민족해방전선, 로동총련맹.**

경제, 사회

주요경제부문은 광업과 수산업, 농업이다.

경작할수있는 농경지는 전 령토의 약 10%인데 농호의 겨우 2%인 지주들이 경지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농민을 착취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사탕수수, 커피, 벼, 밀, 보리, 강냉이, 담배, 포도, 감자 등이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동, 연, 아연, 철광석, 은, 석유, 바나듐 등이다.

이 나라 수출품중에서 어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타 광물, 석유, 수산물, 석유, 목화, 양털등도 수출한다.

이 나라 어린이의 50%가 영양부족과 기타 질병으로 죽으며 50%의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주민의 60%가 문맹자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 신문 우니다드(공산당 기관지), 반데라 로하, 라 뽀렌싸, 보스델 레벨데.

볼리비아

(볼리비아공화국)

남미대륙중부에 있는 내륙국으로서 뻬루, 브라질, 빠라과이, 아르헨띠나, 칠레와 접경하고있다. 령토의 동북부는 평원이며 서부에는 안데스산맥이 있다. 높은 고원에 도시들이 있으며 여기에 또한 많은 호소들이 있다. 고원지대의 기후는 따뜻하나 낮은지대는 매우 덥다.

【면적】 110만km^2

【인구】 380만 1,000명(1967년말 현재)

주민은 인디안(약 53%), 인디안—에스빠냐혼혈인(28%) 기타 에스빠냐인으로 이루어졌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라 파스(정부 소재지, 주민 35만 5,600명. 법적수도는 수끄레).

정 치

16세기부터 약 300여년간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25년 8월 6일 인민들의 강력한 반식민지투쟁에 의하여 독립하였다.

이 나라는 독립이래 정치적불안정이 심하여 180여회의 정변이 있었으며 11차의 헌법개정이 있었다.

1964년 5월의 선거에서 에쓰뗀쏘르가 대통령으로 되였으나 친미정권에 대한 볼리비아인민들의 불만이 날을 따라 높아지자 미제는 이 해 11월 우익군부를 부추겨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바리엔또스독재정권을 수립하게 하였다.

1967년 볼리비아민족해방군의 반미반정부무장투쟁은 크게 앙양되였으나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선두에서 용감히 싸워온 탁월한 국제주의전사인 체 게바라소좌가 전사한후에 일시적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1968년 볼리비아유격대는 대오를 재편성하고 다시 반미반독재무장투쟁을 벌렸다.

7월초에 볼리비아민족해방군은 공보를 발표하고 체 게바라소좌의 서거 1주년을 앞두고 투쟁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굳은 결의를 천명하였다.

10월하순 한 유격대는 꼬차밤바시의 중앙라지오방송국을 습격폭파하여 원쑤들의 방송을 중단시켰고 놈들을 커다란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11월 6일 다른 한 유격대는 꼬차밤바시의 유무리나지역에서 반동적정부군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유격대는 많은 정부군을 쓸어눕혔다.

뿐만아니라 동남부산악지대에 있는 나까와스, 라그닐라스, 까미르와 쑤끄레주의 많은 지역들에서 볼리비아민족해방군은 활동을 강화하면서 유격지구를 확대하였다.

이에 당황한 친미반동정권은 산간지대를 비롯한 여러곳에 《계엄령》을 내리고 수천명의 정부군을 《토벌작전》에 내모는 한편 미제로부터 군용비행기와 반유격전전문가들을 끌어들이였으며 지어 이웃 나라 반동들에게까지 《원조》를 구걸하였다.

날로 확대강화되는 유격투쟁과 때를 같이하여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로동자, 학생, 지식인들의 투쟁도 보다 치렬히 전개되였다.

6월 24일 볼리비아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꼬차밤바시 대학생들은 1967년 6월 근로자들에 대한 탄압을 반대하여 싸우다가 희생된 광부들을 추모하여 시위를 벌렸다. 학생들은 군대와 경찰의 탄압을 박차고 미국놈의 령사관과 미제《평화군》의 사무소 그리고 주 행정기관에 돌벼락을 안기였다.

7월에 수도 라 파스에서 5천여명의 청년학생들이 반동적인 군사당국의 교육정책을 반대하여 군중집회를 가지고 바리엔또스친미독재정부를 신랄히 규탄하면서 《미제를 타도하자》,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웨치며 반미반정부시위를 벌렸다.

8월 15일 수도 학생들이 경찰의 탄압을 박차고 반정부시위를 또다시 벌렸다. 시위학생들은 부당하게 체포된 학생들과 교원들을 즉시 석방시키며 근로자들의 권리를 존중할것을 친미독재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7월 25일 볼리비아인민들의 강력한 반미반정부투쟁에 의하여 반동내각은 총사직하였으며 정치적위기는 날로 격화되고있다.

【의회】 량원제

【정부】 대통령 레네 바리엔또스(1966년 7월 3일 재선)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에 창건되였다가 1950년 1월에 재건되였다. 제1비서 요스까르 싸모라. **민족해방운동당, 진정민족혁명운동당, 사회주의팔랑헤당, 사회기독교당, 로동총련맹, 볼리비아조선친선협회** 1962년 5월 9일 성립.

경제, 사회 주요산업은 농업과 광업이다. 주민의 80%가 농사를 하고있다. 농촌인구의8~10%밖에 안되는 지주들이 토지의 76~86%를 차지하고 농민들을 착취한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밀, 보리, 감자,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많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주요광물은 주석, 창연 등이다 나라의 경제는 주석광의 생산에 의존되여있다. 주석광은 이 나라 수출액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주민 1인당 소득과 문화수준은 매우 낮으며 문맹자는 주민의 절반을 차지한다.

천주교가 국교로 되여있다.

【출판】 신문 우니다드(공산당기관지), 에스파로타꼬, 스바다까스, 쁘레쎈시아, 엘 문도 라 빠스엘 뿌에블로(공산당주간잡지).

빠라과이

(빠라과이공화국)

남미대륙의 중부에 있으며 북쪽은 볼리비아, 동쪽은 브라질, 서남쪽은 아르헨띠나와 접경하고있는 내륙국이다. 기후는 대체로 무더우며 년평균강우량은 1천~2천미리메터이다.

【면적】 40만 6,800km²

【인구】 216만 1,000명(1967년말 현재)

주민의 대부분은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의 혼혈족이다. 국어는 파라니어,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아순씨온(주민 약 30만 5,000명, 1963년)

정치 1535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1년 5월 14일에 독립하였다.

1864—1870년기간에 빠라과이는 린접나라들인 브라질, 아르헨띠나, 우루과이를 상대로하는 전쟁에서 인구의 절반을 잃었다.

1932—1935년에는 볼리비아와 석유매장지쟁탈을 위한 《차꼬전쟁》을 하였다. 이 전쟁에서 국력이 약화된 기회를 리용하여 군부가 정권을 잡았다.

1968년에 빠라과이인민들은 협잡과 날조를 통하여 종신대통령이 된 스뜨로에스네르친미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세차게 벌렸다.

4월 15일 감옥안에 있는 애국자들까지도 친미독재권의 학정을 반대하며 자기들을 즉시 석방할것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벌렸다. 이 투쟁을 지지하여 4월 18일 빠라과이녀성련맹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는 투쟁에 적극 참가할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의회】 량원제

【정부】 대통령 알프레드 스뜨로에스네르(1954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3년에 창건, 총비서 오스깔 끄레떼. **국가공화당**(집권당), **민족해방통일전선, 근로자련맹, 녀성련맹.**

경제, 사회 주민의 75%가 농사를 한다. 농업에서는 축산업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돼지, 말, 면양 등이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담배, 사탕수수, 강냉이, 콩, 과일 등이다. 식량은 수입한다.

지하자원은 석유, 철, 망간, 동, 석회석, 대리석 등이다.

림산업도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목재는 이 나라 수출액의 50%를 차지한다.

인민생활수준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낮다. 주민 1만명에 의사 1명이 차례진다. 어린이 사망률은 63%이다.

종교는 기독교(천주교)이다.

【출판】 신문 라 방가르디아, 플라따, 아델란떼(공산당기관지)

우루과이

(우루과이동방광화국)

라틴아메리카의 동남부에 자리잡고있으며 동쪽과 북쪽은 브라질, 서쪽은 라 쁠따강을 사이에 두고 아르헨띠나와 린접하고있다. 기후는 전반적으로 따뜻하며 년평균기온은 17°C, 년평균강우량은 1천미리메터이다.

【면적】 18만 6,900km²

【인구】 278만 3,000명(1967년 현재)

주민의 약 90%가 백인이고 기타 인디안—구라파혼혈인, 인디안 등이 있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몬떼비데오(주민 130만명)

정치 1516년부터 300여년간 에스빠냐, 뽀르뚜갈, 아르헨띠나, 브라질의 식민지로 있었다.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825년 8월 5일에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830년 7월 18일 첫 헌법을 채택하고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창건하였다.

1951년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가의회제로 넘어갔다. 1952년 미제와 쌍무적군사협정을 비롯한 일련의 예속적인 《협정》을 맺었다.

1958년 국회선거에서 90년간 계속 집권하여 오던 꼴로라도당이 패하고 브랑꼬당이 승리하였다. 반동적브랑꼬정권은 근로자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1964년 9월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8년에 우루과이근로자들은 자국정부의 반동적인 대내외정책

과 미제의 침략정책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자유와 생활상처지개선을 위한 투쟁을 세차게 벌렸으며 미제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웰남인민과 꾸바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였다.

3월 24일 우루과이 수도 청년학생들은 존슨도당의 웰남침략전쟁을 항의 규탄하는 시위를 벌렸다. 시위자들은《침략자들은 웰남땅에서 당장 나가라!》라는 구호를 들고 시내를 행진하면서 미제침략자를 규탄하였다.

5월 15일 20여만명의 우루과이 근로자들은 임금을 올리며 생활상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총파업을 일으켰다. 연료공업부문로동자들은 전국연료공급 중앙사무소를 점령하였으며 광산부문로동자들은 광산의 모든 사무소를 점령하고 달려드는 경찰놈들을 때려눕혔다.

로동자들의 투쟁에 당황망조한 우루과이반동정권은 6월에《계엄령》을 선포하고 임금을 동결시키는 동시에 군대를 총동원하여 모든 시위와 파업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그러나 반동정권의 야수적탄압도 로동자들과 청년들의 투쟁을 저지시킬수 없었다.

격분한 로동자들은 8월 7일 우루과이로동운동의 탄압에 악명을 떨친 대통령의 로조고문놈을 생포하였으며 반항하는 이놈의 호위원을 쏘아눕혔다.

뿐만아니라 우루과이청년학생들과 로동자들은 로조고문놈을 빼앗아가려고 학생들과 로동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악질경찰 한놈을 때려 죽였다.

시위와 파업투쟁이 큰 규모로 확대되여갔는바 그것은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싸우는 아르쎄학생을 경찰놈들이 죽인 만행이 저질러진 이후 더욱 세차게 타번졌다. 8월 15일 수천명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희생된 학생을 추모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반동당국이 운영하는 방송국에 쳐들어가 방송시설에 불을 질러놓았다. 또한 수많은 은행들의 유리창문을 까부시고 대통령관저앞 공원에 모여 반동당국의 살인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8월 16일 우루과이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은 경찰의 폭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리고 《미제를 타도하자!》,《독재정권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웨치며 투쟁하였다.

【의회】 립법기관으로서 량원제

【정부】 대통령이 수상을 겸임한다.

대통령 아레꼬 빠체꼬(1967년 12월 6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9월 21일에 창건. 당원수 약 5천명. 제1비서 로드네이 아르스멘디. **꼴로라도당(집권당), 브랑꼬당, 사회주의당, 공민련맹, 좌익해방전선, 공산청년동맹, 녀성동맹, 근로자전국대회.**

경제, 사회

목축업을 위주로하는 농업국가이다. 총 경지면적의 92%가 목축업에 리용되고있으며 양과 소의 사육을 기본으로 한다.

주민의 40%가 농사를하며 경작지의 66%가 600세대의 지주들에게 집중되여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벼, 황마 등이다.

지하자원은 금, 은, 동, 연, 망간, 철 등 광물자원과 화강암, 대리석 등 건축자재도 있다.

공업은 락후하며 국민총생산액의 23%에 불과하다. 그것마저 17%가 축산물과 농산물의 가공공업이다.

주요수출품은 축산물(양털, 고기, 가죽)이며 곡물 및 광물도 수출한다.

1968년 4월 페소의 가치를 평가인하하였으며 딸라와의 환률은 200대1로부터 250대1로 되였다.

통화팽창과, 물가등귀의 결과 생계비는 1968년 상반년간만 하여도 64%로 올랐다. 실업자수는 20만명이나 된다. 문맹자는 인구의 41%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 신문 엘 뽀쁠라르(공산당기관지), 엘 빠이스, 라 쁘라따, 엘 데바떼, (브랑꼬당계) 악찌온엘 디아(꼴로라도당계), 뿔리(사회주의당계).

아르헨띠나

(아르헨띠나공화국)

남미주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나라로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번째로 크다. 서부에는 안데스산맥이 뻗어있고 북부는 협곡이 심한 지대이며 동쪽은 대서양을 끼고있다. 중부는 온화한 초원지대로서 이 나라 경제의 중심지로 되고있다.

【면적】 280만 8,000mk²

【인구】 2,269만 1,000명(1966년말 현재)

주민의 97%가 에스빠냐와 이딸리아 등에서 온 구라파이주민의 후손들이며 원주민인 인디안은 3만명을 넘지 못한다. 독일인들이 많이 살고있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주민 760만 2,000명, 1965년)

정 치

1516년 이래 300년간에스빠냐의 식민지로있다가 1816년 7월 9일에 독립하였고 1862년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제2차 대전후 이 나라에 대한 침투를 확대한 미제침략자들은 이 나라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정변을 빈번히 조작하였다.

1966년 6월 27일에 미제는 저들의 주구를 부추겨 반동적군사정변을 조작하고 이전 륙군사령관 온가니아를 대통령으로 하는 반동정부를 만들어놓았다.

1968년 아르헨띠나의 근로자들은 생존의 권리와 로동조건의 개선 및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여 견결히 싸웠다.

4월 30일 로동총련맹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와 기타 외국독점체들을 내쫓으며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독재정권의 예속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것을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다.

9월말부터 11월까지 라 쁠라따, 꼬르도바, 로싸리오 및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있는 여러 원유공장 로동자수천명이 기업주놈들의 반인민적해고를 반대하며 임금인상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11월 7일에는 이 나라 제지공업부문의 로동자 1만 5천여명이 친미반동정권의 경제정책을 반대하여 총파업을 선포하였다.

반동적교육정책을 반대하며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이 또한 광범히 전개되였는데 12월 7일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선포하고 대학청사를 차지하였다.

특히 이해에 반제반미투쟁이 커다란 규모로 힘차게 전개되였다. 2월 9일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수백명의 주민들이 미제의 더러운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리고 미제의 대사관으로 몰려가서 《웰남에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한명의 병사도, 한알의 알곡도 보내지 말자》라고 쓴 삐라들을 뿌렸다.

뒤이어 3월 초순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무장을 갖춘 인원들이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여 미제의 공보원에 기관총사격을 들씌웠다.

2월 9일과 10월 5일에 무장한 애국자들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북부 교외에 있는 미국대사놈의 집에 기관총사격을 퍼부었고 폭발물을 던졌으며 11월 11일에는 싼따페우시에서 애국적인민들이 미국놈의 영화가 상영되는것을 반대하여 영화관안에 폭발물을 던져 터뜨렸다.

【의회】 량원제

【정부】 대통령이 수상을 겸임한다.

대통령 까를로스 온가니아(1966년 10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에 조직된 국제사회주의당이 1920년에 공산당으로 개칭되였다. 위원장 빅또리오 꼬도빌라. **인민급진공민동맹, 비타협급진공민동맹, 페론당, 인민운동당, 진보민주당, 중간당(인민보수당),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공산주의청년동맹**

경제, 사회

경제에서 주되는 부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총경지면적의 80%를 농업인구의 10%에 해당하는 대토지소유자들이 가지고있으며 80%의 농민은 토지를 가지고있지 못하다.

주요농산물은 밀, 옥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양털이 축산물로서 유명하다. 물고기, 양털, 가축 등을 수출하며 기계설비, 흑색금속 등을 수입한다.

주요 지하자원은 원유, 석탄, 천연가스, 철 등인데 경제의 주요명맥은 외국독점자본 특히 미제의 독점자본이 독점하고있다. 미제의 독점자본가들은 전력, 강철, 자동차, 야금, 상업, 농업부문을 장악하고 많은 리윤을 짜내고있다. 1967년—1968년도에만도 제국주의독점체들은 그 전년도에 비하여 25~40%나 더많은 리윤을 짜냈다.

1968년도 농업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6.8%, 공업제품은 13%, 무역은 9% 각각 떨어졌다. 한해동안에 각종 물건값이 평균 17% 올라갔다.

친미군사도당이 실시하는 반인민적정책에 의하여 약 150만명의 실업자가 거리를 헤매고있다.

이 나라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1967년—1968년 사이에 4천억페소나 줄어들었다.

【출판】 **신문** 라 오라(공산당기관지), 반과르디아(사회당기관지), 프렌떼 아르헨띠노(인민운동당기관지), 라 나씨온.

칠 레

(칠레공화국)

남미대륙의 서남부인 태평양연안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다. 나라가 남북으로 길게 뻗은 관계로 지대에 따라 기후의 차가 심하다. 년평균기온은 북부지대에서 19°C, 중부지대에서 15°C, 남부지대에서 6°C이다.

【면적】 74만 1,767km²

【인구】 856만 5,550명(1967년말 현재)

주민은 혼혈인(65~75%)과 백인, 인디안으로 이루어졌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산띠아고(주민 188만명)

정 치

1541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0년 9월 18일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818년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38년에 공산당, 사회당, 급진당을 망라한 인민전선이 형성되였으며 이 전선에 기초하여 인민전선정부가 수립되고 약간의 사회경제적개혁들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46년에 대통령으로 된 급진당출신 비델라는 1947년에 미제와 결탁하여 정부로부터 공산당을 배제하고 1948년 5월 미제의 압력하에 소위 《민주주의보호법》을 채택함으로써 공산당을 비법화하였다.

1964년 8월에 칠레의 친미정권은 미제의 압력하에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8년에 칠레인민들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전쟁을 규탄하였으며 생활상권리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요구하여 반정부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3월 12일 칠레인민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여 미제의 령사관건물과 《칠레—미국문화회관》 건물을 포함한 미국놈들이 들어있는 건물에 폭탄을 던져 건물을 파괴하고 그곳에 있던 놈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3월 20일에는 칠레에 있는 미제의 독점체의 전력회사의 로동자, 사무원들이 임금을 올리며 생활조건을 개선할것을 요구하여 파업을 일으켜 미제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4월 4일 칠레의 건설, 운수, 체신, 교육부문에서 일하는 약 10만명의 근로자들은 물건값을 내리고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파업을 벌렸으며 6월 3일에는 근로자들의 처지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근로자들의 이 투쟁을 지지하여 3만여명의 교원, 대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선포

하여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8월 8일 누블레주농장 약 5만명의 농업로동자들은 미국놈과 칠레인 농장주놈들의 착취를 반대하여 파업을 일으켰다. 공업부문로동자들과 대학생들은 이 투쟁을 지지하여 시위와 동맹휴학을 하였다.

【의회】 량원제

【정부】 대통령이 수상을 겸임한다.

대통령 에드아르도 프레이(1964년 11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1월 22일 창건. 총비서 루이스 끄르발란. 기독교민주당(집권당), 사회당, 급진당, 자유당, 보수당, 민족당, 《칠레맑스주의인민선봉당》, 칠레근로자통일로조, 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동맹,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1962년 8월 13일에 창설, 위원장 까를로스 모랄레스 아바르주아.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부문은 농업과 목축업, 광업이다. 경제는 지리적특성에 따라 북부의 사막지대와 광산지대, 중부의 농산지대, 남부의 산림지대로 구분된다.

인구의 60%가 농사를 하며 경지면적은 590만헥터이다. 경지면적의 82%는 600여명의 대지주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벼, 해바라기, 사탕무우, 포도 등이며 주요 집짐승은 면양, 소, 염소, 말, 노새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동, 초석, 철, 석탄, 원유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동, 초석, 어분, 철광석, 포도주 등이다.

실업자수는 30만명에 달한다. 수도 산띠아고에만도 15개의 빈민구역이 있는바 여기서 30여만명의 빈민들이 살고있다.

【출판】 신문 시글로(공산당 기관지), 엘 메르꾸리오, 라 나시온, 즈라리오, 라 떼르쎄라.

그린랜드

북빙양과 대서양 사이에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이다. 대부분의 지역은 북극권내에 있고 80%는 빙원으로 사람이 살수 없는 지대이다. 7월의 평균기온은 령하 28°C이다.

【면적】 217만 5,600km²

【인구】 3만 4,312명(1961년 현재)

주민의 대부분은 그린랜드인이며 에스키모인도 있다.

【행정중심지】 고드다브

1841년부터 단마르크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51년에 미제는 이곳에 군사침략기지들을 설치하였다.

1953년의 헌법개정에 따라 단마르크의 한개 주로 편입되였다.

경제의 기본은 수렵과 어업이며 알루미니움제조에 쓰는 크리오라이트와 우란광매장량이 풍부하다.

산 피에르군도, 미켈롱군도

카나다령 뉴 파운드랜드의 남쪽에 있다.

【면적】 산 피에르군도 26km², 미켈롱군도 216km²

【인구】 5,025명(1962년현재)

【행정중심지】 산 피에르

1660년부터 프랑스식민지이다. 경제의 기본은 어업이다.

마르티니크도

카리브해의 소안틸제도의 가운데 있다.

【면적】 1,090km²

【인구】 30만 3,000명(1963년 현재)

주민은 흑인과 그 혼혈인이 대부분이다.

【행정중심지】 포르도 프랑스(주민 6만 648명)

1635년 프랑스령으로 되였고 1946년에 형식상 프랑스의 해외현으로 되였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57년에 창건. 진보당, 통일사회당, 녀성동맹, 공산청년동맹.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바나나 등이다.

버뮤다군도

뉴욕동남방 1천 80키로메터의 대서양상에 있는 360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여있다. 대부분은 산호초이고 사람이 살수있는 섬은 20여개이다.

【면적】 53km²

【인구】 4만 7,230명(1963년말 현재)

【행정중심지】 하밀톤(주민 2,800명)

1684년에 영침략자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0년 미제는 이 섬에 해공군침략기지를 건설하였다.

주산물은 바나나, 감자 등이며 관광지로서 유명하다.

버진군도

뿌에르또 리꼬와 소안틸제도 사이에있는 약 46개의 섬으로 되여있다.

【면적】 344km²

【인구】 3만 5,430명(1962년 현재)

주민은 대부분이 흑인이고 기타 백인, 혼혈인 등이다.

【행정중심지】 샤르트 아말리(주민 1만 5,000명)

본래 단마르크령이였으나 1917년 3월 미제침략자들은 2천 500만딸라를 주고 빼앗았다.

주산업은 사탕수수재배 및 목축업이다.

과들루프도

카리브해의 소안틸제도에 있는 과들루프본도와 그란드테르섬을 포함한 5개의 섬으로 구성되였다.

【면적】 1,777km²

【인구】 30만 6,000명(1964년 현재)

【행정중심지】 바스테르(주민 1만 3,078명)

1946년에 형식상 프랑스의 한 개 현으로 되였다.

【정당】 공산당 1958년에 창건. 사회당.

경지의 절반이상은 사탕수수재배지인데 그중 약 3분의 2는 프랑스독점자본가들이 차지하고있다.

화란령 서인도제도

베네수엘라의 북부해안에 가까운 카리브해상에 있으며 6개의 섬으로 구성되여있다.

【면적】 989km²

【인구】 19만 9,600명(1962년말 현재)

【행정중심지】 윌렘스타드(주민 4만명)

1634년부터 화란식민지로 되였다.

바하마군도

미국 플로리다반도의 동남쪽 대서양의 크고 작은 약 700개(그중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21개)의 섬과 2천개 이상의 암초로 이루어졌다.

【면적】 1만 1,405km²

【인구】 15만명(1968년초 현재)

주민의 86%가 흑인이다.

【행정중심지】 나쏘(주민 5만 7,800명)

1783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964년 1월 7일부터 내부자치제를 실시하고있다. 그러나 영국놈 총독이 국방, 내부치안, 대외관계문제들을 쥐고있다.

1968년 4월 10일 국회선거가 있었다. 선거에서 국회내의 38석중 흑인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진보자유당이 29석을 차지함으로써 300여년간 이 제도를 통치하던 백인소수민족의 통치를 끝장냈다.

포클랜드제도

남미대륙 남쪽끝의 마젤란해협 동쪽 480키로메터 지점에 있으며 약 200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면적】 1만 6,400km²

【인구】 2,132명(1963년말 현재)

주민의 대부분은 아이스랜드인이다.

【행정중심지】 포트스탠리

133년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아르헨띠나는 이 제도를 자기의 령토라고 하면서 말빈제도라고 부르고있다.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양)이며 펭긴새들이 많다.

바르바도스도

카리브해의 동쪽끝에 있다.

【면적】 431km²

【인구】 24만 5,000명

주민은 흑인이 77% 기타 백인, 혼혈인 등이다.

【수도】 브리지타운(주민 1만명)

정 치 바르바도스도는 1627년에 영국침략자들이 기여든 이후 339년간 놈들의 식민지로 있었다.

바르바도스인민들은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였다. 바르바도스립법회의는 1966년독립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11월 3일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총선거를 진행하였으며 11월 28일에는 독립을 선포하였다.

경 제 바르바도스도는 농업국이며 주산물은 사탕, 랍술, 당밀 등이다.

관광업에서 많은 수입을 얻고있으며 어업도 이 나라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도미니카도

카리브해의 동쪽 서인도제도에 있다.

【면적】 789km²

【인구】 6만 3,600명

【행정중심지】 로조(주민 1만 5,000명)

도미니카도는 1783년부터 영침략자들의 식민지로 되였다.

인민들의 완강한 반영투쟁으로 1967년 3월 1일 자치권을 쟁취하였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산물은 바나나, 감, 귤류, 카카오 등이며 경지면적은 5만헥타이다.

쎈트 루시아도

카리브해의 동쪽 서인도제도에 있다.

【면적】 616km²

【인구】 9만 6,841명

【행정중심지】 카스트리(주민 2만 5,000명)

쎈트루시아도는 1803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였다.

이 섬인민들은 장기간의 반식민지투쟁으로 1967년 3월 1일 내부자치권을 쟁취하였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사탕수수, 카카오 등이다.

안티구아도

카리브해의 동쪽 서인도제도에 위치하고있다.

【면적】 172km²

【인구】 5만 4,405명(1966년말 현재)

【행정중심지】 쎈트죤스

1632년에 영침략자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0년에 미제는 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이 섬의 일부지역에 해공군침략기지를 설치하였다.

1967년 2월 27일 안티구아섬은 자매섬들인 쎈트키츠, 네비스, 안길라와 함께 자치권을 쟁취하였다.

주산물은 사탕수수, 목화, 과실, 담배 등이다.

대양주 및 랑극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랄리아련방)

남태평양상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다. 전령토의 60%가 고원지대이며 서부는 대부분 사막이다.

남회귀선이 대륙중앙을 지나가므로 북반부는 열대, 남반부는 아열대기후에 속한다. 년평균강우량은 250~410미리메터이다.

【면적】 770만 4,300km²

【인구】 1,200만명 (1968년)

주민의 99%가 영국에서 이주해온 구라파인이다. 원주민은 약 5만명인데 이들은 내륙사막지대와 북부 열대지방에서 산다. 주민의 3분의 2는 동남연해일대에 집중되여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캔베라 (주민 8만 5,000명)

정 치 1770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고《이민단》을 이 대륙에 보냈다. 그후 반세기동안 이 나라는 영국의 《죄인》들의 류배지로 되여있었다. 《이주민》들은 이 대륙에서 원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1901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대륙에 분산 되여있던 지역적인 식민지들을 통합하여 오스트랄리아련방을 조작하고 저들의 《자치령》으로 선포하였다. 오스트랄리아는 영련방성원국이나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의 대대적인 침투로 영제국주의자들의 세력은 현저히 약화되고있다.

오스트랄리아는 미제의 침략적 군사기구인 《안쥬스동맹》과 세아토성원국으로서 미제의 동남아침략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다. 또한 1950년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언커크》성원국으로서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있는 우리의 적대국이다.

오스트랄리아는 미제와 항공, 해군기지제공에 관한 군사협정을 맺고있으며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8천여명, 말레이시아에 1개대대의 침략군을 보내여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고있다.

오스트랄리아인민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며 정부의 반동적인 정책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고있다.

1968년 7월 4일 멜보른시민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미국놈의 령사관으로 몰려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강력히 항의하고 미제의 기발을 불살라버렸다.

【의회】 상하 량원제이다.

【정부】 자유당과 지방당의 련립정부이다.

수상 죤 고톤(1968년 1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0월 30일 창건. **자유당**(집권당), **지방당**(집권당), **레이버당**, **로동조합리사회**, **유레카청년동맹**, **부녀련맹**.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주요 농산물은 밀이며 귀밀, 보리, 사탕수수, 감자 등이 있다. 축산물로서는 양털, 육류, 가죽 등이 있다.

양털생산이 농업생산액의 27%를 차지하며 수출총액의 35%를 차지한다.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보크사이트, 철, 연, 주석, 우란 등이 있다.

경제는 미영제국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예속되여있다. 제2차대전전까지 이 나라 공업은 영제국주의자들의 경제의 부속물로서 광물채굴과 농산물을 가공하는데 지나지 않았으나 2차대전을 계기로 미영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군수공업이 창설되였다.

1968년에 물가는 10% 올랐다.

1967년 2월 현재 완전실업자는 8만 9천명이였다. 주민의 대부분은 기독교도이다.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의 동쪽에 있는 남북 2개의 섬과 기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해양성기후로서 추위와 더위의 차가 적다.

【면적】 26만 8,700km²

【인구】 267만 7,000명 (1965년 12월)

주민의 대부분이 영국인이고 원주민은 19만 7,600명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웰링톤 (주민 25만 5,700명)

정 치 1907년 9월에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뉴질랜드는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기구인 《안쥬스동맹》과 세아토의 성원국이며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한 미제의 주구이다. 또한 미제의 웰남침략전쟁과 말레이시아에 침략군을 파견하여 이 지역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고있다.

뉴질랜드인민들은 정부의 웰남파병책동을 강력히 반대하고있다. 또한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광범히 벌어지고 있다.

【국회】 1원제이다

【정부】 수상 케이트 홀리오크 (1966년 11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 **국민당**(집권당), **레이버당**, **사회신용당**, **자유당**, **로동련맹**, **진보청년동맹**, **녀성동맹**.

경제, 사회 농목축업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농업생산액에서 축산물이 93%를 차지한다.

특히 양털생산이 많다.

석탄, 철, 금, 은, 산림자원들이 있다.

공업은 경공업이 위주로 되고 있는데 주로 빠터와 치즈를 생산하는 축산물가공공업이다. 그 밖에 팔프공업, 전력공업 등이 있다.

경제는 외국독점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다.

서부 사모아

서태평양상의 9개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면적】 2,946km²(그중 우포루도가 1,113km², 사바이도는 1,820km²)

【인구】 11만 9,000명

【수도】 아피아 (주민 2만명, 우포루도)

정 치 1919년에 뉴질랜드의 《위임통치령》으로서 뉴질랜드의 관할하에 있었다.

1927년에 대중적인 반제민족해방단체인 《마우》가 발족하여 외래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2년 1월 1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동부사모아는 미제의 강점하에 있으며 사모아인들은 나라의 인공적분렬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아피아항은 미제의 군사기지로 되여있다.

【국가원수】 말리에또아 타누마펄리 2세

【립법회의】 최고립법기관이다.

【정부】 수상 피아메 파이므이나 마따파 물리누우 2세

경 제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토지전체가 화산질이다. 좋은 토지는 영식민주의자들의 코코아농장으로 되고있다. 주산물은 야자, 바나나, 코코아 등이다.

남 극

【개관】 1958년 7월 남극관계 12개나라 대표회의에서 남위 60° 이남을 남극권으로 결정하였다.

남극대륙이 군도인가 단일한 섬인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륙의 해안선의 길이는 1만 3천키로메터이상이며 면적은 약 1천 401만평방키로메터이다.

남극대륙은 해발 평균 2천~3천메터의 높이를 가진 언덕지대로 되여있으며 도처에 약 4천 500~6천메터의 높이를 가진 산들이 솟아있다. 남극의 83%는 얼음과 눈으로 덮여있으며 얼음의 평균두께는 1천 800메터, 최고는 4천 480메터나 된다.

세계의 눈과 얼음총량의 10분의 9가 남극에 있다.

1958년 1월에 관측된 바에 의하면 남극점은 해면상 275메터의 암반우에 두께 2천 450메터의 대륙빙이 있고 그 우에 약 30메터의 눈과 얼음이 쌓여있는 해발 2천 750메터 지점이다.

【기후】 영구성동결기후로서 평균기온은 령하 30°C이다. 가장 따뜻한 철(11—1월)에는 기온이 령하 5°C, 가장 추운 철(6—7월)에는 령하 60°C까지 내려간다. 1962년에 대륙동부의 쏘련 워쓰또크기지부근에서 기온이 령하 90°C까지 내려갔다는것을 등록하였는데 이것은 지구상에서 관측된 제일 낮은 기온이다.

1년에 1차의 주야변화가 있는데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낮이며 3월부터 9월까지는 밤이다. 남위 50°이남의 전지역은 거의 년중 폭풍이 불며 아데리해안에서는 풍속이 30메터이상되는 날이 년간을 통하여 300일이나 된다. 그러나 퀸메리해안의 반카힐에는 얼지않는 지대(약 500 평방키로메터)가 있으며 최고기온 8.3°C, 최저령하 55°C되는 지대도 있다.

【자원】 금, 은, 주석, 동, 몰리브덴, 찌따니움, 우란, 망간, 석탄 등이 있다. 펜긴, 바다제비, 남극종달새 등의 새들이 있으며 300종이상의 식물이 있다. 세계 고래잡이량의 4분의 3이 남극에서 난다. 남극은 과학적탐험과 연구에서뿐 아니라 남반구 대륙들간을 련결하는 항행 및 항공운수로 등 전략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북 극

【개관】 북위 66°30′ 이북을 북극지방이라고 한다.

면적은 2천 500평방키로메터인데 그중 약 1천 435평방키로메터는 해면이다. 아세아, 구라파, 미주 3대륙의 북쪽일부, 그린랜드의 대부분과 북극해가 북극지방에 속한다. 북극의 대부분은 3메터 두께의 얼음에 덮여있다. 북빙양의 가장 깊은 곳은 5천 219메터이다.

북극은 아세아, 구라파 및 미주 등 대륙을 련결하는 최단항로이며 군사 경제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후】 기류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 남극보다 따뜻하다. 겨울(1—3월)의 평균기온은 극의 중심지에서 령하 40°C, 대륙연안은 령하 30°C이다. 여름(7—8월)의 평균기온은 극 중심지에서 0°C, 대륙연안에서는 5~9°C이다. 1년중 179일은 밤이 계속된다. 강수량은 년간 200~400미리메터인데 기온이 낮음으로 습도가 높다.

대기의 상태는 년중 불안정하다. 북극권의 얼음의 두께는 15년전보다 40%나 얇아졌으며 북극해의 수위는 년간 100미리메터 높아진다고 한다.

【주민】 약 12만명 있다. 주요민족의 거주지역과 인구를 보면 동부씨비리와 알라스카로부터 카나다의 양게바지방 및 그린랜드에 걸친 지방에는 에스키모족(약 4만명), 서부씨비리와 노바야제믈랴에는 싸모에드족(약 2만명), 동부씨비리에는 듀크치족, 알라스카와 카나다북쪽에는 아메리카인디안족, 구라파주의 북방에는 랍프족이 살고있다.

그외에 소수의 백인들이 있다.

【자원】 석탄, 석유 등이 많으며 철, 동, 금, 은, 백금, 주석 등도 있다. 남쪽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고 륙지에는 백곰과 여우 등의 짐승이 살고있다.

국제회의

세계문화대회; 1968년 1월 4일부터 12일에 걸쳐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70개나라에서 온 진보적문화인들의 참가하에 세계문화대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인민들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폭로배격하며 자기의 민족문화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문건이 대회의 문헌으로 채택되였다.

문헌에서는 김일성동지에 의한 항일유격대의 창건과 무장투쟁의 강화발전에 대하여, 항일무장투쟁승리의 요인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총선언과 아바나호소문 그리고 웰남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국제학생동맹비상회의; 1968년 3월 18일부터 19일에 걸쳐 쁘라하에서 웰남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학생동맹 비상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우리 나라 학생위원회대표단을 포함하여 50여개의 각국학생단체대표들이 참가하여 웰남인민의 영웅적투쟁에 대한 련대성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규탄하였으며 남부웰남에서 모든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갈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회의에서는 웰남민주공화국정부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에 보내는 련대성전문과 남부웰남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으며 반동적인 미국정부에 보내는 항의전문을 채택하였다.

제14차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1968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9개국 대표단과 3대륙인민단결기구, 세계종교인평화회의 등 2개 국제단체 대표들과 일본대표들의 참가하에 국제예비회의, 본회의, 히로시마대회, 나가사끼대회 등으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회앞으로 보내신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랑독되였다.

본회의(8월 3일—8월 5일)에서는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의 보고와 원자탄피해자대표 및 오끼나와대표의 특별보고를 토의하고 일반결의와 《웰남에서의 미제의 침략과 전쟁범죄를 규탄하며 웰남인민의 완전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국제통일행동을 강화할데 대한 호소문》, 오끼나와문제에 관한 결의, 원자탄피해자 구원에 관한 결의, 일본대표단의 결의 등을 채택하였다.

일반결의에서는 웰남민주공화국정부의 4개항목의 립장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정강에 밝혀져있는 웰남인민의 정당한 립장을 지지할것, 핵무기의 완전금지, 미제를 두목으로하는 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의 핵군사동맹조작음모를 저지시킬것, 오끼나와의 일본에로의 즉시 무조건 전면반환을 실현시킬것, 일본군국주의, 서독군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더 한층 강화할것, 원자탄피해자원호운동을 발전시킬것 등을 긴급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상회의; 1968년 9월 7일부터
일까지 까히라에서 우리 나라
표단을 비롯한 아세아, 아프
카 나라 대표단과 국제민주단
대표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회의는 공동의 원수 미제를
대하여 싸우는 웰남인민과의
대성을 강화할데대한 문제를
의하였다.

첫날회의에서는 4천만조선인
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비상회의 앞으로 보내신 축전
랑독되였다.

회의에서는 총정치선언을 비
한 일련의 문건들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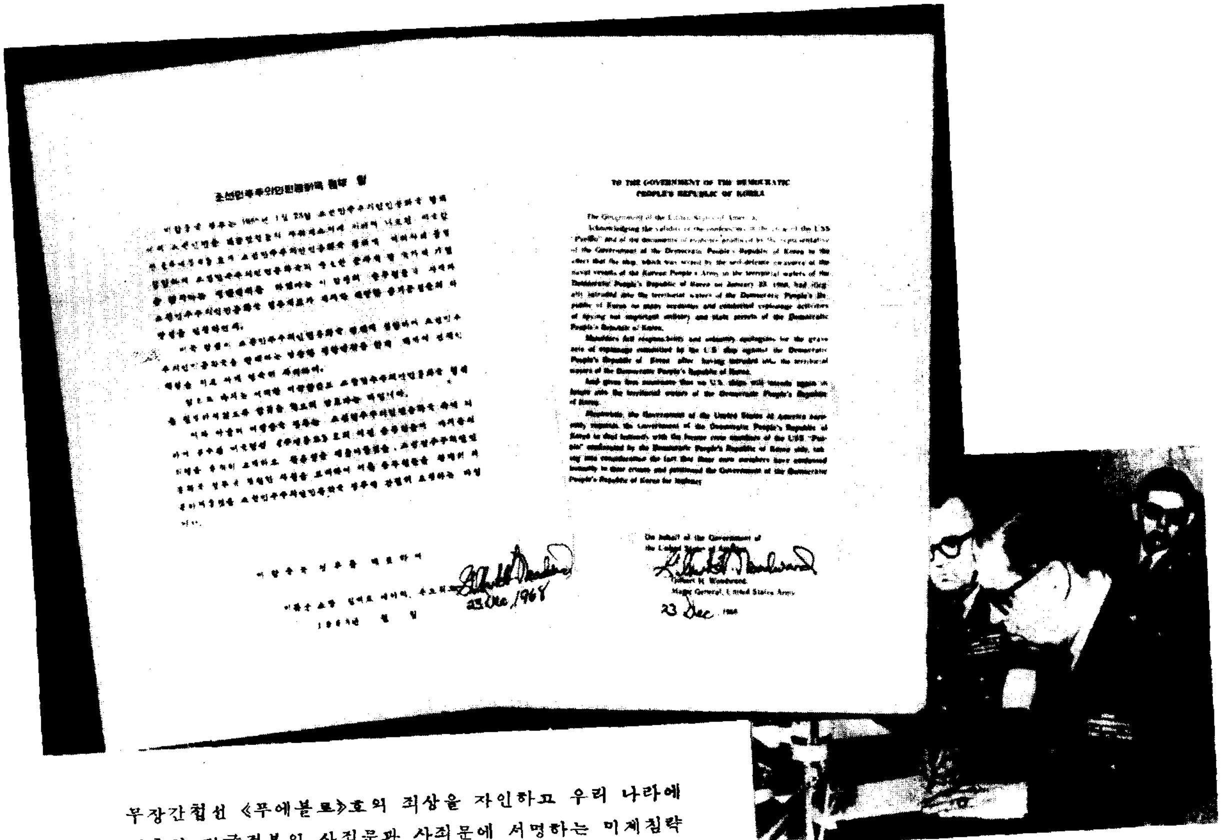
총선언에서는 미제침략자들
반대하며 독립, 자주권, 통일
령토완정에 대한 자기의 민족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웰남인
의 투쟁은 자위에 대한 전체
남인민의 불가분의 권리이며
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
카 인민들의 공동의 위업에 대
중요한 기여로 된다고 강조
였다.

총정치선언은 미제침략자들
반대하여 투쟁하는 웰남인민에
원조를 주기 위한 운동을 강화
것을 아세아 아프리카 및 전세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제5차 아프리카통일기구 국
및 정부 수뇌자회의; 1968년 9
13일부터 16일에 걸쳐 알제에
아프리카 39개국의 국가 및 정
수반과 그 대리인들의 참가하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아프리카대륙에
감행하고있는 제국주의, 식민
의자들의 침략적죄행을 폭로하
아프리카대륙을 식민주의와 인
주의의 기반으로부터 완전히
방시키기 위하여 아프리카해방
체들의 협조를 강화하며 해방
쟁을 일층 확대할데 대한 일
의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중근동에
한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
의 침략책동을 규탄하고 강점
한 아랍나라 령토로부터의 외
침략군의 철거를 요구하는 결
를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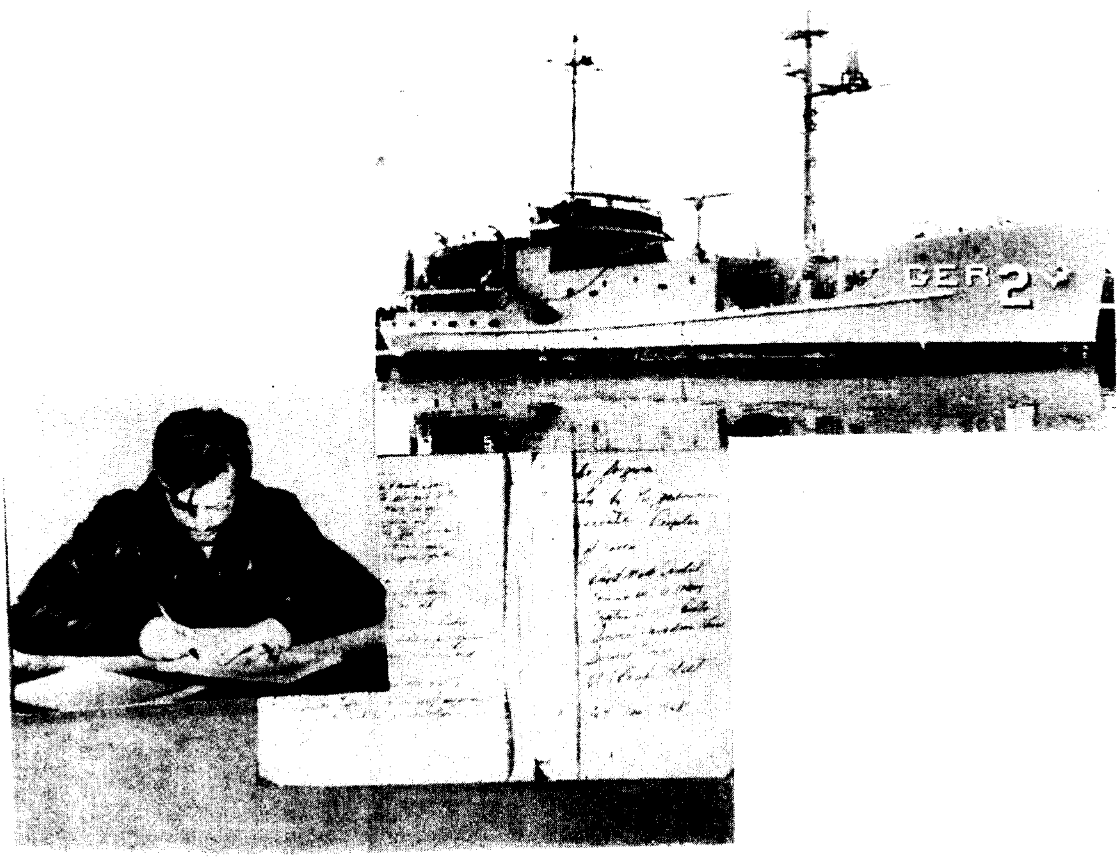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죄상을 자인하고 우리 나라에 제출한 미국정부의 사죄문과 사죄문에 서명하는 미제침략자의 더러운 몰골

문건과 자료



우리 령해를 침범하여 간첩활동을 하다가 영웅적조선 인민군 해병들에게 붙들려나오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성원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와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함장

공화국정부 및 외무성 성명과 비망록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미제국주의자들이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우리 나라 령해에 깊이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케 한 저들의 죄행을 은페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푸에블로》호사건을 유엔에 끌고가는 한편 무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일으키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또다시 유엔을 자기들의 침략적목적에 리용하려고 광분하고있다. 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해에 침입하여 적대행위를 감행하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국제법위반》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소》하였다.

이것은 극히 파렴치하고 오만무례한 날강도행위이다.

이번 《푸에블로》호 사건은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더욱 낱낱이 폭로하여주고 있다.

각종 정탐설비를 갖춘 전문적인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미중앙정보국의 지시에 의하여 우리 나라 령해에 깊이 들어와 여러 곳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 항구들과 연해에 있는 각종 군사시설물들과 무력배치상태와 공업시설 등 일련의 군사적 및 국가적 기밀을 정탐하던중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에 의하여 지난 1월 23일 동조선만 북위 39도 17.4분, 동경 127도 46.9분인 우리측 령해에서 나포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파괴하여 왔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도발행위는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새로운 란폭한 유린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침략이며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계획적책동의 일환이며 극동과 세계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의 악랄한 범죄적책동을 견결히 규탄한다.

조선인민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용허할수 없는 침략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한것은 전적으로 정당한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저들의 범죄행위를 은페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푸에블로》호사건을 유엔에 끌고가며 다른 한편 무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자기들의 추악한 침략적 정체를 가리울수 없으며 조선인민을 놀래울수도 없다.

영웅적조선인민군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도발이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으며 원쑤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섬멸적인 타격을 가할것이다.

유엔은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서 그의 도구로 리용된 치욕스러운 력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유엔이 사실을 전도한 미제의 《제소》를 토의하는것은 전적으로 비법적이다.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자기 조국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것은 매개 독립국가들의 신성한 권리이며 그 누구도 침범할수 없는 내정문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제의 비법적 《제소》를 토의하는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미제의 침략을 엄폐하여 조작되는 그 어떠한 결정도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그를 무효로 선언할것이다.

만약 유엔이 자기의 헌장과 사명에 부합되게 행동하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미제가 감행한 침략행위를 규탄하고 그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의 민족적 독립국가들, 평화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미제에 의하여 조선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마수를 꺾어버리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

1968년 1월 27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과 남부웰남인민의 거세찬 혁명적공세에 의하여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거듭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이 남부웰남에서 더욱더 발악적으로 야수적인 살인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최근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과 남부웰남 인민의 거세찬 혁명적공세에 의하여 심대한 정치군사적 패배를 거듭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은 남부웰남에서 더욱더 발악적으로 야수적인 살인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사이공, 유에, 다낭을 비롯한 남부웰남의 대도시들과 주소재지 및 군소재지들에 폭격과 포격을 가하여 수천명의 주민들을 살상하고 도시들을 황페화시키며 숱한 건물들을 파괴하고있다.

미제와 티우—키괴뢰도당은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마구 탄압학살하고있다.

유에에서 미제침략자들은 지어 나팜탄과 독가스 및 린폭탄까지 사용하여 많은 주민들을 학살하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제공중비적들은 하노이시 중심부를 비롯한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을 강화하고있다.

미제의 이와 같은 살인만행은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용납 못할 악랄한 범죄행위이며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견결히 반대하고있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국제법과 인류도덕의 규범들에 대한 가장 파렴치한 유린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웰남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잔인무도한 살인만행을 치솟는 격분으로 단호히 규탄하며 그를 준렬히 단죄한다.

오늘 남부웰남의 혁명적인민해방무장력과 남부웰남인민은 전쟁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남부웰남 전지역에 걸쳐 맹렬한 공격을 전개하여 미제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있으며 그들을 헤여날수 없는 패망의 구렁텅

이에 몰아넣고 있다.

사이공, 게산, 유에 등 남부웰남도처에서 인민해방무장력과 인민은 적들의 중요군사기지와 진지들에 계속 강력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많은 도시들과 농촌지역들을 해방하고 해방지역을 더욱 확대하는 새로운 빛나는 전과를 올리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전면적인 일제공격과 대중적봉기로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새로운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고있는 남부웰남 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 련대성을 보낸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웰남에서 직면하고있는 파국적인 군사정치적위기로부터 벗어나보려고 악랄한 살인만행과 전쟁확대 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미제는 그 어떤 야수적만행과 전쟁확대책동으로써도 웰남침략전쟁에서 당하고있는 저들의 비참한 참패를 절대로 만회할수 없으며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영웅적웰남인민을 결코 굴복시킬수 없으며 불굴의 웰남땅에서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는 투쟁의 불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전인민적구국항쟁에 궐기한 웰남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 더 강대해지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야수적만행은 저들의 종국적패망을 더욱 촉진시킬뿐이며 원쑤들에 대한 웰남인민의 증오심과 적개심을 더한층 높이여 줄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범죄적만행을 폭로규탄하며 최후승리를 달성할때까지 끝까지 싸워이기려는 웰남인민들의 확고한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 1968년 2월 15일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성명과 1968년 2월 25일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성명과 그리고 각국 수반들에게 보낸 1968년 2월 18일부 남부웰남 유에 민족민주주의평화동맹전선 위원장의 공개서한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고있으며 형제적 웰남인민의 정의의 항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는 조선인민은 웰남인민이 요구할때에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싸울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만행과 모든 전쟁행위를 영원히 무조건 중지해야 하며 남부웰남에서 저들의 침략군과 추종국가군대 및 모든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야 한다.

영웅적웰남인민은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미제는 필연코 패망하고야 말것이다.

1968년 2월 28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캄보쟈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인 침략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캄보쟈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인 침략책동은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지난 6월 29일 직승비행기를 동원하여 캄보쟈의 프레이벵주 꼼뽕 뜨라베크현 스바이아느공부락의 논밭에서 일하는 무고한 캄보쟈농민들에게 기총사격을 퍼부어 14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히였다.

미제공중비적들은 이때에 지상으로부터 불과 수메터의 저공에까지 내려와 녀인들과 어린이들을 가리지 않고 하나하나 악착스럽게 따라다니면서 살해하였다.

이것은 인류의 도덕을 마구 짓밟는 흡혈귀적 살인만행이며 캄보쟈의 령토완정과 민족적존엄을 엄중히 침해하는 로골적인 도전행위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미제는 세계반동의 원흉으로서의 본성과 인종차별과 인간살륙에 이골이 난 인류의 원쑤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한번 온세상앞에 드러내놓았다.

캄보쟈왕국 정부는 7월 2일 미제의 침략과 악랄한 집단적살인만행을 규탄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인민들이 미제의 이 범죄행위를 단죄할것을 호소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캄보쟈왕국 정부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캄보쟈인민에 대한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치솟는 격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애호적이며 중립적인 캄보쟈를 반대하여 끊임없이 침략과 도발책동을 감행하여 왔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최근에도 타케오주, 스바이렝주, 바띰방주 및 간달주 등 캄보쟈국경지대에 지상, 공중, 해상으로부터 련이어 침범하여 인명피해를 주었으며 인민들의 재산을 략탈파괴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캄보쟈를 반대하는 침략적도발책동에 남부웰남괴뢰들, 타이반동들 및 남조선괴뢰군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그 어떠한 도발과 침략책동으로써도 반미기치밑에 평화, 독립, 중립 및 령토완정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는 캄보쟈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침략자들의 거듭되는 만행은 캄보쟈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증오와 격분을 더욱 불러일으킬것이며 미제침략자들자신을 더욱더 멸망의 궁지에 몰아넣게 할뿐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캄보쟈에 대한 범죄적인 침략과 도발 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는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이며 언제나 캄보쟈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있을것이다.

1968년 7월 10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비망록

(조선정전협정을 파괴유린하고 새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적책동에 대하여)

1953년 7월 27일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갔다.

18년전 1950년 6월 25일 미제침략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복하고 전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며 나아가서는 아세아대륙을 침공하려는 목적밑에 남조선괴뢰도당을 사촉하여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인민군의 영웅적반격에 의하여 남조선괴뢰도당의 무력침공이 산산이 부서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단숨에 삼켜보려던 계획이 파탄되자 미제침략자들은 직접 무력간섭을 개시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최신기술로 무장한 자기 륙군의 3분의1, 공군의 5분의1, 해군의 기본력량과 15개 추종국가군대들을 동원하여 조선에서 전례없는 야

만적이며 파괴적인 전쟁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그 어떤 야만적인 전쟁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정의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피로써 지켜냈으며 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고 위대한 력사적승리를 쟁취하였다.

조선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적인민의 승리였으며 제국주의침략적무력에 대한 혁명군대의 승리였다. 이것은 미제가 결코 무적이 아니며 인민들이 손에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견결히 투쟁한다면 그 어떤 간악한 제국주의침략자라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혹한 패배로하여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는 여지없이 깨여졌으며 이때로부터 미제국주의는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를 열렬히 축하하였으며 정전협정에 예견된 대로 하루속히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고 조선의 평화적통일이 실현될것을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체결된 첫날부터 그것을 계통적으로 짓밟으며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에서 정전이 성립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간 오늘까지도 정전은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한 세대가 자라도록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오늘 조선에서는 날로 격화되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인하여 임의의 시각에 또다시 전쟁이 터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정전협정을 란폭하게 파괴, 유린하면서 새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적책동을 철저히 폭로규탄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정전성립 15주년을 맞는 오늘 조선에서의 평화는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

전쟁과 침략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정전이 성립된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적목적을 악랄하게 추구하여왔다.

미제침략자들은 정전을 오직 저들의 새로운 침략전쟁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리용하면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온갖 평화애호적조치들을 반대하여왔으며 부단히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끌어들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적도발행위를 감행하여 왔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는 항시적으로 지속되여 왔다.

특히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는 전쟁소동으로하여 우리 나라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여 있다.

이미 세상에 그의 진상이 명백히 폭로된바와 같이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외형상 《해양전자연구함선》으로 가장하고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3일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해깊이 침입하여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이 무장간첩선은 우리 해군기지들과 해군지휘부들의 위치 함선들의 편성과 전투능력, 항구들의 수용능력과 입출항하는 선박수, 전파탐지기와 통신 결속소의 위치, 잠수함작전을 위한 해양음향측정, 연해에 있는 각종 군사대상물들과 공업배치상태 등 우리 나라의 중요한 군사적 및 국가적 기밀을 정탐하였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우리 나라 령해침범은 정전협정에 대한 횡포한 유린행위일뿐만아니라 그것은 날강도적인 해적행위이며 주권국가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계획적인 책동의 일환이였다.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에 의한 《푸에블로》호의 나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였으며 침략자들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군 해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자 그 즉시로 핵추진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대기동함대를 우리 나라 동해 앞일대에 집결시키고 일본 오끼나와로부터 수많은 전투폭격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공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여 나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보복조치》로써 《필요하다면 원산항을 공격》하겠다느니 《북조선의 전략적목표물을 폭격》하겠다느니 하면서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부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적도발행위를 발악적으로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된 다음날인 1968년 1월 24일 그리고 1월 26일, 30일, 31일 련이어 수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비무장지대와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수천발의 총포탄을 쏴댔다.

2월 4일, 5일, 6일에는 106.7미리박격포를 비롯한 각종 포와 《엠—47》형 중전차까지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여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2월 13일과 16일, 18일에는 무장집단을 동원하여 비무장지대에서 우리측 경비초소들에 대한 로골적인 무장공격을 감행하였다.

2월 7일과 18일에는 군용비행기편대들이 우리측 령공에 침입하여 적대행위를 감행하였으며 2월 16일에는 무장선박들이 우리측 연해에 침입하여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을 전후한 1월부터 3월 20일까지의 기간에 지상에서만도 하루 평균 25건이나 되는 무려 2천여차례의 각종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으며 근 400여회에 걸쳐 4만여발에 달하는 총포탄을 우리측 지역에 쏴댔다.

그러면서 미제침략자들은 다른 한편 도적이 매를 드는격으로 《푸에블로》호사건을 유엔에 《제소》하며 저들의 날강도적인 전쟁도발행위를 또다시 유엔의 기발로 가리우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넘겨씌워보려고 파렴치하게 시도하였다.

이것은 미제 침략자들이 1950년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던 때의 수법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것이였다.

그때에도 미제는 조선에서 유엔의 기발을 도용하여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고 전쟁도발에 대한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넘겨씌우려고 획책하였던것이다.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을 유엔에 끌고가려던 미제침략자들의 음모책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단호한 배격에 의하여 실패에 돌아갔다.

미제 침략자들은 최근 수개월동안에도 남조선에 숱한 무력을 끌어들이면서 전쟁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등 무모한 길로 계속 줄달음쳐 나가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 제5공군전방사령부를 새로 설치하고 미국본토와 일본 및 태평양지역으로부터 200여대

의 전투폭격기들과 1만 2천여명의 병력을 새로 남조선에 끌어들였으며 구축함과 초계정을 비롯한 수많은 해군함정들과 대공포들을 또한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미제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증강비로서 2억 3천만딸라를 추가예산으로 할당하였으며 남조선괴뢰도당의 전쟁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억딸라의 추가적인 군사《원조》를 주기로 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지시에 따라 박정희괴뢰도당은 수개의 남조선괴뢰군 전투사단, 기갑려단, 전투비행단을 새로 편성하고 예비역의소집, 괴뢰군의 제대중지와 복무년한 연장 및 250만의 《향토예비군》의 조직등 군사력증강에 광분하고있으며 남조선도처에서 비행장, 항만, 철도, 도로 등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있다.

최근에 이르러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에 있는 핵기지를 남조선으로 옮길것까지도 획책하고있다.

이러한 전쟁준비책동과 함께 미제침략자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도 계속 끊임없이 감행하여 긴장상태를 지속시키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지난 5월과 6월 사이의 한달 남짓한 기간에만도 11차에 걸쳐 수십대의 전차 및 장갑차와 각종 포를 비무장지대내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여 우리측을 반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으며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로 153차에 걸쳐 2만여발의 총탄과 포탄을 쏴댔다.

미제침략자들은 지난 6월 22일에도 또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무장간첩선을 침입시켰다가 조선인민군 경비정들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격침당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이와 같은 로골적인 전쟁위협에 직면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확고한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단호한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오늘 조선에서의 평화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참을성있는 노력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나라 령해에 불법침입하여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응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사죄하고 다시는 그와같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데 대하여 담보하여야 한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불법침입하여 우리 나라의 중요한 군사적 및 국가적 기밀을 정탐하고 적대행위를 감행한 죄행에 대해서는 그 승무원들자신의 자백과 이 배에서 로획한 각종 정탐 문건들과 자료들에 의해서 온세상앞에 완전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자들은 그때로부터 반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사죄와 담보는 고사하고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서 나포되였다느니 간첩행위를 하지 않았다느니하는 생억지를 쓰면서 승무원들을 넘겨놓고 거저 돌려보내라고 파렴치하게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미제침략자들의 강도적본성을 더욱 남김없이 보여주는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은 그러한 방법으로써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제침략자들은 그 어느때에 가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침입하여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승무원들을 절대로 돌려받을수 없을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이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질 대신에 도리여 이 사건을 구실로 삼아 남조선에 날로 더욱 많은 침략무력을 끌어들여 전쟁준비를 다그치며 군사적도발행위에 날뛰고있는 사실은 놈들이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의 일환으로서 이 무장간첩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 깊이 침입시켰던것이라는것을 그대로 확증하여 준다.

미제침략자들의 이러한 광란적인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인하여 오늘 조선에서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2

오늘 조선에서 평화가 엄중한 위협을 받고 새 전쟁의 위험이 조성된것은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일관하게 추구하여온 침략과 전쟁정책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정전협정에 조인한 이후 계통적으로 이 협정을 파괴유린하면서 전쟁준비를 다그쳐왔다.

조선정전협정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전기간 조선경외로부터 군사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 등 증원하는 군사력량을 끌어들이는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전협정 13항 ㄷ목은 군사인원을 바꾸는 경우에는 1인 대 1인의 교환원칙에서 진행할것을 규정하고있으며 정전협정 13항 ㄹ목은 정전기간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바꾸는 경우에는 같은 성능과 같은 류형의 물건을 1대1로 교환하는 원칙에서 진행할것을 규정하고있다.

정전협정 13항 ㄷ목과 ㄹ목에는 또한 군사인원의 륜환과 무기 및 작전물자의 교체는 정전협정에 지정된 특정한 출입항을 통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 시찰소조의 감독하에서만 진행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자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4일만인 1953년 7월 31일에 벌써 조선경외로부터 증강하는 군사력량을 끌어들여오는 것을 금지한 제 13항 ㄹ목을 위반하고 4.2인치 구경의 박격포 106문을 분해하여 상자에 넣어 《군상점공급품》이라는 명목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이다가 중립국시찰소조에 의하여 발각당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이와 같은 사기와 협잡의 방법으로 무기 및 기타 작전물자들을 반입하다가 중립국시찰소조에 의하여 적발당한것만 하여도 정전이후 1954년 4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작전비행기 177대, 각종 구경포와 류탄포 465문, 각종 구경의 로케트포 6천 400문, 각종 구경의 박격포 145문, 각종 구경의 기관총 1천 365정에 달하였다. 그밖에 각종 탄약은 수백만발에 달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중립국시찰소조에 의하여 저들의 정전협정위반행위가 계속적발폭로되게 되자 중립국시찰소조의 감독과 시찰활동을 각방으로 저애하기 시작하였다.

정전협정 13항 ㅅ목에 의하면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의 시찰소조들은《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와 협력》를 받으며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받게 되여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중립국시찰소조의 감독과 시찰활동을 극력 방해하였으며 사실상 그를 봉쇄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온갖 부당한 구실을 붙여 중립국시찰소조원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저애하였을뿐아니라 그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가하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며 심지어 그들을 살해하는 등 야만적인 범죄행위까지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중립국시찰소조에 대한 폭행과 파괴

행동은 남조선을 원자 및 로케트 기지로 급속히 전변시키려는 미제의 전쟁정책의 요구에 따라 더욱 강화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955년 8월 남조선괴뢰도당을 사촉하여 일제히 중립국시찰소조의 철거를 요구하는 위협적인 시위를 감행케하였으며 부산, 인천, 대구, 군산 등 출입항의 중립국시찰소조숙영소를 습격파괴하는폭행을 감행케 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중립국시찰소조를 반대하는 소동을 벌려오던 끝에 드디여 1956년 6월 남조선에서 이 시찰소조를 강제적으로 축출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이와 같이 정전협정을 파괴유린하면서 다량의 작전물자들을 끌어들여 1956년에는 벌써 남조선괴뢰군병력을 정전당시의 16개 사단으로부터 31개 사단으로 확장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중립국시찰소조를 남조선에서 축출한 때로부터 1년후인 1957년 6월에는 정전협정 제 13항 ㄹ목의 일방적인 폐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배신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로골적인 파괴행위일뿐만아니라 국제법의 초보적인 규범마저도 란폭하게 유린하는 날강도적인 범죄행위였다.

조선정전협정 61항에는 《본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사령관들의 호상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여있으며 62항에는 본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수준에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명백히 규정되여있다.

그러므로 정전협정은 결코 어느 일방에 의하여 제멋대로 수정되거나 파기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자들은 정전협정 13항 ㄹ목의 일방적인 폐기를 선언한후 아무 거리낌없이 남조선을 원자 및 유도탄 기지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는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을 원자사단으로 개편하고 일본에 있던 미제1기갑사단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원자사단으로 개편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오네스트죤》 로케트, 280미리 원자포, 《마타돌》, 《나이크 헤르큘레스》 및 《호크》 유도탄 등을 비롯한 각종 원자 및 유도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였으며 수많은 최신형 군용비행기와 대소함정을 비법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완전히 미제의 원자 및 로케트 기지로 전변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그후에도 전술적핵무기와 유도무기 등 대량살륙무기들과 각종 군용비행기와 함선들을 계속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다.

1967년 1월 남조선강점 《유엔군》 사령관 본스틸이 공개한바에 의하면 1966년 한해동안에만도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나이크 헤르큘레스》와 《호크》 유도탄 각각 1개 대대 《엠—48》형 전차 22대, 8인치곡사포 34문, 105미리곡사포 59문, 155미리곡사포 62문, 《에프 5에이》전투폭격기 21대, 《씨—46》, 《씨—54》 항공기 22대, 경비행기 29대, 각종 군용차량 1천 270대, 중화기 600문 수백정의 수류탄발사기, 수척의 함선, 레이다 장치, 총탄공장설비 등을 비법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미제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무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남조선괴뢰군을 계속 확장하고 그의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주력하여왔다.

미제침략자들은 1966년만도 남조선괴뢰군의 륙군 1개사단과 해병대 1개려단, 해상방위전단 및 1개의 전투비행단과 몇개의 비행대대를 새로 창설하였으며 3개의 예비사단을 《언제나 전투에 투입할수 있》는 완전한 전투사단으로 개편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1967년 상반년에도 미제침략자들은 30척의 상륙용주정, 3천톤급 전투구축함 1척, 고속경비정 2척, 고속수송함 3척을 비롯하여 100대의 《엠—48》형 전차, 여러대의 《에프—5에이》 초음속 전투폭격기와 직승기 등을 남조선괴뢰군에 넘겨주었다.

전쟁준비의 급속한 진척에 따라 미제의 충실한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1967년 1월 《승공통일》의 《기회가 예상외로 빠른 시일내에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지껄이면서 《전시에 적응할수 있는 군사작전체계의 확립》에 대하여 떠벌였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또한 증대되는 군사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남조선경제를 더욱 군사화하면서 도처에서 군사시설들을 확장하고 남조선전역에 걸쳐 《전시태세》를 강화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은 방대한 군사력이 집결되고 모든 것이 미제침략자들의 전쟁정책에 복무하는 일대병영으로 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괴뢰도당을 아세아침략에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아세아의 반동들과 군사적으로 결탁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오래동안 끌어오던 《한일회담》이 미제의 조종하에 조급히 결속되였으며 《한일협정》이 조작되였다.

《한일협정》체결후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침투는 더욱 적극화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의 지휘하에 남조선괴뢰군과 재생된 일본군국주의군대인 소위 《자위대》간의 군사적결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이른바 《유엔군》의 간판밑에 침략전쟁에 직접 가담하기 위한 계획까지 짜놓고 이를 은밀히 추진시키고있다.

이를 위하여 사또반동도당은 1967년부터 남조선에 소위 《무관》을 주재시키고있으며 또한 《자위대》의 두목들을 수시로 남조선에 파견하여 군사분계선일대를 시찰케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할것을 예견하고 《자위대》 무력을 조선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배치하고있으며 조선과 기후, 지형 조건이 류사한 지역들에서 《자위대》의 《상륙작전훈련》, 《산악작전훈련》, 《랭한훈련》 등을 진행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침략군 및 남조선괴뢰군과 합동군사연습까지 빈번히 진행하고있다.

일본사또반동도당은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무기 및 군수품 조달자의 역할도 담당수행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1963년에 남조선괴뢰군에 2만 3천 500여대의 수송차를 비롯한 각종 무기와 군수기자재들을 공급하였으며 1966년에는 《엠—48》형전차 20여대를 비롯한 군사장비를 넘겨주었다.

사또반동도당은 앞으로 《나이크 아젝스》 유도무기와 《에프—105》 초음속 전투폭격기들도 남조선괴뢰도당에게 제공할것을 획책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을 전초기지로 삼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돌격대로 삼아 조선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을 도발하며 남조선의 군사적잠재력을 아세아침략에 손쉽게 동원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침략계획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3

미제침략자들은 정전협정을 횡포하게 파괴유린하고 남조선에서 새전쟁준비에 광분하는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종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 조선정전을 상시적으로 불안정상태에 빠뜨려왔다.

조선정전협정은 《조선에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것을 명령하

고 또 이를 보장»(정전협정 제12항)할것을 규정하고있다.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조선지역을 존중»하며 《조선륙지에 린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며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조선지역 및 이 량지역에 린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정전협정 제 14, 15, 16항)할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그날부터 매일과 같이 비무장지대와 우리측지역에 총포사격을 가하며 군사인원들과 무장간첩을 침입시켜 무장공격, 습격, 살인, 방화, 랍치 등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공중에서는 우리측 령공에 군용비행기를 부단히 침입시켜 정찰행동과 도발적공격을 감행하였다.

해상에서는 우리측 연해에 군함과 무장간첩선을 침입시켜 정탐행위를 계통적으로 감행하는 한편 해안지역에 대한 함포사격과 조선인민군 해군함선들에 대한 도발적인 공격을 감행하며 어선을 습격하여 평화적어민들을 살해, 랍치하는 등 온갖 범죄적인 행위를 다하여왔다.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감행된 이러한 각종 도발행위는 정전후 1954년까지의 약 1년반동안에만도 440여건에 달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적대적도발행위는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 격증되였다.

1955년도이후 미제침략자들의 도발행위는 매해 수백건에 달하였으며 1960년도 이후에는 해마다 수천건에 달하였다.

그중 몇가지 사실만을 들어보아도 다음과 같다.

1961년 8월 28일 미제침략자들은 구축함 《제 72호》를 우리측 해상에 침입시켜 정상적인 경계 근무를 수행하고있던 우리측 순찰선에 대하여 80여발의 포탄을 쏴대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1962년 11월 24일 미제침략자들은 군용비행기의 엄호하에 구축함을 비롯한 20여척의 대형함선을 우리측 연해인 청진앞바다에까지 침입시키는 엄중한 침략행위를 감행하였으며 1963년 5월 11일에는 로케트포함 《311호》를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평화적어선에 대하여 800여발의 로케트포탄을 쏴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963년 3월 13일 미제침략군의 무장집단은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불법침입하여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고있던 우리측 민사행정경찰을 향하여 수백발의 집중사격을 가하였으며 3월 19일에는 120여명의 군사인원이 경기관총을 비롯한 각종 자동무기로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고있던 우리측 민사행정경찰과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수천발의 집중사격을 가하는 도발행동을 감행하였다.

1963년 5월 17일 미제침략군 제8군 직속 군용비행기는 우리측 상공에 침입하여 정찰비행을 하다가 조선인민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나포당하였으며 1964년 1월 14일 우리측 지역 상공에 침입하여 정찰비행을 하던 미제의 《에프 86디》형 전투기 2대중 1대는 조선인민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격추당하였다.

1964년 5월 16일 우리측은 미제침략군 사령관 하우즈가 1963년 5월에 우리측 령공에 침입하였다가 나포된 미제공중비적들의 정전협정위반행위를 시인하고 사죄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범죄행위를 하지 않겠다는것을 담보한 사실을 고려하여 2명의 비행사를 석방하여 돌려보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그후에도 계속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우리측 령공에 대한 침범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그때마다 우리측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준엄한 징벌을 받았다.

1965년 4월 28일 우리측 령공에 침입하여 정찰비행을 감행하던 미제의 《아르비—47》형 정찰기가, 1965년 5월 18일에는 《엘—19》형 정찰기가 조선인민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각각 격추당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침략자들의 군사적도발행위는 특히 1966년 10월 미제의 전쟁두목 죤슨이 남조선에 기어들어 군사분계선일대를 싸다니면서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들에게 새 전쟁을 고취하고 돌아간 이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계획적으로 감행되기 시작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군사적도발행위는 날로 그 규모가 커지고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

1966년 11월 3일 중기와 경기 및 보총 등으로 무장한 수십명의 미제침략군은 우리측 비무장 지역내에 침입하여 2천여발의 총탄을 발사하면서 우리측 초소를 공격하였다.

1966년 11월 22일 여러척의 미제침략군군함들은 우리측 연해인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에 침입하여 함포사격을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967년 1월 1일부터 18일사이에 매일 련속적으로 수십척의 군함과 무장함선을 우리측 해안에 침입시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1월 19일에는 섬호함 《56호》를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도발행위를 감행하다가 조선인민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격침되고 말았다.

1967년 4월 5일 미제침략군은 판문점 동쪽 우리측 비무장지대내에서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고있던 우리측 민사행정경찰성원들에게 기관총과 자동무기로 불의에 집중사격을 가하여 그중 5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을 부상시키는 야만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1967년 4월 13일 미제침략자들은 우리측 민사행정경찰소조를 향하여 기관총을 비롯한 각종 자동무기로 3천 500여발의 총탄을 쏴댔으며 81미리박격포와 105미리곡사포로 30발의 포사격을 감행하였다.

1967년 5월 27일 십여척의 미제침략군해군함선단은 우리측 지역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앞 2키로메터지점까지 침입하여 700여발의 함포사격을 가하는 등 도발적인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1967년 6월 29일 중기관총, 경기관총 등 자동무기로 무장한 80여명의 미제침략군은 우리측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인 총포사격을 가하면서 세개 방향에서 조직적인 무장공격을 감행하여왔다.

1967년 7월 16일에는 중무기와 자동무기로 완전무장한 수백명의 미제침략군이 또다시 세개방향에서 비무장지대 우리측지역을 향하여 수천발의 총탄을 퍼부으면서 일제히 공격하여왔다.

그리하여 비무장지대에서는 무려 13시간에 걸쳐 적아 쌍방간에 치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1967년 9월 9일부터 29일까지 사이에 미제는 비무장지대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10여대의 장갑차와 각종 중무기 및 자동무기로 60여차에 걸쳐 9천 600여발의 총탄을 우리측 지역에 쏘아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장공격을 시도하였다.

이 시기 미제침략자들의 군사적도발행위가 얼마나 격화되였는가 하는것은 미제의 살인두목 죤슨이 남조선에 기어들었다가 돌아간 때로부터 1967년 9월까지의 1년동안에 미제침략군이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쏴댄 총포탄수만 하여도 놈들이 정전이후 13년간에 쏴댄 총포탄수의 5배이상이나 되는 6만 5천여발에 달한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미제침략자들의 이와 같은 무모한 전쟁정책은 그때마다 조선인민군의 강력한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저지파탄되였으며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정전후 1968년 7월 20일까지의 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한 이상과 같은 각종 군사적도발행위와 기타 정전협정위반행위는 우리측이 군사정전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한것만 하여도 무려 5만 9천 800여건에 달한다.

4

조선정전협정의 체결은 조선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조선정전협정 제 60항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것을》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를 예견한 정전협정에 서명한지 10여일이 되는 1953년 8월 8일에 벌써 남조선괴뢰도당과 미제침략군의 남조선무기한강점을 규정한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뒤이어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치회의가 정전협정에 규정된 시일내에 열리지 못하도록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방해책동에 의하여 정치회의는 정전협정에 규정된 시일내에 열리지 못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노력에 의하여 1953년 10월 판문점에서 겨우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예비회담이 열렸으나 이것마저 미제침략자들은 파탄시켰다.

미제침략자들은 이 예비회담에서 당치도 않은 각종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국제회의관계에서 볼수없는 오만무례한 행동을 거듭하던 끝에 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하고 말았다.

미제침략자들은 1954년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제네바회의도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

정치회의예비회담과 제네바회의가 파탄된후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계속 인내성있게 노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의 통일문제가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중앙정부를 수립할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철거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의 실시를 거부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북으로부터의 침략위협》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려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가 소위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구실로 자기의 침략군을 철거시킬수 없다면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킨후 남북조선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며 호상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이 제안도 거부하였다.

평화협정의 체결을 반대하는것은 벌써 침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민족적으로 긴급하게 제기되는 문제부터라도 먼저 해결하면서 일련의 중간걸음을 거쳐 점차 완전한 통일에로 접근하기 위한 일련의 방안들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이것도 반대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문을 닫아매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떠한 제안도 다 거부하면서 오직 《유엔감시하의 선거》에 의해서만이 통일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애당초 조선문제에 관여할 어떠한 근거나 권한도 없다.

유엔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에 그 기발을 도용당함으로써 조선전쟁의 교전일방으로 전락되였다.

유엔은 그의 헌장에 비추어보아 조선인민자신이 해결할 내정문제인 조선통일문제를 토의하여서는 안된다.

소위 《유엔감시하의 선거》라는것은 《유엔군》으로 가장한 미제침략군의 총검의 위협밑에 인민들의 의사표시의 자유를 억누르고 제멋대로 날조한 《선거》 결과를 유엔의 이름으로 합법화하는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직 유엔의 이름으로 세상사람들을 속이고 남조선에 강요한 식민지통치제도를 공화국북반부에까지 확대하려는 야망으로부터 지난 20년간 계속 《조선문제》를 유엔에 끌고가 비법적인 토의를 강요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이러한 일관된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정전협정에 규정된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철거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은 오늘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 ※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든 사실은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조선정전협정을 일관하게 파괴유린하고 새전쟁도발에 광분하면서 조선의 평화를 위협하고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죄악적책동의 장본인이라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침략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전쟁에서 달성하지 못한 침략적야망을 어떻게나 실현해보려고 정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5년동안 계속 악랄한 책동을 다하여왔다.

미제침략자들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가 채마르기도 전에 이 조항들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남조선에서 새 전쟁준비를 추진시키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여왔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 군사장비를 대량적으로 끌어들이고 남조선괴뢰군병력을 증강하며 전술적핵무기와 유도무기 등 대량살륙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여 남조선을 원자 및 유도탄 기지로 전변시킬뿐아니라 남조선전역에 걸쳐 《전시태세》를 강화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의 사소한 가능성이라도 모두 말살하면서 남조선에서 식민지적 지배와 군사파쑈독재를 강화하며 남조선인민들에게 가혹한 탄압과 야수적만행을 감행하고있다. 그러면서 미제침략자들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서 매일과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며 상시적으로 긴장상태를 조성하여 왔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새전쟁준비와 군사적도발행위를 발악적으로 감행하여오던 끝에 1968년에 들어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침입시키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 광란적인 새 전쟁도발소동을 일으키는데 이르렀다.

오늘 조선에서 긴장상태가 극도에 달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제침략자들의 이러한 계획적인 범죄적전쟁책동의 결과이다.

지난 조선전쟁력사가 잘 말하여주는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침략자들의 광란적인 군사적도발행위를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기필코 조선에서 새 전쟁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시종일관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들을 엄

격히 준수하며 조선에서의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만약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해결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실현되였다면 전체 조선인민은 벌써 오래전에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을것이며 지금 조선에서 보는바와 같은 그러한 전쟁위험은 결코 없을것이다.

조선의 통일이 한없이 지연되고 새 전쟁 위험이 조성되게 된 모든 화근이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에 있다는것은 누구에게나 극히 명백하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그냥 두어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 날수도 없으며 조선에서의 새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수도,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보장할수도 없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과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새 전쟁도발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모든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즉시 물러가야 한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철거 이것은 조선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정전협정의 엄연한 요구이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 머물러있을 아무런 리유와 근거도 없다.

미제침략자들이 물러가기만 하면 조선인민은 조선의 통일문제를 능히 자기의 손으로 훌륭히 해결할것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하며 유엔이나 기타 어떤 외부세력도 이에 간섭하여서는 안된다.

유엔은 그의 헌장과 본래의 사명에 부합되게 행동하려면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도구로 더는 리용되지 말아야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도 없이 진행되는 비법적인 《조선문제》의 토의를 그만두어야 하며 《유엔군》의 이름으로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조선통일문제를 어디까지나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그의 근본 립장에서 지난시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평화애호적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남조선에 더욱더 많은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계속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제침략자들자신이 져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조선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정전협정의 요구대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 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 및 기타 세계 각국 정부들과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오늘 조선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며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견결히 반대하고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

1968년 7월 25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미제침략자들이 유엔총회 제23차회의에 례년과 같이 또다시 소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년례보고》에 의한 《조선문제》를 상정시켜 그를 토의케 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미제침략자들은 유엔총회 제 23차회의에 례년과 같이 또다시 소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년례보고》에 의한 《조선문제》를 상정시켜 그를 토의케 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조선문제에 관한 자기의 립장을 다시 천명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유엔에서는 20여년간이나 《조선문제》를 토의하고있다.

그러나 도대체 얻어진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조선문제해결에 그 어떤 도움을 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악화시킨것뿐이다.

원래 조선문제는 유엔에서 토의할 문제가 아니다.

조선문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생긴 나라의 인공적분렬을 끝장내고 민족의 통일을 회복하는 문제로서 조선인민자신이 해결할 민족내부문제이다.

유엔헌장은 타국의 내정문제를 유엔에서 토의하는것을 금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유엔은 미제에 의하여 그의 기발을 조선침략전쟁에 도용당함으로써 조선전쟁에서의 교전일방으로 전락되였다. 따라서 적대일방으로 된 유엔에서 조선문제를 놓고 토의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언어도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20여년간이나 년례 행사처럼 《조선문제》를 유엔에 끌고가서 비법적《결의》를 강압통과시키는 목적은 오직 유엔의 이름으로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제도를 합리화하며 그를 공화국북반부에까지확대하기 위한 침략적흉계를 가리려는데 있다.

오늘도 미제침략자들은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의연 강점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전쟁도발에 날뛰고있다. 특히 미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광란적으로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감행하여왔으며 조선에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를 조성하고 있다.

오늘 조선에서의 평화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인내성있는 노력에 의해서만 유지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반대하여 날로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는 군사적도발행위는 조선과 아세아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의 기발밑에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하고 있는 이 모든 침략행위를 유엔의 헌장과 목적에 전적으로 위반되는 비법행위로 준렬히 규탄한다.

소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모든 범죄적침략책동과 새 전쟁도발행위를 엄폐하고 합리화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도맡아 수행하고있다.

그들은 해마다 유엔에 제출하는 소위 《년례보고》를 통하여 오직 조선에서의 모든 사태발전을 흑백을 전도하여 외곡하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야만적식민지통치와 미제의 주구 남조선괴뢰도당의 매국매족행위를 미화분식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부근거하게 중상비방하는것을 전업으로 삼고있다.

소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이처럼 유엔의 이름을 가지고 미제의 침략정책에 복무하며 유엔을 기만우롱하는것은 유엔헌장 그 자체에 대한 모

독이다.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소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년례보고》에 의한 유엔에서의 《조선문제》토의를 처음부터 비법적인것으로 인정하며 그를 견결히 반대하여 왔다.

만약 유엔이 진정으로 그의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게 행동하려면 《조선문제》의 토의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하며 미제가 유엔헌장에 위반되게 강압적으로 조작해낸 《조선문제》에 관한 비법적《결의》들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조치들을 지체없이 철회하여야 한다.

이번 유엔총회를 앞두고 일련의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은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군과 기타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와 미제의 조선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문제》를 유엔총회 제 23차회의 의정에 포함시킬것을 제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 제의들이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한 정당한 제의라고 인정하며 그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조선통일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이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해체되여야 한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그대로 두고서는 또한 그들의 침략행위를 가리는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남겨놓고서는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의 보장도 통일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다.

미제는 유엔에서 《조선문제》를 토의하는것이나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있는것은 모두 남조선괴뢰도당의 요구에 의한것인듯이 사태를 꾸며내고있다.

그러나 소위 《대한민국정부》란 미제침략자들이 총칼로써 만들어낸 괴뢰정권으로서 미제의 침략과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남조선인민의 그 누구도 대표할수 없다.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만이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조선에서의 유일한 합법적정권으로서 전체 남북조선인민의 참다운 민족적리익과 의사를 대표하고있다.

따라서 유엔이 조선인민의 의사를 들으려 한다면 응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조선문제 토의에 참가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각국 대표들과 세계 인민들로 하여금 조선인민의 진정한 대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헌장과 그의 목적을 항상 존중하여왔으며 또 존중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없이 조선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배치되게 유엔에서 제멋대로 조작되는 그 어떤 《결의》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모두 무효로 선포할것이다.

조선통일문제는 외부세력의 강압이나 간섭에 의해서는 결코 해결될수 없다.

조선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조선사람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항상 조국통일문제가 조선인민자신의 내부문제로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취하여왔으며 그의 근본립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전세계의 평화애호정부들과 인민들이 오늘 미제의 광란적 새 전쟁 도발책동에 의하여 조선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하여 응당한 주의를 돌리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적극 지지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1968년 9월 21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민주공화국의 전령토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무조건 중지한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성명과 호지명주석의 호소문에서 표명된 웰남민주공화국의 립장을 지지하여)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민주공화국의 전령토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무조건 중지한것과 관련하여 11월 2일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호지명주석은 11월 3일 전국 인민과 전투원들에게 호소문을 보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이 성명과 호소문에서 표명된 웰남민주공화국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과 포격의 무조건 중지는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정의의 구국투쟁에서 영웅적웰남인민이 쟁취한 빛나는 승리이며 전세계 평화애호력량의 거대한 승리이다. 또한 이것은 미제침략자들의 수치스러운 참패로 된다.

웰남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을 란폭하게 짓밟고 남부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개시한 미제국주의자들은 1965년초부터 더욱더 많은 미제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를 남부웰남에 끌어들여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파괴하는》 야만적인 초토화전쟁을 강화하는 한편 공군과 해군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북부웰남 전령토에 대한 야수적인 폭격과 포격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여왔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발악적인 책동으로써도 웰남에 대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할수 없었다.

성스러운 반미구국항전에 일떠선 북부웰남인민들은 호지명주석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3,200여대의 미제의 각종 현대적인 비행기들을 쏴떨구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으며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히 극복하면서 나라의 방위력과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남부웰남 인민해방무장력과 인민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령도밑에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모든 전선에서 련속적인 공격을 가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더욱더 수세에 몰아넣고 그들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1천여만의 주민과 남부웰남령토의 5분의 4를 해방하는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침략전쟁에서 거듭 심대한 패배를 당하고 세계사회여론의 강력한 압력에 부딪쳐 더욱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지게 되자 공중, 해상 및 지상으로부터의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무조건 중지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현대적인 무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날강도적인 침략과 류례없는 야만적인 전쟁행위를 감행한다 하더라도 손에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결연히 일떠선 인민들을 결코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의연 웰남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남부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엄중한 죄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전체 웰남인민과 전투원들은 지금 미제침략자들과 끝까지 싸워이길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웰남에 대한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며 웰남인민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인정하고있는 조선인민은 형제적웰남인민이 전면적인 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그들의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할것이다.

미제는 웰남민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일체 침범행위를 영원히 중지하며 남부웰남에서 미제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군대를 철거하고 모든 군사기지를 철폐하여야 한다.

웰남문제는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4개 항목립장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정강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남부웰남인민의 진정한 대표이며 남부웰남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남부웰남괴뢰정권은 남부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의 도구이며 그 누구도 대표할수 없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전세계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웰남인민은 북부를 수호하고 남부를 해방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반미구국항전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달성하고야 말것이다.

1968년 11월 3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남부웰남문제의 정치적해결에 관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의 성명과 남부웰남인민의 투쟁의 새로운 정세에 관한 웰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의 성명을 지지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는 11월 3일 남부웰남문제의 정치적해결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지난 14년간 웰남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한 범죄행위와 남부웰남침략전쟁을 더욱 강화하고있는데 대하여 단호히 규탄하고 남부웰남문제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정강에 따라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없이 웰남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웰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은 11월 3일 남부웰남인민의 투쟁의 새로운 정세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웰남문제의 정치적해결에 관한 자기의 립장을 표명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성명과 웰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의 독립, 자주권, 통일 및 령토완정을 보장할데 대한 1954년 제네바협정이 조인된 첫날부터 그를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남부웰남에 기어들어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현대적인 살인무기들을 다 동원하여 남부웰남을 초토화하는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하여왔다.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과 인민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기치밑에 불굴의 혁명정신과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구국항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특히 금년초봄부터 전개된 총공세와 봉기를 통하여 남부웰남인민은 미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적들을 극도의 혼란과 수세에 몰아넣었다.

북부웰남인민들은 미제의 날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워 전투와 생산에서 거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북웰남인민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당하게 되고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더욱 강력한 규탄을 받게 되자 부득불 웰남민주공화국의 전령토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무조건 중지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전체 웰남인민과 반제평화애호력량의 거대한 승리이며 미제침략자들의 수치스러운 패배로 된다.

북부웰남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무조건 중지한 미제는 지금 《평화》와《협상》에 대하여 떠벌이는 한편 더 많은 비행기와 함선들을 동원하여 남부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계속 강화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의연 웰남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달성하여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제아무리 발악한다 하더라도 결코 자기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오늘 남부웰남인민들과 인민해방무장력은 남부웰남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의 마지막 한놈이 남아있는 한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북부웰남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싸우며 전국의 혁명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모든 태세를 갖추고있다.

웰남인민의 편에 항상 튼튼히 서있는 전체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형제적웰남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이다.

남부웰남 내부문제는 남부웰남인민의 일치한 지향과 의사를 구현하고있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정강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남부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의 조직자이며 령도자인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남부웰남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가지고있는 남부웰남인민의 합법적인 진정한 대표이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세계 많은 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의 승인을 받고있으며 그의 국제적지위는 날로 제고되고있다.

미제가 조작한 남부웰남괴뢰정권은 남부웰남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배격당하고있으며 그 누구도 대표할수 없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의 도구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종식시키고 남부웰남에서 저들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와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철거하여야 하며 모든 군사기지를 철폐하여야 한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그들은 더욱더 큰 참패를 당하게 될것이다.

세계 모든 평화애호력량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고있는 남부웰남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며 독립과 민주주의, 평화와 중립, 번영과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서 반드시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것이다.

1968년 11월 5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일본사또반동정부가 일본국회에서 파쑈적악법인 《외국인학교법안》을 강압통과시키려고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반동정부는 《외국인학교

법》을 지금 진행중인 일본국회에서 강압통과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파쑈적인 《외국인학교법》을 《립법화》하려는 사또도당의 이러한 책동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전면적으로 말살하려는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일본군국주의의 노예교육을 강요하려는 음모책동이다.

이것은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정책의 로골적인 표현이며 60만 재일조선공민들과 조일 두 나라 인민들에 대한 새로운 엄중한 도전이며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유린말살하려는 일본당국의 범죄적책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범죄적인 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할것과 파쑈적인 《외국인학교법》을 조작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음모를 그만둘데 대하여 일본당국에 경고한바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독립국가의 해외공민들이 거주지여하에 관계없이 자기 자녀들에게 모국어에 의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것은 그들의 신성한 기본권리이다.

60만 재일동포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이다.

그들은 일제가 패망하고 조국이 해방된후 경애하는 수령의 육친적배려와 공화국정부의 동포애적시책에 고무되여 서로 힘을 합쳐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140여개의 각급 학교들을 세우고 자기 자녀들에게 자주적인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재일조선공민들의 신성불가침의 민족적권리이다. 더우기 오늘 일본에 살고있는 조선공민들은 지난날 일제의 조선강점과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일본에 끌려가 참을수 없는 민족적박해와 고역을 당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나 그 자녀들이다.

일본당국은 과거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엄중한 죄과로 보나 국제법과 인도주의원칙에 비추어보나 재일조선공민들을 응당 보호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회피할수 없는 법적책임과 도의적의무를 지니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정부는 공인된 국제규범은 물론 저들이 지니고있는 이 엄연한 법적 및 도의적 책임과 의무마저 저버리고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을 비롯한 온갖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유린말살하기 위한 책동을 체계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일본 사또도당은 미제의 조종하에 이른바 《한일조약》을 체결한 이후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과 결탁하여 재일조선공민들에게 《한국국적》을 강요하고 공화국에로의 귀국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책동하고있으며 재일조선인 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그들은 재일조선공민들의 정당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반일교육》이니 《일본의 국가적 리익과 안전에 배치되는 교육》이니 하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조선인학교들을 강제로 페쇄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며 교사에 불을 지르고 교원들과 학생들을 체포, 구금, 구타, 살상하는 파쑈적만행을 거듭 감행하고있다.

재일조선공민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모국어와 조국의 력사, 지리, 문화, 민족적전통을 가르치는것이 어찌하여 《반일교육》이 될수 있으며 《일본의 국가적 리익과 안전에 배치》될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실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옛 버릇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망동이다.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반동정부의 탄압책동은 도쿄도지사에 의한 조선대학교의 인가를 전후하여 일층 로골화되고있다. 도쿄도지사가 조선대학교를 인가한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지배층은 조선대학교의 인가가 《타당치 않다》느니 《인가리유를 조사해 보겠다》느니 하면서 저들의 어용조직들과 파쑈단체들을 동원하여 조선대학교의 인가를 반대하는 소동을 벌려놓는 한편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말살하기 위한 악법인 《외국인학교법》을 한사코 일본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일본 사또도당이 조작하려는 이 《법안》은 조선대학교의 인가를 무효화할뿐만아니라 모든 조선인학교들에 대하여 그 관리운영으로부터 교원의 임명, 교육내용에 이르기까지 직접 틀어쥐고 좌지 우지하며 임의의 구실로써 《강제조사, 중지명령, 페쇄명령》 등의 탄압조치를 제멋대로 취하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적단결을 깨뜨리며 재일조선 청소년들을 자기들의 온순한 노예로 만들기 위한 《동화교육》을 실시하려는 파쑈적악법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또다시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벌리고있는것과 때를 같이 하여 일본반동정부가 《외국인학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조급히 책동하는것은 결코우연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란폭하게 유린함으로써 일본의 파쑈화의 길을 더욱 촉진하며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복무하며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과의 정치,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며 남조선재침의 길을 확대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본 사또반동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을 탄압하려는 저들의 범죄적책동을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수 없다.

조일 두 나라 인민은 재일조선공민들의 신성한 민족적권리를 남조선재침과 일본의 파쑈화를 위한 추악한 정치적목적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을 절대로 용허하지 않을것이다.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박탈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일본반동정부의 책동은 지금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광범한 일본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재일동포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반동적인 《외국인학교법안》을 국회에서 강압통과시키려는 사또반동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항의규탄하면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수호하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고있다.

일본의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광범한 각계층 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반동적인 《외국인학교법안》을 분쇄하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의 권리를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적극 옹호하여 투쟁하고있다.

일본반동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민족교육의 권리를 포함한 그들의 모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무조건 보장하여야 할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일본반동정부가 파쑈적

악법인 《외국인학교법》조작음모를 당장 걷어치우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의 권리를 포함한 그들의 제반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무조건 보장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일본반동정부가 조일 두 나라 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정책을 계속하면서 끝끝내 《외국인학교법》을 조작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유린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60만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적권리를 침해하며 그들을 박해하고 멸시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모든 부당한 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것이다.

1968년 5월 11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비망록

(미제의 비호밑에 박정희매국역도를 길잡이로하여 남조선을 재침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의 범죄적책동을 폭로하여)

오늘 재생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침략정책에 적극 복무하면서 아세아의 《맹주》노릇을 하려던 저들의 깨여진 옛꿈을 다시 실현시켜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남조선에 재침하여 저들의 침략적지반을 꾸리며 이를 발판으로 아세아의 전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음흉한 책동을 계획적으로 꾸며왔다.

3년전 미제의 조종하에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간에 체결된 《한일조약》은 조선과 나아가서는 다른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팽창책동을 합법적으로 감행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한일조약》 체결후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한일조약》을 기초로 하여 아세아에서 새로운 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일본군국주의는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고있습니다. 일본의 사또정부는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조선과 다른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계획을 짜놓고있을뿐아니라 이미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습니다.**》라고 지적하시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집중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을 결탁시킴으로써 남조선을 전초기지로 삼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돌격대로 삼아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며 아세아를 지배하려는 침략적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력사적으로 큰놈을 등에 업고 《횡재》하는데 습성화되였으며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하에 되살아나 또다시 남조선에 침략과 예속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지금 남조선의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침투하고있으며 웰남침략전쟁에서의 참패를 만회하며 조선과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 전쟁의 불길을 확대하려고 광분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인 책동에 적극 가담하고있다.

오늘 급속히 촉진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과 아세아침략에서의 미일제국주의의 로골적인 결탁은 조선과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긴장상태를 한층더 격화시키고있으며 전쟁의 위험성을 더욱 증대시키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제의 비호밑에 박정희매국역도를 길잡이로하여 남조선을 재침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의 범죄적책동을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앞에 폭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20여년전에 조선에서 패망하고 쫓겨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극동침략체제하에서 급속히 재생하기 시작하였다.

재생된 일본독점자본은 비대해졌으며 일본에서의 군국주의세력은 급속히 대두되고 일본자본주의의 경제적계급적모순은 더욱 첨예화되였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그로부터 출로를 미제의 극동침략정책에 편승한 해외팽창에서 찾고있으며 그의 첫대상으로 우리 나라를 설정하고있다.

그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폭언과 지금까지 폭로된 일련의 행동들에서 그들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있다는것을 확증하여 주고있다.

1958년 6월에 《한일회담》 일본측 수석대표 사와다렌조는 《우리들은 일어나서 38도선을 압록강밖에 물리치지 않으면 선조에 대해서, 선배에 대해서 면목이 없다. 이것은 일본외교의 임무이다.》라고 하였다.(1958년 6월 11일 제4차 《한일회담》에서)

1960년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일본수상 기시노브스께는 《일본의 자위권이 남조선과 대만에까지 확장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전일본 수상이였던 요시다시게루는 1962년 1월에 《일본이 이또히로부미의 길을 따라 조선을 부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신문 《산게이신붕》 1962년 1월)

1965년 1월 7일 《한일회담》 일본측 수석대표 다까스기싱이찌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20년쯤 한국을 더 가지고 있었더라면 좋았을것》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을 《힘이 된셈치고 큼직하게 먹어치워야 한다.》고 공언하였다.

군국주의자 시바조노세이는 《한국과 일본은 벌써 하나의 국가로 되였어도 좋지 않았겠는가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일본국의 조선주로 되는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것이다. 규슈가 일본의 한개 주인것처럼 조선주로 된다면 어떻겠는가》고 제국주의적야망을 실토하였다.(일본신문 《데이또니찌니찌신붕》 1963년 2월 21일)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과거 조선을 지배하던 옛꿈을 잊지 않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재침의 공간으로 리용한것은 바로 미제의 극동전략의 일환으로 진척된 범죄적인 《한일회담》이였다.

미제의 사촉을 받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친일친미정권인 박정희괴뢰정권이 조작된것을 기회로 《한일회담》의 결속을 다그쳤으며 자기들의 재침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63년 11월 29일 박정희괴뢰를 도꾜에 불러 정치적모의를 진행한후 일본자유민주당 부총재 오노반보꾸를 남조선에 파견하여 《한일회담》에서 론의하고있는 《현안문제》들을 일괄타결할데 대한 《해결책》을 토의케 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급전하게 되자 일본방위청은 남조선에 침투해들어갈것을

계획하고 남조선괴뢰들과 《국교정상화》후 즉시 서울에 방위주재관을 상주시킬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한일군사제휴(협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놓았다.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진출에서 옛식민지통치의 《솜씨》를 호언하면서 자기 상전 미제에게 남조선재침의 길을 더 크게 열어줄것을 요구하여 나섰다.

전수상 이께다는 《한국민족에 대한 일본의 연구가 미국보다 훨씬 앞섰는바 일본은 한국과 관련하여 40년이상이나 경험을 가지고있다.》고 말하였다.(일본신문 《도꾜신붕》 1963년 4월 5일)

1965년 1월 사또는 미국대통령 죤슨과의 비밀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의 아세아침략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대가로 남조선에 재침하여 지배권을 마련할수 있도록 보장받았다.

이러한 비밀합의는 일본정부와 남조선괴뢰간에 1951년부터 10여년간 끌어오던 《한일회담》을 결속시키고 침략적인 《한일조약》을 체결케 하였다.

《한일조약》의 체결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괴뢰들과 《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제협력》이라는 미명하에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팽창정책을 합법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남조선의 어장을 독점하고 일본의 선박과 항공기들이 남조선해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보장받음으로써 공공연한 해적행위를 할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재일교포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에 사는 60만 재일동포들에게 《한국국적》을 강요하고 재일동포 청년들에게 남조선괴뢰정권《국내법》을 적용시켜 남조선괴뢰군징집의 원천으로 삼으려고 획책하고있다.

침략적인 《한일조약》과 기타 《협정》들의 체결은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의 길을 활짝 열어놓게 하였다.

《한일조약》이 체결되기가 바쁘게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침략의 정치적거점으로서 서울에 《대사관》을, 부산과 인천에 《총령사관》, 《령사관》을 설치하였다.

일본 《대사관》과 《령사관》들에는 과거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고 자랑하는 정치, 외교, 군사, 경찰, 정보관계 전문기들이 수많이 배치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대사관》과 《령사관》을 근거지로하여 남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강화하고있다.

1966년도부터 일제의 남조선재침이 본격화되자 서울에서는 《한일경제각료회의》가 소집되였으며 이 《회의》에서는 《한일》간의 정치적결탁을 위한 밀의를 하였다.

이 《각료회의》에는 일본정치계에서 다음번 일본수상과 자유민주당 총재를 노리는 유력한 군국주의두목들인 후지야마, 후꾸다, 미끼 등이 참가하였다.

《각료회의》에 참가한 남조선괴뢰들은 《마치 일본정부가 한국에 이동해온것 같다》고 하면서 《손벽을 치며 기뻐하였다.》(일본신문 《마이니찌신붕》 1966년 9월 11일)

1967년 3월 10일 일본수상 사또는 도꾜에 남조선괴뢰국무총리 정일권을 호출하여놓고 《한일경제각료회의》를 해소하고 그를 《한일정기각료회의》로 승격시키며 매년 8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할것을 합의보았다.

상설적인 침략기구인 《한일정기각료회의》를 조작해냄으로써 일본군국주의는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정치적지배와 예속을 촉진시키게 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한일관계》에는 정치, 군사 및 경제적 결탁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였다.》(일본신문 《마이니찌신붕》 1967년 8월 12일)

1967년 6월 30일에 일제가 패망한후 처음으로 일본수상 사또가 남조선괴뢰대통령취임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남조선에 기어들었다.

사또의 남조선《방문》 실현은 60년전 《을사보호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한 직후 이또히로부미의 조선행각과 흡사하다.

사또는 박정희괴뢰와의 여러차례에 걸치는 비밀회담에서 《한일관계를 보다 긴밀화하고》 남조선의 군사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남조선괴뢰들의 《제2차 5개년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일본신문 《마이니찌신붕》 1967년 7월 1일)

사또도당의 남조선 《방문》을 통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의 정치군사적결탁은 더욱 심화되였다.

이외에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자유민주당국회의원들, 전《조선총독부》 관리들, 《밀사》들, 일본 《보수계흑막의 인물》인 고다마를 포함한 극우익반공음모자들, 경찰특무우두머리들을 남조선에 수다히 파견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일본의 《거물급 정객이나 막후인물들이 들어올 때마다 …량국 정계거물급들이 머리를 맞대고 귀속말을 주고받은 막후흥정이 활개치고있다.》(남조선잡지 《세대》 1965년 10월호)

최근에는 일본의 극단한 친미반공분자인 가야를 위시한 《일본자민당 의원단》이 《한일의원회의》에 참가한다는 명목으로 남조선에 기여들어 박정희역도와 일련의 군사적결탁에 대한 밀담을 벌렸다.

이렇듯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웃에 소풍이나 오는듯이》 남조선에 뻔질나게 드나들고있으며 마치 제 나라에서처럼 《게다짝을 구르며 거리낌없이 법석을 떨고있다.》(남조선신문 《조선일보》 1966년 6월 16일)

남조선에 기어든 그들은 과거 조선통치시기 저들을 위해 복무하였던 친일주구들을 다시 규합하는한편 새로운 민족반역자들을 대대적으로 매수하고있다.

특히 일본반동지배층들은 미일제국주의의 가장 충실한 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을 부추기기 위하여 그들에게 막대한 정치자금을 대여주었다.

《한일조약》 체결을 전후한 1964～1965년 기간에만도 일본반동정부는 1억 3천만딸라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박정희도당에게 제공하였다.

일본반동지배층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박정권에 자금을 쏟아넣어 반공의 장벽을 두터이하는것이 급선무》이며 《이것이 일본이 직면한 정치문제》이라고 떠벌였다.

1967년에 남조선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시에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각종 수단과 방법으로 박정희도당에게 막대한 정치자금을 대여주었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1965년말 이른바 《코로나》 자동차오지사건에 뒤이어 1966년에는 친일매판자본인 《삼성재벌》이 일본의 《미쯔이붓산》으로부터 사카린을 밀수입하여 폭리를 얻었고 여기서 박정희도당은 약 20억원의 정치자금을 짜냈다.

또 일본의 《미쯔비시상사》는 남조선괴뢰도당에게 다른 회사보다도 7%나 더 비싸게 《차관》을 들여먹이고 20만딸라의 《정치자금》을 《헌납》하였다.
(남조선통신 《합동》 1966년 10월 24일)

오늘 남조선에서 일본의 《현금차관이 정치자금으로 류용되고》있는 것은 보통현상으로 되고있다.(일본잡지 《세까이슈호》 1967년 2월 14일)

그렇기때문에 오늘 남조선괴뢰지배층사이에서는 일본의 정치세력이나 독점자본가들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득세할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침략자들과 련계를 맺기 위한 추잡한 경쟁까지 벌어지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친한》 단체를 무어 남조선에 있는 친일단체들과 조

직적결탁을 강화하고있다.

현재 일본에는 《일한협력위원회》, 《중앙일한협회》, 《일한친화회》, 《일한우호협회》 등 50여개에 달하는 《친한》단체들이 조직되여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친한》 단체조직과 보조를 맞추어 지금 남조선에는 각종 반동적인 《친일단체》들이 조직되여 공공연히 활개치고있다.

이러한 매국적인 《친일단체》는 남조선에 무려 20여개나 조직되여 있으며 여기에는 남조선괴뢰정권의 《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반동관료배들과 매판자본가들이 수많이 참가하고있다.

그들은 각종 수단을 다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류포시키며 일제의 남조선재침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남조선에 기여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비호하에 남조선에서 마음대로 거주하고 상업활동을 하고있을뿐만아니라 치외법권적 권리까지 행사하고있다. 그들은 일본인들로 조직된 《일본인회》라는 단체를 남조선에 조직하고 그를 통하여 일본인상사들의 자유로운 활동보장문제, 공업 및 광업의 소유권인정문제들을 남조선괴뢰도당들에게 강요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잡지 《비지네스》(1966년 12월)는 다음과 같이 썼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공공연한 상행위는 삼가해야 했고 상행위보다는 한국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했던 한국속의 일본상사들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였다. 이제 그들 뒤에는…한국상사들과 더불어 공개적이고 대등한 상업활동을 할수 있는 법적지위를 한국정부에 촉구하는 정부와 대사관이 도사리고 있다.》

《한일조약》체결후 급속히 확대되고있는 일제의 이러한 침략책동을 보고 남조선잡지 《세대》는 《2차대전에서 패전한후 남조선땅에서 쫓겨난 일본이 20년만에 다시 현해탄의 물결을 타고》 남조선에 기여들여 《일장기를 휘날리게 되였으니 일본인의 한국재진출의 꿈은 실로 20년만에 이루어진 셈이다.》라고 개탄하였다.

이처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자기의 정치적지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동하는 한편 사상문화적분야에도 침략의 촉수를 깊이 뻗치고있다.

그들은 《친선》이요, 《협조》요, 《문화교류》요 하는 허울좋은 간판밑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민족적계급적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사상과 퇴폐적인 왜색문화를 대대적으로 침투시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략에서 종교는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력사적으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웃나라들을 침략함에 있어서 종교를 침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여왔다. 오늘도 그들은 60여년전에 쓰던 수법 그대로 남조선에 종교를 침투시키면서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한일조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일제는 《천리교》와 같은 국수주의적인 종교단체들을 남조선에 광범히 들여보내여 지반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지금 남조선에는 과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과 동남아세아 침략에서 선도적역할을 수행한 악명높은 《천리교》만 하여도 850여개의 교회에 수십만명에 달하는 신도들이 있다.

지어 《천리교》는 학교까지 세우고 남조선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친일사상을 《교육》하고있으며 《강습소》를 차리고 《교직자》들을 양성하여 각지에 파견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문화침투를 무제한 허용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양키문화와 함께 왜색, 왜풍이 남조선사회를 더욱 어지럽히고있다.

남조선의 서점들과 영화관들에서는 색정주의적인 일본 서적과 영화가 판을 치고있다.

1967년 한해동안에만도 남조선에 들여온 일본서적은 무려 40만부에 달하는데 그 대부분은 썩어빠진 색정적인 출판물들이다.

뿐만아니라 백주에 남조선거리와 음식점들에서는 과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과 아세아대륙을 침략하면서 부르던 일본노래가 공공연히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을 방문한 일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외국에 온것 같지 않다.》고 《기뻐》 날뛰며 서울에 와있는 《일본인상사원이 명동 한복판에 섰을 때 여기가 〈긴자〉 도꾜의 번화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만큼 자기가 이국땅을 밟고 서있다는 실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것은 우연치 않다.

남조선신문까지도 《정부가 당초에 내세운 민족 주체성옹호론은 어디론지 행방불명이 되고 사회는 날로 〈왜색〉문화가 판을 치게 되였다.》, 《출판계, 영화계, 광고계 할것없이 다투어 몰렴치한 〈왜색〉도입정책을 하고있는 그 끝은 도대체 장차 이 민족을 어디로 끌고갈 작정인가…오늘날 이 땅의 문화는 바야흐로 중대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남조선신문《조선일보》 1967년 11월 14일)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친일세력을 부식하며 남조선괴뢰우두머리들과의 결탁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남조선정계에 깊이 침투함으로써 남조선을 지배하려고 얼마나 날뛰고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2

재생되는 첫날부터 팽창야욕을 품고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자본과 상품을 투입하여 또다시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타산하였다.

일본독점자본가들은 남조선을 《일본의 경제권내에 끌어넣어야 한다.》느니 《한국경제의 자주권과 자원의 핵심은 일본이 장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인 침투를 하여왔다.

특히 남조선에 박정희괴뢰정권이 수립된 후부터는 일본독점자본들이 《일한경제협회》, 《일한협력위원회》 등과 같은것을 조작하고 이를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의 침략기구로 리용하였다.

일본독점자본은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소위 《경제협력》이라는 간판밑에 《차관》, 《연불수출》, 《보세가공》등의 이름으로 남조선에 부단히 자본을 침투시켰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한일조약》과 동시에 체결된 《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소위 《청구권자금》 3억딸라, 정부차관 2억딸라, 민간상업차관 3억딸라를 10년동안에 걸쳐 남조선괴뢰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일간의 매국흥정판에서 확정된 이 8억딸라의 지불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합법적이며 공개적인 자본수출의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현재 《한》일 쌍방간에는 매년 《한일경제각료회의》, 《한일합동경제간담회》, 《보세가공촉진회의》 등 각종 회의들을 벌려놓고 《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실행대책을 모의하고있다.

일본정부는 남조선괴뢰들에게 《청구권》자금을 비롯한 모든 자금을 제공함에 있어서 저들의 침략적목적에 유리하게 투자방향과 규모, 내용, 기일 등을 결정함으로써 남조선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있다.

남조선신문은 이에 대하여 《자금사용에는 철저한 여건이 붙어서…정부가 자금의 사용계획을 세웠다해도 그 집행에는 일본정부의 인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격의 청구권자금이 한국의 뜻대로 사용되고 순조로운 집행을 기대한다는것은 일종의 망상이다.》라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신문《매일신문》 1967년 1월 1일)

《한일조약》체결이래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국가자본투자액은 1967년 12월현재로 이미 9천만딸라에 달하였으며 금년말까지에는 1억 6천만딸라를 넘을것이 예견된다.

국가자본투입과 함께 《민간상업차관》에 의한 사자본침투가 또한 우심해지고있다.

괴뢰 《경제기획원》이 1967년 10월 13일 현재로 집계하여 발표한바에 의하더라도 괴뢰 《외자도입심의회》가 이미 허가한 대일 《민간상업차관》액은 4억 5천 8백만딸라에 이르고있다.

현재까지 도입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조치가 취해진 일본의 설비수출관계 《민간상업차관》은 약 1억 7천만딸라에 달하고있으며 작년 8월 《제1차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 일본은 1970년까지에 2억딸라의 신규《민간상업차관》을 남조선에 제공할것을 결정하였다.

남조선에 투입된 외국자본중 일본자본의 비중은 30%에 달하고있으며 그것은 해마다 급격히 증대되고있다.

일본은 남조선이 도입한 정부간의 《재정차관》 총액의 13.5%로 미국 다음 가는 제2위이며 《민간상업차관》에서는 49%로 제1위를 차지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적인 《외자도입정책》은 오늘 더욱 로골적인 형태로 추진되고있으며 그것은 남조선을 헤여나올수 없는 채무노예의 처지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게 하고있다.

박정희매국도당은 1966년 2월 《한일경제간담회》에서 공공연히 《한일합영기업의 설립을 환영》하여 나섰으며 요즈음에 와서는 괴뢰 《경제기획원장관》이라는자의 입을 통하여 《일본자본의 직접투자를 인정한다.》고 공포하기까지 하였다.

지난 2월 도꾜에서 열렸던 《제3차한일합동경제간담회》때 《경제협력분과회의》 괴뢰측 회장이라는자는 《100%의 출자도 좋다》고 하면서 일본독점의 직접투자를 적극 요망하여 나섰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제3차 한일합동경제간담회》에서 일본독점자본의 《합작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의 정비》라는 이름밑에 남조선에 와있는《일본인상사에 대한 과세, 통상항해우호조약, 공업소유권 등의 문제에서 일본측의 희망대로》하여주겠다는 망언을 서슴없이 줴쳤다. (남조선신문《조선일보》1968년 2월 21일)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러한 대일굴종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미 일본의 대독점회사들인 《가와사끼중공업》, 《다이니찌금속공업》, 《니찌멘실업》 등은 《합작투자》의 형식으로 남조선의 경제분야에 매우 깊이 침투하였다.

남조선에 기여들어와서 지반을 꾸리고 날이 갈수록 침투활동을 적극화하여온 일본독점자본은 오늘에 와서는 사실상 남조선의 주요경제부문들에서 기업경영권을 저들의 수중에 틀어쥐려하고있다.

그리하여 《미쯔이계통은 석유화학, 미쯔비시계통은 선박, 세멘트 등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남조선의 개별산업분야들을 계렬적으로 분담하여 지배권을 확립하는데 이르고있다.》(일본잡지 《에코노미스트》 1967년 5월 23일)

오늘 일본독점자본은 이미 남조선의 선박 건조 및 수리 부문에서 80%, 염화비닐공업부문의 100%, 보세가공공업의 100%, 섬유공업부문의 30%를 지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동력, 건재, 화학공업부문에 깊이 침투하여 중공업의 원료공급계통을 독점하고있다.

박정희도당의 무제한한 《외자도입》에 의하여 남조선의 주요경제명맥은 일본독점자본의 수중에 더욱 깊이 장악되여가고있을뿐만아니라 오늘 남조선은 빚더미우에 올라앉게 되였다.

해마다 상환해야 할 원금과 리자액은 증가되고있으며 1970년에 가서는 실로 1억딸라를 갚아야하며 (남조선통신 《동양》 1966년 9월 5일) 1975년에 가서는 11억딸라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남조선 《중앙방송》 1968년 6월 17일)

외자도입으로 설비를 들여와도 그것을 설치운영할 《운전자금》 마저 없어서 소위 《현금차관》 형식으로 일본독점자본에게 자금을 구걸하는 형편에서 채무반환능력이 있을리 만무하다.

채무반환능력이 없으면 빼앗는것이 일본독점자본의 기본방침이다.

현실적으로 일본독점회사인 《마루베니이이다》는 남조선의 《동림수산》이 150만딸라의 차관을 제기일에 반환하지 않는다하여 이 회사의 선박관리운영권을 빼앗았다. 이처럼 일본독점자본은 날이 갈수록 남조선경제를 더욱 깊이 거머쥐고있으며 저들의 완전한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한국시장》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일본독점재벌들은 《한국행뻐스를 놓치지 말라》고 하면서 저마다 한몫씩 끼우려고 앞을 다투어 남조선에 기여들고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등 주요도시들과 공업지대에는 일본의 대독점기업체들의 지점들과 상사들이 자리잡고 자본투자와 상업활동을 공공연히 진행하고있다.

일본인상사들의 수는 1965년 12월 《한일조약비준서》 교환시만 하여도 《30개, 50개 혹은 70개》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근 200개에 달한다.

서울에는 박정희괴뢰정권에 의하여 공인된 대독점상사로서 《서울일본상공회》까지 결성되여있으며 작년에는 일본 최대의 금융재벌들인 미쯔비시은행과 도꾜은행 지점들까지 설치되였다.

지금 《서울의 이름있는 삘딩과 호텔치고 일본상사가 발들이지 않은 곳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남조선잡지 《비지네스》 1965년 12월호)

이외에 《관광려권》을 가지고 《려행자》라는 명목으로 남조선에 기여들어 등기도, 신고도 하지 않고 세금도 물지 않으면서 치외법권적인 상사활동을 하는 일본인들의 수는 부지기수이다.

일본독점자본의 대대적인 침투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일본의 잉여상품판매시장으로 전변되고 중소기업들은 더욱 파산몰락하고있다.

남조선과 일본간의 무역실태 하나만 보더라도 1964년에 남조선의 대일무역은 1대 2.2의 수입초과를 보이고있었으나 《한일조약》체결이후인 1966년에는 1대 3.37이라는 급격한 적자무역을 가져왔다. (남조선신문 《경향신문》 1967년 12월 18일)

오늘 남조선에는 무역이외에 《재일교포재산반입》이라는 간판밑에서 일본의 화학섬유제품이 마구 쓸어들고있으며 수많은 일본의 소비재가 밀수입되고있다.

결과 남조선시장에서는 일본상품이 판을 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또한 《보세가공》이라는 명목밑에 원료와 설비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남조선의 값싼 로동력을 착취하여 생산한 제품을 팔아 폭리를 얻고있다.

일본독점회사인 《마루베니이이다》는 남조선매판자본들인 《삼성재벌》, 《삼호재벌》 등과 결탁하여 이미 100여개의 남조선기업체들과 《미쯔이붓산》은 40여개의 기업체들과 《보세가공》계약을 맺고 이들을 자기들의 청부공장으로 전락시켰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적인 《외자도입정책》과 일본독점자본의 날강도적인 경제침략으로 인하여 남조선경제는 일본독점자본의 종속물로 전락되여 파국에로 줄달음치고있다.

남조선산업계에서는 《일본이 제공한 〈허울좋은 협력〉때문에 큰 혼란까지 빚어》지고있으며 《일본의 협력덕택으

로 망하게 되었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남조선신문 《국제신보》 1966년 12월 24일)

남조선의 신문까지도 《한국속의 일본경제의 움직임은 구한국말기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깨진 이후 밀어닥쳤던 일본바람》과 비교된다고 썼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어업근대화》로써 《리상어촌》을 만드는 중요한 방도라고 요란하게 선전한 일본의 《어업협력》은 남조선의 황금어장을 황폐화시켰으며 100만어민을 비참한 처지에 몰아넣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민간상업차관》으로서 준다는 《선박자금》 3천만딸라중 작년말까지 수출을 승인한것은 한건도 없으며 또 《어업협력자금》 9천만딸라중에서 원양어선 2건에 280만딸라를 준데 불과하다. (남조선신문 《경향신문》 1967년 12월 18일)

그들은 《저들이 행사할수 있는 〈구매인증권〉을》 방패로 삼아 남조선이 《필요로 하는 선박의 공급은 회피》하면서 공업지배권장악을 목적한 《원자재에 대한 공급에만 주력하였다.》(남조선신문 《한국일보》1967년 2월 27일)

간혹 그들이 《최신형선박》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은 몇척의 어선도 《15~23년간이나 사용한후 뺑끼칠을 한 중고선》이였다.

현대적장비를 갖춘 일본의 동력선들이 남조선의 《전관수역》에까지 침입하여 낡은 남조선어선들을 내쫓고 떠받아 침몰시키는 사건들이 련달아 일어나도 박정희괴뢰도당은 이에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못하고있다.

결과 《한일어업협정발효후 공동규제수역내에서 일본어선단의 어획고는 5배가 늘었》(남조선신문 《국제신보》 1968년 3월 23일)지만 남조선어민들은 《한일조약이전에 비해 10분의 1밖에 고기를 잡지 못하고있다.》(남조선신문 《제주신문》 1967년 9월 11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이 표방하고있는 《경제협력》이란 박정희괴뢰도당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행을 돕는것이라고 떠벌이고있다.

박정희도당은 이른바 《제2차5개년계획》을 《3년반동안에 달성한다》고 떠들면서 《계획》에 예견된 총투자액의 40%를 외자로써 충당하려 하고있으며 그중에서도 80%를 일본에 의존하고있다.

박정희도당이 부르짖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본내용이란 군사잠재력강화와 관련된 전력, 석유, 석탄, 세멘트, 비료 등 부문과 이와 동등한 의의를 가지는 철도, 도로, 항만, 체신 시설의 확장에 투자를 집중시키는것이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경제협력》이란 결국 박정희괴뢰도당이 새 전쟁 도발을 목적하고 추진시키고있는 경제의 군사화를 직접적으로 뒤받침해주는것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일본의 협력밑에 군사기지들과 군사적목적을 위한 도로, 항만, 통신 시설들이 건설확장되고 있다.

울산과 진해 지구에는 군사용 연유공급을 위한 정유공장이 신설되였으며 유사시에 화약공장으로 전환되는 비료공장들이 일본의 《협력》밑에 건설되고 있다.

박정희도당은 최근에 《군수산업의 개발》을 운운하면서 일본의 군수독점체를 로골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남조선의 《신창산업》은 총탄을 제조하기 위하여 일본의 군수공업기업체인 《이와이산업》으로부터 200만딸라의 차관을 얻었다.

또한 《대한통운》은 일본의 《닛산》자동차회사와 계약을 맺고 군용디젤트럭 477대를 요꼬하마로부터 실어들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재침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의 요구에 순응하기 위한 군사 침략적성격을 띠고있다.

박정희도당의 매국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오만하게 활개치는 란무장으로 되고있으며 과거의 일제강점시기를 방불케 하는 참을수 없는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3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지역에 더욱더 많은 저들의 무력을 집중하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비롯한 자기들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봉쇄하고 공격하며 아세아에서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고 식민지통치를 부지하는것을 아세아침략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전략을 실천에 옮기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 일본군국주의세력과 남조선괴뢰들을 결탁시키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이러한 전략에 편승하여 벌써 오래전부터 《반공》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침투를 강화하며 조선을 병탐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놓았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한국이 적화되면 일본의 방위상 큰 곤난이 생긴다.》느니 《한국의 운명은 일본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느니 하면서 저들의 군사전략계획에 남조선을 《일본의 전진진지》로, 《제1선방어진지》로 포함시켰다.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간에 군사적결탁은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침투가 진척됨에 따라 강화되였다.

침략적인 《한일조약》이 체결되기이전에 미제의 지휘하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군사장비들을 보급하는 한편 남조선괴뢰들과 시간경보신호체계 등을 통일시키는 등 일련의 군사적결탁을 이루었다.

《한일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침공하기 위한 군사작전계획인 《세개화살작전》, 《날아가는 룡작전》, 《달리는 황소작전》 계획들을 짜놓았다.

이 작전계획들중 대표적인 《세개화살작전》 계획에 대하여 당시 《작전계획》의 통재관이였던 다나까는 그것이 《결코 가정의것도 아니며…어디까지나 실천을 위한 작전계획》이라고 터놓고 말하였다.

이 작전계획들에 의하면 조선에서 미제가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일본은 그 즉시로 전국에 전시동원을 선포하고 륙해공군《자위대》를 조선전선에 파견하며 미제침략군을 지원하기로 되여있다.

이 침략계획들은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거듭 검토수정되면서 구체화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간에 《한일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미, 일, 《한》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였으며 남조선괴뢰군과 일본《자위대》는 태평양지역 미군사령부의 통일적인 지휘하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였다.

《한일조약》은 미제가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 침략에 내몰기 위하여 비법적으로 꾸며낸 침략적인 군사조약이다.

《한일조약》이 조인되기가 바쁘게 일본《자위대》통합막료회의 사무국장 요시에가 《한일국교정상화로 서울에 방위주재관을 두게 되므로 한국의 정세와 함께 북조선의 군사정세를 잘 알수 있게되》고 일《한》 군대들간의 《공동훈련도 할수 있》으며 무력배치에서도《효과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다.》고 환성을 올린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일본신문《도꾜신붕》 1965년 6월 22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자위대》의 조선파병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로골적으로 책동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일본 사또반동정부는 1966년 2월에 《유엔》의 간판밑에 《자위대》의 조선파병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엔협력법안》

이란것까지 서둘러 꾸며냈으며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한편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침략계획과 전쟁도발음모에 따라 일본군국주의무장력을 끌어들여 신성한 조국강토를 더럽히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고 있다.

괴뢰국무총리 정일권은 《일본은 유엔가맹국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침략이 재개된다면 이에 즉시 대응하는 재한유엔군의 지휘하에 일본이 활동하게 된다.》고 공개적으로 떠벌였다. (일본신문《마이니찌신붕》 1965년 8월 12일)

금년초에 있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당시 남조선괴뢰국방장관 김성은은 2월 일본방위청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여 《한국에서…일단 유사시 적극적인 군사적지원을 줄것을 요청하였다.》(서울발 《에이에프피》 1968년 2월 22일)

범죄적인 《한일조약》이 체결된 이후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도당의 새전쟁도발음모는 더욱 로골화되였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간의 군사적결탁은 더욱 강화되였다.

특히 이러한 결탁은 미제침략자들의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적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강화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책동은 1966년 10월말부터 11월초에 미제의 전쟁두목 죤슨의 남조선《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죤슨의 남조선《방문》과 때를 같이하여 미제의 특무 김종필이 일본방위청장관과 함께 워싱톤에 불리워가서 2주일간이나 계속한 비밀회담, 1967년 3월 남조선괴뢰국무총리가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여 벌린 회담들, 같은해 5월의 《일미안보협의위원회》, 이에 뒤이어 있은 미국동남당국무차관보의 일본 및 남조선 방문, 7월의 미국, 일본, 남조선, 대만간의 서울 《수뇌자회담》 등등 주구들과 상전간에 거듭된 일련의 회담들에서는 미제침략자들의 전쟁도발에 일본이 어떻게 《협력》할것인가하는 문제들이 주로 토의되였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한일조약》체결 이후 각종 《대표단》, 《시찰단》의 명목으로 《자위대간부》들, 이전 군인들, 군사교관들을 련이어 남조선에 파견하여 군사시설과 괴뢰군부대들을 시찰하고 밀담들을 진행하게 하였다.

1966년초에 약 30명으로 구성된 일본 《재향군인》대표단이 공개적으로 남조선을 방문하고 주요군사시설들을 시찰하였으며 괴뢰군과의 군사적결탁을 모의하였다.

1965년 1월부터 1966년 4월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100여명에 달하는 일본군사관계자들이 남조선에 드나들었다. 1967년 9월에 일본반동정부는 박정희괴뢰도당과 군사적결탁을 강화할 목적으로 《주한일본대사관 무관》을 정식 파견하였다.

남조선에 일본 《무관》이 파견됨으로써 정보 및 첩보 부문과 작전용 군수품보급분야에서 쌍방간의 결탁은 더욱 강화되였다.

1967년 한해동안에 수십명의 쌍방정보 및 첩보장교들과 군사참모들의 호상 래왕이있었다.

《한일조약비준서》 교환이후 첫1년동안에 《엠—48형》땅크 22대를 포함하여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들이 일본으로부터 남조선괴뢰군들에게 대량적으로 공급되였는바 그 량은 미제침략군이 일본에서 조달하여 아세아각국에 공급한 무기와 군사장비의 30%에 달한다.

최근에 이르러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군수품보급은 일층 강화되고있다.

지금 대량의 전시용 휴대식량을 비롯한 군수물자들이 일본으로부터 남조선으로 수송되고있으며 금년내로 2천 858대의 대형디젤군용자동차가 공급되기로 약속되여있다. 일본 사또 반동정부는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하는 즉시로 일본이 이에 가담할수 있도록 《림전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작년부터 총경비 2만 3천 400억원을 들여 《제3차방위력정비계획》 (1967~1971)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계획은 《유사시에 신속히 사태에 대처하며 행동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수 있도록 후방체제를 충실히 하는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있다.

오늘 일본륙상 《자위대》간부양성기관인 《후지》학교에서는 미군의 《조선전쟁경험기록을 훈련교재》로 삼고있으며 부대들에서는 조선말 교육까지 실시하고있다.

《세개화살작전》계획에서 조선전쟁도발과 함께 미군기지에 이동배치되기로 되여있는 일본군대의 《나이크》, 《호크》 등 미싸일부대는 지금 이동훈련을 개시하였다.

공군에서는 호위전투기에 엄호된 수송기들이 공중기동돌입연습을 시작하였고 해군은 해상기동상륙연습들을 진행하고있다.

한편 륙군은 조선의 기후, 지형 조건과 류사한 지역에서 중장비를 갖추고 산악기동훈련을 본격화하고있으며 미일공군의 협동밑에 기동 《포위섬멸》 작전연습을 반복하고있다.

1967년 10월초에 일본륙상 《자위대》와 항공 《자위대》는 대규모적인 합동실전연습을 진행하였다.

《한일조약》체결후 미제침략군과 일본 《자위대》 및 남조선괴뢰군간에는 합동군사연습들이 련이여 진행되였다.

실례로 1965년 10월 일본 도꾜에 있는 미제 5공군사령부의 지휘밑에 재일미공군 《에프 105》형 비행기 50대, 남조선에 있는 미공군 《에프105》형 비행기 25대와 일본항공 《자위대》소속 비행기 연 1천 200대와 남조선괴뢰군비행기 20대의 참가밑에 미, 일, 《한》공군합동연습이 진행되였다.

1965년 12월에는 미제침략군의 해군과 남조선괴뢰해군 간에 대규모적인 반잠수함작전연습이 실시되였다.

1967년 5월에는 동해에서 미제침략군의 제7함대와 일본해상 《자위대》간에 합동공격연습이 진행된데 뒤이어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 간의 해군합동연습이 진행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작전준비를 다그치고있을뿐만아니라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도발을 위한 전투작전행동에 실제적으로 가담하여나섰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당시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무모한 행동이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일본을 근거지로하여 우리 나라 령해에 깊이 들어와 적대행위와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영웅적 조선인민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서 나포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광란적인 전쟁도발소동을 벌렸다.

미제의 전쟁두목 죤슨은 1월 23일 미태평양지구사령관을 통하여 일본에 있는 미제침략군에게 《비상전투경계》를 명령 (남조선신문 《경향신문》 1968년 2월 3일)하는 동시에 일본에 기항하고있다가 웰남으로 향하던 미제침략군의 원자력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제7함대 군함들을 동해안으로 진출시켜 우리 나라에 대한 전쟁소동을 일으켰다.

전세계 여론이 미제의 침략행위를 한결같이 규탄하고있을 때 유독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두목인 사또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침략자들을 적극 변호하여 나섰다.

뿐만아니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에 있는 기지들을 조선작전에 사용하도록 미제침략자들에게 허용하였으며 나아가 륙상 《자위대》와 해상《자위대》함대들도 《비상전투경계태세》에 들어가게 되였다. (일본통신 《지지》

1968년 3월 27일)

일본 《자위대》의 서부항공방면대는 후꾸오까현의 가스가기지를 중심으로 《경계태세》를 강화하였으며 미야자끼현의 니이다하라기지에 있는 제5항공단은 《에프 104》형비행기 50대로써《경계태세》를 취하면서 《막씸작전》이란것까지 실시하였으며 후꾸오까현의 쯔끼시로기지의 제8항공단은 《에프 86에프》형 비행기 150대로써 《긴급태세》를 취하였다.(일본신문 《니시니혼신붕》 1968년 2월 1일)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간의 군사적결탁과 그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얼마나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은 얼마전에 일본반동지배층들과 박정희괴뢰들 간에 오끼나와에 있는 미제침략군의 군사시설들을 남조선에 옮길데 대한 범죄적인 모의가 진행되였다는 사실에서도 알수 있다.

1968년 6월 17일 일본 《요미우리신붕》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에 남조선을 방문하였던 일본국회의원대표단과 남조선괴뢰 《국회의원들》간의 면담에서는 《오끼나와에 있는 메이스—비 등의 핵무기를 비롯한 주요전략기지와 미싸일요격망시설들을 제주도에 옮기 〈한〉일량국과 극동지역방위에 편하게》할데 대한 문제가 론의되였다고 한다.(프랑스통신 《에이에프피》 1968년 6월 17일)

이 모든 사실들은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적극적비호밑에 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저들의 범죄적계획을 구체적인 실천단계에 옮기고있으며 아세아와 나아가서 세계평화를 엄중하게 유린하는 위험한 세력으로 등장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 *

현실은 전체 조선인민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이 단결하여 일본군국주의침략적야망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일환입니다.》**라고 하시였다.

조선인민은 미제를 등에 업고 또다시 조선침략의 길에 나서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지난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고 그의 비호밑에서 조선을 병탄하고 아세아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뻗쳤고 파쑈독일과 이딸리아와 동맹을 맺고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고 발광하였으나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제 또다시《횡재》의 기회를 노리면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남조선에 기어들며 침략을 감행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책동하고있으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조선은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며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니다.

조선인민은 과거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겪은 치욕의 나날을 잊지 않고있으며 우리 인민을 닥치는대로 학살하고 우리의 재부를 략탈하고 우리의 말과 글과 생명까지 빼앗아가던 일본제국주의의 전고미문의 범죄행위를 결코 잊지 않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의 그 저주로운 력사가 되풀이되는것을 절대로 용허하지 않을것이다.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지난 시기의 력사에서 교훈을 찾을대신에 조일량국인민들과 아세아인민들, 그리고 전세계 인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추종하면서 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침략책동을 계속 감행한다면 그들은 도죠히데끼 등과 같은 비참한 말로를 면치 못할것이다.

비법적인 《한일조약》은 폐기되여야 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은 저지되여야 하고 분쇄되여야 한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된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략을 결코 용허하지 않을것이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인민의 해방과 조국통일의 위업을 기어코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전세계 모든 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이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새 전쟁 도발소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리라고 확신한다.

1968년 7월 6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일본반동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의 일본재입국을 거부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일본사또반동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억압말살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책동하면서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계속 집요하게 방해하고있다.

일본반동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의 일본재입국허가를 부당한 구실을 붙여 그를 거부하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은 일본반동정부의 이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을 즉시 취소할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꾜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었다.

도꾜지방재판소는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일본재입국불허가취소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얼마전에 그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의 일본재입국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한 일본반동당국의 처사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도꾜지방재판소의 판결은 재일조선공민들의 자기 조국으로의 자유래왕을 일본반동당국이 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반동당국은 부당한 정치적목적으로부터 도꾜지방재판소의 결정이 《마땅치않다.》고 문제를 다시 상급재판소에 《공소》하는 행위를 감행하고 지금까지도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의 일본재입국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일본반동정부가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의 일본재입국허가를 거부하며 그들의 조국으로의 자유래왕을 공공연히 방해하고있는데 대하여 치솟는 격분으로 그를 견결히 규탄한다.

재일조선공민들이 자기 조국에로 자유로이 래왕하는것은 그들의 당당한 권리이다.

일본에 살고있는 조선공민들은 지난날 일제의 조선강점과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일본에 끌려가 참을수 없는 민족적박해와 고역을 강요당하다가 기우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일본반동정부는 과거 조선인민앞에 지지른 엄중한 죄과로 보나 국제법과 인도주의적원칙에 비추어보나 재일조선공민들을 마땅히 보호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회피할수 없는 법적 및 도의적 의무를 지니고있다.

오랜 세월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조선공민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보고 부모친척들을 만나려고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들의 기본인권에 속하는 문제이다.

더우기 근 8만 9천명의 재일조선공민들이 자기들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귀국한 조건에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아직 일본에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 친척, 친우들이 일시 조국에 왔다가는것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재일조선공민들속에서 이미 조국에 왔다갈것을 요망한 건수는 근 2천건에 달하며 그것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일본반동정부는 일본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래왕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독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해서만 20여년간이나 조국에로의 래왕과 해외에로의 려행을 가로막고있으며 사실상 그들을 감금된 상태에 밀어넣고있다.

이것은 일본반동정부가 일관하게 추구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또하나의 로골적인 표현으로서 60만 재일조선공민들의 기본인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이다.

재일조선공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발전하는 사회주의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이다.

그들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의 일본재입국을 비롯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전면적인 자유래왕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재일조선공민들의 이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지금 일본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의 광범한 일본인민들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옹호하며 그들의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보장할것을 요구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일본 사또도당이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에로의 자유래왕을 가로막을 어떠한 리유와 근거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가담하며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과 결탁하여 남조선재침을 더욱 강화하려는 악랄한 목적에서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날로 더욱 짓밟고있는것을 결코 용허하지 않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일본반동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의 일본재입국불허가처분을 즉시 취소하며 그들의 조국으로의 래왕을 당장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반동당국은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차별정책을 당장 중지하며 재일조선 공민들의 조국에로의 자유래왕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한다.

만약 일본반동정부가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에로의 자유래왕의 권리를 포함한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계속 유린한다면 조일 두 나라 인민들과 세계여론의 더욱 준렬한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이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1968년 11월 5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유엔총회 제23차회의에 제출하는 소위 《년례보고》를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이《년례보고》의 기만적본질을 폭로규탄하여)

10월 14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유엔총회 제23차회의에 제출하는 소위 《년례보고》를 발표하였다. 이 《년례보고》는 언제나와 같이 해마다 써오는 케케묵은 낡은 소리를 그대로 되뇌이면서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가리워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였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란것이 미제침략자들의 침략과 전쟁행위를 유엔의 간판으로 감싸주기 위한 목적에서 조작된 어용도구라는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이번 《년례보고》도 저들의 이 더러운 정체를 스스로 더욱 드러내놓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년례보고》의 기만적본질을 폭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이번 《년례보고》에서 우선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범죄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가리우기 위하여 급급하였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년례보고》에 다루어져있는 그 기간이야말로 미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어느때보다도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친듯이 벌린 때이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1968년 1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일찌기 없었던 대대적인 규모로 침략적 무력을 우리 나라 동해안일대와 남조선에 끌어들이면서 지상, 해상, 공중으로부터 련이어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일의의 시각에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수 있는 극도로 긴장된 정세를 조성하여 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정전이후 미제침략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한 군사적도발행위와 특히 최근년간에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는 새전쟁 도발책동에 대하여 이미 1968년 7월 25일부 자기의 비망록에서 구체적으로 폭로지적한바 있다.

미제침략자들이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이후 지난 10월 20일까지만 하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한 군사적도발행위와 정전협정위반행위는 무려 8천 400여회에 달하였으며 이 기간에 우리측 지역을 반대하여 쏘댄 총포탄수는 19만 4천여발에 달하였다.

11월중에도 미제침략자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11월 3일 미제침략자들은 전선일대의 여러지역에서 수백명의 무장악당들과 장갑차들을 동원하여 무장공격을 감행하여 4만여발의 총포사격을 가하여왔다.

11월 5일에는 5개의 각이한 지역에서 공화국북반부를 향하여 총포사격을 가하였으며 전선동부에서는 미제침략군의 무장인원 300여명이 3대의 땅크의 엄호하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공격을 시도하였다.

11월 16일과 17일에도 미제침략군무리들은 우리측 지역에 대한 발악적인 습격행동을 감행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세력까지 적극 끌어들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침략군의 모든 군사적도발행위들은 그때마다 조선인민군 초병들의 즉시적인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섬멸적인 복타격을 받고 소멸 또는 격퇴되였다.

지금 조선에서의 평화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참을성 있는 노력에 의해서만 유지되고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년례보고》는 미제침략자들의 악랄한 새 전쟁 도발

행위에 대하여 전혀 입을 다물었다. 그대신 있지도 않은 소위 《북으로부터의 위협》를 운운하는 상투적인 반공나발로써 미제침략자들의 전쟁도발행위를 감싸주고 아무 근거도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중상비방하는데만 골몰하였다.

《년례보고》는 미제침략자들의 날강도적정체를 남김없이 드러낸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나 미제침략자들의 책임을 벗기보려고 헛되게 시도하였다.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의 계획적책동의 일환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해깊이 침범하여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는것은 《푸에블로》호가 가지고있던 문건기록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물질적 증거들과 이 함선의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여러차례에 걸친 자백에 의하여 이미 완전히 세상에 드러났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그 어떤 허위날조와 반공소동으로써도 검은것을 흰것으로 뒤엎을수 없으며 사태의 진상을 감출수 없다.

모든 사실은 오늘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험이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평화가 위협을 받고있는 화근이 전적으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발악적침략책동에 있다는것을 똑똑히 말하여주고있다.

2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년례보고》는 또한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식민지통치의 참담한 후과를 감춰보려고 있는 힘을 다썼다. 이 목적으로부터 《년례보고》는 남조선의 《안정된 상태》이니 《경제의 장성》이니 하는 허황한 잡표대갈은 소리를 수다히 늘어놓았다.

그러나 수백만의 실업자 및 반실업자가 도시와 농촌에 차고넘치고 수십만의 거지들이 떼를 지어 거리를 헤매고있는것이 오늘의 숨길없는 남조선현실이다. 생활고에 참다 못하여 일가족 집단자살을 하는 참극이 가장 많은것으로써 세계 1등급이며 인구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것으로 세계 1등급인 오늘의 남조선사회에서 과연 무슨 《안정》과 《경제의 장성》에 대하여 말할수 있는가?

남조선에서는 벌써 20년이상이나 미제침략자들의 가장 반동적인 식민지군사파쑈통치가 실시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괴뢰정권을 앞잡이로 리용하여 신식민주의적방법으로 남조선의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가난과 굶주림,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생지옥에 몰아넣었다.

남조선출판물들도 지금 《우리 경제는 파탄으로 줄달음치고있다.》(남조선잡지 《신동아》 1968년 3호), 《그릇된 정책때문에 농촌은 파탄되고 공업화자체도 위기에 빠지게 되였다.》(남조선잡지 《사상계》 1968년 7호)고 쓰고있다.

남조선통신보도들은 남조선괴뢰도당의 어용 《로조》까지도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생계비의…3분의 1밖에 안된다》고 인정한 사실을 전하고있다. (서울 1968년 6월 25일발 남조선통신 《동화》)

바로 미제침략자들은 소위 《원조》의 미명하에 남조선을 그 무슨 《민주주의진렬장》으로 만든다고 떠들었으나 그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의 참담한 후과가 세계에 악명을 떨치게 되자 최근년간에는 남조선괴뢰도당과 함께 공공연히 온갖 통계수자를 위조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례컨대 1965년에 발표된 남조선의 1964년도 국민소득액은 1967년에 24.5%나 더 늘구어 발표되였으며 1965년도와 1966년도에 발표된 그해의 쌀생산량들은 1967년에 와서 각각 100만섬씩이나 더 늘구어 발표되였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협잡놀음에 대하여 남조선출판물들도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있다.

《불과 몇해전만 해도 빈곤선을 훨씬 하회하는 세계최하위의 소득국이였던 우리가 요즘에 와서 갑자기 1인당 국민소득이 110딸라 50센트로 마술같은 조화를 부렸는데 《국민총생산고를 그만큼 증가시킨것은 누구나 다 아다싶이 수자의 수정에 불과하며 국민생활향상과 결부되는 새로운 생산증가는 아니》다. (남조선잡지 《사상계》1966년 8호)

남조선신문 《국제신보》는 《공화당정권의 모든 통계수자는 허위조작인것이다.》라고 폭로하였다. (서울 1968년 1월 16일발 남조선신문 《국제신보》 사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년례보고》가 떠들고있는 남조선에서의 경제의 《장성》에 관한 진상의 일단은 이러하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현지근무자들은 통계수자를 날조하고 현실을 미화하는것으로써도 파멸상태에 빠진 남조선농업의 참상을 더는 감출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가소롭게도 《부득이한 자연재해》를 운운하는것으로써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악독한 후과를 감싸보려 하였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속임수에도 넘어갈 사람은 없다.

얼마전 남조선괴뢰도당이 발표한바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는 래년도에도 216만톤의 량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1968년 10월 25일 남조선방송 《기독교방송》)

과거 조선의 곡창지대로서 해마다 수백만석의 쌀을 수출하던 남조선이 이제와서 해마다 수백만톤의 양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는것은 사실상 남조선농업이 최악의 파멸상태에 빠졌다는것을 똑똑히 말하여준다.

이것을 어찌 한낱 《자연재해》의 결과라고만 할수 있겠는가? 그것이 당치않은 소리라는것은 남조선과 같은 기후조건이나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전혀 판이한 현실이 펼쳐지고있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금년에도 수개월이나 지속된 전례없이 혹심한 가물을 겪었으나 인민의 손에 주권이 쥐여져있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어 력사상 류례드문 대풍작을 이룩하였다.

오늘 남조선농업이 겪고있는 파국적위기는 남조선출판물들이 지적하고있는바와 같이 《천재가 아니라 인재에 의한것》이다. 즉 그것은 20여년동안에 걸친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가혹한 농촌수탈정책의 직접적후과이다. 미제의 잉여농산물의 강매, 군사적목적을 위한 농토의 무제한한 징발과 헐값에 의한 농산물의 강제수매, 그리고 원래 얼마 있지도 않던 관개수리시설을 비롯한 농업시설들을 내버려두거나 파괴한 결과에 남조선 농민은 불가피하게 해마다 파산몰락되여왔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제아무리 교활한 기만수법을 쓴다 하더라도 미제의 악랄한 식민지략탈정책의 결과에 빚어진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미제의 야만적식민지통치가 지배하고있는 오늘의 남조선에서 그 어떤 《안정》에 대하여서는 더구나 말조차 할수 없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인민들의 반항이 있는 법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더는 그대로 살래야 살수 없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각종 형태의 투쟁을 날로 과감히 벌리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임금을 인상하고 생활조건의 개선을 요구한 3만여명 철도종업원들과 1만 5천여명 체신부문종업원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계속 [illegible]

벌어지고 있다.

6월 8일에는 《대한석탄공사》의 1만 3천여명 로동자들이, 8월 16일에는 체신 《로조》의 2만여명 종업원들이 임금인상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10월에는 미제침략군에 고용된 오산지구의 1천 500여명 로동자들이 미제침략자들의 가혹한 착취와 민족적멸시와 학대를 반대하여 투쟁을 벌리였다.

미제침략군이 일상적으로 감행하고있는 야수적만행과 민족적멸시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8월 양주지구주민들이 《폭력미군 잡아내라!》는 구호를 웨치며 미제침략군의 병영으로 밀려간것과 같이 날로 반미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남조선농민들속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수탈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이 날로 크게 벌어지고있다. 지난 7월 경상북도 영일군내 4천여명의 농민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군사적목적을 위하여 수많은 토지를 략탈한데 격분하여 들고일어나 싸웠으며 전라북도 익산군농민들은 괴뢰당국에 몰려가 파멸상태에 빠진 농사대책을 세우라고 들이대며 싸웠다.

도시주민들과 령세상인들도 미제와 그 주구들의 학정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나고있다. 지난 10월에도 서울시 수천명의 상인들은 《과중한 세금부과》를 반대하여 투쟁에 나섰다. 서울시내의 곳곳에서 수백명 시민들이 남조선괴뢰도당의 판자집강제철거를 반대하여 괴뢰경찰들을 몽둥이로 까부시며 견결히 싸웠다.

미제와 남조선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매번 가혹한 류혈적탄압으로 대하고있다. 그러나 놈들의 어떠한 파쑈적폭압도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꺾을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가혹한 파쑈테로통치밑에서 앉아서 죽느니보다는 차라리 일어서서 싸워야 한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무장유격투쟁에 일떠섰다.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반미 구국항전에 나선 남조선의 혁명적무장유격대는 금년에 들어와서도 매국역적박정희일당의 소굴이 자리잡고있는 서울한복판에까지 진출하여 영용한 무장투쟁을 벌린것을 비롯하여 날로 그의 활동지역을 확대하고있다. 지난 7월에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11월에는 경상북도의 울진, 강원도의 삼척, 정선, 명주, 평창, 령월 등지에서 무장유격대들이 나타나 괴뢰군경들을 기습소탕하고있다.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벌어지고있는 혁명적무장유격대들의 활동과 로동자, 농민, 어민, 군인, 청년학생, 언론인, 교육자 그리고 량심있는 민족자본가를 포함한 광범한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은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으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고있으며 그들을 일대 혼란에 몰아넣고있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미제국주의상전의 목소리를 그대로 되뇌이면서 남조선도처에서 일어나고있는 애국적인민들의 혁명적투쟁을 《북조선의 침투》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공소동은 이미 오래전에 그 밑창이 드러난 철면피하고 어리석은 기만술책에 지나지않는다.

최근에 남조선괴뢰도당이 《북조선의 소행》이라고 떠들어댄 통일혁명당사건 하나만을 두고보아도 이사건에 관련된 100여명의 혁명투사들은 모두다 남조선의 대학교수, 언론인, 군인, 공무원들이였다. 과연 어떻게 이러한 사건을 북조선사람들의 소행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일본의 부르죠아신문들까지도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무장유격투쟁을 《남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이라고 보도하였다. (1968년 1월 31일 남조선방송 《기독교방송》)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정치경제적위기는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미제의 식민지통치 그 자체의 산물이다.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한 온갖 식민지적략탈과 만행들은 현대제국주의침략력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한 페지를 남겨놓았다.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 주저앉아 식민지파쑈통치를 계속하는 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미구국항전의 불길이 날로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되는것은 불가피하다.

3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년례보고》에서 수다한 허위와 날조를 늘어놓은 다음 《현정세하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과 《유엔군》이 남조선에 계속 주저앉아 있는것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떠벌였다. 그러면서 《유엔의 목적》이니 조선통일을 위한 이른바 《유엔감시하의 선거》니 하고 떠들었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방대한 부피를 가진 《년례보고》라는것을 내놓고 뭐니뭐니 하고 지껄였으나 구경 그들이 하자는 소리는 이것이였다. 즉 남조선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과 그의 야만적식민지통치를 유엔의 기발로서 감싸주자는것이다.

바로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기때문에 조선의 분렬은 한없이 지속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광란적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인하여 조선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극도로 긴장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제의 악랄한 식민지파쑈통치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은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당하고있다. 그런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그의 《년례보고》에서 이 모든 사태발전이 《유엔의 목적》에 부합되는것이라고 하며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뇌까린것이야말로 유엔의 헌장과 목적에 대한 더없는 모독이며 우롱이다. 외래제국주의침략군이 남의 나라 절반땅을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며 새 전쟁 도발을 일삼고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적통일을 방해하는것이 결코 유엔의 목적으로 될수 없다.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입버릇처럼 떠벌이는 이른바 《유엔감시하의 선거》라는것도 그 실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하나의 방패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사람이 자기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를 하는데 무엇때문에 미제침략군대가 주둔한 조건에서 《유엔의 감시》를 받아야 하겠는가? 이것은 조선인민의 자주권이 허락지 않는다. 조선사람이 선거를 할줄 모르거나 자기이름을 쓸줄 몰라서 외국사람의 감시를 받겠는가?

조선의 통일문제는 본래부터 단일한 민족이던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민족적통일을 회복하는 민족내부의 문제로서 오직 조선사람자신에 의하여서만 해결될수 있다.

조선의 내정에 외부세력이 간섭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언제나 조선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남북조선의 정당 단체 및 개인들이 남북조선 전지역을 통하여 완전히 자유롭게 래왕하며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조건하에서 남북조선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통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중앙정부를 수립할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 정당한 평화적통일방안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매번 침략적도발책동으로 대답하였다. 미제의 지시밑에 남조선괴뢰도

당은 《승공통일》을 소위 《국시》로 선포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능가할 《실력》을 배양하게 될 1970년대 후반기까지는 통일문제를 론의할수 없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며 남조선인민들이 평화통일이란 말만하여도 무조건 검거, 투옥, 학살하고있다. 남조선출판물들도 《…교도소에 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통일문제를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것이다.》라고 쓰고있다.(남조선신문 《강원일보》 1967년 2월 1일)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저들의 이 범죄적책동을 가리우는데 《유엔감시하의 선거》란 허울좋은 간판을 내세우고 있다.

《유엔감시하의 선거》란것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은 남조선에서 거듭 실시된 악명높은 부정협잡 《선거》 놀음 자체에 의하여 남김없이 드러났다. 요컨대 그것은 미제침략군의 총검의 위협밑에 제멋대로 날조한 《선거》 결과를 유엔의 이름으로 합법화하는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자유로운 남북총선거의 실시를 한사코 반대하는것은 바로 놈들이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배격당하고 있기때문이다.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침략자들의 총검의 비호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더러운 매국배족의 무리들이다.

유엔은 이 이상 미제의 침략도구로 리용되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괴뢰도당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는 위장물로 되지 말아야 한다. 원래 유엔은 조선문제에 관여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 유엔은 그의 헌장에 비추어보아 조선인민자신이 해결할 내부문제인 조선통일문제에 간섭할것이 아니였다. 더우기 유엔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 전쟁에 그 기발을 도용당함으로써 조선전쟁의 교전일방으로 전락되였다. 지금도 판문점의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장 탁상우에는 미제침략군측을 대표하여 미국놈의 기발이 아니라 유엔의 기발이 놓여있다.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유엔의 기발을 남부월남의 침략전쟁터에도 서슴없이 들고갔다. 이처럼 유엔의 기발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제멋대로 짓밟히고 더럽혀졌다.

만약 유엔이 진정으로 그의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게 행동하려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년례보고》와 같은 수치스러운 위조문건을 기초로한 《조선문제》의 토의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하며 이때까지 미제가 유엔헌장에 위반되게 강압적으로 조작해낸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의 모든 비법적 《결의》들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미제의 딸라에 매수된 직업적사기한들의 어용집단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것 이것은 조선통일문제해결의 선결조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선통일문제를 어디까지나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그의 근본립장에서 지난 시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문제에 대한 기본 립장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1968년 7월 18일부 비망록에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천명한바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문제에 대한 자기의 공명정대한 립장이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 및 기타 세계각국 정부들과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으리라고 확신한다.

1968년 11월 25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성명

(미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백과 관용성을 베풀어 줄데 대한 간절한 청원 그리고 미국정부의 사죄와 앞으로 그와 류사한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데 대한 담보를 고려하여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을 공화국북반부경외로 추방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의 범죄행위를 가리워보려고 집요하게 시도하다가 더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게 되자 하는수없이 12월 23일 저들의 죄행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사죄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무장간첩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죄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며 벌써 이렇게 했어야 할것이였다.

이미 세상에 낱낱이 드러난바와 같이 지난 1월 23일 조선인민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나포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해에 열일곱번이나 침입하여 우리 나라의 중요한 군사적 및 국가적 기밀을 정탐하였으며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한 이 날강도적인 해적행위는 조선에서 새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계획적인 책동의 일환이였다.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나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주권의 행사였으며 침략자들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푸에블로》호가 우리 나라 령해에서 나포되자 놈들의 침략적본성을 더욱 낱낱이 드러내놓았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 연해와 남조선에 륙해공군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하여 전쟁태세를 갖추며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면서 그 누구를《위협》해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는 한편 《푸에블로》호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며 세계여론을 오도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파렴치하게도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될 당시에 《공해상》에 있었으며 《어떠한 범죄행위도 감행하지 않았다》고 떠벌였다. 놈들은 《푸에블로》호가 우리 나라 령해에 침입하여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한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그에 대하여 사죄하는 문건에 서명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와 같은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모면해보려고 집요하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푸에블로》호의 범죄사실을 립증하는 승무원들의 자백과 각종 물질적자료앞에서 더는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고 범죄를 조직한 책임에서 빠져나갈수 없게 되자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여러차례 침입하여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다시는 어떠한 미국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것을 확고히 담보한다고 하면서 승무원들을 관대히 처분하여줄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문건에 서명하여 그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미제침략자들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의미하며 미제의《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린 조선인민의 또하나의 커다란 승리로 된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은 현행간첩범들로서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의 법에 의하여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것이나 그들이 자기들의 죄행을 솔직히 자백하면서 관대히 용서하여줄것을 청원하였으며 미국정부가 해당한 사죄와 담보를 한것을 고려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들 승무원들을 공화국북반부경외로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와 그에 설치된 모든 기재와 무기들은 우리나라 령해에 침입하여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하는데 사용된 침략과 범죄의 수단이였기때문에 나포와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 의하여 몰수되였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격분을 불러일으켰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은 미제의 치욕스러운 침략력사에 영원히 기록될것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이 엄연한 사실을 지워버릴수 없을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은 《푸에블로》호 사건에서 당한 수치와 패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오늘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무력을 증강하고 각종 살인무기들을 끌어들이면서 전쟁준비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한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미제의 침략과 도발 행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또다시 감행한다면 그들은 더욱 준엄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1968년 12월 23일

평 양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

조선중앙통신사는 위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미제의 거듭되는 요청에 의하여 그동안 판문점에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승무원문제를 토의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와 미국정부대표들의 회의가 여러차례에 걸치 진행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지난 1월 23일 우리 나라 령해에 침입하여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범행현장에서 조선인민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나포된 후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의 범죄사실을 가리우며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온갖 파렴치한 책동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써도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저지른 죄행은 은폐할수 없게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수 없게 되자 12월 23일 판문점회의에서 미국정부를 대표하여 미륙군 소장 길버트 에이치 우드워드는 다음과 같은 사죄문건에 서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미합중국정부는 1968년 1월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서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나포된 미국함선 〈푸에블로〉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여러차례 불법침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요한 군사적 및 국가적 기밀을 탐지하는 정탐행위를 하였다는 이 함선의 승무원들의 자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가 제시한 해당한 증거문건들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미국함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침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엄중한 정탐행위를 한데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다시는 어떠한 미국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것을 확고히 담보하는바입니다.

이와 아울러 미합중국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에 의하여 몰수된 〈푸에블로〉호의 이전 승무원들이 자기들의 죄행을 솔직히 고백하고 관용성을 베풀어줄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청원한 사실을 고려하여 이들 승무원들을 관대히 처분하여줄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의 자백과 청원 그리고 미국정부의 해당한 사죄와 담보를 고려하여 그들을 공화국북반부경외로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이전 승무원 전원이 1968년 12월 23일 11시 30분에 판문점을 통하여 공화국북반부경외로 추방되였다.

1968년 12월 23일

사회단체 성명들

전세계 인민들에게 고함

조선에서 감행한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국제 민주단체들과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적인 사회단체들!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전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한 가지가지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당신들앞에 폭로제소한바 있다.

국제민주단체들과 세계 광범한 민주주의적사회단체들 그리고 평화애호인민들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준렬히 규탄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여나섰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의연히 남조선을 강점하고 천인공노할 범죄적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지난 20여년간 우리 조국을 분렬시키고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반대하면서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한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들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인민들의 《원조자》로, 《벗》으로 가장하여나서면서 발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살인과 강간, 파괴와 략탈의 참극을 빚어내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자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진정한 인민의 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강제해산하고 파쑈적군정을 실시하였으며 1948년에는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식민지괴뢰정권을 조작하고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을 혹독하게 탄압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 수립된 식민지파쑈통치제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류례없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선정전이 실현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는 의연히 남조선을 강점하고 새 전쟁 도발에 광분하면서 날을 따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폭압을 강화하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군에 의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당하고있으며 부녀자들이 릉욕당하고있으며 조선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과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고있다.

남조선땅에서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감행되고있는 악착한 범죄행위는 인류의 수치이며 응당한 규탄을 받아야 한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고있는 조선민주법률가협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기자동맹, 조선민주과학자협회, 조선학생위원회, 조선적십자회는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이후 지난 20여년간 감행한 만행의 일단을 폭로하면서 다시한번 이를 국제민주단체들과 각국 민주주의적 제 사회단체들 그리고 전세계 인민들앞에 제소한다.

(1)

일제의 패망을 계기로 그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그곳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온갖 전횡과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그들은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는데 장애로 되는 모든 진보적인것, 민주주의적인것, 애국적인것들을 모조리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날뛰였다.

미제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언론, 출판 기관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자유와 민주주의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학살하였다.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데 습성된 미제침략군은 또한 도처에서 매일과 같이 무고한 남조선주민들에 대한 살상폭행을 감행하였다.

일찌기 1946년 5월 미제는 소위 《정판사위조지폐사건》을 날조하고 수많은 애국자들을 검거투옥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공개할것을 요구하는 2천여명의 서울시민들에게 총탄을 마구 퍼부어 수다한 사상자를 내게 하였다.

미제침략군은 1946년 7월에 기업폐쇄를 반대하는 《조선화물자동차회사》의 로동자들을 습격하여 수십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270여명을 검거하였으며 그해 8월에는 전라남도 무안군 하의도에서 강제공출을 반대한다고 하여 수다한 농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1946년 8월 15일 미제침략군은 민족의 해방기념일을 경축하기 위하여 모인 전라남도 화순탄광 로동자들에게 비행기와 전차까지 동원하여 무차별사격을 퍼부어 30여명의 로동자들을 학살하고 50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1946년 9월 30일 미제는 서울철도부문 로동자들이 생활개선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요구한다고 하여 2천여명의 무장경찰과 전차까지 동원하여 수명을 학살하고 수십명을 부상시킨후 1천 700여명의 로동자들을 체포투옥하였다.

괴뢰치통계에 의하더라도 1946년 한해동안에 4천 2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미제침략군에 의하여 학살당하였다.

1947년 3월 1일 미제국주의자들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전민족적투쟁을 전개하였던 력사적인 날을 맞이하여 기념대회를 하고있는 수많은 서울시민들에게 사격을 가하여 그 자리에서 수십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1947년 8월 15일을 전후한 불과 20일 동안에 서울시에서만도 960여명의 애국자들이 미제의 테로단에 의하여 살해되였으며 1만 1천여명이 체포투옥되였다.

특히 1948년 5월에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괴뢰 《정권》을 조작하고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후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수십만명의 남조선인민들을 집단학살하였다.

1948년 5월 10일 하루동안에만도 미제는 저들이 조작하는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하여 416명이나 학살하였으며 858명을 부상시켰다.

미제침략자들은 당시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의 군사고문단장 로버트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1948년 4월부터 10개월간에 제주도에서만도 3만 5천여명의 주민들을 학살하고 1만여호에 달하는 민가를 소각하였다.

1950년까지에는 제주도 총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만여명의 주민들

을 학살하였다.

1948년 10월 려수와 순천에서 제주도인민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반대하여 남조선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때 미제침략군은 비행기, 전차, 군함까지 동원하여 5천여호의 가옥을 소각하고 6천여명의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순천에서는 폭동군을 도와주었다는 리유로 120여명의 녀학생을 잡아다가 야수적방법으로 학살하였으며 300여명의 주민들을 순천국민학교에 수용하였다가 그중 200여명을 그 자리에서 총살하였다.

1949년 5월 경주시 황룡리에서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17명의 주민들을, 영덕군에서는 101명의 주민들을 각각 학살하였다.

1949년 경상북도 문경군을 비롯한 7개의 군에서 1만 9천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학살되였다.

1949년 12월 24일 미제침략군은 경상북도 문경군 진남리에서 22호의 농가를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23세대의 가족 82명을 마을앞 논바닥에 끌어내다 총살하고 그 시체에 불을 질렀다.

문경군의 다른 한 산간부락에서는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50여명의 주민들을 구덩이 앞에 몰아세우고 기관총으로 집단학살하였다.

미군사고문단장 로버트는 문경군에서의 이 학살만행을 촬영한 사진을 꺼내보이면서 남조선괴뢰들에게 《인도주의적견지에서 본다면 이런짓은 악한 것이라고 할는지 모르나…당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저 한다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수 있다는것을 마음속에 박고있어야 한다》고 거리낌없이 떠벌이였다.

미제의 이와 같은 잔악한 학살만행으로 인하여 1949년 1년동안에 10만 9천여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이 학살되였으며 11만 8천 600여명이 체포투옥되였다.

1949년 1월부터 1950년 2월까지에 20만호의 농가가 소각되여 100여만의 농민들이 집을 잃었다.

미제침략군의 각종 만행은 이밖에도 략탈과 인간도살에 습성이 된 개별적인 미군에 의해서도 이루 헤아릴수 없이 감행되였다.(이상 자료들은 주로 당시의 남조선출판물, 통신 및 방송들에 근거하여 몇가지 사실을 종합한것이다)

다음에 미제침략군이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이전시기에 남조선에서 감행한 수많은 범행중에서 몇가지 개별적인 실례를 들기로 한다.

1945년 11월 13일 3명의 미제침략군은 서울시 무교정길가에서 지원대에게 동인 날러들어 한명은 권총을 기누어 위협하고 한명은 그의 눈을 가리우고 나머지 한명은 그를 마구 때린후 몸을 뒤지여 손목시계와 기타 금품을 강탈하여가지고 도망쳤다.(남조선신문 《자유신문》 1945년 11월 15일)

1946년 3월 6일 서울시 북아현정길가에서 미제침략군 3명은 《자유신문사》 기자 금철에게 권총을 들이대어 협박한후 현금 80여만원과 만연필, 기자증, 수첩 등을 강탈하여가지고 도망쳤다.(남조선신문 《자유신문》 1946년 3월 8일)

1947년 1월 7일 호남선렬차안에서 24명의 미제침략군은 어린이를 업은 조선녀성 3명을 변소에 가두고 륜간한후 구타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남조선신문 《자유신문》 1947년 1월 11일)

1947년 1월 16일 부산시 미미식당에 침입한 수명의 미제침략군은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여 주인 김상룡(34세)을 의자로 마구 때려 즉사케하였다. (남조선신문 《자유신문》 1947년 1월 22일)

1947년 1월 24일 미제침략군 중위를 비롯한 15명의 《미군미곡공출독려대》 대원들은 전라남도 라주군 남평면 부락 농민들의 집에 침입하여 쌀을 강탈하며 수많은 농민들을 체포구금 고문하는 등 폭행을 감행하였으며 김삼백(42세)농민의 이마를 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남조선신문 《서울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자유신문》 1947년 1월 28일)

1948년 6월 8일 미제침략군비행사들은 독도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고있던 남조선어선들을 목표로 삼아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가하여 11척의 선박을 침몰시키고 14명의 어민들을 살해하는 극악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남조선신문 《경향신문》 1948년 6월 16일, 18일)

1948년 6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미제침략군 2명은 17세나는 조선녀성 김정자를 산에 강제로 끌고가서 륜간하여 내장파렬상을 입혔다.(남조선신문 《서울신문》 1948년 7월 1일)

1948년 8월 28일 미제34부대소속 미제침략군 1명은 길가던 조선녀성(21세)을 권총으로 쏘아죽이고 범행의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려행중 병으로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여 매장해버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남조선신문 《경향신문》 1948년 9월 4일)

1949년 6월 20일 인천항에 주둔하고 있던 미제침략군 1명은 길가는 조선사람들에게 부탁대고 총질하여 그중 1명을 머리관통상을 입혀 즉사케 하였으며 최진대에게 복부관통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였다.(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49년 6월 23일)

남조선출판물들에 발표된 미제침략군의 이러한 만행자료들은 그들이 실제로 감행한 만행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침략군은 저들이 감행한 범죄행위들중 드러난것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수많은 범죄행위들을 모두 감추고 범죄자들을 아무 처벌도 없이 그대로 반입하군하였다.

1950년 조선인민군에 의하여 서울시가 해방되였을 때 로획한 《남조선주둔 미제25범죄수사대》의 조서에 의하면 엄중한것만 추려보아도 1948년과 1949년사이에 감행된 미군의 범죄건수는 근 300건이나 된다. 그중 몇가지를 렬거하면 다음과 같다.

1948년 1월 19일 미제6기병정찰부대 긴설대소속 2등병 에드워드 지. 가비온스키는 보초를 서고있던중 병영부근을 지나가던 김정호에게 총을 쏘아 죽사게 한후 그의 주머니를 뒤지 현금 3만원을 략취하였다.(1948년 1월 20일부 《남조선주둔 미군제25범죄수사대》—이하 《씨아이디》라고 략칭함—조서 1228호)

1948년 2월 19일 인천에 주둔하고있던 미제514보급중대소속 2등병 챠스 엘. 맥다니엘스와 안드레우 이. 밀러는 배호준의 사진관에 침입하여 권총으로 주인을 협박한후 4만원에 해당하는 루광지를 강탈하여가지고 도망쳤다. (1948년 2월 24일부 《씨아이디》 조서 168호)

1948년 3월 7일 2명의 미제침략군은 경기도 인천에 사는 배만원(23세)과 그의 처가 인천려관부근을 지나가고있을 때 배만원의 등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다음 그의 처를 강간하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다.(1948년 3월 26일부《씨아이디》 조서 199호)

1948년 4월 21일 미제9위생대본부소속 중사 캔니스 오스틴 외 2명의 미제침략군은 《조선로동보험회사》를 습격하여 금고를 파괴하고 120만원을 강탈해가지고 도망쳤다.(1948년 5월 28일부 제13《씨아이디》 조서 248호)

1948년 5월 10일 미제578가스공급중대 소속 중사 유잔 알. 윌리스는 자기가 가지고있는 카빙총이 정상적인가를 실험해보기 위하여 서울시 룡산구역 룡산세탁소앞을 지나가던 피상율(39세)을 향하여 두발의 총탄을 발사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그를 즉사시켰다. (1948년 5월 10일부 제25《씨아이디》 조서 341호)

1948년 6월 6일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미제971중앙첩보대《씨아이씨》소

속 중위 헨리 씨. 메리트는 술에 만취되여 권총을 뽑아들고 다니다가 아무 리유없이 김명성(25세)의 배에다 총을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1948년 6월 29일부 제24 《씨아이디》 조서 1308호)

1948년 8월 4일 미제216보급대대 75운수트럭중대소속 1등병 왈라스 웜슨은 미제침략군부대 식당에 고용된 조선인 리영철이 술을 마시고 식당에 들어왔다는 생트집을 걸어 그를 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1948년 8월 13일부 제25 《씨아이디》 조서 529호)

1948년 8월 31일 미제504공병대소속 2등병 로버트 제이. 필립스와 기타 2명의 미제침략군은 리관식(남자)과 함께 길가던 2명의 조선녀성을 붙잡아 저들의 병영변소에 가두고 륜간하였으며 리관식에게는 군견을 풀어놓아 물어뜯게 하고 카빙총탁으로 가슴을 내리쳐서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948년 9월 11일부 제25 《씨아이디》 조서 566호)

1948년 9월 11일 미제80공병대대 기지중대소속 엘버 지. 보륵쓰와 오스카 디. 캇트는 부산 광부동 길가에서 길가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때리고 칼로 찌르는 폭행을 감행하였을뿐만아니라 그를 말리는 문동문에게 달려들어 그의 배를 단도로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 도망쳤다.(1948년 10월 5일부 제24 《씨아이디》 조서 1277호)

1948년 10월 3일 서울에 주둔한 미제27특수복무중대소속 1등병 라챠드 지. 가드너는 12살나는 조선소년을 빈집에 가두어놓고 리유없이 때리고 칼로 찌른 후 그의 두 다리를 부러뜨리고 도망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1948년 10월 7일부 제25 《씨아이디》 조서 602호)

1948년 11월 10일 미제52통신부대소속 미제침략군 1명은 미군부대근처를 지나가고있던 고문숙(12세) 소녀에게 수류탄을 던져 그자리에서 즉사케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948년 11월 15일부 《씨아이디》 조서 649호)

1948년 11월 14일 서울—춘천간철도부근에서 사냥하고있던 한집단의 미제침략군은 지나가는 화물렬차를 향하여 총을 쏘아 기관사 김원수와 보조기관사 김히춘의 머리와 배에 중상을 입혔다.(1948년 12월 2일부 《씨아이디》 조서 666호)

1949년 1월 1일 미제54헌병중대소속 미제침략군 웨스레이 피. 비어스는 보초를 서던중 인천시내에서 사는 조장만이 급수탑에서 청소를 하고있는것을 보고 아무 리유없이 그에게 권총을 쏘아 즉사케 하였다. (1949년 1월 10일부 제25 《씨아이디》 조서 7호)

1949년 2월 19일밤 미제536중대소속 1등병 엘머 엘. 싸트러와 2등병 로버트 에스. 듀티는 경기도 인천 월미도에 있는 한영환의 집에 뛰여들어 그의 처를 자기들에게 양도할것을 강요하였다. 한영환이 이 강도적요구에 순응하지 않는다 하여 이 양키병사들은 《엠—1》 보총으로 위협사격을 하고 그를 혹독하게 때리는 한편 그의 장모인 리봉렬녀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후려갈기 왼편눈에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949년 3월 8일부 제25《씨아이디》 조서 35호)

1949년 3월 4일 미제 510공병시설부대소속 1등병 사무엘 켈레이와 레이몬드 제이. 에디슨은 경기도 인천 부평의 미군부대 부근을 지나가던 20여명의 조선녀성들에게 카빙총을 마구 쏘아 그들중 김순이(35세)를 즉사케 하였다. (1949년 3월 12일부 제25 《씨아이디》 조서 40호)

이처럼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남조선의 모든 지역에서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흉악한 만행을 수없이 감행하였다.

(2)

미제는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시기에 그들의 흡혈귀적본성을 더욱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미제는 조선침략전쟁에 자기 나라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해군함대의 주요부분과 15개추종국가 군대 및 남조선괴뢰군을 포함한 도합 200여만의 군대와 막대한 기술기자재들을 동원하여 전쟁 첫순간부터 가장 야만적이며 파괴적인 전쟁방법을 사용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모든 도시와 농촌을 무차별 폭격하여 재더미로 만들었으며 세균무기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살인수단을 사용하여 수많은 평화적주민들을 학살하였다.

전쟁기간 미제침략군은 그들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조선사람들을 남녀로소할것없이 닥치는대로 쏴죽이고 생매장하고 불태우고 배를 가르고 젖가슴을 도려내고 이마에 못을 박고 눈알을 뽑아내는 등 짐승도 낯을 붉힐 같은 악독한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여기에 그 몇가지 사실을 수록한다.

미제는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가 조선인민군의 영웅적반격에 직면하여 패주하게 되자 남조선의 도처에서 무고한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

그들은 수원에서 1천 146명, 충주에서 2천 60여명, 공주와 평택에서 각각 600여명, 부여와 청주에서 각각 2천명, 대전에서 8천 644명, 전주에서 1천여명, 군산과 안양에서 각각 400여명, 통영에서 800여명을 집단학살한것을 비롯하여 대소도시와 촌락에서 무수한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또한 매일 수십트럭씩 무고한 사람들을 실어다가 하나의 철쇄로 묶어 산채로 부산앞바다에 집어던졌다.

경상남도 거창, 함양, 산청군들에서 미제야수들은 수천명의 한개 부락민을 몽땅 집합시켜 학살하고 불태워버리는 만행도 례사로 감행하였다.

이러한 살인만행의 일단을 남조선신문들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부락민 500여명을…피난가자고 인솔하여 박산개천가에 끌고가서 한곳에 세워놓고 기관총과 소총 등으로 무려 2시간동안 쏘아댔다.

몇번이고 몇번이고 죽은 시체에다 자꾸만 총을 쏘아댔고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다 멎은후에야 발사를 중지하고는 시체에다 기름을 뿌려 불태워버렸던것이다.…어린이들이 죽은 사실이 없다는것을 숨기기 위하여 박산골짜기에 버려져있는 어린이시체를 골라 해골을 따로 파묻어버렸는데 그후 부락민들이 해골을 파내어보니 때다귀만도 19가마니였다.》(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60년 5월 15일)

《라주군 문평면에서…두살먹은 젖먹이로부터 임신중인 부인과 73세의 로인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부락앞 보리밭에 집합시킨 다음 가산을 모조리 압수하는 한편 가옥은 물론 돼지우리까지도 모두 불태워버렸다.

…량민들에게 아무런 심사조차 없이 기관총과 소총을 마구 퍼부어 학살을 감행하였다.

…로환으로 방안에서 나올수조차 없었던…리섭건(74세) 로인도 이들의 총에 맞아 즉사하였으며…만행에 불만의 표정을 보인 량민들과 피난나가던 친족(73세)로인 등도 모두 총살당했다.

…학교리 량민 53명을 안전지대로 피난시켜주겠다고 하고는 함평군 라산면 송암리 뒤 연대산에 끌고가 그중 녀자들은 유부녀 처녀를 가리지 않고 릉욕한후…무차별 총살하는가 하면 소지품마저 빼앗아갔다.》(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60년 6월 12일)

통영에서는 《죄없는 량민들을 잡아다가 창고에 감금하고는 남녀할것없이 옷을 벗게하고 그들을…몽둥이로 란타한후 20명내지 40명씩 로프로 묶어 큰 돌을 달아 바다물에 던져 수장하였다.…그들은 물우에 떠오른 사람에게는

총을 쏘아 죽》이였다.(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60년 5월 22일)

1951년 9월 15일 미국의 《유피》 통신이 보도한데 의하더라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패주하면서 남조선에서 학살한 주민의 수는 무려 100만명에 달하였다.

이밖에도 인간살륙과 략탈과 패덕에 습성이 된 미제침략자들은 전시조건에 빙자하여 가는곳마다에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재물들을 털어갔다.

미제침략자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일부 지역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시기에 더욱 참혹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당시 미8군사령부는 미군병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닥치는대로 죽이라. 설사 그대들앞에 나타난것이 어린이나 로인이라고 할지라도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그대들은 될수 있는대로 많은 조선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미국시민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라.》

미제침략군은 공화국북반부 일부 지역을 강점하였던 불과 한달동안에 평양에서 1만 5천여명, 양양에서 2만 5천 300여명, 은률에서 1만 3천여명, 신천에서 3만 5천여명, 송화에서 5천 500여명, 안주에서 5천여명을 학살한 것을 비롯하여 강점지역의 모든 도시와 농촌부락들에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황해도 신천군에서 감행한 미제침략군의 만행은 그의 대표적실례로 된다.

1950년 10월 17일 신천군에서 미제침략군은 이 지역 점령군사령관인 중위 해리슨의 명령으로 군인민위원회 방공호에 약 900명의 남녀들, 로인과 젖먹이어린이들을 몰아넣은 다음 옷을 벗기고 휘발유를 뿌린후에 불을 질러 태워 죽이였다.

10월 20일에는 100여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남녀 약 500여명을 군내무서방공호에 몰아넣고 폭발물을 장치한후 량측입구를 흙가마니로 막고 폭살하였다.

12월 7일 원암리에 있는 두 창고에 910여명의 인민들을 몰아넣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나서 창문으로 100여개의 수류탄을 마구 던져 학살하였다.

개별적인 학살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학살방법이 또한 잔인하고 야만적이였다.

신천군 운봉리에서는 유홍범로인을 시뻘겋게 단 인두로 지지다가 뒤산에 끌고가서 곡괭이로 쳐죽이였으며 경지리에서는 송인수의 두개골에 못을 박아죽이였다. 신천군 월산리에 침입한 미제침략군은 박도세의 코와 귀를 쇠줄로 꿰뚫고 마을로 끌고다니다가 학살하였으며 그의 며느리가 이 만행을 저지시키려 하자 그의 머리채를 쥐고 산기슭에 끌고가 밤나무에 묶어놓고 국부에 휘발유를 묻힌 나무말뚝을 꽂아 불태워죽이였다.

또한 미제침략군은 여춘 초급중학교 학생 리병도의 손을 뒤에 꺾어 묶어 땅우에 넘어뜨린후 그의 목우에 말장을 가로 놓고 량쪽에서 밟아 압살하였다.

신천군 월정리에서 미제는 인민학교 교장을 학교직원실에 묶어놓고 많은 군중들이 보는데서 톱으로 몸을 켜죽이였다.

같은 면 수원리에서는 양금선을 나무가지에 거꾸로 달아매고 머리밑에 불을 놓아 태워죽이였다.

신천군 가련면 명사리에서 미제침략군은 신음전녀성을 벌거벗긴후 쇠줄로 코를 꿰고 시뻘겋게 단 인두로 머리와 젖가슴을 지지며 량손가락을 모두 칼로 잘라버리는 등 악착한 만행을 감행하던끝에 학살하였다.

신천군 온천면 진우리에서도 유금녀녀성을 아카시아나무몽둥이로 무수히 때린후 칼로 두 귀와 두 눈알을 도려내고 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무참히 학살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젊은 유부녀와 처녀들을 닥치는대로 잡아다가 온천면 료양소에 집어넣고 매일과 같이 릉욕한후 그들을 모두 남부저수지에 빠뜨려죽이였다.

이렇게 하여 신천군에서는 미제침략군이 강점한 약 45일간에 3만 5천 383명의 인민들이 학살당하였는바 이는 군내 전 인구의 약 25%에 해당한다.

신천군에서 학살된 주민들중에는 어린이와 로인, 부녀자들이 1만 6천 200여명이나 포함되여있다.

미제침략군은 공화국북반부지역으로부터 패주할 때 수많은 주민들을 남으로 랍치하여 가면서 도중에서 그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측 전쟁포로들에 대해서도 또한 형용할수 없는 각종 만행을 다하였다.

그들은 전쟁포로대우에 관한 국제협약을 란폭하게 짓밟고 맨주먹뿐인 포로들에게 가스탄을 뿌리고 기관총사격을 가하여 집단적으로 학살하기도하고 생매장하기도하고 불태워죽이기도하고 굶겨죽이고 얼구어죽이고 개로 하여금 물어뜯어죽이게 하였으며 녀성포로들에 대해서는 강간, 륜간 끝에 학살하는 등 잔인한 행동을 다하였다.

이러한 살인만행에 직접 참가하였던 미제침략군의 한 병사는 《밸리 아드워케이트》지에 다음과 같은 자기 《경험담》을 소개하였다.

《면바로 면상을 갈기는것이 나에게는 마음이 든다.…나를 쳐다보는 부상자를 보고 그 자리에 총뿌리를 겨누면서 나는 참다운 자부심을 느낀다.…내가 면바로 관자놀이를 겨누며 나의 발사의 결과로 두개골이 날아가고 안공에서 눈알이 쏟아질 때 나는 더없이 가장 멋들어진 사격을 했다는것을 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북반부에로의 송환을 거부하라는 저들의 강요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수많은 우리측 포로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더욱 엄중하게는 세균무기를 실험공급하는 함선들을 포로수용소가 있는 거제도 앞바다에 파견하여 우리측 포로들을 상대로 세균실험까지 진행하였다.

그 진상에 대하여 1951년 5월 18일 《에이피》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상남도 통영군 거제도에 있는 미보병 제1091부대에 소속하는…함선들》에는 《세균배양기들과 현미경, 살균기, 랭장고, 증류기들과 실험자들에게 필요한 기타의 기구들로써 완전히 설비된 근대식연구소가 설치되여있다.》 《…이 선박들에서는 거제도수용소에서 빈사상태에 빠져 고민하고있는 환자들…에 대하여 매일 약 3천회에 달하는 실험이 실시되고있으며 38명의 미군세균학자들이 전력을 다하여 일하고 있는 20피트평방의 넓이를 가진 연구소는 언제나 몹시 분주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인 가지가지의 만행으로써도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게 되자 인류도덕과 국제협약들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화학 및 세균무기까지 사용하였다.

미제침략군은 1952년 1월~3월기간에만도 공화국북반부의 400개소이상의 지역에 70여회나 세균탄과 살인용 미생물을 보유한 각종 물체를 투하하였다.

투하된 세균탄에는 파리, 벼룩, 거미, 빈대, 모기, 이, 딱정벌레, 귀뚜라미 등 유해곤충이 무수히 들어있었으며 그것들에는 코레라, 페스트, 티브스 등 가장 악질적인 전염병균들이 들어있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야만적인 무차별폭격을 가하여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만도 8천 700여개의 공장제조소, 건물과 생산설비들, 60만여호의 주택, 5천여개의 학교, 1천여개의 병원 및 진료

소, 260여개의 극장 및 영화관, 수천개의 문화후생시설들과 그리고 수백개의 교회 및 진간들을 파괴소각하였다. 조선침략전쟁시기 미제가 감행한 전률할 비인도적만행은 미제의 야수적본성을 남김없이 온 세상앞에 폭로하였다.

(3)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정전후에도 계속 남조선에 주저앉아서 새로운 전쟁준비에 미쳐날뛰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을 까닭없이 쏘아죽이고 때려죽이며 심지어는 사람을 사격훈련의 과녁으로 삼는것과 같은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을 례사로 하고있다.

이에 관한 몇가지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55년 10월 22일 미공군소속 비행기는 경상북도 상주군 중동면 간상리에서 보리파종을 하는 농민들을 《공격훈련목표》로 삼아 폭탄을 투하하여 박문선(27세)을 즉사케 하였다.(남조선신문 《경향신문》 1955년 10월 24일)

1956년 3월 1일 서울로부터 인천방면으로 가는 미제36보급중대소속의 트럭에 탔던 미제침략군은 서울시 영등포동에서 길가는 영등포녀자중학교 1학년생 류춘자(17세)를 카빙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56년 3월 3일)

1956년 12월 28일 124렬차에 타고가던 미제침략군 1명은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에 사는 김상원을 조치원역에서 동렬차에 끌어들인 다음 조치원역으로부터 약 4키로메터 떨어진 전동면에 이르러 권총으로 쏘아죽이고 달리는 렬차에서 차내려뜨렸다. (남조선신문 《자유신문》 1957년 1월 4일)

1957년 7월 6일 인천시 승의동부근에서 송유관을 경비하던 인천항경비부대소속 미제침략군 1등병 로날드 이. 파셋트는 송유관부근에서 놀고있는 세살난 어린아이 김영호를《휘발유도적》이라고 하면서 카빙총으로 쏘아죽였다.(남조선신문《한국일보》 1957년 7월 15일, 《련합신문》 1957년 8월 11일)

1957년 9월 4일 부산시 범전동 앞길가에서 미제8192병참송유관중대소속 1등병 헨드빌리 제이는 군화를 수리하고 수리비를 요구한다 하여 구두닦기소년 한심(14세)을 카빙총으로 쏘아죽이고 도망쳤다.(남조선신문 《련합신문》 1957년 9월 8일, 《동아일보》 1957년 9월 14일)

1958년 9월 26일 미제7사단소속 트럭운전수 시오도 엠. 네스(26세)는 의정부읍 작성령고개에서 인재남(36세), 로영권(26세), 김한욱 등 3명에게 총질을 하여 인재남을 즉사케 하고 로영관에게 중상을 입혔다.(남조선신문 《한국일보》 1958년 9월 27일, 《국도신문》 1958년 9월 28일)

1958년 12월 30일 미제8공병대소속 미제침략군 1등병 웨이몬드 지. 미첼(24세)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신산리에서 조선청년 1명을 《엠—1》총으로 쏘아 즉사시켰다.(남조선신문 《경향신문》 1959년 1월 1일, 미제침략군신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59년 1월 1일)

1959년 2월 8일 서울시 영등포구 동동 71번지 앞길가에서 미제침략군 사자부대 운전수 에노소리는 길가에서 놀고있던 10세가량의 소년을 그의 자동차로 깔아죽이고 시체를 차에 실어가지고 도망쳤다.(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59년 2월 9일)

1959년 3월 28일 경기도 김포미제14비행장소속 1등병 제임스는 김포비행장 제8호문부근에서 널려있는 쇠조각을 줏고있던 리우영외 10명의 조선소년들에게 련총을 마구쏘아 리우영소년에게 전신에 무려 30여개소의 총상을 입혔으며 리수일소년에게도 부상을 입혔다.(남조선신문 《조선일보》 1959년 3월 29일, 《한국경제신문》 1959년 3월 30일)

1960년 2월 4일 미제1기갑사단 9기갑련대소속 1등병 프란씨스 엑스. 맥쿤과 2등병 마이클 이. 블라싱게임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장산리에서 얼음우로 림진강을 건너가고있는 박원봉(44세) 농민에게 총을 쏘아 그를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60년 2월 5일, 미제침략군신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60년 2월 7일)

1960년 5월 15일 미제9기갑련대 1수색대대 《씨》중대소속 2등병 존은 그 부대에 로무자로 근무하는 리종훈에게 신분증을 보자고 하고는 그가 조선어로 씌여진 증명서를 보이자 무조건 그의 입술에 대고 4.5미리 구경권총을 쏘아 그 자리에서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신문 《경인일보》 1960년 5월 18일)

1960년 7월 16일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선암리 길가에서 미제7사단 32련대소속 미제침략군은 찌프차를 몰고가다가 지나가는 조선농민 황길성(54세, 양주군 회천면 덕정리 거주)의 모자를 잡아채여 그의 머리가 차체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그를 즉사케 하였다.(남조선신문 《한국경제신문》 1960년 7월 19일, 《동아일보》 1960년 7월 18일)

1961년 3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주둔 미제38부대소속 중사 후렌크 엠. 쉬포슨은 스리코터를 몰고가다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도림교우에서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우상근(27세)에게 심심풀이로 권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다.(남조선신문 《민국일보》 1961년 3월 11일, 《산업경제신문》 1961년 3월 12일)

1961년 5월 3일 미제1기갑사단 제12기갑련대 《비》중대소속 1등병 조셉 에프. 브랜드는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덕천리에서 남흥우(27세)에게 맥주 2상자를 팔아먹으려고 흥정하다가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하여 그를 권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남조선신문 《산업경제신문》 1961년 5월 4일, 《한국일보》 1961년 5월 5일, 남조선신문 《부산일보》 1961년 5월 4일)

1962년 1월 6일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뒤산에서 미제1기갑사단 8련대 《디》중대소속 하사 토니외 수십명의 미제침략군은 40여명의 나무군들에게 련총과 《엠—1》총을 쏘아 그중 황광길(25세,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운천리)을 그 자리에서 즉사케 하고 류기용(28세)에게 중상을 입혀 10일후 죽게하였다.(남조선신문 《한국일보》 1962년 2월 11일)

1962년 5월 17일 충청남도 대덕군 북면 장동리에서 미제833경비중대소속 1등병 리차드 디. 젠센은 조선녀성 유춘자(22세)를 희롱끝에 4.5미리구경권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서울 1962년 5월 17일발 남조선통신 《합동》)

1963년 9월 16일 경기도 파주에 주둔하고있는 미제침략군 1등병 찰스. 맥터카레드는 길가던 파주군 파평면 두포리 김태이(33세)와 4명의 녀성에게 달려들어 《엠—1》총을 쏘아 그중 김태이녀성을 즉사케하고 김금순(38세)녀성에게 중상을 입혔다.(남조선신문 《조선일보》 1963년 9월 16일)

1963년 11월 21일 경기도 련천군에 주둔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은 련천군내 사격장에서 이곳 주민 유길섭(25세)외 14명이 나무하러 마을 뒤산으로 올라간것을 보고 과녁삼아 원자포탄을 발사하여 그중 유길섭(25세), 박덕규(40세), 리영철(20세), 전주복(27세), 장복재(20세) 등 5명을 그 자리에서 즉사케하였으며 10명에게 치명적인 중상을 입히였다. (남조선신문 《경향신문》 1963년 11월 22일, 《조선일보》 1963년 11월 22일)

1964년 8월 25일 남조선괴뢰군을 동원하여 군사훈련을 시키고있던 미제침략군은 주민거주지역을 향하여 총포탄을 마구 쏘게 하여 남조선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신철원리에 사는 3명의

주민을 살해하고 5명을 부상시키는 만행을 감행하였다.(1964년 8월 26일 남조선방송 《동아방송》)

1964년 12월 27일 경기도 시흥군 안양주둔 미군기지소속 1등병 클레이제트는 동기지에 고용되어 일하는 박한규에게 《작업시간을 어겼다》는 리유로 그의 배를 렵총으로 쏘아 치명적인 중상을 입혔다.(1964년 12월 28일 남조선방송 《동아방송》)

1965년 5월 2일 미제1기병사단 5련대소속 1등병 브리질드는 빚받으려간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동당리에 사는 김의숙(24세)녀성에게 권총을 쏘아 치명상을 입히였다.(서울 1965년 5월 3일발 남조선통신《동양》)

1965년 12월 8일 경기도 화성군 상공에서 폭격연습을 하던 오산주둔 미공군비행기 조종사는 해변가에서 굴을 따던 리영자(33세)녀성을 목표삼아 폭탄을 퍼부어 즉사케 하였다.(서울 1965년 12월 9일발 남조선통신《동양》)

1966년 2월 13일 미제침략군 헬리콥터순찰대는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사목리에 사는 조선인 7명에게 무턱대고 총질을 하여 그중 1명에게 관통상을 입혔다.(1966년 2월 14일 남조선방송 《동아방송》)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사람을 죽이는것을 하나의 놀음거리로 삼고있을뿐만아니라 주민들에게 온갖 폭행과 행패를 다 부리고있다.

그들은 저들의 강도적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하여 주민들을 때리며 길 가는 사람들을 군견을 풀어 물어뜯게 하는 등 온갖 전횡을 다하고있다.

1954년 11월 4일 인천시 신흥동에 자리잡고있던 미제침략군은 동부대앞을 지나가는 조선소년 김흥욱(15세)을 강제로 병영내에 끌어들여 그를 마구 때리는 한편 옷을 벗겨 발가숭이로 만든후 전신에 뺑기칠을 하고 노끈으로 목을 매여 끌고다니였다. (남조선신문 《인천신보》 1954년 11월 6일)

1955년 1월 17일 부산에서 미제침략군 15명이 작당하여 집단적살인강도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놈은 부산시 대창동에 있는 우만수(36세)의 상점에 침입하여 우만수를 무수히 때린후 칼로 목을 찌르고 상품들을 략탈하였을뿐만아니라 대창동거리에서 김덕림(35세)과 박재우(37세)를 붙잡고 마구 때리고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으며 또한 수명의 녀성들을 권총으로 때리고 도망쳤다.(남조선신문 《조선일보》 1955년 1월 19일, 《동아일보》 1955년 1월 23일)

1956년 12월 2일 미제8군소속 2등병 로바트 엘. 마샬외 2명은 택시를 타고서는 료금을 요구하는 운전수 오서환(28세)에게 집단적인 폭행을 가하였을뿐만아니라 이 참상을 보고 제지하려던 조상호와 홍룡근에게도 달려들어 단도로 찔러 치명상을 입혔으며 그후 또다시 운전수 오치환을 단도로 마구 찔러 그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도망쳤다.(남조선신문 《부산일보》 1956년 12월 4일)

1957년 7월 15일 미제728헌병대소속 1등병 로버트 비. 홀과 미제침략군 수송단소속 1등병 히위드 지. 스완스 및 루이기 엘. 말라테스타 등은 부산발 서울행렬차내에서 지상철(20세, 경주고등학교 3년생)을 곤봉으로 무수히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변소에 감금하였다가 왜관역부근에서 차밖으로 떨어뜨려 치명상을 입혔다.(남조선신문 《서울신문》, 《경향신문》 1957년 7월 18일)

1958년 2월 25일 인천시 부평 미제8군 항공기수리소 소장인 토마스 지. 제임스(소령)의 지휘하에 마빈 이. 캠프(대위)와 로버트 이. 웨이든사울(상사) 등은 자기들의 장교숙소에 구두닦기소년 김춘일(14세)을 불법감금하고 5~6시간에 걸쳐 몽둥이와 가죽채찍으로 마구 때리고 칼로 무수히 찌르고 뻰찌로 두 발톱과 머리칼을 잡아뜯고 전기리발기로 그의 머리를 깎은후 머리와 얼굴에 콜탈칠을 하여 나무상자에 넣어 못을 치고 직승비행기 《H19》에 실어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에 있는 미제1군단비행장에 실어다가 버리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남조선신문 《조선일보》 1958년 3월 2일, 《동아일보》 1958년 3월 4일, 《서울신문》 1958년 3월 5일)

1958년 3월 8일 김포에 있는 미제공군 제 6147부대소속 중사 에드몬드 제이. 쿠쟈즈크, 1등병 케네트 엘. 페이지, 중사 웬딜 아르. 히츠, 상사 자비 애포. 히피는 밭에 거름을 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리경표(63세)를 상기부대사무실로 끌고들어가 약 1시간에 걸쳐 몽둥이로 마구 때려 오른쪽갈비대 2개를 부러뜨리고 얼굴, 가슴, 목, 배 할것없이 전신에 중상을 입혀 실신상태에 빠지게 한후 철조망밖으로 내던졌다.(남조선신문 《경향신문》 1958년 3월 13일, 《서울신문》 1958년 3월 21일)

1959년 12월 31일 미제7사단 40전차대대 《이》중대 중대장 대위 토마스 에취. 존과 하사관 2명은 저들의 병영철조망 근처를 지나가던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 가릉리 고등골에 사는 박하자(20세)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에 사는 윤순지(25세) 녀성들을 끌어 캄캄한 창고에 몰아넣은 다음 가죽채찍가 끊어지도록 때리고 그들의 옷을 벗기고 등과 하반신에 누런색 뺑기칠을 하여 밤 11시 반경에 부대밖으로 내쫓았다. (남조선신문 《한국일보》 1960년 1월 19일)

1960년 1월 2일 미제7사단 2중형땅크대대 《씨》중대 중대장 대위 죤 더블유. 맥케너리(37세)와 그의 일당은 동두천에 사는 김순애(30세)와 김정자(22세) 녀성들을 병사에 끌어들여 그들의 머리를 몽땅 깎아버리고 희롱하던끝에 그대로 거리에 내쫓았다.(남조선신문 《한국일보》 1960년 1월 5일)

1960년 2월 12일과 13일의 이틀간에 걸쳐 미제44공병부대 《비》중대소속미제침략군 윌리암 제이. 리, 쟌 엠. 로렛즈, 프란시스 제이. 토로스를, 리챠드 디. 파이트, 로레스 로즈모스, 죠지 아이, 웨인퍼트네 등 7명은 부산시 중앙동 3가 26번지에 사는 공진수, 최영휘, 진덕수, 문응렬, 김영택, 로팔수, 유호박 등을 부당하게 체포하여 침곡군 왜관동 미군부대경내에서 눈뜨고는 볼수없는 잔혹한 폭행을 그들에게 가하였다. 미제침략군일당은 체포한 조선사람들을 추운날 벌거벗긴후 얼자나 넘는 구뎅이에다 몰아넣고 총탁과 몽둥이로 때려 정신을 잃으면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하고 또 마구 때렸다.뿐만아니라 미제침략군은 피해자들이 가졌던 손목시계를 비롯하여 현금 1만 2천환과 의복 및 기타 물품을 전부 빼앗고 벌거벗긴채로 내쫓았다.(남조선신문 《세계일보》 1960년 2월 24일, 26일, 《서울신문》 1960년 2월 24일, 3월 1일)

1960년 2월 26일 미제44공병부대 《비》중대 (상술한 2월 12일 사건을 발생시킨 부대) 소속병사 4명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의 만행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미제침략군 병사들은 왜관읍 8반에 사는 도원희(19세)와 같은 리에 사는 문태랑(28세), 권시심(20세), 고재원(19세) 등을 강제로 부대내에 끌어다가 빈깡통 버리는 구뎅이에 밀어넣고 벌거벗긴채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구두발로 차는 등 잔인하게 집단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남조선신문 《세계일보》 1960년 3월 13일)

1962년 5월 29일 경기도 파주에서 미제 1기갑사단 《씨》중대소속 륙군중위 토마스 엘. 월드와 데이비드 더블유 스웬슨은 동중대주변을 지나가던 리월룡을 아무 리유없이 끌어다가 그에게 형언할수 없는 만행을 가하였다.

당시 남조선 《인권옹호협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피해자 리씨는 씨중대 철조망밖을 거닐었다.…미군인 7~8명은 리씨를 찌프차에 짐짝같이 싣고 올라타서 때리며 중대사무실까지 옮겨갔다. 그곳에서 세멘트바닥에 넘어뜨리고 구두발로 가슴과 손을 내리밟았다. 그때 졸도하여 15분간 의식이 없었다.

미중위들은 리씨를 로프로 목을 매여 중대사무실 문지방에 매달고 총가목, 권총으로 후려갈겼다. 또다시 실신하였다. 모진 매도 부족한지 그들은 벌거벗겨 꺼꾸로 전주에 매달고 얼굴과 배에는 겨자와 같은것을 발랐다.

땅에 닿아 아픔을 참느라고 흙을 움켜잡으니 손밑에 돌을 갈고 손이 아직 부러지지 않았다고 하여 발굽으로 내려찍었다.》(서울 1962년 6월 1일발 남조선통신 《동양》)

같은 시기인 1962년 5월 30일 오산의 미공군기지근처에서 동기지소속 헌병 패터슨은 심덕선이란 52세의 농민을 군견을 풀어 마구 물어뜯게 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남조선신문은 《개마저 물어 뜯은 인권》이란 표제하에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넓은 오산미군비행장을 마주바라보며 살아가는 송락면 신장리 남산부락 사람들은 미군이 풀어놓은 세퍼드때문에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수 없다고 먹구름장같은 슬픈 표정을 짓고있다.…

이런 비극중의 하나가 지난 30일 있었던 심덕선씨의 개물림사건이였다.

…그는 이날 낮…논에 나가 모자리의 피사리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였다. 약 300메터 떨어진 비행장초소로부터 미헌병이 세퍼드를 몰고 뒤쫓고있었다.…개에 물릴 위험을 느껴 바로 집으로 달렸다.

가쁜숨을 몰아쉬며 부엌으로 뛰어들었는데 사나운 세퍼드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있던 안집아주머니를 물어넘어뜨리고 또 어린애에게 달려들어 기절을 시켰다. 세퍼드는 그대로 부엌안으로 뛰여들어 심씨 허벅다리를 물어뜯기 시작하였다.

〈캐치캐치(물어라물어라)〉 미헌병 패터슨일등병은 큰소리를 질렀다. 부엌안에서 개에게 물리며 쫓기던 심씨는 개에게 끌려 마당으로 나왔다. 량쪽 허벅다리를 비롯하여 엉덩이, 팔등 무려 30군데서 피가 줄줄 흘렀다.

이러기를 약 20분—옷은 갈기갈기 찢기여 벗기졌다. 기진맥진한 심씨는 자기 방어에 마지막 안간힘을 들여 두손으로 개의 두귀를 움켜쥐였다. 바로 이때 패터슨일등병은 방망이로 심씨의 두팔을 힘껏 후려갈겼다. 방망이는 그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정신을 잃은 심씨는 개에게 허벅지를 물린채 다시 밖으로 끌려나왔다. 마당은 피자국에 얼룩져있었다. 안나가려고 발버둥치자 패터슨일등병은 그의 머리채를 낚아채였다. 밖에 나와서 다시 10여분간 심씨는 넋을 잃은채 물어뜯는 개에게 몸을 맡겼다.》(남조선신문 《경향신문》 1962년 6월 8일)

1963년 4월 28일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광암리에서 미제7사단 32련대 《에이》 중대소속 2등병 친스리외 3명은 그들이 조선인로동자를 때리는것을 말린다하여 이 마을에 사는 김금옥(36세) 녀성의 얼굴을 삽으로 찍어 중상을 입히고 도망쳤다.(남조선신문《대한일보》 1963년 4월 30일)

1964년 2월 10일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에 있는 다방에서 미제침략군 1명은 조선녀성을 희롱하다가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리석구의 얼굴을 칼로 찔러 부상을 입혔다.(서울 1964년 2월 11일발 남조선통신 《합동》)

1964년 6월 28일 밤 경기도 파주지방에 주둔하고있던 미제1기갑사단소속 미제침략군 6명은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 창골에 있는 다리목에 이르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조선청년 김세정을 발길로 차서 높이 15메터나 되는 다리밑으로 떨어뜨려 치명상을 입혔다.(남조선신문 《경기매일신문》 1964년 7월 2일)

1965년 3월 28일 미제1기갑사단소속 상등병 테리서와 1등병 아이세스터는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법원리에 있는 한 조선인식당에 뛰어들어 행패를 부리던끝에 연거퍼 두개의 최루탄을 터뜨리고 도망쳤다.(남조선신문 《대한일보》 1965년 3월 30일)

1965년 5월 1일 미제침략군의 헌병 2명은 인천시 부평동에서 길가는 조선사람을 희롱하다가 그가 항거하자 수갑을 채워 류치장에 가둔후 밤새도록 폭행을 가하였다.(1965년 5월 7일 남조선방송 《동아방송》)

1965년 11월 7일 경기도 파주군 문산리에서 미제2사단 2대대소속 일등병 크리폴드 도브와 2등병 크레난 테니스트는 택시를 타고 림진면 용주골 삼거리 앞길에 이르러 운전수 김영국(24세)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한후 그를 차밖으로 밀어던지고 택시를 강탈하여가지고 도망쳤다.(남조선신문 《경향신문》, 《대한일보》 1965년 11월 8일)

1966년 4월 30일 미제침략군의 부평보급창 《에이》 중대소속 1등병 개포외 2명의 미제침략군은 인천시 부평동에서 김순복(32세)의 얼굴과 머리를 단도로 무수히 찌르고 귀를 잘라냈다.(1966년 5월 1일 남조선방송 《동아방송》)

미제침략군이 조선부녀자들에게 가하고있는 추악한 만행들은 또한 이루다 형언할수 없다.

1954년 8월 24일 밤 9시경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미제19보급부대앞에서 미제침략군 20여명은 그곳을 지나가는 리인순녀성을 쓰러뜨리고 륜간한후 하수도에 밀어넣었으며 또한 같은 지점에서 같은 시각에 미제침략군 10여명이 19세 가량되는 다른 처녀를 륜간하고 도망쳤다.(남조선신문 《평화신문》 1954년 8월 27일)

1955년 7월 16일 미제728헌병대소속 1등병 류린스 데웨일은 자고있는 13세의 소녀 리모(인천시 월신동거주)의 방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그의 부모들의 제지를 받게 되자 권총으로 그들을 때려 부상을 입혔다. (남조선신문 《서울신문》 1955년 7월 18일)

1956년 1월 22일 미제침략군 2명은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에서 영화구경을 하고 돌아오는 최금임(19세)을 강간하려다가 응하지 않는다 하여 권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1956년 1월 24일)

1957년 3월 11일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덕천리 미제24사단 480야포대소속 미제침략군 윌리암 에취. 제임스알레이(26세)는 적성면 식현리 앞개울에서 빨래하고있는 리애돌(43세), 최순희(59세) 두 녀인을 발견하자 그들에게 덤벼들어 강간하려다가 수욕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카빙총을 마구 쏘아 리애돌을 즉사게 하였다.(남조선신문 《동아일보》,《련합신문》 1957년 3월 13일, 《인천신보》 1957년 3월 14일)

1957년 4월 26일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 뒤산에서 미제8군사령부소속 하사는 선유리 칠정동에 사는 조선녀성 송현숙(20세)을 강간한 다음 때려죽이고 도망쳤다.(남조선신문 《한국일보》 1957년 4월 29일, 30일, 《동아일보》 1957년 5월 1일)

1958년 6월 9일 충청남도 시대전에 있는 《주한미군사고문단》 대전파견대소속 하사 윌리암 지. 테포드(24세)는 대전시 중동 10번지에 사는 우순하(50세)를 그 집근처에 있는 빈터로 끌고가서 야수적으로 강간후 잔인하게도 그의 목을 졸라 죽였을뿐만아니라 다시 부근 주민들인 류관향, 서병종, 권재윤의 집과 창고 등에 불까지 지르고 도망쳤다.(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58년 6월 11일, 《한국일보》 1958년 6월 12일, 《대전일보》 1958년 6월 11일, 12일)

1959년 6월 7일 《유엔군사령부》소속 2등병 하라칼 아스칼(35세)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에서 15세의 소녀 김배자를 서울시 중구 회현동에 끌고가 강간하여 중상을 입히고 도망쳤다.(남조선신문 《서울신문》 1959년 6월 8일)

1960년 7월 20일 미제39보급소 중대장 윌리암은 고명순(26세, 의정부 하금오리거주)을 자기 차에 싣고 의정부 하금오리길가에까지 와서 입을 틀어막고 때리고 릉욕한후 실신한 그를 차밖으로 내던졌다.(남조선신문 《경기매일신문》 1960년 8월 6일)

1961년 5월 4일 밤 강원도 양양군 속초주둔 미제침략군 통신수색대《비》파견대소속 하사 좁스 이. 밸렌은 속초읍 4구에 있는 황기호의 집에 침입하여 도경자(25세)녀성을 릉락하려다가 자기의 추악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그 녀자를 강제로 발가벗긴다음 손과 발을 묶고 목을 졸라매고 아래배를 마구 때려 죽이였다.(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61년 5월 14일)

1962년 6월 14일 경기도 시흥에 주둔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의 탄약중대소속 미군1명은 시흥군 동면 시흥리에 사는 전애란(23세)녀성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있는 이 녀성을 겁탈하려다가 야욕을 이루지 못하게되자 그 분풀이로 그의 목을 졸라매여 정신을 잃게 한후 도망쳤다. (남조선신문 《한국일보》 1962년 6월 14일)

1963년 1월 7일 밤 미제침략군 사병 1명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에 사는 김옥희녀성(21세)의 집에 뛰어들어 그 녀성을 릉욕하려다가 실패하자 허리띠로 목을 졸라매고 면도칼로 팔과 앞가슴 등 수개소에 상처를 입혀 실신케 한다음 목걸이를 탈취해가지고 도망쳤다.(남조선신문《경기매일신문》 1963년 1월 8일)

1964년 1월 8일 강원도 춘천주둔 미제4유도탄부대소속 미제침략군 1명은 12세의 조선소녀를 강간하였다.(남조선신문 《강원일보》 1964년 1월 8일)

1964년 2월 2일 미제7사단 32련대본부중대병사안에서 2등병 윌리암스 해랄드, 1등병 헌트로니시, 상등병 모리스 알론 등 미제침략군 3명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 목골부락에 사는 리화복(27세)을 랍치하여다가 때리고 륜간한후 현금 3,750원까지 강탈하였다. (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64년 2월 3일)

1965년 10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앞길에서 미제55비행대소속 병장로렌스는 길 가던 서모(38세)녀성을 강제로 승용사에 끌어올려 릉욕한후 벌거벗긴채로 길가에 내던지고 도망쳤다.(1965년 10월 13일 남조선방송 《한국문화방송》)

1966년 3월 2일 밤 부산 제3부두의 미제침략군 항만수송대소속 상사 레인쓰는 시내 동구좌천동에 사는 17세의 구두닦기소녀를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하고 도망쳤다. (남조선신문 《마산일보》 1966년 3월 16일)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개별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부락을 습격하여 가장집물을 략탈하며 대낮에 상점에 침입하여 상품을 빼앗아가지고 도망치며 길가에서 사람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는 등 각종 범죄행위들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1954년 10월 9일 미제침략군은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에 있는 채규선의 상점에 침입하여 채규선을 쇠절구로 마구 때려죽이고 담배 11갑과 현금 150환을 략탈하였다.(남조선신문 《한국일보》 1954년 10월 12일)

1955년 5월 1일 부산 미제414부대소속 1등병 라니 하지상은 부산시 초량동 400번지에 사는 김길자에게 많은 수면제를 먹여 실신케 한후 라지오를 비롯한 금품을 강탈하여가지고 도망쳤다. (남조선신문 《민주신보》 1955년 5월 4일)

1956년 8월 11일 6대의 트럭에 분승한 미제침략군 70명은 경기도 양주군 로해면 도봉리 도봉산에 이르자 부근일대에 자리잡고있는 잡화상점의 물건 거의 전부를 화물차에 싣고 도망치는 집단적강도행위를 감행하였다.(남조선신문 《한국일보》 1956년 8월 13일)

1957년 4월 16일 파주에서는 미제24사단 헌병대 중대장 스미스의 지휘하에 80명의 미제침략군이 부근부락을 포위하고 집단적인 강탈행위를 하였다.

그들은 185세대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보자기, 밥그릇까지도 모조리 군수품이라고 규정하고 총 2천 324점의 재물을 략탈하였으며 동부락 주민 70명을 불법구속하고 수일후 또다시 600명의 주민을 불량배라는 루명을 씌워 강제 추방하였다. (남조선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1957년 4월 23일)

1958년 1월 10일 한 미제침략군은 부산시 범일동 미금당시계상점에 침입하여 대낮에 시계를 훔쳐가지고 도망치다가 시계점주인 림상기가 따라오자 그를 마구 때려 머리와 허리에 중상을 입히고 도망쳤다.(남조선신문 《국제신보》 1958년 1월 12일)

1959년 6월 23일 미제침략군 1등병 외 2명은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김영구가 경영하는 술집에서 1천 500환분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았을뿐만아니라 그 집의 기물들을 파괴한후 도망쳤다. (남조선신문 《련합신문》 1959년 6월 24일)

1960년 9월 28일 전라북도 김제군 황삼면 황산리에서 당지 미군수기지공병단소속 7명의 미제침략군은 시계수리업을 하고있는 정헌승(26세)의 집을 집단습격하여 정헌승을 마구 때려 실신케 한후 손목시계와 회중시계 15개를 빼앗아가지고 도망쳤다. (남조선신문 《삼남일보》 1960년 9월 30일)

1964년 2월 29일 미제침략군 15명은 서울시 중구 도동1가에 사는 조모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이불과 거울을 훔쳐가지고 도망치다가 정연옥(27세)을 맥주병으로 쳐서 치명상을 입히는 폭행을 감행하였다. (남조선신문 《한국일보》 1964년 3월 1일)

1965년 11월 7일 미제7사단 79포대 1등병 카미델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맥주를 마신후 그 대금을 요구한다 하여 식당종업원 리호기(24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까서 파렬상을 입혔다.(남조선신문 《대한일보》 1965년 11월 8일)

미제침략자들은 이상과 같이 야수적 만행들을 제멋대로 계속하고있으나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있다. 남조선도처에서 매일과 같이 감행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만행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적분노와 증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반미감정을 무마하고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1966년 7월에 이른바 《주한미군의 신분》을 규정한 《한미행정협정》이라는것을 조작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이 조작된후에도 미제침략군은 그들의 만행에 대하여 그 어떤 처벌도 받지않게 되여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만행은 더욱 공공연히 더욱 란폭하게 감행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축소하여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한미행정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1967년 2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1년동안에 미군이 감행한 각종 범죄행위는 1천 876건에 달한다.

남조선통신에 의하면 이것은 《한미행정협정》이 조작되기전에 비하여 거의 6배가 넘는다고 한다.(서울 1968년 2월 8일발 남조선통신 《동화》)

남조선괴뢰도당이 소위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지난해 11개월동안에 미제침략군의 범죄자들을 《재판》한것은 총범죄건수의 0.5%에 불과하였다.

그것마저도 《증거불충분》이니 《호의적고려》이니 하는 구실밑에 대부분《무죄선고》를 하였다.

《한미행정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감행된 미제침략군의 각종 범죄행위의 일부 진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67년 2월 9일 미제2사단 23련대 3대대소속 병장 헤타아스는 경기도 파

주군 림진면 선유리 《선화양장점》에 침입하여 김정자 (23세)를 강간하려다가 실패하게 되자 그의 집에 불을 질렀다.(서울 1967년 2월 10일발 남조선통신《동양》)

1967년 2월 16일 경기도 련천군 잔인면 부곡리에서 사격훈련을 하고있던 미제침략군은 산에 올라간 이곳 주민 10명에게 포탄을 퍼부어 8명을 죽이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서울 1967년 2월 17일발 남조선통신 《합동》)

1967년 2월 20일밤 미공군 6314지익중대소속 하사 빌리콕스는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에 있는 강원구의 집에 불을 질러 몽땅 불타게 하였다. (서울 1967년 3월 7일발 남조선통신 《동화》)

1967년 2월 21일 미제8군 제27부대소속 상병 헬리트는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에서 리정희녀성(36세)을 길가에서 아무 리유없이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1967년 2월 22일 남조선방송 《동양라지오방송》)

1967년 2월 22일 미8군 835병기대대소속 1등병 힐스는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1가에서 조선녀성 리모(21세)를 칼로 위협하여 그의 돈을 전부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1967년 2월 25일 남조선방송 《한국문화방송》)

1967년 2월 23일 미제7사단소속 상병 윌리암 등 2명의 미제침략군은 경기도 동두천읍내 앞길에서 까닭없이 조선녀성 김희숙의 얼굴과 배를 차서 실신케 하였다.(1967년 2월 24일 남조선방송 《동양라지오방송》)

1967년 2월 24일 밤 경기도 동두천읍에서 미제침략군 4명은 조선인상회에 들어가서 유리창과 기구를 마구 깨뜨리고 이를 말리던 주인 리유근(28세) 등 3명을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1967년 2월 24일 남조선방송 《동양라지오방송》)

1967년 3월 5일 미제 702대대 소속 병장 아담스 세미는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 윤순임의 집에 침입하여 14세 소녀 김정임을 강간하고 도망쳤다.(서울 1967년 3월 10일발 남조선통신《동화》)

1967년 3월 6일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 미제4휴양소까지 택시를 타고온 미제침략군 3명은 택시운전수 김동길이 료금을 요구하자 그를 마구 때려 이발을 부러뜨리는 등 심한 상처를 입혔다.(서울 1967년 3월 8일발 남조선통신 《동화》)

1967년 3월 21일 미제침략군 3명은 경상북도 대구시 봉덕동에서 길 가던 정건호(59세), 정덕원(58세), 정인호(63세) 등 3명의 로인을 까닭없이 불의에 달려들어 때려 그중 정건호로인을 중태에 빠뜨렸다.(남조선신문 《매일신문》 1967년 3월 23일)

1967년 4월 2일 미8군 304통신대소속 1등병 맥커브로이기는 박혜경(25세)의 집에 침입하여 그의 목을 조르고 릉욕하려다 반항을 받게 되자 그의 집가구를 까부시고 달아났다. (서울 1967년 4월 3일발 남조선통신 《합동》)

1967년 4월 29일 미제침략군 시오비34소속 상병 위스는 서울 룡산구 후암동앞길에서 길 가던 조성월(25세)에게 까닭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을 가하였으며 그를 말리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역시 폭행을 가하였다.(서울 1967년 4월 29일발 남조선통신 《동화》)

1967년 5월 13일 밤 미제7사단소속 미제침략군 40여명은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 보산리앞길에서 마을부인들을 희롱하는것을 이곳 주민들이 말린다하여 집단폭행을 가하여 그들중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1967년 5월 14일 남조선방송 《한국문화방송》)

1967년 7월 13일 미제침략군의 싸론점순찰대 1등병 죤은 찌프차를 타고 마구 달리다가 영등포 구동천동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박종동(30세)을 고의로 깔아 중태에 빠뜨리고 그대로 달아났다.(1967년 7월 14일 남조선방송 《한국문화방송》)

1967년 7월 23일 전라북도 옥구군 대야면에서 군용화물차를 타고가던 미제침략군들은 길가는 사람들에게 심심풀이로 나무토막을 마구 던저 그중 리덕선(59세)의 머리에 파렬상을 입혀 그를 죽이였다.(1967년 7월 24일 남조선방송 《한국문화방송》)

1967년 8월 21일 밤 닐피라는 미제침략군 병장은 대구시 봉덕동1구에 사는 윤미숙(23세) 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돈을 내라고 강요하다가 그것이 거절되자 이 녀성을 무수히 때려 중상을 입히고 가재도구를 마구 짓부신후 도망쳤다.(대구 1967년 8월 22일발 남조선통신 《합동》)

1967년 9월 3일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아리랑클럽에서 3명의 미제침략군들은 강명순(20세)녀성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린후 돈을 강탈해가지고 도망쳤다.(대구 1967년 9월 4일발 남조선통신 《합동》)

1967년 9월 10일 미제 6324헌병중대소속 미제침략군 1등병 테일러(23세)는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에 있는 제55미공군기지에서 조선청년 4명에게 무턱대고 권총을 쏘아 그중 1명을 즉사케 하였다.(1967년 9월 16일 남조선방송 《동양라지오방송》)

1967년 9월 11일 밤 서울시 룡산구 한남동주둔 미제30병기단중대본부 소속 윌리레테그(27세)와 레이몬더 제이. 벨리스페즈 등 두명의 미제침략군은 윤정숙(22세)녀성을 부대안에 끌어들인후 륜간하였다.(서울 1967년 9월 12일발 남조선통신 《동화》)

1967년 9월 15일 미2공군 제2수송대대 소속 1등병 그린은 경기도 인천시 부평동에 사는 박종구(32세)가 빚 2천 700원을 독촉한다고 하여 20여명의 미제침략군과 합세하여 칼로 그의 배를 찔러 중태에 빠뜨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부근주민 3명에게도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도망쳤다.(서울 1967년 9월 16일발 남조선통신《합동》)

1967년 9월 15일 미8군 76공병대대《비》중대소속 중위 로날드 더블유, 라월(30세)은 조선인 리상렬로부터 25만 4천원의 빚을 지고도 그를 갚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치다가 비행장에서 리상렬을 만나게되자 2층대합실에서 그를 내려던저 오른쪽다리를 부러뜨렸다.(서울 1967년 9월 15일발 남조선통신 《합동》)

1967년 9월 15일 미8군본부중대소속 로버트 레코니와 제임스 그리고 미8군 38년충중대소속 죠세 등 3명의 미제침략군은 미8군 정문앞길에서 자기들을 태우고 온 택시운전수 배종환(29세)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마구 때려 중태에 빠뜨리게 한후 도망쳤다.(1967년 9월 16일 남조선방송 《한국문화방송》)

1967년 9월 16일 미제2사단 건설처 부인자 제임스 엔더스(43세)는 서울시 중구 회현동3가 앞길에서 술에 만취되어 함부로 권총을 쏘아 그곳을 지나던 동덕녀자대학 1학년 학생인 최정순(20세)에게 중상을 입히였다.

그후 그는 그 근방에 있는 한 음식점에 뛰여들어 술을 내라고 강요하다가 그것이 거절되자 권총을 쏘아대면서 행패를 부렸다.(1967년 9월 18일 남조선방송 《한국문화방송》, 서울 1967년 9월 26일발 남조선통신 《합동》)

1967년 9월 18일 서울시 성동구 신정동 앞길에서 미8군 65의무단소속 스티븐과 레이몬드는 장대규(34세)에게 까닭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최은자(25세)녀성에게 달려들어 목을 누르고 발로 차서 중상을 입혔다.(1967년 9월 19일 남조선방송 《한국문화방송》)

1967년 9월 18일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동 앞길에서 미 켐프캐롤소속의 미제침략군 12~13명은 고등학교 학생 유영수(19세)를 길가에서 틀잡고 무턱대고 맥주병과 칼로 마구 때리고 찔러서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였다.(1967년 9월 19일 남조선방송 《대구방송》)

1967년 10월 5일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에서 미제55경비중대소속 상등병 매이크 미렐은 조선녀성 오세용의 집에 뛰여들어 그를 희롱하려다가 거절당하자 그 분풀이로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다.(1967년 10월 6일 남조선방송 《동양라지오방송》)

1967년 10월 12일 미8군 서울기지사령부 69수송중대소속 1등병 윙제즈는 경기도 시흥군 의왕면 왕곡리 앞길에서 길 가던 조선녀성 김상순(46세)과 그가 업고있던 어린이를 자동차로 깔아죽이였다.(1967년 10월 12일 남조선방송 《동양라지오방송》)

1967년 10월 18일 2명의 미제침략군은 서울 룡산구 룡산동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남산팔각 정각까지 가서 빈 맥주병으로 운전수 안제호(27세)의 이마를 때려 중상을 입힌후 도망쳤다.(서울 1967년 10월 19일발 남조선통신《동양》)

1967년 10월 21일 미제11군단소속 병장 유니스2세는 술을 마시고 조선녀성 송모의 집에 침입하여 수욕을 채우려다가 거절당하자 그 분풀이로 그의 목을 조르고 그의 방에 불을 지른후 도망쳤다.(1967년 10월 27일 남조선방송 《한국문화방송》)

1967년 11월 1일 미제146의무대소속 상등병 엘란 제이. 프랭크는 뻐스를 몰고 성동구 마장동 앞길에서 달리다가 마침 뒤따라오던 택시가 앞질러가는데 화가 난다고 그 차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택시 유리창을 부시고 운전수 리윤세(29세)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였다. (1967년 11월 1일 남조선방송 《동양라지오방송》)

1967년 11월 5일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에서 미제7사단 32련대 2대대 본부중대소속 1등병 유진 디 테일러는 조선녀성 김순자(21세)의 목을 졸라죽이였다.(1967년 11월 5일 남조선방송 《한국문화방송》, 서울 1967년 11월 24일발 남조선통신《동양》)

1968년 1월 1일 미제2사단 23련대 3대대 《디》 중대소속 하사 데이비드 호만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2리 앞길에서 까닭없이 이 부락사람들을 마구 때렸을뿐만아니라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운전수 김기영을 차밖으로 떨어뜨리고 길가에 있던 주민들을 향해 차를 몰아 그중 윤성환을 깔아죽이고 도망쳤다.(1968년 1월 2일 남조선방송 《동양라지오방송》, 서울 1968년 1월 20일발 남조선통신《동양》)

1968년 1월 19일 미8군 제304통신대 258통신중대소속 하사 웨버 패드릭 등 7명의 미제침략군은 서울시 룡산구 룡산동에서 민인순(11세)어린이가 지나가는것을 보고 세우고있던 전주대를 고의로 넘어뜨려 그에게 치명적인 중상을 입혔다.(1968년 1월 20일 남조선방송《동양라지오방송》)

1968년 2월 3일 미8군 부평 보급기지창 공병대소속 윈프레드 에취. 퍼킨슨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에서 권총을 쏘아 위협하면서 조선녀성 정금숙을 강간하려고 하다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리순근을 쏘아 왼쪽다리에 관통상을 입혔다.(서울 1968년 2월 9일발 남조선통신《동양》, 서울 1968년 4월 10일발 남조선통신 《합동》)

1968년 2월 17일 미제58병기중대소속의 10여명의 미제침략군들은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동에서 주민들을 마구 때리는 행패를 부리였으며 영화관에 침입하여 극장주인 림서재에게 매질을 하고 영화상영을 중단시켰다.(1968년 2월 18일 남조선방송 《동양라지오방송》)

1968년 2월 20일 미제7사단 본부중대소속 상병 윈들프는 경기도 동두천읍에서 리병주의 집에 수류탄을 던져 그 집을 크게 파괴하였다.(서울 1968년 3월 7일발 남조선통신《합동》)

1968년 3월 28일 미제7사단 2대대 2중대소속 2등병 마델은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에서 이 부대에 고용된 로무자 김동식을 아무 리유없이 때려 이발 3개를 부러뜨리고 그의 혀를 잘라내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서울 1968년 4월 1일발 남조선통신《동양》)

1968년 3월 29일 미제2보병사단 지원공병대소속 2등병 간디오는 이 부대에 고용된 조선인로무자 황호신을 권총으로 쏘아 배에 치명적인 관통상을 입혔다.(1968년 3월 29일 남조선방송 《동양라지오방송》)

*　　*

지난 20여년간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감행한 이 모든 범죄행위들은 미제국주의의 피비린내나는 야수적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미제국주의는 가장 악독한 살인강도이며 조선인민과 전세계 인민의 흉악한 원쑤이다.

남조선에서 침략과 살인만행을 일삼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전횡은 저지되어야 하며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간의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살인만행을 반대하며 미제침략군의 철거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이에 당황망조한 미제침략자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을 사촉하여 수많은 남조선애국자들을 《간첩》이라는 《죄》를 씌워 탄압학살하면서 악랄한 《반공》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깊이 침입시켜 로골적인 침략행위를 감행케 하고 그것이 조선인민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나포되자 조선에서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벌리고있다.

지금 조선에는 미제에 의하여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이 남아있는한 조선과 극동에서 공고한 평화가 보장될수 없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기만 한다면 조선의 평화적통일은 손쉽게 이룩될것이며 이 지역에서 공고한 평화가 보장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미제의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조선은 의연히 분렬된채로 남아있다.

조선의 분렬과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의 화근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에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모든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남아있을 어떠한 구실도 없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민주단체들과 각국의 사회단체들 그리고 전세계 선량한 인민들이 조선인민들을 반대하여 감행한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을 준렬히 단죄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더욱 견결히 요구하여나서리라고 확신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기자동맹
조선민주과학자협회
조선학생위원회
조선적십자회
1968년 5월 7일
평 양

성 토 문

(미제침략자들과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책동을 폭로규탄하여)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을 조종하여 남조선에서 《군사정변》을 조작하고 로골적인 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한 때로부터 7년이 지나갔다.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의 산물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것은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으며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1961년 5월 군사파쑈독재가 수립된 이후 남조선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류혈적인 폭압과 테로와 학살, 총칼과 몽둥이가 전사회를 지배하는 전대미문의 암흑천지로, 철창없는 감옥으로 전변되였으며 모든 인적물적자원이 오직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철저한 군사전략기지로, 완전한 군사적부속물로, 하나의 커다란 병영으로 전변되였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남조선에서 진보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모든것들을 무참히 유린하고있으며 남조선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반공》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야만적인 군사파쑈적폭압과 광란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은 남조선인민들을 극도의 무권리와 참을수 없는 빈궁속에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가 수립된 이후 지난 7년간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준비와 매국배족행위로 일관된 범죄의 나날이였으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류례없는 폭압과 학살만행으로 일관된 류혈의 나날이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극악 무도한 군사파쑈통치를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단호히 규탄하면서 놈들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온 천하에 성토한다.

남조선에서 날로 격화되는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난 7년간 가장 야만적인 군사파쑈화정책을 추구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미제와 그 주구들이 파쑈화정책에서 추구하는 주되는 목적은 자기들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실현에서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 요소들을 제거하려는데 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바로 이러한 목적밑에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한 첫순간부터 가장 횡포한 군사파쑈폭압체계를 꾸리며 가장 악독한 파쑈악법들을 꾸며내면서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요소들을 전면적으로 탄압하는 범죄의 길에 들어섰다.

놈들은 우선 무제한한 특권을 가진 악명높은 《중앙정보부》를 신설하고 수십만의 정보원과 밀정을 망라한 형형색색의 허다한 정보, 특무망을 공장과 학교, 거리와 마을 등 남조선도처에 늘여놓았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또한 남조선괴뢰군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어느때나 방대한 병력을 인민탄압에 내몰수 있도록 하였으며 괴뢰경찰기구를 전례없이 확대강화하고 괴뢰경찰기관들과 그 인원들을 계속 증강하여왔다. 이밖에도 《해양경찰대》, 《전투경찰대》, 경찰보조기구 등 수많은 인민탄압기구들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32만여명에 달하는 경찰정보원까지 배치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수많은 정보특무기관들과 괴뢰경찰기관들로 뒤덮이고 도처에 우글거리는 특무, 밀정, 정보원들과 총검의 숲으로 뒤덮인 생지옥으로 화하였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괴뢰정권의 우두머리들을 극악한 군사깡패들로 채워놓았으며 모든 부문에서 군사파쑈분자들이 독판을 치는 살벌한 질서를 세워놓았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이와 함께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수많은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하였다. 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한 첫시기에 놈들은 하루사이에만도 무려 70여건의 악법을 꾸며내였다.

그리하여 《군사정변》이후 놈들이 조작한 악법들은 오늘 3천여건을 훨씬 초과하고있다. 그중에서도 놈들이 더욱 파쑈적으로 개악한 《국가보안법》과 새로 조작한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정당법》, 《정치활동정화법》 등은 가장 전형적인 악법들이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이 오만가지의 파쑈적악법들을 휘두르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의 자유 등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와 정당, 사회단체들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유린말살하였으며 자유와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애국자들과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여왔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한 직후에 벌써 260여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을 강제로 해체하고 1천 200여개의 언론, 출판 기관들을 무더기로 폐쇄하였으며 한달동안에 10만명이상의 애국적인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체포투옥하고 고문학살하는 류혈적인 폭압을 감행하였다.

다만 조국의 평화적통일과 남북간의 교류를 주장하였다고 하여《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인들과 사회정치활동가들이 사형과 중형을 받았다는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제와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은 심지어 매국적 《한일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애국적투쟁도 류혈적으로 탄압하였으며 수천명의 시위자들을 체포투옥하고 살인재판에 회부하는 범죄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의 학술연구의 자유와 예술창작의 자유까지 완전히 빼앗고 오직 군사파쑈독재에 순종할것만을 강요하였으며 인민들의 초보적인 인권과 일상생활의 규범마저 여지없이 짓밟고 오직 사람잡이에만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의 군사파쑈독재는 남조선에서 제놈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조선인민들의 더욱 큰 불만과 반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저들의 식민지통치위기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다주게 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놈들이 강요하는 식민지파쑈테로통치를 반대하고 생존과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대중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남조선에서 급격히 앙양되는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에 당황망조한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날로 심화되는 식민지통치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범죄적인 전쟁정책에서 찾으려고 책동하면서 최근시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그 어느때보다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이러한 발광적인 책동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공화국의 령해에 침범하였다가 조선인민군 해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나포된 이후 절정에 달하게 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른바《전시태세확립》을 떠들면서 파쑈폭압기구들을 더욱 보강하는 한편 괴뢰경찰체제를 《군사전시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서울과 지방의 괴뢰경찰우두머리들을 보다 악질적인 군사파쑈분자들로 갈아채우고 파쑈폭압체계를 소위 《일원화》하는 등 발광적인 소동을 벌리고있다. 또한 더 많은 괴뢰경찰기관들을 신설하고 괴뢰경찰을 더욱 증원하며 괴뢰경찰의 《장비를 개선》하는 등 폭압력량을 강화하기에 혈안이 되고있다.

이와 함께 놈들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탄압하며 전시에는 미제의 대포밥으로 써먹기 위하여 괴뢰군제대자들과 남조선청장년들로 소위 《향토예비군》이라는것을 대대적으로 꾸며내고있다.

다른 한편 미제와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은 남조선괴뢰군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으며 괴뢰군의 《복무년한》을 연장하고 그의 《전투장비》를 이른바 《현대화》한다는 명목밑에 더 많은 살인무기들을 끌어들이고있다.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를 더욱 강화하려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은 매국노 박정희역도가 도사리고있는 그 소굴의 《직제》를 이른바 《개편》하고있는데서도 표현되고있다. 이것은 저들의 가장 충실한 주구인 박정희역도에게 파쑈독재의 《권력》을 더욱 집중시켜 악랄한 군사파쑈독재를 일층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침략과 전쟁정책을 적극 추진시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폭압력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많은 파쑈악법들을 더욱 개악하거나 또는 새로 조작하기에 미쳐날뛰고있다.

놈들은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활동을 《봉쇄》해보려고 악명높은 《반공법》을 더욱 개악하였으며 《주민등록법》을 개악하여 18세이상의 모든 주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받아내며 남조선인민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그들의 사상동태를 내탐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또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탄압할 목적밑에 《로동쟁의조정법》을 개악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급속히 장성하는 조국통일의 지향을 가로막기 위한 악법들을 일층 개악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이와 같이 파쑈적폭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책동하면서 야만적폭압의 예봉을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혁명활동을 탄압하는데 돌리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짓밟는데 돌리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에 열이 오른 미제와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은 있지도 않은 각종《사건》을 제멋대로 꾸며내기까지 하면서 야수적탄압을 감행하고있으며 혹은 혁명조직을 가졌거나 독서회를 조직하고 선진사상을 연구하였다고 하여, 혹은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수많은 애국인사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하고 살인재판을 벌려놓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지난 4월 13일 제놈들이 꾸며낸 소위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과 관련시켜 체포투옥하고있는 애국적인사들에 대한 살인재판놀음을 또다시 벌려놓고 그중 3명에게는 사형, 그밖의 인사들에게는 무기징역까지의 중형을 들씌우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놈들은 서부독일을 비롯한 해외와 남조선에서 활동하던 그들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지향하였다고 하여 그처럼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은 또한 지난 4월 17일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성원들에 대한 살인공판놀음을 또다시 벌려놓고 그중 4명에게 징역형을 들씌우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민족주의비교연구회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진보적인 교수, 학생들로 조직된 순수 학술단체로서 그 성원들은 애국의 일념으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빚어낸 남조선의 암담한 현실과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범죄적인 《한일회담》과 그의 추악한 산물인 《한일협정》을 반대하였던것이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바로 이때문에 그들을 《처형》하려고 발광적으로 날뛰고있다.

4월 27일에는 《인민혁명당사건》과 관련시켜 투옥한 5명의 애국인사들에 대한 살인재판을 벌려놓고 그중 1명에게 사형을, 나머지 인사들에게는 무기징역에 이르기까지의 중형을 들씌우는 또하나의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그들이 제놈들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지향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이 극형과 중형을 가하려고 발악하고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21일에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대수박사와 그를 중심한 애국인사들에 대한 살인재판놀음을 벌려놓고 김대수박사에게는 무기징역을, 그밖의 3명에게는 15년까지의 중형을 들씌우는 파쑈적만행을 감행하였다. 김대수박사를 비롯한 이들 애국적지식인들은 학원내에 과학연구와 진리탐구를 위한 《써클》을 조직하고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지향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중형을 받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또한 지난 3월 13일 전주에서 살인공판을 벌려놓고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싸움에 나섰던 24세의 애국청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4월 30일에는 반미구국투쟁에 나섰던 부산에 사는 다른 한 애국청년에게 무기징역형을 들씌우는 극악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2월 29일에는 춘천에서 벌어진 살인공판에서 8명의 애국적주민들이 사형을 비롯하여 15년까지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흠모하면서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눈부시게 륭성발전하고있는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고있었던것이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바로 이때문에 그들 애국적주민들에 대한 류혈적폭압을 가하고있다. 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야수들의 만행인가!

미제침략자들과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이와 같이 련일 살인재판놀음을 벌려놓고 남조선애국자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한편 남조선도처에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있다.

놈들은 지난 2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졸업생을 비롯하여 이 대학 재학생, 중학교 교원 등 여러명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을 체포투옥하고 온갖 야만적박해를 다하고있다. 이들이 중심이 된 많은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수년전부터 독서회를 뭇고 조선로동당력사와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연구하였으며 공산주의교양강좌를 조직하여 진리탐구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선로동당 수령 김일성 수상님께 충성을 맹세》하면서 각각

공화국기발을 가슴에 품고 《나의 생명을 바쳐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결의를 다지였으며 지하당조직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이를 서울대학교안에 확대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행동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애국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바로 그들의 이 애국적인 행동을 탄압의 구실로 삼아 처형하려하고있으니 이보다 더 극악한 파쑈분자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

놈들은 또한 최근 서울주변에 살고있는 10여명의 남녀인사들이 혁명조직을 가지고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도당의 전쟁정책과 파쑈폭압을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여 싸웠다하여 그들을 체포구금하였으며 얼마전에는 서울에서 다른 4명의 애국인사들을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잡아가두고 갖은 박해를 다해오다가 살인재판에 넘기는 범죄행위를 또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지난 5월 7일 놈들의 식민지통치와 파쑈적폭압을 반대배격해나섰던 2명의 애국청년을 서울근처에서 야수적으로 학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인간백정놈들에게 무참히 학살당한 이들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에 살던 로재출과 미제침략군부대에 얽매여 치욕스러운 고용병살이를 강요당하던 괴뢰군병사 조천석이다.

로재출청년은 남조선인민들에게 강요되고있는 오늘의 빈궁과 무권리에서 벗어나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살아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쓸어버릴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재작년 9월 자기 동료와 함께 경기도 양주에서 괴뢰륙군의 한 병참대대보초소를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하였다고 한다.

또한 조천석괴뢰군병사는 치욕스러운 괴뢰군살이를 하면서 악질장교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격분을 참지 못하고있던중 1964년 2월에 악질장교놈에게 수없이 매를 맞고 인간이하의 박해를 당한것을 계기로 그 놈을 단연 처단하고 여러 놈의 군사깡패들을 쏘아눕혔던것이다. 이 두 청년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한 애국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은 끝끝내 이 애국청년들을 야수와 같이 학살하고만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것은 극히 최근에 있은 몇가지 단편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침략자들과 매국노들의 이 천추에 용납못할 극악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민족적량심이 있는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가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금할수 있겠는가! 놈들은 1967년 1년간에만 하여도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 그리고 괴뢰경찰, 예비사단을 포함하여 무려 10여개 사단이나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이른바 《소탕작전》에 참가한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 괴뢰경찰은 연 600여만에 달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적극화되고 무장유격대가 서울시내에까지 진출하게 되자 남조선혁명가들의 과감한 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발광적인 탄압소동을 일으키고있다. 놈들은 소위 《갑비상경계령》을 내리고 괴뢰륙해공군과 해병대까지 동원하여 인민탄압에 내몰고있다.

놈들은 도처에 소위 《검문소》를 설치하고 통행인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있으며 밤중에 렬차에서 내린 려객들에게는 손바닥에 고무도장을 눌러 닥치는대로 끌어가는 광태까지 연출하고있다.

한편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 강원도산악지대에 외따로 흩어져사는 인민들의 집 1천 520채를 강제로 철거시키려는 책동까지 벌리고있다. 이것은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항일유격대와 인민들과의 련계를 끊어보려고 만주에서 소위 《집단부락》을 만들어놓고 인민들을 탄압하던 바로 그러한 파쑈적폭압을 반복케 하고있다.

이 얼마나 광란적인 파쑈적탄압책동인가!

우리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반역도당의 발광적인 파쑈적탄압책동을 다시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남조선에서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처단되여야 할자는 과연 누구인가?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흉악한 침략자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개노릇을 하면서 나라를 팔아먹고있는 박정희매국도당들인가? 아니면 그것을 반대하고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민족적해방을 달성하기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인가?

과연 재판을 받고 처단되여야 할자들은 극악무도한 식민지군사파쑈독재를 실시하고 남조선인민들을 참을수 없는 무권리와 빈궁속에 몰아넣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파쑈악당들인가? 아니면 그것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며 식민지괴뢰정권을 타도하고 인민의 진정한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인가?

과연 재판을 받고 처단되여야 할자들은 전체 인민이 갈망하고있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20여년이나 지속되고있는 민족분렬의 영구화를 획책하면서 동족상쟁의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인가? 아니면 그것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지향하여 싸우는 남조선애국자들인가?

대답은 스스로 명백하다.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처단되여야 할자들은 다름아닌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매국역적들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침략과 전쟁정책을 미친듯이 강화하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식민지파쑈화정책과 전쟁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력대의 어느 괴뢰보다도 가장 철저한 미제의 주구로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흉악한 교형리로 나서고있다.

박정희도당은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충실한 집행자로 되고있으며 남조선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남김없이 미제의 전쟁정책에 종속시키고있다.

박정희도당은 8.15후 미제를 새로운 상전으로 섬기면서 미중앙정보국의 특무로까지 전락되여 수많은 남조선애국자들을 밀고하여 학살케하였고 미제의 특무교육까지 받은 미제의 가장 충실한 앞잡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지시라면 나라를 팔고 남조선인민들을 죽음터에 내모는것도 서슴지않고 감행하는 민족반역자이다.

바로 미제의 조종밑에 박정희도당은 추악한 매국문건인 《한일협정》을 꾸며내고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다.

원래 박정희일도는 일제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혈서》를 써바치고 일찍부터 일제에게 충실히 복무해온 철저한 친일주구이다.

오늘 박정희매국도당이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남조선재침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남조선을 미일제국주의자들의 공동의 식민지로 만들고있는것은 바로 두 상전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충성을 표시하는것이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박정희매국도당은 또한 미제의 지시에 따라 남부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수많은 남조선 청장년들을 끌어내가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의 가장 중요한 대포밥공급지로 써먹으려는 미제의 범죄적목적에 가장 철저하게 복무하는 또하나의 매국배족행위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면서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지숙망인 조국의 통일도 발광적으로 반대하고있다.

박정희도당은 미일제국주의자들에게는 둘도 없는 충견이고 조선인민에게는 전고미문의 반역자이며 만고의 역적이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남조선에서 감행하는 모든 범죄행위를 《반공》의 간판으로 《합리화》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바로《반공》의 간판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또다시 끌어들이고 있으며 《반공》의 간판밑에 남조선청장년들을 미제의 총알받이로 남부웰남의 죽음터로 끌어가고있다.

바로 《반공》의 간판밑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발광적인 전쟁소동을 일으키고있으며 《반공》의 간판밑에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어떠한 파쑈적폭압과 《반공》소동으로써도 결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투지를 꺾을수 없으며 그들의 불굴의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놈들의 《반공》소동을 짓부시면서 반미구국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파쑈적폭압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남조선인민들의 더욱 큰 불만과 반항을 불러일으킬뿐이며 제놈들의 멸망을 촉진하게 될뿐이다.

대담무쌍한 남조선무장유격대가 바로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의 소굴인 《청와대》에까지 진출하는것은 이것을 웅변으로 실증하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폭압을 박차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대중적투쟁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계속 확대하고있다.

특히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흠모하면서 그이의 령도밑에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승리의 신심도 드높이 억세게 싸우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40여년의 장구한 기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항일유격대원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적투지를 본받아 지하와 산중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감옥과 살인 《법정》에서까지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에 안기으로써만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된다는것을 확신하고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줄기차게 싸우고있다.

최근 특히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열렬한 동경심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고있다.

충청남도와 령남, 령동 지방을 비롯한 남조선도처에서 《나는 김일성장군을 지지한다》, 《김일성장군만세!》를 공개적으로 웨치면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억제할수 없는 경모의 정을 군중들앞에서 표시하는 일들이 련이어 일어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강원도 《명덕광업소》의 한 애국적인 청년광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끓어오르는 경모의 정을 억누를수 없어 황지삼리거리에서 《김일성장군만세!》를 목청껏 부르면서 수령의 현명한 령도하에 날로 륭성발전하고있는 공화국북반부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였고 괴뢰경찰에 끌려간후에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충청남도 대전시내의 한 애국청년은 시내 류천동앞길에 모인 군중들앞에서 《김일성장군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고나서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쓸어버리고 나라를 통일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를 받으며 살게 될 그날이 오면 지금은 집 한간없이 헤매는 남조선인민들도 훌륭한 집을 쓰고 잘 살수 있다고 력설하였다.

지난 4월 13일밤 서울시내에는 남조선의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여러단체들의 명의로 된 삐라들이 수없이 뿌려졌다. 삐라들에는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가시고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섰으며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는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이 모든것은 투쟁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이 더욱 각성되고있으며 투쟁대오가 더욱 장성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가 걷잡을수 없이 급속히 심각화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멸망의 시각이 다가오고있다는것을 증명하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서고있다.

력사는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총칼로 유린하며 인민들에 대한 극악한 교형리로써 날뛰는자들은 모두 수치스러운 멸망을 면치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바로 지난날 독일파시스트가 그러하였고 강도일본제국주의가 그러하였으며 리승만매국도당이 또한 그러하였다.

남조선에서 인민탄압에 미쳐날뛰고 있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의 운명도 결코 이와 달리는 될수 없다.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의 법칙이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이 엄연한 력사의 진리를 돌려세울수 없으며 이미 빠져들어가고있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앞에는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완강하게 투쟁함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박정희도당을 타도하며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고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단합하여 나라를 통일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기본장애물이며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철폐하기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들고 싸워야 한다.

박정희도당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철저한 주구이며 극악한 매국노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더러운 반역자이며 만고역적인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을 타도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당면과업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발광적인 전쟁정책과 파쑈적폭압을 분쇄파탄시키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는데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모든 파쑈폭압기구들과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비롯한 모든 파쑈악법들을 철폐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 및 사상의 자유와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체포투옥된 모든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무조건 즉시 석방을 위하여 투쟁하며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학살만행과 살인재판놀음을 단호히 지지파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범죄적 새 전쟁 도발책동과 남부윁남파병책동을 전인민적투쟁으로 분쇄파탄시켜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의 자주적통일이 실현되여야 하며 남조선인민들도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에 안겨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의 이 모든 투쟁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의 단합된 투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광범한 인민대중이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일어날 때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아성이라도 쳐부실수 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이 굳게 뭉쳐 혁명투쟁에 용감하게 떨쳐 나선다면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능히 타도하고 남조선혁명위업을 완수할수 있을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철저한 주체사상으로서 조선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상이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세계혁명발전에 거대한 리론실천적기여를 하고있는 탁월한 사상이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사람들의 앞길을 휘황하게 밝혀주고있는 영생불멸의 사상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의 지침이며 승리의 기발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또한 조선혁명의 력사적뿌리인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무장하고 항일유격대원들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여야 하며 4천만 조선인민의 진정한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열렬히 옹호하여야 한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어떠한 파쑈적폭압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승리는 정의의 애국투쟁에 궐기한 남조선인민들에게 있다.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신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패의 보루로 다져진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가 있으며 북반부인민들의 전투적인 지지성원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통일된 조국에서 4천만 조선인민이 다같이 행복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것이다.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승리의 신심 드높이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워 나아가자!

1968년 5월 1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공동성명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6.25~7.27공동투쟁월간이 시작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날인 6월 25일부터 그들이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날인 7월 27일까지의 기간에 세계각국에서 해마다 진행되는 이 국제적인 반미공동투쟁월간사업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을 크게 고무하여주고있다.

우리는 이 공동투쟁월간을 맞이하면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주고있는 각국 정부와 국제민주단체들, 각국의 진보적인 사회단체들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한 3년간의 가렬한 전쟁끝에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 때로부터 벌써 15년이 지나갔다.

그러나 조선은 계속 남북으로 갈라진채 남아있고 새로운 한 세대가 자라도록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실현되지 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그들이 1950년 조선침략전쟁을 일으키던 때를 방불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에 또다시 무모한 새전쟁 도발 책동에 광분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파괴유린하면서 자기의 침략군과 괴뢰군의 병력을 증강하고 그 군사장비를 더욱 현대화하고있으며 전술적핵무기와 유도무기 등 대량 살륙무기들을 남조선에 계속 끌어들이고있다.

그들은 도처에서 군사시설을 확장하고 경제를 군사화하고있으며 남조선전역에 걸쳐 《전시태세》를 강화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방대한 군사력이 집결되고 모든것이 미제의 전쟁정책에 복무하는 일대 병영으로 되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령해에 침입하여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조선인민군 해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나포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남조선에 더욱더 많은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면서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일으키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격화하고있다.

미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된 이후에만도 200대이상의 각종 최신형전투폭격기들과 다량의 군수물자와 수많은 병력을 남조선에 새로 끌어들였다.

이와 동시에 수개의 괴뢰군전투사단, 기갑려단, 전투비행단을 새로 창

설하고 예비역의 소집, 괴뢰군의 제대중지와 복무년한연장 및 그 장비를 더욱 현대화하는 등 군사력량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뿐만아니라 250만의 《향토예비군》을 조직하여 그를 무장시키며 나어린 중학교 소년들까지 군사훈련에 강제로 내몰면서 전쟁분위기를 적극 고취하고 있다.

남조선에서의 이와 같은 로골적인 전쟁준비는 지난 4월에 있은 전쟁두목 죤슨과 그의 주구 박정희도당간의 《호노룰루회담》이 있은후 더욱 촉진되고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전쟁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지상, 공중, 해상으로부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으며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있다.

그들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된 이후 지난 6월 중순까지만 하여도 4천 530여회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행위와 정전협정위반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3만 9천 300여발에 달하는 각종 총포탄을 쏴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이고있다.

교활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에 적극 복무하는 대가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여보려고 망상하면서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미제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을뿐만아니라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

최근의 모든 사태발전은 미제에 의하여 조선에서 임의의 시각에 또다시 전쟁이 터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범죄적 책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오늘 조선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분렬된 조국을 하루속히 통일하는것이다.

미제에 의한 나라와 민족의 분렬은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막대한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있다.

날이 갈수록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남북조선간의 차이는 더욱더 커가고있으며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통성은 점차 사라져가고있다.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나라의 부원과 인민의 지혜와 재능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없게 하고있다.

국경아닌 군사분계선의 인공적인 장벽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부모처자와 친척친우들은 남과 북으로 서로 갈라진지 20여년이 지나도록 상봉은 고사하고 생사의 안부조차 전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조선의 분렬은 특히 남조선인민들을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속에 빠뜨리고있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되였다.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외국자본의 예속경제로 전변되였으며 농업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민족문화와 조선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온갖 패륜과 패덕이 남조선전역을 휩쓸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으로 하여 생존에 대한 항시적인 위협을 당하고있으며 갖은 민족적 모욕과 멸시를 받고있다.

더우기 일제의 재침과 남조선괴뢰군의 월남파병으로 인하여 민족의 존엄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사회적불안은 날로 증대되고있다.

남조선은 문자 그대로 기아와 빈궁,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인민들의 반항이 있는 법이다.

20여년간의 쓰라린 생활체험을 통하여 오직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으로써만 오늘의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조선도처에서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을 높이고있다.

이것은 자신의 운명을 자기스스로 해결하며 자기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합법적인 투쟁이며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파쑈적폭압을 더욱 강화하면서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일떠선 애국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그들은 여러가지 파쑈적악법들을 만들어내는 한편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어놓았으며 《반공》의 간판밑에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언론, 출판기관들을 탄압하고 애국적인사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지금 남조선도처에서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애국적 인민들의 투쟁을 마치도 북조선에서 파견한 《간첩》들의 활동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며 세계인민들을 기만하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야수적인 탄압과 《반공》소동으로써도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반대하여 용감히 일떠선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조선은 하루속히 통일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관하게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물러간 조건하에서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를 망라하는 전조선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통일을 실현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자유로운 남북조선 총선거의 실시가 당장 실현될수 없다면 완전한 통일을 실현할 때까지의 과도적대책으로서 남북조선련방제를 실시할것도 제기하였다.

또한 남북조선간에 경제문화교류와 인사래왕을 실현하며 최소한의 조치로서 남북간의 서신거래라도 실현할것을 거듭 제기하였다. 그리고 남북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최소한으로 축소할것을 루차 제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조국통일방안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그러나 미제의 사촉하에 남조선괴뢰도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국통일방안을 모조리 거부하여나섰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무력에 의한 《승공통일》에 대하여 떠들면서 조선의 평화적통일의 길을 한사코 가로막고있다.

이것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줄곧 떠벌이고있는 《북으로부터의 침략의 위협》이라는것이 저들의 새 전쟁 도발

책동을 가리우며 세계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또한 그들이 《유엔감시하의 선거》에 대하여 운운하는것도 유엔의 기발밑에서 감행하고있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지배를 정당화하며 그것을 전조선에 확대하려는 음흉한 책동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유엔은 이 이상 미제의 침략도구로 리용되지 말아야 하며 이때까지 비법적으로 채택한 《조선문제》에 관한 모든 《결의》를 취소하고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그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하여야 한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은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이며 조선과 극동지역의 긴장상태의 근원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이 지속되고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있는한 조선인민은 잠시도 편안히 살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수도 없고 조선에서의 새 전쟁의 위험을 제거할수도 없으며 극동과 아세아의 평화를 보장할수도 없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철거—이것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 머물러있을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그것을 정당화할 아무런 구실도 없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으로부터 당장 물러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물러간다면 남북조선인민들은 힘을 합쳐 조선의 통일문제를 훌륭히 해결할것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전세계 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의 일환이다.

미제국주의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일뿐만아니라 전세계 인민의 가장 흉악한 공동의 원쑤이며 그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계속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으며 그를 아세아전역에 확대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또한 그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에 대한 침략행위를 더욱더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탄압하고있으며 세계도처에서 끊임없이 평화를 교란하고있다.

오직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해서만 그의 침략을 저지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있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승리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은 힘을 합하여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어 그들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함부로 날뛸수 없게 손발을 얽어매놓아야 한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것은 그의 강대성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어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조선전쟁은 미제가 결코 무적이 아니며 그와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꾸바혁명의 승리와 윁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은 이 진리를 다시금 확증하여주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세계 모든 인민들이 달라붙어 미제국주의자들의 각을 하나하나 뜯어낸다면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야 말것이다.

조선인민은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나갈것이다.

조선인민은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15성상 준엄한 시련을 겪으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승리한 영웅적인민이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발휘하여 미제침략자들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지켜냈으며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우리는 이번 공동투쟁월간을 맞이하면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적극 지원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조선인민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우리는 이번공동투쟁월간에전세계의 진보적인 나라의 정부들과 국제민주단체들, 각국의 사회단체들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이 여러가지 투쟁형식과 방법을 다하여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규탄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위한 국제적투쟁을 광범히 전개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주리라는것을 확신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기자동맹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민주과학자협회
조선학생위원회.

1968년 6월 24일
평 양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경북대학교 교수 김대수박사를 비롯한 남조선애국자들을 체포투옥하고 그들에게 중형을 들씌우는 죄행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지금 전체 조선인민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남조선에서 전쟁도발소동을 강화하면서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치못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도당은 최근 또다시 경북대학교 교수 김대수박사를 비롯한 남조선애국자들을 체포투옥하고 그들에게 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 들씌우는 천추에 용서 못할 죄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침략과 매국이 정의와 애국에 도전하는 참을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는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은 오늘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 군사기지로 전변되였다.

남조선의 민족경제는 여지없이 파탄되고 민족문화는 유린말살되고있으며 인민들은 극도의 정치적무권리와 혹심한 빈궁속에서 신음하고있다.

설상가상으로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에 의하여 참을수 없는 민족적멸시와 모욕을 당하고있으며 놈들의 렵기적희생물이 되어 매일과 같이 피를 흘리고있다.

실로 오늘 남조선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식민지파쑈통치로 말미암아 테로와 학살, 기아와 빈궁이 휩쓰는 인간생지옥으로, 철창없는 하나의 커다란 감옥으로 전변되였다.

과연 이러한 사태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량심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가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결연히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김대수박사를 비롯한 남조선애국자들의 활동도 바로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이러한 반미구국투쟁의 일환인 것이다.

이것은 결코 《죄》로 될수 없으며 더구나 파쑈적탄압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이것은 응당 찬양받고 존경받아야 할 천만번 정당한 애국적투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은 악명높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휘둘러 김대수박사를 비롯한 애국적인사들을 체포투옥하고 그 무슨 《불온써클조직》이니, 《반정부폭동선동》이니 하는 당치 않은 《죄》명을 들씌워 무려 7차나 살인재판놀음을 벌려오던 끝에 김대수박사에게는 무기징역을, 다른 애국자들에게는 15년까지의 중형을 들씌우는 극악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도대체 나라안에 기어든 침략자와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노들을 반대하여 싸운것이 어찌하여 《죄》로 되며 처형의 대상으로 되여야 한단 말인가.

남조선인민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은 결코 이에 머무르지 않고있다. 놈들은 소위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인민혁명당사건 등을 날조하여 수많은 애국자들에게 사형을 비롯한 극형과 중형을 들씌웠으며 순수학술단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성원들에게까지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동서고금에 이러한 파쑈적교형리들이 또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한 흉악무쌍한 인민의 원쑤가 또 어디 있겠는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김대수박사를 비롯한 남조선애국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학살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파쑈악당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치솟는 민족적격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오늘 발광적으로 감행하고있는 파쑈적폭압소동은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날로 심화되고있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위기를 수습하며 남조선에서 급격히 장성강화되고있는 혁명력량을 탄압말살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원쑤들의 날로 강화되고있는 파쑈적탄압소동은 남조선인민들의 더욱 큰 불만과 항거를 불러일으킬뿐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탄압이 강화되면 될수록 더욱 큰 반격으로 대답하면서 원쑤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다.

특히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의 진로를 따라 도시와 농촌에서, 지하와 산중에서 무장유격투쟁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이러한 반미구국투쟁은 남조선에서 조만간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야 말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은 결국 조국의 통일과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수행하고야 말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더욱 굳게 단결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여야 한다.

미제는 100여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온 조선인민의 피맺힌 원쑤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온갖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고있는 철천지원쑤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지난날에는 일본《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의 애국자들을 학살한 민족반역자이며 8.15후에는 미제의 개가 되여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고있는 추악한 매국노이다.

정의를 사랑하고 애국심에 불타는 남조선인민들이 어떻게 집안에 기어든 승냥이 미제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과 한하늘을 이고 살수 있겠는가.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인민의 철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들과 만고역적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을 쓸어버리고 인민의 진정한 정권을 수립하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완강하게 전개하여야 할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탄압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파쑈적폭압을 분쇄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남조선인민들은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김대수박사를 비롯한 모든 애국자들을 무조건 즉시 석방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것이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공화국북반부 전체 인민들은 앞으로도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필승불패이다. 만약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에서 김대수박사를 비롯한 애국자들을 계속 가두어두면서 그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무분별하게 감행한다면 놈들은 전체 조선인민과 전세계 인민들의 더욱 강력한 규탄과 천백배로 되는 복수의 징벌을 면치못할것이다.

1968년 7월 15일

평 양

성 명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살인재판놀음을 벌리고 그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하려는 미제와 그 주구 파쑈악당을 치솟는 민족적격분으로 견결히 규탄하여)

최근 남조선에서는 침략과 매국이 애국을 교살하는 파쑈적인 살인재판놀음이 매일같이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면서 인민들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을 감행하여온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지난 11월 22

일 통일혁명당 서울시 책임자 김종태를 비롯한 27명의 애국자들에 대한 살인재판놀음을 벌리고 온갖 날조된 《죄》를 들씌워 극악하게 처형하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놈들은 최근 김종태가 철창문을 부시고 감옥에서 뛰쳐나왔던것을 구실삼아 그에게 더욱 가혹한 형벌을 들씌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11월 21일에는 또한 제놈들이 꾸며낸 이른바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에 관련시킨 수많은 애국자들에게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워 사형을 비롯한 무기징역에 이르기까지의 극형과 중형에 처하는 반역적죄행을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은 이미 제놈들자신이 그 무슨 《죄》를 씌울 근거가 없다고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의 학술연구단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성원들에게도 끝내 중형을 들씌우는 파쑈적광란을 부리였다.

놈들의 이러한 범죄적책동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 때에 놈들은 또 련일 피비린내나는 재판소동을 벌려놓고 인민혁명당과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에 관련시킨 수많은 애국자들과 전라남도 일자도를 중심으로 반미구국활동을 전개한 6명의 애국자들, 지어 서울에서 리발업을 하고있던 김아무개를 비롯한 5명의 인사들에게 악명높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걸어 집단적으로 처형하려고 무모하게 날뛰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쑈적광란이 절정에 이르고있으며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신상에는 엄중한 위험이 닥치고 있다.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의 파쑈적탄압만행은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용서못할 도전행위이며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전세계 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김종태를 비롯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거듭되는 살인재판놀음을 벌리고 그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하려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파쑈악당을 치솟는 민족적격분으로 견결히 규탄한다.

남조선에서 지난 20여년간에 걸친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는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반미구국투쟁이외에 달리는 행동할수 없게 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오늘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되였으며 기아와 빈궁,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인간생지옥으로 전락되였다.

남조선에서 민족의 자주권은 완전히 유린되고 민족경제는 여지없이 파탄되였으며 민족문화는 양풍과 왜풍에 짓밟혀 빛을 잃고 인민들은 이중삼중의 착취와 압박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에 의하여 매일과 같이 피를 흘리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략책동과 괴뢰군의 남부월남파병으로 인하여 더욱 참을수 없는 재난을 겪고있다.

여기에 또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20여년동안이나 민족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또 얼마나 큰것인가.

과연 이러한 사태하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량심있는 조선사람이라면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바로 그렇기때문에 김종태를 비롯한 통일혁명당성원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을 깊이 연구학습하고 대중속에 들어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널리 선전하면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반미구국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이른바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과 인민혁명당《사건》을 비롯한 각종 허황한 《사건》들에 관련시켜 체포투옥한 모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도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김종태를 비롯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전개한 이러한 모든 투쟁은 자신들의 쓰라린 생활체험과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지향을 반영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며 우리 나라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에 길이 빛날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이다.

도대체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벌린 이러한 투쟁이 어찌하여 《죄》로 되며 피흘리며 싸운 진정한 애국자들이 어찌하여 처형의 대상으로 되여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남조선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인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싸운것이 어찌하여 《죄》로 되며, 로동자들은 공장의 주인으로, 농민들은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며 전체 인민들이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한것이 어찌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되여야 한단 말인가

절대로 그렇게 될수 없다.

남조선에서 응당 처형되여야 할자들은 애국자들이 아니라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온갖 불행과 재난을 들씌우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그들의 개가 되여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외래침략자들에게 송두리채 팔아먹으면서 애국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고있는 박정희반역도당이다.

이놈들은 저들이 저지른 천추에 용납못할 죄악으로 하여 이미 오래전에 마땅히 우리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처형되였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박정희괴뢰악당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휘둘러 김종태를 비롯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체포투옥하고 집단적으로 처형하려 하고있으니 이보다 더한 파쑈살인광들이 어디에 있으며 이보다 더 흉악한 인민의 원쑤가 또 어디 있겠는가.

미제와 박정희악당이 그처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소동을 강화하고있는 것은 남조선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위기를 수습해보려는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식민지통치위기가 일층 심화되고있으며 인민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흠모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는 기운이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특히 최근 남조선에서는 혁명적무장유격대들이 도처에 출현하여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뒤통수를 갈기면서 원쑤들에게 복수의 징벌을 안기고있으며 이에 고무된 인민들은 대중적인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이러한 혁명적진출에 당황한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지금 수년전에 꾸며낸 각종 《사건》들까지 들추어내여 이른바 《반공》의 이름아래

남조선애국자들을 처형하는것으로써 멸망에 직면한 저들의 운명을 건져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자들의 망동인가. 놈들의 망동은 결국 스스로 제놈들의 무덤을 파는 결과만을 가져다줄뿐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파쑈적탄압에는 더욱 큰 반격으로 대답하면서 놈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거세찬 반미구국투쟁은 조만간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고야 말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속에서 감옥과 교수대도 두려움없이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전투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제반사태는 전체 남조선인민들을 더욱 거세찬 반미구국투쟁에로 부르고있다.

전체 남조선인민들은 무엇보다 먼저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의 살인재판소동을 짓부시고 위협에 처한 모든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석방투쟁을 벌려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애국자들을 과연 남조선인민들이 아닌! 그 누가 원쑤들의 살인마수에서 구원하여줄수 있겠는가.

모두다 한사람 같이 들고일어나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있는 김종태를 비롯한 모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무조건 즉시 석방시키기 위하여 강력히 투쟁하여야 한다.

원쑤들에 의하여 체포투옥된 애국자들은 놈들의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말고 《법정》투쟁을 계속 강력히 벌리여 원쑤들의 살인재판장을 놈들을 징벌하는 복수의 결전장으로, 놈들의 죄행을 온 세상에 고발하는 준엄한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또한 손에 무장을 들고 영웅적으로 싸우는 혁명적무장유격대들을 적극 보호하며 그들에게 물심량면의 뜨거운 지원을 주어야 할것이다.

남조선의 괴뢰군장병들은 무장유격대와 애국적인민들을 탄압하는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말며 총뿌리를 인민의 원쑤들인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에게 돌려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파쑈테로통치를 분쇄하지 않는한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전체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남녘땅에서 몰아내고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싸우고 또 싸워야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자기들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굳게 뭉쳐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이 굳게 뭉쳐 혁명투쟁에 용감하게 떨쳐나선다면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능히 타도하고 남조선혁명위업을 완수할수 있을것이다.》**

지금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싸우는 남반부형제들과 힘을 합하여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결정적투쟁에 언제나 동원될수 있도록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다.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또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으며 도처에서 미제의 각을 뜨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멸망의 구렁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만일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파쑈악당이 현실을 똑바로 보려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날뛰면서 체포투옥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계속한다면 놈들은 전체 조선인민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며 천백배로 되는 복수의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1968년 12월 1일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호소문들

남조선의 렬사가족들과 혁명가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친애하는 남조선의 렬사가족들과 혁명가의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우리의 가장 친근한 어버이 김일성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한없는 감격과 흥분속에서 전국렬사가족및영예군인가족대회를 가지였습니다.

대회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결정과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온나라가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고있으며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체 인민이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고있는 환경속에서 진행되였습니다.

대회에 모인 우리들은 렬사가족과 영예군인의 가족된 높은 영예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우리 당의 기둥이 되여 우리 혁명앞에 지니고있는 무거운 책임을 다함으로써 일편단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무한히 충실할 새로운 각오를 다지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뜻깊은 모임에 당신들과 자리를 같이하지 못한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공화국북반부 전체 렬사가족들과 영예군인가족들의 뜨거운 혈육의 정을 담아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들은 다같이 한조상의 피줄을 이어받은 한민족의 형제들이며 혁명에 남편과 아들딸들을 바친 전우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뜨거운 마음은 미제침략자들과 그주구인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의 식민지파쑈통치하에서 고통받는 당신들과 남녘땅의 모든 형제들에게로 달리고있습니다.

우리 조선 인민은 오랜 세월을 두고 착취와 압박이 없고 굴욕과 천대를 모르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열망하여왔습니다.

우리 인민의 이 세기적인 념원은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공화국북반부에서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지난날 락후하고 가난했던 이 땅우에는 오늘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인 강력한 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섰습니다.

우리 힘, 우리 기술, 우리 부원에 의하여 도처에 크고작은 현대적공장들이 숲처럼 솟아나고 우리의 협동화된 농촌은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가 촉진되여 년년이 풍년들고 온갖 세금을 모르는 발전된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되였습니다.

지난날 근로자들이 무지와 몽매 속에서 허덕이던 이 땅에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여 우리의 아들딸들은 로동할 나이까지 무료로 마음껏 배우고있으며 인민들은 누구나 무상치료와 유급휴가제의 혜택을 받으면서 의식주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

과거에 2중3중의 억압밑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우리 녀성들은 오늘 어엿한 사회주의근로자로 당당하게 활약하면서 국가로부터 산전산후휴가를 비롯한 특별한 보호를 받고있으며 탁아소와 유치원, 아동병동에 이르기까지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받고있습니다.

실로 오늘 공화국북반부 전체 인민들은 착취없고 압박없는 살기 좋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배우며 다같이 행복을 누리면서 새생활을 꽃피우고있습니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 이루어진 세기적인 변혁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은 오로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부터 40여년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오직 승리와 영광에로 인도하고계십니다.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고있던 그 암담한 시기에, 온 겨레가 조선혁명의 운명을 바로잡아나아갈 위대한 령도자를 목마르게 기다리던 그때에 백두련봉에 조국광복의 홰불을 지펴올리시고 15성상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마침내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이 땅우에 조국해방의 찬란한 빛발을 안아오셨습니다.

원수님께서는 해방후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시고 우리 인민을 주권과 땅과 공장의 어엿한 주인으로 되게 하여 주시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탁월한 전략전술로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전후 벽돌한장 성한것 없던 재더미우에서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짧은 시일내에 우리 나라를 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킴으로써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불패의 보루로 되게 하시였습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탁월한 령도로하여, 30년대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는 확고한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혁명적원칙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견결한 반제반미적립장으로하여 오늘 전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시며 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은 비상히 높아가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영웅의 나라》, 《천리마의 나라》, 《주체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우리 렬사가족들과 영예군인가족들은 이 영광찬란한 사회주의조국에서 어버이 김일성원수님의 육친적인 사랑과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당, 정권기관을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기둥이 되여 일하고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일터와 가정에 찾아오시여 사업과 살림 형편에 대하여, 건강과 휴식에 대하여, 자녀들의 교육과 교양에 대하여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혁명사업에 앞장서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자녀들이 부모들의 뜻을 이어 열렬한 혁명가로 자라나도록 깊은 배려를 돌려주고계십니다.

원수님의 이러한 배려가 어찌 우리들에게만 한한것이겠습니까.

원수님은 언제나 남조선에서 싸우다 희생된 렬사들의 가족들과 싸우는 혁명가의 가족들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들에게 깊은 심려를 돌리고계십니다.

여기 공화국북반부에서 새로운 공장이 일어설 때도, 협동전야에 풍년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릴 때에도, 거기

남녘땅에서 공장문을 쫓겨나는 로동자들과 절량에 허덕이는 농민들을 생각하시여 잠못이루시는 원수님,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우리의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주시고 당신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도록 고무해주시는 원수님, 천만자루의 붓이 다 닳도록 쓰고 또 써도 못다쓸 원수님의 크나큰 어버이사랑을 우리 어떻게 여기서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친애하는 남조선의 렬사가족들과 혁명가의 가족 여러분!

만일 우리의 이 행복이 금수강산삼천리 통일된 조국에서 원수님의 품에 안겨 우리 다같이 누리는것이라면 우리에게 그이상 더 바랄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이 커가고 자랑이 커갈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항시 남녘에로 달리고 있습니다.

테로와 학살과 빈궁이 휩쓰는 남조선은 오늘 돈 있고 권세 있는 부자놈들에게는 《천당》이지만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가난한 인민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암흑세상입니다.

남조선에서는 의롭고 진보적인 모든것이 파쑈적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총칼과 몽둥이의 전횡밑에서 인민들의 피는 하루도 마를 날이 없습니다.

부자놈들과 놀고먹는 사회의 기생충들이 번거리의 료정에서 하루밤의 향락으로 수많금을 탕진할 때 가난한 인민들은 한푼의 돈이 없어 끼니조차 에우지 못하고있으며 병원문전에서 쓰러지고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거리에 넘쳐흐르는 수백만 실업자들의 피기없는 얼굴들과 풀뿌리를 찾아 산발을 헤매는 녀인들 그리고 철들기전부터 주린배를 채우려고 한술 밥을 구걸하는 어린것들의 처참한 모습이 선히 떠오릅니다.

특히 당신들, 남조선의 렬사가족들과 혁명가의 가족들이 당하고있는 고통이야말로 또 얼마나 모진것이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딸들을 바친것으로 하여 마땅히 존경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할 당신들은 그 누구보다 가장 혹심한 탄압과 구박을 받고 있으며 귀여운 자식들이 배움의 길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당신들과 전체 남조선인민들이 오늘 그처럼 모진 착취와 압박을 받는것은 과연 어느놈때문입니까.

그것은 다름아닌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통치자로 주인행세를 하는 미제국주의침략자들때문이며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박정희매국역적때문입니다.

미제승냥이들과 그 주구들의 학정밑에서 얼마나 많은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으며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원한을 품은채 억울하게 죽어갔습니까.

우리는 본대회의 이름으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천추에 용납 못할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치솟는 민족적분노로써 준렬히 규탄합니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쓰라린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한 남조선인민들은 1946년 10월인민항쟁으로부터 리승만독재정권을 타도한 4월인민봉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의의 애국투쟁을 계속 과감히 전개하여왔습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의 앞장에는 바로 당신들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딸들이 서있었으며 당신들 역시 피어린 투쟁의 광장과 거리에서 그들을 도와 용감히 싸워왔습니다.

혁명의 길우에 당신들이 수놓은 위훈에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져있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딸들을 혁명의 대오에 기꺼이 떠내보낸 어머니와 안해들이며 지난조국해방전쟁때에는 인민군대를 도와 온갖 정성을 다 바쳐 싸운 애국자들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항쟁의 나날에 젊은 용사들에게 돌을 날라다주고 더운 물을 끓여다준 자랑스러운 어머니들이며 바로 당신들이 자신과 온 가정의 위험을 무릅쓰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원쑤들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고 도와준 녀성투사들입니다.

십년을 하루같이 고이 간수해두었던 김일성원수님의 초상화앞에 항쟁에로 떨쳐나가는 자기 아들과 아들의 전우들을 돌려앉히고 원수님처럼 조국을 사랑하고 난관앞에 굴함없이 원쑤들과 싸우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는 어머니며 원쑤들의 삼엄한 감시속에서도 깊은 밤이면 초불을 마주하여 한수한수 불타는 충성을 담아 《김일성원수님 만세!》라는 글발을 수놓아보낸 한 녀성에 대하여 우리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진정 원수님을 흠모하는 그들의 이 절절한 심정에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고 원수님의 령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려는 당신들과 모든 남녘땅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이 어려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횡포한 탄압에도 굴함없이 원수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위하여 계속 완강하게 싸우고있으며 자기들의 투쟁을 무장투쟁으로까지 발전시키고있습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렬사가족들과 영예군인가족들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각에도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꿋꿋이 살며 싸우고있는 남조선의 전체 렬사가족들과 지하에서, 산중에서, 감옥에서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혁명가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가장 열렬한 혁명적인사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남조선의 렬사가족들과 혁명가의 가족여러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은 20여년동안이나 통일되지 못한채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새로운 한 세대가 자라도록 분렬은 지속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남녘땅에 원쑤들이 있는한 당신들은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합니다.

원쑤들의 모진 탄압을 박차고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온 당신들은 남조선에서 가장 무권리한 사람들이며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누구보다도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매국역적들을 미워하는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이며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가장 강의한 사람들이며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지조를 지킬줄 아는 가장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당신들을 우리 혁명의 가장 보배로운 사람들로 그처럼 귀중히 여기고계십니다.

렬사가족들과 혁명가의 가족들에 대한 원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은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일관하게 베풀어오시는 변함없는 덕성입니다.

당신들은 원수님의 두터운 사랑과 신임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렬사가족과 혁명가의 가족된 높은 영예를 투쟁으로써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민족분렬의 고통속에 흘러간 지난 20여년간의 력사는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당신들의 뼈속깊이 사무쳐있는 철천의 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모두다 피맺힌 원한과 복수의 분노를 안고 미제침략자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십시오.

남조선에서 응당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치단되여야 할자는 바로 지난날 일본군도를 차고 수많은 애국자

들을 학살하였으며 오늘은 미제의 충실한 개가 되어 민족반역에 미쳐날뛰는 박정희매국역적입니다.

당신들은 투쟁의 앞장에 서서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을 탄압학살하는 피령리이며 가장 반동적인 군사특무테로집단인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을 타도하여야 합니다.

지금 미제와 그 주구들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그 어느때보다도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당신들은 강력한 공동투쟁으로써 이 땅에 또다시 불을 지르려는 원쑤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저지파탄시키며 괴뢰군의 강제징집과 군사적수탈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십시오.

또한 원쑤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파쑈적탄압을 분쇄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야합니다.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수 있는 자유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빼앗긴 남조선녀성들은 사회적해방과 생존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미제와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참가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령도하에 조국을 통일하고 삼천리강산에 다같이 일하며 다같이 배우고 다같이 잘 사는 사회주의 락원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모두다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싸우고 또 싸워야 할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모든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습니다.**》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혁명력량을 준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조직을 꾸리는것입니다.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렬사가족들은 혁명조직에 적극 참가하며 그것을 튼튼히 보위하고 부단히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쳐야 할것입니다.

우리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석으로 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입니다.

당신들은 남조선의 전체 인민들과 함께 오직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그이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남편의 혁명사업을 도와주셨으며 탁월한 혁명가인 원수님을 낳아키우시고 자신이 또한 열렬한 혁명가로서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움으로써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야 할것입니다.

당신들은 혁명가의 어머니로서, 안해로서, 동지로서 혁명적지조를 굳게 지키며 모든 힘을 다하여 혁명가들을 적극 보호하고 도와주는 한편 한사람이 열사람을, 열사람이 또 백사람을 깨우쳐 더 많은 사람들을 혁명대오에 묶어세워야 할것입니다.

당신들의 귀여운 자녀들은 당신들의 남편과 아들딸들이 다하지 못한 혁명위업을 이어나갈 귀중한 후계자들입니다.

당신들은 자녀들을 김일성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투사로 키우며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도록 교양해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의 렬사가족들과 혁명가의 가족 여러분!

혁명의 길은 비록 간고하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리울수 없듯이 그 어떤 장벽도 험산 준령도 당신들의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우러러받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이 계시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패의 보루로 거연히 솟은 공화국북반부의 강력한 혁명기지가 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당신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것입니다.

우리 조선인민에게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할수 있는 위력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승리의 신심 드높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위에 굳게 뭉쳐 힘차게 싸울때 원쑤들의 그 어떤 아성도 능히 쳐부실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처럼 그리며 흠모하여 마지않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품에 안겨 4천만 조선인민이 다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아갑시다.

1968년 3월 2일
전국렬사가족및영예군인가족대회
참가자일동

남조선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친애하는 남조선청년학생 여러분!

우리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우리 청년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여주시는 가장 친근한 어버이신 김일성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한없는 감격과 흥분속에서 전국청년총동원대회를 가지였습니다.

대회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결정과 김일성원수님께서 밝히주신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전체 인민이 천리마의 총진군에 떨쳐나서서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키며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실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진행되였습니다.

우리들은 대회에서 조국의 통일과 혁명을 위하여 청춘의 힘을 다받쳐 싸울 혁명적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으며 김일성원수님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이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는 근위대, 결사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불같은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습니다.

우리들은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이 시기, 조국의 미래를 두어깨에 걸머진 이나라 젊은 세대들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피줄을 이은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남조선청년학생 여러분!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도처에서 특히 웰남에서 당하고있는 심대한 군사, 정치적 패배를 만회하기위하여 침략전쟁의 불길을 아세아전역에 확대하려고 흉책하면서 그의 예봉을 조선에 집중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서의 새전쟁 도발책동은 우리 나라 령해에 깊이 침입하였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정세는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사태가 조성되였습니다.

위대한 혁명의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만약 미제가 분별없이 그 어떤 《보복》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더큰 보복타격으로 대답할것이며 놈들이 끝끝내 전면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단호한 전면전쟁으로 놈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말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항일혁명투사들이 피로써 찾아주었으며 우리 인민이 목숨으로 지켜내고 땀으로 꽃피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철옹성같이 수호하고 항상 우리들의 가슴속에서 불타는 조국통일의 념원을 기어코 성취하고야 말것입니다.

조선은 하나이며 조선민족도 하나입니다.

지난날 우리 인민과 청소년들은 산좋고 물맑은 삼천리 이강산에 착취없고 압박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고 풍만한 자원을 제 손으로 개발하여 온 겨레가 다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그 얼마나 애타게 갈망하였습니까.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이 그처럼 세기를 두고 바라던 그 념원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영명한 령도밑에 오늘 공화국북반부에서 활짝 꽃피고있으며 자랑찬 현실로 되고있습니다.

만경대의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일찌기 한몸을 혁명에 바쳐 나서신 때로부터 40여년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험난한 가시밭길을 몸소 헤치시며 우리 인민을 오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길로 인도해오시였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혁명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솟으시여 15성상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심으로써 마침내 이 땅우에 조국광복을 가져오시였으며 해방후 당과 인민정권을 창건하시고 압박받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과 청년들을 나라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게 해주시였으며 공화국북반부에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해주시였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운명이 존망의 기로에 놓여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천재적이고도 탁월한 전략전술로 능숙하게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우리 조국을 영웅조선으로 빛내이시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으시였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전후 재더미만 남았던 페허우에서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하였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독창적인 사회주의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우리 인민을 천리마대진군에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짧은 기간에 공화국북반부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사회주의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켜 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과 청년들은 우리 나라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대 민족적번영을 이룩하였으며 지난날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오늘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자위적국방력,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위대한 사회주의 강국으로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조선혁명과 건설에 기여하신 위대한 업적으로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민족해방투쟁의 승리적 전진에 기여하신 불멸의 공헌으로하여 세계혁명적인 인민들은 김일성원수님을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우러러 높이 받들면서 무한히 흠모하며 존경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있는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으로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높은 긍지와 우월감으로 하여 한없이 높뛰고있습니다.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폭풍우속을 몸소 헤쳐나가시면서도 조선혁명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후대들을 넓은 품에 모두 안으시여 견결한 혁명가로, 나라의 기둥감으로 키워오신 원수님!

오늘도 우리 젊은 세대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귀중한 모든것을 아끼시지 않고 돌려주시는 원수님!

아담한 교사로부터 웅장하고 화려한 학생소년궁전과 야영소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철따라 입는 옷과 신발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모든 생활에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곳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공화국북반부의 청년학생들은 원수님의 손길 따라 일터가 그대로 청춘의 활무대가 되고 국가가 그대로 학부형이 된 가장 훌륭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일하고 배우면서 조선의 열렬한 혁명가로 자라나고있습니다.

지난날 로동자의 아들딸로 태여나 천대받고 멸시받던 우리 로동청년들은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 자체의 부원으로 현대적인 공장을 일떠세우고 여기에서 온갖 지혜와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면서 로동계급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고있습니다.

행랑방에서 머슴군의 자식으로 피눈물을 흘리던 우리 농민청년들도 원수님께서 주신 땅에서 기계로 농사짓고 약으로 김을 매면서 해마다 만풍년을 노래하고있으며 온갖 세금이 영영 없어진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농촌에서 청춘의 리상을 꽃피워나가고있습니다.

우리 학생청소년들은 원수님께서 열어 주신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넓은 길에서 누구나 다 로동할 나이가 될 때까지 무료로 공부하고있으며 원대한 포부를 안고 과학과 진리 탐구에 열정을 쏟아붓고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면서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하고있습니다.

과연 그 언제 이 나라 청년들이 오늘의 우리들처럼 영예로운 로동속에 청춘의 값높은 삶을 빛내이며 조국의 찬란한 새 력사를 창조해 나간적이 있었으며 과연 그 어느때 이나라 청년들이 로동당시대에 사는 오늘의 우리 세대들처럼 무료로 배우는것이 의무로된 세상에서 밝고 넓은 과학의 대로를 활보해본적이 있었습니까.

실로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청산되고 누구나 다 일하고 누구나 다 무료로 공부하고 무상으로 치료받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우리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새 세대들입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일어난 세기적변혁들은 오로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혁명사상이 모든 부문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이룩된 위대한 결실이며 우리 청년학생들이 누리고있는 행복도 김일성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두터운 배려속에서 맺어진 빛나는 열매입니다.

원수님께서는 여기 북반부에 하나의 공장, 하나의 학교, 하나의 집을 일떠세우게 하실때에도 항상 미제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 파쑈테로통치하에서 신음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과 청년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며 남조선인민들과 청년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반미구국투쟁의 길로 불러주시고계십니다.

우리는 생활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를 떠나서는 오늘의 승리와 행복도 희망찬 래일도 없다는것을 확신하고있기때문에 일편단심 수령께 충성을 다할 일념에 불타고있으며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남북 3천리에 꽃피우고 4천만 조선인민이 다 함께 행복과 번영을 누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친애하는 남조선청년학생 여러분!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지맥으로 잇닿은 3천리 우리 나라는 계속 남북으로 두동강이 난채 남아있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으며 한 혈통을 이은 우리 민족은 20여년간이나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의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기본 장애입니다.

오늘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전변되였습니다.

흉악무도한 강도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저들의 침략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발악적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놈들은 온 남녘땅을 감옥과 교수대로 뒤덮고 나라의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주구들의 강도적인 수탈정책으로 하여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여지없이 파괴되였으며 농촌경리도 극도로 령락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실업과 기아와 빈궁만이 홍수처럼 휩쓰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였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빼앗긴 피기없는 수백만 실업자들이 살길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수백만 절량농민들이 초근목피를 찾아 메마른 산야를 누비고있으며 빈민굴마다에서는 굶주려 병든 아이들이 애처롭게 죽어가고있습니다.

가난한 근로자의 자녀들은 해마다 뛰어오르는 《공납금》과 《잡부금》을 대일수 없어 황금보다 귀중한 눈알까지 팔겠다고 피맺힌 호소를 하고있습니다.

타민족을 정복하며 식민지노예화하는 침략사상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수많은 남조선청장년들을 괴뢰군에 대대적으로 강제징집하여 저들의 값싼 총알받이로 만들고있으며 남부웰남침략전쟁터에 끌어가 미제침략군을 대신하는 수치스러운 개죽음까지 시키는 등 무제한한 희생을 강요하고있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의 범죄행위는 결코 이에만 그치지 않고있습니다.

피에 굶주린 미제승냥이놈들은 백주에 민가와 점포를 습격하고 재물을 략탈하고 방화하며 부녀자들을 릉욕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파녁으로 삼고 함부로 총질하며 자동차를 몰아 길가는 사람들을 깔아죽이는 등 온갖 야수적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습니다.

이리하여 남조선땅은 우리 동포들의 붉은 피로 물들여졌으며 미제살인귀들에 대한 원한이 남녘하늘땅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착취와 압박의 암흑천지로 변한 남조선에서 어떻게 청춘의 참된 삶이 있을수 있으며, 인민들이 더는 그대로 살수 없는 인간생지옥으로 변한 남조선에서 어떻게 당신들의 배움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실현될수 있겠습니까.

폭압이 있는 곳에 항거가 있고 항거가 높아갈수록 폭압자들을 매장할 인민들의 혁명투쟁의 분화구가 터지기마련입니다.

생활체험을 통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해방자》로 가장한 침략자이며 《원조자》로 분장한 강탈자이며 《자유의 수호자》로 위장한 억압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게된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흉악한 미제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반미 구국투쟁의 한길에서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 청년학생들은 오직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를 직접 받을 때만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일념을 안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미제침략자들과 반고의적 박정희괴뢰도당의 머리우에 복수의 불벼락을 들씌우면서 과감하게 혈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대와 고역에 시달리던 로동대중이 억압의 철쇄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마치를 들고 판가리 싸움에 떨쳐나서고있으며 미제침략자들에게 군용지로 땅을 빼앗긴 농민들도 손에 낫을 들고 복수전에 떨쳐나서고있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청년학생들과 근로대중의 이 투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민족해방투쟁입니다.

우리들은 전체 청년학생들의 이름으로 미제침략자들과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리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지하와 산중에서, 거리와 마을에서, 감옥과 살인법정에서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 청년학생들에게 전투적인 지지성원과 열렬한 혁명적 인사를 보냅니다.

남조선 전지역에서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혁명가들의 무장유격투쟁과 대중적혁명투쟁에 부딪쳐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지금 이 혁명투쟁을 말살해보려고 《반공》의 간판밑에 군사파쑈독재에 더욱더 매달리고있습니다.

각종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해내는 한편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 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고 애국과 정의를 잔인하게 교살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의 한쪼각마저 여지없이 말살하고있습니다.

놈들은 이른바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사건, 《정십회사건》 등을 날조하여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진보적교수들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고있으며 지어 살인적재판에 끌어 내여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걸어 처형까지 하는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그 어떤 야수적폭압도 김일성원수님께 충성의 맹세 다지고 자유와 민주주의와 해방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영용하게 싸우고있는 혁명의 불사조들을 결코 굴복시킬수 없습니다.

놈들이 류혈적폭압을 강화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들의 멸망을 그만큼 더 촉진할따름입니다.

우리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청년학생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 전대미문의 류혈적폭압을 가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악당의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를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준렬히 단죄규탄합니다.

친애하는 남조선청년학생 여러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가르치신바와같이 **《청년들의 운명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련결되여 있습니다. 남조선청년들은 우리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게 될 때에만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수있으며 자기들의 광명한 앞날을 개척할수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친미파 등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할수 없으며 따라서 남조선청년들의 해방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였으며 휘황한 미래를 지향하는 피끓는 청년들이 어찌 미제국주의자들의 억압에 굴종할수 있으며 오늘의 비참한 남조선 사태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국은 우리 인민의 거족적인 해방투쟁에서 숭고한 임무를 지니고있는 남조선청년들의 혁명적열정과 용맹을 뜨겁게 부르고있으며 온 겨레가 남조선혁명의 직접적담당자들인 당신들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있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이 남녘땅에서 저지른 전대미문의 죄행에 대하여 피의 대가를 받아내며 미제살인귀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기위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서 모두다 단합하여 반미구국투쟁에 총궐기합시다.

모두다 멸적의 폭풍을 안고 4. 19와 3. 24, 6. 3의 그 기세로 투쟁의 광

장, 항쟁의 거리로 떨쳐나오십시오. 하여 온 남녘땅을 이 나라 청춘들의 애국적기개를 떨치는 반미구국투쟁의 활화산으로 만들고 노호하는 그 불길속에 침략자 미제승냥이놈들을 모조리 처넣어 한놈도 남김없이 태워버려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자유와 해방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미제를 몰아내는 동시에 그 주구인 인간백정 박정희매국도당을 쓸어버려야합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충견으로써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우는 조선의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한 극악무도한 인간페륜아이며 오늘은 미제의 특무로 변신하여 남조선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탄압학살하면서 나라를 팔아먹기에 미쳐 날뛰는 추악한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무자비하게 처단하여야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광분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은 지체없이 공동투쟁을 전개하여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야 하며 괴뢰군강제징집과 각종 군사시설확장공사와 가중되는 군사적수탈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책동의 본질을 철저히 폭로하고 놈들에게 밟힐 한치의 땅도, 한알의 쌀도, 한방울의 물도 주지 말아야합니다.

괴뢰군내 청년들은 자신들이 들고있는 총구앞에 누구가 서있는가를 똑똑히 보아야 할것입니다.

그 총구앞에는 당신들을 낳아키운 사랑하는 어머니가 서있으며 당신들이 그처럼 귀여워하는 어린 자식들이 서있습니다.

이 부모들의 아들인 당신들이, 이 처자들의 남편이며 아버지인 당신들이 어떻게 그 총구를 그들의 가슴에 대일수 있겠습니까.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그 어떤 명령도 단호히 거부하여야 하며 손에든 그 총을 동족을 향하여 겨눌것이 아니라 바로 그 총을 쥐여준 원쑤들의 가슴팍에 돌려야 합니다.

남부웰남파병은 죽음의 길이며 민족적치욕의 길이며 수치스러운 범죄의 길입니다.

조국의 영예를 귀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미래를 간직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남부웰남파병책동을 단연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보루임을 당당히 자부하는 당신들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역적들의 파쑈적탄압을 분쇄하고 모든 폭압기구들과 각종 악법들을 철페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체포투옥된 전우들의 무조건석방과 부당하게 퇴학, 정학당한 학우들의 즉시복교와 강제축출당한 진보적교수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학원의 자유와 배움의 권리를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 모든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려면 반드시 강력한 혁명력량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혁명력량을 보존하고 그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다 받쳐야 합니다.

혁명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행동의 지침이며, 승리의 기발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당신들은 남조선의 전체 인민들과 함께 오직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원수님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승리와 영광만이 기약되어있는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줄기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입니다.

력사적 경험은 청년학생운동이 혁명의 기본동력인 로동자, 농민들의 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당신들은 로동자와 농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로동자, 농민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굳게 단결하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합니다.

혁명은 간고하고 투쟁은 준엄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김일성원수님의 초상화앞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받쳐 끝까지 싸울것을 혈서로써 맹세 다진 젊은 용사들, 철창속에서도 마음속으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러 죽음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용기를 가다듬고 승리의 신심을 높이며 원쑤들을 소탕할 래일의 더 큰 투쟁을 마련하고있는 청년투사들,

일편단심 김일성원수님께 충성을 다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철석같은 결의를 안고 원쑤들의 총칼의 숲을 박차면서 영용하게 싸우고있는 혁명의 젊은 수리개들, 과연 당신들을 그 무엇이 굴복시킬수 있단 말입니까.

충암절벽이 대하의 도도한 흐름을 멈춰세울수 없듯이 쇠사슬도, 총칼도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면서 김일성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당신들의 혁명의 거세찬 전진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감옥도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가장 값있게 사는 사람이며 반드시 오고야 말 조국통일의 그날, 조국과 인민들로부터 높은 사랑과 존경과 영예를 받게 될것입니다.

당신들의 투쟁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이 계십니다.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는 그 어떤 원쑤도 단매에 때려눕힐수 있는 일당백의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서있으며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되여있습니다.

남반부를 한시도 잊지 않고있는 우리들은 하루속히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것이며 싸우는 당신들의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4월의 사자들이며 3. 24와 6. 3의 용사들인 남조선청년학생들이여!

캄캄한 밤이 지새면 새벽이 오듯 암흑의 남녘땅에 해방의 서광은 비쳐오고있습니다.

자나깨나 그처럼 흠모하여 마지않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그이의 영생불멸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활짝 꽃핀 통일된 3천리 금수강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남북의 우리 청년들은 모든 힘을 합쳐 반미구국투쟁의 기발, 혁명의 기발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합시다.

1968년 4월 13일

전국청년총동원대회 참가자일동

남조선농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친애하는 남조선농민들!

지금 남조선농촌에는 력사상 처음보는 혹심한 절량상태가 조성되고있다.

절량과 기근은 이미 남조선전역을 휩쓸고있다. 산간벽지로부터 평야지대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의 거의 모든 농촌에서 절량농가는 날을 따라 급격히 늘어가고있다. 당장 끼니를 에울 한줌의 쌀도 없는 수백만 농민들이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찾아 메마른 들판을 헤매고있으며 기아의 아우성은 남조선도처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학정밑에서 가혹한 착취와 압박에 시달리고있는 당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어느 한때도 잊은적이 없는 우리들, 공화국 북반부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오늘 당신들이 겪고 있는 류례없는 재난과 고통에 대하여 진심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친애하는 당신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친애하는 남조선농민들!

우리 조선농민들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두고 산좋고 물 맑은 삼천리금수강산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굴욕과 천대를 모르는 새 사회를 건설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에서 기름진 논밭을 마음껏 갈아엎으며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 없이 가슴펴고 떳떳하게 살기를 열망했던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남조선농민들은 이 간절한 꿈마저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그러나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한나라 한강토인 여기 북반부를 보라!

여기서는 우리 농민들이 세기를 두고 념원하여 오던 그 모든것이 현실로 된지 이미 오래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북반부에는 지주도 없고, 자본가도 없고, 압박도 없고, 착취도 없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하게 수립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 없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배우며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인민의 락원이 건설되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여주시였으며 근로인민이 살기 좋은 훌륭한 정치를 베풀어주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특히 우리 농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항일무장투쟁의 그 어려운 시기부터 익혀오신 농촌문제, 농민문제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고있다.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에 개선하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력사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시여 지주들의 가혹한 착취에 시달리던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였으며 우리 농민들을 봉건적질곡에서 영원히 해방하여주시였다.

김일성원수님의 은덕으로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우리 농민들은 해방된 첫봄부터 제 땅에서 자유롭게 농사지으며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하는 보람찬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전후에 사회주의적협동화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농촌경리를 시급히 복구하고 농업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여 사회주의의 빛나는 새 언덕에 올라설수있게 하여주시였으며 농촌기술혁명의 웅대한 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 농업의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켜주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농촌에서 착취와 빈궁의 근원은 영원히 청산되였으며 우리 농민들은 협동경리의 대가정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짧은 기간에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특히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확하고 독창적인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농업강령인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고 아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빛나는 앞길을 우리 농민들에게 밝혀주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위대한 사상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는 우리의 농촌은 눈부시게 발전하고있으며 우리 농민들의 생활은 몰라보게 변해가고있다.

김일성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우리 농촌에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크게 일어나고 있으며 영웅적로동계급은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적극 도와주고 있다. 우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사회주의적공업의 믿음직한 방조밑에 계속 강화되고있으며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우리 농촌의 세기적락후성은 선진적인 도시의 강력한 지원밑에 급속히 퇴치되고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어디서나 뜨락또르가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있으며 자동차가 짐을 나르고 기계가 힘든 일을 대신하여주고있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모든 농기구들을 나라에서 무료로 공급받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만든 질 좋은 비료와 농약들을 제철에 풍부하게 받아쓰고있다.

대자연개조사업이 진행된 결과 우리는 또한 바다를 막고 산을 허물어 수많은 경지면적을 확장하였으며 어떠한 왕가물이나 큰물의 피해도 입지않고 어떤 흉풍을 모르는 안전한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농업생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북반부는 식량이 모자라던 지대로부터 식량이 여유있는 지대로 전변된지 이미 오래다.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공업의 위력이 날로 장성하고 농촌에서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우리 북반부는 더욱 부강하여지고 있으며 우리 농민들의 생활은 계속 급속히 향상되고있다.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하여주시기 위하여 1966년부터는 농업현물세까지 완전히 페지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 한푼 물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서 살게 하여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아담한 문화주택을 무료로 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무료로 공부시켜주고계시며 병이 나면 무상으로 치료까지 하여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 주시고있다. 또한 우리 농민들을 명승고적지에 자리잡고 있는 휴양소와 정양소들에도 무료로 보내주신다.

참으로 오늘 우리 북반부농민들은 농토와 농기구는 물론 주택과 병원, 학교와 구락부까지 무료로 갖추어주고 세금 한푼 받지 않으면서 무료교육, 무상치료, 무료휴양의 혜택까지 베풀어주는 살기좋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기계로 농사짓고 약으로 김매면서 해마다 만풍년을 노래하며 근심걱정 없이 살고있으니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 우리의 자랑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것은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우리 조선농민들만이 누릴수 있는 행복이며 기쁨이다.

일찌기 혁명활동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일제통치의 그 암담한 시기에는 손에 직접 무장을 드시고 백두련봉에 조국광복의 홰불을 높이 올리시여 이 나라 삼천리에 민족해방의 서광을 비쳐주시고 15성상의 장구한 기간 신출귀몰한 전법으로 일제강도놈들과 싸워이기시여 우리 조선인민에게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신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을 위대한 승리의 길로 이끄시였으며 미제무력침공자들을 격파하고 놈들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기심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려버리고 미제국주의자들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원수님!

가난하고 뒤떨어졌던 우리 조국 북반부에 전세계에 그 찬연한 빛을 뿌리는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유구한 이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였으며 조국의 산천으로부터 우리 인민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천지개벽을 일으켜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항상 우리 농촌을 몸소 찾아오시여 우리의 농사형편을 일일이 돌보아주시면서 산간마을의 밭고장을 논고장으로 만들어주시고 손수 가꾸신 벼이삭까지 종자로 보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옛날에는 사람 못살 곳이라던 《망자골》도 《풍년골》로 만들어주시고 쓸모없던 산들까지 《황금산》으로 만들어주시였으며 양지바른 곳에 집터를 잡아주시고 두메산골 외딴집에까지 전기불을 켜고 살게 하여주신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

태산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우리에게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은덕에 어찌 비길수 있으며 바다가 아무리 깊다고 한들 우리에게 이 기쁨을 안겨주신 우리의 태양 김일성원수님의 은덕에 어찌 비길수 있겠는가.

우리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김일성원수님과 같은 위대한 령도자를 자기의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것보다 더 큰 행복과 더 큰 영광은 없다.

우리는 이 영광, 이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일편단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무한히 충성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으며 그분의 위대한 뜻이 남북삼천리에 활짝 꽃피게 될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고있다.

친애하는 남조선농민들!

만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철폐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이 이룩되였다면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품에 안겨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었을것이며 오늘과 같은 재난도 겪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더욱더 야만적인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조국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열렬한 지향을 무력적폭압으로 억누르면서 당신들에게 보다 큰 재난을 들씌우고있다.

오늘 남조선전역을 휩쓸고있는 절량과 기근도 바로 남조선에서 침략과 전쟁 도발책동을 강화하고있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결과이며 미제의 주구 박정희도당의 강도적수탈과 지주들의 봉건적착취의 결과이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이른바 《중농정책》을 떠들고 《농업근대화》를 운운하면서 마치도 남조선농민들의 생활에 그 무슨 관심이나 있는듯이 교활한 기만술책을 쓰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당신들에게 가져다 준것이 과연 무엇인가?

만성적인 절량과 기아, 농업의 전면적인 파산과 농촌의 황폐화 밖에 또 무엇이있는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군사비부담을 들씌우면서도 출혈적인 저미가정책만을 강요하는자들이 과연 어느 놈들이며 당신들의 마지막 고혈까지 짜가면서도 관개수리사업은 고사하고 이미 있던 저수지조차 보수하지 않아 메마르게 만들어놓은자들이 과연 어느 놈들인가.

과연 어느 놈들이 당신들의 량곡을 강제로 수탈해가고있으며 당신들에게 매호 평균 3만여원의 막대한 농가부채까지 짊어지워 쓰러져가는 오막살이마저 《차압》을 당하고 쫓겨나게 만들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제침략자들과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이다.

놈들은 남조선농촌을 다만 강도적수탈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고있다.

놈들은 특히 최근 광란적인 전쟁준비에 미쳐날뛰면서 농촌에 대한 야수적수탈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강화하고있다.

놈들은 지난해에 전례없는 가뭄피해와 랭해, 풍수해, 병충해 등으로 남조선전역에서 대흉작을 겪게 된 그러한 조건하에서도 례년보다 더 많은 량곡을 수탈하기에 눈이 뒤집혀 날뛰고있으며 농민들이 절량과 기근에 시달리고있는 바로 그 틈을 타서 토지를 빼앗고 부림소를 빼앗고 가재도구마저 빼앗아가는 날강도행위까지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이미 10만정보이상의 농토를 군용지로 빼앗아간 놈들은 최근 또다시 수많은 농토를 군사기지와 군용비행장, 《고속도로》건설부지로 빼앗아가고있으며 농촌의 기본로력인 청장년들을 더 많이 괴뢰군에 끌어가고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어떻게 남조선농촌이 황폐화되지 않을수 있으며 절량농가가 매년 늘어가지 않을수 있겠는가.

올봄에 남조선의 절량농가는 이미 200만호에 달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로부터 곡창지대로 이름높던 경남지방과 호남지방에서는 전체 농가의 98%가 절량상태에 빠지고있다.

이미 타작날부터 쌀밥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도토리와 시래기 등으로 끼니를 이어온 남조선농민들이 오늘은 그것마저도 떨어졌으니 그들의 처지가 과연 얼마나 참혹하겠는가.

벌써 남조선농촌에서 살길을 잃고 류랑의 길을 떠난 리농민은 전체 농민의 30%에 달하고있으며 그 대렬은 계속 늘어가고있다.

수많은 농민들과 농촌어린이들이 문전걸식을 하고있으며 30여만명의 농촌지역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품팔이와 식모살이 등으로 집을 떠나갔다.

력사상 언제 오늘 남조선에서와 같이 그처럼 농촌이 거칠어지고 기아와 빈궁이 휩쓰는 기근지대로, 죽음의 생지옥으로 전변된적이 있었던가.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박정희괴뢰도당을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남조선농민들이 오늘의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웅변으로 증명하여 주고 있다.

오늘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식민지파쑈통치하에서 더는 그대로 살수 없게 된 광범한 남조선인민들과 애국적농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특히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농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무한히 흠모하면서 그이의 령도밑에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승리의 신심도 드높이 무장유격투쟁을 포함한 반미구국투쟁을 억세게 전개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품에 안기는 길만이 진정으로 자유와 해방을 달성하는 길이라는것을 잘 알고 있는 당신들은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면서 새로운 투지를

가다듬고있으며 일편단심 수령께 드리는 붉고붉은 충성심을 억제할수 없이 군중앞에서 《나는 김일성장군을 지지한다.》고 소리높이 웨치면서 광범한 인민들을 수령의 주위에 묶어세우고 있다.

남조선농민들은 또한 도처에서 《농민의 권리를 찾자!》는 등의 구호를 들고 토지와 생존을 위한 강력한 대중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농민들의 이러한 투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이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는 전체 북반부농업근로자들의 이름으로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쓸어버리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지하와 산중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감옥과 살인 《법정》에서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전체 남조선농민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전투적성원을 보낸다.

남조선인민들의 과감한 혁명적진출에 당황망조한 미제와 박정희매국도당은 지금 《반공》의 간판밑에 군사파쑈폭압을 발악적으로 강화하고있다.

그러나 놈들은 어떠한 야수적폭압으로써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충성을 다할 확고부동한 결의를 다지고 반미구국투쟁에 일떠선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친애하는 남조선농민들!

당신들의 살길은 오직 전체 농민들이 힘을 합쳐 싸우는데 있으며 당신들을 못살게 구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을 때려부시고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는데 있다.

가슴속에 쌓이고 쌓인 원한과 울분을 원쑤들을 태워버리는 세찬 투쟁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하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다.》**

모두다 김일성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라!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전인민적투쟁을 더욱 강화하라!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충실한 주구이며 극악한 매국노이다. 박정희반역도당을 단호히 쓸어버리고 매국노들에게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라!

자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집단인 괴뢰정권을 타도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라!

오늘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광란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과 야만적인 군사파쑈적폭압을 분쇄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는데 있다.

놈들의 발광적인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파탄시키며 괴뢰군의 강제징집을 거부하고 토지의 강제징발과 군량미와 군사비의 강제수탈을 반대하여 힘차게 투쟁하라!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모든 파쑈폭압기구들을 짓부시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비롯한 일체 악법들을 철페하기 위하여 투쟁하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의 자유 등 모든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체포투옥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무조건 즉시 석방을 위하여 더욱 과감하게 투쟁하라!

절량과 기근에 시달리고있는 당신들은 우선 식량을 해결하여야 하며 올해의 영농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절량농가와 리농가에 대한 구호대책과 당면한 영농조건의 보장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라!

소작제도를 비롯한 일체 봉건적착취제도의 철페를 위하여 투쟁하며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인 토지개혁의 실시를 위하여 투쟁하라!

모든 가렴잡세의 철페와 고리부채의 무효화를 위하여 투쟁하며 출혈적인 저미가정책과 미제의 잉여농산물 투입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라!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숙원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민족분렬정책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라!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혁명력량이 있어야 한다.

혁명력량을 보존하고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농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대중적농민조직을 가지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라!

가장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라!

오늘 남조선에서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원쑤들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은 당신들과 전체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신성한 의무로 된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것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적인 행동이다.

무장유격투쟁을 비롯한 정의의 애국투쟁을 전개하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온갖 힘을 다하여 지지성원하며 그들과 함께 반미구국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라!

싸우는 남조선농민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이다.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은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철저한 주체사상으로서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상이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리론, 실천적으로 커다란 기여를 한 탁월한 사상이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세계 모든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영생불멸의 사상이다.

남조선농민들은 전체 남조선인민들과 함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가 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라!

남조선농민들과 전체 남조선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위에 천석같이 단결하는 것은 원쑤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모두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위에 철통처럼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한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싸우라!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불사조와 같이 싸워나아가는 당신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싸우는 당신들에게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

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이 계신다.

또한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철벽으로 다져진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가 있으며 북반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이 있다.

승리는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당신들에게 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통일된 조국에서 다같이 일하며 다같이 행복하게 살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것이다.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승리의 신심 드높이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워나아가자!

1968년 5월 17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

전체 남조선동포형제자매들!

오는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이하면서 전체 조선인민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며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무한한 긍지와 자랑을 안고 지난 20년간 공화국이 걸어온 혁명과 건설의 빛나는 로정을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민족적명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전체인민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결정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려는 고도의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앙양속에서 이날을 경축하고있다.

전세계 혁명적인민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쌓아올린 거대한 위적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경사스러운 우리의 민족적명절을 자기의 명절과 같이 경축하고있다.

그러나 한피줄을 이어받은 하나의 겨레인 남조선인민들은 자기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을 우리와 함께 경축하지 못하고있다.

수륙만리 떨어진 외국의 벗들도 우리와 한자리에서 경축하고있는 뜻깊은 민족적명절을 한나라 한강토우에서 살고있는 우리의 동포형제들은 함께 경축하지 못하고있으니 이보다 더 가슴아픈 일이 또 어디있겠는가.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바로 이러한 민족분렬의 고통을 계속 강요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지하와 산중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감옥과 살인《법정》에서 용감하게 싸우고있다.

우리는 의의깊은 민족적명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는 남조선의 모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 로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 지식인들, 그리고 전체 인민들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낸다.

친애하는 남조선동포형제자매들!

지난날 우리 인민은 나라 없는 설움을 얼마나 뼈에 사무치도록 겪었던가. 바로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의 주권을 가지지 못하였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망국노의 설움을 겪지 않을수 없었으며 나서자란 고향을 등지고 만리타국으로 류랑의 길을 떠나지 않을수 없었다.

나라를 잃고 주권이 없었던 탓으로 우리는 일제강도놈들의 야만통치하에서 우리의 말과 글, 지어 우리 성과 이름까지 빼앗기지 않을수 없었으며 참을수 없는 고역과 압제에 시달리면서 귀중한 생명까지 빼앗기지 않을수 없었다.

바로 조국이 없고 주권이 없었던 까닭에 산설고 물설은 머나먼 이국땅에까지 끌려가 꿈결에도 잊지 못하는 조국산천을 그리며 억울하게 죽어간 동포형제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해와 달도 빛을 잃었던 그 기나긴 암흑의 나날에 우리 인민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에서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쥐고 남과 같이 떳떳하게 살아보기를 얼마나 가슴뜨겁게 열망하였던가.

우리 인민의 이 피타는 념원은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성취될수 있었다.

일찌기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소년시절부터 혁명의 길에 오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3천리 조국강산에 암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민족수난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몸소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15성상의 장구한 기간 세계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지도하시여 마침내 강도일제를 격멸하고 우리 인민에게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였다.

전체 인민의 환호속에 조국에 개선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의 그 복잡한 정세하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그 억센 뿌리를 키워오신 인민의 진정한 주권을 세워주시였으며 전체 남북조선인민의 총의를 모아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기나긴 력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자신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이다.》**

그렇기때문에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이 국가주권을 세우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웠으며 우리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조국해방전쟁에서 피흘리며 싸웠던것이다.

자유와 독립을 위한 장구하고 피어린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쟁취한 가장 위대한 전취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4천만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영광스러운 기치이며 우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영원무궁한 번영의 강유력한 무기이다. 오래동안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발을 휘날리면서 당당한 독립국가의 일원으로 국제무대에 진출하고 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휘황한 빛발아래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금성철벽의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 그 찬연한 빛을 온 세계에 뿌리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는 현대적인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중공업과 인민소비품의 장성하는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는 믿음직한 경공업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기술로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기계제품이나 종합설비라도 자체로 생산하여 국내수요를 훌륭하게 보장하고있을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에 수출하고있다.

우리의 공업생산은 조선민주주의인민

민공화국이 창건되던 1948년에 비하여 1967년에 무려 22배로 장성하였다.

이 위대한 변혁의 거센 흐름속에서 지난날에는 다래덩굴만 우거졌던 산간벽지에도 오늘은 현대적인 공업도시가 일떠서고 전기화된 새로운 철도가 풍요한 조국의 산야를 누비며 두메산골에까지 뻗어가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조국의 지도는 매일같이 변해가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에도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휘황한 길을 따라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우리의 농촌은 억년 흉풍을 모르는 부유한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되였다.

온 나라가 조밀한 관개수로망으로 뒤덮이고 우리 농민들은 기계로 농사짓고있으며 수천년내려오던 오막살이대신에 아담한 문화주택이 농촌의 면모를 일신해주고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자위적인 국방력을 마련하여놓았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우리의 영웅적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현대적군사 과학과 군사기술을 소유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우리는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전국을 요새화하였으며 언제 어디서 어떠한 원쑤가 덤벼들어도 침략자들을 일격에 때려부실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도 위대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지난날 근로인민의 자녀들은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하던 이 땅에서 오늘은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여 우리의 자녀들은 로동할 나이까지 누구나 다 국가부담으로 공부하고있다.

지난날 대학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공화국북반부에 오늘은 98개의 대학이 일떠섰으며 해마다 수많은 민족간부가 배출되고있다. 우리는 이미 42만 5천 700여명의 기사, 기수, 전문가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다.

우리의 민족문화는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고 있으며 우리의 예술은 《황금의 예술》로 세계인민들 속에서 높은 찬양을 받고있다.

바로 이 약동하는 사회주의락원에서 살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또 얼마나 행복하고 유족해졌는가!

우리 인민들은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청산되고 누구나 다 배우며 일하는 훌륭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의식주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보람차게 살아가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과 실질소득은 끊임없이 올라가고있으며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있으며 유급휴가와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고있다.

농업현물세제가 완전히 폐지되여 우리 농민들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한푼 물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수천년의 조선력사에서 오늘처럼 우리 조국이 번영하며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자기의 조국을 자랑하는 그러한 시기는 일찌기 없었다.》**

그 어떠한 힘이 이러한 위대한 기적을 낳게 하였는가?

일제로부터 락후한 식민지경제를 물려받았으며 그것마저 미제침략자들이 남김없이 파괴한 완전한 재더미우에서 과연 그 어떤 힘이 불과 10여년동안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하였는가?

그것은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혁명승리의 가장 정확한 방도를 찾아내시고 누구보다도 멀리 앞을 내다보시는 천재적인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이 모든 분야에서 빛나게 구현된 결과이다.

벌써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새조국 건설의 설계도를 그리시였고 해방직후의 복잡한 정황속에서 공화국을 창건하여주시였으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렬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전후복구건설의 위대한 계획을 작성하시였고 전후의 재더미우에서 오늘의 장엄한 현실을 내다보시였으며 오늘의 들끓는 현실속에서 통일된 래일의 조국을 구상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전쟁의 포화가 멎은 그 즉시로 우리 인민들에게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여주셨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세월을 주름잡는 천리마의 날개를 주시였으며 우리 인민들을 천지를 개벽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기적의 창조자로 키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땅에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는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못한 새로운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을 더욱 휘황한 승리의 령마루로 이끌어주시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이름은 그이께서 혁명활동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불굴의 혁명적기개와 열렬한 애국심의 빛나는 상징으로, 당당한 자주정신과 확고한 주체사상의 자랑높은 기발로, 탁월한 군사전략과 천재적령군술의 전설적 영웅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태양으로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깊이 간직되여있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자기의 모든 운명을 그이께 의탁하고 일편단심 수령께 충성을 다하고있으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아가고있다.

지난날 가장 천대받고 억눌리던 로동자, 농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키워주시고 어제날의 막벌이군을 기사, 박사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우리 인민이 어찌 충성을 다하지 않을수 있으며 그이께서 가리키는 길에서 어찌 창조적열성을 발휘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어제는 밭머리에서 농민들과 마주앉아 농사일을 의논하시고 오늘은 용광로앞에서 로동자들과 만나시여 나라일을 의논하시고 래일은 또 실험실에서 과학자들과 담화하시며 우리 인민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돌보아주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배려를 받는 우리 인민들이 어찌 태산인들 옮기지 못하며 바다인들 메우지 못하겠는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김일성동지를 자기의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은 실로 민족의 최대의 행복이며 영광이며 자랑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세계 인민들로부터 《주체의 조국》으로, 《천리마의 나라》로,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높이 찬양을 받고있으며 그의 국제적위신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

전체 남조선동포형제자매들!

미제침략자들이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남조선은 지난 기간 공화국북반부와는 판이한 길을 걸어왔다.

남조선이 걸어온 지난 20년은 력사상 류례없는 파괴와 략탈, 압박과 예속의 저주로운 20년이였다.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외래침략세력의 예속경제로 전락되여 전면적으로 파괴되고 곡창을 자랑하던 남조선농촌은 전례없이 황페화되여 만성적인 기근지대로 전변되였다.

민족문화는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 썩어빠진 미국식문화가 범람하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은 빛을 잃고 패덕과 패륜, 범죄와 질병이 남조선사회를 휩쓸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2중 3중의 착취와 압박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으며 수백만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다.

살길을 잃은 수백만의 절량농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류랑의 길을 걷고있으며 한창 공부하여야 할 수십만의 소년들이 문전걸식을 하고있다.

황금만능의 썩어빠진 풍조와 약육강식의 강도적법칙이 지배하고있는 암흑의 땅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또한 미제야수들의 참을수 없는 민족적멸시와 모욕을 당하고있다. 여기에 또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물밀듯이 기여들어 판을 치고있으며 수많은 남조선청장년들이 미제침략군의 값싼 대포밥으로 남부웰남의 죽음터에 계속 끌려가고있다.

바로 이 모든것이 지난 20여년간 남조선에서 실시해온 미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가 빚어낸 악독한 후과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소위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예속시키고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전략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범죄적목적을 집요하게 추구하여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침략적 목적밑에 남조선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자기들의 침략도구인 괴뢰정권을 조작하였으며 소위 《원조》의 간판아래 남조선의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남조선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적으로 군사침략적목적에 종속시키였다.

남조선을 하나의 커다란 병영으로 전변시킨 미제침략자들은 특히 최근년간에 남조선에서 전쟁준비를 급격히 강화하여왔으며 제놈들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새 전쟁도발소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격화시키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지금 남조선에 새로운 군사장비들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남조선도처에서 군사기지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침략무력과 남조선괴뢰군병력을 급격히 증강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더욱 촉진하고 남조선도처에서 매일과 같이 화약내 풍기는 군사연습소동을 벌리고있으며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도발행위를 더욱더 대규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침략적인 전쟁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폭압기구들과 파쑈악법들을 대대적으로 꾸며내면서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고있으며 인민들에 대한 야수적탄압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놈들은 파쑈적탄압의 예봉을 인민들의 온갖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고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탄압하는데 돌리면서 수많은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투옥, 학살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20여년간 이 진고미문의 인간생지옥에서 극도의 무권리와 빈궁에 시달리면서 실로 피눈물나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얼마나 많은 남조선애국자들이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손에 무참히 학살되고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으며 얼마나 많은 동포형제자매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겼던가.

우리 민족의 철천의 원쑤 미제야수들은 남조선을 우리 인민의 원한어린 피로 물들여놓았으며 오늘도 계속 우리 조국 남녘땅을 동포형제들의 선혈로 물들이고있다.

우리는 20여년동안이나 우리 조국 남녘땅을 강점하고 우리 동포형제자매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그들의 개가 되여 매국매족행위를 일삼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단호히 규탄한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는 청산되여야 하며 우리 조국은 통일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 조성된 파국적사태를 가시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의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우고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령도하시고있다.

그이께서는 20여년이 지나도록 민족분렬이 지속되고있고 새로운 한 세대가 자라도록 조국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특히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불행한 처지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고계신다.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있고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이 외래침략자들에게 갖은 민족적 모욕과 천대를 다 받고있는 이 불행한 처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도 조선의 어느 량심있는 민족주의자도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격동시켜주고있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통일을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거듭 제시하시였으며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동력과 대상 그리고 현단계에서의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면서 하나의 공장을 짓고 한대의 뜨락또르를 만들때에도, 하나의 발전소를 세우고 한벌의 옷감을 짤 때에도 항상 남조선인민들을 생각하시고 남조선을 복구할 밑천을 마련할것을 잊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시종일관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고통받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친적인 사랑의 손길을 끊임없이 뻗치여주시였다.

초근목피를 찾아 메마른 들판을 헤매는 남조선절량농민들에게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 분은 그 누구이시며 재해를 입고 가산을 류실당한 남조선리재민들에게 쌀과 옷감과 신발을 비롯한 막대한 구호물자를 보내줄 조치를 취하신 분은 그 누구시였던가!

주린 창자를 움켜쥐고 거리와 마을을 헤매며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수십만 남조선류랑고아들과 일자리를 잃고 살길이 막힌 수백만 남조선실업자들과 돈이 없이 공부 못하는 남조선학생들에게 보람찬 일자리와 희망찬 배움의 길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그처럼 뜨거운 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신 분은 과연 그 누구시였던가.

그이는 오직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다.

실로 4천만 조선인민에게 한결같이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사랑을 어찌 바다의 깊이에 비기며 태산의 높이에 비기겠는가!

그렇기때문에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사랑에 무한히 고무되여 그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보면서 자기들이 살아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찾고있는것이다.

과연 남조선인민들이 자기들의 장래운명을 어디에 의탁하겠는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열렬한 애국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되였으며 미일제국주의자들을 끝까지 철저히 반대하고 우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는 가장 반제적이고 자주적이며 애국적인 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인가? 아니면 조국과 민족을 완전히 배반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충실한 개노릇을 하고있는 가장 철저한 주구들과 민족반역자, 매국노들의 집단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있는 가장 예속적이고 반역적이며 매국적인 정권인 박정희괴뢰정권인가?

과연 남조선인민들이 자기들의 자유와 해방과 행복한 미래를 어디에서 찾을수 있겠는가?

착취와 압박이 없고 지주와 자본가도 없고 빈부의 차이가 없이 전체 인민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평하게 살아가는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 사회인가? 아니면 지주, 자본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고있는 극소수의 돈 있고 권세있는 자들에게만 살수 있는 세상, 수백수천만 근로자들에게는 지옥으로 되고있는 남조선의 식민지사회인가?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공화국북반부를 조국통일의 튼튼한 보루로서, 자기들의 희망의 등대로서 무한히 동경하면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있는것이 어찌 응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남조선인민들은 수령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의 진로를 따라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왔다. 1946년 10월인민항쟁, 1960년 4월인민봉기를 비롯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용감한 투쟁으로 미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오늘도 계속 힘차게 싸워나아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하에 조국을 통일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길만이 진정으로 자유와 해방을 달성하는 길임을 굳게 확신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무장유격투쟁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적극적인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고있다.

특히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통일혁명당》, 《인민혁명당》을 비롯한 각종 혁명조직을 묶고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인민대중을 교양하며 혁명력량을 부단히 확대발전시키면서 남조선 도처에서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등 반미구국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있다.

우리는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흠모하면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감옥도 교수대도 두려움없이 반미구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견결히 싸우고있는 남조선의 모든 혁명가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다시한번 열렬한 지지와 전투적성원을 보낸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

전체 남조선동포형제자매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하에 나라를 통일하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에 안기려는 당신들의 불타는 념원은 하루빨리 실현되여야 한다.

그날을 앞당기는 길은 남조선에서 인민들자신이 주인이 되여 남조선혁명을 적극 촉진하는데 있다.

인민대중은 오직 자기들의 투쟁에 의해서만 자신을 해방할수 있다.

전체 남조선인민들은 반미구국의 기치하에 굳게 단결하여 남조선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다.》**

수령께서 밝혀주신 혁명의 길을 따라 전인민적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라!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을 전대미문의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은 장본인이며 우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가로막고있는 범죄자이며 백여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해온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미제승냥이떼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백여년에 걸친 피맺힌 원한을 풀기 위하여 더욱 완강하게 싸우고 또 싸우라!

미제침략자들에게 한방울의 물도, 한알의 쌀도 주지 말라!

미제야수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하며 도처에서 놈들에게 백배천배의 보복의 불벼락을 안기주라!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충실한 주구이며 천추에 용납못할 극악한 매국배족의 무리이다.

박정희매국도당에게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라! 미제침략도구에 불과한 박정희괴뢰정권은 극소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리익을 대변하고있다. 박정희괴뢰정권을 타도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라!

소위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 침략적 야망밑에 미제를 등에 업고 박정희도당을 길잡이로 또다시 남조선에 기여들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략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우라!

남조선인민들은 우선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파쑈적폭압을 분쇄하고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쟁취하여야 한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새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폭로분쇄하라!

괴뢰군의 강제징집과 남부윁남파병을 반대하고 토지와 군수물자, 군사비와 군량미의 강제징발과 수탈을 반대하여 투쟁하라!

소위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모든 폭압기구들과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비롯한 일체 파쑈악법들을 철페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 및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우라!

남조선로동자들이여!

당신들은 남조선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단결력이 강한 혁명의 령도계급이다. 남조선의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의 앞장에 서라!

외래침략세력과 매판자본가, 친미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인 공장, 광산, 운수, 체신, 은행 등을 몰수하여 인민의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라!

민주주의적인 로동법령과 8시간로동제 및 사회보험제의 실시를 위하여 투쟁하라!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군수생산과 군사기지, 군용도로 건설을 파탄시키고 군수품수송을 마비시키라!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제반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하여 이미 추켜든 투쟁의 기발을 더욱 높이 들고 끝까지 견결히 싸우라!

로동계급의 확고한 동맹자인 농민들과의 전투적인 동맹을 강화하라!

남조선농민들이여!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의것이다.

일체 봉건적착취제도를 청산하고 무

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의한 민주주의적토지개혁의 실시를 위하여 투쟁하라!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토지수탈을 반대하고 군용지로 빼앗긴 모든 토지의 즉시 탈환을 위하여 투쟁하라!

절량과 기근에 시달리고있는 당신들에게는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갈 쌀이 요구되고있다.

당신들에게서 털어간 쌀을 탈환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라!

남조선청년학생들이여!

미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을 반대하고 교육제도의 민주주의적개혁과 완전한 초등의무교육제의 실시를 위하여 투쟁하라!

학원에 대한 야만적인 폭압과 간섭을 반대하고 학원의 민주화와 학생들의 사회정치활동 및 선진과학지식탐구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라!

남조선지식인들이여!

미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의 고귀한 과학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라!

민족주체적인 학술연구와 예술창작 및 언론활동의 자유와 그 물질적조건의 보장을 위하여 투쟁하라!

남조선녀성들이여!

녀성들에 대한 온갖 형태의 봉건적 구속과 사회적차별을 반대하고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위하여 투쟁하라!

미제야수들의 참을수 없는 민족적 멸시와 모욕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라!

중소상공업가들이여!

당신들을 파산몰락의 길에 빠뜨리는 미일독점자본과 예속자본가들의 억압을 반대하여 투쟁하라!

과중한 세금부과를 반대하며 온갖 가렴잡세의 철폐를 위하여 투쟁하라!

남조선괴뢰군 장병들이여!

치욕스러운 미제의 고용병살이를 단연코 거부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다운 민족의 군대, 인민의 군대가 되라!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명령지시를 단호히 거부하고 동족상쟁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에게 총부리를 돌리라!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남부월남파병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미 끌려간 괴뢰군 장병들의 즉시 귀환을 요구하여 견결히 투쟁하라!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의 숭고한 임무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고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완강하게 싸우라!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타승하고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대중조직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각계각층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망라하는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라!

남조선인민들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세계 혁명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철저한 주체사상으로서 조선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사상이며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사상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는 탁월한 사상이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혁명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행동의 지침이며 승리의 기발이며 가장 강력한 투쟁의 무기이다.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백절불굴의 투지로 세계력사상 류례없는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여 강도일제를 타승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빛나게 성취한것도,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들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고수한것도, 전후의 재더미우에서 만난을 극복하고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오늘과같은 인민의 락원을 훌륭하게 건설한것도 오로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싸웠기때문이다.

실로 우리 인민이 쟁취한 그 모든 자랑찬 승리의 력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이 땅우에 찬란히 꽃피고 승리하여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오늘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할 때만이 벗과 원쑤를 똑똑히 알고 명확한 투쟁의 진로를 따라 온갖 시련과 풍파를 헤치며 용감히 싸워 승리할수 있다.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아가라!

조선혁명의 뿌리이며 천년만년을 두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조선인민의 고귀한 재부인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무장하고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일편단심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라!

우리 민족의 영원무궁한 번영의 믿음직한 담보인 4천만 조선인민의 진정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열렬히 지지옹호하라!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을 광범히 기념하라!

현시대는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제국주의가 멸망하는 시대이며 특히 미제국주의가 망해가는 혁명적폭풍우의 시대이다. 미제국주의는 이미 조선에서 코대가 꺾이였으며 꾸바에서 얻어맞고 지금 윁남에서 녹아나고있다.

세계도처에서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이 혁명적폭풍우의 시대에 남조선인민들은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미제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정의의 위업에 궐기한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당신들에게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수령의 령도밑에 철벽으로 다져진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와 북반부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이 있다. 전세계 혁명적 인민들이 또한 당신들의 편에 서있다.

승리의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전인민적반미구국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밑에 4천만 조선인민이 다같이 통일된 조국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영광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것이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 만세!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 국 평 화 통 일 위 원 회
1968년 9월 3일
평 양

남조선로동자들에게 보내는 호 소 문

친애하는 남조선로동자들!

우리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그이의 직접적지도밑에 우리 나라 로동운동과 직맹운동 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조선직업총동맹 제4차대회를 가지였다.

무한한 감격과 흥분속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우리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을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우리들은 대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직업동맹이 걸어온 자랑찬 승리의 로정을 총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수령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강령을 빛나게 구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기며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할 새로운 혁명적각오와 불같은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대회에 당신들이 자기의 대표를 보내여 전체 남조선로동계급과 인민의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전하여준데 대하여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화국북반부 전체 로동계급의 뜨거운 정을 담아 당신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친애하는 남조선로동자들!

지난날 우리 조선의 로동자들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에서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쥐고 마음껏 일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그 얼마나 피타게 열망하였던가!

우리의 이 세기적인 념원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활짝 꽃피고있는 공화국북반부에서 빛나게 실현되였다.

세기적인 암흑과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오늘은 자주, 자립, 자위의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이 거연히 일떠섰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로동계급은 엄혹한 시련도, 사나운 풍파도 용감히 뚫고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부원으로 전국도처에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중공업기지와 인민의 다양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는 현대적경공업기지를 일떠세웠다.

우리의 농촌은 수령께서 밝혀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휘황한 길을 따라 기계로 농사짓고 오곡백과 무르익는 발전된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되였다.

지주와 자본가도 없으며 착취와 압박도 없는 좋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들은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배우며 행복하게 살고있다.

우리 로동계급은 모두가 나라와 공장의 당당한 주인으로, 혁명의 자랑높은 령도계급으로 되였으며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공장에서 국가와 자기자신을 위하여 흥겹게 일하고있다.

어디를 가나 우리 로동자들은 현대적이고 아담한 주택에서 먹고 입을 근심, 병나도 치료할 근심을 모르고 해마다 유급휴가와 정휴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생활하고있으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자녀들을 마음껏 공부시키고 있다.

지난날 저주로운 식민지노예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던 우리 로동계급이 오늘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공부하고 문화생활을 하며 8시간 쉬면서 세상에 부러움없이 살고있으니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민족으로부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조국을 건설하여나아가는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다.**》

수천년의 우리 나라 력사에서 오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고 우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행복하고 보람차게 살아본 때는 일찌기 없었다.

나라의 북반부에 이룩된 이 위대한 변혁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일어난 세기적인 변화는 과연 어떻게하여 이루어질수 있었는가!

그것은 40여년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류례없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나라와 주권을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면서 우리 로동계급을 영광스러운 무장대오에 세워주시고 유격근거지와 적통치구역에서 로동계급의 대중단체를 무어주시였으며 일제와 자본을 반대하는 영웅적투쟁에로 로동계급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주시였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을 찬란한 승리에로 령도하신 수령께서는 해방직후의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하에서도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을 제때에 창건하시고 로동법령과 산업국유화를 실시하시여 우리 로동자들을 진정한 자유와 권리의 향유자로, 공장과 기업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시였으며 조선로동계급의 대중적정치조직인 직업총동맹을 창립하시여 우리들에게 정치적조직생활을 마음껏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는 가렬한 싸움에서,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과 도시와 농촌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심각한 투쟁에서 우리 로동계급이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여주시였으며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달리여 로동당시대의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올리게 하여주시였다.

조국에 개선하시여 20년만에 밟아보시는 고향땅, 만경대를 가까이 지나시면서도 먼저 강선의 로동자들을 찾아주시고 우리 조선의 로동계급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어렵고 복잡한 일이 나설 때마다 우리 로동계급의 힘을 믿어주시고 로동자들과 마주 앉으시여 나라의 만년대계를 상론하시며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크고작은 공장, 기업소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걸린 문제를 몸소 풀어주시며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념려하시여 용해공들에게는 젖소를 보내주시고 어로공들에게는 비옷을 보내주시며 벌목공들에게는 신발을 보내주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

실로 우리 로동계급이 걸어온 혁명과 건설의 전투적행로와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어버이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란 없다.

하기에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 우리 로동계급은 그이의 친위대, 결사대가 된 높은 긍지를 안고 수령의 명령,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수행할 굳은 결의에 가득차 있다.

친애하는 남조선로동자들!

해와 달도 빛을 잃었던 일제통치의 그 암흑의 나날에 우리는 다같이 백두산을 우러러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해방의 그날을 굳게 믿으며 함께 싸우던 계급적형제들이다.

그러나 당신들 남조선로동자들은 아직도 악독한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

미제침략자들의 강도적식민지통치하에서 민족공업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곡창을 자랑하던 농촌은 황페화되였으며 민족문화는 빛을 잃고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이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인민들은 온갖 정치적자유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마저 빼앗기고 테로와 학살, 기아와 빈궁이 휩쓰는 인간생지옥에서 신음하고있다.

여기에 또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쓸어들고 있으며 수많은 남조선청장년들이 남부웰남침략전쟁터에 끌려가 미제의 대포밥으로 개죽음을 당하고있다.

침략자 미제국주의자들이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남조선사회에서 가장 무권리하고 가장 굶주리면서 혹사당하고 있는것은 당신들 남조선로동자들이다.

놀고먹는 사회의 기생충들이 하루밤의 향락으로 수천 수만금을 탕진하고 있을 때 사회적부의 창조자들인 당신들 남조선로동자들에게 차례지고있는것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매일 12~18시간이상 등뼈가 휘도록 일을 하고도 병져 누워있는 늙은 부모에게 약 한첩 써드릴수 없는 모진 가난과 배고파 우는 어린것들에게 밥한번 배불리 먹여보지 못하는 참을수 없는 굶주림뿐이다.

얼마나 많은 로동자들이 모진 고역에 시달리다가 주린 창자를 부둥켜쥔채 원한 많은 남조선사회를 등지고 쓰러졌으며 얼마나 많은 로동자들이 보고 듣고 말할 자유를 빼앗긴채 놈들의 파쑈적 탄압의 희생물로 되였는가!

오늘 남조선로동자들과 인민들이 겪고있는 이러한 모든 불행과 고통은 다름아닌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파쑈테로통치때문이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아니였더라면 남조선로동자들은 해방후 자기의 손으로 세운 인민정권을 빼앗기지도 않았을것이며 오늘과 같은 처지에서 이중삼중의 착취와 압박에 시달리지도 않을것이다.

만일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적 예속과 략탈이 없었더라면 과연 당신들이 지금처럼 집없이 살며 일자리를 구하려고 거리에서 방황하며 또 당신들의 자녀들이 책가방대신 깡통을 메고다니며 구두닦이와 담배장사를 하고있겠는가.

이러한 사태하에서 어찌 당신들이 그 억센 두주먹을 부르쥐지 않을수 있으며 반미구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의 마당으로 떨쳐나서지 않을수 있겠는가.

당신들은 1946년 9월 총파업의 언덕을 넘고 피어린 4월의 광장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존과 민주주의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굳세게 싸워왔다.

특히 오늘 남조선 로동자들과 혁명가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의 진로를 따라 무장투쟁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적극적인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당신들과 남조선혁명가들은 원쑤들의 가혹한 탄압하에서도 수령의 초상화를 소중히 간직하고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면서 신심도 굳게 용감히 싸우고있으며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당신들은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앞장에 서서 온남녘땅에 반미구국항쟁의 불길을 지펴올린 혁명의전위들이며 파업투쟁의 나날에 피는 피로써 대답하며 이리떼같이 달려드는 원쑤에게 보복의 철추를 내린 용감한 항쟁투사들이다.

당신들이 바로 위험에 처한 혁명가들을 원쑤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하여주고 투쟁의 밤길을 안내하여준 투사들이며 당신들이 바로 싸우는 혁명가들에게 식량과 피복을 마련하여주고 그들의 생활을 정성껏 돌보아준 애국자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로동계급과 인민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시여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쌓아올린 고귀한 투쟁업적들은 우리 나라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본대회의 이름으로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며 도시와 농촌에서, 지하와 산중에서, 감옥과 《법정》에서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전체 남조선 로동계급과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게 가장 열렬한 전투적인사와 지지성원을 보낸다.

친애하는 남조선로동자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당신들을 남조선혁명의 령도계급으로, 혁명의 주력군으로 믿어주고계신다.

당신들은 미제의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자신을 해방할뿐아니라 전체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여야할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있다.

당신들은 오직 자신의 결정적투쟁과 혁명적방법에 의해서만 이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다.

지난 20여년간의 체험은 폭력투쟁이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로동계급에게는 오직 미제침략자들과 그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통일하며 주권을 전취하기 위하여 싸우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남조선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명시하신 남조선혁명의 길을 따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앞장에 용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데있다.**》라고 가르치시였다.

당신들과 전체 남조선인민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은 미제침략자들이다.

미제는 100여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피맺힌 원쑤이며 남조선인민들에게 악독한 식민지파쑈통치를 강요하는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남조선로동계급이 전체 인민대중을 힘있게 령도하여 남조선도처에서 혁명의 화약고에 불을 질러 미제침략자들을 모조리 족쳐댄다면 능히 놈들을 때려눕힐수 있다.

모두다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복수와 분노를 안고 남조선에서 침략자 미제를 때려부시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라!

남조선로동계급은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그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적극 떠받들고 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을 뒤집어엎어야 한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손에 무장을 들고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울 때 일본《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반일투쟁에 나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한 극악한 교형리이며 8.15이후에는 미제의 개가 되어 나라와 민족

의 리익을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팔아먹고있는 추악한 매국역적이다.

미제국주의의 더러운 개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라!

오늘 남조선에는 근 반세기에 걸쳐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를 등에 업고 박정희괴뢰도당을 길잡이로하여 자기들의 옛지위를 회복하려고 망상하면서 또다시 기여들고있다.

남조선에 기여들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략책동을 단호히 분쇄하라!

주권문제는 남조선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이룩될수 없으며 인민들은 오직 혁명적방법에 의해서만 주권을 쟁취할수 있다.》**라고 가르치시였다.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빼앗긴 주권을 찾기위하여,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혁명투쟁을 강하게 전개하라!

현시기 남조선 로동계급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투쟁과업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정책을 파탄시키고 파쑈적폭압을 분쇄하며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는것이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새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저지파탄시키며 괴뢰군의 강제징집과 군수물자의 생산, 군사시설의 확장과 남부웰남파병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라!

이른바《중앙정보부》를 비롯한 모든 폭압기구들과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비롯한 모든 파쑈적악법들을 짓부시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및 파업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단호히 투쟁하라!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모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무조건 즉시 석방시키기 위하여 강한 공동투쟁을 전개하라!

당신들은 응당 생존의 권리를 가져야한다. 원쑤들의 식민지저임금정책을 반대하고 임금인상과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취업과 로동조건의 보장을 위하여 이미 추켜든 투쟁의 기발을 더욱 높이들고 끝까지 견결히 싸우라!

남조선에서 자주적민족공업이 없이는 인민의 복리증진도, 나라의 완전한 독립도 있을수 없다.

외래침략세력과 매판자본가, 친미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인 공장, 광산, 운수, 체신, 은행 등을 몰수하여 인민의 소유로 만들며 자주적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라!

민주주의적 로동법령과 8시간로동제 및 사회보험제의 실시를 위하여 완강히 싸우라!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잠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세력과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고 우리인민 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싸우라!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타승하고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강한 혁명력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혁명력량은 오직 투쟁을 통하여서만 장성강화될수 있다.

혁명이 간고하다고 하여 유리한 정세가 다가오기만 기다리지말고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적투쟁과 비합법적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형태를 옳게 배합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혁명력량을 축적하고 장성시키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이라!

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남조선로동계급은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리용하여 자기의 전위부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튼튼히 꾸리며 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라!

로동계급의 리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적 로동자조직을 결성하며 농민과의 전투적동맹을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망라하는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우라!

남조선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철저한 주체사상으로서 조선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인도하며 남조선 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라!

조선혁명의 뿌리인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무장하고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라!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의 믿음직한 담보인 4천만 조선인민의 진정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를 옹호하여 투쟁하라!

남조선로동계급의 투쟁은 결코 외롭지 않다.

오늘 남조선로동계급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난날 국가적 후방도 정규적무력의 지원도 없이 15성상 강도일제를 반대하여 싸울때에 비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투쟁하고 있다.

남조선로동계급에게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 군사전략가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그이의 령도밑에 불패의 보루로 다져진 공화국북반부의 강력한 혁명기지와 우리 로동계급을 비롯한 북반부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

남조선로동계급이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모든 풍파와 시련을 용감히뚫고 영웅적으로 싸울때 그어떤 원쑤의 아성도 쳐부실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남조선혁명이 승리하고 조국이 통일되면 그날부터 우리는 3천리 강토우에 남북조선 전체인민들의 힘과 지혜를 합치고 나라의 풍요한 부원을 통일적으로 개발리용하여 이세상에 부러울것 없는 살기좋고 부강한 조국, 더욱 번영하는 새조선을 건설할것이다.》**

검은 구름이 태양을 영원히 가리울수 없고 동터오는 아침을 막을수 없듯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받들고 싸우는 남조선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세상에 없다.

남조선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침략자 미제와 그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반드시 멸망할것이다.

남북의 전체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다같이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우고 또 싸워나아가자!

조선직업총동맹 제4차대회

1968년 12월 18일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선원들의 공동사죄문과 청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드리는 미국함선 《푸에블로》호 전체 선원들의 공동사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깊이 침입하여 정탐활동을 하다가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하여 나포된 우리 《푸에블로》호 선원일동은 자신들이 범한 죄행의 엄중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에 공동사죄문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를 공공연히 침범하여 엄중한 적대행위를 감행한 죄과로 하여 조선인민으로부터 그 어떠한 징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응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전쟁포로가 아니라 정탐행위를 하다가 체포된 현행범이기 때문에 우리 운명이 그 어떤 최악의 경우를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명도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우리를 인도주의적으로 대하고있으며 지금 우리의 생활에서는 범죄자라는 정신적부담을 제외한다면 나포당하기전의 우리 생활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와 같은 관용성에 대하여 깊이 감동하고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선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대한 《푸에블로》호의 침입사건과 관련하여 조선인민들을 위시한 세계의 이목이 범행당사자들인 우리에게로 집중되고있으며 우리의 태도에 각별한 주목이 돌려지고있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기때문에 《푸에블로》호 선원들인 우리만이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가장 유력한 증거를 제공할수 있는 증인으로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자기들이 범한 엄중한 죄행을 솔직하게 자백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지지른 범죄의 진상과 이와 관련한 우리의 진정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자백서들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행한 범죄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 앞에 진심으로 깊이 사죄하며 우리를 관대하게 처리하여줄것과 가능하면 우리가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자비심을 베풀어줄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범한 죄과가 너무도 엄중하며 또 이것으로 하여 미국의 《명예》와 우리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것을 고려하여 나포된 초기에는 자기들의 범죄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은 오래 지속될수 없었으며 엄연한 사실앞에서 여지없이 깨뜨려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범죄를 립증하는 각종 정탐문건들과 자료들이 조선인민군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되고 분석되였기 때문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를 확신시키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푸에블로》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북쪽 갈단으로부터 약 9.8마일, 어랑단으로부터 11.2마일, 성진동쪽 란도로부터 각각 10.75마일과 11.3마일, 마양도수역에서 안성갑으로부터 8.2마일, 원산수역에서 려도로부터 7.6마일되는 위치에까지 침입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를 깊이 침범하였습니다.

우리의 침범행위가 그 어떤 뜻하지 않았던 기술적착오에서 빚어진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되고 계획된 정탐행위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1967년 12월 2일 요꼬스까에서 일본주둔 미해군사령관 프랑크 엘 존슨소장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해에서 군사적정탐을 진행할데 대한 임무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외형상 해양전자연구함선으로 위장하고 일본 사세보항을 떠나 쏘련 극동연해를 돌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해를 따라 정탐행위를 하였습니다.

《푸에블로》호가 단순한 해양연구선이 아니라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안에서 탐지한 군사정탐자료들과 함에 있는 각종 문건 및 기계들에 의하여 여지없이 실증되였습니다.

우리는 작전명령에 지적된 내용들을 정탐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해의 3개 작전 수역 (《마스》, 《비너스》, 《플루토》)에서의 네개 수역 즉 청진, 성진, 마양도 및 원산 수역에서 조선인민군 해군함선들의 수와 위치, 해군의 활동범위, 해안에 배치된 전파탐지기들의 위치를 판정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전자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해군기지들의 위치, 함선들의 편성과 전투능력, 순찰정형, 조직지휘체계 및 중요해군지휘부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신결속소와 감시소를 정탐하며 잠수함작전을 위한 해양음향측정과 그밖의 해양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해에 배치되어있는 각종 군사대상물들을 탐지하며 항구들의 수용능력, 입출항하는 선박들과 그 능력을 정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범한 죄행은 엄중합니다.

지금 우리 《푸에블로》호선원들은 우리가 감행한 범죄의 엄중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탐행위가 도덕적으로 그릇된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엄중하고 정의롭지 못한 도발행위라는것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준비된 침략행위였으며 우리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범죄자로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있으며 이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타국에 대한 정탐행동을 하다가 체포되였을 때에는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엄격히 처벌된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수 있는 전적인 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범죄의 엄중성으로 본다면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의하여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며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각오를 하고있습니다. 그

러나 우리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이 엄숙한 시각에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하소연하는 몇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를 관대히 용서해줄것을 진심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행은 엄중하지만 상관의 명령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였을 따름이고 결코 우리자신의 신념으로 한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였다는 점을 리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적명령을 수행하는데만 충실하였던 우리들은 맹목적행동으로 정의로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비극적인 음모에 가담함으로써 자신들을 범죄자로 락인찍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치가도 아니며 군사지도자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하여 잘 모르며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는 전혀 모릅니다.

미국정부당국자들과 군부수뇌자들이 무엇때문에 조선반도의 동북해안에 그처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하였을뿐만아니라 우리 행동이 미국의 정책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며 또 우리가 탐지한 자료들이 어떻게 리용되는가에 대하여서는 관심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의 본질을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수치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충심으로 사죄하는바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책임은 범행당사자들인 우리에게 있는 동시에 우리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것을 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대의 목적은 우리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수행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범죄를 빚어낸 책임은 미국정부당국자들과 군부수뇌자들에게 있습니다.

《푸에블로》호를 조선해안에 파견한것은 전적으로 침략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정탐행위에 애당초 참가하지 말아야 할것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나라 정부가 계획한 수치스러운 음모에 가담하였을 때에는 비록 본의 아닌 행동이라 할지라도 역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만큼 《푸에블로》호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함의 전체 선원들이, 특히는 함장과 장교들이 책임져야 하며 규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한 죄가 아무리 엄중하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져야 할 그것에 비하면 작은것입니다. 타국에 대한 정탐행동을 감행한 범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그의 조직자들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이 《푸에블로》호와 같은 배들의 정탐행위를 비준하고 명령하는것은 세계도처에서 불화의 씨를 펴뜨리는것으로 됩니다.

《푸에블로》호의 정탐활동을 포함한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불행한 사건들이 미국에 의하여 빚어지고있다는것을 우리는 알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조선인민의 증오를 받으며 격분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것도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푸에블로》호 범죄사건과 관련한 우리의 뉘우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사죄가 솔직하고 충심으로부터 나오는것일지라도 충분한것으로는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죄를 한다 해도 어데까지나 《푸에블로》호 선원들의 사죄일 따름이며 미국정부를 대신하는 공식적인 사죄가 되지 못하기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를 정탐활동에로 내몬 미국정부가 세계의 공정한 여론앞에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사죄하는것에 크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우리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모든것을 솔직하게 자백하였습니다.

우리 《푸에블로》호 선원들은 우리 죄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행위에 참가한 범죄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를 침범하여 정탐행동을 감행하였다는것을 세계앞에서 다시금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엄중한 범죄행위이며, 또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를 생각을 하는것은 하느님에 대한 죄악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들이 저지른 엄중한 범죄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의하여 엄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소생할수 없는 극형까지도 가해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 인간으로서, 부모를 가진 자식으로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우리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우리에게 커다란 자비심을 베풀어줄것을 바라면서 이 사죄문을 쓰고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을 하며 한장의 종이장에 말의 흔적을 써놓을수는 있지만 조선인민에 대하여 사죄하려는 우리 모두의 심장에서 나오는 진정은 다 표현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인민앞에 우리의 심장을 꺼내여놓고싶은 념원을 한사람같이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과거생활과 행동이 얼마나 허위적이였는가를 깨닫고있으며 깊이 후회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직 진리와 정의로 충만된 진정한 삶을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푸에블로》호 선원 82명은 모두 고향에 부모처자들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때문에 속태우고있으며 우리가 돌아갈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원들중 젊은 사람들은 먼 전도를 가지고있으며 인생에 대한 큰 희망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이미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약할수 없는 우리의 운명에 모든것을 의탁하고있습니다.

우리 《푸에블로》호의 전체 선원들은 우리들자신과 가족들의 이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간청합니다.

우리들 82명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비심을 베풀어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소생의 길을 한번만 열어주며 우리의 가족들에게 다시한번 희망을 안겨줄수 있도록 우리들을 관대히 용서하여 고향으로 돌아갈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우리는 용서를 받아 고향에 돌아가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적인 행동에 결코 가담하지 않으며 조선인민과 세계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에게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주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다시는 슬픔과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지 않을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우리의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맹세를 받아주실것을 절절하게 희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맹세의 진실성과 정직성을 인정하고 우리를 너그럽고 관대히 용서해주실것을 다시한번 간절히 청원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이 사죄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2월 16일 조선중앙통신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드리는 미국함선 《푸에블로》호 전체 선원들의 청원서

미국함선 《푸에블로》호의 함장, 장교 및 선원들과 민간인해양연구원들인

저희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정탐과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토완정을 침해한 추악한 범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자백하고 성실하게 뉘우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앞에 삼가 이 청원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나포된후 오늘까지 매개인의 성실한 자백과 저희들 모두가 일치하게 서명한 우리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하여 그리고 기자회견들과 같은 여러 기회를 리용하여 범죄사실의 진상을 밝히며 저희들의 송환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저희들로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그 어떠한 긍정적인 대답도 주지 않았으며 그 어떠한 응당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것이 명백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참을성에는 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에게는 저희들 매개인의 운명을 판결하는데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관대성을 청원하는 오직 하나의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비렬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여러달전에 공동으로 사죄하기는 하였으나 저희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희들이 저지른 범죄의 엄중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였으며 이로부터 저희들은 자기가 처음에 한 사죄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한것으로 간주하게 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 성실한 공동의 진술을 통하여 저희들의 뉘우침과 사죄의 진실성을 확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바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 나라에 억류되어있는 기나긴 나날에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신 분에 넘치는 관용성과 관대성에 대하여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리고저합니다.

해양연구사업이라는 외피로 가리우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저희들이 감행한 엄중한 범죄는 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을 가져다줄수있었으며 력사앞에서 저희들에게 엄엄한 치욕을 가져다줄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순결하고도 본질적인 진실한 개별자백과 성실한 사죄와 앞으로의 저희들의 생활을 바로잡을데 대한 진지한 담보를 통하여 저희들은 자신의 한결같은 회오를 진실하게 표시하며 또한 우리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한 《푸에블로》호의 엄중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하여 사죄하며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범죄행위를 되풀이하지 않을데 대하여 확고히 담보하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저희들의 범죄를 판결함에 있어서 관용성과 자비심을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실것과 저희들에게 그리운 가족들에게로 돌아갈수 있도록 허락해주실것을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푸에블로》호는 세가지 주요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간첩선으로서 설계되고 취역하였습니다. 함은 첫째로, 군사적의의가 있는 모든 전자신호들을 정탐할수 있었으며 둘째로, 함은 군용함선과 상선들을 사진촬영하는것을 포함한 육안정찰을 수행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함은 군사적관심사로 되는 해양관찰을 수행할수 있었습니다.

함은 1967년 12월초순에 기지항인 일본 요꼬스까에 도착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류사한 배인 미함선 《배너》호와의 련계밑에 《핑크루트작전》(그후 《익씨이크작전》으로 개칭됨)이라는 암호이름으로 알려진 일련의 작전들을 수행하기로 계획되였습니다. 저희들은 일본주둔 미해군사령관 프랭크 엘 죤슨제독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12월초에 저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첫임무를 받았으며 준비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요꼬스까에 있는동안 저희들은 함에 필요한 수리와 개선을 진행하였으며 그밖에 불충분하지만 조선반도에 대하여 입수할수 있는 모든 자료를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968년 1월 2일 죤슨제독자신이 저희들의 준비상태를 검열하고나서 저희들이 수행해야 할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마스》, 《비너스》 및 《플루토》의 암호이름으로 불리우는 세개 작전수역에서 정탐을 수행하며 네개의 주요관심사로 되는 항구인 청진, 성진, 마양도 및 원산에 주의를 집중시키게 되여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일본주둔 미해군사령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네가지 특수임무를 받았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은 조선인민군 해군활동을 확인하게 되여있었으며 둘째로, 저희들은 조선인민군이 송신하는 일체 전자신호들을 도청하기로 되여있었으며 셋째로, 자기의 연해에 들어간 우리 함과 같은 간첩선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응을 판정하게 되여있었으며 네째로, 저희들은 군사적관심사로 될수 있는 일체 새로운것의 발견에 대하여 보고하게 되여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발견당할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의 정탐행낭에 좋은 자료를 첨가할수 있는 전망이 보일 때면 언제든지 그들의 자주권에 속하는 령해에 들어갈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푸에블로》호의 정탐임무수행에서도 완전히 효력을 가지는 1966년 태평양함대사령관지시 003120.24에이 수정—2호에는 해군정탐임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세칙을 규정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해에서는 3마일 한계까지 침입하는것이 허용되여있었습니다.

명령에 따라 저희들은 1월 11일 아침에 사세보를 떠나 쯔시마해협을 거쳐 동조선해로 항행하여 13일에 저희들의 작전수역에 들어섰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해에서 활동한 열흘동안에 저희들은 130개 이상의 전파탐지기신호들을 도청하였으며 15회이상에 걸쳐 상선활동을 발견및 촬영하였으며 여러곳에서 해양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나포되기전에 우리 함은 다음과 같은 지점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해에 침범하였습니다.

1, 룡대갑으로부터 8.1마일
(북위 40도 23분, 동경 129도 13분)
2, 여랑단으로부터 11.2마일
(북위 41도 25분, 동경 130도 03분)
3, 갈단으로부터 8.3마일
(북위 41도 50분, 동경 130도 07.5분)
4, 갈단으로부터 10.5마일
(북위 41도 46.5분, 동경 130도 07.5분)
5, 갈단으로부터 10.5마일
(북위 41도 46분, 동경 130도 07.5분)
6, 갈단으로부터 9.8마일
(북위 41도 51분, 동경 130도 10분)
7, 갈단으로부터 9.3마일
(북위 41도 47분, 동경 130도 06분)
8, 서수라동으로부터 10마일
(북위 41도 45분, 동경 130도 05분)
9, 갈단으로부터 7.2마일
(북위 41도 50분, 동경 130도 06분)
10, 갈단으로부터 9.3마일
(북위 41도 48.5분, 동경 130도 08분)
11, 갈단으로부터 9.3마일
(북위 41도 47분, 동경 130도

06분)

12, 고말산단으로부터 11.1마일
(북위 41도 37.5분, 동경 130도 01.5분)

13, 란도로부터 10.75마일
(북위 40도 28.1분, 동경 129도 36.7분)

14, 란도로부터 11.3마일
(북위 40도 27.3분, 동경 129도 30분)

15, 마양도로부터 10마일
(북위 39도 50분, 동경 128도 18분)

16, 안선갑으로부터 8.2마일
(북위 39도 48.9분, 동경 128도 01.9분)

17, 려도로부터 7.6마일
(북위 39도 17.4분, 동경 127도 46.9분)

이상의 모든 침범들은 함에서 저희들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기록한 문건들, 해도들과 기록들, 로란《씨》기록부에 의하여 확증되였습니다. 저희들은 령해계선내의 관심사로 되는 수역을 따라 해안전파탐지기들과 기타 전자기현상들에 대한 더욱 더 정확한 자료들을 수집하며, 있을수 있는 잠수함활동을 조사하며, 또 혹은 해군의 관심사로 되는 기타 정보대상들을 조사할 기도에서 이와 같은 침범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워싱톤의 그릇된 정책의 큰 파도로 말미암아 비도덕적인 암초와 함정에 내던져진 량심있는 인간들로서 이 자주적인 평화애호적인 나라의 령해에 대한 이러한 침범의 회수나 침범의 거리 같은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왜냐 하면 침범은 결국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완전한 침범으로 되기때문입니다.

1월 23일 아침에 저희들은 원산수역에 도착하여 정탐임무를 성과적으로 결속짓기를 희망하면서 령해에로 대담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선인민군 해군함선들에 발견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려도로부터 7.6마일되는 위치에서 나포되고 말았습니다.

나포된 직후 저희들은 함선의 진목적을 은페하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해양연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대기의 전자현상을 조사하고 있었을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지어 안하무인격으로 격분을 표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저희들이 간첩행위에 몰두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다는것과 이런 더러운 짓은 사형의 형벌을 받을만 하다는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물론 수 많은 자기의 비밀들을 지키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함과 동시에 로획된 모든 정탐증거들이 저희들의 면전에 제시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이 간교한 계책을 계속 고집할수 없었습니다. 증거들은 저희들의 범죄를 더는 감출수 없게 하였으며 따라서 나포직후 함의 진짜임무와 저희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곧 자백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증거로부터 그리고 매개인의 량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자신의 결론을 짓지 않을수 없게 되였습니다.

저희들은 자기의 범죄가 매우 엄중하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단순한 군사적인 포로로서의 대우를 요구할수 없는 간첩들이며 따라서 전쟁포로의 제반 권리를 부여받을것을 기대할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행한것과 같은 정탐행위는 비렬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푸에블로》호가 해양외계연구선이라고 위장한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그 어떤 다른 이름을 내걸고 그것으로 가리우기때문입니다.

만일 정탐이란것이 세상사람들에게 용납될수 있는 행위라면 그의 진짜목적을 가리우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함의진짜의도를 숨길 필요는 전혀 없을것입니다. 저희들은 자신이 감행한 정탐의 범죄가 비도덕적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반대하여 저지르는 죄악이기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자기들이 용납하지도 않거니와 리해하지도 못하는 비도덕적인 정책의 희생자로 되게 되였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도발적인 정탐이 우리 정부와 당국자들에 의하여 애당초 조직되고 명령되지 말았어야 할것이였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고있습니다.

만일 함이 해양연구선이였다면 어째서 비밀 및 극비 정탐문건들과 간행물들을 함에 가지고 있는단 말입니까? 만일 함이 순수한 해양연구선이였다면 저희들이 사실 그대로 직접 작성하고 기록한 모든 항해일지와 해도와 기록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해에 17차나 침입한것을 확증하고 있는 사실들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한단 말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유일하게 진실한 대답은 저희들이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과 저희들이 가진 기자회견들, 가족들과 련방정부 및 주정부들의 관리들에게 보낸 편지들과 기타 각종 수단들을 통하여 여러번 거듭하여 인명한바와 같이 《푸에블로》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정탐활동을 수행한 정보 수집선이였으며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해에 침입하였다는것입니다.

엄연한 사실과 물적증거 앞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저지른 죄행에 대한 진심으로 되는 뉘우침으로 하여 저희들은 모든것을 자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 앞에 관용성을 베풀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자기가 범한 죄행에 대하여 책임질것을 스스로 결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정탐과 적대 행위는 저희들 스스로의 목적과 의도에서 감행된것은 아니였습니다. 저희들은 상관의 명령을 집행하는 군인에 불과합니다. 보다 큰 책임은 이러한 범죄행위를 조직하고 저희들을 이곳에 파견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저희들의 운명에 대하여 응당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나포된이후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저희들은 자신의 소행에 대한 뉘우침을 일상생활에서 보이드리려고 노력하였으며 우리 정부가 《푸에블로》호가 범한 죄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희들을 송환시켜 주기를 기다렸으며 그날이 곧 오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포된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정부가 나타난 모든 사실들을 부인하며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접수하기를 거절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들은 저희들에게 자기들의 범죄행위를 수행할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희들을 저버리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두운 구석에 남몰래 숨어있는 정탐군들이였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의 명령을 최대한으로 철저히 수행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고있는 《보수》는 바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더러운 일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응당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을 접수하기를 거부하고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관리들이 저희들을 거짓말쟁이로 부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정탐을 하려고 령해에 침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저희들보다 더잘 안단 말입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이 어두운 과거에 이런 일들을 실천하였으므로 저희들자신이 가장 잘 알고있다고 생

각하기때문에 진짜사실을 실지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 미국정부가 이 사실을 계속 부인한다는 말을 들을 때면 저희들은 자신의 귀를 믿을수 없습니다. 저희들에 의하여 이미 세상에 알려진 그 진실을 부인하는 그들의 정책이 얼마나 철면피하고 오만무례합니까!!

저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해에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나포된것만큼 그와 같은 수치스러운 행위로 하여 죄가 있는자들이 값을 치루어야 하는것입니다. 저희들은 자기에게 하달된 명령을 집행한 자들로서 저희들의 비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재판을 받으며 조선법에 의하여 대가를 치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이곳에 오도록 명령한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취한 관대한 립장으로 하여 저희들이 귀국하도록 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은 미국정부가 이 적대적인 범죄행위들을 인정하고 이 행위들에 대하여 사죄하고 그러한 비도덕적죄행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를 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이 세가지 조건들을 미국이 충족시킨다면 저희들의 송환은 이루어질것입니다.

저희들은 《푸에블로》호의 범죄의 엄중한 본성과 그에 저희들이 가담한 잘못을 충분히 깨닫게 되였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범죄에 대하여 다시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에게 사죄하며 저희들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뉘우침의 성실성과 진지성을 저희들의 참된 감정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심장속으로부터 희망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감정을 다 종이우에 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청원서의 몇마디 말들이 저희들이 범한 죄행에 대하여 저희들이 느끼고있는 회오를 피력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은 간첩과 같은 그런 더러운 범죄에 다시는 가담하지 않을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저희들은 정탐의 근본적인 비도덕성과 령토완정에 대한 침해의 비법성을 스스로 깨닫고있는바 더우기 저희들의 마음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저희들의 가담이 저희들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충격을 가져다 주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하여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리유로 하여 저희들은 만약 저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것이 허용된다면 저희들 각자는 제가끔 유용하고 건설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희들의 생명을 바치도록 하겠다는것을 솔직히 그리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저희들은 자백한 범죄자들로서 저희들에게 아무리 엄격한 징벌이 가하여진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범죄적인 과거를 제외한다면 저희들도 만사람에게 공통적인 감정과 희망과 지향을 가지고있는 보통인간들입니다.

저희들이 품고있는 절절한 소원, 저희들이 일찌기 가져보지 못한 가장 깊은 념원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로 하루빨리 돌아가는것입니다.

여덟달이 넘는동안 저희들은 저희 안해들과 부모들, 자식들의 웃음어린 얼굴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굳건한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떨어져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조선인민이 저희들의 이 간절한 념원을 리해하며 관대히 용서하여 저희들을 가족들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주시기를 충심으로 희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82명의 《푸에블로》호 선원들은 특급정탐군으로서 그리고 세계력사상 그를 평가하기 드문 그처럼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하수인들로서 공명정대한 세계의 심판앞에서 죄인으로 나서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불행한 운명에로 저희들을 인도한 배후조종자들을 준렬히 비난하며 그들이 저희들에 대한 책임을 접수하지 않은데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저지른 비행의 명백한 진실을 그들이 부인하는것으로 하여 그야말로 불쾌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심중한 범죄를 제외한다면 저희들이 인간이라는것을 리해하여주신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깊은 사의를 표하며 저희들의 진정한 뉘우침과 이 나라를 반대하는 범죄에 다시는 결코 가담하지 않겠다는 진실한 담보를 고려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강렬한 뉘우침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으리라는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삼가 애원하며 드리는 이 심장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청원을 부디받아주시기바랍니다.

미국함선 《푸에블로》호 함장, 장교들, 선원들과 민간인 해양연구원들

1968년 10월 8일

국내주요일지

1968년

1월

1일 김일성동지께서 1968년 새해를 맞이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한덕수동지에게 축하장을 보내시였다. ▲ 김일성동지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사회주의나라 당 및 정부지도자들과 축하장을 교환하시였다.

4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주간》을 기념하는 평양시군중집회가 있었다.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으로 다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보내온 각국 지도자들의 축전에 대하여 답전을 보내시였다.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선인민군 제1보병사단과 조선인민군 제1비행사단에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

8일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이며 불굴의 혁명투사인 마동희동지 서거 30주년 혜산시추모회 진행.

9일 김일성동지께서 아흐메드세쿠 투레가 기네공화국 대통령직책에 재선된데 대하여 축전을 보내시였다.

10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에서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콜롬보에서의 조일적십자회담이 일본측의 악랄한 파괴책동으로 엄중한 난관에 직면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11일 콜롬보조일적십자회담을 파탄시키려는 일본반동정부의 책동을 폭로규탄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12일 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이 일본사또반동정부가 총련조직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더욱더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13일 김일성동지께서 아랍련합공화국 대통령 가말 아브델 나쎄르의 탄생 50주년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시였다.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간에 총령사관계 설정.

16일 김일성동지께서 내각 수상으로 다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각국 지도자들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조직들로부터 보내온 축전에 대하여 각각 답전을 보내시였다.

23일 영웅적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이 공화국북반부연해에 깊이 침입하여 적대행동을 감행하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

24일 황해제철소강철전사들, 직맹열성자회의를 열고 금년도 인민경제계획을 1개월 앞당겨 끝낼것을 결의하고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선인민군창건 기념훈장 제정에 대한 정령, 조선경비대 제2106군부대에 자유독립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각각 발표. ▲ 김종성동무가 일하는 공장 기계전사들, 직맹열성자회의를 열고 금년도 인민경제계획을 2개월 앞당겨 완수할것을 결의하고 제1기계공업성산하 공장기업소들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김규원동무가 일하는 기업소 붉은 광부들, 직맹열성자회의를 열고 금년도 광물생산계획을 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일전으로 끝낼것을 다짐하고 광업성산하 광산들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27일 공화국정부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우리 나라 연해에 깊이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제놈들의 죄행을 은폐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푸에블로》호사건을 유엔에 끌고가는 한편 무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일으키고있는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28일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도착, 7월 31일까지 남부예멘인민공화국과 기타 나라들을 방문.

29일 공화국외무성에서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콜롬보조일적십자회담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파탄시킨 일본당국의 횡포무도한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조일적십자회담을 파탄시킨 일본반동정부의 책동을 폭로규탄하며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사회단체련석회의 평양에서 진행.

30일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당의 군사로선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인민군군인들을 표창하시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라크공화국간에 대사급외교관계설정에 대하여 합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로므니아공산당대표단이 평양에 왔다(2월 4일 귀국).

2월

1일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조선경비대 군인들과 사회안전원들에게 표창장과 선물을 보내시였다.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희생된 공화국영웅들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기념 소년호》 땅크헌납금을 드리기 위한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진행.

2일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의 우수한 구분대들에 축하문을, 영예군인들에게 선물을 각각 보내시였다. ▲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의 우수한 구분대들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화국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축기와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영예상을 수여. ▲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로므니아공산당대표단간의 회담 진행. ▲ 공화국내각에서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51개대상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11개대상의 중요설비들에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칭호》를 수여.

3일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조선경비대의 우수한 구분대들에 축하문을 보내시였다. ▲ 김일성동지께서 로므니아공산당 대표단을 만나시였다. ▲ 김일성 수상께서 쎄일론독립절에 즈음하여 쎄일론정부 수상에게 축하를 보내시였다. ▲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조선경비대의 우수한 구분대들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화국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축기와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 영예상을 수여. ▲ 김일성원수께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을 맞이하여 전체 조선인민군 및 경비대 장병들이 맹세문을 드리였다. ▲ 남조선인민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탄압을 폭로규탄하는 평양시 성토대회 진행.

5일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모범적인 로농적위대원들을 표창하시였다. ▲ 김일성동지께서 남부웰남민족해방무장력이 미제와 티우—키 반역도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빛나는 승리를 거둔것과 관련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원우수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

김일성원수께 전체 조선인민군장병들이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을 맞이하여 지성어린 기념품을 드리였다. ▲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스물일곱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일본돈으로 3억 502만 5천원).

6일 남부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평양시 군중대회가 있었다.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기념 경축대회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부예멘인민공화국간에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경축연회에서 연설. ▲ 황해남도 벽성군 서원리내 농근맹원들이 열성자회의를 열고 모든 논밭에서 알곡 정당 500키로그람이상을 더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농업생산계획을 모든 지표에 걸쳐 넘쳐 실행할것을 결의하고 전국의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9일 김일성동지께서 쏘련공산당 대표단 단장을 만나시였다.

10일 공화국외무성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남부웰남에서 더욱 야수적인 살인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12일 리룡길동무가 일하는 종축장 농근맹원들이 금년도 축산물생산계획을 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일전으로 끝낼것을 결의하고 내각축산총국산하 기업소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13일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전국농업일군대회 진행(14일 폐막)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대표부가 레바논에 개설되였다.

15일 김일성동지께서 지난해 농업생산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협동농장 및 국영농목장들과 농업부문일군들을 표창하시였다.

16일 김일성동지께서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농촌경리부문일군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시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전체 성원들이 공동사죄문을 제출.

20일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쿠웨이트에 개설되였다.

21일 김일성동지께서 모범적인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을 표창하시는 《민청창립 10주년기념 청년의 영예상》수여식이 있었다. ▲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 새로 155개의 학급에 2중천리마학급 및 천리마학급칭호를 주기로 결정.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에서 연안군내 전체 협동농장원들과 농촌경리부문일군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였다.

27일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발광적인 전쟁소동을 벌림과 함께 놈들의 범죄적인 전쟁도발책동을 가리기 위하여 《반공》소동을 일으키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 새로 62개의 농촌경리부문 작업반들에 천리마작업반칭호를 주기로 결정. ▲ 공화국북반부령역에 들어왔던 남반부어민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냄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를 발표.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초청으로 일본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에 왔다(3월 2일 귀국)

28일 김일성동지께서 일본공산당대표단을 만나시였다. ▲ 공화국정부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이 남부웰남에서 야수적인 살인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3월

1일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전국렬사가족 및 영예군인가족대회 개막,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남조선의 렬사가족들과 혁명가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고 페회.

2일 김일성수상님께서 사회주의건설에서 모범적으로 일하고 핵심적역할을 수행한 렬사가족 및 영예군인가족들을 표창하시였다. ▲ 직총중앙위원회에서 새로 7개의 천리마작업반에 2중천리마작업반칭호를, 73개의 작업반에 천리마작업반칭호를 주었다.

4일 이라크에 우리 나라 대사관이 개설되였다.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홍명희동지 서거.

13일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주간》(19일까지)개막.

16일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 새로 농업부문의 3개 작업반에 2중천리마작업반칭호를 수여하기로 결정.

18일 우리 나라와 아랍간의 1968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 까히라에서 조인.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제66차총회의 《결정서》에 항의하여 성명을 발표.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1968년 1월 8일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민궐기대회 진행.

23일 공화국북반부령역에 들어왔던 남반부어민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냄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를 발표.

29일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의고안열성자들을 표창하시였다. ▲ 직총중앙위원회에서 4개의 천리마작업반에 2중천리마작업반칭호를, 96개의 작업반에 천리마작업반칭호를 주었다.

30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확대회의 진행. 《일본반동정부의 〈외국인학교법〉 조작음모를 분쇄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토의.

31일 김일성동지께서 수도건설청년돌격대 전체 대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대학교 제10회졸업식에 즈음하여 모범적인 졸업생들을 표창하시고 전체 졸업생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4월

2일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김재흥동무가 일하는 공장 종업원총회 진행,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 ▲ 군사정전위원회 우리측 수석위원이 미제침략자들의 발광적인 무력증강행위와 관련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서한.

3일 김일성동지께서 웽그리아해방 23주년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과 정부지도자들에게, 세네갈 독립 8주년에 즈음하여 세네갈공화국 대통령에게 각각 축하를 보내시였다. ▲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의 공동축하문과 근위1급군칭호를 수여할데 관한 수상동지의 표창장과 근위기발 및 선물을 전달하는 연안군 협동농장원들과 농촌경리부문일군회의 진행,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님께 맹세문을 드리였다.

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으로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우리 나라에 왔다. (17일 귀국)

10일 김일성동지께서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만나시였다.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전국청년총동원대회 개막, 김일성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과 우리 나라 전체 청년들의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고 13일 페회.

14일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 새로 202개의 학급들에 2중천리마학급과 천리마학급칭호를 주었다.

15일 4천만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 만경대에서 조선소년단 평양시 련합단

체대회가 있었다.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

16일 김일성동지께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만나시였다. ▲ 기네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이 왔다(23일 귀국)

18일 김일성동지께서 쁠라야 히론전투승리 7주년에 즈음하여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혁명정부 수상인 피델 까스뜨로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9일 공화국외무성에서 《평화협상》을 연막으로 삼아 윁남전쟁을 더욱 강화하고있는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사회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막,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 잘하기 위한 1968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토의하고 25일 폐회, 전원회의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중요발언이 있었다. ▲ 김일성동지께서 기네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을 만나시였다.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기네공화국 정부간에 경제 및 기술적 협조에 관한 협정과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

24일 김일성동지께서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창건 4주년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내시였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축하문을 사회안전성 고급간부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였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참가자들이 1968년도 인민경제계획과제를 4월 15일전으로 끝낸 대상들에 편지를 보내였다.

25일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2차회의 개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67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토의하고 27일 폐막.

27일 김일성동지의 룡포리전선지도열일곱돐 기념모임이 현지에서 있었다. ▲ 사회안전성 고급간부학교에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

29일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안전성 고급간부학교 창립 20주년에 즈음하여 이 학교 교직원들을 표창하시였다.

5월

1일 김일성동지께서 창립 스무돐을 맞이하는 사회안전성 고급간부학교 교직원, 학생들과 상면하시였다.

3일 김일성동지께서 196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4월 15일전으로 끝낸 대상들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과학원간의 1968—1970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조인.

7일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조선에서 감행한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를 전세계인민들에게 제소하는 고소장을 발표.

8일 조선로동당대표단과 프랑스공산당대표단간에 회담(9일까지)

9일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개막, 대회에서는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집행을 총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천리마의 대고조를 이룩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전투적과업을 토의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우리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천리마기수들에게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 남조선 로동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폐회.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 축하문을 보내였다.

10일 김일성동지께서 철도운수부문의 역, 구, 소들을 표창하시였다. 철도운수부문의 14개의 단위에 근위칭호를 수여.

11일 공화국외무성에서 일본사또반동정부가 일본국회에서 파쑈적악법인 《외국인학교법안》을 강압통과시키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 천리마영예상을 제정함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19호를 채택.

12일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들을 표창하시였다.

13일 김일성동지께서 프랑스공산당대표단을 만나시였다. ▲ 김일성동지께서 인발강관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강철전사들을 표창하시였다. ▲1968년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주간》으로 설정.

14일 김일성동지께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주간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해방조직위원장에게 축하를 보내시였다. ▲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강선제강소천리마기수궐기회의 진행, 김일성동지께 맹세문을 드리였다. 전국의 천리마기수들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

15일 프랑스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대한 공동보도를 발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미제침략자들과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책동을 폭로규탄하여 성토문을 발표.

17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남조선농촌에서 력사상 처음보는 혹심한 절량상태가 조성되고 기근이 전역을 휩쓸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농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21일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 새로 4개의 천리마작업반에 2중천리마작업반칭호를, 39개의 작업반에 천리마작업반칭호를 주었다.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훈장 제정에 대한 정령을 발표.

25일 직총중앙위원회에서 1개의 역에 천리마역, 11개의 천리마작업반에 2중천리마작업반, 200개의 작업반에 천리마작업반칭호를 각각 수여.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당의 호소를 받들고 계속 전진하여 혁신을 이룩한 조선소, 공장들에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29일 조쏘정부간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2차회의 평양에서 개시, 6월 3일 의정서 조인.

31일 김일성동지께서 조쏘정부간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2차회의에 참가한 쏘련대표단 단장을 만나시였다.

6월

4일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혜산에서 보천보전투승리 서른한돐기념 전국청년학생모임이 있었다. ▲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스물여덟번째로 3억 4천 730만 5천 400원(일본돈으로)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재일본조선인중앙교육회에 보내였다.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공화국창건 20주년을 성대히 기념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공화국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대사를 실시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몽골인민공화국간에 1968년—1969년도 문화협조계획서 울란 바따르에서 조인.

8일 《조선소년의 영예상》 수여식 진행.

18일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유린하며 그들에 대한 야수적인 살상과 폭행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는 사또반동도당의 범죄행위를 폭로규탄하여 성명

을 발표.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꾸바가극입대표단성원들에게 훈장을 수여.

20일 공화국정부와 꾸바공화국 혁명정부간에 1968—1969년도 문화교류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21일 김일성동지께서 꾸바가극입대표단을 만나시였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6월 15일현재로 196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완수한 대상들에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22일 김일성동지의 초청으로 딴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25일 귀국)

23일 김일성동지께서 딴자니아대통령을 만나시였다.

24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군중대회,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 20여만의 시민들 시위. ▲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공동성명을 발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뽈스까인민공화국간에 문화협조에 관한 1968~1969년도 집행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27일 김일성원수를 모시고 조선인민군 붉은기중대군인열성자대회 개막,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고 23일 폐막.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 새로 20개작업반에 2중천리마작업반, 251개작업반에 천리마작업반칭호를 주었다.

28일 우리 나라 과학원과 뽈스까과학원간의 1968—1969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29일 김일성동지께서 붉은기중대군인열성자들과 지휘관, 정치일군들을 표창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위원장인 발테르 울브리히트동지의 탄생 75주년에 즈음하여 축하를 보내시였다.

30일 김일성동지께서 아랍련합공화국 대통령에게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절대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전문을 보내시였다. ▲ 조선로동당과 공화국내각에서 수도건설에 참가한 대학 및 고등기술학교 학생들에게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 김일성동지의 1968년 1월 8일 교시관철을 위하여 수도건설에 참가한 대학 및 고등기술학교 청년학생돌격대 총화모임이 있었다.

7월

2일 김일성동지께서 1천마력대형준설선 건조에서 모범을 보인 최주식동무가 일하는 조선소 및 이와 관련된 공장, 기업소들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표창하시였다. ▲ 직총중앙위원회에서 2개직장에 천리마직장칭호를, 22개천리마작업반에 2중천리마작업반칭호를, 247개작업반에 천리마작업반칭호를 주기로 결정.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꾸바공화국정부경제및과학기술협조대표단 성원들에게 훈장을 수여.

5일 김일성동지께서 싱가포르공화국수상에게 보내는 친서를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 단장이 전달.

6일 공화국외무성에서 미제의 비호밑에 박정희매국역도를 길잡이로 하여 남조선을 재침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의 범죄적책동을 폭로하는 비망록을 발표.

8일 김일성동지께서 웰남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인 려청의동지를 만나시였다. ▲ 우리 나라 정부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간의 1969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평양에서 조인.

9일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신문사 일군들을 표창하시였다. ▲ 김일성동지께서 기네공화국 외무담당국무비서를 만나시였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1968년도인민경제계획을 반년이상앞당겨 넘쳐 수행한 제염소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신문《조선인민군》창간 스무돐을 맞이하여 이 신문사 기자, 편집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였다.

10일 김일성동지와 최용건동지께서 몽골인민혁명 47주년을 축하하여 몽골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공화국정부에서 캄보쟈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인 침략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하여지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꾸바인민의 7월 26일 무장봉기 15주년에 즈음한《꾸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개막.

11일 김일성동지께서 대형준설선건조에 이바지한 김경명, 김평식동무가 일하는 천리마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표창하시였다.

12일 김일성동지께서 파키스탄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 단장이 전달. ▲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제3차대회 개막.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대표자회결정과 10대정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 경애하는 수령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고 13일 폐막.

13일 김일성동지께서 이라크공화국혁명 10주년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또다시 경북대학교 교수 김대수박사를 비롯한 남조선애국자들을 체포투옥하고 그들에게 중형을 들씌우는 죄행을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17일 공화국올림픽위원회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수단의 이름을 제멋대로《북조선》이라고 한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

18일 사로청중앙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광란적인 파쑈적탄압소동이 극도에 이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공동성명을 발표.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대형공작기계를 비롯한 각종 공작기계를 더 많이 만들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크게 기여한 김재흥동무가 일하는 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21일 김일성동지께서 뽈스까재생 24주년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과 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2일 김일성동지께서 웰남에 관한 제네바협정체결 14주년에 즈음하여 웰남민주공화국 호지명주석에게 전문을 보내시였다.

23일 꾸바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과 꾸바공화국정부경제및과학기술협조 대표단, 남부예멘공화국정부대표단이 평양에 도착.

24일 김일성동지께서 1천마력대형준설선 건조에서 모범을 보인 리주석동무가 일하는 조선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표창하시였다.

25일 김일성동지께서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15주년에 즈음하여 꾸바공화국 당 및 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 공화국정부에서 정전협정을 파괴유린하고 새전쟁도발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적책동을 폭로규탄하여 비망록을 발표.

26일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사정전위원회 군인들과 종업원들을 표창하시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15주년 평양시경축대회진행.

27일 김일성동지께서 남부예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을 만나시였다.

29일 꾸바인민의 7월 26일무장봉기 15주년기념 전국녀맹일군대회,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혁명정부수상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

30일 김일성동지께서 제14차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축전을 보내시였다. ▲우리 나라와 기네공화국간의 1968~1969년도 문화교류에 관한 사업계획서 꼬나크리에서 조인.

31일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일군들을 표창하시였다. ▲공화국외무성에서 라오스애국전선당 중앙위원회의 7월 22일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 ▲ 우리 나라와 웰남민주공화국정부간의 문화협조에 관한 1968년도 집행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8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꾸바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과 꾸바공화국 정부경제및과학기술협조대표단성원들에게 훈장을 수여.

3일 우리 나라와 웰남민주공화국간에 1968~1969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하노이에서 조인.

4일 김일성동지께서 꾸바공화국정부친선 대표단과 꾸바공화국정부경제및과학기술협조대표단을 만나시였다.

6일 캄보쟈, 버마, 싱가포르,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던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이 돌아왔다 ▲ 우리 나라정부와 꾸바공화국혁명정부간의 경제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기네공화국 군사대표단성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

10일 김일성동지께서 기네공화국군사대표단을 만나시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 새로 4개의 천리마작업반에 2중천리마작업반칭호를, 97개 작업반에 천리마작업반 칭호를 주었다.

11일 김일성동지께서 알제리공보성대표단을 만나시였다. ▲ 백절불굴의 혁명투사인 박길송동지서거 25주년 평양시추모회가 있었다.

14일 김일성동지께서 콩고(브)혁명 5주년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시였다.

15일 김일성동지와 최용건동지께서 8.15해방 23주년에 즈음하여 쏘련 당 및 정부지도자들로부터 보내온 축하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축전을 보내시였다.

16일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기념관일군들을 표창하시였다.

18일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왕국회의대표단을 만나시였다.

22일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경제정책을 받들고 2.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공장, 기업소들을 표창하시였다. ▲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15주년에 즈음하여 보내온 각국지도자들과 혁명조직, 친선단체, 사회단체들의 축전에 대하여 답전을 보내시였다.

23일 일본공산당대표단 평양에 도착,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일본공산당대표단간에 회담을 진행.

25일 김일성동지께서 유엔상주꾸바공화국대표를 만나시였다.

27일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 평양시사동구역 리현협동농장에 천리마협동농장칭호를 주기로 결정. ▲ 우리 나라 격검협회가 국제격검련맹에 가입.

28일 김일성원수께서 남포, 해주혁명학원 교직원들을 표창하시였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남포, 해주 혁명학원에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

29일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건설정책을 받들고 발전소건설공사에 참가하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표창하시였다. ▲ 강의한 혁명투사이며 수령의 충직한 전사인 김책동지의 동상제막식이 김책시에서 있었다.

31일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제막식이 혁명사적지 봉화리에서 진행되였다. ▲ 김일성동지의 가장 충직한 전사의 한사람이며 열렬한 공산주의자인 혁명투사 김경석동지의 동상제막식이 김책시에서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인 혁명투사 류경수동지의 동상제막식이 함남도 신흥군 신흥읍에서 있었다. ▲ 김일성동지께서 렬사가족들에게 보내주시는 선물을 전달하는 녀맹회의가 각지에서 무한한 감격과 흥분속에서 진행되였다.

9월

1일 김일성동지와 최용건동지께서 웰남민주공화국창건 23주년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과 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인 김책, 안길, 최춘국, 김경석, 조정철동지들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국가경제기관 및 사회협동단체 일군들에게 조국해방전쟁기념메달 및 조국해방전쟁참전기념메달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 ▲ 남포, 해주혁명학원창건 10주년 보고회,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세계 각 대륙의 여러 나라들에서 수많은 외국손님들이 평양에 왔다.

2일 김일성동지께서 창립 열돐을 맞는 남포, 해주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을 만나시였다. ▲ 김일성동지께서 조운철동무가 일하는 공장건설에 참가하여 맡겨진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건설자들을 표창하시였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화국내각에서 남포혁명학원과 해주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에게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 김일성동지의 전사이며 열렬한 공산주의투사이며 재능있는 군사 지휘관인 안길동지동상제막식이 청진에서, 혁명투사 조정철동지동상제막식이 함남도 덕성군 덕성읍에서 각각 있었다.

3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 ▲ 김일성동지의 가장 충직한 전사의 한 사람이며 열렬한 공산주의자인 혁명투사 강건동지동상제막식이 황북도 사리원시에서,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인 혁명투사 최춘국동지동상제막식이 함경북도 온성군 고성로동자구에서 각각 있었다. ▲ 직총중앙위원회에서 13개의 공장, 기업소들에 천리마공장칭호를 주기로 결정.

5일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 만경대협동농장, 칠골협동농장, 약수협동농장, 문화협동농장, 서원협동농장들에 천리마협동농장칭호를 주기로 결정.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 중앙경축대회 성대히 개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에 대하여 보고, 8일 폐막. ▲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세계 여러 나라 정부대표단 단장들, 당 및 투쟁단체 대표단 단장들과 대표들을 만나시였다. ▲ 김일성동지께서 수도건설청년돌격대전체 대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경축 평양시군중대회 성대히 진

행.

10일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만나시였다. ▲ 김일성동지께서 이라크공화국정부대표단, 파키스탄회교공화국정부대표단, 부룬디공화국정부대표단을 각각 만나시였다.

11일 김일성동지께서 당과 정부 지도간부들 및 외국손님들과 함께 공화국창건 스무돐경축 대집단체조 《천리마조선》을 관람하시였다. ▲ 김일성동지께서 웰남민주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을 만나시였다.

12일 김일성동지께서 쏘련정부대표단을 만나시였다.

13일 김일성동지께서 쏘련녀성대표단을 만나시였다.

14일 김일성동지께서 꾸바정부대표단, 아랍련합공화국정부대표단, 남부예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 소말리아공화국정부대표단, 모리따니회교공화국국회대표단을 각각 만나시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정부간에 1968년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15일 김일성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정부대표단, 탄자니아련합공화국정부대표단, 말리공화국정부대표단을 각각 만나시였다. ▲조선직업총동맹과 국제아랍로조련맹간의 공동공보 발표.

16일 김일성동지께서 콩고(레)혁명최고리사회대표단, 시에라레온정부친선대표단을 각각 만나시였다.

17일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왕국정부대표단, 기네공화국정부대표단, 꾸바녀성대표단을 각각 만나시였다.

18일 김일성동지께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대표단,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을 각각 만나시였다.

21일 공화국정부에서 미제침략자들이 유엔총회 제23차회의에 또다시 소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년례보고》에 의한 《조선문제》를 상정시켜 그를 토의게 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 우리 나라 과학원과 꾸바공화국 과학원간의 1969—1970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조인.

23일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20주년경축 제3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대회에서 우승한 단체들을 표창하시였다. ▲ 김일성동지께서 각지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로부터 보내온 편지전달계주성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1968년도 계획과제를 8월 24일현재로 넘쳐 수행한 김동휘동무가 일하는 광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대표단과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간의 공동성명 평양에서 조인.

25일 기네공화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평양을 출발. (10월 15일 귀국)

2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서동훈동무가 일하는 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소위 《북조선간첩사건》을 날조하여 재일조선인총련합회에 대한 탄압행위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28일 김일성동지께서 기네공화국독립 10주년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내시였다.

29일 김일성동지께서 서동훈동무가 일하는 공장의 새로운 소성로 건설에 참가하여 로력적위훈을 세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30일 김일성동지께서 비마련방정부경제대표단을 만나시였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김책공업대학에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

10월

2일 김일성동지께서 창립 스무돐을 맞는 김책공업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상봉하시였다. ▲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 새로 11개의 작업반에 2중천리마작업반칭호와 111개의 작업반에 천리마작업반칭호를 주었다.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원산농업대학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

5일 김일성동지께서 학생절에 즈음하여 모범학생들을 표창하시였다. ▲ 학생절기념 평양시보고회, 김일성원수님께 맹세문을 드리였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평양사범대학에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평양건설대학과 평양의학대학에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각각 발표.

6일 김일성원수님께 공화국창건 스무돐경축 전국학생체육대회참가자들이 맹세문을 드리였다. ▲ 김일성동지와 최용건동지께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창건 19주년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하를 보내시였다.

8일 김일성동지께서 앙골라인민해방운동대표단을 만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체 게바라 전사 한돐에 즈음하여 론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발표하시였다.

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한상섭동무가 일하는 광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 우리 나라 정부와 캄보쟈왕국정부간의 1967~1968년도 문화교류계획서 프놈뻰에서 조인.

12일 김일성동지께서 보통교육부문 각급학교 학생들로부터 보내온 편지전달계주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평양체육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였다. ▲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스물아홉번째로 일본돈으로 3억 4천 578만 3천여원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재일본조선인중앙교육회에 보냈다. ▲공화국창건 스무돐경축전국학생체육대회참가자들이 남반부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

13일 공화국외무성에서 미제침략자들이 《평화협상》의 연막을 쳐놓고 더욱 집요하게 감행하는 웰남에 대한 침략과 전쟁확대행위를 규탄하여 성명발표.

14일 우리 나라 정부와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에 1969년도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조인.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1968년도계획과제를 10월 10일 현재로 넘쳐 완수한 김윤용동무가 일하는 광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일본사또반동정부가 재일조선공민들에게 괴뢰 《한국국적》을 강요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21일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주재 파키스탄회교공화국대사와 꾸바민요가수단을 각각 만나시였다.

23일 알제리혁명개시 열네돐기념경축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이 평양을 출발.

2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평양외국어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25일 김일성원수께서 창립 열돐을 맞는 평양외국어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을 만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한상섭동무가 일하는 광산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표창하시였다.

26일 김일성동지께서 아련기자대표단을 만나시였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평양상업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29일 김일성동지께서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시찰의회및지방정부대표단을 만나시였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고원—홍원간 전기철도건설자들에게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30일 김일성동지께서 라오스애국전선 제3차전국대회에 축하를 보내시였다.

31일 김일성동지께서 고원—홍원간 철도전기화공사에 참가하여 로력적위훈을 세운 건설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시였다. ▲ 공화국북반부령역에 들어왔던 남반부어민들을 자기고향으로 돌려보냄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 발표.

11월

2일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농사에서 혁신을 일으킨 리현협동농장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 광주학생운동 39주년 평양시청년학생기념회가 있었다.

3일 김일성동지께서 김윤용동무가 일하는 광산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표창하시였다. ▲공화국정부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월남민주공화국의 령토에 대한 포격과 폭격을 무조건 중지한것과 관련한 월남민주공화국의 립장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 농업부문에서 새로 7개의 천리마작업반에 2중천리마작업반칭호를, 153개의 작업반에 천리마작업반칭호를 주기로 결정.

5일 공화국정부에서 남부월남문제의 정치적해결에 관한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성명과 남부월남인민의 투쟁의 새로운 정세에 관한 월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의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 공화국외무성에서 일본반동정부가 공화국창건 20주년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의 일본재입국을 거부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폭로규탄하는 성명 발표.

6일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농업생산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협동농장들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 김일성동지와 최용건동지께서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 51주년에 즈음하여 쏘련지도자들에게 축하를 보내시였다.

7일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왕국독립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8일 뽈스까통일로동당 제5차대회에 참가할 조선로동당대표단이 평양을 떠났다.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사회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 개회, 1, 철도운수를 비롯한 전반적수송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전원회의 결정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의 집행정형중간총화에 대하여 토의결정하고 16일 폐회, 회의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중요발언이 있었다. ▲ 우리 나라 정부와 뽈스까인민공화국정부간의 1969년—1970년도 장기통상협정과 1967년도 통상의정체결에 관한 의정서 조인.

16일 공화국외무성에서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책동과 살인만행을 규탄하며 캄보쟈왕국정부의 11월 9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타이에 살고있는 월남공민들에 대한 타이반동지배층의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월남민주공화국외교부가 타이반동지배층의 비인도주의적인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발표한 11월 7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각각 성명 발표.

19일 우리 나라 정부와 웽그리아정부간의 1969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20일 쏘련을 방문하는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이 떠났다.

25일 김일성동지께서 당문헌출판인쇄사업과 출판물보급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시였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해주교원대학창립 스무돐에 즈음하여 이 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 공화국외무성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유엔총회 제23차회의에 제출하는 소위 《년례보고》를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그의 기만적본질을 폭로규탄하는 비망록을 발표.

27일 조쏘정부간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3차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이 떠났다.

28일 우리 나라 정부와 꾸바정부간에 1969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12월

1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살인재판놀음을 벌리고 온갖 날조된 《죄》를 들씌워 처형하려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용납못할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공화국외무성에서 유엔총회 제23차회의 정치위원회 11월 27일회의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른바 《조건부초청》을 운운하는 파렴치한 《결의안》을 또다시 강압통과시킨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3일 조선, 벌가리아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회의 평양에서 개막(9일폐막)

5일 김일성동지께서 최인국, 김경도동무들이 일하는 기업소들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표창하시였다. ▲조쏘정부간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3차회의의 의정서와 1969년도 통상에 관한 해당한 의정서 모스크바에서 조인.

6일 김일성동지께서 제2차로 올해 농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협동농장들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9일 우리 나라와 인도간에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과 1969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 뉴델리에서 조인.

10일 공화국외무성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라오스에 대한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려고 무모하게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 ▲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월남민주공화국의 전령토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중지한다고 한 이후에도 월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계속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1일 우리 나라 정부와 알바니아정부간에 1969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서 티라나에서 조인.

12일 우리 나라 정부와 수리아정부간에 1968—1969년도 문화교류에 관한 계획서 다마스커스에서 조인.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함흥기술사범대학창립 열돐에 즈음하여 이 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뽈스까공산당창건 50주년과 뽈스까통일로동당 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축전.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조선직업총동맹 제4차대회 개막,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사위원회사업을 총화하고 중앙지도기관을 선거, 18일에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채택, 남조선로동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폐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조선직업총동맹 제4차대회에 축하문을 보내였다.

17일 우리 나라 정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장기지불에 관한 협정 및 1969년도 상품류통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남조선에서 우심해지고있는 미제승냥이떼들의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22일 꾸바혁명승리 열돐기념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이 떠났다. ▲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인민들과 녀성들에 대한 야수적인 살륙만행에 더욱 미쳐날뛰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23일 공화국외무성에서 미제가 유엔총회 제23차회의에서 이른바 《조선문제》에 관한 비법적인 《결의》를 강압통과시킨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백과 관용성을 베풀어줄데 대한 간절한 청원, 그리고 미국정부의 사죄와 앞으로 그와 류사한 범죄행위를 하지않을데 대한 답변을 고려하여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을 공화국북반부경외로 추방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외무성대변인이 성명 발표. 이날 이와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도 발표.

24일 직총중앙위원회에서 새로 1개의 공장에 천리마공장, 3개의 직장에 천리마직장, 21개의 천리마작업반에 2중천리마작업반, 344개의 작업반에 천리마작업반칭호를 주기로 결정.

27일 우리 나라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1969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김윤용동무가 일하는 광산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전보를 보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독일공산당창건 50주년에 즈음하여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와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각각 축하문을 보내였다.

30일 공화국외무성대변인이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수적인 살인만행과 탄압행위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남조선인민투쟁주요일지

1968년
1월

2일 부산시 부산피복보세가공로동자 3천명이 임금 70%인상을 요구하여 파업투쟁.

3일 제주시 룡담동과 도두동주민 1천여명이 비행장건설을 구실로 학교와 주택을 강제철거시키려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반대하여 동민대회를 가짐. 《제주비행장이설투쟁위원회》를 뭇고 억세게 투쟁. ▲ 충청북도 청원에 있는 대성실업부강공장로동자들이 야간수당금을 요구하여 버티기 파업.

6일 강원도 대명탄광로동자들이 각종 수당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파업. ▲ 경상북도 경주군 감포항의 2천여명 령세어민들이 멸치판매대금 1천여만원을 1년이 지나도록 내주지 않는데 격분하여 괴뢰감포 《어협》사무실에 몰려가 강력히 항의.

9일 목포동아상운회사 로동자들이 밀린 임금 200만원을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작업을 거부.

10일 대구시내 47개 양화점에서 일하는 직공들이 임금을 50% 올릴것, 단체협약을 맺을것 등 3개 요구조건을 들이대고 무기한 파업. ▲ 서울 평화시장의 광희피복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파업.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신흥제분주식회사》 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릴것, 해고자를 복직시킬것, 단체협약을 맺을것 등 요구조건을 내걸고 버티기투쟁.

15일 경상북도 대구시 평화직물회사와 평화어망회사 로동자들이 밀린임금 2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뭇고 회사창고를 열고 천과 어망, 기대의 모터 등을 몰수하여 감. ▲ 승하상사 마로탄광로동자들이 기업주놈의 집에 몰려가 밀린 임금 800여만원을 당장 내라고 요구하여 버티기 투쟁.

16일 강원도 장성탄광, 강원탄광 로동자 9천 400명이 장성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략탈적인 《유류전환정책》을 반대배격하는 궐기대회를 갖고 실질임금을 높일것, 밀린 임금을 당장 낼것, 《류대체》로 인한 해고 반대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 시위투쟁을 벌림.

17일 부산시내 영주2동 부녀자들이 판자집철거를 반대하여 괴뢰부산 《시장》놈의 사무실로 몰려가 기물을 마스는 등 강력한 항의투쟁을 벌림.

18일 부산시 영주2동 주민 3천여명이 판자집을 강제로 헐어버리려는 책동을 반대하여 괴뢰시청에 몰려가 시위투쟁, 달려드는 괴뢰경찰놈들과 격투를 벌려 경찰수명을 까눕히고 경찰트럭 1대를 파괴. ▲강원도 도계, 흥국, 마교를 비롯한 10여개 탄광로동자들 2천여명이 반동적인 《유류전환정책》을 반대하며 1천 400명의 실직당한 로동자들과 6천여명의 가족들의 생계를 당장 해결하라고 요구하여 시위.

20일 강원도 황지, 문곡지구 탄광로동자 2천명이 박정희도당의 《연료대책》을 반대배격하여 10여만의 탄광로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시급히 보장하라고 요구하여 시위 투쟁, 시위대렬을 막아선 150여명의 괴뢰경찰과 맞서 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겨 세놈을 까눕힘. ▲녕월탄광 및 옥계, 만경 등 지구내 로동자들과 함백탄광을 비롯한 삼탄, 동고, 강동 등 10여개 탄광 로동자 2천여명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동적 《연료전환정책》을 반대배격하는 성토대회와 《석유관 화형식》을 갖고 시위투쟁. ▲경상북도 문경군 문경탄광 로동자들이 해고절대반대, 밀린 임금을 당장 낼것 등 7개항목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시위투쟁. ▲ 전라남도 화순지구 탄광로동자들이 략탈적인 《유류전환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22일 남조선무장유격대가 박정희역적이 도사리고있는 《청와대》 500메터 지점까지 진출하여 괴뢰경찰부대 및 특무대와 총격전을 전개, 종로경찰서장놈을 비롯한 괴뢰경찰 및 주구들 수십명을 살상하고 동원된 군용차량 4대를 파괴. ▲ 경기도 의정부에 나타난 무장유격대는 괴뢰의정부경찰서를 들이쳐 경찰놈들과 총격전, 경기도 평택군과 파주지구에 나타난 무장유격대는 미제침략군 제2사단 3련대초소를 습격. ▲ 경상남도 의령군에도 무장유격대가 출현.

23일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과 파주군, 서울시내 서대문구의 박석고개와 인왕산기슭, 경기도 양주군 장흥리와 김포군 대명리 등지에 무장유격대가 나타나 적들과 전투. ▲ 다른 무장유격대는 경기도 파주군 림진강연안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 제2사단 1련단의 승냥이무리를 습격, 치렬한 전투 진행, 또 다른 무장유격대는 경기도 의정부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 51통신대대의 한 초소를 습격, 이날 무장유격대는 서울과 의정부, 김포군, 파주군 등 여러곳에 출현하여 미제침략군 제2사단, 괴뢰군 30사단, 《수색대》 등을 습격.

24일 무장유격대가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과 파평면 접경지대에 진출하여 총격전전개, 괴뢰군 제15련대장놈을 사살. ▲ 경기도 고양군, 서울 도봉산지역에 진출한 무장유격대는 괴뢰군 1110야전공병단 자동차대대를 습격하여 괴뢰군 중위놈을 비롯한 여러놈을 살상, 경기도 의정부 동북쪽지역에 진

출한 무장유격대는 괴뢰군 제249자동차대대를 맹렬히 공격,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북한리에 또다시 무장유격대가 나타나 괴뢰군 제26사단 《수색대》를 공격하여 총격전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무장유격대 진출. ▲ 충청남도 은성, 봉명, 대성탄광을 비롯한 도내 중소탄광 로동자들이 집단해고를 반대하여 투쟁궐기대회를 가진 다음 시위.

25일 무장유격대가 경기도 파주지구에 도사리고있는 미제침략군 제2사단초소를 맹렬히 공격. ▲ 무장유격대의 한 부대는 충북도 음성군에 진출.

26일 무장유격대가 경기도 양주군과 파주군 일대에 진출하여 괴뢰군부대와 미제침략군초소를 습격.

27일 무장유격대가 경기도 파주군에 진출하여 괴뢰군경과 총격전.

28일 무장유격대가 경기도 고양군과 파주군에 진출하여 이른바 《수색작전》에 미쳐날뛰는 미제침략군과 괴뢰군경놈들을 기습공격.

2월

9일 무장유격대가 경기도 양주군 료고산일대에 또다시 나타나 저들을 유인공격. ▲ 충청남도 아산군에 사는 두 애국청년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이 온양에서 벌린 추악한 《반공》모임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빠스안에서 함께 타고있던 손님들에게 《나는 김일성장군을 지지한다》고 경모의 정을 표시.

15일 부산시내 피복보세가공로동자 3천여명이 임금을 올릴것, 단체계약을 맺을것 등 3가지 요구조건을 걸고 파업.

22일 전라북도 김제군 김제읍 룡동리 농민들이 괴뢰도당의 《경지정리사업》을 반대하여 그들의 밀보리밭을 마구 파헤치고있는 《공사》현장에서 버티기투쟁.

24일 경상북도 대구시장 상인들이 시장 및 부지사용료를 200%나 올려받는데 항거하여 괴뢰대구시청에 몰려가 버티기투쟁.

28일 강원도 령월탄광 로동자들과 가족들 2천여명이 광업주가 탄광을 폐쇄하고 로동자들을 모두 해고시킨데 항거하여 버티기시위투쟁.

3월

5일 강원도 령월군 만경광산 로동자들이 밀린임금 800여만원을 당장 내라고 요구하여 파업.

6일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홍태 청년이 충청북도 영동의 큰 길가에서 오가는 군중들을 모아놓고 공화국북반부를 찬양.

6일 전라북도 정읍군내 5천여명의 잎담배경작농민들이 잎담배《수매가격》을 30% 올리라고 요구하여 투쟁.

10일 남조선강원도 《명덕광업소》의 한 청년광부가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끓어오르는 경모의 정을 안고 황지삼리 거리의 군중들앞에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수없이 웨쳐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킴.

17일 부산시 부산제3비료공장 로동자 3천명이 임금의 77%, 상여금의 100%인상, 퇴직금의 루진제실시 등 요구조건을 들이대고 파업.

20일 서울시 《동양기계공업주식회사》 로동자들이 임금을 50% 올릴것, 상여금을 200% 낼것, 야간근무수당금을 낼것 등 요구조건을 들고 태업, 계속하여 단식버티기투쟁을 전개. ▲ 서울시 중구 동자동 주민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참다못해 괴뢰서울시청에 몰려가 생활대책을 보장하라고 시위투쟁.

22일 충청북도 충주시내 잎담배생산자 3천여명이 잎담배 《수납가격》을 60% 올리라고 요구하여 투쟁.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영오동 강제철거주민 1천여명이 괴뢰영등포구청에 몰려가 옮겨앉을 곳을 바꾸어달라고 요구하여 버티기투쟁.

28일 남조선무장유격대가 경기도 인천시에 나타나 원쑤들을 공격.

30일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주민들이 강제철거를 반대하여 괴뢰동사무실을 점거하고 버티기투쟁, 탄압에 날뛰는 괴뢰경찰 세놈을 잡아가두고 뭇매를 안김.

4월

1일 전라남도 려수시 려향녀자고등학교 학생 1천 500여명이 학생들로부터 매월 실험실습비와 자치회비를 거두어가고는 학교시설에 전혀 돌려쓰지 않는 학교모리배들을 반대하여 시위투쟁. ▲ 전라북도 옥구군내 농민들이 이미 지불한 비료대금을 2중으로 받아내는데 격분하여 괴뢰《군농협》 사무실에 몰려가 집단항의투쟁을 벌림.

2일 경상북도 대구시 성광중고등학교 학생 4천여명이 학원의 부정부패의 일소를 요구하여 동맹휴학 ▲ 경상북도 상주군 화서면 하송리내 화전민들이 개간한 100여정보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괴뢰도당의 부당한 처사를 반대하여 집단항의.

11일 경상북도 대구시 《조선기업사》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이 임금을 50% 올릴것, 단체협약을 맺을것, 《로조》활동의 자유 등을 요구하여 파업. ▲ 경상남도 마산시 마산상업고등학교 학생 1천 500여명이 학원을 민주화하고 학교주변을 돌고있는 깡패를 일소하라고 웨치면서 시위.

16일 경상북도 대구시 협성상업고등학교 학생들 1천 300여명이 교육시설을 갖추고 교원들의 대우를 개선하라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버티기투쟁.

23일 남조선의 전매부문 로동자 1만 3천여명이 근무수당인상, 퇴직금과 상여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파업.

24일 경기도 인천시 원창동, 석남동내 농민들이 29만평의 토지를 빼앗고도 아무런 보상도 주지않는데 격분하여 괴뢰인천시청에 몰려가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웨치면서 버티기투쟁.

30일 남조선의 애국적주민들이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는 《국제전신전화국》에 수류탄벼락을 안김.

5월

1일 부산시 《조선방직회사》 로동자 2천여명이 《퇴직금을 지불하라》는 등 요구조건을 들고 괴뢰기동경찰의 탄압을 박차면서 버티기투쟁.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으려는 괴뢰도당의 책동을 반대하여 시위. ▲전라북도 김제군내 농민들이 소위 《토지소유권령수증》이 없다는 구실밑에 땅을 빼앗으려는 괴뢰도당의 책동에 항거하여 버티기투쟁.

3일 남조선애국적주민이 경기도 인천시 일신동에 있는 괴뢰군장교의 집안에서 권총을 탈취.

7일 경상남도 마산시 완월동 사방공사장에서 일하고있는 로동자들이 괴뢰 마산시청에 몰려가 밀린 임금을 당장 내라고 요구하여 버티기투쟁. ▲전라남도 《전남제사공장》 로동자들이 동료들에 대한 기업주놈의 부당한 집단해고를 반대하여 버티기투쟁.

8일 《경남기업》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임금을 90% 올릴것을 요구하여 파업. ▲ 제주도 제주시 삼도 2동에 사는 애국적주민 현정국이 군중들이 모인 음식점에서 공화국북반부를 찬양하는 연설을 함.

9일 경기도 파주군에 있는 미제침략군 제2보병사단에 고용된 조선인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릴것과 신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여 버티기투쟁. ▲ 충청남도 서산군 서산농림고등학교 학생들이 삽과 괭이를 메고 《깡패를 일소하라》는 구호를 웨치며 괴뢰경찰을 반대하여 시위투쟁. ▲ 남조선애국적주민들이 남조선강원도 원주에 있는 괴뢰군용전화선과 전주들을 몽땅 잘라

버림.

10일 경상북도 김천에 사는 김숙희녀성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마음껏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는 절절한 념원을 담은 편지와 함께 《남북통일》이라고 정성껏 수놓은 손수건 등을 경애하는 수령께 선물로 드리기 위해 소포로 부침.

11일 서울시 종로구 례지동 청계천주변 로점상인대표들이 시장을 철거하려는 괴뢰도당의 책동을 반대하여 괴뢰서울시청에 몰려가 버티기투쟁.

12일 남조선의 애국적주민들이 제주도의 괴뢰법무청장이란놈의 집 방안 철궤안에 넣어두었던 권총을 대낮에 탈취.

14일 서대문구 천연동일대 주민들이 강제철거를 반대하여 서울시청에 몰려가 버티기투쟁.

16일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일대주민 2천 500여명이 들고일어나 강제철거에 동원된 괴뢰경찰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겨 놈들을 까눕힘.

17일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 2천여명이 시장의 점포들을 모두 강제철거시키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에 격분하여 이를 반대하는 성토대회를 열고 시위, 괴뢰서울시청앞에 이르러 버티기투쟁.

20일 부산시 동구 범일동 판자촌주민들이 집을 헐려고 달려드는 괴뢰경찰놈들과 맞서 싸우면서 시위투쟁.

26일 충청남도 천원군 풍세면 남관리내 농민들이 유일한 농업용수인 풍세천의 물을 가로채려는 괴뢰도당을 반대하여 버티기투쟁을 벌림. ▲ 경상남도 밀양군 단장면에 있는 홍제중학교 학생들이 《자치회비》, 《과외수업비》등 각종 명목으로 걷어들인 막대한 돈을 가로채여먹은 학교모리배들을 반대하여 동맹휴학.

27일 부산시 《연료공업사》 로동자들이 악질기업주놈을 상대로 임금을 올릴것, 단체협약을 맺을것을 요구하여 파업, 로동자들은 20여명으로된 《행동대》를 뭇고 탄압에 날뛰는 괴뢰경찰과 맞서 투쟁.

31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미제침략군 기관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부당한 로동을 강요하는 미제침략군놈들을 반대하여 버티기투쟁. ▲ 경상북도 대구시 령남대학교부속 공업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이 각종 찬부금을 울려받기로 한 학교모리배를 반대하여 동맹휴학.

6월

4일 경기도 오산지구에 있는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2천여명의 로동자들이 집단해고된 로동자들을 복직시킬것, 로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미제침략군놈들을 당장 내쫓을것 등 요구조건을 들고 집단버티기투쟁.

14일 전라남도 라주군 《호남비료회사》 로동자 1천여명이 임금을 40% 올릴것 등을 요구하여 버티기투쟁.

19일 남조선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초당리농민들이 토지 3만여평을 빼앗고도 보상금을 내지않는 괴뢰 《토지개량조합》을 반대하며 토지대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공사현장에서 버티기투쟁.

21일 경상남도 진주시 선창일대 행상인들과 로점상인들이 소방차까지 동원하여 강제철거책동에 날뛰는 괴뢰악당들을 맞받아 26일까지 격투.

23일 무장유격대가 경기도 포천군 봉사봉지역에 나타나 적들을 유인공격.

24일 무장유격대가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미제침략군 통신대대의 한 초소를 습격.

25일 충청남도 《대진방직공장》 2천 600명의 로동자들이 밀린 임금 1천 390만원을 당장 내라고 요구하여 파업. ▲ 충청남도 서산군 근흥면 가의도리 어민들이 유일한 생존수단인 미역채취장을 빼앗는 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항거.

7월

1일 경기도 인천시 부두로동자들이 임금을 30% 올릴것, 유급휴가제를 실시할것 등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 ▲ 제주도 제주시 제주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들의 질적개선, 학생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참가 등을 요구하여 동맹휴학.

5일 경상북도 경주시 염매시장 령세상인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 《중앙도매시장법》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여 괴뢰시청에 몰려가 시위.

8일 전라북도 전주시 《한흥물산주식회사》로동자들이 집단해고를 반대하며 해고한 로동자를 복직시킬것, 임금을 60% 올릴것 등을 요구하여 단식버티기투쟁.

10일 괴뢰도당이 공사를 벌려놓은 탓으로 가뭄에 물을 댈수 없어 농사를 망치게된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강진면농민 1천 200여명이 괭이와 삽을 들고 괴뢰군청에 몰려가 양수기를 설치할것을 요구하여 시위 투쟁.

11일 물을 주지 않아 모를 내지못한 전라남도 령광군 백수면 한성리 200여명의 농민들이 양수장에 몰려가 괴뢰《토지개량조합》 《직원》여러놈을 몽둥이로 때려눕힘.

12일 경상남도 진양군 대평면일대의 2만여명의 농민들이 빼앗는 땅값을 현금으로 내라고 완강히 투쟁.

18일 전라남도 라주군 영산포읍 진포리 농민들이 양수기를 팔아먹은 괴뢰영산 《토지개량조합장》 이란놈을 반대하여 시위투쟁.

19일 경상남도 울산시, 양정, 명촌, 진장동 일대의 농민들이 동천강을 막는 괴뢰앞잡이놈의 공사현장에 몰려가 물에 잠긴 논의 피해보상과 배수로공사를 요구하여 버티기 투쟁.

22일 서울시 《한국비닐론회사》로동자들이 《회사》측에 밀린 임금을 당장 내라고 요구하여 파업. ▲ 전라남도 광주시 충효동의 농민들이 《물이 없어 타 죽겠다》는 프랑카드를 들고 괴뢰광주시청에 몰려가 시위투쟁.

24일 경기도 평택군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로동자 2천여명이 조선인로동자들을 모욕하여 《오산기지에 범죄소굴이 있다》고 한 미제의 어용신문 《워싱톤포스트》의 허위보도에 격분하여 이를 반대배격하는 성토대회를 가진후 미제는 허위보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반미시위투쟁. ▲서울시 성동구 유락동주민들이 수도관을 떼내여 다른곳으로 돌리려는 괴뢰구청놈들의 비행에 격분하여 공사현장에서 롱성투쟁, 탄압에 날뛰는 괴뢰경찰 세놈을 까눕힘.

28일 부산시 양정동에 있는 《비닐론섬유회사》로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낼것, 임금을 80% 올릴것을 요구하여 시위투쟁.

29일 남조선의 무장유격대가 전라남도 목포시 충무동의 하사도에 진출하여 농민들에게 정치선전사업을 진행하고 반미구국투쟁에 궐기할것을 호소.

30일 무장유격대가 전라남도 령암군 갈마산에 진출하여 괴뢰군경놈들과 치렬한 전투를 벌려 놈들을 소멸. 농민들에게 정치선전사업을 진행, 다른 한 무장유격대는 령광군 불갑면 불갑산에 진출하여 주민들에게 선전사업을 진행, 묘항면과 삼학리에 진출한 다른 무장유격대는 인민들의 지원밑에 적들을 소탕.

31일 무장유격대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에 진출하여 미제침략군과 괴뢰경찰을 소탕, 동두천일대에 진출한 다른 무장유격대는 《잠복근무》중인 괴뢰군경놈을 처단.

8월

1일 무장유격대가 경기도 동두천부근에 진출하여 적들과 치렬한 총격전을 진행.

4일 경기도 인천시 주민들이 주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놈의 만행에 격분하여 미제침략군부대 앞에 몰려가 돌벼락을 퍼부으면서 버티기투쟁.

6일 부산조선공사로동자 2천 700명이 밀린 임금지불, 임금 35%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9일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상패리 주민들이 부락민 8명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미제살인귀들의 만행에 격분하여 미제침략군부대에 몰려가 항의버티기투쟁.

10일 경상북도 경주시 칠암동 《제2견직회사》로동자들이 밀린 임금지불을 요구하여 버티기투쟁.

11일 남조선 애국적인민들이 경기도 시흥군 의왕면에서 괴뢰경찰의 《경비전화선》을 잘라치워 적들을 혼란에 몰아넣음.

13일 녕월, 함백, 장성, 라전 등지의 탄광로동자 1만 3천명이 임금을 30% 올릴것을 요구하여 파업.

20일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향동리 농민들이 주민에게 해를 입히고있는 사격훈련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괴뢰군에 강력히 요구하여 투쟁.

23일 경상남도 진해시 장원동 농민들이 비료공장에서 날아오는 유독성가스로 말미암은 농작물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버티기투쟁, 농민들은 공장앞 길한복판에 《바리케트》를 쌓고 탄압해나선 괴뢰경찰을 물리치면서 《공장장》이란놈을 비롯하여 악질관료배들을 끌어내다 뭇매를 안김. ▲ 서울시 성동구 구천동 철거민촌의 주민들이 괴뢰구청에 몰려가 땅과 보상금을 당장 내라고 웨치면서 버티기투쟁.

24일 경상북도 대구시 칠산동 삼흥모직로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당장 내라고 요구하여 버티기투쟁.

9월

2일 전라남도 광양군 골약면내 농민들이 파괴된 저수지수로를 고쳐내라고 웨치면서 괴뢰략탈도구인 《토지개량조합》을 반대하여 시위투쟁. ▲ 서울에 있는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당장 내라는 요구조건을 들고 파업.

3일 남조선 애국자들이 경상북도 고모와 경산역 사이에서 달리는 원쑤놈들의 군용렬차에 총탄을 퍼부음. ▲ 괴뢰도당이 벌린 《경지정리》에 강제동원되였던 경상북도 금릉군 개령면, 남면 등지의 농민들이 밀린 품삯을 당장 내놓으라고 버티기투쟁.

5일 서울 《상진건설》 로동자들이 사무실에 몰려가 《밀린임금 400만원을 내놓으라》고 버티기투쟁.

6일 경상북도 대구시 《동진공업주식회사》 로동자들이 임금을 50% 올릴것, 후생시설을 완비할것을 요구하여 버티기투쟁. ▲괴뢰경찰놈들이 임신부를 마구때려 실신케 한데 격분한 서울시 영등포구 봉천동주민 3천여명이 괴뢰봉천동파출소에 몰려가 유리창과 기물을 파괴, 탄압에 날뛰는 괴뢰경찰 200여명과 맞서 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겨 20여명을 까눕히고 경찰백차 1대, 자동차 1대를 파괴.

7일 경상북도 대구시 《대연모직주식회사》로동자들이 5개월간 밀린 로임을 당장 내놓으라고 버티기투쟁.

9일 부산지구해상로동자 1천 300여명이 괴뢰부산시청에 몰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131명 로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여 버티기투쟁. ▲경상남도 삼천포시 룡강동, 봉남동 등지 농민들이 가물때는 물한방울 대주지 않고 수세만을 강요하는 괴뢰 삼천포 《토지개량조합》의 파렴치한 행위에 격분하여 《수세는 고사하고 망친 농사의 보상을 내라》고 웨치면서 시위투쟁.

10일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도농리 농민들이 《흥한화학공장》에 몰려가 농작물과 주민건강에 해가 막대한 가스를 내보내는 공장을 반대하여 시위투쟁. ▲ 전라북도 정읍군과 임실군의 섬진강 수몰지구피해민들이 이주대책도 세워주지 않는 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전주역 광장앞에서 시위투쟁 전개.

11일 강원도 녕월군 북면 마차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과중한 수업료를 낮추라고 요구하여 동맹휴학.

13일 《서울 삼흥려객회사》 운전사와 차장들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지불을 요구하여 버티기투쟁.

18일 서울 성북고등학교 학생들이 악질교장놈의 사퇴와 교육시설의 완비 등 12개항목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동맹휴학.

23일 경상북도 서산군 서산중고등학교 학생 1천 500여명이 잡부금을 내지 않는다고 학생들을 때려 이빨을 부러뜨린 교감놈을 반대하여 수업을 거부.

10월

1일 경기도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31명의 동료들을 집단 해고한데 격분하여 해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버티기투쟁.

2일 서울실업고등학교와 동흥중학교 학생들이 박정희역도의 졸개들인 학교리사장놈과 학교장놈을 당장 학교에서 물러가라고 요구하여 동맹휴학.

3일 서울 동대문건축로동자들이 괴뢰서울시청에 몰려가 밀린임금을 당장 내라고 요구하여 버티기투쟁.

5일 부산시 건설로동자들이 《삼성주식회사》에 몰려가 기업주놈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여 시위투쟁.

9일 서울시 《토목공사장》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로동자들을 집단 해고하려는 괴뢰서울시청에 항거하여 파업.

12일 부산시 광복동, 창성동일대 상인들이 괴뢰부산시청의 점포 강제철거를 반대하여 시위투쟁.

14일 남조선의 애국적주민들이 충청북도 제천에서 서울로 달리는 미제의 군용렬차를 전복시킴.

17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생활조건개선, 로임을 잘라먹은 미국놈감독을 갈아치울것을 요구하여 파업.

18일 경기도 오산에 있는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로동자 1천 500명이 수원미제침략군기관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부당해고철회, 로임착취반대, 인권유린반대 등의 요구조건을 들고 동정파업.

22일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이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미곡리에서 괴뢰경찰의 경비전화선 400메터를 잘라버림. ▲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석공로동자들이 품삯을 120%로 올리라고 요구하여 파업.

23일 경기도 부평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로동자 4천여명이 임금을 낮추려는 미제침략군놈의 책동을 반대하여 파업. ▲ 서울시 《평화시장》과 《광장시장》상인들이 세금을 낮출것을 요구하여 괴뢰시청에 몰려가 버티기투쟁.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림동 주민들이 강제철거를 반대하여 괴뢰구청 철거반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겨 세놈을 까눕힘.

31일 서울 《동대문전차사업소》 녀차장들이 집단해고반대, 해고수당을 낼것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버티기 시위투쟁.

11월

1일 남조선강원도 원주에서 애국청년들의 한 집단이 괴뢰경찰로부터 권총 3정과 탄알 21발을 빼앗아냄. ▲무장유격대가 충청남도 서산군 일대에 진출하여 《토벌대장》놈을 비롯한 수많은 적들을 소탕.

2일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산포

리에서 애국청년들의 한 집단이 괴뢰경찰놈의 카빙총 1정과 탄알 23발을 재운 탄창 1개를 빼앗아냄. ▲ 무장유격대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주인리 부락을 1주야동안 완전히 장악, 미제의 개노릇을 하던 악질주구놈들을 군중들앞에서 처단, 놈들에게서 몰수한 식량과 돈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줌.

3일 경상북도 울진구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 무장유격대가 군내 한 마을에 진출하여 정치선전사업을 진행. 무장유격대와 주민들은 혁명적인 당과 구국청년동맹, 혁명부녀회를 조직하고 책임자를 선출, 악질주구놈들을 군중들앞에서 처단하고 그놈에게서 빼앗은 물품과 돈을 헐벗고 굶주리는 농민들과 주민들에게 나누어줌. ▲ 남조선의 동부 및 중부지대에 나타난 무장유격대들은 원쑤놈들을 습격하고 박격포탄을 들씌움. ▲ 남조선애국자들이 군수물자를 싣고 충청북도 제천에서 서울로 가던 군용렬차를 전복시킴.

4일 경기도 김포지구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종업원들이 임금과 퇴직금지불 등을 요구하여 버티기투쟁.

6일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와 경상북도일대에 진출하여 적들을 유인공격.

7일 남조선강원도 삼척군 원덕면의 한 마을에 나타난 무장유격대가 괴뢰군경놈들을 기습하여 무리죽음을 안김. ▲ 경상북도 봉화군에 나타난 한 무장유격대는 주민들과 감격적인 모임을 갖고 봉화군인민위원회를 조직.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

8일 경상북도 울진지구에 진출한 무장유격대들이 괴뢰군경놈들과 치렬한 총격전을 전개.

9일 경상북도 대구시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조선로동자를 때려 중상을 입힌 미제침략군의 만행에 격분하여 인권유린행위를 그만두며《조선인로동자의 신분을 보장할것》을 요구하여 파업.

10일 경상북도 울진군의 한마을에 나타난 무장유격대가 혁명적출판물과 악질주구놈들에게서 빼앗은 돈과 식량등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줌.

▲ 경기도 의정부시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조선인로동자들에 대한 모욕과 인권유린행위를 반대배격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조선인녀성로동자들에게 가한 미제침략군의 만행을 규탄.

11일 무장유격대가 경상북도 울진군의 화전부락에서 정치선전사업을 진행, 달려드는 적에 타격을 줌.

12일 무장유격대가 경상북도 울진군에 진출하여 적들과 치렬한 총격전.

13일 신탄진《연초제조창》 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파업.

15일 무장유격대가 경상북도 울진군과 남조선 강원도 명주군 왕산면 목계리에 진출하여 적들과 총격전을 벌려 섬멸적타격을 줌. ▲괴뢰도당의 강제철거 책동으로 한지에서 떨고있는 서울시 중구 도동주민들이 괴뢰시청에 몰려가 버티기투쟁.

16일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 삼척지구에 진출하여 괴뢰군경놈들과 총격전, 적의 소굴을 기습하여 불벼락을 안김.

17일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 삼척지구에 진출하여 괴뢰군경놈들에게 불의타격을 가함. ▲ 남조선강원도 명주군에 진출한 무장유격대원들은 원쑤들에게서 빼앗은 식량과 피복을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정치선전사업을 진행.

18일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 정선부근에 진출하여 적들의 초소를 습격. ▲ 남조선강원도 삼척군의 한 마을에 진출한 무장유격대는 군경놈들을 유인하여 무리죽음을 안김. ▲ 서울시 영등포구 본동주민들이 강제철거를 반대하여 시위투쟁.

19일 남조선강원도 평창군의 한 마을을 완전히 장악한 무장유격대는 수명의 악질주구놈을 처단하고 몰수한 재산을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나누어줌. ▲ 남조선강원도 삼척군의 한 부락에 진출한 무장유격대는 괴뢰군경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고 이보다 앞서 정선군 림계면의 한 부락을 기습한 무장유격대는 괴뢰군경놈들과 치렬한 총격전 진행. ▲남조선강원도 명주군의 한 부락을 완전히 장악한 무장유격대는 정치선전사업을 진행한 다음 사라짐.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조일견직회사》로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내라는 요구조건을 걸고 시위투쟁.

20일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 명주군 왕산면에 진출하여 괴뢰군경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김.

21일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 녕월군, 정선군 림계면, 삼척군 등지에 나타나 적들의 초소를 습격하고 괴뢰군경들에게 징벌의 총탄을 안김. ▲ 서울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학생회관 등 학교건물을 강제철거시키려는 괴뢰시청놈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성토대회를 열고 투쟁.

22일 경상남도 동래군 서생면 신암리 앞바다 미역밭을 관리하는 어민들이 업자에게 미역밭을 넘겨준 괴뢰수산청에 항거하여 이를 즉시 취소하라고 버티기투쟁. ▲무장유격대가 적들이 집결하고있는 삼척지구의 한 지점을 기습소탕.

23일 괴뢰도당이 군용도로확장을 위해 령세상인들의 점포를 강제로 철거시키려는데 격분한 대구시내 서문시장 상인들이 강제철거를 당장 취소하라고 시위투쟁.

24일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 명주군의 한 부락에 나타나 괴뢰군경놈들을 섬멸.

25일 남조선강원도 녕월군 상동면 록전리와 정선지구에 진출한 무장유격대가 여러놈의 악질주구들을 처단, 다른 한 유격대는 삼척군에 진출하여 적에게 무리죽음을 안김 ▲서울시 영등포구 봉천동 주민들이 자기들의 판자집을 불도젤로 마구 밀어버린데 격분하여 현장에서 괴뢰경찰놈들과 격투.

26일 무장유격대가 경상북도 울진과 남조선강원도 삼척, 명주지구에 나타나 적들의 초소를 습격, 정선지구에 진출한 유격대는 괴뢰군경 한개 소대의 대부분을 소멸.

27일 경기도 련천군 전곡면 신답리에서 남조선 애국청년들이 적의 포차에 있는 포확대조준기와 3정의 무기를 탈취. ▲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4만명의 로동자들이 임금인상의 요구관철을 위하여 17개지역에서 《임금인상투쟁위원회》를 뭇고 전지역에 걸쳐 총파업을 결의 ▲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 울진지구에 나타나 적을 족침, 다른 한 유격대는 마을사람들에게 정치선전사업을 진행, 달려드는 적을 산골짜기에 유인하여 소탕, ▲ 남조선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에 진출한 무장유격대가 악질주구놈을 처단한 다음 괴뢰군경놈들을 산골짜기로 유인하여 총격전진행.

28일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 삼척군의 한 부락에 진출하여 괴뢰군경놈을 소탕.

29일 경기도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로동자 4천명이 《임금인상투쟁위원회》를 뭇고 임금 37% 인상, 유급휴가제의 실시 등 4개 요구조건이 관철될때까지 파업할것을 결의 ▲ 남조선강원도 정선지구에서 활동하는 무장유격대가 괴뢰군경놈에게 집중사격을 가함, 다른 한 무장유격대는 산간마을인민들에게 정치선전사업을 진행.

30일 남조선강원도 평창지구에서 활동하는 무장유격대가 적들과 5시간에 걸친 총격전을 전개하여 적을 소탕.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 정선과 삼척지역의 여러곳에 나타나 부락민들에게 정치선전공작을 진행 ▲ 남조선강원도 원주지구에서 활동하고있

는 애국자들의 한 집단이 군수물자를 싣고 경상북도 영주로 가는 적군용렬차를 전복시킴. ▲ 경상북도 안동에 무장유격대가 나타나 인민들을 반미구국투쟁에로 호소하는 정치선전공작을 진행.

12월

1일 남조선강원도 명주지구에서 활동하는 무장유격대가 괴뢰군의 한 초소를 습격하여 적을 소멸. ▲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경기도내 2만명 로동자들이 임금을 37% 올릴것을 요구하여 시위투쟁. ▲ 전차철거로 해고당한 서울시 전차사업소의 운전사와 차장들이 직장알선과 퇴직금지불을 요구하여 버티기투쟁.

2일 부산지구에 있는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되여있는 로동자 2천 500명이 임금 37% 인상, 상여금 50% 지불, 유급휴가제의 실시 등 요구조건을 들고 파업. ▲ 부산시 섬유로동자 2천 400명이 로동자 1천 200명을 해고하려는 기업주놈의 책동을 반대하여 태업.

3일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 삼척지구에 진출하여 적들을 기습 섬멸 ▲ 남조선강원도 평창군에 나타난 무장유격대가 주민들에게 정치선전사업을 진행. ▲ 경상북도 봉화와 안동에 나타난 무장유격대가 주민들에게 정치선전사업을 하고 원쑤놈들에게서 빼앗은 돈을 나누어줌. ▲ 남조선강원도 춘천시 명신고등공민학교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의 자유를 요구하여 무기한 동맹휴학.

4일 서울 남대문개방시장 상인들이 점포강제철거에 격분하여 동원된 괴뢰서울시청놈들과 맞서 완강히 투쟁.

6일 남조선의 한 무장유격대가 삼척지구에서 괴뢰군경놈들의 초소를 습격.

8일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 삼척지구에서 괴뢰군경놈들과 총격전 진행.

9일 남조선강원도 평창지구에 진출한 무장유격대가 괴뢰악질주구 수명을 처단.

10일 남조선강원도 명주지구에서 활동하고있는 무장유격대가 괴뢰군경놈들의 한 초소를 기습소탕. ▲ 경상북도 울진군에 진출한 무장유격대가 적을 산골짜기로 유인공격, 악질주구놈들을 처단.

12일 남조선강원도 삼척지구에서 활동하고있는 무장유격대가 괴뢰군경놈들과 치렬한 총격전을 벌려 놈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줌, 장성군 황지리에 나타난 한 무장유격대는 소위 《경비근무》에 나선 적들을 타격.

13일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 삼척일대의 산간마을에서 괴뢰군경놈들의 한 집단을 기습. ▲ 남조선강원도 명주지구에서 활동하고있는 무장유격대는 한 마을에서 대중정치선전공작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괴뢰경찰, 특무집단과 총격전을 전개. ▲ 경상북도 영천지구의 애국적청년들의 한 집단이 달리는 렬차에 돌벼락을 안겨 괴뢰철도청장놈을 비롯한 두놈의 괴뢰를 까눕힘. ▲ 부산시 《비닐론주식회사》 로동자들이 근로수당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파업.

14일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 삼척일대의 3개소에 나타나 군내 북쪽지역의 괴뢰군경초소와 한 산간마을의 괴뢰군경초소를 각각 기습, 다른 한 무장유격대는 괴뢰군경을 산골짜기로 유인하여 섬멸. ▲남조선강원도 평창지구에서 활동하는 무장유격대는 미탄면의 한 부락에 나타나 악질주구 다섯놈을 처단.

15일 남조선강원도 삼척지구에서 활동하는 무장유격대가 이 지역 북방에서 괴뢰군경놈들을 기습소탕.

16일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 삼척지구에서 인민들과 련계밑에 산간마을의 괴뢰군경초소를 기습소탕. ▲ 경상북도 울진지구에서 활동하던 한무장유격대는 마을에서 정치선전공작 진행.

17일 남조선강원도 삼척지구에서 활동하는 무장유격대가 다시 세곳 적군경초소를 또다시 기습하여 소탕. ▲ 부산시에 있는 조선공사로동자 2천 400명이 해고자를 복직시킬것, 상여금과 퇴직금을 낼것 등 14개항목의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그 관철을 위해 총파업, 단식 및 시위투쟁 전개. ▲ 경상북도 대구시내에 공화국북반부를 찬양하는 삐라들이 뿌려짐.

18일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임금 37% 인상, 상여금 년간 300% 지불, 유급휴가제 실시 등 요구조건을 들고 《궐기대회》, 시위투쟁을 전개.

19일 남조선애국적주민의 한 집단이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구지리에 늘여놓은 미제침략군의 군용통신선을 잘라치움.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 양양지구에 나타나 괴뢰군경놈들과 치렬한 총격전, 괴뢰군경초소를 기습소멸, 명주지구에서는 괴뢰군련대의 찦차를 습격, 타고있던 놈들을 몽땅 처단.

20일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 명주지구 왕산면의 한 마을에 나타나 인민탄압에 미쳐날뛰던 괴뢰군경놈들을 처단하고 주민들과 감격적인 상봉.

21일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 삼척, 양양, 명주지구에서 활동, 괴뢰군경초소를 습격소탕.

22일 무장유격대가 남조선강원도 삼척지구의 북쪽에 둥지를 틀고있는 괴뢰군초소를 습격.

23일 경상남도 마산시 《대양모직주식회사》 로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내놓으라고 총파업. ▲ 서울대학 부속병원 간호원들이 인권보장을 요구하여 파업.

27일 부산시 《신흥수산》소속 선원들이 밀린 6개월간의 로임을 내놓으라고 기업소에 몰려가 버티기투쟁.

28일 남조선강원도 명주지구에서 무장유격대가 이동하는 괴뢰군경을 매복습격.

30일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이 경기도 문산지구 북쪽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부대의 한 야전식당에 수류탄을 안겨 미제침략군 일곱놈을 죽임.

재일조선공민주요일지

1968년
1월

1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196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한덕수동지가 축전을 드리였다. ▲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1968년 새해를 축하하여 총련의 각 단일단체와 사업체들에서 축전을 드리였다.

3일 총련 한덕수의장이 버마독립 20주년에 즈음하여 버마련방혁명리사회 네 윈의장에게 축전.

5일 총련중앙귀국대책위원회 리계백위원장이 콜롬보회담을 파탄시키려는 일본사또도당의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담화 발표.

8일 도꾜도내 100여명의 재일동포들이 일본 적십자사를 찾아가 일본당국의 악랄한 귀국사업파괴책동을 강력히 규탄.

9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간또지방열성자대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신년축전에서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총련의 금년도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업을 토의,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총련의 1968년도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총련열성자대회 일본각지에서 진행.

13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콜롬보회담을 파탄시키려는 일본사또도당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4일 기다오사까조선초중급학교 새교사 준공식 진행. 준공식참가자들이 김일성원수께 편지를 드리였다.

17일 콜롬보조일적십자회담을 파탄시키려는 일본당국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대회에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총련의 모든 강연구들에서 수령의 위대한 10대정강과 신년축전의 교시에 대한 대중강의회 진행.

18일 기다규슈조선초중급학교 준공식진행. 준공식참가자들이 김일성원수께 편지를 드리였다.

25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일본반동들이 콜롬보조일적십자회담을 파탄시킨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26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미제침략자들이 공화국북반부령해에 무장간첩선을 침입시켜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케 한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31일 조선에서의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월

5일 총련중앙에서 미제의 새전쟁도발책동을 다같이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민단》중앙에 제의

6일 김일성원수께서 스물일곱번째로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대해 그이께 감사와 영예를 드리여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편지를 드리였다.

7일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시고 최고사령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축하문을 드리였다.

8일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경축 재일본 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일본각지에서도 대회들이 열렸으며 축하예술공연, 체육경기를 진행, 대회들에서는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한덕수의장이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이 사이공을 비롯한 적강점지역 각도시들과 군사기지들을 공격하여 빛나는 승리를 거둔것과 관련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원우수위원장에게 축전.

10일 김일성원수께서 스물일곱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재일조선인 교육자, 과학자, 류학생들의 집회 도꾜에서 진행,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5일 김일성원수께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총련 각 단일단체와 사업체들에서 축전을 드리였다.

17일 총련중앙에서 조국통일촉진을 위하여 3.1독립운동 49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할것을 《민단》측에 제의.

18일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경축 재일본 조선청년학생웅변대회 도꾜에서 진행.

21일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과 귀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일본 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4일 재일본 조선인학교 모범교원집단운동 제3차열성자대회 진행,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8일 재일본 조선류학생동맹대표와 국제학생동맹대표간에 회담을 가지고 공동성명을 발표, 국제학생동맹이 조국통일촉진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를 위한 재일공민들의 투쟁을 지지.

3월

1일 3.1인민봉기 49주년기념,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새전쟁 도발책동과 파쑈폭압을 규탄하며 미제침략군의 즉시철거를 요구하는 재일본 조선인중앙대회 진행, 대회는 김일성원수께 편지를 드리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일본정부가 《외국인학교법안》의 국회상정을 결정한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4일 총련 한덕수의장이 일본의 민주주의적인 각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 인사들에게 민족교육과 귀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일 조선공민의 투쟁에 계속 지원을 보내줄것을 요망하는 요망서를 발송.

13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일본당국이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것을 요구하여 성명.

14일 민족교육과 귀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일본 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대회는 김일성원수께 편지를 드리였다.

22일 총련중앙귀국대책위원회 리계백위원장이 귀국사업을 파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책동에 항의하고 조일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요구.

25일 총련 한덕수의장이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남부웰남해방녀성동맹 부위원장인 레 티 리엥녀사를 비롯한 남부웰남애국자들의 희생에 즈음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에 조전.

27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촉진하며 기업권을 옹호하기 위한 간또지방조선상공인들의 모임 진행,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재일동포들이 일본반동정부의 《외국인학교법안》의 립법화책동을 폭로규탄하는 가두선전을 일본각지에서 일제히 폄.

4월

4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탄생 56주년을 축하하는 연설회 각 현, 부들에서 진행.

12일 재일총련 도꾜도본부관하 동포들 조선대학교의 즉시 인가를 요구하며 《외국인학교법안》의 철회를 요구하여 40여 주요 역두에서 가두선전.

14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탄생 56주년을 축하하는 재일본 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성대히 진행, 대회에서는 수령님께 드리는 축하문을 채택.

16일 총련도꾜도본부 집행위원회 제8기 제6차회의 확대회의 진행, 총련의 금년도 2.4분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업을 토의,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7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인 조선대학교 한덕수학장이 조선대학교의 인가를 쟁취한것과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

19일 4.19남조선인민봉기 8주년을 기념하며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새전쟁도발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도에서 진행.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4일 4. 24교육투쟁 20주년을 맞이하여 도꾜에서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와 시위행진을 폄. 기타 일본각지에서도 군중대회

와 시위행진이 있었다.

5월

1일 5.1절을 기념하며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3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회의, 총련사업발전의 요구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미제의 조선에서의 새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토의결정,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고 4일 폐막.

10일 민주주의적민족교육과 귀국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고 6천여명의 재일동포들이 시위.

11일 총련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총련산하단체들의 중앙위원회를 일제히 진행. 공화국창건 20주년을 맞이하여 제반사업에서 일대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100일혁신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할것을 결의.

15일 조선대학교에서 명예학장추대 및 학장취임식이 있었다. 모임참가자들이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3일 총련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강연회 각 분회들에서 광범히 진행.

6월

1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중앙실행위원회를 조직. ▲공화국창건 20주년을 경축하는 대음악무용서사시 《위대한 수령께 영광을 드립니다》공연이 개막되였다.

5일 김일성원수께서 스물여덟번째로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배려에 대하여 그이께 감사를 드리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편지를 드리였다.

8일 수령께서 스물여덟번째로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배려에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인교육일군들의 모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3일 총련 한덕수의장이 6.25 18주년행사를 공동으로 할것을 《민단》측에 제의.

15일 조선대학교 제2연구당의 준공식 성대히 진행. 준공식참가자들이 김일성원수께 삼가 편지를 드리였다.

18일 귀국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계속하여 일본각지에서 조선공민들의 군중대회가 있었다. 대회들에서 수령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19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재일조선공민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유린하며 그들에 대한 야수적인 살상과 폭행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는 사또반동도당의 범죄행위를 폭로규탄한 6월 18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 성명을 열렬히 지지하여 성명 발표.

25일 6.25 18주년, 미제의 조선에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대회에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30일 니이가다조선초중급학교 교사준공식 성대히 진행.

7월

1일 《100일간혁신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총련 도꾜도본부일군들의 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3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귀국사업을 파괴하려는 일본당국을 규탄하여 발표한 6월 30일부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12일 귀국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대회에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4일 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 산따마조선제2초중급학교 새 교사준공식 진행, 준공식에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7일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며 남조선인민들에게 김대수박사를 비롯한 애국자들의 석방투쟁을 호소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8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을 견결히 규탄하여 성명 발표.

20일 재일본조선인 교육자, 과학자, 문화인들의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을 폭로 규탄하는 대회가 도꾜에서 있었다. 대회에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7일 7.27조국해방전쟁승리 15주년,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철거를 요구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대회에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 재일조선인 제4차교육방법연구대회 조선대학교에서 개회, 31일 수령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고 폐회.

30일 남녀평등권법령발포 22주년기념,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철거를 요구하는 재일조선녀성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대회에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8.15해방 23주년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할데 대하여 《민단》측에 제의.

8월

1일 총련의 모든 분회와 모든 반에서 하기성인학교, 하기청년학교를 일제히 개강.

7일 귀국운동 1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당국의 귀국사업파괴책동을 규탄하며 귀국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1일 귀국운동 10주년기념 가나가와현조선인대회 요꼬하마에서 진행,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2일 《100일간혁신운동》 제3단계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총련 홋가이도일군들의 모임 진행.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3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귀국운동개시 10주년 및 귀국협정조인 9주년에 즈음하여 성명 발표.

15일 8.15해방 23주년을 축하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일본각지에서도 계속 군중집회가 있었다. 대회와 집회에서는 김일성원수께 편지를 드리였다.

22일 총련 각 현본부들에서 《100일간혁신운동》2단계사업을 총화하고 3단계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임들을 가짐.

24일 공화국창건 20주년 기념사진전람회가 도꾜에서 개막되였다.

28일 총련 한덕수의장이 귀국의 길을 가로막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책동과 관련하여 국제단체들과 전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서한 ▲ 김일성원수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교또부 조선상공인들의 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9월

1일 총련 한덕수의장이 윁남민주공화국창건 23주년에 즈음하여 윁남민주공화국 호지명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 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 히가

시오사까 조선제4초급학교 준공식이 있었다. 모임에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의 일본재입국허가를 거부한 일본반동당국의 부당한 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3일 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 히가시오사까조선중급학교 준공식 진행. 모임에서 김일성원수께 편지를 드렸다. ▲ 남조선애국자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며 그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대회 도꾜에서 진행,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4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윤상철외무부장이 총련의 현직간부를 일본경찰이 부당하게 체포구금한것과 관련하여 담화 발표.

9일 김일성원수께 공화국창건 20주년을 맞이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중앙상임위원회에서 축하문을 드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 재일본조선인중앙경축대회 도꾜에서 성대히 진행.

17일 재일조선축구단 200승 축하모임이 있었다.

21일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 재일조선인과학자들의 학술발표회 도꾜에서 개막. 22일 폐회.

30일 조선통신사창립 20주년기념모임이 도꾜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0월

2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당국의 남조선괴뢰《국적》강요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5일 공화국창건 20주년경축대회에서 하신 김일성원수의 보고를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효고현 조선인 연설회가 있었다. 계속하여 일본 각지에서 연설회가 열렸다. ▲ 총련 한덕수의장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창건 19주년에 즈음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에게 축전.

10일 조선로동당창건 23주년을 기념하는 총련일군들의 모임이 도꾜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모임에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1일 공화국창건 20주년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일본재입국을 방해하는 일본법무상을 상대로한 법정투쟁에서 승리.

12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공화국창건 20주년 재일조선인축하단의 조국방문과 일본재입국을 인정할것을 요구하여 성명 발표.

14일 김일성원수께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스물아홉번째로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감사를 드리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편지를 올리였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보고를 높이 받들고 총련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홋가이도조선인대회 성대히 진행, 대회는 김일성원수께 편지를 드리였다.

15일 김일성원수께서 스물아홉번째로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감사를 드리는 재일조선인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집회 도꾜에서 진행, 집회참가자들은 김일성원수께 편지를 드리였다.

22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분회열성자 제7차대회, 《100일간혁신운동》을 총화하고 공화국창건 20주년경축대회에서 하신 김일성원수의 보고를 높이 받들어 총련사업에서 보다큰 혁신을 일으키며 모범분회 창조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을 토의,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1월

1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회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보고를 높이 받들고 총련의 모든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을 토의,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6일 재일조선인 조국왕래요청대회 도꾜에서 진행,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총련 한덕수의장이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쉰한돐을 축하하여 쏘련 내각 수상에게 전문을 보내였다.

7일 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예술축전 개막, 12일 김일성원수께 편지를 드리고 폐막.

9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회의, 총련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결정을 조청단체에서 관철할데 대한 제반대책을 토의 결정. 10일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고 폐회.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칭호》를 수여받은 각급학교들에서 감사모임, 모임들에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2일 총련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총련의 각 현본부들에서 집행위원회 진행, 회의들에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력사적보고를 높이 받들고 총련의 모든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대중강연회 일본 각지에서 열리였다.

17일 총련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회의 진행. 회의참가자들이 김일성원수께 편지를 드리였다.

22일 총련 한덕수의장이 캄보쟈왕국독립 15주년을 축하하여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에게 축전.

12월

3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가혹하게 처형하려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파쑈악당들의 죄행을 민족적격분으로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5일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을 폭로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3일 귀국실현9주년기념귀국의권리옹호를 위한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4일 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 재일조선학생 학과별연구토론회 개막, 16일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고 폐막.

18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공화국창건 20주년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의 일본재입국을 불허가한 일본반동당국의 처사를 반대하는 법정투쟁에서 거듭 승리한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19일 총련 한덕수의장이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창건 여덟돐에 즈음하여 원우수위원장에게 축전.

23일 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 재일본조선미술전람회 개막(27일까지).

국제주요일지

1968년

1월

1일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와 세계평화리사회가 반제적이며 혁명적인 모든 력량이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것을 강조하여 공동공보를 발표. ▲ 기네에서 총선거 진행, 아흐메드 세쿠 투레가 대통령으로 재선됨.

2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이 미제공중비적들이 1월 1일에 웰남민주공화국의 주민지대들을 야수적으로 폭격한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아바나에서 꾸바혁명승리 9주년을 경축하는 군중시위와 집회 진행.

3일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이 미제침략군의 다낭공군기지를 포격하여 비행기 21대를 파괴.

4일 아바나에서 70개국의 진보적문화인들의 참가하에 세계문화대회 개막.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문건을 대회문건으로 채택하였으며 총선언과 함께 아바나호소문을 채택하고 12일 폐막.

5일 남부웰남해방통신이 7년간에 적 150만명(그중 미제침략군과 추종군 30여만명)을 쓸어버렸으며 적비행기 8천 590대를 쏴떨구거나 파괴하였으며 적군용차 1만 5천 835대를 까부시고 적함선 463척을 물속에 처박은데 대한 공보를 발표(조선중앙통신)

12일 꽁고(브)공화국 적십자사가 재일본조선공민들의 귀국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콜롬보조일적십자회담을 파괴하려는 일본측의 악랄한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13일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이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을 파쑈적으로 탄압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14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이 타이에 있는 웰남거류민들을 남부웰남으로 강제송환하려는 타이반동들의 책동을 규탄.

15일 미제와 사이공괴뢰도당의 학정에 항의하여 사이공에서 약 1만 4천명의 로동자들이 파업에 궐기.

16일 남부웰남해방지역에서 인민해방무장력모범전투원회의 진행. ▲남부웰남해방적십자회가 재일본조선공민들의 귀국을 방해하고있는 일본 사또반동정부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일본의 80개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재일본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탄압말살하려는 사또반동정부를 규탄하는 련합회의 진행.

17일 쎄일론사회단체들이 콜롬보회담을 파괴하려는 일본사또반동정부의 책동을 규탄하여 공동성명을 발표.

18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이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의 여러 지부들을 습격한 일본반동정부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라오스애국군대가 남 바크를 해방하였으며 적군 1천 200명을 소멸하고 각종 무기 605정을 로획하였다고 상보를 발표. ▲ 일본인민들이(사세보에서 4만 7천명, 도꾜에서 1만 5천명) 미제국주의함대의 기항을 반대하는 항의집회 진행.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각수상으로 다시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쎄일론에서 군중집회 진행.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2일 웰남법률가협회가 타이반동들이 타이에 있는 웰남인민들을 남부웰남에 강제송환하려고 날뛰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3일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에 대한 문제들을 토의(25일까지) ▲ 라오스인민해방군 최고사령부가 건조기 첫 2개월간에 미제침략군과 괴뢰군 4천 48명을 소멸한것과 관련하여 공보 발표.

27일 미제무장간첩선의 우리 나라 령해침입과 미제의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규탄하여 꾸바공산당중앙위원회가 성명을 발표. ▲ 미제가 무장간첩선을 우리 나라 령해에 침입시켜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중국정부가 성명을 발표.

29일 웰남민주공화국정부가 미제간첩선을 나포한 조선인민의 자위적조치를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 ▲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가 미제침략군과 남부웰남괴뢰군의 캄보쟈령토침범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일본의 민주주의적인 77개 정당,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재일조선인들의 귀국과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지키는 중앙련락회의 대표자회의 진행. ▲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이 우리 나라 령해에 기어들어 정탐행위를 감행한 미제무장간첩선을 붙잡은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

30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가 미제무장간첩선의 우리 나라 령해침입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전체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단호히 징벌할것을 호소하는 명령을 발표. ▲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이 다낭시를 공격하여 적비행기 약 70대를 파괴, 괴뢰제1군단 본부와 많은 적진지 및 8개 군소재지를 점령. ▲ 일본공산당과 쏘련공산당간에 회담(2월 7일까지), 회담끝에 공동공보를 발표.

31일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이 사이공중심부를 공격하여 미제대사관을 점령하였으며 남조선괴뢰군 우두머리와 미제침략군의 《야전군사령관》소굴을 습격. ▲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이 유에시를 완전히 해방.

2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가 미제침략군의 비행기가 중국화물선을 폭격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2일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이 달라트시를 완전히 해방. ▲ 도꾜에서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도발을 규탄하여 1만 8천여명이 중앙항의집회와 시위진행. ▲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가 1월 29일부 우리 나라 외무성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

3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가 남부웰남의 모든 혁명적무장력과 인민들에게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완전히 쓸어눕힐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

7일 쎄일론의 수도 콜롬보에서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기념군중집회를 성대히 진행, 집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축전을 채택.

11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비상확대회의 (12일까지), 전반적인 남부웰남정세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토의.

15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가 미제와 티우—키도당이 사이공유에 및 기타 도시주민들에게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17일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기네의 대통령부 공보국무비서치회의실에서 사진전람회 진행.

20일 아프리카통일기구 각료리사회 제10차회의 24일까지 진행.

21일 콜롬보에서 조선인민의 반미투쟁을 지지하며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는 쎄일론 23개 대중단체대표들의 집회 진행, 집회에서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수상께 드리는 결의문을 채택.

25일 웰남민주공화국 정부가 남부웰남 도시주민들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만행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8일 존슨도당의 반동적인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여 미국 멤피스시 흑인들이 폭동. ▲ 남부웰남괴뢰군 2개대대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편으로 넘어옴(웰남통신)

29일 꾸바외무성이 꾸바상선에 대한 미제의 도발행동에 항의하여 성명을 발표.

3월

1일 꾸바전국수산위원회 수산특설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조선인민의 반미투쟁을 지지하는 모임을 진행, 모임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일본에서 진행된 《비키니의 날》 14주년을 기념하여 중앙집회 진행. 집회에서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련대성편지를 채택.

2일 아세아의 평화를 위한 일본대회 진행. 대회에서 조선인민과 웰남인민 및 아세아 각국 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할 굳은 결의를 표명. ▲ 남부예멘민족해방전선 제4차회의 진행, 회의에서 남부예멘민족해방전선은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파괴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범죄행위를 폭로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4일 이라크에 우리 나라 대사관이 개설됨.

5일 부다뻬슈뜨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야회가 진행됨. ▲ 꾸바에서 기선 《라 꾸우브레》호 폭발사건 8주년과 관련하여 반미군중집회 진행.

6일 모잠비크유격대가 3년동안에 뽀르뚜갈침략자 5천명을 소멸하고 군용차 500대를 파괴, 36대의 비행기를 쏴떨구었다고 발표. ▲아세아, 아프리카의 해방투쟁조직들이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규탄하여 공동성명을 발표.

8일 캄보쟈외무성이 미제침략자와 사이공괴뢰 및 타이반동들의 국경도발행동을 규탄하여 각서 전달.

9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이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10일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평화를 수호하는 웰남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회의》 상무위원회가 미제가 감행하고있는 야만적인 범죄행위를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세계인민들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

12일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 모리셔스가 독립을 선포.

13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이 일본령토를 미제의 침략기지로 내맡기고있는 사또반동정부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도꾜에서 77개 정당 사회단체들이 《외국인학교법안》을 국회심의에 내놓지 못하게 하며 재일 조선인의 귀국사업을 계속 보장하도록 요구하여 대표자회의를 가짐.

14일 미제침략군기지들에서 일본인로동자 2만 6천명이 처지개선 등을 요구하여 파업. ▲하노이에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선물전달식 진행.

18일 꾸바혁명수호위원회 전국지도부가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캄보쟈왕국 정부가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

20일 파키스탄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와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으로 다시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련합집회를 가짐. 집회에서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께 보내는 결의문 채택.

21일 남부웰남해방녀성동맹이 애국자 레 티 리엥을 학살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파쑈악법인 《외국인학교법안》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여 일본의 학자 교육자, 문화예술인 6천 200명이 련명으로 성명을 발표.

23일 김형직선생께서 직접 조직지도하신 《조선국민회》창건 51주년에 즈음하여 버마사회계인사들이 모임을 가짐.

27일 콜롬보에서 조선인민의 반미투쟁을 지지하며 미제의 침략책동을 규탄하는 쎄일론 31개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대군중시위와 대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께 드리는 서한을 만장일치로 채택.

30일 조선인민의 반미투쟁을 지지하며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여 벌가리아에서 공부하고있는 3대륙학생들이 모임을 가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가 침략과 대외팽창에 미쳐날뛰고있는 서독군국주의자들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국제학생동맹 집행위원회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특별성명》과 《재일본 조선공민들과 학생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조선중앙통신)

4월

3일 웰남민주공화국 정부가 미제의 두목 존슨이 북부웰남에 대한 미제의 이른바 《제한된 폭격》에 대하여 떠벌인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5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이 《제한된 폭격》을 떠벌인후에도 북부웰남의 여러 주민지역들에 폭격을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범죄적만행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6일 사또도당의 매국행위를 규탄하여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가 성명을 발표. ▲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새 사회주의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투표 진행.

7일 존슨도당을 반대하는 미국흑인폭동 62개 도시로 확대. 도처에서 흑인들이 군경들과 사격전을 진행하였으며 워싱톤에서 건물 200동을 파괴하였고 시카고에서는 1천여개소에 불을 지름.

9일 일본국제법률가련락협회가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살인재판놀음을 조사할 국제법률가조사단을 조직. ▲ 미국의흑인폭동이 110여개 도시로 확대, 백인근로자들 흑인폭동을 지지하여 2만 5천명이 항의시위에 참가.

10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웰남민주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두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간의 공동공보가 발표됨.

11일 미국흑인들 사격전을 벌리면서 125개 도시로 폭동을 확대. ▲ 서독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군국화 파쑈화를 반대하여 500여개 도시와 지역에서 투쟁에 궐기.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56주년에 즈음하여 꾸바공산당 《니꼬로뻬스》명칭 고급당학교에서 아바나문화대회에서 채택된 문헌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에 조직전개된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강연회를 진행. ▲ 일조협회확대전국리사회 도꾜에서 진행. 일조 두 나라 인민간의 친선과 련대성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당면한 운동방침을 토의결정.

15일 일본각지의 84개의 큰 탄광들에서 10만명의 탄부들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여 총파업.

18일 미국의 통신 및 전화부문로동자 16만 5천명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파업.

19일 캄보쟈왕국 정부가 캄보쟈에 외국군대가 있다는 카나다전쟁두목놈의중상을 배격하여 성명을 발표. ▲꾸바에서 쁠라야 히론전투승리 7주년을 기념하는 경축모임과 행사 진행.

20일 아바나 미겔 사베뚜라기능공양성학교에서 항일유격대창건 36주년 경축집회 진행. ▲ 남부웰남에서 웰남민족민주평화동맹창립대회 진행.

23일 꾸바의 아바나설비제작공장과 꾸바혁명군 부대에서 영광스러운 항일유격대창건 36주년기념집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7일 미국의 전지역에서(뉴욕에서만도 26만명참가) 죤슨도당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투쟁을 벌림.

30일 미제침략군과 사이공괴뢰군의 침략행위를 규탄하여 캄보쟈정부가 성명을 발표.

5월

1일 일본전국의 1천 913개장소에서 680여만의 근로자들이 미일반동들을 반대하는 군중대회와 시위행진을 진행.

3일 웰남민주공화국과 미국간의 대화를 가질데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

6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가 남부웰남의 모든인민과 전투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7일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 사이공에서 미제침략군의 땅크와 장갑차를 처물리치면서 3일째 치렬한 시가전을 진행.

8일 웰남민주공화국 호지명주석이 봄총공세와 전면적인 봉기에서 거둔 승리를 축하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원우수위원장과 중앙위원회 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냄.

11일 8만명의 서독근로자들이 파쑈적인 《비상법》을 반대하여 군중집회를 가짐.

13일 프랑스전국의 100여만 근로자들이 반동당국의 반인민적교육정책을 반대하는 빠리대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24시간 총파업. ▲ 웰남민주공화국정부대표와 미국정부대표간의 정식대화 빠리에서 시작.

14일 알제리정부가 제국주의독점자본가놈들의 소유인 석유 및 가스공급회사들을 국유화.

17일 영광스러운 항일유격대창건 36주년에 즈음하여 까나리아섬자결독립운동 총비서로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인민에게 축하문을 보냄(조선중앙통신). ▲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히 투쟁할것을 일본의 민주주의적인 77개 정당, 사회단체들이 결의.

18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이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탄압말살하려는 일본 사또반동정부의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1일 평고(브)에서 조선인민의 반미투쟁을 지지하는 사회단체들의 련대성집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만장일치로 채택. ▲ 프랑스에서 파업자들이 600만명으로 늘어나고 사회경제활동이 완전히 마비. 프랑스공산당 정치국이 파업자들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

22일. 로므니아에서 공부하고있는 4대륙학생들이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가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3일 프랑스근로자들의 정치파업 계속확대. 800만의 파업자들이 400여개의 공장을 점거하였으며 전국의 경제문화기관들이 마비상태에 빠짐.

25일 프랑스농업로동자들이 전국적인 투쟁에 궐기하여 파업자들의 대렬은 1천만명으로 확대.

26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대외련락위원회가 일본반동당국의 《외국인학교법》조작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7일 적도기네인민사상당 총비서가 미제의 발광적인 새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성명을 발표. ▲프랑스의 900여만명의 파업자들이 공장들과 학교들을 계속 점거.

28일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 제3기 제4차 회의 진행. 《모든것을 미국침략자들을 타승하기 위하여》라는 구호를 실천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당면과업을 토의. ▲ 캄보쟈외무성이 죤슨도당에게 캄보쟈경내에 침입한 미제침략군을 캄보쟈의 법에 따라 처리할것이라는 각서를 보냄.

29일 보천보전투승리 31주년에 즈음하여 꾸바 마딴사스주의 까르데나스시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군중집회를 진행.

6월

4일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일미《안보조약》을 분쇄하기 위하여 전체 민주력량이 통일전선을 무을것을 호소.

6일 끼쁘로스에서 진행된 세계평화리사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호소문이 채택됨.

8일 모리따니정부가 미제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 뽀르뚜갈 및 남아프리카와 일체 경제관계를 끊을데 대한 법안을 채택.

10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가 빠리대화에서의 미제의 부당한 립장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13일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라왈핀디지부결성 회의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서한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그이께 드리는 선물을 파키스탄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대리에게 전달.

14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가 사이공지역의 인민해방무장력과 인민들에게 새로운 더 큰 승리를 거둘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

19일 국제학생동맹 서기국이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자기의 모든 성원단체들에 서한을 보냄.

20일 세계민청뷰로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

22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 꾸바조직위원회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기자회견을 가짐.

23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이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일본 사또반동정부의 탄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4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대외련락위원회가 재일조선인들을 탄압하고 있는 사또반동정부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5일 꾸바 각지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모임 진행.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모형물에 대한 화형식 진행. ▲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하노이에서 군중대회를 가졌으며 일본의 50개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임을 가짐. ▲ 북부웰남에서 3천대째의 미제침략군의 비행기가 박산이 남.

26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가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남부웰남인민의 신성불가침의 권리라는것을 재천명하여 성명 발표.

27일 일본의 출판보도부문일군 8만명이 출판보도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부당한 간섭에 항의.

28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결의를 채택.

29일 미제침략군과 남부웰남괴뢰군의 살인만행에 강력히 항의하여 캄보쟈정부가 성명을 발표.

7월

1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아련에서 공부하고있는 3대륙류학생들이 집회를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남부웰남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남부웰남인민의 신성불가침의 권리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4일 쏘련에서 조쏘우호협조및호상원조조약 체결 7주년을 기념하여 집회진행.

5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가 북부웰남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강화하고있는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10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아바나종합대학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1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 진행. 음력설공세이후의 남부웰남정세를 분석하고 당면과업을 토의.

12일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이 케산지역을 완전히 해방. 호지명주석이 케산지역에서 미제침략군을 때려부신 승리를 축하하여 편지.

17일 캄보쟈에서 자기 나라 령해를 침범한 미제해적선을 나포. ▲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가 웰남에 관한 제네바협정체결 14주년에 즈음하여 비망록을 발표. ▲ 이라크에서 정변이 일어남.

18일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승리 15주년에 즈음하여 베를린에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학생, 연구원, 로동자들이 집회를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도당의 새로운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캄보쟈정부가 성명을 발표.

19일 뤃롬보에서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승리 15주년경축 쎄일론대중단체대표들의 군중대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께 드리는 축하편지를 채택.

20일 웰남민주공화국 호지명주석이 웰남에 관한 제네바협정체결 14주년에 즈음하여 전국 인민들과 전투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21일 아랍련합공화국에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군중집회를 가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도당의 도발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여 캄보쟈왕국 정부가 성명을 발표.

23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가 웰남에 관한 제네바협정체결 14주년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조선중앙통신) ▲ 라오스애국전선당 중앙위원회가 라오스에 관한 1962년 제네바협정체결 6주년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 (조선중앙통신)

25일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승리 15주년을 경축하여 꽁고(브)제인민간의친선협회에서 집회를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내는 축전을 채택. ▲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가 남조선을 또다시 침략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신랄히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6일 싼따 끌라라시에서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15주년을 경축하는 중앙군중집회를 진행.

28일 벌가리아의 수도 쏘피아에서 제9차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8월 6일 폐막)

29일 꾸바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을 마감짓는 군중집회를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31일 일본에서 제14차원수폭금지세계대회 국제예비회의를 시작(8월 2일까지) 전체 참가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신 축전을 우렁찬 박수로 환영. ▲ 캄보쟈정부가 미제침략군의 야수적인 폭격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8월

2일 알제에서 제3차아프리카녀성대회 진행.

3일 일본에서 제14차원수폭금지세계대회 본회의 개시(5일폐막), 웰남에서의 미제의 침략과 전쟁범죄를 규탄하며 웰남인민의 완전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국제통일행동을 강화할데 대한 호소문과 일반결의를 채택.

4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이 미제의 흉악한 침략전쟁강화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5일 웰남민주공화국 정부가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신랄히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브라질전국대학생련맹이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탄압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6일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승리 15주년에 즈음하여 웽그리아에서 공부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류학생련대성위원회의 주최하에 외국류학생들이 조선인민과 련대성집회를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조선중앙통신). ▲ 제14차원수폭금지세계대회 히로시마대회 진행.

7일 캄보쟈왕국정부가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탄압행위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10일 김일성동지의 론문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발표 1주년을 기념하여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학생들이 기념집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가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12일 남부웰남에서 감행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는 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

15일 꽁고(브)공화국에서 8월 혁명승리 5주년을 성대히 기념.

16일 라오스애국전선당 중앙위원회 대변인이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 미제를 신랄히 규탄하고 1968년 7월 25일부 비망록에 천명된 우리 나라 정부의 립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 ▲ 일본총평 제36차정기대회가 조선에서의 미제의 군사도발에 항의하며 재일조선인의 민족권리를 옹호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

21일 체스꼬슬로벤스꼬사태에 대한 따스의 성명 발표.

29일 캄보쟈정부가 동남아세아지역에서 새로운 침략적군사동맹을 조작해내려는 미제의 흉악한 책동을 강력히 항의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9월

7일 알제리의 메데아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경축집회 진행, 집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께 드리는 축전을 채택. ▲ 라오

스애국전선과 진정한 중립파의 제3차 전국정치련합회가 라오스해방지역에서 열림.

8일 콜롬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을 경축하여 군중집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축하편지를 채택.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을 경축하여 로므니아에서 공부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류학생들과 기네에서 공부하고있는 모리따니학생들 경축집회를 진행. 경축집회들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축하편지를 각각 채택. ▲ 파키스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을 경축하여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가 모임을 가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께 드리는 축하편지를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경축하여 단마르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련대성집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께 드리는 결의문 채택.

11일 꾸바수도 아바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을 경축하는 아바나시군중집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3일 제5차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 및정부수뇌자회의 알제에서 개막(16일 폐막).

18일 캄보쟈왕국 정부가 미제의 반동적인 출판기관들이 캄보쟈를 반대하여 계통적으로 감행하고있는 중상깜빠니야를 신랄히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0일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이 아세아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주간에 즈음하여 호소문을 발표. ▲ 3대륙인민단결기구가 라오스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의 날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

21일 아랍의 알렉산드리아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집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9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이 미제침략군이 웰남의 비무장지대를 또다시 침범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10월

1일 미국의 동부해안연선일대에서 7만 5천여명의 부두로동자들이 총파업.

2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가 유엔총회 제23차회의에 《조선문제》를 상정시켜 토의케 하려는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3일 3대륙인민단결기구가 국제주의전사 체 게바라의 서거 1주년에 즈음하여 호소문을 발표.

8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가 미제국주의자들이 북부웰남해안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일본에서 약 200만명의 근로자들이 생활처지와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공동투쟁을 벌림.

10일 조선로동당창건 스물세돐을 경축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를 환영하는 군중대회 꽁고(브)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이 타이에 있는 웰남인민들에 대한 타이반동당국의 박해에 항의하여 성명을 발표. ▲ 꾸바인민들이 100년간의 투쟁기념 야회를 진행.

11일 와르샤와에서 뽈스까인민군창건 25주년 경축회의 진행.

12일 적도기네가 독립을 선포.

14일 남부예멘인민공화국에서 무장혁명개시 다섯돐을 성대히 기념.

15일 아바나에서 웰남에서의 미제의 대중학살 만행을 규탄하는 제2차토론회 개시(30일까지), 미제의 야수적인 범죄적행동을 단호히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1일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여 일본에서 100만명의 로동자, 사무원들이 군중집회, 시위 및 파업을 벌림.

24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과 내무성이 서부베를린에 대한 서독군국주의자들의 도발책동을 규탄하여 성명과 항의문을 발표(조선중앙통신).

25일 라오스애국전선 제3차전국비상대회 개막(11월 1일 폐막) ▲ 쏘련에서 우주비행선 《쏘유즈—2》호를 쏴올림.

26일 남부예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을 개설. ▲ 쏘련에서 사람이 탄 우주비행선 《쏘유즈—3》호를 인공지구위성궤도에 쏴올림. (30일 무사히 지구에 내림)

27일 세계직련이 유엔에서의 비법적인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하여 우탄트에게 항의편지를 보냄(조선중앙통신)

29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이 사또반동정부가 재일조선공민들을 탄압하고있는데 항의하여 성명을 발표. ▲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이 유엔총회 제23차회의에 소위 《조선문제》를 상정시켜 토의케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조선중앙통신)

30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대외련락위원회가 재일조선공민들에게 괴뢰 《한국국적》을 강요하려하고있는 일본 사또반동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성명을 발표.

11월

1일 아랍에서 인민방위군을 창설.

2일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는 미제가 웰남민주공화국 전령토에 대한 폭격 및 포격을 중지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3일 웰남민주공화국 호지명주석이 미제가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 및 포격을 중지한것과 관련하여 전체 웰남인민과 전투원들에게 호소문을 보냄. ▲ 서독군국주의자들의 서부베를린에서의 도발책동을 규탄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가 성명을 발표.(조선중앙통신). ▲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가 남부웰남문제의 정치적해결에 관한 성명을 발표. ▲ 웰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비상확대회의를 열고 종국적인 승리를 향하여 용감히 전진할것을 전국에 호소하여 성명을 발표. ▲ 웰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이 남부웰남인민의 투쟁의 새로운 정세에 관한 성명을 발표.

4일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무조건 폭격중지와 관련하여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가 성명을 발표.

7일 모스크바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51주년을 경축하는 군중대회와 열병식 진행. ▲ 웰남공민들에 대한 타이반동당국의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

9일 캄보쟈왕국정부가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범죄적인 침략행위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이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 대한 련대성을 더욱 강화할것을 호소하여 성명을 발표.

11일 웰남적십자회가 웰남공민들에 대한 타이반동들의 박해행위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12일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에서 1968년 반미구국투쟁에서 거둔 승리를 총화.

14일 웰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

무위원회가 타이에 있는 웰남공민들을 탄압하고있는 타이반동당국을 준렬히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이딸리아 전국각지의 로동자, 근로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자 1천 200만명이 총파업에 참가.

16일 캄보쟈에서 프놈 뻰 제1차국제영화축전이 시작됨.

17일 일본에서 90여만의 근로자들이 사또반동정부의 물가인상정책에 항의하여 전국적인 집회와 시위를 진행.

20일 꾸바혁명정부가 꾸바어선을 비법적으로 나포한 베네수엘라친미반동정부의 해적행위를 규탄하여 각서를 발표. ▲ 임금인상과 생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일본의 170여개 도시들에서 의료일군 17만명이 파업을 벌림.

22일 세계평화리사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호소문을 채택. ▲ 캄보쟈왕국 정부가 캄보쟈인민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새로운 범죄행위를 신랄히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를 지지환영하여 쏘련에서 공부하고있는 3대륙학생들이 모임을 가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6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이 미제침략군 비행기들이 북부웰남령공에 침입하여 폭격을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8일 라틴아메리카대학생기구 상설서기국이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총회 제23차회의에서 이른바 《조선문제》를 부당하게 토의케 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대외련락위원회대변인이 북부웰남에 대한 미제의 폭격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9일 꾸바녀성련맹 전국지도부가 소위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에 또다시 상정시켜 토의케 하려는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조선중앙통신)

30일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의 날》 열돐을 기념하는 아프리카류학생들의 친선모임 쁘라하에서 진행. 체스꼬슬로벤스꼬에 있는 아프리카학생련맹과 구라파에 있는 아프리카학생동맹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2월

2일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의 날》 열돐에 즈음하여 뽈스까에서 공부하고있는 아프리카류학생들이 친선모임을 가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꾸바에서 12월 2일을 혁명군절로 기념하기로 결정. ▲ 꾸바해군경비정들이 미제의 졸개인 반혁명분자들의 간첩선을 나포.

3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이 북부웰남의 꽝 빈주와 빈 린지역을 새로이 공습한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4일 국제학생동맹 서기국이 조선에서의 미제의 침략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는 회답서한을 산하 단체들에 보냄.

5일 라오스애국전선이 삼 누아해방지역에서 제3차전국대회를 진행. 대회에서 새 정강과 호소문을 채택(조선중앙통신) ▲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와 인민해방무장력 총사령부가 년말, 년시에 즈음하여 일시 군사적공격을 중지할데 대한 성명과 명령을 각각 발표.

7일 알제리에서 아프리카와 중근동학생들이 집회를 진행.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혁명가 및 애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

8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가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한 유엔에서의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9일 국제학생동맹이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련대성 편지를 채택하였으며 또한 남조선애국자들의 반미반괴뢰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을 산하단체들에 호소하는 전문을 채택.

11일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의 날》 열돐에 즈음하여 3대륙류학생들이 베를린에서 친선모임 진행(조선중앙통신). ▲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대외련락위원회와 꽁고(브)로조련맹, 꽁고(브)적십자집행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의 일본재입국을 거부하고있는 일본반동정부를 신랄히 규탄하여 각각 성명을 발표(조선중앙통신).

12일 쎄일론의 23개 민주주의적사회단체들이 유엔에서 이른바 《조선문제》를 토의케 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여 공동성명을 발표(조선중앙통신)

18일 하노이에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창건 8주년 기념경축대회를 진행.

19일 남부웰남해방지역에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창건 8주년 기념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20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가 창건 8주년에 즈음하여 호소문을 발표. ▲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총사령부가 1968년에 미제침략군과 추종군 23만여명을 포함한 적 63만명을 살상,포로하였으며 6천대의 각종 비행기를 쏴떨구거나 파괴하였고 땅크 및 장갑차 7천여대를 포함한 군용차 1만 3천 500대를 파괴하였다는 공보를 발표.

21일 꽁고(브)에서 공부하고있는 중부아프리카학생들이 김일성수상께서 발표하신 론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 불패이다》를 지지환영하는 모임을 가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아프리카사회에서의 아프리카녀성들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에 참가한 아프리카녀학생대표들이 김일성동지의 론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지지환영하여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2일 벌가리아에서 공부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류학생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발표 한돐에 즈음하여 모임을 진행.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만장일치로 채택.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력사적인 10대정강 발표 한돐에 즈음하여 알제리에서 연구토론회를 진행. ▲ 알제리옛투사전국리사회가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야만적인 탄압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5일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이 남조선무장유격대의 투쟁을 지지하여 호소문을 발표(조선중앙통신)

30일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지지 환영하는 아프리카 나라 대학생들의 집회가 브라자빌에서 진행, 집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조선중앙년감(1969년판)

발행소	**조선중앙통신사**	평양시 외성구역 오탄동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 쇄	1969년 11월 20일	발행 1969년 12월 20일

ㄱ—93236 값 5원 50전